조선중앙년감

1978

조선중앙통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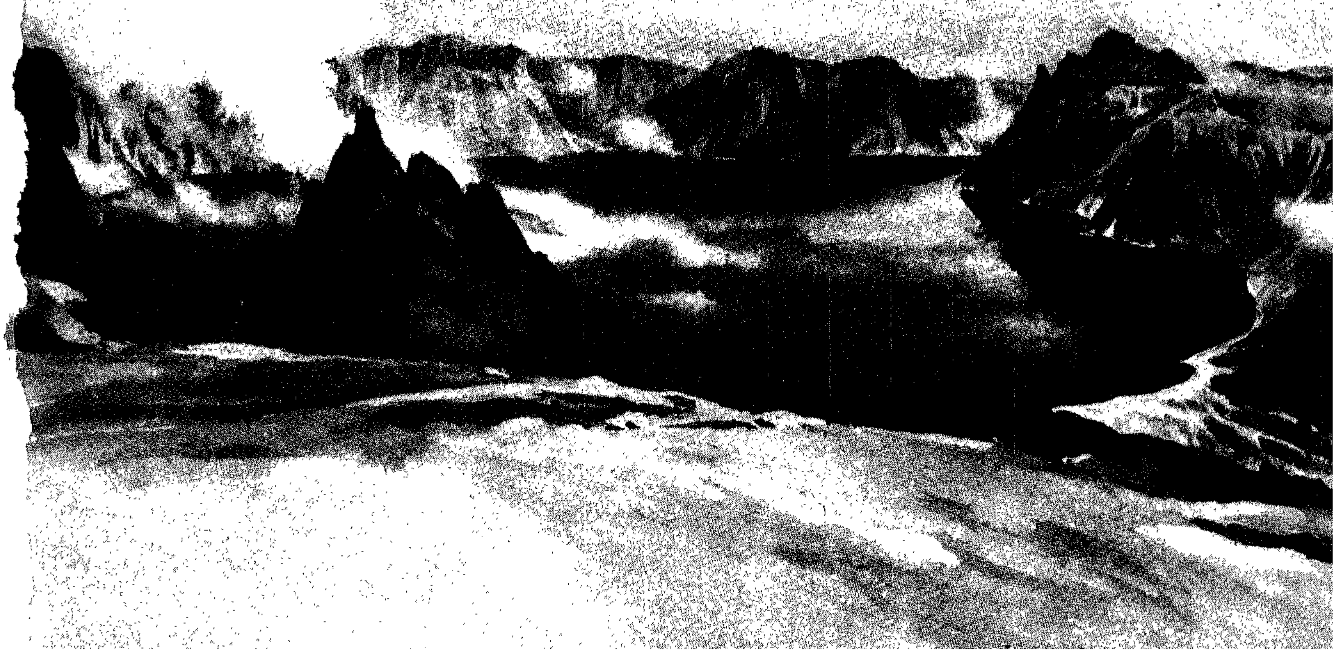
김일성장군의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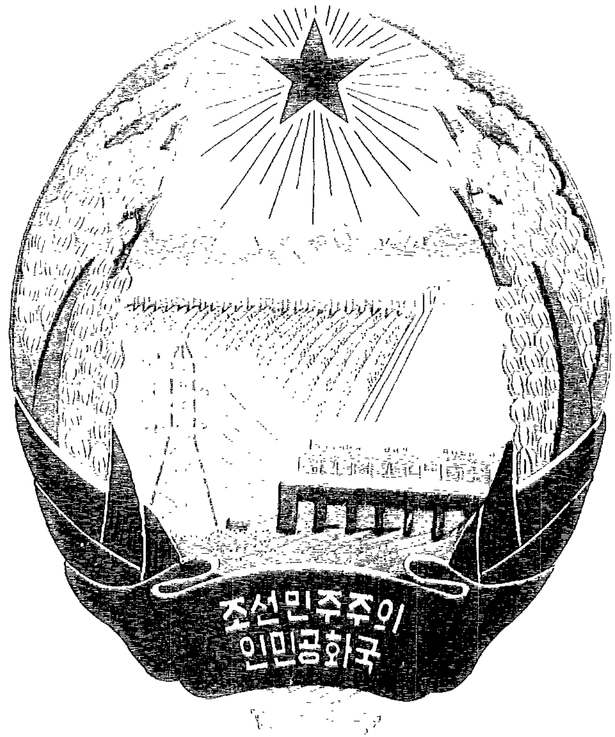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 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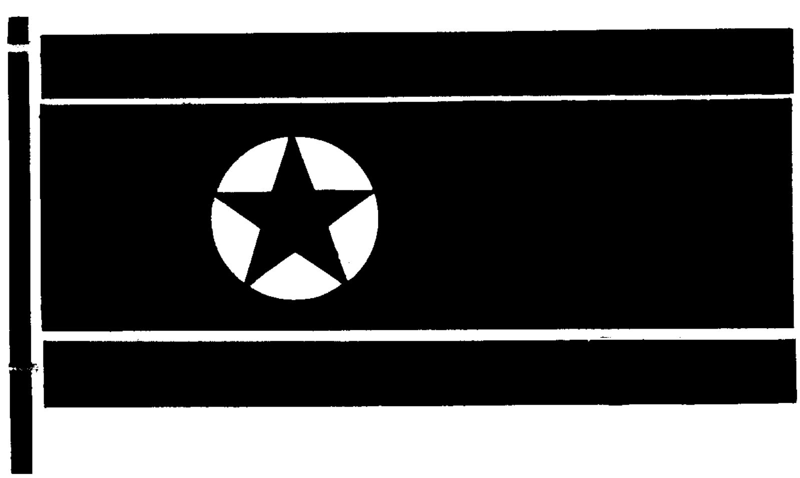
아 그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만주벌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밀림의 긴긴밤아 이야기하라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아 그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차 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축전 및 축하문, 공개서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주요회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보아주신 예술공연

외국국가수반들의 우리 나라 방문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전통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5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뜻깊게 기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추대

주요회의 및 기념일행사

사회주의경제건설

사회주의문화건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미제강점하의 남조선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애국적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는것은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조류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의 강화 …… 378

국제회의

아 세 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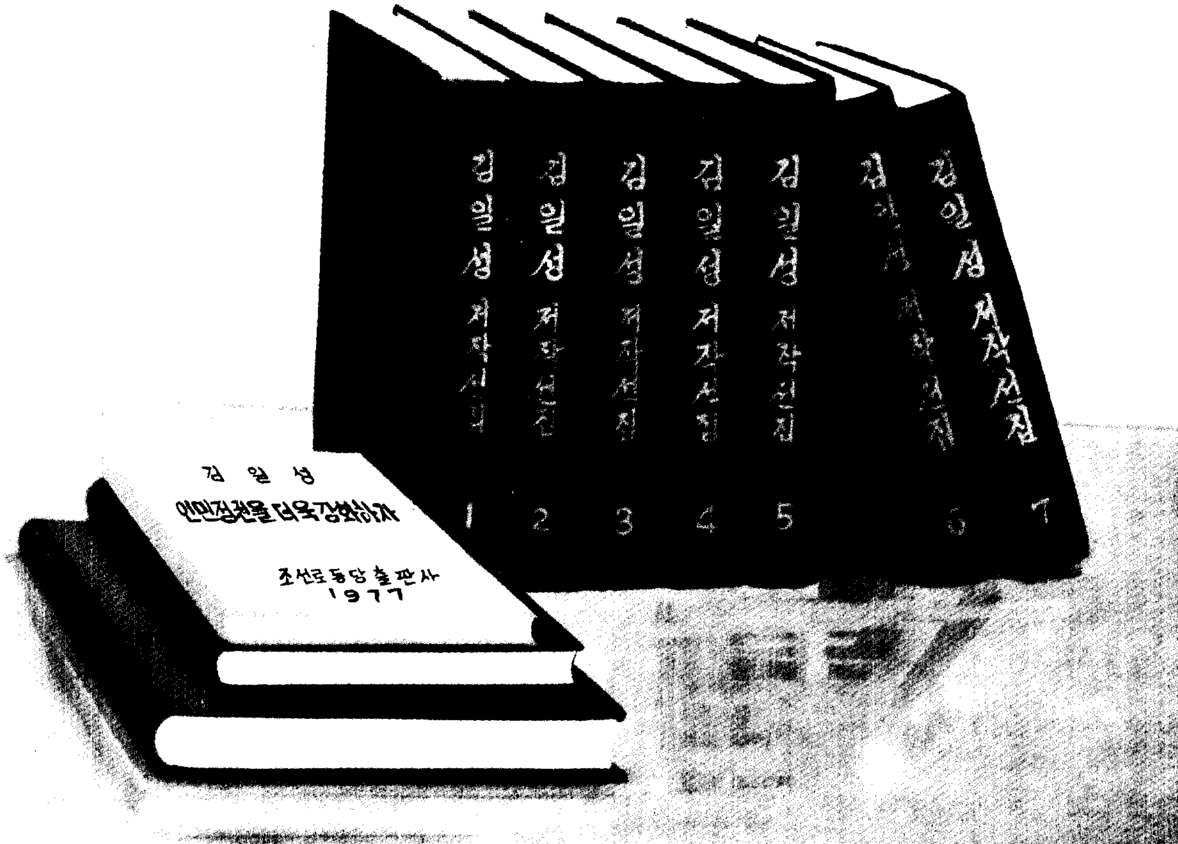
구 라 파

북 미

대 양 주

량극지방

자 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신 년 사

1977년 1월 1일

동지들!

우리는 혁명과 건설을 위한 보람찬 투쟁속에서 승리의 한해를 보내고 새로운 투쟁과 영광으로 빛날 희망찬 새해 1977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사회주의건설과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고있는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들, 영용한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인테리들을 비롯한 전체 조선인민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또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폭압에도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적자유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민주인사들,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멀리 이국땅에서 사회주의조국을 희망의 등대로 바라보면서 뜨거운 조국애와 용감한 투쟁정신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는 60만 재일동포들과 해외의 모든 동포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는 승리자의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새해의 첫아침을 맞이하면서 간고한 투쟁과 뜻깊은 사변들로 가득찬 지난해를 기쁜 마음으로 돌이켜보게 됩니다.

1976년은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6개년계획을 전반적으로 완전히 수행한 력사적승리의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3대혁명의 붉은 기발을 높이 들고 힘차게 투쟁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서 6개년계획과제를 완전히 수행하는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6개년계획이 빛나게 수행된 결과 우리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더욱 강화되고 우리의 혁명기지는 보다 튼튼히 다져졌으며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또하나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게 되였습니다.

지난해에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힘찬 로력투쟁을 벌려 6개년계획의 가장 어려운 고지의 하나였던 강철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였습니다. 야금기지건설자들과 강철전사들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압연분공장건설을 완공하고 강선제강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중요야금공장들의 확장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400만톤의 강철생산능력을 조성함으로써 강철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렸습니다.

세멘트고지도 성과적으로 점령하였습니다. 건재기지건설자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현대적설비를 갖춘 300만톤 능력의 순천세멘트공장이 조업할수 있게 되였으며 천내리세멘트공장을 비롯한 여러 세멘트공장들의 생산능력이 훨씬 늘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세멘트생산능력은 800만톤이상에 이르게 되였으며 6개년계획의 마지막고지로 남아있던 세멘트고지도 드디여 정복되였습니다.

전력공업, 화학공업, 기계공업 부문의 생산토대도 더욱 강화되였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6개년계획의 생산과제를 훨씬 넘쳐수행하였습니다.

지난해에 특히 기본건설부문에서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당에 끝없이 충직한 건설부문의 로동계급은 대중적영웅주의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대야금기지건설과 건재

기지건설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였을뿐아니라 수많은 어려운 건설공사들을 훌륭히 해내였습니다. 용감한 건설전사들은 청천강화력발전소, 대동강발전소, 서두수2호발전소, 청년화학종합공장과 여러 기계공장을 비롯한 중요대상들의 건설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짧은 기간에 안주와 남청진 지구에 현대적인 새 도시를 일떠세웠습니다. 기본건설이 대대적으로 진행됨으로써 공업의 부문내부구조가 한층 완비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가 더욱 튼튼해졌으며 도시와 농촌이 아름답게 변모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농업부문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지난해에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자연기후조건이 매우 불리하였으나 우리의 근면한 농업근로자들과 농촌지원자들은 온갖 애로와 난관을 이겨내고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보는 대풍작을 이룩함으로써 800만톤이상의 알곡고지를 점령하였습니다. 농업생산에서의 이러한 성과는 우리 당 농업정책의 정당성과 주체농법의 생활력을 뚜렷이 증명하여주는것입니다. 오늘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세계적범위에서 농사가 잘 안되는 때에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해마다 대풍작을 이룩하는데 대하여 우리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수 있습니다.

지난해에 자연개조 5대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결정을 받들고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 대자연개조사업을 힘있게 벌린 결과 두달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밭관개면적이 훨씬 늘어나고 많은 다락밭이 새로 생겨났으며 농경지들을 큰물피해로부터 더 잘 보호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나는 지난해에 영웅적투쟁을 벌려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6개년계획을 완전히 수행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린 우리의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우리 나라의 정세는 매우 긴장하였으며 우리 인민은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세계인민들의 힘찬 혁명투쟁에 의하여 정치,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진 미제국주의자들은 전쟁의 방법으로 출로를 찾으려고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습니다. 미국의 포드행정부는 지난해 8월 18일 계획적으로 《판문점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소동을 미친듯이 벌렸습니다. 포드행정부는 남조선에 있는 모든 침략무력에 전투태세를 갖출데 대한 명령을 내리고 남조선일대에 현대적군사장비들과 병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면서 그 무슨 《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우리를 위협하였습니다.

포드행정부의 악랄한 전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에는 당장 전쟁이 터질수 있는 위기일발의 사태가 조성되였으며 아세아와 세계의 평화는 엄중한 위협을 당하게 되였습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위급한 시각에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우리 나라에 조성된 사태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우리 인민이 미제의 무모한 침략책동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것을 커다란 관심속에 주시하였습니다.

오랜 기간의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우리 당과 인민은 적들의 위협공갈에 조금도 굴하지 않았으며 그에 대하여 응당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용한 인민군장병들과 로농적위대원들, 붉은청년근위대원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은 당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적들의 침략책동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섰으며 한손에는 총을 들고 다른 한손에는 낫과 마치를 들고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한편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적들의 무모한 도발책동을 성과적으로 저지시키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켜냈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판문점사건》을 통하여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과 혁

명적기개를 온 세상에 널리 시위하였으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평화애호정책의 정당성을 다시한번 뚜렷이 실증하였습니다.

지난해의 간고한 혁명투쟁과정에 당과 대중의 통일단결은 더욱 강화되였으며 인민들은 정치사상적으로 단련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싸워나갈 때 그 어떤 원쑤도 때려부실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으로 가득차있으며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울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습니다. 당과 대중의 강철같은 통일단결과 인민들의 드높은 혁명기세는 우리의 모든 승리의 믿음직한 담보로 됩니다.

나는 지난해에 당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무비의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적들의 악랄한 침략책동을 단호히 저지시키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켜낸 우리의 영용한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 로농적위대와 붉은청년근위대 대원들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당중앙위원회는 새해 1977년을 6개년계획수행과정에 일부 경제부문들에 조성된 긴장성을 풀며 새 전망계획 수행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갖추는 완충의 해로 정하였습니다.

최근년간 6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돌격전을 벌리는 과정에 일부 경제부문들에 일시적으로 긴장성이 조성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경제에서는 생산의 빠른 장성에 수송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있으며 채취공업이 가공공업을 확고히 앞서나가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일부 가공공업부문들에서 생산을 더 빨리 높일수 있는것을 높이지 못하고있으며 기본건설에서도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있습니다.

생산과 건설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밀고나가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사이의 정확한 균형을 보장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중요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올해에 수송의 긴장성을 풀며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는데 큰 힘을 넣으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완충의 해에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중심과업입니다.

올해에 무엇보다도 큰 힘을 넣어야 할 전선은 수송전선입니다.

수송전선을 추켜세우는것은 이미 점령한 고지들을 공고히 하며 새로운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 수송의 긴장성을 풀고 수송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 원료와 연료, 자재들을 제때에 날라주어야 이미 건설해놓은 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릴수 있고 새로운 공장들을 더 많이 건설할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전반적발전을 원만히 보장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를 수송전선을 추켜세우는 해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송전선에서는 철도운수를 기본으로 하면서 륙운과 해운을 다같이 발전시켜야 합니다. 철도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전기화를 계속 다그치는 한편 전기기관차와 내연기관차, 60톤짜리 화차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유조차를 비롯한 여러가지 특수화차들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10톤짜리와 25톤짜리 대형화물자동차를 비롯한 화물자동차들을 많이 만들며 1만톤짜리이상의 큰 짐배를 많이 무어 자동차와 배 수송능력을 훨씬 높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을 적극 기계화하고 수송조직을 개선하며 운수부문에서 혁명적인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수송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채취공업에 힘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이며 그것은 공

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근본조건으로 됩니다. 특히 최근년간에 야금공업을 비롯한 가공공업부문의 생산능력이 대대적으로 확장되고 화력발전소들이 많이 건설됨으로써 여러가지 광물과 석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미 건설된 공장, 기업소들이 제대로 은을 내는가 못내는가 하는것은 채취공업부문에서 원료와 연료를 충분히 생산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탄광들에서 박토와 기본굴진을 앞세우고 기술혁신을 일으켜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임으로써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공장, 기업소들과 각 부문의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확장하여 야금공장들의 원료기지를 튼튼히 조성하여야 합니다. 무산광산, 덕현광산, 은률광산, 검덕광산을 비롯하여 규모가 크고 전망성있는 광산들의 확장공사를 다그치며 광물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광업부문에서는 야금공업에 필요한 원료를 2개월이상 앞세우는것을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고 투쟁하여야 합니다.

특히 유색금속광물생산을 늘이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지금 있는 유색금속광산들을 더욱 확장하는 한편 새로운 유색금속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며 제련능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제련소들을 보강하여 그 생산능력을 늘이며 단천제련소 건설을 다그쳐 올해안으로 조업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광업부문에서는 또한 마그네샤크링카생산을 현대화하기 위한 건설사업을 힘있게 추진하여 질좋은 마그네샤크링카를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가장 절박한 문제의 하나는 전력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는것입니다.

전력은 현대산업의 기본동력의 하나이며 우리 나라의 동력구성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습니다. 오늘 생산과 건설이 빨리 발전하는데 따라 전력에 대한 인민경제의 수요가 급격히 높아지고있는 반면에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수력발전소들에서의 전력생산이 많은 제한을 받고있는 조건에서 전력문제를 원만히 푸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전력공업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설비들을 잘 관리하고 제때에 점검보수하여 모든 발전기를 만부하로 돌림으로써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이미 마련하여놓은 발전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것과 함께 새로 발전능력을 더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는 위원발전소, 희천2호발전소, 대동강발전소, 서두수3호발전소, 청천강화력발전소 건설에 힘을 집중하여 그 조업기일을 앞당겨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경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며 그 질을 한계단 더 높이는것입니다. 경공업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온갖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동원리용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특히 곡산공장을 비롯한 식료가공공장들을 잘 돌리며 식료가공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인민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야 하겠습니다.

한랭전선의 영향이 지속되고 전세계가 식량위기를 겪고있는 조건에서 농업전선은 올해에도 여전히 주공전선의 하나입니다.

우리는 농업생산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알곡 1,000만톤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농업부문에서는 한랭전선의 영향을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 올해에 또다시 알곡생산에서 대비약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서 농업전선을 물질기술적으로, 로력적으로 힘있게 지원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근본방도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에서 내세운 자연개조 5대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전군중적운동으로 발관개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다락밭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며 토지정리와 토지개량, 강하천정리 사업을 힘있게 벌려 가까운 년간에 알곡 1,000만톤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수산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해양조건은 수산업발전에 매우 유리하게 변화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올해에 수산전선에 큰 힘을 넣어 수산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수산부문에서는 과학적인 어로체계를 세우고 적극적인 어로활동을 벌려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아내며 물고기가공사업을 개선강화함으로써 물고기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하겠습니다.

물고기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하여서는 물고기생산기지들을 튼튼히 꾸리며 수산업의 물질기술적수단들을 더욱 현대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여러가지 현대적인 어구들과 고기배들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조선소들을 확장하고 배생산능력을 높여 1만톤짜리 이상의 대형가공모선과 3,750톤짜리 선미뜨랄선을 많이 만들며 450톤짜리 배를 비롯한 중소형고기배들도 많이 무어야 하겠습니다.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개선하며 증산, 절약 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며 살림살이를 깐지게 하여 연료와 원료, 자재를 극력 절약하고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며 있는 설비, 있는 자재,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원가를 계획보다 2%이상 낮추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부문에서 전력랑비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제품단위당 전력소비기준을 낮추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며 전기절약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3대혁명을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우리는 3대혁명수행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심화발전시키며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적지혜를 적극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정세는 여전히 긴장합니다. 전체 인민들은 적들의 침략책동이 계속되고있는 조건에서 혁명적경각성을 조금도 늦추지 말고 언제나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은 전투정치훈련을 잘하여 부대의 전투준비와 전투력을 더욱 강화하며 조국의 초소를 튼튼히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의 위업을 실현하지 못한채 또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갈라진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는것은 전체 조선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망이며 이것은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절박한 요구로 나서고있습니다.

지난해에 남조선 인민들과 애국적민주인사들은 괴뢰통치배들의 파쑈적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굴함없이 투쟁하였으며 60만 재일동포들을 비롯하여 해외에 있는 동포들도 남조선괴뢰도당의 반민족적죄행을 폭로규탄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렸습니다.

새해에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과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은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에서 힘을 합치고 굳게 단결하여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야 할것입니다.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해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옳바른 대외정책과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제3세계인민들과의 단결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세계각지에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이 힘있게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8월에 콜롬보에서 진행된 제5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는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 우리 당의 조국통일방침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제3세계나라들과 일본, 프랑스, 벨지끄,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모든 대륙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위원회들이 조직되였으며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목소리가 힘있게 울려나왔습니다. 우리는 세계진보적인민들속에서 우리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성원하는 련대성운동이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우리의 혁명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세계 진보적인민들과 벗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보냅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제3세계나라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진보적인민들과의 단결과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그리하여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며 미국으로 하여금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우리의 정당한 제의에 응해나서도록 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보다 유리한 국면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혁명과업은 매우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과업입니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우리 인민이 있는 이상 우리는 올해의 혁명투쟁에서도 반드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것입니다.

모두다 맑스—레닌주의기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당중앙위원회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보다 큰 승리를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사 상무취체역인 편집국장 일행과 한 담화

1977년 4월 23일

나는 당신들이 나의 생일에 즈음하여 보내준 좋은 축하편지와 귀중한 선물을 감사히 받았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직접 만나서 따뜻한 축하의 말씀을 하여주니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당신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총련 한덕수의장으로부터 당신들이 우리 나라에 오면 잘 대접해달라는 소개편지를 받았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는 총련의 사업을 위하여 좋은 일을 많이 하고있는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들을 벌써 만났어야 했겠는데 지방에 출장갔다가 어제 평양에 돌아오다보니 좀 늦어졌습니다. 지방에서도 당신들을 만날수 있었지만 당신들이 제기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하

여 대담을 주려면 몇시간 담화를 해야 될것 같고 또 당신들은 우리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고 있는분들이기때문에 평양에서 토요일을 리용하여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여 좀 늦게 만나게 되였는데 량해하여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당신들을 위하여 시간을 낸것만큼 사양말고 이야기할것이 있으면 다 이야기하는것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처음 만나지만 오랜 벗들을 만난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들이 내가 생일날에도 지방에 나가 사업하고있다는 말을 듣고 대단히 놀랐다고 하는데 원래 나는 생일을 쇠지 않습니다. 이번 생일날에도 경축행사를 조직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는데 청년들이 듣지 않고 저희들끼리 모여 행사를 좀 한것 같습니다. 나의 생일 60돐때에는 시하누크가 와서 붙들고 놔주지 않기때문에 《포로》가 되여 할수없이 평양에서 지냈습니다.

생일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생일을 다 축하하자면 큰일나지 않겠습니까.

물론 생일날에 친구들 몇사람이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일을 성대하게 쇠는것은 반대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어린이보육교양문제를 비롯한 많은 문제들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와 우리 인민은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교육교양하는 문제를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국가가 맡아서 키우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350만명이며 인민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510만명이나 됩니다. 탁아소, 유치원 어린이들과 각급 학교 학생들을 모두 합하면 800만이 훨씬 넘는데 이것은 우리 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이나 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국가가 맡아서 키우며 공부시키고있습니다.

물론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사람을 국가에서 맡아키우며 공부시키려고 하니 부담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미래를 위한 사업이기때문에 부담을 걸머지고 곤난을 이겨내면서 새세대들을 교육교양하는 사업을 해나가고있습니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새세대들이 없으면 나라의 앞날도 없으며 사회의 진보도 있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의 주인공들인 새세대들을 잘 키우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난날 천대받으며 어렵게 살았지만 자라나는 새세대들은 앞으로 압박과 천대를 받지 않고 잘살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을 명랑하고 씩씩하게 키워야 하며 깊은 지식과 건장한 체력과 고상한 도덕품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후대교육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막연하였는데 몇십년동안 해보니 그것도 할수 없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의 공업과 농업에 대한 판단은 당신들에게 맡깁니다. 당신들이 우리 나라에 머물러있는동안 이 분야를 깊이 보면 그에 대하여 판단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 나라가 발전된 나라들을 따라잡으려면 일정한 기간이 요구됩니다. 지난날의 경험으로 보아 앞으로 전진도상에 여러가지 난관은 있겠지만 우리는 능히 우리 나라를 발전된 나라들의 수준에 끌어올릴수 있다고 확신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립적민족경제가 있기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놓았습니다. 이 토대우에서 우리 나라는 앞으로 더 빨리 발전할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는 다른 나라에 매운 예속경제가 아니기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우리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키는가 하는것은 우리자체의 결심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우리 나라의 경제건설전망에 대하여 물었는데 그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5년 8월에 6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1년 4개월 앞당겨 승리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개 고지를 채 점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하나는 강철고지이고 다른 하나는 세멘트고지입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채 점령하지 못하였던 6개년계획의 강철고지와 세멘트고지를 마저 점령하였습니다. 최근에 지방에 나가 료해하여보니 새로 건설한 세멘트공장이 잘 돌아가고있으며 올해에 생산을 완전히 정상화할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에 강철생산도 완전히 정상화되였습니다.

우리는 올해를 완충의 해로 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올해를 완충의 해로 정한것은 한해동안 새 전망계획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더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경제건설에서 수송이 좀 긴장합니다. 6개년계획기간에 새로 공장들을 많이 건설하였는데 거기에 수송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를 수송사업을 추켜세우는 해로 정하고 수송의 긴장성을 푸는데 큰 힘을 넣고있습니다.

우리는 긴장한 수송문제를 풀기 위하여 철도의 전기화를 더욱 다그치고 해상운수를 빨리 발전시키며 대형자동차를 많이 만들어 자동차수송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다음해부터 새로운 인민경제발전계획 수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나라에서 다음해부터 수행하는 인민경제발전계획은 제2차7개년계획으로 될것입니다. 지난기간의 경험으로 보아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경제발전계획기간을 4년이나 5년으로 하는것보다 6～7년으로 하는것이 적당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지금 준비하고있는 제2차7개년계획기간은 1978년부터 1984년까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제2차7개년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아직 새로운 전망계획을 세우는중이기때문에 구체적지표들을 다 말할수는 없지만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중요공업제품생산량을 지금보다 2배로 늘이려고 합니다.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강철, 전력, 세멘트, 석탄입니다. 이것이 공업에서 기본적인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몇해전에 1,200만톤의 강철고지를 점령할데 대한 전망목표를 내세웠는데 이번 7개년계획기간에는 년간 강철생산량을 700만～800만톤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석탄은 7,000만～8,000만톤, 전력은 600억키로와트시, 세멘트는 1,200만～1,300만톤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새 7개년계획 기간에 중요공업제품생산량을 대체로 지금보다 2배로 늘일것을 예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새 전망계획 목표들을 1984년까지 얼마든지 점령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차7개년계획수행에서 중요한것은 다른 나라의 자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내부원천을 동원리용하는것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의 발전된 기술은 일부 받아들이겠지만 기본은 우리 나라에 이미 마련된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에 의거하여 자체로 풀어나가며 다른 나라의 자본은 받아들이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는 중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중공업을 위한 중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업, 건설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분야에 필요한것을 생산보장하는데 복무하는 중공업을 발전시키고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신들이 카터정권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는가고 물었는데 그것은 매우 흥미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카터정권에 대하여 말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당신들에게 카터정권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카터는 선거공약을 할 때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하겠다고 하였으며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을 반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포함하여 몇개 나라에 대하여 려행제한조치를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것은 우리 나라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대하는 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선거공약때 한 말과 그후 집행하고있는것과 차이가 있는데 있습니다.

물론 카터가 집권한지 몇달 되지 않기때문에 그가 선거공약을 어떻게 전개하는가 하는것은 더 두고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부 사람들이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거와 관련하여 말하는것을 보면 카터의 선거공약과 어긋나는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남조선으로부터 미국군대를 점차적으로 철거하는데 그 기간이 4～5년 걸릴것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임기가 4년인데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4～5년동안에 점차적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것은 카터가 대통령으로 있는 기간에는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하지 않으려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공군은 남겨놓겠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완전히 철거시키겠다고 한 카터의 선거공약과는 거리가 먼것입니다. 공군도 군사력의 하나입니다.

또한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한다 하더라도 남조선당국자들과 일본정부의 동의밑에서, 충분한 리해속에서 철거하겠다고 말하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도 미군철거를 반대하고있으며 일본정부도 대체로 그것을 반대하는 립장을 취하고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이 남조선당국자들과 일본정부의 동의밑에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하겠다고 하는것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복시키고 미군을 철거한다는 말인지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때문에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할수 없다는 말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카터가 직접 발언한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부대통령 몬데일을 비롯하여 카터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한것입니다. 카터아래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였는데 그것이 카터정권의 립장이라면 그것은 선거공약과 위반되는것이며 만약 그것이 카터의 의사가 아니고 아래사람들의 의견이라면 카터정권에 대하여 더 연구하여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아직 카터정권에 대하여 어떠한 비판적인 말도 하지 않고있습니다. 카터정권에 대하여서는 좀더 두고보아야 알겠습니다. 그것은 카터가 집권한지 아직 석달밖에 안되며 선거공약을 전개할수 있는 시간이 있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카터정권이 한가지 문제에서는 명백히 선거공약과 모순되는 일을 하고있습니다.

카터정권은 인권을 탄압하는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위협공갈하고있지만 남조선당국자들에 대하여서는 계속 군사원조를 주고있으며 군사연습도 같이하고있습니다.

미군과 남조선괴뢰군이 합동군사연습을 계속하고있습니다. 올해 봄에 들어와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미공군 《비52》전략폭격기가 오끼나와로부터 남조선에 날아와 폭격연습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당신들이 더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군의 폭격연습장이 이르는곳마다에 있는데 그들이 무엇때문에 남조선에 와서 폭격연습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놀래우려는것보다 주로 남조선인민들을 위협공갈하기 위한것이며 남조선반동통치자들로 하여금 인민들에 대한 탄압을 더 강화하도록 조장하여주기 위한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인권을 탄압하는 정권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한 카터의 선거공약과 배치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카터가 한 선거공약을 호의를 가지고 대하고있지만 그가 자기의 선거공약을 어떻게 리행하는가 하는것을 주시하고있습니다. 카터정권에 대하여 아직 결론을 내리기는 이릅니다.

다음으로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대화문제까지 포함한 조선의 통일문제의 전망이 락관적인가 아니면 절망적인가고 물었는데 조선의 통일문제는 절망적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절망적이라는것은 있을수 없습니다. 절망적이라면 우리는 살아갈수 없습니다. 우리 인민은 모두다 나라의 통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조선문제의 해결은 조선사람자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조선의 통일문제가 해결되려면 무엇보다도 남조선인민들이 각성하여 들고일어나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여야 합니다.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투쟁이 다 말살되였다고 볼수 없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놈들의 파쑈적탄압과 폭압정책에서 벗어나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투쟁하고있습니다. 지난해 3월 1일에는 남조선민주인사들이 파쑈독재《정권》을 반대하여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였으며 또 올해에는 청년학생들이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지어 남조선의 종교인들까지 《기도회》를 벌려놓고 파쑈《정권》을 반대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이것은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요구가 높아가고있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입니다.

지금 남조선통치배들은 극도의 파쑈통치를 실시하고있지만 그러한 파쑈적탄압으로써는 결코 문제를 해결할수 없습니다. 력사적경험을 놓고보아도 폭군이 오래가는 법이 없습니다. 폭군이 오래간 실례는 그 어느 나라의 력사에도 없었으며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없습니다. 지난날 봉건사회의 왕조나 자본주의사회의 통치자들이 폭압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지만 구경은 다 인민대중의 반항에 의하여 멸망하고말았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남조선인민들이 각성하고 남북조선 전체 인민이 단결하여 투쟁하면 능히 조선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우리가 이미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바와 같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에서 실현되여야 합니다.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지 이 기본원칙을 떠나서는 조선의 통일문제가 해결될수 없습니다.

북과 남사이의 대화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지금과 같이 파쑈적탄압정책을 실시하고있는 조건에서는 그들과 대화를 할수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만약 남조선당국자들이 《반공》구호를 버리고 남조선민주인사들에 대한 탄압정책을 취소하며 《두개 조선》 조작음모를 그만두고 통일을 진심으로 념원하며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고 외국군대를 남조선에 붙들어두는 정책을 포기하며 남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놀음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민주공화당과도 대화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이미 여러번 말하였으며 얼마전에 있은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도 또다시 천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정세가 어떻게 류동하든지 조선사람들자체가 조선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세계인민들이 조선에 대한 부당한 분렬정책을 반대하고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인다면 조선은 반드시 통일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당신들이 최근 미국, 중국, 일본에서 지도자들이 교체된것이 조선과 이 나라

들 사이의 관계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수 있겠는가고 물었는데 그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미국의 카터정권에 대해서는 우에서 말씀드렸기때문에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중국에서 화국봉동지가 당주석으로 되였는데 중국은 우리 나라의 린방이고 형제나라이며 조선인민과 중국인민은 오랜 전우이기때문에 조중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매우 좋습니다.

일본의 후꾸다내각에 대해서는 아직 리해가 깊지 못합니다. 그렇기때문에 후꾸다내각에 대하여서는 더 두고보아야 하겠습니다.

조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문제는 현일본정부가 자주적인 길을 걷는가 그렇지 않으면 미국의 정책에 추종하는가 하는 문제와 많이 관련되여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와 미국사이의 관계가 개선되기전에는 조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에서도 큰 전진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종래의 일본정부는 미국에 추종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미국이 하자는대로 하여왔습니다. 만약 일본의 새 정부가 자주성을 가지고 나간다면 우리 나라에 대한 정책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일본의 새 정부도 남조선반동통치배들과 깊은 유착관계를 가지고있기때문에 우리 나라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전진이 있으리라고 믿기 어렵습니다. 우리 나라가 통일되기전에는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지금이상 더 발전시키기 힘들리라고 봅니다.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와의 관계에서 큰 변화는 없겠지만 미국이 조선에 대한 려행제한조치를 취소한다고 한 조건에서 일본정부도 그에 따라 우리 나라와 인사래왕과 문화교류나 좀더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두 나라 사이에 인사래왕을 자유롭게 하는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일본정부에 이보다 더 큰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인사래왕을 자주 하면 일본인민들이 우리 인민들을 더 잘 리해하고 우리 인민들이 일본인민들을 더 잘 리해할수 있게 될것입니다. 이렇게 두 나라 인민들이 서로 깊이 리해하는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본정부에 우리와만 관계를 가지고 남조선당국자들과 관계를 끊으라고 무리하게 요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것을 요구할 필요도 없으며 또 그렇게 요구한다고 하여도 실현될수 없습니다. 우리 나라가 통일되지 않은 조건에서 그런것을 요구하면 일본정부로서는 난처할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조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정부에 큰 기대를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정부에 대하여 바라고싶은것은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것입니다. 일본정부가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는 정책만 실시하여도 진일보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정부가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지 않는 정책을 실시한다는것은 남조선반동들과 같이 미국군대가 남조선에 영구히 주둔할것을 요구하지 말며 남조선에서의 인권탄압책동을 옹호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며 또 남조선반동통치배들의 배를 불리는 일을 하지 않는것입니다. 이렇게 하는것은 조선의 통일에 커다란 도움으로 될것입니다.

일본정부가 이렇게만 하여도 우리에 대하여 호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본정부에 이런 정도의 낮은 요구를 제기합니다.

다음으로 당신들이 조일 두 나라 사이에 무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련락사무소를 설치하며 어업협정을 맺을수 있겠는가고 물었는데 그렇게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정부가 그것을 동의하겠는가 하는것입니다. 일본정부가 미국의 압력을 무서워하기때문에 그 압력을 박차고나올수 있겠는가 하는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동의하면 그것을 반대하지 않을것입니다. 문제는 일본정부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조일 두 나라 사이에 어업협정을 맺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이미 일본정부가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도 반대하지 않을것이라고 여러번 천명한바 있습니다. 일본사회당대표단이 왔을 때에도 그렇게 말하였고 일조우호친선어업대표단이 왔을 때도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일본정부가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미우리신문사가 우리 나라와 문화교류를 폭넓게 진행할것을 희망하고있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었는데 그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일 두 나라 사이에 문화교류를 확대하는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완전히 맞는것입니다.

요미우리신문사가 일본인민들에게 조선을 더 잘 알려주고 조선에 대하여 더 잘 리해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사업을 발기하여나선것은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당신들에게 사의를 표합니다.

조일 두 나라 사이에 문화교류를 발전시키는것은 일본인민을 위하여서도 좋고 조선인민을 위하여서도 좋으며 조선의 통일을 위하여서도 좋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의 발기를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에 적극 호응하여나설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의 해당부문일군들과 협의하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당신들을 만나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담화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프랑스신문 《몽드》 주필과 한 담화

1977년 6월 20일

나는 당신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당신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우리 나라에 아직 조건이 불비한 점은 있지만 우리 일군들은 당신들을 환대하기 위하여 성의껏 노력하였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동으로부터 서로, 남으로부터 북으로 먼거리를 려행하느라고 피로를 느꼈으리라고 봅니다.

나는 당신이 제기한 질문을 서면으로 받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먼저 말하겠습니다.

조선인민은 단일한 민족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민족적통일을 실현하는것은 최대의 숙망으로 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조선의 통일문제를 외국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그리고 전쟁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것을 주장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제도와 신앙의 차이를 초월한 전민족적대단결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은 이미 세상에 공포되였으며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는 물론 여러가지 난관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조선 전체 인민이 다같이 통일을 념원하고있기때문에 우리 나라의 통일은 능히 실현될수 있으며 또 반드시 실현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의 북과 남에는 서로 다른 사회정치제도가 서있으며 서로 다른 사상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우리는 당장 제도상의 통일, 사상과 신앙의 통일은 실현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먼저 민족적통일을 실현할것을 바라고있습니다.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이 선차적인 문제입니다. 제도상의 통일, 사상과 신앙의 통일을 실현하는것은 두번째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인민은 같은 말과 같은 력사를 가진 하나의 민족이고 같은 동포이기때문에 제도와 신앙, 사상과 리념을 초월하여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한 나라안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있을수 있고 한 민족안에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나라의 통일이라는 민족지상의 과업을 실현하는데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면 제도의 차이, 사상과 리념의 차이를 얼마든지 극복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련방제를 실시하는것이 북과 남에 있는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민족적통일을 이룩하는데서 가장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회주의제도를 남조선에 강요하지 않고 또한 남조선당국자들이 그들의 사회제도를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는 기초우에서 제도와 신앙, 사상과 리념을 초월하여 전민족적인 련방정부를 세울것을 주장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주장하는 련방제를 한때 독일에서 론의된적이 있는 련방제와 관련시켜 질문하였는데 우리가 내놓은 남북련방제는 그것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가 실시하려는 남북련방제는 조선민족이 둘로 영원히 갈라지는것을 막고 아무런 부대조건도 없는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에서 나라를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것이며 조선에 대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고 우리 민족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보장하기 위한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가 《두개 조선》으로 갈라지는것을 견결히 반대합니다. 남북련방제를 실시하는것은 전민족의 공동의 리익에 완전히 맞는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두개 조선》으로 갈라져있는것보다는 련방제라도 실시하여 민족적통일을 이룩하는것이 우리 민족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련방제를 실시하면 북과 남사이의 호상 리해를 더욱 촉진하고 민족적대단결을 강화할수 있으며 이것은 우리 나라를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수호하는데서도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민족적 단합과 통일을 실현하여야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튼튼히 지켜낼수 있습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는 외래제국주의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36년동안이나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통일을 실현하지 못하고 계속 갈라져있으면 또다시 외국의 침략을 받을수 있고 식민지노예생활을 강요당할수 있습니다.

남북련방제를 실시하고 민족적단합을 이룩하는것은 조선에서의 긴장상태를 가시며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는 면에서도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가장 큰 장애로 되는것은 외국군대인 미국군대가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것입니다.

우리는 《남침》을 하지 않으며 남조선에 우리의 제도를 강요하지 않겠다는것을 이미 여러차례 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군대는 있지도 않는 이른바 《남침》을 막는다는 구실밑에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계속 남조선에 주둔하고있습니다.

남조선에서 미국군대가 철거하고 남조선사회에서 인민들이 자유롭게 활동할수 있는 민

주주의가 보장된다면 우리 인민은 능히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 나라는 인구도 많고 땅도 좋고 지하자원도 매우 풍부한 나라입니다. 나라의 통일만 실현되면 우리 인민은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고 남부럽지 않게 잘살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 민족의 공동의 념원에 맞게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이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굳게 믿고있습니다.

다음으로 당신이 남조선으로부터 미지상군철거문제에 대한 카터행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었는데 그에 대하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터는 선거공약을 할 때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카터의 이 공약을 좋은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조선에서 미군이 철거하면 우리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장애로 되고있는 문제의 하나가 해결되기때문입니다.

그런데 집권후 카터정권은 남조선으로부터 미국군대를 4~5년동안에 계단식으로 철거하겠다고 말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카터가 선거때에 한 공약과는 좀 어긋난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임기가 4년인데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4~5년동안에 계단식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것은 카터가 대통령으로 있는 기간에는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하지 않겠다고 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5년이라는 기간은 너무 깁니다.

또한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완전히 철거하지 않고 공군은 남겨두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옳은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군도 군사력의 하나입니다. 미공군을 남조선에 남겨두는것은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것은 카터가 직접 말한것이 아니고 그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한것입니다.

우리는 카터가 집권한지 오래되지 않기때문에 아직 그의 행동을 주시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카터가 자기의 선거공약을 어떻게 전개하는가 하는것을 더 두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가지 문제에서는 카터가 명백히 선거공약을 위반하고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카터는 선거공약을 할 때 인권을 유린하는 정권을 반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카터정권은 인권을 탄압하는 정권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위협공갈하고있지만 인권탄압이 제일 극심한 남조선에 대하여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있습니다. 오히려 카터정권은 남조선에 대한 군사《원조》를 더욱 늘이고있으며 남조선《정권》을 정치, 경제적으로 지원하고있습니다. 이것이 인권을 탄압하는 정권을 반대하겠다고 한 선거공약과 위반되는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미국은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조성하고있습니다. 미국은 비행기로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고공정찰을 계속하고있으며 남조선에서 매일과 같이 전쟁연습소동을 벌리고있습니다. 미국은 오끼나와에 있는 비행기를 동원하여 남조선에서 폭격연습을 계속하고있습니다. 미군의 폭격연습장이 이르는곳마다에 있는데 무엇때문에 남조선에 와서 폭격연습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카터행정부가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하여 자기 군대를 남조선으로부터 철거하겠다고 한 선거공약과 어긋나게 행동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도 우리 나라에 와서 직접 보았겠지만 지금 우리 나라에는 《남침위협》이 있는것이 아니라 도리여 우리가 침략위협을 당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평화적건설을 하고있는데 그들은 군사연습을 계속하고있으며 다른 나라에 있는 비행기까지 조선반도에 끌어다 폭격연습을 하고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카터가 선거때 한 공약과 지금 카터행정부가 취하고있는 실천행동사이에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우리는 카터가 정권을 잡은지 오래되지 않고 앞으로 선

거공약을 전개할수 있는 시간이 있기때문에 그의 정책을 계속 주시하고있습니다.

당신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워싱톤사이의 관계를 정상화할수 있겠는가고 물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미국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것을 오래전에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당국자들은 아직도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대신 그들은 남조선에서 군사연습과 폭격연습을 계속하며 남조선인민들을 탄압하는 남조선파쑈《정권》에 계속 《원조》를 주어 군사력을 강화시키는 부당한 행동을 하고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나라에 대한 부당한 정책을 변경하지 않는 조건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관계를 정상화할수 있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 우리 나라와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문제는 우리에게 달려있는것이 아니라 미국의 정책전환여하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카터행정부가 선거공약대로 미국군대를 남조선에서 철수하며 우리 나라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를 취소하고 적대시정책을 개변한다면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당신이 쏘련과 중국사이의 관계문제에 대하여 물었는데 그것은 쏘련사람들과 중국사람들이 말할 문제이지 우리가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도 잘 아는바와 같이 쏘련도 우리의 린방이고 중국도 우리의 린방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두 나라와 다같이 좋게 지내고있습니다.

쏘련과 중국과의 관계문제는 쏘련과 중국 두 나라 사이에 해결할 문제이고 그 두 나라 인민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당신이 구라파식공산주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물었는데 우리는 구라파식공산주의니, 아세아식공산주의니 또 어떤 식 공산주의니 하는것을 모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누구나 다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것이 국제주의적의무를 실행하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최근 구라파의 공산주의운동에서 많은 나라 공산당들이 자주성을 강조하고있는 사실을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매우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개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모든 운동을 전개하여야 하기때문입니다.

어떤 한 나라의 공산주의운동에서 이룩한 경험을 다른 나라들에 그대로 다 적용할수는 없습니다. 오늘 매개 나라의 공산주의자들은 오래동안의 혁명투쟁을 통하여 세련되고 단련되였기때문에 능히 자기 나라 문제를 자기자신이 해결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 혁명의 경험과 사회주의건설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여 자기 나라에 옮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라파나라공산주의자들이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광범한 계층과의 통일전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자주성을 견지하여나가는것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우리가 프랑스와의 정치, 경제, 문화 관계의 발전을 바라고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물었는데 우리는 프랑스와 정치, 경제, 문화 교류를 활발히 할것을 바라고있습니다.

지금 조선과 프랑스사이에 문화교류, 기술교류, 무역경제교류가 진행되고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것이 두 나라 인민들에게 다 리로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프랑스와의 정치, 경제,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것을 바랍니다.

물론 조선과 프랑스사이에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를 더욱 활발히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이 분야에서 아직도 할 일이 많습니다. 나는 조선과 프랑스사이의 관계가 앞으로 더 좋게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가 우리 나라에 있어서 어떤 나라로 되고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프랑스인민들을 적대국인민으로 보지 않고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가 구라파에서 자주적으로 나가는 나라이고 자주성을 견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는 프랑스정부가 조선인민에 대하여 응당한 주의를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프랑스정부가 조선의 통일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며 조선의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줄것을 기대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력사적으로 그 누구를 침략해본적이 없으며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해온 인민입니다. 지금 조선인민은 나라의 발전과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분렬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정부가 우리 나라의 통일에 방해를 끼치지 않으며 우리 나라의 통일에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해줄것을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민이 프랑스 정부와 인민에게 제기하는 겸손한 요구입니다.

다음으로 당신이 우리 나라가 서방나라들과의 무역에서 적자를 내고있지 않는가고 물었는데 우리 무역부장이 당신과의 담화에서 이에 대한 해답을 주었으리라고 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말한다면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우리 나라가 서방나라들과의 무역에서 일시적인 곤난을 겪게 된것은 중요하게 서방의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연료위기로 인하여 겪고있는 경제적난관과 관련되여있습니다.

서방자본주의나라들이 연료위기를 겪기전에는 우리 나라 상품이 이 나라들에서 잘 팔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나라들이 경제적위기를 겪고있기때문에 우리 나라 상품을 사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나라들에 상품을 제대로 팔지 못하다보니 서방나라들과의 무역에서 일시적인 곤난이 생기게 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서방나라들이 경제적난관을 겪고있는 조건에서도 그 나라들이 살수 있는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제적조치들을 취하고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방나라들과의 무역에서 겪고있는 곤난은 일시적인 현상이기때문에 능히 최단기간안에 극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당신이 우리가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어떤것에 대하여 큰 궁지를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난관이 있을수 있겠는가고 물었는데 이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30여년동안 사회주의를 건설하면서 가장 큰 긍지를 가지는것은 우리 나라에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한것입니다. 우리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였기때문에 능히 자주성을 견지하고있으며 자주독립적인 정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긍지를 가지는 문제는 우리 인민들이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전체 인민의 사상적통일이 이룩된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우리 나라에는 사대주의사상이 많았으며 인민들속에서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 자주성에 대한 긍지가 높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주성에 대한 긍지가 높으며 전체 인민들이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단결되여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큰 자랑으로 생각하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큰 밑천입니다.

우리 인민들속에서 이제는 남에게 의존하려는 사상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자기 힘으로 투쟁하고 노력하며 근면하게 생활한다면 능히 자력갱생하여 자립경제도 건설할수 있으며 나라의 자주독립도 보장할수 있다는것을 확신하게 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난관은 있을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든지 다 난관이 있지 난관이 없는 나라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발전하는 도상에는 난관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것이 주관적욕망에 의하여 해결되는것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우리가 세계사회속에서 사는것만큼 세계적영향을 받아 난관이 조성될수 있습니다. 난관은 객관적조건에 의해서 조성될수도 있고 내부적조건에 의해서

조성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진도상에 있는 모든 난관을 능히 극복할수 있습니다.

당신이 조선에서 건설하고있는 사회주의가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에 비하여 독창적인것이 무엇인가고 물었는데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을 다른 나라와 대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와 대비할 필요도 없으며 또 대비할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강조할수 있는것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있다는것입니다. 다시말하여 우리는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견지하고있습니다.

당신이 조선과 아세아의 전망에 대하여 물었는데 조선의 전망은 락관적입니다. 물론 난관은 있겠지만 우리 나라는 앞으로 반드시 통일될것입니다.

지금 전반적아세아의 정세도 대단히 좋습니다. 아세아인민들은 다 자주성을 견지하고있으며 자기 나라의 독립과 자주, 번영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아세아인민들은 그 어떤 외래간섭자들의 간섭도 받음이 없이 아세아에서는 아세아사람들이 주인이 되여야 한다는 립장을 견지하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아세아의 전망도 매우 명랑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우리 나라에서 내가 노는 개인적역할에 대하여 물었는데 이것은 나자신에 대한 문제이기때문에 말하기 거북해서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하여 다시 제기하였기때문에 말씀드린다면 나는 인민의 충복으로서 인민들과 함께 일생을 바치려고 합니다. 인민들에게 충실한 충복이 되는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당신이 질문한 문제들에 대하여 이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오늘 당신들과 같은 훌륭한 벗들을 알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우리 나라에 다시한번 오기 바랍니다.

일본방송협회취재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7년 7월 3일

나는 여러분이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여준데 대하여 감사히 생각하며 당신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의 물음에 대답하려고 합니다.

물음: 주석님께서는 오늘 세계정세의 흐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지금 세계정세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복잡한것 같지만 력사의 흐름은 바로되여가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력사의 흐름은 자주성의 시대로 특징지어지고있습니다.

지난시기는 인민들이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시대라고 한다면 오늘은 독립을 쟁취한 인민들이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평화와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시대입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자립경제를 건설하는 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제3세계나라들도 자주성을 요구하고있고 사회주의나라들도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습니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 인민들도 역시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으며 자주적으로 나가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지금 어떤 나라든지 남에게 예속되는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오늘 력사의 흐름이 제 궤도에서 자기의 발전법칙에 따라 발전하고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당신들이 아세아정세에 대하여 어떻게 보는가고 물었는데 아세아정세도 매우 좋습니다.

아세아인민들도 력사발전의 추세에 맞게 자주적으로 살것을 원하고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세아나라들이 자주성을 많이 요구하고있습니다.

아세아인민들은 모두다 아세아에서 제국주의자들의 군사기지를 철폐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얼마전에 《세아토》가 해체되였습니다.

지금 아세아인민들은 아세아를 제국주의자들의 어떠한 군사기지도 없는 지대로 만들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을 비롯하여 일본인민들과 타이인민들, 그밖의 여러 나라 인민들이 이러한 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아세아인민들은 외세의 간섭이 없는 아세아, 아세아인민들을 위한 아세아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우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물음: 지금 세계적으로 조선에 커다란 주목이 돌려지고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이웃나라로서 조선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미국의 카터정권은 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하겠다는것을 선거때 공약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석님께서는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해서와 조선과 미국과의 대화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요미우리신문사 편집국장과의 담화에서 말한바 있습니다.

미국대통령 카터가 남조선에서 미국군대를 철거하겠다고 한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조선에서의 미군철거에 대해서는 미국인민들자체가 요구하고있으며 아세아인민들이 한결같이 요구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더 말할것도 없고 일본인민들도 그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미국당국자들은 남조선에서 미국군대를 철거하겠다는것을 공약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워싱톤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를 들어보면 미국당국자들의 공약과 실천행동사이에는 거리가 있는것 같습니다.

요즘 미국당국자들은 선거때 한 공약과는 달리 남조선에 공군은 그냥 남겨두고 지상군만 철거하겠다고 말하고있습니다. 공군도 군사력의 하나인것만큼 그들이 남조선에서 군대를 철거하려고 한다면 마땅히 공군도 지상군과 함께 철거하여야 할것입니다.

미국당국자들은 또한 남조선으로부터 군대를 4∼5년동안에 점차적으로 철거하겠다고

말하고있는데 이것도 역시 그들의 선거공약과 어긋나는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미국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기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인데 군대를 4~5년동안에 철거하겠다고 하는것은 카터가 대통령으로 있는 기간에 군대를 완전히 철거하지 않겠다는 말인지 철거하겠다는 말인지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더 두고 보아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미국군대가 남조선에서 철거한다면 그것은 조선의 통일문제해결에서 가장 큰 장애의 하나가 제거되는것으로 될것입니다.

미국당국자들의 행동에서 특히 선거때의 공약과 모순되는것은 파쑈독재를 강화하고있는 남조선당국자들을 지지하고있는것입니다.

미국대통령 카터는 선거공약을 할 때 인권을 탄압하는 나라에는 원조를 주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그와 다르게 행동하고있습니다. 미국당국자들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인권문제를 가지고 말도 많이 하고 이러저러한 조치도 취하고있지만 남조선당국자들이 인권을 가혹하게 탄압하는데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있을뿐아니라 그들에게 계속 《원조》를 주고있습니다.

오늘 남조선당국자들이 남조선에서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말살하고있는것은 조선의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장애로 되고있으며 이 장애를 제거하는것은 조선인민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들을 하루빨리 제거하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여야 아세아의 평화도 더 잘 유지될수 있습니다. 조선이 통일되지 못하고 계속 분렬되여있으면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완전히 가실수 없으며 나아가서 아세아와 세계정세에서도 계속 불안이 초래되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래일은 력사적인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5돐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을 계속 주장할것이며 그 실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전체 조선인민은 한결같이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할것을 바라고있습니다. 세계인민들도 역시 이것을 바라고있습니다.

남조선당국자들이 인민들에 대한 파쑈적인 탄압을 중지하고 미국군대가 남조선에서 철거한다면 조선인민은 능히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할수 있을것입니다.

우리 나라와 미국과의 대화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미국당국자들에게 대화를 하자는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미국당국자들이 원한다면 대화는 어느때든지 이루어질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미국당국자들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대화의 문을 두드리려고 합니다.

물음: 우리는 이번에 공화국을 방문하여 모든것을 다 보았는데 솔직히 말하여 공화국의 공업과 농업은 우리들이 상상하고있던것보다 훨씬 더 발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몇해동안 선진공업국도 그렇고 제3세계나라들도 그렇고 사회주의나라들도 그렇고 다 경제위기를 겪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석님께서는 이러한 정세속에서 공화국의 경제건설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대답: 당신들이 말한바와 같이 지금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도 경제적난관을 겪고있

고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도 경제적난관을 겪고있으며 일부 사회주의나라들도 경제적난관을 겪고있습니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과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 그리고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이 겪고있는 경제적난관은 제가끔 그 성격이 다릅니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겪고있는 경제적난관은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과정에 생긴것입니다. 이 나라들이 겪고있는 난관가운데서 주되는것은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하여 생긴 식량난입니다. 지금 발전도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농업에 치중하고있는데 이런것으로 보아 앞으로 이 나라들은 능히 경제적난관을 이겨내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할수 있는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겪고있는 경제적난관은 연료난, 원료난입니다.

연료난은 강대국이 연료독점권을 장악하고 좌지우지하는데로부터 생긴 문제입니다.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이 겪고있는 연료난은 강대국이 석유의 독점권을 장악하고 행사하는데서 오는 불행입니다. 강대국은 선진공업국가들의 경제발전속도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을 쓰고있는데 이로부터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 연료난이 생긴것이라고 봅니다.

원료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신생독립국가들이 나라의 자연부원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선진공업국가들이 지난날과 같이 그 나라들에서 원료를 제 마음대로 긁어갈수 없게 된데로부터 생긴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선진공업국가들이 낡은 국제경제질서에 매달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서 원료를 눅은 값으로 가져가려고 하여서는 문제를 해결할수 없습니다. 선진공업국가들은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을 기술적으로 도와주어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도록 하고 그 나라들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공정한 값을 치르고 원료를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원료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것입니다.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이 경제적난관을 겪고있는것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시장에 불경기가 생긴데 그 원인의 하나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사회주의나라들이 겪고있는 경제적난관은 더 빨리 전진하는 과정에 생긴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사회주의나라들은 능히 자체로 경제적난관을 극복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이미 자체의 원료에 기초한 주체적인 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여놓았기때문에 어떠한 세계적인 경제파동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있습니다. 우리에게 경제적난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더 많이 하려는 욕심에서 경제건설을 많이 하는데로부터 생긴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7개년인민경제계획을 세우고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7개년계획을 주체적인 공업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의 원료자원과 자체의 기술로 수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 부닥치는 어떠한 경제적난관도 다 자체의 힘으로 타개하여나갈것입니다.

물음: 주석님께서 일본과의 무역문제에 대하여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답: 일본은 우리 나라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일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을 증진시키는것이 두 나라 인민들에게 다 리로운 일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우리 나라에 있는것을 먼데 가서 사오는것보다 가까이에 있는 우리 나라에서 사가면 운반비도 적게 먹고 좋을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것을 먼 구라파에 가서 사오는것보다 가까운 일본에서 사오는것이 낫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조일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을 발전시키는것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는것입니다.

우리는 조일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부합되게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을 더욱 발전시킬것을 희망하고있습니다.

조일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일본정부가 우리 나라에 대한 비우호적인 정책을 버리고 무역에서 평등과 호혜의 원칙을 지키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정부는 우리 나라에 대하여 차별을 두지 말고 우리가 요구하는 물건을 무엇이든지 다 팔도록 하여야 하겠는데 아직 그렇지 못합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몇해전에 구노 쥬지선생이 우리 나라에 왔을 때 우리는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을 활발하게 진행할데 대한 기대를 표시하였습니다. 그후 우리는 6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본에 큰 제철공장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일본기술자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협의도 하고 답사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서방통신들의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당국자들의 압력에 의하여 일본이 우리 나라에 제철공장을 수출하면 우리 나라의 국력이 강화되여 남조선에 위협을 더 주게 된다는 구실밑에 그것을 취소하였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우리 나라에 용광로를 팔지 않았다고 하여 우리가 제철공장을 건설하지 못한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일본에 주문하였던것과 같이 그렇게 큰 용광로는 건설하지 못하였지만 1,500립방메터용광로를 건설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정부의 이와 같은 비정상적인 행동이 없어지면 조일 두 나라 사이에 무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음: 지금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마일경제수역문제에 대하여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여온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도 올해 8월 1일부터 200마일경제수역을 설정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일본은 이로부터 커다란 충격을 받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200마일수역안에서 서일본의 중소어업자들의 배 1,500척이 약 6만 5,000톤의 물고기를 잡고있습니다. 지금 일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에는 어업협정이 없습니다. 이러한 정황밑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한 200마일수역안에서 어떤 형식으로 일본어선들이 물고기잡이를 인정받을수 있겠습니까? 가령 어업협정을 체결한다면 민간어업협정이라도 인정할수 있습니까?

대답: 200마일해양권문제는 국제회의에서 많이 론의되고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몇해전부터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먼저 들고나왔습니다. 그때에는 많은 큰 나라들이 그것을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큰 나라들이 이 문제에 대한 국제적결정이 채택되기도 전에 먼저 200마일경제수역을 선포하고있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그것을 선포하였습니다. 미국이 먼저 200마일어로수역을 선포하였고 뒤이어 쏘련이 선포하였으며 일본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조건에서 자주적원칙에서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200마일경제수역을 설정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우리 나라가 200마일경제수역을 설정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한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행사한데 불과한것이며 객관적조건으로부터 부득이하여 취한 조치입니다.

200마일경제수역을 설정할데 대한 우리 나라의 결정은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통신에 의하면 일본의 200마일어업수역결정은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와 일본사이에는 외교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0마일경제수역권문제와 관련하여 조일 두 나라 사이에 호상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우리 나라의 200마일경제수역안에서의 일본어민들의 어업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

는 일본어민들에게 충격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일본인민들, 특히 일본령세어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에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형식으로 처리하겠는가 하는것은 해당부문일군들과 협의하여야 할것입니다.

물음: 주석님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적인 대외정책과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계십니까?

대답: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발전에서 아무러한 장애로도 되지 않습니다.

주체사상은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 모든 정책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우리 인민들자신이 결정하도록 하기때문에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다른 사회주의나라들의 리해관계와 충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을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합니다.

오늘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실생활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더욱 뚜렷이 증명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생활력은 날을 따라 더욱더 발양되고있습니다.

물음: 우리는 이번에 귀국을 방문하여 학교를 많이 돌아보았는데 그 과정에 어린이들이 음악에 소질이 많다는것을 느꼈습니다. 주석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한가지이상의 악기를 다룰줄 알도록 지도하고계신다는것을 듣고 그것이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를 물어보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주석님의 전기를 읽어본데 의하면 강반석어머님께서 부르시던 《자장가》에 대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석님께서 어린이들이 한가지이상의 악기를 다루도록 지도하고계시는것과 어떤 관계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하여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답: 우리가 모든 어린이들이 한가지이상의 악기를 배우도록 하는것은 전체 인민이 다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락천적으로 생활하며 랑만에 넘쳐 투쟁하도록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님께서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그 노래들은 후에 나로 하여금 락천적으로 생활하고 투쟁하도록 고무하여주었습니다.

나의 어머님은 나에게 늘 나라를 사랑하고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한다고 하시며 애국주의사상을 심어주시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에 대하여 매우 감명깊게 생각하고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앞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락천적으로 살며 투쟁하는 훌륭한 일군으로 키우기 위하여 다 노래를 배우도록 하고있습니다.

나는 오늘 당신들과 같은 훌륭한 벗들을 알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당신들을 만나 친선적인 담화를 한것은 조일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는데서 매우 유익한 일로 될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준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계공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하여

전국기계공업부문열성자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8월 20일

동지들!

나는 먼저 기계공업부문열성자회의에 참가한 모든 일군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와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에 전국기계공업부문열성자회의에서 지난 시기 기계공업부문에서 이룩한 성과와 나타난 결함들을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고 새 전망계획 기간에 기계공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토의하였습니다. 이번 전국기계공업부문열성자회의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추동하고 새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며 전반적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는 획기적인 계기로 될것입니다.

기계공업은 중공업의 핵심이며 기술적진보의 기초입니다.

기계공업을 발전시켜야 중공업의 우선적발전을 보장할수 있으며 경공업과 농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켜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일수 있습니다. 기술혁명은 곧 기계혁명입니다. 사람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결정적수단은 기계이며 생산력의 발전도 기계의 개선으로 이루어집니다. 기술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수행하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결국 기계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여러가지 현대적기계설비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우리 당은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기계공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 중요성으로부터 출발하여 기계공업을 발전시키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왔습니다.

우리는 해방후 아무것도 없는 빈터우에서 기계공업을 창설하고 발전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방전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인민을 영원히 식민지몽매속에 몰아넣고 풍부한 자연부원을 략탈하여갈 목적으로 우리 나라에 조그마한 기계공장 하나 건설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말미암아 해방후 우리는 소농기구 하나 자체로 변변히 만들어 쓸수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령으로부터 기계공업을 발전시키기 시작하였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해방후 기계공업을 발전시키는데 가로놓인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였습니다. 해방후 우리에게는 기계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가 없었을뿐아니라 자재와 자금도 없었으며 능력있는 과학자, 기술자도 몇명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힘차게 투쟁한 결과 온갖 난관을 성과적으로 이겨내고 력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자체의 위력한 기계공업기지를 창설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계공업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자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습니다.

공작기계라는 말조차 모르던 우리 나라에서 오늘은 여러가지 공작기계들을 생산하여 국내수요를 충족시킬뿐아니라 다른 나라에 수출까지 하고있으며 3000톤프레스와 6000톤프레스 같은 대형기계들도 척척 만들어내고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2.5톤짜리 자동차, 5톤짜리 자동차, 10톤짜리 자동차, 25톤짜리 자동차, 100톤짜리 자동차와 《충성》호뜨락또르, 《전진호》뜨락또르, 《천리마》호뜨락또르, 《풍년》호뜨락또르를 해마다 수만대씩 만들어냄으로써 우리 인민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의 힘으로 4,200마력짜리 전기기관차와 여러가지 내연기관차, 화차, 유조차, 랭동차, 객차들을 많이 만들어내고있으며 200마력짜리, 400마력짜리, 1,000마력짜리, 2,500마력짜리 기관을 만들어 크고작은 여러가지 배들을 무어내고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기계공업은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 결정적담보로 되고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0.5립방메터짜리 굴착기와 1립방메터짜리 굴착기, 4립방메터짜리 굴착기를 만들어내고있으며 그보다 더 큰 굴착기도 만들어낼수 있는 생산능력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뿐아니라 300마력짜리 대형불도젤과 중소형불도젤도 다 자체로 만들어내고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변압기 하나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여 다른 나라에서 사다 썼으며 그것도 몇해씩 걸려서야 사오군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보통변압기는 두말할것도 없고 10만크바대형변압기도 척척 만들어내고있으며 전동기, 압축기, 랭동기, 여러가지 뽐프도 다 자체로 만들어 쓰고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고있는 기계를 꼽자면 하루종일 꼽아도 다 꼽지 못할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체의 힘으로 큰 용광로, 해탄로, 회전로, 소결로, 전기로, 압연기, 발전설비들도 만들어내고있으며 채취공업, 건재공업, 경공업, 수산업, 농업, 건설, 교통운수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요구하는 기계설비들을 다 자체로 생산보장하며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기계설비들을 종합적으로 만들어내는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습니다.

지난 기간 기계공업부문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는 우리 인민의 영광이며 자랑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던 빈터에서 력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오늘과 같은 위력한 기계공업을 창설하여놓은데 대하여 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 나라에서 기계공업이 발전하여온 력사는 영광찬란하며 말 그대로 영웅서사시입니다. 우리는 간고한 투쟁을 벌려 자체의 위력한 기계공업을 창설하여놓았기때문에 앞날에 대한 더 큰 희망을 가질수 있게 되였으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나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나라에 위력한 기계공업을 창설함으로써 사회주의공업국가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게 한 기계공업부문의 모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지도일군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와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동지들!

지난날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참으로 많은 일을 하여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하여놓은 일보다 앞으로 하여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우리 나라의 기계공업은 아직 선진국가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있으며 공업의 심장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다음해부터 새 7개년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새 7개년계획은 우리 나라 사회

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더 높은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매우 방대한 계획입니다. 이 방대한 계획을 수행하는데서 기계공업부문앞에는 실로 무겁고도 영예로운 임무가 나서고있습니다. 우리가 새 전망계획을 토의하기에 앞서 전국기계공업부문열성자회의를 가지는것도 바로 새 7개년계획 수행에서 기계공업이 노는 중요한 역할과 관련되여있습니다. 새 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가 수행하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기계공업부문에서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습니다.

기계공업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모든 지도일군들은 지난날의 성과에 조금도 자만하지 말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여 천리마의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함으로써 우리의 기계공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요구하는 기계설비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함으로써 새로운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 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먼저 공작기계생산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공작기계는 다른 모든 기계설비를 만들어내는 기본생산수단입니다. 공작기계생산을 늘여야 기계공업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릴수 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요구하는 기계설비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습니다.

오늘 공작기계에 대한 수요는 날로 늘어나고있습니다. 새 7개년계획 기간에 새로운 공장들을 더 건설하자고 하여도 공작기계가 있어야 하고 지금 있는 공장들을 확장하자고 하여도 공작기계가 있어야 하며 군마다 부속품생산기지를 꾸리자고 하여도 공작기계가 있어야 합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공작기계를 많이 만들어주어야 생산공정을 기계화, 자동화하여 어렵고 힘든 로동을 없앨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단능설비공장들도 이르는곳마다에 꾸려주어야 합니다. 단능설비공장들을 꾸려주어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자체로 단능설비들을 만들어 생산을 늘일수 있습니다. 매 도에 경공업부문의 단능설비공장을 하나씩 꾸려주어 인민소비품을 만들어내는 여러가지 단능설비들을 자체로 만들어 쓰게 하면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커다란 혁신이 일어날것입니다. 단능설비공장들을 꾸리기 위하여서는 기계공업부문에서 중소형공작기계들을 많이 만들어 보내주어야 합니다.

지금 있는 공장, 기업소들의 공무동력직장을 튼튼히 꾸려주기 위하여서도 공작기계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공작기계를 많이 생산하여 공장, 기업소들에 있는 공무동력직장을 잘 꾸려주면 공장, 기업소들에서 부속품예비를 넉넉히 마련하여놓고 기계설비들을 제때에 수리하여 쓰게 될것이며 자체로 단능설비와 그밖의 여러가지 설비를 만들어 생산능력을 늘일수 있게 될것입니다.

지금 채취공업, 경공업, 수산업, 농업, 건설, 교통운수 부문 할것없이 공작기계를 요구하지 않는 부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공작기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공작기계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켜야 하겠습니다.

새 7개년계획 기간에 빨리 늘어나는 공작기계의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자면 그 생산능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늘여야 합니다.

우리는 공작기계생산능력을 늘일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마련하여놓은 위력한 기계공업의 토대가 있으며 지난 시기 우리 당의 지도밑에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을 벌려 숱한 공작기계를 생산한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지금 있는 공작기계공장들의 생산능력을 늘이는데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공작기계공장들에서 기술개건사업을 강화하여 자동화와 프레스화를 적극 실현하고 설비 관리와 보수사업을 더 잘하여 있는 밑천을 가지고 더 많은 공작기계를 만들어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작기계생산기지를 새로 더 꾸려야 하겠습니다.

특히 기계공업부문에서 대형공작기계생산을 늘이기 위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하겠습니다.

새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형기계들을 많이 만들어 보내주어야 하며 그러자면 대형공작기계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합니다. 기계공업부문일군들은 대형공작기계생산설비들을 설치할수 있는 건물과 시설들을 빨리 준비하고 대형공작기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설계문건과 공구, 지구들도 미리 준비하여놓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공장이 다 건설된 다음 인차 대형공작기계들을 만들어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형공작기계와 함께 일반공작기계와 특수공작기계들도 많이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채취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하는것입니다.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입니다. 채취공업을 앞세워 원료와 연료를 제때에 원만히 대주어야 가공공업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으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지난 6개년계획기간에 경제사업에서 나타난 가장 큰 결함의 하나는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지 못한것입니다. 6개년계획기간에 큰 야금공장을 비롯하여 숱한 공장들을 건설하여놓았지만 원료와 연료를 제대로 대주지 못하여 만부하를 걸지 못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철광석과 석탄을 비롯한 지하자원이 무진장하게 매장되여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지하자원을 캐내기 위하여서는 채취공업부문에서 설비를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채취공업부문에서 설비를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기계공업부문에서 그에 필요한 기계설비들을 제대로 만들어주는가 주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탄광, 광산들에 착암기, 착정기, 적재기, 전차, 벨트콘베아, 사슬콘베아 같은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만들어 보내주며 대형불도젤, 대형굴착기, 대형자동차, 대형착정기, 대형 권양기와 파쇄기를 비롯한 선광설비들을 많이 만들어 보내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 7개년계획 기간에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현대적인 대형채굴설비들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써야 합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달라붙어 대형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하여 탄광, 광산들에 보내줌으로써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새 7개년계획 기간에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또한 교통운수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기계설비들을 더 많이 생산보장하는것입니다.

교통운수는 인민경제의 선행관이며 생산과 소비를 련결시키는 중요한 고리입니다. 교통운수를 발전시켜야 연료와 원료, 자재들을 생산단위들에 제때에 실어다줄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을 소비지에 실어다 효과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교통운수의 발전을 떠나서는 인민경제의 빠른 발전과 인민들의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특히 7개년계획기간에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수송수요가 빨리 늘어날것입니다. 교통운수를 발전시켜 빨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지 않고서는 새 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교통운수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는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닦아놓은 조건에서 일군들이 결심하고 달라붙기만 하면 날로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습니다.

수송수요를 보장하는데서 철도수송능력을 늘이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철도는 대량화물을 집중적으로 먼거리에 빨리 나르는 가장 우월한 수송부문입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전기기관차를 비롯하여 철도전기화에 필요한 기계설비들과 내연기관차, 중량화차, 여러가지 특수화차 생산을 늘여 철도수송능력을 결정적으로 늘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선박공업을 발전시켜 큰 짐배를 많이 무어내야 하겠습니다.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해상운수를 발전시키는것은 긴장한 수송문제를 풀며 대외무역을 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우리는 새 7개년계획 기간에 대외무역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합니다. 매개 나라가 처한 자연경제적조건이 다르고 생산되는 원료와 제품의 품종도 다른 조건에서 기본적인것, 많이 요구되는것은 자체로 생산하고 적게 요구되거나 부족한것은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큰 짐배가 많지 못하여 대외무역을 더 발전시킬수 있는것도 발전시키지 못하고있습니다. 물론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은 철도를 통해서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외무역을 사회주의나라들과만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을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생독립국가들과도 무역을 발전시켜야 하며 완전한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자본주의나라들과도 무역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원유가 많이 나는 이라크, 수리아, 알제리를 비롯한 아세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있으며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가운데는 소금, 린회석광석을 비롯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공업원료를 팔겠다는 나라도 많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큰 짐배를 많이 무어 제3세계나라들과 물물교환도 대대적으로 하고 그들에게 기술적방조도 많이 주어야 합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새 7개년계획 기간에 조선소들에 대형설비와 현대적인 용접설비를 비롯한 여러가지 물질기술적수단들을 충분히 갖추어줌으로써 여러가지 고기배들과 함께 2만톤짜리, 5만톤짜리, 10만톤짜리 대형짐배를 무어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계공업부문에서 대상설비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새 7개년계획 기간에 발전소와 금속공장, 세멘트공장, 화학공장들을 새로 많이 건설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장, 기업소들을 건설하자면 숱한 대상설비들을 생산보장하여야 합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대상설비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 새로운 공장, 기업소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대상설비들을 다 자체로 생산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발전소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발전설비생산에 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타빈과 발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서는 대안중기계공장 건설에 힘을 집중하여 건설을 빨리 끝내야 합니다.

지금부터 공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집단도 꾸리고 그밖의 준비사업도 잘하여야 합니다.

지금 대안중기계공장은 총계획도에 따라 건설이 진척되고있으며 거기에 들여놓을 설비

들도 거의다 마련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안중기계공장 건설을 빨리 끝내고 거기에서 10만크바짜리까지의 타빈과 발전기를 자체로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분괴압연기를 비롯한 압연설비들도 자체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압연설비를 자체로 만들어야 강재의 규격과 품종을 늘일수 있으며 기계공업부문과 건설부문에서 요구하는 강재를 원만히 대줄수 있습니다.

압연기를 만드는것은 신비한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먹고 달라붙으면 얼마든지 만들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것이 파괴되고 부족하던 정전직후에도 압연기를 만들어 강재를 생산하였는데 강력한 기계공업기지가 창설된 오늘의 조건에서 무엇때문에 압연기를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기계공업부문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대담하게 달라붙어 현대적인 압연기들을 만들어 금속공장들에 보내줌으로써 압연강재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 화학설비도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은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실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화학공업을 발전시켜야 우리 나라에 없거나 부족한 원료를 화학적방법으로 원만히 생산보장할수 있으며 화학비료와 농약을 많이 생산하여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힘있게 다그칠수 있으며 갖가지 일용필수품을 생산하여 인민들에게 공급할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화학공업이 가지는 의의로부터 출발하여 화학공업의 발전에 계속 큰 힘을 돌려왔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7개년계획 기간에도 화학공업의 발전에 큰 힘을 넣어 합성고무공장, 염화비닐공장, 탄산소다공장, 가소제공장, 제약공장, 살초제공장, 농약공장들을 건설하며 중소화학공장들도 많이 건설하려고 합니다.

얼마전에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는 다음해부터 합성고무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합성고무가 많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시장에서 합성고무 한톤에 1,000파운드씩 합니다. 이런 조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합성고무를 다 국제시장에서 사다 쓰려면 숱한 외화를 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7개년계획 기간에 합성고무공장을 건설하여 필요한 합성고무를 자체로 생산하여 써야 합니다.

화학설비를 생산하는데는 힘든것이 없습니다. 압축기와 합성탑, 뽐프, 반도체정류기, 전동기, 관류 같은것이나 생산해주고 용접설비나 만들어주면 됩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화학공장들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설비들을 제때에 질적으로 만들어 보내줌으로써 새 7개년계획 기간에 화학공업부문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 대상설비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대상설비생산기지를 새로 꾸리는 한편 지금 있는 기계공장들을 확장하여야 합니다. 지금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요구하는 대상설비는 주로 룡성기계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데 룡성기계공장에만 매달려가지고는 급격히 늘어나는 대상설비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룡성기계공장에서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여 대상설비를 더 많이 생산하는것과 함께 북중기계공장, 락원기계공장, 대안전기공장, 5월10일공장들을 확장하고 잘 꾸려 이 공장들에서도 대상설비를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동차, 뜨락또르도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는 탄광, 광산, 건설장, 농촌을 비롯하여 요구하지 않는데가 없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건설호》자동차를 비롯하여 크고작은 여러가지 자동차를 계획대로 어김없이 생산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어야 하겠습니다.

뜨락또르, 벼수확기를 비롯하여 농촌경리를 기계화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기계들도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시기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제품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은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고 인민경제발전을 촉진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보다 원만히 충족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은 우리 나라의 대외적 권위와 위신을 높이는데도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해방후 빈터우에서 기계공업을 창설하고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오다보니 아직 우리가 생산하는 기계설비들의 질이 그리 높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만 먹고 달라붙으면 이미 마련하여놓은 기계공업의 토대와 경험에 기초하여 기계설비들의 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일수 있습니다. 기계공업부문의 모든 로동자, 기술자들은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가까운 앞날에 우리가 생산하는 기계설비들의 질을 앞선 나라들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겠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로동자, 기술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기계공장들을 아무리 현대적인 기계설비들로 잘 꾸려도 기계를 다루는 사람들의 기술기능수준이 높지 못하면 제품의 질을 높일수 없습니다. 기계공업부문의 모든 로동자, 기술자들 속에서 기술학습을 강화하고 실천을 통하여 배운 지식을 끊임없이 련마함으로써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훨씬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계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또한 설계를 전문화, 현대화하여야 합니다.

설계를 잘하는것은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제품을 가공하는 로동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설계를 잘하지 못하면 좋은 제품을 생산할수 없습니다.

지금 일군들이 기관본위주의를 쓰면서 기계공장마다 설계일군들을 가지고 제가끔 설계를 하고있는데 그렇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물론 지난날 기계공장들에서 자체로 설계하여 좋은 기계들을 적지 않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는 기계설비들의 질을 빨리 높일데 대한 요구를 원만히 보장할수 없습니다.

설계력량을 집중하고 설계를 전문화, 현대화하여야 설계력량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설계를 잘할수 있으며 설계일군들의 수준도 빨리 높일수 있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여러곳에 분산되여있는 설계일군들을 한데 모아 전문설계기관들을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이 키워낸 100만 인테리대군을 가지고있습니다. 사업을 잘 짜고들어 공장, 기업소들에 분산되여있는 설계력량을 조절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설계의 전문화를 얼마든지 실현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분산되여있는 설계일군들을 모아 기관을 설계하는 사람들로는 기관을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기관을 조직하고 배를 설계하는 사람들로는 배전문설계기관을 조직하고 화학설비를 설계하는 사람들로는 화학설비전문설계기관을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작기계도 여러곳에서 제가끔 설계하지 말고 공작기계를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기관을 따로 내오고 거기에서 여러가지 공작기계들을 통일적으로 설계하여 공작기계공장들에 보내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설계를 전문화하는것과 함께 설계를 현대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설계를 현대화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계산작업을 자동화하는것입니다. 기계를 설계하자면 복잡한 계산을 많이 하여야 합니다. 기계를 설계하는데서 제기되는 복잡한 계

산작업을 수공업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서는 설계를 빨리 할수 없을뿐아니라 설계의 질도 높일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설계기관들에서 계산작업을 자동화할수 있도록 자동화된 계산기를 갖추어주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설계기관들에 설계 기구와 공구, 각종 실험설비들과 설계작업에 필요한 보조설비들을 원만히 갖추어주어야 하겠습니다.

기계공업부문과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자동화된 계산기를 비롯하여 설계를 현대화하는데 필요한 설비와 기구들을 자체로 만들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이 창발성을 발휘하면 아무리 복잡한 계산기도 다 만들수 있습니다. 설계에 필요한 계산기와 기구들을 자체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 한편 당장 필요한것은 다른 나라에서 사다주어야 하겠습니다.

공작기계의 가공능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공작기계의 가공능력을 높이는것은 기계공업부문에서 생산의 중요한 예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십만대의 공작기계를 가지고있는데 그 공작기계들의 가공능력만 높인다고 하여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기계를 생산할수 있습니다.

공작기계의 가공능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공작기계들을 고속도화하고 소재생산을 프레스화, 형단조화하여야 합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 프레스화, 형단조화를 실현하면 공작기계들의 가공능력을 지금보다 2～3배 높일수 있으며 숱한 강재를 절약하면서도 제품의 질을 훨씬 높일수 있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 프레스화, 형단조화를 실현할데 대한 문제는 이미 제기된지 오랩니다. 그런데 기계공업부문일군들은 이때까지 그 과업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기계공업부문에는 프레스설비들이 적지 않으며 또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체로 프레스설비와 형단조설비들을 만들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있습니다. 지도일군들이 조금만 관심을 돌리면 프레스화, 형단조화를 얼마든지 받아들일수 있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이제부터라도 프레스화, 형단조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대담하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특히 계렬생산을 하는 기계공장들에서 프레스화, 형단조화를 적극 실현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계공장들에서 프레스화, 형단조화를 실현하자면 프레스와 형단조 설비를 많이 만드는것과 함께 그 리용률을 높이는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일부 기계공장들에서는 프레스와 형단조 설비를 많이 가지고있지만 그 리용률을 높이지 못하고있습니다. 모든 기계공장들에서 설비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 프레스화, 형단조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주물작업을 집중화, 전문화, 현대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주물작업을 집중화, 전문화, 현대화하여야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고 설비리용률을 높일수 있으며 근로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고 주물품의 질을 훨씬 높일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계공장마다 주물직장을 차려놓다보니 그 리용률을 높이지 못하고있으며 숱한 자재와 로력을 쓰면서도 주물품의 질을 높이지 못하고있습니다. 기계공장마다 주물직장을 차려놓고 숱한 자재와 로력을 랑비하는것은 당과 국가와 인민 앞에 죄를 짓는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당에서 이미 오래전에 해당부문일군들에게 주물작업을 집중화, 전문화, 현대화할데 대하여 과업을 주었습니다. 기계공업부문일군들이 당에서 과업을 준대로 주물작업을 집중화, 전문화, 현대화하였더라면 숱한 로력과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주물품의

질을 훨씬 높였을것이며 절약한 로력과 자재를 가지고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낼수 있었을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부문일군들은 아직까지 기계공장을 새로 지을 때 주물직장을 꾸리는것으로 설계를 하고있으며 설계를 검토하는 기관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비준하여주고있습니다.

지금 일부 일군들은 당의 주체사상으로 무장하자고 구호만 불렀지 실제에 있어서는 당의 사상과 거리가 멀게 행동하고있습니다. 아직 일부 일군들에게는 당에서 주는 과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이 부족하고 혁명을 하려는 정신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일정한 지구단위로 주물생산기지를 현대적으로 잘 꾸리고 주물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기계공장들에 공급해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주물생산을 전문화하라고 한다고 하여 지금 공장, 기업소들에 있는 주물직장들을 당장 다 없애라는것이 아닙니다. 지금 공장, 기업소들에 있는 주물직장들을 현대적으로 잘 꾸리고 그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큰 공장들의 주물직장을 현대적으로 잘 꾸리고 주물품들을 많이 생산하여 자기도 쓰고 주변에 있는 공장들에도 공급해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군들이 주인다운 립장에서 조직사업을 잘하여 지금 있는 주물직장들을 현대적으로 잘 꾸리면 주물공장들을 새로 짓지 않고도 필요한 주물품들을 거의다 해결할수 있을것입니다.

기계공업부문일군들은 기관본위주의와 지방본위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주물생산을 집중화, 전문화, 현대화하고 협동생산을 잘 조직하여 기계공장들에 주물품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주물생산에서 선진주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주물생산에서 선진주조방법을 받아들여야 제품의 질도 높일수 있고 로동생산능률도 높일수 있으며 생산문화도 훨씬 개선할수 있습니다.

지금 제2경제위원회산하 공장들에서는 주물생산에서 선진주조방법을 받아들여 제품의 질을 훨씬 높이고있습니다. 기계공업부산하 공장들에서도 선진주조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하겠습니다.

주물생산을 집중화, 전문화, 현대화하는것과 함께 도금작업을 전문화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는 기계공장들에서 도금직장을 제가끔 차려놓느라고 하지 말고 지구단위로 도금기지를 잘 꾸려 도금을 전문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용접기술을 높이는것은 기계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기계공업부문이나 건설부문에서는 용접이 기본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제관작업도 그렇고 어떤 대상물을 건설하는것도 그렇고 용접이 기본입니다. 사실 현시대는 용접의 시대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용접기술을 높여 용접의 질을 높이는것은 새 7개년계획 기간에 공장, 기업소를 많이 건설하게 되는 조건에서 더욱더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지난날 해당부문일군들은 용접기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잘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 나라의 용접기술은 아직도 뒤떨어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습니다. 지금 용접공들의 기술기능수준도 낮고 용접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기계설비와 자재의 질도 낮습니다. 지금 우리의 용접기술을 가지고서는 새 7개년계획에 예견된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습니다.

용접기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능력있는 용접공들을 많이 키워내야 합니다. 용접공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자면 기계대학을 비롯하여 공업기술을 배워주는 대학들과 전문학교들에서 학생들에게 용접기술을 잘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계대학을 비롯하여 공업기술을 배워주는 대학들과 전문학교들에서 학생들에게 용접기술을 잘 가르쳐주지 않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학과 전문학교를 졸업한 기술자들의 용접기술수준이 그리 높지 못합니다. 교육부문에서는 해당부문 대학들과 전문학교들에서 용접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용접기술자들을 더 많이 키워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용접기술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용접기술자들을 많이 키워내는것과 함께 용접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기계설비와 자재들을 질적으로 더 많이 생산보장하여야 합니다.

용접기와 용접봉, 용접한것을 검사하는 기계들을 질적으로 넉넉히 생산보장해주어야 하겠습니다. 용접기술이 아무리 높아도 용접기와 용접봉을 질적으로 생산보장하여주지 않으면 용접의 질을 높일수 없습니다. 용접기를 계렬생산하며 여러곳에 용접봉공장을 꾸려 여러가지 질좋은 용접봉을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산소병을 만드는 전문공장을 꾸리고 산소병도 많이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륜전기재생산에서 정밀도를 높여 연유를 극력 절약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자동차, 뜨락또르를 비롯한 륜전기재들이 지난날에 비하여 비할바없이 늘어났지만 아직 원유를 생산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연유를 절약하는것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나라에서 생산하는 분사구와 연료뽐프의 정밀도가 높지 못하기때문에 연유랑비가 아주 많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륜전기재들의 정밀도를 높여 연유를 절약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덕천자동차부속품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박벽관을 만들어냈습니다. 덕천자동차부속품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은 아주 큰 일을 하였습니다. 박벽관은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서 많이 쓰는것만큼 마땅히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에서 만들어냈어야 할것입니다. 그런데 박벽관을 자동차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자동차부속품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정말 훌륭한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로동계급의 사상과 투쟁열의는 아주 좋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전진,전진, 투쟁 또 전진하겠다는 사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일군들이 로동자들의 투쟁열의를 옳게 조직동원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기계공업부문일군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륜전기재생산에서 정밀도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분사구, 연료뽐프의 정밀도를 국제수준에 이르게 하며 륜전기재들에서 연소률을 높여 연유를 최대한으로 절약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소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기계공장들에서 소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완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금속공장들에서 기계공장들에 필요한 여러가지 소재들을 다 만들어 보내줄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큰 기계공장들에 소재생산기지를 잘 꾸리고 필요한 소재들을 자체로 만들어 쓰도록 하여야 합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 생산공정을 자동화, 현대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 생산공정을 자동화, 현대화하여야 기계설비의 정밀도를 보장할수 있고 적은 로력으로 많은 제품을 생산할수 있습니다.

지난 기간 기계공업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공정을 반자동화, 자동화하는데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기계공업부문에서 자동흐름선을 많이 받아들이며 프로그람자동선반을 비롯한 능

률적인 자동기계들과 자동화설비들을 많이 창안제작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화요소들과 계기, 기구들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기지들을 전망성있게 꾸리고 전자관, 반도체소자를 비롯한 여러가지 자동화 요소들과 계기, 기구들을 많이 생산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 협동생산규률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협동생산규률을 세워야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습니다.

지금 일부 공장, 기업소들에서 협동생산품들을 제때에 생산하여주지 않기때문에 자동차, 뜨락또르 공장들에서는 다이야가 없어 다 만들어놓은 자동차, 뜨락또르들을 내보내지 못하고있으며 어떤 공장들에서는 베아링이나 계기가 없어 다 만들어놓은 제품들을 내보내지 못하고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기계공장들에서 협동생산품을 먼저 만들어주는 엄격한 규률을 세우고 당조직들에서 협동생산규률을 어김없이 지키도록 철저히 지도통제하여야 하겠습니다.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서는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기계공업부문 당조직들은 일군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 그들속에 남아있는 사대주의,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고 뒤떨어진 사상을 철저히 없애야 하겠습니다.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낡고 침체한것들이 전진운동을 방해할수 있습니다. 혁신이 일어날 때에는 낡고 뒤떨어진것이 방해하는 법입니다. 낡고 뒤떨어진것과 투쟁하지 않고서는 혁신이 일어날수 없습니다. 사대주의,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에 매달리면 자기것을 믿지 않게 되고 제기되는 기술적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갈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기계공업부문의 모든 당조직들은 사상교양사업과 사상투쟁을 짜고들어 진행함으로써 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보수주의, 소극성, 기술신비주의, 경험주의를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철저히 뿌리빼고 모두가 주인다운 립장에서 전진, 전진, 투쟁 또 전진하는 혁명적기풍을 더욱 높이 발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기계공업부문일군들속에서 사대주의적경향을 철저히 없애야 하겠습니다.

사대주의사상에 물젖으면 머저리가 됩니다.

얼마전에 우리 일군들이 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베아링이 없어 기업소를 제대로 돌리지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베아링을 다른 나라에서 사와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10월30일공장 일군들에게 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요구하는 베아링을 만들수 없는가고 하였더니 그들은 만들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10월30일공장에서 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 베아링을 만들어 보내주었는데 우리가 만든 베아링이 다른 나라에서 만든 베아링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당조직들은 기계공업부문의 모든 일군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새 7개년계획 수행에서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선 과업은 실로 영예롭고 보람찬것입니다.

당중앙위원회는 동무들을 믿고 새 전망계획을 세웠으며 동무들에게 큰 기대를 걸고있습니다.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여러가지 애로와 난관에 부닥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무들은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 앞에서 절대로 주저앉지 말아야 하며 혁명적기백을 가지고 그것을 대담하게 뚫고나가야 합니다. 동무들은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애로와 난관 앞에서 동요하거나 패배주의사상에 물젖어 우물쭈물하지 말고 천리마

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여야 합니다.

나는 기계공업부문의 모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새 7개년계획 수행에서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빛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를 다시한번 온 세상에 떨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함에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9월 5일

나는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제기하는것과 관련하여 그 취지에 대하여 간단히 말하려고 합니다.

로동계급이 자본주의제도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여 인민들의 물질생활을 높이는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사상의식과 문화기술 수준을 높이는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미 마련하여놓은 물질기술적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잘 관리하며 그것을 더욱 공고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사회의 모든 물질적부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근로대중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정치적자각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져야 그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온갖 창조적재능과 적극성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높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바로할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주의건설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뒤걸음질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에는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로동계급은 정권을 잡은 다음에도 오랜 기간 자본주의포위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밖으로부터 부르죠아반동사상과 퇴폐한 문화가 들어올수 있으며 안에서는 봉건사상, 자본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이 머리를 쳐들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교육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만일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사회주의교육도 아니고 자본주의교육도 아닌 범벅교육을 실시하면 자본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와 낡은 사상잔재의 부식작용을 막아낼수 없습니다.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사회주의교육을 바로하여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교육을 강화하는것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로동계급이 정권을 쥐였거나 뒤떨어진 식민지, 반봉건적인 나라들에서 로동계급이 정권을 쥐였거나에 관계없이 다같이 중요한 과업으로 나섭니다. 생산력발전수준에 따라 과도기의 기간이 길고짧은데는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변하기 위한 교육사업은 모든 나라에서 다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사람들이 착취제도를 때려부시고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을 벌릴 때에는

그들의 혁명적열의가 매우 높지만 착취제도를 때려부시고 일정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닦아놓은 다음에는 혁명적열의가 점차 식어지게 됩니다. 사회주의혁명을 한지 오랜 나라들의 경험을 놓고보아도 그렇고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건설경험을 놓고보아도 그렇고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고 먹고 입고 살 걱정이 없어지게 되면 사람들의 혁명적열의가 떨어지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에 교육사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혁명적열의를 더욱 높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맑스가 1848년에 《공산당선언》을 발표한 때로부터 130년의 력사가 지나갔으며 레닌의 지도밑에 로씨야에서 사회주의10월혁명이 승리한지도 벌써 60년이 되였습니다. 이 기간 국제공산주의운동과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제2차세계대전이후 여러 나라들에서 자본의 철쇄를 끊어버리고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많은 나라들에서 피압박인민들이 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독립을 쟁취하고 사회주의를 향하여 나아가고있습니다.

일찌기 레닌은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할수 있다는 리론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로씨야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지 반세기가 훨씬 넘고 지금 여러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지만 어느 나라도 공산주의에 이르지 못하고있습니다.

맑스는 《공산당선언》에서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력사는 계급투쟁의 력사였다고 밝혔으며 계속혁명에 관한 리론을 내놓았습니다. 로동계급이 정권을 쥔 다음에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을 계속하여야 합니다. 혁명을 계속하자면 사람들의 혁명의식을 계속 높이기 위한 교육교양사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적인간육성문제, 사회주의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뚜렷이 밝히지 못하였으며 어느 나라에도 그 본보기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적인간육성문제, 사회주의교육문제를 옳게 해결하지 못하여 사회주의가 승리한지 오래지만 아직 어느 나라에서도 공산주의를 실현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여기서 심각한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사회주의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습니다. 지금 제3세계나라들, 대다수신생독립국가들이 사회주의의 길로 나가겠다고 하고있습니다. 물론 그 나라들에서 말하는 사회주의가 과학적사회주의냐 비과학적사회주의냐 하는데서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를 종교식사회주의라고도 말하고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가 어떤것이든지간에 사회주의가 좋다는것만은 다 인정하고있습니다.

지금 신생독립국가들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사회주의를 어떻게 건설하는가 하는것을 쳐다보고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하며 교육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여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여러 나라들에 모범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회주의교육의 기본과업은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개조하며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것입니다.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개조하는것, 다시말하여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봉건주의와 자본주의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육성하는것은 사회주의교육에서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입니다.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개조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제국주의자들과 지주, 자본가들의 착취에 시달리던 지난날을 잊지 말고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지난날 지주, 자본가들이 로동자, 농민들을 어떻게 착취하였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려주고 그들이 착취제도를 극도로 미워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개조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것을 철저히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이 사회주의제도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온갖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끝까지 지켜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데서 혁명적락관주의로 무장시키는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혁명의 승리와 공산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미래를 사랑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상교양사업에서 기본은 사람들을 당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는것입니다.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입니다. 당에 대한 충실성은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에서 표현되여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당에 대한 충실성은 당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고상한 품성에서 표현되여야 합니다. 사람들을 당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여야 그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수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문화기술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당에 대한 충성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혁명리론으로 무장하고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였을뿐아니라 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그러한 사람이 요구됩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교육에서는 사람들을 당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교양하는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사회주의교육에서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것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자본주의의 포위속에서 모든것을 자체로 풀어나가는 매우 어려운 투쟁인것만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자주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하고 창조적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합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자주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하고 창조적정신을 높이 발양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사람들이 높은 문화기술지식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높은 문화기술지식을 소유하여야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의 기술에 대한 환상을 없앨수 있으며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없애고 주체적인 립장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습니다. 문화기술수준이 높지 못하면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지만 문화기술수준이 높으면 창의창발성을 내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체로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사회주의교육에서 사상교양과 문화기술교양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두 요새, 다시말하여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두 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사상교양을 홀시하고 문화기술교양 일면만을 내세워도 안되며 문화기술교양을 홀시하고 사상교양 일면만을 내세워도 안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개조하는 사업과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다같이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교육에서 특별히 중요한것은 혁명의 교대자들인 새세대들을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워내는것입니다. 우리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후대들을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워내는가 키워내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우리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하는가 완수하지 못하는가 하는 근본문제입니다.

혁명투쟁은 장기성을 띠는 어려운 투쟁입니다.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지만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여집니다. 우리의 혁명위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아직도 조국을 통일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우리 조국의 절반땅은 아직도 미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강점되고있으며 남조선은 온갖 반동들의 소굴로 되고있습니다. 남조선에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아있고 반동들이 남아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한시도 투쟁을 멈출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여야 합니다. 혁명의 교대자들을 잘 교육교양하여야만 혁명을 계속할수 있으며 조국을 통일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초기에 벌써 혁명이 장기성을 띤다는것을 예견하고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후대들을 교육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1930년대초에 시범적으로 고유수에 삼광학교를 세우고 청년들을 무료로 공부시키면서 사회주의적교육을 실시하여 많은 청년들을 혁명가로 키워냈습니다. 그때 삼광학교에서 공부한 청년들은 거의다 혁명투쟁에 나섰으며 비록 혁명투쟁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반동의 길로 나간 청년들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경험은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후대들에 대한 교육을 잘하여야 그들을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워낼수 있으며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혁명의 교대자들에 대한 교육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 그들을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워내야 합니다.

사회주의교육을 잘하자면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혁명과 건설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입니다.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사회주의국가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에로 나갈수 없습니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과 사회주의국가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부인하는것은 수정주의입니다.

맑스는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과도기에 프로레타리아독재가 필수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레닌은 프로레타리아독재에 대한 맑스의 리론을 옹호고수하였으며 쏘베트정권에 전기화를 더한것이 공산주의라는 명제를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맑스-레닌주의고전가들의 명제를 옳게 인식하고 그를 고수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레닌의 명제에서 쏘베트정권이라고 하는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의미하는것이며 전기화라고 하는것은 단순히 발전소를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는것이 아니라 기술혁명을 하여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여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고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변하여야 하며 기술혁명을 수행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사회주의교육사업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여 모든 학생들을 지덕체를 갖춘 유능한 공산주의건설자로 키워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교육사업을 더 잘하여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함으로써 모두가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조국을 통일하며 세계혁명적인민들과 단결하여 온 세상에서 제국주의를 완전히 타승하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 사회주의교육제도의 본보기를 꾸려놓음으로써 남조선인민들에게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실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교육을 잘할 때에만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조

국을 옹호보위할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는것을 우리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들에게 철저히 인식시키고 사회주의교육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 나는 이러한 취지로부터 우리 나라에서 오래동안 사회주의교육을 실시해오면서 이룩한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작성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제기합니다.

나는 동무들이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대한 토의에 적극 참가하며 테제에 근거하여 지난날의 자기 사업을 검토총화하고 사회주의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며 조국통일위업을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 발표
1977년 9월 5일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할 무거운 과업이 나선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혁명을 계속하여야 하며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공산주의건설의 두 요새를 점령하는데서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야 공산주의건설의 근본문제를 해결할수 있으며 물질적요새도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데 선차적힘을 넣어야 한다.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교육사업을 잘하여야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사상문화적락후성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교양육성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교육은 혁명의 승패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어느 시대, 어떤 민족을 마론하고 교육사업을 떠나서는 사회적진보도 민족적번영도 이룩할수 없다. 교육문제는 제국주의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 새로 독립을 쟁취한 나라들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는 첫날부터 교육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왔다. 우리 당은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옳은 교육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였으며 교육사업에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넣어왔다.

우리 당의 올바른 교육정책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짧은 기간에 식민지노예교육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고 선진적인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수립되였으며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빛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여 모든 새세대들이 국가의 혜택으로 마음껏 공부하고있으며

100만의 인테리대군이 자라나 국가, 경제, 문화 기관들을 훌륭히 관리운영하고있다. 현대문명에서 멀리 뒤떨어져있던 우리 근로자들이 모두다 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하고있다. 지난날 무지와 몽매가 지배하던 이 땅우에 사회주의적문명의 새시대가 펼쳐졌다.

오늘 우리앞에는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전면적으로 심화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사회주의교육을 더욱 발전시킬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교육사업을 발전시켜 사상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다그치고 기술혁명을 적극 추동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겨야 할것이다.

1.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키우는 사업이다.

사람은 자주적인 의식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질 때에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될수 있다. 사람의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은 타고난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타고난 사상과 지식이란 없다. 사람은 교육을 통하여 자주적인 사상의식과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식을 가지며 세계를 인식하고 변혁할수 있는 창조적능력을 키운다.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은 사람들을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것이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움으로써 사회주의제도를 위하여 복무하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이 자기의 목적과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에 기초하여 깊은 과학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는것이다.

혁명적인 사상과 깊은 지식과 건장한 체력은 공산주의적인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풍모이며 자질이다. 사람은 공산주의사상과 깊은 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겸비하여야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될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다.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 앞에 나서는 기본혁명과업이다.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에도 사람들의 의식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오래동안 남아있으며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가 계속된다.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의식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잔재를 뿌리뽑을수 없으며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적침습을 막아낼수 없다.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 사람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공산주의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켜야 온갖 낡은 사상의 부식작용을 이겨내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킬수 있다.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것은 공산주의적혁명인재를 키우는데서 나서는 근본문제이다.

사람은 사상의식을 가진 사회적존재이다. 사상의식은 사람의 가치와 품격을 결정하며

사람의 모든 활동을 조절한다.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며 공산주의적인간을 키우는데서 기본은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이다. 사람들이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하여야 공산주의적인간의 풍모를 갖출수 있으며 자주성과 창조성을 높이 발양할수 있다.

사람들이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하여야 공부도 잘하고 배운 지식을 혁명과 건설에 더 잘 써먹을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를 배워도 쓸모있는 지식을 배우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에 자기의 지혜와 재능을 다 바칠수 있다. 공산주의혁명사상에 기초하지 않은 지식은 아무런 쓸모도 없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교육은 마땅히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상혁명과정으로 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에서는 사상교양에 기본을 두어야 하며 사람들을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것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모든 교육 조건과 수단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데 복종되여야 한다.

공산주의적인간은 공산주의사상과 함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

과학지식을 소유하는것은 인간의 전면적발전의 중요한 조건이며 과학적세계관수립의 기초이다.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인간의 창조적활동은 과학지식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 한다. 사람은 공산주의사상과 함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혁명적세계관이 서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자로 될수 있으며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투쟁에 목적의식적으로 참가할수 있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과 현대적기술로 무장시키는것을 중요한 문제로 내세워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에서는 사람들에게 인류가 이룩한 과학과 기술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가르치며 세계를 깊이 인식하고 혁명적으로 변혁할수 있는 인식능력과 실천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건장한 체력은 인간의 지적 및 물질적 활동의 육체적담보이다. 건장한 체력을 가지지 않고서는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활동을 할수 없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의 체력을 증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사람의 사상과 지식과 체력은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인간을 키우기 위한 사회주의교육에서는 사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지식교육과 체육교육을 통일적과정으로 다같이 진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첫째로, 교육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을 구현하여야 한다.

계급사회에서의 교육은 언제나 계급적성격을 띤다. 사회주의교육은 그 계급적본질에 있어서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교육이다.

당성, 로동계급성은 사회주의교육의 제일생명이며 교육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이다.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교육만이 사람들을 당과 혁명에 충직한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으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이바지할수 있다.

사회주의교육을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키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이다.

사회주의교육은 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에 기초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의 지도사상은 공산주의, 주체사상이다. 공산주의, 주체사상

은 사회주의교육의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기초로 된다. 공산주의, 주체사상은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정확한 해답을 주며 사회주의교육의 발전방향을 가르쳐준다. 사회주의교육은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아야 하며 교육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은 당의 의도와 요구를 반영하고있다. 교육사업전반을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조직진행하여야 하며 교수를 당정책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은 당의 지도밑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당의 령도를 떠나서는 교육사업에서 당의 의도와 정책적요구를 관철할수 없다. 당의 령도를 강화하여 교육사업에서 《자유주의》와 무규률성을 없애고 모든 교수교양사업을 당의 방침대로 진행하는 혁명적규률을 세워야 한다.

교육사업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목적은 사람들을 당에 끝없이 충실한 혁명가로 키우는데 있다. 사회주의교육의 모든 공간들은 사람들을 당에 충실한 혁명전사로 키우는데 복무하여야 하며 교육사업의 전과정은 당에 대한 충실성교양으로 일관되여야 한다.

교육분야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은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하는 투쟁과 밀접히 결합되여있다. 교육분야에 비당적인 사상요소와 불건전한 경향이 침습하지 못하게 하며 그 사소한 표현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투쟁을 벌려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을 당적이며 로동계급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로동계급적선을 세워야 한다.

교육에서 로동계급적선을 세운다는것은 교육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로동계급과 자본가계급사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사이의 계선을 명확히 가르고 로동계급의 계급적 리익과 요구를 철저히 옹호관철하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계급투쟁이 계속된다. 만일 교육사업에서 로동계급적선을 똑똑히 세우지 못하고 로동계급과 자본가계급사이의 계선이 모호한 범벅교육을 한다면 사람들은 범벅사람으로 되고 사회는 범벅사회로 될수 있다.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교육사업에서 언제나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튼튼히 지키며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 문제들을 로동계급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풀어나가야 한다.

교육에서 로동계급의 리익과 요구를 옹호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온갖 비로동계급적요소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교육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봉건주의, 자본주의 잔재를 철저히 극복함으로써 사회주의교육을 사회주의사회의 본성과 로동계급의 지향에 맞게 발전시켜야 한다. 교육분야에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이 퍼뜨리는 반동적인 부르죠아사상과 퇴폐적인 생활풍조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특히 부르죠아교육리론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경계하여야 한다. 교육의 당성, 로동계급성을 부인하고 교육의 무사상성과 《자유화》를 설교하는 수정주의교육리론을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적사상조류를 반대하여 날카롭게 투쟁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교육의 당성, 로동계급성을 고수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의 순결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로, 교육에서 주체를 세워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사업은 민족국가단위로 진행되며 매개 나라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그 나라 인민자신이다. 나라마다 처하여있는 환경과 조건이 다르며 혁명임무도 같지 않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교육은 교수교양사업을 자기 나라의 실정과 자기 인민의 리익에 맞게 진행하며 사람들을 자기 나라 혁명의 주인으로 키우는 주체적인 교육으로 되여야 한다.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교육사업의 모든 문제를 자주적립

장에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이다.

사회주의교육은 구체적환경에서 살며 활동하는 산 인간을 키우는 창조적사업이다. 모든 나라의 구체적 환경과 조건에 다 들어맞는 교육 리론이나 경험은 있을수 없다. 우리는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우리 나라의 현실과 조선혁명의 리익에 맞게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독창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교육에서 주체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자기 나라의것을 기본으로 하여 가르치며 사람들이 자기의것에 정통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조선사람은 조선에서 혁명을 하고 조선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한다. 조선사람이 조선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하며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려면 조선의 과거와 현재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하며 조선혁명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한다.

우리의 교육에서는 사람들을 우리 당의 정책과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에게 우리 나라의 력사와 문화, 자연과 지리에 대하여 잘 알려주어야 한다. 사람들이 우리 나라와 우리 혁명에 대하여 잘 알아야 나라의 모든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동원리용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옳게 풀어나갈수 있으며 우리 당의 령도밑에 조선에서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심, 조국과 인민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우리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할수 있다.

교육에서 다른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주체적립장에서 우리 나라의 구체적 조건과 실정에 맞게 가르쳐야 한다. 선진적인 과학기술이라 하더라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혁명과 건설에 도움을 줄수 없으며 도리여 나쁜 후과를 끼칠수 있다. 다른 나라의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나라의것을 더 잘 알며 우리 혁명과 건설을 더 잘하기 위한 목적에서 배우고 받아들여야 한다.

교육에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여야 한다. 교육분야에서 사대주의, 교조주의가 허용되면 온갖 기회주의적이며 반동적인 교육리론과 사상조류가 들어올수 있으며 교육사업을 우리 혁명과 우리 인민의 리익에 맞게 발전시킬수 없다. 우리는 사대주의, 교조주의를 철저히 반대함으로써 사회주의교육을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교육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로, 교육과 혁명실천을 결합하여야 한다.

교육은 실천의 요구로부터 발생하였으며 실천을 위하여 복무한다. 실천과 결합된 교육만이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있다.

사회주의교육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실천과 결합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이 로동계급의 혁명실천과 결합되여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이바지할수 있다.

교육을 혁명실천과 결합하는것은 사람들을 쓸모있는 산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실천은 인식의 출발점이며 진리의 기준이며 리론발전의 추동력이다. 혁명실천은 사람들에게 실천능력을 키워주며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단련시킨다. 사람은 세계에 대한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된다.

교육을 혁명실천과 밀접히 결합하여야 하나를 가르쳐도 혁명과 건설에 써먹을수 있는 지식을 가르칠수 있으며 사람들을 산 지식과 실천능력을 가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울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혁명실천과 결부되지 않은 순수 리론을 위한 리론, 지식을 위한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다. 사회주의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일반 원리와 리론을 실천과 밀접히 결부하여 가르치며 모든 리론과 지식이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푸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교육을 현실에 끊임없이 접근시켜야 한다. 교육사업에 우리 나라의 들끓는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여야 하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육 내용과 방법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교육사업을 더욱 개선하고 완성하여야 한다.

넷째로, 사회주의국가가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은 사회주의국가의 사상문화교양의 무기이다. 사회주의국가는 교육사업을 통하여 문화교양자적기능을 수행한다. 사회주의국가는 교육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진행하여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육성하는 사업을 다그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앞당겨야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교육사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사람과의 사업이다. 인간개조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다른 사업에 앞세우는것은 모든 사업의 성과를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혁명과 건설은 사람들을 교육교양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조직진행하는데서 언제나 교육사업을 첫자리에 놓아야 하며 사람들을 교육교양하는 사업을 잘하여 다른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혁명적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끊임없이 교육교양하는 원칙에서 교육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적인 교육이다. 사회주의교육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끊임없이 교육교양하여 그들을 모두다 자주성과 창조성을 가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워야 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끊임없이 교육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끊임없이 교육하여야 사람들사이의 사상, 기술, 문화 수준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온 사회를 로동계급화, 혁명화, 인테리화하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사회주의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끊임없이 교육할수 있도록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합리적인 교육체계를 세우고 후대교육사업과 성인교육사업, 민족간부양성사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교육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생산수단이 국가와 사회의 소유로 되여있고 교육기관을 국가가 지도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국가의 책임적인 보장에 의해서만 교육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교육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는것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국가의 영예로운 의무이다. 사회주의국가는 교원을 양성하고 학교를 세우며 교육시설을 꾸리고 교재와 교구비품을 마련하는것을 비롯하여 교육사업에 필요한 온갖 조건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2. 사회주의교육의 내용

교육내용은 교육의 성격과 질을 특징짓는다.

사회주의교육의 내용은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지덕체를 겸비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울수 있도록 구성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의 내용은 혁명성으로 일관되여야 하며 과학성과 현실성이 보장되여야 한다.

1) 정치사상교양

정치사상교양은 사회주의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정치사상교양을 잘하여야 학생들을 혁명적세계관이 서고 공산주의적인간의 사상도덕적풍모를 갖춘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다. 또한 정치사상교양을 잘하는 기초우에서만 과학기술교육과 체육교육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정치사상교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적인간이 가져야 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세계관이다. 학생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혁명과 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혁명인재로 될수 있다.

사회주의교육에서는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데 선차적주목을 돌려야 하며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켜야 한다.

학생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하여서는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모든 로선과 정책은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당의 로선과 정책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가르쳐주어 모든 학생들이 당정책의 본질과 그 정당성을 똑똑히 깨닫고 당정책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은 사람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고 그들을 혁명화하는데 필요한 사상적내용을 풍부히 담고있으며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있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를 똑똑히 알게 하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주체의 사상체계,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은 당에 대한 충실성을 키우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청소년학생들이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당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치사상교양에서 다음으로 중요한것은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 학생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의식과 공산주의도덕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이다.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과 혁명적락관주의는 공산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가들의 고상한 정신적풍모이다. 학생들에게 공산주의위업의 정당성과 승리의 필연성, 공산주의앞날의 휘황한 전망을 똑똑히 알려주어 그들이 공산주의의 승리를 굳게 믿고 그것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을 미래를 사랑하는 정신과 계속혁명의 사

상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공산주의사상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로동계급의 계급의식이며 공산주의교양에서 기본은 계급교양이다.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확고한 로동계급적관점을 가지고 로동계급의 립장에 튼튼히 서서 로동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혁명의 원쑤들을 미워하도록 교양하는것이 중요하다. 혁명의 원쑤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적을 반대하여 견결히 싸울수 없으며 참다운 혁명가로 될수 없다. 학생들을 제국주의와 지주, 자본가 계급을 미워하는 사상으로 무장시켜 그들이 계급적원쑤들과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원칙이다. 모든 학생들이 개인주의, 리기주의를 없애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따라 일하고 배우고 생활하며 사회와 인민의 리익,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로동을 사랑하는것은 공산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품성의 하나이다. 모든 학생들이 로동을 신성하고 영예로운것으로 여기며 일하기를 즐겨하고 로동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집단과 사회를 위한 공동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애국주의는 로동계급의 정권과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와 찬란한 민족문화가 있는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이다. 모든 학생들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조국과 인민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훌륭한 전통과 유산을 귀중히 여기며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몸바쳐 싸우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자기의 책상과 걸상을 아끼고 사랑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국가와 사회의 모든 공동재산을 귀중히 여기며 나라의 살림살이를 알뜰하고 깐지게 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학생들을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으로 무장시켜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세계 여러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하고 그들과 친선단결을 강화하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우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청소년학생들을 사회주의적준법사상으로 교양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법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며 생활규범이다. 모든 학생들이 국가의 법을 존중히 여기고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법질서를 어기는 현상을 반대하여 원칙적으로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소년학생들이 공산주의도덕과 사회주의생활양식을 가지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모든 학생들이 낡은 도덕관념과 생활인습을 철저히 없애고 공산주의적도덕규범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사회주의적생활양식에 맞게 혁명적으로 생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들의 사상의식발전과정은 그들의 성장과정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 그러므로 정치사상교양은 낮은 나이로부터 높은 나이로, 낮은 교육단계로부터 높은 교육단계로 올라가면서 점차 심화시켜야 한다. 유치원교육에서 어린이들에게 사회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표상을 주고 정치사상의식을 싹틔워주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람들이 성장하고 교육단계가 높아지는데 따라 점차 사회현상의 본질과 원리를 깊이 인식시키도록 사상교양을 심화시키며 교육수준을 높여야 한다.

2) 과학기술교육

과학기술교육은 학생들에게 인류가 달성한 선진과학과 기술의 성과를 체득시키고 그

활용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교육이다.

과학기술교육에서는 일반지식과 전문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먼저 일반지식교육을 잘하여야 한다.

일반지식은 사회주의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누구나 다 알아야 할 필수적지식이다. 학교에서 일반지식교육을 잘하여야 학생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지며 전문분야의 현대과학과 기술을 체득할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닦을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학생들에 대한 완성된 중등일반지식교육은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체계를 통하여 실시된다.

일반지식교육에서 중요한것은 일반기초지식을 가르치는것이다. 초등교육과 중등일반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사물현상의 일반적개념과 본질, 그 변화발전법칙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르치며 특히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같은 기초과학분야의 일반지식을 가르치는데 기본을 두어야 한다.

또한 기초기술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에게 생산과 기술의 기초원리와 전기, 기계에 대한 지식을 비롯한 기초기술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중등일반교육단계에서 모든 학생들이 우리 나라 인민경제의 현대적생산과 결부된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교육에서 기술교육을 소홀히 하고 일반기초지식을 주는데만 치우침으로써 학생들을 생산실천으로부터 떨어지게 하여도 안되며 일반기초지식교육을 소홀히 하고 기술교육을 지나치게 내세움으로써 중등일반교육을 직업교육화하여도 안된다. 중등일반교육에서는 반드시 일반기초지식을 충분히 주면서 거기에 기초기술교육을 옳게 배합하여야 한다.

일반교육단계에서 예능교육을 잘하여야 한다. 초등 및 중등 교육기관들에서 예능과목들의 교수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문학예술작품을 감상하고 창작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식과 한가지이상의 악기를 다룰수 있는 예술적기량과 풍부한 미학적정서를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전문지식교육을 잘하여야 한다.

전문지식교육은 완성된 중등일반지식을 준 기초우에서 고등교육단계에서 주어야 한다. 전문지식교육을 강화하여야 사람들을 능력있는 기술자, 전문가로 키울수 있으며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자연과학분야의 전문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자연과학의 기초원리와 리론, 자연과학분야에서 이룩한 최신성과들을 깊이 체득시키며 혁명실천에서 나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사회과학분야의 전문교육에서는 학생들에게 사회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과 계급투쟁에 관한 리론, 혁명의 전략전술에 관한 리론을 깊이 체득시키며 우리 당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한 귀중한 성과와 경험들을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리론적으로 깊이있게 해석선전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을 과학적으로 옳게 해명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어야 한다.

전문기술교육에서는 현대적기술을 가르쳐야 한다. 학생들에게 현대 생산과 기술의 공학적원리를 깊이있게 가르치며 일정한 분야의 전문기술지식을 체득시켜야 한다. 이와 함께 자동화설비를 비롯한 현대적기술수단들을 능숙하게 다룰수 있는 기능을 키워주어야 한다.

과학기술교육의 내용은 현실발전의 요구와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보충하고 풍부히 해나가야 한다.

과학기술교육은 철저히 당정책화하여야 한다. 모든 과목의 교수내용을 당정책으로 일관시키며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과 결부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하나를 배워도 우리 혁명에 절실히 필요한것을 배우며 배운 지식과 기술을 혁명실천에 능숙하게 써먹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체육교육

체육교육의 사명은 청소년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켜 그들을 로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는데 있다.

청소년들의 튼튼한 체력은 혁명투쟁과 부강한 사회 건설의 기초이다. 체육교육을 잘하여 청소년들의 체력을 튼튼히 키워야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나라의 위력을 강화할수 있다.

체육교육은 청소년들의 체력을 증진시킬뿐아니라 그들의 사상의지를 단련하며 문화수준을 높이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청소년학생들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용감성과 대담성, 강의한 투지와 인내성을 키우며 체육기교와 문화적소양을 높인다.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체육교육을 잘하여야 한다. 특히 신체발육이 가장 왕성한 시기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초등학교들과 중등학교들에서 체육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학교체육교육의 중심은 학생들의 체력을 튼튼히 하고 몸을 조화롭게 발달시키는데 두어야 한다. 체육교육은 우리 나라의 자연지리적조건과 민족적체질의 특성, 청소년학생들의 성별, 나이, 인체생리학적요구에 맞게 하여야 한다.

청소년학생들의 키를 크게 하고 골격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체육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며 국방체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체육을 대중화, 생활화하여야 한다. 학교들에서 광범한 학생들을 망라하는 집단적인 체육활동을 일상적으로 많이 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과외체육을 널리 조직하여야 한다. 학교들에서 업간체조, 집단달리기, 집단체조, 체육대회를 비롯한 다채로운 체육활동을 널리 하고 여러가지 체육소조활동을 활발히 벌려 모든 학생들이 체력을 끊임없이 단련하며 한가지이상의 체육기술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사회주의교육의 방법

사회주의교육은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할 때에만 성과를 거둘수 있다. 우리는 사회주의교육의 목적과 사명에 맞게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방법을 세우고 그에 따라 교육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 깨우쳐주는 교수교양

학교교육의 기본형태는 교수이며 교수의 기본방법은 깨우쳐주는 교수이다. 교수를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하여야 학생들이 교수내용을 정확히 소화할수 있으며 따라서 교육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실현할수 있다.

깨우쳐주는 교수는 사회주의교육의 본성과 인식과정의 합법칙성에 맞는 가장 우월한 교수방법이다.

사회주의교육은 그 본성으로부터 학생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키워주는 교수방법을 요

구한다. 깨우쳐주는 교수는 학생들자신이 능동적인 사고활동을 통하여 교수내용을 깨닫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적극 조장발전시킨다.

인식의 주체는 사람들자신이다. 사람은 자체의 능동적인 사고활동을 통하여서만 사물현상의 본질을 인식할수 있다.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은 학생들의 사유활동을 추동하여 그들이 사물현상의 본질을 쉽게 파악하고 깨닫도록 한다.

우리의 학교들에서는 반드시 모든 과목의 교수를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깨우쳐주는 교수에서는 학생들의 자각성과 적극성을 높이며 교수내용의 론리성과 체계성, 순차성을 보장하는 기초우에서 학생들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교수수법을 옳게 적용하여야 한다.

깨우쳐주는 교수수법에서 중요한것은 이야기, 담화의 형식으로 설명을 잘하는것이다. 설명은 생동하고 설득력있고 론리정연하게 하여 학생들이 교수내용을 쉽게 깨달을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사고를 적극 계발시키기 위하여서는 토론과 론쟁을 널리 하며 특히 문답식방법을 옳게 적용하여야 한다. 문답식방법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학습방법으로서 이미 실생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뚜렷이 증명되였다. 문답식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것은 학생들에게 교수내용을 폭넓고 깊이있게 인식시키기 위한 담보로 된다.

직관교육, 실물교육은 학생들에게 사물현상과 과학적원리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주고 그들의 능동적사고를 계발시키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 학교들에서는 학과목의 특성에 맞게 교수내용을 직관화하며 여러가지 형태의 현대적인 직관수단들을 널리 리용하여 직관교육, 실물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사상교양은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공산주의사상은 학생들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공감할 때 비로소 그들의 확고한 신념으로 될수 있다. 그러므로 사상교양은 강압적방법이나 들이먹이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반드시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선진사상을 스스로 깨닫고 공감하게 하여야 하며 결함이 있거나 뒤떨어진 사람에 대하여서도 잘 타일러 그가 자기의 결함과 부족점을 스스로 뉘우치고 고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설과 설복은 매개 학생들의 구체적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그리고 꾸준하고 참을성있게 하여야 한다.

긍정적모범으로 감화시키는것은 사상교양의 기본방법의 하나이다.

긍정적모범은 부정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으로 되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하며 생활해야 하는가를 생동하게 가르쳐준다. 따라서 긍정적모범은 사람들속에서 부정을 이겨내고 새것, 진보적인것을 조장발전시키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된다.

청소년들은 새것에 민감하고 정의감이 강하며 다른 사람의 모범을 본따기 좋아한다. 그러므로 긍정적모범은 청소년학생들속에서 커다란 공명을 일으키며 널리 일반화될수 있다.

항일혁명선렬들의 영웅적투쟁은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에게 참된 투쟁과 생활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구감이다. 학교들에서는 항일혁명선렬들의 빛나는 모범으로 학생들을 감화시켜 교양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학생들속에서 창조되는 모범은 그들의 실생활과 직접 잇닿아있는것으로 하여 커다란 감화력을 가진다. 학생들속에서 창조되는 긍정적모범을 제때에 찾아내고 널리 일반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그것을 학습과 생활에 구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들자신의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 조장발전시켜 부정적측면을 스스로 이겨내도록 하여야 한다.

2) 리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의 결합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하는것은 학생들을 쓸모있는 산 지식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 중요한 방도이다. 책에서 배운 리론은 실천을 통하여 그 진리성이 검증되고 응용능력과 결부되여야 혁명실천에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으로 된다.

학교교육에서 강의와 실험실습을 옳게 결합하여 학생들이 강의에서 배운 지식을 자기의것으로 충분히 소화하며 그것을 실천에 적용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에서 특히 생산실습과 전공실습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중등교육단계에서의 생산실습은 현대생산의 기초적인 기술지식과 기계설비, 로동도구를 다루는 기술기능을 습득시키는 방향에서 진행하며 고등교육단계에서의 생산실습과 전공실습은 전문분야의 과학적원리와 현대적인 기술기능을 습득시키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하여야 한다.

숙련과 기량을 요구하는 학과목들에 대하여서는 련습을 강화하여야 한다. 련습은 과학적인 리론과 원리에 기초하여야 하며 체계성과 순차성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자립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현실속에서 생동하고 폭넓은 지식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계획적으로 조직하며 사회문화교양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대한 견학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교육과 생산로동을 옳게 결합하여야 한다.

사회적실천의 가장 중요한 형태인 생산로동은 자연을 변혁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며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사람은 생산로동을 통하여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변혁하며 자신의 사상의식과 풍모를 개조한다. 생산로동에서 유리되여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학생들을 생산로동에 참가시키는것은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학생들은 생산로동을 통하여 사상을 단련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본받으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고 그 응용능력을 키우며 현실에 대한 체험과 로동에 대한 숙련을 쌓는다.

학생들을 생산로동에 참가시키는데서 교육학적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교육 일면에만 치우치면서 생산로동을 소홀히 하는 경향과 학생들을 생산로동에 지나치게 많이 참가시키는 경향을 다같이 경계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생산로동은 교육교양에 도움이 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3)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의 강화

청소년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고 혁명적으로 교양하기 위하여서는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을 강화하며 그것을 교수사업과 밀접히 결합하여야 한다.

조직생활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이다. 청소년학생들은 소년단, 사로청 조직생활을 통하여 사상적교양을 받고 혁명적단련을 쌓으며 조직성과 규률성을 키운다. 높은 사상성과 강한 조직성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는 오직 혁명적조직생활을 통해서만 자라날수 있다.

학생들의 조직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청소년학생들이 조직생활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는것이다. 조직생활은 곧 정치생활이며 정치적생명을 이어나가는 과정이다. 청소년학생들은 소년단, 사로청 조직생활에 참가하는것을 가장 큰 영예로, 신성한 의무로 여겨야 하며 조직의 규약상 의

무와 위임분공을 자각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소년단, 사로청 조직생활에서는 사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비판을 강화하여야 한다. 비판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는 조직생활만이 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고 혁명적으로 교양할수 있으며 공산주의적혁명인재를 키우는데 이바지할수 있다. 학생들속에서 비판과 자기비판을 강화하며 특히 조직생활총화회의를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학교 소년단, 사로청 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학교 소년단, 사로청 조직은 학생들의 정치적생명을 보호하는 정치적보호자이며 그들의 친근한 교양자이다. 학교 소년단조직과 사로청조직들은 학생들의 정치적생명을 보호하고 관리하며 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하고 단련시키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학교 소년단, 사로청 조직들은 학생들의 나이와 준비정도, 심리적특성에 맞게 분공을 주고 그것을 잘 수행하도록 도와주며 분공실행정형을 제때에 총화하고 다시 새로운 분공을 주어 모든 학생들이 늘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을 사회정치활동에 널리 참가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정치활동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실천활동이며 사회주의건설에 직접 이바지하는 혁명활동이다. 학생들을 사회정치활동에 널리 참가시킴으로써 그들을 어려서부터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투쟁할줄 아는 참다운 사회의 주인으로, 군중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할줄 아는 능력있는 사회정치활동가로 키워야 한다.

학생들로 당정책선전대, 과학선전대, 위생선전대를 비롯한 여러가지 선전대를 무어 대중속에서 당정책도 해설하고 과학기술지식과 문화위생지식도 널리 보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학생들속에서 위생근위대, 록화근위대 활동과 소년단림, 사로청림을 조성하는 운동, 사회주의건설지원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좋은일하기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대학생들의 사회정치활동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그들을 3대혁명소조운동에 적극 참가시키는것이다. 대학생들을 3대혁명소조운동에 계획적으로 참가시켜 그들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며 그 과정에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단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학생들은 학교에서 조직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을 받는것과 함께 사회관계속에서 생활하면서 교육교양을 받는다. 그러므로 후대교육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학교교육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교육적영향을 주는 모든곳에서 학생들을 옳바로 교육교양하여야 하며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밀접히 결합하여야 한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결합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기초한 사회주의교육의 중요한 특성이며 우월성이다. 근로자들사이의 단결과 협조가 사회관계의 기본으로 되고있고 집단주의가 사회생활의 기초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후대교육에 대하여 학교와 사회가 공통된 지향과 리해관계를 가진다. 이것은 후대교육을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며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밀접히 결합할수 있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옳게 결합하기 위하여서는 학교교육의 결정적역할을 높이는 기초우에서 사회교육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사회교육은 학생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교육은 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속에 과학기술지식과 문학예술지

식, 체육기술을 보급하는데 적극 이바지한다. 사회교육을 잘하여 학교교육을 안받침하며 학교교육의 성과를 공고히 하고 보충하여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사회교육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사회교양기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며 사회교양시설들과 선전교양수단들을 잘 리용하는것이다.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 도서관을 비롯한 사회교양시설들은 학생교양의 믿음직한 기지이다. 사회교양시설들을 거점으로 하여 정치시사강연, 과학토론회, 발표모임을 정상적으로 조직하며 여러가지 소조활동을 널리 벌려야 한다.

학교와 사회교양기관들사이의 련계를 강화하며 교원들과 사회교양기관일군들이 학생교육에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교원들과 사회교양기관일군들은 학생교육문제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토론하고 경험을 나누며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에서 공동보조를 취하여야 한다.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다.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생활하는 과정에 교육적영향을 많이 받는다. 가정을 혁명화하고 가정에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여 가정생활자체가 학생들에게 혁명적인 영향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학부형들은 사회정치생활과 사회주의건설에 모범적으로 참가하며 언제나 검박하게 생활하고 례절바르게 행동함으로써 한마디한마디의 말과 하나하나의 행동이 다 아들딸들에게 교양이 되고 본보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적환경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교육적영향은 매우 크다. 방송, 출판물, 영화의 내용을 혁명적인것으로 일관시키며 온 사회에 건전한 생활기풍을 철저히 세워 학생들이 사회에서 보고듣는 모든것이 다 교육이 되고 교양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 병진

사회주의교육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일생동안 교육하는 전면적이며 지속적인 교육으로 되여야 한다.

사람의 사상과 품격은 어려서부터 형성되며 일생동안 공고발전된다. 세계에 대한 인간의 인식은 날을 따라 깊어지며 인류의 지식과 경험은 계속 풍부화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적세계관과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가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끊임없이 교육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일생동안 끊임없이 교육하는 방도는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을 옳게 결합하고 병진시키는것이다.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은 사람들의 성장기에 따르는 순차적인 교육단계이며 사람들에 대한 교육교양의 련속적과정이다.

학교전 교육은 사람들에 대한 교육교양의 첫공정이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사상이 형성되고 지적발전이 이루어지는것만큼 어린 시절에 옳바른 교양을 주고 좋은 버릇을 길러주는것이 중요하다.

학교전 교육의 중심은 학교교육의 기초를 닦는데 두어야 한다. 유치원들에서는 혁명사상교양과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하면서 지적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잘하여야 하며 어린이들의 문화적소양을 높이고 몸을 튼튼히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특히 1년동안의 학교전 의무교육을 질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학교교육을 원만히 받을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유치원교육은 어린이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직관물과 실물을 통한 수업, 노래와 춤, 놀이를 통한 교양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을 잘 배합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학교교육은 사람들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의 교육이다. 청소년시기는 세계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탐구력과 인식능력이 왕성하고 육체적으로 빨리 발육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학교교육은 사람들의 세계관확립과 품격형성에 결정적영향을 준다.

학교교육의 기본과업은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을 혁명적세계관이 서고 현대적과학기술을 가진 혁명인재로 키우는것이다. 청소년들을 중등교육을 통하여서는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이 서고 완성된 중등일반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며 고등교육을 통하여서는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현대적과학기술을 소유한 혁명인재로 키워야 한다.

성인교육은 사회주의건설에 참가하고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이다. 성인교육은 근로자들의 혁명적세계관을 공고발전시키며 그들의 일반지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사람들의 사상의식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 조건과 환경에 따라 변할수 있으며 과학기술은 한자리에 머물러있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한다. 학교교육을 통하여 혁명적세계관을 세우고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계속 교육하지 않으면 혁명적세계관을 공고발전시킬수 없으며 현실발전을 따라갈수 없다. 그러므로 성인교육을 강화하여 학교교육의 성과를 공고발전시켜야 하며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사람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성인교육은 일반지식수준과 기술문화수준이 각이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오늘 우리 나라 성인교육의 대상에는 지난날 정규적인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인교육체계를 통하여 중학교졸업정도의 지식수준을 가진 사람, 정규학교에서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성인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지식수준이 각이한 근로자들의 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태의 성인교육체계를 내오고 모든 근로자들이 자기 수준에 맞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학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간부들을 교육교양하는데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간부들을 여러가지 재교육체계를 통하여 계획적으로 재교육하는것과 함께 그들이 토요학습, 수요강연회에 빠짐없이 참가하며 매일 2시간학습을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는 구호밑에 온 나라에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열심히 배우고 또 배우도록 하여야 한다.

4.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

사회주의교육사업은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에 맞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에 토대하여서만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구현하며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게 하는 기본담보로 된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력사적뿌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마련되였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인 교육로선을 내놓고 그것을 구현하여 독창적인 형식과 방법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 혁명인재육성의 고귀한 경험이 창조되였으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적교육전통이 이루어졌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된 새로운 교육제도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원형으로 되였다.

우리는 해방후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시기 새 조국 건설을 위한 사회경제개혁의 한 고리로서 일제의 식민지노예교육제도를 철폐하고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교육제도를 창설

하였다. 민주주의교육제도는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는데 따라 더욱 공고화되였으며 점차 사회주의교육제도로 발전하였다. 사회주의혁명이 완수되고 사회주의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단계에 이르러 교육체계와 교육내용, 교육방법이 사회주의사회의 요구에 맞게 개편되였으며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에 복무하는 혁명적인 교육제도이며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고 전체 인민을 공부시키는 가장 인민적인 교육제도이다.

우리는 실생활을 통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완성하여야 한다.

1) 전반적의무교육제도

사회주의교육제도는 본질에 있어서 전반적의무교육제도이다. 사회주의교육은 일부 소수계층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전민교육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또한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의무를 지니고있다. 교육체계의 구성과 교육기관들의 배치, 무료교육제의 실시를 비롯하여 우리 당과 국가가 실시하는 교육시책들은 모두 전체 인민들을 빠짐없이 공부시키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의무교육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학교의무교육이다.

우리는 해방후 짧은 기간에 인민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학교들을 널리 설치하고 정연한 민주주의교육체계를 세운 기초우에서 혁명과 건설이 전진하고 나라의 경제토대가 튼튼하여지는데 따라 전반적의무교육제를 단계별로 실시하였다. 1956년에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한데 이어 1958년에는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였으며 1967년부터는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1972년부터는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과 10년동안의 학교의무교육을 주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은 모든 새세대들에게 로동할 나이가 되기까지의 기간에 완전한 중등일반교육을 주는 무료의무교육이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은 과학적인 교육체계와 가장 철저한 무료교육에 기초하고있으며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을 높은 수준에서 결합시키고 있다.

우리 당은 새세대들을 위한 정규학교들에서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는것과 함께 모든 근로자들이 일정한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의무적으로 공부하도록 하는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우리 당은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여러가지 형태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내오고 그것을 성과적으로 운영하여 학령기의 새세대들뿐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빠짐없이 공부하도록 하였다. 당의 현명한 방침에 따라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배움의 길을 잃었던 성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되였으며 누구나 다 중학교졸업정도이상의 문화기술수준을 가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당과 국가의 지도밑에 모든 근로자들이 문화기술수준과 정치리론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학습을 정상화하고있다.

전반적의무교육제도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고 완성하여야 한다.

전반적의무교육제도를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지금 실시하고있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더욱 공고히 한 기초우에서 전망적으로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사회

성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훨씬 높여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일정한 고등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만 실현할수 있으며 그렇게 하려면 고등교육도 의무교육으로 되여야 한다. 고등교육까지 의무교육으로 되여야 사회주의교육제도로서의 전반적의무교육제가 완성된다.

당면하게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원만히 실시하는데 힘을 넣으면서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하여야 하며 앞으로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서는 고등교육기관들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점차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는데로 넘어가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을 늘이는데서 기본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확대발전시키는데 두어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로력전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마친 모든 청년들에게 고등교육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

전반적의무교육을 더욱 원만히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교육기관들의 지역적배치를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교육기관들을 지역적으로 옳게 배치하는것은 전국적범위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의 모든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나라의 지역적특성과 전반적균형을 고려하여 도시와 농촌, 공업지대와 농업지대에 교육기관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민족간부에 대한 국가적수요를 보장하며 각 도에 종합적간부양성기지를 꾸리는 원칙에서 고등교육기관들을 배치하여야 한다.

고등교육기관들의 과학부문별 편성을 합리적으로 하는것이 중요하다. 매 시기 민족간부에 대한 국가적수요를 정확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과학부문별로 대학들과 대학의 학부, 학과들을 옳게 편성하고 학생규모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특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진척되고 자연과학기술이 높이 발전하는데 따라 인문학계통에 비한 자연과학기술계통의 비중을 훨씬 높여나가야 한다.

2) 전반적무료교육제도

의무교육은 무료교육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야만 참다운것으로 될수 있다. 무료교육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의무교육은 의무교육이라고 말할수 없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의무교육이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이른바 《의무교육》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교육사업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인민들에게 배움의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준다는데 있다.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무료교육은 생산수단과 교육시설이 국가와 인민의 소유로 되여있고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와 인민들의 리해관계가 일치하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가능하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인민들의 교육사업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가장 철저한 무료교육을 실시하고있다.

우리는 나라의 경제형편이 매우 어려웠던 해방직후에 벌써 가난한 집 어린이들의 수업료를 면제하여주고 전문학교 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주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전후시기에는 전반적초등의무교육과 전반적중등의무교육을 무료교육으로 보장하였다. 그리고 1959년부터는 우리 나라의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전반적무료교육제를 실시하였다.

오늘 우리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철저한 무료교육으로 보장하고있으며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다 무료로 실시하고있다. 학교교육뿐아니라 온갖 형태의 사회교육도 무료로 하며 간

부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성인교육사업도 모두 국가의 부담으로 하고있다. 우리 나라 국가예산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으며 그것은 해마다 계통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국가부담에 의한 전반적무료교육제도는 후대교육과 민족간부양성을 위하여 모든것을 아끼지 않는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과 날로 더욱 튼튼하여지는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교육사업이 발전하고 나라의 경제토대가 튼튼하여지는데 따라 국가는 교육기관과 교육시설을 더 잘 꾸리고 모든 학생들에게 교과서, 학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며 집단기숙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3)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는 사회주의건설의 각 분야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생산활동과 본신사업을 계속하면서 일정한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공부하는 우월한 교육제도이다.

우리 당은 자라나는 새세대들뿐아니라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전체 인민을 빠짐없이 공부시키는 원칙에 따라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내왔으며 그것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발전시켜왔다. 오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는 근로자고등중학교, 공장고등전문학교, 공장대학, 통신 및 야간 교육망, 간부들과 근로자들의 정규적인 학습체계와 같은 교육형태들로 이루어져있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는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건설의 자기 초소를 떠나지 않고 공부를 계속할수 있게 함으로써 전민교육의 성과적실현을 보장한다.

지난날 착취사회에서 배우지 못하였던 근로자들이 있고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의 규모와 교육기간이 제한되여있으며 교육사업과 사회주의건설사업을 동시에 밀고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에서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만으로는 전민교육을 실현할수 없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함께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동시에 전체 인민을 끊임없이 교육하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을뿐아니라 교육을 중단하는 사람이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일생동안 공부를 계속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체계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병행하여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 교육방침의 정당성이 있으며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의 커다란 우월성의 하나가 있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는 혁명적세계관이 튼튼히 서고 리론과 실천을 다 갖춘 유능한 민족간부를 많이 키워낼수 있게 하며 교육사업과 사회주의건설을 밀접히 결합시킨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망라된 사람들은 학생이자 곧 생산자이며 현직일군이다. 실천활동을 위주로 하는 그들은 혁명적실천의 절실한 요구에 따라 리론을 배우며 배운 리론을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실천활동에 직접 적용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학습과 실천활동은 서로 뗄수 없는 통일적과정이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통한 교육사업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전적으로 맞는것이며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가 요구하는 쓸모있는 혁명인재를 키우는 매우 좋은 방도로 된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기관들은 거의다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들과 생산기업소들에 병설되여있으므로 교육일군과 교육시설, 실험실습조건을 손쉽게 잘 해결할수 있다. 또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서는 학생들이 생산활동과 본신사업에서 떨어지지 않고 공부를 하기때문에 사회주의건설에서의 로력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는 조건에서 일정한 시일이 지나면 근로자고등중학교체계는 필요없게 될것이며 앞으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서는 고등교육체계와 간부들과 근로자들의 정규적인 학습체계가 기본형태로 남아있게 될것이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모든 사회성원들이 다 고등교육을 받도록 하려면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더욱 확대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공장대학을 더 늘이고 그 교수사업을 개선하며 농촌지역들에는 농장대학들을 내오고 농촌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에 대한 고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국가적어린이보육교양제도

어린이들을 사회의 주인으로,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어릴 때부터 문화적인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보육교양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을 집단적으로 키우면 어려서부터 조직생활과 규률생활에 버릇되고 집단주의사상과 공산주의도덕품성이 싹트게 되며 지적발전과 육체적발육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 사업에 언제나 큰 힘을 넣어왔다. 우리는 해방후에 많은 국가자금을 들여 도시와 공장, 기업소, 국영농장들에 탁아소와 유치원들을 내오고 운영함으로써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보육교양하는 체계를 세웠다. 조국해방전쟁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 사업을 중단하지 않았을뿐아니라 수많은 육아원과 애육원들을 내오고 전재고아들을 받아서 키우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전후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토대가 다져지고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국가적어린이보육교양사업은 본격적인 발전단계에 들어섰다. 국가의 계획적인 투자와 전사회적운동에 의하여 도시와 농촌의 이르는곳마다에 현대적시설을 갖춘 탁아소와 유치원들이 대대적으로 꾸려졌으며 그 운영사업이 체계적으로 개선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는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모든 학령전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집단적으로 키우는 사회주의적인 어린이보육교양제도가 확고히 수립되였다.

우리 나라의 국가적어린이보육교양제도는 어린이양육에서 공산주의적원칙을 구현한 가장 선진적인 어린이보육교양제도이다.

어린이들을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것은 중요한 공산주의적시책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며 집단적인 교육은 공산주의적인간육성의 근본형식이다. 사람들을 어려서부터 사회적관계속에서 집단적으로 보육교양하여야 참다운 공산주의적품격을 가진 인간으로 키울수 있다.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보장하는것도 공산주의적원칙에 기초한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은 전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진행되며 이와 관련하여 매 어린이들에게 돌려지는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은 부모의 직업과 로동의 량과 질에 관계없이 완전히 평등하게 적용된다.

국가적어린이보육교양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야 한다.

어린이보육교양기관들을 보다 현대적으로 꾸리고 잘 관리하며 사회주의교육학에 기초하여 어린이보육교양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한다. 어린이들을 더 잘 보육교양하며 녀성들의 사회적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주 및 월 탁아소, 유치원을 널리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탁아소, 유치원들에 대한 공급사업을 더 잘하여야 한다. 탁아소, 유치원들에 대한 국가적인 공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어린이보육교양에 필요한 식료품, 놀이감, 교구비품, 의약품, 양육설비들을 원만히 공급하여야 한다.

5.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

사회주의사회에서 교육사업은 교육기관들과 교육일군들에게 맡겨진 영예롭고도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교육사업은 당적, 국가적인 사업이며 전사회적인 사업이다. 사회주의교육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서는 교육기관들의 기능과 교육일군들의 역할을 높여야 하며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와 국가적보장, 사회적지원을 확고히 실현하여야 한다.

1) 학교의 사명과 임무

사회주의사회에서 학교는 혁명화의 본거지이며 문화혁명의 거점이다. 학교는 교수교양사업을 통하여 사상혁명, 문화혁명 수행에 이바지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학교의 사명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며 민족간부를 양성하는데 있다.

새세대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것은 나라의 만년대계를 위한 사업이다. 자라나는 새세대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 조국의 앞날과 혁명의 전도는 결국 새세대들을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민족간부를 키우는것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간부가 모든것을 결정한다.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준비된 민족간부가 없이는 새 사회건설에서 나서는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수 없으며 나라의 경제와 문화, 과학과 기술을 빨리 발전시킬수 없다.

학교는 새세대들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는 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잘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

학교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교육행정사업을 옳게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교육행정사업에서 기본은 학생들을 교육교양하는 사업이 필요한 교육학적과정을 정확히 거치도록 하는것이다.

교육학적과정에서 첫공정은 교육강령을 만드는 사업이다. 교육행정기관들과 대학들에서는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우리 혁명의 요구와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사람들의 사상의식발전과정과 과학기술습득과정의 합법칙성에 맞게 교육강령을 잘 만들어야 하며 그것을 정확히 집행하여야 한다.

학교교육행정에서는 교원들이 교수준비를 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교수준비에서 기본은 교수안을 잘 만드는것이다. 학교교육행정은 교원들이 만든 교수안을 반드시 검열하여야 하며 집체토론을 거쳐 그것을 완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새로운 과목에 대한 교수사업을 할 때와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를 강의할 때에는 반드시 방식상학이나 시범상학을 조직하여야 한다.

학교교육행정은 교원들이 교육강령에 제시된 내용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가르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교수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중심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할 문제는 교수의 정치사상성과 과학성을 보장하도록 하는것이다. 교육행정은 교원들이 교수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교수를 당정책화하며 혁명과 건설에 쓸모있는 산 지식을 가르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과학과 기술의 최신성과들을 제때에 받아들여 교수내용을 더욱 풍부히 하고 교수의 과학리론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행정에서는 교원들이 교수방법을 개선하며 강의, 학과토론, 실험실습, 학과론문작성을 비롯하여 과정안에 예견된 모든 형태의 교수를 다 정확히 진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교육행정은 학생들의 교수내용에 대한 소화정도를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며 그들의 학과실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학교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는것은 교육행정의 중요한 과업이다.

학교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한다는것은 교육사업을 과학적으로 맞물려진 교육학적과정의 요구대로 진행하며 학교안에 혁명적인 제도와 규률을 세운다는것을 의미한다.

학교안에 과학적인 교육행정지도체계를 세우고 교육사업을 철저히 교육학적과정의 요구에 맞게 진행하며 교육계획을 세우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집행에 이르기까지 학교교육행정의 전반사업을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학교안에 교육강령을 어김없이 집행하는 엄격한 교육규률을 세워야 한다. 교육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는것은 학교에 맡겨진 법적과제이며 첫째가는 교육규률이다. 학교들에서는 교육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는 혁명적인 규률을 세우고 과정안, 교수요강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의 과외생활, 정치조직생활을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 학교는 학생들을 전적으로 맡아서 교육교양할 책임을 지니고있다. 그러므로 학교는 교수사업뿐아니라 학생들의 과외생활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하며 학생들의 학과학습뿐아니라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도 옳게 조직지도하여야 한다.

학교의 교육환경을 잘 꾸리고 학교를 알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교육환경을 잘 꾸리고 학교를 알뜰하게 관리하는것은 사상교양기관, 문화혁명의 거점으로서의 학교의 사명과 역할을 옳게 수행하며 학생들을 지식있고 문명하며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하는 훌륭한 일군으로 키우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학교의 교육환경을 사상혁명의 기관답게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교양에 이바지할수 있게 꾸려야 한다. 학교들에서는 모든 교육환경을 학생들에게 당에 대한 충실성을 키워주고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시키며 그들의 혁명의식을 높이는데 이바지할수 있도록 꾸려야 한다. 또한 학교를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며 나라의 현실을 아는데 도움이 되도록 꾸려야 한다.

학교를 문화혁명의 거점답게 꾸리고 알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학교들에서는 교실과 연구실, 실험실을 비롯하여 학교의 모든 시설들을 문화적으로 꾸리며 군중적인 관리체계를 세우고 모든 교직원, 학생들이 학교를 알뜰하게 거두는데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교원의 위치와 역할

교원은 교육사업의 직접적담당자이다. 우리 사회에서 교원은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가이다. 교원들이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데 따라 혁명의 계승자이며 조국의 미래인 후대들의 질적상태가 결정된다. 교원들은 당과 혁명 앞에서 조국의 미래에 대하여 책임지고있다.

교원의 첫째가는 임무는 교수사업을 잘하는것이다. 교수사업은 교원들에게 맡겨진 기본혁명과업이다. 교원은 교수사업을 잘하는것과 함께 학생들의 과외학습과 과외생활을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교원들이 후대교육사업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교원들이 혁명화, 로동계급화되지 않고서는 학생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수 없으며 교원들이 공산주의자로 되지 않고서는 학생들을 공산주의자로 키울수 없다.

교원들을 혁명화하는 기본방도는 그들속에서 정치적조직생활을 강화하는것이다. 교원들속에서 당조직생활, 근로단체조직생활을 강화하며 특히 비판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교원들은 혁명적실천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끊임없이 단련하여야 한다. 교원들의 중요한 실천활동은 교수교양사업이다. 교원들은 교수교양사업에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야 하며 그 과정에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여야 한다. 교원들은 로동자, 농민들 속에 들어가 그들에게서 배우면서 사회정치활동과 과학기술보급활동을 적극 벌려야 한다.

교원들은 자질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교원의 자질은 교육의 질을 결정한다. 교원들이 교수교양사업을 잘하려면 정치사상적으로 견실할뿐아니라 과학리론적자질이 높아야 한다. 하나를 가르치려면 열을 알아야 한다.

교원들은 무엇보다도 당정책을 잘 알아야 하며 자기의 전공과학분야에 정통하여야 한다. 교원들은 또한 기초과학지식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지식을 알아야 하며 국내외정세와 우리 나라의 구체적현실 그리고 교육 리론과 방법을 잘 알아야 한다. 대학교원들은 반드시 전공분야의 학위학직을 가져야 하며 보통교육부문교원들은 다 자격교원이 되여야 한다.

교원들이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혁명적인 학습기풍을 세워야 한다. 모든 교원들이 학습을 생활화하고 정력적으로 학습하며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

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조직사업과 지도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교원들속에서 방식상학, 시범상학, 학술토론회, 경험발표회를 자주 조직하며 교원들의 자질을 검열평정하는 국가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학생들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학교 사로청지도원, 소년단지도원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학교 사로청지도원, 소년단지도원은 학생들의 사로청조직생활과 소년단조직생활을 직접 조직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키우고 보호하여야 한다. 학교 사로청지도원, 소년단지도원은 학생들의 과외생활을 지도하는 과외교양의 주인이 되여야 한다.

보육원, 교양원들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보육원, 교양원은 어린이들의 사회적양육자이며 교육자이다. 보육원, 교양원들은 어린이들을 공산주의적으로 보육교양하여야 하며 학령전 어린이들에게 학교교육의 기초를 닦아주어야 한다.

교원양성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범교육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교원양성사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사범대학, 교원대학을 비롯한 교원양성기관들은 후대교육사업을 위한 《원종장》이다. 교원양성기관들에서 학생들을 잘 교육하여야 정치사상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준비된 훌륭한 교원이 나올수 있으며 그래야 모든 청소년학생들을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다. 교원을 키워내는 대학들에 좋은 학생들을 골라넣으며 이 대학들의 교수교양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사범교육기관들에서는 학교 사로청지도원, 소년단지도원들과 보육원, 교양원들을 양성하는 사업에도 큰 힘을 넣어야 한다.

현직교원들을 끊임없이 재교육하여야 한다. 교원들을 재교육하는 체계를 세우고 현직교원들을 계획적으로 재교육하여 그들의 수준을 언제나 현실발전의 요구에 따라세워야 한다. 사범강습을 정기적으로 조직하여 교수의 통일성을 보장하며 교수의 질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3)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교육을 철저히 당적인 교육, 로동계급적인 교육으로 발전시키며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는 본질에 있어서 정책적지도이며 정치적지도이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의 중심은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철저히 구현하며 당의 교육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도록 옳게 장악지도하는것이다.

당조직들은 무엇보다도 학교들에서의 교육사업을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학생들에 대한 교육사업이 진행되는 기본거점은 학교이다. 당조직들은 학교들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교수교양사업이 당의 요구와 혁명의 리익에 맞게 진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교육행정기관들의 사업을 잘 지도하여야 한다. 당의 교육정책은 교육행정기관들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집행된다. 당조직들은 교육행정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당의 교육정책을 정확히 관철하며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지도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원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교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서고 로동계급적립장이 확고하며 과학리론적자질이 높은 좋은 사람들로 교원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교원대렬에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서지 않은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된다.

당조직들은 교원들속에서 정치적조직생활을 강화하며 사상교양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교원들이 자신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과학리론적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후대교육사업에서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생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학생들에게 맡겨진 기본혁명과업은 학습을 잘하는것이다. 당조직들은 학생들이 학습을 첫째가는 혁명과업으로 내세우고 정력적으로 학습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특히 대학생들속에서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대학생들이 전공분야의 학과목에 정통하고 한가지이상의 외국어를 완전히 소유하며 대학기간에 민족간부의 자질을 원만히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학생들의 조직사상생활을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하며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교양하고 조직적으로 단련시키는데 커다란 힘을 넣어야 한다.

당조직들은 학교 사로청조직과 소년단조직들이 자기 역할을 원만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학교 사로청지도원, 소년단지도원들을 좋은 사람으로 꾸리고 그들을 일상적으로 잘 교양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각급 사로청조직들이 주되는 힘을 학생청소년들과의 사업에 돌리며 학교 사로청조직과 소년단조직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은 대학생모집사업을 당적, 로동계급적 원칙에서 옳게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대학에는 중등교육을 마치고 로동생활과 군대생활에서 단련되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려는 사상적각오가 높으며 학습성적이 우수한 청년들을 받아야 한다.

고등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대학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대학에는 많은 교직원들과 학생당원들이 집결되여있으며 학부와 강좌 그리고 학생들속에 당조직들이 있다. 대학에서는 교육강령을 만드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교육행정사업을 자립적으로 조직진행한다. 그러므로 대학당위원회의 역할을 높여 대학의 모든 사업을 옳게 지도하는것은 고등교육사업의 성과를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대학당위원회의 기본임무는 교직원, 학생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모든 학생들을 당이 요구하는 훌륭한 민족간부로, 공산주의건설의 역군으로 키우는데 있다. 대학당위원회는 당의 교육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진행하며 대학앞에 나서는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집체적으로 토의하여 옳은 대책을 세우고 원만히 풀어나가야 한다. 대학당위원회는 대학안의 당조직들과 사로청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교직원, 학생들의 조직사상생활을 일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4)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보장, 사회적지원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부시키는 사회주의교육의 물질적수요는 매우 방대하다. 또한 사회주의교육은 현대적인 교육조건을 요구한다. 튼튼한 사회주의적자립경제에 기초하고있는 국가가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교육의 방대한 물질적수요를 충족시킬수 있고 현대적인 교육조건을 마련할수 있다.

국가는 교육사업을 위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이며 모든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는 늘어나는 학생수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교사건설을 앞세우며 학교들에 실험실과 실습기지를 잘 꾸려주어야 한다. 또한 교과서와 학용품, 여러가지 교구비품을 충분히 보장하며 그것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현대화하여야 한다. 교육기자재생산기지들을 튼튼히 꾸리고 필요한 교육기자재들을 계획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교양시설들을 잘 꾸려야 한다.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현대적인 사회교양시설들을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교육사업에 참가하여야 하며 온 사회가 교육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새세대들에 대한 교육자, 교양자가 되여야 하며 교육사업의 보장자로 되여야 한다.

근로자들은 학부형으로서 아들딸들의 학습을 정상적으로 지도방조하며 모든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교육교양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

학교들의 물질적토대를 꾸리기 위한 사회적지원운동을 널리 벌려야 한다. 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협동농장들은 후원단체가 되여 주변에 있는 학교들을 물질적으로, 로력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출판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새로 출판하는 도서들과 새로 생산하는 기계설비들 가운데서 교육사업에 필요한것이라면 학교들에 먼저 보내주어야 한다.

* * *

교육사업을 잘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신성하고도 영예로운 혁명임무이다. 교육사업을 잘하는 여기에 혁명승리의 중요한 담보가 있으며 번영하는 조국의 찬란한 미래가 약속되여있다. 우리는 교육사업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사회주의교육을 더욱 높은 수준에로 발전시켜야 한다.

후대교육사업을 잘하여 자라나는 모든 새세대들을 공산주의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움으로써 혁명의 대를 굿굿이 이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민족간부양성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와야 하며 혁명과 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능력있는 간부를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 온 나라에 혁명적학풍을 세우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배우며 일하고 일하며 배워 문화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당 교육정책의 정당성은 이미 실생활을 통하여 뚜렷이 확증되였다. 우리는 당의 교육정책이 집대성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더욱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것이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77년 9월 7일

이번에 내놓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는 교육부문에서 이미 실천하고있는 문제들과 앞으로 실천하여야 할 새로운 문제들이 다 밝혀져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서만 간단히 말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먼저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을 옳게 병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는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을 병진시켜 사람들을 일생동안 교육교양할데 대한 문제가 중요하게 밝혀져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적세계관이 서고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가진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어려서부터 늙어죽을 때까지 교육교양하여야 합니다.

학교전 교육은 사람들에 대한 교육의 첫공정입니다. 학교전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것은 사람들의 세계관형성과 지적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줍니다.

우리 나라에서 학교전 교육은 주로 유치원을 통하여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유치원사업을 강화하여 학령전 어린이들을 잘 교육교양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학령전 어린이들을 교육교양하는데서 문제로 되는것은 유치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교육교양하겠는가 하는것입니다. 당조직들과 교육기관들에서는 유치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는 어린이들의 교육교양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교육교양하는데서 기본은 학교교육입니다.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받는 시기에 청소년들을 잘 교육교양하여야 그들을 혁명적세계관이 서고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워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육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여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정력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은 학교전 교육과 학교교육으로 끝나는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학교를 나온 다음에도 계속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성인교육은 학교전 교육이나 학교교육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대학과정을 마치고 사회에 나온 다음에도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함없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몸바쳐싸워나갈수 있습니다.

내가 항일혁명투쟁을 시작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천수만의 사람들을 대상하여 사업해본데 의하면 변질된 사람들은 거의다 학습을 잘하지 않는 사람들이였습니다.

쇠도 밖에 놓아두면 녹이 쓸어 못쓰게 됩니다. 쇠가 녹이 쓸지 않게 하자면 기름으로 닦든지 뼁끼칠을 하든지 하여야 합니다.

자본주의의 포위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는 조건에서 밖으로부터 부르죠아반동사상과 퇴페한 문화가 들어올수 있으며 안에서는 봉건사상, 자본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이 부식작용을 할수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부르죠아반동사상과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이 합치면 그 부식작용이 더 강화될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사람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철저히 혁명화 하지 않으면 변질될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조직생활을 하기 싫어하면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지난날 항일무장투쟁에 참가한 사람들가운데도 변질된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그들은 사냥이나 낚시질만 하러 돌아다니면서 공부하지 않고 당조직생활에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혁명투쟁을 오래 한 사람들도 공부를 계속하고 당조직생활을 잘하여야 변질되지 않고 끝을 잘 맺을수 있으며 혁명을 한 보람이 있습니다. 혁명가는 일생동안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끝까지 충실하게 살아야 죽어서도 인민들의 존경을 받을수 있습니다.

대학을 나온 사람들가운데도 사회에 나온 다음에 공부를 잘하지 않아 변질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대학을 나왔다고 하여 세계관이 다 서는것이 아닙니다. 대학기간에는 혁명적세계관의 기초가 닦아질뿐입니다. 그러므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다음에도 학습을 계속하여 혁명적세계관을 완성해나가야 합니다.

력사적경험은 혁명투쟁을 오래 한 사람이나 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할것없이 누구나 다 학습을 하지 않고 당조직생활에 성실하게 참가하지 않으면 변질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이번에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한것은 새세대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잘하자는데만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하자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인교육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혁명적세계관을 공고발전시키며 일반지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간부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에 깊은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다.

지금 간부들속에 혁명적학습기풍이 똑똑히 서있지 않습니다. 지금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아래사람들이 아니라 우에 있는 간부들입니다. 중앙의 간부들도 그렇고 지방의 간부들도 그렇고 그들은 공부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니기만 좋아합니다.

지금 간부들이 회의요 뭐요 하면서 토요학습에 잘 참가하지 않고있습니다.

내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학습도 하나의 혁명과업입니다. 그런것만큼 토요일에 다른 일은 좀 하지 못하더라도 토요학습에는 무조건 참가하여야 합니다. 지금 토요학습제도는 서있지만 간부들이 그것을 잘 지키지 않고있습니다.

한달강습체계도 잘 운영하지 않고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이후에 한달강습체계를 내오고 모든 간부들이 해마다 한달씩 의무적으로 학교에 가서 공부하도록

하였습니다. 한달강습체계를 내온 다음 몇해동안은 모든 간부들이 한달강습에 빠짐없이 참가하여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달강습을 잘하지 않고있으며 하는 경우에도 제한된 범위에서 하고있습니다. 어떤 도당책임비서들은 학교에 가서 한달강습을 받으라고 하면 한창 바쁜 농사철에 어떻게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겠는가고 하면서 가기 싫어하고있습니다. 당조직이 있고 당원들이 있고 정권기관이 있는 조건에서 도당책임비서 한사람이 없다고 하여 도안의 농사가 크게 잘못될것은 없습니다.

간부들이 학습을 하지 않고서는 발전하는 현실을 따라갈수 없으며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바로할수 없습니다.

모든 간부들은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워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높은 과학기술지식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정책학습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간부들이 당정책학습을 잘하여야 정치적생명을 계속 빛내일수 있으며 일생동안 변함없이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갈수 있습니다. 모든 간부들이 당정책학습을 잘하여야 당정책을 자로 하여 모든것을 재여보고 옳고그른것을 가려낼수 있으며 당정책의 정당성을 널리 선전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간부들이 당정책학습을 잘하지 않다보니 당정책을 선전할줄도 잘 모르고 다른 나라에 가서도 당정책의 요구에 맞게 능동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모든 간부들은 당정책을 깊이 학습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며 모든 사업과 생활을 당정책에 철저히 의거하여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간부들이 자기 부문에 정통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간부들이 자기 부문에 정통하려면 새로운 과학지식으로 무장하여야 합니다.

간부들은 토요학습과 수요강연회에 빠짐없이 참가하며 한달강습에 열성적으로 참가하여야 하겠습니다. 한달강습기간이 너무 길면 한 20일씩 하여도 좋으니 한달강습체계를 계속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학습은 높은 간부들이라고 하여 례외로 될수 없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일군들, 중앙인민위원회일군들, 정무원일군들, 경제기관일군들, 교육문화기관일군들을 비롯하여 모든 간부들이 다 학습하여야 합니다. 모든 간부들은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학습을 꾸준히 함으로써 자신의 정치리론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것은 보통교육이나 고등교육, 일반교육이나 기술교육이나 할것없이 모든 교육부문에서 다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무엇보다도 보통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보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사범대학과 교원대학들을 잘 꾸려야 합니다.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은 후대교육사업을 위한 《원종장》입니다.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은 학생을 가르칠 교원을 키워내는 대학이므로 그것을 병아리를 깨우는 원종장과 비교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을 통속적으로 《원종장》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범대학, 교원대학 같은 《원종장》을 잘 꾸리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좋은 교원이 많이 나오고 좋은 교원이 많이 나와야 보통교육의 질을 훨씬 높일수 있습니다.

교원들을 잘 키워내지 못하면 교육사업에 엄중한 후과를 미칠수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이전에 우리의 교육사업은 매우 한심한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부문에는 로동계급적선이 확고히 서지 못한 일군들과 교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교육부문에서 로동계급적선을 똑똑히 세우지 못하고 로동계급과 자본가계급사이의 계선이 모호한 범벅교육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교원은 교육일군대회의 연단에서 어릴 때에는 빨간것과 파란것, 고운것과 미운것 같은것만 배워주어야지 거기에 정치사상교양, 혁명교양을 섞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부르죠아아동심리학을 설교하였으며 보통교육부문의 어떤 책임일군은 그에 대하여 타격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박수까지 쳐주었습니다. 그때 교육부문일군들이 이러한 형편에 있었으니 교육사업에서 로동계급적선을 세우지 못하고 범벅교육을 할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사람은 어릴 때부터 혁명교양을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유격구에서 아동단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아동단원들에게 왜놈들과 지주, 자본가놈들은 우리의 원쑤라는것과 왜놈들과 지주, 자본가놈들을 때려부시고 우리 나라에 살기 좋은 사회를 건설하려면 인민혁명군을 따라배워야 하며 그들처럼 싸워야 한다는 내용으로 교양하였으며 왜놈들을 족치는 방법도 배워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때 아동단원들은 다 열렬한 혁명가로 자라났습니다.

교육사업에서 로동계급적선을 세우지 못하고 범벅교육을 하면 사람들은 자본가계급과 로동계급가운데서 아무데나 붙어사는 범벅사람으로 되고 사회는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범벅사회로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이후에 교육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교육사업에서 로동계급적선을 세우는데 큰 힘을 넣어왔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우리 나라에서 새세대들을 훌륭히 키우고있는데 대하여 매우 감탄하고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어떤 나라 대통령은 청소년들이 연도환영을 하는것과 집단체조 《조선의 노래》를 공연하는것을 보고 매우 감동되여 조선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아주 잘하였다고 하면서 저런 청소년들을 가지고있으면 무엇이 겁날것이 있겠는가, 조선은 정말 불패의 힘을 가지고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에게 당신들은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조직성과 규률성이 있고 사상성과 예술적소양이 높은 청소년들로 키워냈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바로 주어야지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닌 범벅교육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지금 일부 나라들에서는 다른 나라 대표단을 환영하기 위하여 군중을 동원하자면 그들에게 삯으로 하루분의 로임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교육사업에서 로동계급적선을 세우지 않고 범벅교육을 하면 다 이렇게 되는 법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기 교육부문에서 이룩한 성과에 조금도 자만하지 말고 사범교육을 계속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5차전원회의이후에 사범교육을 강화할데 대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중앙위원회 과학교육사업부와 도당위원회들에서 사범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지 않았습니다. 당에서는 사범대학과 교원대학들을 전적으로 도당위원회들에 맡겼는데 도당책임비서들과 도당교육담당비서들 가운데서 누구도 사범대학에 나가 강의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일군들은 지식이 없어 사범대학에 나가 강의에 출현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당조직들이 사범교육사업에 무관심한 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사범대학과 교원대학들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도당위원회들에서는 사범대학과 교원대학들의 교원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과 당조직생활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의 요구대로 교수

교양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도당위원회들에서는 사범대학과 교원대학들에 실험실습 기재들과 설비들을 충분히 갖추어줌으로써 직관교육과 실험실습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옳게 결합하는것은 보통교육의 질을 높이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 사회교육은 탈선되는것이 없습니다. 영화도 좋은것을 돌리고 텔레비죤방송도 좋은것을 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쟈즈춤을 추거나 날라리를 부리면서 사회풍조를 문란시키는 현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의 과외활동을 잘 조직하지 못하는것이 결함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도 부모들이 직장에 나가고 없기때문에 저희들끼리 길가에 나가 뽈을 차거나 나쁜 장난을 하고있습니다.

학생들의 과외활동을 잘 조직하여 그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나쁜 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과외활동을 잘 조직하자면 이르는곳마다에 아동공원을 잘 꾸려주어야 합니다. 아동공원을 많이 꾸려놓고 거기에 여러가지 유희시설을 갖추어놓으면 학생들이 아동공원에 가서 놀기도 하고 여러가지 과외활동도 조직할수 있을것입니다. 아동공원에 소년단지도원들을 배치하고 그들이 학생들의 과외활동을 지도하게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학생도서관을 많이 꾸리고 그것을 바로 운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학생도서관을 많이 꾸리고 그것을 잘 운영하면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책을 읽기 좋아하는 버릇을 붙일수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그들을 교양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람들은 도서관을 잘 운영할줄 모릅니다. 도서관을 잘 운영하는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닙니다. 평양시에는 중앙도서관도 있고 구역도서관도 있고 학교도서관도 있는것만큼 그것을 잘 리용하면 됩니다. 지방들에는 도서관을 굉장하게 짓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아무 집이나 방을 몇칸 내여 책을 비치해놓고 볼수 있게 하면 됩니다.

도서관을 잘 운영하자면 국가에서 도서관들에 책을 넉넉히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도서관을 아무리 잘 지어놓아도 읽을만한 책이 없으면 학생들이 도서관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학생들의 교육교양에 필요한 책을 많이 출판하여 도서관들에 주어야 하겠습니다.

도서관을 잘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다보고 바칠 때에 그 책의 기본내용을 글로 몇장씩 써내게 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서관에서 빌려간 책을 보지 않고 바치는 현상을 없앨수 있으며 학생들이 글쓰는 법도 배울수 있습니다. 학생도서관과 학생소년회관을 지어야 할데는 지어야 하겠습니다.

국가자재를 들여 국수집을 짓는것보다 학생도서관이나 학생소년회관 같은것을 짓는것이 더 좋습니다. 학생도서관이나 학생소년회관을 짓는것은 학교건설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과학영화도 많이 만들어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과학강연도 많이 하여야 합니다. 과학영화를 많이 만들어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그들이 과학지식을 많이 얻을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영화관에 모일 때에는 어느 교원에게 미리 잘 준비시켰다가 영화를 돌리기전에 한 30분동안 과학강연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가정교육조건을 잘 보장하여주어야 하겠습니다.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며 가정교육은 사회교육의 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교육이 결렸습니다. 학부형들이 자기 아들딸들을 교양하기 싫어서 교양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시간이 없어 그들을 잘 교양하지 못하고있습니다.

앞으로 학부형들이 아들딸들을 교양할수 있는 시간과 조건을 잘 보장해주어야 하겠습니다.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고등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 제5차대회에서 내놓은 3대기술혁명과업을 수행하여 나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수준이 낮아 3대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가운데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경제관리운영도 할줄 모르고 현대과학발전추세도 모르고있습니다.

지난 시기 고등교육부문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지 못한것은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당적지도와 국가적지도를 잘하지 못하고 교육부문지도일군들이 당의 교육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지 않고 건달을 부린것과 주요하게 관련되여있습니다.

각급 당조직들과 교육부문지도일군들은 고등교육사업에서 나타나고있는 결함들을 하루빨리 고치고 고등교육부문에서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고등교육부문에서 학생들에게 자연과학분야에서 이룩한 최신성과를 잘 가르쳐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연과학을 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지 않고서는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킬수 없으며 3대기술혁명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없습니다. 자연과학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결국 공산주의의 물질기술적요새를 점령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학들에서 학생들에게 자연과학과목들을 잘 가르쳐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수학, 물리학, 생물학과 같은 기초과학과목들의 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넣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계공학과 자동화공학 교수를 잘하여 학생들이 자동화설비들을 비롯한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능숙히 다룰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여야 할 매우 영예롭고도 무거운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는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의 하나입니다.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고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려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인테리화하여야 합니다. 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자면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자기 모양대로 개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한다고 하여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되는것은 아닙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공산주의사회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능력에 따라 일하고 수요에 따라 분배받는 고도로 발전된 문명한 사회입니다. 공산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이 높은 문화기술지식과 도덕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고도로 발전된 공산주의사회를 운영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한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기 위하여서는 전민고등교육화를 실현하여 모든 사람들을 대학졸업정도의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워야 합니다.

전민고등교육화를 실현한다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의무적으로 고등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교육을 받게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말하여 전민고등교육화를 실현한다는것은 전반적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는것은 먼 앞날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나라가 통일되지 못하여 그렇지 통일만 되면 고등의무교육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나라가 분렬되

여있는 오늘의 조건에서도 당이 있고 정권이 있는 한 고등의무교육을 얼마든지 실시할수 있습니다.

물론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문제는 우리가 처음으로 내놓은 문제인것만큼 그것을 실현하자면 여러가지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나설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는것을 막연한 일로 생각하여서는 안됩니다. 지난날 맑스가 공산주의에 관한 리론을 내놓았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먼 앞날의 일로 막연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레닌은 로씨야에서 자본주의제도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였으며 오늘은 많은 나라들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1956년에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할데 대한 문제를 내놓았을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막연한 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였으며 뒤이어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오늘은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습니다.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는것도 결코 먼 앞날의 일이 아니며 우리가 마음만 먹고 달라붙으면 가까운 앞날에 실시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공고히 하면서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잘하여 앞으로 일정한 단계에 가서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물론 지금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도 감당해내기 힘든 조건에서 당장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고등의무교육을 한개 군, 한개 도씩 점차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공장대학을 잘 꾸려야 합니다. 주간대학만 늘여가지고서는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할수 없습니다. 지금 로력사정이 긴장한 조건에서 주간대학을 더 늘일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장대학을 잘 꾸려 모든 사람들이 일하면서 배울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장대학을 잘 꾸리고 바로 운영하자면 교육강령을 잘 만들고 교원들을 잘 준비시켜야 합니다. 공장대학교원들로는 공장안의 기술자들과 주간대학교원들을 동원하여쓸수 있습니다. 어느 공장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사회과학과목을 가르쳐줄 때에는 주간대학 사회과학교원들이 가서 강의해줄수 있으며 자연과학과목을 가르쳐줄 때에는 그 공장 기술자들이 강의해줄수 있습니다. 도당위원회와 도행정위원회들에서 조직사업만 잘하면 공장대학 교원문제는 얼마든지 풀수 있습니다.

공장대학을 잘 꾸리는것과 함께 공장고등전문학교를 많이 내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공장들이 있는곳에는 고등중학교에 기술학교를 병설하여 학생들에게 기술교육을 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화된 공장들을 많이 건설해놓았지만 준기사, 기수들이 없어 대학을 졸업한 기사들이 자동화종합조작반을 조종하고있습니다.

원래 자동화종합조작반 같은것은 기능공들이 다 조종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고등전문학교와 고등기술학교들에서는 준기사, 기수들을 비롯하여 기능공들을 많이 키워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사회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사회적지원을 강화하여 학교들에 실험실습기지와 교육조건을 잘 꾸려주어야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맞게 학생들을 교육교양할수 있으며 그들을 쓸모있는 산 지식을 소유한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워낼수 있습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사회적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사업에 대한 관점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갈라진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고 우리 나라에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 사람

들이 다 잘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후대교육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후대교육을 잘하는가 잘하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민족의 장래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860만명이나 되는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국가의 부담으로 키우고 무료로 공부시키고있는데 이것은 결코 간단한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다고 하여 무료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잘 키워낼수 없습니다. 물론 무료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그 돈을 인민소비품생산에 돌리면 인민생활을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일수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장래번영을 생각하지 않고 당면한 인민생활에만 돈을 쓸수 없습니다. 모든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잘 키우는것은 나라와 민족의 번영을 위한 큰 터전을 닦는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일군들은 교육사업을 부차적인 사업으로 여기면서 국가적보장과 사회적지원을 잘하지 않고있습니다. 우리 일군들이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보장과 사회적지원을 잘하지 않기때문에 지금 대학들에 실험실습기지 하나 똑똑히 꾸려진것이 없습니다.

당에서는 고등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이번에 귀중한 외화를 들여 다른 나라에서 실험실습설비들을 사다가 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평양건설건재대학, 평양의학대학, 사리원농업대학, 리과대학을 잘 꾸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고 달라붙으면 얼마든지 학교들에 실험실습기지들과 교육조건들을 훌륭히 마련하여줄수 있습니다. 우리가 강력한 경제토대를 가지고있는 조건에서 학교들에 실험실습조건들을 마련해주는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로동계급에게 후대들을 훌륭히 키우기 위하여 학교들에 필요한 실험실습설비들을 만들어 보내주라고 호소하면 그들은 증산투쟁을 벌려서라도 실습용 자동차와 공작기계도 만들어 보내주고 별의별 기계들을 다 만들어 보내줄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일군들이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어떻게 노력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

나는 지난날 어느 농촌마을에 가서 지하혁명투쟁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 두 로인이 있었는데 한 로인은 몹시 어렵게 살고 다른 한 로인은 잘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사는 로인은 자식들을 공부시키겠다고 결심하고 달라붙어 부지런히 일하여 다 공부를 시켰지만 잘사는 로인은 살림이 넉넉하면서도 자식들을 공부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일만 시켰습니다.

우리가 초등의무교육과 중등의무교육을 실시할 때 돈이 있어서 초등의무교육과 중등의무교육을 실시한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후대교육을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문제로 보고 비록 돈이 없었지만 결심하고 달라붙어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는 돈이 많이 든다고 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모든 일군들은 교육사업에 대한 관점을 바로 가지고 대학을 비롯한 각급 학교들의 물질적토대와 교육조건을 무조건 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중앙급 대학들과 지방대학들에 대한 보장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중앙급 대학들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보장해주고 지방대학들은 해당 도당위원회와 도인민위원회, 도행정위원회에서 책임지고 보장해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지방대학들에 교과서 같은것은 보장하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방대학들의 실험실습조건과 교육환경은 도들에서 책임지고 꾸려주어야 합니다. 도들에서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로 학교후원단체를 조직하고 담당한 학교들에 대한 보장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시제품으로 생산한 기계설비들을 대학들에 보내주는것을 제도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새로운 기계를 하나 만들면 그것을 먼저 대학들에 보내줄데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군들은 무슨 기계를 하나 새로 만들면 자랑할줄이나 알았지 그것을 대학들에 보내줄줄 모릅니다.

앞으로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시제품으로 생산한 기계설비들을 학교들에 보내주어 학생실습용으로 쓰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도인민회의를 할 때에는 교육문제도 상정하고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야 합니다.

교육위원회에 비상설위원회를 내오고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겠습니다. 비상설위원회는 교육위원회일군들뿐아니라 다른 위원회, 부 책임일군들과 과학자들도 망라하여 구성하고 거기서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보장사업을 비롯하여 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토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하여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교육사업에서 나타난 편향을 제때에 바로잡고 교육사업을 테제의 요구대로 발전시켜나갈수 있습니다.

모든 당조직들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는 사업을 중요한 당적과업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당 조직부와 선전선동부, 교육사업부 사이에 배합작전과 협동작전을 잘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교육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들을 키워내는 인간개조사업이며 사람과의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성과적으로 관철하자면 당 조직부와 선전선동부, 교육사업부가 3위1체가 되여 교육사업을 틀어쥐고 지도하여야 합니다. 당 조직부와 선전선동부, 교육사업부는 사람들을 직접 다루는 부서들이므로 마땅히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에서 3위1체가 되여 배합작전과 협동작전을 잘하여야 합니다.

특히 도, 시, 군 당책임비서들이 경제사업 일면에만 치우치지 말고 교육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 시, 군 당책임비서들이 교육사업을 선전비서나 교육담당비서들에게만 맡겨놓고 거기에 낯을 돌리지 않고있습니다.

나는 이미 교육사업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들을 비롯하여 모든 당책임일군들이 대학들에 나가 강의도 하고 교수교양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어줄데 대하여 여러번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과업을 제대로 집행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도, 시, 군 당위원회들에는 사상사업과 교육사업을 맡아보는 비서들이 있지만 그들도 교육사업에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습니다. 도, 시, 군 당책임일군들이 교육사업에 낯을 돌리지 않기때문에 지금 교육기관들에 당정책이 제때에 들어가지 못하고있으며 그것이 잘 관철되지 않고있습니다.

도, 시, 군 당책임비서들이 교육사업을 당사업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총화사업을 잘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당조직들에서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일치하게 제기한대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한 날인 9월 5일을 교육절로 정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교육절을 새로 내오는 조건에서

학생절은 없애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전체 인민이 다 배우는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이기때문에 교육절과 학생절을 따로따로 내올 필요가 없습니다. 학생절을 없앤다고 하여 소년단창립절까지 없애서는 안됩니다. 6월 6일은 소년단을 창립한 력사적인 날인것만큼 소년단창립절은 그대로 두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교육절을 새로 내왔다고 하여 교육절을 한갖 즐거운 명절로 경축하는데 그쳐서는 안됩니다.

모든 당조직들과 교육기관들에서는 해마다 교육절을 계기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총화하는것을 제도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당, 정권, 행정경제 기관 일군들과 근로단체일군들은 교육절을 맞으며 한해동안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와 나타난 결함을 높은 정치사상적수준에서 총화하고 테제를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군들이 테제를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당조직들은 전당, 전민, 전군이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깊이 학습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깊이 학습하여야 테제에서 내놓은 과업들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론을 찾아내여 그것을 한조항 한조항씩 전개해나갈수 있습니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대한 학습은 당기관이나 행정경제기관, 교육기관에서만 할것이 아니라 인민군대에서도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는 인민군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떠나서는 군인들을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워낼수 없습니다. 물론 대학들에서 배워주는 기술과목과 인민군대에서 배워주는 기술과목은 다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대한 학습을 깜빠니야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하여야 합니다. 모든 당조직들은 교육테제에 대한 학습을 단계를 설정하고 꾸준하게 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간부들속에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간부들속에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지 않으면 그것을 철저히 관철해나갈수 없습니다.

그전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내놓았을 때 우리 일군들이 농촌테제를 깊이 학습하지 않았기때문에 농촌테제에서 내놓은 방침들을 바로 전개하여나가지 못하였습니다. 지도일군들이 농촌테제의 기본사상을 잘 모르고 일하다보니 수리화가 다된 다음에 인차 기계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지 못하였습니다. 농촌기계화를 실현하자면 뜨락또르도 많이 생산하고 토지정리도 하여야 하겠는데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있었습니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워내기 위한 사업인것만큼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관철하는것보다 더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간부들이 교육테제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 그 본질을 똑똑히 인식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사상적준비를 철저히 갖추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허공에 뜬 리론이 아니라 실천을 통하여 검증된 과학적리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사상을 내놓고 그것을 실천하는 과정에 풍부한 경험도 쌓았고 신심도 가지게 되였습니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는 우리 나라에서 이미 실천하였거나 실천하고있는 문제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당, 전국, 전민이 달라붙어 투쟁하면 《사회주의교육에 관

한 테제》를 얼마든지 실현할수 있습니다.

나는 동무들이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교육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한 연설

1977년 12월 15일

대의원동지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6기 대의원선거는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3대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며 전체 인민이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들끓는 환경속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였습니다.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모든 공민들은 인민정권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혁명적열의를 가지고 모두다 선거에 참가하여 100% 찬성투표함으로써 공화국정부에 대한 확고부동한 지지를 뚜렷이 표시하였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우리 사회의 불패의 통일과 단결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시위하였습니다.

나는 전체 인민들이 이번 선거를 통하여 공화국정부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두터운 신뢰를 표시하였으며 새로 선거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동지들이 전체 인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우리에게 공화국의 새 정부를 구성하고 국가사업을 계속 이끌어나갈데 대한 영예롭고 무거운 책임을 맡겨준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인민의 신임을 받으며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보다 더 영예롭고 보람있는 일은 없습니다. 새로 조직된 공화국정부는 인민대중의 두터운 신임과 높은 기대에 맞게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에 충실할것이며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투쟁할것입니다.

최고인민회의 제5기 대의원선거가 있은 다음 지난 5년동안 우리 나라의 혁명과 건설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습니다. 공화국정부의 옳바른 령도밑에 전체 인민이 높은 혁명적열의를 내여 투쟁한 결과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6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으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한층 심화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다져졌으며 공화국의 위력이 모든 분야에 걸쳐 훨씬 강화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승리자의 높은 긍지와 휘황한 앞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전진운동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제2차7개년계획의 새로운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인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임으로써 우리앞에 나선 영예로운 혁명과업들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할것입니다.

1.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은 근로인민대중이다

동지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의 주체이며 사회발전의 동력입니다. 인류력사는 자주성을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의 력사이며 인민대중의 창조적활동에 의하여 력사가 발전하고 사회적운동이 진행됩니다. 자연을 변혁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것도 인민대중이며 물질적부를 창조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것도 인민대중입니다. 인민대중을 떠난 사회란 있을수 없으며 인민대중의 역할이 없이는 력사가 발전할수 없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은 력사무대에 등장한 때로부터 력사의 주체로서 모든 사회적운동의 중심에 서있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그의 지위와 역할이 같은것은 아닙니다. 사회가 계급으로 갈라지고 국가가 생겨난 다음부터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은 국가주권을 쥐였는가 못쥐였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되였습니다.

국가주권은 정치적지배권이며 사람들의 지위와 역할을 규정하는 기본요인입니다. 착취사회에서는 국가주권을 쥔 착취계급만이 지배권을 가지고 모든 권리를 행사하며 국가주권을 쥐지 못한 근로인민대중은 아무런 자유와 권리도 못가지고 오직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만 됩니다. 근로인민대중은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쥔 사회주의사회에서 비로소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가 완전히 보장되고 그들의 창조적위력이 남김없이 발양되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합니다.

혁명은 자주성을 위한 투쟁이며 자주성은 국가주권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사람들의 자주적권리는 국가주권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되며 따라서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정권의 주인으로 되여야 합니다.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손에 주권을 쥐고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여야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습니다. 혁명에서 주권에 관한 문제가 기본문제로 되는 리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위하여, 자기의 주권을 위하여 간고하고 줄기찬 투쟁을 벌렸으며 인민정권을 세움으로써 주권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였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오랜 기간의 피어린 투쟁을 통하여 쟁취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정권이 창립된것은 지금으로부터 30년전이지만 그 력사적뿌리는 훨씬 오래전에 항일혁명투쟁과정에 마련되였습니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지도밑에 우리 인민이 벌린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은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인 동시에 근로인민의 주권을 위한 투쟁이였습니다. 우리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우리 혁명의 임무와 우리 나라의 사회계급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고 광범한 인민대중의 통일전선에 의거하는 인민정권을 세울데 대한 주체적인 정권건설로선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이 로선에 따라 유격근거지들에서 독창적인 정권형태인 인민혁명정부를 세우고 운영함으로써 인민정권건설의 귀중한 경험을 창조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조국이 해방된 다음 안팎의 원쑤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성과적으로 짓부시고 짧은 기간에 주권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였습니다. 해방후 인민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에 의하여 창립된 인민정권은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내놓은 인민정권건설로선

의 빛나는 구현이였으며 유격근거지들에 조직되였던 인민혁명정부의 직접적인 계승이였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조선혁명의 요구와 근로인민대중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우리자신이 선택하고 우리자신이 만들고 우리자신이 운영하는 주체적인 혁명정권입니다.

인민정권이 창립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력사상 처음으로 자기 손에 주권을 틀어쥔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습니다.

인민정권은 창립된 첫날부터 근로인민대중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옹호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왔습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앞에 선차적으로 나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선진적인 새 사회제도를 세우는것이였습니다. 인민정권은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업을 투쟁강령으로 내세우고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식민지반봉건적인 낡은 사회제도를 청산하고 인민민주주의제도를 수립하였습니다. 인민정권은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한데 뒤이어 곧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섰으며 전후 짧은 기간에 도시와 농촌에서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하고 공화국북반부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세워놓았습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백방으로 옹호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

경제건설은 인민정권이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혁명과업의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민정권은 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자력갱생의 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주체적인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을 빛나게 관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경제적락후성을 완전히 청산하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모든것이 파괴된 재더미우에 강력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를 훌륭히 일떠세웠으며 우리 나라를 현대적인 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는 우리 공화국의 정치적자주성과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확고히 담보하는 튼튼한 물질적기초로 되고있습니다.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처음부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도발책동이 계속되는 어려운 환경에서 진행되였습니다. 인민정권은 우리 당의 혁명적자위로선을 관철하여 제때에 혁명무력을 창건하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전인민적방위체계를 튼튼히 세웠으며 그에 의거하여 조국보위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습니다. 인민정권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청소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침략전쟁을 도발하였을 때 조국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 인민들의 투쟁의 기치가 되여 인민군대와 전체 인민들을 영웅적위훈에로 불러일으킴으로써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보장하였으며 전후 적들의 끊임없는 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지켜왔습니다.

창립후 오늘까지 우리의 인민정권은 줄기찬 투쟁과 영광에 찬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조국력사에 길이 빛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인민정권은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과정에 전투력있고 생활력있는 불패의 혁명정권으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혁명과 건설이 발전하는데 따라 인민정권의 정치경제적기초가 더욱 강화되였으며 그 기능과 역할이 비상히 높아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민정권은 가장 혁명적이며 자주적인 사회주의정권으로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근로인민대중은 인민정권이 있음으로 하여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고있습니다. 인민정

권아래서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가 완전히 보장되고있으며 그들의 창발성이 높이 발양되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전체 인민들은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과 책임감을 가지고 조국의 륭성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습니다. 근로인민대중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는데 따라 인민정권의 위력은 더욱 강화되고 혁명과 건설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된 근로인민대중이 자주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휘하여 투쟁하는 여기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커다란 우월성이 있으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습니다.

인민정권의 창건과 함께 인간의 참다운 존엄과 권리를 찾았으며 인민정권의 따뜻한 보살핌속에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려온 우리 인민들은 자기들의 산 체험을 통하여 우리의 인민정권이 얼마나 우월하며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것을 심장으로 느끼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들은 인민정권을 진심으로 깊이 신뢰하고 인민정권에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인민정권의 두리에 굳게 뭉쳐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억세게 싸워나아갈 굳은 결의에 가득차있습니다.

2.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동지들!

우리의 인민정권은 근로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며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의 정권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주권은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에게 있으며 그들은 인민정권기관을 통하여 자기의 주권을 행사합니다. 최고인민회의에 이르기까지의 각급 주권기관은 모두 인민들에 의하여 직접 선거되며 근로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됩니다. 그러므로 인민정권기관은 결코 인민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통치기관으로 될수 없으며 마땅히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충복이 되여야 합니다.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는것은 인민정권의 영예로운 사명입니다. 인민정권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고 보호하는것을 자기의 본분으로 삼아야 하며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인민의 심부름군이 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국가활동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국가활동의 기본방식입니다. 국가활동에서 민주주의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근로인민대중에게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원만히 보장하여줄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일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한마디로 말하여 근로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정치입니다. 다시말하면 국가가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들의 의사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그것을 관철하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근로인민대중은 사회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할뿐아니라 어떤 사회에서나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인민대중의 의사가 곧 국가의 정책으로 되고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정치만이 참다운 민주주의로 됩니다.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떠나서 소수특권계층의 리익을 옹호하는 정치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민주

주의로 될수 없습니다. 세상에 참다운 민주주의는 오직 하나이며 그것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민주주의, 사회주의적민주주의입니다.

착취계급의 의사와 리해관계에 따라 국가의 모든 정책이 좌우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결코 진정한 민주주의가 있을수 없습니다. 자본주의사회는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이른바 《민주주의》, 부르죠아민주주의는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이며 따라서 그것은 본래의 의미에서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에게는 절대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있을수 없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말로는 《만민의 평등》이요, 《개성의 자유》요 하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대지만 그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전혀 실현될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국가의 모든 권력과 생산수단이 소수자본가들의 손안에 들어있고 돈이 모든것을 결정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억만장자들과 가난한 근로인민들사이에 어떻게 평등이 있을수 있으며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는 근로인민들에게 무슨 자유가 있을수 있겠습니까.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민주주의》는 가짜민주주의이며 그들이 들고나오는 《평등》이니, 《자유》니 하는것들은 모두 근로인민대중을 기만하며 부르죠아독재의 반동성과 자본주의제도의 반인민적본질을 가리우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오직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만 실현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실시되고있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전면적으로,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는 가장 우월한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의 모든 정책이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실시되고있으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인민들이 가장 존엄있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근로자들은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가관리에 적극 참가하고있으며 성별과 직업,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과 신앙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같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언론, 출판, 집회, 시위를 비롯한 온갖 사회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근로자들은 국가로부터 로동과 휴식의 권리를 보장받고있으며 누구나 다 자기의 희망과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안정된 일자리에서 마음껏 일하며 사회와 자신을 위한 보람찬 로동생활에서 힘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국가가 책임지고 전체 인민들에게 먹고 입고 쓰고살수 있는 온갖 물질적조건을 보장하여주고있으며 전반적인 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있습니다. 국가의 이러한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전체 인민들이 의식주에 대한 걱정과 교육에 대한 걱정, 병치료에 대한 걱정을 모르고 다같이 고르롭게 잘살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인민들이 누리고있는 모든 사회정치적권리와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은 사회주의헌법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장되고있을뿐아니라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와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고있습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고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다 평등한 사회성원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긴밀히 협조하면서 공동의 위업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실생활을 통하여 사회주의적민주주의만이 근로인민대중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며 넉넉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는 진정한 민주주의라는것을 깊이 확신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우월성을 최대한으로 발양시켜야 하며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더욱 원만히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원만히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인민대중을 인민정권사업에 널리 참가시키며 국가정치생활에서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근로인민대중은 국가주권의 주인인것만큼 인민정권사업에 참가할 떳떳한 권리를 가지고있으며 또한 인민정권사업에 참가하는것은 그들의 중요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의 우수한 대표들로 각급 주권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인민정권기관들의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더욱 개선하여 광범한 인민들이 인민정권사업에 널리 참가할수 있는 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근로인민대중을 끊임없이 교양하고 각성시켜 그들이 모두다 국가주권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과 열의를 가지고 국가정치생활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민정권의 모든 정책과 활동이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인민들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것으로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하여 인민정권의 정치가 철저히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정치로, 근로인민대중자신의 정치로 되게 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광범한 군중을 튼튼히 묶어세우며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적극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자신의 투쟁으로 자기의 존엄과 권리를 옹호하며 자기의 요구와 리상을 실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원만히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잘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을 잘하는것은 근로인민대중에게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행복한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주기 위한 담보입니다.

우리는 인민경제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개선하고 사회주의경제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빨리 높이고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인민들의 전반적인 생활을 보다 넉넉하게 하며 근로자들사이의 생활수준과 로동조건에서의 차이를 없애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보다 완전한 사회적 평등과 자유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문화건설을 다그쳐 우리 나라에 이미 마련된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보건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여러가지 새로운 인민적인 문화시책들을 실시함으로써 전체 인민들에게 보다 원만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하여주어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나라살림살이와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로서 경제문화건설에 대한 지도와 보장사업을 개선강화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집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원만히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며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온갖 적대행위를 반대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근로인민의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전제로 하며 따라서 그것은 첨예한 계급투쟁을 동반합니다. 세상에 사회주의적민주주의가 생겨난 때로부터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 전복된 계급적원쑤들은 언제나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헐뜯고 파괴하기 위하여 온갖 책동을 다 하였으며 지금도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오늘 미제의 우두머리들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옹호자》로 자처하면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에 대한 비방중상과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반공소동에 그 어느때보다도 열을 올리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인권옹호》를 부르짖으면서 사회주의

나라들을 공격하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것과 같이 철면피하고 가소로운 행위입니다.

현시기 지구상에서 사회적불평등이 가장 심하고 인민들에 대한 억압과 인권유린이 가장 혹독한 나라는 바로 서방제국주의나라들이며 제국주의자들이 만들어놓은 괴뢰국가들입니다. 민주주의가 없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에게 인권이 있을수 없다는것은 너무나 명백한 리치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대중은 인간의 존엄과 정치적권리를 전혀 못가지며 지어는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빼앗기고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 《인권》이 있다면 한줌도 못되는 특권계층이 근로대중의 피땀을 짜내여 부귀영화를 누리며 인민들을 억압하고 멸시할 권리가 있을따름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이 떠들어대는 사회주의나라들에서의 이른바 《인권탄압》에 대하여 말한다면 사회주의국가가 민주주의적질서를 유린하고 사회주의제도를 파괴하려는 적대분자들과 불순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것은 민주주의의 원쑤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옹호하는 《인권》은 인민들의 인권이 아니라 인민의 원쑤들의 인권이며 그들이 바라는 《자유》는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가 아니라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파괴활동의 자유입니다.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자기의 당성을 숨기지 않는것처럼 민주주의의 계급성도 숨기지 않습니다. 사회주의적민주주의는 결코 사회주의를 반대하는 적대분자들과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불순분자들에게까지 자유와 권리를 주는 초계급적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에게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여주고 소수의 계급적원쑤들에 대하여서는 제재를 가하는것이 바로 사회주의적민주주의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튼튼히 지키며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적대분자들과 불순분자들을 철저히 진압하여야 합니다. 특히 《인권옹호》의 간판밑에 감행되고있는 제국주의자들의 반공모략책동에 단호한 반격을 가하며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온갖 시도들을 제때에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안팎의 계급적원쑤들의 침해로부터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철저히 고수하고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원만히 실시할 때 우리의 인민정권은 더욱 강화되고 인민들은 보다 행복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누리게 될것입니다.

3. 관료주의를 반대하자

동지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며 인민정권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관료주의를 반대하여야 합니다.

관료주의는 낡은 사회의 관리들이 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반인민적통치방법입니다. 관료주의는 민주주의와 근본적으로 대립되며 인민의 충복인 인민정권의 사업에서는 관료주의가 절대로 허용될수 없습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이 관료주의를 철저히 없애야 인민들의 리익을 적극 옹호할수 있으며 근로대중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할수 있습니다.

인민정권사업에서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문제는 정권기관이 권력기관이라는 사정과 관련하여 언제나 중요한 문제로 나섭니다. 인민정권기관은 프로레타리아독재기관이며 정권기관일군들은 국가권력을 가지고 사업합니다. 이런데로부터 혁명적세계관이 서지 못한 정권기관일군들속에서 권력을 람용하여 인민들의 리익을 침해하며 관료주의를 부리는 현상이 나올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민정권을 창립한 첫날부터 관료주의를 주요한 투쟁대상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반대하여 꾸준히 투쟁하여왔습니다. 공화국정부의 옳바른 지도와 정권기관일군들의 적극적

인 노력에 의하여 관료주의가 기본적으로 없어졌으나 아직 일군들의 머리속에 낡은 사상잔재가 있는 조건에서 관료주의가 나올 위험성은 의연히 남아있습니다. 만일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하여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한다면 어느때든지 관료주의가 나올수 있습니다.

관료주의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어긋나는것을 내리먹이며 인민들의 리익에 배치되는 행동을 하는데서 표현됩니다. 일군들의 주관적의도는 어떻든지 또 그것이 어떤 형태로 표현되든지 인민대중의 의사에 맞지 않는것을 내리먹이며 인민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하는것은 다 관료주의입니다.

낡은 사회의 유물인 관료주의는 인민정권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도록 저애하며 혁명과 건설에 커다란 해독을 끼칩니다.

관료주의의 해독성은 무엇보다도 인민대중의 자주성과 창발성을 마비시킨다는데 있습니다. 관료주의는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하고 부당한것을 망탕 내리먹임으로써 인민들의 자주적권리를 침해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떨어뜨립니다.

또한 관료주의는 인민정권과 근로대중을 리탈시키는 엄중한 해독적작용을 합니다. 관료주의자들은 대중에게 함부로 명령하고 호령하며 인민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행동을 함으로써 인민정권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우는데 지장을 줍니다.

모든 사업이 조직적으로 진행되며 모든 부문이 유기적으로 련결되여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비록 개별적일군이 관료주의를 부려도 여러 부문 사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엄중한 후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우리는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 강화하여 인민정권기관사업에서 관료주의를 철저히 없애야 하겠습니다.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낡은 사회의 유물을 청산하고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이며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원만히 실시하여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입니다. 모든 정권기관일군들은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인민의 심부름군으로서의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중요한 혁명과업으로 여기고 이 투쟁에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적극 참가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료주의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이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인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그들의 리익에 맞게 모든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 주관주의적으로 사업하는것은 언제나 인민들의 의사와 리익에 배치됩니다. 일군들이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야 현실을 정확히 파악할수 있고 인민들의 의사와 요구를 잘 알수 있습니다.

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는 인민정권의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최고원칙입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인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그들의 요구에 맞게 모든 정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어떤 결정을 채택하거나 지시를 내릴 때 반드시 아래에 내려가 실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군중과 충분히 의논하여야 하며 언제나 인민들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 사업을 조직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이 인민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리익에 맞게 사업하려면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청산리방법은 주체적인 군중관점에 기초하고있는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사업방법입니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인민대중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과 같이 일하고 배우며 생활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절대로 인민우에 올라앉아

명령하고 호령하는 관료가 되여도 안되며 군중과 동떨어져사는 특수한 존재가 되여도 안됩니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언제나 인민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입고 같이 살면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은 인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요구를 제때에 해결해주며 인민들에게서 배우고 그들을 가르쳐주며 인민들을 교양하여 혁명과업수행에로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일군들이 군중과 한덩어리가 되여 한마음한뜻으로 살며 일할 때 인민들의 요구를 더 잘 알고 그들을 위하여 더 충실히 복무하게 될것입니다.

사회주의경제를 옳바로 지도하고 관리하는것은 인민정권기관들의 중요한 임무입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경제를 지도하고 관리하는데서 광범한 군중의 의사를 반영하는 집체적지도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는 고도로 사회화된 대규모경제이며 사회주의경제의 주인은 다름아닌 인민대중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지도에서 집체적지도원칙을 관철하여 광범한 군중을 경제관리에 적극 참가시켜야 사회주의경제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할수 있습니다.

경제 지도와 관리에서 주관과 독단을 없애고 집체적지도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관철하여야 합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경제관리에 생산자대중을 널리 참가시키며 생산자대중속에 들어가 그들의 집체적지혜와 창조적열의를 발동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료주의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속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은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인민들자신이 만든 국가관리의 기본무기입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전체 인민이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있습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모든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이 사회주의법을 잘 지킬 때 인민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관료주의가 없어지고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가 더욱 원만히 보장될것입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속에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여 그들이 국가의 법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인민의 참된 충복이 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기초는 법규범과 규정입니다. 인민정권기관들은 사회주의헌법에 기초하여 여러 부문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만들고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그것을 끊임없이 완성해나가야 합니다.

사회주의법을 존중히 여기며 그것을 자각적으로 지키는것은 모든 공민들의 신성한 의무입니다.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은 모든 사업을 법과 규정의 요구대로 진행하며 국가의 법질서와 사회주의생활규범을 지키는데서 군중의 모범이 되여야 하겠습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데서 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의 중요한 임무는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이 권력을 람용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통제하며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는것입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속에서 준법교양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널리 해설하여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의 준법의식을 높임으로써 그들이 법규범과 규정들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법을 위반하는 현상들과 강하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는 모든 국가, 경제기관 지도일군들이 국가의 법질서를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것을 일상적으로 감독하여야 하며 법규를 어기고 관료주의를 부리며 인민들의 리익을 침해하는 일군에 대하여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엄격한 법적제재를 가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법적으로 관료주의를 제지하고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보위하여야 하겠습니다.

대의원동지들!

우리는 다음해부터 제2차7개년계획을 수행하게 됩니다.

제2차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는것입니다.

우리는 제2차7개년계획말에 가서 한해에 560억~600억키로와트시의 전력, 7,000만~8,000만톤의 석탄, 740만~800만톤의 강철, 100만톤의 유색금속, 500만톤의 기계가공품, 500만톤의 화학비료, 1,200만~1,300만톤의 세멘트, 350만톤의 수산물, 1, 000만톤의 알곡을 생산하고 10만정보의 간석지를 개간하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지금보다 생산을 두배이상 높이게 될것입니다.

제2차7개년계획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계획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입니다.

새 전망계획이 수행되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될것이며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들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행복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누리게 될것입니다.

제2차7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 온 나라와 전체 인민이 떨쳐나서야 하며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하여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전략적방침이며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제2차7개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가 있습니다. 각급 정권기관들과 전체 인민들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는 대단히 위력하며 그 생산잠재력은 매우 큽니다.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한다면 지금보다 생산을 훨씬 더 높일수 있고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으며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련하여놓은 경제토대를 더욱 완비하고 현대적기술로 장비하여 그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모든 근로자들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 이것이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우리가 들고나가야 할 혁명적구호입니다.

전체 인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제2차7개년계획을 빛나게 완수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영웅적기개를 다시한번 온 세상에 시위하여야 할것입니다.

동지들! 공화국정권은 우리 인민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의 진정한 옹호자이며 조국

의 독립과 번영을 위한 혁명적기치입니다. 인민정권의 강화발전과 더불어 우리 인민은 더욱 존엄있고 행복한 인민으로 될것이며 우리 조국은 끝없이 륭성발전할것입니다.

전체 인민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신이 선거한 인민정권을 더욱 신뢰하고 인민정권의 제반 시책들을 철저히 관철하며 인민정권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공화국정부의 옳바른 령도밑에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정당한 위업을 위하여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은 필승불패입니다.

모두다 공산주의기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위하여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제2차7개년 (1978—1984)계획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채택 1977년 12월 17일

공화국정부의 정확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6개년계획을 빛나게 완수하는 자랑찬 승리를 이룩하였다.

우리 인민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킴으로써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기한전에 완전히 점령하였다. 공업부문에서는 6개년계획을 총생산액적으로 1년 4개월 앞당겨 조선로동당창건 30돐전으로 완수하였으며 농업부문에서는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2년이나 앞당겨 점령하였다.

1971년—1976년에 공업생산은 처음 예견하였던 증가속도를 릉가하여 매해 평균 16.3%의 높은 속도로 장성하였으며 1976년에 공업총생산액이 1970년에 비하여 2.5배로 늘어났다.

나라의 연료동력기지와 원료기지가 공고화되고 금속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을 비롯한 기간적중공업부문들과 경공업이 빨리 발전하였으며 공업의 부문내부구조가 더욱 완비되고 그 자립성과 기술적토대가 훨씬 강화되였다.

6개년계획기간에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비할바없이 튼튼하여졌으며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는 가장 과학적인 주체농법을 창조하여 농업생산에 널리 적용함으로써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매우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에서도 알곡생산은 해마다 비약적으로 장성하였다.

교통운수부문과 기본건설부문을 비롯하여 인민경제의 다른 모든 부문들에서도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였다.

6개년계획기간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기 위한 3대기술혁명과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되였다.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린 결과 근로자들을 힘들고 유해로운 로동에서 해방하는 사업에서 커다란 전변이 이루어졌으며 모

든근로자들의 로동조건이 훨씬 개선되였다.

사회주의문화건설분야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국가적으로 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어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100만의 인테리대군을 마련할데 대한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였으며 가장 발전된 의무교육제도인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으며 사회주의적 민족문화와 예술이 찬란히 개화발전하였다.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토대하여 그리고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화국정부의 인민적시책에 의하여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훨씬 높아졌으며 특히 농민들과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였다.

6개년계획의 성과적수행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쌓아올린 또하나의 자랑찬 업적이며 위대한 승리이다.

6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들이 승리적으로 완수됨으로써 우리 나라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는 비할바없이 튼튼하여졌으며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가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강화되였다.

6개년계획을 수행하는 장엄한 투쟁과정에 모든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사상의지적으로 더욱 굳게 통일단결됨으로써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이 한층 촉진되였다.

우리 인민은 승리자의 높은 긍지와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6개년계획수행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에 토대하여 보다 높은 단계의 새로운 전망계획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설수 있게 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인민경제발전 제2차7개년 (1978—1984) 계획을 심의하고 새 전망계획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에 맞는 과학적이며 동원적인 계획이라는것을 일치하게 인정하면서 이를 승인한다.

1. 제2차7개년계획의 기본과업

제2차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는것이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촉진하며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나라의 풍부하고 다양한 자연부원을 적극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새로운 공업부문들을 창설하여 국내자원과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더욱 다방면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시켜 민족경제의 자립적체제를 더한층 강화하여야 한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모든 공업부문들에서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전반적인민경제의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 모든 근로자들이 일을 헐하게 하면서도 더 많은 물질적부를 생산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과학연구사업을 앞세우고 과학발전에 큰 힘을 넣어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기술공정과 생산방법, 경영활동을 전반적으로 새로운 과학적토대우에 올려세워야 한다.

2. 인민경제 부문별 과업

1) 공　　업

공업부문의 중심과업은 이미 있는 공업의 토대를 최대한으로 리용하면서 그것을 더욱 확대하여 우리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며 모든 공업부문들을 더욱 현대화, 과학화하는것이다.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공업생산은 2.2배, 그가운데서 생산수단생산은 2.2배, 소비재생산은 2.1배로 늘일것이다.

전력공업을 발전시켜 국내자원에 의거하는 자체의 동력기지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전력공업을 다른 부문의 발전에 확고히 앞세워 1984년에 가서 전력생산을 560억~600억키로와트시에 이르게 할것이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지금 있는 화력발전소들의 발전능력을 더 늘이는 한편 새로운 대규모의 화력발전소들을 건설하며 중요도시들의 열난방을 위한 화력발전소들과 여열 및 폐열을 리용하는 공장화력발전소들을 많이 건설할것이다.

수력발전소건설에서는 지금 하고있는 대동강발전소와 위원발전소, 희천제2호발전소 건설을 다그쳐 빨리 끝내며 새로운 대규모수력발전소들과 중소규모수력발전소들을 건설할것이다.

채굴공업을 확고히 앞세워 나라의 자립적연료원료기지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한해동안의 석탄생산량은 7,000만~8,000만톤, 철광석생산량은 1,600만톤에 이르게 하며 유색금속 광물생산을 늘여 유색금속 100만톤고지를 점령할것이다.

이미 있는 대규모탄광들을 개건확장하면서 새로운 대규모탄광들의 건설을 다그치며 중소규모탄광개발을 계속 힘있게 벌릴것이다.

무산광산, 검덕광산을 비롯하여 매장량이 많고 발전전망이 큰 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건확장하며 새로운 대규모광산들과 중소규모광산들을 적극 개발할것이다.

탐사사업에 힘을 집중하여 전망탐사와 현행탐사를 강화하며 탄광, 광산들에서 갱건설과 굴진, 박토를 확고히 앞세우고 갱도의 현대화, 영구화를 실현할것이다.

채굴설비를 대형화, 현대화하여 탄광, 광산의 종합적기계화와 자동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며 우리 나라 지질조건과 광물의 특성에 맞는 과학적인 탐사방법과 채굴방법, 선광방법을 널리 받아들일것이다.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의 요구에 맞게 금속공업을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흑색금속공업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어 1984년에 선철, 립철, 조강 생산은 640만~700만톤, 강철생산은 740만~800만톤, 압연강재생산은 560만~600만톤에 이르게 할것이다.

지금 있는 제철, 제강 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면서 대형용광로, 대형산소전로, 련속식랭간압연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야금 및 압연 설비들을 증설하여 흑색야금공업기지들을 대대적으로 확장할것이다.

흑색금속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콕스생산에서 국내연료의 배합비률을 더 높이며 조강생산능력을 대대적으로 늘이고 환원구단광에 의한 강철생산을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제철소, 제강소들에서 낡은 기술을 개조하고 자동화와 반자동화, 산업텔레비존화와 원

격조종화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광석의 예비처리로부터 제철, 제강, 압연 그리고 2차금속가공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공정에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들을 널리 받아들일것이다.

지금 있는 제련소들을 정비보강하고 새로운 현대적제련소들을 더 건설하여 유색금속생산을 훨씬 늘이며 국내자원에 의거하는 알루미니움생산을 발전시키고 희유금속과 순금속생산을 확대할것이다.

기계공업은 공업의 심장이며 새 전망계획 수행의 중심고리이다. 기술혁명을 심화발전시켜 인민경제의 현대화를 다그치기 위하여서는 기계공업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기계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한해에 기계가공품생산을 500만톤에 이르게 할것이다.

공작기계생산에 큰 힘을 넣어 1984년에 그 생산량을 5만대에 이르게 하며 특히 대형공작기계와 특수공작기계, 자동 및 반자동 공작기계, 단능공작기계의 생산을 훨씬 늘일것이다.

대형설비생산기지들을 확대강화하여 대형 수력 및 화력 타빈과 발전기, 220톤대형보이라를 비롯한 대용량동력설비들, 《자주호》, 《건설호》를 비롯한 중량자동차, 300마력불도젤, 4립방메터굴착기, 종합굴진기 등 채굴공업과 대자연개조사업에 요구되는 여러가지 대형기계들의 생산을 빨리 늘이며 새로 건설하는 현대적 공장, 기업소들의 설비를 종합적으로 생산보장할것이다.

새로운 전망계획 기간에 뜨락또르공장들을 보강하여 한해의 뜨락또르생산량을 4만5,000대에 이르게 하며 벼모뜨는기계, 벼모내는기계, 벼수확기와 벼종합수확기, 강냉이영양단지모옮겨심는기계, 강냉이수확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농기계 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일것이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반자동화, 자동화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는데 맞게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빨리 발전시켜 전자관과 반도체소자, 집적회로를 비롯한 여러가지 자동화요소들과 자동화 기구 및 계기의 생산을 늘이며 그 질을 결정적으로 개선할것이다.

선박공업에 계속 큰 힘을 넣어 2만톤짜리, 5만톤짜리, 10만톤짜리 대형짐배들과 2만톤짜리 대형가공모선, 5,000톤짜리 랭장운반선 그리고 3,750톤짜리 선미뜨랄선을 비롯한 고기배들을 대대적으로 무어내며 자행식준첩선과 기중기선을 비롯한 여러가지 기술선박들도 많이 만들것이다.

기계공업부문에서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계렬성이 높은 기계제품생산공정들에 흐름선과 자동선, 종합가공반들을 널리 받아들이고 기계제품생산에서 프레스화와 형단조화의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용접기술을 발전시켜 그 적용범위를 넓힐것이다.

기계제품생산에서 전문화와 협동생산을 널리 발전시키며 협동생산품을 먼저 만들어주는 강한 규률을 세울것이다.

화학공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공업의 원료기지를 확대하고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화학비료생산은 1.6배, 농약생산은 2배, 화학섬유생산은 1.8배, 합성수지생산은 2배로 늘일것이다.

지금 있는 화학비료공장들을 현대화하고 그 생산능력을 늘이는 한편 린함량이 높은 중과석비료를 생산하는 린비료기지를 새로 꾸리며 우리 나라 자원에 의한 카리비료공업을 창설할것이다.

혼합살초제, 디씨피에이, 씨마진과 같은 효능높은 살초제와 살충제, 살균제를 생산하는 새로운 농약공장들을 더 꾸려 여러가지 농약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킬것이다.

지금 있는 화학섬유생산기지와 합성수지생산기지를 확대하는 한편 아닐론공장건설을 빨리 끝내고 새로운 합성수지공장들을 건설하여 화학섬유와 합성수지의 생산을 훨씬 늘이며 중소규모화학공장들을 더 꾸리고 경공업에 요구되는 여러가지 화학제품을 많이 생산할것이다.

우리 나라 원료자원에 기초한 합성고무공업기지를 튼튼히 꾸려 고무를 많이 생산하며 여러가지 고무가공제품 생산을 늘일것이다.

기초화학공업인 산, 알카리 공업과 카바이드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소다생산에 필요한 소금생산을 빨리 늘일것이다.

의약품과 의료기구 생산에 힘을 넣어 새 전망계획 기간에 유기합성의약, 동약을 비롯한 의약품생산을 2.1배, 여러가지 의료기구 생산을 2배로 늘일것이다.

제2차7개년계획에 예견된 방대한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건재공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지금 있는 세멘트공장들에 부유예열식소성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소성로들을 증설하는 한편 새로운 세멘트공장들의 건설을 다그쳐 1984년에 세멘트생산량을 1,200만~1,300만톤에 이르게 할것이다.

판유리와 금속건구, 화학건재, 건축타일, 조명기구를 비롯하여 건설을 마감하는데 쓰는 건재의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 그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이며 유리섬유지붕판생산을 발전시킬것이다. 도마다 관공장, 선공장, 위생자기공장과 건구공장을 더욱 튼튼히 꾸리며 모든 도, 시, 군들에서 지방건재기지를 강화하여 여러가지 건재와 건구를 자체로 더 많이 만들어 쓰도록 할것이다.

지금 하고있는 단천마그네샤공장확장공사를 빨리 끝내고 새로운 대규모의 마그네샤크링카생산기지를 건설하여 마그네샤크링카생산을 대대적으로 늘일것이다.

림업부문에서 순환식채벌방법을 철저히 받아들여 통나무생산을 늘이며 목삭판, 목섬유판 생산을 확대하고 림산화학공업을 발전시켜 목재를 종합적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할것이다.

조림사업을 강화하여 새로운 전망계획 기간에 17만정보이상의 섬유제지림과 34만정보이상의 기름나무림을 더 조성할것이다.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하여서는 경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

지금 있는 방적설비들을 고속도화하고 더욱 현대화하여 그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높이면서 아닐론방적공장을 새로 꾸려 1984년에 가서 직물생산량을 8억메터에 이르게 하여야 한다. 뜨개제품과 여러가지 옷에 대한 인민들의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편직물생산과 피복공업을 더욱 발전시킬것이다.

먹는기름과 사탕 문제를 우리 나라의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공업적방법으로 풀어야 한다. 모든 옥쌀공장들과 배합먹이공장들에 강냉이눈가르는 공정을 잘 꾸리고 곡산공장들의 강냉이처리능력을 높여 기름을 많이 짜도록 하며 주체적인 옥당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려 1984년에 가서 국내원료에 의한 사탕생산을 30만톤이상에 이르게 할것이다.

어린이영양식료품생산에 깊은 관심을 돌려 어린이들에게 월령별, 년령별에 따르는 여러가지 영양식료품이 더 많이 차례지도록 할것이다.

신발공업을 더욱 발전시켜 신발생산을 1억켤레에 이르게 하며 질좋은 여러가지 가정용품과 문화용품 생산을 빨리 늘이고 일용잡화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일용필수품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것이다.

지금 하고있는 종이공장들의 건설을 빨리 끝내고 새로운 현대적종이공장들을 더 건설

하여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종이생산을 1.8배이상으로 늘일것이다.

대규모의 중앙공업과 중소규모의 지방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지방자체의 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지방공업을 더욱 현대화하여 새로운 전망계획 기간에 지방공업생산액을 2.4배로 늘일것이다.

수산업을 빨리 발전시키는것은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업이다.

1984년에 수산물생산량을 350만톤, 그가운데서 물고기생산량을 270만톤에 이르게 할것이다.

동해지구수산업에서는 먼바다물고기잡이와 가까운바다물고기잡이를 옳게 배합하며 서해지구수산업에서는 가까운바다에서 중세소업을 힘있게 벌려 여러가지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것이다.

고기배의 척수를 늘이는것과 함께 고기배의 현대화, 만능화를 실현하며 어구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일것이다.

얕은 바다와 자연호수, 저수지, 간석지, 강하천들을 리용하여 양식양어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릴것이다.

물고기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생산지랭동공장능력을 확장하며 물고기가공공장들을 더욱 현대화하여 물고기랭동품은 1.8배, 물고기절임은 3.1배, 물고기말림은 1.9배, 젓갈품생산은 2.1배로 늘일것이다.

2) 농 촌 경 리

농촌경리부문의 중심과업은 자연개조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리고 농촌기술혁명을 다그쳐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농업생산을 과학화, 집약화하는것이다.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알곡생산에 계속 큰 힘을 넣어 알곡 1,000만톤고지를 점령하며 여러가지 남새와 기름작물, 공예작물 생산을 훨씬 늘일것이다.

알곡을 비롯한 농산물 생산을 빨리 늘이기 위하여 자연개조 5대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지하수를 뽑아쓰기 위한 투쟁과 저수지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 밭관개를 완성할것이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15만정보의 다락밭을 건설하며 전국적으로 토지정리사업을 기본적으로 끝내고 모든 논밭을 더욱 기름진 땅으로 개량할것이다.

치산치수사업에 계속 힘을 넣어 강하천정리사업을 군중적운동으로 적극 벌리며 해안방조제를 많이 쌓고 고이는물빼기공사도 더 할것이다.

간석지건설을 대대적으로 벌리기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갖추면서 이미 시작한 대상들과 자연지리적조건이 좋고 비교적 빨리 개간할수 있는 새 대상들에 힘을 집중하여 10만정보의 간석지를 막을것이다.

알곡고지를 점령하며 농업생산력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농촌기술혁명을 더욱 다그쳐야 한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농촌에 뜨락또르를 많이 보내주어 1984년에 논밭 100정보당 뜨락또르가 10대씩 차례지게 하며 화물자동차와 여러가지 련결농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할것이다.

1984년에 논밭 정보당 화학비료시비량을 2톤이상에 이르게 하며 린비료와 카리비료의 비중을 훨씬 높이고 여러가지 미량원소비료의 공급량도 더욱 늘일것이다.

농촌에 효능높은 여러가지 살초제를 비롯한 농약을 더 많이 공급하여 모든 논밭의 김을 화학적방법으로 잡도록 하며 농작물을 온갖 병충해로부터 더 잘 보호하도록 할것이다.

알곡을 비롯한 농산물의 생산을 빨리 늘이기 위하여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나라 기상기후조건과 토양조건, 작물의 생물학적특성에 맞게 농사를 과학적으로 지으며 농업생산을 고도로 집약화하여야 한다.

새로운 전망계획 기간에 축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한해에 고기생산을 80만～90만톤에 이르게 할것이다. 국영 닭공장, 오리공장, 메추리공장들과 돼지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알과 고기 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이는 한편 협동농장들에 중소규모의 오리공장 또는 돼지공장들을 더 꾸리며 농장원세대들에서 닭과 오리를 비롯한 집짐승기르는 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릴것이다.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과수업의 기계화, 화학화를 적극 다그치며 과일나무를 관리하는데서 과학적이며 주체적인 기술관리체계를 철저히 세워 과일생산을 150만톤이상에 이르게 할것이다.

3) 운수 및 체신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교통운수부문의 중요한 과업은 집중수송, 집합수송을 널리 받아들이고 철도, 자동차, 배의 련대수송을 강화하여 빨리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있다.

집중화물역들과 전용선들을 잘 꾸리고 화물수송조직을 더욱 짜고들어 철도화물수송총량에서 집중수송의 비중을 60%이상에 이르게 할것이다.

규격화된 질좋은 집함들을 많이 생산하여 유색금속정광, 세멘트, 화학비료, 량곡과 같은 량이 많은 화물들과 경공업제품들을 집함으로 수송할것이다.

철도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전기화구간을 더 늘이며 중요구간들과 조차장들을 반자동화, 자동화하며 전기기관차, 내연기관차, 중량화차와 여러가지 특수화차의 생산을 빨리 늘일것이다.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강계—혜산—무산사이의 철도 건설을 끝내고 여러 구간들에 새 철도를 더 건설할것이다.

자동차운수에서는 화물자동차와 련결차 대수를 늘이고 짧은거리수송대와 먼거리수송대를 강화하여 빨리 늘어나는 자동차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할것이다.

수상운수부문에서는 연해 및 강하천 운수를 발전시키며 새로운 현대적항들을 더 꾸려 화물통과능력을 높이고 우리 나라 배에 의한 무역화물수송을 늘일것이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삭도들과 콘베아수송선들을 더 건설하며 무산 —청진사이 정광수송관 제2계단공사와 나프사수송관공사를 비롯한 새 수송관들의 건설을 힘있게 벌릴것이다.

체신부문에서는 전신, 전화 시설들을 현대화하고 방송출력을 더욱 높이며 전국텔레비존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킬것이다.

4) 기 본 건 설

사회주의경제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하여서는 기본건설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한다.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기본건설총투자액의 80%이상을 공업건설, 농업건설, 운수 및

체신 건설 등 생산적건설에 돌리며 살림집, 학교, 과학연구기관, 문화보건시설 등을 건설하는데도 많은 자금을 돌릴것이다.

기본건설을 선후차를 가려 집중적으로 하며 특히 새 전망계획의 중요고지들을 점령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선차적의의를 가지는 건설대상들에 힘을 집중할것이다.

방대한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부대들을 정규화하고 건설을 전문화하며 건설기업소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그 전투능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설계기관들을 부문별로 전문화하고 설계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 설계를 건설에 확고히 앞세우며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제때에 보장하도록 할것이다.

기본건설의 공업화수준을 한계단 더 높일것이다.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조립식건설의 비중을 산업건설에서 70%, 주택건설에서 90%, 공공건설에서 70%, 시설물건설에서 60% 이상에 이르게 할것이다.

부재와 경량골재 생산기지를 강화하고 부재를 대형화, 경량화하며 특히 주택 및 공공건물 건설에서 한간막이대형부재와 통방부재를 널리 받아들일것이다.

현대적인 여러가지 대형 및 중소형 건설기계들을 더 많이 보장하여 건설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며 새 기술과 선진적인 작업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건설속도와 건설의 질을 더욱 높일것이다.

5) 교육, 과학, 문화

교육부문의 중요한 과업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여 가장 선진적이고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더욱 완성하며 사회주의교육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는것이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질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학생들을 혁명적세계관의 골격이 확고히 서고 자연과 사회에 관한 튼튼한 기초지식과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소유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워낼것이다.

공장, 기업소들과 농촌들에 근로자고등중학교를 많이 내오고 그것을 잘 운영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고중졸업정도의 지식수준과 한가지이상의 현대적기술을 가지도록 할것이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민족간부양성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대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유능하고 쓸모있는 기술자, 전문가들을 더 많이 길러낼것이다.

대학들과 고등전문학교들에서 최신과학기술부문의 학과지표들을 새로 더 내오며 기계공학, 전자공학, 농업생물학, 식료공학을 비롯한 일부 긴요한 부문의 기술자양성규모를 빨리 늘일것이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공장대학, 공장고등전문학교를 비롯하여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그 우월성을 더욱 발양시킬것이다.

대학들과 보통교육부문학교들의 교사를 많이 건설하고 실험실습조건을 잘 갖추어주며 여러 지방들에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들을 새로 더 건설할것이다.

과학연구부문에서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긴절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데 힘을 집중할것이다.

우리 나라의 원료와 연료에 기초한 공업발전문제를 비롯하여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절실한 문제들에 대한 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할것이다.

기계공학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능률적이며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많이 창안제작하며 특히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새로운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적극 해결할것이다.

벼, 강냉이를 비롯한 주요 알곡작물과 공예작물의 새로운 좋은 품종을 얻어내며 농작물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랭해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것이다.

새로운 과학분야들을 개척하고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들을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일것이다.

과학일군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의 과학리론수준을 높이며 여러가지 현대적실험설비들과 중간시험공장들을 더 잘 갖추어줄것이다.

문화예술부문에서는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작품, 사회주의대건설의 벅찬 현실을 생동하게 반영한 작품을 비롯하여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할것이다.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영화촬영소들을 더욱 현대적으로 꾸리고 새로 과학교육영화촬영소를 건설하며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하여 도처에 현대적설비를 갖춘 도서관과 극장, 문화회관을 더 건설할것이다.

6) 인 민 생 활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축적과 소비의 관계를 옳게 조절하여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장래행복을 위한 경제토대를 강화하면서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은 수준에 올려세워야 한다.

새로운 전망계획 기간에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을 다같이 높이면서 특히 농민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려 벌방지대와 산간지대 농민들의 생활을 고르롭게 높이도록 할것이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인민소비품생산이 늘어나고 공업생산물의 원가가 떨어지는데 따라 소비품의 값을 더 낮출것이다.

근로자들을 위한 여러가지 사회문화적시책에 더 많은 국가자금을 돌려 공산주의적분배의 싹을 계속 발전시킬것이다.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도시와 농촌에서 매해 20만～30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새로 건설하며 평양시의 중앙난방화를 확대하고 각 도소재지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의 중앙난방화를 실현하여 근로자들의 문화적인 생활을 더 잘 보장할것이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생산의 빠른 발전과 근로자들의 높아가는 구매력에 맞게 소매상품류통액을 1.9배로 늘일것이다.

중요공업지구들과 농촌에 대한 상품공급사업을 강화하며 특히 식료가공품과 문화용품, 가정용품 그리고 여러가지 세소상품의 판매량을 빨리 늘여 근로자들의 다양한 상품수요와 생활상 편의를 백방으로 보장할것이다.

보건부문에서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철저히 실시하며 예방의학적방침을 관철하고 의사담당구역제를 발전시켜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봉사를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새 전망계획 기간에 예방치료집단수는 1.3배, 병원침대수는 1.2배이상으로 늘일것이다.

시, 군 인민병원을 전문과를 다 갖춘 종합병원으로 잘 꾸리고 전문병원, 예방원, 산원을 더 내오며 의료 설비와 시설들을 더욱 현대화할것이다.

현대의학과 함께 동의학을 적극 발전시켜야 한다. 중앙과 도의 동의병원들을 확장하고 시, 군 인민병원, 산업병원의 동의과를 더욱 강화할것이다.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탁아소들을 늘이고 문화적으로 관리하며 아동병동들을 잘 꾸려 우리의 귀여운 어린이들을 더욱 훌륭히 건강하게 키울것이다.

* * *

제2차7개년계획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이다.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전례없이 방대한 규모의 건설을 예견하고있는 제2차7개년계획은 전체 인민의 힘과 재능, 나라의 생산잠재력을 사회주의건설에 총동원할것을 요구한다.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계속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이며 3대혁명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제2차7개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과 새로운 혁신을 일으켜야 한다.

제2차7개년계획기간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적원칙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자체의 힘을 믿고 자체의 힘에 의거하여 부닥치는 난관을 뚫고 투쟁해나가는것은 주체사상의 요구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 인민이 견지하고있는 일관한 방침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제2차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제2차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경제법칙과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에 맞게 경제지도와 기업관리를 바로하여야 한다.

모든 국가경제기관들과 경제지도일군들은 경제지도관리에서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하며 특히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대중의 자각적열성과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를 남김없이 발양시키는데 가장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생산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며 절약제도를 강화하여 있는 로력, 있는 설비, 있는 자재로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건설하도록 경제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제2차7개년계획이 수행되면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는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될것이며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들은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행복하고 보람있는 생활을 누리게 될것이다.

최고인민회의는 공화국정부의 정확한 령도와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굳게 통일단결된 우리 나라 모든 근로자들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제2차7개년계획이 승리적으로 완수되리라는것을 확신한다.

아써 충대통령각하와 부인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베푸신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7년 4월 30일

존경하는 아써 충대통령각하와 도린 충부인!

존경하는 가이아나의 손님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먼 라틴아메리카대륙에서 오신 가이아나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반가이 맞이하였습니다.

나는 먼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가이아나협동공화국 대통령 아써 충각하와 부인 그리고 전체 가이아나손님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대통령각하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됩니다.

그리고 아세아와 라틴아메리카의 신흥세력나라들사이의 친선의 뉴대를 보다 강화하여 줍니다.

조선과 가이아나는 비록 멀리 떨어져있으나 두 나라 인민들은 자주, 독립, 새 사회 건설을 위한 공동투쟁을 통하여 매우 친근한 사이로 되였습니다.

가이아나인민은 오랜 기간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통하여 독립을 이룩하였습니다.

오늘 가이아나인민은 인민민족대회당의 옳바른 령도밑에 자력갱생의 구호를 높이 들고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며 독창적인 《협동적사회주의》로선을 실현해나가고 있습니다.

대외관계분야에서 가이아나정부는 쁠럭불가담정책을 견지하며 까리브해지역 나라들의 단결과 제3세계인민들의 반제공동위업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가이아나에서 민족들사이의 단합을 이룩하고 새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며 그를 열렬히 축하합니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세력들은 가이아나혁명의 앞길을 가로막아보려고 집요하게 파괴암해책동을 감행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가이아나인민을 반대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음모 책동을 규탄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기 위한 가이아나 정부와 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의 《고요한 뒤동산》으로 불리우던 라틴아메리카대륙은 오늘 민족적독립과 자주성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대륙으로 전변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자주권과 령해권, 자연부원을 지키기 위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손님여러분들은 이번 방문기간 우리 인민이 제국주의와 직접 맞서있는 어려운 조건에

서도 주체사상을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여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있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는것을 직접 보게 될것입니다.

가이아나 정부와 인민은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적극 지지하여주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이 기회에 대통령각하와 번함총리각하, 가이아나협동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다시금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가이아나의 손님여러분!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오늘의 시대적추세에 맞게 자주의 한길로 어깨겯고 나아가고있으며 외교관계설정후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매우 훌륭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형제적가이아나인민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며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우리 나라 방문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게 되기를 바라면서 조선인민과 가이아나인민사이의 형제적친선단결을 위하여,

가이아나협동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아써 춍대통령각하와 도린 춍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가이아나의 손님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각하와 부인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베푸신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7년 5월 9일

존경하는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각하와 부인!

존경하는 가봉의 손님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가봉민주당의 창건자이시며 총비서이시며 가봉공화국 대통령이신 엘 하지 오마르 봉고각하와 그 부인을 비롯한 가봉의 손님일행을 우리 나라의 수도 평양에서 맞이하여 이처럼 자리를 같이하게 된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먼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먼 아프리카대륙에서 오신 친선의 사절들인 당신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대통령각하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서 참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조선과 가봉은 다 같이 제3세계에 속하며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입니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 인민들은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새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에서의 공통성으로 하여 서로 긴밀히 지지협조하고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이러한 시대적추세속에서 외교관계를 맺고 호상 래왕하며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왔습니다.

조선과 가봉사이의 친선관계의 발전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의 견지에서 보나 아세아, 아프리카를 비롯한 제3세계인민들의 단결의 견지에서 보나 매우 좋은 일입니다.

가봉인민은 나라의 독립을 이룩한 다음 존경하는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각하와 가봉민주당의 령도밑에 민족적 독립과 통일을 공고히 하며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있습니다.

지금 가봉인민은 제3차5개년계획을 수행하고있으며 《가봉화》의 구호밑에 경제적해방을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고있습니다.

가봉공화국 정부는 대외관계분야에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고있습니다.

우리는 가봉인민이 자주성을 내세우며 나라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기울이고있는 노력을 지지합니다.

오늘 아프리카대륙은 완전해방의 전야에 놓여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아프리카인민들의 편에 튼튼히 서있으며 남부아프리카에서 인종주의정권을 청산하고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짐바브웨, 나미비아, 아자니아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우리는 제3세계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그들과 한대렬에 튼튼히 서서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며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계속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할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각하!

제3세계나라 인민들이 친선적 협조와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력사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이번 방문이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호상 리해를 깊이하고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공고발전시키는 획기적계기로 될것이며 더 나아가서 제3세계인민들사이의 단결의 강화에 이바지하게 될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들의 방문은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커다란 고무로 됩니다.

나는 당신들이 먼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 나라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다시금 사의를 표하면서

조선인민과 가봉인민사이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가봉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각하와 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가봉의 손님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부인을 위하여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각하와 부인이 차린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7년 5월 11일

존경하는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각하와 부인!

존경하는 가봉의 손님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가봉인민의 탁월한 지도자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각하를 비롯한 가봉손님들의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에게 잊을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기였습니다.

나는 대통령각하께서 우리를 이 성대한 연회에 친절히 초청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당신은 우리를 친근한 벗으로 믿고 먼길을 떠나 우리에게로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과 처음 만나지만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요구하는 공통된 립장으로 하여 인차 서로 깊이 리해하고 굳은 친선의 뉴대를 맺게 되였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의 상봉을 통하여 오늘 세계인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라는것을 다시한번 생동하게 느낄수 있었습니다.

지난날 식민주의의 착취와 압제 밑에서 시달리던 가봉땅에도 오늘 자주의 뿌리는 내려 새생활이 꽃피기 시작하였다는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민의 주체위업에 대한 당신들의 높은 평가와 지지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았으며 우리가 걷고있는 길이 자주성을 요구하는 세계인민들이 다같이 걷고있는 승리의 길이라는 확신을 더 굳게 하였습니다.

대통령각하의 방문으로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새로운 개화기에 들어섰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당신과 따뜻한 우정을 맺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아프리카에 가봉인민을 친근한 벗으로 가지고있는것을 행복으로 생각합니다.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은 제3세계나라들을 리간분렬시키고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제3세계인민들은 적들의 분렬책동에 단결된 힘으로 맞서나가야만 민족해방위업을 완성하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과업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각하의 방문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제3세계인민들의 단결의 힘있는 시위로 되였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결과에 큰 만족감을 표시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각하!

래일이면 당신들은 우리 나라를 떠나게 되지만 당신들이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안겨준

뜨거운 친선의 정과 두 나라 사이에 합의된 공동문건들은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굳은 친선의 상징으로 언제나 남아있을것입니다.

오늘 가봉인민은 당신을 지도자로 맞이함으로써 자기들의 생활에서 새로운 변혁을 가져오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존경하는 대통령각하의 옳바른 령도밑에 가봉인민이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새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조국에 돌아가면 가봉인민에게 보내는 우리의 이 축원과 친선적인 인사를 전하여주기 바랍니다.

나는 끝으로 화기에 넘치는 이 자리에서

조선인민과 가봉인민사이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가봉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각하와 부인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가봉의 손님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카이손 폼비한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베푸신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7년 6월 13일

존경하는 카이손 폼비한동지!

존경하는 라오스의 손님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우리는 이번에 반제공동전선에서 승리한 혁명전우인 라오스인민의 친선의 사절들을 맞이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 총리이신 카이손 폼비한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과 라오스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투적친선단결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획기적사변으로 됩니다.

조선과 라오스는 다같이 아세아에 위치하고있으며 두 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통하여 혈연적인 친선의 뉴대를 맺었습니다.

라오스인민은 카이손 폼비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라오스인민혁명당의 옳바른 령도밑

에 오래동안 손에 무장을 들고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을 반대하는 간고한 혁명투쟁을 벌려왔으며 이 투쟁에서 마침내 승리하였습니다.

우리는 라오스혁명의 승리와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창건을 라오스인민앞에 새생활창조의 넓은 길을 열어놓은 뜻깊은 사변으로서 또한 맑스-레닌주의를 지도적지침으로 하는 라오스인민혁명당의 로선과 정책의 빛나는 결실로서 열렬히 축하합니다.

민족해방혁명이 승리한 다음 라오스인민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인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현시기 라오스 인민혁명당과 정부는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고 안팎의 계급적원쑤들의 온갖 파괴암해책동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키며 신식민주의의 후과와 전쟁의 상처를 가시고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로 인민대중을 확신성있게 이끌고있습니다.

라오스에서의 혁명발전은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다가 새로 독립한 나라 인민들이 사회주의의 길로 나가는것은 력사적필연성이라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형제적라오스인민이 사회주의의 동남아세아전초선에 튼튼히 서서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을 자신의 성과와 같이 기뻐하며 평화롭고 독립적이며 사회주의적인 번영하는 라오스를 건설하기 위한 그들의 앞으로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열렬히 축원합니다.

라오스인민이 민족해방투쟁에서 이룩한 승리는 웰남과 캄보쟈에서의 혁명승리와 함께 동남아세아에서 반제혁명력량을 강화하고 제국주의식민지체계의 붕괴를 크게 촉진시켰습니다.

참으로 제2차세계대전후 아세아에서는 위대한 혁명적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아세아인민들의 힘찬 전진운동을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지 못할것이며 아세아인민들은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동지들과 벗들!

이번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커다란 고무로 됩니다.

라오스 인민혁명당과 인민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위업을 언제나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습니다.

라오스에서 혁명의 승리가 다가오고있을 때 라오스 당과 인민은 남조선괴뢰들을 라오스땅에서 내쫓는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적들의 《두개 조선》 조작음모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나는 이와 관련하여 존경하는 카이손 폼비한동지와 라오스 인민혁명당과 정부와 인민에게 다시한번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조선인민과 라오스인민사이의 긴밀한 친선단결은 아세아 혁명적인민들과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기여로 됩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신흥세력나라들사이에 반목과 불화를 조성하고 그들을 리간분렬시키려고 더욱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는 오늘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어느때보다도 절실한 문제로 나서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앞으로도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과 단결하여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 나라 인민들이 자기 운명을 자신의 손으로 결정할수 있는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워나갈것입니다.

존경하는 라오스의 손님여러분!

당신들은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동안 우리 인민의 뜨거운 환대를 받을것이며 우리 당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그들의 성과들을 직접 보게 될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이 훌륭한 결실을 가져오게 되리라고 믿으면서
조선인민과 라오스인민사이의 불패의 형제적친선단결을 위하여,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카이손 폼비한동지의 건강을 위하여,
라오스손님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기에 참석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베푸신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7년 8월 25일

존경하는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
유고슬라비아의 손님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지금 우리 인민은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이시며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대통령이신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을 조선과 유고슬라비아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커다란 경사로 맞이하고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친근한 벗이신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대통령동지를 2년만에 우리 평양에서 다시 만나게 된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면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는 올해에 탄생 85돐을 맞이하였으며 또한 유고슬라비아공산당 당수로서의 활동개시 40돐을 맞이하였습니다.

대통령동지가 그처럼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동방에로의 먼길을 떠나 우리에게로 오신데 대하여 우리는 모두 크게 감탄하고있으며 감사히 여기고있습니다.

이 방문은 당신의 우리에 대한 신임과 형제적친근감이 얼마나 두터우며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과 우리들사이의 상봉에 대하여 당신이 얼마나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는가 하는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는 오랜 혁명투사이며 쁠럭불가담운동의 창시자의 한사람입니다.

유고슬라비아의 현대력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모든 리정표들은 당신의 혁명

활동과 직접 결부되여있습니다.

제2차세계대전시기 반파쑈해방투쟁에서의 승리, 해방후 자치제에 기초한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성과, 국내 여러 민족들의 평등과 통일의 실현, 한마디로 말하여 오늘 유고슬라비아인민이 누리고있는 모든 영예와 행복은 곧 유고슬라비아혁명에 대한 당신의 오랜 기간의 정력적령도의 결과입니다.

유고슬라비아혁명을 령도하는 전과정에 당신과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은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였으며 대외관계에서의 자주정책의 구현으로서 쁠럭불가담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동지께서 자주적인 로선과 정책을 실시하여 유고슬라비아발전의 독자적인 길을 개척함으로써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공동위업에 커다란 기여를 하신데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동지들과 벗들!

1975년 여름 우리는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여 자주정책의 훌륭한 결실로 되는 유고슬라비아인민의 새생활을 직접 감명깊게 볼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라가 처한 력사적, 지리적 특성과 우리 혁명의 복잡성으로 하여 주체를 세우고 자주성을 견지할데 대한 문제를 일찌기 혁명운동에 나선 첫날부터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내세웠습니다.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대내외정책의 모든 분야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현시대는 자주성을 가질데 대한 인류의 오랜 념원이 세계의 어디에서나 현실로 구현되여가는 력사의 새시대이라는것을 우리는 긍지높이 말할수 있습니다.

온갖 형태의 압박과 착취를 반대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새생활을 건설하려는 진보적인민들의 공통된 지향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지배주의의 모든 억압세력을 반대하며 낡은 질서를 허물고 세계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개변하는 결정적요인으로 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력사발전의 응당한 흐름이며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인정합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세력이 쇠퇴몰락하고 세계가 자주의 길로 나가는 현시대적추세속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숙원도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문제는 오직 남조선에서 외국군대가 철거하고 모든 외부의 간섭이 제거되는 조건에서만 해결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언급할것은 유고슬라비아동지들이 국제무대에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강력히 지지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고있는 사실입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대통령동지와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과 정부와 인민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반제자주를 위한 인민들의 위업은 호상 지지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사회주의나라 인민들,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 구라파의 진보적인민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자기 운명을 자신이 결정할수 있는 새 사회, 새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동지!

조선과 유고슬라비아사이의 친선단결은 자주성의 호상존중에 기초하고있기때문에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한것으로 되고있습니다.

당신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과 우리들사이의 회담은 우리 두 당, 두 나라, 두 인민들사이의 형제적친선의 력사를 새롭게 장식하는 획기적계기로 될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자주성을 요구하는 국제 공산주의운동 및 로동운동의 현 발전추세와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을 촉진하는 힘있는 추동력으로 될것입니다.

나는 대통령동지께서 처음으로 우리 나라에 오셨지만 이곳을 자기의 집과 같이 여겨주시기 바라면서

조선인민과 유고슬라비아인민사이의 불패의 형제적친선단결을 위하여,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의 건강을 위하여,

유고슬라비아의 손님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를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하신 연설

1977년 8월 28일

존경하는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

유고슬라비아의 손님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 수도의 각계층 인민들은 존경하는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를 환영하러 명절과 같은 흥겨운 마음으로 이 경기장에 모였습니다.

나는 뜻깊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친근한 벗이신 대통령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을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평양시에 전례없이 펼쳐진 오늘의 이 아름답고 장엄한 대화폭은 일찌기 청년시절부터 로동계급의 위업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여오신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와 유고슬라비아인민에 대한 높은 존경과 형제적친선감의 뚜렷한 표시입니다.

이것은 자주성에 기초하여 발전하는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의 힘찬 시위로 되며 또한 자주의 공통된 목적을 위하여 어깨겯고나가는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들사이의 친선단결의 빛나는 상징으로 됩니다.

조선과 유고슬라비아는 다같이 자주성을 견지하며 자기 운명을 자기자신의 힘에 의하여 개척하여왔습니다.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대내외활동의 모든 성과가 자주로선의 구현으로 이루어지고있

는데 대하여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있으며 자기들의 주체적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 굳은 결의를 가지고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보편적진리로 되고있습니다.

자주의 시대적추세속에서 사회주의력량, 민족해방운동, 로동운동과 민주주의운동은 계속 장성하고있습니다.

자주의 힘찬 조류를 반영하여 위대한 정치세력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한 쁠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으로 되였습니다.

사회주의가 세계적범위로 발전하고 쁠럭불가담운동이 확대강화됨으로써 세계혁명력량은 결정적으로 강화되였으며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심히 약화되였습니다.

력사는 자기의 발전법칙에 따라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한 인민들의 위업이 승리하는 방향으로 확고하게 나가고있습니다.

세계를 변혁하는 오늘의 력사적전환과정에 혁명력량과 반혁명세력, 자주성을 옹호하는 각국 인민들과 신구지배세력 사이에는 끊임없이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제국주의반동세력은 쇠퇴몰락하는 저들의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발악하고있으며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는 경제위기가 심각화됨에 따라 더욱 갖가지 음모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수법을 바꾸어 겉으로는 《평화》의 간판을 더 요란하게 내세우고있으나 실은 침략과 전쟁 준비를 다그치고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에서 경각성을 높여야 할것은 제국주의, 신식민주의, 지배주의 세력이 세계의 곳곳에서 쟁탈전을 벌리면서 쁠럭불가담나라들을 서로 끼당겨 저들의 지배와 통제 밑에 두려고 하며 쁠럭불가담운동을 비롯한 세계혁명력량을 분렬와해시키려 하고있는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어떠한 세력도 력사의 흐름을 뒤로 돌려세울수는 없습니다.

현정세에 대처하여 쁠럭불가담나라들과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인민들은 온갖 형태의 지배세력을 반대하는 통일전선을 이룩하고 그들의 분렬, 와해, 쟁탈 책동을 단호히 물리쳐야 합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공산당 및 로동당들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식민지민족해방투쟁과 국제로동운동을 지지하며 사회주의건설을 계속하며 다른 당,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조건에서 공통점을 찾아 단결과 협조를 도모하여나가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분렬을 저지하고 단결을 수호하여야 하며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에 생긴 의견상이와 분쟁문제는 민족적리익과 쁠럭불가담운동의 전반적리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단결을 강화하는 원칙에서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쁠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행동통일을 보장하며 비록 일시적인 경제적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병주고 약주는 식의 외래지배세력의 《원조》에 유혹되거나 그들의 리간, 분렬 책동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진보적력량을 리간분렬시키고 각개격파하려는 책동에 단결의 전략으로 견결히 맞서나감으로써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온갖 난관을 용감히 이겨내고 계속 승리의 한길로 나아갈것입니다.

원래 분할하여 통치하는것은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의 상투적수법입니다.

이로부터 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두개 조선》으로 영원히 분렬시키려는 정책을 추구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력사적으로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우리 인민을 둘로 갈라놓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허하지 않을것입니다.

이번에 대통령동지께서는 여러 기회에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앞으로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라고 거듭 확언하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동지!

조선과 유고슬라비아는 자주성을 견지하는 사회주의나라로서 또한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으로서 국제로동계급과 피압박민족들의 공동위업을 위하여 함께 싸워왔습니다.

우리들은 그사이에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한 담화와 회담들에서 현시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쁠럭불가담운동이 당면하고있는 일련의 문제들과 그밖의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 두 나라 사이의 친선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들과 조선의 통일문제에 대한 매우 유익한 의견들을 나누었으며 확고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두 당, 두 나라, 두 인민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앞으로 정치, 경제, 문화,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에 걸쳐 확대발전시키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 쁠럭불가담운동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더욱 기울일데 대하여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1975년에 있은 우리의 귀국방문과 당신의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나라 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활짝 꽃피고있다는 뚜렷한 증거이며 이것은 두 나라 인민의 형제적친선의 력사에 가장 빛나는 기록을 남기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을 촉진하는데 큰 기여로 됩니다.

우리는 대통령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나라 인민들, 국제로동계급,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 구라파의 진보적인민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계급해방, 민족해방, 인류해방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워나갈것이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신식민주의와 지배주의, 인종주의와 유태복고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나는 끝으로 환영의 파도 끝없이 설레이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친근한 벗이신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대통령동지께서 계속 건강한 몸으로 유고슬라비아인민을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여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게 되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인민과 유고슬라비아인민사이의 형제적친선단결 만세!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 만세!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각하를 단장으로 하는 적도기네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베푸신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7년 9월 15일

존경하는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각하와 부인!

적도기네의 손님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나는 먼 아프리카대륙에서 우리 인민에 대한 두터운 친선의 정을 안고오신 적도기네민족유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시며 공화국 종신대통령이시며 적도기네 국가 및 인민혁명정부 수반이시며 우리의 친근한 벗이신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각하와 처음으로 상봉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적도기네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오늘 평양시의 각계층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은 명절기분에서 대통령각하와 적도기네 손님들을 뜨겁게 맞이하였으며 성대히 환영하였습니다.

대통령각하의 우리 나라 방문과 당신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렬한 환영은 우리 두 나라 사이의 훌륭한 친선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것입니다.

조선인민과 적도기네인민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적인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을 통하여 굳은 친선의 뉴대를 맺었습니다.

대통령각하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보다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키는 획기적인 계기로 될것입니다.

용감한 적도기네인민은 1968년 10월 나라의 독립을 이룩한 다음 자기의 최고지도자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각하의 옳바른 령도밑에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있습니다.

적도기네인민은 자기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원칙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책동과 경제봉쇄정책을 짓부시며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발전시켜나가고있습니다.

적도기네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고있으며 자주, 독립을 위한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적도기네인민이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하며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벌리고있는 투쟁을 커다란 동정심을 가지고 주시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적도기네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며 당신들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오늘 아프리카는 자주와 완전해방의 길로 확고하게 나가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 시대적추세에 역행하여 아프리카에 남아있는 식민지통치의 마지막

지탱점으로서 남부아프리카의 소수백인인종주의정권들을 어떻게 하나 부지하여보려고 발악하고있습니다.

제국주의와 신식민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주의세력은 아프리카나라들을 리간분렬시켜 서로 싸우게 함으로써 반제자주의 한길로 나가지 못하게 하며 이 나라들을 제가끔 끌어당겨 저들의 지배와 통제 밑에 두려 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투쟁속에서 각성된 아프리카인민들이 외래지배세력의 그 어떤 분렬와해책동에도 결코 넘어가지 않을것이며 구경 위대한 단결을 이룩하고 아프리카의 완전해방과 자주적발전을 위한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수행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조선인민은 남부아프리카의 인종주의정권들을 청산하고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짐바브웨,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위한 모든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존경하는 손님여러분!

반제자주를 위한 인민들의 투쟁은 호상 밀접한 련관속에서 발전하고있습니다.

당신들은 이번 기회에 조선인민이 우리 당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직접 보게 될것입니다.

적도기네 정부와 인민은 국제무대에서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음모를 견결히 반대하고있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대통령각하와 적도기네 정부와 인민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적도기네인민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며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나는 친선의 정 넘치는 이 자리에서

조선인민과 적도기네인민사이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적도기네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각하와 부인의 건강을 위하여,

적도기네손님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하여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각하가 차린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7년 9월 17일

존경하는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각하와 빈당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부인!

적도기네의 손님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적도기네민족유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시며 공화국 종신대통령이시며 적도기네국가 및 인민혁명정부 수반이시며 우리의 친근한 벗이신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각하의 우리 나라 방문은 성과적으로 끝나가고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수륙만리 먼길을 떠나 우리 나라를 찾아주시였으며 이 방문을 통하여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과 적도기네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형제적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사변으로 되였습니다.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은 비록 짧은 기간이였으나 우리들사이의 전투적우정을 한없이 깊게 하였으며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단결을 더욱 튼튼히 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벌리고있는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매우 고맙게 여기고있습니다.

우리들사이의 친선적인 상봉과 회담들에서는 호상관심사로 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하였으며 토의된 문제들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의 상봉을 통하여 조선과 적도기네, 아세아와 아프리카 인민들 사이의 친선의 뉴대는 반제자주의 공통성으로 하여 불패이라는것을 다시금 확신할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두 나라 사이의 공동콤뮤니케는 이 모든 훌륭한 결과들에 대하여 밝히게 될것이며 그것은 조선과 적도기네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면적친선관계발전에서 빛나는 리정표로 될것입니다.

우리는 세계가 자주의 길로 나가는 오늘의 시대적추세속에서 용감한 적도기네인민이 대통령각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온갖 방해책동과 봉쇄정책을 짓부시고 자체의 힘으로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새 적도기네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반드시 보다 큰 승리를 쟁취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각하!

우리는 이번에 당신과 같은 견실한 반제투사를 친근한 벗으로, 전우로 사귀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은 조선과 적도기네사이의 친선의 길을 개척하는데서 커다란 공적을 이룩한 선구자로서 우리 인민의 기억속에 언제나 남아있을것입니다.

우리는 대통령각하의 우리 나라 방문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감을 표시합니다.

조선인민은 제국주의가 없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세계를 창조하기 위한 인류의 공동위업을 위하여 앞으로도 적도기네인민을 포함한 제3세계인민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과 더욱 긴밀히 단합하여 억세게 싸워나갈것입니다.

나는 끝으로 당신들이 조국에 돌아가면 적도기네인민에게 보내는 우리 인민의 두터운 친선의 정과 따뜻한 인사를 전하여주기 바라면서 조선인민과 적도기네인민사이의 형제적친선단결을 위하여,

적도기네공화국의 번영과 적도기네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각하와 부인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적도기네손님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버마련방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이며 국가리사회 의장인 우 네 윈각하의 우리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베푸신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7년 9월 20일

존경하는 우 네 윈대통령각하!

버마의 손님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버마사회주의로선당 위원장이시며 버마련방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이시며 국가리사회 의장이신 우 네 윈각하를 커다란 기쁨속에 맞이하였습니다.

나는 먼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버마인민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우리의 친근한 벗이신 우 네 윈대통령각하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특히 나는 대통령각하와 10여년만에 우리 평양에서 다시 상봉하게 된것을 각별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1965년 반둥회의 10돐행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에 갔다오던길에 버마에 들려 대통령각하의 따뜻한 환대속에 하루밤을 지내면서 인상깊은 담화를 나누던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있습니다.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동안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의 생활에서와 아세아와 세계의 정세발전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버마인민은 존경하는 우 네 윈대통령각하의 옳바른 령도밑에 자력갱생하여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버마련방사회주의공화국은 대외관계분야에서 독자성과 민족적존엄을 지키고 일관하게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고있으며 아세아의 평화와 진보에 이바지하고있습니다.

버마에서 이룩된 오늘의 모든 성과들은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우 네 윈대통령각하께서 오래동안 벌려온 헌신적인 투쟁과 직접 결부되여있습니다.

대통령각하께서 제시하시는 버마사회주의로선당의 정책들은 버마를 사회주의와 번영의 길로 이끌기 위한 자주정책입니다.

우리는 버마의 자주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높이 평가합니다.

지난날 식민지, 반식민지로 있다가 민족적독립을 이룩한 많은 나라 인민들이 자주성을

견지하며 사회주의를 지향하여나가는것은 오늘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지난날 뒤떨어졌던 우리 나라를 짧은 기간에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습니다.

우리는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서도 일관하게 자주적원칙을 견지하고있습니다.

버마련방사회주의공화국 정부와 인민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을 배격하고 자주성을 견지하는 공통된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우리측 결의안에 찬성투표하였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계속 지지성원하여주고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것이며 커다란 고무로 됩니다.

나는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각하와 버마련방사회주의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각하!

현시기 아세아의 정세는 매우 좋게 발전하고있습니다.

오늘의 아세아는 어제날의 식민지적아세아가 아니며 아세아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아세아인민들은 아세아인민을 위한 아세아,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새 아세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습니다.

조선과 버마는 다같은 아세아나라로서 많은 면에서 공통성을 가지고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자주적인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으로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세력을 반대하고 아세아의 빛나는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을 통하여 굳은 친선의 뉴대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각하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이 우리 두 나라 사이의 리해와 신뢰를 두터이하고 친선협조관계를 획기적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되며 아세아의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사이의 단결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조선인민은 현시대의 근본문제들 특히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력사적운명과 관련된 문제에서 언제나 이 나라 인민들과 한전선에 튼튼히 서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제국주의와 신식민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 해방과 자주권, 평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한 투쟁에서 아세아인민들을 비롯하여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의 모든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나갈것입니다.

나는 대통령각하를 오래간만에 다시 만나 기쁨에 넘치는 이 자리에서 당신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이 훌륭한 결실을 가져오게 되기를 바라면서

조선인민과 버마인민사이의 형제적친선단결을 위하여,

버마련방사회주의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우 네 윈대통령각하의 건강을 위하여,

버마의 손님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하여 우 네 윈대통령각하가 차린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7년 9월 22일

존경하는 우 네 윈대통령각하!

버마의 손님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나는 오늘저녁 우 네 윈대통령이 우리 나라 방문을 끝마치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이처럼 성대한 연회를 차리고 우리를 초대하여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당신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과 버마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서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놓은 중요한 계기로 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사이에 있은 회담과 상봉에서는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서로 지지하고 협조할데 대한 일련의 문제들이 토의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사이의 리해와 신의는 깊어졌으며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의 뉴대는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우리 나라 방문이 조선과 버마 두 나라 사이의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두 나라 사이에는 친선적인 래왕과 접촉이 더 많아지고 여러 분야에 걸쳐 호상협조가 확대될것입니다.

당신들과 함께 지낸 이 며칠동안은 우리모두에게 보람있는 나날이였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남기고가는 두터운 친선의 정을 언제나 잊지 않을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조국에 돌아가면 버마인민에게 보내는 조선인민의 인사를 전하여주기 바랍니다.

나는 끝으로 조선인민과 버마인민사이의 굳은 친선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우 네 윈대통령의 건강을 위하여,

버마손님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뽈 뽀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주의캄보쟈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베푸신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7년 10월 4일

존경하는 뽈 뽀트동지！

존경하는 민주주의캄보쟈 당및정부대표단 성원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나는 우리의 친근한 전우이신 뽈 뽀트동지를 오래간만에 다시만나 이처럼 자리를 같이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당신들을 가장 열렬히 환영합니다.

지금 전체 조선인민은 캄보쟈혁명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하는 캄보쟈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이시며 민주주의캄보쟈 정부 총리이신 뽈 뽀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주의캄보쟈 당및정부대표단을 맞이하여 형제적캄보쟈공산당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전투적친선의 정으로 가득차있습니다.

영웅적캄보쟈인민은 조국의 자유와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오랜 기간 간고한 투쟁을 벌려왔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캄보쟈에서 일으킨 침략전쟁은 캄보쟈인민에게 있어서 힘겨운 시련이였으나 그것은 캄보쟈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게 한 중요한 계기로 되였습니다.

캄보쟈 인민과 혁명군대는 용감히 떨쳐일어나 손에 무장을 들고 영용한 투쟁을 벌림으로써 마침내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타승하고 민족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였습니다.

민족해방혁명전쟁에서 캄보쟈인민이 쟁취한 위대한 승리는 피압박민족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촉진시키고 아세아와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을 크게 고무한 획기적사변이였습니다.

우리는 캄보쟈혁명동지들과 자리를 같이하게 된 이 기쁜 시각에 캄보쟈 인민과 혁명군이 혁명적폭력으로 반혁명적폭력을 때려부시고 민족해방의 력사적승리를 이룩한데 대하여 다시한번 열렬히 축하합니다.

혁명승리후 캄보쟈인민은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앙양된 혁명적열의와 전투적기백을 가지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새로운 혁명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캄보쟈인민은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악랄한 중상비방과 거듭되는 반혁명적파괴암해책동을 철저히 짓부시면서 로동자, 농민의 주권과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고 령토완정을 지키며 전쟁에 의하여 파괴된 나라의 경제를 복구건설하고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는 사업에서 훌륭한 성과들을 련이어 거두고있습니다.

민주주의캄보쟈가 실시하는 독립, 평화, 쁠럭불가담의 대외정책으로 하여 그의 국제적권위는 날로 높아가고있습니다.

우리는 캄보쟈공산당과 인민이 중첩되는 난관에도 굴함없이 독립, 자주, 자력갱생의 기치밑에 휘황한 앞날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승승장구하고있으며 자기의 용감한 투쟁과 빛나는 성과로 세계혁명운동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 캄보쟈땅에서 일어나고있는 세기적인 변혁은 전적으로 캄보쟈혁명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현명한 뽈 뽀트동지와 그를 수반으로 하는 캄보쟈공산당이 자주적이며 독창적인 혁명로선을 내놓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로 광범한 인민대중을 옳게 조직령도한 결과에 이룩된것입니다.

캄보쟈공산당은 며칠전에 창건 열일곱돐을 뜻깊게 맞으면서 자기의 존재를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하였습니다.

혁명의 불길속에서 탄생한 캄보쟈공산당은 조국과 인민을 해방하기 위한 어렵고 복잡한 투쟁과정에 필승불패의 전투적당으로 성장하였으며 대오의 통일단결을 강화하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다같이 능숙하게 령도해나갈수 있는 세련된 혁명적당으로 공고발전되였습니다.

우리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한대렬에서 캄보쟈공산당과 같은 견실한 전우와 어깨겯고 함께 나가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이 기회에 캄보쟈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전체 당원들에게 우리의 열렬한 축하와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동지들과 벗들!

현시대는 지난날 압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입니다.

조선으로부터 캄보쟈에 이르는 아세아의 광활한 지대에서 반제민족해방혁명이 련이어 승리하고 새로운 사회주의제도가 발생발전하고있는 이 위대한 변혁과정은 현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있습니다.

그러나 낡은 식민지적아세아로부터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새 아세아로 전환하는 거창한 혁명적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신흥세력인민들과 제국주의, 식민주의 세력사이에는 의연히 치렬한 투쟁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우리는 아세아의 혁명하는 나라 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아세아의 모든 지역에서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지배주의 세력을 물리치고 착취와 압박이 없고 예속과 불평등이 없는 새 아세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워나갈것입니다.

조선인민은 우리 당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지난날 뒤떨어진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를 짧은 기간에 륭성번영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였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의 전체 인민들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현시대의 력사적흐름에 맞게 조국통일에 대한 조선인민의 민족적숙원이 실현될 날도 멀지 않아 반드시 오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민주주의캄보쟈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언제나 성심성의로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데 대하여 존경하는 뽈 뽀트동지와 캄보쟈공산당과 정부와 전체 캄보쟈인민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속에서 서로 긴밀히 지지협조하는 혁명전우로서의 굳은 의리를 맺었습니다.

우리 두 당, 두 나라 사이는 진실로 형제적이고 사심없는 관계에 있으며 그것은 날을 따라 더욱더 강화발전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모범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것이며 앞으로도 캄보쟈인민의 정의의 혁명위업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존경하는 캄보쟈의 손님여러분!

캄보쟈혁명이 승리한 력사적해인 1975년에 뽈 뽀트동지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우리와 유익한 담화를 하였습니다.

이 상봉은 반제공동전선에 서있는 두 나라 사이의 호상 지지와 련대성을 강화하고 우리들사이의 관계를 가장 훌륭한것으로 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상봉이였습니다.

이번 당신을 단장으로 하는 민주주의캄보쟈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인민에게 커다란 고무를 주며 우리 두 당, 두 나라, 두 인민들 사이의 위대한 친선단결을 보다 공고히 하고 영원히 빛내이기 위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게 될것입니다.

이 방문은 더 나가서 아세아혁명적인민들의 단결을 강화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발전을 추동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것입니다.

나는 승리한 캄보쟈혁명의 대표들을 맞이하여 기쁨에 넘치는 이 자리에서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사이의 불멸의 전투적친선단결을 위하여,

민주주의캄보쟈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을 위하여,

존경하는 뽈 뽀트동지의 건강을 위하여,

캄보쟈손님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뽈 뽀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주의캄보쟈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하신 연설

1977년 10월 7일

존경하는 뽈 뽀트동지!

존경하는 캄보쟈의 손님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나는 캄보쟈혁명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한 크나큰 영예와 조선인민에 대한 두터운 친선의 정을 안고 우리 나라를 방문한 존경하는 뽈 뽀트동지와 민주주의캄보쟈 당및정부대표단 일행을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또한 당신들을 통하여 캄보쟈공산당원들과 전체 캄보쟈인민에게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냅니다.

조선과 캄보쟈 두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제국주의, 식민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공동투쟁과정에 친선의 뉴대를 맺은 전우이며 형제입니다.

우리 두 당, 두 나라, 두 인민들 사이의 친선은 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맺어지고 력사의 온갖 시련을 이겨낸 불패의 전투적친선이며 숭고한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와 자주성에 기초하고있는 참다운 친선입니다.

뽈 뽀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주의캄보쟈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과 당신들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광적인 환영은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이 위대한 친선단결의 힘찬 시위로 됩니다.

조선과 캄보쟈 두 나라 사이의 형제적친선단결은 이번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을 계기로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될것입니다.

캄보쟈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오랜기간의 영웅적무장투쟁을 벌려 미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때려부시고 민족해방혁명전쟁의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캄보쟈혁명의 승리는 사회주의나라들의 대렬을 확대하고 국제공산주의운동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반제혁명투쟁을 크게 고무하였습니다.

혁명승리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된 캄보쟈인민은 해방된 조국땅에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의 혁명투쟁에서 자랑찬 성과를 거두고있습니다.

용감하고 근면한 캄보쟈인민과 혁명군대는 공산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내외원쑤들의 파괴암해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령토완정과 혁명주권을 굳건히 지켜냈으며 나라의 안정을 이룩하였습니다.

경제건설분야에서는 특히 농업생산에 힘을 넣어 40만정보의 관개를 실시함으로써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였으며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습니다. 지금 혹심한 가물로 하여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식량위기를 겪고있는 때에 캄보쟈에서 혁명승리후 두해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인민들의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많은 쌀을 수출까지 하게 된것은 경탄할만한 위대한 승리입니다.

캄보쟈에서는 또한 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에 필요한 소비품을 생산보장하고있으며 교육문화사업을 잘하여 문맹을 퇴치하고 학질을 비롯한 질병을 없애는데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조선인민은 캄보쟈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을 자기의 성과와 같이 진심으로 기뻐하고있으며 그것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캄보쟈인민이 민족해방혁명전쟁과 새 사회 건설에서 거둔 모든 성과들은 뽈 뽀트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캄보쟈공산당의 옳바른 로선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고귀한 결실입니다.

캄보쟈인민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뽈 뽀트동지는 일찍부터 캄보쟈 당과 혁명의 진두에 서서 간고하고도 복잡한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능숙하게 조직령도하여왔으며 마침내 캄보쟈혁명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는 빛나는 공적을 세우시였습니다.

캄보쟈공산당은 뽈 뽀트동지의 옳바른 령도밑에 자주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자기 나라혁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수행하는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였으며 그 과정에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고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권위있고 존엄있는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오늘 캄보쟈공산당은 대오의 정치사상적통일을 확고히 이룩하고 인민대중의 앞장에 서서 캄보쟈혁명을 새로운 승리에로 인도하고있습니다.

자기의 존재를 세상에 엄숙히 선포한 캄보쟈공산당은 이제 더 적극적으로 대내외활동무대에 나서게 될것이며 캄보쟈혁명과 국제공산주의운동발전에 더욱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될것입니다.

우리 인민은 캄보쟈혁명의 승리의 조직자이며 고무자인 캄보쟈공산당과 그의 세련된 지도자이신 뽈 뽀트동지를 높이 존경하고있으며 형제적캄보쟈인민에 대하여 두터운 친선의 정을 품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은 캄보쟈공산당과 정부가 실시하고있는 모든 로선과 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캄보쟈인민의 혁명투쟁을 언제나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동지들과 벗들!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현시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주되는 흐름으로 되고있습니다.

지금 아세아와 구라파,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의 더욱더 많은 나라 공산당, 로동당들이 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적으로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고있습니다.

공산당, 로동당들이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공산주의운동의 본성과 시대적추세에 맞는 합법칙적인 과정입니다.

공산주의운동은 본래 자주성을 위한 운동이며 자주적인 운동입니다. 로동계급은 온갖 예속과 억압을 없애고 완전한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무대에 나섰으며 자기 운명을 자신이 책임지고 자체의 힘으로 개척해나가고있습니다.

로동계급의 전위부대인 공산당, 로동당들은 모든 로선과 정책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독자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자기 인민의 창조적힘에 의거하여 관철하여야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실천투쟁속에서 확증된 움직일수 없는 진리입니다.

조선공산주의운동의 력사와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세기적변혁이 그것을 증명하여주며 또한 캄보쟈공산당이 걸어온 전투적로정과 캄보쟈혁명의 빛나는 승리가 그것을 증명하여줍니다.

공산당, 로동당들이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통일과 단결을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매개 나라 당들이 자주적립장에 튼튼히 서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단결을 진실로 자원적이고 공고한 토대우에서 강화할수 있으며 당들사이에 평등하고 사심없는 친선관계를 발전시킬수 있습니다.

공산당, 로동당들이 자주성을 견지하여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면 잘할수록 국제적인 지지와 협조를 더 잘할수 있으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습니다.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는 결국 매개 나라에서 혁명이 승리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것입니다.

공산당, 로동당들은 자기 나라 혁명에서 자주적립장을 지킬뿐아니라 다른 나라 당들의 자주성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것이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충실하며 국제공산주의운동에 진실로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조선로동당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주성의 원칙에서 형제당, 형제나라들과의 친선단결을 도모하여나갈것이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입니다.

우리는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속에서 굳게 맺어진 우리 당과 캄보쟈공산당사이의 친선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그것을 보다 혁명적이며 모범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것입니다.

동지들과 벗들!

오늘 아세아인민들은 외세의 간섭이 없는 자주적인 아세아, 아세아인민들을 위한 새 아

세아를 건설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습니다.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아세아인민들의 전진운동은 제국주의반동세력과의 끊임없는 투쟁을 동반하고있습니다.

현정세는 아세아인민들로 하여금 제국주의를 비롯한 온갖 지배주의세력을 반대하는 통일전선을 이룩하고 그들의 침략책동을 단호히 물리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아세아인민들은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회유기만책동과 분렬리간책동을 철저히 저지파탄시키며 제국주의, 신구식민주의, 지배주의 세력이 아세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합니다.

쁠럭불가담운동은 세계가 자주의 길로 나가는 오늘의 시대적요구를 가장 폭넓게 반영하고있으며 전반적국제정세발전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있는 위대한 정치세력입니다.

아세아인민들은 이 지역에서 쁠럭불가담운동을 분렬와해시키려는 책동에 대하여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쁠럭불가담운동의 단결을 수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온갖 형태의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모든 아세아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우리는 또한 제국주의와 유태복고주의를 반대하여 싸우는 팔레스티나인민들과 아랍인민들, 식민주의, 인종주의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을 위하여 투쟁하는 아프리카인민들, 민족적자주권과 자연부원, 령해권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라틴아메리카인민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오늘 아세아에서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책동이 가장 위험하게 집중되고있는곳은 조선입니다. 조선문제는 아세아에서 하루빨리 해결되여야 할 매우 절박한 문제입니다.

미국은 조선에서의 《평화》가 남북간의 《힘의 균형》에 의해서만 담보될수 있다고 하면서 남조선일대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며 남조선에 대한 군사《원조》를 대폭 늘이고있습니다.

미국이 조선에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남조선당국자들을 돕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도리여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평화를 파괴하게 될것이며 구경은 미국으로 하여금 아세아에서 또다시 대규모적인 전쟁에 말려들게 할것입니다.

조선과 캄보쟈에서의 전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은 언제나 그들자신의 패망으로 끝나며 제국주의의 쇠퇴몰락과정을 촉진시킵니다.

미국당국자들은 남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행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버리고 이미 공약한대로 남조선에서 자기의 모든 군대와 핵무기를 하루빨리 철거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미군이 남조선에서 철거한다면 미국측과 조선에서 새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항구적인 평화의 담보를 마련할 용의를 가지고있습니다.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은 날이 갈수록 더욱 광범한 국제적인 지지와 동정을 받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캄보쟈인민을 포함한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것입니다.

오늘 세계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뜻대로 움직이는것이 아니라 력사가 가리키는 길, 인민들이 요구하며 념원하는 길로 확고하게 나가고있습니다.

우리는 반제자주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제3세계인민들을 비롯한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아갈것입니다.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사이의 불패의 전투적친선단결 만세!

캄보쟈공산당과 민주주의캄보쟈 만세!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단결 만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하여 뽈 뽀트 동지가 차린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7년 10월 7일

존경하는 뽈 뽀트동지!
존경하는 민주주의캄보쟈 당및정부대표단 성원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우리의 친근한 전우이신 뽈 뽀트동지를 비롯한 캄보쟈의 혁명동지들과 함께 지낸 이 며칠동안은 우리 두 당,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서 가장 뜻깊은 나날이였습니다.

나는 존경하는 뽈 뽀트동지께서 우리 나라 방문을 끝마치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이처럼 성대한 연회를 차리고 우리를 친절히 초대하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은 반제공동투쟁에서 맺어진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의 력사에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자욱을 남기였습니다.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을 계기로 혁명적의리로 굳게 맺어진 우리들사이의 전투적우정은 더욱 깊어졌으며 두 당, 두 나라사이의 친선은 영원불멸할 형제적친선으로 튼튼히 다져졌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의 상봉을 통하여 캄보쟈혁명의 자랑찬 성과와 래일의 웅대하고 밝은 전망에 대하여 더잘 알게 되였으며 캄보쟈공산당의 옳바른 령도밑에 혁명의 준엄한 시련을 용감하게 뚫고나가는 캄보쟈 인민과 혁명군대의 영웅적기개에 매우 감탄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혁명단계에서 혁명정권을 보위하고 인민경제를 복구건설하며 령토완정을 지키기 위한 형제적캄보쟈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앞으로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지성원할것입니다.

우리는 캄보쟈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는것을 신성한 국제주의적의무로 여기고있습니다.

형제적캄보쟈인민이 보내는 뜨거운 친선의 정과 전투적련대성, 캄보쟈혁명이 승리적으로 전진하고있는데 대한 기쁜 소식을 안고온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로 되였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그를 구현하여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성과들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당과 정부의 방침을 전적으로 지지하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이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대하여 매우 귀중히 여기며 감사히 생각하고있습니다.

오늘 아세아대륙안에 캄보쟈인민과 같은 견결한 혁명전우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인민

에게 있어서 커다란 기쁨입니다.

우리들은 서로 굳게 손잡고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감으로써 자기 나라 혁명을 잘하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에 적극 이바지할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이 커다란 성과를 가져온데 대하여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래일 당신들은 우리와 헤여지게 되지만 당신들이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남기고 가는 친선의 정은 조선과 캄보쟈사이의 영원한 친선의 꽃으로 피여날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조국에 돌아가면 캄보쟈인민들에게 언제나 그들과 함께 싸워나가려는 조선인민의 확고한 결의와 형제적인사를 전하여주기 바랍니다.

나는 끝으로 캄보쟈인민이 존경하는 뽈 뽀트동지와 그를 수반으로 하는 캄보쟈공산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앞으로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하면서

조선로동당과 캄보쟈공산당사이, 조선인민과 캄보쟈인민사이의 영원한 전투적친선단결을 위하여,

민주주의캄보쟈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존경하는 뽈 뽀트동지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캄보쟈손님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에리히 호네케르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베푸신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7년 12월 8일

존경하는 에리히 호네케르동지!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손님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오늘 우리는 먼 사회주의서방초소에서 온 친선의 사절인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을 맞이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번에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형제적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들의 뜨거운 우정을 안고 우리 나라를 방문한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이시며 우리의 친근한 벗이신 에리히 호네케르동지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 성원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1949년 10월 독일땅에서 첫 로동자, 농민의 국가인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이 창건된것은 독일인민의 력사에서 새 기원을 열어놓은 커다란 사변이였습니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들은 주권을 자기 손에 틀어쥔 다음 독일사회통일당의 령도밑에 안팎의 계급적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키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벌려왔습니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은 발전된 공업과 농업을 가진 사회주의국가로 되였으며 그의 국제적지위는 확고부동한것으로 되였습니다.

오늘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들은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습니다.

우리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에서 이룩되고있는 모든 성과들을 사회주의력량의 공동의 성과로 인정하며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들이 정당한 위업수행에서 앞으로 더 큰 성과를 거둘것을 축원합니다.

조선인민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투쟁하는 계급적형제로서 굳은 친선의 뉴대를 맺었습니다.

우리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에 우리 인민에게 물심량면의 성의있는 원조를 준데 대하여 언제나 잊지 않고있습니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와 인민은 오늘도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습니다.

나는 이에 대하여 에리히 호네케르동지와 독일사회통일당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당신들은 이번에 사회주의동방초소에 굳건히 서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우리 인민의 모습을 직접 보게 될것입니다.

이 방문을 통하여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신의와 호상 리해는 더욱 두터워질것이며 친선적인 협조관계는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게 될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이 우리 인민의 뜨거운 환대속에서 훌륭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손님여러분!

나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을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하면서

조선인민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사이의 형제적친선단결을 위하여,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존경하는 에리히 호네케르동지의 건강을 위하여,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 전체 성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기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에리히 호네케르동지를 단장으로하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하신 연설

1977년 12월 10일

존경하는 에리히 호네케르동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 성원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이신 에리히 호네케르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은 독일 로동계급과 인민의 뜨거운 친선의 정을 안고 우리 나라에 왔습니다.

당신들이 추운 겨울날씨도 마다하지 않고 먼 로정을 거쳐 우리 나라를 방문한것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들과 우리 인민들사이의 두터운 친선관계의 뚜렷한 표시로 됩니다.

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전체 조선인민의 이름으로 우리의 친근한 벗이신 에리히 호네케르동지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손님들을 다시한번 열렬히 환영합니다.

나는 또한 당신들을 통하여 형제적독일민주주의공화국 로동계급과 인민에게 보내는 조선 로동계급과 인민의 뜨거운 친선의 인사를 전하는바입니다.

우리 인민은 당신들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데 대하여 그리고 이 방문을 통하여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맺어진 친선의 뉴대를 더욱 두텁게 할수 있게 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은 사회주의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에 대한 힘있는 고무로 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의 상봉을 통하여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에 대하여서와 국제문제들에 대한 독일사회통일당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의 립장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습니다.

독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오래동안 파시즘과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용감히 투쟁하였으며 마침내 1949년 10월 독일땅우에 첫 로동자, 농민의 국가인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세우는 력사적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창건은 진정한 인민의 주권을 가지려는 독일인민의 세기적인 숙망의 실현이였으며 독일인민의 력사에서 새 기원을 열어놓은 커다란 사변이였습니다.

그것은 또한 구라파에서 평화를 유지하며 세계사회주의력량을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요인으로 되였습니다.

지난날 침략국가였던 파쑈독일은 제2차세계대전의 결과로 분할되게 되였습니다.

전후 서방렬강은 독일을 비군국화, 비나치스화할데 대한 국제협약을 저버리고 서부독일에 군국주의를 재생시켜 독점자본의 국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독일의 동부에 로동자, 농민의 국가를 창건한것은 전적으로 정당하였습니다. 파쑈통치가 지배하고 세계전쟁의 발원지로 되였던 독일땅의 한부분에 사회주의국가가 생겨난것은 독일인민들에게 있어서나 세계인민들에게 있어서나 좋은 일입니다.

독일이 군국주의적으로 통일되여 강대해지면 또다시 침략세력으로 등장할수 있기때문에 둘로 갈라져있는 현상태를 유지하면서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주권과 국경을 지키며 그의 국제적지위를 높이는것은 독일인민들과 구라파인민들의 리익과 념원에 맞는것입니다.

우리는 두개 독일국가로 존재할데 대한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당과 정부의 정책이 자기나라의 정세와 자기 인민들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정책이라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적극지지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은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이 창건된 첫날부터 그것을 압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습니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들은 독일사회통일당의 령도밑에 안팎의 계급적원쑤들의 끊임없는 파괴암해책동을 짓부시면서 사회주의전취물을 튼튼히 수호하였으며 여러차례의 5개년계획을 수행하여 자기 나라를 발전된 공업과 농업을 가진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켰습니다.

오늘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들은 독일사회통일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방침에 따라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여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하여 꾸며낸 온갖 음모책동은 파탄되였으며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은 진정한 로동자, 농민의 정권으로 더욱더 장성강화되였습니다.

오늘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국제적지위는 어느때보다도 높아졌으며 확고부동한것으로 되였습니다.

개별적사회주의나라들에서의 성과는 전체 사회주의나라들의 공동의 성과로 되며 세계사회주의력량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합니다.

조선인민은 형제적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을 자기의 성과와 같이 진심으로 기뻐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이 앞으로도 전진도상의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사회주의건설위업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승리를 이룩할것을 충심으로 바랍니다.

동지들과 벗들!

조선인민은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는 다른 환경과 조건에서 혁명투쟁을 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아세아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이 가장 우심하게 감행되고있는 어렵고 복잡한 환경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으며 민족의 영구분렬을 반대하고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오늘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절박한 과업입니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은 독일이 두개의 국가로 존재할것을 요구한다면 조선인민은 나라를 하나로 통일할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조선문제는 력사적견지로 보나 현정세로 보나 독일의 경우와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지난날 독일은 종주국이였으나 조선은 식민지나라였습니다.

독일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였다가 패전한 결과 분렬되였지만 우리 나라는 제국주의자들이 나라의 절반땅을 강점한 결과 분렬되였습니다.

본래 우리 나라는 둘로 분렬되여야 할 그 어떤 리유와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 나라의 분렬이 계속되는것은 우리 인민들에게 더 큰 불행과 고통을 가져다줄뿐아니라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조선이 분렬되여 남북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가 지속되면 긴장상태가 더욱 격화되고 결국에는 충돌과 대결을 피할수 없게 될것입니다.

또한 조선이 계속 분렬되여있으면 남조선이 미국의 영원한 식민지군사기지로 전락되는것은 물론이고 지난날 우리 나라를 침략하였던 제국주의세력이 팽창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며 나아가서는 제국주의자들이 남조선을 전초기지로 리용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평화애호나라들을 침략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것입니다.

조선이 통일되여야만 우리 인민이 겪고있는 민족분렬의 불행과 고통을 없앨수 있으며 이 지역에서 분쟁의 근원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안전을 유지공고화할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한강토우에서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온 우리 민족은 반드시 통일되여야 하며 하나의 국가로 발전하여야 합니다.

력사적으로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를 침략한 일이 없으며 우리 나라에는 독점자본이 없기때문에 앞으로 조선이 통일되여도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다른 나라에 위협을 주는 일은 절대로 없을것입니다.

전체 조선인민은 한결같이 나라의 통일을 요구하고있으며 세계진보적인민들도 우리 나라가 통일될것을 바라고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반대하는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한줌도 못되는 남조선의 매국세력과 그를 부추기고있는 제국주의상전들뿐입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조선에 대한 침략의 야망을 가지고 우리 나라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고있으며 《두개 조선》을 조작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하고있습니다. 《두개 조선》 조작책동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 리익과 요구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며 세계인민들의 념원에도 어긋나는것입니다.

우리는 남북조선의 《유엔동시가입》론이나, 《교차승인》론이나 할것없이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고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온갖 시도를 단호히 배격합니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해방을 이룩하는 문제입니다.

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는것은 그 누구도 침해할수 없는 우리 인민의 신성한 민족적권리입니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을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할것을 일관하게 주장하고있습니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미국이 남조선에서 자기의 모든 군대와 핵무기를 하루빨리 철거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미군이 남조선에서 철거한다면 남북조선 전체 인민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평화적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할것입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제3세계인민들을 비롯한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반드시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고야 말것입니다.

동지들과 벗들!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과 조선인민은 친근한 계급적형제입니다.

조선인민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은 각각 사회주의동방초소와 서방초소에 튼튼히 서서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함께 싸워나가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서부독일을 부추겨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반대하고 남조선괴뢰도당을 부추겨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려고 책동하고있는 조건에서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친선과 단결을 강화하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지난날 우리 두 나라 인민들은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서로 지지하고 고무하여왔습니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정부와 인민은 미제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조국해방전쟁시기와 전후복구건설시기에 물심량면의 성의있는 원조를 보내주었으며 오늘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 훌륭한 발현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분야에서 날로 좋게 발전하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은 이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며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들과의 형제적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기치, 반제투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나라 인민들과 단결하며 국제로동계급과 단결하며 싸우는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과 단결하며 구라파의 진보적인민들과 단결하며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과 단결하여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계속 억세게 싸워나갈것입니다.

조선인민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사이의 형제적친선단결 만세!

에리히 호네케르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독일사회통일당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만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하여 에리히 호네케르동지가 차린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7년 12월 10일

존경하는 에리히 호네케르동지!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손님여러분!

동지들과 벗들!

우리의 친근한 벗이신 에리히 호네케르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당및 국가대표단은 우리 나라 방문일정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래일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나는 작별을 앞두고 당신들이 이처럼 성대한 연회에 우리를 친절히 초대하여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당신들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비록 짧은 기간이였으나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당신들을 처음 만났지만 친형제와 같이 반가이 맞이하여 열렬히 환영하였습니다.

우리들은 회담과 상봉과정을 통하여 호상 리해와 신의를 더욱 깊이하였으며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의 기반을 보다 굳건히 다지였습니다.

참으로 당신들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맺어진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이 훌륭한 결실을 가져온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심할바없이 앞으로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개화발전될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에 형제적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이 독일사회통일당의 령도밑에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국제적지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앞으로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조국에 돌아가면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에게 보내는 조선인민의 뜨거운 친선의 인사를 전하여주기 바랍니다.

나는 끝으로 조선인민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사이의 형제적친선단결을 위하여,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번영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의 친근한 벗이신 에리히 호네케르동지의 건강을 위하여,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대표단성원들의 건강을 위하여,

여러 나라 외교사절들과 그 부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가한 여러 동지들과 벗들의 건강을 위하여 이 잔을 들것을 제의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　　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토지는 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이룩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며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이 철저히 수행됨으로써 농촌에서 봉건적토지소유관계가 없어지고 사회주의적토지소유관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였으며 농민들은 온갖 착취와 압박에서 영원히 해방된 사회주의적근로자로 되였으며 농업생산력은 낡은 생산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나 빨리 발전하고있다.

토지를 아끼고 사랑하며 책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토지건설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협동농장들과 공장, 기업소, 국가기관들, 농업근로자들과 전체 인민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적토지소유관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고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일에서 완전히 해방하며 토지를 보호하고 정리, 개량하며 국토의 면모를 개변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이 영예로운 혁명과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토지정책관철에서 이룩한 성과를 법적으로 고착시키며 국토개변과 토지보호관리에서 나서는 제 원칙과 요구를 법적으로 규제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에 기초하고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은 공화국정부의 토지정책에 따라 국토개변과 토지보호관리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확고한 법적담보로 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을 채택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은 1977년 6월 1일부터 실시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 일 성

1977년 4월 29일 평양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회의에서 채택 1977년 4월 29일

제1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는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토지는 전체 농민들이 조선로동당과 인민정권의 현명한 령도밑에 《발갈이하는 땅은 발갈이하는 농민에게로》라는 원칙에서 실시한 위대한 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이룩한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방침이 철저히 수행되여 농촌에서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와 온갖 착취관계가 영원히 없어졌으며 사회주의적토지소유관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였다.

국가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룩한 토지개혁과 농업협동화의 성과를 공고발전시키며 전국적농업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투쟁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에는 토지개혁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혁명선렬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으며 외래제국주의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운 인민들의 혁명정신이 깃들어있다.

국가는 안팎의 온갖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인 토지를 보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

제4조 국가는 토지개혁에서 이룩한 성과와 사회주의적토지소유관계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공고발전시키며 국토를 보호개발하고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리용하여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5조 국가는 토지보호, 토지건설 사업 등 국토를 개변하며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사업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한다.

제6조 국가는 우리 나라에 마련된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하여 국토를 개발하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며 특히 토지를 개량하며 그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여기에 필요한 기술인재를 전망성있게 양성한다.

제7조 국가는 토지를 리용하는데 맞게 농업토지, 주민지구토지, 산림토지, 산업토지, 수역토지, 특수토지로 가르고 관리한다.

토지 관리와 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는 각급 인민위원회와 정무원 및 행정위원회의 지도밑에 국토관리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제8조 토지는 우리 인민의 귀중한 생활밑천이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나라의 재부이다.

국가는 전체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 국가기관일군들 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토지를 잘 보호관리하고 알뜰히 다루도록 한다.

제2장 토지소유권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나라의 모든 토지는 인민의 공동소유로서 그것을 누구도 팔고사거나 개인의것으로 만들수 없다.

제10조 국가소유토지는 전체 인민의 소유이다.

국가소유토지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다.

제11조 협동단체소유토지는 협동경리에 들어있는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이다.

국가는 협동단체소유토지를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12조 국가는 사회주의적협동경리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농업경리제도의 발전과 협동단체에 들어있는 전체 성원들의 자원적의사에 따라 협동단체소유의 토지를 점차 전인민적소유로 전환시킬수 있다.

제1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토지는 오직 국가만이 지배할수 있으며 그것을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하여 협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이 여러 방면으로 리용할수 있다.

협동농장원들의 터밭리용은 협동농장규약에 의하여 20~30평으로 한다.

제3장 국토건설총계획

제14조 국토건설총계획은 국토를 인민경제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발리용하고 정리미화하며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를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한 국토건설의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계획이다.

국가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높일수 있도록 국토건설총계획을 적극적이며 동원적으로 세우고 그를 철저히 실현하도록 한다.

第15조 국토건설총계획을 세우는데서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국토건설과 자원개발에서 농경지를 침범하지 말며 그것을 극력 아끼고 보호하도록 한다.

2. 도시의 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말며 작은 도시 형태로 많이 건설하도록 한다.

3. 나라의 각이한 지대들의 기후풍토적특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4. 나라의 인민경제발전방향과 각이한 지역들의 경제발전전망에 맞게 과학적으로 세우도록 한다.

第16조 국토건설총계획의 전망기간은 30~50년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전망기간을 이보다 짧게 정할수도 있다.

第17조 국토건설총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잘 꾸리며 보호하기 위한 대책

2. 토지를 정리, 개량하고 보호하며 새땅을 얻어내며 간석지를 개간리용하기 위한 방향과 대책

3. 산림 조성방향과 보호 및 그 리용과 리로운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4. 강하천, 호소, 저수지의 건설 및 정리 방향, 큰물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물들의 배치 및 물의 종합적리용대책

5. 교통운수, 전기, 체신망과 그 시설물의 합리적배치

6. 지하자원의 개발구역과 공업, 농업 기업소들을 배치할 위치와 규모

7. 도시와 마을, 휴양지, 료양지의 위치와 규모, 명승지, 천연기념물 및 문화유적유물의 보호대책

8. 연안, 령해를 종합적으로 개발리용하기 위한 방향과 연안을 아름답게 정리하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9. 공해현상을 미리 막기 위한 대책

第18조 전국국토건설총계획과 중요지구국토건설총계획은 최고인민회의 또는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지역국토건설총계획은 도인민회의 또는 도인민위원회에서 승인한다.

제4장 토지보호

第19조 국가는 강하천정리, 산림조성 등 토지보호사업을 힘있게 벌려 토지류실을 막으며 나라의 물질적부를 늘이고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킨다.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토지리용기관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토지보호사업을 책임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第20조 강하천정리사업은 큰물피해로부터 농경지를 비롯한 나라의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며 국토의 면모를 개변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강하천건설을 해당지대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특성에 맞게 관개공사와 병행하여 진행하며 큰 강과 중소하천 정리를 다같이 밀고나간다.

第21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은 강하천정리사업을 설계에 근거하여 계획적으로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큰 강과 중요강하천의 정리와 관리는 국토관리기관이 하며 중소하천의 정리는 해당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이 한다.

강하천정리는 큰물피해가 심한 중요산업지구, 주민지구, 농경지보호면적이 많은 지대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 국토관리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해마다 국가가 정한 시기에 담당하고있는 강하천의 변동정형과 제방, 시설물의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등록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3조 국토관리기관은 강하천의 통일적인 보수관리체계를 세우고 강하천보수관리전문기업소의 역할을 높여 보수관리를 전문화, 과학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안전기관은 강하천과 제방의 기술상태를 정상적으로 검열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24조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무더기비에도 토지가 류실되지 않도록 강바닥파기와 강줄기바로잡기, 제방공사, 호안공사, 옹벽공사, 모래잡이언제공사를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5조 국토관리기관은 강하천, 호소, 저수지와 제방을 비롯한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곳에 보호구역을 정한다.

보호구역안에서는 강하천의 제방과 그 시설물을 못쓰게 만들거나 보호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26조 강하천과 호소, 저수지에 더러운 물, 독이 있는 물질을 정화하지 않고 내려보내거나 오물을 버릴수 없다.

제27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 및 지방행정기관은 강하천의 종합적인 리용계획을 세우고 물을 관개용수, 수력발전, 공업용수, 음료수, 강하운수, 담수양어, 류벌 등 인민경제부문과 근로자들의 문화휴식에 다방면적으로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기업소는 논밭이 물에 잠길수 있는 지대에 고인물빼기시설을 완비하며 그에 대한 유지보수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29조 국영 및 협동 농장은 토지가 류실되지 않도록 강기슭의 논밭머리에 버들을 심거나 돌담을 쌓으며 산경사지의 밭머리에는 돌림물길을 만들어야 한다.

제30조 산림건설사업은 토지를 철저히 보호하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대자연개조사업이다.

국가는 토지류실을 방지하며 나라의 자연부원을 늘이기 위한 산림건설사업을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한다.

제31조 국토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설계에 따라 해당지대의 자연경제적조건에 맞게 제지림, 기름나무림, 섬유원료림, 산과실림, 땔나무림 등을 조성하여 림상을 개조하며 빨리 자라고 쓸모있는 수종을 배치하고 밀식하며 침엽수 및 활엽수의 혼성림을 만드는 등 산림의 단위당 축적을 높여야 한다. 산림설계기관은 이에 맞게 산림설계를 만들어야 한다.

제32조 국토관리기관은 산림 조성과 보호 사업을 전군중적으로 조직진행하기 위하여 기관, 기업소, 학교, 단체에 담당구역을 설정한다.

기관, 기업소, 학교, 단체 및 공민들은 봄과 가을에 나무심기에 적극 참가하며 산림을 잘 보호관리하여 온 나라의 산을 푸른 락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제33조 국가는 목재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목재에 대한 기관, 기업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림산공업림과 기관, 기업소의 자체림을 설정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여기에 나무를 계획적으로 심고 잘 관리하여 튼튼한 목재생산기지를 꾸려야 한다.

제34조 국가는 농촌주변의 산림을 울창하게 만들며 산림자원과 땔나무에 대한 협동농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협동농장림과 땔나무림을 설정한다. 협동농장은 여기에 나무를 많이 심고 보호관리하면서 이를 무상으로 리용한다.

제35조 국토관리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산림조성전망계획에 맞게 양묘장

을 꾸리며 나무모생산을 앞세워야 한다.

양묘장에서는 인민경제적의의가 크고 빨리 자라는 나무모를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第36조 산림은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요구에 맞게 전망적으로, 계획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산에서 나무를 벨 때에는 국토관리기관과 해당기관의 허가를 받아 나이먹은 나무, 다자란 나무, 여러가지 피해를 받은 나무를 먼저 베야 하며 통나무의 순환식채벌을 보장하여야 한다.

나무를 벤 구역과 끌어내린 길에는 나무를 제때에 심어야 한다.

第37조 국가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가 있는 지역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림을 정한다.

산림에 대한 학술연구를 위하여 자연보호림구를 정할수 있다.

특별보호림과 자연보호림구 안에서는 나무를 벨수 없다.

第38조 국토관리기관은 산불에 대한 감시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곳에 산불막이선을 치거나 인원과 설비의 동원체계를 세우는 등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第39조 국토관리기관은 송충을 비롯한 병해충에 의한 산림의 피해를 막을수 있도록 산림을 제때에 소독하며 해로운 벌레를 잡아먹는 유익한 동물을 보호증식하는 등 필요한 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第40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는 지대적특성에 맞게 방풍림, 사방림, 위생풍치림, 수원함양림 등 보호림을 조성하며 사방야계구조물을 설치하여 자연재해로부터 국토를 보호하며 나라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여야 한다.

第41조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하자원개발에서 농경지를 비롯한 국토와 자원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도록 버럭처리장과 미광침전지를 먼저 건설하여야 하며 농경지 또는 건물과 시설물 밑에서 지하자원을 캘 때에는 땅이 내려앉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第42조 탄광, 광산들에서는 버럭과 박토를 버린 자리와 지하자원을 캔 자리를 제때에 정리하여 농경지 또는 림지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5장 토지건설

第43조 국가는 토지건설사업을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하여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다그치고 농업생산을 늘이며 국토의 면모를 개변한다.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건설사업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第4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수리화의 력사적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국가는 논수리화체계를 공고발전시키면서 밭관개체계를 완성한다.

第45조 국토관리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은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저수지를 건설하고 저수지제방을 더욱 보강완비하며 지하수를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등으로 더 많은 물을 확보하며 관개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정상적으로 하여 물의 도중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第46조 토지정리사업은 새땅을 많이 얻어내여 알곡생산을 늘이며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화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다.

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농장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정리사업을 년차별 토지정리계획과 토지정리설계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제47조 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 농장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정리에서 건물과 시설물을 산기슭으로 규모있게 옮기며 필요없는 논두렁과 발최뚝을 없애고 논밭을 크고 규모있게 만들며 여기에 맞게 관수로, 배수로, 포전도로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48조 논밭을 기름지게 개량하는것은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담보의 하나이다.

군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 농장을 비롯한 토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의 비옥도 및 매 토층에 대한 분석사업과 토양조사사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며 필지별 토층표본과 토양분석표, 토지대장을 갖추고 과학적리치에 맞게 토지를 개량하여야 한다.

제49조 다락밭을 만드는것은 농작물의 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이다.

협동농장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탈진 밭을 다락밭으로 만들며 여기에 반드시 관수체계와 배수체계를 세워야 하며 짐나르기를 적극 기계화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 국가는 새로운 경지면적을 늘이며 나라의 면모를 크게 전변시키는 간석지개간사업에 큰 힘을 넣는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연지리적조건이 좋고 개간에 유리한 지대의 간석지부터 먼저 집중적으로 개간하여야 한다.

개간된 간석지에는 시루식관수체계, 화학적방법 등을 적극 도입하며 물갈아넣기를 하여 소금기를 빨리 없애고 농작물을 심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바다물에 의하여 농경지와 소금발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지대의 특성에 맞게 해안방조제를 건설하며 그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2조 국가는 도시와 마을을 현대적이며 문화적으로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준다.

지방행정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사회주의적생활문화의 요구에 맞게 도시와 마을에 살림집과 문화후생시설, 도로 등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줄이고 나라의 모든 지역을 정치, 경제, 문화의 여러 방면에 걸쳐 골고루 발전시키도록 도시와 마을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53조 도시경영기관은 도시와 그 주변에 공원과 유원지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를 곳곳에 잘 꾸리며 꽃과 나무를 많이 심어 주민들의 훌륭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협동농장은 마을과 그 주변에 과일나무, 기름나무 등을 심어 마을을 아름답게 꾸려야 한다.

제54조 지방행정위원회는 도시와 마을을 어지럽히거나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건물과 시설물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물이 완공되거나 건설재료의 채취가 끝나는데 따라 파헤친 자리를 알뜰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제55조 도로는 인민경제동맥의 중요구성부분이며 나라의 경제발전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이다.

국가는 나라의 모든 지역들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적 련계를 원만히 보장하며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복무하는 원칙에서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하도록 한다.

제56조 도로는 그 규모와 사명에 따라 고속도도로와 1급부터 6급까지의 도로로 나눈다.

도로의 건설과 보호관리는 도로의 등급과 사명에 따라 국토관리기관, 도시경영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이 한다.

제57조 나라의 모든 도로는 세멘트, 아스팔트, 돌 등으로 포장하여 로면의 강도를 높이고 전반적도로의 기술상태를 끊임없이 개선하며 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 도로의 문화성이 보장되여야 한다.

제58조 도로관리기관은 도로 량옆에 주의표식, 지시표식, 금지표식, 거리표식 등 여러가지 표식물을 문화성있게 설치하여야 하며 길가에 생활력이 강하고 빨리 자라며 쓸모있는 나무와 과일나무 등을 심으며 잔디를 입히고 꽃밭, 문화휴식터를 꾸려 길을 항상 알뜰하게 거두어야 한다.

제59조 국토관리기관과 지방행정위원회 및 도시경영기관은 계절별, 로선별, 구간별에 따르는 교통량의 변화상태를 정확히 조사장악하여 도로와 다리를 비롯한 구조물과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계획을 세우고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일정한 구간의 길을 정해주어 책임적으로 늘 보호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은 도로와 그 구조물 및 시설물을 못쓰게 만들거나 길가의 나무를 마음대로 찍는 등 도로보호관리에 지장을 줄수 있는 일을 할수 없다.

제61조 국가는 연안, 령해를 개발하고 정리하며 항만을 새로 건설하고 확장하며 수로를 개척하는 등 연안, 령해 건설을 추진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수상운수를 발전시킨다.

연안령해관리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연안, 령해 건설을 전망성있게 조직진행하며 연안, 령해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며 바다기슭을 아름답게 꾸려야 한다.

제62조 연안령해관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연안, 령해의 수산자원을 보호증식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6장 토지관리

제63조 토지관리사업을 강화하는것은 국토를 철저히 보호하고 농업토지를 주체농법의 요구에 맞게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이다.

토지를 리용하는 협동농장과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64조 농업토지에는 오직 경작할수 있는 토지가 속한다.

농업토지의 관리는 농업지도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해당 협동농장 및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65조 논밭은 허가없이 묵이거나 버릴수 없으며 논밭을 묵이거나 버리며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려고 할 때에는 그 규모와 대상에 따라 해당국토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은 다음 중앙농업지도기관 또는 정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항의 경우에 대토확보는 국가계획에 맞물려 할수 있다.

제66조 논밭을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해에 쓸수 있는 면적을 타산하여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논밭을 농업생산밖의 목적에 리용하던 기관, 기업소, 단체가 그 토지를 더 리용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다음 파종시기전까지 논밭으로 정리하여 해당농장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67조 기관, 기업소, 단체가 논밭을 부업지로 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정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목을 바꾸려고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8조 협동농장은 논밭을 경작에 편리하게 서로 바꾸어 리용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상급농업지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9조 주민지구토지에는 시, 읍, 로동자구의 건축용지와 그 부속지, 공공리용지와 농촌건설대지가 속한다.

주민지구토지의 관리는 중앙의 도시경영기관과 지방행정위원회가 한다.

주민지구토지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도행정위원회 또는 정무원의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0조 산림토지에는 산림이 조성되여있거나 조성할것이 예정되여있는 산야와 그안에 있는 여러가지 리용지가 속한다.

산림토지의 관리는 국토관리기관과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산림토지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무원 또는 해당 국토관리기관의 토지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1조 국토관리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 속에서 산림을 람벌하거나 화전을 일구는 일이 없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72조 산업토지에는 공장, 광산, 탄광, 발전시설 등 산업시설물이 차지하는 토지와 그 부속지가 속한다.

산업토지의 관리는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가 한다.

제73조 산업토지를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는 공장, 기업소와 산업시설물의 부지를 필요이상 넓게 잡아놓고 토지를 람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산업토지의 보호관리사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74조 수역토지에는 연안, 령해, 강하천, 호소, 저수지, 관개용수로 등이 차지하는 일정한 지역의 토지가 속한다.

수역토지의 관리는 대상에 따라 국토관리기관 또는 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수역토지를 개발리용하거나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대상에 따라 정무원 또는 국토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5조 특수토지에는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문화유적지, 보호구역, 군사용 토지 등 특수한 목적에 리용되는 토지가 속한다.

특수토지의 관리는 해당 중앙기관과 지방행정위원회 및 그것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군부대가 한다.

제76조 토지리용을 허가하여준 기관은 새로운 국가적요구가 제기되였을 경우에는 그것을 취소할수 있다.

제77조 국토관리기관은 나라의 모든 토지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등록하며 토지 관리 및 리용에서 제정된 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토지를 국토건설총계획에 의하여 전망성있게 리용하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78조 농업지도기관은 새로 일군 땅과 토지를 정리하여 얻은 땅을 제때에 등록하며 토지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의 변동정형을 해당기관에 제때에 알려야 한다.

제79조 농업지도기관과 국영 및 협동 농장을 비롯한 해당기관들에서는 토지문건을 갖

추고 그것을 철저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80조 토지를 아끼고 사랑하는것은 전체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 국가기관들의 신성한 의무이다. 전체 인민들과 농업근로자들, 국가기관일군들은 토지를 보호하고 건설하며 관리하는 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토지 보호, 건설 및 관리 질서를 어긴 경우 책임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은 그 정상에 따라 해당한 법적책임을 진다.

축전 및 축하문, 공개서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 한덕수동지 앞

나는 새해 1977년을 맞이하면서 이국땅의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자기 나라 혁명위업에 끝없이 충실하여온 전체 총련일군들과 60만 재일동포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동포애적인사를 보냅니다.

지난해 총련은 날을 따라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는 적들의 파괴모략책동과 반동적인 사상공세를 용감하게 짓부시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길을 힘차게 걸어왔습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을 간직하고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혁명적으로 이겨내면서 자기 조국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의 길에 충성의 붉은 꽃을 자랑스럽게 피웠습니다.

총련은 지난해 자기 조직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을 한층 심화발전시켰으며 우리 당의 유일사상에 기초한 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놓았습니다.

특히 총련의 모든 간부들과 일군들이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사업 방법과 작풍을 바로 잡고 동포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애국사업의 직접적인 집행단위인 분회를 강화하고 그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총련조직은 동포대중이 더욱 적극적으로 따르고 신뢰하는 해외교포조직으로 되였습니다.

분회가 생기발랄하게 움직임으로써 모든 동포들이 자기 조국을 열렬히 옹호하고 자기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굳건히 지키며 남조선인민들의 애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혁명적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모든 정력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게 되였습니다.

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혁명투쟁은 언제나 승리하는 법입니다. 지난해 총련의 제반 애국사업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우리 당의 의도를 옳게 구현하여 총련의 모든 간부들과 일군들이 동포들과의 사업을 잘한데서 얻은 귀중한 열매들입니다.

나는 지난해 총련이 이룩한 성과들에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그것이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에 크게 이바지한것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의장동지를 비롯한 전체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에게 감사를 보냅니다.

지난해 조국인민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어느때보다도 엄중하게 감행되고있는 긴장한 환경속에서도 승리의 신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벌려왔습니다.

당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대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 인민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겨올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확고히 마련하여놓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농업분야에서는 세상에 자랑할만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 농사가 잘 안되였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당의 현명한 조치와 당의 부름에 호응하여 일떠선 인민들의 적극적인 투쟁에 의하여 민족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대풍을 이룩하여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당이 내놓은 로선과 정책이 가장 현명하고 정당하다는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더욱 가슴뜨겁게 느끼게 되였으며 당이 하라는대로 하면 모든 일이 잘된다는것을 하나의 움직일수 없는 진리로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되였습니다.

지난해 남조선인민들도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룩해놓은 사회주의건설성과에 무한히 고무되면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식민지군사파쑈통치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왔습니다.

우리의 혁명위업과 우리 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은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은 날을 따라 더욱 강화되고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세계정세는 우리 혁명에 매우 유리하게 발전하고있으며 우리 인민이 나갈 앞길은 휘황찬란합니다.

미제국주의는 아세아를 비롯한 세계도처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고있으며 남조선괴뢰도당은 안팎으로 고립될대로 고립되여 멸망이외의 다른 출로를 찾을수 없게 되였습니다.

조국인민들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과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 당이 제시한 자연개조 5대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는 벅찬 환경속에서 희망찬 새해 1977년을 맞이하고있습니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조국인민들의 장엄한 투쟁에 발맞추어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힘을 다하여야 할것입니다.

재일조선인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동포대중운동입니다.

나라의 분렬로 인하여 재일동포들은 이국의 어려운 환경속에서 재난과 고통을 겪고있습니다. 분렬된 조국을 그대로 두고서는 이국땅에서 겪고있는 재일동포들의 불행한 처지를 근본적으로 해결할수 없습니다.

총련은 재일조선인운동의 본질적요구에 맞게 애로와 난관이 앞을 가로막을수록 자기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모든 간부들과 일군들이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고 지난날 항일유격대 지휘관들처럼 언제나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더 많은 동포들을 잘 깨우쳐 총련조직에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의 애국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사업에 남김없이 동원하여야 하겠습니다.

동포들의 기본조직생활단위는 분회입니다. 분회가 힘을 내야 전반적총련조직이 강화되고 모든 사업이 잘되여나갑니다.

총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분회를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벌려 모든 분회들을 다 힘을 내는 분회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총련은 조국을 열렬히 옹호하고 자기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굳건히 지키며 남조선인민들의 애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고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여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데 더 크게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새해에 모든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적들의 그 어떤 발악적책동도 단호히 짓부시며 자기 앞에 나선 영예로운 애국과업을 훌륭히 수행하여나가리라고 믿으면서 의장동지를 비롯한 총련간부들의 건강과 전체 재일동포들의 행복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 일 성

1977년 1월 1일 평양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11차전체대회 앞

전체 재일동포들의 드높은 애국적열의와 조국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속에서 열리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11차전체대회는 우리 나라 해외교포운동발전과 재일동포들의 애국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사변으로 됩니다.

나는 이 대회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나 자신의 이름으로 대회참가자들과 전체 재일동포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제10차전체대회가 있은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지난 3년동안 총련은 우리 당의 주체사상을 재일조선인운동에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조국의 통일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숭고한 애국위업수행에서 빛나는 업적을 쌓아올렸습니다.

총련은 대오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일군들과 동포들을 우리 당과 사회주의조국에 끝없이 충실한 열렬한 혁명가로, 진정한 애국자로 만들고 총련조직을 참다운 주체형의 해외공민단체로 튼튼히 다져놓았습니다.

총련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대오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한것은 총련이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이며 가장 큰 승리입니다.

총련은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감행된 안팎의 원쑤들의 온갖 파괴모략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재일동포들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웠으며 그들을 능숙하게 조직동원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을 승리의 한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왔습니다.

총련은 긍지높은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의 재일동포들의 민족적존엄을 지키고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견결히 수호하였으며 이 과정에 동포대중속에서 더욱 두터운 신뢰와 사랑을 받게 되였습니다.

총련은 민족앞에 영구분렬의 위험이 조성된 엄숙한 시기에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으며 각계각층 재일동포들속에서 민족단합사업을 강화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애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총련은 또한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더 많은 지지와 동정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총결기간 총련조직과 재일동포들은 중첩되는 난관을 용감하게 이겨내면서 제10차전체대회가 내세운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랑찬 력사에 또하나의 위훈을 아로새겼습니다.

총련이 이룩한 이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총련조직과 재일동포들이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결과입니다.

오늘 조국인민들은 뜨거운 애국적열정을 안고 자기의 조국과 민족 앞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있는 총련과 60만 재일동포들을 해외에 가지고있는것을 더없는 민족적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복잡한 자본주의의 환경속에서 주체사상의 열렬한 옹호자로, 그의 적극적인 구현자로 보람차게 살며 싸우는 우리 애국동포들의 끝없는 충성심을 높이 평가하면서 의장동지를 비롯한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총련제11차전체대회를 맞이하는 오늘 국내외의 전반적정세는 우리에게 매우 좋게 발전하고있습니다.

조국인민들은 6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공화국의 정치, 경제적 위력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 가는 길에서 또하나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게 되였습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가혹한 파쑈적폭압밑에서도 나라의 통일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계속 줄기차게 벌어지고있으며 투쟁속에서 남조선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은 더욱 단련되고 끊임없이 자라나고있습니다.

온 세계가 자주성을 지향하는 시대적추세속에서 우리 혁명의 국제적환경도 매우 유리하게 전변되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세계 진보적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국제적권위는 더욱 높아가고있습니다.

날로 고립되고있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은 대세를 역전시켜보려고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으나 그 무엇으로써도 우리 인민의 투쟁에 유리하게 전변되고있는 력사의 흐름을 가로막을수 없습니다.

총련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조국과 민족 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은 총련사업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이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승리를 위한 결정적담보입니다.

총련의 애국운동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동포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그들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묶어세워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위한 영광의 한길에서 굴함없이 싸워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재일동포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지키고 우리 인민의 민족적숙원인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싸우는것은 재일조선인운동의 기본임무입니다.

특히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오늘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총련의 애국사업에서 나서는 첫째가는 과업입니다.

총련은 안팎의 민족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음모를 파탄시키고 각계층 재일동포들속에서 민족적단결을 도모하며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함으로써 나라의 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더 큰 몫을 담당하여야 할것입니다.

총련은 광범한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친선적련계를 강화하여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의 목소리가 더 높이 울려나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총련을 침해하려는 원쑤들의 준동이 어느때보다도 악랄한 조건에서 총련이 자기앞에 맡겨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총련조직을 어떤 시련도 뚫고나갈수 있는 튼튼한 조직으로 꾸려나가야 합니다.

총련안에 조직규률을 철저히 세우고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조직적결속을 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동포군중이 있는 기층조직을 강화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야 할것입니다.

우리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주체사상의 기치드높이 힘차게 전진하는 총련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나는 총련제11차전체대회가 총련의 애국운동앞에 강령적과업을 내세우고 전체 재일동포들을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발전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리라고 굳게 믿으면서 대회사업에서 훌륭한 성과가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 일 성

1977년 9월 26일 평양

만경대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에게

오늘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은 3대혁명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완전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힘찬 진군을 다그치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만경대혁명학원창립 30돐을 뜻깊게 맞이합니다.

나는 만경대혁명학원창립 30돐에 즈음하여 주체적인 유자녀교육방침을 높이 받들고 혁명의 핵심적후비양성사업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한 만경대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영광스러운 혁명의 길에서 영웅하게 싸우다 희생된 전우들의 자녀들을 돌봐주며 그들이 혁명에 끝까지 충실하도록 교양육성하는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숭고한 의무이며 혁명적 의리입니다.

우리는 해방후 안팎의 정세가 복잡하고 혁명앞에 무거운 과업이 나섰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가유자녀들의 교육교양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유자녀교육전통에 토대하여 1947년 10월 12일 만경대혁명

학원을 세웠습니다.

만경대혁명학원의 창립은 우리 혁명발전과 유자녀교육교양사업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습니다.

만경대혁명학원이 창립됨으로써 혁명의 대를 굳굳이 이어나갈 핵심적골간후비를 훌륭히 키워낼수 있는 믿음직한 터전을 가지게 되였습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창립후 30년동안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길을 걸어왔으며 자기에게 맡겨진 숭고한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조국과 혁명 앞에 커다란 공적을 쌓아올렸습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유자녀교육방침을 높이 받들고 유자녀들을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정치와 군사, 일반과학지식을 다같이 소유한 핵심골간후비들로 훌륭히 교육교양함으로써 혁명의 지휘성원대렬을 튼튼히 꾸리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만경대혁명학원졸업생들은 사회주의조국과 인민군대의 중요한 초소들에서 핵심적역할을 놀면서 맡겨진 혁명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있습니다.

오늘 만경대혁명학원은 당의 유일사상, 주체사상이 꽉 들어찬 충성의 대오로 자라났으며 현대적인 교육시설과 생활조건을 충분히 갖춘 유자녀들의 배움의 전당으로, 생활의 보금자리로, 믿음직한 핵심적후비간부양성기지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나는 지난 30년동안 만경대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이 주체적인 유자녀교육방침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우리 혁명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데 대하여 매우 만족하게 생각하며 이를 높이 평가합니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이룩하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겨실현하여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혁명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이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만경대혁명학원이 지니고있는 임무와 책임은 매우 무겁습니다.

만경대혁명학원의 기본사명은 혁명가유자녀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육체적으로 훌륭히 준비된 유능한 민족간부의 후비로 튼튼히 키우는데 있습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이미 이룩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조국과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와 혁명가유자녀교육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자기에게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만경대혁명학원은 무엇보다먼저 교직원, 학생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학원을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일색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교직원, 학생들은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유일한 신념으로 만들며 당정책을 절대성의 정신을 가지고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하는 혁명가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교직원, 학생들은 혁명전통을 깊이 체득함으로써 조국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하였던 항일혁명선렬들과 영웅전사들처럼 어떤 풍파와 역경 속에서도 혁명적지조를 굽히지 않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는 참된 혁명전사로 준비되여야 하겠습니다.

교직원, 학생들은 확고한 로동계급적혁명관점과 높은 계급의식으로 튼튼히 무장함으로써 제국주의와 남조선의 지주, 자본가, 반동관료배들을 비롯한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극도로 미워하고 놈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학정밑에서 신음하는 남조선인민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본임무는 학습을 잘하는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학습을 생활화, 습성화하여 현대적 과학기술지식과 군사지식을 훌륭히

습득하며 건장한 체력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갖춤으로써 부모들의 뜻을 이어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가는 참된 혁명가로 자신을 믿음직하게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학원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밝혀진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하여 교육교양사업에서 주체와 로동계급적선을 튼튼히 세우고 모든 과목교수를 당정책화하며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옳게 적용하고 리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부시킴으로써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워야 하겠습니다.

학원은 교수교양의 거점인 학과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원들의 자질을 더욱 높이며 교육환경을 더잘 꾸리고 교육조건과 교육시설들을 더욱 현대적으로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교직원, 학생들은 혁명적조직생활과 군무생활을 강화하고 학원안에 강철같은 군사규률과 질서를 세우며 모든 사업과 생활을 철저히 정규화, 규범화하여야 하겠습니다.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새 전쟁 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나라에는 긴장한 정세가 조성되고있습니다.

교직원, 학생들은 안일과 해이를 반대하고 항상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일하고 학습하며 생활하여야 하겠습니다.

교직원, 학생들은 혁명적단결을 강화하고 상하일치, 군민일치의 전통적미풍을 높이 발양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밑에 살림살이를 알뜰히 꾸리고 학원안에 언제나 혁명적랑만이 차넘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학원앞에 맡겨진 혁명임무는 참으로 영예롭고 보람차며 학원에 대한 신임과 기대는 매우 큽니다.

나는 만경대혁명학원 전체 교직원, 학생들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자기에게 맡겨진 영예로운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조국과 인민의 기대에 어김없이 보답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김 일 성

1977년 10월 10일

전국의 모든 선거자들에게

이번에 전체 인민들의 앙양된 정치적열의속에서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추천을 위한 전국의 모든 선거구 선거자회의들에서는 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추천하였습니다.

나는 이것을 공화국정권에 대한 한결같은 지지와 신뢰의 표시로 생각하면서 전국의 모든 선거자들에게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보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대의원후보자는 한 선거구에만 등록하게 되여있으므로 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20호안주선거구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등록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진행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공화국정권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빛나는 성과를 공고히 하고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우리 혁명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더욱 힘있게 추진시켜나가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될것입니다.

선거자여러분들은 높은 혁명적열의와 열렬한 애국심을 가지고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한결같이 참가하여 우리 공화국정부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표시하며 하나의 사상의지로 통일단결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다시한번 시위하여야 하겠습니다.

나는 전체 인민이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기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다그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김 일 성

1977년 10월 26일

수산부문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수산협동조합원들에게

수산부문 전체 근로자들은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높은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힘찬 로력투쟁을 벌림으로써 불리한 해양상태와 기상조건하에서도 많은 물고기를 잡아냈으며 특히 12월에 들어와서는 물고기생산을 매일 평균 1만 5,000톤, 최고 2만 5,000톤 수준으로 높여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2.1배의 물고기를 잡아내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나는 겨울철물고기잡이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수산부문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수산협동조합원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감사를 보냅니다.

나는 수산부문 지도일군들과 모든 근로자들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밑에 높은 혁명적열의와 불굴의 투쟁정신을 발휘하여 새해 첫날부터 물고기잡이전투를 더욱 힘있게 벌림으로써 제2차7개년계획의 첫해 수산물생산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는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김 일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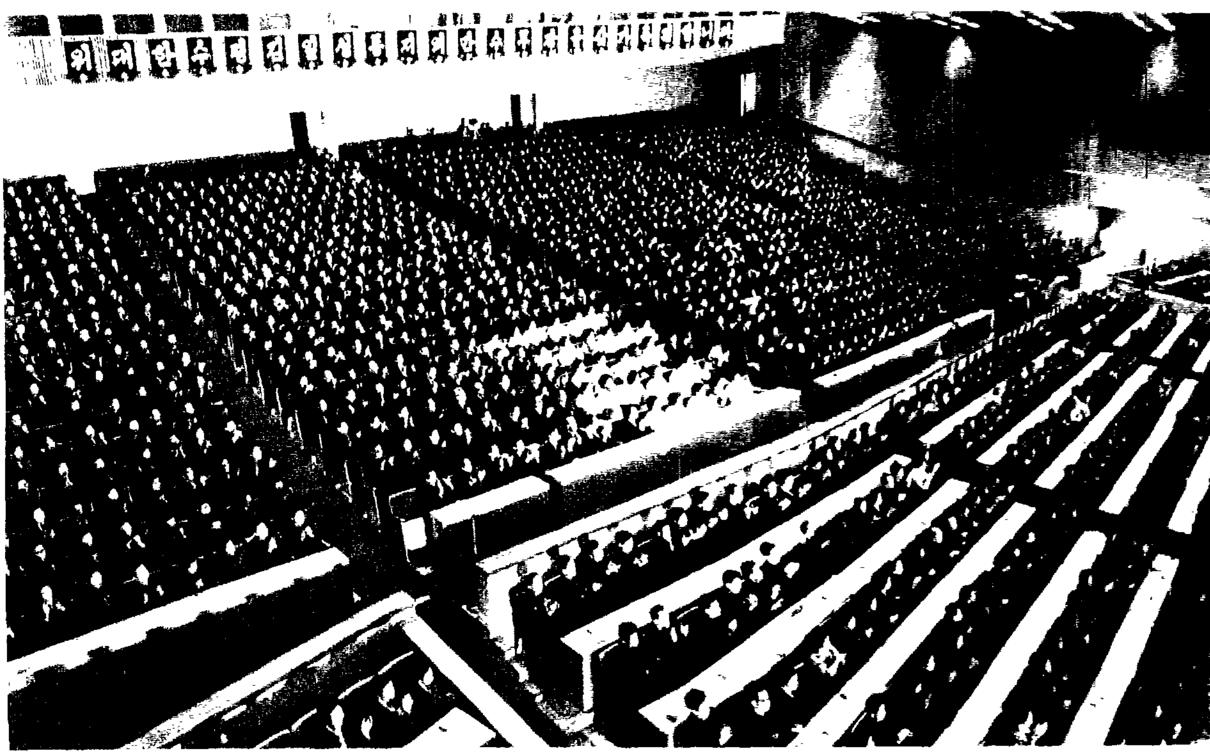
1977년 12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 주석단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 참가자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7호안산선거구 제20호분구선거장에서 투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하는 영광을 안고 충성의한표한표를 바친 제120호안주선거구선거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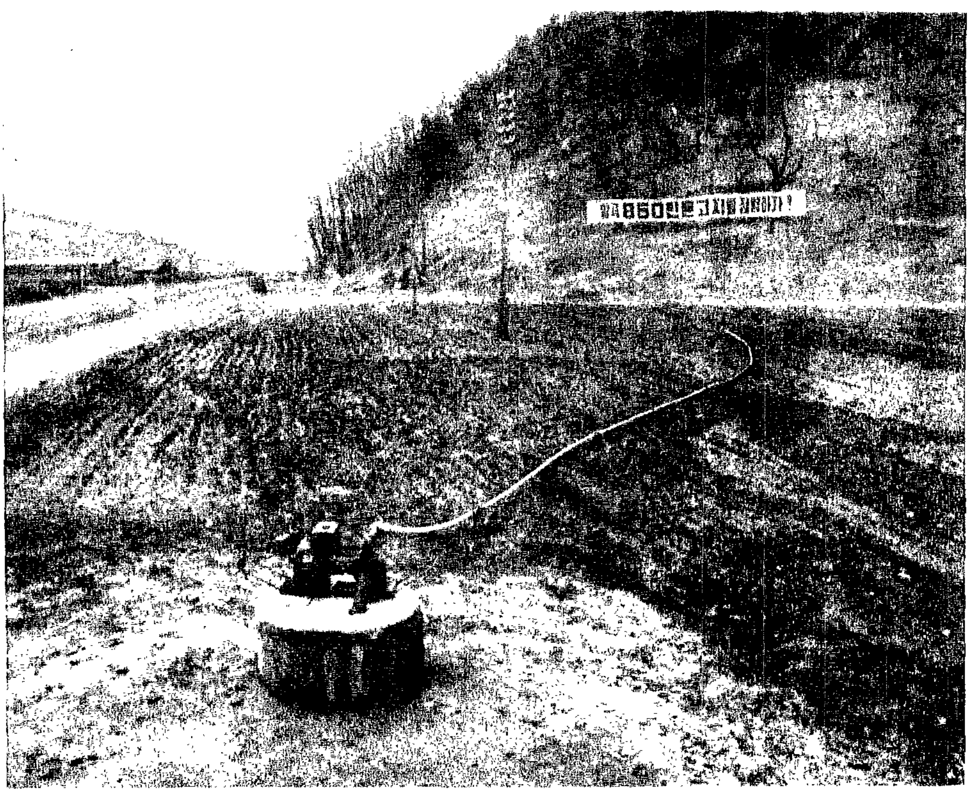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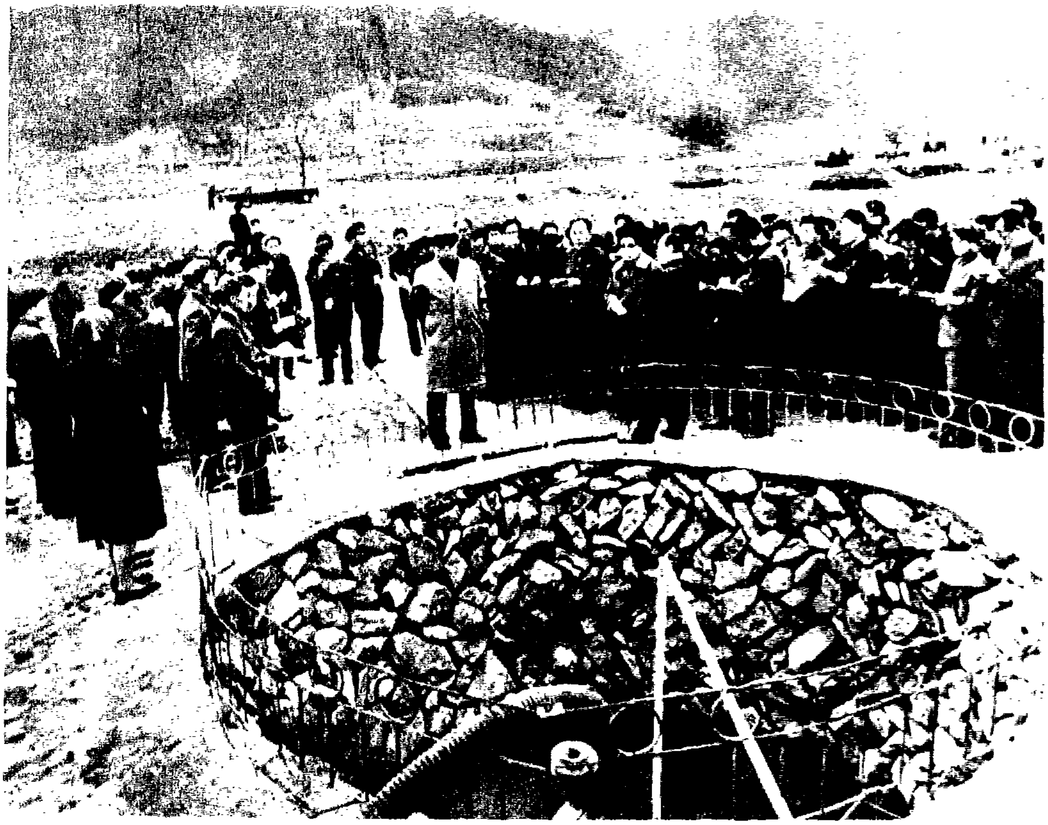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승리자동차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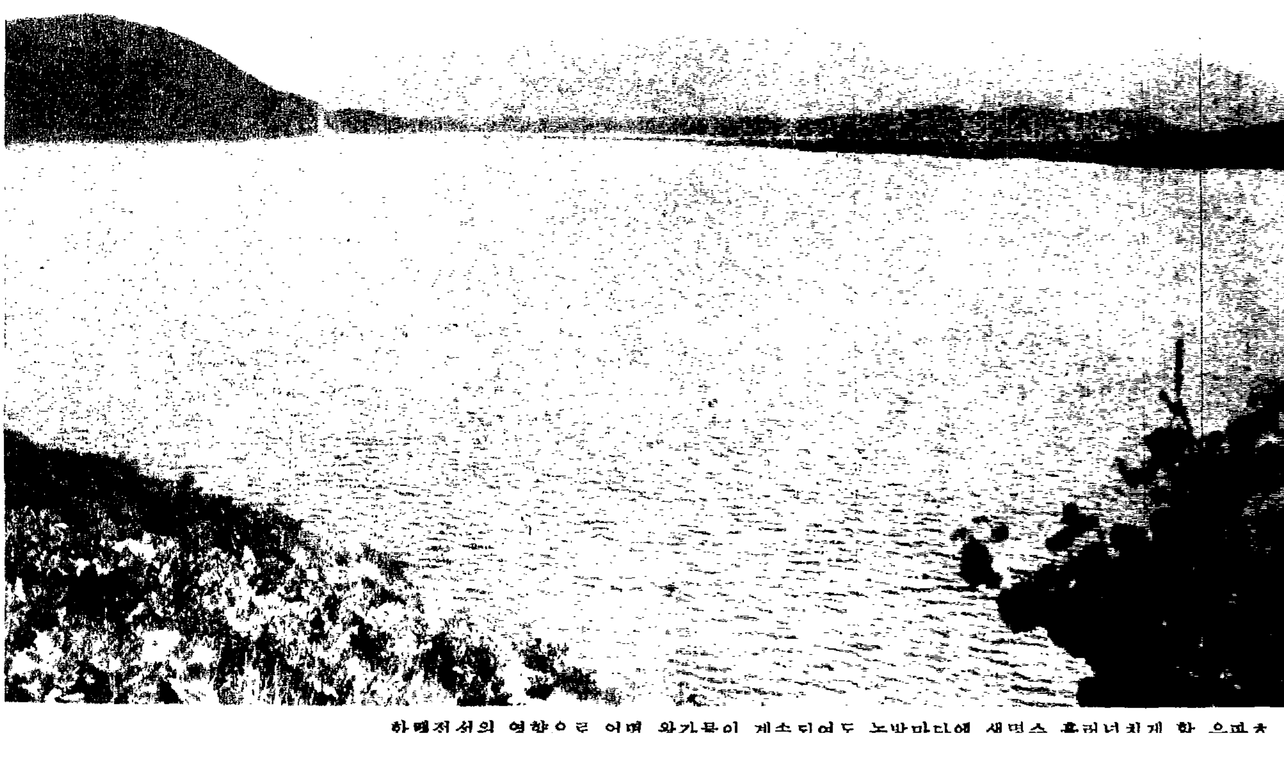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개천군 보부협동농장에서 밭머리마다에
우물을 파고 관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녕변군 서화협동농장에서 지하수를 퍼올려
관수하는 방법에 대한 방식상학을 친히 지도하시였다.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어떤 왕가물이 계속되여도 논밭마다에 새명수 흘러넘치게 한 으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 대성산유원지에
새로 건설된
유희장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써 충대통령각하와 굳은 악수를 나누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함께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각하는
비행장에서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에 답례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함께 카이손 폼비한동지는 비행장에서 군중들의 열렬한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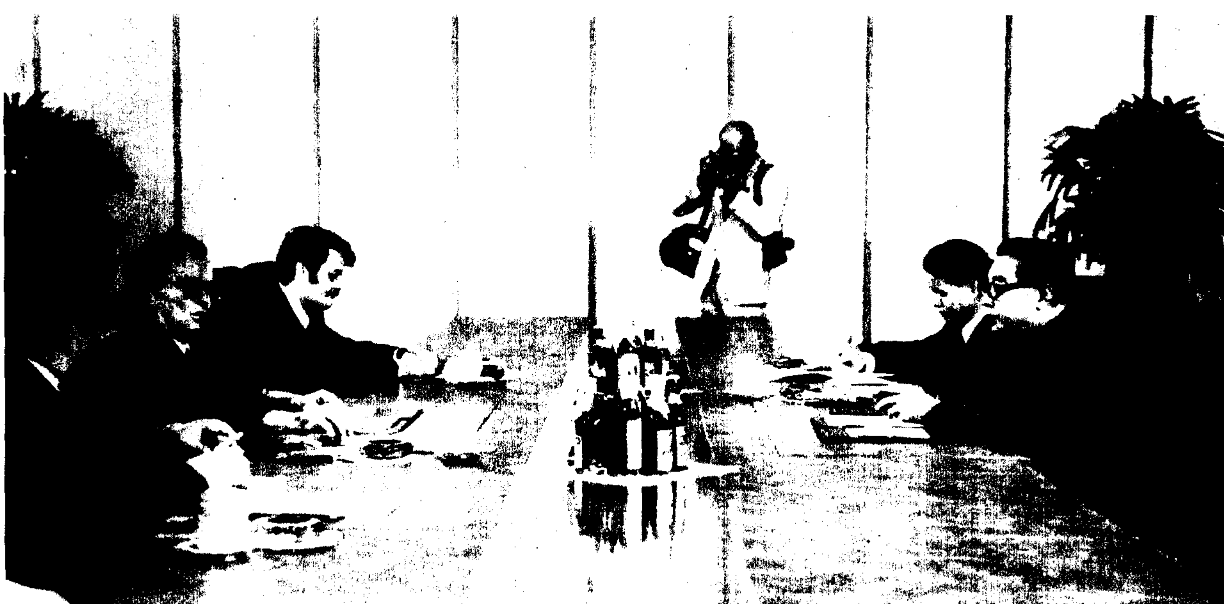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카이손 폼비한동지사이의 회담이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와 굳은
악수를 나누시고
뜨겁게
포옹하시였다.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사이의
회담이 있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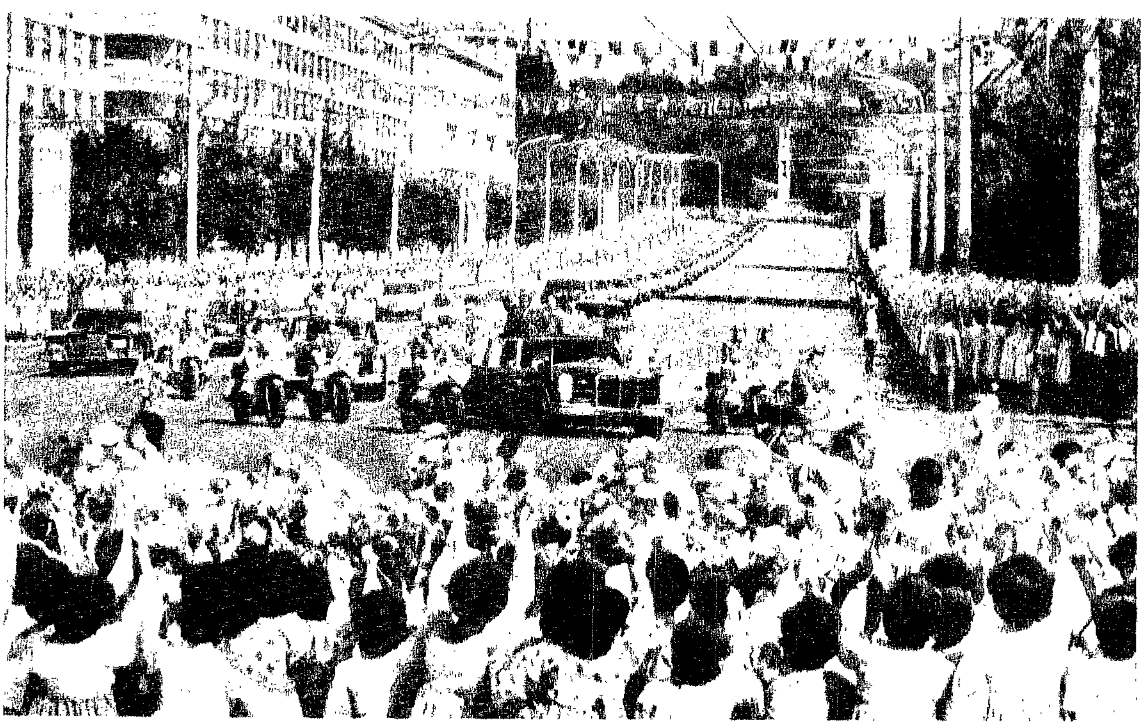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가시여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를 뜨겁게 맞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함께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똥대통령각하는 비행장에서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에 답례를 보내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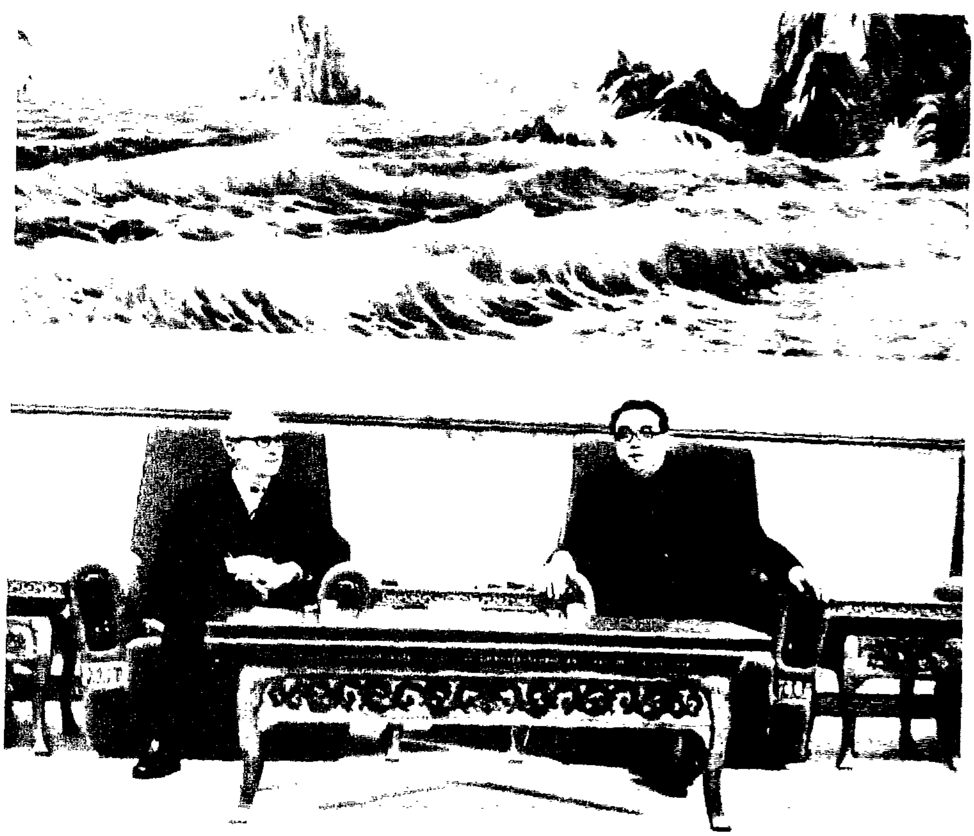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뽈 뽀트동지와
굳은 악수를
나누시였다.



평양시안의 수십만 근로자들이 연도에서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각하를 단장으로하는 적도기네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뻘 뽀트동지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의례방문하였다.



에리히 호네케르동지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의례방문하였다.



평양시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우 네 윈대통령각하에게
전체 평양시민들의 이름으로 은장도를 드리였다.



평양시안의 수십만 근로자들이 연도에서 우 네 윈대통령각하를 열렬히 환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와 에리히 호네커동지에게
귀여운 소년단원들이 향기그윽한 꽃묶음을 정중히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지지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군군부대를 찾으시고 우리 인민의 혁명무력을 정규적무장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스물아홉돐이 되는 날을 맞는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인민의 혁명무력을 정규적무장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스물아홉돐이 되는 날인 1977년 2월 8일 조선인민군 제384군부대를 찾으시고 인민군장병들을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언제나 마음속깊이 흠모하여마지않는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에 모시게 된 크나큰 영광을 지닌 군부대군인들은 이날 끝없는 감격과 기쁨에 휩싸여있었다.

군부대병영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고 쓴 글발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자!》, 《훈련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고 쓴 전투적구호들이 붙어있었다.

초소앞에 줄지어선 군인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뵙게 될 영광의 시각을 기다리고있었다.

오전10시,

조선인민군의 창건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군부대에 도착하시였다.

순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소리 하늘땅을 뒤흔들며 방선의 높고 낮은 산발에 메아리쳐갔다.

《만세!》의 환호를 올리고 또 올리는 군부대군인들의 얼굴마다에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여 조국을 광복하시였으며 우리 인민의 혁명무력을 정규적무장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였으며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신 전설적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있는 무한한 영광과 행복, 수령님에 대한 끓어넘치는 흠모와 충성의 열정이 어리여있었다.

또한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에 의하여 창건후 혁명의 거세찬 폭풍우를 뚫고 치렬한 계급투쟁과 준엄한 전쟁의 시련을 영웅적으로 이겨내면서 조국과 인민 앞에 지닌 자기의 영예로운 혁명임무를 빛나게 수행하여왔으며 오늘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간부화되고 현대화된 불패의 혁명대오로 자라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군대, 영광스러운 당의 군대, 로동계급의 군대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가슴들먹이고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장령들과 군관들 그리고 군부대지휘관들의 영접을 받으시였다.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소리 또다시 하늘땅에 메아리쳐가는 가운데 경애하는 수령님께 남녀군인들이 군부대군인들과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어린 향기그윽한 꽃묶음을 정중히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면에 인자하신 미소를 지으시고 군인들의 열렬한 환호에 손을 드시여 답례를 보내시였다.

혁명의 간고한 나날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을 믿고 그이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하여온 군부대군인들은 오매에도 그리며 흠모하여마지않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자기들의 초소에서 만나뵙게 된 크나큰 영광과 행복, 감격과 기쁨으로 하여 흐르는 눈물로 두볼을 적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으며 해와 달이 다하도록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갈 불같은 결의를 다지고 또 다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부대군인들의 전투준비상태와 전투훈련모습을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의 독창적인 군사로선을 높이 받들고 전투준비를 잘하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으며 군인들의 전투훈련성과를 높이 치하하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병실들을 돌아보시였으며 군부대군인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담화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전사들에게 나이는 몇살이고 학교는 어느 학교를 졸업하였는가, 군대에는 몇해째 복무하는가, 고향에 부모가 있는가, 생활에서 불편한것은 없는가 등을 일일이 물어보시고 군인들의 어깨우에 손을 얹으시고 그들의 건강과 체력단련 정도를 몸소 헤아려보시면서 체력도 더 튼튼히 단련하고 훈련도 잘해서 일당백의 전사가 되여야 한다고 고무해주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사리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독창적인 군사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키며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군부대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덕천지구를 현 지 지 도 하 시 였 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7년 3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에 걸쳐 덕천지구안의 연료동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3대혁명의 기치밑에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는 시기에 언제나 마음속깊이 흠모하며 높이 우러러모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자기 지구에서 맞이하여 따뜻한 가르치심을 받게 된 덕천지구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련일 끝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들끓었다.

덕천지구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두차례에 걸친 덕천지구 석탄공업관계부문일군협의회와 승리자동차종합공장일군협의회, 덕천지구 공장, 기업소 지도일군협의회, 덕천지구당및행정경제일군협의회를 비롯한 여러차례의 협의회들을 소집하시여 석탄공업을 비롯하여 전력공업, 자동차공업 등 지구안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전면적으로 깊이 료해하시고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기간 지구안의 여러 탄광들에 친히 실태료해소조들을 파견하시고 그들의 보고를 받으시였으며 승리자동차종합공장, 배동강발전소 언제건설장, 덕천닭공장과 청송협동농장 포전을 몸소 돌아보시고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지난날에는 공업이란 말조차 들어볼수 없었던 이 고장이 오늘은 강력한 연료동력기지로, 위력한 자동차생산기지로 전변되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서 큰몫을 맡게 되였으며 골짜기마다에 아름다운 현대적도시와 현대적인 대규모의 곡산공장, 지방산업공장들, 닭공장, 오리공장들이 즐비하게 일떠섰다. 튼튼한 경제적밑천에 의거하여 지구안의 로동자, 농민들은 날로 더욱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으며 교육, 문화, 보건 사업도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덕천지구의 연료동력공업과 자동차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구상을 무르익히시면서 련일 정력적인 지도사업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탄광들과 이와 련관된 부문들의 사업을 과학적으로 깊이 료해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덕천지구의 연료동력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앙양을 일으키며 지구안의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석탄공업관계부문일군협의회들에서 무엇보다먼저 덕천지구탄광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고 석탄생산을 빨리

늘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창화력발전소의 능력이 확대됨에 따라 늘어나는 방대한 량의 석탄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발전소에 석탄을 공급하는 덕천지구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그 수행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덕천지구에서 석탄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하여서는 지금 있는 탄광들에서 생산조직을 잘하여야 하며 특히 유망한 탄광들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이와 관련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선 탐사력량을 덕천지구석탄탐사에 집중하여 전망탐사, 현행탐사, 작업탐사를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으며 특히 현행탐사에 화력을 집중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또한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는 원칙을 견지하고 굴진에서 새로운 기준량을 창조하며 갱건설에 력량을 집중하여 갱도영구화를 다그치며 전차, 착암기, 오가드릴, 갱목인양기, 적재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기술장비들과 자재들을 집중적으로 더잘 대주어 탄부들이 최대한의 작업능률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탄광기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매개 탄광들의 공무동력직장과 덕천지구에 이미 꾸려진 탄광기계수리공장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여 탄광기계들을 제때에 수리해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강력한 물질기술적토대를 갖추고있는 승리자동차종합공장에서 덕천, 개천, 순천 일대 탄광들이 가지고있는 자동차들을 수리해줄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창화력발전소에 석탄을 대주는 탄광들에서 생산적앙양을 이룩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지구안의 탄광들에 대한 당적지도와 경제지도를 더욱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 지구안의 주요탄광들과 이와 련관된 지질탐사대, 탄광기계수리공장 등을 망라하는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를 새로 내오는 조치를 취하여주시였으며 련합기업소앞에 제기되는 일련의 과업들과 그 수행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북창화력발전소의 설비관리정형을 료해하시고 보건사업에서 예방의학적방침을 관철하여 병을 미리 예방하는것과 같이 발전소에서도 발전설비들의 계획적예방보수사업을 정상적으로 잘하여 고장이 나지 않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으며 영구재처리장건설을 빨리 끝낼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승리자동차종합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새로 건설된 건설호 2직장에 들리시여 건물과 설비 상태, 로동자들의 작업모습을 돌아보시고 새로 만든 자동차시제품들을 보아주시였으며 공장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공장을 규모있게 알뜰히 꾸리고 여러가지 자동차들을 더 많이, 더 잘 만들기 위한 방도를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수송의 긴장성을 풀고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하여서는 철도에서 집중화물역들을 잘 꾸리고 집중수송, 전문수송을 널리 조직하는것과 함께 자동차로 장거리수송과 단거리수송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주호》화물자동차를 더 많이 생산하고 그 질을 높여 장거리수송에 널리 리용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으며 《승리 58》형자동차를 계속 생산하며 《건설호》자동차생산을 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른새벽 대동강발전소 언제건설공사장을 찾으시여 건설자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고 강변의 찬바람을 함께 맞으시며 공사형편을 상세히 들어보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의논해주시였다.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따뜻하던 날씨가 갑자기 차지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른아침 몸소 청송협동농장포전에 나가시여 남새모가 얼지나 않았는가 살펴보시기도 하시였으며 닭공장을 찾으시여서는 설비와 닭의 생육상태를 친히 살펴보시고 더 많은 닭고기, 오리고기와 알을 생산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덕천지구당및행정경제일군협의회에서 탄광로동계급을 비롯한 덕천지구근로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제시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고기를 더 풍족하게 공급하기 위하여서는 닭공장, 오리공장들에서 먹이작물을 많이 심어 사료생산기지를 튼튼히 조성하며 기술관리를 잘하여 더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하는 동시에 탄광마을들에서 집집마다 오리기르는 운동을 널리 벌리며 매 농가들에서와 탈곡장, 정미소들에서 닭치는 운동을 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국가에서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잡는 물고기를 이미 세워놓은 공급체계대로 정상적으로 공급해주면서 이와 함께 탄광, 공

장들과 군소재지에서 자체로 부업수산작업반, 수산작업반들을 조직하여가지고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 로동자들에게 더 많이 공급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으며 공장, 기업소 직매점과 상점들을 통한 물고기공급체계도 정연하게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에게 더 많은 기름을 생산공급하기 위하여서는 북창곡산공장을 잘 정비하고 기름실수률을 높이며 협동농장들에서 들깨를 심어 군자체로도 기름을 많이 짜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덕천군에서 분수식남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남새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면서 지구내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에 지장이 없게 자동차들을 동원하여 남새밭토지개량사업을 적극 도와주어 땅을 기름지게 함으로써 남새의 정당소출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협의회들에서 일군들이 높은 자각과 책임성을 가지고 경제지도사업을 더욱 짜고들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지도일군들이 현실속에 깊숙이 들어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하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혁명적사업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덕천지구현지지도는 나라의 인민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덕천지구의 연료동력공업과 자동차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지도적지침으로 되였으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건설의 앙양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고무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안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7년 4월 8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안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 전원회의결정 관철에 힘차게 떨쳐나서서 날마다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또다시 자기들의 도에서 맞이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받게 된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안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련일 크나큰 기쁨과 감격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개천군 보부, 도화 협동농장들과 녕변군 서화, 동남 협동농장들, 안주도시건설장과 안주군 연풍고등중학교에 몸소 찾아오시여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가물피해를 미리 막을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전원회의결정 집행정형과 도시건설사업, 학교교육사업 정형을 깊이 료해하시는 한편 평안남도 개천, 안주 지구의 여러 탄광들과 순천세멘트공장, 청천강화력발전소, 청년화학종합공장들에 친히 실태료해소조들을 파견하시고 그들의 보고를 받으시면서 연료동력공업부문, 건재공업부문, 화학공업부문의 실태를 전면적으로 료해분석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날에는 보잘것없는 공업과 락후한 농업밖에 없었던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에 오늘은 강력한 기계공업기지, 연료동력기지, 야금기지, 건재생산기지, 화학공업기지, 경공업기지, 알곡생산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져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수행하고있으며 완충의 해인 1977년 과업을 원만히 수행하여 다음번 전망계획수행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데서 그 위력을 높이 발휘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가물피해를 미리 막는 문제에 큰 의의를 부여하시면서 평안남북도를 비롯한 서해지구 각 도안의 당, 정권기관 일군들과 농촌경리부문일군들을 개천군 보부협동농장, 녕변군 서화, 동남 협동농장들에 데리고나가시여 밭머리마다 우물을 파고 지하수를 퍼올려 관수하는 방법, 개울에 보를 막고 무동력양수기로 물을 퍼올려 관수하는 방법, 인공강우기로 밭에 관수하는 방법, 굴포를 파고 물을 잡아 관수하는 방법 등 가물피해를 미리막기 위한 여러가지 관수방법에 대한 방식상학을 친히 지도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현지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 서해지구 당, 정권기관, 농촌경리부문일군협의회, 평안남도석탄공업부문일군협의회, 평안남도전력및화학공업부문일군협의회들을 소집하시고 농촌경리부문, 연료동력공업

부문, 건재공업부문,화학공업부문 앞에 나서는 과업과 그 수행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서해지구 당, 정권기관, 농촌부문일군협의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발관개를 위한 지하수리용방침을 관철하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교시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협의회에서 소형관개공사를 대대적으로 벌려 발관개면적을 늘일데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전원회의결정의 정당성에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그 관철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가물이 계속되고있는 조건에서 이미 마련하여놓은 관개수리체계를 효과있게 리용하는 동시에 소형관개공사를 대대적으로 벌려 지하수를 비롯한 모든 물원천을 최대한으로 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물을 파면 물은 어데서나 나온다고 하시면서 매개 협동농장과 작업반의 구체적실정을 고려하여 발머리에 작은 우물과 큰 우물을 파며 다락발밑에도 우물을 파서 강우기로 물을 올려 뿜어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협의회에서 우물을 파서 당면한 물문제를 푸는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와 함께 공고한 물기지를 조성하기 위한 전망적인 과업도 동시에 밀고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물을 매 작업반에 3~4개씩 파는 투쟁을 벌리고 졸짱도 박아서 발관개를 완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앞으로 가물이 오래 계속되여 지금 있는 관개수를 가지고 논에 물을 충분히 댈수 없게 되는 경우도 미리 예견하고 논머리들에 졸짱을 박는 등 미리 철저한 대책을 세워놓아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물원천을 찾아 리용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이미 있는 물을 적극 절약하여 효과있게 리용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특히 인수로에 의한 답수식물대기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빨리 추진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책임일군들이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전원회의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앞장에 서서 대중을 지하수리용방침관철에 동원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적극 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특히 그에 대한 보장사업을 잘할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력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농민들은 당면영농사업에 힘을 집중하여야 하므로 군안의 기관, 기업소들이 몇개씩 맡아서 군중적운동으로 우물을 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에 나가는 지원로력을 잘 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사업조직을 잘 짜고들어 한쪽으로는 모내기를 비롯한 영농작업을 하고 한쪽으로는 우물을 파는 투쟁을 옳게 배합하여 다같이 힘있게 내밀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방자재를 많이 리용해야 짧은 기간에 더 많은 우물을 팔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돌이 많은곳에서는 돌로 우물을 쌓고 나무가 많은곳에서는 나무를 찍어다가 귀틀을 만들어 넣으며 돌도, 나무도 없는데서는 세멘트관을 만들어쓸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소형관개공사에 필요한 설비문제를 해결할 방도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우선 있는 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설계를 만들어주어 매개군들에서 자체로 소형양수기들을 많이 만들어쓰도록 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농촌에는 이미 국가에서 만들어준 전동기가 대단히 많다고 하시면서 모내기가 끝나면 그것을 전부 소형관개에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으며 여러가지 기관을 계속 더 많이 만들어줄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발관개에 필요한 여러가지 호스를 책임적으로 생산보장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뜨락또르시추기를 비롯한 설비, 자재들을 제때에 질적으로 만들어보낼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현지에서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와 평안남도석탄공업부문일군협의회에서 개천지구의 여러 탄광들과 안주종합탄광에 친히 파견하신 실태료해소조의 보고를 받으시고 개천, 안주 지구 탄광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들에서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수력발전소들에 만부하를 걸지 못하게 됨에 따라 화력발전소들이 나라의 전력생산에서 더욱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였다고 하시면서 평양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주요대상들에 석탄을 대주는 개

천지구의 탄광들과 청천강화력발전소, 서부지구 건재, 금속 공업부문, 철도운수부문들에 석탄을 공급하는 안주종합탄광에서 석탄을 더 많이 캐내는것이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고 인민경제 각 부문을 계속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들에서 인민경제 각 부문에 소요되는 석탄수요를 충족시킬뿐아니라 우리 공업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새 전망계획기간에 새로 건설되게 되는 큰 공장, 기업소들에 석탄을 원만히 대주기 위하여서는 석탄혁명을 일으켜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새 전망계획의 높은 석탄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하여 잡도리를 크게 하고 용감하게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탄광들에서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과 이 부문 책임일군들이 당정책을 튼튼히 틀어쥐고 탐사를 선행시키고 박토와 굴진을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이를 위하여서는 탐사력량과 굴진력량을 강화하며 탄부들이 마음껏 일할수 있도록 착암기, 전차, 압축기와 같은 큰 장비로부터 뻰찌, 톱, 도끼 같은 작은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비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러한 장비들은 큰 기계공장에서도 생산하고 지방산업공장들에서도 능력에 맞게 생산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회의들에서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데서 갱을 잘 꾸리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개천, 안주 지구의 탄광들에 세멘트를 충분히 대주어 갱건설과 갱도영구화를 힘있게 내밀며 안주종합탄광의 탈수갱건설도 적극 추진시켜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개천지구의 탄광들에 대한 당적지도와 경제지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개천지구의 6개 탄광과 이를 위하여 복무하는 탐사대, 탄광설비보수사업소, 탐사부속품공장들을 망라하는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를 내오시는 조치를 취하여주시였으며 갱목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해주시기 위하여 이 지구 탄광들에 복무하는 갱목사업소를 따로 내오도록 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석탄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생산과 함께 수송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탄광자체로도 골방장을 건설하고 평양시와 그리고 개천지구탄광들과 련관되여있는 인민경제 각 부문들에서도 자재를 가지고 가서 골방장을 더잘 건설해줌으로써 많은 화차들이 단꺼번에 석탄을 싣고 빨리 빠져나갈수 있게 하며 선탄장들도 잘 건설하여 화력발전소와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 질좋은 석탄을 보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석탄이 많이 매장되여있는 안주종합탄광에서 석탄생산을 빨리 늘이기 위하여서는 여기에 전당적, 전국가적 주의를 돌리고 적극 도와주며 캐낸 석탄을 제때에 실어나를수 있도록 탄광과 청천강화력발전소 사이의 전문수송을 조직하며 하차장을 잘 꾸려 실어온 석탄을 단시간에 부릴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탄광들에서 갱건설과 갱도영구화를 힘있게 추진하고 여러가지 탄광설비들을 충분히 갖추어주기 위하여 이 부문에 대한 국가투자를 더욱 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석탄혁명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이 부문 지도일군들이 낡은 사고방식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투쟁하면 승리한다는 혁명의 진리를 깊이 체득하고 용감하게 전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일군들이 커다란 포부를 가지고 높은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대책을 혁명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들에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생산에 작용하는 크고작은 모든 요인들을 면밀히 타산하고 경제조직사업을 치밀하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도일군들이 대렬, 설비, 장비를 잘 알고 그에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세밀하게 진행하는것이 중요하며 큰것만이 아니라 안전등을 보장해주고 톱, 뻰찌 같은 작은 작업도구를 대주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또한 순천세멘트공장에 파견하시였던 실태료해소조의 보고를 받으시고 새로 건설한 이 공장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순천세멘트공장에서 이해 상반년안으로 필요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8월중순부터는 세멘트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석회석, 점토, 규석 등의 원료를 대주기 위한 대책을 잘 세우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장에 원료를 원만히 대

주기 위하여서는 첫째로 점판암광산개발에 력량을 집중하여 빨리 끝내며 둘째로 석회석광산의 락광정건설을 빨리 완공하여 매일 충분한 량의 석회석을 공급할 조건을 마련하며 이와 함께 규산분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장에 원료를 원만히 대주기 위하여서는 대형자동차가 많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동차공장에 자재를 넉넉히 대주어 《건설호》자동차를 비롯한 대형자동차생산을 빨리 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새로 건설한 순천세멘트공장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규모가 커진 우리 나라 세멘트공업을 잘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큰 규모의 공무동력기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계공업부문에서 잘 도와주어 순천세멘트공장에 건설된 공무동력직장을 더욱 튼튼히 꾸리도록 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평안남도전력및화학공업부문일군협의회에서 청천강화력발전소건설사업을 다그쳐 빨리 끝내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며 청년화학종합공장건설을 다그치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과 그 수행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발전소건설정형을 깊이 료해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이미 조업을 개시한 발전기들에서 전력생산을 정상화하며 나머지 발전기들도 다 상반년안으로 조립을 끝내고 7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가도록 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그러자면 보이라와 발전기의 조립작업을 다그치며 건설력량을 집중하여 재처리장공사, 제방공사, 저탄장건설공사를 하나하나 모가 나게 해제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발전소운영을 정상화하려면 운전공양성사업을 미리부터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젊은 사람들을 평양화력발전소에 보내여 실습을 시켜 운전공으로 키울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으며 공무동력직장도 잘 꾸릴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공무동력기지를 꾸리는 문제와 관련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 큰 공장, 기업소들이 많은 조건하에서 모든 공장, 기업소들이 다 자기에게 필요한 설비부속품들을 생산할수 있을 정도로 큰 규모의 공무동력기지를 꾸리면 주물, 주강로들과 여러가지 설비들을 국가적리익의 견지에서 합리적으로 리용할수도 없고 비경제적이라고 하시면서 전후에 당이 이미 제시한 방침대로 인민경제 부문별로 종합적인 공무동력기지를 꾸리고 자기 부문에 필요한 큰 설비, 부속품들을 생산해서 통일적으로 공급해주며 각 공장, 기업소들의 공무동력직장에서는 자주 갈아대야 하는 자그마한 부속품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발전소들과 광산들에 많이 소요되는 볼도 기업소들마다에서 제각기 생산하려고 할것이 아니라 강선제강련합기업소에 볼생산직장을 하나 꾸리고 여기서 통일적으로 생산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협의회에서 청년화학종합공장 뇨소비료공장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아닐론, 나프샤, 폴리에틸렌 공장들의 건설사업을 빨리 다그쳐 끝낼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협의회들에서 개천, 안주 지구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그를 더욱 개선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친히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개천지구탄광들과 안주종합탄광 로동자들의 주택조건과 식생활을 더욱 개선해주시기 위하여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탄광들에서 자체로도 건설하고 평양시와 도에서도 도와주어 개천지구 탄광마을들과 안주지구에 더많은 살림집을 건설함으로써 탄광로동자들의 주택조건을 더욱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친히 하나하나 조직사업을 하여주시였다.

또한 수령님께서는 남새적지인 개천군 도화협동농장에 200정보의 분수식남새생산기지를 새로 더 조성하여 개천지구 로동계급에게 더 많은 남새를 생산공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뜨락또르와 자동차도 더 보내주시고 남새재배기술자들도 보내도록 뜨거운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개천, 안주 지구 로동계급에게 기름, 고기, 알, 물고기 등 영양가높은 부식물들을 더 많이 공급해주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국가에서 배합먹이를 대주고 지방자체로 단백질먹이기지를 튼튼히 꾸려 이미 건설해놓은 닭공장, 오리공장들에서 더 많은 닭고기, 오리고기와 알을 생산하는 동시에 정미소, 탈곡장과 매 농가에서 닭기르는 운동과 탄광마을들에서 오리기르는 운동을 군중적으로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하시였으며 기름, 물고기를 더욱 충분히 생산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안주도시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여주시였다.

현대적인 면모를 갖추고 새로 웅장하게 일떠선 안주도시를 찾으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청천강반에 옛모습그대로 복구된 오랜 고적인 백상루에 오르시여 건물을 돌아보시면서 건물도 잘 짓고 단청도 잘했다고 치하하시였으며 안주 도시를 더잘 건설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안주는 청천강반의 좋은 도시라고 하시면서 안주도시중심부와 그 주변에 새로 많은 주택을 더 지어 도시의 면모도 더잘 갖추고 로동자들의 주택문제도 보다 원만히 해결할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도시중심부에는 탑식주택들을 배합하여 큼직큼직한 건물들을 지으며 도시주변에는 송림식주택들도 짓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으며 시내에 식료상점, 채과상점을 잘 꾸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청천강을 계속 준첩하여 도시의 풍치를 아름답게 하여야 한다고 하시였으며 공원에는 큰 나무만 심지 말고 소나무, 진달래와 같은 키가 작은 나무들과 꽃나무를 많이 심어 풍치를 더욱 아름답게 하며 공지들에는 잔디를 입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연풍고등중학교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직원, 학생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시면서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몸을 튼튼히 단련할뿐아니라 기름나무림을 많이 조성하고 잘 가꾸며 토끼기르는운동도 널리 벌려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으며 교직원, 학생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고 우리 교원들에게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평안남북도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전원회의에 뒤이어 진행된 위대한 수령님의 이번 현지지도를 받으면서 언제나 탁월한 통찰력으로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절박한 문제들을 제때에 포착하시고 그 해결방도를 명철하게 제시하시며 뒤따라 현실속에 깊이 침투하시여 대중을 그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시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적령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가슴뜨겁게 느끼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에 대한 현지지도에서 주신 교시는 수령님께서 1977년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과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전원회의결정관철에로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켜 농촌경리부문에서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가물피해를 미리 철저히 막아내고 이해에 알곡 850만톤고지를 점령하며 석탄, 전력, 건재, 화학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이해계획을 넘쳐수행하고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데 있어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 나가시여 농사형편과 새로 만든 벼수확기를 보아주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7년 10월 8일 평안남도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 나가시여 농사형편을 알아보시고 금성뜨락또르공장과 해주농기계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이 새로 만든 벼수확기를 보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먼저 원화협동농장의 농사형편을 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 및 제13차 전원회의와 농업부문일군협의회에서 하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이해에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고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전례없는 대풍작을 마련한 자랑을 안고 가을걷이전투를 마지막고비에서 다그치고있는 원화협동농장의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언제나 흠모하여마지않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또다시 몸가까이 모시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는 끝없는 감격과 기쁨에 휩싸여있었다.

원화협동농장에 이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먼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몸소 이 고장에 나오시여 농민들과 함께 밭을 갈고 씨를 뿌리시면서 농업협동화의 새로운 광명한 앞길을 밝혀주시던 력사적인 포전머리에서 풍년벼이삭 설레이는 논판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알알이 잘 여문

벼이삭을 친히 손에 드시고 알수를 세여보시면서 1977년에 원화협동농장에서 배치한 벼품종에 대하여 알아보시기도 하시고 모내기는 언제 끝냈고 평당포기수는 얼마나 넣었으며 비료는 어느때 얼마나 주었는가 등 농장원들이 주체농법의 요구를 관철한 정형에 대하여 하나하나 물어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해에 이곳 협동농장원들이 적지적작, 적기적작 원칙에 따라 지대적특성에 맞는 좋은 벼품종을 배치하고 발랭상모를 튼튼히 키워 모내기를 일찍하고 과학적시비체계를 철저히 세워 1976년에 비하여 논벼를 정당 1톤 800키로그람이상 더 내게 된데 대하여 매우 만족해하시면서 이 고장의 논밭은 그전날 사금구뎅이가 많고 모래기가 많던 땅이였는데 지금은 토지개량을 하고 주체농법대로 농사를 지으니 소출이 많이 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평원군적인 농사형편도 료해하시고 1976년보다 알곡생산을 훨씬 늘인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가을걷이를 비롯하여 이해농사를 잘 결속짓기 위한 사업정형을 료해하시고 잘된 곡식을 한알도 허실함이 없이 거두어들여 제때에 탈곡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으며 특히 베여놓은 벼를 논판에서 빨리 실어들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가마니공장을 잘 정비하고 일년내내 가마니를 짜서 낟알포장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앞으로 알곡생산을 더 늘이기 위하여서는 땅을 개량하는 사업을 계속하며 이해농사에서 파악이 있는 좋은 올품종을 더 많이 배치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으며 비료를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제철에 알맞춤하게 주는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어 포전머리에서 새로 만든 벼수확기를 보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기계의 성능과 작용원리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그의 작업모습을 살펴보시면서 기계를 잘 만들었다고 치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내는기계와 함께 이런 기계를 많이 만들어 보내주면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를 빨리 실현하여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벼수확기를 많이 생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 벼수확기를 대대적으로 만들어 벼농사를 많이 하는 벌방지대에 보내줄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다양한 마력수의 벼수확기를 여러가지형으로 많이 만들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계마다 기관을 각이하게 만들어쓰게 되면 생산조직이 복잡해지고 생산성도 높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새로 만든 벼수확기의 기관은 다른 기관보다 강재가 적게 들고 연유를 더 많이 절약할수 있으니 물논뜨락또르에는 물론 《천리마》호 뜨락또르와 《전진》호 뜨락또르에도 쓰고 지게차에도 쓸수 있도록 이 기관을 적극 개발하는데 힘을 집중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벼수확을 할 때에 벼알이 한알도 허실되지 않도록 벼수확기를 정밀하게 만들어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서는 기술장비를 더잘 갖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으며 분사구와 연료뽐프에 대한 협동생산조직도 잘해주고 고무제품과 리데판 생산을 전문화할데 대하여서도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따뜻한 가르치심을 받은 농장일군들과 기계공업부문일군들은 이해농사를 빨리 잘 결속하고 다음해의 농사차비를 더욱 다그치며 농촌에 질좋은 여러가지 농기계들을 더 많이 만들어 보내줄것을 굳게 다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 대성산유원지에 새로 건설된 유희장을 돌아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7년 10월 9일 평양 대성산유원지에 새로 건설된 유희장을 돌아보시였다.

일요일인 이날 대성산유원지를 찾은 시안의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이곳에 새로 꾸려진 유희시설들을 리용하면서 휴식의 한때를 즐기고 있었다.

오직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나라를 살기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리실 원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해방후 그처럼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금강산, 묘향산을 비롯한 명승지들을 근로자들의 휴양지로 꾸리도록 하시였으며 모든것이 포연에 잠긴 가렬한 전화의 나날에도 수도건설의 웅대한 전망과 함께 유구한 력사가 깃들어있는 경치좋은 대성산을 수도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로, 교양장소로 꾸릴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다. 전쟁의 포화가 멎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성산유원지를 대공원으로 꾸리시기 위하여 10여차례에 걸쳐 현지지도를 하시고 수많은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몸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대성산은 규모가 큰 동물원과 식물원을 비롯하여 현대적인 유희시설과 휴식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진 수도근로자들의 문화휴식터로, 대유원지로 전변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속에 혁명의 수도 평양을 웅장하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현대적인 도시로 건설한 시안의 근로자들은 대성산유원지에 새로운 유희장을 마련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웅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건설에 착수한지 반년도 못되는 짧은 기간에 이곳에 오늘과 같은 또하나의 유희장이 꾸려진것이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희장에 나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희장입구에서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과 관계부문일군들, 대성산유원지관리소 일군들의 마중을 받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귀여운 어린이가 향기그윽한 꽃묶음을 정중히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시안의 근로자들이 리용하고있는 유희장의 모든 시설들을 차례로 돌아보시였다.

총부지면적 8만평방메터에 이르는 유희장에는 1,500메터이상의 길이를 가진 관성렬차, 길이 1,000메터이상의 공중렬차, 관람차, 탑비행기, 회전말, 꽃그릇회전대, 회전비행기, 물결회전반, 전기자동차, 관성단차, 회전그네, 우주비행선, 물길미끄럼차를 비롯한 현대적유희시설들과 수영장, 뽀트장, 민족놀이터와 식당을 비롯한 편의봉사시설들이 그쯘히 갖추어져있어 근로자들이 이곳에서 마음껏 휴식할수 있게 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 일떠선 유희시설들의 동작을 세심히 보아주시고 경치좋은 자리에 건설된 유희장이 아주 훌륭하다고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유희장은 청소년들의 용감성을 키워주고 심신을 단련하는데 아주 좋다고 하시였으며 앞으로 유희시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수도근로자들의 문화휴식에 더 잘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고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새로 꾸려진 식당들에 들리시였다.

대성산유원지의 유희장은 수도근로자들과 청소년들에게 더욱 좋고 훌륭한 문화휴식터를 마련해 주시려고 심려하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크나큰 또 하나의 사랑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진행된 주요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전원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전원회의가 1977년 4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밑에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는 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전원회의에는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중앙과 지방, 교통운수부문, 공장, 기업소 당일군들과 중앙과 지방의 정권기관, 경제기관 일군들, 중앙과 지방의 농촌경리부문, 교통운수부문 일군들이 또한 전원회의에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의정으로 상정되였다.

1.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한랭전선으로 인한 가물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2. 교통운수부문사업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8차전원회의 확대회의결정 집행정형과 앞으로의 과업에 대하여

전원회의에서는 의정 첫째문제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였다.

4월 5일회의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농업위원회 위원장이 의정 첫째문제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각 도 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들, 시,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들을 비롯한 많은 동지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전원회의에서 한랭전선으로 인한 가물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게 되는것은 농업생산과 전반적인 인민경제발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연개조 5대방침을 높이 받들고 전당, 전군, 전민이 한결같이 떨쳐나 정력적인 투쟁을 벌려 밭관개와 다락밭 건설, 토지정리와 토지개량, 치산치수, 간석지개간 사업에서 이룩한 커다란 성과를 긍지높이 총화하였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자연개조 5대방침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가물피해를 미리 막고 1977년에 알곡 850만톤고지를 점령하며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와 대책적의견들을 제기하였다.

전원회의에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자연개조 5대방침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시고 그를 더욱 철저히 집행하며 한랭전선으로 인한 가물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투쟁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전원회의는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을 휩쓸고있는 한랭전선의 영향은 앞으로도 오래동안 계속될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모든 일군들이 한랭전선에 대하여 옳은 인식을 가지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일찌기 우리 당이 주체적인 수리화방침을 제시하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그 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물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해왔으며 한랭전선으로 인한 이상기후의 영향을 이겨내고 농업생산을 끊임없이 높여올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우리 나라에서 이미 이룩된 수리화의 성과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자연개조 5대방침 관철을 위한 투쟁을

통하여 더욱 확대강화되였다고 지적하면서 자연개조 5대방침은 우리 나라의 위력한 수리화체계를 중간 및 산간 지대에까지 확대하고 더욱 공고한 농업생산토대를 마련하여 한랭전선의 그 어떤 영향도 철저히 막아낼수 있게 하는 주체적인 대자연개조방침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우리 당이 제시한 자연개조 5대방침을 심장으로 받들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로동계급과 군인, 사무원, 학생들과 농민들은 지난겨울 석달동안이나 계속된 례년에 보기 드문 강추위를 이겨내며 영웅적인 투쟁을 벌려 밭관개를 비롯한 자연개조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농촌지원자들과 농업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이후 불과 다섯달남짓한 사이에 10만정보의 밭관개건설을 완공하는 자랑찬 승리를 이룩한데 대하여 긍지높이 총화하였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류례없는 강추위가 계속되고 땅이 깊이 언 불리한 조건에서 단 한해겨울동안에 10만정보의 밭관개공사를 완성할수 있게 된것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는 대자연개조의 자랑찬 승리이며 빛나는 성과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직후에 벌써 피어린 항일의 나날에 무르익혀오신 자연개조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주체적인 수리화방침을 내놓으시였으며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수리화의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농업의 특성과 자연지리적조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수리화를 농촌기술혁명의 선차적과업으로 규정하시고 전당과 전체인민이 달라붙어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1958년 9월전원회의에서 서해안지대에서는 관개를 위주로 하면서 치산치수를 배합하며 동해안지대에서는 치산치수를 위주로 하면서 관개를 배합할데 대한 독창적인 수리화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불과 6개월동안에 38만정보의 관개건설을 해제끼는 기적을 낳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미 1964년에 논관개뿐아니라 밭관개를 실현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당 제5차대회에서는 분수식밭관수를 널리 받아들여 수리화의 성과를 끊임없이 확대해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독창적인 수리화방침과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력사적으로 짧은 기간에 완성된 수리화체계가 마련됨으로써 우리 나라는 조밀한 관개수로망으로 뒤덮인 가장 발전된 관개의 나라로 전변되였다.

가장 우월한 수리화체계와 튼튼한 농업생산토대가 있음으로 하여 오늘 세계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을 휩쓸고있는 혹심한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농사를 망치고 심각한 농업위기, 식량위기를 겪고있는 때에 우리 나라에서만은 어떤 왕가물과 무더기비도 끄떡없이 이겨내고 해마다 농업생산에서 비약적인 장성을 이룩하였으며 1976년에는 우리 나라가 생겨나서 처음보는 대풍작을 거둘수 있었다.

전원회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연개조 5대방침이 천만번 정당하였다고 일치하게 지적하면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결정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며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가물피해를 미리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한랭전선의 영향이 앞으로 계속될것이 예견되는 조건에서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가물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이해농사를 잘 지어 알곡 850만톤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10만정보의 밭관개공사를 완공한 빛나는 성과에 기초하여 이해 가을에 밭관개면적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가물과의 투쟁과 병진하여 계속 힘있게 벌림으로써 1977년말까지 모두 수십만정보의 밭관개건설을 완성하며 래년에도 밭관개공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한랭전선으로 인한 가물피해를 미리 막고 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는것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우리 당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가물을 이겨내기 위한 구체적과업들을 제기하였다.

전원회의는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가물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사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흐르는 강물을 퍼올려쓰는것과 함께 지하수를 리용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는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전민이 총동원되여 도처에 우물을 파고 졸짱을 박아 땅속에 있는 물을 퍼올리기 위한 군중적운동을 힘차게 벌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가물이 계속되여 땅우에는 물이 없

어도 땅속에는 리용할수 있는 물이 많다고 하면서 우물을 파고 졸짱을 박아 지하수를 퍼올려쓰는것은 자재도 자금도 로력도 얼마 들이지 않고 도중 손실도 없이 현지의 물을 끌어올려 그 자리에서 효과적으로 쓸수 있게 하는 매우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우리 당이 이미 오래전에 제기하고 실천적경험을 쌓은 지하수리용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지하수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면서 각 도들의 당면한 전투목표를 제시하였다.

전원회의는 가물을 이겨내기 위하여 영농기전에 물이 없거나 모자라는 모든 협동농장 작업반들과 분조들에서 두개이상의 우물을 파고 졸짱을 박는 소형관개공사를 대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관개수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하여서는 탐사력량을 집중하여 지하수를 찾아내는 사업을 앞세우고 공사계획을 구체적으로 짜고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 보장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지하수를 리용하기 위한 투쟁은 농업에서만 아니라 공업부문에서도 벌리여 공업용수를 자체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군소재지와 로동자구들에서도 우물을 파고 졸짱을 박아 먹는물을 더욱 풍족히 공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가물피해를 미리 막기 위하여서는 또한 새로운 물원천을 찾는 사업과 함께 있는 물을 절약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물관리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과업을 제시하였다.

전원회의는 관개용수를 잘 리용한다면 지금 있는 물을 가지고도 농사를 능히 지을수 있다고 하면서 물을 한방울이라도 아껴쓰고 효과있게 리용하여 논 정보당 물소비량을 극력 낮추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관개용수를 절약하고 잘 리용하기 위하여서는 흐름식물대기방법을 없애고 논물대기에서 인수로체계에 의한 담수식물대기방법으로 전환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농촌들에서 인수로와 배수로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담수식물대기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물을 절약하는것과 함께 물의 온도를 높여주어 논벼의 생육에 더욱 좋은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또한 물을 아끼고 효과있게 쓰기 위해서는 급수사령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물공급에서 제도와 질서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농촌들에서 관개용수관리사업을 튼튼히 틀어쥐고 급수사령체계를 잘 운영하여 물을 계획적으로 정확히 공급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또한 물을 절약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물길들에서 가시기작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물이 새는 구간에는 영농기전으로 진흙다짐을 하고 많이 새는데는 콩크리트포장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며 파괴된 구조물들의 보수정비사업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가물을 막기 위한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모든 원천과 가능성을 동원하여 물을 잡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이라고 하면서 모든 농촌들에서 강물을 한방울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모조리 퍼올려 모든 저수지와 물주머니들에 물을 가득 채우고 전체 군중을 동원하여 보막이와 논판저수를 대대적으로 벌려야 한다고 하였으며 건설중에 있는 저수지공사들을 더욱 다그침으로써 저수능력을 더욱 확장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가물을 이겨내기 위한 투쟁을 성과있게 진행하며 알곡 850만톤고지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전당, 전군, 전민이 농촌지원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는데서 부식료생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농촌들에서 부식료공장을 잘 꾸리고 잡관목과 벼짚, 강냉이짚들을 썩어서 부식료를 대대적으로 만들어내며 니탄을 많이 캐여 부식료생산에 적극 리용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농작물의 생육기일이 줄어들고 적산온도가 낮아지는 조건에서 적지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품종배치를 잘하며 벼랭상모를 튼튼히 키워 모를 빨리 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 참가자들은 오늘 한랭전선의 혹심한 영향으로 온 세계가 《농업위기》, 《물기근》으로 아우성을 치고있는 이때 전원회의가 변덕스러운 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한데 대하여 긍지높이 지적하면서 회의에서 제시된 과업을 철저히 수행할 한결같은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4월 6일 회의에서는 의정 둘째문제에 대한 토의가 계속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철도부장이 의정 둘째문제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정무원 위원회 위원장들과 부장들, 도당책임비서들과 교통운수부문일군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전원회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18차전원회의 확대회의 결정집행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총화하고 앞으로 교통운수사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전원회의에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발전의 현실적요구와 교통운수사업의 현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철도수송을 비롯한 전반적인 수송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 교통운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수송능력이 현저히 높아진데 대하여 긍지높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나라의 동맥인 철도를 인민경제의 선행관으로 규정하시고 철도운수를 앞세워 발전시킬데 대한 현명한 방침들을 내놓으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교통운수의 발전 방향과 방도를 명확히 밝히시고 그의 강화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1968년 11월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제4기 제18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교통운수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강령적교시를 주시였으며 그후 여러차례에 걸치는 당 및 국가적인 중요회의들에서 혁명적인 대책들을 세워주시고 교통운수부문사업을 계속 현지에서 지도하여주시였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끊임없는 보살피심에 의하여 철도의 전기화와 새 철길 건설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운수기계의 생산기지가 튼튼히 꾸려져 여러가지 현대적인 륜전기재들이 많이 생산됨으로써 철도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최근년간 자동차운수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그동안 새로운 대형자동차들이 많이 생산되고 화물자동차들의 보유대수가 늘어났으며 자동차의 관리운영사업이 현저히 개선되였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또한 수상운수부문에서 대형짐배들이 많이 생산도입되고 선박화물수송능력이 늘어났으며 항들이 전반적으로 개건확장되여 화물통과능력이 현저히 높아졌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3화수송방침에 따라 무산-청진사이 정광수송관과 은률광산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이 건설되였으며 도처에 새로운 삭도들이 일떠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교통운수발전에서 이룩된 이 모든 성과들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끊임없는 배려에 의하여 이룩되였다고 일치하게 강조하였으며 교통운수사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많은 대책적의견들을 제기하였다.

전원회의는 수송사업을 인민경제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전적으로 정당하다는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오늘 교통운수사업을 한계단 더 높이 추켜세워 수송과 공업간의 균형을 더욱 원만히 보장하는것은 전반적사회주의경제발전에서 매우 절실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급격히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수송조직을 혁명적으로 개편하여 있는 수송수단을 최대한으로 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도는 철도에서 당의 집중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석탄, 세멘트, 광석, 량곡, 수산물, 과일 등 물동량이 많은 화물들을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렬차를 세우지 않고 직송하는 집중수송체계를 세운다면 화차의 회귀일수를 줄여 있는 수송수단을 가지고도 훨씬 더 많은 짐을 나를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당의 집중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전원회의는 철도에서 집중수송체계를 세우기 위하여서는 우선 집중화물역들을 잘 꾸리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철도운수부문일군들과 정무원 위원회, 부 일군들이 주인다운 혁명적기풍을 가지고 달라붙어 집중화물역들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요하고 능률을 높일수 있는 역들을 정확히 선정하고 여기에 기중기를 비롯한 능률적인 상하차설비들을 충분히 갖추어주어 짐을 싣고부리는 일을 기계화하며 부리운 짐을 지체없이 나누어주는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집중수송렬차들이 늘어나는 실정에서 이에 맞게 집중수송구간의 역구내를 개조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선 석탄, 세멘트, 목재, 광석 등 다량화물을 직송하는 렬차들이 달리는 역들부터 구내를 확장하고 구내선을 늘이는 사업을 각 도들에서 책임지고 군중적으로 벌려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집중수송사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선로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면서 중량레루를 놓고 견고한 침목을 놓아 선로를 보강하고 철길다지기를 잘함으로써 선로의 강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철도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철도전기화를 계속 힘있게 다그치는 한편 기관차와 화차 생산을 더욱 늘이며 이를 위하여 금속공업부와 건재공업부를 비롯한 련관된 부문들에서 필요한 자재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수리기지들을 튼튼히 꾸리고 기관차, 화차들을 비롯한 철도운수기재들의 수리에 힘을 넣어 지금 있는 륜전기재들의 리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또한 철도운수부문에서 유일사령지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철도통신수단들을 현대화하며 강철같은 규률과 혁명적인 질서를 세워 륜전기재의 능률을 더욱 높이고 무사고정시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철도운수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서는 철도에 대한 공장, 기업소들의 지원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공장, 기업소들의 전용선사업을 개선하며 특히 짐을 싣고부리는 설비들과 작업장들을 잘 꾸리며 창고도 충분히 지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집함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들을 제기하였다.

전원회의는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정전직후인 1954년부터 벽돌수송에 집함을 받아들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면서 집함수송은 짐을 싣고부리는데서 힘든 로동을 없애고 화차의 회귀일수를 줄일수 있게 할뿐아니라 포장재를 절약하며 포장과 수송과정에 생기는 제품의 손상과 류실을 없애고 수송의 문화성도 보장할수 있게 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세멘트, 화학비료, 정광, 량곡을 비롯한 중요물동을 수송하는 단위들에서는 집함을 대대적으로 만들어써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집함수송을 널리 받아들이기 위하여서는 집함을 만드는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철도에서는 만능집함과 비교적 큰 집함을 많이 만들어쓰며 다른 부문들에서는 특성에 맞는 집함과 비교적 작은 집함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집중수송, 집함수송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하여서는 정전직후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체로 기중기를 만들어 평양시복구건설을 훌륭히 해냈던것처럼 자력갱생의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자기 실정에 맞는 기중기를 널리 만들어써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빨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더욱 원만히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철도수송과 자동차운수, 수상운수의 련대수송을 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전원회의는 철도의 부하를 덜어주며 수송의 긴장성을 풀기 위하여서는 자동차운수를 빨리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자동차화물수송량을 늘이는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자동차생산을 더 많이 하여 자동차대수를 더 많이 늘이는 한편 10톤급, 5톤급, 25톤급 각종 자동차생산능력을 배로 증가하고 련결차를 대대적으로 생산 도입하여 있는 자동차들의 수송능력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자동차에 련결차를 달아쓰면 그 수송능력을 훨씬 높이면서도 연유와 로력을 많이 절약할수 있을뿐만아니라 련결차는 어데서나 쉽게 만들어쓸수 있다고 하면서 각 도들에서 군중적운동으로 련결차를 많이 생산하며 당면하게는 1977년 계획에 예견된 련결차를 어김없이 생산보장함으로써 자동차의 대당 짐실이능력을 훨씬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를 위하여서는 특히 각 도들에 다이야생산기지들을 잘 꾸리고 련결차에 필요한 다이야를 많이 생산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자동차수송에서 적재함의 자동하차장치를 널리 받아들이며 성능이 높은 상하차기계들을 많이 생산도입하여 짐을 싣고부리는 일을 적극 기계화할데 대해서와 자동차에 의한 먼거리수송과 가까운거리수송을 배합할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자동차들이 통합되고 그 대수가 늘어나는 새로운 현실에 맞게 수송조직을 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자동차통합관리운영사업을 더욱 개선하여 그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며 빈차운행을 극력 줄이고 자동차운전사들을 많이 양성하여 2부교대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자동차운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계공업부문에서 《승리58》형 자동차를 비롯한 여러가지 자동차와 부속품들을 많이 생산하며 지방들에서 자동차수리기지를 더 확장하며 그를 잘 꾸릴수 있게 공작기계를 생산보장해줄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도로는 자동차의 수명을 늘이고 그 리용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지적

하면서 중량차들이 많이 다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구조물들을 보강하고 도로들에 콩크리트포장과 돌포장을 실정에 맞게 하며 도로정리사업을 잘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3화수송을 널리 받아들이는것은 현시기 긴장된 수송문제를 푸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하면서 도처에서 삭도수송, 콘베아수송, 관수송을 널리 조직할데 대한 과업들을 제기하였다.

전원회의는 우리 당의 운수정책이 모든 분야에 걸쳐 정확히 서있고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가 비상히 높으며 수송전선을 힘있게 지원할수 있는 강유력한 자립적공업토대가 마련되여있는 조건에서 수송사업의 성과는 일군들이 어떻게 일하는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일군들이 주인다운 립장에서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수송조직사업을 잘하여 당의 운수정책을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오늘 수송전선을 추켜세우는것은 이미 점령한 고지들을 공고히 하며 인민경제의 전반적발전을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면서 전당, 전국, 전민이 달라붙어 수송전선을 물질기술적으로, 로력적으로 힘있게 지원할데 대하여 강조하였으며 당면하여 집중화물역을 꾸리고 짐함과 련결차를 만드는 등 수송문제를 풀기 위한 200일전투를 벌릴데 대하여 제기하였다.

전원회의는 교통운수사업을 전망성있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이 부문 과학연구사업과 후비간부양성사업을 강화하며 특히 해상운수부문간부양성사업에 당적주의를 돌려 우수한 일군들을 길러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로동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배양하며 로력조직을 합리적으로 짜고 들어 로력배치를 옳게 하고 특히 로동정량사업을 잘함으로써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정확히 실시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제의에 의하여 자체의 힘으로 양수설비들을 비롯한 수많은 발판개용 설비들을 만들어 충성의 선물을 보내온 전국의 기능공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이름으로 감사를 보내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제의에 의하여 발판개용 물을 더욱 풍족하게 대줄수 있도록 적극 도와준 인민군부대들의 장병들과 황해북도의 황주긴등벌과 신계미루등에서 한랭전선의 영향을 성과적으로 이겨낼수 있도록 부식토용니탄을 기차에 싣고와서 경제선동을 벌려 농장원들을 1977년 영농전투에로 힘있게 고무하여준 청진철도국산하 수송전사들에게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의 이름으로 감사를 보내였다.

전원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연개조 5대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한랭전선으로 인한 가물피해를 미리 막고 우리 농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로 전당, 전군, 전민을 힘있게 불러일으킴으로써 1977년에 알곡 850만톤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하여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유족하게 하며 나라의 위력을 더한층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전원회의는 전당, 전국, 전민이 달라붙어 수송의 긴장성을 풀고 수송사업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일으켜 인민경제의 전반적발전을 원만히 보장하는데서 획기적인 전진을 가져오는 력사적인 계기로 되였다.

전원회의는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정들을 성과적으로 토의하고 4월 6일 페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전원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전원회의가 1977년 9월 5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밑에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는 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전원회의에는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당중앙위원회와 지방 당 일군들, 중앙과 지방의 정권기관과 행정기관 일군들, 중앙과 지방의 과학 및 교육부문 일군들이 또한 전원회의에 참가하

였다.

전원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의정으로 상정되였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친히 작성하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전원회의의 심의에 제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전원회의 심의에 제출하시면서 이 테제를 집필하시게 된 취지와 사회주의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밝혀주시였으며 사회주의제도가 선다음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교육을 발전시킬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는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직접 제출하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대한 토의를 시작하였다.

9월 6일과 7일 회의에서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대한 토의가 계속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의 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또하나의 위력한 사상, 리론적 무기로 되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접수하고 토의하는 전원회의는 커다란 감격과 흥분에 휩싸이고 높은 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이 차넘쳐있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교육을 강화발전시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다그침에 있어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중요발언을 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을 비롯하여 중앙 및 지방의 여러 동지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참가자들은 우리 나라 교육발전과 우리 혁명발전에서 또하나의 획기적사변을 맞이하는 격동된 심정을 안고 토의에 적극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원회의에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제기하는것과 관련하여 그 취지에 대하여 밝히시였으며 사회주의교육을 발전시킬 방향과 방도를 명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이 자본주의제도를 뒤집어엎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잘하여 인민들의 물질생활수준을 높이는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사상의식과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것이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미 마련하여놓은 물질기술적토대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잘 관리하며 그것을 더욱 공고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서는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회의 모든 물질적부는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근로대중이 사회의 주인이라는 정치적자각과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져야 그들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온갖 창조적재능과 적극성을 발휘할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만일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과 문화기술수준을 높이지 않는다면 그들이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바로할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주의건설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뒤걸음질할수도 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그러므로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한 다음에도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동계급은 정권을 잡은 다음에도 오랜 기간 자본주의포위속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게 된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조건에서 외부로부터 자본주의반동사상과 퇴폐한 문화가 침투할수 있으며 내부로부터 봉건사상, 자본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이 머리를 쳐들수 있다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교육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만일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사회주의교육도 아니고 자본주의교육도 아닌 범벅교육을 실시하면 자본주의사상문화적침투와 낡은 사상잔재의 부식작용을 막아낼수 없다고 하시면서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과도기에 사회주의교육을 바로 하여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 혁명화, 공산주의화할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을 강화하는것은 발전된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로동계급이 정권을 쥐였거나 뒤떨어진 식민지, 반봉건적인 나라들에서 로동계급이 정권을 쥐였거나에 관계없이 다같이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고 하시면서 생산력발전수준에 따라 과도기의 기간이 짧고 긴데는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변하기 위한 교육사업은 모든 나라들에서 다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들이 착취

제도를 때려부시고 착취와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을 벌릴 때에는 그들의 혁명적열의가 매우 높지만 착취제도를 때려부시고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되고 일정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닦아놓은 다음에는 혁명적열의가 점차 식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험은 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고 먹고 입고 살 걱정이 없어지게 되면 사람들의 혁명적열의가 떨어지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그러므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에 교육사업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로동계급화, 혁명화, 공산주의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맑스가 1848년에 《공산당선언》을 발표한 때로부터 130년의 력사가 지나갔으며 레닌의 지도밑에 로씨야에서 사회주의10월혁명이 승리한지도 벌써 60년이 지나갔는데 이 기간 국제공산주의운동과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에서는 커다란 전변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특히 제2차세계대전이후 여러 나라들에서 자본의 철쇄를 끊어버리고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많은 나라들에서 피압박인민들이 제국주의의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나 민족적독립을 쟁취하고 사회주의를 향하여 나아가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레닌은 한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할수 있다는 리론을 내놓았으며 맑스는 《공산당선언》에서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회의 력사는 계급투쟁의 력사였다고 밝히고 계속혁명에 관한 리론을 내놓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로동계급이 정권을 쥔 다음에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은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공산주의적인 간육성문제, 사회주의교육문제를 옳게 해결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사람들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적존재로 키우기 위한 사업 다시말하여 사회주의교육문제를 옳게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할수 없다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 사회주의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제3세계나라들, 새로 독립한 대다수 나라들이 사회주의의 길로 나가겠다고 말하고있다는것을 상기시키시였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사회주의가 과학적사회주의냐 비과학적사회주의냐 하는데서는 차이가 있을수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그들이 주장하는 사회주의가 어떤것이든지간에 사회주의가 좋다는것만은 다 인정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금 새로 독립한 나라들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에서 사회주의를 어떻게 건설하는가 하는것을 쳐다보고있다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건설을 더 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교육의 방향과 방도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의 기본과업은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개조하며 그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개조하는것, 다시말하여 사람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봉건주의와 자본주의 사상잔재를 뿌리빼고 그들을 다 열렬한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육성하는것은 사회주의교육에서 해결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라고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개조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계급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사람들이 제국주의자들과 지주, 자본가들의 착취에서 시달리던 지난날을 잊지 말고 착취제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자라나는 새세대들에게 지난날 지주와 자본가들이 로동자와 농민들을 어떻게 착취하였는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려주고 그들이 착취제도를 극도로 미워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모든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개조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것을 철저히 인식시킴으로써 그들이 사회주의제도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온갖 원쑤들의 침해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끝까지 지켜내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데서 혁명적락관주의로 무장시키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혁명의 승리와 공산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미래를 사랑하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교양사업에서 기본은 사람들을 당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는것이라고 밝히시면서 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은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에 대한 충실성은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에서 다시말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고상한 품성에서 표현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을 당에 대한 충실성으로 교양하여야 그들이 당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아무리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졌다하더라도 당에 대한 충실성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에게는 혁명리론으로 무장하고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하였을뿐아니라 당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가지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그러한 사람이 요구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러므로 사회주의교육에서는 사람들을 당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교양하는데 선차적인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교육에서 중요한 문제의 다른 하나는 모든 사람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은 자본주의의 포위속에서 모든것을 자체로 풀어나가는 매우 어려운 투쟁인것만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체적인 립장을 튼튼히 견지하고 창조적정신을 높이 발양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체적립장을 튼튼히 견지하고 창조적정신을 높이 발양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사람들이 높은 기술문화지식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높은 문화기술지식을 소유하여야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없앨수 있으며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없애고 주체적인 립장에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사실을 들어 그것을 례증하시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교육에서 사상교양과 문화기술교양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두 요새 다시말하여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한다고 다시금 밝히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두 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사상교양을 홀시하고 문화기술교양일면만을 내세워도 안되며 문화기술교양을 홀시하고 사상교양일면만을 내세워도 안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개조하는 사업과 그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는 사업을 다같이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특히 혁명의 교대자들에 대한 교육교양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우리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후대들을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워내는가 키워내지 못하는가 하는것은 우리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하는가 완수하지 못하는가 하는 근본문제이라고 지적하시였다.

혁명투쟁은 장기성을 띠는 어려운 투쟁이라고 하시면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혁명의 파녁은 변하지 않았지만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여진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의 혁명위업은 끝나지 않았으며 우리는 아직도 조국을 통일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계속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제국주의의 원흉인 미제국주의자들과 직접 맞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진행하고있는데 대하여서와 우리 조국의 절반땅이 아직도 미제에 의하여 강점되고있으며 남조선은 온갖 반동들의 소굴로 되고있는데 대하여 상기시키시고 남조선에 미제국주의자들이 남아있고 반동들이 남아있는 조건에서 우리는 한시도 투쟁을 멈출수 없으며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을 끝까지 완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혁명의 교대자들을 잘 교육교양하여야만 혁명을 계속할수 있으며 조국을 통일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할수 있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이어 항일혁명투쟁초기에 벌써 혁명이 장기성을 띤다는것을 예견하시고 혁명의 대를 이어갈 후대교육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1930년대초에 시범적으로 고유수에 삼광학교를 세우시고 청년들을 받아 무료로 공부시키시면서 사회주의적교육을 실시하시여 많은 청년들을 혁명가로 키워내신데 대하

여 말씀하시면서 그때 삼광학교에서 공부한 청년들은 거의나 혁명투쟁에 나섰으며 비록 혁명투쟁에 참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반동의 길로 나간 청년들은 한사람도 없었다고 하시였다.

경험은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후대교육을 잘하여야 그들을 열렬한 혁명가로, 공산주의자로 키워낼수 있으며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갈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혁명의 교대자들에 대한 교육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 그들을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교육사업을 잘하자면 이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당의 령도적역할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은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이라고 하시면서 교육사업에서도 당의 지도를 떠나서는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부인하는것은 수정주의라고 지적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로동계급의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이고 사회주의국가의 프로레타리아독재기능을 강화함이 없이는 공산주의로 나갈수 없다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맑스가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로의 과도기에 프로레타리아독재가 필수적이라고 말하였으며 레닌이 프로레타리아독재에 대한 맑스의 리론을 옹호고수하고 쏘베트정권에 전기화를 더한것이 공산주의라는 명제를 내놓은데 대하여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맑스-레닌주의고전가들의 명제를 옳게 인식하고 그를 고수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레닌의 명제에서 쏘베트정권이라고 하는것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의미하는것이며 전기화라고 하는것은 단순히 발전소를 많이 건설하여야 한다는것이 아니라 기술혁명을 하여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고 밝히시였다.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당의 령도적역할을 높여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고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개변하여야 하며 기술혁명을 수행하여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야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사회주의교육사업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하여 그를 더욱 개선강화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을 지덕체를 갖춘 유능한 공산주의건설자로 키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교육사업을 더 잘하여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함으로써 모두가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고 조국을 통일하며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단결하여 온 세상에서 제국주의를 완전히 타승하고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공화국북반부에 사회주의교육제도의 본보기를 꾸려놓음으로써 남조선인민들에게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실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가 사회주의교육을 잘할 때만이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사회주의조국을 옹호보위할수 있으며 모든 사람들을 로동계급화, 혁명화, 공산주의화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다는것을 우리 로동계급과 전체 인민들에게 철저히 인식시키고 사회주의교육을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르치심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끝없는 감격과 기쁨속에 접수한 전원회의 전체 참가자들에게 테제관철을 위한 힘있는 사상리론적무기를 안겨주었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작성하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인 불멸의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주체적이고 혁명적인 교육강령이라고 일치하게 강조하면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토론자들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과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교육, 주체교육의 사상, 리론, 방법을 창시하시고 반세기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교육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행정에서 쌓으신 풍부한 실천적경험과 고귀한 업적을 과학리론적으로 총화하시고 집대성하신것으로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력사적기간에 교육사업에서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위력한 사상, 리론적 무기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또한 테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교육의 위치, 사회주의교육의 사명과 목적, 사회주의교육의 기본원리와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제원칙 그리고 교육의 내용과 방법, 사회주의사회의 교육제도와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문제

등 인간개조, 인간교육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폭넓고 심오하게, 전면적으로 체계화하고있음으로 하여 불멸의 진리성과 생활력을 가진 완벽하고 독창적이며 백과전서적인 위대한 교육강령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것은 혁명적교육리론발전에서뿐아니라 혁명사상발전에서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된다고 토론자들은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근본문제의 하나인 인간개조문제, 자주의식과 창조적능력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육성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할수 있는 길을 환히 밝혀주는 강령적지침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테제에서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질적특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람개조의 합법칙성과 사람개조의 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에 대하여 심오한 철학적해명을 주시였다고 하면서 토론자들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교육학의 불후의 로작일뿐아니라 사람들을 주체의 세계관, 참다운 공산주의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데서 불멸의 력사적기여를 하는 위대한 로작이라고 지적하였다.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테제에서 교육의 내용과 방법, 우리 나라 교육제도의 본질적특성과 우월성,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문제 등을 독창적으로 밝히신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 정당성과 거대한 의의를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내놓으심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에게는 공산주의적혁명인재육성의 옳은 길이 열리게 되였으며 우리는 이 길을 따라 인간개조를 앞세우고 공산주의건설의 두 요새를 다 같이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갈것이며 혁명위업을 종국적완성에로 힘있게 떠밀어나갈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테제는 공화국북반부인민들뿐아니라 미제의 식민지통치와 남조선괴뢰들의 파쑈폭압밑에서 민족의 자주권과 인간의 존엄, 배움의 자유를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을 힘있게 고무할것이며 그들에게 광명한 미래에 대한 신심을 안겨줄것이라고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교육강령이며 사회주의교육의 발전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승의 무기인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받아안고 그 불패의 기치밑에 확신성있게 전진할수 있게 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영광과 행복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심오하고 독창적인 사상리론활동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장구한 기간 심혈을 기울여오신 현명한 령도, 우리 인민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힘있는 사회적존재로 키워주시려는 숭고한 사랑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첫시기부터 교육사업을 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의 하나로 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적교육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무료교육과 혁명교육, 사회주의적교육의 고귀한 모범을 창조하심으로써 주체교육의 새 력사를 펼쳐주시였을뿐아니라 해방후 새 사회 건설의 전기간 언제나 교육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우시여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교육제도를 마련해주시고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교육사업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시여 이땅우에 위대한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를 일떠세우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토론자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장구한 기간 교육분야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리론적으로 일반화하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는 반세기의 기나긴 세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적교육건설에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시여 이룩하신 풍부한 업적과 고귀한 경험이 심오한 사상과 리론으로 집대성되여있으며 우리 인민들과 새세대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그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시기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시는 그이의 한없이 고매한 덕성이 흘러넘치고있다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옹호관철하는것은 가장 영예로운 과업이라고 한결같이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여기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점령을 위한 참된 길이 있으며 교육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리는 확고한 담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테제에서 제시된 과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관철할 굳은 결의들을 다지였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의 옹호관철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테제를 깊이 학습하여 그 속에 담겨져있는 심오하고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완전히 체득함으로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교육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며 모두가 주인다운 립장에 튼튼히 서서 테제에서 제시된 제반과업을 무조건 끝까지 집행하는 동시에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자본주의사상, 봉건주의사상을 비롯한 온갖 낡은 사상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려 주체의 교육사상의 순결성을 고수하여야 한다고 토론자들은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또한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하며 교육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교육에 대한 혁명적관점을 철저히 세우고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도와 방조를 강화함으로써 교육사업의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신임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할것을 굳게 결의하였다.

전원회의에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빛나게 관철하며 우리의 혁명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전원회의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먼저 전당, 전민, 전군이 테제에 대한 학습을 잘하여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드는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테제학습은 깜빠니야식으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하는것이 중요하며 그러자면 각급 당조직에서 테제학습을 잘 조직하고 꾸준히 끌고나가야 한다고 전원회의는 강조하였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는 비단 후대교육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학교후의 성인교육 등 사람들의 일생동안의 교육교양문제가 밝혀져있다고 지적하면서 매 시기의 특성과 과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전원회의는 학교전 교육, 학교교육 시기에 새세대들을 정력적으로 교양하여 그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워주어야 하며 여기에서 교육일군들이 책임성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테제에서 제시된 성인교육이 차지하는 위치와 성인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문제에 중요한 관심을 돌렸다.

성인교육이란 간부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교양사업을 말하는것으로서 사람들이 일생을 변함없이 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며 정치적생명을 빛내이기 위해서는 학교후 성인교육강화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나선다고 강조였다.

전원회의는 성인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엇다 성인들속에서 학풍을 세울데 대하여 특별히 조하였다.

전원회의는 학습도 혁명과업의 하나이며 학습잘하고 조직생활을 잘해야 일생을 두고 혁명가서의 영예를 빛내일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누구지 일생동안 수령을 위하여, 혁명을 위하여 끝지 충실히 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원회의는 혁명적학습기풍을 무보다 중앙으로부터 세워야 하며 학풍을 세우는서 중앙이 모범이 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당정책과 당의 로선잘 알아야 하며 자기의 전문지식에 정통해야 한고 전원회의는 강조하였다.

전당, 전민, 전군이 학습하자! 전원회의는 이게 강조하면서 모든 간부들이 토요학습과 수요연에 빠짐없이 참가하고 1개월강습에 성실히 참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전원회의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문제는 보통교육부문에서나 고등교육부문에서같이 교육의 질을 높이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교원양성기지들을 잘 꾸려야 한다고 하면서 전회의는 후대들을 교육교양하는데서 《원종장》과은 사범교육부문대학들을 더 잘 꾸리는 동시에부문 대학교원들의 자질을 높이고 학생들을 더교육교양하여야 하며 이렇게 하여야 보통교육부에서 교육의 질이 올라갈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또한 교육의 질을 높임에 있어서교교육, 사회교육을 병진시키며 옳게 배합해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미 마련되여있는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영화관, 도서관을롯한 사회교양기관들과 시설들을 옳게 운영하는과 함께 앞으로 이러한 사회교양기관들과 시설을 더 많이, 더 잘 꾸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하다. 이와 함께 전원회의는 가정교육을 강화하위하여 나서는 구체적문제에 대하여도 지적였다.

전원회의는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당과 국가지도를 더욱 개선강화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한높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자연과학분야과학리론수준을 더욱 높임으로써 우리 대학생들선진과학기술로 튼튼히 무장시켜 사회주의건설

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능숙히 풀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전원회의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대한 물질적보장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중앙급대학은 국가에서, 지방대학들은 도에서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테제에서 새롭게 제시된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렸다.

전원회의는 우리 당은 이미 전민인테리화를 실현할데 대한 과업을 내세웠는데 고등의무교육에 대한 문제는 전민인테리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기되는 문제라고 하면서 무계급사회를 실현하자면 전체 인민이 로동계급화되여야 할뿐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테리화되여야 하며 그러자면 고등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공산주의사회는 다같이 일을 잘해야 하는 사회인것만큼 누구나 다 높은 기술과 문화를 가져야 한다고 하면서 온 사회의 로동계급화와 함께 전민을 인테리화하는것은 공산주의건설의 필수적요구이며 전민인테리화를 하지 않고서는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고등의무교육이 결코 먼 장래의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당면하여서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이미 실천을 통하여 그 우월성이 검증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로서의 공장대학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공장대학을 잘 꾸리고 현장에 있는 기술일군들을 교원으로 배치하며 교육강령을 잘 만들고 실험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전원회의는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이와 함께 공장고등전문학교사업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전원회의는 고등의무교육은 시험적단계를 거쳐 점차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렇게 하면 고등의무교육도 성과적으로 실시할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지난 기간 주체교육의 선을 똑똑히 세우고 그 순결성을 철저히 고수하여 범벅교육의 침습을 막아낸 성과와 경험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발전시킬데 대하여 커다란 주목이 돌려졌다.

전원회의는 자본주의교육도 아니고 사회주의교육도 아닌 범벅교육이 얼마나 엄중한 후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우리 당이 지난 시기 범벅교육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자라나는 후대들을 옳게 교양육성할수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전원회의는 범벅교육과 사회주의교육의 계선을 명백히 갈라놓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잘 관철하면 우리의 청소년들과 인민들의 사상성과 기술문화수준이 더욱 높아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 땅우에 가장 선진적인 사회주의교육제도가 이룩되였음을 긍지높이 지적하였으며 무료교육과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860만명의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국가의 혜택으로 마음껏 배우며 행복하게 자라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아직 나라의 통일도 이룩하지 못한 조건에서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국가가 맡아서 공부시키려고 하니 국가의 부담이 매우 크지만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미래를 위하여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희생을 각오하며 후대교육에 힘을 넣어야 하며 연필 한자루, 교과서 한책이 어린이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주는가를 깊이 인식하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무엇이든지 교육적가치가 있는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면 학교에 먼저 보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급 당조직들과 교육기관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각급학교들과 행정기관, 당조직들에서는 테제관철을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적어도 1년에 1번씩 총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각급 당조직들이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관철을 중요한 당적임무로 여기고 사업을 포치하고 집행하고 총화하며 재포치함으로써 성과를 끊임없이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전당, 전국이 동원되여 투쟁한다면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능히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전체 참가자들의 열렬한 지지와 찬동속에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사회주의교육사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지도적지침으로 되는 강령적문헌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전원회의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 력사적인 날을 기념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9월 5일을 교육절로 제정하도록 할것을 결정하였다.

전원회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사업과 전반

적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는 력사적인 계기로 될것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전원회의는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7일 폐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5차전원회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5차전원회의가 1977년 12월 13일에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밑에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는 당중앙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전원회의에는 당중앙검사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정이 통과되였다.

1.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의 심의에 제출할 인민경제발전 제2차7개년(1978—1984)계획에 대하여

2. 조직문제

의정 첫째문제인 인민경제발전 제2차7개년계획초안에 대한 보고를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이 제출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경제발전 제2차7개년계획실행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의정 둘째문제인 조직문제가 전원회의에서 토의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해당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회의가 1977년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당, 정권, 경제 기관, 인민군, 근로단체, 과학, 교육, 문화, 보건, 예술, 출판보도 부문 일군들과 로력혁신자들, 조국에 체류중인 재일조선인축하단 성원들이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에 와있는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였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안들이 토의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76년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과 1977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첫째의안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인 정무원 재정부장이 하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1977년국가예산을 집행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첫째의안에 대하여 많은 대의원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토론들에서는 회의의 심의에 제출된 1976년국가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과 1977년국가예산안을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면서 원안대로 채택할것을 제의하였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1976년국가예산이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으로 인하여 조성된 긴장한 정세하에서도 3대혁명의 기치높이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켜 6개년계획의 미완충고지였던 강철고지와 세멘트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고 전력, 화학, 기계 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6개년계획을 훨씬 넘쳐수행하기 위한 전체 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을 재정적으로 보장하였

다고 긍지높이 지적하였다.

또한 1977년 국가예산은 완충의 해의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실행하고 새 전망계획 수행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갖출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튼튼히 담보하는 혁명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이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크나큰 배려로 일관되여있는 참다운 인민적예산이라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1977년국가예산집행에서 지방예산제를 철저히 관철하는 문제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였으며 지방예산집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을 제시하였다.

회의는 모든 지방에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고 지방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할수 있는 예비가 많다고 하면서 이를 적극 동원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며 봉사시설을 늘이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온 나라 모든 군들에 큰 공장, 기업소들이 거의다 배치되여있는 조건에서 금속공업과 화학공업, 기계공업을 비롯하여 탄광, 광산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의 중앙공업기업소들이 지방공업을 적극 도와준다면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경공업제품들을 훨씬 더 많이 생산할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회의는 1977년에 지방들에서 편의봉사망사업에 힘을 넣어 약수를 가공하고 과실단물을 만드는 등 인민들에게 더 좋고 더 많은 음료를 보장하는 사업을 잘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지방공업과 봉사망사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고 지방예산을 잘 집행하기 위하여서는 지방의 모든 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인민의 충복답게 세간살이를 이악하게 해 나가는 혁명가적기풍을 발휘하여야 하며 인민들에게 더 많은 생활필수품들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깐지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정신을 발양하여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고 봉사망사업을 잘하여 군내인민들의 생활향상과 지방예산집행에서 모범을 보인 평안남도 강서군의 사업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면서 모든 군들이 이를 본받을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회의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원료, 자재와 로력을 극력 아껴쓰기 위한 투쟁을 강화함으로써 계획보다 원가를 2%이상 낮추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7일 오후에는 지방예산제를 잘 집행하기 위한 지역별분과회의들이 진행되였다.

28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3일회의토론들에서는 1977년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수행하고 국가예산을 성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 3대혁명을 계속 힘있게 벌리면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그 집행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대책적문제들을 제기하였다.

회의에서는 첫째의안에 대한 결정《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76년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와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77년 국가예산에 대하여》를 회의에 참가한 대의원 전원찬성으로 각각 채택하였다.

28일 오후부터 의안 둘째문제에 대한 토의에 들어갔다.

중앙인민위원회 법제위원회 위원장이 둘째의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보고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 초안을 랑독하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국토건설과 토지보호관리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교시를 하시였다.

회의에서는 많은 대의원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토론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신 주체적인 사회주의토지법은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을 온갖 자연의 구속에서까지 영원히 벗어나게 하며 국토와 자원을 잘 보호관리하고 계획적으로 개발리용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토지법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회의는 지금까지 토지에 관한 규범으로서 토지개혁법령과 농촌테제, 사회주의헌법에 포함되여있는 일부 조항들이 있고 협동농장들에 토지관리에 대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으로써 전국의 토지를 다스릴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새 토지법을 채택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회의는 우리 나라에서 토지개혁후에는 토지개혁법령으로 땅을 다스려왔으나 농촌경리가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여 협동농장이 나오고 국영농장이 많이 생긴 사회주의하에서는 여기에 맞는 법을 만들어 토지소유관계는 어떻게 되고 토지건설과 토지보호관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것을 새롭게 규정해놓아야만 토지를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다고 지적하였

다.

회의는 국가의 통제적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앞으로 사회주의헌법을 전개하여 사회주의재산관리법, 사회주의로동법 등 여러 분야의 법들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먼저 새로운 토지법을 만들어 최고인민회의에서 토의하고 채택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새로 채택하게 되는 토지법은 토지에 관한 테제와 같은 하나의 토지강령이라고 하면서 여기에는 단순히 토지소유관계만이 아니라 토지관리와 토지건설, 토지보호에 이르기까지 토지와 관련된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서술하였으며 토지라고 하는 개념에 밭갈이하는 땅만이 아니라 도로, 하천, 산림, 간석지까지 포함시켜 폭이 넓게 만들었다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새로운 토지법을 만들고 집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회의는 토지법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토지건설을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진행하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국토건설총계획을 만들고 이에 기초하여 토지를 건설하고 부원을 개발하며 경제를 발전시켜나가야만 국토를 합리적으로 건설할수 있고 반복공사를 미리 막을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여러 부문들에서 저마다 자기 본위적으로 건설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려고 할것이 아니라 도로를 하나 건설하여도 반드시 총계획도에 따라 앞으로 저수지를 만들고 지하자원을 개발할것을 예견하면서 길을 빼야 하며 강하천을 건설하고 공장을 새로 배치하며 부락과 도시를 형성하는 경우에도 국토건설총계획에 예견된 모든것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새로운 토지법을 내오게 되는 중요한 목적의 하나가 국토를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건설하는데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모든 부문에서 국토건설총계획에 의해서만 건설사업을 할수 있다는 깊은 인식을 가지고 국토건설에서 토지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새로운 토지법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토지를 잘 관리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제시하였다.

회의는 토지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사업은 여러 부문이 련대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하면서 땅을 잘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농민들이 제방을 쌓고 강바닥을 파며 하천부지와 밭머리에 꽃버들을 심고 석축을 하는것과 함께 특히 비물에 흙모래가 밀려내려오지 않도록 국토관리부문에서 강 상류지대에 울창한 수림을 조성하고 사방야계공사를 하는 사업과 탄광, 광산들에서 침전지와 버력처리장을 만드는 사업을 다같이 잘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토지보호관리사업이 농민들 혼자의 힘만으로는 될수 없고 련관된 여러 부문에서 힘을 합칠때에만 잘 될수 있으므로 이 사업을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서서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새로운 토지법은 하나의 토지건설강령이라고 하면서 토지건설사업을 잘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토지건설을 잘하는것은 경지면적이 제한되여있는 우리 나라에서 농업생산을 높여 인민들을 잘살게 하고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여 농민들이 헐하게 일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회의는 강조하였다.

또한 비탈밭을 다락밭으로 건설하면 다 좋은 땅으로 만들수 있으며 지금보다 알곡 정당수확고도 몇배 더 높일수 있다고 하면서 모든 비탈밭을 다락밭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농사일을 기계화, 화학화하기 위하여서는 작은 포전들을 다 큰 규격포전으로 만들고 경사지논을 라선형으로 정리하며 논두렁과 밭최뚝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토지정리사업은 단시일내에 할수 없는것만큼 봄과 가을 몇달동안만 할것이 아니라 겨울에도 할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토지정리작업을 더 많이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관개공사를 토지건설사업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기하면서 당면하게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가물피해를 미리 막아내기 위하여 우물을 파고 졸짱을 박는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계속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회의는 전체 인민이 자연개조 5대방침을 받들고 밭관개를 마저 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후 짧은 기간에 10만정보의 밭관개공사를 완공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한 결과 불과 20여일동안에 4만 2천개의 우물과 굴포를 파고 졸짱을 박아 10만정보의 땅에 물을 댈수 있게 하였다고 긍지높이 지적하였다.

이것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조직적력량이 대단하며 우리 인민은 당의 결정을 받들고 한번 나간다 하면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우

는 위대한 혁명정신을 가지고 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이라고 하면서 회의는 이것은 우리 당의 자랑이라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전체 인민이 총동원되여 모내기를 끝낸 다음 소형판개공사를 계속 힘있게 다그치면 1978년 봄까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에서 결정한 40만정보의 밭관개를 다 할수 있으며 계속하여 다락밭건설을 힘있게 내밀면 토지건설을 전면적으로 완성할수 있고 능히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할수 있으며 우리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할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강하천을 종합적으로 개발리용하면 수력자원을 훨씬 더 늘일수 있고 전기도 많이 생산할수 있으며 강하천운수문제도 해결할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토건설총계획에 의하여 강하천 건설을 잘 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살기좋은 락원으로, 아름다운 강산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토론들에서는 최고인민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이께서 마련하여주신 토지법은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 토지문제, 국토건설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완전한 해답을 준 사회주의토지법의 본보기로 되는 력사적문헌이라고 강조하였다.

토론들에서는 새로 채택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토지법을 옹호하고 정확히 집행하는것은 전체 인민의 신성한 의무라고 지적하면서 토지법에 제정된 원칙들과 요구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적토지소유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주체적인 국토건설방침을 빛나게 구현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둘째의안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를 회의에 참가한 대의원들의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가 1977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제6기대의원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경제기관, 인민군, 과학,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출판보도 부문 일군들과 공화국영웅 및 로력영웅들, 로력혁신자들이 방청으로 회의에 참가하였다.

회의에는 조국에 체류중이였던 총련일군대표단, 재일조선녀성대표단이 참가하였으며 우리 나라 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였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안들이 토의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선거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지도기관선거
3. 6개년계획수행총화와 인민경제발전 제2차 7개년(1978—1984)계획에 대하여

회의는 첫째의안을 토의하면서 먼저 전체 로동당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철석같은 의지와 한결같은 소원을 담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석으로 높이 모실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의 제의가 정중히 보고된데 이어 이 제의를 지지하여 많은 대의원들이 연설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모실데 대한 제의는 전체 대의원들과 방청자들의 끝없는 기쁨과 감격을 자아냈다.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한평생을 오로지 조국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자유,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러르며 감동에 넘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를 올리였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모시는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반세기가 넘는 오랜 기간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시면서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끄시여 조국을 광복하시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시였으며 우리 인민을 가장 존엄있고 긍지높은 인민으로 되게 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전체 조선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경모의 표시이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끝까지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와 결의의 표시이라고 강조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국가주석으로 추대할데 대한 정중한 제의를 열렬히 지지찬동하였다.

회의는 항일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백전백승의 조선로동당과 진정한 로동자, 농민의 국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우리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주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장의 절대적인 지지찬동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추대되시였다는것이 엄숙히 선포되자 온 장내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와 우뢰와 같은 박수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전체 대의원들과 회의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억세게 싸워나아갈 한결같은 결의에 넘쳐있었으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수무강하실것을 삼가 축원하였다.

회의는 계속하여 둘째의안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총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국방위원회 부위원장들을 선거하였다.

회의에서는 계속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및 위원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예산심의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안심의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하였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임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부총리, 정무원 위원회 위원장, 부장들을 정무원 총리가 발표하였다.

회의에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국가주권문제에 대하여 완벽한 과학리론적해명을 주고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우리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할 가장 옳바른 길을 명시한 불후의 고전적문헌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연설은 전체 회의 참가자들에게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과 인민정권건설의 진정한 주인된 끝없는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연설을 격동된 심정으로 열렬히 지지환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연설을 끝마치시자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러러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문헌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를 확고한 지침으로 하여 조선혁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새로운 각오를 굳게 가다듬었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을 높이 받들고 그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철저히 구현할것을 다짐하는 토론들이 있었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의 심오한 내용과 그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격동된 심정으로 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연설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뿐아니라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승리하고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나아가고있는 우리 시대의 요구와 생활이 제기하는 절박한 문제들에 해답을 준 력사적문헌이라고 한결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에 기초하시여 정권의 본질과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해명을 주시고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은 근로인민대중이며 인민정권은 철저히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 혁명적리론과 인민정권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국가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탁월한 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고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능력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다고 토론자들은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연설은 주체적인 혁명정권건설의 진로를 과학적으로 밝히고 로동계급의 정권문제에 관한 리론

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킨 고전적문헌이며 우리 인민정권의 강화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강령적지침이며 사회주의제도를 비방중상하는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반동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준 계급투쟁의 예리한 사상리론적무기이라고 지적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연설은 혁명과 건설에서 정권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리론적으로 심오히 해명하였으며 인민정권의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었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의 혁명전통에 토대하여 몸소 세우신 주체적인 혁명정권은 우리 인민들에게 나라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확고히 보장하여주고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있는 가장 인민적인 정권이며 전진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와 난관을 물리치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을 일떠세운 가장 생활력있는 자주적인 사회주의정권이라고 지적하였다.

토론자들은 우리 인민정권이 이룩한 업적과 오늘 인민정권하에서 누리고있는 우리 인민의 끝없는 영광과 행복은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드시고 반세기에 걸치는 오랜 기간 안팎의 온갖 원쑤들의 악랄하고 음흉한 책동을 짓부시면서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이며 우리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격조높이 지적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하신 연설은 비할바 없이 우월한 우리 인민정권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려가는 우리 인민의 영예감과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고 그들을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봉우리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로 힘차게 고무추동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회의에서 토론자들은 사회주의정치학설을 집대성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연설을 깊이 연구학습하고 그를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빛나게 구현하며 특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반관료주의투쟁방침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인민정권과 정권기관일군들이 인민의 충복으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다해나갈것을 일치하게 다짐하였다.

토론자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연설에서 펼쳐주신 새로운 전망목표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거창하고 웅대한 목표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이라고 강조하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적기치높이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승리적으로 점령할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혁명정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감으로써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나갈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셋째의안인 6개년계획수행총화와 인민경제발전 제2차7개년(1978—1984)계획에 대하여 정무원 총리가 보고하였으며 많은 대의원들이 이에 대한 토론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토론도중에 제2차7개년계획의 주요목표의 하나인 알곡 1,000만톤고지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교시를 하시였다.

토론들에서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6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고 새 전망계획의 웅대한 과업실행에 들어서게 되는 크나큰 자부심과 새로운 진군길에 나서는 전투적각오가 힘차게 피력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6개년계획을 인민경제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완전히 수행하는 력사적인 승리를 이룩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진도상에서 또 하나의 높은 령마루를 점령하였다고 자랑스럽게 지적하였다.

토론들에서는 6개년계획기간에 공업과 농촌경리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커다란 비약이 일어나고 3대기술혁명수행과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빛나는 승리가 이룩되여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인민경제의 기술발전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확고히 올라섰으며 우리 인민의 생활은 더욱더 유족하고 문명하게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회의에서 토론자들은 오늘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심각한 경제적파동과 위기를 겪고있는 때에 아무런 곡절도 없이 인민경제를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의 높은 고지를 점령한것은 우리의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을 힘있게 보여준다고 긍지높이 말하였다.

6개년계획의 휘황한 사회주의경제건설강령이 빛나게 수행된 결과에 우리 인민은 어떤 환경에서도 필요한 모든 물질적수요를 자체의 힘으로 능히 원만히 해결할수 있고 나라의 정치적독립과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할수 있는 위력한 힘을 가지게 되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더 높은 령마루를 향하여 신심에 넘쳐 힘차게 전진할수 있게 되였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달성한 이 빛나는 승리는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끊임없는 배려에 의하여 이룩되였다고 토론자들은 감동깊이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6개년계획이 승리적으로 완수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앞에는 사회주의건설의 더욱 웅대한 전망, 제2차7개년계획의 휘황한 설계도가 펼쳐지게 되였다고 하면서 최고인민회의에서 제2차7개년계획을 채택하게 되는것은 우리 혁명의 발전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획기적사변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토론자들은 최고인민회의의 심의에 제출된 제2차7개년계획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하고있는 주체적인 사회주의경제건설리론을 전면적으로 구현하였으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가 일정에 오른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와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불굴의 기상과 영웅적기개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혁명적이고 동원적인 계획이며 거창하고 웅대한 경제건설강령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찬동하였다.

새 전망계획기간에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롭게 밝히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의 3대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사회주의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한계단 더 높임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국면을 열어놓게 될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토론자들은 제2차7개년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할 굳은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회의에서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3대혁명로선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는 여기에 제2차7개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하는 결정적담보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 새 전망계획에 예견된 모든 고지들을 점령함으로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위력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시위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또한 우리 나라에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는 대단히 위력하며 그 생산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하면서 우리 인민이 힘을 넣어 마련하여 놓은 이 귀중한 밑천을 최대한으로 효과있게 동원하여 새 전망계획과제를 훌륭히 수행하기 위해 정치사업과 조직사업을 잘하며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서와 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하고 절약제도를 강화할데 대하여 힘주어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이 발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모자라는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제2차7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앞당겨점령하기 위하여 천리마정신,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힘차게 전진할것을 다짐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의 보고를 청취하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전국의 각 선거구에서 선출된 모든 대의원들의 자격을 인정하는 결정을 대의원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제2차7개년(1978—1984)계획에 대하여**》를 회의에 참가한 대의원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는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과 절절한 소망을 그대로 반영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시였다. 이것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과 온 민족의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충성심의 확고한 표시이며 공화국의 무궁한 륭성과 번영을 위하여,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더없는 영광이며 전민족적인 대경사로 되였다.

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연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는 새형의 사회주의정권, 인민정권과 사회주의정치에 관한 리론을 체계정연하게 집대성한 불멸의 총서이며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이 혁명투쟁에서와 정권건설에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며 우리 인민을 새로운 영웅적투쟁과 위훈에로 고무하는 전투적기치로 되였다. 이 고전적문헌은 그 내용의 심오성과 불패의 진리성, 거대한 혁명적영향력으로 하여 자주성을 지향하여나가는 인류의 전진운동을 더욱 힘있게 떠밀어주는 우리 시대의

불후의 기념비적로작으로서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해방투쟁사에 찬란히 기록되여 영원토록 빛을 뿌리게 될것이다.

또한 회의에서 채택한 인민경제발전 제2차7개년계획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와 공산주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장엄한 전진운동에서 또하나의 새로운 리정표로 되는 휘황한 설계도로서 이 웅대한 전망목표가 빛나게 실현될 때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위력이 더욱 불패의것으로 다져지고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국면이 열리게 될것이다.

회의의 전과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워주시고 이끄시는 공화국정권에 대한 전체 인민의 지지와 신뢰는 확고부동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향하여 확신성있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힘찬 진군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증명하였으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철통같이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다시금 힘있게 시위하였다.

참으로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끝까지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와 신념을 다시한번 힘있게 보여준 단결의 회의로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반공리론의 무기고를 짓부시고 참다운 인민의 정치, 공산주의정치의 붉은 기발을 더욱 높이 휘날린 승리의 회의로서,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보다 높은 고지점령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킨 회의로서 영광에 찬 조선혁명의 년대기우에 또 하나의 찬란한 페지를 아로새기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서해지구수산부문열성자회의가 진행되였다

서해지구수산부문열성자회의가 1977년 3월 21일과 22일 이틀동안에 걸쳐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더욱 유족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기 위하여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해 11월 동해지구수산부문열성자회의를 소집하시고 동해지구수산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명한 조치를 취해주신데 뒤이어 이해에 서해지구수산부문열성자회의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날동안에 걸쳐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안의 수산부문일군들과의 협의회들을 가지시고 서해수산업의 구체적실태를 깊이 료해하신데 기초하시여 서해지구수산부문열성자회의를 소집하시였다.

회의에는 서해지구의 수산사업소 지배인들, 수산협동조합 관리위원장들, 공장, 기업소 지배인들, 공장, 기업소 부업수산작업반 반장들, 물고기잡이와 관련된 시, 군 행정위원회 위원장들, 해당단위의 당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정무원 위원회 위원장 및 부장들, 서해지구의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도행정위원회 위원장들, 수산부문지도일군들이 참가하였다.

21일 오전9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가 온 장내를 뒤흔들었으며 언제나 마음속깊이 흠모하며 높이 우러러모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 뵈옵게 된 회의참가자들의 끝없는 감격과 기쁨이 끓어넘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전체 회의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는 혁명발전의 매시기, 매 단계마다 서해수산업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끊임없는 지도와 크나큰 배려를 돌리시여 인민들에게 사철 다양한 물고기를 공급할수 있도록 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차넘치고있었다.

열성자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해수산업을 발전시킬데 대하여 주신 교시 집행정형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보고에 이어 많은 동무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지난날 뒤떨어지고 보잘것없던 우리 나라 수산업을 오늘의 높이에까지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대하여 한

결같이 강조하면서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일상적인 지도와 깊은 배려가 있음으로써만 서해수산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릴수 있었으며 서해의 자연지리적조건에 맞게 중소어업과 연안세소어업을 발전시켜 물고기를 비롯한 수산물생산량을 늘이여 인민들에게 공급할수 있게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성자회의에 앞서 협의회와 담화들에서 주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서해에서 물고기를 비롯한 수산물의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도와 가능성들을 진지하게 탐구하였으며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과 수산업발전의 현실적요구를 깊이 헤아리시고 서해수산업의 현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물고기에 대한 인민들의 늘어나는 수요를 더욱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서해지구의 수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지도적지침으로 되는 강령적교시를 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지금 세계가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혹심한 식량난과 음료수난을 겪고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이상기후상태가 계속되고있는 조건에서 식량문제와 함께 인민들의 부식물문제를 더욱 원만히 해결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바다를 낀곳에서는 바다를 잘 리용하고 산을 낀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할데 대한 방침대로 물고기를 비롯한 바다의 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인민들의 식생활을 더욱 풍족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산부문일군들과 당 및 행정, 경제 기관 일군들이 높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가지고 인민들을 더 잘먹이고 더 잘살게 하기 위하여 물고기를 대대적으로 잡아내기 위한 조직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하며 아래에 내려가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개선대책을 세워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혁명가적기풍을 발양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중소어업을 중심으로 수산업을 발전시키고있는 서해에서 고기배들의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하여서는 어장이 가까운 지대들에 이동작업을 하는 고기배들이 리용할수 있는 수산기지들을 꾸리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전망성이 있는 지대에 수산기지를 꾸리며 새로 꾸리는 수산기지들에는 배를 붙이고 고기를 받을수 있게 잔교나 옹벽을 만들고 기중기를 놓으며 간단한 가공시설을 갖출데 대하여서와 연유, 소금, 물, 부식물 등 필요한 물자들을 배에 충분히 공급할수 있도록 창고들을 건설하고 배수리를 위한 기계들도 차려놓으며 문화후생시설들도 알뜰하게 꾸릴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렇게 하면 생산지휘도 더 잘 할수 있고 배의 가동률도 높여 훨씬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수 있을뿐아니라 어로공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줄수 있게 된다고 하시면서 수산기지를 꾸리는 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물고기잡이전투를 대대적으로 벌리기 위하여 수산사업소들의 세소어업작업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공장, 기업소들과 바다를 낀 협동농장들에 부업수산작업반들을 더 많이 만들며 각 도소재지들과 주요 군소재지들에도 수산작업반을 널리 조직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물고기잡이전투를 군중적운동으로 벌리기 위하여서는 이에 필요한 고기배와 어구를 충분히 보장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업수산작업반이 있는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여러가지 고기배들을 자체로 무으며 지금 있는 어구공장을 확장하는 한편 주요 도시들과 로동자구들에 어구공장들을 더 만들고 어구생산가내작업반도 조직하여 도처에서 어구들을 다양하게 생산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배수리기지들을 더 튼튼히 꾸리고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수리하며 어로작업이 계속되는 여름철에는 이동수리선박이 고기배를 찾아다니면서 수리해주도록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물고기공급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하여 이미 있는 수산물직매점들을 더 잘 운영하며 군소재지와 로동자구, 공장, 기업소들에 수산사업소직매점과 수산작업반들의 련합직매점들을 많이 만들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수산물가격을 정확히 제정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이와 함께 잡은 물고기를 소비지들에 제때에 실어나를수 있게 서해안 각 도의 수산관리국과 지방수산관리처산하에 자동차운수대를 조직하도록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또한 양어사업은 원가를 적게 들이고 많은 물고기를 얻는 중요한 방도라고 하시면서 각 도들에서 간석지를 막고 양어장을 대

대적으로 전설하여 새우, 숭어 등 여러가지 물고기를 기르며 천해양식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산업에 대한 기술적지도를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술자양성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기사, 기수 대렬을 늘이고 경험교환회와 잡지들을 통하여 선진기술을 널리 일반화하며 해양연구, 어구연구, 선박연구, 어족에 대한 연구, 양식에 대한 연구 등 서해에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선진경험을 적극 받아들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수산부문에 각종 부속품과 자재들을 잘 공급해주며 후방공급사업을 더욱 개선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과학적인 어로체계를 세우며 물고기잡이를 현대화, 과학화할데 대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면서 특히 배들을 현대화, 동력화하며 큰 배들에 어군탐지기를 갖추고 무선통신지휘체계를 세울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물고기가공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랭동, 절임, 말리우기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물고기를 적극 가공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전국이 농촌을 지원하듯이 농업과 공업 부문들이 수산부문을 적극 도와주어 수산업발전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해지구수산부문열성자회의에서 하신 교시는 우리 나라 서해의 어황조건에 맞게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한층 더 강화하고 어로작업을 전군중적으로 벌려 나라의 수산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우며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데서 강령적인 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를 지도하시는 기간 서해의 어로작업에 쓰이는 고기배와 어구의 모형들과 서해에서 잡히는 여러가지 종류의 물고기진렬품들을 돌아보시였다.

전체 회의참가자들은 열성자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물고기잡이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며 그이께서 서해지구수산부문에 제시하신 새로운 전투목표를 빛나게 수행할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농업부문일군협의회가 진행되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농업부문일군협의회가 1977년 8월 17일과 18일 이틀동안에 걸쳐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정무원 위원회 위원장 및 부장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는 또한 각 도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도당위원회 책임비서들, 도 인민위원회 경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및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들, 중요농업지대의 시, 군 인민위원회 위원장 및 시, 군당위원회 책임비서들, 시, 군 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들, 농업부문과 관련된 중요 공장, 기업소의 당 및 행정 책임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이해 영농사업정형을 중간총화하고 이해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며 1978년도 농사차비를 다그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회의에서는 각 도 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들이 이해 영농사업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보고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해 알곡 850만톤고지를 점령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전당, 전군, 전민이 떨쳐나서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을 이겨내고 모든 지역, 모든 곡종에 걸쳐 풍년작황을 이룩하여놓은데 대하여 만족스럽게 지적하였다.

오늘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농사를 망치고있는 때에 우리 나라에서 이처럼 농업생산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할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끊임없는 배려의 결과이라고 보고자들은 한결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해에 농업전선을 주공전선의 하나로 정해주시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을 친히 마련하시여 한랭전선

의 영향을 이겨내고 알곡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킬 명확한 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으며 새해벽두부터 각지 농촌들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나가시면서 온 나라가 달라붙어 지하수혁명방침을 관철하여 가물피해를 미리 막아내며 모내기와 김매기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제철에 실속있게 하도록 힘있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공업이 농업을 지원할데 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화학비료와 농약 등 영농물자와 농기계들을 제때에 생산공급하도록 대책을 세워주시였으며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 농업근로자들과 농촌지원자들은 높은 혁명적열의와 무한한 헌신성을 발휘하여 이해의 불순한 기후조건을 이겨내면서 밭랭상모와 강냉이영양단지모를 일찌기 튼튼하게 키워 모내기와 강냉이심기를 례년보다 10～15일 앞당겨끝냈으며 김매기를 비롯한 논밭관리를 알뜰히 하여 모든 포전, 모든 이랑마다 층하없이 잘 가꿈으로써 알곡 850만톤의 고지를 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내다볼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협의회에서 훌륭한 작황을 이룩한 이해 영농사업을 잘 결속하며 1978년도에 더 높은 알곡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갖추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는 중요한 교시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해에 례년에 없는 풍작을 이룩하였지만 아직도 알곡증산예비는 많다고 가르치시면서 벼, 강냉이, 밀, 보리, 콩, 감자, 고구마 등 주요곡종들의 정당수확고를 더 높일 예비를 찾아주시였으며 이에 기초하시여 각 도별로 당면하여 점령하여야 할 알곡증산목표를 제시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은 기계화의 시대, 화학화의 시대이며 전국이 달라붙어 농사일을 도와주고있는 조건에서 찾아낸 알곡증산예비를 실현하는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물이란 일정한 한계안에서 비료를 주면 그만큼 소출이 더 나게 마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농촌에 질소비료, 린비료, 카리비료 등 3요소비료를 구색에 맞게 더 많이 생산공급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으며 살초제와 살충제 생산도 적극 늘일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화학비료를 생산하는 공장들에서 새 시비년도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으며 이를 위하여 설비보수정비사업을 실속있게 하며 금속공업부문에서 이에 필요한 각종 재질의 규격강재를 책임적으로 보장해줄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협의회에서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다그치기 위해서도 그렇고 알곡생산이 빨리 늘어나는데 맞게 농촌물동을 제때에 나르기 위하여서도 뜨락또르와 자동차 생산을 더욱 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리마》호와 《풍년》호 뜨락또르생산을 계속 늘이는 한편 《전진》호와 《충성》호 뜨락또르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뜨락또르공장들을 더 잘 정비보강하며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평양시, 평안북도, 황해남도 등 여러 도들에 《전진》호와 《충성》호 뜨락또르조립공장들을 꾸리고 기관들과 부속품들을 가져다가 자체로 조립해쓸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자주》호와 《건설》호 자동차생산을 더욱 늘일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에 필요한 자재와 협동생산품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대형자동차생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자체로 해결하는 주인다운 기풍을 높이 발휘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협의회에서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지어 알곡소출을 더욱 늘일 구체적인 방도들에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식토를 많이 내면 봄날에 기온이 내려가도 랭상모판의 온도를 보장할수 있다고 가르치시면서 봄날씨가 류달리 찼던 이해에 농사가 잘된것이 부식토를 대대적으로 내여 밭랭상모와 강냉이영양단지모를 많이 받아들인데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랭전선의 영향이 계속 미치고있는 조건에서 지방당조직들과 농업지도기관들에서 당면하여 풀베기에 첫째가는 관심을 돌릴데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하천부지와 야산에 가득찬 풀을 대대적으로 베여들이며 니탄도 캐고 톱밥, 잡관목 같은것도 썩여 부식토를 많이 만들어야 하며 집집마다 돼지를 길러 두엄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8년도농사에서 더 높고 안전한 수확을 거두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 및 제13차 전원회의 결정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 1978년 4월안으로 나머지 18만정보의 밭관개를 마저 완성하기 위한 투쟁을 벌릴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부터 우물을 더 팔데는 더 파고 졸짱을 더 박을데는 더 박으며 물주머니도 만들고 물길도 째며 저수지공사도 다그치는 동시에 이미 있는 저수지와 물주머니들에 물을 채우기 위한 대책을 세울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랭전선의 영향이 지속되고있는 조건에서 적지적작원칙에 따라 품종배치를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종자채취사업을 잘하고 종자보관 관리사업을 철저히 하며 각 도의 책임일군들이 종자관리소에 자주 나와 종자관리사업을 지도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 지방에서 이해에 화학비료를 준 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분석하시고 1978년농사에서 과학적시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기 위한 과업들을 제시하시면서 질소와 린, 카리의 3요소비료를 과학적리치에 맞게 줄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에서 화학비료를 많이 주는 조건에서 논밭에 유기질비료를 충분히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록비생산을 많이 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을철에는 땅이 놀기때문에 가을걷이를 한 다음 논밭에 록비를 많이 심었다가 갈아번지면 좋은 퇴비로 된다고 가르치시면서 각급 당조직들과 정권기관, 농업지도기관들에서 록비생산을 틀어쥐고 힘있게 내밀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록비종자를 많이 채취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발랭상모와 강냉이영양단지모를 많이 하는 실정에서 염화비닐박막을 더 많이 생산하며 이미 있는 염화비닐박막에 대한 보관관리사업을 알뜰히 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협동농장들에서 지방자재를 리용하여 작업반마다에 비료창고를 짓고 화학비료를 제때에 받아다 보관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해에 례년에 없는 풍작이 이룩되여 알곡생산량이 훨씬 늘어나는 조건에서 량곡보관관리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농촌들에서 지방자재를 효과적으로 동원하여 쌀창고를 지으며 국가에서는 그에 필요한 세멘트를 보장해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으며 강냉이는 이삭채로 뒤주창고에 보관하는것이 좋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알곡생산에 힘을 넣는것과 함께 담배, 호프, 박하 등 공예작물생산을 잘할데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특히 담배농사정형을 깊이 료해하시고 그 수확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담배건조장을 더 건설하며 따들인 담배를 빨리 말리우는 조직사업을 잘하며 2초생산을 잘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각지 농촌들에서 뽕밭관리를 잘하여 누에를 많이 칠데 대하여서와 약초재배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해 콩농사정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콩의 수확고를 높이기 위하여서는 좋은 종자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콩품종개량사업을 전당적,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리며 각 도에서 채종포를 만들고 좋은 콩종자를 많이 마련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농업생산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서는 농업부문에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농기계연구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실정에 맞고 성능이 좋은 벼수확기, 벼모내는기계, 살초제분무기 등을 만들어내고 습도계, 물온도계도 많이 만들어주어야 하며 당조직들이 농업과학자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품종연구사업을 비롯하여 생물성장촉진제와 랭해방지, 과일나무들의 꽃망울을 얼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한 연구사업들을 활발히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잘된 곡식을 제때에 거두어들이며 이해 영농사업을 실속있게 총화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랭전선의 영향이 계속 미치고있는 조건에서 언제 우박이 내릴지 모른다고 하시면서 최근 몇해동안의 경험에 의하여 우박이 내리는 지역부터 가을을 먼저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으며 이해에 수확이 더 늘어나 가을걷이에 품이 더 들게 될것이므로 기계공업부문에서 벼수확기를 많이 만들어 농촌에 공급해주는 한편 이해 가을에도 협동농장들의 가을걷이전투를 지원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해농사에서 포기수를 정확히 보장하며 과학적시비체계와 물관리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을 비롯하여 주체농법을 관철하는데서 이룩한 경험을 구체적으로 총화함으로써 1978년도농사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협의회에서 하신 교시는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고 좋은 작황을 이룩한 이해 영농사업을 성과있게 마감짓고 1978년도에 새로운 더 큰 농업생산성과를 가져오기 위한 길을 환히 밝혀주는 지도적지침으로 되며 우리 농업근로자들과 전체 인민들을 보다 높은 알곡고지 점령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켜주는 고무적기치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전국기계공업부문열성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국기계공업부문열성자회의가 1977년 8월 19일과 20일 이틀동안에 걸쳐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회의에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정무원 위원회 위원장들 및 부장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는 또한 중앙기관들의 당 및 행정경제일군들, 각 도당위원회 책임비서들과 도인민위원회 경제위원회 제1부위원장들, 기계공업부문의 열성자들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중요 공장, 기업소 당 및 행정 일군들 그리고 기계공업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6개년계획기간의 기계공업부문사업을 총화하고 새 전망계획기간에 기계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요한 결론을 하시였다.

언제나 마음속깊이 흠모하여마지않는 경애하는 수령님을 몸가까이 모시고 수령님의 따뜻한 가르치심을 받으며 나라의 기계공업발전의 새로운 전망문제를 토의하게 되는 회의참가자들의 끝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장내는 뜨겁게 끓어번지였다.

회의에서는 중요기계공장 지배인, 기사장들을 비롯한 많은 동지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토론들에서는 지난 기간 우리 인민이 인민경제의 발전과 기술적진보의 기초인 자체의 강력한 기계제작공업을 창설해놓은것은 중공업건설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라고 긍지높이 지적하면서 이 자랑찬 승리는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끊임없는 보살피심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다고 한결같이 강조하였다.

해방전에는 간단한 농기구 하나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던 우리 나라에서 오늘은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대형기계들과 정밀기계도 만들수 있게 되였으며 개별적기계설비들뿐아니라 현대적공장들의 설비를 종합적으로 생산하여 주체공업의 위용을 온 누리에 떨칠수 있게 되였다.

오늘의 이 자랑찬 현실을 가져오시기 위하여 전쟁의 불비속을 헤치시며 기계공장들의 터전을 몸소 잡아주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을 이끄시여 전후의 그 엄혹한 난관을 물리치시고 이 땅우에 자립적민족공업의 핵심인 강력한 기계공업의 토대를 튼튼히 꾸려주시였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매 단계, 매 시기마다 기계공업발전의 명확한 방향과 방도들을 가르쳐주심으로써 사회주의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우리 기계공업이 자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도록 이끌어주시였다.

특히 6개년계획수행기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희천땅에 새 기술혁신의 봉화를 지펴주시고 쉬임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그 불길이 온 나라에 세차게 타오르게 하시여 6개년계획의 높은 고지 점령을 위한 첫돌파구를 열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얼마전에 기계공업부문일군협의회를 마련하시고 6개년계획기간에 기계공업부문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에 기초하여 새 전망계획기간에 우리의 기계공업발전에서 새로운 더 큰 비약을 일으킬 휘황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또다시 전국기계공업부문열성자회의를 마련하여주신데 대하여 감동에 넘쳐 지적하면서 토론자들은 회의가 가지는 커다란 의의에 대하여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열리게 된 기계공업부문열성자회의는 나라의 기계공업을 한계단 더 높이 끌어올려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을 더욱 힘있게 추동하여 새 7개년계획을 수행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하여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고조를 불러일으키는 획기적인 계기를 열어줄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토론자들은 또한 회의는 기계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기풍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신심과 투지에 넘쳐 새 전망계획수행에 힘차게 떨쳐나서게 하는 커다란 고무적힘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토론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미 열성자회

의에 앞서 협의회에서 주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그동안 기계공업을 더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기 단위들에서 탐구한 새로운 예비와 가능성들을 내놓았으며 수많은 창발적의견들을 제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서고있는 우리 나라 기계공업의 현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새 전망계획기간에 기계공업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휘황히 밝혀주시는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먼저 전국기계공업부문열성자회의 참가자들을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와 자신의 이름으로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8년부터 새로운 7개년계획을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7개년계획의 웅대한 과업을 수행하는데서 기계공업부문앞에 중요한 임무가 나서고있다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계공업은 공업의 심장이며 기술혁명의 기본이라고 하시면서 기계공업부문에서 일을 잘하여야 기술혁명을 성과있게 수행할수 있고 모든 공업을 제대로 움직여나갈수 있으며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를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고 말씀하시였으며 새 7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것도 결국은 기계공업부문에서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데 많이 달려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가 새 전망계획을 토의하기에 앞서 기계공업문제를 먼저 토론하는것도 바로 기계공업의 이러한 역할과 관련되여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전에는 우리 나라에 기계공업이 하나도 없었으며 해방후 비로소 기계공업을 창설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동안 우리 나라 기계공업은 이 부문 로동자, 기술자, 과학자들의 투쟁과 전체 인민의 열성적인 지원밑에 비약적으로 발전하여왔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 기계공업의 력사는 짧지만 해방후 매우 큰 일을 해놓았다고 하시면서 해방후 짧은 력사적기간에 이처럼 큰 발전을 이룩한것은 영웅서사시이며 우리의 자랑,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였으며 우리 인민이 자신의 손으로 마련한 위력한 기계공업의 힘을 가지게 된것은 우리의 자부심과 긍지를 더욱 높여준다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없는 페허우에서 공작기계라는 이름도 모르고 첫시작을 했던 우리 인민이 오늘은 해마다 수만대의 공작기계, 수만대의 자동차와 뜨락또르를 생산하고있으며 공작기계도 대형, 중형, 소형을 다 생산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오늘 2.5톤, 5톤, 10톤, 25톤짜리 등 크고 작은 여러가지 자동차와 《충성》호, 《전진》호, 《천리마》호, 《풍년》호 등 우리 나라 농경지에 알맞는 각종 뜨락또르로부터 전기기관차, 디젤기관차와 여러가지 종류의 화차들, 각종 대형굴착기와 착정기, 대형불도젤과 중소형불도젤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에서 필요한 현대적기계들을 자체로 만들어내고있으며 각종 전동기, 압축기, 랭동기도 만들고 10만크바대형변압기와 3천마력짜리 배기관도 마음먹은대로 다 만들어내고있다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계렬생산을 하는 기계들만 아니라 대상설비들도 많이 생산한다고 하시면서 용광로, 해탄로, 회전로, 소결로, 전기로, 압연기, 발전설비도 만들고 건재공업, 건설부문, 경공업부문, 수산부문, 농업부문 등에 필요한 기계들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기계공업부문에서 이와 같은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한 기초를 창조해놓은데 대하여 자랑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씀하시였으며 이런 튼튼한 기계공업을 창설하여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다할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였다고 강조하시면서 기계공업부문의 로동자, 기술자, 과학자들에게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와 자신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기간 기계공업부문에서 해놓은 일이 아주 많고 자랑할만한것이지만 아직 이것은 기계공업의 기초를 닦아놓은데 불과하며 앞으로 할일이 더 많다고 강조하시면서 이미 이룩한 승리에 자만하지 말고 계속 천리마의 정신으로 전진해야 새로운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7개년계획은 매우 방대한 과업으로서 우리 당의 전통적인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점령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새로운 7개년계획기간에 기계공업부문에서 수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7개년계획을 성과있게 수행하자면 기계공업부문에서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우선 공작기계생산에 큰 힘을 넣을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먼저 대형공작기계생산을 늘이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를 위하여 중요한것은 대형공작기계생산기지를 더잘 꾸리는것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형공작기계생산설비들을 설치할수 있는 건물도 있고 주물시설과 단조시설도 다 갖추어져있는 룡성기계공장에 대형공작기계직장을 꾸리기 위한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와 함께 대형공작기계생산설비들을 빨리 조립하고 지금부터 대형공작기계들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공구와 지구도 준비하고 설계도 마련함으로써 이해안으로 새로 대형공작기계시제품을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으며 대형공작기계생산기지를 급속히 확대하고 그 생산을 끊임없이 늘여나가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형공작기계와 함께 일반공작기계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 공장을 건설하려고 하거나 지금 있는 공장을 확장하려고 하여도 공작기계가 있어야 하고 매개 군마다에 부속품생산기지를 꾸리려고 하여도 수많은 공작기계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증대되는 여러가지 공작기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특히 기계공업부문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미 달성한 공작기계생산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새로운 7개년계획기간에 보다 높은 공작기계생산목표를 대담하게 내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실천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작기계는 모든 기계를 만드는 기본생산수단이라고 거듭 말씀하시면서 중소형공작기계도 더 많이 만들고 자동화된 특수공작기계생산도 적극 늘여 채취공업, 금속공업, 건재공업, 경공업과 농업, 수산업, 건설, 운수, 보건 부문 등 도처에서 요구하는 여러가지 공작기계를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 시기와 같이 공작기계도 계속 새끼쳐야 하겠지만 지금은 있는 공작기계생산능력을 확장하며 기술개건을 하고 자동화, 프레스화를 하며 설비 관리와 보수 사업을 잘하는 등으로 있는 밑천을 가지고 공작기계생산을 늘이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뜨락또르생산문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먼저 금성뜨락또르공장에서 뜨락또르를 한해에 수만대씩 생산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우리 나라에 뙈기밭이 많고 남새밭도 많으며 과수원도 30만정보나 되는 실정에 비추어 《전진》호뜨락또르를 계속 생산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림업용 뜨락또르조립공장을 새 7개년계획기간안에 하나 꾸리고 《풍년》호뜨락또르기관을 만들어주어 해마다 많이 생산하여쓰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회의에서 자동차생산을 늘일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제일 많이 요구되는것이 《건설》호자동차라고 하시면서 새 7개년계획의 년도별 생산목표를 제시하여주시였으며 《태백산》호, 《자주》호 자동차생산은 예견한대로 하는것이 좋겠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동차생산을 더욱 높이는것과 관련하여 승리자동차종합공장에 가공직장을 현대적으로 크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7개년계획기간에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기 위하여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서는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채취공업에서 설비를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할데 대한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채취설비들을 더 많이, 더 질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석탄문제는 착암기를 원만히 보장해주고 적재기와 전차, 체인콘베아를 비롯한 운반설비를 만들어주며 갱도의 영구화나 잘하면 석탄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착암기, 적재기, 전차, 체인콘베아 생산을 늘이며 로천채굴에 필요한 대형불도젤과 굴착기, 대형자동차, 착정기 등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광산들에서 필요한 착정기와 착암기, 파쇄기와 분쇄기, 대형권양기, 벨트콘베아 등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해야 광산들을 대담하게 개발하여 쇠돌문제를 풀수 있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수송의 긴장성을 풀기 위한 기계공업의 기초도 충분히 닦아놓았다고 지적하시면서 전기기관차를 비롯하여 철도전기화에 필요한 설비들과 내연기관차, 중량화물차, 유조차를 비롯한 각종 특수화차들을 더 많이 만들어 수송전선에 보내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선박공업을 계속 발전시켜 고기배도 더 많이 만들며 무역사업을 더 활발히 벌릴수 있도록 2만톤짜리, 5만톤짜리, 10

만톤짜리 대형짐배들을 많이 만들데 대하여서와 배무이에 필요한 대형설비들과 용접설비 생산을 적극 늘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기계공업부문에서 조선소들을 확장하고 큰 배를 많이 만들데 대한 문제를 잘 타산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 7개년계획기간에 발전소들과 금속공장, 세멘트공장, 화학공장들을 많이 건설할것이 예견된다고 가르치시면서 이에 필요한 대상설비들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먼저 5만크바타빈을 생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5만크바타빈생산을 위하여 중기계공장건설에 힘을 집중하여 건설을 빨리 다그치며 지금부터 기술집단도 꾸리고 공장운영에 필요한 준비사업도 잘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중기계공장을 10만크바짜리까지의 타빈과 발전기를 일식으로 생산하는 공장으로 꾸릴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금속공업설비생산문제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용광로설비를 자체로 만들며 전로도 건설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강에서는 산소제강이 기본이기때문에 앞으로는 산소제강을 많이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기 위하여 산소분리기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분괴압연기를 비롯한 압연설비들을 자체로 만들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압연설비를 자체로 많이 만들어야 강재의 규격과 품종을 늘일수 있으며 기계공업부문과 건설부문에서 요구되는 강재를 원만히 대줄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학생들과 기술자들을 동원하여 압연설비를 대담하게 설계하고 대담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으며 현대적인 유색압연공장을 새로 건설할데 대해서도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7개년계획기간에 화학공업부문에서 합성고무공장, 염화비닐공장, 탄산소다공장과 가소제공장, 제약공장, 살초제공장, 농약공장들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에 필요한 대형압축기와 합성탑, 뽐프, 반도체정류기 같은 설비들을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7개년계획기간에 방대한 건설사업을 하자면 건설기계들을 많이 생산하여 건설의 기계화를 적극 밀고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모든 단위에서 건설작업을 다 기계화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7개년계획기간에 예견되는 방대한 과업은 기계공업부문일군들이 달라붙어 천리마정신을 가지고 속도전을 벌리면 승리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서 커다란 비약을 이룩하였는데 오늘은 웅대한 밑천을 가지고있기때문에 더 큰 전진을 가져올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새 7개년계획을 빛나게 수행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천리마의 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계속혁신, 계속전진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계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나서는 구체적인 방도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기계공업부문에서 프레스화, 형단조화를 널리 실현하는 문제에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작기계들의 가공능력을 높이고 같은 자재를 가지고 질좋은 기계제품을 많이 생산하자면 기계공업부문에서 프레스화, 형단조화를 적극 실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프레스화, 형단조화를 받아들이면 강재를 지금보다 배나 절약하고 기계제품의 질을 훨씬 높일수 있으며 가공시간이 빨라지고 공작기계들의 능력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지금 기계공업부문에는 프레스설비들이 적지않으며 또 공장, 기업소들에서 자체로 프레스설비와 단조설비들을 만들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있으므로 기계공업부문일군들이 프레스화, 형단조화에 대하여 관심만 돌린다면 프레스방법과 단조방법을 얼마든지 받아들일수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계공업부문일군들은 대담하게 달라붙어 보수주의와 투쟁하며 조직사업을 잘하여 기술을 혁신하고 혁명적으로 전진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으며 특히 계렬생산을 하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프레스화, 형단조화를 적극 실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으로 기계공업의 발전을 위하여 주강, 주물, 도금 작업을 집중화, 전문화, 현대화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물, 주강, 도금 작업을

전문화해야 제품의 질을 높이고 로력과 자재를 절약할수 있으며 힘든 작업을 기계화하고 있는 설비를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으며 또 그래야 로동자들의 기능도 높아진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물론 기계공장들에서 주물직장을 자그마하게 꾸리고 소소한 주물품은 자체로 생산하여쓸수 있다는데 대하여서와 그리고 뜨락또르공장이나 자동차공장과 같이 주강 주물소재를 많이 쓰는 큰 공장들에서 주강 주물직장을 잘 꾸리고 주강 주물품들을 자체로 생산하여쓰는것이 필요하다는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큰 공장에서 주강 주물직장을 꾸리는 경우에는 현대적으로 잘 꾸리고 거기에서 주변에 있는 공장들에 필요한 주물품도 생산하여주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앞으로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지구단위로 주물생산기지들을 현대적으로 잘 꾸리고 주물생산을 전문화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구단위로 주물생산기지를 꾸리고 어떤 주물품은 전문생산공장에서 생산하여 공급하고 어떤 주물품은 기계공장자체에서 생산해쓴다는것을 바로 정하며 협동생산조직을 잘한다면 주물생산을 얼마든지 전문화, 집중화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일군들이 기관본위주의, 지방본위주의를 철저히 없애고 주물생산을 전문화, 집중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하며 특히 지방당책임일군들과 공장, 기업소 지배인들이 이 사업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계공장들에서 다 도금직장을 차려놓고 제가끔 도금을 하자고 하여서는 도금의 질을 높일수도, 도금원료를 절약할수도 없다고 하시면서 주물생산과 마찬가지로 지구단위로 도금생산기지를 잘 꾸리고 도금생산을 전문화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계설계를 전문화, 현대화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설계를 전문화하여야 설계력량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설계를 잘할수 있으며 설계일군들의 수준도 빨리 높일수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설계력량을 분산시키지 말고 집중시켜 전문설계기관들을 내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설계력량을 집중하여 중요대상들에 대한 설계를 보장한 좋은 경험을 가지고있다고 하시면서 기관을 설계하는 일군들로는 기관설계기관을 조직하고 선박이나 화학설비를 설계하는 일군들로는 선박설계기관, 화학설비설계기관을 조직하여야 하며 공작기계설계도 여러곳에서 제가끔 할것이 아니라 공작기계설계기관을 따로 내오고 여러가지 공작기계들을 통일적으로 설계하여 공작기계공장들에 보내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당이 키워낸 100만의 인테리대군을 가지고있다고 하시면서 설계일군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조절하여 기관을 만드는데는 기관설계력량을 집중하고 공작기계를 만드는데는 공작기계설계력량을 집중하여 기계설계를 전문화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7개년계획기간 기계공업부문앞에 나선 과업을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기계제품의 질을 더욱 높이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계공업부문에서 질을 높이는것을 당면한 투쟁과업으로 내세우고 모든 기계제품의 질을 앞선 나라들의 수준으로 올리기 위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기계제품의 질을 높이는데서 중요한것은 설계를 잘하는것과 함께 목형, 형타를 비롯한 기술장비들을 잘 정비하여 하나의 기계설비를 만들어도 질이 높은것을 만들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으로 기계생산을 자동화, 현대화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 기간 기계공업부문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공정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하는데서 적지않은 전진을 이룩하였지만 아직 이 사업을 시작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기계생산을 자동화, 현대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계공업부문에서 생산을 자동화, 현대화하여야 기계설비의 정밀도를 보장할수 있고 적은 로력으로 많은 제품을 생산할수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기계생산을 자동화, 현대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문제는 새로운 자동기계들과 자동흐름선들을 많이 창안제작하여 생산에 받아들이는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프로그람자동선반을 비롯한 능률적인 자동기계들과 자동화설비들을 많이 창안제작하며 주물생산을 비롯한 소재생산과 가공, 조립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자동흐름선들을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으며 자동화요소들과 계기, 기구들을 생산하는 생산기지들을 전망성있게 꾸리고 전자관, 반도체소자를 비롯한 여러가지 자동화요소들과 계기, 기구들을 많이 생

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음으로 지금 기계공업이나 건설에서 중요한것은 용접이라고 하시면서 용접기술을 높일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시대는 용접혁명의 시대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건설을 해야 하는것만큼 더 많은 용접기술자들을 양성하며 용접기와 용접봉, 용접의 질을 검열하는 기계, 용접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기계설비와 자재들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용접기는 얼마동안 쓰고는 새것으로 바꾸어야 하는것이기때문에 계렬생산하여야 하며 용접봉공장을 여러곳에 꾸려 질좋은 각종 용접봉을 많이 생산하여야 하며 용접하는데 쓰는 산소병을 전문만드는 공장도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륜전기재들에서 연유를 절약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교시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드는 륜전기재들의 정밀도를 높여 연유를 더 절약하겠는가를 연구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륜전기재에서 연유를 절약할 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지적하시면서 최근에 자동차부속품공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박벽관을 만들어낸데 대하여 치하하시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감사를 전할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계를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규격의 강재와 고무제품, 수지제품을 비롯한 많은 소재들을 다 다른 부문에서 생산한것을 받아다가 쓰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큰 기계공장들에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여 소재기지를 꾸리고 기계생산에 들어가는 각종 소재들을 자체로 생산하여써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기계공업부문에서 협동생산규률을 세워야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해나갈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기계공장들에서 자기 공장의 기본생산제품보다 협동생산품을 먼저 만들어주는 엄격한 규률을 세워야 하며 당조직들에서 협동생산규률을 어김없이 지키도록 철저히 지도통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운 7개년인민경제계획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더욱 높일것을 요구하는 계획이라고 하시면서 기계공업부문에서 자기앞에 맡겨진 무거운 과업을 영예롭게 수행하여 당의 기대에 훌륭히 보답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시였으며 기계공업부문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모든것이 자기들의 손에 달렸다는것을 깊이 자각하고 새로운 7개년계획수행에서 기계공업이 앞장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기계공업부문앞에 제기된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계획을 대담하게 높이 세우고 투쟁함으로써 끊임없이 새로운 더 높은 고지에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위용을 온 세상에 보여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기계공업부문열성자회의에서 하신 교시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기계공업부문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길을 밝혀주는 강령적지침으로 되였으며 전반적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도록 우리 기계전사들과 전체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하는 전투적기치로 되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기계공업부문에 주신 강령적교시를 어김없이 관철하여 새로운 7개년계획수행에서 기계공업부문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과업을 어김없이 수행할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전국광업부문열성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국광업부문열성자회의가 1977년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동안에 걸쳐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회의를 지도하시였다.

회의에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정무원 위원회 위원장 및 부장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회의에는 중앙기관의 당 및 행정경제 일군들, 각 도당위원회 책임비서들과 도인민위원회 경제위원회 제1부위원장들, 시, 군 당위원회 경제비서들, 그리고 석탄공업, 광업, 지질탐사 부문 열

성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 채취공업부문과 련관된 기계공장일군들과 교육 및 과학연구기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질탐사사업을 강화하고 석탄과 광물 생산을 급속히 늘일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많은 동지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보고와 토론들에서는 오늘 채취공업이 강력한 기술집단과 현대적장비들을 갖추고 주체공업의 믿음직한 선행공정으로서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할수 있게 강화발전되여 날로 늘어나는 석탄과 광물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충족시켜나가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이런 성과는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두터운 배려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었다는것을 한결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채취공업이 차지하는 커다란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시고 혁명발전의 매 단계, 매 시기마다 채취공업이 나아갈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질탐사대들과 탄광, 광산들, 그와 련관된 공장, 기업소들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면서 이 부문의 로동자들과 일군들을 만나시여 채취공업발전에서 해결을 기다리는 절실한 문제들을 풀 방도에 대하여 의논하시고 장비보장과 후방공급사업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보살펴주시였으며 이해에만 하여도 덕천, 개천, 안주 지구 탄광들의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고 전반적인 채취공업발전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토론자들은 또다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광업부문열성자회의를 마련하여주신것은 그이께서 채취공업부문의 전체 로동계급과 일군들에게 베풀어주시는 또하나의 크나큰 배려로 되며 그들이 웅대한 새 7개년계획수행의 앞장에서 계속 혁명적고조를 일으켜나가도록 불러주시는 힘있는 고무로 되며 공업의 첫공정인 채취공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계기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탁월한 통찰력과 현명한 령도로 우리 인민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한자리에 모시고 따뜻한 가르치심을 받으며 새 전망계획기간에 채취공업부문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게 되는 회의참가자들의 가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된 영예와 기쁨이 차넘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새 전망계획수행에 들어서게 되는 우리 나라 인민경제발전의 새로운 요구와 채취공업의 현 실태를 깊이 헤아리신데 기초하시여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워 나라의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빨리 추진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교시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먼저 당중앙위원회와 공화국정부와 자신의 이름으로 채취공업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고있는 전체 당원들과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채취공업은 생산의 첫공정이므로 이 부문을 앞세우지 않고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이 제대로 발전할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석탄과 광물 생산을 더 빨리 늘이는것은 새 7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금속공업에 광석을 넉넉히 대주어 철강재생산을 늘이며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전력을 풍족히 공급해주기 위하여서도 그렇고 화학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도 그렇고 경제발전의 모든 문제가 채취공업에 달려있다고 하시면서 당의 모든 힘을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앞세우는데 집중하여야 하며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석탄과 광물 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금년초에 있은 덕천, 개천, 안주 지구에 대한 지도사업에서 얻은 경험이 잘 보여주는바와 같이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워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모든 지도일군들이 채취공업에 대한 인식을 옳게 가지고 조직지도사업을 책임적으로 잘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경제는 집단주의경제이기때문에 여기에 맞게 지도사업을 잘하여야 모든 부문, 모든 고리가 드팀없이 맞물려져 경제가 순조롭게 발전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채취공업을 지도하는 정무원 위원회, 부들이 채탄, 채광에 굴진을 앞세우는것을 비롯하여 채취공업부문에 제시된 당의 방침을 관철하며 자재를 대주고 설비를

보수정비하는 모든 사업을 짜고들어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휘관들이 어디를 치면 적의 력량을 소멸할수 있는가 하는것을 잘 알고 공격해야 싸움에서 승리할수 있는것처럼 채취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도 지도일군들이 중심고리를 튼튼히 틀어쥐고 거기에 력량을 집중하여 하나하나 모가 나게 풀어나가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지도일군들이 언제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재공급, 설비관리, 로동행정, 생산조직 등 모든 분야에서 조직사업을 세밀하게 짜고들며 책임적으로 집행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울데 대하여서와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살림살이기풍을 본받아 강재 1톤을 놓고도 규격과 용도를 깐깐히 따지면서 분한있게 쓰는 주인다운 일본새를 가지고 지도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석탄과 광물 생산을 늘이기 위하여서는 탄광, 광산들에서 탐사와 굴진을 앞세워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채취공업부문에서 기본은 탐사와 굴진을 앞세우는것이며 탐사와 굴진을 앞세운 다음에 운반설비, 채굴설비만 대주면 석탄과 광석이 나온다고 하시면서 지질탐사사업과 굴진을 앞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질탐사를 앞세우기 위하여서는 시추기가 더 많이 요구된다고 하시면서 지질탐사사업을 잘할수 있도록 시추기를 많이 생산보장하며 시추력량을 꾸려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으며 전망탐사, 현행탐사, 세부탐사를 강화하여 확보광량을 몇년분씩 앞세워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굴진을 채굴에 확고히 앞세우기 위하여 로력배치에서 5대5의 원칙을 철저히 관철하며 고속도굴진운동을 힘있게 벌려 굴뚫기에서 새 기준을 창조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갱도의 영구화를 실현하여야 광부들이 사회주의하에서의 로동계급답게 일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탄광, 광산들에서 갱도를 영구화하는 사업을 계속 잘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채취공업설비들을 계속 대형화, 현대화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채취공업은 이 방향으로 확고히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채취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여 대형굴착기, 대형불도젤, 대형권양기, 대형마광기를 비롯한 대형설비들을 대대적으로 만들어주고 생산공정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하며 자동차와 철도 수송만아니라 삭도수송, 콘베아수송, 관수송의 3화수송을 이에 적극 배합함으로써 다량락광, 다량운반, 다량처리하는 방법으로 넘어가야 품위가 높은 광석과 함께 품위가 낮은 광석까지 다 먹어 광물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일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믿음직한 탄광, 광산기계공장들을 가지고있는 조건에서 일군들이 대담하게 생각하고 대담하게 실천한다면 능히 채굴설비의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 운반작업의 다양화를 실현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금속공업과 기계공업 부문에서 채취공업부문에 강재를 비롯한 자재와 설비들을 원만히 대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탄차와 광차, 전차도 대주고 압축기도 대주며 갱도를 영구화하는데 필요한 세멘트도 대주어야 석탄과 광물을 제대로 생산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무엇보다먼저 강재를 규격별로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하며 자재의 공급과 리용에서 엄격한 규률을 세우며 모든 일군들이 항일유격대식으로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조직하여 자재를 효과적으로 쓸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또한 기계공업부문을 비롯한 해당부문들에서 관과 압축기, 전차, 레루, 동선, 전동기, 동발, 세멘트를 비롯하여 탄광, 광산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제때에 생산보장해주며 채취공업부문에서는 설비관리사업을 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석탄과 광물 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당면하게는 광부들에게 착암기와 소공구들을 더잘 갖추어주는것이 중요하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채취공업부문로동자들에게 착암기와 소공구를 비롯한 장구들을 완전히 갖추어주면 그들이 자기 장비를 더욱 아끼고 제때에 보수정비할수 있으며 석탄과 광물 생산에서 자기 힘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광업위원회에서는 이해안으로 모든 탄부들과 광부들에게 착암기가 한대씩 차례지게 생산보장하며 도와 군들에서는 탄광, 광산들에 톱, 도끼, 모자, 간데라를 비롯한 소공구와 장구들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것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도와 군자체에서 생산보장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채취공업부문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뿐아니라 로력도 충분히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이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채취공업부문로동계급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채취공업부문근로자들에게 고기와 닭알, 기름과 남새를 더욱 풍족히 공급하기 위하여 탄광, 광산과 탐사대를 가지고있는 시, 군들에서 그 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탄광과 광산 마을의 집집에서 오리기르기운동을 널리 벌릴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더욱 확고히 앞세워야 새 전망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이 부문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기의 영예로운 혁명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채취공업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 주인답게 참가하며 최대의 정치적열의와 창조적능력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렵고 곤난하던 정전직후에 공장과 도시를 복구건설하던 때처럼 남을 쳐다보지 말고 자력갱생하는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며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반대하고 대담하게 기술을 혁신하는 혁명적기풍을 철저히 세우면 채취공업부문앞에 나선 과업을 능히 훌륭하게 수행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면하여 한랭전선의 영향이 계속 심하게 미치는 조건에서 화력발전소들을 만부하로 돌리기 위하여 석탄을 넉넉히 생산공급하며 겨울철 민수용탄도 잘 대주어야 한다고 하시였으며 석탄절약투쟁을 전인민적운동으로 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은 이 부문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신임하며 제기된 과업을 어김없이 수행하리라는것을 굳게 믿는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광업부문열성자회의에서 하신 교시는 새 전망계획 수행과 당면한 인민경제발전의 높은 요구에 맞게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결정적으로 앞세우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며 이 부문에서 새로운 일대 전환을 일으키도록 광업전사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전투적기치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조선인민군 선동원대회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평양에서 조선인민군 선동원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는 전체 근로자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성과적으로 진행한 기쁨을 안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일대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고있는 환경속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장정면에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항상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조선로동당마크가 새겨진 붉은 기발이 펼쳐져있었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그려져있었으며 세차게 휘날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세폭의 붉은 기발이 장식되여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또한 조선인민군의 모표와 《조선인민군 선동원대회》라고 쓴 글발이 걸려있었다.

주석단량옆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라고 쓴 구호판들이 걸려있었다.

또한 넓은 장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고 쓴 글발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3대혁명을 힘있게 벌리자!》, 《훈련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고 쓴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대회에는 인민군대안의 선전선동사업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하고있는 인민군 유급선전일군들과 초급선동일군들 6천여명이 참가하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백전백승의 자위적군사사상을 창시하시고 독창적인 군사로선과 군사정책을 제시하시여 인민군대가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으며 인민군장병들을 당의 군사로선관철

에로 힘있게 이끄시여 우리 인민군대를 주체의 사상체계가 확고하게 선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력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믿음직하게 준비된 일당백의 강철의 대오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전사로 살며 투쟁하는 끝없는 영광과 행복이 넘쳐있었다.

오전9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인민군의 창건자이시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순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와 우뢰와 같은 박수소리가 온 장내를 세차게 뒤흔들었다.

만세의 환호가 그칠줄 모르고 계속되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륙해공군녀성군인들이 대회참가자들과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어린 향기로운 꽃바구니를 정중히 드리였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펴주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전투준비와 전투력강화에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킬데 대하여》의 보고가 있었으며 많은 선전일군들과 초급선동일군들의 토론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 우리 당의 대내외정책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시면서 인민군대내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우리 인민군대를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더욱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교시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먼저 우리 당이 견지하고있는 자주적조국통일방침과 그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과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 사회주의진지를 더욱 강화하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세계 사회주의나라, 쁠럭불가담나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그들이 우리 혁명을 적극 지지성원하도록 하는것이 우리 당의 3대과업이며 당의 로선과 방침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3대혁명과업인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철저히 수행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였다.

사상혁명의 중심과업은 모든 사람들을 다 주체사상으로 무장시켜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당이 사상혁명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우리 나라 모든 인민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단결하여 하나와 같이 움직이고있는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지적하시고 이것은 우리의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대, 근로인테리들이 하나로 굳게 뭉쳐 당이 요구하는대로 투쟁한 결과에 이룩된 커다란 성과이라고 강조하시였으며 선전선동일군들은 이러한 성과에 대하여 높은 긍지를 가지고 전체 인민들과 군인들에게 잘 알려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기술혁명의 중심은 3대기술혁명과업을 철저히 수행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중로동과 경로동의 차이, 농업로동과 공업로동의 차이를 훨씬 줄이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는 3대기술혁명과업은 경제적과업이면서 동시에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정치적과업이라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탄광과 광산 로동을 비롯한 공업부문의 힘든 로동을 헐하게 하며 농촌에서도 공업로동과 같이 8시간로동제를 실시하고 계절과 자연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일할수 있게 하며 녀성들이 부엌과 가정 일의 부담에서 벗어나 남자들과 같이 사회에 널리 진출하여 혁명의 한쪽수레바퀴를 밀고나갈수 있게 하는것은 로동계급이 정권을 잡은다음에 진행해야 할 계급의 차이, 사람들의 관계에서 높고낮은 차이를 없애기 위한 투쟁의 한 고리이며 공산주의에로 가는 마지막전투로 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문화혁명은 전체 근로자들이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가지게 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인테리화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높은 지식을 가져야 사회가 발전할수 있다고 하시였으며 문화혁명과업을 수행하는것도 공산주의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마지막전투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 당은 지금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고있으며 앞으로 공장대학을 많이 세워 모든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고등교육을 받을수 있게 만들자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 당이 내세운 독창적이며 위대한 과업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이 내세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세폭의 붉은 기발은 가장 위대하고 독창적이며 자주적이고 혁명적이며 공산주의적인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이것을 응당 높은 긍지를 가지고 자랑해야 하며 전체 인민이 당의 3대혁명로선을 받들고 우리 공화

국북반부를 공산주의전설기지로 꾸리기 위한 투쟁에 총동원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다음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조선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남조선인민들이 박정희군사파쑈독재를 때려부시고 남조선사회를 민주화하며 남조선괴뢰도당을 부추기는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면서 지금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조선인민들뿐아니라 자기의 동맹자에게서까지 고립되여있는데 대하여서와 남조선인민들이 적들의 탄압이 심한 조건에서도 남조선사회의 민주화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서고있는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도우며 조국통일의 밑천을 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라가 자주성을 철저히 지키고있기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지지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우리 당의 자주로선,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방침을 다 배우려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것은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서 매우 좋은 일이며 우리 당의 자랑스러운 승리의 하나로 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당이 제시한 세가지 혁명사업이 지금 다 순조롭게 되고있는데 대하여 전체 인민군장병들에게 잘 알려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 인민군대내 정치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정치선동사업은 당사업에서나 모든 사업에서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사업이며 정치사업을 선행하는것은 당의 기본방침이라고 가르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주인으로 되고있는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사업을 앞세우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 항일무장투쟁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 그리고 전후 군대건설과정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정치사업이 잘되는곳에서는 모든 군인들이 사기왕성하여 용감하게 잘 싸웠으며 언제나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인민군대앞에는 정치선동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군대내 정치사업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인민군대의 모든 간부들로부터 전사들에 이르기까지 다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군인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모든 군인들이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려는 높은 자각을 가지게 할수 있으며 그러자면 주체사상에 대한 원리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에 대한 원리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잘 배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군인들속에서 항일무장투쟁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 조국을 위하여, 수령을 위하여 목숨바쳐 싸운 혁명선렬들과 영웅전사들의 모범을 따라배우도록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며 군인들이 항일유격대원들의 회상기, 혁명소설을 흥미거리로 읽지 말고 혁명의 교과서로 삼고 거기에 담겨진 혁명정신을 깊이 체득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우리앞에 제국주의자들과 지주, 자본가 정권을 반대하여 싸워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고 우리 청소년들이 지주, 자본가도 보지 못하고 지난날 쓰라린 압박도 받아보지 못한 조건에서 군인들속에서 공산주의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급교양, 공산주의교양에서 중요한것은 과거를 잊지 않도록 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나라를 36년간 강점했던 일제와 오늘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의 침략적, 략탈적 만행에 대하여서와 지주, 자본가들의 가혹한 착취에 대하여 잘 알도록 하며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생동하게 계급교양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모든 군인들로 하여금 절대로 과거를 잊지 않게 하며 우리 혁명선렬들의 피어린 투쟁으로 오늘의 행복한 생활이 마련되였다는것을 똑똑히 알게 하여야 한다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급교양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남조선을 잊지 않도록 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미제침략자들이 강점하고있는 남조선현실을 항상 군인들에게 잘 알려주어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계급교양, 공산주의교양에서 또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조국을 사랑하도록 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군인들이 착취없고 압박없고 세

금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 일하고 무료로 치료받으며 마음껏 배우는 주체의 조국,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사랑하고 목숨으로 사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계급교양, 공산주의교양에서 중요한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승리의 신념으로 교양하는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군인들이 착취없고 압박이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잘사는 공산주의미래에 대한 확신을 굳게 가지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몸바쳐 싸워나가도록 교양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서 군인들의 군무생활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인민군군무자들이 지켜야 할 다음과 같은 10대준수사항을 제시하시였다.

첫째로, 인민군군무자들은 언제나 군사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둘째로, 인민군군무자들은 자기의 무기에 정통하며 그것을 언제나 잘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로, 인민군군무자들은 어떤 조건에서든지 군사명령을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

넷째로, 인민군군무자들은 당 및 정치 조직들에서 준 분공을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한다.

다섯째로, 인민군군무자들은 국가비밀, 군사비밀, 당조직비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여섯째로, 인민군군무자들은 국가의 사회주의적법과 질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일곱째로, 인민군군무자들은 군사정치훈련에 어김없이 참가하며 열심히 공부하여야 한다.

여덟째로, 인민군군무자들은 인민을 사랑하며 인민들의 재산을 털끝만큼도 다치지 말아야 한다.

아홉째로, 인민군군무자들은 국가재산과 군수물자를 철저히 보호하며 그것을 절약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열째로, 인민군군무자들은 동지들을 친형제와 같이 사랑하며 군대안에 상하일치단결의 미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군군무자들이 10대준수사항을 밥먹을 때와 행군할 때, 학습할 때와 전술훈련할 때나 할것없이 그 어디에서나 늘 생각하면서 그것을 행동의 지침으로 삼음으로써 군무생활과 군사정치훈련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마지막으로 인민군대내의 선전선동원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모든 선전선동원들이 지켜야할 두가지 원칙은 첫째로 우리 당의 정책과 군사로선에 정통하며 둘째로 군무생활에서 모범이 되는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선동원대회에서 하신 교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붉은 기치밑에 우리 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고 인민군대내 정치사업에서 새로운 큰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전군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며 군인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켜 우리 인민군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강령적지침으로 되였으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세가지 과업수행에로 전체 인민들과 군인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전투적기치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회에 참가한 선전일군들, 초급선동일군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며 우리 인민군대를 창건하시고 그를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키워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르며 대회에서 주신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모든 구분대들을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철통같이 단결되고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꾸리기 위한 정치선동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었다.

대회에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대회참가자들의 우렁찬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방주권기관대의원선거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1977년 2월 1일결정에 의하여 이해 3월 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실시되였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1977년 9월 11일결정에 의하여 이해 11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방주권기관대의원선거가 진행되는 3월 4일 대성구역 대성협동농장원들과 함께 지방주권기관대의원선거를 위한 평양시 대성구역 제69호분구선거장에서 투표하시였다.

이날 오전9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선거장에 도착하시자 경애하는 수령님을 몸가까이에 모시고 선거에 참가하는 영광을 지닌 대성협동농장 농장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를 목청껏 부르고 공화국기발과 꽃묶음을 높이 흔들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만세!》의 환호성이 더욱 높아가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님께 녀성로력혁신자들이 우리 나라 전체 선거자들과 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어린 향기그윽한 꽃묶음을 드리였다.

선거장에 들어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분구선거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선거표를 받으시고 평양시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대성협동농장 제2작업반장 김성운동무와 대성구역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대성협동농장 농장원 리경훈동무에게 투표하시였다.

뒤이어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이곳 농업근로자들이 투표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중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시며 선거장을 떠나시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는 11월 11일에는 평양화력발전소 로동자들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7호안산선거구 제20호분구선거장에서 투표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몸가까이 모시고 뜻깊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게 된 평양화력발전소 로동자들은 끝없는 감격과 기쁨에 휩싸여있었다.

오전 8시 30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선거장에 도착하시자 군중들은 목청껏 만세를 부르고 공화국기발과 꽃묶음을 높이 흔들면서 위대한 수령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군중들의 열렬한 환호에 손을 들어 답례하시면서 선거장으로 걸음을 옮기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러러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군중들은 오랜 민족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이 땅우에 보람찬 혁명의 새시대를 펼쳐주시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정권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는 자주적인 혁명정권으로, 우리 인민의 자유와 행복의 수호자로 끊임없이 공고발전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자립적인 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민족문화와 자위적인 강력한 국방력을 가진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되였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있는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있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혁명위업에 몸과 마음을 다바치고있다.

선거장에 들어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인 평양화력발전소 타빈직장 교대장 로력영웅 조영기동무에게 투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끝없는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군중들은 선거장을 떠나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환호를 올리면서 조국의 통일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실것을 삼가 축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보아 주신 예술공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공연을 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7년 1월 1일 새로 웅장하게 일떠선 만수대예술극장에서 만수대예술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의 첫공연을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희망찬 새해의 첫아침 전체 인민들에게 하신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갈 혁명적열정이 온 나라에 차고넘치는 때에 경애하는 수령님을 한자리에 모시는 영광을 지니게 된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끝없는 감격과 기쁨에 휩싸여있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였다.

순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성이 온 장내를 뒤흔들며 터져올랐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우리 인민을 언제나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전체 관람자들은 다함없는 흠모와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전체 관람자들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나긴 세월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한평생의 로고를 바치시여 이 땅우에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워주시였으며 궂은날, 마른날을 가리지 않으시고 수천수만리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당원들과 근로자들, 3대혁명소조원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의 가르치심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불같은 결의에 넘쳐 《만세!》, 《만세!》의 환호성을 올리고 또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들,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후보위원들, 당중앙위원회 비서들, 정무원 부총리들, 당중앙위원회 부장들, 정무원 위원회 위원장들 및 부장들, 각 정당, 사회단체 책임일군들, 평양시 당 및 정권기관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령들, 과학,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출판보도 부문 책임일군들이 시안의 근로자들과 함께 공연을 보았다.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는 착취와 압박이 영원히 없어지고 사람마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 오늘의 이 행복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 위대한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우러러모시고 살며 혁명의 한길을 걸어나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를 폭넓고 심오하게 형상한 주체시대의 웅대한 화폭이다. 음악무용이야기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무대예술분야에서 새롭게 개척된 독창적인 형식의 종합예술로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음악무용예술의 새로운 발전으로 된다.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찬란히 개화발전하는 주체예술의 참다운 면모를 집약적으로 보여준 음악무용이야기는 그의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열렬한 환영과 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장내에서는 또다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올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공연을 높이 평가하시고 출연자들에게 공연성과를 축하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뜻깊은 공연을 본 전체 관람자들은 새해의 첫아침 그이께서 하신 신년사

를 높이 받들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밑에 전투적으로 살며 일해나감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고 영광의 이해를 보다 빛나는 승리로 아로새길 굳은 결의를 다지면서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망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과 나라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열렬히 축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녀맹 예술소조종합공연을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7년 4월 24일 오후 2.8문화회관에서 전국녀맹예술소조종합공연을 보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수령님께 자기들이 준비한 예술소조종합공연을 보여드리게 된 출연자들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공연을 보게 된 관람자들의 기쁨과 감격으로 하여 장내는 뜨겁게 끓어번지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와 우뢰와 같은 박수가 터져올라 장내를 뒤흔들었다.

환호소리 높아가는 가운데 위대한 수령님께 근로녀성들이 우리 나라 전체 녀성들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은 꽃바구니를 정중히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환호를 올리고 또 올리는 관람자들의 얼굴마다에는 자기들에게 오늘의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무한한 흠모와 수령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보람있게 살며 투쟁하는 영예와 자랑이 넘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당과 정부의 간부들 그리고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일군들이 녀성근로자들과 함께 공연을 보았다.

녀맹중앙위원회 김성애위원장과 당과 정부 간부들의 부인들이 함께 공연을 보았다.

합창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수령님 품속에서 붉게 핍니다》로 막을 올린 공연무대에는 시랑송 《인민의 위대한 태양》, 가무 《만경대의 진달래》, 독창 《천만년 노래하며 충성다하리》, 《수령님 높이 모신 내조국 노래하세》, 하모니카와 춤 《녀성해방가》, 중창 《조선의 목란꽃》, 시와 이야기 《룡포땅에 울려퍼진 승리의 봄노래》, 《천만년이 흘러도 그 사랑 영원하리》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공연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과 녀성들에게 베풀어주시는 끝없는 영광과 행복에 대하여 무한한 감사의 정을 안고 뜨겁게 노래하였으며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혁명의 한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할 굳은 결의를 잘 보여주었다.

공연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념원을 담은 노래와 춤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로 막을 내렸다.

공연이 끝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성이 터져올라 또다시 드넓은 장내를 뒤흔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손을 높이 드시여 관람자들의 열정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고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여주신후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진행된 공연관람에 참가한 전체 관람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만수무강하실것을 끓어오르는 충성의 한마음으로 삼가 축원하였으며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3대혁명의 붉은 기치밑에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학생소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을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7년 5월 7일 2. 8문화회관에서 전국학생소년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을 보시였다.

이날 회관안은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께 자기들의 행복한 생활을 반영한 공연을 보여드리게 된 출연자들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공연을 보게 된 관람자들의 기쁨과 감격에 휩싸여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관람석에 나오시자 장내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와 우뢰와 같은 박수가 터져올랐다.

관람자들의 가슴마다에는 오늘의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우러르는 뜨거운 마음들이 뜨겁게 굽이쳤다.

환호소리, 박수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경애하는 아버지원수님께 소년단원들이 우리 나라 전체 학생소년들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과 원수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는 최대의 념원을 담은 꽃바구니를 정중히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위원들,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후보위원들, 당중앙위원회 비서들, 정무원 부총리들, 당중앙위원회 부장들, 정무원 위원회 위원장들과 부장들, 중앙기관 및 근로단체 책임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령들이 평양시안의 근로자들과 함께 공연을 보았다.

조국에 체류중인 재일조선인축하단 성원들, 총련금강산가극단 성원들, 재일본조선무역상사일군대표단 성원들이 또한 공연을 함께 보았다.

송가 《4월의 명절에 드리는 영광의 노래》로 막을 올린 공연무대에는 노래이야기 《끝없는 사랑속에 활짝 웃는 꽃송이들》, 무용 《토끼동산에 풍년북소리 울려요》, 《광복의 천리길에 꽃피는 마음》, 녀중창 《원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네》, 《소년단린 좋아서 꾀꼴새 노래불러요》, 체육무용 《즐거운 바다야영》, 동화노래극 《매미의 뉘우침》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공연에서 학생소년예술소조원들은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께서 전체 학생소년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사랑과 원수님의 자애로운 품속에서 마음껏 배우며 공산주의적 주체의 혁명가로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는 자기들의 행복에 대하여 진실하게 노래하였으며 지덕체를 겸비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억세게 준비해갈 굳은 결의를 예술적형상으로 잘 보여주었다.

공연은 우리 나라 전체 학생소년들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과 최대의 념원을 반영한 시와 무용 《충성의 꽃바다우에 아버지원수님을 천만년 모시고 따르렵니다》로 막을 내렸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소리가 터져올라 장내를 뒤흔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손을 높이 드시여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고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여주신후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총련금강산가극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음악무용 종합공연을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7년 5월 1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총련금강산가극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음악무용종합공연을 보시였다.

금강산가극단 예술인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공연을 보시기에 앞서 자기들의 가극단 지휘성원들과 주요배우들을 접견하시고 예술인들의 사업과

생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였으며 고무적인 말씀을 하여주신 끝없는 감격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자기들이 정성껏 준비한 공연을 보여드리게 된 끝없는 행복과 기쁨에 휩싸여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폭풍같은 환호와 우뢰와 같은 박수가 터져올라 극장안을 뒤흔들었다.

금강산가극단 예술인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60만 재일동포들과 동포예술인들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과 경애하는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는 절절한 념원을 담은 꽃바구니를 정중히 드리였다.

합창 《김일성장군의 노래》, 《60만은 충성을 다하렵니다》로 막을 올린 공연무대에는 노래와 춤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60만은 축원합니다》, 녀성독창 《수령님 품속에 다시 안기여》, 《우리 자랑 이만저만 아니라오》, 2중창 《세금제도 없는 새시대를 열어주셨네》, 남성중창 《조국으로 가는 길》, 무용 《조국통일행진에로》를 비롯하여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금강산가극단 예술인들은 공연에서 60만 재일동포들에게 오늘의 영광과 기쁨을 마련해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끓어넘치는 감사와 흠모, 그이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는 절절한 심정을 가슴뜨겁게 노래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따사로운 해빛아래 주체조국의 해외공민된 끝없는 긍지와 자랑을 더욱 빛내여갈 결의를 잘 보여주었다.

합창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60만은 충성을 다하렵니다》에서 예술인들은 오늘의 이 행복과 영광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자애로운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있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그리고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60만 재일동포들의 뜨거운 마음을 절절히 노래불렀다.

가야금병창 《가야금줄에 스민 그 사랑》, 노래와 춤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60만은 축원합니다》에서도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사랑을 목청껏 노래불렀으며 60만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였다.

녀성독창 《우리 자랑 이만저만 아니라오》, 가야금병창 《조국의 영예를 빛내여가리라》, 무용 《인쇄공의 자랑》에서는 재일동포들이 민족의 슬기와 존엄을 떨쳐가고있는 자랑찬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2중창 《세금제도없는 새시대를 열어주셨네》에 출연한 배우들은 높은 예술적형상으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감동깊게 보여주었다.

재일조선동포들을 총련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워가고있는 모습과 그 과정에 이룩한 성과를 보여주는 노래이야기 《꽃피는 우리 분회》를 비롯하여 2중창 《박로인네 자랑》과 《아들자랑 딸자랑》도 관중들을 크게 감동시켰다.

특히 노래이야기 《꽃피는 우리 분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총련의 어느 한 분회장이 재일조선동포들을 분회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워나가는 투쟁모습을 생동하게 형상함으로써 애국과 매국파의 투쟁에서 애국이 승리하는 생활의 진리를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공연이 끝난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북받치는 감격과 기쁨을 억제하지 못하여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를 부르며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금강산가극단 예술인들에게 답례를 보내시고 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꽃바구니를 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극단이 공연을 잘하였다고 치하하시고 앞으로의 공연활동에서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고무적인 말씀을 해주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의 노래를 합창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외국 국가수반들의 우리 나라 방문

가이아나협동공화국 대통령 아써 총각하의 우리 나라 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으로 가이아나협동공화국 대통령 아써 총각하가 부인과 함께 1977년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4월 30일 비행장에 나가시여 아써 총대통령과 그 일행을 따뜻이 맞이하시였으며 이날 저녁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연회에서 먼 라틴아메리카대륙에서 온 가이아나인민의 친선의 사절들을 열렬히 환영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통령각하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우리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변으로 됩니다.

그리고 아세아와 라틴아메리카의 신흥세력나라들사이의 친선의 뉴대를 보다 강화하여줍니다.》

아써 총대통령은 연회연설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하여 품고있는 존경의 마음을 수령님께 직접 표시하여드릴것을 념원하여왔다고 하면서 《당신의 존함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으로, 절세의 애국자로, 민족적영웅으로 사람들의 가슴속에 간직되여 있는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의 전반적인 건설강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으로부터 나온것이라고 하면서 《주체사상은 우리들이 가이아나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기본으로 되고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아써 총대통령은 또한 자기들도 역시 매개 나라 인민은 주체사상에 따라 사회주의에로 나가는 자기자신의 길과 전진속도를 선택하며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자신의 수단을 가져야 한다는것을 믿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나라의 통일을 외세의 간섭이 없이 완전히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4월 30일과 5월 3일 아써 총대통령을 만나시여 친선적인 담화를 하시였다.

아써 총대통령과 그 일행은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동안 유서깊은 만경대를 방문하고 만경대고향집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들은 또한 붉은기만경대혁명학원과 중앙공업및농업전람관, 인민경제대학, 평양학생소년궁전, 금성뜨락또르공장, 청산협동농장, 평양지하철도를 돌아보았다.

아써 총대통령은 중앙공업및농업전람관을 돌아보고 우리 인민이 짧은기간에 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수행하여 자기 나라를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킨데 대하여 감탄을 표시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고도로 공업화된 나라라고 말하였다.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 기간 아써 총대통령과 그 일행은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공연, 교예공연, 평양시 청소년학생들이 출연한 집단체조 《조선의 노래》를 보았다.

대통령의 부인과 일부 성원들은 평양 9.15주탁아소와 조선미술박물관도 돌아보았다.

아써 총대통령은 우리 나라 방문일정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5월 4일 평양을 떠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행장에 나가시여 아써 총대통령을 바래시였다.

가봉민주당 총비서이며 가봉공화국 대통령인 엘 하지 오마르 봉고각하의 우리 나라 방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가봉민주당 총비서이며 가봉공화국 대통령이며 정부수반인 엘 하지 오마르 봉고각하가 부인과 함께 1977년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9일 비행장에 나가시여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과 그 일행을 따뜻이 맞아주시였다.

가봉손님들은 이날 비행장과 연도에서 평양시안의 수십만근로자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과 부인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부인을 위하여 엘 하

지 오마르 봉고대통령과 부인이 11일 성대한 연회를 차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대통령각하의 방문으로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는 새로운 개화기에 들어섰습니다.》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은 연회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높은 존경과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은 9일 연회연설에서 온갖 침략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조선은 자주성과 존엄속에서 나아가려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존경과 감탄을 자아낼수 있었다고 하면서 《이런 조건에서 어찌 가봉인민이 가장 경모하는 조선인민의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을 품지 않으며 용감한 조선인민을 형제로 여기지 않을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으며 《존경하는 주석각하, 당신은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우리 모두의 모범이시며 귀감이십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11일 연회에서 《나는 이번 방문을 통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을 직접 목격할수 있었으며 특히는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원수님의 업적에 대하여 더잘 알게 되고 원수님과 현시대의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회담할수 있게 된것은 나에게 있어서 더없이 커다란 특전으로 됩니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조선에 와서 전조선을 알게 되였고 조선이 통일되여야 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조선의 통일문제는 조선인민자신의 문제이며 조선의 통일은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9일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이 마련하여온 지성어린 선물을 받으시였으며 11일에는 그에게 선물을 드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9일 의례방문하여온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을 만나시였으며 10일에는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을 답례방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에게 국기훈장제1급을, 부인 조제핀 봉고녀사에게 로력훈장을 수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은 가봉공화국의 최고훈장인 《적도별훈장》을 수여하였으며 김성애동지에게 《가봉공로훈장》을 수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과 함께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 공연을 보시였다.

봉고대통령은 또한 평양시청소년학생들이 출연한 집단체조 《조선의 노래》를 보았다.

대통령일행의 일부성원들은 유서깊은 만경대를 방문하였으며 중앙공업및농업전람관과 인민경제대학, 평양지하철도, 금성뜨락또르공장, 청산협동농장, 평양 9.15주탁아소를 참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과 두차례의 회담을 진행하시였다.

친선적이며 호상리해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회담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킴데 대하여서와 그밖의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시였다.

12일에는 공동콤뮤니케와 두 나라 사이의 경제및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이 여기에 각각 서명하시였다.

가봉측은 공동콤뮤니케에서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옳바른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뒤떨어졌던 자기 나라를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 찬란한 민족문화를 가진 자주적인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킨 빛나는 성과들에 대하여 경탄을 표시하였다.

가봉측은 또한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조선의 분렬이 종식되고 통일이 실현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된 자주적으로,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며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적대단결을 이룩할데 대한 3대원칙에 전적인 찬동을 표명하였다.

조선측은 가봉인민이 새 혁신의 원칙에서 자기의 탁월한 지도자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의 옳바른 령도밑에 공업을 발전시키고 상업을 재조직하며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새 사회건설에서 거둔 훌륭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조선측은 또한 가봉정부가 그 어떤 쁠럭에도 얽매여있기를 원치 않으며 자주적 및 민족적 독립의 립장에서 쁠럭불가담의 대외정책을 실시하고있는데 대하여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쌍방은 국제정세에 언급하면서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로서 지배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착취가 더는 지속될수 없다는데 대하여 의견을 같이하였다.

쌍방은 남부아프리카에서 인종주의정권을 청산하고 자유와 해방을 쟁취하기 위한 짐바브웨, 나미비아, 아자니아 인민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냈으며 민족적독립의 공고화와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위한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은 우리 나라 방문일정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12일 평양을 떠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비행장에 나가시여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을 바래시였다.

카이손 폼비한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에 의하여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 총리인 카이손 폼비한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이 1977년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천명하시였다.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과 라오스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전투적친선단결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는 획기적사변으로 됩니다.》

우리 인민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새사회, 새생활을 건설하는 길에서 함께 투쟁하고있는 형제적 라오스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3일 비행장에 나가시여 카이손 폼비한동지와 그 일행을 따뜻이 맞이하시고 그들에게 뜨거운 환대를 베푸시였다.

카이손 폼비한동지가 인솔하는 라오스당및정부대표단은 이날 비행장과 연도에서 수도의 수십만 근로자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카이손 폼비한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였으며 카이손 폼비한동지를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카이손 폼비한동지가 연회에서 연설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17일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진행되였다.

군중대회에서는 카이손 폼비한동지에게 대회이름으로 된 축기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카이손 폼비한동지가 또한 대표단의 명의로 축기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3일 카이손 폼비한동지가 마련하여온 지성어린 선물을 받으시였으며 17일에는 카이손 폼비한동지에게 선물을 드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카이손 폼비한동지에게 국기훈장제1급을, 그 일행에게 훈장과 메달을 각각 수여하시였다.

카이손 폼비한동지와 대표단은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동안 혁명가극 《피바다》와 평양시청소년학생들이 출연하는 집단체조 《조선의 노래》를 보았다.

그들은 중앙공업및농업전람관과 평양지하철도, 황해제철련합기업소, 미곡협동농장, 평양학생소년궁전, 인민경제대학을 돌아보았다.

대표단의 수원들이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하였으며 대표단성원들과 수원들이 평양시 사동구역 리현양수장을 돌아보았다.

1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서 대표단을 위하여 만찬회를 차렸으며 이에 앞서 15일에는 대표단의 황해북도방문을 환영하여 황해북도인민위원회에서 연회를 차렸다.

카이손 폼비한동지는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동안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달성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는 황해북도인민위원회가 차린 연회에서 연설하면서 조선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혁명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이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그를 철저히 구현한 결과에 의해 이룩된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중앙공업및농업전람관을 돌아보고 조선인민이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진행하고있는 라오스의 현단계에서 매우 귀중한 경험으로 된다고 하였다.

카이손 폼비한동지는 또한 연회와 군중대회 연설에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반미투쟁의 간고하던 나날에 라오스인민의 구국투쟁에 주신 정신적 및 물질적 지지성원은 라오스인민의 항전이 승리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에 기여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도 라오스인민은 항상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의무를 충실히 리행하며 자기의 모든 힘과 자기의 모든 가능성을 다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로선과 정책을 받들고 공업과 농업을 더욱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조선의 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보낼것이라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카이손 폼비한동지와 16일 회담을 진행하시였다.

이에 앞서 14일에는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과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사이의 회담이 있었다.

회담에서는 두 당 및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현국제정세문제들과 서로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회담에서는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서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으며 18일 두 나라사이의 공동콤뮤니케가 조인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카이손 폼비한동지가 공동콤뮤니케에 각각 서명하시였다.

공동콤뮤니케에서 라오스측은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옳바른 령도밑에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승리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조선인민이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에 지난날 뒤떨어졌던 자기 나라를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와 찬란한 민족문화와 강력한 자위력을 가진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킨데 대하여 축하하였다.

라오스측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견결히 규탄하였으며 미국정부가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무기를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미국군대를 하루빨리 철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라오스측은 또한 생존의 권리와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조선의 통일은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에 기초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측은 라오스인민이 자기의 탁월한 지도자 카이손 폼비한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라오스인민혁명당의 옳바른 령도밑에 제국주의와 국내반동을 반대하는 장구하고 간고한 투쟁에서 이룩한 민족민주주의혁명의 력사적승리를 축하하였다.

조선측은 동남아세아에서 사회주의전초선인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수호하는 사업에서와 사회주의사회의 기초를 건설하는 사업에서 라오스인민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조선측은 라오스반동들을 지지하고 규합하여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반대하는 끊임없는 파괴책동에로 계속 내몰고있는 제국주의계층들과 그 앞잡이들의 적대적행동을 견결히 규탄하였다.

쌍방은 두 나라 사이에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과 무역협정을 체결할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다.

쌍방은 세계적범위에서 사회주의의 보다 휘황한 승리를 위하여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나라들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자기의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카이손 폼비한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편리한 시기에 라오스를 방문하시도록 초청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초청을 기꺼이 수락하시였다.

카이손 폼비한동지는 우리 나라 방문일정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18일 평양을 떠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행장에 나가시여 카이손 폼비한동지를 바래시였다.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대통령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이며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대통령인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가 1977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75년에 있은 우리의 귀국방문과 당신의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나라 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관계가 활짝 꽃피고있다는 뚜렷한 증거이며 이것은 두 나라 인민의 형제적친선의 력사에 가장 빛나는 기록을 남기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을 촉진하는데 큰 기여로 됩니다.》

우리 인민은 이해 탄생 85돐을 맞이한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대통령이 그처럼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 온데 대하여 열렬히 환영하였으며 그의 우리 나라 방문을 조선과 유고슬라비아 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커다란 경사로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24일 비행장에 나가시여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를 뜨겁게 맞이하시였으며 그와 그 일행에게 특별히 열렬한 환영과 환대를 베푸시였다.

혁명의 수도 평양시안의 수십만 근로자들이 비행장과 수십리연도에서 친선단결의 노래를 부르며 명절과 같은 흥겨운 마음으로 찌또동지의 우리 나라 도착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전례없이 아름답고 장엄한 대화폭이 펼쳐진가운데 이날 김일성광장에서는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에게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독립, 인민의 행복을 이룩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싸우는 반제투사의 상징인 반제투사조각상과 그리고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귀중한 기념품인 은장도를 드리는 성대한 환영의식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대통령을 위하여 성대한 환영연회와 환송연회를 베푸시였으며 오찬과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대통령은 환영연회에서 연설하시였다.

25일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의례방문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29일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를 답례방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함께 찌또동지는 26일 연풍에 가시여 그곳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으시였으며 유람선을 타시고 풍치 아름다운 인공호수인 연풍호를 돌아보시였으며 여기에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와 자리를 같이하시고 평양시예술인들의 음악무용종합공연과 유치원 어린이들의 노래와 춤공연 그리고 평양시 청소년학생 5만명이 출연한 대집단체조 《조선의 노래》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28일에는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를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10여만군중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가 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였다.

군중대회에서는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에게 평양시명예시민칭호가 수여되였으며 또한 군중대회의 이름으로 된 축기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찌또동지가 29일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의 최고훈장인 《큰별훈장》을 수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와 함께 금별메달 및 국기훈장제1급을 수여하시였다.

찌또동지는 방문기간 인민군렬사탑에 화환을 드리였다. 그와 함께 온 일부 성원들은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하였으며 또한 조선중앙력사박물관, 평양지하철도, 조선미술박물관, 중앙공업및농업전람관을 돌아보았다. 또한 일부 수원들이 평양학생소년궁전, 청산협동농장,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등을 돌아보았다.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는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동안 자기들에게 베풀어준 우리 인민의 열렬한 환영과 환대에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그는 환영연회에서 연설하면서 우리 인민들이 보여준 대중적이며 자발적이며 열광적인 환영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모든 상상을 초월하였다고 하면서 이러한 체험은 자기들의 영원한 추억속에 남아있을것이라고 말하였다.

찌또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미 알려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높은 존경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는 연회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유고슬라비아에서는 귀국의 새 력사를 창조하시는데서 김일성주석께서 노신 타월한 역할이 잘 알려져있습니다.

김일성주석은 민족적해방, 귀국의 사회적인 변혁, 귀국의 독립의 강화, 평화적인 방법으로 귀국인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과 조선로동당의 투쟁과 불가분리적으로 련관되여있습니다.

주석동지, 당신께서 제시하신 강령을 실현하는 길에서 이룩된 성과는 우리의 존경을 자아내고있습니다.

당신께서는 지칠줄 모르는 노력과 무한한 헌신성으로 전쟁으로 인하여 황폐화되였던 나라를 번영하는 나라로 전변시키시였습니다.》

또한 군중대회에서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는 《이 기회를 리용하여 올해에 맞이한 김일성주석동지의 탄생기념일을 계기로 그이께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축원을 보내게 됩니다.

그이의 존함은 귀국의 민족적해방과 전면적인 변혁과 사회주의와 민족의 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당신들의 성과와 불가분리로 련관되여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는 매우 따뜻하고 동지적인 친선의 분위기속에서 그리고 완전한 호상존중과 리해의 정신에서 3차례의 회담을 진행하시였다.

회담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친선과 전면적협조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방도들에 대하여서와 쁠럭불가담운동을 가일층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광범한 의견을 나누고 토의된 문제들에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사이의 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는 공동콤뮤니케에서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로선을 관철함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찌또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5대방침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면서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또한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규탄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으며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가 하루빨리 철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고슬라비아인민이 자기의 수령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의 령도밑에 자치제에 기초한 사회주의사회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열렬히 축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이 국제무대에서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평등의 관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쁠

럭불가담운동의 적극적인 추진에 기여하고있는데 대하여 환영하시며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시였다.

쌍방은 두 나라 사이의 전반적관계의 발전에서 조선로동당과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사이의 협조와 두 나라 사회단체들 사이의 협조가 가지는 의의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그것을 앞으로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공동콤뮤니케는 두 나라 국가수반들께서 회담과정에 국제정세를 평가하시고 사회주의와 민족해방운동이 승리하는 방향으로 세계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있으며 민족적독립과 자주성, 공정한 국제관계의 수립을 요구하는 진보적세력들이 큰 역할을 놀고있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음을 지적하였다.

두 나라 국가수반들께서는 쁠럭불가담운동이 공정한 국제정치경제관계의 수립을 위한 투쟁과 제국주의,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지배주의 그리고 모든 형태의 침략과 간섭, 예속과 불평등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놀고있는 역할과 세계정치에 미치고있는 그의 영향력에 대하여 지적하시고 이 운동의 통일을 수호하고 강화하며 이 운동의 역할을 높일데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시였다.

쌍방은 쁠럭불가담나라들사이의 의견상이와 현존하는 문제들이 호상존중과 평등에 기초한 쁠럭불가담운동의 원칙에 맞게 단결의 원칙, 개별적나라들의 리익과 쁠럭불가담운동의 전반적인 리익의 원칙에 부합되게 화목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공동콤뮤니케에서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이 튼튼한 단결을 이룩하고 제5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의 결정과 뉴델리쁠럭불가담나라 조정위원회 부장회의 결의를 리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수립과 발전도상나라들의 자주적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쁠럭불가담나라들과 발전도상나라들이 경제기술적련계와 협조를 강화할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군비축소에 관한 유엔총회 특별회의가 군비경쟁을 저지시키도록 하기 위한 원칙과 방향을 규정하게 될 행동강령을 채택하는데 기여하도록 활동을 전개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두 나라 국가수반들께서는 세계 여러 지역의 정세에 대하여 검토하시고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 온갖 형태의 지배와 불평등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한 아세아인민들의 투쟁, 강점된 아랍땅에서 이스라엘침략자들을 철거시키고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 령토완정을 위한 아랍인민들의 투쟁과 합법적인 민족적권리를 위한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투쟁, 자유와 독립을 위한 남부아프리카인민들과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위한 모든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 평화와 안전, 평등한 협조, 긴장완화를 위한 구라파에서의 노력, 외세의 간섭을 반대하고 민족적자주권을 지키며 경제적자립을 공고히 하기 위한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의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는 국제 로동운동 및 공산주의운동, 진보적운동안의 전반적인 정세와 움직임을 검토하시고 사회주의로 나가는것이 세계적추세로 되고있는데 대하여서와 공산당 및 로동당들과 다른 진보적세력들이 완전한 자주성과 독자성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을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평가하시였다.

두 나라 국가수반들께서는 개별적인 당들과 나라들사이의 차이가 협조발전에 장애로 되지 말아야 한다고 인정하시였으며 이 원칙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로동당과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은 자주성을 견지하는 기초우에서 앞으로도 국제 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에서 평등한 관계를 강화하며 모든 공산당 및 로동당들, 사회당들, 다른 진보적 당 및 운동들과의 협조를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활동할것이라고 언명하시였다.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을 방문하시도록 초청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초청을 수락하시였다.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는 우리 나라 방문일정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30일 특별비행기로 평양을 떠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비행장에 나가시여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를 바래시였다.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 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적도기네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적도기네민족유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며 공화국 종신대통령이며 적도기네 국가및 인민혁명정부 수반인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각하를 단장으로 하는 적도기네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이 1977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우리 나라를 공식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5일 비행장에 나가시여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과 그 일행을 따뜻이 맞이하시였다.

이날 평양시안의 수십만 근로자들이 연도에서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과 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적도기네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였으며 17일에는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과 부인, 그 자녀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하여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이 또한 성대한 연회를 차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이 연회에서 연설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이 차린 연회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과 적도기네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형제적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사변으로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6일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과 함께 음악무용이야기《락원의 노래》공연을 보시였으며 17일에는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을 단장으로하는 적도기네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 참석하시였다.

군중대회에서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혁명가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따라 자기 조국을 자립적인 강력한 사회주의경제를 가진 부강한 나라로 전변시켰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로동당은 나라를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불패의 혁명력량으로 전변시켰습니다》라고 강조하였다.

군중대회에서는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에게 대회의 이름으로 된 축기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5일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이 마련하여온 지성어린 선물을 받으시였으며 17일에는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과 부인, 그 자녀들을 위하여 마련하신 선물을 드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에게 국기훈장제1급을, 부인에게 로력훈장을 수여하시였다.

대표단 일행에게도 훈장과 메달이 수여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외국수반들에게 처음으로 수여되는 적도기네공화국의 최고훈장인 《독립훈장》과 《당사업공적훈장》을 받으시였다.

김성애동지와 우리 나라의 여러 간부들과 관계부문 일군들에게 또한 적도기네공화국 훈장이 수여되였다.

대표단은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동안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하고 고향집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또한 그들은 집단체조《조선의 노래》를 보았으며 중앙공업및농업전람관을 참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과 두 차례의 회담을 진행하시였다.

회담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으며 토의된 문제들에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8일에는 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적도기네측은 공동콤뮤니케에서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가장 옳바르고 세련된 령도밑에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와 경험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규탄하고 조선의 통일문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5대방침에 기초하여 해결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측은 적도기네인민의 최고지도자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의 령도밑에 자기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풀어나가면서 에스빠냐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새 사회를 건설하며 적도기네공화국과 민족유일로동당과 인민혁명정부를 방해하고 봉쇄하는 에스빠냐지배세력의 계속적인 파괴, 전복음모 책동을 짓부시기 위하여 적도기네인민이 진행하고있는 정력적인 투쟁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조선측은 적도기네측이 식민지통치기간 적도기네인민을 반대하여 에스빠냐제국주의정부가 감행한 죄행과 적도기네인민에 대한 대중적학살과 가혹한 착취를 숨기고 세계여론을 외곡하기 위하여 적도기네정부와 인민과 그의 최고지도자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각하를 반대하여 국제적으로 비방깜빠니야를 벌리고있는 에스빠냐반동들을 규탄하고있는데 대하여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쌍방은 현 국제정세를 분석하면서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며 세계의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자주적발전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라고 평가하였다.

쌍방은 현시기 제국주의자들이 날로 파산몰락되는 저들의 처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발악하고있으며 쁠럭불가담나라들,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분렬와해책동을 집요하게 감행하고있다고 규탄하였으며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외래지배세력과 억압세력의 분렬리간책동에 경각성을 높이고 그들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행동통일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쌍방은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정치적으로 굳게 단결할뿐아니라 경제적으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허물어버리고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진정한 리익과 의사에 맞는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집단적인 공동투쟁을 더욱 강화하여야한다고 인정하였다.

쌍방은 제국주의자들이 아프리카대륙에서 무너져가는 저들의 식민지지배권을 유지해보려고 하면서 남아프리카의 소수백인인종주의정권에 핵무기까지 제공하려고 책동하고있는데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자유와 해방을 위한 짐바브웨, 나미비아, 남아프리카인민들의 정의의 투쟁과 아프리카의 완전해방과 통일을 위한 전체 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적도기네수반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적도기네공화국을 국가방문하시도록 공식초청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초청을 기꺼이 수락하시였으며 방문날자는 앞으로 정하기로 하시였다.

9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적도기네공화국 정부사이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경제및기술협조에 관한 합의서가 조인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8일 비행장에 나가시여 우리 나라 방문일정을 끝마치고 평양을 떠나는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을 바래시였다.

버마련방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인 우 네 윈각하의 우리 나라 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버마련방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이며 국가리사회 의장인 우 네 윈각하가 1977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신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조선과 버마 사이의 친선관계발전에서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놓은 중요한 계기로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9월 20일 비행장에 나가시여 우 네 윈대통령과 그 일행을 뜨겁게 맞이하시였다.

우 네 윈대통령은 이날 비행장과 연도에서 수십만 평양시근로자들의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으며 우리 나라 민족적풍습의 하나로서 가장 귀중한 손님이 올때에 주는 선물인 은장도를 전체 평양시민들의 이름으로 받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 네 윈대통령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였으며 또한 우 네 윈대통령과 그의 딸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20일 의례방문하여온 우 네 윈대통령과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으며 대통령과 그 일행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22일 우 네 윈대통령을 답례방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 네 윈대통령과 함께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공연과 평양시청소년학생 5만명이 출연하는 대집단체조 《조선의 노래》를 보시였으며 또한 중앙공업및농업전람관을 돌아보시였다.

우 네 윈대통령은 또한 인민경제대학을 돌아보았으며 여기에서 특히 우리 나라에서의 수리화경험과 새로운 농업지도체계에 의한 농촌경리의 관리운영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였다.

대통령과 함께 온 일부 성원들은 유서깊은 만경대를 방문하였으며 만경대고향집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들은 붉은기만경대혁명학원,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조선혁명박물관, 조선중앙력사박물관, 평양학생소년궁전, 금성뜨락또르공장과 남포제련소를 돌아보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위하여 우 네 윈대통령이 22일 성대한 연회를 차렸다.

우 네 윈대통령은 연회에서《우리의 방문은 비록 짧았으나 우리는 이번에 새로운 견해와 인식을 가지게 되였으며 오랜 벗을 다시 만나 옛우정을 새로이 되새길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였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조선과 버마는 두 나라의 공동의 리익에 맞게 공업, 무역, 통상 분야에서 서로 친선적인 협조를 진행하여왔다고 하면서 이러한 호상 유익한 관계가 유지될뿐아니라 가능한 다른 분야들에도 확대되기를 희망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 네 윈대통령과 두 차례의 회담을 진행하시였다.

회담에서는 조선로동당과 버마사회주의로선당사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버마련방사회주의공화국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시였다.

23일 두 나라 사이의 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공동콤뮤니케에서 쌍방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내정불간섭, 호상존중,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날로 좋게 발전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고 앞으로 이 관계를

가능한 모든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강화할데 대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우 네 윈대통령은 조선인민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대통령은 조선의 평화적통일과 유엔의 기발밑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의 남조선으로부터의 철거 그리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에 대하여 확고한 지지를 표시하였으며 조선의 통일문제가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버마인민이 우 네 윈대통령과 버마사회주의로선당의 령도밑에 자주적인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버마사회주의로선당과 버마정부가 대내외정책에서 견지하고있는 자주적인 립장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시였다.

쌍방은 현국제정세가 민족해방력량의 정당한 위업과 제국주의, 식민주의, 신식민주의 및 온갖 형태의 외래지배세력을 반대하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투쟁에 유리하게 발전하고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쁠럭불가담운동이 이 력량을 대표하고있으며 현시대의 기본추세를 반영하는 하나의 중요한 혁명운동이라고 강조하였다.

쌍방은 또한 낡은 국제경제질서를 새로운 공정한 국제경제질서로 바꾸기 위하여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정치적으로 튼튼히 단결할뿐아니라 경제기술적협조를 긴밀히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 네 윈대통령은 김일성주석께서 호상 유리한 시기에 버마련방사회주의공화국을 방문하시도록 초청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초청을 수락하시였다.

우 네 윈대통령은 우리 나라 방문일정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9월 23일 평양을 떠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비행장에 나가시여 우 네 윈대통령을 바래시였다.

뽈 뽀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주의캄보쟈당 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캄보쟈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이며 민주주의캄보쟈 정부 총리인 뽈 뽀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주의캄보쟈 당및정부대표단이 1977년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신들의 우리 나라 방문을 계기로 혁명적의리로 굳게 맺어진 우리들사이의 전투적우정은 더욱 깊어졌으며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친선은 영원불멸할 형제적친선으로 튼튼히 다져졌습니다.》

조선인민은 캄보쟈혁명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우리 나라를 처음으로 공식친선방문한 뽈 뽀트동지와 민주주의캄보쟈 당및정부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하고 가장 따뜻이 환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4일 비행장에 나가시여 뽈 뽀트동지와 그 일행을 따뜻이 맞이하시였다.

평양시안의 수십만 근로자들이 비행장과 연도에서 뽈 뽀트동지와 대표단의 도착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이날 김일성광장에서는 평양시민의 이름으로 뽈 뽀트동지에게 반제투사조각상을 드리는 환영의식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뽈 뽀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주의캄보쟈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4일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였으며 7일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뽈 뽀트동지가 차린 연회에 초대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뽈 뽀트동지가 연회에서 연설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뽈 뽀트동지와 자리를 같이하시고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공연과 평양시 청소년학생 5만명이 출연하는 대집단체조 《조선의 노래》를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4일 의례방문하여온 뽈 뽀트동지와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으며 손님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일 뽈 뽀트동지를 답례방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뽈 뽀트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와 함께 금별메달 및 국기훈장제1급을 수여하시였다.

또한 대표단일행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 및 메달이 수여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7일에는 뽈 뽀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주의캄보쟈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10여만군중이 모인 가운데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뽈 뽀트동지가 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였다.

군중대회에서 위대한 수령님께 뽈 뽀트동지는 민주주의캄보쟈 당및정부대표단의 이름으로 된 축기를 드리였다.

대회에서는 또한 뽈 뽀트동지에게 군중대회의

이름으로 된 축기를 드리였다.

방문기간 뽈 뽀트동지는 조선로동당창건 32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축하방문하였다.

뽈 뽀트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께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고 조선로동당창건 32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 가장 큰 경의를 드리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축원하였다.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동안 뽈 뽀트동지와 그가 인솔하는 대표단은 유서깊은 만경대를 방문하고 고향집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그들은 또한 인민경제대학과 금성뜨락또르공장을 보았으며 대표단의 일부 성원들은 중앙공업및농업전람관과 조선적십자병원, 평양지하철도를 돌아보았다.

뽈 뽀트동지는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동안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그를 구현하여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성과들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다.

7일 연회연설에서 뽈 뽀트동지는 자기의 참관과 우리가 이룩한 모든 성과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자주적인 주체사상의 위력하고 전능한 생활력에 대하여 더욱 똑똑히 알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주체사상을 관철하는데서 이룩한 위대한 승리와 자기 운명의 주인이 자기자신이라는 조선인민의 자주적인 립장은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 과업수행을 다그치고있는 캄보쟈공산당과 캄보쟈인민을 힘있게 고무하여준다고 말하였다.

뽈 뽀트동지는 인민경제대학과 금성뜨락또르공장을 보고 우리 나라에서의 민족간부양성사업과 자립적민족경제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을 자기 나라의 현실에 적용하여 조선의 모범을 따라 나라를 건설하도록 할것이라고 말하였다.

특히 금성뜨락또르공장을 돌아본 그는 조선인민과 로동계급의 혁명정신과 기백은 캄보쟈인민뿐아니라 새로 독립한 나라들, 쁠럭불가담나라 인민들의 모범으로 된다고 하였다.

뽈 뽀트동지는 또한 연회와 군중대회 연설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5년이상의 민족인민해방전쟁시기와 캄보쟈가 종국적으로 해방된 이후 시기에 캄보쟈공산당과 캄보쟈인민을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강력히 지원하여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뽈 뽀트동지와 두차례의 회담을 진행하시였다.

시종일관 전투적친선과 동지적신뢰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된 회담에서는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형제적친선협조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하여서와 일련의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광범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토의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뽈 뽀트동지가 8일 공동콤뮤니케에 서명하시였다.

공동콤뮤니케에서는 조선과 캄보쟈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위대한 친선단결을 더욱 공고발전시킬데 대한 념원과 두 나라 인민들의 정의의 혁명위업에 대한 강력한 지지와 련대성이 표시되였다.

조선측은 공동콤뮤니케에서 캄보쟈 인민과 혁명군대가 자기의 탁월한 지도자 뽈 뽀트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캄보쟈공산당의 옳바른 령도밑에 민족인민해방혁명전쟁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혁명승리후 해방된 조국과 혁명정권을 보위하며 령토완정을 지키고 경제를 복구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의 혁명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는데 대하여 열렬히 축하하였다.

조선측은 캄보쟈공산당과 민주주의캄보쟈 정부가 대외관계분야에서 견지하고있는 자주, 자립 로선과 쁠럭불가담정책에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앞으로 캄보쟈인민이 진행하는 정당한 투쟁을 계속 적극적으로 지지할데 대하여 확언하였다.

캄보쟈측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들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열렬히 축하하였으며 우리 인민의 정당한 조국통일위업에 다시금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캄보쟈측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면서 조선의 통일문제는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리고 캄보쟈측은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혹독한 파쑈적탄압을 규탄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미국이 남조선에 있는 자기의 모든 군대와 핵무기를 비롯한 전쟁수단들을 지체없이 완전히 철거시키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데 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동콤뮤니케에서 쌍방은 공산당 및 로동당들이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를 위한 기본요인이라는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였으며 조선로동당과 캄보쟈공산당은 자주성의 호상존중과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에 기초하여 세계로동계급의 단결을 강화하며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할데 대한 결의를 다시금 천명하였다.

공동콤뮤니케는 또한 력사무대에 새로 등장한 쁠럭불가담운동의 지위와 역할, 쁠럭불가담나라들

앞에 나서는 당면한 공동임무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공동콤뮤니케에서 쌍방은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각 지역정세를 분석하고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틀어쥐고 자기자신이 개척해나가기 위한 3대륙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높이 평가하고 진정한 해방과 독립, 자주와 령토완정, 평화와 중립, 민주주의와 사회적진보를 위한 3대륙인민들의 투쟁에 확고한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뽈 뽀트동지는 캄보쟈공산당 중앙위원회와 민주주의캄보쟈 정부의 이름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편리한 시기에 민주주의캄보쟈를 공식친선방문하시도록 초청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초청을 수락하시였다.

뽈 뽀트동지는 우리 나라 방문일정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8일 평양을 떠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행장에 나가시여 뽈 뽀트동지를 바래시였다.

에리히 호네케르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초청에 의하여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에리히 호네케르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이 1977년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 나라를 공식친선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당신들의 이번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나라 인민들사이에 맺어진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8일 비행장에 나가시여 독일 로동계급과 인민의 뜨거운 친선의 정을 안고오는 에리히 호네케르동지와 그 일행을 따뜻이 맞이하시였다.

에리히 호네케르동지와 대표단은 이날 혁명의 수도 평양에 도착하여 수만명 근로자들의 열렬한 연도환영을 받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8일 에리히 호네케르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였으며 9일에는 에리히 호네케르동지와 자리를 같이 하시고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공연을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에리히 호네케르동지가 또한 성대한 연회를 차렸다.

위대한 수령님의 참석밑에 10일에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호네케르동지는 연회와 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였다.

호네케르동지는 연회에서 자기들은 《그 어느때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편에 굳게 서있을 동맹자가 되리라는것을 확언》한다고 하였다.

또한 군중대회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온갖 적대적인 책동을 당장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군중대회에서는 대회이름으로 된 축기를 에리히 호네케르동지에게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에리히 호네케르동지는 기념품을 드리였다.

에리히 호네케르동지가 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의례방문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0일 에리히 호네케르동지를 답례방문하시였다.

대표단은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동안 인민군렬사탑, 해방탑, 우의탑에 화환을 드리였으며 금성뜨락또르공장을 돌아보았다.

방문기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김일성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과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에리히 호네케르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 사이에 두 차례의 회담이 진행되였다.

회담에서 쌍방은 각기 자기 나라의 정세에 대하여 통보하고 두 나라 당과 국가와 인민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들과 호상 관심사로 되는 국제문제들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11일 두 나라 사이의 공동콤뮤니케가 발표되였다.

조선측은 공동콤뮤니케에서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이 대내외정책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축하하였으며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이 발전된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며 독일사회통일당 제9차대회결정들을 수행하기 위한 창조적로력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할것을 축원하였다.

조선측은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존재와 성과적인 발전이 세계사회주의력량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기여로 된다고 지적하였으며 구라파에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측은 조선인민이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뒤떨어졌던 자기 나라를 매우 짧은 기간에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강

력한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킨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였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앞으로의 투쟁에서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였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측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방침과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한다는것을 강조하였으며 남조선에 주둔하고있는 외국군대가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전쟁수단들을 가지고 당장 완전히 철거하여야 하며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꾸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쌍방은 두 나라 당과 국가 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더 확대발전시킬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쌍방은 앞으로 장기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할데 대하여 합의를 보았으며 경제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과 새로운 령사협약이 체결되였다.

쌍방은 쁠럭불가담운동이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의 침략과 간섭 책동을 반대하는 우리 시대의 위력한 국제력량이라고 인정하였다.

쌍방은 사회주의나라들과 민족적독립을 쟁취한 나라들사이의 련대성과 협조를 강화하는것이 반제공동투쟁에서 새로운 성과들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에리히 호네케르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공식친선방문하시도록 초청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초청을 기꺼이 수락하시였다.

에리히 호네케르동지는 우리 나라 방문일정을 성과적으로 끝내고 11일 평양을 떠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비행장에 나가시여 에리히 호네케르동지를 바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과 국가 령도 및 대외활동 일지

1 월

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7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사**》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 공연을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7년 새해를 맞이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에게 축전을 보내시였다.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딸리아국제관계연구소 총서기인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문제연구소 총서기를 접견하시였으며 그를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2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시였다.

2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 회장을 접견하시였다.

2 월

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민군군부대를 찾으시고 우리 인민의 혁명무력을 정규적무장력으로 강화발전시킨 스물아홉돐을 맞는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시고 군부대군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리사회 위원장의 특사를 접견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도공화국 대통령 파크루딘 알리 아호메드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여 이 나라 대사관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1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대회에 축전을 보내시였다.

2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로청중앙위원회 일군들앞에서 **《사로청조직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연설하시였다.

3 월

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애급아랍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시고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시 대성구역 대성협동농장원들과 함께 지방주권기관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시였다.

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1차아랍아프리카수뇌자회의에 축전을 보내시였다.

1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랍사회주의동맹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1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본국의 소환에 의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감에 앞서 작별방문하여온 우리 나라 주재 우간다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시였다.

2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서해지구수산부문열성자회의를 지도하시였다.(22일까지)

2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덕천지구를 현지지도하시였다.(29일까지)

3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기네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시였다.

4 월

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꽁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며 꽁고인민공화국 대통령인 마리엔 느구아비의 령전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사회주의에티오피아 림시군사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4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전원회의가 열리였다.(6일에 끝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청명에 즈음하여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 렬사묘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한랭전선으로 인한 가물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결론하시였다.

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안남도와 평안북도안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20일까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버마련방사회주의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시였다.

1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 부부장 일행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과 벌가리아 두 나라 정부사이의 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제8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온 벌가리아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령님탄생 예순다섯돐 재일조선인축하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그들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이란신임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리아아랍친선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도신문 《인디안 타임스》 주필을 접견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인디안 타임스》주필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꾸바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시였다.

2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시였다.

2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사 상무취체역인 편집국장일행을 접견하시고 그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편집국장일행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2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녀맹예술소조종합공연을 보시였다.

2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경애하는 수령님께 전체 인민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충성의 편지증정식에 참석하시였으며 집단체조 《조선의 노래》공연을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령님탄생 예순다섯돐 재일조선인축하단을 다시 접견하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60만 재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재일조선인축구선수단, 재일본조선무역상사일군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집단체조 《조선의 노래》를 창작한 지도일군들과 교원들, 집단체조에 출연한 여러 학교의 청소년학생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또한 아세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 갔던 집단체조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회의가 열렸다.(29일에 끝남)

2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회의에서 《토지법에 대하여》 연설하시였다.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채택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이 채택되였다.

3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가시여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는 가이아나협동공화국 대통령 아써 촹을 따뜻이 맞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써 촹대통령을 만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써 촹대통령과 부인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였으며 연회에서 연설하시였다.

5 월

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총련금강산가극단 지휘성원들과 주요배우들을 접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총련금강산가극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음악무용종합공연을 보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부인과 함께 가이아나협동공화국 대통령의 숙소를 방문하시여 아써 촹대통령과 부인을 다시 만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기네-비싸우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부인 루쎄뜨 까브랄녀사를 접견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성애동지가 루쎄뜨 까브랄녀사를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였다.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가시여 우리 나라 방문일정을 끝마치고 평양을 떠나는 아써 촹대통령을 바래시였다.

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학생소년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을 보시였다.

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 아브라쉐비츠예술단 지휘성원들과 예술인들을 접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 아브라쉐비츠예술단의 공연을 보시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를 전하신 다음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프랑스지지및행동위원회 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기네-비싸우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부인 루쎄뜨 까브랄녀사를 접견하시고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가시여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는 가봉민주당 총비서이며 가봉공화국 대통령인 엘 하지 오마르 봉고를 따뜻이 맞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의례방문하여온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을 만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의 지성어린 선물을 받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과 부인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였으며 연회에서 연설하시

였다.

1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사이의 회담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을 답례방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과 함께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공연을 보시였으며 무대에 오르시여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꽃바구니를 전하시고 그들과 같이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사이의 회담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훈장을 수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봉공화국의 최고훈장인 《적도별훈장》을 수여받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훈장수여식이 있은 다음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에게 선물을 드리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과 부인이 차린 성대한 연회에 초대되시였으며 연회에서 연설하시였다.

1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가봉공화국 사이의 공동콤뮤니케와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에 각각 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가시여 우리 나라 방문일정을 끝마치고 평양을 떠나는 엘 하지 오마르 봉고대통령을 뜨겁게 바래시였다.

1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세네갈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시였다.

2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의 탄생 85돐과 유고슬라비아공산당 당수로서의 활동개시 40돐을 축하하여 우리 나라에 와있는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대사관에 꽃바구니를 보내시였다.

2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신화통신사 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3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프랑스공산당기관지 《유마니떼》대외정책국장부부를 접견하시였다.

6 월

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딸리아국제관계연구소 총서기를 접견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인민해방군 친선참관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중국인민해방군 친선참관단 단장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텔레비죤촬영단을 접견하시고 그들이 제기한 질문들에 대답을 주시였다.

1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가시여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는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정부 총리인 카이손 폼비한동지를 따뜻이 맞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카이손 폼비한동지를 만나시고 친선의 정 넘치는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카이손 폼비한동지가 드리는 지성어린 선물을 받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카이손 폼비한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였으며 연회에서 연설하시였다.

1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카이손 폼비한동지사이의 회담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카이손 폼비한동지를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1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카이손 폼비한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 참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카이손 폼비한동지

에게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카이손 폼비한동지에게 선물을 드리시였다.

1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사이의 공동콤뮤니케에 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가시여 우리 나라 방문일정을 끝마치고 평양을 떠나는 카이손 폼비한동지를 따뜻이 바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랍사회부흥당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프랑스신문 《몽드》주필부부를 접견하시였으며 그가 제기한 일련의 질문들에 대답을 주시였다.

2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벌가리아녀성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리아아랍공화국 변호사협회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앙아프리카제국 황제의 특별고문을 접견하시였다.

2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뽈스까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을 접견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7 월

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14차아프리카통일기구 국가및정부수뇌자회의에 축전을 보내시였다.

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방송협회취재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그들이 제기한 질문들에 대답을 주시였다.

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리비아아랍사회주의인민공동체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팔레스티나민족해방운동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기계공업부문일군협의회에서 《기계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결론하시였다.

8 월

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적도기네공화국 종신대통령 부인 빈당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녀사를 접견하시였으며 그를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1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산토메 프린시페민주주의공화국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종격리반대세계행동대회에 축전을 보내시였다.

1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업부문일군협의회를 지도하시였다.(18일까지)

1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기계공업부문열성자회의를 지도하시였다.

20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국기계공업부문열성자회의에서 《기계공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하여》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웽그리아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을 접견하시였다.

2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에꽈도르 《불룬따드》출판사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접견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그들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2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가시여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는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이며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대통령인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를 뜨겁게 맞이하시였다.

2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의례방문하여온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를 만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 사이의 회담이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였으며 연회에서 연설하시였다.

2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와 함께 연풍호를 돌아보신후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를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를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와 함께 유치원어린이들이 출연하는 노래와 춤 공연을 보시였으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꽃바구니를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7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사이의 회담이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와 함께 평양시 예술인들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을 보시였으며 예술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꽃바구니를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8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를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 참석하시였으며 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와 함께 대집단체조 《조선의 노래》를 보시였다.

2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를 답례방문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 사이의 회담이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의 최고훈장인 《큰별훈장》을 받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를 환송하는 연회를 베푸시였다.

3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가시여 우리 나라 방문일정을 마치고 평양을 떠나는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를 따뜻이 바래시였다.

3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대통령 동생부부를 접견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그들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9 월

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딸리아조선친선협회 서기장을 접견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몽고인민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시였다.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전원회의가 열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함에 대하여》 연설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가 발표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므니아군대당일군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한 중국중앙악단 지휘성원들과 예술인들을 접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중앙악단의 공연을 보시고 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꽃바구니를 전하시고 그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였으며 출연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결론하시였다.

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희랍공산당(국내)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그들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1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본국의 소환에 의하여 자기 나라로 돌아감에 앞서 작별방문하여온 우리 나라 주재 수리아아랍공화국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시였다.

1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아홉돐 재일조선인축하단과 총련지부일군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온 에스빠냐공산당대표단, 수리아아랍공화국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화인민공화국 우전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말가슈민주주의공화국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온 말따레이버당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온 여러 나라 대표들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참가한 여러 나라 대표들을 환영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가 차린 연회에 참석하시였다.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가시여 우리 나라를 공식방문하는 적도기네민족유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며 적도기네공화국 종신대통령인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을 따뜻이 맞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을 만나시였으며 대통령과 그 일행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 사이의 회담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을 단장으로 하는 적도기네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였으며 연회에서 연설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이 드리는 지성어린 선물을 받으시였다.

1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과 함께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공연을 보시였으며 무대에 오르시여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를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온 꼬스따 리까 사회당대표단,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대표단을 각각 접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온 우간다공화국 정부대표단, 또고공화국 정부대표를 각각 접견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온 가이아나협동공화국 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1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적도기네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 참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을 만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 사이의 회담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에게 국기훈장 제1급을 수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적도기네공화국의 최고훈장인 《독립훈장》과 《당사업공적훈장》을 받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이 차린 연회에 초대되시였으며 연회에서 연설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에게 선물을 드리시였다.

1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가시여 우리 나라 방문일정을 마치고 평양을 떠나는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을 따뜻이 바래시였다.

1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참가하였던 말리공화국 정부대표단, 중앙아프리카제국정부대표단을 각각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참가하였던 라틴아메리카기자련맹 서기장을 접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참가하였던 산토메 프린시페민주주

의공화국 정부대표단, 탄자니아당및정부대표단을 각각 접견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가시여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는 버마련방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이며 국가리사회 의장인 우 네 윈을 따뜻이 맞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의례방문하여온 우 네 윈대통령을 만나시였으며 대통령과 그 일행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버마련방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이며 국가리사회 의장인 우 네 윈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였으며 연회에서 연설하시였다.

2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 네 윈대통령사이의 회담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 네 윈대통령과 함께 중앙공업및농업전람관을 참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 네 윈대통령과 함께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공연을 보시였으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를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 네 윈대통령을 답례방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우 네 윈대통령사이의 회담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 네 윈대통령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 네 윈대통령과 함께 대집단체조 《조선의 노래》를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 네 윈대통령이 차린 성대한 연회에 초대되시였으며 연회에서 연설하시였다.

2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가시여 우리 나라 방문일정을 마치고 평양을 떠나는 우 네 윈대통령을 따뜻이 바래시였다.

2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참가하였던 일본주체사상연구학술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그들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2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11차전체대회에 축하문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도신문 《인디안 타임스》주필부부를 접견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광업부문열성자회의를 지도하시였다.(29일까지)

2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뿔스까인민공화국 군사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주재 뜌니지공화국 첫 신임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시고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다.

3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네갈공화국 국회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

10 월

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모잠비끄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그들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가시여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는 캄보쟈공산당중앙위원회 비서이며 민주주의캄보쟈 정부 총리인 뽈 뽀트동지를 따뜻이 맞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의례방문하여 온 뽈 뽀트동지를 만나시고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를 하시였으며 손님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뽈 뽀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주의캄보쟈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였으며 연회에서 연설하시였다.

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뽈 뽀트동지 사이의 회담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뽈 뽀트동지와 함께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공연을 보시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를 전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뽈 뽀트동지를 답례방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뽈 뽀트동지 사이의 회담이 있었다.

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뽈 뽀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주의캄보쟈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 참석하시였으며 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뽈 뽀트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시였

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뽈 뽀트동지와 함께 대집단체조 《조선의 노래》공연을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뽈 뽀트동지가 차린 성대한 연회에 초대되시였으며 연회에서 연설하시였다.

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원군 원화협동농장에 나가시여 농사형편과 새로 만든 벼수확기를 보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민주주의캄보쟈 사이의 공동콤뮤니케에 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32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축하방문해온 뽈 뽀트동지를 만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가시여 우리 나라 방문일정을 마치고 평양을 떠나는 뽈 뽀트동지를 따뜻이 바래시였다.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 대성산유원지에 새로 건설된 유희장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말가슈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의 자녀들을 접견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말가슈민주주의공화국대통령의 자녀들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10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경대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감에 앞서 작별방문하여온 우리 나라 주재 잠비아공화국 특명전권대사를 접견하시였다.

2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인민지원군조선전선참전 27돐에 즈음하여 평안남도 회창군에 있는 중국인민지원군렬사묘에 화환을 보내시였다.

2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국의 모든 선거자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시였다.

2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조친선방문단을 접견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그들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3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인민대외우호협회및중조우호협회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대표단을 위하여 만찬을 마련하시였다.

11 월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뽀르뚜갈사회당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재일조선녀성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그들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므니아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므니아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1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화력발전소 로동자들과 함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시였다.

1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말가슈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의 부모를 접견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부모를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2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재일조선출판보도일군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으며 그들을 위하여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3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7차선동원대회에서 《정치사업을 잘하여 인민군대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12 월

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사회당조선문제대책특별위원회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가시여 우리 나라를 친선방문하는 독일사회통일당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에리히 호네케르동지를 따뜻이 맞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의례방문하여온 에리히 호네케르동지를 만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에리히 호네케르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당및국

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베푸시였으며 연회에서 연설하시였다.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우리 나라 당및국가대표단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 사이의 회담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에리히 호네케르동지와 함께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공연을 보시고 공연성과를 축하하여 출연자들에게 꽃바구니를 전하시였으며 그들과 같이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에리히 호네케르동지를 답례방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우리 나라 당및국가대표단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 사이의 회담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에리히 호네케르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 참석하시였으며 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에리히 호네케르동지가 차린 성대한 연회에 초대되시였으며 연회에서 연설하시였다.

1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비행장에 나가시여 우리 나라 방문일정을 마치고 평양을 떠나는 에리히 호네케르동지를 따뜻이 바래시였다.

13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회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5차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에스빠냐사회로동당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참석밑에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가 열리였다.(17일 끝남)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높이 추대되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의에서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17일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제2차7개년(1978-1984)계획에 대하여》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이 채택되였다.

1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추대되신것과 관련하여 축하방문하여온 우리 나라 주재 외교단을 만나시였다.

2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또고인민련합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2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총련일군대표단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3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산부문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수산협동조합원들에게 축하전문을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8년을 맞이하여 평양시 학생소년들의 설맞이 모임에 참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보내주신 선물, 감사문과 축하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6년에 받은 첫 분배몫을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의 결의편지와 함께 올린 평안남도 문덕군 립석협동농장 사로청원 홍청미동무의 기특한 소행을 높이 평가하시여 그에게 보내주신 귀중한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있었음(3월 1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귀중한 약초를 전달하는 모임이 평안북도 운산군, 평안남도 양덕군, 황해북도 린산군, 자강도 전천군을 비롯한 많은 지방들에서 진행(5월 6일 《로동신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나라와 인민을 위한 좋은일하기운동에 떨쳐나서 수많은 유휴자재를 모아 수송전선에 보내준 함경남도 단천군 금덕

남자고등중학교와 금덕녀자고등중학교에 보내주신 감사와 귀중한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 진행(5월 1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평양시 천리마강안인민학교에 보내주신 감사와 귀중한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있었음(5월 2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안북도 염주군 룡북리 최재린동무에게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있었음(6월 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수송전선을 돕기 위한 좋은일하기운동에 떨쳐나서 수많은 유휴자재를 모아 나라에 바친 평양시 천리마서문인민학교에 보내주신 귀중한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있었음(6월 20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집단체조에 출연한 평양시안의 여러 학교들에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있었음(6월 26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청진제강소탁아소 세쌍둥이에게 보내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 진행(6월 2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농촌에서 수리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며 가물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전군중적농촌지원사업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유휴자재를 모아 나라에 바친 평양시안의 고등중학교, 인민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주신 감사문과 대동강고등중학교, 서성고등중학교, 평천고등중학교, 평천인민학교, 창전고등중학교, 동매1고등중학교, 궁골고등중학교에 보내신 귀중한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있었음(7월 1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북창화력발전소 당원들과 로동자들이 상반년기간에 전력생산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여 이곳 당원들과 로동자들에게 보내주신 감사와 귀중한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 진행(7월 2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안남도안의 장림탐사기계공장 탁아소일군들과 안극렬동무가 일하는 공장탁아소, 천동광산탁아소, 강동군 봉화협동농장탁아소, 평원군 원화협동농장탁아소에 보내신 귀중한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있었음(7월 2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토끼치기에서 모범을 보인 125개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들에 보내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있었음(7월 2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촌지원전투에 참가하여 로력적위훈을 세운 전체 대학, 고등전문학교, 고등중학교 학생들에게 보내신 감사문을 전달하는 모임 진행(8월 6일《로동신문》)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베아링생산에서 혁신적성과를 이룩한 10월 30일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보내신 감사문전달모임이 있었음(8월 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축산로대를 튼튼히 꾸리고 집짐승들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사양관리하여 많은 고기를 생산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식생활을 개선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배천영예군인식료공장 김기봉동무에게 보내신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이 있었음(8월 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산하 탄광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보내신 감사문을 전달하는 모임이 있었음(8월 1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촌지원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집단적으로 농촌에 진출할것을 결의해나선 평안남도 안주군 신안주녀자고등중학교 5학년 1반과 2반 학생들에게 보내신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 진행(8월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좋은일하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유용광물을 찾아내는데서 모범을 보인 자강도 초산군 신양송고등중학교, 자강도 룡림군 신흥고등중학교 학생들에게 보내신 감사와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있었음(8월 14일과 1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농촌지원전투에 참가하여 로력적위훈을 세운 전국의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보내신 감사문을 전달하는 모임들이 전국각지에서 진행(8월 20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강선제강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보내주신 감사문을 전달하는 모임이 있었음(9월 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박벽관을 생산하고있는 김정을동무가 일하는 공장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보내신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이 있었음(9월 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검덕광산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건설에 참가한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있었음(9월 1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집단체조 《조선의 노래》공연에 참가한 전체 교원들에게 보내주신 귀중한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 진행(9월 2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좋은일하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라에 많은 보탬을 준 평양시 천리마산업인민학교에 보내주신 귀중한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있었음(9월 2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함남도 송배전부 로동자, 기술자들에게 보내주신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이 있었음(10월 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평양시 동대원구역 신리인민학교에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있었음(10월 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집단체조 《조선의 노래》공연에 참가한 학교들과 학생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있었음(10월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원저수지건설에 참가한 6월 1일관개건설사업소에 보내주신 귀중한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있었음(10월 10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이해 농사에서 또다시 전례없는 풍작을 이룩함으로써 나라의 농업생산을 늘이는데 크게 이바지한 신천군 새길협동농장 전체 농장원들에게 보내주신 감사문을 전달하는 모임 진행(10월 1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립 서른돐을 맞는 만경대혁명학원과 학원 교직원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며 국가표창을 수여하는 모임 진행(10월 11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황해북도 린산군 2중천리마린산유치원 교양원들과 어린이들에게 보내신 감사와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 진행(10월 2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년대계의 대기념비적창조물인 은파호를 건설하는데서 빛나는 로력적위훈을 세운 건설자들에게 보내주신 축하문과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 진행(11월 3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아오지탄광고속도굴진소대원들에게 보내주신 감사를 전달하는 모임 진행(11월 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주종합탄광에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있었음(11월 1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새땅을 찾기 위한 투쟁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운 강원도 통천군 10월 17일청년돌격대원들과 전체 지원자들에게 보내신 감사문을 전달하는 모임이 있었음(11월 1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선전선동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인민군대안의 유급선전일군들과 초급선동일군들에게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며 국가표창을 수여하는 모임이 있었음(11월 30일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기술혁명수행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 룡성기계공장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보내신 감사문을 전달하는 모임이 있었음(12월 1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안주종합탄광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보내신 감사문을 전달하는 모임이 있었음(12월 2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구장지구탄광련합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에게 보내신 감사문을 전달하는 모임이 있었음(12월 2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평양화력발전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에게 보내신 축하문을 전달하는 모임 진행(12월 2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세계 여러 나라들에 보내신 선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적도기네공화국 종신대통령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에게 선물영화 《전진하는 적도기네》를 보내시였다.(1월 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리아변호사협회에 선물영화 《조선의 자주적통일을 지지하는 세계 법률가들의 목소리》를 보내시였다.(1월 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예멘아랍공화국 지도리사회 위원장 이브라힘 무함마드 알함디에게 선물영화 《예멘아랍공화국 정부대표단 우리 나라 방문》을 보내시였다 (4월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말따인민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7월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라오스인민에게 선물을 보내시였다.(7월 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르완다공화국 정부에 선물을 보내시였다.(8월 3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이아나협동공화국 대통령 아써 총에게 선물영화 《가이아나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보내시였다.(10월 2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들을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출판보도한 자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서 문헌집과 단행본들로 출판하고있으며 신문, 통신, 방송들이 광범히 보도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들을 1977년에 여러 나라들에서 출판 및 게재한 자료의 일부를 아래에 소개한다.

《김일성저작선집》과 문헌집 출판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인 도	
《사회주의농촌문제에 대하여》	말가슈	
《우리 혁명에서의 주체에 대하여》 제1권	노르웨이	
	단마르크	트리오출판사
	미 국	가디언출판사
	스웨리예	
《우리 혁명에서의 주체에 대하여》 제2권	미 국	가디언출판사
	핀란드	사난떼예출판사
《우리 혁명에서의 문학과 예술의 임무》	이딸리아	에디또리 리우니떼출판사
	에스빠냐	에브로출판사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네 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문헌집》	단마르크	헤노출판사
	이딸리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문화련락이딸리아협회
	탄자니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베네수엘라	로시난떼출판사
	꼴롬비아	조선통일지지꼴롬비아위원회
《청 년 론》	일 본	김일성주석저작연구회 전국련락회의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	베네수엘라	로시난떼출판사
	에스빠냐	
	에꽈도르	
	프랑스	알프레드 에이벨출판사
《쁠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	수리아	디마스끄출판사
	까메룬	

단 행 본 출 판

《신 년 사》 1977년	네 팔	
	인 도	전인도조선친선협회
	중 국	인민출판사
《당사업방법에 대하여》 1959년 2월 26일	모잠비끄	

《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 1961년 4월 25일	빠나마	빠나마조선친선문화협회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1967년 8월 12일	베 닌	
《청년들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선봉대가 되자》 1968년 4월 13일	탄자니아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1968년 10월 8일	라오스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1969년 3월 1일	모잠비끄	
《우리 나라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몇가지 경험에 대하여》 1969년 10월 11일	라오스 모잠비끄	
《당간부양성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1971년 12월 2일	베 닌 수리아	 디마스끄출판사
《교육사업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철저히 구현할데 대하여》 1971년 12월 27일	모잠비끄 뻬 루	
《농업근로자동맹의 중심과업에 대하여》 1972년 2월 16일	수리아	디마스끄출판사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72년 9월 17일	또 고	에디 또고출판사
《조국통일 5대방침에 대하여》 1973년 6월 25일	탄자니아	민족인쇄소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1974년 3월 7일	네 팔	네팔조선친선협회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1975년 4월 10일	네 팔	네팔조선친선협회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1975년10월 9일	모잠비끄 산토메 프린시페 에스빠냐 중 국 또 고	 인민출판사 에디 또고출판사
《쁠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 1975년 12월 16일	기 네 라오스 방글라데슈 이딸리아 탄자니아 파키스탄	 국제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문화련락이딸리아협회 까즈미출판사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까이〉 편집국장과 한 담화》 1976년 3월 28일	네 팔 모잠비끄 버 마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1976년 4월 29일	네 팔	네팔조선친선협회
《유고슬라비아 따뉴그통신사 대외편집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6년 5월 29일	파키스탄	까즈미출판사
《일본 요미우리신문사 상무취체역인 편집국장 일행과 한 담화》 1977년 4월 23일	단마르크 레바논 방글라데슈 수리아 인도	 국제출판사 디마스끄출판사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1977년 9월 5일	미 국	워커스 월드출판사

신문게재 및 통신, 방송 보도

《신 년 사》 1977년

네 팔 신문《코머너》1월 18일, 19일, 《아르판》1월 21일, 《너야유그》1월 24일
단마르크 신문《란드 오그 폴크 》2월 1일
라오스 신문《인민의 소리》1월 21일
로므니아 신문《쓰끈떼아》, 《로므니아 리베러》, 《쓰끈떼아 띠네레뚤루이》1월 3일
르완다 신문《라렐레브》1월 18일, 24일, 《르라히프로》2월
리비아 신문《알 화즈를 져디드》1월 3일
말가슈 신문《마뗑》1월 21일
말레이시아 신문《남양상보》1월 3일
몽 골 신문《우넨》1월 5일, 《울란오드》1월 8일
미 국 신문《워커스 월드》1월 21일, 《가디언》 1월 26일
민주예멘 잡지《알히크마》2월
메히꼬 잡지《씨엠쁘레》
바레인 신문《아호마르 할레즈》1월 31일
버 마 신문《가디언》1월 3일, 2월 15일
벌가리아 신문《라보뜨니체스꼬 젤로》, 《제메젤스꼬 즈나메》1월 4일
부룬디 신문《우부무예》3월 4일
통신 1월 14일
소말리아 신문《선봉》1월 14일
수리아 신문《알 싸카파돌 우쑤부아이예》 1월 8일, 《알 우쑤부우 알 리야뒤》1월 10일, 《알 사우라》 1월 23일, 24일
스위스 신문《뱅까뜨레르》, 《트리뷴 드 제네브》
시에라레온 신문《싼디 플라쉬》2월 7일, 《스펙태클러》2월 12일, 《비지니스 쿼터리》2월
싱가포르 신문《남양상보》1월 19일, 《민보》1월 19일
세네갈 신문《쏠레이》1월 18일
아랍추장국련방 신문《알 워스바》2월 5일
알제리 신문《엘 무쟈히드》1월 3일, 통신 1월 2일
요르단 신문《아호바르 알 우쑤부우》2월 3일, 《앗 싸하피》
이라크 신문《따리끄 앗 샤아브》2월 21일
이 란 신문《테헤란 저널》3월 17일, 《부르스》 3월 27일
인 도 신문《인디안 타임스》1월 14일, 《아넌드 바자르 파트리카》1월 15일, 《이벤트》1월 16일, 《메와뜨》1월 16일, 《순하리 파러뜨》1월 16일, 《란떠》1월 18일, 《마뜨리푸미》1월 18일, 《노던 인디안 파트리카》1월 20일, 《패트리오트》, 《내슈널 헤랄드》, 《인디안 엑스프레스》, 잡지 《인도조선친선》, 《콘템퍼러리》, 《쏘셜루크》 1월
웰 남 신문《인민》1월 20일
웽그리아 신문《네프싸바드샤그》, 《마쟈르 히를라쁘》, 《네프싸바》1월 4일
자이르 신문《쌀롱고》1월 6일
잠비아 신문《데일리 메일》1월 19일, 20일
체스꼬슬로벤스꼬 신문 《쁘라쩨》, 《스워보다》, 《이호체스까 쁘라우다》, 《노바 스워보다》, 《루데 쁘라보》, 《리도바 데모크라찌예》1월 3일, 《쁘라우다》1월 13일
탄자니아 신문《썬데이 뉴스》1월 17일
파키스탄 신문《마그라비 파키스탄》1월 15일, 《힐랄이 파키스탄》1월 16일, 《엘란》1월 20일, 《임로제》1월 22일, 《씬드 욥써버》1월 24일, 《씬드 뉴스》1월 27일, 《데일리 씬드 타임스》 1월 27일, 《트리브》1월 30일, 《암따브》2월 2일, 《라아싸르》2월 4일, 《알 탈피르》 2월 4일, 《싸사카르》2월 6일, 《알 타하르》, 《인키리브》, 《리야싸르》, 《엔쥐니어》2월, 《밀라더우》, 《싸야싸르》, 《무싸와트》1월 15일, 잡지 《파키스탄 에코노미》1월 21일, 《비유포인트》 1월 21일, 《트레이드 앤드 인더스트리》, 《만쥬리》, 《나까호》, 《알 파테호》, 《메야드》
팔레스티나 잡지《팔레스티나혁명》2월 3일
프랑스 신문《몽드》
핀란드 신문《칸산 우우티세트》1월 21일, 《라겐따야》1월 26일, 《칸산 애애니》2월 5일, 《칸산 위호떼이스떠요》2월 11일
까메룬 잡지《아프리끄 앙도씨예》1월
까타르 신문《알 아랍》1월 30일
꼴롬비아 신문《엘 쏠》
꽁 고 신문《꽁고생활》1월 18일
꾸 바 신문《그란마》1월 5일, 잡지《에스빠냐 레뿌블리까나》1월 20일
쁠스까 신문《후윕스까 드로가》1월 20일, 《젤료너 슈만다르》1월 23일, 《뜨리부나 류두》1월 24일, 《글로쓰 쁘라찌》1월 27일
쏘 련 신문《쁘라우다》1월 2일, 통신 따쓰 1월 1일

*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하여》 1931년 12월 16일

소말리아 신문《선봉》6월 6일

*

《반일인민유격대창건에 즈음하여》 1932년 4월 25일

라오스 신문《인민의 소리》4월 25일
말 따 신문《메디터리안 뉴스》4월 2일
시에라레온 신문《싼디 플라쉬》5월 2일
파키스탄 신문《무싸와트》6월 5일

*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1933년 3월 11일

시에라레온 신문《스펙태클러》5월 14일

*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 1936년 2월 27일

자이르 신문《베또니 베또》
파키스탄 신문《마그라비 파키스탄》6월 4일

*

《조국광복회10대강령》 1936년 5월 5일

방글라데슈 신문《고노속디》

상부볼따 신문 《쏠례이 더 오뜨볼따》
수리아 신문 《알 우쑤부우 알 러야뒤》 6월 9일

*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1937년 11월 10일

꽝 고 신문 《꽁고생활》 5월 3일

*

《해방된 조국에서의 당, 국가 및 무력 건설에 대하여》 1945년 8월 20일

앙골라 신문 《죠르날 더 앙골라》

*

《우리 나라에서의 맑스-레닌주의당건설과 당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1945년 10월 10일

시에라레온 신문 《스펙태클러》 7월 11일

*

《새 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 1945년 10월 13일

까메룬 신문 《프레스 앤때르》

*

《토지개혁의 총결과 금후과업》 1946년 4월 10일

가 나 신문 《피플즈 이브닝 뉴스》 9월 15일—20일
잠비아 신문 《데일리 메일》 3월 9일
파키스탄 신문 《이슬라미 잠후리아》 3월 3일, 21일, 《임로제》 3월 15일, 주간신문 《리야싸트》
꽝 고 신문 《꽁고생활》 3월 7일

*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의 창건을 위하여》 1946년 8월 29일

레바논 신문 《알 안와르》 8월 15일
말가슈 신문 《헤이》 10월 10일

*

《북조선로동당의 창립과 남조선로동당의 창건문제에 대하여》 1946년 9월 26일

레바논 신문 《알 샤아브》

*

《창립 1주년을 맞이하는 북조선로동당》 1947년 8월 28일

레바논 잡지 《앗 싸야드》

*

《조선인민군창건에 즈음하여》 1948년 2월 8일

가이아나 신문 《가이아나 크로니클》 2월 8일
파키스탄 신문 《쎄와싸드》, 《무싸와트》 2월 1일, 《힐랄이 파키스탄》 2월 2일, 《임로제》 2월 4일, 《데일리 썬드 타임스》, 《엘란》 2월 7일, 《이슬라미 잠후리아》 2월 8일, 《압따브》 2월 10일, 《리야싸트》, 《썬드뉴스》, 잡지 《알 파타》, 《메야드》, 《슈라트》 2월
인 도 신문 《패트리오트》 2월 7일, 《스테이츠맨》 2월 8일
꾸 바 신문 《에스빠냐 레뿌블리까나》 2월 15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 1948년 9월 10일

잠비아 신문 《잠비아 데일리 메일》
꾸 바 신문 《오라 데 에스빠냐》

*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1950년 6월 26일

레바논 신문 《알 샤아브》 6월 27일

*

《미제국주의자들의 무력침공을 단호히 물리치자》 1950년 7월 8일

레바논 신문 《알 샤르끄》 7월 8일
파키스탄 신문 《마그라비 파키스탄》 7월 24일
꾸 바 신문 《에스빠냐 레뿌블리까나》 2월 15일

*

《당단체들의 조직사업에서의 몇가지 결함들에 대하여》 1951년 11월 1일

레바논 신문 《알 안와르》

*

《당조직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1951년 11월 2일

레바논 잡지 《알 마우끼프 알 나쎄리》

*

《현계단에 있어서의 지방정권기관들의 임무와 역할》 1952년 2월 1일

레바논 잡지 《앗 싸야드》
파키스탄 신문 《무싸와트》 7월 30일

*

《모든것을 전후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 1953년 8월 5일

레바논 잡지 《앗 싸야드》
탄자니아 신문 《우후루》 7월 27일, 28일, 《데일리 뉴스》 7월 26일

*

《교통운수부문일군들의 당면과업에 대하여》 1954년 5월 11일

레바논 신문 《알 안와르》 5월 11일, 12일

*

《당원들속에서 계급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1955년 4월 1일

레바논 신문 《알 샤르끄》

*

《모든 힘을 조국의 통일독립과 공화국북반부에

서의 사회주의건설을 위하여》 1955년 4월

레바논 신문《알 샤아브》

*

《건설사업에서의 혁신을 위하여》 1956년 1월 30일

파키스탄 신문《마그라비 파키스탄》,《우잘라》

*

《사회주의건설에서 혁명적대고조를 일으키기 위하여》 1956년 12월 13일

말가슈 신문《판드리암 빠하레마나》3월 18일

*

《상품류통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1957년 2월 14일

아프가니스탄 신문《헤와트》6월 4일

*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계승자이다》 1958년 2월 8일

소말리아 신문《히지그다 옥토바르》2월 9일
수리아 신문《티슈린》
잠비아 신문《데일리 메일》2월 9일
파키스탄 신문《무싸와트》2월 6일,《힐랄이 파키스탄》2월 8일, 잡지《누스라트》2월 1일

*

《시, 군 인민위원회의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1958년 8월 9일

레바논 신문《알 리와》, 잡지《알 마우끼프 알 나쎄리》10월 1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10주년기념 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1958년 9월 8일

레바논 신문《알 샤아브》
소말리아 신문《선봉》

*

《함경북도 당단체들의 과업》 1959년 3월 23일

레바논 신문《싸우틀 오루바》9월 2일
버 마 신문《가디언》3월 12일

*

《사회주의적농촌경리의 정확한 운영을 위하여》 1960년 2월 8일

가 나 신문《피플즈 이브닝 뉴스》8월 30일—9월 8일
수 단 신문《알 싸하파》3월 14일

*

《과수원조성사업을 전인민적운동으로 전개할데 대하여》 1961년 4월 7일

버 마 신문《한사워디》

*

《청소년교양에서 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 1961년 4월 25일

가 나 신문《피플즈 이브닝 뉴스》

*

《자녀교양에서 어머니들의 임무》 1961년 11월 16일

버 마 신문《한사워디》
아프가니스탄 신문《헤와트》3월 13일
파키스탄 신문《싸야싸트》

*

《새로운 경제관리체계를 내올데 대하여》 1961년 12월 15일

아프가니스탄 신문《헤와트》

*

《농업부문일군들은 혁명가적기풍을 가지며 농촌경리지도사업을 더욱 개선하여야 한다》 1962년 2월 1일

버 마 신문《만마아링》4월 5일

*

《우리의 인민군대는 로동계급의 군대, 혁명의 군대이다. 계급적정치교양사업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1963년 2월 8일

우간다 신문《타이타》

*

《기술혁명수행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의 임무》 1963년 3월 22일

버 마 신문《만마아링》

*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1964년 2월 25일

소말리아 신문《선봉》2월 19일
수 단 신문《알 싸하파》2월 24일, 27일, 28일, 3월 1일, 2일, 4일
수리아 신문《홈스》2월 25일,《니달 알 팔라힌》3월 2일, 잡지《알 이크티사드》2월
시에라레온 신문《데일리 메일》5월 30일
인 도 신문《싸크쉬》
탄자니아 신문《데일리 뉴스》3월 8일

*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1964년 5월 15일

레바논 신문《알 샤르끄》5월 19일, 20일

*

《근로단체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1964년 6월 26일

수리아 신문 《니달 알 팔라힌》

*

《고등교육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1965년 2월 23일

가 나 신문 《피플즈 이브닝 뉴스》 9월 21일, 22일
시에라레온 신문 《싼디 플라쉬》 6월 14일, 7월 25일
인 도 신문 《순하리 파러트》, 《메와트》 7월 25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남조선혁명에 대하여》 1965년 4월 14일

수리아 신문 《알 우쑤부우 알 리야뒤》 1월 24일, 31일
잠비아 신문 《데일리 메일》 4월 2일

*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1967년 8월 12일

레바논 신문 《알 샤르끄》 8월 12일
말가슈 신문 《헤이》
사하라아랍민주주의공화국 신문 《사하라 리브르》 4월 23일
수리아 신문 《알 싸카파툴 우쑤부아이예》
아랍추장국련방 신문 《알 워스바》

*

《조선인민군창건 스무돐을 맞이하여》 1968년 2월 8일

라오스 신문 《인민의 소리》, 《비엔티안 마이》 2월 8일
말 리 신문 《에쏘르》 2월 8일
모잠비끄 신문 《노떠씨아스》 7월 27일
민주예멘 잡지 《알 쥰디》 2월
인 도 신문 《메와트》, 《순하리 파러트》 2월 6일, 《이벤트》 2월 7일, 《마라야라 마노라마》 2월 9일
꾸 바 신문 《에스빠냐 레뿌블리까나》 2월 15일

*

《청년들은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선봉대가 되자》 1968년 4월 13일

우간다 신문 《타이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 인민의 자유와 독립의 기치이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이다》 1968년 9월 7일

민주예멘 신문 《아르바아타 아샤라 옥투브르》
수 단 신문 《알 아얌》 9월 23일, 25일, 26일
수리아 신문 《알 우쑤부우 알 리야뒤》
시에라레온 신문 《비지니스 쿼터리》
인 도 신문 《이벤트》, 《패트리오트》
탄자니아 신문 《데일리 뉴스》
꽁 고 신문 《꽁고생활》
꾸 바 신문 《오라 데 에스빠냐》

*

《사회주의농촌건설을 다그치며 군을 잘 꾸릴데 대하여》 1968년 9월 24일

수리아 신문 《티슈린》
파키스탄 신문 《마그라비 파키스탄》 1월 27일, 2월 2일

*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위대한 반제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 1968년 10월 8일

라오스 신문 《비엔티안 마이》 1월 11일, 14일

*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리론문제에 대하여》 1969년 3월 1일

모잠비끄 신문 《노띠씨아스》
방글라데슈 신문 《고노속티》
수리아 잡지 《알 이크티사드》 3월
알제리 월간신문 《누벨 에꼬노미끄》
탄자니아 신문 《음잘렌도》 2월 20일, 《우후루》 3월 1일
파키스탄 신문 《마그라비 파키스탄》 3월 2일, 《무싸와트》 3월 3일
핀란드 신문 《라껜따야》 3월 9일

*

《5대륙의 진보적기자들은 혁명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를 준렬히 단죄하자》 1969년 9월 18일

가 나 신문 《피플즈 이브닝 뉴스》

*

《우리 나라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의 몇가지 경험에 대하여》 1969년 10월 11일

모잠비끄 신문 《노띠씨아스 다 베이라》 3월 23일
부룬디 신문 《우부무예》 4월 22일
애 급 신문 《알 굼후리아》 4월 12일, 13일, 잡지 《알 말루윌리자라》 7월
탄자니아 신문 《음잘렌도》 5월 8일

*

《지방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1970년 2월 27일

아프가니스탄 신문 《좀후리야트》

*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1970년 11월 2일

시에라레온 신문 《싼디 플라쉬》
요르단 신문 《알 샤아브》

*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사로청사업을 더욱 적극화할데 대하여》 1971년 2월 3일

말가슈 신문 《싸히》 7월 1일

*

《녀성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하여》 1971년 10월 7일

가　　나 신문《피플즈 이브닝 뉴스》

*

《당간부양성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1971년 12월 2일

랑　　고 신문《로동계급의 목소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1972년 1월 10일

노르웨이 신문《로갈 탄드스 아버스》4월 1일
레바논 신문《알 리와》4월 7일,《싸우툴 오루바》5월 23일, 8월 10일, 잡지《알라야 호》5월 22일
모잠비끄 신문《노띠씨아스 다 베이라》9월 4일
방글라데슈 신문《비바르탄》3월 20일, 4월 24일, 5월 1일
버　　마 신문《리따비뜨네싱》,《쩨몽》,《가디언》4월 30일
시에라레온 신문《싼디 플라쉬》4월 19일
앙골라 신문《죠르날 디 앙골라》
오스트랄리아 신문《시드니 모닝 헤랄드》4월 14일
예멘아랍공화국 신문《알 줌후리아》4월 5일
탄자니아 신문《음잘렌도》3월 20일
파키스탄 신문《엘란》4월 11일, 14일,《장》5월 1일

*

《일본전국혁신시장회대표단과 한 담화》 1972년 5월 14일

레바논 잡지《알 마우끼프 알 나쎄리》
탄자니아 신문《음잘렌도》4월 13일

*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72년 9월 17일

감비아 신문《더 프로그레씨브 뉴스페이퍼》5월 14일
나이제리아 신문《뉴 나이제리언》6월 25일
노르웨이 신문《베르겐스 티덴데》3월 31일,《다그 블라데트》4월 1일
네　　팔 신문《코머너》3월 15일
단마르크 신문《폴리티겐》
르완다 신문《임바호》4월 30일
레바논 신문《싸우툴 오루바》11월 12일
미　　국 신문《워싱톤 포스트》4월 6일,《가디언》7월 27일
바레인 신문《아호마르 할레즈》
방글라데슈 신문《나야유그》3월 26일
소말리아 신문《선봉》7월 29일
수　　단 신문《알 아얌》6월 22일
수리아 신문《알 리야다》4월 26일, 5월 3일,《티슈린》
스위스 신문《트리뷴 드 비망스》3월 27일
시에라레온 신문《비지니스 쿼터리》1월,《스펙태클러》4월 30일,《싼디 플라쉬》, 잡지《레오니 안싼》6월
세네갈 잡지《우에스르 아프리깽》
아프가니스탄 신문《헤와드》

영　　국 신문《타임스》
인　　도 신문《이벤트》,《란머》3월 24일,《싸크쉬 ... 4월 17일,《인디안 엑스프레스》,《아무리뜨 바자르 파트리카》9월 13일
애　　급 신문《알 아호바르》6월 21일—23일
탄자니아 신문《데일리 뉴스》4월 15일
콜롬비아 신문《엘 엑쓰뻭따도르》
빠나마 신문《그리머까》
뽀르뚜갈 신문《디아리오 데 리스보아》4월 1일

*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1972년 12월 25일

말가슈 신문《헤이》9월 9일
바레인 신문《아호마르 할레즈》
수　　단 신문《알 아얌》2월 15일, 16일, 18일, 23일 28일, 3월 3일, 신문《알 싸하파》7월 26일 31일
수리아 신문《알 사우라》,《티슈린》
시에라레온 신문《비지니스 쿼터리》
인　　도 신문《아무리뜨 바자르 파트리카》3월 24일《아넌드 바자르 파트리카》3월 25일,《란머》《마라야라 마노라마》,《아즈끼바뜨》,《메뜨》,《하리아나 써마짜르》9월 9일,《내슈 헤랄드》
파키스탄 신문《힐랄이 파키스탄》9월 11일,《모닝스》9월 9일
핀란드 신문《띠에돈 안따야》9월 9일,《라껜따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197... 12월 27일

인　　도 잡지《인도조선친선》12월
탄자니아 신문《음잘렌도》1월 9일

*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단결은 인민군대의 패의 힘의 원천이다》 1973년 2월 8일

버　　마 신문《쩨몽》,《보더타웅》5월 1일
상부볼따 신문《까래프르 아프리캔》2월 11일
자이르 신문《느럽비》

*

《아세아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철저히 짓부시자》 1973년 4월 16일

말가슈 신문《판드리암 빠하레마나》3월 18일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1973년 6월 23일

*

가이아나 신문《뉴 네이슌》
나이제리아 신문《뉴 나이제리언》
노르웨이 신문《스타방게르 아프텐 블라드》,《태드르드스베넨》4월 2일,《클라스 깜뻰》4월 2...《쐬르란데트》4월 4일
네　　팔 신문《코머너》6월 23일, 24일

단마르크 신문 《란드 오그 폴크》 7월 7일, 《질랜드 포스텐》 9월 22일
르완다 신문 《임바호》
말가슈 신문 《헤이》 7월 6일
말 리 신문 《에쏘르》 7월 4일, 16일, 17일, 27일, 8월 18일
미 국 신문 《가디언》 6월 23일
모리셔스 신문 《더 네이숀》 3월 6일
방글라데슈 신문 《비바르탄》 3월 13일, 6월 19일
수리아 신문 《알 바아스》 8월 14일
시에라레온 신문 《스펙태클러》 6월 25일
인 도 신문 《메와뜨》, 《순하리 파러뜨》, 《패트리오트》 6월 23일, 《마라야라 마노라마》, 《아넌드 바자르 파트리카》 7월 27일, 《아무리뜨 바자르 파트리카》, 《란머》, 《노던 인디안 파트리카》 7월 28일, 잡지 《콘템퍼러리》 7월
탄자니아 신문 《우후루》 6월 23일, 24일
파키스탄 신문 《마그라비 파키스탄》 6월 23일
핀란드 잡지 《조선》 6월 28일
자이르 신문 《쌀룽고》 3월 29일
끼쁘로스 신문 《따네아》 4월 13일, 《아뽀야마따니》 4월 14일
또 고 신문 《또고 프레스》 7월 23일

*

《조국통일 5대방침에 대하여》 1973년 6월 25일

감비아 신문 《더 감비아 아우트루크》
민주예멘 잡지 《알 히크마》 7월
바레인 신문 《아호마르 할레즈》 7월 10일
수리아 신문 《알 싸카파둘 우쑤부아이예》 6월 25일
스위스 신문 《헤우레스》
시에라레온 신문 《비지니스 쿼터리》 6월 25일
자이르 신문 《쌀룽고》 6월 23일, 잡지 《자이르》 7월 4일
잠비아 신문 《데일리 메일》
파키스탄 잡지 《누스라트》 7월 8일

*

《일본 〈이와나미〉서점 상무취체역 총편집장과 한 담화》 1973년 9월 19일

방글라데슈 신문 《비바르탄》 5월 16일, 6월 12일

*

《조국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투쟁으로 쟁취하자》 1973년 10월 28일

시에라레온 신문 《비지니스 쿼터리》

*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이룩한 위대한 성과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 1974년 1월 10일

버 마 신문 《만마아링》
애 급 신문 《알 아흐바르》 3월 30일～4월 4일

*

《자주의 기발을 높이 들고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혁명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1974년 3월 4일

바레인 신문 《아호마르 할레즈》
수리아 신문 《알 사우라》 3월 3일
아랍추장국련방 신문 《알 워스바》
아일랜드 신문 《아일리쉬 타임스》
우간다 신문 《보이스 오브 우간다》 3월 14일
카나다 신문 《글로브 앤드 메일》 5월 3일—5일
핀란드 신문 《라겐따야》
까타르 신문 《알 아랍》
끼쁘로스 신문 《따네아》

*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1974년 3월 7일

레바논 신문 《알 샤아브》 4월 11일
수리아 신문 《알 사우라》 4월 14일
자이르 신문 《쌀룽고》 1월 24일

*

《수단정부기관지 〈알 싸하파〉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4년 4월 25일

레바논 신문 《알 안와르》
수리아 잡지 《알 슈루타》 1월, 《알 이크티사드》 2월

*

《세네갈전국기자협회대표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4년 8월 21일

가 나 신문 《피플즈 이브닝 뉴스》
감비아 신문 《더 내이션》
르완다 주간신문 《라 렐레브》 4월 11일
수리아 잡지 《알 슈루티》
까메룬 신문 《프레스 앤떼르》 3월 14일

*

《다오메정부기관지 〈다오엑스프레스〉 사장과 한 담화》 1974년 9월 19일

미 국 신문 《가디언》 4월 20일
수리아 잡지 《알 푸르싼》 1월
탄자니아 신문 《데일리 뉴스》

*

《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1974년 9월 24일

시에라레온 신문 《싼디 플라쉬》 5월 24일
인 도 신문 《패트리오트》, 《내슈널 헤랄드》
탄자니아 신문 《우후루》 5월 26일—29일
페 루 신문 《라 인두스뜨리아》 5월 23일

*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무조건 물러가야 한다》 1974년 10월 1일

시에라레온 신문 《비지니스 쿼터리》

*

《신흥세력은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단결하여야 한다》 1974년 12월 15일

뽕 고 통신 5월 4일

*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자》 1975년 3월 3일

레바논 신문 《알 샤르끄》 3월 29일—4월 2일
수 단 신문 《알 싸하파》 8월 7일—9일
수리아 신문 《티슈린》 3월 15일
애 급 신문 《알 아호바르》
자이르 신문 《쌀롱고》 3월 17일
파키스탄 신문 《싸야싸트》 3월 12일, 《힐랄이 파키스탄》 3월 7일

*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1975년 4월 10일

아프가니스탄 신문 《헤와트》 7월 23일

*

《꼬스따리까사회당 위원장이며 꼬스따리까기자동맹 위원장인 꼬스따리까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5년 4월 13일

시에라레온 신문 《싼디 플라쉬》 7월 4일

*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에서 차린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5년 4월 18일

예멘아랍공화국 잡지 《아드와 알 예멘》 5월 2일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와 부인을 환영하여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이며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인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와 부인이 차린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5년 5월 22일

시에라레온 신문 《싼디 플라쉬》

*

로므니아—조선친선군중대회에서 하신 연설 1975년 5월 24일

시에라레온 신문 《스펙태클러》

*

알제종합대학명예박사칭호수여식에서 하신 연설 1975년 5월 27일

예멘아랍공화국 잡지 《아드와 알 예멘》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환영하는 알제시군중대회에서 하신 연설 1975년 5월 28일

시에라레온 신문 《스펙태클러》
뽕 고 통신 3월 8일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정부기관지 〈엘 무자히드〉 신문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5년 5월 29일

민주예멘 잡지 《알 히크마》
시에라레온 신문 《싼디 플라쉬》 7월 4일

*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1975년 10월 9일

나이제리아 신문 《이브닝 타임스》
단마르크 신문 《폴리티켄》 10월 9일
라오스 신문 《시앵 파싸쏜》 10월 11일
말가슈 신문 《마뗑》 3월 28일
모리셔스 신문 《더 네이숀》 4월 5일
민주예멘 신문 《아르바아타 아샤라 옥투브르》 10월 12일
미 국 신문 《가디언》 10월 26일
방글라데슈 신문 《비바르탄》 7월 3일, 17일, 31일
산토메 프린시페 신문 《혁명》 2월
수 단 신문 《알 아얌》 1월 24일
수리아 신문 《알 우쑤부우 알 리야뒤》 7월 18일, 《티슈린》
시에라레온 신문 《스펙태클러》 6월 18일
세네갈 신문 《쏠레이》 4월 5일
앙골라 신문 《죠르날 디 앙골라》 7월 13일, 앙골라방송 7월 28일
영 국 신문 《썬》
인 도 신문 《마뜨리 푸미》 3월 26일, 《내슈널 헤랄드》 6월 25일, 《이벤트》 6월 26일, 10월 9일, 《패트리오트》, 《싸크쉬》 6월 29일, 7월 24일, 10월 9일
예멘아랍공화국 잡지 《아드와 알 예멘》
자이르 신문 《쌀롱고》 7월 28일, 《베또니 베또》 10월 15일
탄자니아 신문 《우후루》 10월 10일
꼴롬비아 신문 《엘 띠엠뽀》 4월 2일

*

《쁠럭불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 1975년 12월 16일

가 나 신문 《피플즈 이브닝 뉴스》
나이제리아 신문 《타임스 인터내슈널》
레바논 잡지 《알 마우까프 알 나쎄리》
말 따 신문 《말따뉴스》
모리셔스 신문 《더 네이숀》 4월 9일
방글라데슈 신문 《진지라》 10월 30일
앙골라 신문 《죠르날 디 앙골라》 1월 30일
인 도 신문 《내슈널 헤랄드》 3월 28일, 잡지 《콘템퍼러리》
애 급 신문 《알 아호바르》 3월 10일
까메룬 잡지 《아프리끄 앙도씨예》
끼쁘로스 신문 《아넥싸르띠도스》
뻬 루 잡지 《오이가》

*

《일본 정치리론잡지 〈세까이〉 편집국장과 한 담화》 1976년 3월 28일

감비아 신문 《더 내이선》
네 팔 신문 《코머너》 3월 23일
말가슈 신문 《마뗑》 3월 31일
모리셔스 신문 《더 네이숀》 4월 7일
수리아 신문 《알 사우라》 3월 17일, 《알 리야다》 7월 26일
인 도 신문 《인디안 엑스프레스》 4월 15일, 《노던 인디안 파트리카》, 잡지 《콘템퍼러리》
끼쁘로스 신문 《따네아》
빠나마 신문 《마뚜떠노》

*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1976년 4월 29일

수리아 신문 《알 사우라》 5월 28일
영 국 신문 《타임스》
요르단 신문 《알 두스투르》, 《알 샤아브》
까메룬 잡지 《와이프》 8월
뽀르뚜갈 신문 《죠르날 노보》
뻬 루 신문 《라 인두스뜨리아》 3월 27일

*

《파키스탄회교공화국 기자들과 한 담화》 1976년 5월 27일

네 팔 신문 《코머너》 3월 17일
베네수엘라 신문 《엘 나씨오날》
꼴롬비아 신문 《엘 쏠》

*

《유고슬라비아 따뉴그통신사 대외편집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6년 5월 29일

꼴롬비아 신문 《엘 쏠》

*

마티어 께레꾸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베닌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환영하여 베푸신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6년 7월 10일

까메룬 신문 《프레스 앤매르》 2월 3일

*

《일본 요미우리신문사 상무취체역인 편집국장 일행과 한 담화》 1977년 4월 23일

가 나 신문 《피플즈 이브닝 뉴스》 6월 9일
가이아나 신문 《가이아나 크로니클》 6월 27일
감비아 신문 《더 내이선》 5월 28일
나이제리아 신문 《뉴 나이제리언》
노르웨이 신문 《클라스 깜뻰》 5월 10일, 《미러》 5월 13일, 《니티드》 5월 19일, 《프리헤텐》 5월 22일
네 팔 신문 《코머너》, 《아르판》 5월 20일
단마르크 신문 《란드 오그 폴크》 6월 7일, 30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신문 《베를리네르 짜이퉁》 5월 26일, 《디 위르트샤프트》
라오스 파테트라오통신 6월 1일
로므니아 신문 《쓰끈떼아》 5월 21일
룩셈부르그 신문 《르벤들리까인》, 《러 르프브러 친로라인》 7월 7일
르완다 신문 《라렐레브》 6월 13일
말가슈 신문 《마뗑》 6월 11일
말 리 신문 《에쏘르》 5월 17일, 6월 12일
말레이시아 신문 《스트레이츠 타임스》
말 따 신문 《말따뉴스》 6월 4일
모잠비끄 신문 《노띠씨아스》 6월 11일
몽 골 신문 《허덜머르》 5월 24일
미 국 신문 《워싱톤 포스트》
민주예멘 잡지 《알 히크마》 6월
메히꼬 신문 《엘 디아》
방글라데슈 신문 《모닝 포스트》 5월 13일
벌가리아 신문 《두나브쓰까 쁘라우다》 4월 29일, 벌가리아통신 4월 29일
부룬디 신문 《우부무에》 5월 23일
소말리아 신문 《히지그다 옥토바르》 5월 16일, 《선봉》
수리아 신문 《알 우쑤부우 알 리야뒤》 5월 30일, 《알 바아스》 6월 17일, 29일, 《티슈린》 6월 19일, 《알 사우라》 7월 19일, 수리아방송 5월
스위스 신문 《뱅까뜨레르》 5월 28일, 《라 부아 우브리에르》 5월 31일, 《트리뷴 드 제네브》
스웨리예 신문 《씨드스벤스카 다그블라데트》 5월 11일, 《니다그》 6월 22일, 《칼스꼬가 티드닝》 7월 22일, 잡지 《조선통보》
시에라레온 신문 《싼디 플라쉬》
세네갈 신문 《쏠레이》 6월 26일
아프가니스탄 잡지 《헤와드》 7월 13일
영 국 신문 《썬》 7월 2일
요르단 신문 《아흐바르 알 우쑤부오》 7월 28일, 8월 4일
유고슬라비아 신문 《웨체르니에 노보스띠》, 《위예쓰니크》 5월 7일, 《델로》 5월 12일, 따뉴그통신 5월 6일
이라크 신문 《알 이라크》 6월 7일
이 란 신문 《테헤란 저널》
이딸리아 신문 《스탐바》 7월 18일~21일
인 도 신문 《이벤트》 5월 8일, 《싸크쉬》 5월 22일, 《메와뜨》 5월 25일, 《순하리 파러뜨》 5월 26일, 잡지 《쏘셜루크》 6월 5일, 《뉴리프》, 《인도조선친선》 5월
애 급 신문 《알 굼후리아》 5월 18일
웽그리아 신문 《네프싸바드샤그》 4월 29일
웰 남 신문 《인민》 6월 28일
자이르 신문 《쌀룽고》 5월 26일, 《쌈비》 7월 2일, 잡지 《자이르》
잠비아 신문 《데일리 메일》
체스꼬슬로벤스꼬 잡지 《스베따 호쓰뽀 빠르쓰뜨비》 7월 7일
카나다 신문 《글로브 앤드 메일》 10월 14일~21일
탄자니아 신문 《데일리 뉴스》, 《우후루》 6월 17일
파키스탄 신문 《썬드뉴스》 5월 13일, 《암따브》 5월 18일, 《마슈리크》, 잡지 《트레이드 앤드 인더스트리》 5월, 《미크로아말》
핀란드 신문 《라껜따야》 5월 25일, 《칸산 우우티세트》 5월 10일, 《사따꾼난 뛰오》 5월 26일, 《띠에돈안따야》 6월 1일
까메룬 신문 《프레스 앤매르》 7월 1일~7일
까타르 신문 《알 아랍》, 잡지 《와이프》

꼬스따 리까 신문《나씨오날》
꼴롬비아 신문《엘 엑쓰뻭따도르》
꽁　고 신문《라스땐》6월 5일, 9일,《에뚬바》, 통신 5월 19일
빠나마 신문《마뚜떠노》7월 27일,《라 에스뜨렐랴 데 빠나마》,《라 레뿌블리까》7월 28일
뽈스까 신문《젤료너 슈딴다르》6월 11일,《쥐제 와르샤븨》

*

우리 나라를 방문한 가이아나 아써 충대통령 각하와 부인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7년 4월 30일

가이아나 신문《가이아나 크로니클》5월 10일

*

유고슬라비아 베오그라드텔레비죤촬영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주신 대답 1977년 6월 9일

유고슬라비아 신문《보르바》,《웨스니크》, 베오그라드텔레비죤방송 8월 23일

*

《프랑스신문 〈몽드〉 주필과 한 담화》 1977년 6월 20일

가이아나 신문《가이아나 크로니클》9월 9일
감비아 신문《더 감비아 아우트루크》8월 5일, 10일
네　팔 신문《코머너》8월 9일, 10일,《아르판》8월 12일
노르웨이 신문《다그 블라데트》,《스타방게르 아프텐 블라드》
로므니아 잡지《루메아》
말가슈 신문《마뗑》8월 20일
말　따 신문《말따뉴스》
미　국 신문《뉴욕타임스》
수리아 신문《티슈린》8월 17일,《알 바아스》8월 18일,《알 싸카파툴 우쑤부아이예》8월 20일,《알 우쑤부우 알 리야뒤》8월 22일, 11월 28일,《알 리야다》8월 23일
스위스 신문《뱅까뜨데르》8월 6일
스웨리예 신문《아르베데르》,《할란드시 포스텐》,《다겐스 니헤테르》,《씨드스벤스카 다그블라데르》,《베스트라 프리룬다 포스텐》,《류스난》,《이스라드스 알레한다》,《모딸라 티드닝》,《볼뱅에 티드닝》,《헤브 데 쥐드닝》,《쉬다 포스텐》,《히오 티드닝》, 잡지《조선통보》2~3호
시에라레온 신문《싼더 플라쉬》8월 14일, 23일,《비지니스 쿼터리》,《위욘》,《스펙태클러》8월 24일
이　란 신문《테헤란 져널》
인　도 잡지《콘템퍼러리》
핀란드 신문《라껜따야》8월 7일,《사따꾼난 뛰요》8월 20일,《해멘 위흐떼이스떠요》8월 23일,《칸산 애애니》
프랑스 신문《몽드》
꽁　고 신문《꽁고생활》8월 5일, 9일
꾸　바 신문《그란마》
뽈스까 주간지《포름》8월 14일

*

《일본방송협회취재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7년 7월 3일

노르웨이 신문《다그 블라데트》
스웨리예 잡지《조선통보》2~3호
세네갈 잡지《뽈리띠씨앵》10월
일　본 엔에취케이 라지오방송, 엔에취케이텔레비죤방송 7월 13일
파키스탄 잡지《누스라트》8월 11일
꽁　고 방송 7월 29일

*

우리 나라를 방문한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를 환영하여 베푸신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7년 8월 25일

가이아나 신문《가이아나 크로니클》8월
메히꼬 신문《엘 디아》8월 27일
스위스 신문《마뗑 트리뷴》10월 2일
시에라레온 신문《싼더 플라쉬》9월 19일
세네갈 방송
유고슬라비아 신문《보르바》,《뽈리찌까》,《웨스니크》,《델로》,《드네브니크》,《노바 마께도니아》,《웨체르니에 노보스띠》,《뽈리찌까 엑스프레스》
인　도 신문《아즈끼바뜨》,《하리아나 써마짜르》9월 1일,《패트리오트》,《내슈널 헤랄드》9월 3일,《인디안 엑스프레스》9월 5일,《이벤트》,《싸크쉬》9월 4일,《순하리 파러뜨》,《메와뜨》, 잡지《인도조선친선》,《쏘설루크》9월
일　본 신문《아까하다》,《마이니찌신붕》,《도꾜신붕》,《산께이신붕》
자이르 신문《쌀롱고》9월 22일,《쌈비》9월 24일
캄보쟈 방송
탄자니아 신문《우후루》9월 6일

*

우리 나라를 방문한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를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하신 연설 1977년 8월 28일

감비아 신문《더 감비아 아우트루크》9월 19일
나이제리아 신문《뉴 나이제리언》8월 29일
네　팔 신문《라이징네팔》,《미러》,《코머너》,《아르판》9월 9일
라오스 파테트 라오통신
말가슈 신문《헤이》10월 3일
모잠비끄 신문《노띠씨아스 다 베이라》9월 10일
미　국 신문《뉴욕타임스》8월 29일
메히꼬 신문《엘 우니베르쌀》
버　마 신문《쩨묭》,《워킹 피플즈 데일리》,《가디언》8월 30일
스위스 신문《쥬르날 데 제네바》8월 29일,《마뗑 트리뷴》10월 9일
스웨리예 잡지《조선통보》
시에라레온 신문《비지니스 쿼터리》10월 2일

영　　국 신문 《썬》 10월 10일
우간다 신문 《타이타》 10월 1일, 5일
인　　도 신문 《이벤트》, 《아즈끼바프》, 《하리아나 써마짜르》 9월 1일, 《패트리오트》, 《내슈널 헤랄드》 9월 3일, 《인디안 엑스프레스》 9월 5일, 《싸크쉬》 9월 11일, 잡지 《쏘셜루크》 9월
일　　본 신문 《마이니찌신붕》, 《니홍 게이자이신붕》 8월 29일, 《아까하다》 8월 31일
잠비아 신문 《잠비아 데일리 메일》 10월 3일
중　　국 신화통신 8월 29일
쿠웨이트 신문 《쿠웨이트 타임스》 8월 29일
파키스탄 신문 《힐랄이 파키스탄》 9월 27일, 《인키러브》 10월 11일
까메룬 신문 《말로끄》 10월 11일
꽁　　고 신문 《꽁고생활》 9월 14일, 《라스맨》 9월 29일, 통신 9월 20일
뽈스까 신문 《쥐쎄 와르샤븨》, 《슈만다르 뜰로릐호》 8월 29일

*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1977년 9월 5일

네　　팔 신문 《미러》 10월 7일, 《아르판》 10월 14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주간신문 《호리존트》 44호
라오스 파테트 라오통신 9월 23일
로므니아 신문 《쓰끈떼아》 10월 15일, 잡지 《루메아》 38호
방글라데슈 신문 《홀리데이》 9월 10일, 23일, 10월 2일
수리아 신문 《알 바아스》 9월 19일, 《알 우쑤부우 알 리야뒤》 9월 26일
시에라레온 신문 《위온》 10월 12일, 《싼디 플라쉬》 10월 10일, 17일, 25일, 11월 9일, 《비지니스 쿼터리》 10월 24일
세네갈 신문 《쏠레이》 10월 3일
아프가니스탄 신문 《쥼후리야트》 11월 15일
인　　도 신문 《패트리오트》 9월 23일, 《인디안 엑스 프레스》 9월 27일, 《스테이츠맨》 9월 28일, 잡지 《인도조선친선》 10월
자이르 신문 《쌀롱고》 11월 16일, 《베또니 베또》 12월 24일, 《쌈비》 12월 27일
잠비아 신문 《잠비아 데일리 메일》 10월 8일, 10일, 17일
중　　국 신문 《인민일보》, 《광명일보》, 《해방군보》 9월 9일, 신화통신 9월 8일
파키스탄 신문 《머쟈라트》, 《마그라비 파키스탄》 12월 29일
핀란드 신문 《라껜따야》 10월 5일, 《칸산 우우티세트》 10월 22일
꽁　　고 신문 《꽁고생활》 10월 21일

*

우리 나라를 방문한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각하를 단장으로 하는 적도기네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7년 9월 15일

라오스 파테트 라오통신 9월 19일

인　　도 신문 《순하리 파터프》 10월 27일, 《메와프》 10월 28일

*

우리 나라를 방문한 버마련방사회주의공화국 우 네 윈대통령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7년 9월 20일

수리아 신문 《알 바아스》, 《티슈린》 9월 23일, 《알 사우라》 9월 24일
인　　도 신문 《이벤트》 10월 7일, 잡지 《쏘셜 루크》 10월

*

우리 나라를 방문한 버마련방사회주의공화국 우 네 윈대통령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환영하여 차린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7년 9월 22일

라오스 파테트 라오통신
버　　마 신문 《럭따비뜨네싱》, 《쩨몽》, 《보더타웅》, 《가디언》, 《워킹 피플즈 데일리》
인　　도 신문 《이벤트》 10월 7일

*

우리 나라를 방문한 뽈 뽀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주의캄보쟈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하신 연설 1977년 10월 4일

가이아나 신문 《가이아나 크로니클》
캄보쟈 방송 10월 27일

*

우리 나라를 방문한 뽈 뽀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주의캄보쟈 당및정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하신 연설 1977년 10월 7일

라오스 파테트 라오통신 11월 3일
민주예멘 아덴방송 10월 8일
스웨리예 신문 《다겐스 니헤테르》 10월 9일, 제1방송 10월 8일
시에라레온 잡지 《레오닌 안싼》 11월
일　　본 신문 《마이니찌신붕》, 《니홍 게이자이신붕》 8월 29일
유고슬라비아 신문 《보르바》 10월 8일
인　　도 신문 《패트리오트》 10월 9일, 《이벤트》 10월 30일, 잡지 《인도조선친선》
애　　급 신문 《에집션 가제트》 10월 8일
중　　국 신문 《인민일보》 10월 9일, 신화통신 10월 8일
캄보쟈 방송 10월 10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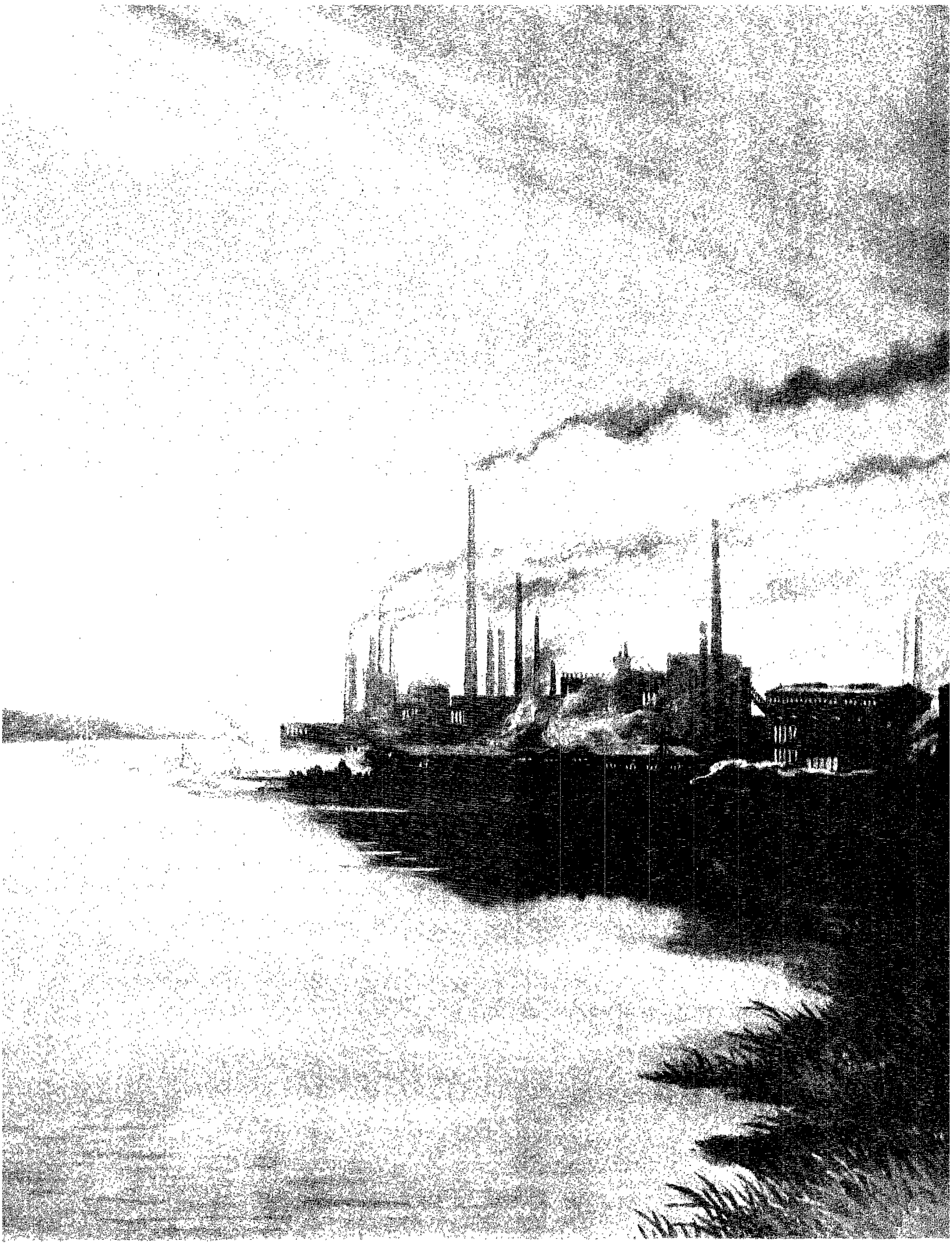
우리 나라를 방문한 에리히 호네케르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하신 연설 1977년 12월 10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신문 《노이에스 도이칠란트》 12월 12일호, 기타 중앙 및 지방신문들, 아데엔통신 12월 10일
몽 골 신문 《우넨》 12월 12일
벌가리아 신문 《라보뜨니체스꼬 젤로》 12월 11일
유고슬라비아 따뉴그통신 12월 10일
인 도 신문 《순하리 파러뜨》 12월 27일
일 본 신문 〈마이니찌신붕》, 〈도꾜신붕〉, 《산께이신붕》, 《아사히신붕〉, 〈니홍 게이자이신붕〉 12월 12일
쏘 련 따쓰통신 12월 10일

*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1977년 12월 15일

노르웨이 신문 〈프리헤텐〉 12월 28일
네 팔 신문 〈코머너〉 12월 31일
단마르크 신문 〈인포메이슌〉 12월 21일
라오스 파테트 라오통신, 방송 12월 17일, 18일
로므니아 신문 〈쓰끈떼아〉 12월 18일, 〈로므니아 리베러〉 12월 19일, 〈쓰끈떼아 띠네레뚤루이〉 12월 19일
버 마 신문 〈쩨뭉〉, 〈럭따비뜨네싱》, 〈보더타웅》, 《만마아링〉 12월 17일, 《가디언〉, 〈워킹 피플즈 데일리〉, 〈한사워디〉
수리아 신문 〈알 우쑤부우 알 리야뒤〉 12월 26일
유고슬라비아 따뉴그통신 12월 15일
인도네시아 안따라통신 12월 16일
일 본 신문 〈요미우리신붕〉, 〈아사히신붕〉, 〈마이니찌신붕》, 《산께이신붕〉, 〈도꾜신붕〉, 텔레비죤방송들
잠비아 신문 〈잠비아 데일리 메일〉 12월 30일
중 국 신문 〈인민일보〉, 〈광명일보〉, 〈해방군보〉 12월 19일, 신화통신 12월 17일, 방송 12월 19일
체스꼬슬로벤스꼬 신문 〈루데 쁘라보〉 12월 17일
탄자니아 신문 〈우후루〉, 방송 12월 17일
파키스탄 신문 〈쟝〉 12월 25일, 〈모닝 뉴스〉 12월 27일
핀란드 신문 〈칸산 우우티세트〉 12월 30일
꾸 바 신문 〈그란마〉 12월 17일
뽈스까 신문 〈뜨리부나 류두〉 12월 17일, 〈쥐찌 와르샤비〉, 〈슈딴다르 믈로디〉 12월 16일
쏘 련 신문 〈쁘라우다〉, 〈이즈베쓰찌야〉 12월 1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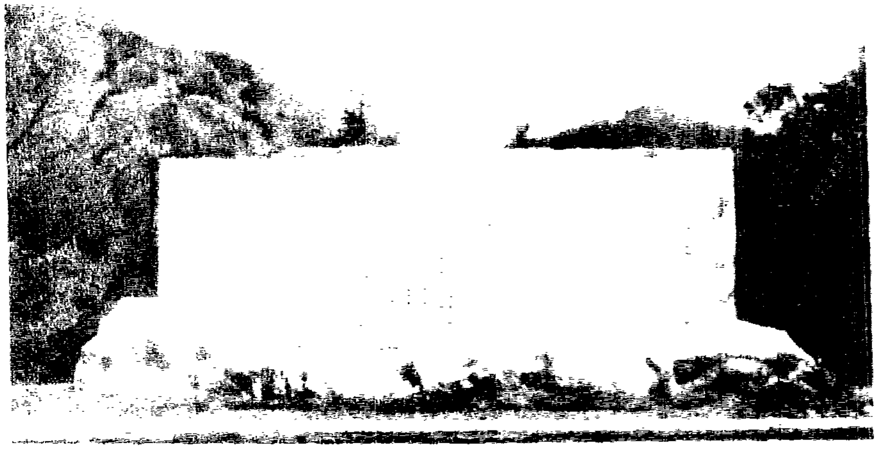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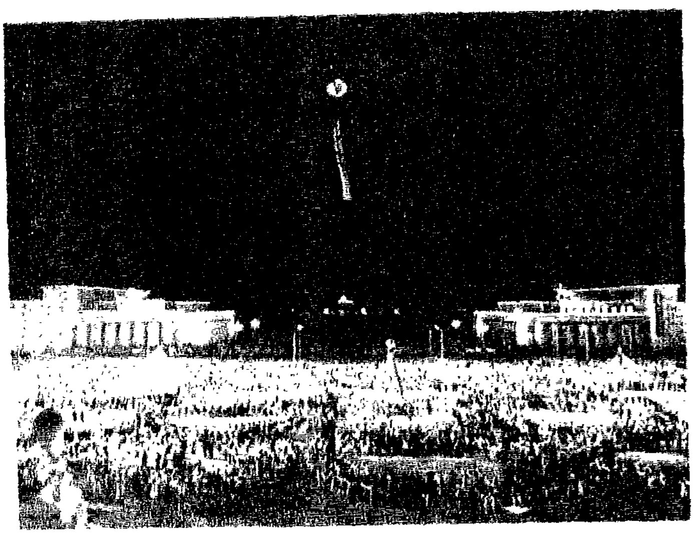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5돐을 맞이하여 우리 인민의 마음의 고향 만경대를 찾은 근로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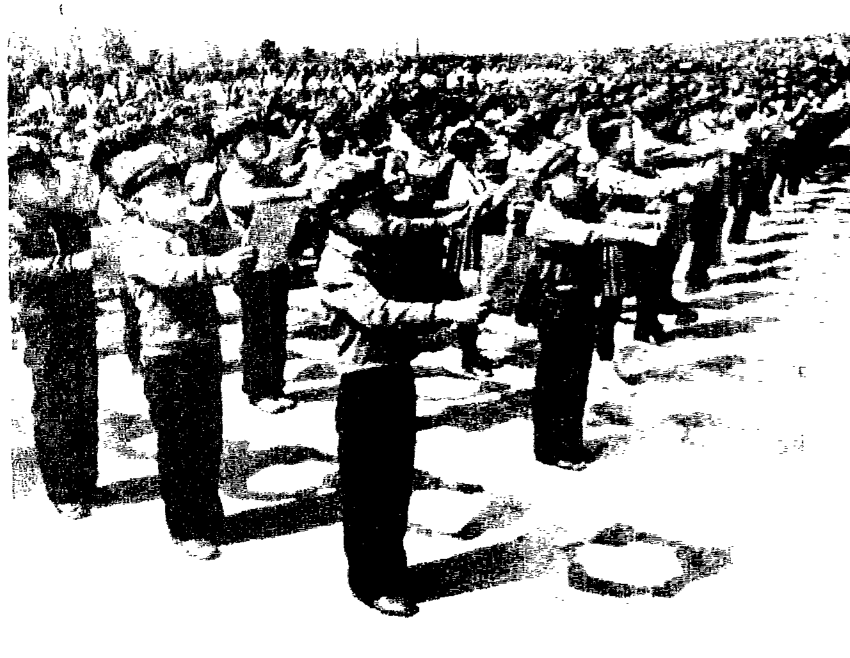
온나라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5돐을 맞이하여 끝없는 감격과 흥분으로 설레이고있는 환경속에서 진행된 집단체조 《조선의 노래》출연자들은 목청껏 《만세!》를 부르며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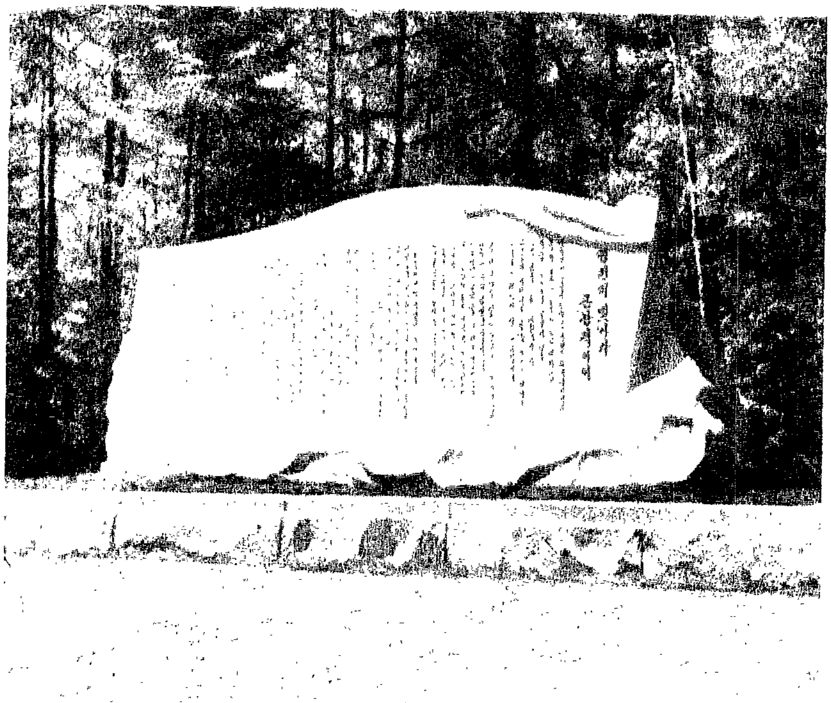
↑유서깊은 혁명전적지 보천보에 세워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적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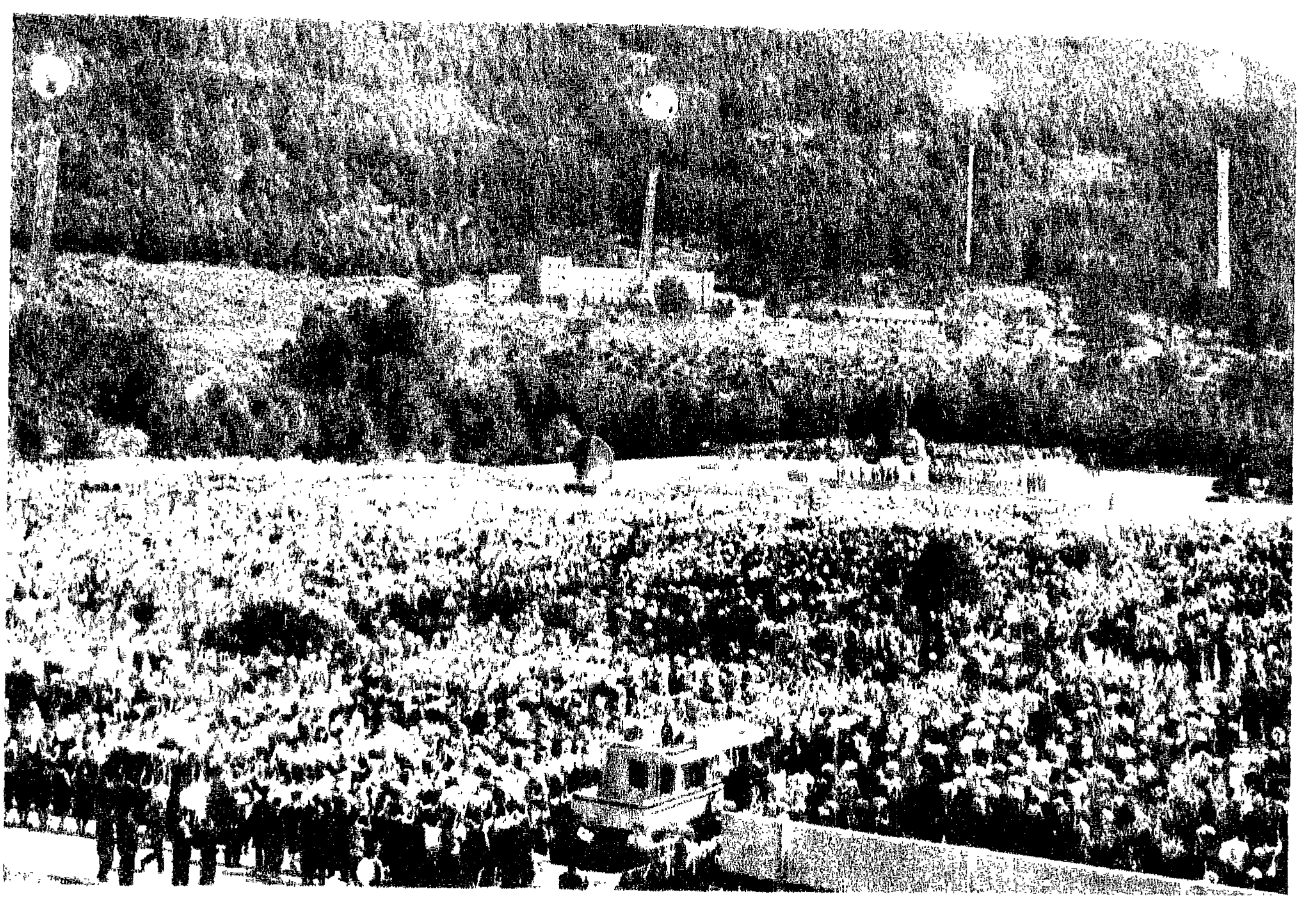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5돐을 맞이하여
평양시근로자들의 야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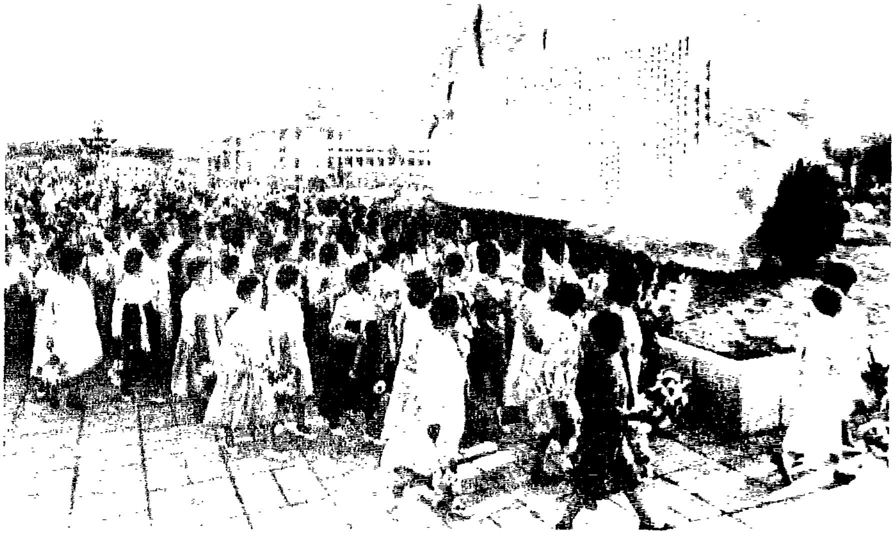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5돐을 맞이하여
혁명의 요람 만경대에서 조선소년단에
입단하는 영예를 지닌 어린이들이
입단선서를 소리높이 읽었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업적이 깃든 력사적인
장소 곤장덕에
세워진 현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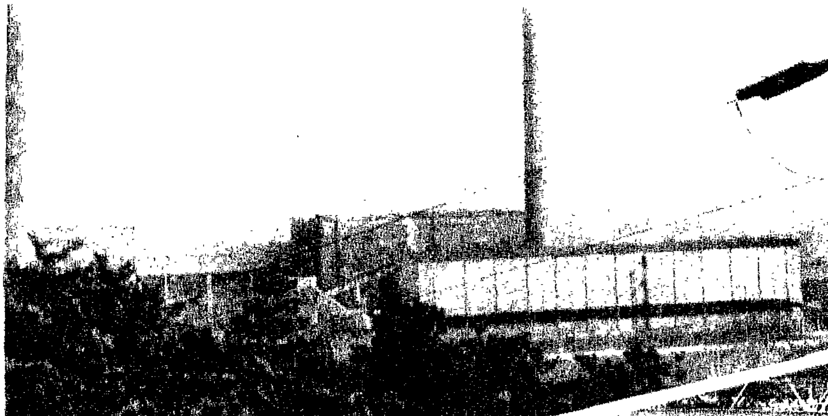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조직지휘하신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40돐을 맞이하여
력사의 땅 보천보에서는 기념보고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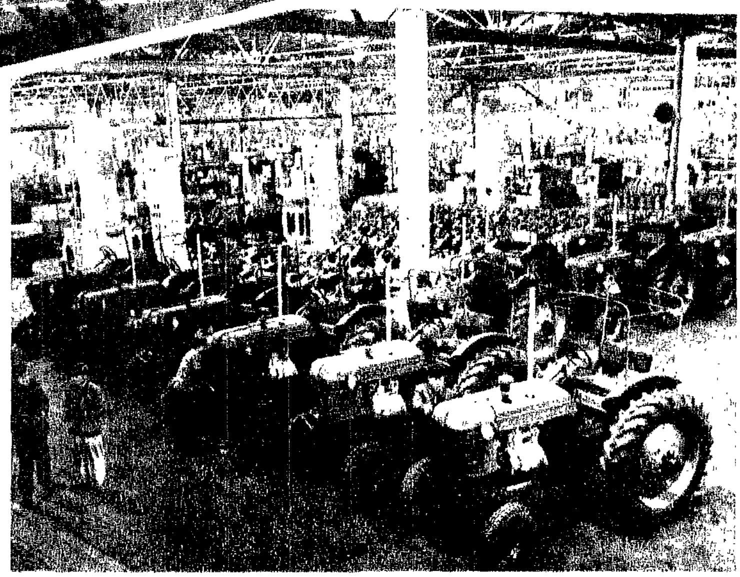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무으신 불멸의 혁명업적이 깃들어있는 평양의 유서깊은 옛 하당골언덕우에 새로 높이 세운 조선국민회창건 사적비 제막식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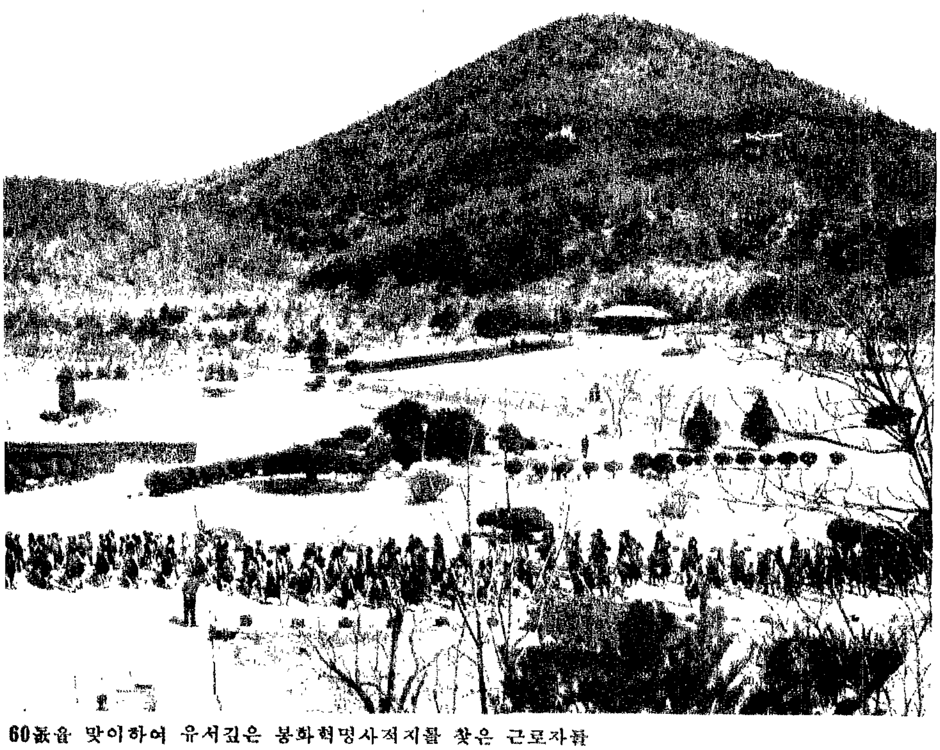
조선국민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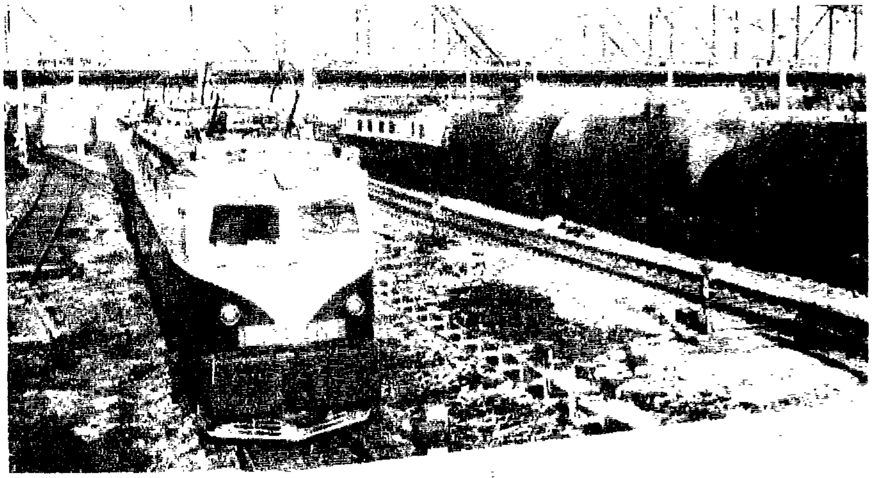
↑평양화력발전소에서는 혁신의 불길 타오르는 사회주의대건설장들에 많은 전력을 보내주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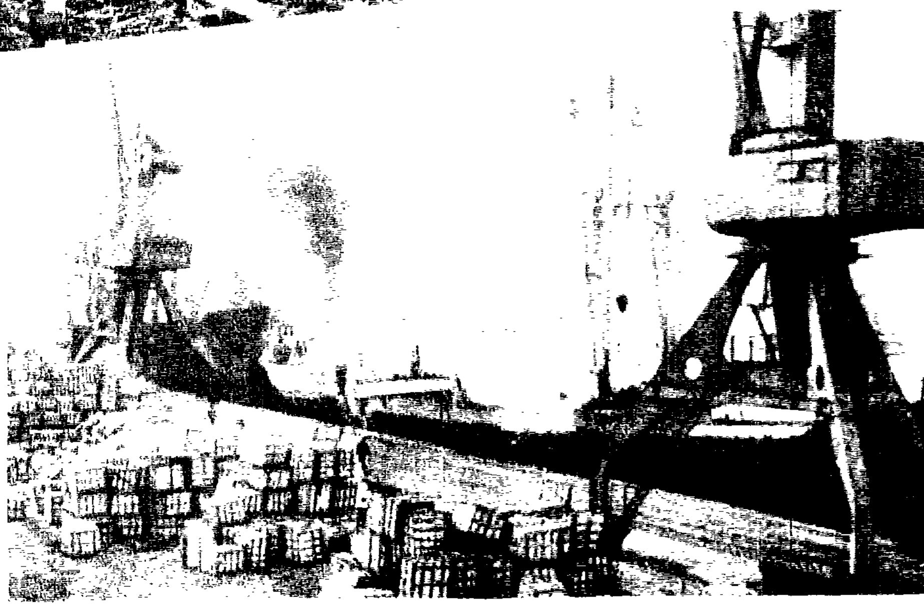
↑ 농업전선에 더많은 뜨락또르를
보내주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있는
금성뜨락또르공장 로동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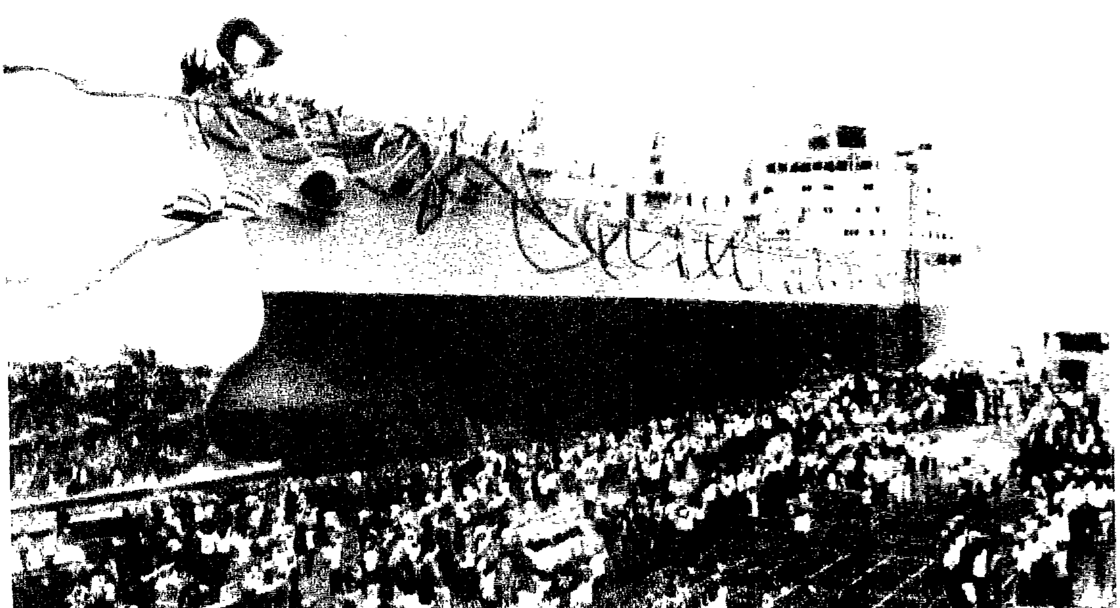
60歲을 맞이하여 유서깊은 봉화혁명사적지를 찾은 근로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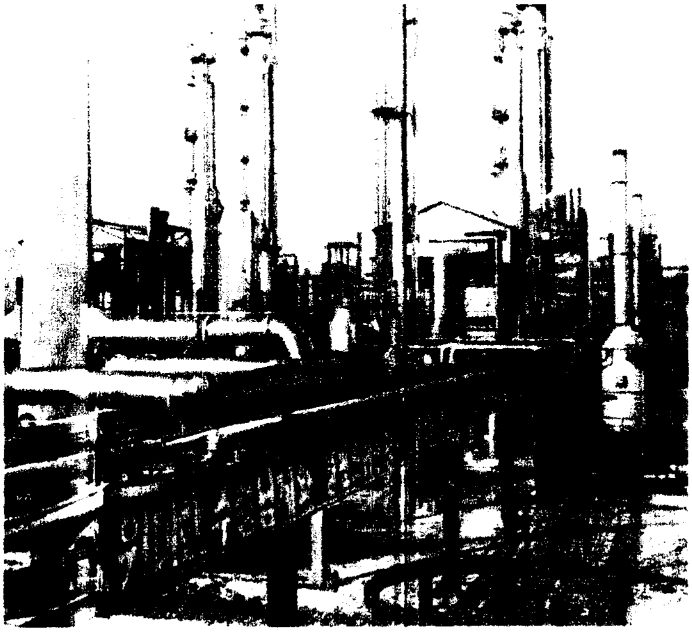
← 《수송혁명 200일전투》의 불길 높이
차갈이를 잘하여 차 머무름시간을
줄이고있는 평양조차장련합대
수송전사들



짐나르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남포항
해운전사들 →



2만톤짜리짐배
《청천강》호를
무어 바다에 띄웠다



대화학공업기지 청년화학련합기업소의 일부



농업전선에 많은 뇨소비료를 생산하여
보내주고있는 청년화학련합기업소
뇨소비료공장 로동자들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가물피해를
미리막기위한 투쟁에 힘차게 떨쳐나선
농업근로자들은 우물을 리용하여 그쯘히
자란 강냉이밭에 단비를 내리게 하고있다.

사회주의협동벌에 보내줄 물을
넉넉히 마련하고 제1계단공사를
끝내여 첫 통수를 한
재령강저수지의 일부→





← 인민들에게 많은 닭알을 생산공급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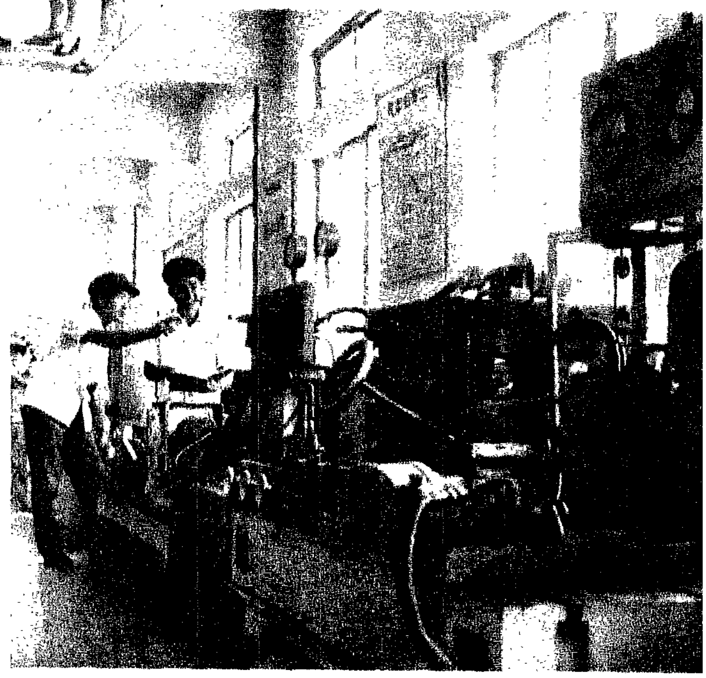
토끼기르기를 활발히 벌리고있는 청소년학생들 →

《만풍년포전》만들기 투쟁을 힘있게 벌려 풍작을 이룩한 농업근로자들의 기쁨 가슴마다에 차고넘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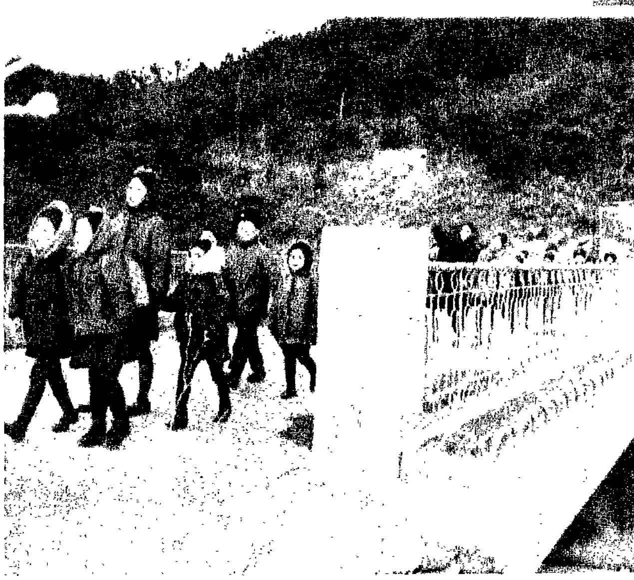


←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접한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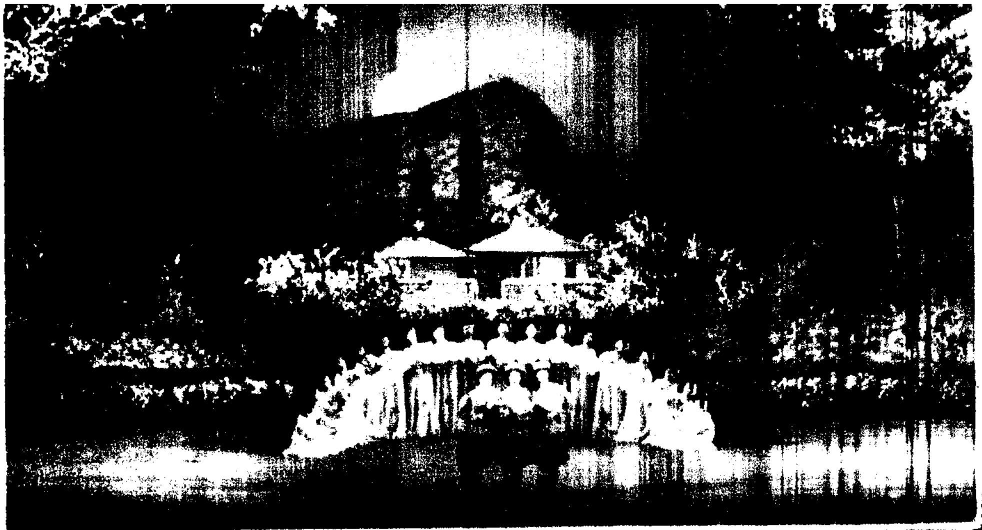
실험실습을 통해 배운지식을 튼튼히 다져가는 김책공업대학 학생들 →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정이 깃든 《사랑의 다리》로 다니는 은천군 초교마을의 복받은 새세대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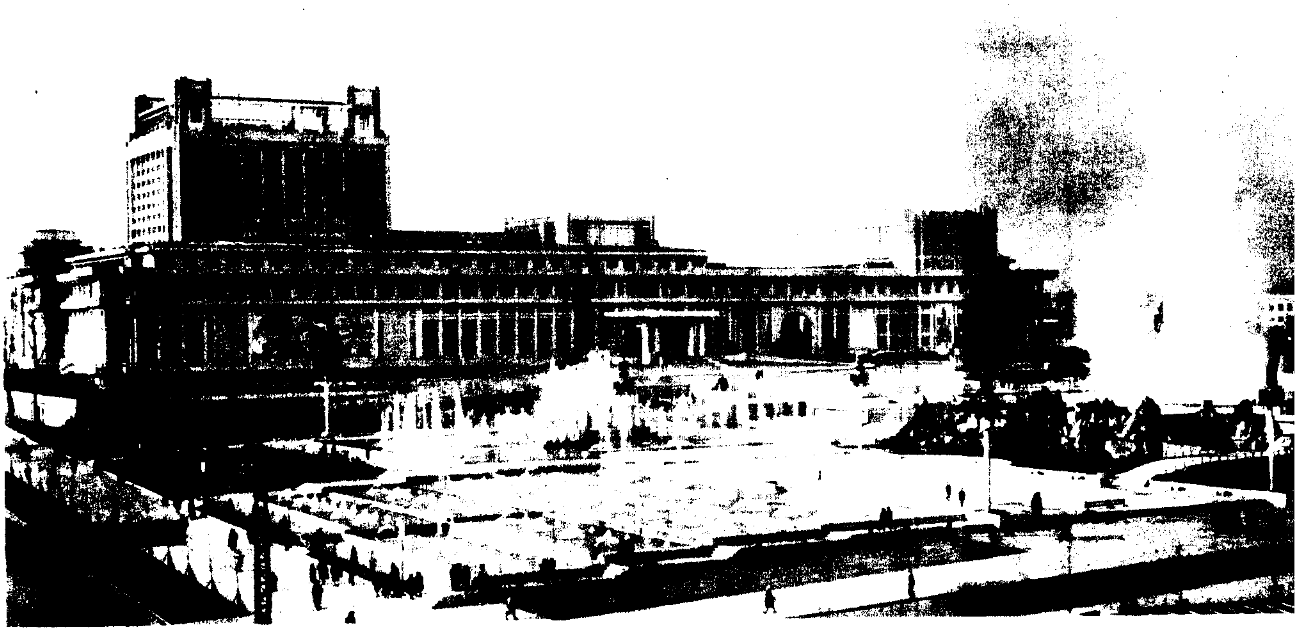


11년제의무교육의 혜택아래 활짝 열려진 배움의 꽃대문으로 들어서는 안주군 연풍고등중학교 인민반신입생들 →





↑
음악무용이야기 →
<락원의 노래>중에서



평양에 새로 웅장하게 일떠선 주체예술의 전당, 만수대예술극장



↑ 예술영화 〈누리에 붙는불〉의 한 장면 — 강반석녀사께서는 날이 새면 국내에로 떠나실 시동생분의 옷을 지으시고 김형직선생님의 높으신 뜻을 명심하도록 다정히 말씀하신다.



↑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의 한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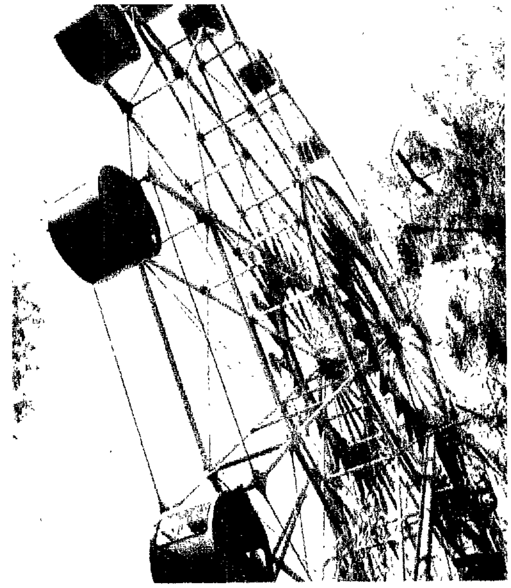
예술영화 〈이세상 끝까지〉의 실효모임에서 충성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살며 일해나갈것을 굳게 결의하는 농업근로자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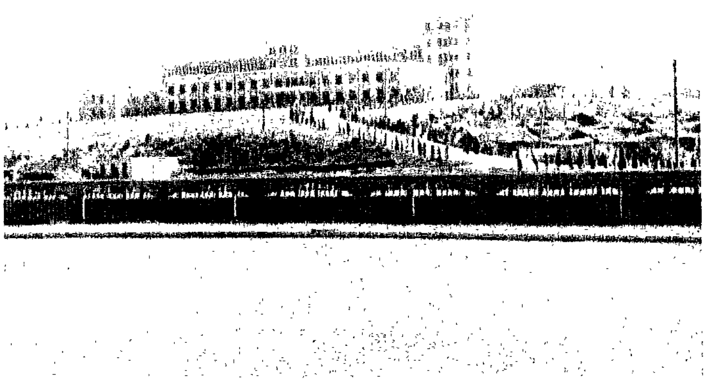
←연도에서 수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제34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우승하고 돌아온 박영순, 박영옥선수들을 비롯한 우리 나라 탁구선수단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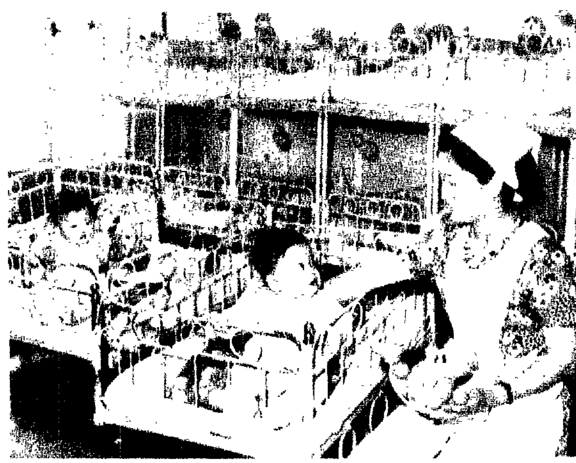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따사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자라나는 우리의 어린이들



대성산유원지에 새로 건설된
경쾌한 유희시설 — 관람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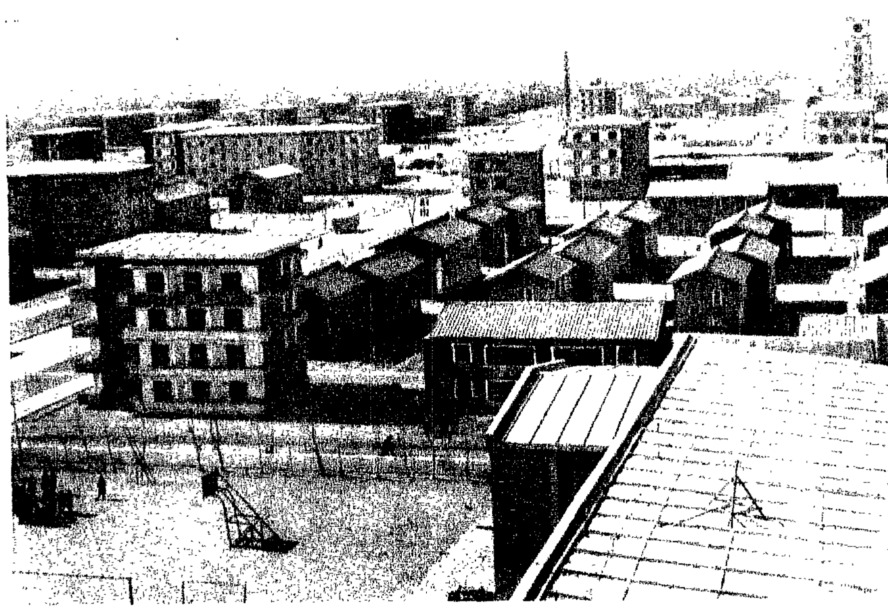


청천강반에 웅장하게 일떠선 안주군 인민병원



평양9.15주탁아소 젖먹이반 어린이들

일하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사회주의문화농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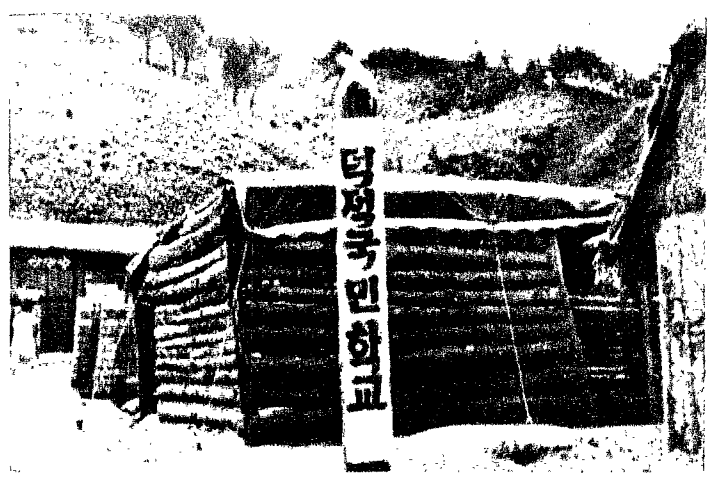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탄압밑
에서 아침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고역에 시달리며 짐을 져날라도
살아갈길 막막한 남조선로동자들



강추위와 찬바람을 몸으로 막아야 하는
남조선의 판자집촌



한창 배워야 할 나이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신문을 팔고있는 남조선소년



남조선의 천막학교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열심히 배우고있는 재일동포들



↑ 《만경봉》호 모형을 메고 행진하는

재일 조선 청년들의 조국통일행진단



↑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반대하여

시위투쟁을 벌리고있는 재일동포들

미제의 핵무기 남조선반입을 규탄하는

재일동포들의 군중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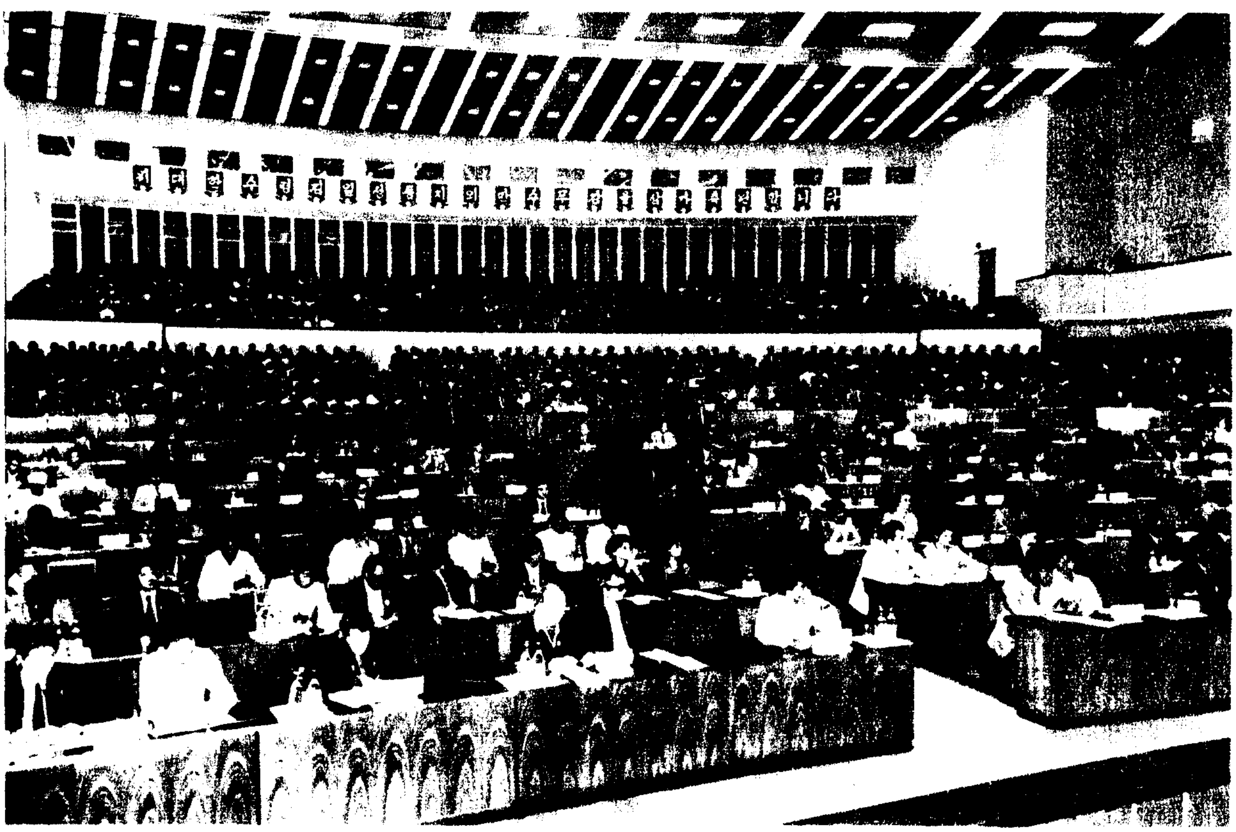
↑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쇼적인 체제를 반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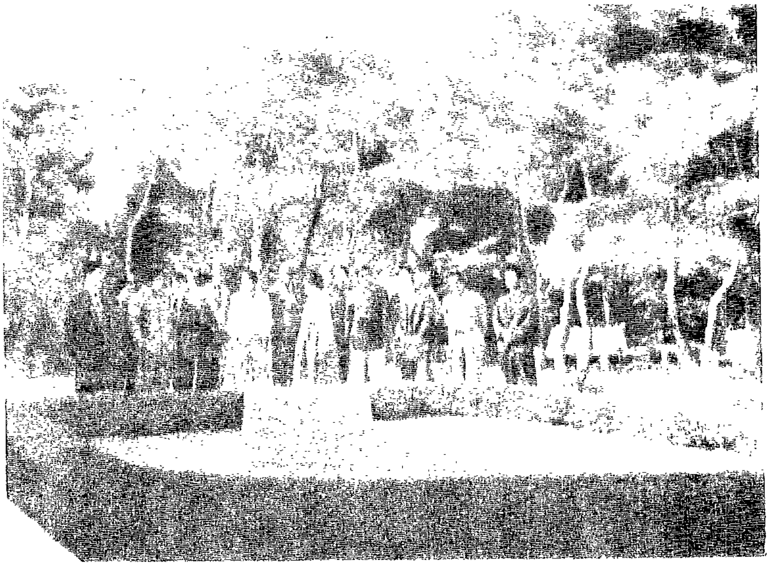
시위투쟁을 벌리고있는 재미교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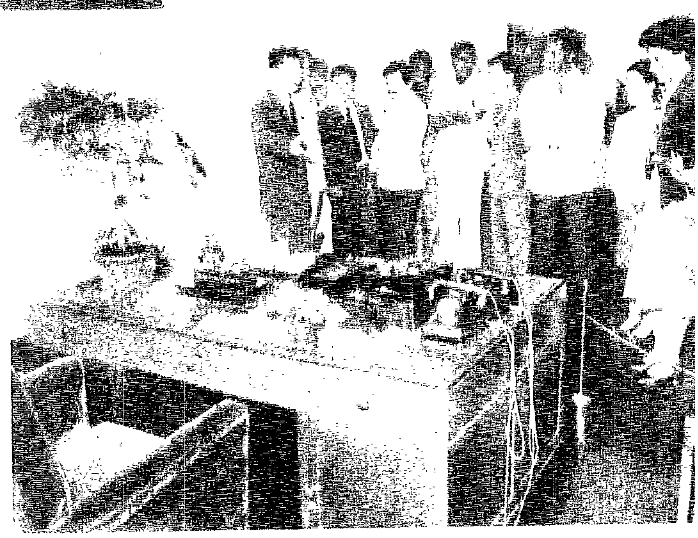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개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 주석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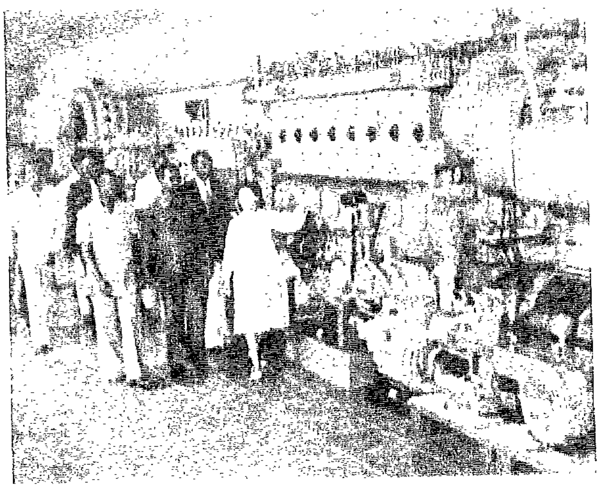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 참가자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시며 혁명의 큰뜻을 키우신 유서깊은 만경대를 방문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 참가자들



당창건사적관을 참관하고있는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 참가자들



↑ 중앙공업및농업전람관을 참관하고있는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 참가자들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열린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참가한 여러나라 대표단과 대표들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전통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력사와 혁명전통을 계승하며 당의 투쟁경험을 더욱 풍부히 하며 당이 이루어놓은 투쟁업적을 공고발전시켜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311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시는 영웅적인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우리 당과 인민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룩하시였다.

백전백승의 위대한 주체사상과 숭고한 공산주의적혁명정신,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은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초석이며 우리 인민이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할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이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전통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켜나가는것을 가장 큰 영광과 자랑으로, 최대의 의무로 여기고 1977년에도 우리 당의 혁명전통의 순결성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그를 실천활동에 그대로 구현하기 위하여 억세게 투쟁함으로써 백두령봉에서 시작된 주체의 혁명위업을 더욱 줄기차게 완성해나갔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전통교양에서의 기본이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혁명업적을 따라배우는데 있다는것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과 혁명박물관을 주체사상교양의 전당으로,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튼튼히 꾸리고 그를 통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학습하였다.

모든 당조직들에서는 회상기연구발표모임,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영화감상발표모임과 혁명소설감상발표모임, 혁명가요해설, 배움의 천리길 및 항일혁명투쟁 로정도 해설모임, 우등불모임,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조직진행된 주요회의들과 전투승리기념일들을 계기로 한 집중학습과 연구토론회, 환등그림해설 등을 통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더욱 깊이있게 따라배우며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가도록 하였다.

우리 인민은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구호밑에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시기 사령관동지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옹호관철한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기백과 생활기풍을 사업과 생활에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온 사회에 백두의 혁명정신이 나래치게 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의 혁명적인 사업기풍과 학습기풍, 생활기풍이 온 사회에 차넘침으로써 온 사회주체사상화의 력사적위업은 더욱 찬란히 빛나게 되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따라배우자!》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밑에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인 사로청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으신 불멸의 혁명활동로정을 따라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과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견학 그리고 《만경대》, 《동트는 압록강》, 《배움의 천리길》과 같은 혁명소설에 대한 독서행군 등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우리 혁명의 참된 계승자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튼튼히 준비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 청년대오의 주체사상화가 힘있게 다그쳐지고 사로청원들과 청소년학생들의 조직사상생활과 학습, 경제문화건설에서는 새로운 혁신이 일어났다.

참으로 오늘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준엄한 불길속에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온 사회에 백두의 혁명정신, 천리마의 혁명정신, 속도전의 혁명정신이 힘차게 나래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조직지휘하신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40돐

조국청사와 더불어 불멸할 보천보의 홰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보천보의 밤하늘에 광복의 홰불을 높이 지펴올리신 때로부터 40돐이 되는 날을 우리 인민은 1977년에 뜻깊게 맞이하였다.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는 우리 민족주체의 힘으로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

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웅대한 구상과 주체적인 전략전술적방침의 빛나는 실현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신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공과 보천보전투의 빛나는 승리는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반일민족해방투쟁사에 길이 빛날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공과 보천보전투의 력사적승리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위대한 군사사상과 비범한 령군술, 령활무쌍한 혁명적지략과 조직적수완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력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력사적인 서강회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37년 3월 29일 서강 양목정자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공작전으로 인민들에게 조국광복의 서광을 안겨주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연설에서 남호두회의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성과와 조성된 정치정세를 전면적으로 분석총화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이 대부대로써 국내에 진출할데 대한 주체적인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대부대로써 국내에 진출하여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타격을 주고 인민들에게 혁명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안겨주어야 하겠습니다.》(《대부대에 의한 국내진공작전으로 인민들에게 조국광복의 서광을 안겨주자》, 단행본, 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국내진공작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주력부대는 혜산방향으로, 한부대는 백두산을 에돌아 안도, 화룡을 거쳐 두만강연안의 북부국경일대에로, 다른 한부대는 림강, 장백 일대의 압록강연안으로 진출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시고 각 부대들의 임무와 당면한 과업들을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서강회의에서 제시하신 조국진군방침은 당시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현명한 방침이였다.

일제는 1930년대 중엽에 이르러 조선인민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다.

놈들은 조선인민의 사소한 반일적요소도 말살하기 위하여 온 삼천리강토를 군대와 헌병, 경찰망으로 뒤덮고 《사상범보호관찰령》을 비롯한 각종 악법을 조작하여 애국적인민들을 닥치는대로 검거투옥, 학살하였다.

일제는 또한 대륙침략을 위하여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쳤으며 《내선일체》, 《동조동근》을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우리 말과 글까지 없애려고 날뛰였다.

일제의 파쑈적폭압이 강화되자 민족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은 한때 떠벌이던 《애국》과 《독립》의 구호마저 내던지고 시정배로, 일제의 주구로 굴러떨어졌다.

이 엄혹한 정세속에서 우리 인민은 오직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르면서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을 목마르게 기다렸다.

이 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한 전반적조선혁명은 급속히 발전하였다.

특히 남호두회의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되고 그 조직망이 국내외의 넓은 지역에 확대되였으며 백두산일대의 밀림지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혁명근거지가 창설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이 백두산근거지에 의거하여 자유자재로 유동하면서 적들에게 심대한 군사정치적타격을 주고 인민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다.

이 투쟁과정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은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된 불패의 혁명대오로 자라났다.

그리하여 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릴 주체적인 혁명력량이 억세게 자라났으며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킬수 있는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였다.

조 국 으 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진군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부대들은 국내진공작전을 실현하는 길에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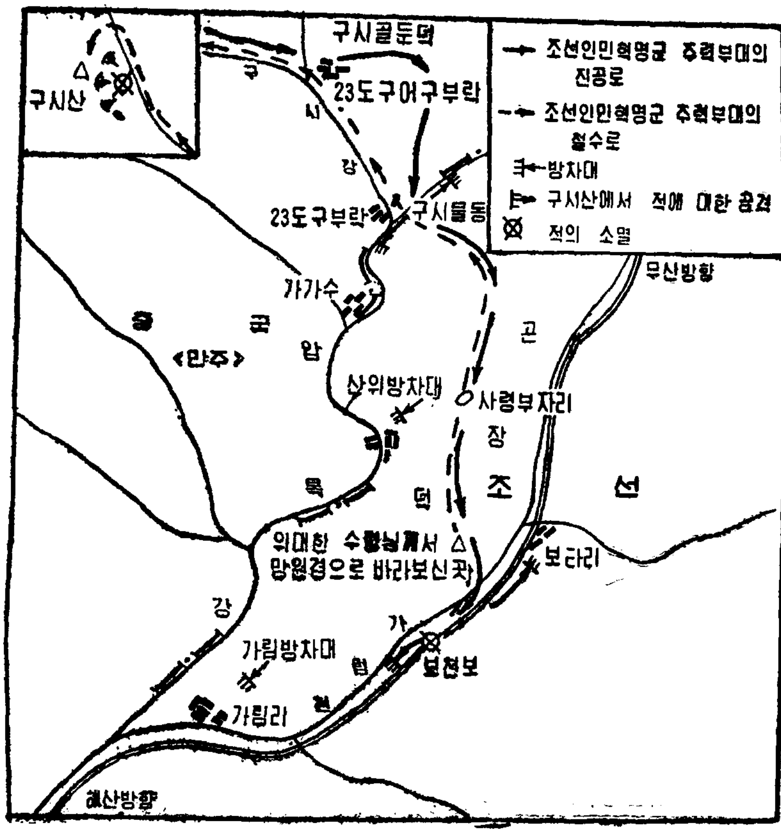
동부와 서부를 보조타격방향으로 삼고 두만강과 압록강연안에 진출하는 부대들앞에는 광활한 지역에서의 맹렬한 군사정치활동으로 일제에게 큰 타격을 주는 동시에 장백일대에 집결된 적들을 분산약화시키고 국경경비진에 대혼란을 조성함으로써 주력부대의 국내진출을 성과적으로 보장할 임무가 나섰다.

중부를 주타격방향으로 삼고 혜산방면으로 진출하게 된 주력부대는 백두산밀영에 의거하여 빈틈없는 전투준비를 갖춘 다음 국경경비진을 감쪽같이 돌파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당시 일제가 《철벽》이라고 호언장담하던 국경경비진을 뚫고 조선인민혁명군 대부대가 국내로 진출한다는것은 보통으로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였다.

일제는 이미 1936년 10월에 벌려놓은 이른바 《도문회담》에서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대규모적인 《동기토벌》과 국경경비진의 강화, 《집단부락정책》

보천보전투 로정도



을 내용으로 하는 《3대정책》이라는것을 꾸며낸후 11월에는 통화에 《토벌사령부》까지 내오고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대토벌전쟁》을 벌렸었다.

여기에는 《전문적인 유격전훈련》을 받은 노조에사단에다 수도사단, 조선주둔일본군19사단, 관동군, 위만군, 경찰대, 자위단 등 방대한 무력이 동원되였는데 장백현에만도 1만여명의 대병력을 내몰았었다.

이와 함께 일제는 국경경비진을 《철벽》으로 다지기에 미쳐날뛰였다,

일본 《천황》이란놈은 1937년 1월 제놈의 특사까지 보내여 북부국경일대를 한달남아 《시찰》하게 하고 국경을 《철벽》으로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그러하여 경찰력량이 방대하게 불어난데다가 이른바 특설국경경비대라는것까지 조직되여 압록강연안에 배치되였다.

놈들은 경기관총, 척탄통, 경비함정 등으로 중무장하고 곳곳에 포대, 망루까지 세웠으며 평양주둔비행대까지 국경경비에 출동시켰다.

압록강, 두만강 일대에는 제1～4선까지 삼엄한 경계망이 겹겹이 늘어섰으며 혜산, 갑산, 호인동 70～80리 사이를 두고는 큰 경찰서들이, 보천보부근에는 5～10리사이를 두고 경찰관주재소들이 도사리고있었다.

그러나 일제의 방대한 침략무력과 《철통》같은 국경경비진도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앞길을 막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7년 5월 17일 한 소부대를 무송현 서남쪽 해청령에 파견하시여 적군용자동차를 습격하도록 하시였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제4사부대는 북상하면서 안도현 황구령과 진창일대에서 적들을 크게 족쳤다.

《동기토벌》에서 대참패를 당한후 두달이 넘도록 조선인민혁명군의 종적을 찾지못해 헤매던 일제는 일대 혼란에 빠졌다. 놈들은 《유격대의 주력이 안도에 있느냐, 무송에 있느냐》고 떠들면서 이미 빈터전으로 되여버린 무송,몽강 지구에 병력을 내몰았다.

이른바 《금성철벽》이라고 장담하던 일제의 국경경비진은 약화되고 국내진출의 돌파구가 열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기회를 리용하시여 5월하순,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장백현 지양개에 나오시여 국내진공준비를 면밀히 갖추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대행군로의 거리, 시간, 습격대상과 방법, 전투대오의 편성, 군중정치사업 등 주도세밀한 작전계획을 짜시였다. 그리고 제7련대와 제8련대, 경위중대에서 150여명의 대원들을 선발하시여 원정대를 무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진공을 앞두시고 대원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몸소 진행하시였으며 국내진공작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직별회의들을 열도록 하시였다.

이러한 때 안도방면으로 북상하던 제4사부대는 5월 15일 두만강을 건너 무산지구에 진출하였으며 붉은 바위와 베개봉일대에서 놈들을 호되게 때렸다.

급해맞은 일제는 혜산일대의 병력까지 무산지구쪽으로 내몰아 4사부대를 포위하려고 달려들었다.

혜산방면에 조성된 유리한 정세와 4사부대앞에 나선 위험을 예리하게 살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진공기일을 앞당기시여 지체없이 보천보에로 진군할데 대한 명령을 내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력사적인 조국진군의 길에 오른 대원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듯 높

왔다.

부대가 희샤즈거우밀영을 떠나 베개골부락을 거쳐 신흥촌에 이르렀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화전, 가림, 보천보 등지에 정찰을 파견하시였다.

6월 2일 원정대는 23도구어구부락에 도착하여 하루밤을 숙영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에서 한 소조를 압록강에 파견하시여 떼목을 준비하고 부대의 도강을 보장하도록 하시였다.

부대는 6월 3일 아침 구시골둔덕에 올랐다가 해가 저물자 다시 강행군으로 압록강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미 준비하여 놓은 떼목을 타고 구시물동을 건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도하지점부근에 한개 구분대를 매복시키시여 부대의 철수를 보장하며 적을 감시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령군술에 의하여 감쪽같이 압록강을 건는 원정대는 45도의 가파로운 경사를 가진 곤장덕에 올라 조국땅에서의 첫아침, 6월 4일을 맞이하였다.

조선은 죽지 않았다

우리 나라 북부국경지대에 자리잡고있는 보천보는 당시 혜산군 보천면 소재지로서 일제가 《금성철벽》이라고 호언장담하던 중요한 군사정치적요충지의 하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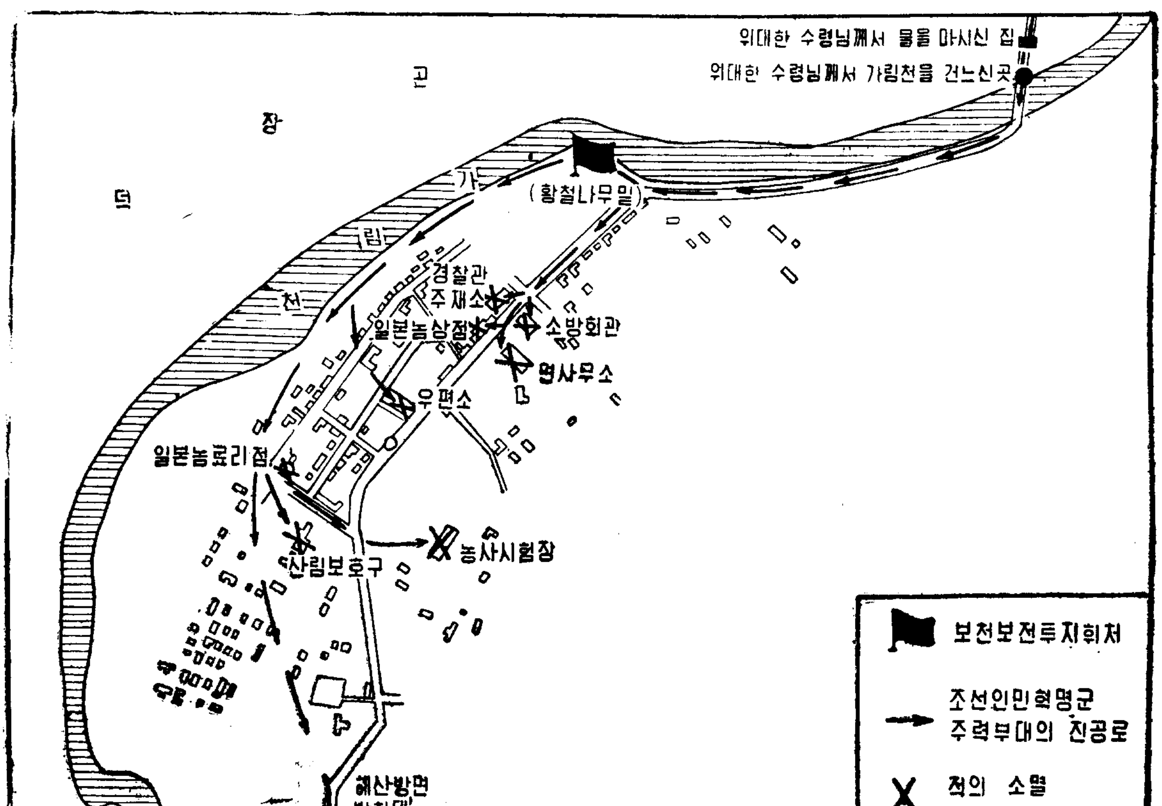
보천보에는 경찰관주재소를 비롯하여 일제의 《재향군인》들로 조직된 무장인원들이 배치된 농사시험장 그리고 면사무소, 산림보호구, 우편소 등 숱한 일제통치기관들이 도사리고있었다.

일제는 보천보가 국경경비진에서도 좀 깊숙이 들어와 있었으므로 국경경비의 1선이 《철벽》이니만큼 조선인민혁명군이 여기까지는 도저히 들어올수 없다고 흰소리를 치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월 4일 낮을 곤장덕에서 보내시면서 전투준비를 더욱 면밀히 짜고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날 두대원을 보천보거리

보천보전투 략도



에 내려보내시여 적정변동을 정찰하도록 하시였다.

마침 이날은 장날이여서 그들은 닭알장사와 행인으로 가장하고 적정을 구체적으로 정찰하고 돌아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가 지기전에 휴식터에서 15리가량 떨어진, 앞이 확 트이고 보천보시가가 손금처럼 보이는 산등에까지 내려오시여 친히 망원경을 드시고 적기관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시였다.

그러신다음 곤장덕숲속에서 지휘관들의 모임을 가지시고 각 구분대들에 전투임무를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에 따라 기관총 두문을 가진 한개 구분대는 경찰관주재소를 습격하는 동시에 무산방향으로 통하는 도로를 차단하며 다른 한개 구분대는 면사무소, 산림보호구, 농사시험장, 우편소 등을 습격하게 되였다. 또한 다른 한개 구분대는 기관총 한문을 가지고 혜산으로 통하는 도로를 막고 적의 증원부대를 치는 한편 혜산으로 통하는 전화선을 끊어버리게 되였으며 나머지 한개 구분대는 시내각처에 삐라와 격문을 뿌리며 주민들에게 선전해설공작을 하고 로획한 적의 군수물자를 운반하게 되였다.

부대는 해질무렵에 일제의 《토벌대》로 가장한 척후대를 앞세우고 곤장덕언덕길을 내려섰다. 가림천다리를 건는 부대는 어둠을 리용하여 은밀히 보천보시가로 들어갔다.

캄캄한 어둠속에 짓눌린 보천보의 밤은 폭풍전야의 무서운 숨결을 안고 깊어갔다.

드디여 밤 10시, 가림천기슭 황철나무밑에 지휘처를 정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암흑을 깨뜨리는 총성을 높이 올리시였다.

순간,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기관총과 보총이 복수의 노한 불을 뿜으며 원쑤들의 소굴을 들부셨다.

경찰관주재소안에 도사리고있던 놈들은 순식간에 소멸되였다. 유격대원들은 도끼로 무기고의 문짝을 까고 기관총, 보총, 권총을 비롯한 많은 무기를 로획하였다. 또한 구류장을 까부시고 억울하게 갇힌 사람들을 석방하였다.

농사시험장에서는 무장한 《재향군인》 20여놈이 포대까지 쌓아놓고있었으나 대항할 엄두도 못내고 소멸되였다.

면사무소를 습격한 유격대원들은 각종 세금문서와 《징용》대장, 《호적》문건들과 함께 면사무소를 불살라버렸다.

산림보호구에서는 놈들이 일본놈인 《산림보호구주임》놈의 《영전》(승급되여 조동되는것)을 축하하느라고 시내의 《유력자》들은 거의다 모여들어 주연(술놀음)을 벌리다가 무리죽음을 당했다.

면사무소, 산림보호구, 소방회관, 우편소 등 적기관들에서 삼단같은 불길이 일어나 암흑을 활활 태우며 솟아올랐다.

《김일성장군님께서 오셨다!》

《우리 군대가 왔다!》

억눌리고 짓밟혔던 인민들이 자나깨나 그리던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하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민족재생의 환희에 넘쳐 투쟁의 거리로 떨쳐나왔다.

환호성을 올리는 인민들속에서 선전공작대원들은 선전선동사업을 벌렸다.

거리와 골목마다에 《조국광복회 10대강령》과 《조선인민에게 격함!》, 포고문, 선전삐라들이 나붙었다.

포 고

간악무쌍한 강도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을 강점하고 20여년이래 총독정치라는 식민지통치로써 조선동포들을 유린학살하고있다. 그러므로 우리 조선동포들은 놈들에게 피와 땀으로 된 재산을 모조리 략탈당하여 비참한 식민지노예의 생활을 하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놈들은 우리 민족을 제2차대전의 《선봉대》로 하여 중국을 침략하는 전쟁의 도구로 내몰고있다.

우리 조선민족은 생사존망의 위기에 봉착하였다. 우리들은 자기 민족의 출로를 개척하고 자기 생활을 타개하며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조국을 해방하기 위하여 싸우는 조선인민혁명군이다. 우리들이 6, 7년간 만주광야에서 일본제국주의략탈자들과의 필사적투쟁에서 치명적타격을 준것은 세인이 다 인정하는바이다.

본군은 조선에 있는 애국지사와 열혈적인 본군용사들의 강력한 굳은 단결우에 조선민족의 피를 빨아 배를 불리는 흡혈귀 조선총독부와 직접 싸울 목적으로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 함남북일대에 원정하게 되였다.

가련한 조선동포형제들! 속히 출동하여 반일민족통일전선에 단결하여 각종 투쟁으로써 본군의 유격전쟁에 호응하라!

하루속히 일제통치를 분쇄하고 진정한 조선인민의 정부를 수립하는데 매진하자!

1937년 6월 1일

조선인민혁명군 북조선원정대

사령 김일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독립 만세!》, 《조선혁명 만세!》를 목청껏 부르며 들끓는 보천보인민들앞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자》라는 열화같은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력사적인 연설에서 간악무도한 일제침략자들의 만행을 준렬히 폭로규탄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은 건재하고있으며 조선인

민혁명군이 존재하는한 조선은 반드시 독립된다는 확고한 신심과 민족적자부심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여러분! 저 불길을 보십시오. 거세차게 타번지는 저 불길은 놈들의 최후를 보여주고있습니다. 저 불길은 우리 민족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날강도 일제놈들과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있습니다. 저 불길은 학대와 주림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희망의 서광으로 빛날것이며 투쟁의 불씨로 되여 온 삼천리강토에 펴지게 될것입니다.》(《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자》, 단행본, 5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시여 모두다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억울하고 비통한 처지에 놓이게 된것을 앉아서 한탄만 하지 말고 반일민족통일전선의 기치아래 더욱 굳게 뭉쳐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광복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성전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서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여기저기에서 유격대원들과 인민들과의 감격적인 상봉이 벌어졌다. 거리는 환희와 희망으로 들끓었다.

이윽고 부대의 철수를 알리는 나팔소리가 울렸다.

석별의 정을 금치못해하는 인민들은 저마다 로획물자를 지고 부대를 따라나섰다.

《조국이여, 보천보여 잘 있으라! 이제 그대를 영원히 해방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이렇게 결의를 다지면서 배낭속에 조국의 흙을 한줌씩 간직하였다.

혁명의 서광, 투쟁의 불씨

보천보습격에 대한 급보를 받은 일제는 공포에 질려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채 《긴급비상회의》를 열며 덤벼쳤다.

놈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을 포위하여 《토벌》한다는 이른바 《작전계획》을 세우고 23도구쪽에는 혜산경찰서 오가와경부의 경찰대를, 농산과 독산쪽에는 이마무라, 히로바시 경부보들의 경찰대를, 가림리쪽에는 구리다대위의 국경수비대를 출동시켰고 이미 압록강웃쪽 국경지대에 나가있던 이히노, 구마다 부대들과 장백지방에 있던 위만군부대도 보천보지구로 내몰았다.

여기에 함경남도 경찰부장놈과 과장급의 경찰놈들, 국경연안인 신갈파, 호인, 삼수, 갑산 경찰서들과 그 근방의 경찰관주재소의 경찰놈들, 소방대, 자위단 등 700여명의 무력이 조선인민혁명군의 뒤를 따랐다.

6월 5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대를 가파로운 구시산마루의 유리한 지점에 매복시키시고 로획물자를 지고 따라온 200여명의 인민들에게는 정치사업을 하신후 돈과 옷감, 신발을 나누어주시고 적들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안전한 길로 돌려보내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을 추격하여 제일 먼저 압록강을 건너온 놈들은 오가와경찰대였다. 놈들은 이른바 《결사척후대》를 만들어가지고 경기 두문을 앞세우고 높이 400메터, 경사 60도나 되는 구시산중턱으로 헐레벌떡 게바라올라왔다.

그러다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이 20～30메터의 거리에서 내뿜는 일제사격에 의하여 순식간에 몰살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구시산전투에서 수십명의 적을 살상하였으며 경기관총과 척탄통을 비롯한 많은 무기와 군수기재를 로획하여가지고 백두산근거지로 유유히 철수하였다.

보천보와 구시산에서 군사정치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은 일제는 《조선총독부》로 하여금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추격작전》을 벌리게 하고 이른바 《정예》를 자랑하는 조선주둔 제19사단소속 함흥74련대의 《무적 황군》 2천여명과 장백주둔 위만군 혼성려단 500여명을 간삼봉일대에 들이밀었다.

6월 30일, 600여명으로 편성된 조선인민혁명군 대부대는 간삼봉전투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작전계획과 령활한 전술, 전투지휘에 의하여 적들의 《3면포위공격》을 완전히 분쇄하고 《정예》를 자랑하던 74련대놈들만 하여도 1천500여명이나 살상하였다.

간삼봉전투의 위대한 승리로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공작전은 빛나게 결속되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공과 보천보전투의 빛나는 승리는 주체적군사사상과 비범한 령군술, 령활무쌍한 혁명적지략과 조직적수완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도력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령군술과 위대한 풍모에 대하여 당시 구시산전투에서 몰살당했던 적의 특설경비대 대장 오가와마저 오늘 이렇게 회상하고있다.

《나는 그때까지 세상에 이름을 날린 그 어떤 명장도 총알이 비발치는 1선에서 그것도 적과 불과 30～40메터의 근거리에서 작전을 지휘한 실례를 모르고있었다. …그것은 김일성장군님처럼 탁월한 강철의 령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인것이다.》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또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강의한 의지에 의하여 마련되였다.

보천보전투의 력사적승리는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사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그 의의는 일본놈을 몇명 죽인데 있는것이 아니라 조선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본제국주의와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 신념을 북돋아주는 혁명의 서광을 비쳐준데 있습니다.》(《조선로동당 건설에 대하여》, 2권, 297페지)

보천보전투는 무엇보다도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살길을 찾아 헤매이며 신음하던 우리 인민에게 조선은 반드시 해방된다는 억센 신념을 북돋아주는 혁명의 서광을 비쳐주었다.

보천보의 총소리는 조선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일제에 항거하여 자기 조국을 자신의 힘으로 기어이 해방할것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알린 장엄한 선언이였다.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또한 우리 인민의 반일투쟁이 전국적판도우에서 료원의 불길마냥 세차게 타번지게 함으로써 조선혁명의 일대 앙양의 계기를 열어놓았다.

보천보의 홰불을 따라 1937년 9월 흥남제련소 로동자들의 파업과 10월초 본궁화학공장 로동자들의 파업이 일어난데 이어 평양, 남포, 신의주, 청진,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각지에서 로동자들의 투쟁이 고조되였으며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들의 반일투쟁도 전례없이 앙양되였다.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일제의 조선침략이래 놈들에게 가장 심대한 정치군사적타격을 주고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은것으로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혁명군의 불패의 위력을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보천보전투에서 넋을 잃은 일제는 제놈들의 참패에 대하여 《…생각하면 보천사건에 관하여서는 천날에 걸쳐 베여낸 새초를 한순간에 재더미로 만든것과도 같은 감정이였다》고 통곡하였다.

보천보전투의 거대한 승리는 또한 국제파시즘과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여 싸우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였으며 오늘도 독립, 자주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에게 끝없는 용기와 고무적힘을 안겨주고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항일대전의 길우에 높이 타오른 보천보의 홰불은 주체위업의 전진하는 력사와 더불어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혁명의 홰불로 영원히 타오르고있다.

보천보전투승리 40돐을 성대히 기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충성의 꽃바구니를 드리였다.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주체의 홰불을 높이 추켜드시고 영웅적인 항일혁명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였으며 오늘의 보람차고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존경의 정을 안고 보천보전투승리 40돐을 맞이한 우리 인민은 혁명전적지들과 혁명사적지들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충성의 한마음을 담은 꽃바구니들을 정중히 드리였다.

6월 4일, 보천보의 가림천기슭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부들, 지방당 및 정권기관, 근로단체, 조선인민군 장병들, 사회안전원들, 3대혁명소조원들,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이름으로 된 수많은 꽃바구니들이 정중히 드려졌다.

이날 혜산시에서는 량강도와 혜산시의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과학,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출판보도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모신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에 량강도안의 인민들의 이름으로 된 꽃바구니와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의 이름으로 된 꽃바구니들을 드리였다.

또한 후창군 포평, 삼지연군 청봉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과 대홍단벌에 세운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에도 군안의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의 이름으로 된 꽃바구니들이 드려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드리면서 우리 인민은 조국의 륭성발전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중앙보고대회〕

조국광복의 홰불이 타오른 력사의 땅 보천보의 가림천기슭 대회장에서는 6월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조직지휘하신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40돐 기념보고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시작에 앞서 보천보에 새로 세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적비》가 제막되였다.

대회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다.

보고자는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친솔하시고 조국진군의 길에 오르시였으며 일제의 전략적요충지였던 보천보에 대한 진공작전을 승리에로 이끄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보고자는 보천보전투가 가지는 커다란 력사적의의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보천보의 불길은 우리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것이며 조선인민의 심장속에 혁명의 홰불로 영원히 남아있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

의 주체로선을 확고히 견지하시여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시고 우리 나라를 짧은 기간에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신데 대하여 말하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수령님의 령도를 받들어나가는 바로 여기에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갈수 있는 결정적담보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끝으로 조국통일문제에 대하여 말하였다.

오늘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요구이다.

그런데 미국의 일부 당국자들은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키는 경우에도 완전철거가 아니라 공군은 남겨놓으며 그것도 일본정부와 남조선당국자들과의 충분한 리해속에서 실시하겠다고 하는 극히 애매한 발언들을 하고있다.

유엔의 결의와 세계여론과 배치되는 이러한 언동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다.

미국은 남조선으로부터 저들의 군대와 핵무기를 비롯한 살인무기들을 지체없이 철수시키며 전쟁도발책동과 인권탄압에 날뛰는 남조선당국자들을 부추기는 행위를 더는 하지 말아야 한다.

일본정부는 미군이 남조선에 영구히 주둔할것을 요구하지 말며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조선의 통일문제는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에서 실현되여야 한다.

〔다채로운 기념행사들〕 6월 4일, 곤장덕에 새로 세운 현시비 《영원히 빛나라 곤장덕이여》가 제막되였다.

청소년학생들은 보천고등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경기로 이날을 뜻깊게 보냈다.

어둠이 깃들자 가림천기슭에서는 야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대합창으로 시작된 야회에서는 40년전 이날밤 우리 인민에게 조국광복의 신념을 안겨준 혁명의 횃불인양 여러개의 삼단같은 우등불이 활활 타오르는 가운데 대군중무용이 벌어졌다.

야회참가자들은 《내 조국 한없이 좋아라》, 《노들강변》, 《세금없는 우리 나라》, 《인민주권가》 등의 노래주악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오늘의 이 행복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야회가 끝난다음 예술인들의 공연이 있었다.

이날 군중문화회관에서는 군안의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이 진행되였으며 혜산시에서는 량강도예술단이 준비한 음악무용서사시극 《인민의 념원을 지니시고》가 공연되였다.

6월 2일 혜산시에서는 보천보전투승리 40돐기념 과학토론회가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에 심대한 군사정치적타격을 주고 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한 력사적사변》,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필승불패의 자위의 군사사상의 고귀한 결실》 등 여러 제목의 토론들이 있었다.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40돐을 뜻깊게 맞이하는 때에 보천보혁명박물관창립 25돐기념보고회가 또한 6월 2일 혁명의 성지 보천보에서 진행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합창으로 시작된 모임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다.

보천보혁명박물관은 온 나라가 포연속에 잠겨있던 1952년 4월에 세워졌다.

보천보혁명박물관은 1930년대후반기의 혁명력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항일혁명투쟁의 전력사적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보고는 지난 25년간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속에 박물관이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학교로서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린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한편 도꾜에 있는 재일본조선중앙회관에서는 보천보전투승리 마흔돐기념 총련간부강연회가 6월 3일에 진행되였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뜻깊게 기념〕 보천보전투승리 40돐에 즈음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기념강연회, 사진전람회, 영화감상회 등을 가지였으며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보천보전투승리가 가지는 거대한 의의를 강조하면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애급 및 중근동에 있는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대표부는 6월 2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보천보전투승리 40돐에 즈음하여 서남아프리카 자유투사들과 피압박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최대의 축하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라고 지적하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에 따라 조선은 통일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리아의 남부도시 쑤웨다에서는 6월 2일 기념강연회가 진행되였다.

강연회에는 아랍사회부흥당 쑤웨다도위원회 지도부성원들과 수리아아랍조선친선협회 쑤웨다도지부성원들, 사회단체 책임일군들, 각계각층 군중들이 수많이 참가하였다.

강연회에서는 수리아아랍조선친선협회 쑤웨다도지부 위원장의 연설이 있은 다음 우리 나라 대사

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조직지휘하신 력사적인 보천보전투는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불러일으킨 력사적사변》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였다.

기념강연은 꾸바와 인도에서도 각각 진행되였다.

한편 5월 20일 뽈스까의 제슈브시에서는 보천보전투승리 40돐에 즈음한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 《사회주의조선의 성과》가 열렸다.

쏘련에서는 쏘련대외친선문화련락협회련맹과 쏘조친선협회의 주최로 6월 2일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으며 소말리아와 르완다에서도 영화감상회가 열리였다.

여러 나라 신문들은 보천보전투승리 40돐에 즈음한 기념론설들을 실었으며 방송들은 기념방송을 하였다.

라오스신문 《시엥 파싹쏜》 6월 4일호는 보천보의 밤하늘에 조국해방의 홰불을 높이 올리시고 투쟁의 앞길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진을 정중히 모시고 《보천보에 타오른 혁명의 홰불》이라는 제목으로 기념론설을 실었다.

꾸바신문 《그란마》 6월 4일호는 《보천보전투 40돐》이라는 제목으로, 수리아신문 《알 우쑤부우 알 라야뒤》 6월 4일호는 《보천보에 높이 오른 혁명의 홰불》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념론설들을 실었다.

6월 4일 수리아방송은 보천보에 타오른 혁명의 홰불은 아세아와 세계의 혁명적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와 신심을 안겨주었으며 식민지나라들의 민족해방투쟁에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하였으며 콩고에서도 기념방송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적비

(보천보에 세운 사적비문)

조선의 기상을 누리에 떨치며 이 나라 강산에 광복의 서광을 비쳐준 불멸의 홰불이 솟아오른 혁명의 성지 보천보!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던 조선의 운명이 생사존망의 갈림길에 놓였던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한 시기 인류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여기서 자유와 해방의 총소리 높이 올리시여 캄캄하던 조국땅에 혁명의 불길 화산처럼 타오르게 하시였거니.

력사적인 서강회의에서 조국진군의 전략적방침을 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그립던 조국땅으로 나오시였다.

천구백삼십칠년 륙월 사일!

세월이 흐르고 하늘땅 변한들 우리 어찌 감격의 그날을 잊을수 있으랴.

민족의 태양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장군님께서 여기 가림천기슭의 황철나무아래에서 높이 올리신 력사의 총소리에 이어 보천보의 밤하늘에 뢰성벽력인양 폭음이 진동하고 불길이 치솟아 잠든 산천을 깨우고 만천하를 뒤흔들었거니.

우박치는 복수의 총탄이 일제경찰관주재소를 짓부시고 삼단같은 불길이 면사무소, 산림보호구, 소방회관, 농사시험장, 우편소를 삼켜버렸으며 거리와 골목들에는 《조국광복회10대강령》, 포고문을 비롯한 삐라와 격문들이 나붙어 인민들을 항일전의 피끓는 마당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켰다.

노예살이 천대속에 헐벗고 굶주리던 남녀로소동포들이 철창속에서도, 고역의 채찍밑에서도 애타게 기다리고기다리던 태양을 우러러 달려나왔다.

수백수천의 홰불이 불꽃을 날리고 환희와 감격이 바다처럼 설레는데 불빛 휘황한 이 거리 한복판에 높이 서신 전설적영웅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혁명 만세!》

온 겨레의 마음이 이곳에 달려와 목이 터지도록 웨치는 그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하시며 군모를 한손에 벗어쥐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들앞에서 열화와 같은 연설을 하시였다.

《거세차게 타번지는 저 불길은 놈들의 최후를 보여주고있습니다. 저 불길은 우리 민족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며 날강도 일제놈들과 싸우면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고있습니다. 저 불길은 학대와 주림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 민족의 가슴속에 희망의 서광으로 빛날것이며 투쟁의 불씨로 되여 온 삼천리강토에 퍼지게 될것입니다.》

억눌렸던 우리 인민에게 삶을 주시고 빛과 희망을 안겨주시며 민족의 존엄과 투지를 온 세상에 떨친 위대한 주체의 선언이여!

이 나라 수천년 력사에 처음으로 맞이한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러 만세높이 부른 영광의 그날부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혁명의 진두에 서계시고 우리 군대가 있는한 일제는 멸망하고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굳은 신념을 더욱 가슴깊이 새기였으니

일제식민지통치를 밑뿌리채 뒤흔든 보천보의 총소리와 홰불을 따라 온 나라 방방곡곡의 도시와 마을, 공장과 광산에서 천대받던 로동자, 농민 각계각층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반일민족해방투쟁에 노도와 같이 일떠섰다.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이 나라에 광복의 서광을 비쳐주고 혁명하는 인민들에게 승리의 길을 밝혀준 혁명의 봉화대 보천보여!

세월은 흘러 몇십년, 해방연 독립연에 다시 만나자던 그날의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잃었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사회주의락원을 펼쳐주시며 현지지도의 먼길을 걸어오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여!

마치 고향을 떠났다가 오래간만에 돌아온것같다고 하시며 이 고장 사람들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실 때, 아 지난날 나라 잃고 천대받던 우리에게 자유와 행복을 안겨주신것만 해도 고마운데 멀고도 험한 길을 찾아오시여 사랑의 한품에 또다시 안아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은정에 목이 메여 흐느끼던 그날의 감격을 어찌 다 말할수 있으랴.

지난날 항일유격대를 돕던 그런 혁명정신으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혁명전통교양을 대대손손 잘하라고 간곡히 가르쳐주신 위대한 수령님

어버이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해빛아래 오랜 세월빈궁과 암흑에 짓눌렸던 이땅에 혁명전통교양의 대로천박물관이 꾸려지고 인민들은 주체의 조국, 사회주의지상락원에서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있나니, 우리는 여기 영광의 땅 보천보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을 높이 모시고 삽가 비를 세워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한다.

천구백칠십칠년 륙월 사일

영원히 빛나라 곤장덕이여

(곤장덕에 세운 헌시비문)

어둡던 이 강산에 광복의 서광을 펼쳐주시려고
눈보라 만리, 총검의 숲을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자욱
여기 한줌의 흙, 한포기의 풀,
한그루의 나무에도 깃들어 그 이름 빛나는
유서깊은 력사의 땅, 곤장덕이여

잊을수 없어라 천구백삼십칠년 륙월 사일 새벽
민족의 태양 김일성장군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 강철의 대오 거느리시고
여기 곤장덕 푸른 언덕에 오르시였으니
애타게 기다리던 겨레의 마음이런가
강산은 흐느끼며 머리숙여 인사드리고
천년원시림도 감격에 설레였어라

…조국산천에 새날이 밝아옵니다!
대원들의 한가슴에 그립던 조국을 안겨주시며
장군님께서 동트는 조국산천 바라보실 때
대원들 감격에 목이 메여
조국의 흙을 움켜쥐고 그 향기에 볼을 비비며
원쑤칠 굳은 맹세 다지였어라

머나먼 행군의 피로도 잊으시고
부대의 전투준비 빈틈없이 갖추시며
정찰조원의 옷섶도 여며주신 장군님
신음하는 동포들을 항일전에로 일떠세울
혁명의 불씨—선전문의 한자한자 써나가신
뜨거운 손길이여, 높은 뜻이여

백만대군 쓸어눕히는 서리발장검이련가
멸적의 화살표 작전도우에 그으신 장군님
곤장덕 이 언덕에서
일제의 패망을 선고한 전투명령 내리셨으니
결전에로 부르신 그 명령
보천보의 해불되여 조국의 밤하늘 밝혔어라

아, 민족수난의 그날에
혁명의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이 땅우에 주체조선의 봄을 꽃피우시고
공산주의미래에 잇닿은 저 하늘 끝까지
락원의 강산을 펼쳐주셨나니

영원히 설레여라 곤장덕 푸른 숲이여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노래하며
후손만대에 길이길이 전하라.

천구백칠십칠년 륙월 사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직지도하신 조선국민회결성 60돐

1977년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시며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신 때로부터 예순돐이 되는 뜻깊은 해였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사에 불멸의 업적을 남긴 조선국민회의 결성 60돐을 성대히 맞이한 우리 인민은 일찌기 조국의 광복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우신 김형직선생님의 고결한 혁명적생애를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면서 선생님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투쟁업적을 더욱 깊이 따라배웠다.

조선국민회

조선국민회는 3.1인민봉기를 전후한 시기 국내외를 포괄한 가장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으로서 조선사람 자체의 힘으로 반제민족해방위업을 성취하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는것을 자기의 파업으로 내세운 철저한 반제혁명조직이였다.

일찌기 일제를 때려부시고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하여서는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한 혁명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탁월한 사상을 무르익혀오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조직을 뭇기 위한 준비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였다.

평양숭실학교를 중퇴하신후 직업적혁명가로 나서시여 반일력량을 키우시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시던 선생님께서는 1916년 봄, 강동군 봉화리로 자리를 옮기시고 조직을 뭇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밀고나가시였다.

1916년 가을,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강동군 도덕리와 황해도 은률지방에 나가시였다.

은률에 가신 선생님께서는 그곳 동지들에게 군중교양과 동지규합에서 이룩한 성과에 토대하여 이제는 혁명조직을 내오고 거기에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울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또한 평양숭실학교와 평양숭의녀학교에도 자주 나가시여 청년학생들에게 혁명조직결성의 절박성을 일깨워주시면서 그들을 꾸준히 교양하시였다. 그리하여 이 학교들안에 핵심력량이 튼튼히 준비되여갔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의 여러 지역에도 나가시여 그곳 동지들의 사업을 지도하시였고 서울, 부산, 려수 등 남부지방에서 활동하는 동지들도 부르시여 조직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과업들을 주시였다.

그리고 멀리 간도일대의 동지들에게는 편지를 보내시여 임무를 주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특히 새로 내올 조직의 목적과 조직형태, 지도체계와 당면과업을 작성하시는데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헤쳐나가시는 김형직선생님의 지칠줄모르는 정력과 불면불휴의 투쟁으로 지하혁명조직을 뭇기 위한 준비가 빈틈없이 갖추어져갔다.

그리하여 1917년 2월, 평양에서는 선생님의 지도밑에 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는 반일운동자들의 예비회의가 열렸으며 한달후인 1917년 3월 23일에는 또다시 평양에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는 력사적인 회의가 소집되였다.

국내외의 여러곳에서 온 혁명동지들이 참가한 가운데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연설에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력사적교훈을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민족해방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혁명조직을 내올데 대한 방침을 다시금 밝히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조직결성의 필요성과 조직의 성격을 밝히시고 투쟁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국민회의 목적은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우는데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또한 국민회의 투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범한 군중을 묶어세워 반일민족해방투쟁에 한결같이 조직동원하며 조선국민회 조직을 튼튼히 꾸리는것을 투쟁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의 힘을 굳게 믿고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일제를 몰아내며 문명한 자주독립국가를 세울데 대한 이 투쟁 목적과 과업은 조선민족해방운동을 자주적으로 발전시키고 승리에로 이끌 위대한 투쟁강령이였다.

선생님께서는 또한 국민회조직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반일애국단체들과의 련계를 강화하며 조직성원들을 평안남북도, 황해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등 국내 여러지방에 파견할데 대한 문제, 이 지역들에 구역장을 두고 매년 숭실학교 개학일을 계기로 국민회원들의 회합을 정기적으로 가질데 대한 문제, 국외에는 련락원과 통신원을 두고 사업할데 대한 문제, 회원들이 광범한 군중속에 들어가 그들을 자주독립의 사상으로 교양하며 국민회조직에 굳게 결속시킬데 대한 문제 등 투쟁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조선국민회의 활동규범을 밝히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조선국민회회원으로는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목숨걸고 싸울것을 맹세한 사람들만을 엄밀히 선발하여 받아들이며 동지호상간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회원들의 사상적동요와 조직으로부터의 리탈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특히 일제의 폭압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지호상간에 암호를 사용하며 비밀을 엄격히 지킬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국민회는 《실업, 농업, 상업》으로, 동지들의 사상동태는 《한난계》로, 회원들의 회합은 《연회》로, 회원들의 이름도 암호로 쓰되 가령 강덕문이라는 이름이라면 《강동서덕대소문》이라고 쓰도록 엄격한 규률을 세우시였다.

력사적인 평양회의는 선생님께서 오래동안 심혈을 기울여 구상하여오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중추적조직인 조선국민회결성을 선포하고 성과적으로 끝났다.

조선국민회는 그 이전시기의 반일단체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결성된 가장 혁명적인 조직이였다.

조선국민회가 결성됨으로써 당시 질식상태에 처해있던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은 비로소 자기가 나아갈 길을 찾게 되였다. 또한 반일혁명력량의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새로운 국면이 열리게 되였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은 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새로운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곧 조직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정력적인 투쟁을 벌리시였다.

1917년 여름, 선생님께서는 황해도 은률에 가시여 은률지방에 조선국민회 하부조직을 내오는 사업을 직접 지도하시였다.

조선국민회 하부조직은 은률뿐아니라 평양을 비롯한 평안남북도, 황해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경기도 등 전국도처에 무어졌갔다.

이에 따라 선생님께서는 지방조직들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고 매 구역에 구역장을 두며 국외의 안동에는 련락원을 파견하고 베이징과 상해에는 통신원을 두는 정연한 조직지도체계를 세우시였다.

선생님께서는 국민회조직을 튼튼히 꾸리시는 동시에 회간부와 군사일군들의 양성, 자금조달과 무기구입을 비롯한 수많은 방대하고 어려운 일들을 몸소 조직지도하시였다.

이와 함께 합법적인 대중단체인 학교계와 비석계, 향토계 등을 무으시고 여기에 각계각층 군중을 망라시켜 조선국민회주위에 묶어세움으로써 반일투쟁의 군중적지반도 튼튼히 마련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의 탁월한 지도와 정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조선국민회는 창건된지 불과 반년남짓한 사이에 자기 조직을 국내각지는 물론 멀리 중국의 장백, 무송, 림강, 삼원포, 안동 등 국외까지 확대하여 국내외의 광범한 애국적인민들을 망라한 대규모의 반일지하혁명조직으로 강화되였다.

조선국민회 조직들은 가는곳마다에서 합법적활동과 비합법적활동, 정치활동과 군사활동을 능숙히 결합하면서 눈부신 투쟁을 벌려 광범한 인민대중을 반일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켰다.

조선국민회의 맹렬한 활동앞에 심대한 타격을 받은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얼마나 당황망조하였는가 하는것은 당시 평안남도 경무부장이란놈이 자기상전에게 보고한 다음의 자료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회를 조직한후 동년 (주—1917년) 6월중에… 김형직, 로○○등은 각각 자기의 손가락을 베여서로 〈조선독립〉이라는 혈서를 쓰고 또 회원중에는 〈결사〉라는 혈서를 쓴자도 있었다. 이와 같이 하여 단결을 더욱 공고히 하며 장래활동을 맹약하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

그리하여 의지가 강한 청년들을 골라서 회조직에 가맹시키며 또한…종래에 배일(일제를 반대한다는뜻)조선인들이 발행하여온 국민보를 회원들에게 배포하려 하였으며 로○○는 동년 7월에 간도에 있는 동지들과의 련락통신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간도 삼원포로 건너갔고 …김○○, 조○○는 양○○에게 1만원을 출자하게 하여 그 일부로써 권총을 구입하려고하였다.》

조선국민회가 10년동안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과 투쟁경험은 오늘도 민족적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을 끝없이 고무하고있다.

조선국민회결성 60돐을 성대히 기념

〔중앙보고회〕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직지도하신 조선국민회결성60돐기념 중앙보고회가 1977년 3월 22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독점적식민지였던 조선은 세계에서 류례가 드문 야만적학정과 략탈로 말미암아 극도의 정치적무권리와 경제적파산과 문화적암흑상태에 처하여있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1권, 52페지)

조선국민회가 결성되던 1910년대 후반기는 조선을 강점한 일제침략자들의 횡포한 무단통치가 절정에 이르고 우리 인민이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던 민족수난의 시기였다.

이 엄혹한 시기에 우리 인민은 결연히 일어나 의병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반일투쟁을 힘차게 벌렸으나 옳은 투쟁강령이 없었고 조직화되지 못하였으며 특히는 사대주의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쓰라린 실패를 면할수 없었다.

조성된 정세와 반일민족해방운동의 교훈은 인민대중에게 옳은 투쟁방향과 방도를 밝혀주며 분산적으로 진행되는 반일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힘있고 참신하게 자주적으로 발전시켜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였다.

시대의 이 절박한 요구와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지도하시게 됨으로써 비로소 해결될수 있었다.

보고자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적극 벌려오신데 기초하여 마침내 조선국민회를 결성하시고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민족자체의 힘에 의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새로운 발전의 길로 이끄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보고자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지도하시면서 새로운 시대적요구에 따라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을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 방향을 전환하는 투쟁의 선두에서 싸우신데 대하여 말하고 조선국민회가 쌓아올린 혁명업적과 투쟁경험들은 오늘도 민족적해방과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을 끝없이 고무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푸른 소나무의 억센 기상을 안으시고 력사의 새

벽길을 개척하신 김형직선생님께서 그처럼 바라시던 높으신 뜻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을 승리적으로 조직령도하심으로써 빛나게 실현되였다.

보고자는 끝으로 조선국민회의 숭고한 리념이 빛나는 현실로 된 공화국북반부와는 반대로 남반부는 외래제국주의의 식민지적예속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민족의 분렬을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최대의 민족적의무이며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말하였다.

1월에 평양에서 열린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에 따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나가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으로서 4개 항목의 구국방안을 제기하였다.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이 이 구국방안을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을 실질적으로 담보하여주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애국적인 발기로 열렬히 지지하면서 미군의 남조선강점과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소동을 준렬히 단죄규탄하고있다.

미국은 우리 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한결같은 의사대로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그만두고 박정희괴뢰도당을 분렬과 대결, 전쟁에로 부추기는 분별없는 행위를 더는 하지 말아야 하며 핵무기를 포함한 저들의 모든 살인무기들과 군대를 남조선에서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

일본반동들은 미군철거를 반대하고 남조선당국자들을 부추기면서 우리 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적대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그만두어야 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반공》소동과 파쑈적탄압을 중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보장하여야 하며 남조선인민들의 의사대로 《정권》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채로운 기념행사들〕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창건하신 력사의 땅 평양과 봉화리에서는 조선국민회결성 60돐을 뜻깊게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있었다.

3월 23일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근로자들은 유서깊은 봉화혁명사적지를 찾아 김형직선생님의 동상에 화환과 꽃묶음을 드리였다.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노래가 주악되는 가운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 정무원 부들과 중앙기관, 근로단체, 교육, 문화, 예술, 출판보도 부문 기관들, 인민군 구분대들, 평양시와 평안남도안의 당, 정권기관, 경제기관들의 이름으로 된 화환들이 드려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65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조국에 온 총련금강산가극단 성원들이 또한 총련중앙상임위원회의 이름으로 된 화환을 선생님의 동상에 드리였다.

3월 21일에는 조선국민회결성 60돐 기념과학토론회가 평양에서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에 의한 조선국민회결성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발전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 《조선국민회결성과 활동은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에 관한 사상의 빛나는 구현》등 여러 제목의 토론이 있었다.

조선국민회결성 예순돐을 맞이하는 이해에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무으신 불멸의 혁명사적이 깃들어있는 유서깊은 땅—평양의 옛 학당골언덕우에는 조선국민회창건사적비가 새로 높이 솟았다.

8월 25일 조선국민회창건 사적비제막식이 현지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제막사가 있었다.

제막사는 혁명의 수도 평양이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사적이 깃들어있는 혁명의 성지라는데 대하여 긍지높이 지적하였다.

제막사는 또한 평양시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절절한 념원을 담아 장중히 일떠세운 조선국민회창건사적비는 선생님의 영광찬란한 혁명사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불멸의 기념비로, 우리 인민들에게 승리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그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하는 기치로 룡성발전하는 조국과 더불어 높이 솟아있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국민회창건 60돐을 재일동포들도 뜻깊게 기념하였다.

3월 23일 재일본조선중앙회관에서는 총련간부강연회가 진행되였다.

강연회에서는 《조선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근대혁명력사에 쌓으신 불멸의 고귀한 업적》이라는 제목으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이 기념강연을 하였다.

조선국민회가 이룩한 불멸의 업적과 투쟁경험에서 세계혁명적인민들도 끝없는 고무를 받고있다.

3월 26일 수단의 《김일성주의연구소조》는 조선국민회결성 60돐에 즈음하여 토론회를 가지였다.

토론자들은 김형직선생님의 혁명투쟁에 대하여 언급하고 선생님의 고귀한 투쟁업적과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탁월한 지도사상은 영원히 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수리아신문 《알 싸카파들 우쑤부아이에》는 《조선국민회는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위대한 해불》이라는 제목으로 기념론설을 실었다.

길이 빛나라 조선국민회

(조선국민회창건사적비)

대동강 맑은 물은 만경대로 굽이치며
흘러간 조선의 력사 더듬어보는가
이 땅에 민족자주의 려명 그 언제 밝았으며
력사의 새벽길 어디서 시작되였더냐
금수강산 내나라 일제에게 짓밟히여
하늘도 땅도 어둡던 그때
얼마나 이 나라 인민들 가슴을 치며
피타는 목소리로 조선을 불러왔던가

기울어진 조선을 한몸에 안으시고
광복의 서광 불러오시려
천구백십칠년 삼월 이십삼일, 여기 평양 력사의 땅에서
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 조선국민회 세우시였어라
《조선국민회의 목적은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우는데 있습니다.》

아, 선생님께서 밝히신 광복의 높으신 뜻
삼천리금수강산에 비껴갔어라
반일의 기치아래 총검의 숲을 헤치고
국민회 뿌리깊이 퍼져내리여
저 멀리 이역땅 해외에서도
선생님 뜻으로 높뛴 조선의 숨결이여!

아, 이 땅에 력사의 새날을 안아오시려
애국의 큰 뜻을 키워주시던 교단에서도
몸소 찾으신 깊은 두메 그 어느 마을에서도
모진 고초를 이겨가시던 옥중에서도
열혈청년들과 학생들, 로동자와 농민들의 가슴속에
혁명의 불씨를 심어주시며 투쟁의 대오 넓혀가시였으니
선생님께서 걸으신 길 몇천몇만리더냐

성스러운 그 자욱을 따라 애국의 피는 뜨겁게 끓어
지하조직 별처럼 솟아나고
민족재생의 종소리는 삼천리를 깨웠으니
온 강산이 선생님 우러러 설레였어라
무장한 원쑤는 무장으로 족치자
선생님께서 밝히신 혁명의 진리로
총을 들고 반일성전에 일떠난 무장부대들
일제와 계급의 원쑤 때려눕히여
민족주의운동에서 공산주의운동에로
혁명의 붉은 노을 피여났어라

모진 바람 눈서리에 파묻혀서도
청청한 소나무 양춘을 맞이하듯
지원의 뜻이 어린 력사의 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광복의 새봄으로 꽃피우셨으니
아, 만경대가 있어 백두산이 빛나고
혁명의 성산 백두산이 높이 솟아
주체의 조국, 조선의 미래는 찬란하여라

어둡던 강산에 빛을 주시여
그날의 새벽길우에 오늘의 락원을 보게 하신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업적
조국청사에 영생불멸하리라

천구백칠십칠년 삼월 이십삼일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직지도하신 주요회의

평양회의

평양회의는 1917년 2월과 3월 23일 평양에서 각각 진행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1917년 2월 반일운동자들의 예비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예비회의에는 각 지방에서 다년간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활동하던 동지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회의에서 조직을 결성하기 위하여 벌려오신 준비사업정형을 총화하시고 조성된 정세에 따라 반일혁명조직을 시급히 무을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회의에서는 선생님께서 몸소 작성하신 조직의 투쟁목적과 조직형태, 활동규범초안을 찬동하고 조직명칭을 《조선국민회》로 하며 3월에 평양에서 조직을 내오기 위한 회의를 가질것을 결정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1917년 3월 23일 평양 학당골에서 조선국민회를 결성하는 력사적인 회의를 소집하시였다.

회의에는 국내외의 여러곳에서 온 혁명동지들이 참가하였다.

선생님께서는 회의에서 조선국민회의 결성을 선포하시고 조선국민회의 투쟁 목적과 과업, 활동규범 등을 명확히 밝히시였다.

청수동회의

청수동회의는 1918년 11월 평안북도 의주군 광평면 청수동(지금의 평안북도 삭주군 청수로동자구)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평안북도의 조선국민회 조직대표들과 각 지역 련락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먼저 평안북도안의 조직대표들로부터 자기 조직의 형편을 통보하는 보고가 있은 다음 앞으로의 활동방침을 토의하였다.

선생님께서는 회의에서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횡포무도한 폭압만행을 폭로규탄하시고 일제와 조선인민간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을 상세히 분석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특히 로씨야의 사회주의10월혁명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 조선국민회의 투쟁방침을 밝히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로씨야의 경험은 무산민중이 단합하여 싸워야만 헐벗고 굶주리는 무산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 사회를 세울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우리도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광범한 무산민중을 선진사상으로 깨우쳐 그들을 투쟁에로 이끌어나가야 합니다.

그러자면 일제의 탄압으로 파괴된 조선국민회를 시급히 복구하여 광범한 무산민중을 조직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일제의 폭압만행이 절정에 이른 당시의 사회적환경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구체적실태에 대한 과학적통찰에 기초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였다.

선생님께서 밝히신 새로운 투쟁방침에 의하여 인민대중은 명확한 투쟁 방향과 방도를 찾게 되였으며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질수 있게 되였다.

회의후 선생님께서는 동지들을 국내외의 여러곳에 보내시고 자신께서도 압록강연안의 여러 지역에 나가시여 청수동회의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정력적인 투쟁을 벌리시였다.

관전회의

관전회의는 1919년 8월 관전현 홍통구에서 3일동안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조선국민회 각 구역장들과 련락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청수동회의후 조선국민회의 활동정형이 분석총화되고 3.1인민봉기후 변천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투쟁대책이 토의되였다.

선생님께서는 회의에서 변천하는 국제국내정세를 정확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투쟁방침을 명철하게 밝혀주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시였다.

《우리는 조국광복을 위한 우리 민족의 일치한 념원에 순응하여 시대의 변천에 보조를 맞추어 민족자력으로 일본제국주의를 타승하고 무산민중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총매진하여야 합니다.

그러자면 광범한 민중속에 선진사상을 널리 보급하여 그들을 각성시켜야 하며 무산대중을 조국광복의 성전에 힘있게 일떠세워야 합니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밝히신 우리 민족자체의 힘으로 일제를 타승하고 무산민중의 새 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이 전략적방침은 우리 나라 혁명이 처한 주객관적형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민족해방혁명의 뚜렷한 목적과 확고한 전망을 밝혀준 투쟁의 기치였다.

선생님께서는 또한 3.1인민봉기의 교훈을 분석하시면서 민족해방운동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을 천명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민족자결》이라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약소국가들을 분할통치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기도를 발가놓고 세계에는 조선에 독립을 가져다줄 그 어떤 나라도 없으며 오직 우리 민족자력으로 조선독립을 성취해야 함을 다시한번 깨닫고 자국민중의 힘을 굳게 믿고 투쟁하여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의 말씀은 혁명투쟁은 오직 민족의 주체적력량에 철저히 의거할 때에만 결정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는 위대한 자주정신을 반영한것이였다.

선생님께서는 3.1인민봉기의 실패의 원인이 강대한 무력을 가진 적들의 탄압에 맨주먹으로 대항한데 있다고 하시면서 무장한 원쑤는 오직 무장으로 때려눕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무기를 가진 원쑤는 오직 무기를 가지고 때려눕혀야 합니다.

조선독립달성의 총요원은 무기를 잡고 민족자력으로 일제와 싸워나가는것입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이처럼 세계혁명발전의 추세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전망을 과학적으로 내다보시고 우리 나라에서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에 명확한 투쟁방향을 제시하시였다.

선생님께서 내놓으신 관전회의방침은 외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조국광복을 이룩할데 대한 자주정신의 빛나는 구현이였으며 청원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혁명적인 무장투쟁의 방법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 무산민중의 새 사회를 건설할데 대한 혁명사상의 반영이였다.

실로 관전회의는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

지였다.

포평회의

포평회의는 1923년 가을, 포평에서 열렸다.

회의에는 압록강연안일대의 조선국민회 조직책임자들과 여러곳에 파견될 련락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민족개량주의자들과의 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회의에서 손수 작성하신 개량주의와의 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요령을 제시하시였다.

요령에서는 3.1인민봉기후 일제가 실시하는 《문화통치》의 반동성과 교활성을 폭로하면서 민족개량주의의 매국배족적본질을 날카롭게 발가놓았다.

요령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모든 조직들에서는 각성을 고도로 높여 그 어떤 민족개량주의자들의 감언리설에도 속지 말고 우리의 방략을 철저히 고수하여야 한다.

동시에 본회의 중대결의들을 존중하고 그 개개의 항목실천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

회의참가자들은 요령에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명하였다.

회의에서는 민족개량주의자들과의 투쟁을 벌리기 위한 구체적방도들을 토의하고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을 끝까지 관철할 결의들을 다졌다.

무송회의

무송회의는 1925년 8월, 무송현 말리허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의 성과적인 보장과 대표들의 안전을 위하여 처음 3일동안은 말리허, 다음 4일동안은 양지촌, 또 다음 3일동안은 선생님의 댁에서 하였다.

회의에는 독립운동지도자들과 국내에서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사업하던 동지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독립운동대렬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 토론한 많은 대표들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독립운동대렬을 통합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회의에서 광범한 반일력량을 결속할데 대한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연설에서 일제침략자들이 앙양되는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막아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사실을 날카롭게 분석하시고 광범한 반일력량을 결속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총화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일제의 악랄한 탄압책동에 대처하여 시급히 반일독립운동대렬을 하나로 굳게 결속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독립운동대렬의 분렬을 방지하고 간악한 원쑤 일제와 싸워이길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모든 반일독립운동단체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민족단체련합촉진회를 내올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또한 정치투쟁과 무장투쟁의 호상관계와 독립운동대렬의 실태를 분석하시면서 전민족이 반일의 기치아래 굳게 통일되여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선생님의 연설은 회의참가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무송회의는 독립운동자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성과적으로 자기 사업을 끝마쳤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창립을 선포하신 민족단체련합촉진회는 만주광야에서 삼삼오오 분산되여 활동하던 독립운동단체들을 하나로 묶어세운 련합체로서 반일민족해방운동발전에서 커다란 사변으로 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으신 혁명적인 시와 노래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일찌기 일제의 무단통치의 학정밑에서 온 조선이 몸부림치던 암담한 시기에 《지원》의 혁명사상을 창시하시고 조국의 광복과 무산민중의 새 사회를 위한 불요불굴의 혁명투쟁을 벌리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혁명활동의 전기간 문학예술이 혁명투쟁에서 노는 커다란 역할을 깊이 헤아리시고 교육활동과 함께 문학예술창조활동을 정력적으로 벌리시여 수많은 혁명적인 시와 노래들을 지으시였다.

선생님께서는 몸소 지으신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시가들을 널리 보급하시여 광범한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을 열렬한 반일애국사상으로, 백절불굴의 투쟁정신과 조국광복에 대한 필승의 신념으로 교양하시였으며 그들에게 일제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을 북돋아주시고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으신 혁명적인 시가작품들에는 선생님께서 높이 추켜드신 《지원》의 혁명사상이 일관하게 흐르고있다.

민족자주정신과 민족자력에 기초하고있는 《지원》의 혁명사상은 선생님께서 지으신 시가작품들의 사상적기초로, 시가의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기백과 감정정서를 보장하는 근본담보로 되고있다.

김형직선생님의 혁명문학은 《지원》의 사상을 본바탕으로 하고 선생님의 열렬한 애국심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 견결한 원칙성과 혁명적락관주의를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그리고 평이하고 소박한 민족적형식을 훌륭히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참

다운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으로 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과 청소년학생들은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으신 혁명의 노래, 투쟁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선생님의 숭고한 혁명정신을 따라배우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위업의 한길로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다.

전진가

《전진가》는 김형직선생님께서 강동군 봉화리에서 혁명활동을 하실 때 지으신 노래이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1916년 봄 황해도 은률 광선학교에서 교원들과 학생들, 반일군중이 많이 참가한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민중은 단결하여 왜적을 몰리치자》라는 제목의 시국연설을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떨쳐나선 민중의 단결된 힘보다 더 큰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조선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싸운다면 능히 일제 침략자들을 몰아내고 나라의 독립을 달성할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나아갈 길은 굳게 단결하여 왜놈들과 싸우는 이 한길뿐이라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진가》에는 김형직선생님께서 늘 강조하고계시는 《합심단결은 조선독립달성의 강력한 무기》라는 단결의 사상, 단결된 힘으로 일제와 맞서 싸우며 온갖 시련과 난관도 뚫고나갈데 대한 전진과 투쟁의 사상이 힘있게 노래되고있다.

태평양과 대서양의 무한한 물은
산곡간의 적은 물이 회합함이요
우리들의 적은 지식 발달하기는
천신만고 지난후에 능히 하리라
(후렴)
청년들이 가는 앞길 태산과 같이 험하다
고생함을 락심말고 나아갈 때에
청년들아 용감력을 더욱 분발해
용진용진 나아가세 문명부강게

오고가는 바람형세 맹렬한것은
무형무색 공기들의 회합함이요
우리들의 적은 사업 성취하기를
뇌심초사 힘써 함이 이것 아닌가
(후렴)

가요에서는 무한한 힘을 가진 대서양과 태평양도 산골의 작은 시내가 모여 이루어졌다는 자연현상에 비유하여 모든 반일애국력량을 총동원하여 반일의 기치밑에 굳게 묶어세울 때 거대한 혁명력량을 이루어 일제를 때려눕힐수 있다는것을 보여주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한 투쟁은 결코 순탄하지 않으며 그길에서는 일제의 모진 탄압과 박해, 추위와 굶주림을 용감하게 박차고나가야 한다는것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후렴에서는 가요의 기본사상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서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청년들이 노는 거대한 역할에 기초하여 청년들이 용감하게 떨쳐일어나 투쟁의 앞장에 서서 싸워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하고있다.

김형직선생님의 불타는 애국정신과 조국광복의 굳은 신념은 청년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조력에 대한 굳은 확신과 결부되여 더욱 힘있게 노래되고있다.

가요의 구절구절마다에는 어떠한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빼앗긴 조국을 찾기 위하여서는 용감하게 떨쳐일어나 그것을 뚫고 나아가자는 김형직선생님의 백절불굴의 투지와 열렬한 애국의 호소가 끓어넘치고있다.

또한 나라의 독립과 문명부강을 위하여 굴할줄 모르는 투쟁력과 용감력을 떨치며 용진용진 나아가는 용기백배한 조선청년들의 슬기로운 기상과 전진과 투쟁의 기백이 차넘치고있다.

참으로 《전진가》는 전진과 투쟁의 노래, 단결의 노래로 우리 인민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정신가

《정신가》는 일제의 조선강점으로 인한 1910년대 우리 인민의 민족적의분과 고조된 반일투쟁감정이 전형적으로 담겨진 노래이다.

슬프도다 조선민족아
4천여년 력사국으로
자자손손 복락하더니
오늘 이 지경 웬 말인가
(후렴)
억사철사로 결박한 나를
동무들의 손으로 끊어버리고
독립만세 우뢰소리에
동해가 끓고 산이 동하리

남산초목도 눈이 있으면
우리와 같이 슬퍼하겠고
동해의 어별도 맘이 있으면
우리와 같이 슬퍼하리라
(후렴)

가요에는 일제에 의하여 짓밟힌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두고 통분한 감정을 누를길 없어하시는 선생님의 불타는 애국정신이 높뛰고있다.

조국의 운명과 유구한 문화력사전통에 대한 깊은 심려를 안으시고 크나큰 책임감을 통절히 느끼시는 김형직선생님의 숭고한 애국감정은 1절에서 민족적비분의 비통한 감정으로 폭발되면서 2절에서는 자연에 의탁하여 더욱더 절절히 울리고있다.

남산의 풀과 나무, 동해의 고기와 자라에까지 사무쳐있는 원쑤 일제에 대한 피맺힌 원한은 후렴에 와서 끓어넘치는 투쟁의 격정으로 고조되면서 《역사철사로 결박한 나》—일제의 쇠사슬에 묶이운 조국을 자기자신의 힘으로 해방할데 대하여 열렬히 호소하고있다.

시가는 일제에 대한 치솟는 민족적격분과 복수심을 불러일으켜 사람들로 하여금 민족의 존엄과 독립을 위한 투쟁에 용감히 떨쳐나서게 하며 독립만세 우뢰소리에 동해가 끓고 산이 동할 승리의 그날에 대한 확신에로 힘있게 이끌어가고있다.

《정신가》는 그에 담겨진 혁명적투쟁정신과 필승의 신념, 조국광복에 대한 움직일수 없는 확신으로 하여 당시 망국의 비운을 민족적개탄이나 《우국지정》으로 노래하던 독립운동자들의 시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참다운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시가, 투쟁의 시가였다.

남산의 푸른 소나무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김형직선생님의 숭고한 혁명정신과 백절불굴의 투지, 강의한 혁명적절개와 필승의 신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선생님께서는 늘 혁명가는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적절개를 굽히지말고 한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혁명동지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자주 하시였다.

《소나무는 사시장철 푸르다. 우리는 언제어디서나 사시장철 푸른 소나무와 같이 굳세게 살아야 한다.》

1918년 가을 300여일간의 옥중생활을 마치시고 나오신 선생님께서는 얼마동안 만경대에서 가족들의 극진한 간호를 받으시며 몸을 회복하시기에 노력하시였다.

그러시던 어느날, 선생님께서는 지팽이에 의지하여 남산으로 오르시였다.

남산에는 오랜세월 모진 눈서리를 이겨내며 소나무들이 푸르싱싱 자라고있었다. 낭떠러지 바위틈에 뿌리박고 거연히 서있는 푸른 소나무, 소나무를 바라보시는 선생님의 마음은 더욱더 굳세여지시였다.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절절한 심정을 소나무에 비유하여 이 노래를 지으시였다.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괴롬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줄을
동무야 알겠느냐

나라의 독립을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리
몸이 찢겨 가루되여도
광복의 한길에서 굴함없을줄
동포야 믿어다오

이 한몸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싸워서도
금수강산 삼천리에
양춘을 찾아올제 독립만세를
조선아 불러다오

모진 눈서리에 파묻혀서도 오히려 푸르청청한 빛을 뿌리며 꿋꿋이 서서 봄을 맞이하고야마는 푸른 소나무의 억센 기상, 그것은 김형직선생님께서 지니신 강의한 혁명적절개와 조국광복에 대한 필승의 신념의 상징이였다.

시가에는 일제침략자들의 쇠사슬에 칭칭 얽매여있는 조국,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괴롬받는》 2천만 겨레들의 고통과 울분을 한가슴에 안으시고 기어이 조국광복의 양춘을 가져오고야 말 선생님의 웅대한 포부와 굳은 결심, 필승의 신념이 힘있게 노래되고있다.

또한 인간의 참된 삶의 가치는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혁명투쟁에 몸바치는데 있다는것을 강조하면서 몸이 찢겨 가루되여도 광복의 한길에서 굴함없이 싸우리라는 선생님의 불굴의 투지,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금수강산 삼천리에 새봄을 안아오시려는 혁명적랑만에 찬 비장한 결의가 반영되여있다.

《지원》의 원대한 뜻을 품고 모진 풍랑과 시련을 꿋꿋이 헤치시며 나아가시는 선생님의 열화같은 애국의 열정, 혁명적기백이 그대로 나래치는 시가는 간결하고 소박한 형식에 민족적정서로 충만되여있다.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그의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우리 인민과 세계 혁명적인민들 속에서 널리 불리워지고 있으며 그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짓밟힌 동포야 일어나거라

이 시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청수동회의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벌려나가실 때 지으신것이다.

선생님께서는 어느날 밤, 평안북도 벽동군 동주리에서 독립운동자들과의 모임을 마치신후 완월루에 오르시였다.

그 옛날 나라의 변강방위임무를 수행하던 장수들이 달구경을 즐기였다는 완월루, 그날밤도 달이 밝았다.

동주리의 마을변두리로는 압록강이 달빛에 반사되여 고요히 흘렀다.

강옆으로는 계곡을 따라 뻗어간 길이 허리띠처럼 가늘게 굽어보이는데 남문 맞은편의 아홉개봉우리들은 마치 동주리를 지켜선 장수처럼 숭엄한 자태를 드러내놓았다.

아름다운 조국강산을 바라보시며 원쑤의 발굽밑

에 짓밟히는 이 나라의 앞날을 생각하시는 선생님의 가슴속에는 일제에 대한 불타는 증오와 조국애의 뜨거운 피가 끓어오르는것이였다.

달밝은 완월루에 높이 올라서
동주성 바라보니 감개 깊어라
북변강 배사공의 구슬픈 저 노래
구봉산기슭에 메아리치네

네 모습 예로부터 아름다와서
길손의 시흥을 불러줬건만
왜놈의 학정아래 눈물지으니
달빛도 산천도 빛을 잃었네

굶주리는 민중아 슬퍼말아라
짓밟힌 동포야 일어나거라
판가리싸움에 이몸 바치니
사나이 총검이 분노에 운다

무도한 왜적들을 쳐물리치고
동주성 완월루에 다시 올라서
목청껏 독립만세 높이 부르자
무산민중 새 사회 세워나가자

시에는 우리 인민의 슬기로운 력사와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에 대한 선생님의 열렬하고 뜨거운 사랑, 그토록 아름답고 귀중한 조국이 강도 일제에게 짓밟혀 달빛도 산천도 빛을 잃고 몸부림치는 비참한 현실을 통감하시는 선생님의 비장한 마음이 절절히 울리고있다.

시는 나라잃은 비분의 감정을 일제에 대한 끝없는 증오의 감정, 전투적인 투쟁의 감정으로 승화시키면서 나라잃은 슬픔을 한탄만하지 말고 용감하게 떨쳐일어나 싸울것을 열렬히 호소하고있다.

특히 시에서는 원쑤와의 판가리싸움에 나서신 김형직선생님의 도도한 기상과 용맹한 투지, 무도한 왜놈들을 쳐물리치고 무산민중의 새사회를 세우고야 말 확고한 신심과 결의가 힘있게 노래되고있다.

구절구절에 혁명의 높은 뜻이 담겨져있는 이 시는 그때 함께 있던 독립운동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으며 혁명적각오를 더욱 가다듬게 하였다.

명신학교교가

《명신학교교가》는 김형직선생님의 탁월한 교육사상이 집중적으로 구현되여있는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교가의 전형이다.

1917년 봄 어느날,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학생들에게 조선력사를 가르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가 왜 일본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겼는가,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약했기때문이다.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자면 2천만 겨레가 한데 뭉쳐 일본놈들과 맞서싸워야 한다.

학생들은 장래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는 성전에서 기둥이 되여야 한다.

우리가 먹을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입을것도 제대로 입지 못하면서 배우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교가에는 학생들을 장차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열렬히 싸우는 애국자로, 무산민중의 부강한 새조선을 건설하는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시려는 김형직선생님의 원대한 뜻과 청년학생들에 대한 크나큰 기대와 믿음이 담겨져있다.

봉화산 기세있게 여기 솟았고
열파강이 흘러내려 감돌아드는
우리의 명신학교는 반석우에 터를 닦고
높이높이 솟아서 영원무궁 지나도록
길이 빛나리

국가의 큰 인물도 여기서 나며
국가의 큰 재목도 여기서 나네
봉화산과 열파강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의 명신학교를 영원무궁 지나도록
길이 보존하세

삼천리 아름다운 금수강산에
슬기롭고 용감한 우리 학도야
원대한 뜻을 품고 지식배양 분발해
동터오는 새조선을 영원무궁 지나도록
길이 받드세

비록 《ㄱ》자형으로 지은 수수하고 자그마한 집이나 반만년의 오랜 력사와 슬기를 지닌 2천만 조선민족의 참되고 억센 기상이 나래치고있는 집, 조선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역군들이 준비되고있는 이 명신학교의 굳세고 장한 모습을 교가는 봉화산과 열파강의 억센 기상과 결부시켜 높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노래하고있다.

교가에는 나라를 독립시키고 부강하게 만들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육을 부흥시켜 혁명적인 인재들을 많이 길러내야 한다는 선생님의 교육사상이 시적으로 강조되고있으며 청년학생들이 원대한 뜻을 품고 열렬한 애국사상을 소유하며 지식배양과 체력단련에 분발함으로써 동터오는 새조선을 영원토록 길이 받들어나갈것을 뜨겁게 호소하고있다.

혁명의 요람지 봉화산에 터를 닦고 동터오는 새조선의 앞날을 향하여 억세게 자라나고있는 학생들의 원대한 포부와 자랑찬 기상을 담아 교가는 씩씩하고 힘찬 선률, 생기발랄하고 약동하는 기백으로 충만되여있다.

나라의 독립을 이룩할 용맹과 슬기를 키우며 명신학교 학생들이 부르던 이 교가를 오늘은 우리 청소년학생들이 높이 부르며 혁명의 후비대로 씩씩하게 자라나고있다.

자장가

《자장가》는 김형직선생님께서 어리신 원수님을 나라와 인민에게 충성다하는 열렬한 애국자로 키우시기 위하여 자신의 희망과 기대를 담아 손수 지으신 노래이다.

조선의 아가야
우리 아가야
무럭무럭 자라서
얼른잠간 소학교
가정에는 효자동
이웃에는 화목동
나라에는 영웅동
우리 나라 영웅동

한없이 자애롭고 따뜻한 부모님의 사랑을 담아 고요하고 부드러운 음조로 노래되고있는 《자장가》에는 어리신 원수님께서 어서 자라 조국광복의 위업을 성취하는 영웅이 되기를 바라시는 김형직선생님의 크나큰 기대와 념원이 담겨져있다.

혁명사업의 그 바쁘신 나날속에서도 언제나 자제분들에 대한 교양과 학습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던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자장가》를 지으시여 어리신 원수님의 가슴속에 애국의 뜨거운 불씨를 심어주시였으며 원수님을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의 전통을 이어나갈 믿음직한 계승자로, 망국의 비운에 처한 조국을 광복하고 우리 인민의 무궁한 번영을 가져올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위대한 태양으로 키우시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자장가》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키우신 김형직선생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무으시고 령도하신 조선인민혁명군창건 45돐기념 중앙보고대회

조선인민혁명군창건 45돐을 기념하여 1977년 4월 24일 인민문화궁전에서는 중앙보고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 항일혁명투사들,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과학, 교육, 문화, 보건, 예술, 출판보도 부문 일군들, 조선인민군 및 인민경비대 군인들과 시안의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다섯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조국에 온 재일조선인축하단, 총련금강산가극단, 60만재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조국을 방문하고있는 재일조선인축구선수단, 재일본조선무역상사일군대표단 성원들이 또한 대회에 초대되였다.

모임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인민대중은 오직 자체의 힘에 의해서만 착취와 예속에서 해방될수 있으며 무장투쟁만이 식민지민족을 해방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혁명의 진리를 처음으로 밝히시고 무장투쟁로선과 상비적인 혁명무력을 건설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적극적인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여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해방을 반드시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달성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 건설에 대하여》, 1권, 4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무력창건의 군사정치적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신데 기초하시여 1932년 4월 25일 영광스러운 항일무장대오인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조국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첫 주체적인 혁명적무장력이였다.

로동자, 농민의 우수한 아들딸로 조직된 조선인민혁명군은 인민들과 혈연적련계를 맺고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싸우는 인민의 군대였으며 인민대중을 교양하며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하는 선전자, 조직자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은 또한 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적혁명군대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이 창건됨으로써 제국주의침략세력을 반대하고 민족적자주권을 옹호하는 자기의 진정한 혁명무력을 가지려던 우리 인민의 오랜 숙망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또한 이때로부터 우리의 참다운 혁명무력의 영광스러운 력사가 시작되였다.

참으로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은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상비적무력에 의거하여 벌려나가는 투쟁의 새시기를 알리는 력사적선언이였으며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조선인민의 엄숙한 선전포고로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시여 항일무장투쟁의 매 발전단계마다 옳은 투쟁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시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을 불패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전반적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마침내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조선인민혁명군을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의 직접적계승자인 조선인민군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옹호보위하며 빛나게 실현해나가기 위하여 투쟁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군대, 영광스러운 당의 군대, 참다운 혁명의 군대이다.

보고자는 조선인민군이 지난 기간 승리와 영광에 찬 전투적로정을 걸어왔으며 조국과 민족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데 대하여 말하고 우리 인민과 혁명적무장력이 오늘의 찬란한 승리를 이룩할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는 끝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을 구현하여 우리는 4개항목의 구국방안을 다시금 내놓았으나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침략과 분렬 책동으로 하여 어느 하나도 실현되지 못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미국은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박정희괴뢰도당을 부추기는 행위를 그만두고 저들의 모든 살인무기들과 침략군대를 남조선에서 당장 철수시켜야 하며 평화협정을 맺을데 대한 우리의 제의에 지체없이 응해나서야 한다.

일본반동들은 조선의 통일을 방해하는 적대행위를 더는 하지 말아야 하며 남조선에 대한 재침책동을 걷어치워야 한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전쟁도발책동과 파쑈폭압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을 보장하여야 하며 인민들의 의사대로 《정권》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조선인민혁명군 기관지 《서광》 창간 40돐기념 중앙보고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몸소 발간지도하신 조선인민혁명군 기관지 《서광》창간 40돐을 맞이하여 중앙보고회가 1977년 5월 2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보고회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였다.

혁명군대가 무기를 가져야만 적과 싸워이길수 있는것처럼 혁명조직은 출판물과 같은 그러한 예리하고도 전투적인 사상적무기를 가져야 대중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조선혁명을 주체적으로 더욱 줄기차게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방침들을 제시하시고 그 구현을 위한 사상적무기로서 《3.1월간》을 창간하신데 이어 1937년 5월 3일에는 신문 《서광》을 발간하시였다.

《서광》의 창간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고 그 구현을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출판물을 건설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출판보도사상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서광》이 창간됨으로써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혁명투쟁에서 보다 위력한 사상적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조국광복과 항일무장투쟁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속에 《서광》은 주체의 혁명적출판물로서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숭고한 력사적사명을 빛나게 수행하였다.

《서광》은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혁명로선과 방침들, 그이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유격전법들을 견결히 옹호하고 적극적으로 해설선전하는것을 첫째가는 과업으로, 제일생명으로 내세우고 조선인민혁명군 대오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과 혁명적군중들을 주체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참으로 《서광》은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철저히 옹호관철하는 집단적선전선동자, 집단적조직자로,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혁명의 위력한 무기로 되였다.

《서광》은 또한 인민들에게는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는 혁명의 기치로, 원쑤들에게는 죽음을 선고하는 준엄한 론고장으로, 무서운 사상적포화로 되였다.

그리하여 《서광》은 조선혁명과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발전력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였으며 한없이 풍부하고 고귀한 출판활동경험을 창조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속에 우리 당 출판보도물이 해방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사상적무기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온데 대하여 말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적출판물의 빛나는 전통을 계승발전시켜 주체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조직지도하신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결성 50돐기념 중앙보고대회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결성 50돐을 기념하는 중앙보고대회가 1977년 8월 26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 항일혁명투사들과 당, 정권기관, 경제기관, 근로단체, 과학,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출판보도 부문 일군들 그리고 평양시안의 근로자들과 인민군군인들이 참가하였다.

조국을 방문한 재일본조선인대표단들과 방문단성원들이 또한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결성은 로동계급의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전위조직을 내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구상의 빛나는 결실이였다.

또한 그것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이끌어올린 커다란 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혁명투쟁에 나선 첫날부터 청년문제해결에 깊은 관심을 돌려왔으며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이 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6폐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27년 8월 28일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을 골간으로 하고 여러 혁명조직들에서 투쟁을 통하여 튼튼히 준비된 성원들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결성하시였다.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비합법적혁명조직으로서 모든 반일청소년조직들과 대중단체들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를 보장하는 가장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전위조직이였다.

공청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한 주체형의 혁명조직이였다.

공청의 결성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 력사에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에 이어 일어난 위대한 사변이였다.

공청이 결성됨으로써 우리 인민과 청년들은 모든 합법적 및 비합법적 청소년조직들과 대중단체들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전위적인 조직을 가지게 되였으며 혁명대오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진군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그것은 또한 자라나는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을 조직적으로 단련하여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선 공산주의적핵심으로, 조선혁명을 떠메고나갈 골간으로 키우며 주체형의 혁명적당창건준비를 더욱 촉진시켜나갈수 있게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청을 결성하신후 조직의 확대와 대렬의 순결성을 보장하며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으며 공청을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을 가진 전투적인 혁명조직으로 꾸리기 위하여 정력적으로 지도하여오신데 대하여 말하였다.

혁명적인 전위조직인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통하여 반일대중단체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가 실현되고 공산주의운동대렬의 통일과 반일혁명력량의 단결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투쟁에서 불멸의 업적과 귀중한 경험이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당, 공청, 아동단이 굳게 단결하여 혁명을 끝까지 수행할데 대한 3대동맹의 독창적인 사상을 내놓으시고 정세의 요구에 맞게 공청을 조선반일청년동맹으로 개편하시였다.

그리하여 더욱더 광범한 청년대중이 혁명대오에 결속되였으며 투쟁의 불길속에서 수많은 청년공산주의자들이 혁명의 지휘성원으로, 당창건의 믿음직한 골간으로 자라났다.

참으로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은 타도제국주의동맹이 추켜든 혁명의 기치, 자주성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움으로써 조국광복과 민족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는데 불멸의 공헌을 하였다.

보고자는 끝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기초하여 우리의 혁명대오를 그 어떤 힘으로도 깨뜨릴수 없는 가장 공고하고 생활력있는 통일단결을 이룩한 불패의 혁명대오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도도히 전진하는 영원한 주체의 대오로 강화발전시켜오신데 대하여 말하고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와 위대한 전변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라고 강조하였다.

열렬한 공산주의자이시며 탁월한 정치활동가이신 강반석어머님 서거 마흔다섯돐 중앙추모회

일찌기 조국의 광복과 녀성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한생을 바쳐싸우신 열렬한 공산주의자이시며 탁월한 정치활동가이신 강반석어머님의 서거 마흔다섯돐을 맞이하여 1977년 7월 31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중앙추모회가 진행되였다.

추모회에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일군들, 항일혁명투사들, 인민군군인들, 평양시안의 근로자들과 녀성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제34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 성원들이 추모회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모두 일어서서 경건한 마음으로 민족수난의 시기에 풍파사나운 생활과 투쟁의 길을 굿굿이 헤치시면서 조국의 광복과 녀성들의 사회적해방을 위하여 몸바쳐싸우신 강반석어머님을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모임에서는 추모사가 있었다.

강반석어머님께서는 1892년 4월 21일 평안남도 대동군 룡산면 하리 칠골의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였다.

일찍부터 높은 반일애국정신과 고결하고 강의한 성품을 지니시였던 강반석어머님께서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과 한가정을 이루신 후 선생님의 혁명적교양밑에 불굴의 혁명정신을 키워나가시였으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였다.

강반석어머님께서는 김형직선생님과 혁명의 한길에서 생사운명을 같이 하시려는 숭고한 뜻을 지니시고 그 어떤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선생님의 혁명사업을 모든 힘을 다하여 도우신 혁명가의 안해이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로서, 민족해방운동으로부터 공산주의운동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로서 반일민족해방투쟁력사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에는 전심전력으로 선생님의 혁명사업을 받들어주신 강반석어머님의 뜨거운 지성과 헌신적투쟁이 깃들어있다.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조선의 태양을 안아키우시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받들어주신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찍부터 열렬한 애국심과 높은 혁명가적기질, 비범한 예지와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겸비하신 절세의 애국자로, 위대한 혁명가로 되신 그 빛나는 성장의 길은 강반석어머님의 숭고한 가르치심, 위대한 사랑과 잇닿아있다.

열렬한 녀성혁명투사이신 강반석어머님께서는 또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을 녀성해방운동에 빛나게 구현하시여 우리 나라 공산주의녀성운동의 시초를 열어놓으신 조선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다.

강반석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지도방조밑에 1926년 12월 26일 우리 나라에서 첫 공산주의적녀성혁명조직인 반일부녀회를 결성하시였으며 부녀회원들과 녀성들의 한결같은 의사에 따라 부녀회장으로 추대되시였다.

어머님께서는 반일부녀회를 투쟁의 무기로 하여 녀성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반일애국사상으로 교양하시여 일제를 반대하는 싸움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시였다.

강반석어머님의 혁명활동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을 구현하며 우리나라 공산주의녀성운동에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기 위한 투쟁으로 일관되였다.

강반석어머님의 혁명활동에 의하여 우리 나라 녀성해방운동은 온갖 나쁜 폐단에서 벗어나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만을 따르는 전투적이며 혁명적인 운동으로 장성발전하게 되였으며 수많은 녀성들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해방의 구성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흠모하면서 열렬한 혁명가로 자라나게 되였다.

강반석어머님께서는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불요불굴의 혁명정신, 강의한 의지와 숭고한 덕성을 지니신 녀성혁명가의 전형이시며 아름답고 인자하고 슬기로운 조선녀성의 귀감이시다.

강반석어머님께서 조국의 광복과 녀성해방을 위하여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은 우리 나라 공산주의녀성운동발전의 튼튼한 밑천으로 되고있으며 녀성문제의 종국적해결을 위한 우리 인민들과 녀성들의 투쟁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원천으로 되고있다.

어머님께서는 비록 조국의 광복을 보시지못한채 1932년 7월 31일 만 40세를 일기로 애석하게도 세상을 떠나시였으나 어머님의 고결한 혁명적생애는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온성지구에로의 진출과 력사적인 왕재산회의 44돐기념 함경북도보고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온성지구에로 진출하시고 력사적인 왕재산회의를 소집하신 44돐을 기념하여 1977년 3월 10일 왕재산혁명사적지에서 함경북도보고회가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을 급속히 강화하고 유격근거지를 공고발전시키시는 한편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켜 광범한 인민대중을 반일투쟁에 적극 조직동원할데 대한 전략적과업을 내놓으시고 1933년 3월 11일에는 몸소 그 실현을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한 부대를 친솔하시고 조국땅 온성지구에로 진출하시였으며 력사적인 왕재산회의를 소집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원쑤들의 책동이 악랄하고 정세가 아무리 어려워도 항일무장투쟁을 반드시 국내에로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합니다.》(《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단행본, 8폐지)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인 왕재산회의에서 제시하신 전략전술적방침들은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로선을 실현하기 위한 강령적지침이였으며 조국광복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 불멸의 홰불이였다고 강조하였다.

참으로 왕재산회의는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는 조선인민에게 꺼질줄 모르는 혁명의 불씨를 안겨주고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킨 력사적인 회의였다.

보고자는 왕재산회의가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획기적사변으로 된다고 지적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무산지구전투승리 38돐기념 량강도보고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조직지휘하신 력사적인 무산지구전투승리 38돐을 기념하여 1977년 5월 22일 유서깊은 혁명전적지 삼지연에서 량강도보고회가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9년 4월, 북대정자에서 조선인민혁명군간부회의를 여시고 고난의 행군에서 이룩된 빛나는 승리를 총화하시였으며 무산지구에로 진출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내놓으시였다.

북대정자회의방침에 따라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는 위대한 수령님의 친솔밑에 또다시 조국에로 진군하여 청봉과 건창, 베개봉, 갑무경비도로를 거쳐 무산지구에로 진출하였으며 1937년 5월 23일에는 유인매복전술로 적들을 대홍단벌에서 완전히 소멸하는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무산지구전투의 빛나는 승리는 일제침략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끊임없이 강화발전되는 조선인민혁명군의 위력을 다시한번 과시하였으며 전례없이 포악해진 일제의 탄압으로 일시 위축되였던 인민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킴으로써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았다.

보고자는 끝으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열렬한 교육가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몸소 세우신 명신학교창립 예순한돐 기념보고회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열렬한 교육가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몸소 세우신 명신학교창립 예순한돐을 기념하여 1977년 3월 20일, 봉화혁명사적지에서 보고회가 있었다.

모임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혁명활동의 첫시기부터 교육사업을 혁명사업의 중요한 한부분으로 여기시고 몸소 교편을 잡으시였다.

선생님께서는 투쟁무대를 봉화리로 옮기신 다음인 1916년 3월 20일 몸소 명신학교를 세우시고 가난한 근로인민의 아들딸들을 《지원》의 위대한 애국사상으로 교양하시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지원》의 애국사상이 구현된 독창적인 교육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애국주의교양을 기본으로 하는 지덕체교육을 강화하심으로써 참으로 우리 나라 교육발전력사에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교육의 새 시원을 열어놓으시였다.

보고자는 명신학교에서 벌리신 선생님의 교육활동은 교육사업은 곧 혁명사업이며 교육자는 바로 혁명가가 되여야 한다는것을 실천활동으로 보여주신 빛나는 귀감으로 된다고 말하고 김형직선생님의 불멸의 교육업적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된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만경대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의 시원이 마련되였다

(1977년에 만경대를 방문한 외국손님들의 반향)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시며 탁월한 령도와 고매한 덕성으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에 거대한 공헌을 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안고 1977년에도 세계의 수많은 벗들이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캄보쟈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이며 민주주의캄보쟈 정부 총리인 뽈 뽀트동지, 적도기네민족유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적도기네공화국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종신대통령, 가이아나협동공화국 아써 총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당과 국가 수반들이 이해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만경대를 찾았다.

또한 중국인민해방군 친선참관단, 쏘련공산당 당일군대표단, 로므니아공산당 당일군대표단을 비

롯한 세계의 수많은 나라 당 및 정부 대표단, 군사대표단, 경제문화대표단, 친선참관단, 예술단체들과 각계인사들 8,000여명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어리신 시절을 보내신 만경대고향집과 유서깊은 혁명사적들 그리고 만경대혁명사적관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면서 그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에 대하여 높이 칭송하였다.

만경대는 모든 나라 혁명가들의 앞길을 밝혀주며 그들에게 고무적힘을 주는 원천지

《우리는 만경대를 다시 방문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이곳 방문을 통하여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발원지에 대하여, 김일성원수님의 영광찬란한 투쟁에 대하여 더잘 알게 되였다.

우리는 만경대에서 받은 인상에 대하여 우리 당과 정부, 인민들과 군인들에게 꼭 전하겠다.》(캄보쟈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이며 민주주의캄보쟈정부 총리인 뽈 뽀트)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혁명의 요람 만경대를 방문하게 된것을 우리는 더없는 기쁨으로 생각한다.

만경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며 새세대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중화인민공화국 수리전력부 부부장)

《…만경대는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애국주의정신으로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서 중요한곳이다.》(로므니아군대당일군대표단 단장 게오르게 고모유)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만경대와 훌륭한 혁명전통을 가지고있는것은 조선인민의 영광이다. 뿐만아니라 그것은 모든 인민들의 영광이다.

우리가 본 이러한 소박한 가정은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과 성과의 원천이다.…

만경대는 모든 혁명가들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곳이다.》(프랑스공산당기관지 《유마니떼》대외정책국장 이브 모로 훼르난드)

《조선의 혁명력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탄생하신 여기 만경대에서부터 시작되였다.

혁명의 요람 만경대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서깊은곳이다.

우리는 오늘 만경대를 방문하고 큰 감동을 받았다.》(에꽈도르 《불룬따드》출판사 사장 움베르또 오르떠스 플로레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시여 어리신 시절을 보내신 유서깊은 만경대는 조선인민이 지난날 일본제국주의통치의 암흑속에서 시달리던 자기들을 해방하여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하여 얼마나 끝없이 존경하며 흠모하고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만경대는 또한 세계의 모든 피압박인민들에게 생동한 모범을 보여주고있다.

만경대는 모든 나라 혁명가들의 앞길을 밝혀주며 그들에게 고무적힘을 주는 원천지로 되고있다.》(기네―비싸우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 부인 루쎄뜨 까브랄)

만경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이라고 말할수 있다.

주체사상의 시원은 만경대에서 시작되였다.》(스위스자주사회주의당 총비서대리 다리오 기스레타)

《만경대는 조선의 심장이며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른곳이다.

위대한 태양은 조선뿐아니라 레바논과 전세계를 비쳐주고있다.

이 위대한 태양의 빛발은 혁명의 기치, 투쟁의 기치이다.》(레바논에 있는 《김일성동지로작번역및출판위원회》 부위원장 싸미까끼)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만경대에 뜨거운 인사와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

만경대는 슬기로운 조선민족의 마음의 고향이며 주체의 기치밑에 조선인민의 력사에 새로운 영광과 영웅주의의 페지들을 기록하려는 혁명적결의에 불타는 사람들의 뜨거운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모여드는 성스러운 땅이다.

만경대는 또한 신구제국주의의 기반밑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심장마다에서 우러나오는 조국의 자유에 대한 불타는 념원의 상징이다.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이미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평화와 국제적협조리념에 의하여 고무되는 새로운 국제관계체계의 수립이 다가옴을 예감하게 하는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에 새로운 힘을 주는 생명수가 여기 만경대로부터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로 흘러가고있다.…

만경대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의 시원이 마련되였다.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만경대는 세계에 밝은 빛을 주는 위대한곳이다.》(이딸리아국제관계연구소 총서기 장까를로 엘리아 발로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가정과 일가분들의 혁명투쟁업적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이 따라배워야 할 모범

《우리는 오늘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탄생하신 만경대를 방문하게 된것을 더없는 기쁨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이 방문을 통하여 김일성주석의 혁명투쟁력사에 대하여 그리고 그이의 혁명적가정에 대하여 더 깊이있게 알게 되였다.

김일성주석의 증조할아버님, 할아버님, 할머님, 아버님, 어머님, 삼촌 모두가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싸우신 혁명가들이시다.》(중국인민해방군 친선참관단 단장 양용)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가정의 력사는 위대한 력사, 용감한 인민의 력사이다.…

우리가 커다란 감동을 받은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가정의 모든 분들이 혁명투쟁에 나서신것이다.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것은 당연한 일이다.》(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 마라 라디츠)

《만경대방문에서 커다란 감동을 받은것은 김일성주석의 가정이야말로 혁명정신으로 무장한 혁명적가정이며 일가분들모두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수많은 난관을 무릅쓰시고 일본제국주의자들과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신것이다.》(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프랑스지지및행동위원회대표단 단원 필리프 마쉐페르)

《만경대방문을 통하여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얼마나 가난하고 소박한 가정에서 탄생하시였는가를 잘 알게 되였다.

증조할아버님때부터 대를 이어 나라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여오신 이야기들은 사람들을 매우 감동시킨다.》(탄자니아련합공화국 대통령 동생 죠세프 니에레레)

《위대한 수령님의 증조할아버님, 할아버님과 할머님, 아버님과 어머님은 나라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한생을 바쳐싸우신 위대한 분들이시다. 바로 이러한 혁명적인 환경이 김일성주석으로 하여금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으로 되시게 하였다.

나는 만경대를 세번째로 방문하는데 그때마다 만경대는 나의 가슴속에서 혁명투쟁을 더욱 굳세게, 더욱 완강하게 벌려나가야 한다는 결의를 불러일으켜 주었다.》(꼬스따리까사회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호쎄 프란씨스꼬 아길라르 불가렐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가정과 일가분들의 혁명투쟁업적은 조선인민뿐아니라 전세계혁명적인민들이 따라배워야 할 모범으로 된다.

우리는 오늘 만경대방문에서 받은 커다란 감명을 영원히 잊지않을것이다.》(사회주의에티오피아림시군사정부대표단 단장)

《위대한 주석께서는 인민들속에서 탄생하시였고 인민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으로 하여 주석께서는 그처럼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할수 있었다.

위대한 주석께서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위하여 이룩하신 공적은 참으로 크다.

나는 인류의 혁명을 위한 무기인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세네갈 다까르시리사이며 시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진정 인민들을 위하여 사업하시며 인민들에게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시는 어버이이시다

《오늘 우리들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경모의 정을 안고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혁명적가정에서 탄생하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벌써 어리신 나이에 원쑤와 싸워이기고야 말겠다는 혁명적의지를 키우시였으며 일찌기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시여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혁명사업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쳐오고계신다.》(제1차중국친선참관단 단장 왕탁)

《나는 조선에 올 때마다 제일 먼저 만경대를 방문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를 따라배운다.

만경대는 오늘의 세대뿐아니라 미래의 세대들도 따라배워야 할 혁명의 요람이다.

세계에 이름난 사람들도 많지만 한평생을 인민의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같으신분은 이 세상에 없다.

우리 혁명가들이 진심으로 따라배우고 흠모할분은 오직 김일성주석이시다.》(인도신문 《인디안 타임스》 주필 비슈 와나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국을 해방하신 후에 할아버님과 할머님께서 계시는 고향집을 가까이에 두시고도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인민들을 만나신 다음에야 만경대를 찾으셨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의 마음을 몹시 흥분시켜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진정 인민을 위하여 사업하시며 인민들에게 온갖 배려를 다 돌려주시는 어버이이시다.》(수리아바아스소년선봉대지도일군대표단 단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는 한 조선인민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자들을 철거시키고 나라를 반드시 통일하리라는것을 확신한다.》(수리아아랍공화국 변호사협회대표단 단장)

《…우리는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며 주체사상의 기치를 끝까지 고수할것이다.

만경대는 조선과 세계에 영광을 주고있다.

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65돐이 되는 이해에 만경대를 방문하면서 수령님께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이딸리아국제관계연구소 총서기)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5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뜻깊게 기념

1977년 4월 15일에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가장 경사스럽게 맞이하였다.

해마다 그처럼 손꼽아 기다리며 맞이하는 4월 15일보다 더 경사스러운 민족적명절을 우리 인민은 아직 모른다.

우리 인민에게는 해마다 즐겁게 맞이하는 민족적명절이 많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웅적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일제를 때려부시고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신 조국의 광복절도 우리 인민의 민족적명절이며 그이께서 해방후 그처럼 바쁘시고 복잡한 가운데서 건당, 건국, 건군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영광의 그날들도 우리 인민의 민족적명절이다. 그러나 이 모든 민족적명절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심으로 하여 마련되였으며 그이의 탄생일에 잇닿아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산좋고 물맑은 우리 조국강산에 누구나 다 행복을 누리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는것을 자신의 평생의 위업으로 내세우시고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로 반세기의 쉬임없는 투쟁을 벌려 참으로 살기좋은 사회주의제도, 인민의 락원을 마련하시였다.

우리 조국청사에 해마다 새겨진 위대한 사변들과 기적들이, 우리 인민들에게 베풀어진 오늘의 행복과 광명한 미래도 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로고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다.

그러기에 우리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의 탄생일을 그처럼 손꼽아 기다리며 최대의 민족적명절로 뜻깊게 기념하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뜨거운 경모의 마음을 담아 겨울동안 매 가정들에서는 그이의 탄생일에 드릴 색갈곱고 향기그윽한 여러가지 꽃들을 정성담아 키워왔다.

해빛도 영광으로 밝은 빛을 뿌리는 4월의 명절에 인민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너무나도 크신 로고와 불면불휴의 나날들을 생각하며 그이께서 이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부탁을 올리였다.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하여도 어버이수령님께서만은 영원히 인민의 심장속에 간직된 영상그대로 계시기를 바라는 인민의 지울수 없는 념원! 다른 모든것은 사양하시더라도 이 하나의 념원만은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인민의 간절한 부탁이였다.

그이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간고한 그날에 일제를 쳐부시고 광복된 조국에서 푹쉬자하시던 그 약속을,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미제를 때려부시고 승리한 조국땅에서 푹쉬자하시던 그 약속을 잊으시고 자신의 탄생일마저 인민을 위해 쉬임없이 바치고계신다.

그러나 경사스러운 이날에 우리 인민은 또다시 커다란 격정을 누를길없어 가슴들을 들먹이였다.

만민의 축복을 받으셔야할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에 온 나라 인민이 그이께서 편히 쉬시기를 그처럼 간절히 소원하였건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모두에게 한없이 뜨겁고 자애로운 사랑을 안겨주시고 자신께서는 생신날 궂은비를 맞으시며 이날마저 현지지도의 발걸음을 옮기시고 또 옮기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개천에서 녕변, 녕변에서 안주로 끝없이 현지지도의 자욱을 남기시며 봄비내리는 들판에서 우물자리를 잡아주시고 방식상학까지 조직하여주시며 지하수혁명의 앞길을 밝혀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첫새벽에 남먼저 언제건설장을 찾아주시였으며 갑자기 추위가 들이닥친 이른아침에 농사일을 걱정하시여 협동농장의 남새밭을 찾아주시였다.

어언 환갑이 지나시여 다섯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이께서는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 주시기 위하여 이처럼 쉬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신다.

몇해동안 계속되는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세계가 식량난, 물기근에 아우성치고있을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연개조 5대방침과 독창적인 지하수혁명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수행을 위한 투쟁의 진두에서 전당, 전군, 전민을 이끌어주시며 위대한 주체농법으로 해마다 만풍년을 안아오고계시니 진정 우리들이 누리고있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두고 인민들은 결코 무심히 대하지 않는다.

한대에 다 갚지못할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고 대를 두고 영원히 충성다할 굳은 마음을 다진 우리 인민은 이 세상 끝까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따르는 충성의 길에서만 오늘의 행복도, 휘황한 조국의 미래도 있다는것이 굳은 의지로 다져졌다.

온 강산에 끝없는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고있는 이 영광의 날, 유서깊은 혁명의 요람 만경대와 만수대의 높은 언덕에로 인민의 물결, 충성의 물결이 파도처럼 밀려들었다. 칠순이 지난 로인도,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어린이도, 행복을 자랑하는 가정과 가정들이, 사랑을 받아안은 천만사람들이 향기 그윽한 꽃다발을 가슴에 안고 충성의 인사를 삼가 올리였다.

《어버이수령님!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축하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오늘 우리 당원들과 전체 조선인민은 커다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습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은 이 경사스러운 날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은 우리 민족의 수천년 력사에 일찌기 없었던 영광의 새시대의 려명이 밝아온 가장 의의깊은 사변이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게 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비로소 오랜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보람찬 투쟁과 승리의 새 력사를 개척해나갈수 있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대대로 애국적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여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반세기동안 오로지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조국과 민족의 번영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여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첫 시기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빛발로 혁명의 앞길을 밝혀주시였으며 복잡하고 험난한 조선혁명을 아무런 우여곡절없이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제통치의 가장 암담하던 시기에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여 우리 혁명의 주체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영웅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으며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초석인 위대한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령도하신 20여성상의 항일혁명투쟁은 주체의 혁명위업의 력사적시원을 열어놓고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위대한 혁명투쟁이였으며 우리 혁명이 줄기차게 발전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터전을 마련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처음으로 로동계급의 참다운 전위대인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종파주의와 기회주의,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를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속에서 우리 당을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하여 하나로 통일단결되고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은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독창적인 인민정권로선을 내놓으시고 안팎의 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조선인민의 진정한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강화발전시키시였으며 우리 인민의 정규적혁명무력인 조선인민군을 창건하시고 독창적인 자위사상과 군사로선을 구현하시여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키우시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신 로동계급의 혁명적당과 로동자, 농민의 혁명정권과 불패의 혁명무력을 가지게 됨으로써 자기 운명을 자신이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제국주의의 침해로부터 조국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과 혁명주권과 혁명무력을 령도하시여 제국주의자들과 온갖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며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에서 계급적원쑤들의 필사적인 반항을 짓부시며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을 짧은 기간에 가장 철저히 수행하시였으며 공화국북반부를 강력한 혁명기지로 꾸리고 우리 혁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기 위한 튼튼한 기초를 닦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인 전략전술과 천재적령도로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조국해방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침략자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기고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으며 미제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우리 인민의 위대한 승리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령군술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반제반미투쟁에서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에서 기존 공식과 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기술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할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내놓으시고 전후 불과 4～5년동안에 생산관계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하시였으며 이 경우에 착취와 압박이 없고 모든것이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제도를 일떠세우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전쟁으로 모든것이 재더미로 된 전후시기 주체적인 경제건설의 기본로선과 사회주의공업화로선을 내놓으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여 공업화의 력사적과업을 불과 14년동안에 완성하도록 하시였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농촌문제해결의 새로운 길을 밝히시고 농민을 로동계급화하며 농업을 공업화, 현대화하는 새시대를 펼쳐주시였습니다.

짧은 력사적기간에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빛나는 승리는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마련될수 있은 세기적인 대변혁이였으며 진보와 문명에로의 위대한 비약이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하에서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며 혁명을 계속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천명하시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공산주의건설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해나가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십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길을 따라 곧바로 전진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정치와 경제, 사상과 도덕, 교육과 예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전변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륭성과 번영이 이룩되고있습니다.

민족의 구성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고계시며 60만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모든 해외동포들을 육친의 정으로 보살펴주고계십니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이룩한 모든 승리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의 승리이며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예술의 승리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새롭게 밝히시였으며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체계인 완성된 혁명사상을 내놓으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력사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새 시대인 우리 시대의 지도사상이며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가장 옳바로 풀어나갈수 있게 하는 필승불패의 혁명적무기입니다.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탁월한 혁명사상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민족해방과 계급해방,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면서 걸음마다 빛나는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확고한 주체적립장과 견결한 혁명적원칙성, 과학적예견성과 명철한 통찰력, 강철의 의지와 비상한 혁명적전개력을 지니시고 제국주의침략과 국내반동들의 온갖 책동을 분쇄하며 자연과 사회와 인간을 개조하는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투쟁을 위대한 승리에로 이끄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언제나 인민의 힘을 굳게 믿으시고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불러일으키시여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능숙하게 풀어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쉬임없이 이어나가시는 현지지도는 인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지향과 요구를 제때에 포착하고 인민의 지혜와 힘을 동원하여 혁명과 건설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끄는 탁월한 대중령도의 빛나는 모범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는것을 모든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시고 빛나게 구현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련하여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의 온 사회는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결되고 모두가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산주의적으로 일하며 생활하는 혁명적대가정을 이루고있으며 우리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아이들을 공부시킬 걱정, 병치료 걱정을 모르며 모두가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는 인민의 락원으로 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전기간 민족적임무와 함께 국제적임무에 끝없이 충실하시였으며 맑스-레닌주의와 프로레타리아국제주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제국주의를 반대하며 자주, 독립, 사회주의를 위한 모든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옹호하고 견결히 지지성원하시였으며 세계혁명과 국제공산주의 운동발전에 탁월한 공헌을 하시였습니다.

참으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께서 걸어오신 혁명투쟁로정은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혁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적복무의 력사이며 온갖 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적 및 사회적 해방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오신 성스러운 투쟁의 력사이며 위대한 사상과 리론, 탁월한 령도력과 숭고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지니시고 조국

과 혁명, 민족과 인류 앞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하고 영광찬란한 력사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준엄한 난국을 헤치시고 조선혁명을 승리에로 이끄신 위대한 업적으로 하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 발전에 기여하신 거대한 공적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뿐아니라 전세계 혁명적인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뢰와 다함없는 존경을 받고계십니다.

오늘 우리 조국이 누리에 빛을 뿌리고 우리 당과 인민이 그처럼 자랑높은 영광을 지닐수 있은것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과 인민이 지니고있는 권위와 영예는 곧 우리 인민이 한결같이 존경하고 흠모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으신 권위이며 영예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심으로 하여 우리 당과 조선혁명의 영광에 찬 과거와 오늘이 있는것처럼 오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가리키시는 한길을 따라 나갈 때에만 우리 인민의 더욱 휘황한 앞날이 있으며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가 있습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은 한평생을 오로지 혁명에 바치시며 우리 인민에게 오늘의 행복을 마련하여주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자기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있으며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갈 철석같은 결의에 가득차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싸워나아가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 앞에는 오직 더 큰 승리와 보다 휘황찬란한 미래가 있을뿐입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은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뜨거운 념원과 절절한 심정을 담아 나라의 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위하여, 조국의 무궁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세계혁명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1977년 4월 1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편지증정식과 집단체조 《조선의 노래》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수령님께 전체 인민들의 이름으로 드리는 충성의 편지증정식과 평양시 청소년학생들이 출연하는 집단체조 《조선의 노래》가 4월 25일 모란봉경기장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오후4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아버지원수님께 소년단원들이 우리 인민의 뜨거운 마음들이 꽃핀 향기로운 꽃묶음을 드리고 붉은 넥타이를 매여 올리였다.

경기장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이 모셔진 초상기발을 앞에 모시고 공화국기발을 나붓기며 60만 재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과 혁명의 성지 왕재산과 력사의 땅 포평, 영웅의 고지 1211고지, 분계선도시 개성을 비롯한 전국각지에서 달려온 충성의 편지전달이어달리기대표단들이 모란봉경기장에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먼저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과 60만 재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 계주단성원들이 60만 재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를 정중히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또한 조선인민군장병들, 사회안전원 및 인민경비대 대원들, 문화예술인들, 철도운수부문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각 도안의 인민들의 충성의 편지전달이어달리기대표단성원들이 전체 인민들의 충성의 마음을 담은 편지들을 드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0만 재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과 편지전달이어달리기대표단 성원들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였다.

충성의 편지증정식에 이어 평양시안의 청소년학생들이 출연하는 집단체조 《조선의 노래》가 진행되였다.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보급된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의 노래》에 담겨져있는 심오하고 폭넓은 사상적내용을 주제로 한 집단체조 《조선의 노래》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체육예술의 대화폭으로 훌륭히 형상함으로써 관람자들을 감동시켰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손을 드시여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을 우러러 높이 올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였으며 출연자들의

성과를 축하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날 집단체조 《조선의 노래》를 창작한 지도일군들과 교원들 그리고 집단체조에 출연한 여러 학교의 청소년학생대표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또한 아세아,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 갔던 집단체조대표단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

경사스러운 민족적명절을 맞이하여 4월 16일 붉은기만경대혁명학원운동장에서는 조선소년단 전국 련합단체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소년단의식이 있은 다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65돐을 맞이하면서 전체 소년단원들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드리는 경축사가 있었다.

경축사에서 소년단원들은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린다고 경건하게 지적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주체의 기치따라 백두산에서 시작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며 경애하는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모시고 따르며 아버지 원수님께 충성다하는 공산주의적주체의 혁명가로 튼튼히 준비해갈 불같은 맹세를 다지였다.

대회에서는 경축사에 이어 소년단에 새로 들어오는 어린이들의 소년단입단의식이 있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씩씩하게 부르며 입장한 어린이들은 항일혁명투사의 선창에 따라 《조선소년단입단선서》를 소리높이 읽었다.

대회에 참가한 간부들과 총련의 여러 대표단성원들, 시안의 대학생들이 어린이들에게 소년단넥타이를 매주고 휘장을 달아주었으며 전체 참가자들이 열렬한 축하를 보내였다.

소년단원들의 사열행진이 있은 다음 만경대구역안의 학생소년들이 출연하는 집단체조 《주체의 태양이 솟은 만경대》가 진행되였다.

평양시 근로자들의 야회와 청소년학생들의 충성의 노래모임

4월 16일 저녁 김일성광장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5돐을 뜻깊게 기념하는 평양시 근로자들의 야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대합창으로 시작된 야회에서는 송가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로동계급의 충성의 노래》가 랑송되였다.

송가는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모든 근로자들이 삼가 최대의 영광을 드린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빛나는 혁명력사와 고매한 덕성을 감동적으로 노래하였다.

이어 《총동원가》, 《인민주권가》, 《인민혁명군동무들에게 어서 보내세》, 《내조국 한없이 좋아라》, 《세금없는 우리 나라》, 《새봄》, 《노들강변》의 주악과 방창에 맞추어 근로자들의 흥겨운 춤이 시작되였다.

수도의 명절 밤 하늘에 아름다운 꽃보라를 뿌리며 축포가 터져오르자 야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를 목청껏 불렀다.

야회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다섯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조국에 온 재일조선인축하단, 60만 재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재일조선인축구선수단, 재일본조선무역상사일군대표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에 와있는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대사관성원들, 우리 나라에서 공부하고있는 외국류학생들,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외국손님들도 참가하였다.

야회는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의 노래 합창으로 끝났다.

이날 저녁 평양체육관앞광장과 2.8문화회관앞광장에서도 근로자들의 야회가 있었다.

한편 대동강과 보통강에서는 평양시 청소년학생들의 명절 꽃배놀이가 있었다.

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는 2,500명의 출연자들과 평양시안의 1만 2천여명의 청소년학생들이 참가한 충성의 노래모임이 있었다.

송시 《아버지원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의 랑송이 있은 다음 무대배경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이 모셔지자 화려한 의상에 꽃묶음을 든 무용수들이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충성의 꽃바구니를 만들어 드리였다.

모임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감동적으로 노래한 설화와 녀성중창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의 노래》, 시와 노래 《조국을 그리는 마음》, 남성독창과 무용 《시공청에 깃든 어버이사랑》, 손풍금과 노래 《수령님 한품속에 우리 행복 꽃피네》, 합창시 《충성의 맹세를 드리옵니다》를 비롯한 여러가지 종목들에 이어 대합창과 무용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로 끝났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5돐을 맞이하여 진행된 다채로운 기념행사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5돐을 기념하여 4월 8일부터 22일까지 영화상영순간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진행되였다.

전국각지의 영화관들과 문화회관들에서는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보여주는 《영원한 사랑의 품》, 《농업전선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 《만경대》 등 기록영화들을 비롯하여 《꽃파는 처녀》, 《유격대의 오형제》(1, 2, 3부) 그리고 《농민영웅》, 《잊을수 없는 사람》, 《금희와 은희의 운명》 등 예술영화들을 돌렸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4월 13일 조선미술박물관에서는 제13차 국가미술전람회가 열렸다.

전람회에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우수한 미술작품 700여점이 전시되였다.

같은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보여주는 중앙사진전람회가 인민문화궁전에서 개막되였다.

사진전람회는 각 도, 시, 군 소재지들에서도 일제히 열렸다.

이날 인민문화궁전에서는 예술사진전람회도 열렸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4월 1일부터 진행된 전국체육축전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가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16일에 끝났다.

체육축전기간 선수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평상시에 훈련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련마하여온 주체적체육기술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의하여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처음으로 안긴 재일조선인축구선수단이 함께 참가하여 훌륭한 기술을 보여줌으로써 4월의 봄명절의 체육축전을 더욱 빛나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깊이 학습하기 위한 사회과학부문 일군들의 연구토론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깊이 학습하기 위한 사회과학부문 일군들의 연구토론회가 민족최대의 명절을 앞둔 4월 4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철학사상, 경제리론, 군사사상, 당건설사상, 국가건설 및 법 리론, 교육사상, 출판보도리론, 세계혁명리론 등 여러 분과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하여 밝혀진 탁월한 혁명리론의 독창성과 정당성, 거대한 생활력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있게 해설한 수십건의 론문들이 발표되였다.

토론자들은 일치하게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과학적공산주의학설인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인민들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의 승리에로 이끌어주는 불멸의 기치이며 공산주의미래까지 포괄하는 전력사적시대를 향도하는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며 인류의 진보적사상과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서 새로운 단계를 이룬 탁월한 혁명사상이라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현시대와 공산주의미래를 대표하는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되는 근거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것은 력사발전의 가장 높은 단계이며 불멸의 시대인 주체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이라는데 있으며 또한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의거하고있는 가장 과학적이며 창조적인 사상이며 우리혁명과 세계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실천투쟁속에서 정당성과 진리성이 확증된 위대한 사상이라는데 있다는것을 여러모로 깊이있게 해설하였다.

다음으로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의거하고있는 철학적원리인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원리가 인류의 철학사상발전에서 새로운 발견으로 되는 근거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것은 이 철학적원리가 세계발전의 일반적합법칙성과 공산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과학적인 원리이라는데 있으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사상, 리론, 방법을 그 구성체계로 하고 사람을 위주로 하여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고 완성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으로 되게 한데 있을뿐아니라 그것이 완성된 공산주의리론을 주고 있는데 있다는것을 폭넓게 해설하였다.

또한 토론자들은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마련한 토대우에서 당을 창건하고 근로인민의 대중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며 당안에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당의 지반을 강화하며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당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확립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당건설리론에 대하여 해설하면서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모든 빛나는 성과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주체적인 당건설리론의 빛나는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권문제와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 사회주의경제리론, 자위의 혁명적원칙을 관철할데 대한 군사사상,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리론에 대하여 깊이있게 해설하였다.

또한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리론이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 수행에서 그 정당성과 진리성이 확증되였으며 불패의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한편 평양학생소년궁전극장에서는 11일 전국 대학생주체사상연구토론회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을 맞이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을 남조선인민들이 더욱 열렬히 흠모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을 맞으며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더욱 열렬히 흠모하면서 수령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원을 드리였으며 수령님의 령도따라 통일의 그날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에서는 남조선의 모든 혁명가들과 각계 인민들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삼가 축하문을 드리였다.

축하문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을 맞는 력사적인 시각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축원하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인민들의 순결한 충성의 노래는 림진강반에서 제주도끝까지 울려퍼지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는 전민족, 전인류의 대경사인 4월의 명절에 제하여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위해 한생을 바쳐오시는 불세출의 영웅이시고 사상리론의 거장이시고 인류의 영걸이신 주체의 태양 김일성동지께 전체 당원들과 각계 민중의 일치한 소망과 축원을 담아 가장 열렬한 축하와 만년축수의 인사를 삼가 드리옵니다.》

계속하여 축하문은 통일혁명당 당원들과 각계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들고 나가는 길에서만 근로인민의 자유해방도 통일조국의 찬란한 래일도 있다는 철석같은 신념밑에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이 중첩되고 사나운 파쑈광풍이 앞을 막아도 일편단심 충성의 한뜻을 변함없이 간직할것이며 해와 달이 영원하듯이 천세만년 대를 이어 영원히 주체의 태양만을 우러러 높이 모시고 따를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축하문은 통일혁명당 당원들은 당과 혁명대오의 김일성주의화를 실현하고 반파쑈민주화와 반미구국의 기치밑에 민주, 민권과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할것이며 이 보람찬 투쟁에서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며 끝까지 충성다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기관지 《혁명전선》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5돐을 맞으면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는 통일혁명당 당원들과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충성의 마음을 담아 《태양을 우러르는 민심》이라는 제목아래 특집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5돐을 맞으며 남조선혁명가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더욱 절절히 흠모하면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연구하는 사업을 활발히 벌렸으며 이에 기초하여 각계층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로작에 일관되여있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해설해주는 정치선전을 적극 벌렸다.

남조선의 젊은 세대 사회과학자들이 모여 주체사상에 관한 토론회를 가지였고 남조선강원도 고성군과 인천시를 비롯한 여러지방의 애국적청년들이 불멸의 주체사상과 조국통일방침 등을 해설하는 삐라들을 뿌리면서 각계각층 군중속에서 정치선전활동을 벌린것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흠모하며 신뢰하는 남녘겨레들의 절절한 심정은 서울시와 부산시를 비롯한 곳곳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정중히 모신 화첩들이 인민들의 손에서 손으로 널리 전해지면서 읽힌 사실에서도 그대로 표현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충청북도 충주에 사는 로동자들과 회사원, 학생 등 20대 청년들은 투쟁조직인 《4.15동지회》를 결성하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우러러 높이 받들고 따를 충성의 서약서를 채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달리는 렬차안에서도 수령님의 품에 안길 행복한 래일을 굳게 믿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고 한다.

4월초순 부산에서 떠나 서울로 가는 렬차를 타고 가던 한 청년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요즘 부산, 대구 등지에서는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의 탄생기념일을 축하하고 그분의 만년장수를 축원하는 정성들여 쓴 글이 사람들속에서 비밀리에 읽혀지고있다고 한다.

그리고 강원도의 한 로인은 태백산에 들어가 150년이상 묵은 산삼을 캤는데 그것을 김일성장군님께 올리려고 아들을 북으로 보냈다는 소문도 나돌고있다.

이제 다 김일성장군님을 높이 받들고 따르는 이남의 민심이다.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가 김일성장군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 락이 온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사경에 처한 이남사람들을 구원해주실 분은 김일성장군님밖에 안계시기때문이다.》

그 청년은 계속하여 《…하루빨리 통일이 돼야 한다. 통일이 되는 그날이 바로 그분의 품속에 안기는 날이다.

지금 우리가 타고가는 이 기차도 서울행이 아니라 평양행으로 바꾸어져야 한다.

그리하여 해마다 4월 15일이 되면 각계층을 대표하는 축하단들이 특별렬차를 타고 평양으로 가서 김일성장군님께 만년축수의 인사를 드려야 한다. 나는 이렇게 하는것이 민족최대의 소망이자 행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5돐을 재일동포들이 뜻깊게 기념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조국인민들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65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뜻깊게 맞이하였다.

총련중앙을 비롯한 각급 기관들과 단체, 사업체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일동포들에게 베풀어주시는 육친적사랑과 배려를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며 해와 달이 다하도록 끝까지 모시려는 높은 충성심을 담아 경애하는 수령님께 축하문과 축기, 축전들을 삼가 드리였다.

또한 총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탄생 예순다섯돐 재일조선인축하단과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을 조국에 보내여 위대한 수령님께 재일동포들의 가슴속에 끓어넘치는 뜨거운 경모와 감사의 정, 열렬한 축하와 충성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총련은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5돐을 열렬히 축하하기 위하여 전체 재일동포들의 가슴마다에 간직된 충성심을 한데 모아 수령님께 삼가 드리는 평양 애국국수공장을 비롯한 충성의 선물들을 마련하였다.

4월 15일 총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다섯돐을 경축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를 도꾜에 있는 조선문화회관에서 성대히 진행하였다.

5천여명의 각계층 동포들의 참가밑에 진행된 대회에서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며 60만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전체 참가자들의 충성의 마음을 담아 삼가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대회에서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이 경축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류력사발전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으시였으며 60여성상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였으며 재일동포들을 저주러운 처지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주체조국의 해외공민으로 키워주신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였다.

한편 4월 15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김일성원수 탄생 예순다섯돐 축하연》을 도꾜에서 성대히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부의장들, 각 국장들과 총련산하 단일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및 도꾜도안의 총련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연회에는 일본에 와있는 조국대표단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연회에는 일본의 각계 인사들과 일본에 와있는 여러 사회주의나라들과 친선적인 나라들의 외교사절들을 포함하여 40개 나라 1천여명의 각계 인사들이 초대되였다.

이에 앞서 4월 13일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가장 숭고한 인민적풍모를 지니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총련간부강연회가 재일본조선중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4월 14일에는 위대한 수령님탄생 65돐기념재일조선청년학생들의 충성의 선서모임이 일본각지에서 진행되였다.

총련산하 각 지방조직들에서도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5돐기념 축하모임, 환등필림 《은혜로운 해빛아래》의 상영, 강연회 등 여러가지 행사들이 진행되였다.

뜻깊은 4월의 명절을 맞이하여 총련은 전체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드리는 송시 《주체의 빛발아래》를 창작하였다.

또한 총련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한 총련일군들과 각계층 동포들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으시여 평생을 두고 잊지못할 최상의 영광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주신 감격어린 이야기들을 묶은 회상실기집 《은혜로운 해빛은 이역만리에도》(1)를 출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던 외국의 선원들이 축기, 축하문, 선물을 삼가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던 다른 나라의 선박선원들이 경애하는 수령님께 축기, 축하문, 선물을 삼가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던 일본 아사히수산주식회사 사장이 축기와 선물을 드리였다.

축기의 앞면에는 붉은 바탕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만경대고향집과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각하의 만년장수를 삼가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경축》, 《65주년》이라는 글발이 수놓아져있고 뒤면에는 《전세계에 주체의 새시대를 펼쳐주신 인류의 태양이시며 세계만민이 우러러 경모하는 걸출한 영재이시며 탁월한 스승이신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각하의 만년장수를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이 수놓아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 또한 청진항에 머무르고있던 일본선박 《다이이찌 유세이마루》선원들도 붉은바탕에 백두산과 푸른소나무가 새겨져있고 《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65돐》이란 글발과 《혁명의 영재이시며 사상리론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각하의 만년장수를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을 금실로 수놓은 축기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희랍선박 《그레이스》호선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발을 금실로 수놓은 축기를 보내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께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던 일본 메이쇼특수산업주식회사에서도 축하문과 선물을 보내여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또한 일본 다이도해운주식회사와 다이도교역주식회사에서 선물을 보내여왔다. 4월 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은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선물전달식에서 이 회사소속 일본선박 《도요마루》선장은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선물에는 김일성주석각하의 만년장수를 축원하는 일본인민들, 이 회사 사원들, 이 회사에 소속된 선원들의 뜨거운 마음이 담겨져있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 또한 일본 세이와해운주식회사와 화이트라인주식회사에서, 일본 다이니찌무역주식회사와 이 회사소속 선박 《다이니찌마루》선원들이 선물을 보내여왔다.

일본선박 《다이쥬이찌가즈마루》선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만년장수하시여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조선혁명과 세계혁명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주실것을 소망하는 마음에서 사철 푸르싱싱하고 봄에는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여 4월의 명절을 축하할수 있는 동백나무를 위대한 수령님께 선물로 올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출판, 특집, 특별방송 조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수록한 문헌집들과 책들이 세계 여러나라들에서 광범히 출판보급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가 문헌집들과 책들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수록한 문헌집 《청년들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여야 한다》가 베네수엘라의 《로시난떼》출판사와 프랑스의 《알프레드 에이벨》 출판사, 에스빠냐와 에꽈도르에서 출판되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수록한 문헌집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를 베네수엘라의 《로시난떼》출판사가, 문헌집 《우리 혁명에서의 문학과 예술의 임무》를 이딸리아의 《에디또리 리우니띠》출판사가, 문헌집 《우리 혁명에서의 주체에 대하여》 제1권을 노르웨이와 미국의 《가디언》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문화련락이딸리아협회, 단마르크의 트리오출판사, 핀란드의 《사난떼에》출판사가 출판하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수록한 문헌집 《빨치산식투쟁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가 수리아의 《디마스끄》출판사와 까메룬에서, 문헌집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네팔에서 각각 출판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수록한 혁명과 건설의 백과전서적총서 《김일성저작선집》 제3권이 인도에서, 《김일성항일혁명시기저작선집》이 일본의 《산세이도》출판사에서 출판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수록한 문헌집 《사회주의농촌문제에 대하여》가 말가슈에서, 《청년론》이 일본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문헌집》이 탄자니아와 단마르크에서 또한 출판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와 1977년 《신년사》가 중국의 《인민출판사》에서 책으로 출판되였다.

인도,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슈, 라오스, 또고, 탄자니아, 말가슈, 부룬디, 모리셔스, 르완다, 빠나마, 애급, 감비아, 자이르,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의 신문, 잡지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을 기념하여》라는 글발 혹은 머리글을 달고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빨치산식투쟁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 등을 광범히 실었다.

말가슈신문들인 《마뻥》과 《헤히》는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

에 관한 례제》, 《빨치산가담운동은 우리 시대의 위력한 반제혁명력량이다》 등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11회에 걸쳐 10편을 실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수록한 《김일성동지략전》을 우간다신문 《타이타》와 팔레스티나잡지 《팔레스티나혁명》이,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략력》을 인도신문들인 《싸크쉬》, 《순하리 파러뜨》, 《메와뜨》가 각각 실었다.

또한 에꽈도르의 《불룬따드》출판사는 기념론문집 《김일성원수님은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시다》를, 메히꼬의 《노알》출판사는 《김일성, 사회주의를 위하여 바치시는 한평생》이라는 제목의 책을 각각 출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기념일에 즈음하여 세계 여러 나라 신문, 잡지들이 기념론설을 발표하였거나 특간호, 기념특집을 조직하였으며 라지오 및 텔레비죤 방송들은 특별방송을 하였다.

중국신문들인 《인민일보》, 《광명일보》, 《해방군보》, 인도신문들인 《메와뜨》, 《순하리 파러뜨》, 수리아 신문들인 《티슈린》, 《알 싸카파툴 우쑤부아이예》, 파키스탄신문들인 《모닝 뉴스》, 《데일리 마쉬리크》, 《싸다이 밀라뜨》, 《우잘라》, 《알 파테호》(잡지), 네팔신문들인 《에베레스트》, 《코머너》, 방글라데슈신문들인 《고노속디》, 《나야 유그》, 레바논신문 《싸우툴 오루바》, 이라크신문 《따리끄 앗 샤아브》, 세네갈신문 《쏠레이》, 기네신문 《호로야》, 잡지 《포니께》, 수단신문 《알아얌》, 모리셔스신문 《더 네이숀》, 말리신문 《에쏘르》, 말가슈신문 《마뻥》, 까메룬신문 《프레스 앤패르》, 우간다신문 《보이스 오브 우간다》, 요르단신문 《아호바르 알 우쑤부오》, 시에라레온 신문 《비지니스 쿼터리》, 소말리아신문 《히지그다 옥토바르》, 핀란드신문 《라껜따야》, 말따신문 《말따 뉴스》, 스위스신문들인 《트리뷴 드 제네브》, 《뱅까뜨레르》, 프랑스신문 《프랑스 수아르》, 꼴롬비아신문 《엘 쏠》, 빠나마신문 《라 레뿌블리까》, 뻬루잡지 《엘 우마니스따》 등 여러 나라 출판물들이 기념특집을 하면서 여러가지 제목의 론설들과 글을 실었다.

수리아잡지 《아랍조선친선》 제9호, 애급잡지 《말루윌티자라》 4월호, 네팔의 《코머너》신문사가 내는 잡지의 4월호가 특간호를 발행하였으며 레바논조선친선협회도 4월 13일 특간호를 발간하였다.

세네갈, 르완다, 말리, 또고, 모잠비끄, 수리아, 산토메 프린시뻬, 방글라데슈, 까메룬 등 여러 나라 방송들은 특별방송들을 하였다.

세네갈신문 《쏠레이》 3월 21일호는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기념일을 앞두고 그이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기념특집한 머리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그이의 존함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장 탁월한〉, 〈가장 천재적인〉, 〈가장 자애로운〉이라는 존칭과 함께 우리가 기쁨에 넘쳐 부르고있는것은 응당한 일이다.

우리는 그이의 탄생일을 맞이하면서 전체 인류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주석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된 다채로운 기념행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들에서 사진전람회와 영화상영주간 및 감상회, 경축집회 등 여러가지 기념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중국, 수리아, 네팔, 알제리, 또고, 소말리아, 탄자니아, 시에라레온, 부룬디, 유고슬라비아, 쏘련, 핀란드 등 여러 나라들에서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와 영화상영주간 및 감상회가 진행되였다.

행사장정면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사진전람회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유서깊은 만경대고향집과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혁명활동력사를 보여주는 사진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또한 여기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 전시되여있었다.

4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막된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혁명활동사진전람회》장에는 백두산천지에 서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진을 비롯하여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중국인민의 위대한 수령 모택동동지 그리고 주은래총리와 뜨겁게 악수하시는 사진 등 경애하는 수령님의 중국방문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또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남북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과 이 투쟁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있었다.

영화상영주간 및 감상회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천만년 모시고 따르렵니다.》, 《만경대》, 《꽃파는 처녀》를 비롯한 우리 나라 영화들이 상영되였다.

중앙기관일군들과 관계부문일군들 그리고 이 나라들에 있는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전시품들과 영화들을 보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을 경축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에 대한 연구토론회,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활

롱에 대한 강연회, 로론회가 또한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되였다.

칠레인들인 로드리고 전우들의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연구소조》가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하여》에 대한 연구토론회를 가졌으며 인도와 시에라레온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에 대한 연구토론회를 가진것은 그 대표적인 실례로 된다.

이해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일본청년《주체사상연구회련락협의회》, 네팔조선친선협회, 전인도조선친선협회, 조선통일지지인도위원회, 조선통일지지끼쁘로스위원회와 끼쁘로스조선친선협회 리마솔지부, 수리아알레포종합대학, 말가슈종합대학, 소말리아국립종합대학, 조선통일지지시에라레온위원회, 조선통일지지모리셔스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위원회, 뻬루의 리마시꼬마스구역에 있는 2059소학교,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오스트랄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위원회, 가이아나에서 경축집회들을 가지였다.

집회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와 축전들이 채택되였다.

경축집회들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연설하였으며 그들은 일치하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을 열렬히 축하한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만수무강하실것을 삼가 축원하였다.

우리 나라 재외대표부들에서 마련한 연회와 영화감상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 가있는 우리 나라 재외대표부들에서 연회와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등을 마련하였다.

중국, 소말리아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들과 쿠웨이트와 프랑스 주재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들에서는 영화감상회를, 로므니아, 꾸바, 민주주의캄보쟈, 탄자니아, 적도기네, 노르웨이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들에서는 영화감상회와 소연회를, 베닌, 수리아, 부룬디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들에서는 영화감상회와 연회를, 말가슈와 알제리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들에서는 연회를 각각 마련하였다.

수단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는 연회와 사진전시회를, 오지리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는 영화감상회와 사진전시회를, 르완다주재 우리 나라대사관에서는 도서, 사진전시회와 영화감상회를 각각 마련하였다.

모임장소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행사들에는 주재국 국가수반을 비롯하여 당과 정부의 간부들, 군대, 사회단체, 출판보도부문의 책임일군들과 기타 관계부문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그 나라들에 가있는 여러 나라 대사들과 대사관 관원들, 국제기구 및 투쟁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연회와 소연회들에서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여 축배를 들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4월 14일 베닌주재 우리 나라 대사가 마련한 연회와 영화감상회에는 이 나라 대통령을 비롯하여 당과 정부, 중앙기관 간부들이 참가하였다.

베닌대통령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5돐을 열렬히 축하하여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자고 하면서 연회참가자들과 함께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불렀다.

이날 이 나라 대통령은 연회장에 전시된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력사를 보여주는 사진들을 감명깊게 돌아보았다.

같은날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공예품전람회에 참가한 베닌대통령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5돐을 열렬히 축하하여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자고 말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앞에서 같이 온 간부들과 함께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불렀다.

대통령은 베닌의 모든 학생들과 로동자, 농민, 군인들속에서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광범히 보급할것을 함께 온 간부들에게 지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4월 14일 말가슈에 가있는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차린 연회에는 이 나라 총리를 비롯하여 많은 간부들이 참가하였으며 로므니아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마련한 영화감상회와 소연회에는 로므니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집행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부위원장, 당중앙위원회 정치집행위원회 위원인 정부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간부들과 사회단체책임일군들, 관계부문일군들이 참가하였다.

꾸바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4월 15일 마련한 영화감상회와 소연회에는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인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관계부문 책임일군들이 참가하였다.

영화감상회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천만년 모시고 따르렵니다》, 《당의 기치따라 영광의 30년》을 비롯한 우리 나라 기록영화들이 상영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추대

1977년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온 사회의 정치사상적통일, 혁명적단결이 억년 드놀지 않는 바위처럼 더욱 억세여지고 불패의것으로 다져진 뜻깊은 해였다.

이해에 우리의 혁명정권은 참으로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인민정권으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지난해에 온 나라가 드높은 정치적열의로 들끓는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 속에서 공화국의 새 정부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혁명정권은 더욱 강화되고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은 불패의것으로 다져졌습니다.》(《신년사》 1978년, 단행본, 5페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밝고 깨끗한 충성심이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더욱 뜨거워지고 숭고해지는 가운데서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는 전체 선거자의 100%가 투표에 참가하여 100%가 찬성투표하는 자랑찬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것은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과 그이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는 인민정권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뚜렷한 표시이다.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우리 인민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국가주석으로 높이 추대함으로써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따르려는 온 민족의 한결같은 의지와 수령님의 두리에 충성의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힘을 다시금 온 세상에 시위하였다.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는 이 불패의 통일단결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는 길우에서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여도 인민의 심장속 깊은곳에 간직된 절절한 념원, 철석같은 의지로 이루어진것이다.

이 해에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지니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드놀지 않는 신념으로 삼고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주체형의 참된 혁명가로 믿음직하게 자라났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뚜렷한 표시

1977년 11월 11일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우리의 로동자, 농민의 혁명정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려는 전체 인민의 높은 혁명적열의속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전국의 모든 선거구들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안주의 로동계급, 근로자들과 함께 온 나라의 전체 선거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저저마다 자기 선거구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하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전국의 모든 선거자들에게 보내주신 공개서한을 받아안은 끝없는 영광과 행복이 차넘치는 가운데 충성의 한마음 가지고 한사람같이 선거에 참가하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하고 등록한 제120호안주선거구에서 선거자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100%가 선거에 참가하였으며 선거에 참가한 선거자의 100%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찬성투표하였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20호안주선거구 투표결과에 따라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높이 추대되시였다.

이것은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바치시며 우리 인민을 끝없는 영광과 행복의 한길로 이끌어주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경애하는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높이 모시고 주체의 혁명위업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려는 열화같은 충성심의 표시이다.

이날 전국의 모든 선거구들에서 외국에 려행하고있는 선거자들을 제외하고 선거자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100%가 선거에 참가하였으며 참가한 선거자의 100%가 모든 선거구에 등록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들에게 찬성투표하였다. 이

리하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 579명 전원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당선되였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가운데서 로동자는 42.8%, 협동농장원은 11%이며 녀성비률은 20.8%이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가운데는 영예의 《김일성훈장》과 《김일성상》을 받은 일군들을 비롯하여 공화국영웅들과 로력영웅들 그리고 여러가지 명예칭호를 받은 일군들이 52% 들어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의 년령과 지식정도를 보면

35살이하	5.6%
36～55살	78.9%
55살이상	15.5%이며
대학졸업생	58.3%
전문학교졸업	11.2%
중학교졸업	30.5%이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위력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우리의 혁명정권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다시한번 국내외에 널리 시위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신 민족적경사와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 회의 성과를 축하하는 평양시군중대회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신 민족적경사와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 성과를 축하하는 평양시군중대회가 1977년 12월 18일 2.8문화회관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과학, 교육, 문화, 보건, 예술, 출판보도 부문 일군들이 시안의 근로자들과 함께 참가하였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시였으며 그이께서 력사적연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를 발표하신것은 우리 혁명발전과 정치생활에서 커다란 사변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우리 공화국의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신것은 경애하는 수령님께 모든 운명을 전적으로 맡기고 수령님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따르려는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의 발현이며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가려는 전당과 전체인민의 열화같은 충성심의 뚜렷한 표시이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반세기에 걸치는 오랜기간 우리 혁명을 오직 승리의 한길로 현명하게 이끄시여 우리 민족력사에서 일찌기 없었던 일대 번영과 륭성의 시대를 가져다주신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시대와 혁명의 진로를 새롭게 개척하시였으며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류해방을 위한 공산주의혁명리론을 밝혀주시고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를 위한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이고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시여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시였으며 이 땅우에 선진적인 제도를 마련하시고 우리 나라를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다.

연설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주체의 나라, 오늘의 사회주의조국이 있고 우리 인민이 누리는 오늘의 행복과 혁명의 빛나는 미래가 있다고 지적하고 전체 인민의 충성의 불타는 마음을 담아 위대한 수령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으며 그이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축원하였다.

연설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공화국의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한 우리 인민은 제2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강령을 빛나게 실행하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조국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앞당겨 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우렁찬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신 민족적경사와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성과를 축하하는 군중대회는 평양시를 비롯한 각도들과 조선 인민군 및 인민경비대 구분대 등 전국각지들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신 민족적대경사를 경축하는 조선소년단 평양시련합단체대회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을 공화국의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신 민족적대경사를 경축하는 조선소년단 평양시련합단체대회가 12월 18일 모란봉경기장에서 6만여명의 학생소년들의 참가밑에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울리자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의 초상기발을 모신 자동차가 모터찌클에 탄 소년단원들의 호위속에 대회장에 들어서고 련합단체기발이 뒤따랐다.

조선소년단 평양시련합단체 위원장의 대렬보고가 있은 다음 개회가 선언되고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우렁찬 대합창이 대회장에 울려퍼졌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우리 공화국의 국가주석으로 높이 추대한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의 표시이며 대를 이어 영원히 충성으로 받들어모시려는 우리 인민의 간절한 소원과 드높지 않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조선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는 조국과 혁명위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인민들과 후대들에 대한 가장 뜨거운 사랑과 배려의 력사이라고 강조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청소년시절을 따라배워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을 철저히 세우며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로 튼튼히 준비해나갈데 대하여 말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시며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이 참가자들의 우렁찬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대회는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의 노래합창으로 끝났다.

위대한 수령님을 국가주석으로 높이 추대한 민족적대경사를 경축하는 평양시 청년 학생들의 야회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국가주석으로 높이 추대한 민족적대경사를 경축하여 12월 17일 저녁 평양시안의 청년학생들은 김일성광장에 모여 성대한 야회를 가지였다.

야회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불타는 충성의 한마음을 안고 모여온 1만여명의 근로청년들과 학생들의 우렁찬 합창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시작되였다.

야회에서는 연설이 있었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신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품속에서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받아안고 참된 삶의 보람을 누려나가는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절대적인 신뢰의 뚜렷한 표시이며 수령님을 영원토록 높이 모시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르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려는 철석같은 의지와 신념의 표시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수십개의 원으로 광장을 메운 청년학생들의 춤판이 벌어졌다.

《내조국 한없이 좋아라》, 《세금없는 우리 나라》, 《인민주권가》, 《총동원가》, 《새봄》 등의 주악에 맞추어 노래부르며 춤추는 남녀청년학생들의 얼굴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공화국의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신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이 어려있었다.

경축광장에서는 야회참가자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부르는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의 대합창이 울려퍼졌다.

충성의 열정으로 가슴불타는 청년학생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가 되자!》의 구호들을 목청껏 불렀다.

광장에서는 또한 예술공연이 있었다.

지방주권기관대의원선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행된 도,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1977년 3월 4일에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투표에는 외국에 려행하고있는 선거자들을 제외하고 선거자명부에 등록된 전체 선거자의 100%가 참가하였으며 전체 선거자들의 100%가 도,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선거위원회에 등록된 대의원후보자들에게 각각 찬성투표하였다.

우리 인민들은 로동자, 농민의 혁명주권을 반석같이 다지려는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지방주권기관 대의원선거에 참가하였으며 모두가 이 경사스러운 전국가적사업에서 주권의 주인된 정치적권리를 떳떳이 행사하고 공화국공민된 의무를 빛나게 수행하였다.

도,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이룩된 이러한 력사적인 성과는 우리 인민을 항상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에로 이끌어주고계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전체 인민의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 뜨거운 충성심의 표시로 된다.

이것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는 우리 당과 로동

자, 농민의 혁명정권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 인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다시한번 국내외에 널리 시위한것으로 된다.

우리 인민의 불패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더욱 뚜렷이 보여준 이번 선거에서는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히 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하며 혁명과 건설 투쟁속에서 단련된 인민의 진정한 대표들이 도,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였다.

선거된 도,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수는 다음과 같다.

도인민회의 대의원 3,244명, 그중 녀자 763명,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 24,268명, 그중 녀자 6,300명.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이 혁명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대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 빨리 다그치며 우리의 혁명력량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하겠습니다.》(《신년사》 1976년, 단행본, 11～12페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의 요구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대중적으로 벌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쳐나가기 위한 전인민적인 총동원운동이다.

천리마작업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심화발전시킨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속도전의 요구를 구현하고있으며 근로자들의 사상개조사업과 경제문화건설에서 집단적혁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나가는 대중적운동이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구호밑에 벌어지는 이 운동은 우리 인민들의 사상정신생활과 경제문화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되고있으며 날이갈수록 더욱더 커다란 생활력을 보여주고있다.

이해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3대혁명소조들은 당조직과 함께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를 더욱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중적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게 하였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사상관점과 활동방식에서는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났다.

우리 근로자들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살며 일하는 사상정신적풍모가 높이 발휘되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는 혁명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과 높은 책임성이 어느때보다 높이 발휘되였으며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는 공산주의적미풍이 활짝 꽃피여났다. 우리의 혁명대오안에는 주체의 밝은 폐만이 넘쳐흐르고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이 더욱 불패의것으로 다져졌다.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인민경제 여러부문에서 기계화, 자동화를 널리 실현하고 생산과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켰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수송혁명 200일전투》에 떨쳐나선 우리의 수송전사들과 3대혁명소조원들, 지원자들은 이해에 청진—무산사이, 단천—검덕사이의 철도전기화를 끝마치고 82개의 집중화물역을 건설하였으며 집중수송, 련대수송, 짐합수송 방침을 받아들여 그전에 비해 매일 평균 4만 6천톤의 짐을 더 실어나르는 성과를 거두었다.

채취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탄광, 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건확장하고 기술장비를 개선하여 늘어나는 석탄, 광석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였다.

근로자들의 힘찬 투쟁으로 완충의 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된 결과 새 전망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점령할수 있는 튼튼한 토대가 닦아졌다.

우리의 농업근로자들과 이 부문에 파견된 3대혁명소조원들은 이해에 례년에 드문 불리한 자연조건에서도 혹심한 왕가물을 이겨내고 전례없는 대풍을 이룩하여 850만톤의 알곡고지를 승리적으로 점령하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심장으로 받아안고 한결같이 떨쳐나선 우리의 로동자, 협동농민, 군인, 사무원, 학생들은 온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에 수많은 저수지와 양수장을 새로 일떠세우고 8만 4,900여개의 우물과 굴포를 파고 6,200여개의 졸짱을 박아 우리 농촌을 주체사상의 요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요구에 맞게 해마다 풍년드는 협동벌로 꾸리였다.

이해에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대중적으로 벌어졌다. 근로자들속에서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전개되였

다.

모든 근로자들이 기술전습체계, 공장고등전문학교와 공장대학 등 일하면서 공부하는 체계에 망라되여 기술문화수준을 한층 높이였다.

장엄한 대중적진군운동속에서 서로돕고 이끌면서 모두가 다같이 공부하고 지혜와 힘을 합쳐 기술을 혁신하며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 자력갱생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기들앞에 나서는 과제를 훌륭히 수행하는 혁명적기풍이 온 사회에 나래쳤다.

1977년에 농촌경리부문에서 특출한 성과를 이룩하여 영예의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 단위들은 다음과 같다.

3대혁명붉은기 (국기훈장 제1급)

1. 평양시 계관근위만경대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
2. 평양시 만경대구역 계관근위만경대협동농장
3. 평양시 만경대구역 계관근위칠골협동농장
4. 평안남도 강서군 계관근위청산협동농장
5. 평안남도 문덕군 계관근위룡오협동농장
6. 평안남도 숙천군 계관근위사산협동농장
7. 황해남도 재령군 계관근위북지협동농장

3대혁명붉은기 (계관근위칭호,
국기훈장 제1급)

1. 평안북도 운전군 운하협동농장
2. 함경남도 신흥군 서곡협동농장

3대혁명붉은기수여에 관한 규정

1. 3대혁명붉은기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참가한 단위들가운데서 결의목표를 빛나게 수행하고 이 운동에서 모범으로 되고있으며 3대혁명붉은기수여를 위한 판정위원회의 판정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들에 수여한다.

2. 3대혁명붉은기수여를 위한 판정위원회(이 아래부터는 판정위원회라고 한다.)를 중앙과 도, 시, 군에 둔다.

각급 판정위원회는 비상설기관으로서 인민위원회 일군들과 당일군들, 3대혁명소조 책임자들, 근로단체일군들, 해당부문의 행정경제일군들로 조직한다.

각급 판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2명, 일정한 수의 위원들로 구성한다.

3대혁명붉은기수여를 위한 판정사업은 따로 정한 《3대혁명붉은기 수여기준과 판정요강》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3. 3대혁명붉은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으로 수여한다.

4.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는 단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표창장을 수여하고 그 성원들에게는 3대혁명영예휘장을 수여하며 동시에 다음과 같이 국가적으로 표창한다.

•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는 작업반(또는 부서)이 2중천리마작업반인 경우에는 천리마영예상을 함께 수여한다.

•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는 직장(또는 분장)이 2중천리마직장인 경우에는 천리마영예상을 함께 수여한다.

• 공장, 기업소가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는 경우에는 근위칭호와 국기훈장제1급을 함께 수여하며 이미 근위칭호를 수여받은 단위에는 계관근위칭호와 국기훈장제1급을 함께 수여한다.

• 철도운수부문의 역, 대들이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는 경우에는 해당한 철도근위칭호를 함께 수여하며 이미 철도근위칭호를 수여받은 단위에는 한급 높은 철도근위칭호를 수여한다.

• 협동농장, 국영농목장이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는 경우에는 영예칭호를 수여하며 이미 영예칭호를 수여받은 단위에는 한급 높은 영예칭호를 수여한다.

•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의 군부대, 구분대가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는 경우에는 국기훈장제1급을 함께 수여한다.

• 이미 계관근위칭호를 수여받은 공장, 기업소, 국영농목장, 협동농장들과 이미 철도근위1급칭호를 수여받은 역, 대들이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는 경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표창장과 국기훈장제1급 및 계관근위칭호에 따르는 상금 또는 선물을 수여한다.

• 과학교육, 문화예술, 출판보도 및 보건부문의 기관들이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는 경우에는 국기훈장제1급을 함께 수여한다.

•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서 특출한 공훈이 있는 일군들에 대하여서는 해당단위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할 때 함께 국가표창한다.

5.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받은 단위들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계속 앞장서나갈 대신에 커다란 결함을 나타내였을 경우와 성원의 50%이상이 조동되였거나 교체되여 재판정한 결과 3대혁명붉은기수여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3대혁명붉은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결정으로 박탈할수 있다.

3대혁명붉은기 그림풀이

3대혁명붉은기는 작업반(부서, 중대), 직장(분장, 대대) 및 공장, 기업소, 기관, 련대에 수여하는 크기가 서로 다른 3개 종류의 기발로 구분한다.

3대혁명붉은기의 크기는

공장, 기업소, 기관, 련대에 수여하는 기발은 길이 115센치메터, 너비 175센치메터이고 직장(분장, 대대)에 수여하는 기발은 길이 100센치메터, 너비 160센치메터이며 작업반(부서, 중대)에 수여하는 기발은 길이 90센치메터, 너비 150센치메터이다.

3대혁명붉은기는 붉은바탕에 금색수실이 달려있으며 기발왼쪽은 기발대에 련결되여있다.

기발앞면중심에 원형으로 된 그림이 있다.

그림 맨 우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인민의 향도적력량이며 조선혁명의 참모부인 조선로동당의 마크가 있으며 그림 한복판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천리마작업반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상징하여 질풍같이 달리는 천리마에 《김일성저작선집》을 가슴에 안고 《3대혁명》이라고 쓴 붉은기를 억세게 틀어쥔 남성로동자와 벼단을 쥔 녀성농장원이 앉아있다.

그림 아래부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날로 륭성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을 상징하여 수력발전소 언제와 용광로, 공장과 규격화된 포전, 교육문화기관들과 텔레비죤방송탑, 화려한 고층아빠트와 산밑에 자리잡은 아담한 농촌문화주택 등이 있다.

이 그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를 높이 받들고 전체 인민이 로동계급이 령도하는 로농동맹에 기초하여 철석같이 통일단결되여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보위하며 공산주의건설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앞당겨 점령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상징하여 목란꽃으로 장식한 월계수로 묶은 치차와 벼이삭으로 둘러싸여있다.

그림밑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라는 금빛글자가 수놓아져 있다.

기발의 뒤면에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앞당겨점령하자!》라는 구호가 금빛으로 수놓아져있다.

3대혁명영예휘장 그림풀이

이 휘장은 금빛광선이 해살처럼 빛나는 10각을 두른 직경 35미리메터 크기의 원형으로 되여있다.

휘장의 중심에는 21미리메터크기의 동그라미가 있고 그안에 질풍같이 달리는 천리마가 있고 《김일성저작선집》을 가슴에 안고 《3대혁명》이라고 쓴 붉은기를 억세게 틀어쥔 남성로동자와 벼단을 든 녀성농장원이 앉아있다.

동그라미는 3미리메터폭으로 웃부분은 치차, 아래부분은 벼로 묶은 벼이삭으로 둘러싸여있다.

이 휘장의 뒤면에는 옷에 달기 위한 빈침이 있다.

주요 회의 및 기념일행사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

1977년 1월 25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민족의 영구분렬과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길데 대하여》를 토의하는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가 진행되였다.

통일구국의 숭고한 사명을 안고 진행된 이 련석회의에서는 민족앞에 다가온 영구분렬의 위험을 막고 긴장상태를 가시며 조국통일을 앞당겨 나가기 위한 공명정대하고도 합리적인 방안을 제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주장하고있는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은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킨 다음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남북통일을 실현하자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198페지)

회의에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공명정대하고도 합리적인 방안이 다시금 천명되였다.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영구분렬과 전쟁위험을 없애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통일을 지향하는 북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과의 대련합을 실현하여야 한다.

북의 사회주의력량과 남의 애국적민주주의력량은 다같이 파쑈를 반대하고 민주를 지향하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하며 분렬을 반대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공통된 립장을 가지고있으며 량자사이에는 민족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아무런 모순도 없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또한 북과 남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핵전쟁의 위험을 없애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남조선에서 핵기지가 철폐되고 미국이 끌어들인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살인무기들이 철수되여야 하며 미국군대는 무조건 철거하여야 한다. 동시에 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을 중지하며 군대와 군비를 축소하고 외국으로부터의 무기반입을 중지시키기 위한 군비축소회담을 열도록 해당 군사당국에 요구할것을 제의한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서는 또한 민족내부에서 불화의 근원을 없애고 민족적

대단결의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공포분위기와 긴장상태를 조성하면서 민족적대단결을 파괴하는 파쑈적이며 분렬주의적인 폭압제도는 제거되고 민주주의가 실현되여야 하며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애국적민주인사들과 인민들은 무조건 석방되여야 한다. 상대방을 공격하는 비방중상은 중지되여야 하며 동족을 적대시하는 《반공》정책은 취소되여야 한다. 나아가서 오해와 불신임을 가시고 민족적뉴대를 다시 잇기 위하여 다방면적인 경제적합작을 실현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상의 모든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하여 북과 남의 제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것을 정중히 제의한다.

《두개 조선》을 정책으로 선포한 남조선의 현당국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더는 아무것도 해결할수 없다는것이 명백하게 된 오늘 전체 조선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이 한자리에 모여앉아 조국통일의 길을 모색하는것은 더욱 절박한 문제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빠른 시일안에 판문점이나 그 밖의 합의되는 임의의 장소에서 위임된 련락대표들의 예비적 실무회의를 가지는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회의에서는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 등 각계각층 인민들과 애국적민주인사들이 우리와 함께 민족의 운명을 걸고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음모를 저지파탄시키고 통일독립된 하나의 조선을 건설할 영광의 그날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것을 호소하였다.

회의에서는 제정당, 사회단체들의 이름으로 남조선의 제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렬한 지지찬동속에 채택되였다.

직총중앙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

직총중앙위원회 제12차전원회의가 3월 28일부터 30일까지의 사이에 황해북도 사리원시에서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신년사》(1977년)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조선직업총동맹 제5차대회에서 하신 연설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직업동맹의 성격과 임무에 대하여》가 전달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이 정권을 틀어쥔 사회주의사회에서 직업동맹의 기본임무는 모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이 사회주의건설과 사회주의경리운영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당의 사상으로, 공산주의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133페지)

전원회의는 직맹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심화발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면서 특히 모든 직맹일군들이 전투현장에 뛰여들어 직맹원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교양, 혁명교양, 계급교양, 공산주의도덕교양을 더욱 강화하며 정치선동, 경제선동을 다양하게 진공적으로 벌려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혁명적열정으로 들끓게 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로 직맹원들을 더욱 힘있게 불러일으키면서 현실적요구에 맞게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또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직맹건설방침을 높이 받들고 직맹대렬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며 모든 동맹조직들이 사상교양단체로서의 전투적 기능과 역할을 높여 직맹원들의 로동계급화, 혁명화를 다그치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과업을 실현해나가는데서 맡겨진 임무를 빛나게 수행해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농근맹중앙위원회 제11차전원회의

농근맹중앙위원회 제11차전원회의가 1977년 3월 11일과 12일에 걸쳐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닭, 오리, 돼지 기르기를 잘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국영목장들에서 닭을 집중적으로 치도록 하는것과 함께 농촌집들에서도 닭을 치는 운동을 널리 벌려야 하겠습니다.》(《사회주의농촌건설을 더욱 다그칠데 대하여》, 단행본, 81～82페지)

전원회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을 공급하기 위하여 현대적인 큰 규모의 닭공장, 오리공장, 돼지공장들에서 생산을 늘이는 한편 집짐승기르기를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릴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고 그 방도를 밝혀주신데 대하여 지적하고 모든 농근맹조직들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닭, 오리, 돼지 기르는 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내밀어 고기와 알 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농근맹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농업생산과 함께 고기와 알 생산을 맡은 농업근로자로서의 혁명적본분을 다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한 과업이라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주어진 조건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협동농장 정미소마다 200마리, 탈곡장마다 100마리, 농촌집마다 5마리이상의 닭을 치며 마리당 닭알을 180～200개이상씩 내기 위한 투쟁을 벌릴데 대한 과업과 그 실천대책을 지적하였다.

또한 전원회의는 오리와 돼지 기르기를 군중적으로 벌려 농촌집마다 100키로그람, 작업반마다 2～3톤의 고기를 낼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는 먹이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며 집짐승사양관리와 수의방역에 대한 지식을 널리 보급할데 대한 과업도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해당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사로청중앙위원회 제16차전원회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로청조직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하는 사로청중앙위원회 제16차전원회의가 1977년 11월 14일과 15일에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는 먼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교시들과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가 전달되였다.

보고에 이어 많은 참가자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사상교양은 사회주의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정치사상교양을 잘하여야 학생들을 혁명적세계관이 서고 공산주의적인간의 사상도덕적품모를 갖춘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다.**》(《김일성저작선집》, 7권, 420페지)

전원회의는 정치사상교양사업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청소년학생들을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것이라고 강조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들과 교시들을 깊이 연구학습하도록 하며 혁명교양, 계급교양, 공산주의도덕교양과 사회주의적애국주의교양을 함께 밀고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사로청조직들이 청소년학생들을 풍부한 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진 사회주의건설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튼튼히 키우는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전원회의는 모든 청소년학생들이 혁명적학습기풍을 확립하고 만페지책읽기운동과 글쓰기운동을 힘있게 벌리며 모두가 기사, 기수의 자격과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또한 체력을 튼튼히 단련하고 조직생활을 더욱 강화하며 나라에 리익을 주는 여러가지 좋은일하기운동을 활발히 전개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해당한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사로청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7년 2월 25일 사로청중앙위원회일군들앞에서 하신 연설 《**사로청조직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를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는 사로청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3월 8일부터 10일까지 평성시에서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먼저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로청중앙위원회일군들앞에서 하신 연설을 전달한 다음 사로청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고 많은 참가자들이 토론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사로청조직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학교 사로청사업과 소년단사업에 큰 힘을 넣어 학생들의 지식수준을 높이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7권, 330페지)

전원회의에서는 사로청조직들이 학생들의 지식수준을 높일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여러가지 운동을 힘있게 벌려 《영예의 최우등학급》, 《영예의 최우등분단》을 더욱 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청년학생들속에서 글쓰기운동을 벌리며 외국어학습과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하여 3대혁명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하며 일하면서 배우는 체계에도 망라되여 새 기술보급에 앞장설것을 강조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청소년학생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 특히 당의 유일사상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혁명의 대를 이어나갈 믿음직한 계승자로 준비시킬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전원회의는 사로청조직들앞에 나선 영예로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하여 사로청간부양성사업을 잘하며 일군들의 사업체계와 방법을 개선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끝까지 관철해나가는 사업기풍을 확립해야 한다고 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해당한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녀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녀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1977년 3월 10일과 11일에 걸쳐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탁아소, 유치원 사업을 개선강화하여 모든 어린이들을 혁명의 후비대로 튼튼히 키우며 사회적으로 좋은일하기운동을 널리 벌려 인민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녀맹조직들과 녀맹원들의 과업을 토의하였다.

먼저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린이보육교양부문에 주신 교시와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녀맹조직들앞에 제시하신 교시가 전달되였다.

이어 보고와 토론들이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교육사업이 다 중요하지만 그가운데서도 어린이들을 키우는 보육원이나 교양원 사업이 더 중요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444페지)

전원회의는 첫째의정토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린이보육교양부문에 주신 교시집행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총화하고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더욱 개선할데 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전원회의는 보육원, 교양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과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드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혁명적학습기풍을 세우고 사회주의교육학과 아동심리학, 보육학을 비롯한 전문지식을 부단히 습득하며 방식상학과 경험교환회를 자주 조직하고 보육교양법을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어린이들을 어려서부터 어버이수령님의 참된 아들딸로 키워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탁아소, 유치원을 문화적으로 알뜰히 꾸리고 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하며 관리운영사업을 실속있게 할데 대한 대책을 제기하였다.

둘째의정을 토의하면서 전원회의는 누에치기운동을 군중적으로 벌려 이해에 녀맹원들의 힘으로 5천여톤의 누에고치를 생산하며 집짐승을 많이 기르고 기름작물생산을 늘이며 가내작업반, 편의협동조합을 널리 조직운영하여 인민생활을 가일층 향상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전원회의는 해당한 결정서들을 채택하였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제64차회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제64차회의가 1977년 10월 18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즈음하여 전체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호소문채택에 대하여》가 토의되였다.

호소문은 11월 11일에 진행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과 불타는 애국적정열을 남김없이 발휘할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호소문은 계속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치며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우리의 혁명력량을 더욱 강화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다그쳐나가며 천리마조선의 영예를 다시한번 온 세계에 떨칠것을 힘있게 호소하였다. 호소문은 끝으로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근로인민의 리익을 위하여 헌신복무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들에게 100% 찬성투표할것을 호소하였다.

회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즈음하여 전체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호소문을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9돐기념 중앙보고대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9돐기념 중앙보고대회가 1977년 9월 8일 2.8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기념보고대회에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항일혁명투사들, 근로단체 일군들, 과학, 교육, 문화, 예술, 보건, 출판보도부문 일군들, 시안의 근로자들, 인민군 군인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대회에는 조국을 방문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9돐 재일조선인축하단, 총련지부일군대표단, 제5차재일조선교육일군대표단, 총련에도가와지부 및 우에노제2분회대표단, 재일본조선민주법률가협회대표단, 총련무역상사일군대표단, 제35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에 머무르고있는 외국대표단들과 우리 나라에 와있는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 외국손님들이 대회에 초대되였다.

기념보고대회에서는 먼저 기념보고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며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혁명적인 정권이다.》(《김일성저작선집》, 6권, 370폐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인민정권건설의 풍부한 경험을 이룩하시고 혁명적골간을 수많이 키우신데 토대하시여 북반부에 강력한 인민정권을 마련하시고 그것을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였다.

1948년 9월 9일 공화국의 창건과 더불어 전체 조선인민은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수반으로 높이 모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창건후 지난 스물아홉해동안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따라 조국땅우에 선진적인 사회주의제도를 마련하여놓았으며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를 가진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켰다.

보고자는 1976년에 우리 인민이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6개년계획과제를 수행하는 자랑찬 승리를 이룩한데 대하여 긍지높이 이야기하면서 1977년 완충의 해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키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계속하여 보고자는 최근년간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달성된 성과들에 대하여 개괄하면서 이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전적으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열매이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자랑찬 승리이라고 말하였다.

다음으로 보고는 민족분렬의 력사를 끝장내고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는것은 우리 민족최대의 숙원이며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하였다.

보고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을 높이 받들고 우리 인민이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이룩하고야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회에서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9돐을 축하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보내온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축기가 전달되였다.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9돐 재일조선인축하단 단장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만경대혁명학원창립 30돐기념보고회

만경대혁명학원창립 30돐기념보고회가 1977년 10월 11일 현지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기념보고회에는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관계부문 일군들, 그리고 이 학원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 합창으로 시작된 보고회에서는 먼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 학교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주신 축하문이 전달되였다.

이어 기념보고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혁명가유자녀교육전통을 마련하시고 이 깊고 억센 뿌리에서 해방후 첫 정규적 유자녀교육기관인 만경대혁명학원을 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해방후 안팎의 정세가 복잡하고 혁명앞에 무거운 과업이 나섰던 그 어려운 조건에서도 혁명가유자녀들의 교육교양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이룩된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유자녀교육전통에 토대하여 1947년 10월 12일 만경대혁명학원을 세웠습니다.》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해방후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친히 찬서리와 잡초를 헤치시며 학원터전을 잡아주시였고 농민들이 첫 분여농사의 기쁨을 안고 나라에 바친 애국미를 학원건설에 쓰도록 하여주시는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그이께서는 전국각지는 물론 외국에까지 사람들을 파견하시여 흩어져있는 혁명가유자녀들을 모여오게 해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속에서 1947년 10월 12일 만경대혁명학원은 자기의 창립을 세상에 선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가유자녀교육의 혁명적본질과 계급적성격, 유자녀교육에서 견지하여야 할 제 원칙과 관리체계, 교육내용과 방법들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해주시였으며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학원사업을 220여차례나 현지지도해 주시고 370여차례의 강령적교시를 주시여 학원을 믿음직한 혁명의 핵심적후비골간육성기지로 꾸려주시였다.

학원이 걸어온 지난 30년간의 력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의 유자녀교육사상과 교육방침이 빛나게 구현되여온 자랑찬 력사이며 유자녀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이끌어오신 위대한 사랑의 력사이다.

기념보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리과대학창립 열돐 기념보고회

리과대학창립 열돐 기념보고회가 1977년 2월 13일 평성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는 관계부문일군들과 이 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배려에 의하여 교직원, 학생들에게 보내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공동명의로 된 축하문이 전달되였다.

이어 기념보고가 있었다.

력사상 처음으로 주체적인 교육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우리 당의 빛나는 교육전통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과학발전의 전망을 내다보시고 과학자를 전문으로 양성하는 대학을 내올데 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였으며 1967년 1월에 리과대학을 창립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과 건설에 주인답게 참가할수 있는 사상과 지식과 건장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혁명인재로 키우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6권, 278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대학에서는 교직원, 학생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사상교양사업과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리는 한편 정치과목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고 리론과 실천,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할데 대한 당의 교육방침을 철저히 관철해나감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이 확고히 서고 현대과학기술지식을 소유한 열렬한 주체형의 혁명가, 능력있고 쓸모있는 과학자로 자라나도록 하였다. 오늘 리과대학은 과학연구사업과 나라의 기술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있다.

모임에서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평양교예단, 중앙방송예술단,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조선인민군협주단 창립 기념보고회들

1977년에 평양교예단과 중앙방송예술단 창립 스물다섯돐, 조선예술영화촬영소와 조선인민군협주단 창립 서른돐을 각각 기념하였다.

6월 21일에 평양교예단, 8월 19일에는 중앙방송예술단 창립 스물다섯돐기념보고회들이, 3월 2일에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2월 1일에는 조선인민군협주단 창립 서른돐기념보고회들이 진행되였다.

창립 30돐을 맞이한 조선예술영화촬영소와 조선인민군협주단 모임들에서는 먼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들이 전달되였다.

모임들에서는 기념보고들이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큰 역할을 맡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62페지)

보고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혁명적문예활동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신데 기초하여 평양교예단(1952년), 중앙방송예술단(1952년 8월), 조선예술영화촬영소(1947년 2월), 조선인민군협주단(1947년 2월)을 무어주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보고자들은 또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사랑속에서 지난기간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을 총화하면서 그이께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였다.

기념보고회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맹세문들이 채택되였다.

7.4남북공동성명발표 다섯돐기념 평양시보고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한 7.4남북공동성명발표 다섯돐기념 평양시보고회가 7월 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은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330～331페지)

나라의 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되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을 초석으로 하는 7.4공동성명의 발표는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방침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된 고귀한 성과이다.

7.4남북공동성명은 그 진리성과 정당성으로 하여 전체 조선인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세계 인민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북과 남사이의 대화가 더 열리지 못하고 조국통일의 앞길에 더욱 엄중한 난관이 조성되게

된것은 전적으로 미제의 침략정책과 그의 부추김밑에 외세의존과 파쑈, 전쟁과 영구분렬을 추구하는 박정희괴뢰도당의 배신행위때문이다.

보고자는 온 민족의 힘을 합쳐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국통일을 이룩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4월봉기 17돐 평양시기념보고회

4월 18일 모란봉극장에서 남조선인민들의 4월봉기 17돐 평양시기념보고회가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보고가 있었다.

남조선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독재와 예속을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는 마산시민들의 투쟁에 뒤이어 1960년 4월 19일 전인민적인 항쟁에 떨쳐나섰다.

항쟁자들은 《리승만은 물러가라》, 《경찰국가 타도하자!》, 《짓밟힌 민주주의를 바로잡자》 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결사전을 벌려 마침내 미제의 식민지통치기구인 리승만독재《정권》을 꺼꾸러뜨렸다.

이것은 전후 남조선인민들의 반미반독재구국투쟁에서 쟁취한 첫 승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4.19봉기를 계기로 남조선에서 미제의 식민지통치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정세는 혁명의 편에 리롭게 전변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82폐지)

4월인민봉기는 미제의 식민지통치체제를 밑뿌리채 뒤흔들어놓았으며 원쑤들을 심각한 위기에 몰아넣었다.

그러나 4월인민봉기는 혁명적당의 올바른 령도를 받으면서 끝까지 철저히 투쟁하지 못하였으며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이 참가하지못한것으로 하여 투쟁의 열매를 미제의 다른 주구들에게 빼앗기고말았다.

4월인민봉기이후 남조선인민들은 더욱 각성하고 혁명력량은 급속히 장성하였으며 투쟁은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배격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에로 발전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을 높이 받들고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게 공화국북반부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이름으로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냈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의 6.3봉기 13돐기념 평양시청년학생보고회

남조선청년학생들의 6.3봉기 13돐기념 평양시청년학생보고회가 6월 2일 평양학생소년궁전극장에서 진행되였다.

관계부문일군들과 시안의 대학 학장들, 청년학생들이 참가한 모임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3월 24일부터 6월 5일까지 70여일동안에 걸친 학생청년들의 이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투쟁은 박정희도당과 미제에게 또 하나의 큰 타격을 주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237폐지)

범죄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일어난 청년학생들의 6.3봉기는 1964년 3월에 터져 70여일간이나 줄기차게 벌어졌으며 6월에 가서는 절정에 이르렀다.

이 투쟁은 《한일회담》을 짓부시기 위한 투쟁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차 반《정부》 성격을 띠고 미제와 박정희괴뢰정권을 때려부시는 투쟁으로 발전하였다.

구국투쟁에 떨쳐나선 청년학생들은 《매국적인 한일회담을 즉각 중지하라》, 《일본군국주의를 박살하라!》, 《미국은 가면을 벗으라!》, 《제2의 리완용은 물러가라!》, 《민족분렬을 일삼는 독재정권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격렬하게 싸웠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은 혁명적당의 올바른 령도밑에 로동자, 농민들과 굳게 단결하여 결정적인 투쟁을 하지 못한 탓으로 하여 승리를 이룩하지 못하였으나 미제와 그의 주구 박정희괴뢰도당과 재침책동에 날뛰는 일본반동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발표 다섯돐기념 평양시보고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의 발표 다섯돐을 뜻깊게 기념하여 1월 9일 2.8문화회관에서 평양시보고회가 있었다.

모임에서는 보고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우리 조국의 통

일문제는 자주적평화통일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기본방침을 다시금 밝히시고 그의 실현을 위한 중요대책으로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방안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남북사이에 접촉과 련계를 강화하며 조국통일문제를 풀기 위하여 남북정치협상을 진행할것을 주장합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25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방침은 통일문제를 철저히 우리 민족의 주체적힘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며 북과 남의 모든 애국력량이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수 있게 하는 획기적인 구국대책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방침은 내외 인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았으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남북정치협상방안이 제시된지 얼마 안되여 남북고위급회담이 열리고 그이께서 제시하신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였으며 공동의 정치협상기구인 남북조절위원회가 조직운영되게 되였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으며 특히 위대한 수령님을 통일조선의 유일한 령도자로 높이 모시려는 강렬한 지향이 바다처럼 차넘쳤다.

로작이 발표된후 지난 5년간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조선의 평화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나 다 접수될수 있는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방안들을 거듭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려왔다.

그러나 미제의 부추김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이 매달리고있는 외세의존정책과 파쑈정책, 전쟁정책, 《두개 조선》 조작책동으로 말미암아 남북대화는 파탄상태에 들어갔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나서는 영예로운 혁명과업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 25돐기념 중앙보고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하여 주신 강령적인 교시 25돐기념 중앙보고회가 1월 1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제도하에서 사람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보건사업을 발전시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더욱 증진시켜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64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무상치료제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고 해방직후인 1947년초부터 로동자, 사무원들에게 무상치료의 혜택을 베풀어주신데 기초하여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시기인 1952년 1월에는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하도록 하시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실시된 전반적무상치료제는 우리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의 결과이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가장 선진적인 전반적무상치료제도를 마련하여주신 이후에도 항일혁명투쟁의 나날 부상당한 대원들에게 자신께서 친히 쓰셔야 할 귀중한 약품까지 보내주시던 그 뜨거운 사랑으로 도시와 농촌의 현지지도의 길에서 먼저 로동자와 농민, 어린이와 늙은이들, 녀성들과 군인들의 건강부터 알아보시고 손수 치료대책까지 세워주시는 육친의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해방후 30년남짓한 기간에 사망률은 3분의 1로 줄고 평균수명은 30여년이나 늘어났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 주신 가장 선진적인 인민보건제도의 우월성과 불패의 생활력의 뚜렷한 과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47년 2월 28일 각 도 재정부장, 군재정과장 및 세관장련석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30돐기념 중앙보고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47년 2월 28일 각 도 재정부장, 군재정과장 및 세관장련석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30돐기념 중앙보고회가 2월 28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모임에서는 기념보고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고전적로작에서 자립적재정과 인민적재정에 관한 위대한 사상을 정식화하시고 그 실현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재정은 사회총생산물과 국민소득의 많은 부분을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 분배하면서 확대재생산의 균형을 보장하고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계통적으로 높이기 위한 자금을 공급합니다.》(《사회주의건

설에서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데 대하여》 단행본, 1폐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나라의 주체적재정은 그 규모에서나 질적구성에서 근본적변화를 가져와 혁명과 건설에 요구되는 자금을 전적으로 사회주의경리로부터의 수입으로 보장하는 공고한 자립적재정으로, 그어떤 정황에서도 나라의 모든 자금수요를 확고히 보장하는 생활력이 강한 사회주의재정으로 공고발전하였다.

끝으로 보고자는 우리 나라 주체재정을 더욱 공고발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같은날 각 도, 시, 군들에서도 기념보고회가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도시경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발표 열다섯돐 중앙기념강연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2년 9월 5일에 하신 연설《도시경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발표 열다섯돐 중앙기념강연회가 9월 4일 2.8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강연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도시경영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기념강연이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살림집들을 알뜰하고 쓸모있고 현대적이며 문화적으로 짓도록 하는데 응당 큰 관심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평양시를 비롯한 주요도시들에 중앙난방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이 더 편리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수 있게 하여야 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78폐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도시경영사업의 본질이 도시주민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흥겹게 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봉사사업이라고 천명하시고 이 사업에는 도시에 집중되여있는 근로자들의 살림집과 공공건물, 상하수도, 공원, 유원지, 교통시설과 같은 모든 공공시설들을 보호관리하는 사업이 포함된다는것을 독창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처음으로 밝히신 이 본질에 관한 사상에는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제도의 인민적성격이 뚜렷이 밝혀져있으며 우리 인민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마련해주시려는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가 담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도시경영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도시경영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실천적문제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도시경영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기념강연회는 각 도, 시, 군 소재지들에서도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에 즈음하여 진행된 중앙강연회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에 즈음하여 1977년 12월 2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중앙강연회가 진행되였다.

강연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치게 하는 새형의 우월한 헌법이다》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출연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금으로부터 5년전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와 우리 인민의 지향을 반영하시여 몸소 구상하시고 작성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을 발포하신데 대하여 지적하고 이것은 새형의 주체헌법의 탄생을 알리는 장엄한 선언이라고 강조하였다. 출연자는 계속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이라고 하면서 그의 참다운 우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가장 혁명적인 헌법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6권, 356폐지)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무엇보다도 불멸의 주체사상을 국가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선포한 최초의 주체헌법이며 또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게 하는 가장 혁명적인 헌법이라고 출연자는 강조하였다.

특히 국가주석의 유일적령도를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혁명적인 국가기관체계를 독창적으로 밝힌 공화국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밑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여주고있다.

공화국헌법은 또한 우리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있으며 그들의 요구를 가장 철저히 옹호하는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헌법이다.

출연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손수 마련하여주신 주체헌법을 가지고있는 크나큰 영예와 자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제2차7개년계획의 웅대한 목표를 승리적으로 점령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공화국사회주의헌법절에 즈음하여 각 도, 시, 군 소재지들과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조선인민군 및 조선인민경비대 구분대들에서도 강연회가 진행되였다.

사회주의경제건설

《수송혁명 200일전투》 성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올해에 무엇보다도 큰 힘을 넣어야 할 전선은 수송전선입니다.

수송전선을 추켜세우는것은 이미 점령한 고지들을 공고히 하며 새로운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신년사》 1977년, 단행본, 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해를 수송전선을 추켜세우는 해로 규정해주시고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 수송혁명방침을 환히 밝혀주시면서 《수송혁명 200일전투》를 벌릴데 대한 혁명적인 조치를 취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또한 전당, 전국, 전민이 수송전선을 지원하도록 이끌어주시면서 친히 영화예술인경제선동대, 피바다가극단경제선동대, 모란봉예술단경제선동대를 비롯한 예술선동대들을 파견하여주시였다.

《수송혁명 200일전투》는 실로 긴장한 수송문제를 혁명적으로 풀어나가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를 열어놓은 장엄한 전투였으며 완충의 해의 중심과업을 수행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생산적앙양을 가져오게 한 군중적인 전투였다.

수송전선에서는 1977년 5월부터 벌린 《수송혁명 200일전투》를 통하여 인민경제에 필요한 원료와 연료, 자재들을 제때에 날라다줌으로써 6개년계획의 높은 고지들을 점령하는 과정에 일시 생기였던 수송의 긴장성을 혁명적으로 풀어나갔다.

〈수송혁명 200일전투〉기간 하루 평균 수송량의 장성

수송형태	수송량
철도수송	1.2배
자동차수송	1.1배
배수송	2.3배

〔**철도수송**〕 수송전선에서는 철도운수를 기본으로 하여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철도수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렸다.

철도수송수단의 장성

수송수단	1971～1976
전기, 내연 기관차	1.5배
중량화차	1.8배
새철도건설	471km

위대한 수령님의 철도전기화의 구상에 따라 1977년에 구배가 심하고 물동량이 많은 청진—무산사이, 단천—검덕사이를 더 전기화하여 철도전기화 구간과 그 수송비중을 높였다.

철도전기화의 실현

기간	구간 (km)	비중 (%)
5개년계획기간		12
7개년계획기간	850	55
6개년계획기간	380	70

철도전기화에서 가장 앞선 나라의 하나로 발전한 우리 나라에서는 기본원선에서뿐아니라 내륙지대의 여러 가지선들에서 많은 화물을 전기기관차로 실어나르고있다.

특히 철도운영의 자동화에 큰 힘을 넣어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고 적지 않는 구간들과 역구내들을 자동화, 반자동화하였으며 중요기술역들을 잘 꾸려 집차무이능력을 2.5배로 높였다.

수송전선에서는 또한 철도수송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는데 기초하여 당의 집중수송, 련대수송, 집함수송의 방침을 빛나게 관철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집중수송방침을 받들고 수송전사들과 각지 로동계급들은 많은 집중화물역들을 건설하고 역구내선들을 늘였으며 전용선들을 잘 꾸려놓았다.

또한 철도부와 각 철도국의 참모부서들에서는 유일사령지휘체계를 확고히 틀어쥐고 화물별, 구간별, 방향별로 집중수송렬차를 대대적으로 무어 많은 원료, 연료, 자재들을 실어보냈다.

《수송혁명 200일전투》기간의 집중수송 성과

지 표	실 적
집중화물역 건설	82개
집중수송비중의 장성	17%
하루평균 더 나른량	4만 6천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집함수송방침을 받들고 수송전사들과 각지 로동계급들은 만능집함, 정광집함, 비료집함을 비롯한 여러가지 집함들을 더 많이 받아들였으며 유일적인 집함관리체계도 정연하게 세워놓았다.

원료, 자재들을 집함으로 나르니 짐을 넘겨싣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 좋았고 여러가지 수송수단들의 리용률이 높아져 또한 좋았다.

〔자동차, 배 수송〕 철도의 집중수송, 집함수송이 급격히 늘어나는 새로운 조건에 맞게 자동차수송, 배수송에서는 련대수송을 강화하였다.

자동차수송에서는 무엇보다먼저 기관, 기업소들이 가지고있던 화물자동차들을 시, 군 단위로 모아 통일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자동차들의 수송능력을 더 높이는데 힘을 넣었다.

련결차들을 자동차수송에 널리 받아들일데 대한 방침에 따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련결차들과 제실이장치와 제부림장치를 만들어 자동차들의 대당 수송능력을 더 높이였다.

자동차수송능력의 장성

련결차생산대수 1.7배
자동차대당능력 107.1%

자동차수송에서는 수송능력을 높인데 기초하여 집중화물역들에 들어온 큰짐, 많은 짐에 대한 가까운 거리수송과 작은짐, 적은짐에 대한 먼거리수송을 옳게 배합하여 자동차수송의 범위를 넓히였다.

가까운거리수송과 먼거리수송의 장성은 철도의 집중수송, 집함수송의 위력을 더잘 보여주었을뿐아니라 철도수송의 부담을 훨씬 덜어주고 철도수송의 긴장성을 푸는데 이바지하였다.

배수송에서는 해상수송과 강하천수송에 힘을 넣으면서 우리 나라 배에 의한 대외화물수송도 적극 늘이였다.

배수송에서는 우리 나라 강하천들과 연해의 특성에 맞는 끌배와 끌림배들을 비롯한 여러가지 짐배들을 많이 받아들여 철도, 자동차와의 련대수송을 잘하였다.

대외무역수송에서는 큰배들이 많이 늘어난 실정에 맞게 무역항들을 현대적으로 개건확장하여 6개년계획기간에 무역화물통과능력을 2.7배로 높였으며 대외무역수송수요도 잘 보장하였다.

수송전선에서는 집중수송, 련대수송, 집함수송의 3대수송방침과 더불어 관수송, 삭도수송, 벨트콘베아수송의 3화수송방침도 철저히 관철하여 수송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켰다.

〔청진—무산사이전기철도 개통〕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과 철도건설자들은 1977년 정초에 청진—무산사이 철도전기화공사를 끝내고 경애하는 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드리였다.

이들 건설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조국광복의 원대한 뜻을 품으시고 52년전 《광복의 천리길》에 나서신 력사의 날에 즈음하여 청진—무산사이 전기철도개통을 충성의 선물로 드리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 바치는 우리 시대 로동계급과 청년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새로운 높이에서 보여주는 훌륭한 모범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철도전기화를 계속 힘있게 밀고나가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7권, 65페지)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과 철도건설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발휘하여 방대한 전주세우기와 전차선늘이기, 변전소와 역사건축, 구내확장공사를 짧은 기간에 해제꼈다.

1월 22일 청진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신 첫 《붉은기》호 전기기관차가 무산을 향해 달렸다.

청진—무산사이의 전기철도건설은 채취공업을 앞세우고 강철공업을 발전시켜 나라의 정치, 경제적위력을 강화하며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또한 청진—무산사이의 전기철도가 건설된 결과 우리 나라 북부공업지구의 동맥을 담당하고있는 중요가지선의 물질기술적장비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화물수송량과 렬차통과능력이 2배이상 높아져 수송의 긴장성을 푸는데서 획기적인 전환을 일으키게 되였다.

청진—무산사이의 전기철도는 이 구간의 정광수송관과 함께 김책제철소를 비롯한 야금공장들의 생산능력이 대대적으로 확장된데 따라 늘어나는 정광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게 됨으로써 새로 건설한 야금기업소들을 만부하로 돌릴수 있게 되였다.

전기철도완공과 관련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1월 22일 청진—무산사이의 철도전기화공사에 참가한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과 철도건설자들에게 축하편지를 보냈다.

〔단천—검덕사이 전기철도개통〕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송의 긴장성을 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철도전기화를 계속 밀고나가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7권, 234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단천—검덕사이의 철도를 전기화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공사진행정형을 료해하시고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시였다.

그리하여 방대한 단천—검덕사이의 철도전기화공사는 불과 여덟달동안에 성과적으로 끝났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단천—검덕사이의 철도전기화공사가 완공된것과 관련하여 이 공사에 참가한 청년돌격대원들과 철도건설자들에게 축하문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금골의 학생들이 단천—검덕사이의 철도전기화를 실현할데 대한 교시를 높이 받들고 좋은일하기운동을 적극 벌려 만든 전기기관차를 《붉은기금골소년호》라고 이름을 지어주시였다.

11월 25일 금골청년역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신 《붉은기금골소년호》 5200호와 5201호가 청년돌격대원들과 철도건설자들이 탄 첫 개통렬차와 광석들을 실은 짐차들을 끌고 단천을 향해 떠났다.

단천—검덕사이의 철도전기화가 성과적으로 실현된 결과 검덕과 룡양 광산을 비롯하여 이 지구에서 늘어나는 수송문제를 보다 원만히 풀수 있게 되였다.

청년돌격대원들과 철도건설자들은 보통 2년이상 걸려야 할 단천—검덕사이 철도전기화공사를 단 8개월사이에 끝내는 위훈을 통하여 청년돌격대운동의 커다란 생활력을 다시한번 똑똑히 보여주었다.

〔2만톤짜리짐배 《청천강》호 건조〕 우리 나라의 한 조선소에서는 8월 31일 또 하나의 2만톤짜리짐배 《청천강》호를 무어 바다에 띄웠다.

큰 짐배를 많이 무어낼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4개월 남짓한 기간에 건조한 이 배는 우리 나라 주체적선박공업의 위력을 시위하는 또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이다.

하나의 큰 섬과도 같은 이 배는 그 어떠한 불리한 바다조건에서도 자유롭고 안전하게 갈수있는 현대적설비들과 상하선설비들을 갖추고있을뿐아니라 짐싣기와 부리기, 열관리 등 모든 작업공정을 원격조종에 의하여 움직이게 되였다.

실로 2만톤짜리짐배의 건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어주시고 키워주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이 낳은 자랑찬 열매이며 자립적민족경제건설로선의 정당성에 대한 빛나는 시위였다.

공업생산이 두배반 장성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로동계급들은 공업부문 내부구조를 완비하며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공업전선에서 거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업전선에서는 6개년계획의 주요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고 공업총생산액적으로 6개년계획을 1년 4개월이나 앞당겨완수하는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신년사》 1976년, 단행본, 3페지)

우리의 로동계급들이 거둔 가장 자랑찬 성과는 공업총생산액을 6개년계획에 예견하였던것보다 더 많이 장성시킨것이다.

공업총생산액의 장성

지 표	계획	실적
공업총생산액	2.2배	2.5배
그중 생산수단생산	2.3배	2.6배
소비재생산	2배	2.4배

이 기간에 영웅적로동계급들은 7개년계획기간보다는 물론 6개년계획에 예견된 년평균발전속도보다도 더 빨리 달려나갔다.

공업생산의 년평균 발전속도

계획기간구분	발전속도
7개년계획기간속도	12.8%
6개년계획기간속도	16.3%

특히 우리의 공업은 1977년에 7개년계획의 첫 5년동안 생산하던것보다 더많은 공업생산물을 단 한해동안에, 그리고 1944년 한해동안 만들던 공업생산물을 불과 며칠동안에 만드는 수준에 올랐다.

공업생산능력의 장성(1944년)

대비년도	생산기간
1970년	12일간생산
1977년	5일간생산

6개년계획기간 공업전선에서 이룩한 높은 발전속도는 우리의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주체공업의 위력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보여주고있다.

〔채취공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채취공업부문의 충직한 로동계급은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방침을 받들고 탄광, 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건확장하고 기술장비를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석탄과 광물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였습니다.》(《신년사》 1978년, 단행본, 3폐지)

채취공업부문의 로동계급들은 6개년계획의 석탄고지를 1년 4개월 앞당겨점령하였으며 6개년계획의 광물생산과제도 빛나게 완수하였다.

특히 이들은 채취공업에 힘을 넣을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1977년에 석탄생산을 1.2배로, 쇠돌생산은 1.3배로 각각 높였으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빨리 늘어나는 연료와 원료에 대한 수요를 더욱 원만히 보장하였다.

6개년계획의 5천만톤의 석탄고지를 성과적으로 점령한데 뒤이어 1977년에 석탄생산을 또다시 높인 결과 우리 나라는 인구 한사람당 석탄생산량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의 하나로 되였다.

이 성과는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앞세우는것을 인민경제발전의 확고한 원칙으로 규정하시고 나라의 채취공업발전에 언제나 선차적관심을 돌려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 제5차대회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당중앙위원회의 첫 정치위원회에서 또다시 전당, 전국이 채취공업전선을 지원할데 대한 력사적인 결정을 채택하게 하시고 6개년계획의 돌파구를 열어제끼는 이 전투를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우리의 탄부들과 광부들은 이 전투에서 급속히 발전하는 가공공업에 채취공업을 확고히 앞세울수 있도록 연료원료기지들을 개건확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덕성탄광, 서창탄광, 금야청년탄광을 새로 개발하고 룡등탄광, 신창탄광을 비롯한 많은 탄광들을 대규모적으로 확장하였으며 안주종합탄광, 아오지탄광, 고건원탄광을 비롯한 유연탄전의 수직갱들을 새로 건설하였다.

덕천, 개천, 구장지구의 탄광련합기업소들과 득장탄광, 안주종합탄광의 영웅적탄부들은 1977년에 충성의 《사회주의애국탄증산》운동을 힘있게 벌려 석탄생산량을 1976년에 비하여 2배로 높였다.

광업부문에서는 태탄광산을 새로 개발하고 무산광산, 은률광산, 덕현광산들을 개건확장하여 빨리 발전하는 흑색야금공업의 믿음직한 원료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렸다.

또한 검덕광산을 현대적기술로 장비한 대규모광산으로 확장하고 량강도지대에서 새로운 광산들과 합금강원료광산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여러가지 유색금속광물생산을 빨리 늘였다.

우리의 탄부들과 광부들은 또한 설비들을 대형화, 현대화, 고속도화하고 운반작업을 다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여 채취공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였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기계전사들의 지원을 받아 채굴장들에 현대적인 운반수단들과 신고부리는 설비들, 대형굴착기들과 300마력불도젤들, 대형중량자동차들을 수많이 받아들였다.

또한 검덕광산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을 늘인것을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 탄광, 광산들에서 운반작업을 관화, 벨트콘베아화, 삭도화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기술혁명을 힘있게 실현한 결과 우리의 채취공업은 온 세계가 《원료위기》, 《연료위기》로 허덕이고있는 때에 강력한 주체공업에 원료, 연료를 충분히 대주는 믿음직한 석탄광물생산기지로 전변되였다.

〔**검덕광산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 제1계단공사완공**〕 검덕의 로동계급들은 검덕광산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 제1계단공사를 완공하고 9월 13일 조업하였다.

검덕광산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이 완공된 결과 광부들을 어렵고 힘든 갱내운반작업에서 해방시키며 쇠돌생산을 부쩍 늘이고 새 전망계획의 유색금속고지를 앞당겨점령할수 있는 돌파구가 열렸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설비를 대형화, 고속도화하는것과 함께 운반에서 삭도화, 콘베아화, 관화를 널리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7권, 234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은률광산에 주체적인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의 본보기를 마련해주신데 이어 검덕광산에서 지하막장으로부터 선광장에까지 현대적인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을 놓을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검덕의 로동계급들과 그 지원자들은 갱도공사, 통방다리공사, 조광사건설, 설비조립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끝냈다.

검덕광산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은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지하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으로서 그 길이가 6키로메터에 달한다.

〔**전력공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력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우리는 수력발전소건설과 화력발전소건설을 옳게 배합하며 대규모발전소건설과 중소규모발전소건설을 병진시키는 정책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55페지)

전력공업에서 당의 방침을 받들고 이룩한 가장 자랑찬 성과는 280억키로와트시의 전력고지를 1년 4개월이나 앞당겨점령하여 주체공업의 심장을 굳건히 지키였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6개년계획을 빛나게 실행하는데 이바지한것이다.

우리의 동력전사들과 건설자들은 당의 방침따라 서두수 1호, 2호 발전소를 먼저 조업시키면서 대동강, 위원, 희천 발전소건설을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이미 있던 발전소들에서도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전력설비들을 대담하게 개조하고 그 능력을 크게 늘였으며 발전소들의 종합적자동화와 원격조종화를 실현하여 전력생산을 급속히 높였다.

전력공업에서 이룩한 다른 중요한 성과는 우리 나라의 총 발전능력가운데서 화력의 비중을 절반이상 높여 전력생산의 계절성을 없애고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가물이 심하여도 인민경제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는 위력한 동력기지로 전변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랭전선의 영향을 미리 예견하시고 새로운 화력발전소들을 건설하면서 이미있던 화력발전소들의 능력도 확장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화력발전소조업

발전소	조업능력
웅기화력발전소	20만단위
청천강화력발전소	20만단위
북창화력발전소	120만단위

우리 나라 전력구성에서의 전변은 전력공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동력기지를 질적으로 공고화하는데서 이룩한 획기적성과이며 동력공업을 생활력이 강하고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주체적인 전력공업으로 확고히 전변시킨 큰 성과이다.

〔**금속공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운 전망계획 기간에 무엇보다먼저 공업부문들에서 부문내부구조를 완비하며 우리 공업의 주체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47페지)

새로 건설확장된 대상들

대상들	조업
김책제철소대형용광로	1975. 1
1호용광로	
황해제철소 1호용광로	1973. 10
강선제강소 2강철직장	1974. 2
성진제강소 3강철직장	1974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공업의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강철생산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나라의 철생산기지를 대대적으로 개건확장할데 대한 방침을 세우시고 강철생산의 규모를 늘이고 그 부문구조를 완비하는 거창한 건설을 힘있게 이끄시였다.

영웅적로동계급들은 김책제철소를 종합적인 대흑색야금기지로 튼튼히 꾸리면서 황해제철련합기업소, 강선제강련합기업소, 성진제강소를 개건확장하여 년간 400만톤의 강철생산능력을 조성하였다.

금속공업에서 거둔 다른 성과는 강종을 늘이고 압연강재와 2차금속가공제품생산을 급속히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관철하여 우리의 흑색금속공업을 다양한 생산구조를 갖춘 다방면적인 공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킨것이다.

6개년계획기간에 우리 나라의 합금원소에 기초한 합금강생산공정과 석도금판, 폐쇄식쇠바줄, 라선강관 생산공정들을 각각 새로 꾸리고 김책제철소의 현대적압연분공장과 여러 제강소의 분괴압연설비들을 개조하였다.

그리하여 6개년계획기간에 강종은 물론 압연강재와 2차금속가공제품의 품종과 규격이 훨씬 더 늘어나 철강재의 수요를 재질, 규격별로 더욱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게 되였다.

금속공업에서 이룩한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는 당 제5차대회가 제시한 자동화의 과업을 힘있게 추진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먼저 황해제철련합기업소에서 생산공정들의 자동화, 원격조종화, 산업텔레비존화의 본보기들을 만든 후 그것을 여러곳에 널리 일반화하여 제철공업의 전면적인 자동화를 실현하였다.

〔화학공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이미 마련된 화학공업의 토대에 기초하여 무기화학공업과 유기화학공업을 더욱 발전시키며 새로운 화학공업부문들을 창설하여 우리 나라의 화학공업을 더욱 다방면적으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48～449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화학공업은 농촌경리의 화학화를 실현하며 공업의 원료를 원만히 보장하는 다방면적으로 발전된 자립적인 화학공업으로 그 모습을 일신하였다.

무엇보다먼저 농촌경리의 화학화방침을 받들고 여러가지 화학비료생산을 늘이면서 살초제와 살충제도 많이 만들어 농업생산의 집약화수준을 더욱 높이고 농민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 과업을 힘있게 추진하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이미 있던 화학비료공장들을 개건확장하면서 현대적인 질소비료공장들과 린비료생산기지, 미량원소비료생산기지들을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300만톤의 화학비료고지를 점령하였으며 위대한 농촌테제와 당 5차대회 과업도 빛나게 수행하였다.

화학공업부문에서는 또한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훌륭히 기여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비날론공장을 확장하고 생산공정을 자동화하여 비날론생산능력을 5만톤으로 늘이고 스프와 인견사 생산에서도 큰 전진을 이룩하여 우리의 섬유공업을 자체의 원료에 발붙인 자립적인 공업으로 확고히 전변시켰다.

특히 나라의 동부와 서부에 원유가공공장들을 새로 건설하면서 대규모의 석유화학공업기지들을 창설함으로써 화학섬유와 합성수지 수요를 원만히 보장할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의 화학공업을 더욱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킬수 있게 되였다.

또한 3대기술혁명과업을 적극 추진하여 생산공정들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고 종합적기계화와 반자동화, 자동화, 원격조종화를 널리 실현하였다.

그리하여 화학비료, 화학섬유, 합성수지 단위당 생산량이 급속히 늘어났을뿐아니라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이 없어지고 근로자들이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되였다.

〔기계공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의 기계공업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수행하는데서 자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휘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7권, 388페지)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공작기계, 뜨락또르, 자동차 생산에 화력을 집중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기술로 튼튼히 장비하고 3대기술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쳤다.

우리의 기계전사들은 6개년계획의 첫전투에 들어선지 불과 1년 남짓한 사이에 공작기계 3만대고지를 점령하여 6개년계획말 공작기계생산수준을 돌파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또한 최신식설비들과 자동흐름선으로 장비된 대규모의 금성뜨락또르공장을 자체의 설계와 기술로 일떠세우고 우리 나라 지형조건에 맞는 소형뜨락또르생산기지들을 새로 꾸려 3만대의 뜨락또르 생산능력을 조성하였다.

자동차생산능력도 획기적으로 높였다.

공작기계, 뜨락또르, 자동차 생산의 장성은 인민경제를 현대적기술로 장비하며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해방시키는 위업을 앞당겨주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또한 대형설비, 대상설비 생산기지들을 더많이 건설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요구하는 기계설비들과 공장종합설비들을 다 자체로 보장하였다.

6개년계획기간 5,000메터시추기, 300마력불도젤, 10립방메터대형굴착기, 5만크바짜리발전기, 20만크바짜리대형변압기, 20메터대형선반, 18메터타닝반, 60톤짜리중량화차, 《금성》호내연기관차, 2,500마력중속기관, 3,000마력고속기관 등을 생산하였다.

또한 만년대계의 기념비적창조물인 김책제철소의 대형용광로, 련속식소결로, 해탄로를 비롯한 대야금공장설비, 화학공장설비, 건재공장설비, 경공업공장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만들어 공급하였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전자공업과 자동화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였다.

우리의 기계전사들은 청년전기공장, 천리길전기공장, 비류강전기공장을 비롯한 자동화 기구 및 요소 생산기지들을 여러곳에 튼튼히 꾸렸다.

그리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의 자동화와 원격조종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할수 있는 튼튼한 물질기술적토대를 닦아놓았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6개년계획기간에 선박생산을 4배로 늘였으며 그 가운데서도 1만 5,000~2만톤짜리 큰배들을 많이 무었다.

오늘 우리의 기계공업은 그 어떤 방대한 과업이든지 우리의 기술로 다 할수 있는 자립적인 현대적기계공업으로, 무진장한 잠재력을 가진 위력한 기계공업으로 반석같이 다져졌다.

〔건재공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건재공업발전에서 우리는 이미 있는 건재공장들을 정비확장하면서 새로운 건재공장들의 건설을 그에 옳게 배합하며 대규모중앙건재공업과 중소규모지방건재공업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로선을 관철할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59페지)

건재공업부문에서는 지금있는 세멘트공장들을 정비확장하면서 새로운 세멘트공장들을 건설하여 6개년계획기간에 적지 않게 조업시키였다.

새로 조업한 공장들

순천세멘트공장	1977년
부래산세멘트공장	1972년
부산리세멘트공장	1971년

새로 조업한 소성로

소성로	조업
2.8세멘트공장 소성로1기	1974. 10
해주세멘트공장 소성로1기	1975. 11
천내리세멘트공장 소성로 1기	1976.

그리하여 건재공업부문에서는 6개년계획의 마지막고지로 남아있던 세멘트고지를 점령하였으며 건재공업을 기본건설에 앞세울수 있도록 세멘트생산능력을 800만톤으로 높였다.

건재공업부문에서는 또한 2.8세멘트공장에서 자동화, 원격조종화, 산업텔레비존화의 본보기들을 꾸려놓은 다음 한개 공장씩 일대 섬멸전,전격전, 집중공세를 들이대여 승호, 천내리, 해주 세멘트공장들의 장비들을 개선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소성공들은 고열로동과 유해로동에서 해방된 조건에서 더욱 안전하고 헐하게 일하면서도 높은 로동생산능률을 냈다.

건재공업부문에서는 회령그라프트지공장, 남포압연유리공장건설을 비롯한 대규모중앙건재공업을 발전시키면서 다른 한편 중소규모지방건재공업도 병진시켜 지방수요를 자체로 보장하였다.

〔경공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경공업부문의 중심과업은 소비품의 질을 높이고 품종을 늘이며 원가를 낮추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59페지)

경공업전사들은 대중소비품의 품종을 늘이고 그 질을 높여 6개년계획의 중요소비품과제들을 이미 1년 6개월 앞당겨수행하였다.

방직공업부문에서는 6개년계획기간에 9월방직공장과 사리원방직공장을 새로 건설하면서 평양종합방직공장에 화학섬유방적설비들을 들여놓고 모든 설비들을 고속도화하여 총직물생산능력을 6억메터이상 높였다.

또한 옷차림을 편직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각도마다에 편직공장들을 세우면서 겉옷뜨개설비들을 더 놓아 1,500만매의 편직물생산능력을 조성하였다.

신발공업부문에서는 여러가지 신발을 신기 편리하면서도 질기고 맵시있게 만들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가죽구두, 의혁구두를 중심으로 하는 신발생산을 2.4배로 늘였다.

편직물생산능력의 장성
(1970년:1976년)

기본품종	능력
세타, 쟈케트	6배
내의류	1.6배
양말류	1.8배

6개년계획기간에 순천, 홍남 구두공장들을 개건확장하면서 현대적설비를 갖춘 300만켤레능력의 평양구두공장을 건설하였고 평양과 해주에 염화비닐신발, 천신발, 사출장화 생산공정들을 더 보충하였다.

식료공업부문에서는 남새와 과일, 고기와 물고기가공에 큰 힘을 넣어 부식물생산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닦아놓았다.

우선 모든 시, 군들에 과일과 남새 가공공장들, 고기와 물고기 가공공장들을 건설하고 맛좋고 영양가높은 식료가공품들을 생산공급하였다.

또한 생산지에 12만톤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대규모랭동공장들을, 소비지에 200여개의 랭동고들을 건설한 결과 얼군 고기들을 쌓아놓고 철에 관계없이 계획적으로 공급하였다.

평양곡산공장을 10만톤능력으로 확장하면서 불과 3~4개월동안에 140여개의 옥쌀공장, 곡산공장, 식료공장들을 최신기술로 장비하고 대대적으로 확장하였다.

특히 우리 나라에 풍부한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주체적인 기름생산기지를 꾸릴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66개의 현대적기름공장을 신설하는 일대 기적을 창조하였다.

현대적인 식료공업기지의 창설은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푸짐하게 하며 녀성들의 부엌일을 덜어주시려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높은 뜻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어버이사랑의 실현이다.

일용공업부문에서는 현대적인 주방도구공장들과 가구공장들을 신설확장하여 여러가지 부엌세간과 가구생산을 늘였으며 수많은 일용설비들을 갖추어 일용품에 대한 수요를 더잘 충족시키였다.

850만톤 알곡고지 빛나게 점령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1977년에 이상기후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 농사짓는데 매우 불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 나라 농업력사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높은 알곡수확을 냈다.

이미 6개년계획의 알곡고지를 2년 앞당겨 점령한 우리의 농업근로자들과 그 지원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자연개조 5대방침과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또다시 850만톤의 알곡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렸다.

알곡생산의 장성
(단위 만톤)

년도	생산량
1974	700이상
1976	800이상
1977	850

농업전선에서는 6개년계획기간 알곡생산에서뿐 아니라 남새와 공예작물, 축산업과 과수업, 잠업 등 농업생산의 모든 분야에서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농업생산성과

품종	1970/1976
남새	1.6배
과일	2.2배
누에고치	2.2배

농업생산에서 이룩한 이 위대한 승리는 오직 농사제일주의방침을 내놓으시고 농업발전에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계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6개년계획기간 농업전선을

주공전선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정치위원회, 전국농업대회와 농업부문열성자회의, 협의회들에서 농업생산방향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으며 농업전선을 틀어쥐시고 지휘하시면서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경지면적가운데서 기계화를 할수 있는 땅이 140만정보인데 그가운데서 논과 벌방지대에 있는 밭 100만정보는 이미 관개가 되여있습니다. 중간지대와 산간지대에 있는 40만정보의 밭에 관개를 채 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을 마저 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7권, 319페지)

한랭전선의 영향을 미리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연개조방침과 지하수혁명방침을 내놓으시고 전당, 전군, 전민을 그 관철에로 불러일으키시였으며 생신날마저 쉬지 않으시고 현지에서 자연개조투쟁을 지도하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각지 농업근로자들과 지원자들은 전군중적운동으로 저수지와 양수장을 건설하면서 우물과 굴포를 파고 졸짱을 박아 관개면적을 더 늘이는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였다.

관개능력과 관개면적의 장성

능력, 면적	7개년계획기간 (1961/1969)	6개년계획 기간 (1971/1976)
저수능력	1.5배	1.5배
양수능력	3.2배	1.8배
관개면적		40만정보

이처럼 당제5차대회가 내놓은 밭관개건설과업을 앞당겨 해낸 결과 우리 나라의 수리화체계는 벌방지대로부터 중간지대를 넘어 산간지대에까지 확대되였으며 논관개만이 아니라 밭관개까지 기본적으로 끝난 전면적으로 완성된 수리화체계로 발전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전면적으로 완성된 수리화체계, 이것은 한랭전선의 그 어떤 왕가물과 큰물에도 끄떡하지 않고 해마다 풍작을 거둘수 있는 공고한 농업생산토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농촌경리의 종합적기계화와 전면적화학화를 다그칠수 있도록 곧바로 이끌어주시였다.

6개년계획기간 농촌기술혁명수행에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는 벌방지대는 물론 중간지대에서도 종합적기계화를 적극 실현한것이다.

특히 100정보당 뜨락또르보유대수가 종합적기계화를 힘차게 다그치는 수준에 이른것이다.

100정보당 뜨락또르보유대수의 장성

년도 \ 지대	벌방지대	중간, 산간 지대
1973	3～4대	
1974	4대	3대
1977	6대	5대

6개년계획기간 농촌경리의 화학화도 내밀어 경지면적 1정보당 화학비료주는량을 1톤이상에 이르게 할데 대한 농촌테제의 과업을 이미 1975년에 빛나게 마무리하였으며 1977년에 논에서는 1.3톤, 밭에서는 1.2톤에 달하였다.

특히 3만대이상의 모내는기계와 많은 살초제를 받아들여 모내기와 김매기(강냉이밭의 60%)를 기계와 화학의 힘으로 하였다. 이것은 착취에서 해방된 우리 농민들을 힘든 로동에서까지 해방하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뜨거운 사랑이 가져다준 빛나는 열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주체농법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관철하여 한랭전선의 영향이 심한 조건에서도 끊임없는 비약이 일어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무엇보다도 먼저 6개년계획기간에 당의 방침에 따라 위대한 주체사상과 주체농법으로 무장한 기술자, 전문가들이 수많이 모든 협동농장들마다에 진출하여 매 분조들에까지 전반적으로 들어갔다.

협동농장당 기술자, 전문가수
(단위 명)

년도	1961년	1969년	1976년
인원	1.2	17.5	55

모든 협동농장들에서는 기술일군들의 방조밑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주체농법대로 적지

적작, 적기적작의 원칙을 지키면서 모기르기와 모내는 방법, 평당포기수와 포기당 대수, 부식토와 화학비료를 치는 방법, 토양관리와 물관리 방법을 근본적으로 고쳤다.

그리하여 주체농법은 농사방법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왔으며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고 농업생산을 높이는데서 그 우월성과 위력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6개년계획기간에 축산, 과수, 잠업 등 농촌경리의 다른 부문들도 빨리 발전하였다.

축산부문에서는 중요 도시들과 로동자구들에 현대적기술로 장비된 닭공장, 오리공장, 돼지공장들을 새로 건설하였으며 169개의 배합먹이공장들도 새로 지었다. 그리하여 한해에 55만톤이상의 고기를 생산할수 있는 튼튼한 축산토대가 꾸려졌다.

또한 과수부문에서는 30만정보의 과수면적을 조성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의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면서 과일생산량을 늘였다.

〔자연개조투쟁〕 우리 농업근로자들과 전체 인민들은 자연개조투쟁을 힘있게 벌려 불과 1년사이에 20만정보의 밭관개를 완성하였다.

이리하여 한랭전선의 영향이 우리 나라에도 미치는 조건에서 물고생을 하지 않고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는 튼튼한 농업생산토대를 마련하였다.

자연개조사업에서 이룩한 이 빛나는 성과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자연개조 5대방침과 지하수혁명방침의 정당성과 그 생활력을 다시금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전원회의에서 40만정보의 밭관개를 할데 대한 과업을 내놓았는데 그가운데서 절반은 저수지물을 리용하여 관수하고 나머지 20만정보는 지하수를 퍼올려 관수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7권, 355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2차 및 제13차 전원회의에서 한랭전선이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 나라 농업발전의 현 실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여 자연개조 5대방침과 지하수혁명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에로 전당, 전군, 전민을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연개조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1977년 4월 녕변군 서화협동농장에서 지하수를 퍼올려 관수하는 방법, 개천군 보부협동농장에서는 밭머리에 우물을 파고 관수하는 방법에 대한 방식상학을 조직하시고 일군들에게 지하수리용방도를 다시금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농업지도기관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 그 지원자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훌륭한 본보기에 따라 지하수혁명을 전격적으로 다그쳐 당초계획보다 더많은 우물과 굴포를 파고 졸짱을 박았다.

지하수개발리용정형

형태	실 적
우물	7만 5천여개
굴포	9천 900여개
졸짱	6천 200여개

우리 나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펼쳐주신 자연개조 5대방침을 받들고 새로운 저수지들과 양수장 건설도 적극 진행하였다.

6개년계획기간에 건설된 수리시설

형 태	실 적
저수지	117개
양수장	8천 850개

이처럼 여러가지 방법으로 밭관개를 힘있게 내민 결과 6개년계획기간에는 40만정보, 1977년에는 20만정보의 밭관개를 완성하였다. 이로써 우리 나라의 수리화체계는 벌방지대로부터 중간 및 산간지대로 확대되였다.

이것은 그 어떤 왕가물과 큰물에도 끄떡없이 해마다 만풍년을 안아오는 생활력있고 비할바없이 공고한 농업생산토대로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힘을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 농업근로자들과 농촌지원자들은 밭관개를 마저 완성하면서 자연개조 5대방침에 따라 다락밭을 건설하고 토지정리와 토지개량사업도 하였으며 치산치수, 간석지개간 사업도 다그쳤다.

〔은파호준공〕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원대한 구상에 따라 대규모의 저수지 은파호가 재

령강반에 새로 건설되였다.

11월 3일에 새로 준공한 은파호는 당면하게는 곡창지대인 재령, 안악, 신천, 은률, 은천, 은파군 일대에서 이미 이룩한 수리화의 성과를 공고히 하며 전망적으로는 새로 개간할 서해간석지에 더많은 물을 대여 알곡수확을 더욱 높이게 한다.

은파호는 또한 해주지구의 늘어나는 공업용수의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며 재령강류역에서 일어날수 있는 큰물피해를 더욱 철저히 막아 아름다운 자연을 더잘 보호하게 된다.

은파호의 완성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우리 나라 국토를 주체사상의 요구,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요구에 맞게 풍요한 대지로 꾸려나가는데서 커다란 전환점으로 되며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고 1,00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할수 있게 하는 로동당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재령강저수지를 비롯하여 지금 건설하고있는 저수지들을 빨리 완공하도록 하며 전망계획에 들어있는 큰 저수지 건설공사도 추진하여야 합니다.》 (《김일성저작선집》, 7권, 360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4년 10월 16일 어지돈관개건설종합기업소 지도일군들을 부르시고 나라의 수리화에서 매우 큰 공로를 세웠다고 분에 넘치는 치하를 하시면서 재령강저수지건설을 맡기시는 크나큰 신임과 배려를 베풀어주시였다.

이곳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일터마다에서 창의창발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남김없이 발휘하여 재래식방법으로는 10년이 걸린다하던 저수지공사를 단 삼년동안에 끝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저수지가 완공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저수지의 이름을 은파호라고 지어주시였다.

은파호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 건설된 1천 500여개의 저수지들 가운데서 제일 크다.

기본건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본건설부문에서는 건설을 집중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에 따라 강철고지, 전력고지, 세멘트고지, 화학비료고지, 천고지, 알곡고지, 수산물고지를 비롯한 6개년계획의 중요고지들을 점령하기 위한 중요건설대상들에 힘을 집중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7권, 55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6개년계획수행의 첫해인 1971년 정초에 벌써 기본건설에서 힘을 집중해야 할 대상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으며 방대한 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원칙과 기술적방도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4년을 건설의 해로 정하시고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기본건설에 집중하도록 하심으로써 온 나라에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하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거의 매일과 같이 건설정형을 알아보시였으며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친히 현지지도의 길에 오르시여 우리 건설자들을 영웅적위훈에로 고무하시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기본건설부문에서는 6개년계획수행기간 실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건설자들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건설의 집중화방침을 관철하여 6개년계획수행기간에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새로 많이 일떠세웠으며 1977년 한해동안에 공업부문에서만도 2천 267개 대상의 건설공사를 완공하는 빛나는 위훈을 떨치였다.

무엇보다먼저 산업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비할바없이 강화하였다.

건설부문의 영웅적로동계급은 건설의 선후차를 옳게 가르고 중요대상들에 력량을 집중하여 연료동력기지, 야금기지, 화학기지, 건재기지 건설을 다그쳤다. 결과 전력, 강철, 세멘트, 화학비료의 생산능력이 훨씬 늘어났다.

6개년계획수행기간 발전소건설자들은 웅기, 청천강화력발전소와 서두수 제1호, 제2호 발전소들을 새로 건설하고 북창화력발전소를 더 확장한 결과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면서도 나라의 동력기지를 질적으로 공고화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로동계급은 김책제철련합기업소의 대형용광로, 성진제강소와 강선제강련합기업소의 강철직장들을 새로 일떠세우고 김책, 황해제철련합기업소의 용광로들을 개건확장하여 400만톤의 강철생산능력을 조성하였다.

우리의 건설자들은 부산리, 부래산, 순천 세멘트공장들을 새로 조업시키면서 동시에 해주, 천내리, 2.8 세멘트공장들에 새로운 소성로들을 더 놓아 세멘트생산능력을 800만톤으로 높였다.

6개년계획수행기간 우리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는 식료, 방직, 피복, 신발, 일용품 등 여러가지

경공업기지들이 대대적으로 건설되였다.

우리의 건설자들과 경공업전사들은 방직공장들과 편직공장들을 수많이 건설하여 6억메터이상의 직물생산능력과 1천 500만매의 편직겉옷생산능력을 조성하였다. 이와 함께 대규모의 곡산공장들과 옥쌀공장들, 현대적인 주방도구공장들과 가구공장들을 신설확장하여 여러가지 식료품뿐만아니라 부엌세간과 가구생산을 늘였다.

특히 우리 나라에 풍부한 원료원천에 의거하여 주체적인 기름생산기지를 꾸릴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우리의 건설자들과 경공업전사들은 1977년에 불과 3～4개월동안에 140여개의 옥쌀공장, 곡산공장, 식료공장들을 최신기술로 장비하고 대대적으로 확장하였으며 66개의 현대적기름공장들을 신설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우리 나라 식료공업의 발전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가지는 이처럼 방대한 규모의 산업건설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해낸것은 천리마조선의 로동계급의 무궁무진한 창조적힘과 주체공업의 위력을 보여준 자랑찬 성과이다.

건설부문의 로동계급과 우리 인민들은 도시와 농촌의 살림집들, 문화교육기관들을 수많이 일떠세워 근로자들의 생활조건을 훨씬 개선하였으며 도시와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도 훨씬 줄이였다.

혁명의 수도 평양시에 웅장하고 현대적인 지하철도를 건설하고 비파거리, 삼원거리, 락원거리를 새로 일떠세웠으며 지방도시들을 훌륭한 도시로 건설하였으며 로동자구와 농촌마을들을 더욱 아름답게 꾸리였다.

6개년계획수행기간에 41만 4천세대의 도시다층주택들과 47만 2천세대의 농촌문화주택을 건설하여 늘어나는 살림집에 대한 근로자들의 수요를 보장하였다.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는 조선혁명박물관을 건설하면서 혁명사적지와 혁명전적지들에 력사적인 기념비들과 혁명사적관들을 세웠다.

주체예술의 전당 만수대예술극장과 인민문화궁전, 2.8문화회관, 남포극장, 안주극장, 덕천극장을 비롯하여 극장과 영화관, 문화회관들도 새로 많이 건설하였다.

또한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훌륭한 보육교양시설을 갖춘 탁아소와 유치원이 새로 많이 건설되였다.

이처럼 6개년계획의 기본건설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한 결과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더 빨리 다그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수 있는 토대가 튼튼히 다져졌다.

수 산 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6개년계획수행기간에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산부문에서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수산전사들은 먼바다물고기잡이와 가까운바다물고기잡이를 적극 벌려 160만톤의 수산물고지를 1년 7개월이나 앞당겨점령하였으며 수산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놓았다.

1977년에도 수산전사들은 불리한 해양상태와 이상기후 조건에서도 수산물생산을 높였으며 12월에 들어와서는 그전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2.1배의 물고기를 잡아내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한 수산부문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과 수산협동조합원들에게 1977년 12월 31일 축하전문을 보내시였다.

수산부문에서 이룩한 이 자랑찬 성과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의 수산정책을 철저히 관철한 결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산부문에서 선박들을 대형화, 현대화, 만능화하여 물고기잡이에서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54폐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현명한 방침에 따라 6개년계획수행기간에 선박공업부문과 수산부문에서는 고기배들을 대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결과 수산부문에서 3,750톤짜리 선미트랄선과 5,000톤짜리 랭장운반선, 1만톤이상의 가공모선을 비롯한 크고 현대적인 고기배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리하여 고기배의 척당마력수는 1.5배로, 고기배들에 설치된 과학기술기재의 대수는 2배로, 그물추는 기계와 물고기뽐프를 비롯한 어로기계의 대수도 각각 빨리 늘어났다. 수산부문의 고기배들은 높은 기술장비수준에서 현대화되였다.

또한 고기배들을 만능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75～100마력이상의 모든 배들을 건착, 트랄, 자망 그물질할수 있게 개조함으로써 어떠한 물고기들이 나타나도 다 잡을수 있게 되였다.

수산부문에서는 고기배들이 대형화, 현대화, 만능화되는 새로운 조건에 맞게 현대적인 부두건설도 적극 다그쳤다.

6개년계획기간에 신포항과 김책항을 개건확장하고 양화, 홍원 지구 어업기지들을 먼바다어업기지로 더 잘 꾸리였으며 서해지구 중심어장들에 수산기지들을 새로 건설하였다.

특히 1977년 3월 서해지구수산부문열성자회의에서 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중심어장 가까이에 10여개의 현대적인 수산기지들을 꾸려 고기배들의 리용률을 높였다.

또한 동해의 어로공들은 먼바다와 가까운 바다에서 《300일출어만선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한사람당 물고기잡이량을 해방후 최고수준으로 높였다.

그리하여 우리의 수산전사들은 1977년에 1976년에 비하여 수산물생산량을 111.4%, 그중 물고기잡이량을 118.2%로 늘이였다.

양식업도 빨리 발전하였다.

양식부문에서는 선진적인 양식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양식공들을 어렵고 힘든 겨울철모내기에서 해방시키면서도 참미역생산량을 1971년에 비하여 1977년에 4배이상, 다시마생산량은 3.4배이상으로 각각 높이였다.

수산부문과 상업부문에서는 물고기가공과 공급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받들고 우리 나라 생산지로부터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랭동망체계를 세웠다.

6개년계획수행기간 12만톤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대규모생산지랭동공장과 여러개의 소비지랭동공장들, 200여개의 시, 군 소비지랭동고들을 건설하였으며 랭동차와 랭장차, 랭동렬차들을 널리 받아들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세심한 보살피심속에 온 나라에 정연한 랭동망체계가 세워진 결과 바다가 먼 산촌에서도 우리 인민들은 해변가사람들처럼 물고기철에 관계없이 여러가지 물고기들을 골고루 먹게 되였다.

체 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출판물보급사업과 방송선전사업을 개선강화하며 특히 텔레비죤방송망을 더욱 늘여 가까운 년간에 온 나라의 텔레비죤화를 실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61페지)

체신부문에서는 기술혁명을 강화하고 방송국들의 내부예비들을 적극 찾아내여 방송의 출력과 주파수를 계속 높이였다.

방송국들에서는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무선방송출력을 1970년에 비하여 1976년에 2배로 높였다.

방송국들에서는 또한 1971～1976년동안에 텔레비죤방송출력을 4배로 높이고 이르는곳마다에 텔레비죤중계소들을 세웠다.

나라의 모든 지역들에서 텔레비죤을 볼수 있게 된 결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 제5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전국텔레비죤화의 과업이 빛나게 실현되였다.

체신부문에서는 또한 인민경제가 빨리 발전하고 국가사업이 방대해지는 새로운 현실에 맞게 통신련락을 정상적으로 보장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1973년 4월 13일 산업전화를 원만히 보장할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체신부문에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각지 통신기계전사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 대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그때까지 수입하던 12통화로반송전화기를 비롯한 통신기계설비들을 자체로 많이 생산하였다.

체신부문일군들은 새로운 설비들과 내부예비를 옳게 리용하여 평양과 각도, 총국과 경영국, 총국과 기업소, 도와 군, 군과 군 사이에 여러갈래의 전화망을 더 늘이였다.

시외전화선로연장길이가 1970년에 비하여 1976년에 4.7배, 시내전화회선이 1.6배로 각각 늘어났으며 통신의 물질기술적토대는 국가경제사업이 방대해진 새로운 현실에 맞게 더 잘 꾸려졌다.

그리하여 6개년계획수행기간에 국가경제기관들의 지도와 지휘가 더잘 보장되였으며 통신에 대한 인민들의 생활상수요를 원만히 충족시켰다.

우편통신부문에서는 주요도시들에서의 출판물의 아침전달이 정상화되였을뿐아니라 모든 주민세대들에 출판물과 우편물들을 제때에 신속정확하게 전달하는 정연한 우편송달체계가 세워졌다.

체신부문에서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이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긴장한 정세에 대처하여 어떤 정황에서도 통신과 방송을 보장할수 있도록 일군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기술실무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사업도 실속있게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체신은 6개년계획수행기간 지휘통신과 산업전화를 민활히 보장하며 국내와 세계의 모든 지역에 우리의 방송이 더잘 미치게 하였다.

로 동 행 정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철학의 원리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사회주의로동행정사업의 본질과 혁명적원칙을 독창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에서 로동행정사업은 사람과의 사업이며 중요하게는 근로자들속에서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태도를 키우는 사업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493페지)

경애하는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로동행정부문에서는 정치사업을 앞세워 대중의 사상의식수준을 높임으로써 근로자들의 창조적지혜와 재능을 전면적으로 꽃피웠다.

경애하는 수령님께 바치는 불타는 충성심과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안고 우리 근로자들이 몸과 마음을 다바쳐 투쟁하였기에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할수 있었고 농업생산에서도 일대 앙양을 가져올수 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로동행정사업의 과학리론적기초를 마련하신데 기초하시여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게 로동조직을 가장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할수있는 원칙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로동행정부문에서는 도시와 농촌의 모든 로력을 통일적으로 동원하고 과학적이며 동원적인 로동계획에 따라 나라의 로력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모든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주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로동행정부문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을 자기의 희망과 재능에 따라 배치함으로써 사회적로동에 참가하고 있는 그들 모두는 창발성을 내여 480분로동시간에 높은 생산능률을 낼수있게 하였다.

특히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녀성들이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적극 진출하고있으며 그들은 남자들과 똑같이 일할수 있는 모든 조건을 실질적으로 보장받고있다.

로동행정부문에서는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 세부화 방침에 따라 어렵고 힘든 부문에는 청장년로력을, 해당 전문직장에는 기술자, 전문가들을 보내주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함께 공장대학들과 공장전문학교들에서 로동자, 사무원 총수의 10%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일하면서 배워 기사, 준기사로 자라나고있다.

로동행정부문에서는 계획화사업을 잘하여 나라의 로력원천을 적극 동원하고 효과있게 리용함으로써 당이 제시한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의 병진로선, 사회주의대건설방침, 자연개조5대방침과 전인민적농촌지원방침을 비롯한 위대한 로선과 방침들을 관철하는 사업을 로력적으로 보장할수 있었다.

로동행정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사상과 리론,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구현하고 있는 사회주의로동법을 관철하여 로동행정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고있다.

국 가 예 산

1977년도 국가예산은 인민경제의 빠른 발전에 기초하여 전반적으로 성과있게 집행되였으며 우리의 국가재정은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위력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국가예산을 옳게 집행하기 위하여서는 수입원천을 여러모로 늘일뿐아니라 국가자금을 옳게 지출하고 리용하는것이 중요합니다.》(《사회주의건설에서 재정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데 대하여》, 단행본, 24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체 근로자들이 생산을 늘이며 재정수입원천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린 결과 1977년 국가예산수입은 137억 8,900만원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국가예산수입계획은 100.2%로 넘쳐 수행되였으며 1976년에 비하여 109.2%로 늘어났다.

국가예산지출은 133억 4,920만원으로서 계획에 비하여 97%로 집행되였으며 1976년에 비하여 108.3%로 늘어났다.

1977년도 국가예산은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닦고 국방력을 강화하며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드는 방대한 자금수요를 보장하고도 4억 3,980만원에 달하는 지출에 대한 수입초과를 가져왔다.

우리 인민들이 해마다 혁명과 건설에 필요한 방대한 자금수요를 자체의 내부원천에 의거하여 원만히 보장하면서도 많은 재정예비를 조성하고있는것은 우리 나라 재정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에 기초하고있는 비할바없이 공고한 자립적재정이라는것을 보여주며 우리 당 재정정책의 정당성과 그 거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증시하는것이다.

이해에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완충의 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민경제에 대한 자금지출을 1976년에 비하여 108%로 늘였다.

공화국정부는 1977년을 수송전선을 추켜세우는 해로 되게 할데 대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전원회의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운수부문에 1976년의 1.3배에 달하는 방대한 기본건설자금을 돌렸으며 전국이 달라붙어 수송전선을 힘있게 지원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수송혁명 200일전투》에 용감히 떨쳐나선 우리의 수송전사들은 철도운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며 집중수송, 련대수송, 집함수송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수송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켰다.

공화국정부는 많은 자금을 돌려 채취공업, 전력공업, 금속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을 비롯한 기간적중공업부문들의 생산토대도 더욱 확대강화하였다.

우리의 건설자들과 중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금속공장, 기계공장, 화학공장, 건재공장들을 더욱 정비확장하고 새로운 중공업공장들의 건설공사를 적극 추진하였으며 중공업제품들의 생산을 부쩍 늘임으로써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공화국정부에서는 경공업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리기 위하여 이해에 1976년의 1.3배에 달하는 방대한 자금을 경공업공장들을 신설확장하는데 돌렸다.

우리의 근로자들은 대중적영웅주의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많은 옥쌀공장, 곡산공장, 식료공장들을 최신기술로 장비하고 대대적으로 확장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업부문들에서 완충의 해 과업이 빛나게 완수됨으로써 우리 공업은 부문내부구조가 더욱 완비되고 모든 부문들사이의 균형이 잘 째인 그리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인민생활향상을 확고히 담보하는 위력한 사회주의적주체공업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일찌기 농사제일주의방침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해에도 농업전선을 주공전선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나라의 큰 힘을 농업생산에 넣어 850만톤의 알곡고지를 점령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이해에 1976년의 1.2배에 달하는 많은 자금을 농촌경리부문에 돌려 농촌기술혁명과 자연개조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리도록 하였다.

우리 인민은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이른봄부터 매우 불리한 날씨가 계속된 조건에서도 농촌기술혁명과 자연개조사업을 대대적으로 벌리면서 주체농법을 철저히 관철하여 850만톤의 알곡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렸다.

이해에 공화국정부는 조성된 긴장한 정세에 대처하여 국가예산지출총액의 15.7%를 국방비로 돌리고 자위적인 군사로선을 관철하여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불패의 것으로 다져놓았다.

문화혁명을 수행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이해에 공화국정부는 사회문화시책비를 1976년에 비하여 110%, 보건사업비를 107.4%로 늘여 사회주의문화건설과 의료봉사사업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원만히 보장하였다.

어린이보육교양비지출이 늘어나 훌륭한 보육교양시설을 갖춘 탁아소와 유치원이 새로 많이 건설되였으며 우리의 어린이들은 국가로부터 더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보다 행복하게 자라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77년에 열렸던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회의에서 지방예산제실시정형을 총화분석하시고 지방예산제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이해에 모든 지방들에서 지방공업의 거대한 생산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고 온갖 창의창발성을 발휘하여 지방예산수입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지방공업생산이 빨리 늘어나고 사회급양수입과 편의봉사수입이 훨씬 장성함으로써 지방인민들의 생활상수요를 자체로 원만히 충족시키면서 지방예산수입을 한층 더 늘이게 되였다.

이해 지방예산수입은 1976년에 비하여 124.4%로 늘어났으며 모든 도, 시, 군들이 지방의 경제문화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자금을 자체로 원만히 보장하고도 계획보다 5억 4,813만원에 달하는 자금을 중앙예산에 더 들여놓았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마련하여주신 지방예산제가 중앙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지방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켜 지방의 경제와 문화를 빨리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며 전반적인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가장 우월한 지방살림살이운영방법이라는것을 힘있게 보여주었다.

지방예산수입의 장성

대비년도	1975/1976	1976/1977
예산수입(%)	109.7	124.4
수입초과(만원)	3억 6,035	5억 4,813

인 민 생 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시기 인민생활을 높이는 분야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은 로동자와 농민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 도시와 농촌 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를 빨리 없애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76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경제건설과 문화건설에서 이룩한 성과에 기초하여 6개년계획수행기간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였다.

무엇보다먼저 근로자들의 화페수입이 늘어나고 국가의 여러가지 혜택에 의하여 로동자와 농민들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가 훨씬 줄어들었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공화국정부에서는 1970년하반기에 모든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생활비를 평균 31.5% 높여준데 뒤이어 광업, 기계공업, 건재공업, 운수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낮은 생활비를 받는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10~24%씩 더 높여주는 중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국가의 강력한 지원밑에 협동농장들의 경제토대가 더욱 강화되고 농업생산이 빨리 늘어난 결과 협동농장원들의 세대당 평균 화페수입이 6개년계획의 마지막해에 예견되였던 수준을 이미 1974년에 넘어섰다. 사실상 농민들의 생활수준은 지난날의 부유중농수준보다 더 높아졌다.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로동자들의 생활비와 농민들의 화페수입이 늘어났을뿐아니라 우리 인민들은 당과 정부의 여러가지 조치에 의하여 추가적혜택도 많이 받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과 원대한 구상에 따라 당과 정부에서는 6개년계획기간인 1974년에 우리 나라에서 세금제도를 종국적으로 없애는 력사적조치를 취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세금제도가 완전히 없어짐으로써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우리 인민은 세금부담에서까지 영원히 해방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세금이 없는 첫 나라로 되였다.

당과 정부에서는 또한 6개년계획수행기간에 생산이 빨리 늘어나는데 따라 여러차례에 걸쳐 공업상품의 값을 낮추었다. 특히 1974년에는 천, 편직물, 신발, 일용품을 비롯한 2만 1,800여종에 이르는 공업상품의 값을 평균 30%, 최고 50%까지 낮추었다.

우리 나라 근로자들이 6개년계획기간에 국가의 여러가지 인민적시책을 통하여 받은 추가적혜택은 지난 7개년계획시기에 비하여 해마다 평균 1.7배로 늘어났다.

오늘 우리 나라 근로자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은 그들이 로동에 따라 받는 분배몫보다 더 많다.

근로자들의 화페수입과 함께 국가가 돌려주는 추가적혜택이 빨리 늘어난 결과 6개년계획기간에 한세대당 로동자, 사무원들의 실질소득은 1.7배, 농민들의 실질소득은 1.8배로 늘어났다.

이것은 오늘 우리 인민의 생활이 6개년계획에 예견되였던 수준을 훨씬 넘어섰으며 로동자, 사무원들과 농민들의 생활수준에서의 차이가 거의 없어져가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생산이 빨리 장성하고 근로자들의 수입이 높아진 결과 1977년의 소매상품류통액은 그 전해에 비하여 1.2배로 장성하였으며 여러가지 인민소비품의 공급량이 늘어나 우리 인민생활은 모든 면에서 더욱 윤택해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6개년계획기간에 근로자들의 생활조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였으며 도시와 농촌주민들의 생활조건에서의 차이도 많이 줄어들었다.

혁명의 수도 평양시에 웅장하고 현대적인 지하철도가 건설되고 비파, 상원, 락원거리가 새로 일떠섰으며 사리원, 희천, 남포, 청진, 함흥, 원산시들과 안주읍, 덕천읍을 비롯한 지방도시들이 현대적도시로 아름답게 꾸려졌다.

그리하여 6개년계획수행기간에 많은 도시근로자들과 농촌근로자들이 새로 지은 41만 4천세대의 도시다층주택과 47만 2천세대의 농촌문화주택들에 집들이하고 행복하게 살고있다.

어버이수령님의 보살피심속에서 모든 군과 리들을 련결하는 농촌뻐스화가 실현되였으며 농촌수도화도 완성되였다.

인 민 보 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보건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사람들의 생명을 더 잘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끊임없이 증진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병원들을 증설하고 의료일군들을 늘이며 여러가지 의약품과 의료기구들을 더 많이 생산공급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치료예방사업을 더욱 개선하도록 할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78페지)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되고 나라의 경제적위력이 급속히 장성강화된 조건에서 이제는 보건사업에 더 큰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필요한 조건을 다 보장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사리원의학대학병원, 평성의학대학병원을 비롯한 각 의학대학병원들, 각곳의 전문병원과 전문과병동들, 전문과들을 갖춘 군병원들을 새로 많이 건설하였다.

또한 군병원들이 물질기술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농촌리진료소들이 병원화되였으며 모든 리에 아동병동들이 꾸려졌다.

그리하여 6개년계획수행기간에 병원수는 2.8배, 침대수는 1.5배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온 나라에 병원들이 골고루 생기였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인민들에게 더잘 줄수 있는 치료예방사업체계가 튼튼히 섰다는것을 보여준다.

특히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내놓으신 농촌리진료소의 병원화방침이 빛나게 실현된것은 도시와 농촌의 차이를 줄이며 농촌주민들에 대한 치료예방사업을 가장 선진적인 높이에 올려세우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보건의료일군들도 급속히 늘어나고 제약의료기구공업도 빨리 발전하였다.

6개년계획수행기간에 우리 나라에서 의약품생산은 2.3배로, 의료기구생산은 7.2배이상 늘어났다. 동시에 인삼과 록용을 비롯한 보약과 가공초약생산도 늘어났다.

여러가지 의약품과 의료기구 생산이 급속히 늘어남으로써 주민들에게 치료예방사업과 전문과적의료방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강화할수 있게 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 마련된 인민적인 보건제도는 발전된 보건의료망과 튼튼한 의학간부양성기지, 자립적인 제약의료기구공업에 의하여 안받침되는 매우 공고하고도 생활력이 강한 사회주의보건제도로 더욱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비할바없는 우월성은 인민들의 건강지표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1976년에 우리 나라 인구의 사망률은 해방전에 비하여 4분의 1로 줄어들고 평균 수명은 일제시기의 거의 2배에 달하는 73살, 그가운데서 남자는 70살, 녀자는 76살에 이르렀다.

오늘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인구의 사망률이 제일 낮고 평균수명이 긴 나라의 하나로 되였다.

오랜 세월 인류가 그처럼 념원하던 무병장수의 행복이 우리 인민 모두에게 현실로 안겨진 이 눈부신 전변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인간옹호, 인간중심의 의학, 주체의학의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일대 시위로 된다.

새로 꾸려진 중앙위생선전관

1977년에 중앙위생선전관이 새로 꾸려졌다.

우리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배려에 의하여 새로 꾸려진 중앙위생선전관은 보건정책관, 위생지식관, 제약관, 녀성건강관리관과 위생과학영화보급실로 되여있다.

여기에는 1,400여점의 그림, 사진, 조각품, 모형, 표본, 사판과 의약품, 의료기구 등이 진렬되여있다.

보건정책관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우리 당의 혁명적보건전통과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돌려주시는 크나큰 배려에 대하여 감명깊게 보여준다.

또한 여기서는 당의 예방의학적방침과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의 혜택아래 무병장수를 노래하는 우리 인민들의 행복한 모습, 그리고 인민보건사업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들을 보여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병원과 진료소, 인민약국, 료양소와 온천, 약수터 등 보건기관들을 현지지도하신 로정을 사판으로 해설하는 부분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준다.

위생지식관에서는 관람자들에게 간단한 해부생리학적지식과 병이 생기는 원인, 그를 막기 위한 예방대책, 사람들이 생활과정에 지켜야 할 위생지식 등을 가르쳐준다.

제약관에서는 약초의 재배와 채취법, 민간료법과 가정상식을 알려준다. 우리 나라 약초들의 표본과 그 분포정형을 보여주는 사판도 있다. 그리고 민간료법과 약수, 온천을 쓰는 방법도 제시되여있다.

녀성건강관리관도 녀성들의 위생상식을 넓히고 몸을 튼튼히 보호단련하는데 큰 도움을 주게 되여있다.

중앙위생선전관은 근로자들의 위생지식수준을 높여주고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사회주의문화건설

사회주의교육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의 광휘로운 빛발아래 1977년에 우리나라의 주체교육은 더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도의 우월성을 모든 교육부문들에서 더욱 높이 발양시킴으로써 교육체계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보다 더 완성되였으며 교육내용에서 주체가 튼튼히 서고 당성, 로동계급성이 철저히 구현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는 로동계급의 혁명위업,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위업에 복무하는 혁명적인 교육제도이며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고 전체 인민을 공부시키는 가장 인민적인 교육제도이다.》 (《김일성저작선집》, 7권, 438페지)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배려밑에 1977년에 우리 인민은 모두가 일정한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공부하였으며 보다 문명한 인민으로 준비되였다.

인민학교학생으로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510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무료로 공부하고 350만명의 학령전어린이들은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났다.

또한 모든 근로자들이 근로자고등중학교와 공장고등전문학교 혹은 공장대학을 비롯한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자기의 희망과 소질에 따라 마음껏 배웠으며 국가, 경제, 문화 기관의 일군들은 여러가지 재교육망에서 열심히 공부하였다.

교육사업에 거듭 돌려진 막대한 량의 국가적인 투자로 교육기관들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훨씬 튼튼히 꾸려졌다.

유치원들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꾸려졌고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들은 국가에서 훌륭한 직관물들과 실험실습설비들을 받아 기술기능파학연구실을 잘 꾸려놓고 2인조실험을 정상화하게 되였다.

인민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근 1만개의 학교들은 주체가 확고히 서고 현대과학기술수준에 맞도록 교육내용이 더욱더 완성된 새로운 교과서들과 참고서들, 실습지도서들을 국가에서 보장받았다.

155개의 대학들과 수백개에 달하는 고등전문학교들에는 최신과학성과들에 토대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만들어진 현대적설비들을 갖춘 실습공장들과 실험실, 연구실들이 더 잘 꾸려지게 되였다.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들은 시험장들과 실습포전을 따로 가지고 국가적으로 많은 종자와 농약들을 넉넉히 보장받으면서 농업과학연구사업을 하게 되였다.

후대교육을 위함이라면 가장 좋고 훌륭한 모든것을 선참으로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과 사랑속에서 이해에 자강도 희천시 청운리에 새로운 통학렬차가 또 달리기 시작하였다.

이미 외진섬과 산골마을의 몇명밖에 안되는 학생들을 위하여 분교들을 세워주시고 여러개의 통학렬차들을 보내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해에도 또다시 험한 명문고개밑에 흩어져있는 마을들에서 인민학교를 마친 학생들이 걸어서 리소재지에 있는 청운고등중학교에 다니고있다는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훌륭한 통학렬차를 마련해주신것이다. 1977년 6월 8일에 통학렬차 개통식이 있었다. 랑림산줄기의 주봉인 명문고개 기슭에 자리잡은 청운역으로부터 새로 생겨난 공삼통학역사이를 오가는 이 통학렬차는 이곳의 산간지대인 안골, 공삼, 정가구비 등 자연부락들에 있는 26명의 학생들을 위하여 마련된것이다.

이곳에는 또한 청천강상류를 건너 통학하는 15명의 학생들을 위하여 근 100메터나 되는 크고 훌륭한 줄다리도 건설되였다.

해방후 우리 근로자들이 성인교육체계에서 모두가 중학교과정을 성과적으로 마치였으며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을 받은 새세대들이 점차 로력전선에 진출하게 됨에 따라 1977년부터는 모든 근로자들이 보다 높은 교육체계에 망라되여 계속 공부하게 되였다.

고중졸업정도의 일반지식수준을 가진 근로자들은 공장대학 및 대학 통신학부에, 중학교졸업정도의 지식을 가진 근로자들은 근로자고등중학교에 들어갔다.

공업부문 일군들의 구체적실정과 작업조건에 맞게 공장들에는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분교가 나오고 농업부문에도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전문학교 분교가 나왔다.

이러한 교육기관들에서는 전임교원과 함께 이미 대학을 졸업한 기술일군들이 현장직외교원으로 활동하였다.

나라의 방방곡곡 그 어디에나 근로자고등중학교가 세워진 1977년에 먼바다에 나가있는 모든 배들에서도 근로자고등중학교가 문을 열고 학생들을 받았다.

하루일을 마친 선원들이 저녁마다 열풍, 랭풍장치가 되여있는 배 우의 교실에서 여러가지 교편물까지 갖추어놓고 공부한다.

온 나라를 학교망으로 뒤덮어주시고 먼바다에까지 학교를 꾸려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가슴깊이 새기고 우리 어로공들은 학교에서 배운 전문지식을 실천활동에서 더욱 공고히 할뿐아니라 그것을 응용하여 많은 기술혁신들을 해나가고있다.

1977년 10월 대형선박 《청봉》호를 먼바다 한복판에서 참관한 외국인은 우리 나라 조선공업이 낳은 자력갱생의 산물인 《청봉》호를 돌아보고 크게 감탄하며 이런말을 남기였다.

《…현대적인 항해기구들이며 랭동설비며 그 모든것들이 다 감탄한것이지만 특히 배안에 있는 근로자고등중학교, 이것은 특별히 널리 자랑할만한것이다.

조선공업의 력사가 오랜 나라들도 있고 배의 설계가들도 많지만 그 어느 나라에서도 배안에 학교를 내오지는 못했다. 아니 그 어떤 환상가들도 그것을 생각지 못했다.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조선근로자들은 먼바다 한복판에 떠있는 배에서도 행복하게 배울수 있는것이다. 참으로 부러운 일이다.》

1977년에 교육부문에서 거둔 빛나는 성과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가 교육사업에 철저히 구현된 결과에 이룩된 자랑찬 열매이다.

정치사상교양과 과학기술교육

〈정치사상교양〉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정치사상교양은 사회주의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정치사상교양을 잘하여야 학생들을 혁명적세계관이 서고 공산주의적인간의 사상도덕적풍모를 갖춘 혁명인재로 키울수 있다.》
(《김일성저작선집》, 7권, 420페지)

1977년 교육사업에서 거둔 커다란 성과의 하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사업이 심화발전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학생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수준이 한계단 높아진것이다.

이해 교육부문에서는 학생들속에서 정치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여러가지 사업들이 조직되였다.

당의 유일사상교양의 거점인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실》을 정중히 꾸리고 연구토론회, 감상발표모임 등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여 학생들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인민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 학년들에서 취급하는 정치사상학과목 교수요강을 전면적으로 검토한 기초우에서 교수요강을 새로 만들고 교과서들의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보충하였다.

고등교육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해설한 참고서들과 함께 우리 당정책을 해설하고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과학리론적으로 론증한 교재들을 많이 집필 출판하여 교수사업에 리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주체사상의 심원한 진리와 그 위대한 생활력을 폭넓게 리해하도록 하였다.

또한 1977년부터 김일성종합대학의 김일성동지혁명력사학과, 사범대학들의 혁명사적학과 과정안에 혁명사적보존학과목이 새로 보충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도록 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조치였다.

이해에 또한 농업부문의 대학들과 고등전문학교들에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교원양성부문대학들에서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깊이 연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농촌문제해결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주체적교육사상을 더욱 폭넓게 체득하는 사업이 보다 심화되였다.

1977년에 각급 학교들에서 회상기연구발표모임, 혁명전적지견학, 혁명전통을 주제로 한 문예작품을 통한 교양 등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혁명전통학습이 진행되여 학생들의 정치사상교양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해 학생들속에서 활발히 전개된 어버이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주제로 한 책들을 많이 읽을뿐아니라 읽은후 감상문과 일기형식으로 글을 써서 학생 신문들과 잡지들에 발표하는 사업들은 학생들의 정치사상의식수준을 한계단 높이는데서 실효가 아주 컸다.

또한 교육부문에서는 혁명교양, 공산주의교양을 강화하여 학생들을 로동계급의 혁명의식과 공산주의도덕으로 튼튼히 무장시켰다.

1977년에 교육사업에서 정치사상교양이 강화된 결과 우리의 새세대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였으며 공산주의적인간의 풍격을 갖춘 혁명인재들로 더 잘 준비되였다.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기술교육의 내용은 현실발전의 요구와 새로운 과학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끊임없이 보충하고 풍부히 해나가야 한다.**

과학기술교육은 철저히 당정책화하여야 한다.》(《김일성저작선집》, 7권, 425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1977년에 교육부문에서는 이미 이룩한 현대과학기술의 성과에 토대하여 과학기술교육수준을 한계단 높임으로써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유능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워내는데서 혁신적인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과학기술교육의 수준을 높이는것과 함께 또한 학교교육사업을 우리 나라의 구체적인 현실과 결부시키고 모든 학과목들의 교수내용을 당정책화한 결과 우리 혁명과 건설에 실지 써먹을수 있는 기술자, 과학자들이 많이 자라났다.

학생들이 고등교육단계에서 우리 나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적과학기술로 꾸리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원만히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등교육과 중등일반교육에서는 일반기초지식 특히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에 대한 교수를 높은 수준에서 철저히 진행하였다.

보통교육부문과 교원양성부문에서는 교육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모든 학과목들의 교수를 당정책화하여 우리 당이 제기하는 수많은 정책적문제들을 교수내용에 새롭게 반영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우리 현실에 쓸모있는 산 지식을 주도록 하였다.

전자 및 자동화 공학부문에 대한 교육내용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보충되고 시범강의들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농업부문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연개조 5대방침과 주체농법을 과학리론적으로 해설해줌으로써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혁명실천에 능숙하게 써먹을수 있도록 하였다.

농산학, 작물학, 비료학, 토양학을 비롯하여 수십종의 교과서들이 새로 집필되였으며 이것은 농업부문 기술자, 과학자들을 키워내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수산부문 대학들에서도 교수교양사업을 당정책화하고 교육에서 주체를 더욱 철저히 세운 결과 학생들에게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 어로법과 양식법을 가르쳐주게 되였다. 결과 수산부문 대학과 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우리 나라 해양조건에 맞는 현대적어구들과 선박기재들을 능숙히 다룰줄 알뿐아니라 어로작업을 현대과학의 리치에 맞게 바로 지도하고 부단히 기술혁신을 할수 있게 되였다.

1977년에 서해의 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할 기술인재를 키우는 사명을 지니고 남포수산대학이 새로 세워졌다.

이해에 수산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 교과서 수십종이 새로 집필되였다.

교통운수부문 전공학과들의 교육강령도 발전하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전반적으로 검토보충되였다.

과학기술교육의 내용이 새롭고 주체성있게 부단히 보충됨으로써 우리 학생들은 현대과학지식과 기술에 더욱 정통하게 되였다.

학생들을 높은 과학기술지식을 가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준비시키는 사업은 체육교육의 강화로 더욱 확고히 담보된다.

1977년에 학교체육교육은 학생들의 체력을 튼튼히 하고 몸을 균형적으로 발달시키는데 중심을 두고 진행되였다.

5만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집단체조를 비롯하여 학교들에서 키크기운동, 집단달리기, 체육대회 등 여러가지 체육활동들이 진행되였다.

학교들에서 한가지 체육종목을 전문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철저히 구현되여 한가지이상의 체육기술을 가지기 위한 체육활동들도 활발히 진행되였다.

1977년에 중앙체육학원이 남포에 새로 섰다.

체육교육의 수준이 한계단 높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학과성적도 훨씬 높아졌다.

사회주의교육방법의 철저한 구현

〈깨우쳐주는 교수교양〉

1977년에 교육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교육방법에 철저히 기초하여 교수교양사업을 진행한 결과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학교교육의 기본형태는 교수이며 교수의 기본방법은 깨우쳐주는 교수이다.**》(《김일성저작선집》, 7권, 427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1977년에 교육부문에서는 모든 학과목들의 교수를 철저히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수내용을 충분히 소화하고 사물현상의 본질을 더욱 넓고 깊게 파악할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게 하였다.

학교들에서는 아무리 교육내용이 좋은것이라고 하더라도 낡은 방법으로 교육해서는 학생들의 자주성과 창조적능력을 키울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모든 학과목교수에 일관하게 적용하였다.

지난 시기 내용적측면만 놓고 진행되던 교원들의 교재토론이 깨우쳐주는 방법으로 교수하기 위한 문제를 실지 교수내용과 결부하여 진행하는 창발적이며 혁신적인 토론들로 전개되였다.

결과 모든 과목교수에서 분석과 종합, 론리적인 설명, 비교와 대비, 사실적자료의 안받침 등으로 교원들이 학생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주거나 문답식으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등 여러가지 좋은 교수형식들이 나오게 되였다.

보통교육부문에서는 깨우쳐주는 교수에서 효과성이 큰 여러가지 교수방법들을 널리 일반화하면서 교수내용을 전달해주는 교수강습들도 적극 조직진행하였다.

깨우쳐주는 교수교양에서 모범적인 학교들과 교원들의 교수법발표회도 활발히 진행되였다.

교육사업에서 낡은 교수방법이 철저히 극복되고 과학적론리성을 띤 여러가지 깨우쳐주는 교수교양방법이 지배하게 됨에 따라 우리 학생들의 사고는 무한히 계발되였으며 학생들이 교수내용을 공고한 지식으로 충분히 소화해나갈수 있었다.

학과목의 특성에 맞게 교수내용을 직관화하여 학생들에게 사물현상과 과학적원리에 대한 생동한 표상을 주고 그들의 능동적사고를 일깨워주는 교수교양에서도 커다란 성과들이 있었다.

모든 학교들에서 교편물들을 많이 만들어 교수에 리용하는 혁명적사업태도들이 널리 발양되였다.

교수내용을 직관화하는데서 우수한 단위를 내세워 방식상학들도 조직한 결과 직관교수의 비률이 훨씬 높아진것은 물론 그의 질적수준이 높은 단계에 이르게 되였다.

새것에 민감하고 정의감이 강하며 다른 사람의 모범을 본따기 좋아하는 청소년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학생들을 긍정적모범으로 감화시켜 부정을 극복해나가도록 하는 교양방법에서도 성과들이 많았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하였던 항일혁명선렬들의 빛나는 모범으로 학생들을 감화시키며 학생들속에서 창조되는 긍정적모범을 제때에 찾아내고 널리 일반화하는 교양사업들이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광범히 진행되였다.

이 과정에 우리 학생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공산주의적혁명가의 풍격에 공감하면서 그런 모범을 본받기 위해 노력하게 되였으며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준비해나가게 되였다.

<리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의 결합>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리론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하는것은 학생들을 쓸모있는 산 지식을 가진 공산주의적혁명인재로 키우는 중요한 방도이다.》(《김일성저작선집》, 7권, 429페지)

교육부문에서는 1977년에 리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을 밀접히 결합시켜나감으로써 학생들이 쓸모있는 산 지식을 가지도록 하는데서 혁신적인 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모든 학교들에서 실험실습이 강화되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에 대한 답사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에 대한 견학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였으며 교육과 생산로동을 옳게 결합해나가는 혁명적 학습기풍이 세워졌다.

학교들에서 강의와 실험실습이 옳게 결합된 결과 학생들이 교재의 내용을 쉽고 빠르게 리해할뿐아니라 배운 지식을 널리 응용하여 실제로 써먹을수 있는 실천능력을 키워나갈수 있게 되였다.

1977년에 전국의 어느 학교를 막론하고 실험실습토대가 높은 수준에서 훌륭하게 꾸려졌다.

특히 대학과 고등전문학교들에서는 국가로부터 많은 량의 실험실습기재를 받는 한편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로 여러가지 실험실습기구들을 만들어 실험실습토대를 튼튼히 꾸렸다.

공업부문의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들에 있는 실습공장들과 용접실험장, 각종 실험실들이 더 잘 꾸려졌다.

평양기계대학만 보아도 창립초기에 가지고있던것의 25배나 되는 큰 실습공장과 중기계실험실,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기계에 대한 설계도면을 볼수 있는 설계자료실과 8개의 설계실, 강좌별로 되는 실험실들, 자료실들이 있다.

농업부문 대학들과 고등전문학교들은 실습포전과 주변협동농장들에 실습기지를 가지고 주체농법에 대한 현지강의와 연구사업을 진행하게 되였다.

학교들에서 실험실습시간수가 훨씬 늘어나고 실험실습계획이 구체화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적수준이 높아졌다.

대학생들은 실습과정을 통하여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고 교원들과 함께 인민경제에서 긴급하게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푸는 사업에도 적극 참가하게 되였다.

또한 모든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을 생산로동에 활발히 참가시킴으로써 학교에서 배운지식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수 있게 하였다.

교수교양에서 리론교육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이 옳게 결합된 결과 1977년에 주체사상으

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대과학기술과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을 가진 청년인테리들이 많이 자라나게 되였다.

〈조직생활과 사회정치활동의 강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소년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고 혁명적으로 교양하기 위하여서는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을 강화하며 그것을 교수사업과 밀접히 결합하여야 한다.》(《김일성저작선집》, 7권, 431페지)

1977년에 교육부문에서는 학생들속에서 조직생활과 사회정치활동을 강화하는 교수교양방법을 적극 밀고나감으로써 새세대들을 주체시대의 요구에 맞게 어려서부터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산 정치활동가들로 훌륭히 키워냈다.

모든 학교들에서 소년단 및 사로청 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높아짐으로써 학생들이 정치사상적으로 단련되고 혁명적으로 교양되게 되였다.

학생들은 대중속에 들어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을 해설선전하며 그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참가하는 과정을 통하여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의 본질과 독창성, 그 정당성과 위대성, 불패의 생활력을 더욱 깊이 체득하게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기어이 관철해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키우게 되였다.

사회정치활동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은 사회의 넓은 활동무대에서 진리탐구의 시야를 부단히 넓혀나갈수 있었으며 학교울타리안에서 책만 붙들고 앉아있는 《글뒤주》로가 아니라 산 정치활동가들로 준비되였다.

이해에 우리 학생들은 당정책선전대, 예술선전대, 가창대 등 여러가지 선전대를 뭇고 목적지향성있게 선전활동을 진행하였다.

당정책선전대, 예술선전대는 매 시기 제기되는 당정책을 가지고 해설, 담화, 강연, 선전문과 해설문 읽기와 같은 구두선전과 사진, 그림, 환등기 등을 리용하는 직관선전, 예술활동형식을 통한 선전 등으로 선전활동을 진행하였다.

가창대는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거리와 마을에 혁명적인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혁명적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었다.

교육부문에서는 학생들의 사회정치활동이 몇몇 선발된 학생들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빠짐없이 참가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교양사업으로 되게 하기 위해 모든 학생들에게 글쓰기능력과 화술 등 능숙한 선전선동능력을 가르쳐주는 사업도 진행하였다.

이해 모든 학교들에서 활발히 전개된 여러가지 소조활동과 시랑송모임, 독서발표회, 웅변대회는 학생들의 정치활동능력을 키워주는데서 아주 좋은 방법들이였다.

우리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자신의 운명을 사회와 인민의 운명과 련결시킬줄 아는 공산주의적풍모를 갖춰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이해에 학생들속에서는 좋은일하기운동이 여느때보다 더욱 활발히 전개되였다.

이해에 학생들속에서 위생근위대, 록화근위대활동과 기름나무림가꾸기운동, 토끼기르기운동, 헌쇠붙이모으기운동들이 힘있게 벌어졌다.

이해에도 우리 대학생들은 사회정치활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3대혁명소조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 앞장서 나가는 혁명전위들로 자신을 더욱 철저히 준비해나갔다.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성인교육〉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밀접히 결합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데서도 성과들이 많았다.

학생소년궁전과 학생소년회관, 소년단야영소, 도서관 등 사회교양시설들을 거점으로 하여 진행된 과학토론회, 발표모임 등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지식을 주는데서 교양적의의가 컸다.

학생들을 위하여 이미 마련되여있는 수많은 사회교양기관들의 물질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꾸려진것과 함께 이해에 3개의 소년단야영소가 포평, 장자산, 만풍호 기슭에 새로 건설되였다. 이 3개의 야영소는 한해에 1만 2천여명을 야영시킨다.

학교전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을 옳게 결합하고 병진시킴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일생동안 끊임없이 교육할데 대한 우리 당의 독창적인 교육방침이 교육사업에 철저히 관철되였으며 1977년에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학습기풍이 온 나라에 더욱 철저히 서게 되였다.

특히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성인교육사업을 밀고나가는데서 성과들이 많았다.

자라나는 새세대들뿐아니라 배움의 길을 잃었던 성인들까지도 높은 문화기술지식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키워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배려속에서 1977년에 전국 각지에 근로자고등중학교들이 새로 나와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기관, 기업소와 가두의 근로자고등중학교는 1977년 9월 1일에, 농촌부문 근로자고등중학교는 12월 1일에 개교하였다.

근로자고등중학교에서는 해방후 성인학교와 근로자학교, 근로자중학교를 통하여 중학교졸업정도의 지식을 가진 근로자들이 공부한다.

근로자고등중학교의 과정안은 근로자들이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고중졸업정도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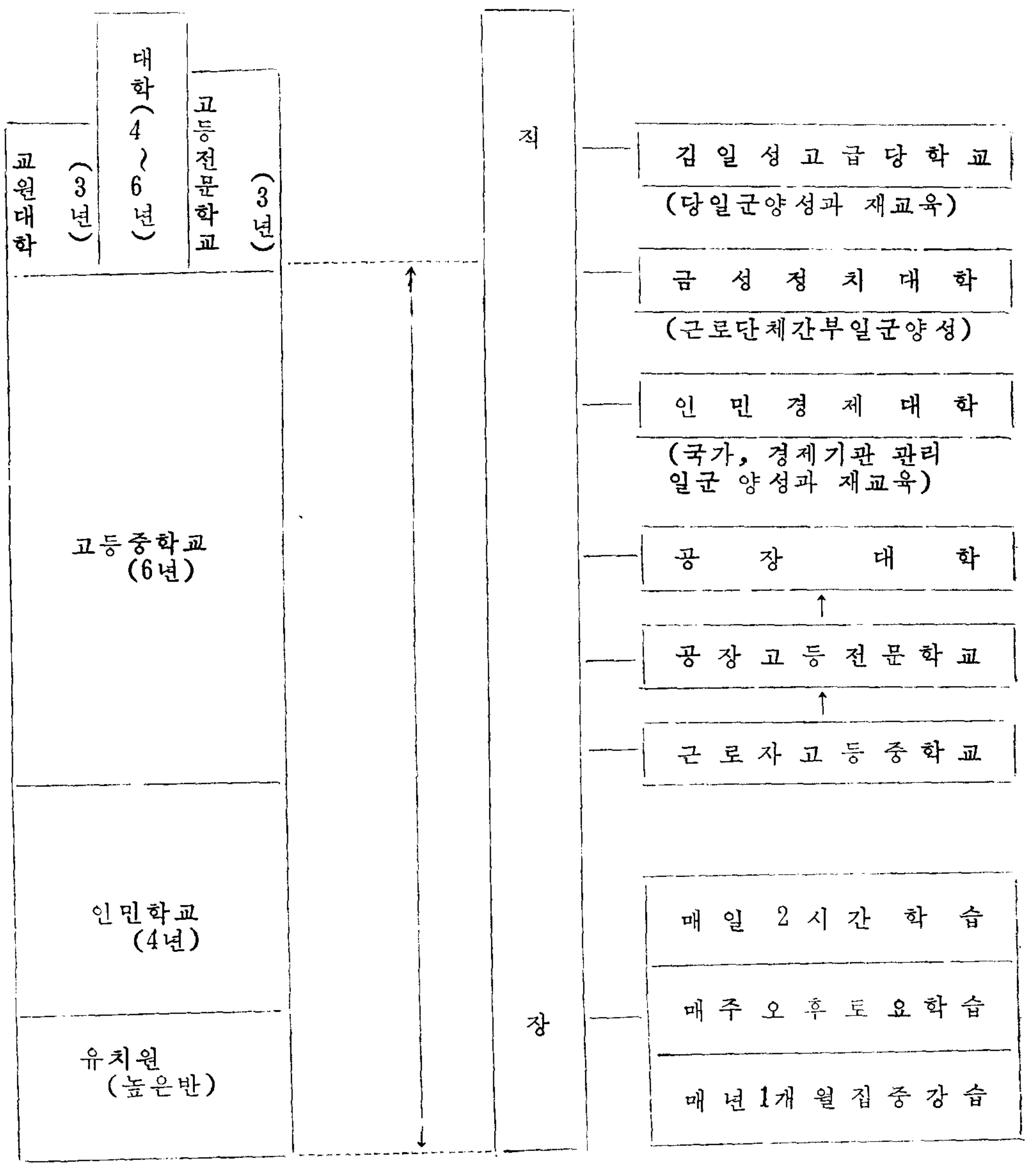
지식수준과 한가지이상의 현대적기술을 가질수 있도록 작성되였다.

근로자고등중학교는 대상자가 15명이상되는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가두에 어디나 세워졌으며 통학거리가 먼곳에는 분교가 나왔고 일정한 기간 다른 지역에 가서 일하는 대상자들은 그곳 근로자고등중학교에서 공부할수 있게 되여있다.

1977년에 간부들을 여러가지 재교육체계에서 계획적으로 재교육하며 토요학습, 수요강연, 매일 2시간학습을 정상화하는 교육방법도 보다 더 완성되게 되였다.

이미 대학과 고등전문학교들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실천활동에 나간 일군들을 재교육시키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조치에 의하여 우리 기술자, 전문가, 과학자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되였으며 풍부한 과학지식을 소유할수 있게 되였다. 결과 그들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을 현대과학기술로 장비하고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짓도록 하는데서 큰몫을 담당수행해나가게 되였다.

우리 나라 교육체계



＊ 우리 나라에서 학생 한 사람이 대학을 졸업할때까지 국가로부터 받는 혜택은 무려 1만원에 달한다.

주체과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뜨거운 배려속에서 1977년에 우리의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심화되였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과학기술적수준을 훨씬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적극 진행하여 높은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완충의 해의 과업수행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사회과학

1977년에 사회과학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려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지향이 날로 높아가고있으며 주체사상을 과학리론적으로 깊이 체득하기 위하여 수많은 연구가들이 주체사상연구를 더욱 심화시키고있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해설하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또한 사회과학부문에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고귀한 경험들을 과학리론적으로 일반화하는 사업과 사회과학의 모든 부문과학들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새롭게 전개하고 체계화하는 연구사업들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한편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과학리론적문제들을 해명하는데도 힘을 넣어 사회과학연구 전반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과학부문에서는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성과와 풍부한 경험들을 리론적으로 일반화하며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더 깊이있게 론증하여야 할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462페지)

사회과학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7년에 새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비롯하여 이미 발표하신 로작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함으로써 로작에 담겨져있는 혁명사상의 창조성과 위대성을 과학리론적으로 깊이있게 해설론증하는 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철학부문에서는 사람의 자주성과 창조성에 관한 사상, 사회발전에서 사람의 사상의식의 결정적역할에 관한 사상, 주체철학은 우리 시대의 혁명적세계관 등 주체철학의 원리적인 문제들을 깊이 연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철학의 독창성과 위대성, 진리성을 과학리론적으로 깊이있게 론증하였다.

철학부문에서는 또한 부르죠아인도주의의 반동적본질과 부르죠아자유관의 반동적본질 등 현대부르죠아철학과 사회학이 들고나오는 반동적인 리론의 본질과 해독성을 폭로하는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철학사를 새롭게 체계화하기 위한 연구사업들도 진행하였다.

경제학부문에서는 사회주의정치경제학을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새롭게 체계화하였으며 주체의 사회주의경제학설과 리론의 창조성과 위대성을 깊이있게 해설론증하였다.

경제학부문에서는 또한 자체의 원료에 의거하여 강유력한 주체공업을 건설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경제건설리론, 로동생산능률의 끊임없는 장성에 관한 리론,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계획화방법론 연구 등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리론실천적인 문제들에 리론적해명을 주기 위한 연구사업들을 진행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인민경제사에 대한 연구사업과 함께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서의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한 투쟁에 대한 연구사업도 진행하였다.

법학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사회주의헌법의 우월성과 독창성을 과학리론적으로 밝혀내는 연구사업,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국가기관들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원칙으로서의 민주주의중앙집권제에 관한 리론 연구사업, 사회주의 국가법과 국가건설에 관한 리론의 위대성과 독창성을 해설선전하기 위한 연구사업들을 진행하였다.

법학부문에서는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건설사와 항일혁명투쟁시기 정권건설에서 이룩된 력사적경험들을 깊이 연구하여 리론적으로 체계화하는 연구사업들도 진행하였다.

문학부문에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리론연구와 함께 문학예술에서 사상성과 예술성을 결합시킬데 대한 문제, 공산주의적인간학으로서의 사회주의적문학예술창조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리론실천적문제 등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독창적인 문학리론들을 깊이 연구하여 그의 정당성과 위대성을 더욱 깊이있게 론증하는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한편 문학부문에서는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진보적문학을 깊이 연구하여 소개선전하기 위한 연구사업들도 진행하였다.

언어학부문에서는 방언에서 좋은 말을 찾아쓸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독창적인 언어사상을 해설하는 연구사업을 비롯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언어리론의 독창성과 위대성을 과학리론적으로 깊이있게 해설완성하기 위한 연구사업들을 밀고나가는

한편 조선말어휘론 개요, 조선말 계통론 연구 등 언어학전문분야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켰다. 이밖에 외국사람들을 위한 조선말교과서, 우리말 어휘 및 표현자료집 등 우리 인민의 언어생활에 실천적도움을 줄수 있는 여러가지 참고서들을 출판하였다.

언어학부문에서는 또한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옳게 살리며 그것을 현대적미감에 맞게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말다듬기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벌리는 한편 이미 다듬어놓은 말들을 근로자들속에 보급침투시키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말을 주체성있게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력사학부문에서는 우리 나라 력사를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면적으로 새롭게 체계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있게 벌려 지난날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과 어용사가들에 의하여 외곡말살되였던 우리의 력사를 주체적립장에서 정확히 서술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고고학부문에서는 고구려의 력사와 문화를 더욱 깊이 연구해명하기 위한 사업들을 힘있게 벌려 여러개의 새로운 고구려벽화무덤들을 찾아내여 정리하고 고구려사를 밝히는데서 의의를 가지는 귀중한 고고학적유물들을 여러점 찾아냈다.

고고학부문에서는 또한 우리 나라에서의 인류의 발생발전에 관한 문제를 밝히기 위한 발굴사업을 힘있게 벌려 우리 나라가 인류의 발생지의 하나이며 우리 선조들이 먼 원시시대부터 이 땅에서 살아왔다는것을 보여주는 가치있는 고고학적자료들을 적지않게 찾아서 정리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깊이있게 해설하며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독창성, 그 영원한 진리성을 과학리론적으로 론증하는 우리 사회과학자들의 과학론문들이 국가적인 주요 기념일과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발표기념일을 계기로 진행된 사회과학토론회들에서 광범히 발표토론되였다.

사회과학의 모든 부문과학들을 포괄하여 발표된 이 과학론문들은 우리 근로자들의 주체사상학습과 사회과학전문일군들의 과학연구사업에 큰 도움을 주었다.

1977년에 진행된 주요 사회과학토론회들은 다음과 같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깊이 학습하기 위한 사회과학부문일군들의 연구토론회 (4월 4일～12일)

△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에 의한 조선국민회결성 60돐기념과학토론회 (3월 22일)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에 대한 사회과학부문일군들의 연구토론회 (4월 21일)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 40돐기념과학토론회 (6월 2일)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마련하여주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을 연구학습하기 위한 중앙과학토론회 (7월 30일)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조직령도하신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결성 쉰돐기념 중앙과학토론회 (8월 24일)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9돐을 기념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에 대한 연구토론회 (9월 6일)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발표 40돐기념 연구토론회 (11월 10일)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발표 5돐기념 연구토론회 (12월 22일)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이 내용을 보충하고 새로 문을 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유적유물을 원상그대로 복구하며 잘 보존관리할 데 대하여 주신 교시에 따라 1977년에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이 내용을 보충하고 새로 문을 열었다.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은 원시사회로부터 1919년 3.1운동시기까지를 포괄하고있다.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첫 고대국가였던 고조선의 독특하고 우수한 문화로부터 시작하여 근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조들이 창조한 문화유산들은 그 뛰여난 예술적재능으로 하여 사람들을 감탄시키고 있다.

새로 발굴정리한 력사유물자료들은 19개호실에 나누어 전시되여있다.

자 연 과 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과학자, 기술자들 앞에 나서는 당면한 과업은 이미 있는 경제토대를 완전히 리용하기 위한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인민경제발전의 전망과업으로부터 출발하여 새로운 과학기술분야를 부단히 개척해나가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69페지)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자연과학부문에서는 완충의 해의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풀기 위한 연구사업을 힘차게 진행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

었다.

철도운수분원과 금속분원, 기계제작연구소, 석탄분원 등 과학원안의 여러 분원의 연구사들은 수송의 긴장성을 풀며 채취공업과 전력공업, 경공업발전에 기여할 가치있는 연구과제들을 해결하였다.

철도운수분원에서는 전기기관차의 견인능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과 함께 철도의 구배선과 평탄선 등 각이한 구간의 용도에 맞는 새로운 제동구두를 해결하고 그 수명을 늘이기 위한 연구사업들을 진행하였다.

또한 대형자동차의 마모되였거나 부러진 곡축을 재생하는 기술공정을 꾸리며 기화기의 성능을 높여 연유를 절약하면서도 수송능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에서도 인민경제적의의가 큰 성과들이 있었다.

이밖에도 철도전기화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짐을 싣고부리는 작업을 기계화하는데서 나서는 새로운 문제들이 연구완성되여 수송의 긴장성을 푸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채취공업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이 해결된것이 또한 이해 과학연구사업에서 거둔 큰 성과였다.

석탄분원, 금속분원, 기계제작연구소에서는 능률높은 채탄기와 굴진기를 만들고 선진적인 채탄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채굴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실현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한편 니탄의 합리적인 채굴방법과 그것을 연료로 널리 쓰기 위한 문제, 버럭탄을 연료로 쓰는 문제, 마그네샤크링카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에서도 성과가 컸다.

발전소들의 발전능력을 높이며 그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였다.

농업과학원 농업기계화연구소에서는 자연개조5대방침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할 충성의 한마음안고 과학연구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였다.

일찌기 농촌수리화의 세기적인 숙망을 풀어주시였으며 오늘은 산간지대의 다락밭에까지 관개체계를 도입하도록 하기 위해 심려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가슴뜨겁게 느끼면서 농업기계화연구소 일군들은 발관개와 랭습지개량, 치산치수 등 어데서나 널리 쓸수 있는 능률높은 기계들을 만들어냈다.

과학원 생물분원 실험생물학연구소에서는 닭의 단백질먹이를 대신하는 대용먹이를 연구함으로써 축산업을 발전시키는데서 공고한 사료기지를 마련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간곡한 교시를 관철할수 있었다.

단백질먹이의 원천이 제한되여있고 그 값이 높은 조건에서 그것을 대신할수 있는 값눅고 원천이 많은 대용먹이를 얻어낸것은 인민경제적의의가 큰 것이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맛있고 영양가높은 식료품과 여러가지 일용품을 더 많이 생산공급할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심장으로 받든 과학원안의 함흥분원과 생물분원 연구사들은 인민소비품의 생산을 늘이며 그 질을 한계단 더 높이기 위한 연구사업들을 진행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경공업과학원 발효연구소에서는 우리 나라에 많은 원료를 가지고 우리 인민의 식성에 맞는 새로운 양념감을 대량적으로 생산할수 있는 과학적문제들을 해결하였다. 특히 맛내기와 양념감을 비롯한 식료품생산에서 큰 혁신을 일으킨 가치있는 연구성과들을 내놓았다.

우리 인민의 건강에 대하여 언제나 심려하시며 육친적배려를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나라 곳곳에서 나오는 약수, 온천과 함께 감탕을 치료예방사업에 적극 리용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받들고 의학과학원 평천물리치료학연구소 광천원천연구실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40여개소의 중요한 치료용 감탕산지를 새로 찾아냈다.

이 연구소의 약수가공연구실에서도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깊고 뜨거운 배려가 인민들에게 더 잘 가닿게 하려는 열화같은 충성심을 안고 모든 약수터들에서 병약수를 생산할수 있는 가공설비를 새롭게 연구해냈다.

새로운 약수가공설비는 위생성이 철저히 보장되고 가공된 병약수를 오래 보관해도 맛, 성분을 그대로 보존할수 있게 만들어져 치료사업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해에 동물학연구소 분류학연구실에서는 우리나라에 살고있는 물고기를 잘 연구할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새로운 물고기를 찾아냈다. 지금까지 알려져있지 않고있던 새로운 속, 새로운 종의 물고기인 편어, 룽어가 발견되였다.

동물학연구소에서는 이미 찾아낸 물고기들을 더 잘 보호육성하면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물고기들을 찾아내는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우리 과학자들이 연구한 많은 문제들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도입됨으로써 3대기술혁명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하였다.

이해에 우리의 과학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때 주체적인 과학연구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할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여야만 수령님께서 주신 영예로운 과업을 훌륭히 수행하고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과학자로서의 임무를 다할수 있다는 신념을 보다 확고히 지니게 되였다.

혁명적문학예술

혁명소설 및 시 문학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큰 역할을 맡고있습니다.

문학예술부문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세계관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혁명적인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는데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462폐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문학부문에서는 1977년에 혁명적인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 사상혁명수행에 적극 기여하였다.

이해에 우리 문학이 거둔 성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혁명적가정, 고매한 덕성을 빛나는 예술적화폭으로 재현한것이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소설로 옮긴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소설로 옮긴 장편소설 《꽃파는 처녀》가 1977년에 세상에 나왔다.

우리 혁명적문학예술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루는 귀중한 혁명적재부들중의 하나인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소설로 옮긴 장편소설 《꽃파는 처녀》가 나오게 된것은 우리 인민의 사상생활에서와 우리 문학예술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일제의 파쑈적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의 민족적비운이 절정에 이르렀던 1920년대말—1930년대초의 사회력사적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는 이 장편소설에서는 주인공 꽃분이를 통하여 착취받고 압박받는 조선인민의 생활을 심각하게 그리면서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 《꽃파는 처녀》는 수억만 피착취, 피압박 인민들이 나아가야 할 혁명의 길을 밝혀주고 그들에게 혁명적량식을 줄뿐아니라 혁명적문학예술창작에서 지켜야 할 미학적원칙들을 가르쳐주는 참된 교과서로 되고있다.

이해에 또한 《불바람》, 《젊음을 자랑하라》를 비롯한 여러편의 중편소설들이 창작되였다.

중편소설 《불바람》은 우리 나라 북방의 대야금기지건설장의 한 연공작업반원들의 영웅적투쟁모습을 통하여 우리 시대 로동계급의 불굴의 혁명적 기개를 보여주었다.

중편소설 《젊음을 자랑하라》는 나라의 동맥을 하나의 대륜환선으로 꾸리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동서해안을 새롭게 련결하는 이천—세포사이의 새 철길건설에 떨쳐나선 청년돌격대원들의 생활과 투쟁을 반영한 작품으로서 우리 시대 청년들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된 립장에서 어렵고 힘든 일에 스스로 앞장서는것을 청춘의 자랑으로 여긴다는것을 밝히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떨쳐나선 우리 근로자들의 영웅적투쟁모습과 대오의 선두에서 전진하는 3대혁명소조원들의 빛나는 성격을 형상한 단편소설들인 《영심이》, 《우리는 이렇게 자란다》를 비롯하여 이해에 수많은 단편소설들도 창작되였다.

또한 이미 나온 소설작품들을 묶은 단편소설집 《태양을 따라》, 《조약돌》이 출판되였다.

1977년에 시문학분야에서도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예순다섯돐을 맞이하면서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끝없는 흠모의 정으로 감명깊게 노래한 서사시 《인민의 위대한 태양》을 비롯하여 주체사상교양에 이바지하는 서사시작품들이 많이 창작발표되였다.

서사시작품들은 조국과 인류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감명깊게 노래함으로써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혁명하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끝없는 행복감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자신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준비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해에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농법의 해발아래 우리 나라 농촌 그 어디에나 만풍년의 기쁨이 넘쳐나고 인민의 행복 더욱 커가고있는 현실을 노래한 장시 《설레이라 벼바다 강냉이바다여》와 많은 서정시들이 창작되였다.

이밖에 어린이들을 아버지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으로 교양하며 은혜로운 사회주의제도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실속있게 배워 모두가 사회주의건설에 써먹을수 있는 산 지식을 가진 능력있는 역군으로 자라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아동소설 및 동화, 동요, 동시들과 가사들도 많이 창작되였다.

1977년에 문학작품창작에서 이룩한 커다란 성과들은 우리 문학예술을 혁명과 건설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주체문학예술의 참다운 본보기로 만들어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끊임없는 배려의 결과이다.

장편소설 《꽃파는 처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그대로 옮긴 장편소설 《꽃파는 처녀》는 원작이 제기한 심각한 문제성과 그에 담겨있는 높은 사상성, 진실한 형상성으로 하여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수령님께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혁명적문학예술창작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혁명적대작의 본보기로 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피압박인민들은 오직 투쟁에 의해서만 자기자신을 해방할수 있다. 이것은 력사에 의하여 확증된 단순하고도 명백한 진리이다.》(《김일성저작선집》, 4권, 521페지)

1920년대말 1930년대초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는 불후의 원작을 소설로 옮긴 장편소설 《꽃파는 처녀》는 주인공 꽃분이와 각이한 인물들을 시대의 사회계급적전형으로 훌륭히 형상함으로써 이 땅우에 무겁게 드리운 어둠속에서 억눌리고 짓밟히고 뜯기우던 인민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여 주체적인 조선혁명로선이 밝혀주는 혁명의 길로 나아가기까지의 시대상을 당시의 현실 그대로 생동하게 펼쳐보이고있으며 시대발전의 본질을 예리하게 분석천명하고있다.

작품은 꽃분이와 그 일가의 기막힌 처지를 당시 우리 나라의 사회계급적모순관계속에서 심오한 예술적형상으로 일반화함으로써 그들이 겪게 되는 고통과 불행이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나라없고 돈없는 모든 조선인민이 겪어야 했던 민족적재난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으며 일제를 등에 업은 지주, 자본가들이 활개치는 이 저주로운 사회는 반드시 뒤집어엎어야 한다는것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작품의 중심에 서있는 꽃분이는 처음에 너무나도 착하고 순박한 농촌처녀였다. 그는 온 가족의 불행으로 하여 가슴가득히 설음을 안고있으나 애오라지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려야 한다는 절절한 마음을 안고 부지런히 꽃을 꺾어다 판다.

지주놈의 등쌀에 일찌기 세상을 떠난 아버지, 병에 시달리다가 끝내 운명하는 어머니, 앞못보게 된 어린 동생, 게다가 기둥처럼 의지하고 살던 오빠마저 일제경찰놈들에게 끌리여가서 감옥에 갇히게 된 꽃분이의 눈물겨운 생활을 통하여 작품은 이 재난의 근원을 밝히고 더없이 저주로운 착취제도를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작품은 또한 날카로운 극적일반화를 통하여 극도로 첨예화된 사회계급적모순을 끝장내기 위해 피압박, 피착취 대중이 나아갈 길은 오직 혁명의 길뿐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밝혀주고있다.

정성이면 돌우에도 꽃이 핀다고 하였건만 정성들여 마련한 약한첩도 써보지 못하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설음과 원한이 가슴에 사무쳤어도 이 설음을 강요하는 계급적원쑤들에게 항거할줄 모르던 꽃분이는 점차 각성되여 오빠와 순희마저 빼앗아간 지주놈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들며 마침내는 조선혁명군 대원이 된 오빠의 영향밑에 혁명대오에 들어서게 된다.

작품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조선혁명군의 거대한 영향을 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혁명의 길에 나서게 된 력사적사실을 바로 꽃분이의 형상을 통해 사실주의적으로 반영하였다.

장편소설은 원작의 심오한 사상예술성을 소설문학의 예술적가능성을 능숙하게 구사하여 훌륭히 부각하였다.

장편소설 《꽃파는 처녀》는 우리 문학예술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며 사회주의문학예술의 사상성과 예술성, 전투성과 혁명성을 더욱 높임에 있어서 거대한 기여를 하였다.

장편소설 《꽃파는 처녀》는 그의 높은 당성과 로동계급성, 풍부한 인민성과 민족적특성으로 하여, 그의 고상한 예술성으로 하여 우리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게 하며 혁명하는 인민들에게 혁명의 진리를 깨우쳐주고 그들을 혁명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참된 교과서로, 투쟁의 무기로 되고있다.

영화예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모든 문학예술작품들은 오늘의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쳐주는데 복무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162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1977년에 우리 나라 영화예술은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수록하는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있는 기록영화는 어버이 수령님께서 이해에 끊임없이 이어오신 현지지도의 거룩한 자욱과 불멸의 혁명업적을 대를 이어 전하기 위한 영예로운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이해에 여러편의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지도 기록영화들과 함께 기록영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기혁명활동사적지를 찾아서》(전, 후편),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가 세상에 나왔다.

기록영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기혁명

활동사적지를 찾아서》(전, 후편)는 위대한 수령님의 초기혁명활동력사야말로 조선혁명의 력명기가 마련된 영광의 력사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기록영화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는 1977년 9월 평양에서 열렸던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 과정을 수록한 영화로서 자주성을 옹호하는 투쟁이 세계적규모에서 벌어지고있으며 주체사상을 배우고 따르는것이 시대적사조로 되고있는 우리 시대의 거창한 혁명적현실을 생동하게 반영하였다.

영화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세계 혁명적인민들의 끝없는 흠모의 마음과 주체사상을 확고한 신념으로 삼아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려는 그들의 불타는 지향과 확고한 결의를 감동적인 화폭들로 보여주었다.

영화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에게 끝없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었으며 위대한 주체사상을 더욱 깊이 연구체득하고 혁명실천에 더 잘 구현해나갈 결심을 한층 더 굳게 해주었다.

1977년에 예술영화창작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

특히 조선예술영화촬영소와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 백두산창작단에서 공동으로 만든 《누리에 붙는 불》이 세상에 나온것은 이해에 예술영화부문에서 이룩한 특기할만한 성과이다.

예술영화부문에서는 새로운 혁명적작품 《누리에 붙는 불》의 창조를 계기로 위대한 수령님의 찬연한 혁명력사를 형상하는 력사적위업을 전면적으로 실현하는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이것은 영화예술이 거둔 혁신적성과이다.

또한 이해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신뢰와 다함없는 충성심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깊이있게 그려낸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가 세상에 나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높은 충성심을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대중적혁신을 일으키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은 어떻게 표현되여야 하며 자신과 가정의 혁명화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를 높은 예술적형상으로 설득력있게 보여줌으로써 영화예술을 혁명과 건설에로 인민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만들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훌륭히 관철하였다.

정전직후 어려웠던 시기 우리 나라에서 농업협동화가 준엄한 계급투쟁속에서 어떻게 승리적으로 완성될수 있었는가를 심각한 문제로 제기하고 섬세한 예술적형상속에서 진실하게 묘사한 예술영화 《시련의 해》가 나왔다.

이 영화는 혁명의 과녁은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 인민의 생활은 날을 따라 유족해지고 착취와 억압을 받아보지 못하고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새세대들이 나라의 주인으로 등장하고있는 조건에서 근로자들과 청소년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할 우리 혁명의 절실한 요구에 훌륭한 예술적해답을 주고있는 의의있는 작품이다.

예술영화 《시련의 해》는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로 하여금 계급적원쑤들을 끝까지 미워할뿐아니라 혁명의 전취물을 믿음직하게 보위하며 특히 자라나는 새세대들이 대를 이어 우리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이해에 또한 항일무장투쟁시기 소자산계급출신의 한 청년인테리의 혁명적성장과정을 통하여 세상에 사람으로 태여나 혁명을 위하여, 자기 조국과 인민과 로동계급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는것보다 더 큰 행복과 삶은 없다는 고귀한 진리를 밝혀낸 예술영화 《생활의 길을 따라서》,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적들속에 침투하여 목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용감하게 싸우는 한 당원의 영웅적위훈을 형상한 예술영화 《잊을수 없는 사람》,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어떻게 교양하고 준비시켜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훌륭한 예술적해답을 준 《한 해병의 이야기》 등이 나왔다.

학생들을 지덕체를 겸비한 공산주의후비대로 키우며 어린이들의 계급교양, 혁명교양에 이바지하는 아동영화들도 많이 창작되였다. 《나비와 수탉》을 비롯하여 《불개미와 송충이》, 《하늘의 쇠돌》, 《다람이와 고슴도치》, 《탈쓴 승냥이》, 《할아버지네집으로 간 곰》이 특히 좋았다.

아동영화 《나비와 수탉》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30년대 항일무장투쟁시기 유격대원들과 아동단원들에게 몸소 들려주시던 이야기를 아동그림영화에 옮긴것으로서 우리 나라 아동영화발전에서 참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작품이다.

이해에 3대혁명 특히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 이바지하는 과학영화들도 많이 창작되였다.

1977년에 우리의 영화예술이 거둔 모든 성과들은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거듭되는 배려의 결과이다.

기록영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기혁명활동사적지를 찾아서》 (전, 후편)

기록영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기혁명활동사적지를 찾아서》(전, 후편)는 수령님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통하

여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어떻게 마련되였는가를 년대기적으로 폭넓게 보여주는 력사문헌자료영화이다.

영화는 포평으로부터 시작하여 팔도구와 림강, 무송과 화전, 길림과 카륜, 오가자, 돈화, 안도 등으로 화면을 옮겨가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초기혁명활동업적이 깃들어있는 사적지, 위력한 실물교양수단인 사적물들과 자료들을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영화는 시작되면서 포평을 펼쳐보인다음 후창거리에 높이 우러러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으로 관람자들을 안내하여 어리신 나이에 조선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 뜨거운 격정에 휩싸이게 한다.

영화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하시고 압록강을 건느셨던 포평나루터와 나루터표식비, 선창가 등을 보여주고나서 수령님께서 건너가신 팔도구를 펼쳐준다.

영화는 팔도구의 집 광제의원 (치료실과 살림방), 위대한 수령님께서 림강으로 가실때 타셨던 말파리와 그 밤에 들리셨던 압록강가의 오구비마을, 림강중심거리와 림강우편국, 전화기와 전화선, 소남문거리집과 삼형제바위들 등 사적지와 사적물들을 통하여 만주광야에 불멸의 자욱을 남기시며 혁명의 뜻을 넓혀나가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력사를 예술적으로 진실하게 재현하였다.

특히 영화는 푸른 소나무의 억센 기상을 안으시고 력사의 새벽길을 개척하신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원》의 그 높은 뜻을 안으신채 그만 애석하게도 세상을 떠나셨을때 모셔갔던 양지촌언덕과 느티나무를 보여주고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선생님의 유언이 깃든 권총 두자루를 어머님으로부터 받으시고 조국광복의 굳은 마음을 다지시는 화폭을 숭엄하게 펼쳐준다.

화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26년 6월부터 화성의숙에 다니시면서 조선혁명의 새로운 앞길을 독자적으로 개척해나가신곳이며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신 력사의 지점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되는 참다운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우리 혁명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선언이였습니다. 타도제국주의동맹이 결성된 때로부터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되게 되였으며 바로 이때로부터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7권, 258페지)

화면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조직하시고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우리 혁명을 령도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의 주체의 혁명위업이 빛나게 개척되기 시작하였음을 여러가지로 보여주는 화성의숙 기숙사며 김시우의 집과 정미소집, 비밀회의집 그리고 그안의 사적물들을 펼쳐보인다.

영화는 길림육문중학교에 모셔져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화면에 정중하게 모신데 이어 육문중학교와 교실, 그이께서 앉으셨던 책상과 의자 그리고 수령님께서 전교학생들의 추대를 받으시여 학교도서관사업을 책임지시고 보시던 혁명적출판물들과 각종 선전물을 발간하시던 등사기, 조선혁명에 관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시던 송화강유보도와 문광중학교, 길림녀자중학교, 지하공작에 리용하시던 길림례배당, 《복흥태》정미소와 유서깊은 북산공원들을 감명깊게 보여준다.

이 화면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길림시내의 각 학교들에 비밀독서회와 연구소조들을 조직하시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과 리론을 보급하시였으며 《ㅌ. ㄷ》의 명칭을 반제청년동맹으로 고치시고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을 골간으로 하여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조직하시고 활동하신 혁명투쟁을 생동하게 보여준다.

계속하여 영화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광범한 청년학생들과 군중들을 혁명조직들에 묶어세우시여 반동군벌당국과 결탁한 학교안의 반동교원들을 반대하는 동맹휴학을 조직하시고 승리에로 이끄신 자료를 보여준후 1928년 10월 학생들과 각계각층군중들을 일제의 길회선철도부설반대투쟁에로 힘차게 불러일으키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감동적으로 화면에 모신다.

다음으로 영화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929년 10월 놈들에게 체포되시여 옥중생활을 하시게 되였던 길림감옥을 보여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2호감방과 13호감방에서 옥중투쟁의 간고한 나날을 보내시면서 수감자들을 혁명의식으로 교양하시는 한편 비범하신 감화력과 넓으신 도량으로 간수들까지도 혁명의 동정자, 방조자로 돌려세우시였으며 바깥혁명조직들의 활동을 지도하시고 감방속의 단식투쟁도 몸소 조직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1930년 5월초 조선혁명을 결정적으로 전진시킬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안으시고 길림감옥을 나서시였다.

영화의 후편 (1920년대말부터 1932년 4월 25일까지) 에서는 카륜과 고유수, 오가자, 돈화, 명월구, 안도 등지의 사적지들을 통하여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에 관한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조직하신데 대하여 기록영화적인 실재성과 직관성, 정론성과 시사성의 특성에 맞게 년대기적으로 잘 편집하여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옥중에서 무르익히신 조선혁명에 관한 새로운 구상을 안으시고 1930년 6월 중순 카륜으로 오시였다.

영화의 화면은 카륜마을과 카륜의 쟈쟈툰마을, 진명학교로 흐르면서 좌경모험주의자들이 일으킨

5.30폭동의 후과로 반혁명적폭압선풍이 강화되던 엄혹한 때에 각지의 혁명조직들을 수습정비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조직들의 지도성원들을 카륜으로 부르시여 진명학교에서 1930년 6월 력사적인 카륜회의를 소집하시고 조선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이 걸어온 길을 전면적으로 총화하신후 주체적인 혁명로선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 무장투쟁로선, 통일전선로선과 조선공산당창건을 위한 방침들을 내놓으신 사실들을 감명깊게 보여준다.

이어 영화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930년 여름 이통현 고유수에서 조선혁명군을 결성하시고 그를 조직지도하신데 대해서와 농촌을 혁명화하며 혁명의 핵심력량을 육성확대하여나가기 위한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리신데 대해서 력사적사적들로 보여준다.

화면은 혁명적출판물발간사업을 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정중히 모신데 이어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의 공연이 마련된 오가자의 느티나무와 조국광복의 성스러운 투쟁에 불러주신 삼성학교 운동장, 1931년 12월 력사적인 명월구회의가 진행된 옹석라자에 있는 국수집으로 넘어간다.

바로 이집에서 유격전의 형식으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할데 대한 새로운 방침이 제시된것이다.

영화는 화면을 바꾸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무장투쟁준비를 하시던 안도현 흥륭촌을 보이고 조선의 위대한 어머님이신 강반석녀사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를 보내신 소사하의 토기점골 유서깊은 집을 화면에 옮긴다.

소사하의 집은 강반석어머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첫 군복을 지으시였고 어려운 작별을 앞에 두고 혁명을 하자면 집일을 잊어야 한다고 하시며 한푼두푼 모으신 돈 20원을 위대한 수령님께 내놓으시고 혁명의 길을 헤쳐가시는 아드님의 신발에 달비를 깔아드리신 집이며 혁명가의 안해, 혁명가의 어머니 강반석어머님께서 애석하게도 세상을 떠나신 집이다.

이어 영화는 강반석어머님의 서거를 애도하여 산천초목도 몸부림치는 소사하의 언덕에서 신음하는 조선인민을 생각하시며 강도일제를 때려부실 혁명의 각오를 더욱 굳게 다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화면에 모신다.

영화는 안도의 수림으로 흐른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만난을 물리치시고 1932년 4월 25일 안도에서 우리 나라의 첫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혁명군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영화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초기혁명활동시기에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풍부한 사료들을 안받침하여 잘 보여줌으로써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심장깊이 체득하고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예술영화 《누리에 붙는 불》

예술영화 《누리에 붙는 불》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비롯한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제시하신 1930년 여름으로부터 그이께서 항일유격대창건을 선포하시고 그 영웅적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게 되는 시기까지를 포괄하는 우리 혁명의 위대한 전환기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 실재한 력사적사실들과 인물들을 그대로 형상한 작품이다.

예술영화 《누리에 붙는 불》은 위대한 수령님과 수령님의 어머님이신 강반석녀사, 삼촌이신 김형권동지께서 벌리신 만대에 길이 빛날 혁명활동에 대한 력사문헌적인 작품인 동시에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 문예사상과 문예방침을 훌륭히 구현한 걸출한 성과작이다.

예술영화 《누리에 붙는 불》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영화화면에 모심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투쟁업적을 앞으로 계속하여 영화화면에 모실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기념비적인 첫 대작으로서 우리 영화예술발전력사에서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였다.

영화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항일무장투쟁로선을 받들고 견결한 공산주의혁명투사 김형권동지께서 인솔하신 조선혁명군의 한 무장소조가 국내에 진출하여 싸운 력사적사실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영화는 김형권동지의 국내혁명활동을 기본으로 그리면서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본격적인 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여나가시는데로 형상의 폭을 넓혀나감으로써 예술적일반화에서 특출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 형상의 폭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령님께서 얼마나 험난한 혁명의 길을 헤쳐오시면서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마련하시였으며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에로 이끌어오셨는가를 가슴뜨겁게 느끼게 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끝까지 싸워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게 한다.

바로 여기에 이 영화로 하여금 력사적사실과 예술적진실성이 완벽하게 결합된 거대한 력사문헌적인 대작으로 될수 있게 한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적존재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체적생명보다도 사회정치적생명이 더 귀중하다고 말할수 있습니다.…바로 그렇기때문에 혁명가들은 남의 노예가 되여 목숨을 보존하기보다는 자유를 위하여 싸

우다 죽는것을 몇배나 더 영예로운것으로 생각하는것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6권, 273페지)

영화 《누리에 붙는 불》은 자주적인 인간의 혁명적 신념과 의지가 어디에 기초하고있으며 그러한 신념을 지닐 때 인간은 얼마나 아름답고 힘있는 존재로 되는가 하는것을 심오한 예술적형상으로 밝혀내고있다.

기본사건전개에 앞서 화면에 펼쳐지는 영화의 서막, 일제의 감옥에 갇히신 김형권동지께서는 맨주먹을 가지고 《대일본제국》을 당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가고 하는 일본경무국장놈에게 이렇게 대답하신다.

《있소. 우리에게도 무장이 있소. 그리고 우리에게는 당신들이 못가진 또하나의 무기, 죽을지언정 꺽이지 않는 혁명의 신념과 불굴의 의지가 있소. 이것은 당신네 〈대일본제국〉뿐아니라 온 세상의 침략자들과 략탈자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릴것이요.》

근엄하게 울리는 김형권동지의 이 말씀속에는 주체형의 혁명가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심오하게 밝혀져있으며 바로 이 신념과 의지가 기본주제사상으로 영화에 일관하게 흐르고있는것이다.

특히 혁명의 배신자 최진팔을 준렬히 단죄하시는 김형권동지의 모습을 애국자와 매국노, 혁명가의 신념과 변절자의 《생활철학》파의 날카로운 대비속에서 깊이있게 형상함으로써 영화는 참다운 인간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명백한 해답을 주고있다.

그러면서 영화는 일제교형리들의 야수적고문속에서도 굴함없이 싸우실뿐아니라 항일유격대가 창건된 소식을 들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조국을 광복할 힘이 생겼으니 이 몸은 비록 교수대의 이슬이 되여도 기쁘게 눈을 감을수 있다고 하시며 고향도 가정도 청춘도 목숨도 모두다 버리여도 오직 하나, 혁명의 신념만은 버리지 말라고 열렬히 호소하시는 김형권동지의 형상을 위대한 수령님을 우러러따르는 전체 조선공산주의자들의 불굴의 혁명적 신념과 의지의 상징으로 힘있게 일반화하고있다.

이러한 폭넓은 형상으로 하여 영화는 김형권선생님께서 지니신 이 혁명적신념은 영광스러운 력사와 더불어 우리 혁명대오의 신념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의 신념으로 온 누리에 불타오르게 되였음을 소리높이 노래할수 있었다.

영화는 또한 김형권동지의 혁명활동을 1930년대초 우리 나라의 사회상을 훌륭히 일반화한 시대적화폭속에서 그림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항일무장투쟁로선의 정당성을 힘있게 론증하고있다.

체포되여가는 봉임선생님에게 가지말라고 매달리다가 《오빠시》놈의 칼에 맞아 12살 어린 나이에 무참하게 죽는 명남이, 지친몸으로 통나무를 나르다가 쓰러졌다는 죄아닌 《죄》로 무참히 학살되는 로인, 《오빠시》놈이 산처럼 쌓여있는 통나무들을 마구 굴리는바람에 무리죽음을 당하는 로동자들…

이런 참상은 국내에서 《공산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는식으로 삐라장이나 날리고 계몽사업이나 하고 다녀서는 결코 혁명의 승리를 기대할수 없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의 현명성과 정당성을 확인하면서 반혁명적폭력은 오직 혁명적폭력으로 쳐부셔야 한다는 진리를 설득력있게 밝혀내고있다.

영화는 또한 훌륭한 예술적화폭들로 펼쳐지는 형상들을 통하여 주체형의 혁명가들은 투쟁에서 견결할뿐아니라 생활에서도 가장 뜨겁고 열렬한 인간애를 지닌 위대한 인간들이며 그들이 지닌 인간성이 과연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한것인가를 가슴뜨겁게 보여주고있다.

예술영화 《누리에 붙는 불》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뿌리를 더욱 깊이 체득하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빛내여나가도록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는 전후 사회주의건설의 가장 준엄하던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께 자기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충성의 한마음을 다 바쳐온 서해지구의 어느한 유가족어머니의 생활에서 있은 실지사실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작품으로서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은 어떻게 표현되여야 하며 자신과 가정의 혁명화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심오한 해답을 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과 혁명에 대한 충실성, 다시말하여 당성은 무엇보다도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받아들이고 무조건 집행하는데서 나타나야 합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3권, 122페지)

영화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생활에서 나서는 근본문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에 대하여 어떤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관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모든 농촌들에서 농산과 함께 축산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하신 수령님의 교시를 이악하게 관철해나가는 주인공 어머니의 형상을 통하여 심오한 예술적 해답을 주고있다.

비가 억수로 퍼붓는날 돼지를 실은 달구지를 몰고오는 어머니, 당장 새끼를 낳아야 할 돼지에게 먹일 먹이가 없어 축산반원들이 안타까와할 때 집에서는 죽을 먹으면서도 강냉이를 타개서 돼지에

게 먹이던 어머니는 반당종파분자들이 독약을 먹여 어미돼지를 죽이고 그 책임을 자기에게 넘겨씌우며 제놈들의 지시를 듣지않는다고 관리위원장인 며느리를 철직시키려고 책동할때도 당정책을 끝까지 지켜나간다.

영화는 이러한 어머니의 형상을 통하여 주인공의 강한 의지와 불보다 뜨거운 충성심이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며 오랜 생활과정에서 형성되고 공고화된 철석같은 신념이며 의지라는것을 피눈물나는 어머니의 지난날과 행복한 오늘과의 대비속에서 힘있게 강조하고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지난날 머슴을 살면서 아들딸 셋을 굶겨죽인 이 어머니일가에 나라를 찾아주시고 땅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였다. 그러시고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맏며느리 정순이에게 남편의 뜻을 이어나갈수 있도록 협동조합관리위원장의 임무를 맡겨주시였고 그의 아들을 만경대혁명학원에 보내주시였으며 영예전상자인 둘째아들 정철이의 먼눈을 고쳐주시였다.

하기에 어머니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선거일로 남포로 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날 밤에는 수령님 만나뵈올 념원을 안고 잠못드는것이며 이른 새벽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녀가실 길을 정성껏 쓸면서 우리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는것이다. 또 그날 선거장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돌아와 《나쁜놈들이 얼마나 쓸라닥질을 했으면 우리 수령님께서 안색이 그렇게도 축가셨겠니 …한평생 백성을 위해 그렇게도 애쓰신 분을…》하며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는것이다.

어머니의 이러한 심정, 형상을 통하여 영화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건강하시고 만년장수하셔야 오늘의 조국의 영예가 있고 우리 인민의 행복도 있다는 심오한 사상을 밝혀내고있다.

그리하여 영화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다함없는 충성심이 이땅우에 주체의 혁명위업이 시작된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오랜 기간 생활의 체험을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되고 심화발전된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이며 의지라는데 대하여 힘있게 강조할수 있었다.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는 또한 자신은 물론 온 가정이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도록 가족들을 이끌어나가는 어머니의 형상을 통하여 가정의 혁명화문제가 결국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나가는 과정이라는것을 설득력있게 보여주고있다.

전선에서 맏아들이 전사하였을 때에도 어머니는 위대한 수령님을 믿고 눈물을 삼키였으며 둘째아들이 평양의 하늘을 지켜싸우다가 두눈을 잃었다는 슬픈 소식에 접하였을 때에도 우는 맏며느리에게 《장군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구 생각하니 마음이 든든해진다. 장군님을 믿구 살아가자!》고 절절히 타이른다.

두눈을 잃고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당의 의도를 모르고 현실에 뒤떨어진 소리를 할때에도 밤에 밤을 이어 짠 무명을 팔아 라지오를 사다가 아들이 당의 목소리를 제때에 듣고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수령님께 충직한 혁명전사로 변함없이 싸워나가도록 하며 동요하는 옥성이에게도 평양의 하늘을 지켜 싸우다 부상당한 영웅을 욕되게 해서는 안된다고 깨우쳐준다.

영화는 이와같이 주인공일가의 혁명화과정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서 혁명적인 가정의 기초를 이루는것은 단순한 혈육의 정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이며 우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자기 자신만 아니라 온 가정을 대를 이어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도록 이끌어나가야만 자기의 의무를 다할수 있다는것을 가르쳐주고있다.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과 인민의 철통같은 통일단결은 필승불패이라는 사상을 소리높이 노래하고있다.

수령님 계시여 인민이 있고
인민은 수령님께 한몸바치네
아, 대를 이어 영원히 따르리
이 세상 끝까지 우리 가려라

영화의 마감에 울리는 이 노래는 영화 전반에 흐르는 기본사상이며 이 통일단결의 기초에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우리 인민에 대한 다함없는 사랑과 크나큰 은정, 위대한 수령님을 이 세상 끝까지 따라가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와 신념이 놓여있는것이다.

강선의 로동계급을 찾으시여 안팎의 원쑤들에 의하여 조성된 엄중한 정세를 말씀하시면서 동무들은 수령을 믿고 수령은 인민을 믿고 혁명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해가자고 간곡하게 호소하시는 위대한 수령님,

선거장으로 가시는 길에 인민들을 찾으시고 《수령님!…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종파놈들이 어쩌구저쩌구해도 이제는 다 잘살게 되였으니 일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기지 종파놈들이 이기겠습니까. 념려마십시오. 우리는 수령님만을 지지합니다.》라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시고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위대한 수령님 ! 영화는 바로 우리 로동계급과 인민에 대한 크나큰 믿음과 뜨거운 은정을 통하여 언제나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시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고매한 덕성을 감명깊게 그려냄으로써 수령님과 인민의 불패의 통일단결이 어디에 그 깊은 뿌리를 두고있는가 하는것을 높은 예술적경지에서 훌륭하게 일반화하고있다.

예술영화 《이 세상 끝까지》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맡은바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무대예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부문일군들은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 우리 나라 주체예술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꽃피워야 하겠습니다.》

(《신년사》 1975년, 단행본, 16페지)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무대예술부문에서는 1977년에 사상예술성이 풍부한 예술작품들을 많이 창작공연하여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떨쳐나선 우리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하였다.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를 비롯하여 이해에 음악, 무용, 교예, 무대미술 등 각 부문에서 창작된 예술작품들은 우리 인민의 생활과 요구를 진실하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의 사랑을 받았으며 주체예술의 화원을 보다 더 풍만하게 장식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이야말로 인민대중의 세기적념원이 활짝 꽃피여난 인민의 락원이라는것을 높은 예술적형상으로 격조높이 노래한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는 이해에 무대예술부문에서 내놓은 성과작품으로서 우리 인민들에게 예술의 나라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다시 한번 북돋아주었다.

음악부문의 작가, 작곡가들은 이해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열화같은 흠모와 충성심을 담아 많은 흠모가요들을 창작하여 무대에 올렸다.

만수대예술단에서는 《수령님 모시고 통일만세 부르자》, 《사랑의 길우에 노을이 불타네》, 《온 세상에 만발한 김일성화》를, 조선인민군협주단에서는 《수령님 한분만을 모시고 따르렵니다》, 《백두산의 만병초》를, 모란봉예술단에서는 《그 사랑 못잊어 백양나무 설레이네》를 창작하여 공연하였다.

부르기도 쉽고 서정이 넘쳐흐르는 흠모가요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주시는 크나큰 사랑, 자애로운 수령님의 품에 안겨사는 우리 인민의 더없는 긍지를 노래하였다.

이해에 음악부문에서는 또한 당정책관철을 위해 투쟁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을 반영한 당정책가요들과 행진가요, 아동가요 등도 내놓았다.

특히 《우리는 공장대학생》(피바다가극단), 《기계화의 포전을 넓히여가네》(중앙방송예술단), 《사람마다 젊어저 이 행복 노래하네》(피바다가극단), 《군민의 정을 담아 발동소리 울려가네》(인민군협주단), 기악중주 《기어이 내조국 지켜가리》(피바다가극단), 경음악 《수령님 바라시는 오직 한길로》(피바다가극단)가 인민의 사랑속에서 공연되였고 널리 불리워졌다.

《이 세상 끝까지 우리 가리라》를 비롯하여 우수한 영화음악들도 이해에 많이 나왔다.

무용부문에서도 오늘 우리 시대 인민의 정서와 미감에 맞는 새로운 춤가락들을 만들어낼데 대한 당의 문예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에 《밀영의 봄》(조선인민군협주단), 《봄맞이》(평양예술단)등 무용소품들을 새로 내놓았다.

우리 시대 인민들의 생활감정에 맞는 교예작품들을 많이 만들어야 하겠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이해 교예부문에서는 새로운 교예작품들을 만들어 무대에 올림으로써 사람들을 체육적으로, 문화적으로 교양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였다.

원통들이 놓인 계단우로 조약해 올라갈뿐아니라 그 우에서 놀라운 기교로 중심을 잡는 《원통굴리기》, 민족적 슬기와 기백을 잘 보여주고있는 《남자4인조형》을 비롯하여 《2인중심재주》, 《류동사다리재주》, 《손재주》가 이해에 새로 나온 우수한 교예작품들이다. 또한 패망의 위기에 처한 남조선괴뢰들의 부패상을 풍자한 막간극 《뢰물바람》도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이해 무대예술부문에서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보답하려는 이 부문 일군들의 충성심이 낳은 고귀한 열매이다.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는 《피바다》식 가극창조에 의하여 마련된 가극혁명과 함께 우리 주체적문학예술발전력사에 찬란히 기록될 또하나의 특출한 대작이다.

음악무용이야기는 하나의 아담한 이야기를 가지고 아름답고 살기좋은 사회주의 우리 조국을 노래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훌륭히 관철한 작품으로서 주체시대의 요구와 우리 시대 인민들의 미학적요구에 훌륭한 대답을 주었다.

음악무용이야기는 어느 한 신문사 녀성기자인 주인공 선희가 련재기사 《락원의 노래》를 쓰기 위하여 여러곳을 찾는 취재로정을 따라 혁명의 수도 평양과 백리 청춘과원, 동해의 수산기지 월포항구와 조선의 명산 금강산 그리고 혁명의 성산 백두산을 비롯한 항일혁명전적지들과 방직공장, 제철소, 만풍년든 협동농장 등 인민의 락원,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된 조국의 현실을 거대한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음악무용이야기는 과수농장 부지배인 창세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적화구를 까부시고 장렬하게 전사한 혁명전우이며 공화국영웅인 최수길의 딸 봉희를 찾던끝에 마침내 그 딸이 다름아닌 선희라는것을 알고 감격적으로 만나며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로 선희가 아버지의 금별메달을 수여받고 돌아오는 모습 등을 감동적으로 보여준다.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는 이처럼 서로 밀접히 련관되여있는 두개의 이야기로 되여있지만 주로는 주인공의 취재선을 따라 화폭들이 펼쳐지면서 여기에 봉희의 사연선이 잘 결합되여있다.

음악무용이야기는 한편으로는 주인공의 취재선을 통하여 사회주의조국의 위력과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여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연선을 통하여 우리 시대 사람들의 아름다운 인간관계와 숭고한 정치도덕적풍모를 펼쳐보인다.

이것은 음악무용이야기가 음악무용종합공연형식의 형상적기능뿐아니라 극형식의 형상적기능과 서사시형식의 형상적기능을 다 가지고있는 아주 폭이 큰 새로운 종합예술형식임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는 자연도 사회도 인간도 몰라보게 달라진 선진적인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인가에 대하여서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모시고 통일된 삼천리강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는 우리 인민의 의지와 념원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것인가를 폭넓게 밝혀낼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근로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근로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6권, 343페지)

사과꽃 만발한 백리과원에서 처녀들이 로동의 기쁨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정경과 배고동소리 높이 포구로 돌아오자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배려로 가족들과 함께 금강산휴양소로 떠나게 된 먼바다 어로전사들의 기쁨과 감격이 파도쳐설레이는 동해의 항구, 먹고도 남고 쓰고도 남을 분배몫을 받아안은 농민들의 다함없는 감사의 노래 울려퍼지는 협동마을분배장…

나라의 부담으로 휴양생활을 즐기며 세금마저 없어진 꿈같은 세상에서 먹고 입고 쓰고사는 걱정을 모르고 살뿐아니라 가장 우월하고 선진적인 어린이보육교양법과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의 혜택으로 자녀들을 마음껏 키우며 무상치료, 예방치료의 혜택으로 무병장수하는 오늘의 행복을 노래하는 수많은 근로자들로 흥성거리는 조선의 명승—금강산…등의 형상들을 통하여 음악무용이야기는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락원, 사회주의조국의 위대성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일반화하였다.

음악무용이야기는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우리 인민이 누리는 행복에 대하여서뿐아니라 나라의 주인,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된 우리 근로자들의 아름답고 숭고한 정치도덕적풍모와 그들이 지닌 무궁무진한 창조적힘에 대해서도 감동적으로 보여주었다.

무대에 펼쳐지는 제철소장면을 비롯한 모든 장면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천리마의 억센 나래로 세기를 주름잡아 달려온 우리 인민의 영광과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며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쳐나가는 우리 근로자들의 혁명정신을 예술적으로 잘 형상하였다.

또한 음악무용이야기는 세상에 태여나자마자 부모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행복하게 자라난 주인공 선희와 전사한 전우의 딸을 친아버지의 심정으로 끝내 찾아내고야마는 창세 등을 통하여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있으며 온 사회가 하나의 혁명적대가정으로 되고있는 우리 시대 사람들의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진실하게 보여주었다.

음악무용이야기는 또한 다양한 화폭들의 중심에서 혁명의 성산 백두산장면을 비롯한 혁명전적지장면들을 넓은 폭으로 펼쳐나감으로써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의 오늘,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의 나날에 무르익히신 위대한 구상의 빛나는 실현이며 오직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번영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쳐오시는 그이의 크나큰 사랑의 고귀한 열매이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하였다.

그러면서 음악무용이야기는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주체의 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높은 예술적형상속에서 장엄하게 선언하였다.

번영하여라 내조국 온 누리에 빛나라
영원하여라 그 은덕 천만년길이 전하리
통일된 삼천리에 수령님을 모시고
온 겨레 한가정 이 행복 누리리
일편단심 대대로 충성하리라
아 위대하신 어버이
김일성원수님께 충성하리라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는 우리의 사회주의현실을 가장 폭넓고 심오한 예술적형상으로 재현한 시대의 총서, 우리 인민의 존엄과 위력에 대한 힘있는 예술적확증,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다함없는 영광의 노래, 충성의 서사시로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크게 고무하였다.

주체미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미술은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참다운 인민적인 미술로 되여야 하며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인 미술로 되여야 합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434페지)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미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1977년에 미술부문에서는 우리 나라 혁명에 전적으로 복무하는 주체적인 미술을 발전시키는데서 크게 전진하였다.

이해 미술부문에서 이룩한 특출한 성과는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사상예술적으로 최상의 높이에서 형상한것이다.

조선화 《인민들이 있는곳이라면 그 어디든지 가보아야 하오》, 《먼 바다에서 돌아온 어로공들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병사들의 생활을 보살피시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원수님》, 유화 《이른새벽 강냉이영양단지모판을 지도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 조각 《만풍년을 안아오신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 자수 《백리청춘과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과 같은 회화, 조각, 수예 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력사적로정과 그이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위업, 그리고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오시는 어버이수령님의 한없이 높고 깊은 은덕을 진실하게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이 작품들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워 그들의 혁명화과정을 촉진시키며 어버이수령님을 대를 이어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려는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귀중한 성과로서 우리 미술이 자기의 근본사명을 옳게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실례로 된다.

그리하여 이 미술작품들은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해 미술부문에서 거둔 다른 하나의 커다란 성과는 조선화를 토대로 하여 우리의 미술을 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조선화의 창작비중을 높여 많은 성과작들을 내놓은것이다.

조선화 《산전막에 남긴 사랑》, 《적후후송》, 《번덕스러운 날씨》, 《우리 소조원》,《남녀의 기관사》, 《적진을 뚫고》, 《부탁을 남기고》, 《국화》 등은 조선화를 오늘의 사회주의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킨 성과작품들이다.

이해에 조선적인것을 바탕으로 하여 각이한 미술형태들을 주체적으로 발전시키는 사업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

특히 유화, 출판화를 비롯한 조각, 무대미술, 영화미술, 산업미술들에서 조선화의 화법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적극 받아들여 현대적미감에 맞는 생동한 작품들을 창작해낸것과 공예, 산업미술, 건축장식미술 등의 미술형태들에서도 조선화의 전통적인 풍격을 살려 품위있는 작품들을 많이 내놓은것이 큰 성과였다.

많은 작품들중에서 유화 《한 겨레의 손길》, 출판화 《신념은 철쇄를 끊는다!》, 조각 《최고사령부가 보인다》, 《열중》, 무대미술 《당의 참된 딸》, 공예 《〈꽃파는 처녀〉상회장식꽃병》, 산업미술 《조선개성고려인삼》, 《인삼술초물포장》, 《날염장식무늬도안》 등이 좋았다.

현시기 미술분야에서 절박한 요구로 나서는 문제인 주제들의 폭을 넓힌것이 이해 미술부문에서 이룩한 또하나의 커다란 성과이다.

조선화를 비롯한 회화와 조각, 수예 분야에서 당의 유일사상교양과 혁명교양, 계급교양, 그리고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에 관한 주제들이 종전에 비하여 훨씬 늘어났으며 공예, 산업미술, 건축장식미술분야에서 수송, 채취공업, 농업, 대외무역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형태도안들과 상표도안들이 많이 나왔다.

특히 3대혁명을 계속 힘있게 벌릴데 대한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떨쳐나선 우리 근로자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선전화, 판화, 수채화, 련속화들과 기술혁명, 문화혁명에 이바지하는 산업미술, 공예 작품들이 광범히 창작되였다.

《모든 단위, 모든 초소에서 속도전의 된바람을 일으켜 3대혁명붉은기 휘날리게 하자!》, 《수송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자!》, 《알곡 1,000만톤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비료는 곧 쌀이고 쌀은 곧 사회주의다!》, 《3화수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자!》와 같은 선전화작품들은 높은 전투성과 호소성, 형상성으로 하여 인민들의 평가를 받았다.

판화 《봄을 앞당기는 사람들》,《새 혁신안》, 《삭도운재》, 수채화 《광산의 아침》과 여러가지 련속화, 속사작품들은 우리 근로자들의 사회주의건설투쟁모습을 감동적으로 보여주었다.

《대형화물차형태도안》, 《굴착적재기형태도안》, 《목란무늬장식지》, 《여름철신발도안》 등 산업미술작품들과 《붉은기발무늬화병》, 《농촌기술혁명주제화꽃병》, 《초물실내화》 등 공예작품들도 이해에 창작된 성과작들이다.

이해 미술에서의 다른 한 성과는 모든 미술작품들의 예술적형상수준이 훨씬 높아진것이다.

특히 조선화 《어머니의 지난날》, 《돼지순사》, 유화 《향산마을의 이른봄》, 출판화 《나의 과거》, 《모두다 자연개조 5대방침관철에로!》, 《발차》, 《북창의 숨결》, 《민족의 태양을 우러러》, 《숙제시간》, 《기다리던 날》,영화 및 무대미술 《대부대선회작전》, 《두만강반에서의 한해여름》, 《그들은 돌아왔다》, 조각 《최고사령부가 보인다》, 산업미술 《갱생형태도안》, 《집신고부리는 철도자동차도안》, 《유치원용조립식장》 등이 높은 형상성으로 하여 인민들의 사랑을 받았다.

1977년에 미술부문에서 거둔 특출한 성과는 미술을 주체적으로 발전시켜나갈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문예사상의 정당성과 그 거대한 생활력을 다시한번 뚜렷이 확증하였다.

국제무대에서 빛나는 주체예술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우리 나라 예술단들은 1977년에도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여 공연하였으며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친선과 단결을 더욱 두터이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의 특징은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에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29페지)

우리 나라 예술단의 외국방문공연은 모든 공연종목들의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세계의 많은 벗들의 환영과 경탄을 불러일으켰다.

우리 나라 평양예술단이 1977년 7월 30일부터 10월 27일까지 모잠비끄, 탄자니아, 말가슈, 리비아, 류니지 등 아프리카나라들을, 평양교예단이 11월 21일부터 1978년 1월 8일까지 프랑스를 방문하였다.

평양예술단의 공연에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지도자들이 초대되였다.

말가슈대통령, 탄자니아대통령, 모잠비끄대통령, 리비아총인민대회 총비서가 공연을 보았다.

공연을 본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지도자들과 간부들은 일치하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보내면서 평양예술단의 자기 나라들에서의 공연성과를 열렬히 축하하였다.

말가슈대통령 디디에 라찌라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지금까지 말가슈에 온 외국예술단들을 만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만은 특별히 당신들을 만난다.

당신들의 이번 방문공연을 통하여 나는 당신들이 모든 분야에 구현하고있는 주체사상에 대하여 더욱더 굳은 확신을 가지게 된다.

당신들은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견지하고있을뿐아니라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도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고있다. 이것은 우리의 실정에 맞게 그와 같은 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는 청소한 우리 말가슈혁명에 대한 커다란 고무로 되는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주체사상은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고 사회주의에 기초한 새 사회를 건설하며 그리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따라배우기 위하여 애쓰는 과정을 통하여 구현되고있다. 당신들의 이번 공연은 나를 무한히 감동시켰다.》

모잠비끄대통령 사모라 모이세스 마쉘은 조선예술은 인민을 위한 예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예술이라고 말하고 모잠비끄에서의 우리 예술인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였다.

평양예술단의 공연을 본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 벗들은 한결같이 조선에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예술이 개화발전하게 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주체적문예사상을 창시하시고 문학예술창조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시기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우리 예술인들이 무대에 올린 사상예술성이 높은 공연종목들은 관중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주었다. 매 종목이 끝날 때마다 관중들은 《아주 훌륭하다》, 《제일이다》라고 환성을 올리면서 열렬한 박수를 보냈다.

말가슈방송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비롯한 우리 나라 노래들을 방송하였으며 《마펭》지는 우리 나라 예술인들의 공연장면을 보여주는 사진을 싣고 《열광적인 박수를 받으면서 진행된 공연은 모든 종목에 걸쳐 완전무결하다》고 썼다.

탄자니아의 잔지바르 시민들은 우리 나라 평양예술단의 공연을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꽃피워주신 예술이야말로 인민을 위한 예술이다.》, 《기적적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예술공연이다.》, 《조선예술을 보고 예술이 어떻게 인민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가를 비로소 알게 되였다.》고 하면서 계속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모잠비끄의 수도에 있는 마뿌또체육관에서도 우리 나라 평양예술단의 공연이 있었다. 녀성중창 《수령님은 인민들과 함께 계시네》로 시작된 공연은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관중들의 심장을 틀어잡았다.

모잠비끄에서 우리 예술인들은 수도와 지방 공연은 물론 현장기동예술공연도 여러번 진행하여 새 생활창조를 위하여 투쟁하는 모잠비끄 근로자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11월 25일 프랑스의 빠리체육궁전에서 첫 막을 올린 평양교예단의 공연은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찬란히 꽃핀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교예로 프랑스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평양교예단은 프랑스에서 한달반동안에 걸쳐 50여회의 공연을 하여 15만명이 넘는 관중들앞에 주체교예의 황홀한 무대를 펼쳐보였다.

프랑스의 신문과 방송들이 평양교예단의 공연을 널리 보도하였으며 텔레비존방송국들은 여러번에 걸쳐 록화실황으로 내보냈다.

평양교예단의 공연을 본 관중들은 《사회주의조선에서 꽃피는 주체교예는 현대교예예술의 전형이며 교예를 진실한 예술의 경지에로 끌어올린 훌륭한 본보기》, 《우리 시대 사람들의 생활감정과 정

서, 취미를 높은 예술적수준에서 진실하게 그리고 있는 인민적인 교예》, 《조선교예야말로 인간의 존엄을 귀중히 여기는 예술이며 인민을 위해 참답게 복무하는 예술》로 평가하면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프랑스교예협회 회장은 《세계가 알지못하는 이렇듯 독창적인 교예를 창조할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분은 존경하는 김일성주석이시다.

〈렵기적인 교예〉, 〈천대꾸러기교예〉로 불리우며 예술의 범주에서 버림받아온 교예를 이렇듯 순결하고 황홀한 예술의 경지에까지 끌어올린다는것은 탁월한 문예방침이 없이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존경하는 김일성주석의 문예사상을 선전하는 광범한 운동을 벌리겠다》는 자기들의 확고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부글러온느교예단 지배인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나라에서만 위대한 예술이 창조될수 있다》고 하였으며 빠쓰떠르연구소의 한 기사는 《김일성주석을 걸출한 령도자로,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고있는것은 당신들의 긍지이며 영예》라고 하면서 《존경하는 김일성주석의 만수무강은 비단 당신들 조선인민의 념원일뿐아니라 자주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이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우리 예술단들이 이해에 진행한 외국방문공연은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문화분야에서 주체사상이 어떻게 철저히 구현되고있는가를 세계인민들에게 실물로 보여준 중요한 계기로 되였으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외국벗들의 리해와 지지를 더욱 크게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군중문화교양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문화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며 인민속에 있는 재능을 찾아내고 발양시켜 로동하는 사람들자신이 가는곳마다에서 문학예술활동에 참가하고 예술을 마음껏 즐길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3권, 130페지)

어버이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배려에 의하여 우리의 군중문화사업은 1977년에 보다 더 활발히 진행되였으며 근로자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고 당정책관철에로 고무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전국 여러곳에 있는 많은 극장들과 영화관들, 군중문화회관과 로동자문화회관들을 거점으로 하여 군중문화교양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였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인민은 문학예술의 진정한 향유자로 되고있으며 우리의 문학예술은 발전하는 군중문화에 토대하여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적이며 당적인 문학예술로 훌륭히 꽃필수 있었다.

충성의 경제선동, 예술선동

여러가지 선전선동수단들을 동원하여 사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릴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선전선동사업에 철저히 구현한 결과 우리 선동사업에서는 1977년에 큰 성과들이 있었다.

이해에 선동사업에서 거둔 성과는 혁명적예술인들이 당이 부르는 경제건설의 최전선에 달려나가 패기있는 경제선동, 예술선동을 벌려 사람들의 심장마다에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성의 열정이 끝없이 불타오르게 함으로써 근로자들을 대중적혁신에로 힘있게 불러일으켰으며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린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영화예술인들이 수송전선에 나가 경제선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는데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철도부문에 나가 수고를 한 예술선전대동무들에게 감사를 드려야 하겠다고 분에 넘치는 치하와 크나큰 고무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올해에 무엇보다도 큰 힘을 넣어야 할 전선은 수송전선입니다.

수송전선을 추켜세우는것은 이미 점령한 고지들을 공고히 하며 새로운 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신년사》 1977년, 단행본, 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중앙예술단 예술인들로 무어진 충성의 경제선동대는 전국의 수송전선에서 항일유격대식경제선동, 예술선동을 힘있게 벌렸다.

피바다가극단, 평양예술단, 국립연극단, 평양교예단,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 중앙방송예술단, 철도부예술선전대, 중앙문화회관의 예술인들은 여러개의 편대로 나뉘여 평양지구, 함흥지구, 청진지구 철도국들과 송림지구, 해주지구의 각 분국들, 그 아래의 역들, 기관차대들, 철도부문 공장, 기업소들과 철도를 지원하고 있는 공장, 기업소들에 나가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힘있는 선동활동을 벌리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합창으로 시작된 공연 전과정은 사상예술성이 높은 독창 《수령님 모시고 천년만년 살아가리》, 《수송전사의 기쁨》, 《오고가는 렬차에 우리 마음 실어보내세》, 2중창 《기관사의 영예》, 무용 《천리마 단조공》, 《우등사수와 처녀들》, 하모니카독주 《조국광복회 10대강령가》, 경

음악 《도라지》, 3인재담 《수송전선을 실속있게 돕자》, 교예 《유쾌한 취사원》, 《쇠줄타기》등과 같은 다채로운 종목들로 하여 수송전사들에게 새로운 혁명적 열의와 기쁨, 감동을 안겨주었다.

특히 수송전사들의 생활을 담은 짧은극 《정문앞에서 있은 일》, 《수송전사의 안해》, 《나가자》와 수송전선을 적극 도와주고있는 근로자들의 로력투쟁을 담은 짧은극 《수송전선을 힘있게 지원합시다》, 경희극 《군민은 한마음》, 《우리 기관차대에 찾아오신 손님》등 영화배우들의 충성의 경제선동대가 가지고 진행한 여러가지 공연종목들은 언제나 관중들의 절찬을 받았다.

예술인들의 무대공연이 힘있는 경제선동형식으로 된데는 공연종목자체의 높은 사상예술성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매 공연종목마다에 패기있고 전투적인 구두선동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키면서 혁신자들을 비롯한 수송전사들과 일군들을 모두 움직이게 하는 축하모임, 경쟁호소, 결의토론 등과 같은 대중적인 선동형식을 다양하게 적용한데 있었다.

예술단체의 소개자들은 전투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현실적인 자료들을 선동문에 넣었고 수송전선을 지원하는 대상기관들의 지원내용과 모범적인 사실들을 장악하여 사상전의 형식으로 선동하였다.

이러한 선동형식은 군중들의 결의토론과 경쟁호소, 협동생산 대상일군들의 련합모임 등과 같은 기동적인 형식과 잘 배합되였을뿐아니라 군중성이 풍부한 사이극, 재담, 풍자극과 같은 화술종목과도 잘 배합되여 보다 효과적인 선동형식으로 되였다.

또한 예술인들은 수송전선과 련관된 대상 공장, 기업소들에서 서로 협동작전을 잘하도록 고무하는 예술선동사업도 적극 진행하여 모든 단위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기 임무를 더 잘 수행해나갈뿐아니라 본위주의를 없애고 제기되는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해결해나가는 혁명적기풍을 세우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977년에 중앙예술단예술인들의 경제선동과 함께 각 도 예술선전대, 시, 군 기동예술선동대들의 활동도 활발하였다.

각 도 예술선전대는 탄광과 광산들에서, 시, 군 기동예술선동대는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고 모내기를 제철에 보장하기 위한 전투로 들끓는 농업전선에서 활동하였다.

전국 각지 사회주의건설전투장들을 누비며 활동한 중앙과 지방 예술인 경제선동대의 예술선동으로 이해 모든 단위들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를수 있었다.

1977년에 진행한 경제선동을 통하여 우리 예술인들은 보다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되였으며 모두가 유능한 선전원, 선동원으로, 어떤 역형상도 능히 담당수행하는 기량높은 배우로 자라나게 되였다.

각도 예술선전대 활동정형(1977년)

선동형식		회수(건수)	관람자수
무대공연	현장공연		
2,053회	3,687회	총 5,740회	210만1,646명

고동대활동	3,198회
방송야회	87회
구두선전	7,031회
로력협조	828회
직관선전	7,914회

시, 군 기동예술선동대 활동정형(1977년)

구 분	수
선동대 대수	194개
선동대참가자수	2,980명
공연회수	2만 4,619회
공연단위	1만 6,305개
관람자수	312만 8,460명

문학예술활동의 대중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대중은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이며 우리 사회에서 문학예술은 근로대중이 널리 참가하여야만 빨리 발전할수 있습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544~545페지)

문학예술을 대중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 문예정책에 의하여 1977년에 우리의 군중문화예술은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군중예술의 터전우에서 로동자, 농민, 병사 출신의 재능있는 문학예술신인들이 많이 자라났고 우리의 주체예술은 높은 사상예술성과 인민성으로 하여 더욱 아름답게 장식되였다.

1977년에 우리의 문학예술신인들은 완충의 해의 과업수행을 위한 투쟁속에서 창조와 혁신이 일어

나고있는 조국의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여 많은 문학예술작품들을 창작하였다.

이해에 조직진행된 문학예술작품현상모집, 미술및사진전람회, 예술축전 등은 군중의 창조적의욕을 더욱 높이고 군중속에서 싹트고있는 예술적재능을 잘 키워내는데서 좋은 계기로 되였다.

1977년에 전국적으로 신인문학예술작품현상모집, 문예소품현상모집, 영화문학작품현상모집, 아동영화문학작품현상모집 등 창작경기들과 미술소조원작품전람회, 예술사진전람회들이 진행되였다.

또한 유치원어린이방송예술축전, 하모니카와 기타경연, 유치원, 녀맹, 군무자 예술소조공연 등이 있었다.

현상모집에서 당선된 우수한 작품들이 책으로 출판 또는 영화로 만들어졌고 미술 및 사진 전람회들에 나가 근로대중의 사랑과 높은 평가를 받았다.

1977년에 또한 문학예술창작사업을 대중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문학예술후비양성사업에서도 큰 성과들이 있었다.

모든 작가, 예술인들이 새로 자라나는 문학예술후비들의 예술적재능을 귀중히 여기고 옳게 지도방조한 결과 군중문학예술의 정치사상적수준과 함께 예술적수준이 훨씬 높아졌다.

각 부문별로 진행된 신인강습과 기량발표회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문예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키는 사업에 지도의 중점을 두고 신인들의 정치사상적수준을 높여주는데 모를 박았다.

동시에 창작기량을 높여주는 여러가지 사업들이 조직되였다.

1월과 2월에 있은 농촌부문예술소조강습에는 성악반, 기악반, 무용반, 화술반으로 나뉘여 2천여명이 참가하였으며 공장야간예술학교에서는 성악반, 기악반, 무용반, 화술반에서 1천 500여명이 공부하였다.

기량발표회들에는 중앙예술단체 예술인들은 물론 전국 각지의 신인들이 모두 참가하여 자기들이 일상적으로 키워온 예술적기량들을 남김없이 시위하였다.

이해에 진행된 기량발표회들은 우리 문학예술신인들이 자기 전공부문에 정통하면서도 창작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는 만능의 문학예술인들로 자라나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으며 군중예술에 튼튼히 발을 붙이고 꽃피고있는 주체예술의 빛나는 미래를 내다볼수 있게 하였다.

실천활동을 통하여 인정된 재능있는 신인들이 주체의 문학과 예술을 떠메고나갈 창작가들로, 중앙과 지방 예술단체들에서 손꼽히는 명배우들로 자라 주체예술의 터전을 더욱 튼튼히 다졌다.

3대혁명수행에 기여하는 도서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하는 사람은 책을 보지 않고는 살아갈수 없으며 아무 활동도 할수 없습니다. 정치사업이나 문화사업을 하려고 하여도 책을 보아야 하며 경제와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하여도 책을 보아야 합니다.》(《김일성저작선집》, 5권, 63페지)

우리 인민들 모두가 도서관에 와서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부문에 걸치는 많은 책을 읽으며 공부하도록 해주시려는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1977년에 전국의 모든 도서관들은 새로운 책들을 보다 더 많이 갖추었으며 독자대렬을 훨씬 늘였다.

이해에 중앙도서관을 비롯하여 각 도, 시(구역), 군, 대학 도서관들, 기관, 기업소의 도서실들에서는 이미 정중히 꾸려진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서고》에 **《주체사상에 대하여》, 《후방을 튼튼히 보위하자》,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자》,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공작전으로 인민들에게 조국광복의 서광을 안겨주자》, 《식량을 위한 투쟁은 조국을 위한 투쟁이며 전선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등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을 새로 더 많이 갖춤으로써 로작서고를 더욱 풍부히 하였다.

또한 모든 도서관들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와 어버이수령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돌려주신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깊이 체득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책들인 《항일무장투쟁사》 1, 《은혜로운 사랑의 력사》 1, 2, 《남녘동포들을 생각하시여》 등을 새로 더 보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높은 충성심과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노래한 노래집 《수령님한분만을 모시렵니다》와 서사시 《조국의 진달래》, 장편서사시집 《승리의 기치》, 많은 장편소설들과 중편소설들인 《철의 심장》, 《메아리》, 전투이야기책 《충성의 대오》 등 혁명적인 문학작품들도 도서관들에 더 갖추어놓았다.

또한 도서관들은 나라의 과학기술과 인민경제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도서들로 더욱 풍부히 꾸려졌다.

철도의 자동화와 원격조종, 철도역에서의 짐작업과 자동차수송능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기술도서들, 채취 및 전력 공업부문 기술도서들, 농업과학기술도서들이 도서관에 보충되였다.

1977년에 중앙도서관에 청소년학생들을 위한 열람실이 새로 나왔는데 이 열람실은 청소년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익혀나가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고등중학교이상의 청소년학생들을 기본대상으로 한 열람실은 여러가지 신문들과 함께 자연과학과목책들인 수학, 물리 풀이집과 공식집들, 그리고 혁명적인 소설책들을 많이 갖추어놓고 읽게함으로써 청소년학생들의 교육교양사업에 크게 기여하였다.

1977년에 도서관운영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들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 창시하신 《행군도서관》의 전통을 이어 도서관일군들은 앉아서만 책을 주고받던 낡은 방법을 버리고 사회주의대건설사업에 절실히 필요한 책들을 가지고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찾아가 이동문고를 널리 조직하면서 현장봉사를 하였다.

중앙도서관에서 조직한 기사, 기수 자격검정시험응시자들을 위한 강의는 우리 나라 도서관사업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서 이해에 이룩한 혁신적성과라고 할수 있다.

중앙도서관에서는 자료조사실성원들이 이미 학위, 학직을 가진 일군들로 꾸려진 조건에서 그들을 강사로 준비시키는 한편 여러 공장, 기업소와 련계를 가지고 검정시험응시대상자들을 모두 장악하였다.

도서관에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수학, 물리과목을 비롯하여 여러 과목들을 강의해줌으로써 많은 근로자들이 기사, 기수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여 높은 성적을 받을수 있었다. 이 강의조직은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도서관사업을 능동적으로 개선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도서관부문 일군들이 발휘한 혁명적이며 주인다운 사업태도로서 근로자들의 전반적문화기술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977년에 중앙과 각도 도서관들에서는 국가적인 기념일들을 계기로 읽은책발표모임들을 많이 조직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키는데 기여하였다.

1977년에 도서관부문에서는 전국적으로 독자수장성계획, 도서리용계획, 책수집계획 등 년간계획을 넘쳐수행하였다.

우리 나라의 도서관들은 주체사상과 현대적인 과학기술문화를 탐구하는 학습당으로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

주체체육

전체 인민이 체육활동에 참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체육을 널리 발전시켜 전체 인민들의 몸을 튼튼하게 하는것은 나라의 흥망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습니다.》(《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 357페지)

1977년에 체육부문에서 거둔 커다란 성과는 체육을 대중화,전민화할데 대한 당의 체육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체육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특히 학교체육의 질적수준이 훨씬 높아진것이다.

이해에 우리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충성의 편지전달이어달리기를 비롯한 체육의 기초인 달리기운동들에, 청소년학생들은 정치사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단련되는 집단체조에 대중적으로 참가하였다.

국가적인 기념일들을 계기로 조직되는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년중 여러 차례의 체육경기들이 진행되였다.

이 경기들에는 체육전문가들은 물론 각계층 체육애호가들, 청소년학생들, 유치원어린이들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민이 적극 참가하였다.

1977년에 있은 체육경기들은 다음과 같다.

전국체육축전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4월)

《백두산컵》 체육경기대회(2월)

1977년도 빙상호케이 공화국선수권대회(1월)

1977년도 속도빙상 공화국선수권대회와 전국구락부생 체육경기대회(1～2월)

조선국민회결성 예순돐기념 전국《조국통일상》마라손경기대회(3월)

전국체육축전 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4월)

고등체육전문학교학생체육경기대회(4월)

사로청창립 31돐기념 전국청소년학생빙상경기대회(1월)

공화국어린이보육교양법실시 한돐과 6.1국제아동절 스물일곱돐기념 평양시유치원어린이체육경기(6월)

제15차전국민족체육경기대회(8월)

《4월18일우승컵》쟁취를 위한 전국청소년학생제4차종목별 체육경기대회(8월)

공화국창건 29돐기념 체육종목별선수권대회(9～10월)

조선로동당창건 32돐기념 전국륙상경기대회(10월)

전국체육축전 《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에서 38명의 선수들이 27개종목에서 공화국 새기록을, 《백두산컵》체육경기대회에서 연 19명의 선수가 16개종목에서 공화국 새기록을 세우는 등 경기들의 많은 종목들에서 공화국기록들이 바뀌여 다시 세워졌다.

체육을 대중화, 전민화하는데서 중요한 고리의

하나인 학교체육사업에서 이해에 체육교육체계를 개편보충하고 학교체육의 질적수준을 높이는 사업들이 진행되였다. 1977년에 체육대학의 경기학과가 체육교원과 종목별 체육지도원을 키우는 체육학과로 개편되였으며 체육단선수들을 체육지도원으로 양성하는 1년제양성반이 대학에 새로 나왔다.

남포에는 8년제중앙체육학원이 새로 섰다. 중앙체육학원에서는 인민학교를 졸업하고 육체적으로 잘 준비된 청소년학생들을 받아 중등일반교육과 함께 교수훈련을 과학적으로 주어 국가체육선수후비로 체계적으로 키워낸다.

이해에 또한 각 도들에 있는 고등체육전문학교의 규모를 늘이고 학생들의 질적구성을 개선하는 사업, 체육학교들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꾸리는 국가적조치들이 적극 취해졌다.

학교체육사업과 함께 1977년에 근로자들속에서 국방체육과 생산과 결부된 체육활동도 활발하였다.

온 나라가 체육으로 들끓고 흥성거리는속에서 우리 인민은 왕성한 투지와 패기에 넘쳐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갔다.

집단체조 《조선의 노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조선의 노래》를 주제로 한 집단체조 《조선의 노래》는 1977년에 창작된 작품으로서 주체체육예술의 대서사시적화폭이다.

평양시학생소년 5만명이 출연한 집단체조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우리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여 이땅우에 존엄있고 부강한 사회주의 새조선을 일떠세우시였으며 자주의 새 시대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세기에 빛날 불멸의 업적을 체육문화적으로 잘 형상하였다.

집단체조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걸어온 자주, 독립,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로정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이룩하여놓은 세기적변혁들과 위대한 승리들을 여러가지 대형변화와 씩씩한 체육률동으로 훌륭히 형상하였다.

집단체조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드높은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는 성스러운 한길에서 일편단심 어버이수령님께 충성다할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와 불타는 결의를 힘있게 보여주었다.

집단체조 《조선의 노래》는 깊고 폭넓은 정치사상적내용과 세련된 체육기술, 강한 조직성과 규률성, 높은 예술성으로 하여 우리 주체체육의 려전을 더욱 풍만하게 장식하는데 특출한 기여를 하였다.

집단체조 《조선의 노래》의 작품구성은 다음과 같다.

머리장

제1장 조국강산에 울리는 《조선의 노래》

제2장 해방의 종소리 높이높이 울리자

제3장 자유의 강산에 우리 주권 세우자

제4장 슬기론 인민이 살아가는 내 나라

제1절 주체의 공업을 자랑하는 내 나라

제2절 인민생활이 꽃피는 내 나라

제3절 해마다 만풍년을 노래하는 내나라

제4절 사철 풍어기 휘날리는 내 나라

제5절 어린이들은 나라의 《왕》

제6절 수령님 품속에 행복한 내 나라

제7절 자유의 강산을 철벽으로 지키자

제5장 우리의 손으로 길이길이 빛내자

제6장 통일의 광장에 위대한 수령님 높이 모시리

제7장 누리에 펴지는 친선과 단결의 노래

종장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국제경기들에서 주체체육의 위력을 시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체육의 모든 종목들을 더욱 발전시키며 경기에서 백전백승하기 위하여서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체질에 맞는 주체적인 전술체계를 세우는것이 또한 중요합니다.》(《사회주의교육학에 대하여》, 368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체육부문 일군들은 1977년에 주체적인 전술체계와 전법들을 보다 보충완성해나감으로써 우리 나라 체육기술수준을 한계단 높이 끌어올렸으며 국제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쌓았다.

1977년에 우리 나라는 제34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 제32차세계모형항공선수권대회, 국제녀자배구경기대회 등 여러종목에 걸치는 국제경기들에 참가하여 주체체육의 위력을 세계에 다시한번 시위하였다.

이해에 또한 많은 나라 체육선수단들이 우리 나라에 와서 친선 및 모범 경기들을 진행하였으며 호상 우수한 체육 기술과 전법들을 교류하였다.

1977년에 우리 나라 선수단이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국제경기들은 다음과 같다.

〈제34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영국의 버밍감에서 열린 제34차세계

탁구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 녀자탁구선수들이 또다시 우승하여 세계에 다시한번 큰 파문을 일으켰다.

선수권대회에는 5대륙에서 온 500여명의 남녀탁구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의 박영순선수는 개인전 녀자단식경기에서 높은 탁구기술과 왕성한 투지를 발휘함으로서 제 33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 이어 또다시 1등을 쟁취하였으며 우승컵과 금메달을 수여받았다.

우리 나라 박영옥선수도 개인전 녀자복식경기에 중국의 선수와 함께 참가하여 영예의 1위를 쟁취하였으며 우승컵과 금메달을 받았다.

이 대회 녀자단체경기에 참가한 우리 나라 선수들은 평소에 키운 높은 기술을 발휘하여 3등의 영예를 지니고 동메달을 받았다.

〈제32차세계모형항공선수권대회〉 7월 7일부터 9일까지 단마르크에서 열린 제32차세계모형항공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 모형항공선수단이 우승의 영예를 떨치였다.

우리 나라 모형항공선수들은 33개 나라에서 온 수백명의 우수한 선수들이 참가한 선수권대회에서 고무동력기경기 개인 및 단체 성적에서와 모형활공기경기 단체성적에서 각각 1등의 영예를 쟁취하고 우승컵과 금메달을 받았으며 엔진기경기 단체성적에서 3등을 하여 동메달을 받았다.

특히 고무동력기경기에 출전한 김동식선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이전 선수권보유자들을 모두 누르고 세계선수권을 쟁취하여 우승컵과 금메달을 받음으로써 주체조국의 체육인된 영예를 떨치였다.

〈국제녀자배구경기대회〉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뽈스까인민공화국의 로찌시에서 진행된 국제녀자배구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녀자배구선수단이 제1위를 쟁취하였다.

이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7개 사회주의나라 선수단들이 참가하였다.

8월 2일부터 7일까지 벌가리아의 와르나시에서 열린 국제녀자배구경기대회에서도 우리 나라 녀자배구선수단이 제1위를 쟁취하였다.

이 경기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벌가리아, 쏘련, 웽그리아, 꾸바, 뽈스까, 로므니아, 독일민주주의공화국, 핀란드, 미국 선수단들이 참가하였다.

〈제8차아세아력기선수권대회〉 5월 3일부터 6일까지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열린 제8차아세아력기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이 빛나는 성적을 쟁취하였다.

이 선수권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아세아의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온 70여명의 우수한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우리 나라 선수들은 키로그람급별 종합성적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쟁취하였다.

〈사회주의나라 청소년국제유술경기대회〉 8월 5일부터 8일까지 벌가리아인민공화국의 쎄블리예보시에서 열린 사회주의나라 청소년국제유술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청소년유술선수단이 청소년급과 청년급에서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쟁취하였다.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벌가리아, 쏘련,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꾸바, 로므니아, 웽그리아, 체스꼬슬로벤스꼬, 뽈스까, 몽골에서 온 11개 선수단에서 150여명의 우수한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사회주의나라 청소년친선국제권투경기대회〉 8월 26일부터 3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사회주의나라 청소년친선국제권투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선수들이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를 쟁취함으로써 가장 많은 메달을 탔다.

〈사회주의나라 청소년국제력기경기대회〉 8월 25일부터 28일까지 뽈스까인민공화국에서 열린 사회주의나라 청소년국제력기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청소년력기선수단이 금메달 7개,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 컵 5개를 쟁취하였다.

경기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뽈스까, 벌가리아, 로므니아, 쏘련, 웽그리아,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꾸바, 몽골, 체스꼬슬로벤스꼬의 11개 선수단에서 80여명의 우수한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제47차국제평화마라손경기대회〉 10월에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 진행된 제47차국제평화마라손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 마라손선수들이 빛나는 성적을 거두었다.

21개나라에서 뽑힌 130여명의 마라손선수들이 참가한 이 경기대회에서 우리 나라의 고춘선선수는 우승의 영예를 쟁취하였으며 최창섭선수는 2위를 차지하여 주체조선의 체육인된 영예를 다시금 떨치였다.

〈제2차아세아소년레스링선수권대회〉 10월에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열린 제2차아세아소년레스링선수권대회에서 우리 나라의 나어린선수들이 38키로그람급, 45키로그람급, 49키로그람급, 53키로그람급, 57키로그람급에서 우승하여 선수권을 지니였다. 또한 우리 나라 선수단의 2명의 선수들이 2등을 하고 3명의 선수들이 3등을 차지하였다.

1977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친선경기를 진행한 다른 나라들의 선수단들은 다음과 같다.

꾸바 녀자배구종합선수단 (3월)

뽈스까 와으부지호 《자그웽베》축구선수단 (6월)

중국녀자롱구선수단 (6월)
쏘련 《뜨르도비예 레제르브이》예술체조선수단 (7월)
웽그리아인민군축구선수단 (7월)
로므니아 라삐뜨축구선수단 (7월)
알바니아 남녀롱구선수단 (7월)
벌가리아 예술체조선수단 (7월)
리비아체조선수단 (7월)
뽈스까 루블린남녀탁구선수단 (7,8월)
중국축구선수단 (8월)
중국인민해방군 8.1녀자롱구선수단 (8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락하산선수들과 무선통신선수단 (9,10월)
중국활쏘기선수단 (10월)
중국인민해방군 8.1 사격선수단 (10월)
벌가리아 《마리짜 이즈또크》레스링선수단(11월)

출판보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출판사업에서 중요하게 나서는것은 출판물에서 당성이 완전하게 표현되도록 하며 그 대중성과 인민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광범한 근로대중과의 긴밀한 련계를 맺음으로써 출판물들의 진실성과 전투성을 더욱 높이는 문제입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80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출판보도부문에서는 1977년에 우리 당 출판보도물의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서고있는 우리 혁명의 시대적요구에 훌륭히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학습하려는 근로자들의 높은 열의에 맞게 이해 출판보도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로작해설집들을 많이 출판하였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에 대한 교양자료들을 출판하였다.

이해 출판보도부문에서는 또한 혁명가극 《당의 참된 딸》,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와 《이 세상 끝까지》 등에 대한 실효모임을 집중편집하는 사업과 함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후복구건설시기, 그리고 오늘 사회주의건설투쟁에서 계속 충성의 꽃을 피워나가고있는 영웅들에 대한 긍정적인 자료들을 널리 소개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종자를 바로 쥐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당의 방침이 출판보도활동에 철저히 구현된 결과 이해에 출판보도에서 짧으면서도 중심사상이 명백한 글, 알기쉬우면서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글들을 많이 쓰기 위한 투쟁이 더욱 심화되였다.

출판물보급사업에서도 시기성, 기동성, 전투성이 더욱 높아지고 특히 신문, 잡지를 주민세대들에 신속정확히 배포하는 사업에서도 혁신적인 성과들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출판

1977년에 출판부문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들을 많이 찍어내여 온 사회의 유일사상화에 힘있게 이바지하였다.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해에 발표하신 고전적로작들과 이미 발표하신 로작들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수요와 요구에 맞게 책과 문헌집으로 출판하는 사업들을 정중히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7년 1월 1일에 하신 《신년사》를 비롯하여 이해에 발표하신 로작들인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한랭전선으로 인한 가물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사로청조직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토지법에 대하여》, 《기계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일본방송협회취재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프랑스신문 〈몽드〉주필과 한 담화》, 《일본 요미우리신문사 상무취체역인 편집국장 일행과 한 담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관하여》, 《기계공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하여》,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 등을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7년 4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3차전원회의에서 하신 결론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한랭전선으로 인한 가물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는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이상기후현상이 세계를 휩쓸고있으며 그것이 오래동안 계속되면서 우리 나라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고있는 조건에서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여 한랭전선의 영향을 미리 막고 농업생산을 계속 앙양시키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과업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는 문헌으로서 농업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할 강령적문헌이다.

로작에는 한랭전선의 영향을 미리 막기 위한 투쟁이 가지는 중요성, 우리 일군들과 인민들이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며 어떠한 왕가물에도 대처할수 있는 철저한 대책과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과 그 수행방도들이 상세히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7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7차회의에서 하신 연설 《토지법에 대하여》는 토지법제정의 필요성과 토지법의 중요한 내용, 토지법을 집행하는데서 나서는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이 천명된 문헌으로서 사회주의제도가 수립된 이후의 토지소유관계, 토지의 건설과 보호, 관리문제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준 불후의 고전적문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7년 7월 19일 기계공업부문일군협의회에서 하신 결론 《기계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는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를 빨리 발전시키며 기술혁명을 다그치는데서 기계공업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현시기 기계공업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침과 방도들이 천명된 문헌으로서 현시기 우리 나라 기계공업이 나아갈 길을 뚜렷이 밝혀준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관하여》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14차전원회의에서 하신 연설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함에 대하여》와 그이께서 하신 결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가 수록되여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함에 대하여》에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교육테제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제기하시게 된 취지와 함께 사회주의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 의의, 사회주의교육의 기본과업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에는 교육테제를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몇가지문제들이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관하여》는 주체의 교육전서이며 공산주의적교육강령인 불멸의 교육테제를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방도를 폭넓고 깊이있게 밝혀준 혁명적문헌이며 공산주의교육리론을 높은 단계에로 심화발전시킨 불후의 고전적문헌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는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가 과학리론적으로 천명되였으며 사회주의교육의 내용과 방법,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교육제도,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사회주의국가의 지도와 방조의 원칙들이 고전적으로 정식화되였다.

고전적로작《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교육사업에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교육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에 전면적이고도 완벽한 해답을 주고있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공산주의적교육강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7년 12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연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는 주체사상을 정권건설에 구현하여 사회주의국가건설의 모범을 창조한 빛나는 업적과 풍부한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화한 력사적문헌이다.

로작은 정권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심오한 과학리론적해답을 준 위대한 주체의 국가건설강령이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사회주의경제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해나갈수 있는 길을 과학적으로 밝혀준 주체적인 공산주의적경제건설강령이다.

이해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전에 발표하신 로작들을 다시 출판하는 사업도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문헌집 《주체사상에 대하여》,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4)를 비롯하여 그이의 고전적로작들인 1937년 3월 29일 무송현 서강에서 진행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에서 하신 연설 《대부대에 의한 국내진공작전으로 인민들에게 조국광복의 서광을 안겨주자》, 1937년 6월 4일 보천보인민들앞에서 하신 연설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자》, 1947년 4월 6일 문수봉에서 식수에 참가한 일군들과 하신 담화 《산림조성사업을 전군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리자》, 1951년 3월 18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총참모부 제2차 당열성자회의에서 하신 연설 《인민군대내에서 당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를 출판하였다.

고전적문헌집 《주체사상에 대하여》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과 혁명리론 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하신 수많은 불후의 고전적로작들 가운데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관하여 저술하신 34편의 로작들이 년대순에 따라 전문 또는 발취문으로 수록되여있다.

고전적문헌집 《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4)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969년 10월부터 1976년 10월사이에 발표하신 로작들 가운데서 사회주의경제관리에 대한 지도와 관리 문제에 대하여 밝히신 25편의 로작들이 실려있다.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 영어, 프랑스어, 로어, 중어, 일본어, 에스빠냐어, 아랍어 등 여러 나라말로 번역출판되였다.

도서출판

사상혁명을 다른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울데 대한 당의 방침이 도서출판사업에 철저히 구현된 결과 1977년에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필요한 책들이 수많이 출판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들을 해설

한 도서들을 책으로 출판하는 사업을 이해에 진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해설도서들은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에 담겨진 심오한 사상의 진수와 그 기본내용, 로작의 리론실천적의의를 철저히 파악하고 그것을 혁명과 건설에 빛나게 구현해나가도록 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또한 출판부문에서는 《주체사상이 기초하고있는 철학적 원리》, 《주체의 사회주의헌법리론》, 《온 사회의 인테리화에 관한 리론》, 《문학예술작품의 종자에 관한 리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대중운동》 등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당의 방침적문제들을 심오하게 전개한 리론해설도서들이 출판되였다.

《사회주의혁명이란 무엇인가》, 《혁명적세계관과 청년》 등 혁명원리들을 리해하기 쉽게 해설한 책들도 많이 나왔다.

출판부문에서는 이해에도 《혁명의 천리길》, 《충성의 한길에서 빛나게 살자》 등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력사와 혁명전통교양자료들을 출판하여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을 당의 유일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였다.

계급교양도서들과 함께 《준엄한 시련을 이겨낸 후방청년들》, 《소년결사대원들의 위훈》 등 근로자들, 특히 새세대들을 혁명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시키는데 필요한 책들도 많이 나왔다.

1977년에 인민경제 각부문에 대한 여러가지 기술도서들이 많이 출판되여 근로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공업출판사에서는 《분출암과 광상》, 《탄성파탐사경험》 등을, 과학출판사에서는 《유압의 재간》, 《석탄응용화학》등을 출판하였다.

농업출판사에서도 《토지보호》, 《다락밭만들기》, 《간이온실남새재배경험》, 《〈풍년〉호 뜨락또르운영》, 《꿀벌》 등을 알기쉬운 말로 출판하였다.

《재미나는 키크기유희》를 비롯한 체육기술도서들, 《600곡집》 등 여러가지 노래집들도 출판되였다.

문예출판사에서는 이해에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불후의 고전적명작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소설로 옮긴 장편소설 《꽃파는 처녀》를 비롯하여 여러건의 단편, 장중편 소설들을 출판하였다.

이밖에도 각 대학출판사들, 교육도서출판부문에서 학습교재들과 교과서들, 참고자료들이 많이 출판되여 학생들의 학과실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었다.

△ 《김일성저작선집》과 《우리 혁명에서의 주체에 대하여》가 1977년 9월 6일부터 14일까지 쏘련에서 진행된 제1차모스크바국제도서전람회에서 특별상과 메달을 받았다.

대화첩 《주체의 예술》, 혁명가극 《밀림아 이야기하라》총보가 또한 특별상과 메달을 받았다.

전람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67개 나라가 참가하였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민족의 위대한 태양을 따르는 남조선인민들의 충성의 한마음

위대한 주체사상의 찬란한 빛발아래 반파쑈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싸우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의 가슴가슴은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열화같은 충성심으로 높뛰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남녘형제들이 외래제국주의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의 포악한 발굽에 짓밟히고 수난을 겪고있는데 대하여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면서 가장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밤잠도, 휴식도 뒤로 미루시며 온갖 심혈을 기울이고계신다.

《남반부를 한시도 잊을수 없소》라고 하시며 해방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조선인민들이 당하고있는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하여 헤아릴수 없이 많은 구제대책을 몸소 취해주시며 뜨거운 은정과 사랑을 기울여오신 위대한 수령님.

나라와 민족이 갈라져 있고 하나의 피줄을 이어받은 우리의 동포형제자매들이 외래침략자들에게 갖은 민족적 모욕과 천대를 받고있는 이 불행한 처지를 그대로 두고서는 조선의 어느 공산주의자도, 어느 량심있는 민족주의자도 결코 자기 임무를 다하였다고 말할수 없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위대한 수령님.

그러기에 남조선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항일의 전설적영웅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우러르며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가장 깨끗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축원하고있는것이다.

1977년, 투쟁의 새해를 맞이하여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 드리는 새해 축하문에 다음과 같이 썼다.

《보람찬 투쟁의 새해를 맞는 이 숭엄한 시각, 통일혁명당원들의 가슴가슴은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과 흠모의 정으로 세차게 고동치고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는 김일성주의 위업에 끝까지 충성다할 일념에 불타는 남녘의 전체 혁명가들과 각계애국민중의 뜨거운 소망을 담아 불세출의 전설적영웅이시고 사상리론의 거장이시고 민족의 최고뇌수이시고 민중해방의 구성이시고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삼가 만년축수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래전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전설적영웅으로, 민족의 태양으로 우러러 흠모하여온 남조선강원도 홍천군에 사는 한 로인은 이해 설날 아침, 세배하러온 가족, 친척들과 마을사람들에게 《자네들이 나에게 큰절을 하는것보다 민족의 아버지이시고 만백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 만년장수의 인사를 올리는것이 마땅한 도리이다. 그분의 만년장수에 나라의 통일이 있고 백성들의 복락이 있고 민족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 그러니 그분의 만년장수를 기원하는것은 자자손손 우리 집안의 풍습으로 되고 동네의 전통으로 되여야 할뿐아니라 이 나라 백성들의 응당한 도리로 되여야 한다》고 말한 다음 밖으로 나와 가족, 친척, 마을사람들과 함께 북녘을 우러러 큰절을 올리며 어버이수령님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였다.

파쑈의 광풍이 몰아치는 속에서도 변함없이 간직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충성심은 이해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예순다섯돐과 수령님을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신 민족의 대경사를 맞이하여 더욱 열렬하고 뜨겁게 불타올랐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65돐을 계기로 서울과 여러지방들에는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신 화첩이 출판되여 널리 보급되였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한 로인은 화첩을 보고나서 왜정때 일제침략군을 풀대 베듯 하신 김일성장군님의 영상을 오래간만에 다시 뵙는다고 하면서 《김일성장군님은 영웅호걸이시고 지극히 덕망이 높으시고 인자하시고 자애로우신 위대한 분이시다. 그분의 영상만 우러러도 평생에 쌓이고쌓였던 시름이 일순에 다 풀리는듯 싶고 어둡던 이남 천지가 금시 금빛으로 찬란히 밝아지는듯 싶다.

정말 김일성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민족을 대표하시는 유일한 령도자이시다》라고 감격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화첩을 보고난 한 로동자도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모시려던 오랜 소원이 오늘에야 비로소 풀렸다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매에도 그립던 김일성장군님의 건장하시고 인자하신 모습을 비록 사진을 통해 뵙지만 직접 만나뵈온것처럼 감격에 겨워 눈물이 절로 난다.

김일성장군님의 영상을 우러르니 가슴이 환히 열리고 힘이 솟구친다.》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다 바쳐오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1977년 봄명절에도 쉬임없이 현지지도의 길을 걸으신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평양방송을 통해 들은 서울시 성동구의 김 아무개주민은 이웃 사람들에게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자신의 생신날에도 쉬지 않으시고 멀리 지방에 나가시여 민중들의 생활을 보살피시였다고 한다. 이 얼마나 가슴뜨겁고 목이 메이는 일인가!》 라고 하면서 더 말을 못해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념원을 지니시고 공화국주석으로 높이 추대되신 민족의 대경사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통일혁명당 당원인 한 교수는 《위대한 수령님을 조선에 모시고 우리 시대에 맞이한 민족의 자랑과 세기의 영광이 하늘에 닿는데 수령님께서 이번에 변함없이 5천만의 영원한 주석으로 추대되셨으니 이것은 참으로 민족최대의 경사이고 인류공동의 기쁨》 이라고 하면서 민족이 무궁토록 번성하고 인류가 영원한 전성기를 누리려면 만민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최상으로 우러러모셔야 한다고 말하였다.

서울에 사는 한 종교인도 《참으로 김일성장군님을 민족의 어버이로, 주체조국의 태양으로 우러러모시는것은 백성의 도리요, 반세기 이상의 세월에 쌓여진 겨레의 흠모와 충성의 결정이라 할것입니다》라고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이해 남조선인민들, 특히 청년학생들 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따라배우려는 열정이 더욱 높아졌다.

충청북도 충주시에 사는 20대의 로동자, 회사원, 학생 등 여러명의 청년들은 2월 27일 《4.15동지회》 라는 조직을 뭇고 서약서를 읽었다.

서약서는 그들자신이 주체사상의 열렬한 신봉자로, 투쟁의 성스러운 불꽃으로 된다고 쓰고 《우리는 주체사상과 더불어 영생하는 청년투사들로서 재생의 은인이신 위대하신 김일성주석을 영원히 우러러 받들고 따른다》라고 밝혔다.

3월 1일, 서울의 한 주식회사에서 일하는 청년 로동자들과 종업원들도 《동인회》를 뭇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령도의 현명성, 고매한 덕성을 깊이 연구체득하는 사업을 활발히 벌렸다.

또한 서울에서 비밀독서회를 가진 어느한 대학교학생들과 경상북도 청송군에서 《독서의 밤》을 가지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따라배우고있는 청년들은 《민족의 태양이신 김일성주석을 끝까지 따르는 해바라기가 되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의 정과 불타는 충성심을 안고 남조선 혁명가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은 원쑤들을 반대하여 용감하게 싸웠다.

이해 1월 경상남도 합천군일대에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열렬한 흠모의 정을 표시하면서 그이의 정치를 받으며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일어나 싸울것을 호소하는 삐라들이 나붙어 수많은 사람들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령동지방의 한 국민학교 교원은 졸업을 앞둔 20여명의 학생들에게 《우리에게는 온세계가 우러러 경모하는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주석께서 계신다》고 이야기해주면서 이것이 선생으로서 졸업생들에게 줄수 있는 단 하나의 선물이라고 말하였다.

부산시의 어느 해운회사에서 짐부리는 일을 하고있는 한 로동자는 수십명의 로동자들앞에서 공화국 북반부를 동경하는 이야기를 한다음 숭엄한 마음으로 《김일성장군의 노래》 를 힘차게 불렀다.

그는 괴뢰경찰놈들이 달려들어 체포하려 하자 《나는 김일성장군님만을 따른다. 나는 김일성장군님의 정치를 지지한다》 라고 하면서 두손을 높이 추켜들고 《김일성장군님 만세!》를 우렁차게 부르며 끝까지 싸웠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김일성장군의 노래》 를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끝없는 용기와 새힘을 얻으며 억세게 싸우고있다.

《김일성장군님을 우러르면 새힘이 솟고 앞이 환히 밝아온다. 장군님의 품이 사무치게 그립다.》 라고 자신의 절절한 심정을 일기책에 쓰고있는 한 녀성로동자의 가슴속에도, 《이남 농민들에게 땅을 주시여 평생소원을 풀어주실분은 오직 위대한 김일성장군님뿐이시다》 라고 말하고있는 전라남도 령광군의 한 농민의 가슴속에서도, 40여년전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혁명투쟁사료들과 혁명력사 자료들을 모아 만든 사료첩에 어버이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시고 가족들앞에서 대를 이어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있는 서울의 한 력사학자의 가슴속에도, 남녘의 모든 인민들의 가슴속에서는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높이 울려퍼지고 있다.

그러기에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혁명전선》 은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그 어디를 가나 〈김일성장군의 노래〉는 민중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여있고 통일조국에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을 높이 모시고 행복하게 살려는 민중의 한결같은 념원과 지향을 담고 울려퍼지고있다.

우리 민족은 충성의 노래,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심장으로 부르며 이 땅에서 파쑈광풍을 몰아내고 민중의 새 사회를 반드시 수립할것이며 조국통일의 위업을 실현하고야 말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 투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놈들의 파쑈적탄압과 폭압정책에서 벗어나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투쟁하고있습니다.》(《일본 요미우리신문사 상무취체역인 편집국장 일행과 한 담화》, 단행본, 10페지)

1977년에 남조선인민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책동이 더욱 강화된 조건에서도 민주주의적자유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웠다.

남조선인민들이 1977년 1월부터 11월까지 반독재민주화를 위하여 벌린 주요투쟁건수만도 그전해보다 126%, 참가인원수는 133%로 각각 늘어났다.

그중에서 집회, 시위, 항의롱성, 단식, 삐라살포 등 적극적인 투쟁형태가 전체 투쟁건수의 76% 이상을 차지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은 《유신》체제를 때려부시고 박정희역적놈을 《정권》의 자리에서 몰아내는데 중점을 두고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속에서 끊임없이 벌어졌으며 보다 조직적이며 련대적인 공동투쟁으로 발전되였다. 청년학생들과 지식인, 종교인, 민주인사 등 각계 인사들 그리고 여기에 로동자들까지 참가하여 끊임없이 벌린 반 《정부》 투쟁들에서는 《박정희는 물러가라》, 《유신체제를 철폐하라》, 《독재정권을 쓸어버리자》 등 구호들이 강하게 울려나왔다. 그리고 그들이 발표한 각종 선언, 선언문, 성명, 서한, 편지, 호소문, 삐라 등 문건들에서 이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있었다.

남조선인민들이 든 투쟁구호의 70%이상이 박정희역도를 타도하며 《유신》 파쑈독재를 철폐하라는것이였다.

특히 반 《정부》 투쟁들에서는 박정희역적놈의 추잡한 대미뢰물행위의 내막을 발가놓고 때림으로써 박정희괴뢰도당을 더욱더 고립시키고 궁지에 몰아넣었다.

이해 남조선인민들은 《민주회복은 오직 광범한 민중의 참여와 막강한 조직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다》 고 하면서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련합전선체형식의 조직을 뭇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결과 1월에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략칭 《민투》)라는 지하투쟁조직이, 4월에는 《민주구국헌장서명운동추진본부》 라는 투쟁조직이 무어졌다.

《민투》 는 《폭력정치를 끝장내기 위하여 국민각 계층으로》 이 조직을 결성하였다고 선포하고 《전국민이 립장을 초월하여 단결》 하며 반독재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였다.

《민주구국헌장서명운동추진본부》도 반괴뢰투쟁을 《광복을 위한 투쟁》으로 선언하고 《광복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민주구국헌장실현에 떨쳐나서자》 고 호소하였다.

이해 남조선인민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에서 주목되는 것은 또한 지난시기 청년학생들과 지식인, 량심적인 종교인, 민주인사 등 각계인사들이 위주가 되여 벌려오던 민주주의운동을 기본계급의 투쟁 특히는 로동운동과 밀접히 결합시키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것이였다.

무엇보다 청년학생들과 각계 인사들의 투쟁에서 로동자들의 생존권과 민주주의적권리를 보장할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게 울려나왔다.

10월 25일 연세대학교 학생 4천여명은 반 《정부》 집회에서 《로동자들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라》 는 구호를 연방 웨쳤으며 11월 11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은 《민주구국투쟁선언문》 에서 《근로자들의 로동3권을 보장하고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탄압하지 말라》, 《농민들의 피땀을 정당하게 보상하며 농협을 민주화하라》 등 요구를 강력히 제기하였다.

이와 함께 로동자들의 투쟁에 대한 련대성이 더욱 강화되였다.

민주인사들은 반 《유신》 투쟁을 발전시키기 위한 돌파구를 로동자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는데서 찾았으며 이로부터 로동자들을 계몽각성시키며 그들의 처지와 투쟁을 사회적문제로 제기하고 그들과 함께 놈들의 반인민적로동정책을 반대하는 투쟁을 벌려나갔다.

또한 이해 남조선의 수많은 진보적인 지식인들과 청년학생들이 민주화운동은 《명사들만의 상징적인 투쟁조직이나 야당투쟁으로는 승리할수 없다》 고 하면서 로동자들속에 들어가 그들을 각성시키기 위한 사업을 강화하여나갔다. 특히 젊은 지식인들은 직접 로동자들과 함께 일하며 생활하면서 투쟁을 벌렸다.

그리하여 3월 10일에는 로동쟁의와 로조의 조직을 금지하고있는 악법들을 철폐하고 로동자들에게 최저임금제를 보장할것을 요구하는 《로동자인권선언》 이 발표되였고 뒤이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에서 《유신》 체제의 철폐와 함께 로동자, 농민들의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선언문, 성명문들이 발표되였다.

특히 평화시장로동자들의 투쟁때에는 《평화시장로동자인권문제협의회》 (10월 18일), 《로동자인권대책협의회》 (11월 1일) 등이 무어져 놈들의 반인민적로동정책을 규탄하면서 련대성을 표시하는 한편 직접 투쟁대렬에 참가하여 견결히 싸웠다.

다른 한편 지식인들은 출판물을 통하여 로동자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비인간적대우를 폭로규탄하며 그들의 투쟁이 반 《유신》 투쟁의 중요한 고리라는것을 인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투쟁도

벌렸다.

남조선인민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탄압으로 하여 투쟁의 합법적가능성이 말살되고있는 어려운 조건에서 그에 맞게 투쟁 형식과 방법을 능숙히 바꿔가면서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어느한때도 그치지 않았다.

특히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허용되고있는 종교활동의 공간을 많이 리용하면서 투쟁을 벌릴수 있는 온갖 계기와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였다.

10월 12일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종교행사에 모였던 연세대학교 학생 2천여명의 반《정부》투쟁, 4월 7일 《한국신학대학》의 학생들이 대학강당에서 《종교행사》를 벌려놓고는 그것을 돌연히 반《정부》 집회로 바꾸어놓은 사실과 적지않은 반《정부》투쟁들이 교회당, 례배당 등에서 종교의식을 갖추고 벌어지고있는 사실은 이것을 말해주고있다.

이해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그 창끝을 박정희괴뢰도당의 타도에 돌리고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주인사들의 울타리를 벗어나 로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인민대중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전인민적인 반독재련합전선을 형성하는데로 힘차게 나아갔으며 그 과정에 투쟁전반에 대한 지도, 투쟁 전술과 방법, 조직적인 련대성과 공동행동 등이 더욱 발전하였다.

그리하여 안팎으로 고립된 박정희괴뢰도당에게 더욱 심대한 타격을 주고 남조선혁명의 승리와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하였다.

민주인사들의 투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의 모든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은 굳게 단결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통치를 반대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주의적발전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야 할것입니다.》

남조선의 정계, 사회계,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의 민주인사들은 1977년 전년간에 걸쳐 끈기있는 투쟁을 벌렸다. 그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광범한 애국적민주력량의 련합을 실현하며 로동운동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민주주의적권리와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그들은 무엇보다 각계 인사들과 모든 근로자들이 립장을 초월하여 단결할것을 호소하면서 이를 위한 투쟁조직들을 뭇고 힘차게 싸웠다.

《민주구국헌장》의 발표와 《민주구국헌장서명운동 추진본부》의 결성; 3월 22일, 남조선의 《민주구국선언》 관련자들을 비롯한 정계, 사회계, 종교계, 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민주인사들은 서울에서 《민주구국헌장》을 발표하였다.

헌장은

1)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의 철폐와 무효선언

2) 모든 정치범의 완전한 인권회복과 비민주적 법과 제도의 폐지

3) 고문, 사찰 등 폭압과 정보정치의 종식

4) 언론, 학원, 종교의 자유 및 사법권독립의 보장

5) 로동자, 농어민 등 모든 민중의 생존권의 보장

6) 국내외적으로 부정, 부패의 척결

등 6개 항목의 요구조항을 내놓았다.

헌장은 또한 《민주주의와 민족의 자주성과 민족통일을 위하여 싸우는것은 각계각층 민중의 최대의 책무》라고 하면서 로동자, 농민, 지식인, 학생, 종교인, 중소상공업자, 봉급생활자, 공무원 등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범국민적인 민주국민련합》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을 다짐하였다.

헌장이 발표된후 《민주구국헌장서명운동추진본부》가 4월 15일 서울에서 무어졌다.

남조선전역에서 헌장에 대한 서명운동을 벌릴것을 목적한 이 조직은 박정희괴뢰도당이 4월 14일 새벽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옹호사무실을 습격하여 《민주구국헌장》 관련자 8명을 잡아가고 서명명단을 빼앗아간데 대처하여 결성되였다.

조직을 뭇는 모임에서는 《투쟁선언문》이 발표되였다. 선언문은 괴뢰도당의 그 어떤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서명운동을 계속할것을 결의하면서 《우리들은 반박정권민주국민련합이라는 커다란 력사적인 흐름에 합류하게 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민주구국헌장서명운동추진본부》는 15일 조직되는 즉시로 《민주구국헌장의 길》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민주국민련합과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하여 다함께 전진할것을 호소하였다.

이 조직은 4월 20일, 성명을 발표하여 괴뢰도당의 폭압속에서도 서명자대렬이 끊임없이 늘어나는데 대하여 밝히고 《헌장공동체는 민주혁명의 위업을 계승하며 유신체제를 파괴하고 민권의 승리를 쟁취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이해 4월말까지만 하여도 헌장서명자대렬은 5천여명으로 늘어났다.

《민주구국헌장서명운동추진본부》는 4월 26일과 8월 15일에도 각각 성명을 발표하였다.

8.15에 발표한 성명 《우리의 투쟁은 광복투쟁이다》에서는 박정희역적의 악정, 학정을 폭로규탄하고 《반박정희투쟁이야말로 우리에게 일차적으로 주어진 민족적대의이다.

우리는 민주국민련합의 기치아래 하나로 뭉쳐 박정권을 포위, 궤멸시키고 민족, 민주, 민생, 통일의 큰길로 나아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성명에서는 《광복을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민주구국헌장실현에 떨쳐나서자》고 호소하였다.

줄기차게 벌어진 헌장서명운동을 통하여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반파쑈련합전선을 형성하는데로 힘있게 나아갔다.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의 출현;

파쑈를 반대하는 각계각층 인민들의 련합을 지향하는 지하투쟁조직으로서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가 무어졌다.

1월 18일밤 괴뢰서울시청앞과 거리에 이 조직의 이름으로 된 1만여장의 반《정부》삐라가 뿌려졌다.

삐라에는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의 《투쟁선언문》과 5개 항목의 강령, 3개 항목의 결의, 4개 항목의 구호가 실려졌다.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는 강령에서 《폭력정치를 끝장내게 하기 위하여 국민 각계층으로 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고 선포하고 《한국민의 힘을 집결하여 박정희의 폭정을 타도하고 민중의 정당한 리익을 옹호하는 폭넓은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과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의 개혁》, 《남녀평등권의 실현》과 《민족교육, 민족문화의 계승발전》, 《군의 정치도구화배격》과 《조국평화통일촉진》등을 밝혔다.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는 또한 《전국민이 립장을 초월하여 단결》하며 박정희괴뢰독재정권의 타도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면서 박정희역도를 《아세아의 히틀러》로 락인찍고 괴뢰들의 뢰물외교를 규탄하였다.

《민투》와 《민주구국헌장서명운동추진본부》결성은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조직화하고 더욱 심화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남조선의 각계 민주인사들은 이러한 투쟁조직들을 무으면서 《유신》파쑈독재를 철폐하며 박정희역적을 《정권》의 자리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힘차게 싸웠다.

1월 14일, 민주통일당 당수는 기자회견에서 박정희역적의 사대매국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책전반을 폭로규탄하면서 사회의 민주화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민주통일당 당수이하 50여명의 인사들은 3월 5일,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와 결의문을 채택하고 《박정권의 퇴진》이라는 구호를 확성기를 통해 웨치면서 시위투쟁을 벌렸으며 5월 26일에도 이당 제4차대회를 마친후 《유신체제철폐》등의 구호를 웨치며 일대 시위를 벌렸다.

한편 전라남도 종교인들 250여명은 1월 13일 광주시에서 반《정부》집회를 열고 박정희괴뢰도당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발표하였으며 4월 4일에는 광주시의 청년종교인 200여명이 또한 모임을 가지고 괴뢰도당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발표하였다.

특히 서울의 100여명의 청년종교인들은 4월 24일, 《민주주의 만세》라고 쓴 프랑카드를 추켜들고 괴뢰경찰들과 완강히 싸우면서 시위투쟁을 벌렸다.

남조선의 각계민주인사들은 《민주구국선언》관련자들을 비롯한 구속된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민주주의운동에 대한 박정희파쑈도당의 탄압과 박해를 반대하여 줄기차게 싸웠다.

2월 21일 《선언》관련자가족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 600여명은 서울명동교회당에서 구속된 인사들의 즉시 석방을 요구하여 집회를 가지고 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25일에는 서울시안의 종로구기독교회관에서 각계 인사 100여명이 잔등에 《석방》이라고 쓴 천을 드리우고 박정희괴뢰도당의 극악한 만행을 치솟는 분노로 규탄하였다.

이러한 투쟁은 박정희괴뢰도당이 《선언》관련자들에 대한 살인재판놀음을 벌려놓고 그들에게 중형을 들씌우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는것과 관련하여 더욱 세차게 벌어졌다.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은 3월 18일 서울의 기독교회관에서 집회를 가지고 《선언》관련자들의 무죄석방을 요구하면서 《량심수가족협의회》의 이름으로 된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괴뢰도당이 3월 22일 끝내 괴뢰대법원에서 살인공판을 벌려놓고 《선언》관련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징역형을 들씌우는 만행을 감행하자 민주인사들은 일대 시위투쟁에 들어갔다.

이날 《선언》관련자들중 구속되지 않은 인사들과 《피고》가족들은 서울시 중구에서 집회를 가진 다음 《구속자들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괴뢰서울형사지방법원까지 밀고나가며 시위투쟁을 벌렸다.

3월 25일밤 종교계인사들 150여명은 괴뢰도당의 부당한 판결에 항의하는 성명문을 발표하였으며 28일에는 서울의 카톨릭대성당에서 종교인들 1,500여명이 《선언》관련자들에 대한 부당한 판결을 규탄하며 그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중적인 항의집회를 가지였다.

날로 강화되는 투쟁기세를 꺾어보려고 괴뢰도당이 7월 17일 기만적인 일부석방놀음을 벌리자 7월 21일 《긴급조치위반》으로 몰려 구속된 인사들의 가족들은 반《정부》항의집회를 가지고 놈들의 기만적인 《석방》놀음의 정체를 폭로규탄하면서 모든 정치범들의 무조건적인 석방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앞서 7월 18일에도 구속자가족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하여 놈들의 일부 석방놀음에는 《위협하고 음흉한 계략》이 숨어있다고 폭로하였다.

한편 민주통일당은 7월 18일에 낸 성명에서 괴뢰도당이 벌리는 일부 석방놀음은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적인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모든 《정치범》의 무조건 즉시 석방을 요구하였다.

구속된 인사들의 석방을 위한 구속자가족들의 단식투쟁도 자주 일어났다.

각계 민주인사들은 3.1절과 4.19 등 기념일과

투쟁조직들이 무어졌던 날을 계기로 투쟁기세를 더욱 높였다.

3.1인민봉기 58돐과 《민주구국선언》의 발표 한돐을 맞으면서 3월 1일 남조선 종교인들과 각계각층 인민들 1천 600여명은 서울 명동교회당에 모여 대중적인 반《정부》집회를 가지였다.

정계, 학계, 종교계 등 각계 인사들은 《3.1절에 퇴진을 요구하여 박정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 서명하였다.

이 서한은 괴뢰도당의 탄압으로 하여 3.1절에 발표되지 못하고 3월 7일 《일한련대련락회의》가 일본도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발표되였다.

공개서한은 16년간에 걸치는 박정희역적의 악정, 학정을 폭로규탄하고 《용단을 내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엄혹한 력사의 법칙은 가만있지 않을것이다》라고 경고하였다.

4.19에 즈음하여 18일밤 각계각층 인민들 약1천명은 4.19인민봉기에서 희생된 학생들을 추모하는 모임을 가지고 시국선언을 발표하였다.

언론의 자유를 위하여 싸우다가 박정희괴뢰도당에 의하여 쫓겨난 이전 《동아일보》 및 《동아방송》 기자들 130여명은 일터에서 쫓겨난지 두해가 되는것과 관련하여 3월 17일 서울에서 모임을 가지고 《진정한 언론의 자유의 꽃을 피울 그날까지 투쟁해나갈것이다》라고 굳은 결의를 다지면서 《자유언론만세!》를 소리높이 불렀다.

이전 《동아일보》 기자들과 《정치범》 가족들 100여명은 《자유언론실천선언》 발표 세돐을 기념하여 10월 24일 서울중심부에서 야간시위까지 벌렸으며 《언론의 자유를 압살하는 제도와 법의 철폐》 등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남조선의 량심적인 작가, 시인 등 문화인들도 《자유실천문화협회》 창립 3돐을 기념하여 11월 18일 모임을 가지고 시인 김지하의 석방과 민주주의적자유를 요구하는 《제3선언》을 발표하였다.

구속된 민주인사들속에서는 옥중투쟁이 또한 벌어졌다.

《선언》 관련자인 기독교목사 문익환은 《남조선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될 때까지》 단식투쟁을 벌리기로 결의하고 5월중순부터 20여일간 단식투쟁을 한데 이어 9월초에 다시 30일간의 단식투쟁에 들어갔으며 《유신》 테로독재를 반대하는 투쟁을 확대해나갈것을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는 옥중에서《죽어서 살자》, 《나의 별들》 등 시들을 지어 종교인들의 반《정부》 감정을 더욱 돋구었다.

민주인사 김대중도 파쑈도당의 정치적보복행위에 항의하여 5월 7일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갔으며 신부 함세웅은 옥중에서 《유신체제》를 단죄하는 《상고리유서》를 발표하여 《유신체제가 있는한 자유도, 정의도, 평화도, 통일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구속된 인사들은 또한 박정희괴뢰도당이 일부 《석방》 놀음을 벌려놓고 그 대가로 서약서를 쓰게 하는 책동을 반대하여 《서약서는 절대로 쓸수 없다》고 하면서 견결히 투쟁하였다.

청년학생들의 투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해 3월 1일에는 남조선민주인사들이 파쑈독재〈정권〉을 반대하여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였으며 또 올해에는 청년학생들이 〈선언문〉을 발표하였습니다.》(《일본 요미우리신문사 상무취체역인 편집국장 일행과 한 담화》, 단행본, 10페지)

남조선청년학생들의 투쟁은 1976년 12월초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발표한 《민주구국선언문》으로 이어지면서 1977년에 들어와 새로운 추세를 보이며 강화되였다.

전통적인 투쟁의 계절로 알려진 4월을 맞이하면서 3월 28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대규모적인 반《정부》 집회를 열고 《민주구국선언문》을 발표하여 투쟁의 첫 포문을 열어놓자 4월 7일에는 《한국신학대학》 학생들이, 8일에는 서울에 있는 감리교신학대학 학생들이, 11일에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리화녀자대학교 학생들이 련이어 투쟁의 봉화를 들었다.

청년학생들의 투쟁은 특히 10월에 들어서면서 더욱 고조되였는데 10월 7일부터 14일 사이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리화녀자대학교,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서강대학교 등 대학들에서 연 14차에 걸쳐 1만 5천여명이 참가하여 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였다.

이해 투쟁의 첫 봉화를 든 서울대학교 600여명의 학생들은 3월 28일 대학구내에서 대규모적인 반《정부》 집회를 열고 《민주구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그들은 선언문에서 《긴급조치 9호》의 즉시 철폐, 학원자유, 《학도호국단》의 해산,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권과 생존권의 보장, 언론의 자유의 회복, 구속중에 있는 민주인사들과 학생들의 석방 등을 요구하면서 이 요구를 담은 삐라들을 뿌리며 괴뢰경찰들과 맞서 싸웠다.

4월 7일에는 서울의 《한국신학대학》의 학생 150여명이 5명의 교수들과 함께 대학강당에서 벌려놓은 《종교행사》를 돌연히 반《정부》 집회로 바꾸고 《고난의 선언》을 발표하였다.

선언은 파쑈적인 《유신체제》를 배격하고 괴뢰도당의 매국적인 대미, 대일 뢰물행위를 규탄하면서 《민주적평화통일만이 우리의 민족적인 목표임을 재확인하는 바이다》, 《현정권은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고 총퇴진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학생들은 선언문 200여장을 집회참가자들속에 뿌리면서 달려드는 괴뢰경찰놈들과 맞서 완강히 싸웠으며 놈들이 끝내 12명의 학생들을 잡아가자 그들을 구출하기 위한 동맹휴학을 선포하는데로 나아갔다.

4월 8일, 서울의 감리교신학대학 학생들 200여명은 남조선의 민주인사들이 2월 22일에 발표한 《민주구국헌장》을 읽은 다음 일제히 교문을 박차고 거리로 뛰쳐나가 파쑈적 《유신체제》를 철폐하라는 구호를 웨치면서 시위투쟁을 벌렸으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생들 50여명은 《4월선언》이라는 반《정부》 삐라를 뿌려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죄행을 규탄하고 《민주구국헌장》에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4.19를 계기로 박정희괴뢰도당이 그 어느때보다도 삼엄한 경계망을 펴고 폭압소동에 미쳐날뛰는 속에서 끊임없이 벌어진 이러한 투쟁은 10월에 들어서면서 더욱 치렬하게 벌어졌다.

10월 7일, 서울대학교 1천여명의 학생들은 박정희역적의 사임, 살인적인 《유신헌법의 개정》, 《긴급조치》의 철폐, 구속된 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의 즉시 석방 등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가두시위를 벌렸으며 10월 12일에는 연세대학교 2천여명의 학생들이 또한 종교행사에 모인 기회를 리용하여 《유신헌법의 철폐》, 《박정권의 퇴진》을 웨치면서 반《정부》 투쟁에 일떠섰다.

특히 연세대학교 학생 4천여명이 10월 25일에 벌린 대중적인 반《정부》시위는 대표적이였다.

이날 학생들은 학교강당에서 있은 모임을 계기로 반《정부》집회를 열고 《유신헌법의 철폐》를 요구하는 《1977년연세민주수호결사투쟁선언》을 채택하였다.

선언은 《우리는 현정권을 부정한다》, 《우리모두 반항의 불길을 높이 추켜들자》라고 호소하고 1) 《유신헌법》 철폐를 위하여 싸운다. 2) 《박동선사건》을 해명한다. 3) 로동자들의 인권을 지키자. 4) 학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전 학생회를 부활시키라. 5) 이 모든것의 원흉인 독재정권의 타도를 위하여 싸운다라는 5개항목의 결의를 밝혔다.

학생들은 이어 운동장에 나와 반《정부》 성명을 찍은 인쇄물을 배포하고 《유신체제를 철폐하라》, 《독재정권을 쓸어버리자》, 《감금된 학생들을 석방하라》, 《학도호국단을 해체하라》, 《로동자들의 기본권리를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최루탄을 쏘아대는 괴뢰기동경찰대놈들과 치렬한 돌싸움을 벌렸다.

11월 11일 서울대학교 3천여명의 학생들도 《민주구국투쟁선언문》을 발표하여 《우리들의 민주, 민족, 민권 투쟁이 승리하는 날까지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말고 어떤 비굴한 타협도 단호히 거부하자》라고 견결한 립장을 표시하고 《학도호국단의 철폐》, 《근로자들의 로동3권의 보장》, 《긴급조치 9호의 즉시 해제》, 《유신헌법의 철폐》 등 7개항목의 결의를 밝혔다. 이날 학생들은 최루탄을 쏘아대며 달려드는 1천여명의 괴뢰경찰놈들에게 돌벼락을 안기면서 치렬한 투쟁을 벌렸다.

한편 4명의 학생들은 대학청사 4층에 휴대용확성기를 걸어놓고 반《정부》 성명을 읽으면서 경찰은 학원에서 물러가라고 함화를 들이댔다.

대학밖에서 치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을때 대학구내의 도서관에서도 롱성투쟁이 힘차게 벌어졌다.

학생들의 이날 투쟁은 밤까지 계속되였다.

12일에는 서울 서강대학교 학생들 400여명이 《학도호국단》 군사훈련에 내몰린 기회를 리용하여 반《정부》 시위투쟁을 벌렸는데 그들도 최루탄을 쏘아대는 괴뢰경찰놈들에게 돌벼락을 안기면서 오래동안 싸웠다.

서울의 리화녀자대학교 학생들도 10월 31일과 11월 14일 2차례에 걸쳐 박정희파쑈악당의 폭압책동에 항거하여 앉아버티기투쟁과 삐라뿌리기투쟁을 벌렸다.

이해 남조선청년학생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은 박정희역도의 타도와 《유신》 체제의 철폐를 전면에 걸고 격렬하게 벌어졌으며 그들의 투쟁에서는 조직적이며 련대적인 성격이 더욱 강화되였다.

계기선택에서도 학생들의 전통적인 년례행사인 체육대회, 종교적의식, 《기념일》 등을 비롯한 온갖 조건과 가능성을 다 리용하는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중요한것은 청년학생들의 투쟁에서 로동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생존권보장문제가 강하게 제기된것이며 로동운동과의 련대성이 강화된것이다.

로동자들의 투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청년학생들뿐아니라 남조선의 로동자들도 투쟁에 용감히 일떠서고있습니다.》(《우리 나라의 정세와 재일본조선청년동맹의 과업에 대하여》, 단행본, 23페지)

1977년에 남조선로동계급은 삶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혁명적진출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였다.

이해 5월말까지 남조선로동자들이 벌린 투쟁건수만도 205건으로서 1976년에 그들이 벌린 투쟁총건수보다도 2.5배 더 많았다.

남조선로동자들은 이해 생존의 권리를 위한 당면한 경제적요구와 함께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위한 정치적요구도 전면에 내걸고 점차 정치무대에까지 나아가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도 임금을 올리며 밀린 임금과 각종 수당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투쟁을 위주로 하여 생존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1월 27일, 남조선전역의 섬유부문 로동자 10여만명이 임금을 평균 58.9%더 올릴것을 요구하여 투쟁에 들어간데 이어 28일에는 화학부문로동자들이 이에 합세하였으며 2월 22일에는 부산정유공업주식회사 로동자들이, 3월에는 경상북도안의 광부들이 임금올려받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다.

전라북도 군산의 부두로동자 1천여명은 임금을 100% 더 올릴것을 요구하여 년중 여러차례에 걸쳐 항의투쟁을 벌렸고 8월 중순에는 서울시 영등포구 미국인회사에 고용된 3천여명의 로동자들은 임금을 46.8% 더 올릴것을 요구하여 단식롱성투쟁을, 9월 22일 경상북도 뻐스 운전수들과 차장들 3천 300여명은 임금을 평균 46.2% 더 올릴것을 요구하여 항의투쟁을 벌렸다.

삶의 권리를 위한 투쟁은 이해에 진정, 호소, 항의 등 종래의 소극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파업, 폭동, 단식, 시위, 항의롱성을 비롯한 적극적인 형태를 띠고 완강하게 벌어졌으며 부문과 부문사이의 련대성과 공동행동이 강화되였다.

1월 9일 인천시내 부두로동자들은 밀린 임금의 지불과 대우개선을 요구하여 일제히 파업에 들어감으로써 입항한 선박들이 며칠째 짐을 못부리우도록 발목을 묶어놓았으며 1월 16일 경기도 고양군 태평련합섬유회사 로동자 500여명은 《밀린 임금을 조속히 지급하라》 등 프랑카드를 들고 구호를 웨치면서 일대 시위투쟁을 벌렸다.

3월 13일에는 박정희매국역적의 배족적인 《인력수출》에 의하여 중동의 사우디 아라비아에 팔려간 남조선로동자 2천여명이 폭동을 일으키고 화물자동차 30여대와 현장 설비들, 시설물들을 불살라버리는 용감한 투쟁을 벌렸다.

7월 12일 부산의 진양화학주식회사 로동자 700여명이 대중적인 파업으로 놈들에게 큰 타격을 준데 이어 15일에는 부산시 서구에 있는 대진주식회사 로동자 500여명이 또 롱성투쟁에 들어갔고 7월 18일에는 서울 대하운수회사 운전수 70여명도 파업을 일으켰다.

특히 8월 19일과 20일에 걸쳐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미국인이 경영하는 《한국시그네틱스주식회사》에 고용된 로동자 3천여명이 일으킨 단식롱성투쟁은 그 투쟁 규모와 형태에 있어서 주목을 끌었다.

남조선로동자들의 이러한 적극적인 투쟁형태는 이해 4월말까지의 투쟁에서 60%를 차지하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은 또한 박정희파쑈도당의 《유신》 악법을 철폐하며 《로동3권》의 보장, 어용로조의 배격과 자주적인 로조의 결성, 인권유린행위의 반대 등 사회정치생활의 민주화를 위하여 힘차게 싸웠다.

3월 10일 서울에서는 로동자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 1천 500여명이 대규모적인 반 《정부》 집회를 열고 《로동자인권선언》을 발표하였다.

《로동자인권선언》에서는 로동자들의 생존과 민주주의적권리를 위한 정당한 투쟁에 대한 탄압을 합법화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철폐하며 《긴급조치》를 당장 해제할것, 《로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할것 등의 13개항목의 요구를 강력히 제기하였다.

집회를 끝낸 군중들은 밖으로 밀려나가면서 《정치범을 석방하라》, 《비상조치를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소리높이 웨쳤다.

《로동자인권선언》의 발표는 1975년 3월 1일 남조선전역의 근로자대표들이 《로동운동자률화촉진선언》을 발표한 이래 처음되는 사실이였다.

9월 8일, 서울의 평화시장피복공장 로동자 200여명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탄압을 반대하며 민주주의적권리를 요구하는 대중적인 투쟁을 벌렸다.

그들은 《결사선언》을 발표하고 적들의 탄압만행을 낱낱이 폭로규탄하면서 로동운동에 대한 탄압의 중지, 《로동3권》의 보장, 폭력경찰의 처단, 《로동교실》의 즉시 반환을 요구하였으며 놈들의 탄압에 몸을 불살라 죽는것으로써 항거하였던 로동자 전태일의 어머니를 즉시 석방하라고 들이댔다.

괴뢰경찰들이 달려들어 야수적으로 탄압하자 한 로동자는 건물 4층에서 뛰여내리는것으로써 항거하였고 다른 한 로동자는 칼로 배를 갈라 항거함으로써 투쟁은 더욱 치렬하게 벌어졌다.

7월 12일 부산의 뻐스차장 100여명은 놈들의 인권유린행위를 반대하는 파업을 일으켜 4대뻐스길의 뻐스 100대의 운행을 완전히 중지시켰으며 7월 20일 서울 청계천일대 피복공장의 녀성로동자 100여명도 로조조직에 대한 탄압을 반대하여 일제 작업을 그만두었다.

이러한 투쟁과정에 서울의 신일산업회사 로동자 700여명은 4월 26일 자기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로조를 뭇고 5월 중순에 들어서면서부터 집단적인 투쟁에로 넘어갔다.

이해 남조선로동자들의 투쟁은 각계각층 인민들의 지지성원속에서 그들과의 련대성을 더욱 강화하면서 발전하였다.

청년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의 투쟁에서 로동자들의 생존권과 민주주의적권리를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진 사실, 《로동자인권선언》의 발표와 《평화시장로동자인권문제협의회》의 결성 등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남조선로동자들의 혁명적진출이 강화되고있는데 대하여 외신들까지도 《이러한 로동자들의 동향이 앞으로 민주화운동의 장래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될지 모른다》고 하였다.

농어민들의 투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인민들은 자유와 생존의 권리를 요구하고있으며 무엇보다도먼저 절박한 생활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있습니다.》(《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210페지)

남조선 농민들과 어민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가혹한 수탈책동과 착취를 반대하고 절박한 생활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힘차게 싸웠다.

남조선농민들은 무엇보다 박정희괴뢰도당이 《자금회수》, 《매상》의 허울좋은 이름밑에 감행하는 각종 수탈행위를 반대하여 싸웠다.

이해초에 전라남도 완도, 진도, 전라북도 옥구, 충청북도 제천 등 여러곳의 농민들이 괴뢰도당의 《자금회수》 책동을 반대하여 싸운데 이어 3월에는 경상북도 월성군안의 농민 2만 8천여명이 《산림조합비》를 15% 올려 빼앗으려는 괴뢰도당에 집단적으로 맞서 싸워 놈들의 수탈책동을 파탄시켰다.

또한 전라남도 완도군 농민들은 150만원의 돈을 강탈하려는 괴뢰도당의 책동을 반대하여 투쟁에 일며섰다.

농민들은 괴뢰들이 어용수탈기구의 협잡군들로 하여금 이 돈을 자기들에게 꾸어준것처럼 문서를 꾸미게 하고는 돈을 당장 내놓으라고 강박하는데 격분하여 놈들의 범죄행위를 폭로규탄하면서 완강히 맞서 싸웠던것이다.

놈들의 수탈을 반대하는 투쟁은 가을철에 들어서면서 더욱 강화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이 그러지않아도 한해농사를 망치고 빈손으로 나앉은 농민들에게서 《매상》의 이름을 걸고 전해보다 엄청나게 많은 량의 낟알을 빼앗으려하자 충청남도 서산, 홍성, 전라북도 익산, 전라남도 고흥, 광양, 라주군을 비롯한 각지에서 농민들의 집단적인 항의투쟁이 련이어 일어났다.

괴뢰도당은 전라북도 익산군에서만도 70만가마니의 고구마를 빼앗으려고 날뛰였으나 이곳 농민들은 단 한가마니도 내놓지않았다.

남조선강원도와 제주도의 농민들 역시 한가마니의 보리도 내놓지 않았다.

그리하여 괴뢰도당이 이해 7월까지 남조선전역에서 빼앗아낸 보리는 전해 같은 기간의 겨우 0.3%를 넘지 못하였다.

남조선농민들은 또한 박정희괴뢰도당이 전쟁준비에 미쳐날뛰면서 논밭을 마구 략탈하고 영농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웠다.

1월 5일,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농민들 2천여명이 놈들의 토지략탈행위를 규탄하면서 빼앗은 땅에 대한 보상금을 내놓으라고 집단적인 항의투쟁을 벌린데 이어 전라남도 승주군 별량면, 남조선강원도 강릉, 경기도의 양주, 전라남도의 장성, 담양, 광주, 라주 등 일대의 농민들이 련이어 들고일어났다.

괴뢰도당의 농토파괴책동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은 5월에 들어서면서 전라남도 담양군과 려수시, 충청남도 례산군, 경기도 평택군, 충청북도 제천군, 경상남도 울주군 등지에서, 년말에 가서는 경상남도 울주, 전라남도 려천, 경상남도 창녕, 경기도 시흥, 남조선강원도 원주, 원성, 횡성, 경상남도 산청을 비롯한 남조선전역에서 끊임없이 계속되였다.

한편 남조선 강원도 고성군안의 1천여명의 농민들이 큰물로 인한 재난을 막을 대책을 세우라고 괴뢰도당에 항거하였고 경기도 룡인군, 전라남도 신안군과 해남군, 경상남도 함안군 등 농민들은 저수지의 보수와 물문제를 요구하여 싸웠다.

남조선어민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반동적인 《수산업법》을 규탄하면서 어로조건의 보장과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싸웠다.

1월 전라북도 옥구앞바다의 섬들에서 사는 어민들은 어장을 못쓰게 만든 괴뢰도당과 매판자본가놈들에게 피해보상금 5억원을 내놓으라고 강력히 요구하였다.

3월에는 전라북도 군산항의 1천여명의 어민들과 전라남도 완도군의 1천 300여명의 어민들이 어로조건의 보장과 파괴된 방파제의 보수를 요구하여 항의투쟁을 벌렸다.

남조선의 서해안지방 어민들 2만여명은 조난사고로 목숨을 잃은 수많은 어민들과 그 가족들의 보상대책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박정희놈이야말로 우리 농민들과 근로자들의 피땀을 짜내여 배를 불리고 미국놈들에게 뢰물을 바치는 미제의 주구이다. 부정부패의 왕초이고 간악한 착취자이다. 그놈은 달콤한 말로 농민들을 얼리고 간빼먹는 흡혈귀같은놈이다.》라고 박정희역적을 폭로규탄하면서 투쟁만이 살길이라는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닫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새 전쟁 준비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

이해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전쟁준비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특히 청장년들속에서 괴뢰군의 별동대인 《향토예비군》 훈련과 《민방위대》 훈련을 반대하는 투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였다.

1977년 1월～4월까지의 사이에 부산에서만도 《향토예비군훈련》을 반대하였다가 놈들에게 잡힌 청장년들의 수는 2천 480여명에 달하였다.

4월 하순 충청북도 영동군에 있는 괴뢰륙군부대

의 련병장에서는 《향토예비군》에 얽매인 200여명의 청장년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일제히 손에 몽둥이를 들고일어나 《우리는 강압훈련 반대한다》, 《우리는 청와대의 사병으로 될수 없다》, 《집에서 처자들이 굶고있다》, 《인권탄압을 중지하라》 등 구호를 웨치면서 박정희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인권유린행위를 견결히 규탄하였다.

그들은 탄압에 날뛰는 놈들에게 돌벼락을 퍼부으며 부대막사를 습격하여 파괴하고 군용차 3대를 완전히 짓부셔버렸다.

경기도 리천에 있는 《민방위대》 훈련장의 중대병실벽에는 《박정희의 멸망행진》이라는 비웃는 선전화가 나붙었는가하면 《민방위대 대원들이여!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또 투쟁에 궐기하였다. 우리도 크게 호응하자》라는 삐라가 뿌려졌다.

또한 괴뢰읍사무소 담벽과 마을주변에는 《처단해야 할 반역자의 명단》까지 나붙었다.

1월 19일, 경상북도 포항시의 한 주민은 군사훈련에 끌려나가 보초서는 틈을 타서 무기고를 부시고 소총 1자루, 수류탄 3개, 탄알 87발을 가지고 자취를 감추었다.

경기도 리천의 한 청년도 무기와 수류탄을 가지고 자취를 감추었으며 다른 한 주민은 훈련도중 악질중대장놈에게 된매를 안겼다.

남조선강원도 원주시 주민들은 5차례이상이나 훈련에 나오라는 놈들의 강요를 거부하였으며 충청남도 대전시 관암동의 한 청년도, 훈련통보를 10차례나 받은 서울시 성동구의 한 청년도 끝내 응하지않고 완강히 거부하였다.

놈들의 범죄적인 군사훈련을 반대하는 투쟁은 전라남도 신안군, 남조선강원도 명주군, 경상북도 대구, 전라북도 익산군, 충청북도 청원군, 서울시 등을 비롯한 남조선각지에서 온해 끊임없이 계속되였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또한 파쑈폭압에 미쳐날뛰는 괴뢰경찰놈들에게 단호한 징벌을 안기는 투쟁들이 세차게 벌어졌다.

전라남도 광주은행 려수지점에서 일하는 한 청년은 괴뢰려수경찰서 정보과의 괴뢰경찰깡패놈을 거짓 《신고》로 유인하여 징벌하였다.

4월 24일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2명의 청년들은 폭행을 가하는 괴뢰경찰놈을 까눕혀 하수도 구멍에 처넣었으며 전라남도 목포시의 한 청년은 6월 19일밤 괴뢰룡당파출소의 경찰 세놈에게 된매를 안겼다.

아무죄도 없는 사람들에게 생트집을 걸어 행패를 부리는 괴뢰경찰놈들을 징벌하는 투쟁은 전라남도 광주시, 목포시, 남조선강원도 춘천시 죽림동, 철원군 철원읍, 삼척군 삼척읍, 전라북도 리리시, 경상북도 대구시 동구 신천동, 충청북도 청주시, 서울시를 비롯하여 곳곳에서 련이어 계속되였다.

미제강점하의 남조선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새 전쟁 준비책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와 남조선통치배들은 위기에 처한 저들의 신세를 건져보려고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강화하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준비를 더욱 다그치고있습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문헌집》, 12페지)

박정희괴뢰도당은 1977년에 《미지상군철수》에 따르는 《보완조치》를 운운하면서 무력증강과 전쟁연습소동을 비롯한 새 전쟁 준비책동을 강화하였다.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거를 주장하는 내외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감에 따라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박정희괴뢰도당은 《자주국방능력》을 강화할데 대하여 지껄여대면서 1977년 괴뢰정부예산의 34.6%를 군사부문에 돌리고 군사기구와 그 성원 및 병력을 늘이는 한편 군수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이는 소동을 벌렸다. 놈들은 또한 경제 및 군사《원조》를 늘여줄것을 외세에 애걸하면서 많은 차관과 외국자본을 끌어들이고 남조선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쳤다.

남조선호전분자들은 6월 17일 《군수산업의 확대진흥회》라는 모의를 벌려놓고 1980년말까지 항공기와 전자무기를 제외한 모든 무기를 자체로 생산하는것이 과제라고 하면서 이것이 제놈들의 생존과 운명에 직결된다고 고아댔다. 11월 24일에도 이러한 모의판을 벌려놓고 군수산업의 확장을 다그칠데 대한 궁궁이를 꾸미면서 새 전쟁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한편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방대한 군사장비를 그대로 넘겨받으며 미국으로부터 살륙무기와 살인장비를 더욱 많이 끌어들이려고 책동하였다.

놈들은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이 가지고있던 나이크 허큘레스 지상대 공중 미싸일 1개대대분의 장비를 6월 30일까지 넘겨받았으며 9월에는 남조선강점 미제4미싸일사령부 산하 2개대대분의 오네스트죤을 비롯한 미싸일장비들을 넘겨받았다.

7월과 8월에는 세차례에 걸쳐 수십대의 전투폭격기와 공격용직승기들을 비롯한 살인장비들을 미국으로부터 끌어들였다.

괴뢰들은 미상전들과의 《탄약관리권》이관계획에 따라 일본 오끼나와의 미군탄약창고로부터 9천500톤에 달하는 탄약을 넘겨받았으며 다른 한편 필리핀의 미군기지에서도 많은 탄약과 전쟁물자를 남조선에 끌어들였다.

이밖에 놈들은 전차, 반전차무기와 장갑차, 포를 비롯한 괴뢰륙군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신형군사장비를 더많이 끌어들이려고 책동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동북아세아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할수 있는 협조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떠들면서 《한일군사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막뒤흥정을 벌렸으며 《한미일안보협력기구》라는것까지 꾸며내려고 책동하였다. 또한 놈들은 《한미호상방위조약》에 있는 미제침략군의 즉각지원이란 조항을 《즉각개입》으로 바꿀것을 애걸하였다.

이것은 괴뢰들의 군사적모험책동이 얼마나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있는가 하는것을 말해준다.

전쟁연습소동

남조선호전분자들은 이해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의 긴박성》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남조선의 중부전선과 동부, 서부전선 등 최전방지역에서 전쟁연습소동을 끊임없이 벌려놓았다.

특히 놈들은 미제침략군과의 《합동훈련》을 자주 벌렸다.

4월에 남조선괴뢰들은 전선중부에서 미 륙, 해, 공군과 함께 《상륙훈련》, 《도하훈련》, 《폭격훈련》 등 최근년간 없었던 큰 규모의 《한미합동훈련》을 벌렸으며 이에 앞서 3월 16일에는 중서부의 기지에서 미제침략군과 함께 《공격훈련》을 벌렸다.

이밖에도 놈들은 미제가 6월 19일 오산공군기지에 끌어들인 대전차사격기라고 불리우는 《에이—10》비행기들과 함께 《한미합동전술훈련》을 벌렸으며 그리고 남조선에 기여든 오끼나와가데나공군기지의 미제공군기들과 합동하여 《장거리저공비행훈련》을 감행하였다.

미제침략군과의 《합동훈련》은 남조선연해에서뿐아니라 그 주변바다에서도 감행되였는데 10월 19일에는 미제7함대소속 군함과 괴뢰해군함선들이 필리핀서북쪽해상에서 《합동작전훈련》을 벌렸으며 11월 11일에는 괴뢰해군함선과 미해군의 순양함과 호위구축함들이 동원되여 인도양북쪽해역에서 《합

동군사연습》을 벌리면서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였다.

괴뢰들은 일본 《자위대》의 해공군과 합동하여 10월에 제2차대전후 있어본적이 없는 가장 큰 규모의 《공동군사연습》도 벌렸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미제와 일본《자위대》와의 《합동훈련》을 강화하였을뿐아니라 단독군사연습도 미친듯이 벌렸다.

놈들은 1977년을 《훈련지상의 해》로 정하고 사격훈련과 기동훈련, 비행훈련 등 괴뢰륙해공군의 《정기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큰 규모의 군종별련합훈련과 예비군종합훈련을 새롭게 벌렸다.

4월에 놈들은 수많은 괴뢰군병력과 전차, 장갑차를 비롯한 여러가지 중무기를 끌어내여 전라남도 광주 등지에서 《독수리훈련》이라는 도발적인 전쟁연습을 연 8일간이나 벌렸다.

6월 14일에는 전선중부에서 그 무슨 《특수전에 대비》한 《종합유격훈련》이라는것을 진행한후 괴뢰군항공륙전대와 전차, 장갑차, 직승기, 《에프—4팬톰》기 등을 비롯한 각종 군사장비를 끌어내여 괴뢰군보병대대 《공격훈련》을 하면서 정세를 고의적으로 긴장시켰다.

6월 17일에는 박정희역도가 사격연습장에 나타나 앞장서서 총소리를 내며 화약내를 풍겼고 괴뢰국무총리라는자는 우리를 함부로 걸고들면서 괴뢰군과 《향토예비군》을 남북대결에로 부추겼다.

박정희괴뢰도당은 9월 1일 동남방해상에서 한달동안 매일 19시간씩 사격훈련을 벌린다고 공포하고 이 일대에 《해상경계령》까지 내렸으며 11월 21일에는 서해의 백령도를 비롯한 5개의 섬들과 이 해역에 전쟁을 가상한 《비상령》을 선포한 가운데 모든 함포들의 포문을 공화국북반부에 돌리고 《해상특별훈련》이라는 도발적인 군사연습을 감행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정세를 긴장시켰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총력안보》의 범죄적구호밑에 무고한 주민들까지 내몰아 전쟁훈련을 강요하였다.

10월 7일 놈들은 《전쟁선포동원령》을 내리고 수만명의 《향토예비군》과 살인무기들, 대형수송기와 군수렬차를 비롯하여 1천여대의 각종 차량들을 동원하여 10월 13일까지 《쌍룡작전훈련》이라는 전쟁연습소동을 벌렸다. 충청남북도와 경기도 일대를 비롯한 남조선전역을 화약내로 뒤덮은 이 도발적인 전쟁연습을 벌리면서 놈들은 이것이 후방자원의 전방투입능력을 시험하기 위한것이라고 떠벌이면서 전쟁분위기를 고취하였다.

전쟁연습은 청년학생들에게도 끊임없이 강요되였다.

4월에만 하여도 남조선 각대학의 학생가운데서 제1차로 3천 600여명을 《학생병역훈련소》에 끌어내여 그들에게 군사훈련을 강요하였다.

8월 8일에는 각 대학에서 학생들을 괴뢰군부대에 강제로 끌어다 《공수특전훈련》이라는것을 강요하면서《락하훈련》과 《유격훈련》, 《사격훈련》을 시켰으며 이른바 《모국방문》의 이름밑에 남조선에 끌어들인 80여명의 재일교포녀학생들까지 괴뢰녀군훈련소에 밀어넣고 제식훈련과 사격훈련을 강요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민방위훈련》이란 명목밑에 4월 20일에는 서울의 한강다리우에 가상 《적》기까지 띄워놓고 주민들을 군사훈련에 강제로 내몰았으며 6월 25일에는 남조선전역에 《비상경계령》을 펴고 군중들을 끌어내여 전쟁연습을 벌리면서 군사분계선 가까운 파주군까지 내몰았다.

《함정공개행사》요 《항공기와 항공무장전시회》요 하는 따위의 가소로운 소동과 함께 놈들은 여러가지 군사장비와 군수공장, 괴뢰군의 전투훈련모습들을 인민들에게 보이는 놀음까지 벌리였다.

이와 함께 각종 어용통신과 신문, 방송 등을 동원하여 《남침위협》을 더욱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총력안보》요 《전시태세확립》이요 하는 소동을 벌리였다.

반공책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외래침략세력과 그 앞잡이들은 극도의 불안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에 대하여 떠들면서 우리 공화국을 중상비방하고 위협공갈하는 일대 〈반공〉소동을 벌리고있습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문헌집》, 38페지)

미제의 부추김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은 1977년에도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 소동을 벌리면서 《두개 조선》 조작을 위한 반공책동에 미쳐날뛰였다.

놈들은 위기에 처할때마다 상투적인 방법으로 써오던 이러저러한 모략사건들을 꾸며내여 남조선 인민들의 반《정부》투쟁을 눌러보려고 책동하였다.

5월 3일 괴뢰들은 우리측 군사인원들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비무장지대 남쪽경계선가까이에서 순찰중이던 남조선괴뢰군에게 총사격을 하였다는 이른바 《총격사건》을 꾸며냈다. 괴뢰들은 이 《사건》으로 《인명피해》가 났다는 허위보도와 함께 《공산주의자들이 무장인원의 남파를 시도》하고있다는 왕청같은 소리를 해가며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망된다느니 뭐니하고 떠들었다.

5월 10일에는 그 무대를 남해로 옮겨 우리측 무장선박이 경상남도 삼천포앞바다에 《침투》하여 저들의 《어로지도선》에 총사격을 가한후 선원을 《랍치》했다고 하는 《삼천포해상사건》을 꾸며내여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반공소동을 미친듯이 벌렸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러한 모략사건을 꾸며냄으

로써 제놈들이 떠돌고있는 《남침》설을 뒤받침하며 남조선에 대한 미제침략군의 강점책동을 합리화하고 미군을 남조선에 계속 붙들어두려는 구실을 마련하려고 책동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우리 공화국북반부와 일본에 있는 교포들을 반대하기 위한 모략행위도 감행하였다.

남조선괴뢰중앙정보부는 5월 28일 민단계 재일교포 윤효동이라는자를 《자수간첩》으로 묘사하고 이른바 《기자회견》에서 《자수사실》을 발표케하는 모략극을 연출하였다.

이 광대놀음에서 놈들은 윤효동이 그 누구의 《지령》에 의하여 일본에서 《간첩활동》을 하였으며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와 《통일혁명당 재일한국인련대위원회》, 《김대중구출대책위원회》 등 일본에 있는 민단계 교포단체들도 우리 공화국과 총련의 《배후조종》에 의하여 움직이는듯이 꾸며댔다.

이 파렴치한 날조자들은 지어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도 우리와 관련이 있는것처럼 억지로 결부시키면서 우리 공화국과 총련을 비롯한 재일교포단체들을 반대하는 일대 소동을 벌리였다. 이로써 박정희괴뢰도당이 《집권》이래 일본에서 날조한 모략사건중 그 진상이 세상에 드러난것만하여도 40여건이나 된다.

이 《자수사건》도 남조선괴뢰들이 위기에 처할때마다 꾸며내는 이러한 모략극의 연장이며 그 한고리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른바 《국가안보》라는 간판밑에 《반공궐기대회》, 《반공강연회》, 《웅변대회》 등 관제행사들을 련이어 벌려놓고 남북대결의식을 불어넣는 반공소동을 벌렸다.

6월 18일 괴뢰들은 서울에서 1천 500여명의 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무슨 《반공의 날 기념식》이라는 놀음을 벌리고 어용나팔수들을 내세워 《자주국방을 강화》하며 《반공통일》을 하겠다느니 뭐니하고 떠들어댔다. 6월 30일에도 서울에서 2천여명의 주민들과 학생들을 모아놓고 《안보》의 범죄적구호밑에 《웅변대회》라는것을 벌리고 우리를 걸고들어 헐뜯었으며 6월 13일 서울에서 벌린 《안보토론회》에서는 서울과 제주도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라고 하는 박정희역도의 앞잡이들이 모여들어 공화국북반부와의 《대결》을 부르짖고 이에 대비하여 필요한 무슨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느니 뭐니하고 소란을 피웠다.

또한 놈들은 각 도, 시, 군 괴뢰행정단위로도 《안보토론회》니, 《안보강연회》니 하는 광대놀음을 벌렸다.

이러한 모임들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은 그 무슨 정신교육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반공을 《생활화》 하는것이 《북과 대결하는데 있어서 이겨내는 힘이 될것》 이라고 하면서 대결과 분렬을 폐하는 반공타령을 늘어놓았다.

박정희괴뢰도당은 《6. 25》요, 《광복절》 이요 하면서 온갖 계기마다 《두개 조선》 조작을 위한 반공소동을 더욱 소란하게 벌리였는데 6월 25일에는 《조국수호행군대회》 라는것을 벌려놓고 여기에 1천 700여명의 학생들과 주민들을 끌어내여 무장까지 갖추고 서울에서 파주까지 행군시키는 악랄한 책동을 감행하였다.

반공단체들을 발동하여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속에 반공과 《승공》 의식을 퍼뜨려온 괴뢰들은 4월 23일 다른 나라의 반공분자들까지 끌어들여 서울에서 《청소년학생들의 반공자세에 대한 쎄미나르》 라는것을 벌렸다.

또한 놈들은 8월 9일부터 3일동안 미국에 있는 교포학자들까지 끌어들여 서울에서 이른바 《내외정치학자들의 합동학술대회》라는 관제행사를 벌려놓고 우리 공화국북반부를 터무니없이 비방중상하였으며 남북관계는 《새로운 대결》로 그 성격을 바꾸었다느니, 남북대결은 《대결의 차원》을 누가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어가는가에 승패가 달려있다느니 하면서 북과 남사이의 대결과 분렬을 고취하였다. 지어 놈들은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철수에 따라 누구보다도 《안보의식》 을 공고히 다져야 할 집단은 청년학생들과 《군수분야의 종사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대결과 전쟁에로 부추기는 망언까지 늘어놓았다.

이리하여 놈들은 과학과 진리를 론해야 할 학술연단까지 반공과 대결을 고취하는 무대로 만들고 민족내부에 반목과 적대감을 조성하는 저들의 반민족적죄악상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한편 괴뢰들은 이른바 《정신교육연구원》 이라는 반공 기구를 내오고 청소년학생들에 대한 《반공》 교육을 강화하였다.

놈들은 방송, 출판물 등을 비롯한 모든 어용선전수단들을 동원하여 반공사상을 퍼뜨렸다.

이해에 들어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언론출판기관들을 더욱 어용화하였으며 괴뢰문교부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속에 반공사상을 퍼뜨리기 위하여 반공 자료 10만부를 비롯한 반공 선전물을 출판하여 내려먹이는 악랄한 책동을 감행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 폭압소동

박정희괴뢰도당은 위기에 처한 저들의 신세를 어떻게 해서나 모면해보려고 1977년초부터 《국민총화》 를 전면에 내세우고 《유신》독재체제를 더욱 보강하는 한편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폭압만행을

그 어느때없이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박정희파쑈악당은 그 어느 나라 력사에도 없는 오만가지 파쑈악법들과 전시폭압령을 꾸며낸것으로도 모자라 1977년에는 또다시 악명높은 《반공법》을 더욱 악랄하게 뜯어고치고 수많은 악법들을 새로 꾸며냈으며 폭압기구와 그 인원을 훨씬 늘이였다.

놈들은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큰 도시들과 중요지역들에 2개의 《경찰서》와 70여개의 《경찰지서》, 《파출소》를 새로 내오고 4천여명의 괴뢰경찰을 늘이고 중요대상지들에는 《청원경찰》을 더 배치하였으며 경찰장비들을 더욱 현대화하는 책동을 감행하였다.

남조선전역을 파쑈폭압망으로 뒤덮어놓은 박정희살인악당은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애국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파쑈교형리들은 남조선인민들의 반《정부》진출을 억누르기 위하여 괴뢰경찰, 특무놈들을 내몰아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 민주인사들의 활동을 하나하나 살피게 하고 그들의 움직임에서 조그마한 반《정부》적 요소가 나타나기만 하면 서슴없이 잡아가두거나 학교와 공장들에서 강제로 퇴학시키고 집단적으로 내쫓는 폭압만행을 벌렸다.

남조선인민들의 4월인민봉기 17돐에 즈음하여서는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전역에 삼엄한 비상경계태세를 펴고 수많은 무장경찰을 풀어 오가는 사람들을 심문하였으며 교회와 주민들의 집에까지 들어가 수색을 하고 주민들을 무리로 잡아가두는 검거소동을 벌렸다. 뿐아니라 놈들은 년중 살인재판을 벌려놓고 이른바 《학원침투간첩단사건》과 《제2민주구국선언사건》 관련자들 그리고 신학대학의 《고난의 선언》관련학생들과 서울대학교의 《민주구국선언문》 관련학생들에게 모조리 극형과 중형을 들씌웠으며 애국적인 작가, 시인들을 마구 잡아다가 치떨리는 고문끝에 중형을 들씌우는 파쑈적만행을 감행하였다.

박정희파쑈악당은 또한 남조선 각곳에 이른바 《즉결재판소》라는것을 차려놓고 오가는 무고한 주민들을 닥치는대로 마구 잡아다 살인재판에 넘겼으며 《비밀령장》을 만들어내여 수많은 남조선혁명가들과 애국적인민들을 비밀리에 처형학살하는 범죄적인 파쑈만행을 감행하였다.

놈들의 파쑈폭압이 얼마나 포악했는가 하는것은 이해 첫 다섯달동안에 《유신저해사범》으로 단속된 사람이 7만 7천여명이며 그 가운데서 1만 2천 400여명이 여러가지 가혹한 형벌을 받았다는것과 이 한해동안에 파쑈적재판놀음에 끌어낸 사람들의 수가 1만 3천 880명이나 되였다는 사실이 보여준다.

포악하고 공개적인 탄압책동과 함께 박정희괴뢰도당은 음흉하고 교활한 회유기만책동을 감행하였다.

남조선에서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내외인민들의 비난과 항의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놈들은 파쑈적폭압을 완화한듯이 가장하기 위하여 7월에 림시괴뢰국회에서 《시국에 관한 건의안》이란것을 채택하고 그에 따라 《긴급조치위반》으로 갇혀있는 일부 민주인사들에 대한 석방놀음을 벌렸다.

또한 민주인사들의 옥중투쟁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가족들의 투쟁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민주구국사건》관련자들을 지방감옥으로 각각 분산시켰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인민들의 투쟁대렬을 안으로부터 와해하고 분산약화시키기 위하여 특히 학생투쟁의 핵심들을 부당한 구실을 붙여 학교에서 내쫓는 교활한 책동을 벌렸다.

청년학생들에 대한 탄압

박정희괴뢰도당은 청년학생들의 애국적진출을 막아보려고 학생투쟁의 핵심들을 부당한 구실을 붙여 학교에서 내쫓고 그들의 정의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1977년에 들어오면서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들에서 수천명의 대학생들에게 부당한 처벌을 가해오던 놈들은 2월에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서울과 지방의 6개대학에서 거의 1천 200여명의 대학생들을 무더기로 내쫓거나 처벌하는 파쑈적폭압소동을 벌렸다.

박정희괴뢰도당이 8월까지만도 《성적이 낮다》는 구실밑에 학교에서 내쫓거나 처벌한 학생수는 4천 500명에 이르렀다.

특히 4. 19를 계기로 놈들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비롯한 많은 대학을 강제휴교상태에 밀어넣고 학생들의 등교와 초보적인 소조활동마저 금지시켰으며 진보적인 학생들을 잡아가두고 가혹하게 처형하였다.

3월 28일 박정희파쑈무리들은 《민주구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교내시위행진을 벌리던 600여명의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수많은 기동경찰을 동원하여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끌어간 여러명의 학생들을 심문하였으며 학원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소동을 벌렸다.

4월 7일에는 박정희괴뢰도당이 정권에서 물러날것을 요구하는 《고난의 선언》을 발표하고 투쟁을 벌린 《한국신학대학》 학생들과 교수들을 150여명의 무장경찰을 발동하여 총칼로 탄압하고 끌어간 13명의 애국적학생들가운데서 5명의 학생에게 중형을 들씌웠다.

4월 11일에도 놈들은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시위투쟁을 벌리려던 공파대학 학생들과 리화녀자대

학교 학생들을 마구 탄압하고 그들을 닥치는대로 붙들어갔다. 4월 12일에는 대학운동장에 모여 《현정권의 총퇴진》과 《민주주의의 회복》 등 13개항목의 결의가 담겨진 《4월선언》이라고 표제를 단 삐라를 뿌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생들의 투쟁을 탄압하고 학생들을 감옥으로 끌어갔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해 《유신체제》 조작 5년이 되는 날을 앞두고 《유신》 파쑈독재체제를 반대하여 일떠선 청년학생들에 대한 일대 탄압선풍을 일으켰다.

10월 7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반 《정부》투쟁에 질겁한 박정희괴뢰도당은 서울대학교구내에 300여명의 무장경찰들을 출동시켜 250여명의 학생들을 잡아가고 60여명의 학생들을 퇴학 및 정학처분하였으며 10개의 단과대학과 대학원에 《무기한휴교령》을 내리고 도서관을 비롯한 구내시설을 닫아매는 횡포를 감행하였다.

11월 11일에 놈들은 이 대학교구내와 그 주변에 1천여명의 괴뢰기동경찰을 내몰아 민주주의적권리를 주장하는 학생들에게 최루탄을 쏘아대고 곤봉을 휘두르며 80명의 학생들을 잡아가는 폭압소동을 벌렸다.

10월 12일에는 연세대학교구내에, 11월 12일에는 서강대학교구내에, 11월 14일에는 고려대학교구내에 수백명의 괴뢰경찰들을 들이밀어 《유신》독재밑에서 더이상 살기를 원하지 않으며 학원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진보적학생들을 마구 잡아갔으며 그들을 가혹하게 처형하였다.

민주인사, 종교인, 지식인들에 대한 탄압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조국의 분렬을 반대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의 애국적 민주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을 수많이 잡아가두고 야수적으로 탄압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7권, 301페지)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 각계각층인민들속에서 《유신》 독재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가 무어지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국민련합》을 지향하는 《민주구국헌장》이 발표되여 서명운동이 벌어지자 이에 질겁하여 민주인사, 종교계, 언론계, 사회계의 이름있는 인사들을 마구 잡아가두는 폭압선풍을 일으켰다.

박정희파쑈무리들은 4월 4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100여명의 종교인들이 모임을 가지고 인권억압을 규탄하며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의 회복, 잡아가둔 사람들의 석방 등을 요구하여 결의문을 발표하였다하여 그들을 묶어가는 행위를 감행하였다.

4월 13일부터는 수많은 무장경찰들을 내몰아 서울과 지방 각지에서 《민주구국헌장》 발기인들과 서명자들을 닥치는대로 잡아가두었다.

파쑈무리들은 또한 남조선의 기독교교회협의회의 한 사무소를 불의에 들이치고 직원들을 잡아가며 회의록과 자료, 서명자명단 등을 빼앗는 파쑈적만행을 저질렀다.

종교인들을 박해하는 한편 놈들은 무슨 《다과회》 니, 《협의회》 니 하는것을 벌려놓고 종교인들을 꾀여 날로 높아가는 반독재기운을 막아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저들의 범죄적죄행이 여론화되는것을 막기 위하여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량심적인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다.

4월 박정희괴뢰도당은 파쑈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애국적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의 투쟁에 합류하였다하여 량심적인 기자언론인들을 부당하게 체포하였으며 또한 《동아일보》 사원들을 비롯한 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의 관계자 50여명을 심문하고 수많은 언론인들을 《령장》 없이 잡아갔으며 언론기관에서 내쫓았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글을 실었다하여 월간잡지 《대화》 10월호를 팔지못하게 하고 이 잡지의 편집장과 필자들에 대하여 그 무슨 《조사》 놀음을 벌리고 잡아다 박해하였으며 2월 21일에는 《민주통일당》 기관지 편집장을 몰래 붙들어갔다.

또한 놈들은 반파쑈언론활동을 하였다하여 기독교계의 월간잡지 《씨알의 소리》 의 편집자 2명과 이전 한양대학교 교수, 이전 서울대학교 교수들을 체포하였으며 이밖에도 《신민당야당성회복투쟁동지회》 대변인이 반 《정부》적 발언을 하였다하여 《긴급조치》에 걸어 그를 체포하는 만행을 벌렸다.

다음날에는 언론인과 종교인을 비롯한 10명의 각계각층 인민들을 그 무슨 《음모선동에 편승》 하였다는 구실밑에 잡아가두었다.

한편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미 잡아가둔 민주인사들과 언론인, 종교인, 문학인들에게 터무니없는 죄명을 씌워 형벌을 가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3월 22일 박정희파쑈무리들은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구국선언사건》 관련자 18명에 대한 형벌을 마지막으로 확정하였으며 4월 2일에는 《제2민주구국선언사건》 관련자 4명에게 형벌을 가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문학인들의 작품이 청년들과 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북돋아주는

고무적힘으로 되는것이 두려워 량심적인 문학인들에 대해서까지 탄압의 검은 손을 뻗쳤다.

시 《민중의 소리》의 필자인 장기표를 잡아가두고 오래동안 박해해오던 괴뢰들은 9월 3일 《반공법》과 《긴급조치위반》 등의 《죄명》으로 그에게 징역 5년을 들씌웠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유신》 파쑈독재를 폭로비판한 장편시 《노예수첩》 의 필자인 량성우를 체포구금하고 그의 문예작품에 《국가모욕죄》 라는 딱지를 붙여 8월 24일 첫공판놀음을 벌렸다.

이밖에도 놈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테로통치를 단죄한 풍자시 《10장의 력사연구》 의 작가를 체포하여 3년 징역을 주었으며 시인 김지하를 서울형무소 독감방에 넣고 몇년째 고통을 주고 있다.

박정희파쑈무리들은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에 대한 재일교포들의 련대성과 지원을 막기 위하여 《자유통일협의회사건》 이라는 모략사건을 날조하고 3월에 교포실업가 강우규를 《교포투자기업체의 임원으로 가장》 한 《간첩》 으로 몰아 체포하여 야수적인 박해를 가해오던끝에 11월 3일 《국가보안법》 에 걸어 사형을 선고하였다.

지어 파쑈교형리들은 내외로부터 규탄받고있는 제놈들의 야만적인 인권유린행위의 정체를 가리워보려고 발악하던 나머지 5월에는 《중앙정보부》 특무들을 발동하여 김포비행장에서 남조선에 왔다가 자기의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가는 국제대사령 일본지부 부리사장의 몸과 휴대품을 뒤지고 그가 가지고있던 기록장과 남조선 감방에 갇혀있는 정치범의 호소문 등 서류를 빼앗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무너져가는 《유신》 독재체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식민지체계가 전면적으로 무너지고있는 오늘 남조선에서도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결코 무사할수 없습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문헌집》 , 11페지)

1977년에 《유신》 파쑈독재는 헤여날수 없는 심각한 위기에 빠져들어갔다.

안팎으로 고립됨에 따라 괴뢰통치배들의 불안과 동요는 커졌으며 놈들의 멸망과정은 더욱 촉진되였다.

우선 괴뢰중앙정보부를 비롯한 권력기구안의 특무들과 통치배들속에서 박정희역도를 반대하여 해외에 망명하는 현상이 늘어났다.

남조선괴뢰중앙정보부 대미공작의 제2책임자이며 주미괴뢰대사관에서 《참사관》 의 탈을 쓰고 있던 김상근이 1976년 11월에 망명한데 이어 1977년에는 괴뢰중앙정보부 뉴욕지부 책임자이며 뉴욕괴뢰령사인 손호영이 9월 16일 박정희역도의 소환명령을 뿌리치고 미국에 망명하였다.

10월에는 괴뢰중앙정보부 특무인 유엔주재 괴뢰대표부 《참사관》 리영희가 또한 박정희역도에게 더는 복무하기를 거절하고 미국에 망명함으로써 놈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가하였다.

이에 앞서 6월에는 괴뢰무역진흥공사 이스딴불(토이기)사무소 책임자 윤창오가, 3월에는 카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괴뢰무역관장 리상록이 남조선에 돌아오라는 명령을 뿌리치고 카나다에 망명하였다.

해외공관원들의 망명사태가 일어나는 가운데 11월에는 전괴뢰외무부장관 최덕신이 미국에 망명하였다.

해외망명자들의 대부분이 괴뢰중앙정보부 특무들이라는 사실은 정보모략과 테로폭압을 업으로 삼고있는 괴뢰지배층안의 혼란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것을 그대로 말해주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불안은 해외에 망명한자들이 놈들의 대미뢰물비행과 김대중랍치사건 등의 진상을 폭로하고 《유신》 파쑈독재를 반대하여 싸울 결의를 다짐으로써 더욱 커졌다.

전괴뢰외무부장관 최덕신은 11월 18일 도꾜에서 성명을 발표하여 박정희독재 《정권》 을 때려부실것을 호소하고 자신은 《민주민족통일해외한국인련합》의 한 성원으로서 모든 힘을 다하여 《유신》파쑈체제를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합류할것을 선언하였다.

전 괴뢰중앙정보부장 김형욱도 7월에 발표한 《내외국민에게 드리는 특별성명》 에서 박정희역적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박정희역적이 《독재를 포기하지 않는한 그를 물러나게 하는 모든 운동에 가담》하겠다고 하였다.

이해 괴뢰지배층안에서는 저들의 통치가 오래갈수 없다는데 대하여 불안을 느끼고 해외에 재산을 빼돌리며 괴뢰들속에서 사표를 내고 물러나며 괴뢰공무원들속에서 《명령》, 《지시》를 거역하거나 그 집행을 게을리하는 현상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또한 권력층에 아부해온 상층인물들과 돈있는 놈들속에서도 권력층가까이에서 떨어져나와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는 자들의 수가 늘어나고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특히 1975년 후 남조선에서 하나의 추세로 되였다.

《이민》, 려행 등의 이름밑에 다른 나라로 빠져나갔거나 빠져나가려고 려권을 준비한 자들이 1977년현재 1천수백명에 달한다고 괴뢰들자신이 발표하고 아우성치고있는것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괴뢰지배층안의 혼란은 괴뢰들이 서로 제놈들이 저지른 범죄행위의 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물고 뜯으면서 발버둥치는데서도 나타났다.

박정희역적놈은 제놈들의 인권탄압책동과 대미, 대일 뢰물비행에 대한 내외의 규탄과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1976년 12월 괴뢰중앙정보부장으로 있던 신직수놈을 파면하여 연금상태에 밀어넣고 제놈은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하였다.

그리고 박정희역적놈은 그것으로써도 마음이 놓이지않아 제놈의 죄행이 심복들의 입을 통하여 더 드러날것이 두려워 이해 8월에는 제놈의 지시밑에 미국에서 뢰물작전을 직접 감행해오던 박동선놈을 끌어다 그의 입을 틀어막기 위하여 미쳐날뛰였다.

또한 김대중랍치사건에서 한몫한 놈들도 망명하지 못하도록 내리누르면서 서울로 끌어들이거나 뢰물협의로 잡아가두었다.

박정희역적놈은 미국에 있는 이전 남조선괴뢰중앙정보부장 김형욱에 대해서도 그의 증언을 미리 막기 위하여 제놈이 직접 앞장서서 설득공작으로 편지질을 하면서 비렬한 책동을 벌렸다. 이러한 목적이 틀어지자 6월에 있은 미국회에서의 증언을 앞두고 이 역적놈은 그가 미국회에서 증언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며 증언하면 랍치하거나 암살해치우라는 살인지령까지 주는 악랄한 책동을 벌렸다.

이와 함께 박정희괴뢰도당은 괴뢰중앙정보부와 괴뢰군을 비롯한 폭압기구들을 정비보강하고 그들속에서 제놈들을 반대하는 사소한 움직임도 미연에 막아보려고 2중 3중의 감시를 붙이고 탄압을 강화하였다.

놈들은 괴뢰군속에서 반《정부》움직임을 말살하기 위하여 1976년에 체포한 괴뢰군예비역중장이였으며 괴뢰국회의원인 강문봉을 심문하던끝에 1977년에는 그에게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5년이라는 형벌을 내렸다.

지어 놈들은 《공무원대숙청작업》이라는것을 벌려놓고 1977년 1월부터 9월말까지의 기간에 3만 2천 460여명의 《공무원》을 부정행위를 했다는 구실밑에 내쫓거나 직위를 떨어뜨리면서 제놈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내외여론을 막고 통치위기를 수습하려고 책동하였다.

한편 놈들은 해외공무원선발규칙과 《해외이주법》까지 뜯어고치면서 해외에 빠져나가는 현상을 막겠다고 소동을 피웠다.

이것은 박정희괴뢰도당이 내외적으로 고립됨에 따라 더욱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있으며 놈들속에서 모순과 갈등이 격화되고 《유신》독재가 걷잡을수 없는 위기에 빠져들어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남조선괴뢰군안의 반전, 반괴뢰기운

남조선괴뢰군 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 속에서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반대하며 치욕스러운 괴뢰군살이에서 벗어나려는 투쟁기세가 높아졌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에 대한 끝없는 흠모와 존경심,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공화국북반부의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동경심이 괴뢰군장병들속에서 높아가고있는 사실에서 알수 있다. 1977년에 들어와 여러명의 괴뢰군 군인들과 군속들이 새 생활의 길을 찾아 공화국북반부로 의거하여온 사실은 그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10월 20일 괴뢰군 제20사단 60련대 1대대 대대장인 중령 류운학과 대대무전수인 일등병 오봉주가, 이에 앞서 10월 12일에는 경상남도 진해에 있는 남조선괴뢰군 수송기지창에 소속되여있는 군속들인 최종검사관 리장수와 기체수리공 조병욱이 비행기를 타고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 안겨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할 일념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공화국북반부로 의거해왔다.

그들은 한결같이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인 민족영구분렬책동과 전쟁소동, 파쑈폭압, 치욕스러운 괴뢰군살이에 불만을 품고 단호히 의거해왔다고 말하였다.

괴뢰군 군속들과 대대장이 공화국북반부로 의거해왔다는 소식을 들은 경기도 인천시 가까이에 주둔하고있는 괴뢰륙군부대의 군속으로 일하는 한 로동자는 《오늘도 우리 민심은 일편단심 김일성장군님만을 따르며 우러르고있다.

진해의 군속 2명이 비행기를 몰고 또 김일성장군님의 품으로 찾아간것은 매우 장한 일이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남조선강원도지방에 주둔하고있는 한 괴뢰군부대의 병사들은 《정말 그들이 부럽다. 그처럼 오매에도 그리며 우러르던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안겨 만복을 누리게 되였으니 그들이야말로 평생의 소원을 다 이룩한 셈이다》, 《월북한 그들의 마음이자 우리 모두의 심정이다》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괴뢰군 군속들과 병사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기려는 열망이 얼마나 높아가고있는가를 보여주는 몇가지 실례에 지나지 않는다.

괴뢰군장병들이 괴뢰군살이를 거부하고있는것은 그들이 전쟁미치광이들이 강요하는 군사훈련을 집단적으로 반대하거나 공개적으로 비난하는데서 나타났다.

괴뢰륙군의 한 부대 병사들은 이해 괴뢰들이 《집중훈련기간》이라는것을 정하고 강요하는 훈련을 집단적으로 거부하였으며 군사분계선 가까이에 배치된 괴뢰군의 한 공병려단에서도 많은 병사들이 《무슨 훈련이 그렇게 잦은가》고 하면서 전쟁훈련을 완강히 반대해나섰다.

괴뢰군병사들속에서는 상관놈들이 강요하는 《총검술훈련》에 대하여 《육박전을 할때까지 살아남기나 하겠는지, 쓸데없는 놀음에 공연히 정력만 소모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공공연히 반대하는 현상도 늘어났다.

또한 괴뢰군병사들속에서는 화학전, 세균전, 원자전 훈련을 통털어 말하는 이른바 《화생방훈련》을 가리켜 《눈물어린 화생방》이라고 부르며 《각개전투훈련》을 《한많은 각개전투》라고 비난하며 《범죄적인 전쟁훈련을 받을수 없다》는 등의 반전염군사상을 반영하는 목소리가 자주 울려나왔다.

괴뢰군병사들은 치욕스러운 괴뢰군살이에 대하여 《백가지가 다 괴로운것뿐이다》라고 하면서《이대로 참다가는 병신이 되고 말겠다》고 울분을 토하였으며 괴뢰군중하층장교들속에서도 괴뢰군살이에 대한 불평불만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는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였다.

괴뢰군의 한 대대장은 자기들의 처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매일같이 과중한 작업과 배고픔, 고된 훈련과 기합을 참지 못하여 도망치는 사병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이 대대장에게 돌아온다. 도망가려는 사병들의 감시를 위해 밤이면 잠을 자지 못하고 순찰을 하며 신경을 써보았으나 막을수가 없다. 이제는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생각하니 도리여 마음이 편하다.

근본적으로 썩은 정치가 군기를 바로 잡을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남조선괴뢰군 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의 높아가는 반전염군기세가 점차 반 《정부》적경향으로 기울어져가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이다.

상하부간의 알륵과 모순으로 가득찬 괴뢰군안에서는 또한 병사들이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고 반항하며 지어 악질적인 상관놈을 처단하는 투쟁도 자주 일어났다.

괴뢰군안에서는 치욕스러운 괴뢰군살이를 박차고 부대를 뛰쳐나가는 병사들의 수가 늘어났다.

7월 4일 새벽 제주도 남제주군 성산면에서 한 병사는 초소근무에 내몰렸다가 무기와 탄알을 가지고 자취를 감추었으며 6월 19일에는 군사분계선 가까운 지역에 배치된 한 괴뢰군부대의 2명의 병사가 부대에서 뛰쳐나갔다.

6월 4일 밤에는 경상남도 지역에 주둔하고있는 괴뢰군부대의 한 병사가 병영에서 뛰쳐나와 경상남도 사천군 사천읍에서 달려드는 괴뢰경찰 두놈을 처단하고 자취를 감추었다.

또한 5월중순에는 서울가까이에 주둔하고있는 괴뢰륙군부대의 하사가 무기를 가지고 부대를 뛰쳐나갔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곳에서도 계속 나타났는데 1977년 4월 한달동안에 전라남도 지방에서 부대를 뛰쳐나갔다가 놈들에게 잡힌 병사들의 수만도 160여명이나 되였다한다.

괴뢰군병사들과 중하층장교들속에서는 박정희괴뢰도당과 정면으로 맞서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5월중순 괴뢰륙군 제6사단안에서는 《기합도 싫고 훈련도 싫고 박정권도 싫다》, 《동족에게 겨눈 총 청와대에 돌리자》라고 쓴 《락서》사건이 일어나 큰 소동이 벌어졌다.

괴뢰당국이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는 이러한 삐라, 투서, 《락서》사건은 한개 사단에서 한달평균 200여건에 달하였다한다.

5월 군사분계선 가까이에 있는 괴뢰군의 한 사단에서 일어난 삐라, 《락서》, 투서 사건만 하여도 250여건에 달하였다.

이것은 박정희괴뢰도당이 《정권》유지의 기둥으로 삼아온 괴뢰군안에서조차 얼마나 고립배격을 당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보여준다.

국제적고립의 심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남조선반동들의 파쑈적폭압소동을 규탄하며 체포투옥된 남조선청년학생들과 각계층 인사들을 구원하기 위한 운동이 널리 벌어지고있습니다. 미국, 일본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 출판물들과 지어는 자본주의나라 통치배들까지도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남조선반동들의 파쑈화책동에 대하여 항의규탄하고있습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110페지)

1977년에 박정희괴뢰도당은 국제적으로도 더욱 고립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인민들에게 가한 야수적인 파쑈폭압과 피비린내나는 살륙만행, 범죄적인 새 전쟁 도발책동과 《두개 조선》조작책동으로 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평화애호인민들과 정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인사들의 치솟는 증오와 규탄을 받았다.

1977년 2월 벨지끄의 수도 브류쎌에서 말가슈, 프랑스, 애급, 노르웨이, 일본, 카나다 등 68개나

라의 당 및 정부 대표, 사회단체대표들의 참가밑에 진행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대회》와 4월 11일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서 진행된 《쁠럭불가담국가조정위원회 회의》, 6월 25일과 26일에 걸쳐 알제리의 수도에서 진행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제1차회의》를 비롯한 많은 국제회의들과 국제기구들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인권유린행위와 범죄적인 전쟁정책과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견결히 규탄하였다. 특히 이해 4월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서독 등 많은 나라들의 정계, 학계, 종교계, 사회계의 이름있는 인사들과 반전평화단체 대표들이 미국 뉴욕에 모여 박정희괴뢰도당의 야만적인 인민탄압만행을 폭로규탄하고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철거를 포함한 《미국의 대한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요구하는 국제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회의들은 성명, 선언, 결의들을 채택하여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인권탄압에 날뛰는 박정희괴뢰도당을 국제무대에서 고립시키며 미, 일 정부가 놈들에 대한 군사, 경제적 《원조》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지원을 주지말며 놈들을 전쟁책동과 인민탄압에로 부추기는 일을 하지 말것을 호소하고 조선의 분렬을 고정화, 영구화하려는 책동을 규탄하였다.

또한 이해 박정희괴뢰도당의 인권탄압을 반대하는 투쟁단체들이 무어져 박정희파쑈악당을 반대하는 운동이 국제적범위에서 군중적운동으로 벌어졌다.

8월에 일본, 미국, 서독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있는 인사 500명이 도꾜에 모여 《한국민주화국제련대위원회》를 뭇고 남조선의 민주화투쟁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련대성운동을 벌렸다.

1976년 10월에 무어진 남조선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법률가위원회 제2차회의는 11월 6일 《남조선에서의 탄압에 관한 백서》를 발표하여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인 폭압만행을 낱낱이 까밝혔다.

또한 일본에 있는 미국병사 30여명과 미국의 여러 단체들과 조직들이 미국대통령과 미국회에 미국이 인권을 유린하는 남조선괴뢰도당에 대한 《원조》를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는 편지와 공개서한을 들이댐으로써 박정희괴뢰도당을 더욱 궁지에 몰아넣었다.

이해 아세아,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에서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위원회들이 무어져 그 활동을 강화하였다.

쁠럭불가담나라 정부들도 박정희괴뢰도당의 《불가침조약》 체결이요, 《교차승인》, 《유엔동시가입》이요 하는 분렬주의적책동을 단호히 배격하고 우리 공화국정부의 자주적평화통일방안을 지지하였다.

이리하여 쁠럭불가담나라들축에 끼여들어 지지를 받으며 그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으려던 놈들의 책동은 가는곳마다에서 배격받았다.

지어 탄자니아는 6월 루테르파교회신자세계련맹회 제6차회의에 참가하려던 남조선괴뢰 《대표》의 입국을 거절하였으며 이라크는 5월 바그다드에서 열린 제8차아세아력기선수권대회에 남조선괴뢰선수들이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아르헨띠나에 기여들었던 괴뢰국회의원들이 이 나라에서 몸수색까지 당하는 랭대를 받은것 등은 박정희괴뢰도당의 국제적고립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의 국제적고립은 특히 대미뢰물비행과 김대중랍치사건, 일본과 남조선과의 검은 유착관계 등의 진상이 폭로됨으로써 더욱 심화되였다.

6월 20일 미하원국제관계위원회 국제기구분과위원회 공개청문회에서 전남조선괴뢰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이 한 증언과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미하원륜리위원회에서 주미괴뢰대사관의 이전 《참사관》이며 괴뢰중앙정보부 미국지부의 두번째 인물이였던 김상근과 전 주미괴뢰 대사관의 공보관장 리재현을 비롯한 15명의 증언들을 통하여 그리고 11월 29일 괴뢰중앙정보부 뉴욕지부 책임자이며 뉴욕괴뢰령사인 손호영에게서 입수한 괴뢰중앙정보부의 《1976년대미공작계획서》 등이 공개되여 박정희괴뢰도당이 감행한 대미뢰물비행과 《김대중랍치사건》의 전모가 새롭게 밝혀졌으며 이로 인하여 박정희괴뢰도당은 세상사람들로부터 더욱 저주를 받게 되였다.

또한 8월과 9월에 미사법당국은 괴뢰들의 대미《뢰물작전》의 하수인인 박동선과 김한조를 련이어 기소하였다.

극도의 궁지에 빠진 박정희괴뢰도당은 8월 체포투옥한 일부 《민주구국선언》 관련자들을 《석방》하는 연극을 벌려놓고 그 어떤 정치적변화를 보여주려고 어리석게 시도하였으나 그것은 오히려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규탄을 받았다.

이리하여 이해에도 국제적고립에서 벗어나보려던 박정희괴뢰도당의 책동은 파탄되고 놈들은 외토리 신세의 처지에 한걸음 더 깊이 빠져들어갔다.

남조선경제의 파국적위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의 강점밑에 있는 남조선경제는 걷잡을수 없는 파국상태에 놓여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400페지)

1977년에 남조선경제의 파국적위기는 더욱 심화

되였다.

남조선에서의 경제위기는 이해에 들어오면서 박정희괴뢰도당이 《미군철수》에 따르는 《자주국방체제의 확립》을 구실로 삼아 경제의 군사화를 발악적으로 다그침으로써 더욱 심각해졌다.

놈들은 《국력배양》의 구호밑에 더욱더 많은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군수산업을 비롯한 전쟁수행과 직접 관련되는 중화학공업과 군사적목적을 위한 철도, 고속도로, 항만 등의 신설 및 확장 공사를 벌려놓았다.

박정희괴뢰도당은 《투융자》의 거의 전부와 원료 및 자재의 거의 모두를 군수산업에 밀어넣음으로써 남조선의 민족산업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난에 부딪쳐 전면적으로 파산되였다.

전례없는 규모의 전쟁예산을 짜놓고 세입의 93.9%를 남조선인민들로부터 짜내여 메우기로 한 괴뢰들은 1971년의 5배나 되는 세금을 남조선인민들과 중소기업가들에게 들씌웠으며 7월 1일부터는 반동적인 《부가가치세제》를 실시하면서 그들에게 그전의 4~20배나 되는 세금을 물리였다.

또한 놈들은 중소기업가들에게 무거운 《방위세》부담을 들씌웠으며 남조선인민들과 중소기업가들로부터 짜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정부자금》을 군수산업과 수출산업을 비롯한 매판자본가들에게 다 돌려주고 중소기업에는 거의나 대주지 않았다.

이리하여 남조선의 중소기업체는 자금, 원료 등을 해결하지 못하여 80%이상이 파산지경에 빠졌다.

이해 1월부터 4월까지만도 남조선의 여러지방에서는 1천 17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괴뢰들이 내려먹이는 세금에 눌려 조업시간을 줄이였으며 300여개가 문을 닫았다.

또한 이 해에 들어와 8월말까지에 매판기업에 눌려 자금을 얻지못하였거나 시장을 잃고 파산 또는 일을 멈춘 중소기업체는 800여개에 이르렀는데 9월에 들어와서는 경상북도 대구지방에서 440여개 업체가 문을 닫았다. 특히 대구지방의 중소뜨개공장가운데서 50%이상은 일을 멈추고있었으며 중소섬유공장들도 심한 경제위기에 빠져 이해 7월까지의 사이에 1만 5천여명의 로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밀려나갔다.

남조선동서남해안의 중소수산물가공업체들과 경상남도를 비롯한 여러 지방의 정미공장들은 거의 모두가 원료를 얻지 못하여 일을 멈추었고 7월에는 서울과 경기도지방에서 있은 큰물로 370여개의 업체가 타격을 받았다.

남조선경제는 또한 박정희괴뢰도당이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치면서 더욱더 매국적인 외세의존책동에 매여달림으로써 더욱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경제건설이란 구실밑에 남조선에 끌어들인 121억딸라가 넘는 외국자본과 700개의 독점기업체들은 전력, 세멘트, 금속, 기계, 화학, 섬유 및 식료 공업 등 경제의 모든 부문에 파고들어 80%이상을 틀어쥐였다.

외국기업체들은 괴뢰들의 《특별우대》, 낮은 로임에 의한 로동력의 착취, 원료의 략탈로 한해동안에만도 수억딸라의 리윤을 짜냈다. 이리하여 경제의 예속성은 심화되고 민족경제의 파탄은 더욱 촉진되였다.

남조선경제는 또한 괴뢰들의 무분별한 외자도입책동에 의하여 막대한 대외빚에 짓눌려있는데 괴뢰들이 외국에 진 빚은 100억딸라를 넘고있다.

농촌경리도 더욱 파탄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해 년초부터 마치도 농촌경리에 대하여 그 무슨 《관심》이라도 있는듯이 《농어촌개발》이요 뭐요하면서 제놈들의 반인민적인 농업정책을 가리워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그러나 미제의 식민지예속화정책과 새 전쟁준비를 다그치고있는 괴뢰도당의 경제의 군사화책동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이해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 토대는 한층 더 파탄되고 농업생산은 더욱 줄어들었다.

경지면적은 1968년부터 1976년 사이에 8만 558정보나 줄어들었는데 1977년에 놈들의 군사시설확장과 고속도로와 공업단지의 건설, 관광지와 골프장의 확장책동으로 또다시 경지면적이 수많이 줄어들었다.

매판자본가놈들이 묵여두고있는 농경지만 하여도 9천만평에 이르고있었다. 뿐만아니라 이해 큰물피해로 못쓰게 된 논밭도 수천정보나 되는데 8월 12일부터 15일 사이에 남조선강원도를 비롯한 중부지방에 내린 무더기비로 피해를 입은 농경지만도 1천여정보에 달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이 치산치수와 수리시설을 하지 않아 강하천의 80%이상에 뚝시설이 전혀 없거나 마사진채로 있으며 큰물피해를 막을수 없는곳은 1천수백군데를 헤아리고있다.

그리고 300만정보의 산림이 벌거숭이 되였으며 전체 논면적의 70%가 관개시설이 되여있지 않거나 하늘을 쳐다보고 농사하는 땅이다.

수리시설의 한심한 형편과 한랭전선의 영향에 의한 혹심한 가물피해, 큰물, 병충해 등 심한 자연재해로 알곡생산은 전례없이 줄어들었다.

남조선강원도에서는 보리를 심은 전체 면적의 70%, 전라남도에서는 72%가 피해를 입었으며 경상북도에서는 수확이 예정했던것보다 59%나 줄어들었다.

특히 남조선강원도 원주와 양구, 충청북도 충주와 전라남도 무안, 경상북도 포항과 경상남도 김해 등 많은 지방에서는 보리를 걷어들이지 못하였다.

벼농사도 흉년이 들었다.

괴뢰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6월말까지 전체 논면적의 30%에는 모내기를 하지 못했고

8월말현재 알려진 가물피해면적은 37만정보를 헤아렸다.

경기도일대와 서울, 경상북도와 전라북도, 충청북도를 비롯한 많은 지방들에서는 큰물로 심한 피해를 입었는데 7월에 서울의 일부 지역과 경기도지방을 휩쓴 큰물에 의해서만도 8천여정보에 심었던 농작물이 못쓰게 되였다.

여기에 병충해와 공해까지 겹쳐서 농사를 더욱 망치게 하였다.

8월중순현재 전해의 6배나 되는 62만 7천여정보의 논에 벌레가 끓여 피해를 입었다.

려천을 비롯한 전라남도의 5개 시, 군에서는 900여정보의 벼가 공해로 못쓰게 되였다. 이른봄부터 계속된 이러한 혹심한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하여 알곡생산은 줄어들었는데 괴뢰농수산부가 밝힌데 의하면 보리생산량은 1977년에 그 전해보다 110여만톤이나 줄었으며 벼농사에서도 수십만톤의 손실을 보았다.

위기에 부닥친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러한 식량사정을 해결해보려고 300만톤의 알곡수입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한편 《매상》의 이름밑에 1천 150만석의 량곡을 농민들로부터 생산비도 안되는 헐값으로 빼앗아갔다.

공업과 농업의 파탄은 상업류통부문을 비롯한 남조선경제전반을 파국과 혼란속에 몰아넣고 인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였다.

이해 통화량은 40%이상 불어나고 물건값은 평균 20~30%까지 뛰여올랐다.

외래독점자본의 남조선침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국자본을 끌어들이는것은 예속의 길이며 망국의 길입니다. 그것은 파괴된 남조선경제를 더욱더 헤여나올수 없는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며 남조선을 제국주의의 예속에로 더욱더 깊이 밀어넣을뿐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405~406페지)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적인 《외자도입》 책동으로 남조선에는 외래독점자본이 쓸어들어 식민지적착취와 략탈을 강화하고있다.

략탈적인 외래독점자본은 특히 최근년간 박정희괴뢰도당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전쟁준비책동이 로골화됨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고있다.

1970년에 남조선에 들어온 외래독점자본은 1967년의 2.3배가 넘는 5억 4천 800만딸라에 이르렀으며 1975년에는 14억 5천 500만딸라나 끌어들였다. 그리하여 1976년말현재 박정희괴뢰도당이 끌어들인 외래독점자본총액은 121억 2천 780만딸라에 이르렀다.

《차관》과 《직접투자》의 형태로 남조선에 들어온 외래독점자본에서 많은 부분이 《차관》(111억 3천 580만딸라)이며 그 가운데서도 《상업차관》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상업차관》에서는 미국독점자본이 37%로서 첫자리를 차지하며 그밖에 일본독점자본이 19.6%, 영국독점자본이 10.8%, 프랑스독점자본이 10%, 서독독점자본이 6.5%를 차지한다.

《직접투자》의 형태로 남조선에 들어온 외래독점자본총액에서는 일본독점자본이 64.1%, 미국독점자본이 21.6%, 기타 나라들의것이 모두 14.3%이다.

남조선에 들어온 외래독점자본총액에서 미국과 일본의 독점자본이 압도적비중을 차지한것은 남조선이 미제와 일본의 독점자본에 의한 식민지적략탈의 주되는 대상으로, 2중의 경제적식민지로 굴러떨어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 들어온 외래독점자본은 그 규모가 클뿐아니라 남조선에서 심해지는 정치경제위기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외자우대정책을 좋은 기회로 삼고 경제의 중요부문들에 파고들어 그를 틀어쥐고 마음대로 휘두르고있다.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외국독점자본은 남조선에서 전력공업의 80%, 제철 및 금속공업의 99%, 정유공업의 100%, 기계 및 부속품제조업의 96%, 섬유 및 잡화의 84%를 지배하고있다. 이밖에 외국독점체들은 남조선에 10여개의 은행을 차려놓고 돈을 꾸어주면서 기업활동에 직접 간섭하고있다.

특히 미국독점자본은 남조선의 정유공업부문에 들어가 석유공급을 독점함으로써 연료, 동력을 틀어쥐고있으며 나아가서 남조선경제전반을 철저히 예속시키고있다.

일본독점자본은 남조선의 모든 부문에 들어가있다. 남조선의 한 출판물은 다음과 같이 폭로하였다.

《어린이 놀이감으로부터 자동차조립에 이르기까지 오늘 일본자본이 침투해있지 않는 부문은 거의 없다.》

남조선에 들어간 일본독점자본은 제조업부문에 80%이상이 돌려지고있으며 사회간접부문들에 18.5%, 농림 및 수산부문에 1.3%가 들어가있다.

이것은 남조선경제가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외래독점자본의 손안에 들어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외래독점자본은 오늘 남조선에서 경제의 군사화를 다그치는 주되는 경제적지레대로 되고있다. 이것은 남조선에 들어온 외국자본의 70%이상이 군사경제력을 키우기 위한 부문들에 집중되고있는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외래독점체들은 또한 직접투자의 패쪽을 메고 들어와 남조선에 기업을 설치하고 수많은 로동자

들을 고용하고있는데 그들은 생산을 조직하고 생산한 물건을 파는데 이르기까지 모든 기업활동을 틀어쥐고 로동자들을 마음대로 착취하며 독점가격을 설정하는 등으로 높은 리윤을 짜내고있다.

외국독점기업체들에 고용된 남조선로동자들의 로임은 그 독점체들이 속해있는 본국로동자들의 낮은 임금의 4분의 1, 지어 수십분의 1밖에 안되는 반면에 생산되는 제품은 자본주의국제시장가격보다 더 비싸게 남조선에서 팔리고있다.

낮은 임금과 독점가격으로 외래독점자본은 1976년 상반년동안에만도 2억 4천 300만딸라의 리윤을 짜냈다.

이리하여 남조선에 침투한 외래독점자본은 남조선로동자들의 피땀을 빨아내며 그들을 빈궁에로 몰아넣는 수단으로 되고있다.

외래독점자본이 쓸어들어옴에 따라 남조선경제는 더욱 철저한 예속경제로 굴러떨어지고 인민들의 생활은 날로 어려워지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의 비참한 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은 말할수 없이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하여》, 209페지)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정책과 략탈만행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은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다.

무엇보다 놈들의 가혹한 세금수탈은 궁지에 빠진 남조선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악화시키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전쟁준비를 다그치며 파쑈통치의 유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민들에 대한 세금수탈을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놈들은 1977년에 국방비만도 2천 200여억원이나 불구어 꾸며낸 《팽창예산》에서 세입의 93.9%를 조세수입으로 메우기 위하여 2조 7천 873억 1천여만원의 세금을 인민들에게 들씌웠다.

이 방대한 규모의 세금을 인민들에게서 빼앗아내려고 놈들은 1976년말부터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18개에 이르는 《세법》들을 뜯어고치거나 새로 꾸며내여 세률을 높이고 새로운 이름의 세금을 내오는 등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그리하여 인구 한 사람에 평균 7만 5천여원, 세대별로 보면 40만원이라는 많은 세금이 들씌워졌는데 이것은 1976년보다 한사람당 1만 4천원이나 더 많은것이였다. 남조선인민들에게 들씌워진 이 세금은 사실상 최저생계비의 3분의 1~6분의 1도 못되는 낮은 임금을 받고있는 로동자들이 먹지도 쓰지도 않고 20달동안 번것을 다 털어도 못다 물 무거운 부담으로 되고있다.

세금수탈에 겹쳐 물건값이 계속 올라 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1974~1975년까지만도 이른바 《가격현실화》, 《내자동원》이라는 구실밑에 70차례에 걸쳐 물건값과 료금을 끌어올렸다. 1976년에도 물건값이 전반적으로 올랐다. 그리하여 1976년까지 3년동안에 물건값은 2배이상으로 뛰여올랐다.

1977년에는 특히 인민생활에 절실한 쌀, 탄, 남새 등을 비롯한 200여가지의 물건값이 400%까지 올랐으며 철도료금은 17.3%, 체신료금은 평균 100%, 치료비는 최고 100% 더 올라가 인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물건값이 오름에 따라 생활난으로 하루 한두끼의 죽으로 끼니를 에우며 거리를 헤매는 사람들이 서울 판자집마을에서만도 200여만명에 이르고있다. 뿐아니라 서울시에서만도 하루 10여명씩 굶어죽는 참상이 빚어지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처럼 공공연한 강도적수탈방법을 통하여 인민들을 극도의 가난과 굶주림속에 몰아넣고있다.

남조선에서 로동자들의 생활처지만 보아도 비참하기 그지없다.

남조선로동자들은 생명도 보전하기 힘든 어려운 로동조건에서 가혹한 착취와 억압에 시달리고있다.

남조선로동자들이 험악한 로동조건에서 얼마나 가혹한 로동을 강요당하고있는가 하는것은 그들속에서 직업병이 심하게 나타나고 로동재해가 자주 일어나고있는데서 알수 있다.

괴뢰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여도 남조선로동자의 70%가 여러가지 직업병에 걸려있으며 그 가운데서 도금업체에서 일하는 로동자의 76%, 고무공장로동자의 71.5%~78.5%, 인쇄부문 로동자의 66.7%~71.7%, 화학공장로동자의 56%가 각각 직업병에 걸려있다. 또한 탄광, 광산부문 로동자들의 경우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있는데 해마다 중병에 걸리는 탄부들만도 500명 이상에 이르고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3~4배나 더 많은 수자라고 놈들 스스로가 인정하고있다.

또한 초보적인 로동안전시설이 되여있지 않아 1977년에 로동재해를 입은 로동자들의 수는 11만 8천 300여명이나 되였으며 그 가운데서 1천 160여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유신안보》의 구실밑에 로동자들에게 12~18시간, 지어 4~5일동안의 련속로동까지 강요하면서도 최저생계비의 3분의 1~6분의 1밖에 안되는 기아임금을 주고있다.

괴뢰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의정부시와 양주군, 고양군 등지에 있는 400개의 기업체들에 고용된 로동자들 거의 모두가 한달에 2만원이 되나마나한 임금을 받고있으며 성남시안의 기

업체들에서 일하는 로동자들의 92%가 3만원아래의 낮은 임금에 얽매여있다. 이것은 놈들이 인정하고있는 최저생계비의 6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놈들은 이 보잘것없는 기아임금마저 제때에 주지않고 미루거나 잘라먹음으로써 로동자들의 생활에 더욱 고통을 주고있다.

1977년말현재 160개업체에서 로동자들의 임금을 미루었거나 잘라먹은 액수는 11억 1천 600여만원에 달하였다.

이것은 로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이 얼마나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가하는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거로 된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농업정책과 략탈만행으로 농민들의 생활 역시 참혹한 상태에 빠져있다.

남조선농민들은 괴뢰도당과 그 비호를 받는 지주놈들에게 갖가지 이름으로 수확물을 빼앗기고 초가을부터 먹을것이 없어 아우성치고있다.

1977년에 경상남도 거창군에서는 초가을부터 농민의 70～80%가 식량이 떨어져 몸부림쳤고 어떤 마을은 95%이상의 농가가 식량이 떨어져 고통을 당하였다.

남조선강원도 원주와 충청북도 충주, 전라북도 김제, 정읍 등 많은 지방들에서는 거의 모든 농민들이 절량상태에 빠져 산나물과 시래기죽같은것으로 겨우 목숨을 이어가는 형편이였다.

농민들의 이러한 참상은 농촌 그 어디에서나 공통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남조선을 휩쓸고있는 절량과 주림참상이 어느정도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은 남조선에서 주림으로 인한 영양부족으로 앞을 못보게된 주민이 초보적으로 집계된 수자에 의하더라도 12만명을 헤아리고있다는 이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능히 짐작할수 있다.

여기에 농민들은 한세대에 평균 15만원이상의 엄청난 빚까지 걸머져 더욱 고통을 겪고있다.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농민들은 한세대에 최고 60여만원, 울산지방에서는 40만원, 사천지방에서는 50만원, 합천지방에서는 70만원까지의 빚을 지고있다고한다.

식량이 떨어진데다가 많은 빚까지 지고 그것을 면할길없는 농민들속에서는 고향땅을 등지고 류랑의 길을 떠나는 현상이 해마다 늘어나고있는데 1977년에는 그 수가 적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47만 6천 700명에 이르렀으며 일부지방에서는 농민들이 굶어죽는 참상까지 빚어지고있는가하면 어떤 지방에서는 굶주림을 참을길 없어 남조선사회를 저주하면서 자살하는 농민들까지 나오고있다.

리농민들과 실업자들로 이루어진 도시의 《빈민촌》 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참혹하다.

도시변두리에 사는 가난한 주민들의 처지만 보아도 그들은 하루 한끼 또는 두끼의 막비지나 죽으로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고있으며 이러한 끼니꺼리마저 떨어질때에는 세끼를 몽땅 굶어야 하는 형편이다. 판자집마을들에서는 온식구가 먹지못해 심한 영양부족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지조차 못하거나 그대로 무참히 죽어가는 참상이 빚어지고있다.

반동교육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남조선에서 근로인민의 아들딸들은 마음대로 공부할수도 없습니다. 남조선에서 공부를 하려면 많은 돈을 내야 하는데 근로인민의 아들딸들은 학비를 낼수가 없습니다.》(《농촌에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릴데 대하여》, 단행본, 23폐지)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교육시책으로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한창 배워야 할 나이에 학교문앞에도 가보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있으며 겨우 학교에 다닌다는 학생들도 무거운 학비부담에 짓눌려 배움의 길에서 떨어져나오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전쟁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더 많이 짜내며 근로인민의 아들딸들의 배움의 길을 막기 위하여 해마다 공납금을 비롯한 여러가지 잡부금을 계속 끌어올리였다.

1971년부터 1977년봄까지 놈들은 각급학교들의 수업료를 7차례나 올려 중학교는 3.8배, 고등학교는 4.5배, 사립대학은 3.2배나 각각 올렸다.

1977년 3월 새학기에만도 놈들은 사립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 수업료를 25%나 끌어올렸다.

등록금은 1967년부터 1976년까지 중학교는 641.3%, 고등학교는 542.8%, 대학교는 622.5%로 각각 끌어올렸으며 특히 사립대학의 경우에는 800%나 끌어올렸다.

1977년에 들어와서도 놈들은 대학교와 전문학교들의 등록금을 전해보다 평균 20～30%나 더 올렸다.

이리하여 박정희괴뢰도당은 1977년에 중고등학교와 전문학교, 대학교 학생들에게서 등록금과 공납금 등의 이름으로만도 1천 240여억원의 돈을 빼앗아내려고 책동하였다.

특히 놈들은 새전쟁준비에 미쳐날뛰면서 늘어나는 군사경찰비로 하여 예산에서 교육비를 줄이고 그 반면에 공납금을 올려 그것으로 학교운영비의 90%이상을 메우고있다.

공납금만이 아니라 교과서와 학용품값도 올렸으며 여러가지 이름의 잡부금도 계속 늘이였다.

1977년에 들어오면서 전해에 비하여 국민학교용교과서값은 12.9%, 중고등학교용교과서값은 3.2～11.4% 각각 올렸으며 중고등학교용 참고서값도 대폭 올렸다.

놈들은 군경원호비, 교원결혼비, 지어는 오물수거료, 방위성금 등 그 이름도 다 알수 없는 80여가지의 잡부금을 학생들에게 들씌우고있는데 남조선의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로부터 빼앗아내는 잡부금은 한해에 1천 100억원이나 된다.

박정희괴뢰도당의 이러한 반인민적교육시책으로 1977년 새학년도에 각급 학교학생들이 내게된 학비는 전해보다 훨씬 많아져 대학신입생의 경우 25만～30만원, 재학생은 18만～25만원, 고등학교학생은 8만 7천여원, 중학교학생은 5만원이나 되였다.

1977년말현재 남조선에서는 국민학교로부터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한 학생이 물어야할 공납금은 210만～246만여원이나 되였다.

여기에 과외수업비와 잡부금, 교과서값, 옷값, 교통비 등을 모두 합치면 한 학생이 733만～975만여원을 들여야 대학을 졸업할수 있다.

농촌을 비롯한 지방들에서 고등학교나 대학에 다니기 위하여 도시들에 나와 하숙을 하는 학생들은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을 써야 한다.

남조선에서는 한가정에서 2명의 아이들을 중학교까지 졸업시키려하여도 627만 1천여원을 들여야 한다.

남조선로동자의 거의 모두가 한달에 3만원아래의 임금을 받고있다는것을 고려할때 학생들의 학비가 얼마나 엄청난것인가 하는것을 짐작할수 있다.

바로 이러한 무거운 학비부담으로 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에 있는 300만명의 청소년들이 학교에 갈 엄두도 못내고있으며 설사 학교에 들어갔다고 하여도 학비를 감당할길이 없어 해마다 25만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쫓겨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남조선에서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날품을 팔며, 신문팔이, 구두닦기를 하는 학생들이 수없이 많으며 지어 자기눈까지 팔겠다고 호소하고있으며 혈액원에 찾아가 피를 팔고있다.

1976년 1월부터 10월까지 혈액원에서 피를 뽑아판 사람이 8만 7천여명이나 되였는데 그 가운데 33%가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이였다.

지어 학비를 마련할수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쫓겨나게된 학생들과 그들의 학부형들속에서는 남조선사회를 저주하면서 목숨을 끊는 처참한 사건까지 빚어지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학비를 끌어올릴때마다 《관리운영개선》이요, 《처지개선》이요 하는 구실을 들고나왔으나 교육조건은 한심한 형편에 놓여있다.

1977년에 괴뢰문교부가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국민학교들의 대부분은 교실이 모자라 여러 학년을 한방에 모아넣고 수업하고있는데 그 가운데는 3개 학년을 한데 모아넣고 수업하는 학교가 174개나 되며 4개 또는 5개 학년, 지어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한방에 넣어 공부시키는 학교도 51개나 된다.

그밖에 학교들도 3—4부제는 물론 5부제까지 하고있으며 《마루바닥수업》, 《야외수업》, 《떠돌이수업》, 《천막수업》을 하고있는 형편이다.

괴뢰도당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모자라는 교실수는 국민학교만 하여도 3만 6천여개나 된다.

있다는 학교들도 60%이상이 지은지 50～60년이 되는 낡은 건물이며 비가 오거나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에는 공부할수 없는 교실이 국민학교와 중학교들에만도 2만 1천 850여개나 된다.

남조선강원도안의 국민학교와 중고등학교들 가운데는 언제 무너질지몰라 사방에 기둥을 버티고 있는 교실이 1천 500여개나 된다.

남조선학교들은 책상과 걸상을 비롯한 시설들도 매우 한심한 형편에 있다.

남조선강원도 삼척군 괴뢰교육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군의 학생들은 한 교실에 무려 80～120여명씩 들어앉아 공부하는가 하면 한 책상에 4～5명씩 앉거나 맹바닥에 앉아 겨울에는 동상까지 입으면서 공부한다고 하였다.

제주도안의 중고등학교 학생들가운데서 1977년 3월 새학기가 시작된지 한달이 넘도록 단 한권의 교과서도 받지못한 학생이 무려 2천 200여명이나 되였다.

게다가 교원들까지 모자라 수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있다. 1977년에 괴뢰들은 전라남도안의 국민학교들가운데 240여개의 학급 학생들은 교원이 없어 수업을 제대로 받지못하였으며 광주시안의 한 중학교의 경우에는 1977년에 들어와 6월말까지 정상적인 수업을 한 날이 없었다고 하였다.

전라북도안의 중고등학교들에서는 정원에 비하여 40%에 해당하는 교원이 모자란다고 하였다.

한심한 보건실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생활의 무참한 령락과 보건사업에 대한 집권자들의 범죄적무관심의 결과로 오늘 남조선에서는 여러가지 전염병과 만성질환이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3권, 146페지)

박정희괴뢰도당의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보건시책으로 말미암아 남조선은 《병마의 소굴》, 《질병의 왕국》으로 전변되였다.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보건정책은 의료망의 분포에서 드러나고있다.

남조선의 병원들과 의료기관들은 도시에 집중되여있고 산골이나 외진섬에는 거의나 없다.

놈들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의사의 89%, 의료시설의 87%가 서울, 부산을 비

롯한 5개의 도시에 몰켜있다. 특히 남조선에 있는 의사와 약국의 절반이상은 서울에 있다.

나머지 의료시설들과 의사들도 거의 모두가 괴뢰군을 위하여 존재하고있으며 농촌지역에는 간판뿐인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350명의 의사가 겨우 있을뿐이다.

전라남도의 경우를 보면 이 도의 400여개 섬가운데서 300여개섬들에는 의사가 한명도 없으며 보건소와 약국은 생각도 못한다고 한다.

경기도 양주군 화도면을 비롯한 90여개 지역의 이른바 《정착촌》의 8만여명 주민들은 의료시설은 물론 의사가 한명도 없어 중병에 걸리면 죽음을 기다리거나 목숨을 잃고있다.

경상남도 통영군의 58개 섬과 52개의 산골지역에는 의사가 겨우 4명 있을뿐이며 남조선강원도안의 병원들가운데 그 73%가 의료시설을 갖추지 못하고있다.

남조선의 군과 읍, 면에 있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70%가 의사가 없거나 의료시설이 없어 초보적인 치료대책도 세우지 못하고있다.

전라남도안의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73%에는 의료시설과 의사가 없다. 경상남도의 80개면에는 단 한명의 의사도 없다.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에서 의사가 모자라 인민들이 아우성치고있으나 해마다 《이민》과 《인력수출》의 이름밑에 수천명씩 해외에 팔아먹고 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해마다 많은 돈을 군사비와 파쑈독재체제를 강화하는데 처넣고있으나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위생비에는 보잘것없는 예산을 돌리고 그것마저 제대로 내지않고 있다.

1976년에 보건위생비는 인구 한사람당 90원정도였다.

이것은 일본뇌염주사 한대값이 1천~1천 500원이라는것을 고려할때 얼마나 인민들을 눈가림하기 위한것인가 하는것을 알수 있다.

반면에 놈들은 치료비와 약값을 해마다 올렸다. 1977년에는 전해에 비하여 치료비는 평균 50~150%, 수술비는 25~50%, 입원비는 100%, 약값과 위생용품은 각각 25%이상 올렸다. 이리하여 한사람의 의료비부담액은 4년동안에 72배나 늘어났다.

남조선에서는 진찰권 한장에 평균 250원, 건강진단서 한장 내는데는 400원, 촬영비는 5천원, 갑기치료를 한번 받자고 하여도 5천원, 보통외과치료에는 2만원 있어야 한다. 출혈성위장염수술을 받자고 하면 치료비와 입원비가 60만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실정에서 반동관료배들을 비롯한 돈있는 계층에 속하는자들이나 병원을 리용하고있을뿐 절대다수 근로인민들은 병원을 통한 치료라고는 전혀 생각지못한다.

괴뢰들이 해마다 올리는 치료비와 약값외에도 의료업자들이 환자들로부터 치료비와 약값을 마음대로 올려받고있다.

또한 가짜 의사들과 가짜약까지 나돌아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인민들에게 고통을 주고있다.

밝혀진데 의하면 남조선에서 팔고있는 약품의 51.8%는 가짜약품이라 한다.

박정희괴뢰도당의 이러한 반동적이며 반인민적인 보건정책으로 남조선에서는 전염병과 여러가지 질병이 무섭게 퍼지고있으나 절대다수 근로자들은 아무런 치료도 받지못하고 무참히 죽어가고있다.

괴뢰보건사회부가 밝힌데 의하면 1977년에 100여명의 류행성출혈열환자가 생겨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뇌염환자는 전해보다 3배나 늘어났고 백일해환자는 3천 160여명이나 생겨났다. 장티브스환자는 이해 상반기에만도 2천여명이나 생겨났다.

이밖에도 이름모를 피부병과 일본뇌염, 홍역 등이 생겨나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었다.

여러가지 전염병이 돌고있을뿐아니라 만성질환과 또한 무서운 직업병이 늘어나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있다.

서울 청계천기술의 피복공장 로동자들의 절반이상이 관절염, 위장염, 시력장애로 고통받고있으며 남조선채굴공업로동자의 90%이상이 있는 남조선강원도 삼척과 강릉 일대에서 일하는 광부들과 탄부들의 50%이상이 쇠돌가루와 석탄가루를 먹어 규폐증에 시달리고있다.

남조선괴뢰전매청산하 담배공장 로동자들은 75%이상이 관절염을 비롯한 여러가지 직업병에 걸려있다.

짓밟힌 민족문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문화와 조선인민의 고유한 미풍량속은 여지없이 짓밟히고 온갖 패륜과 패덕이 남조선전역을 휩쓸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4권, 541폐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남조선인민들의 민족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민족문화말살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미제는 남조선에 《주한미공보원》, 《평화봉사단》, 여러가지 《재단》, 《학회》따위의 사상문화침략기구들을 들이밀고있는 한편 남조선괴뢰들과 여러가지 《협정》, 《합의서》들을 꾸며내고 출판물, 방송, 영화 등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하여 썩어빠진 미국문화와 《미국식생활양식》을 남조선인민들속에 불어넣고있다.

놈들은 또한 남조선의 문화기구들을 틀어쥐고 반동적인 어용학자들과 작가, 예술인들에게 반동적사상독소를 부식하며 민족허무주의사상을 퍼뜨리고있다.

범죄적인 《한일협정》을 맺은후 괴뢰들은 일본과의 《문화교류》라는 구실밑에 일본반동문화를 마구 끌어들여 왜색왜풍이 남조선에서 활개치게 하였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이러한 책동으로 남조선에서 우리의 고유한 민족문화는 짓밟히고 부패타락한 미국문화와 왜색문화가 사회를 휩쓸고있다.

남조선에서는 우리 인민의 귀중한 민족적재부이며 민족의 자랑이 깃들어있는 우리 말이 엄중한 위기를 겪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큰물처럼 밀려드는 외래어의 사태속에서 우리 말은 영어화, 일본어화, 한자화되여 민족어로서의 자기의 고유한 민족적특성을 잃고있으며 외래어체계에 의하여 점차 잡탕말로 변하고있다.

그리하여 사회정치분야와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용어들은 물론 거리의 간판, 상품의 이름, 집짐승의 이름에 이르기까지 영어를 비롯한 여러가지 외래어들이 쓰이고있으며 지어 지식층속에서는 외래어어휘가 없이는 말을 못하는 지경이며 심한 경우에는 우리 말이 외래어의 토로만 되여 외래어의 부속물의 역할을 하고있다.

남조선에서 일상생활에 쓰이는 말가운데는 40% 이상의 외래어가 끼여있으며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회화에서 70%이상 외래어단어를 쓰고있다.

놈들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의 한 신문이 하루에 쓰는 외래어단어는 평균 830개에 이르고있다고 하며 남조선에서 생산되는 화장품의 이름은 100%, 약품의 이름은 96%가 외래어라고 한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썩어빠진 부르죠아생활양식을 반영한 미국식영어를 퍼뜨림으로써 남조선인민들속에 숭미사상을 불어넣고있다.

또한 순수한 우리 말조차 제놈들의 생활방식에 맞게 퇴폐적이고 무맥하게 변질시켜 사회에 부패타락한 《미국식생활양식》을 퍼뜨리며 사람들을 정신적인 불구자로 만들고있다.

이로 말미암아 남조선에는 외래어의 물결을 타고 썩어빠진 미국식생활풍조가 밀물처럼 쓸어들고 있다.

영어와 일본어로 된 출판물들이 사태처럼 밀려들어와 사람들의 건전한 정신세계를 좀먹고있으며 식당과 술집들에서는 영어, 일본어 노래가 허무와 타락, 염세와 비애를 찬미하는 추잡한 음률을 타고 거리로 흘러나와 말세기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있다.

회화생활에서도 고상하고 우아한 우리 말의 억양은 없어지고 역겨운 미국식발음과 지배계급에게 아양을 떠는 간사한 말투가 판을 치고있으며 지어 언어동작에서까지 추잡한 행동이 류행되고있다.

문학과 예술이 또한 미국화, 일본화되여가고있다. 문학예술은 우리 인민의 민족적특성을 잃고 깽, 색정, 부패타락을 설교하는 내용으로 바뀌여지고있다.

쟈즈곡과 왜곡을 통채로 삼킨 《혼혈아음악》이 거리와 마을을 소란하게 흔들어놓고있으며 《바레화된 민족무용》이 공원과 유흥장을 메우고있다. 또한 《양춤장》이 남조선전역에 널려져있어 사람들을 부패타락케 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이 민족허무주의사상과 썩어빠진 《미국식생활양식》을 미친듯이 퍼뜨림으로써 남조선에서는 조선사람으로 태여난것을 한탄하면서 사람들의 얼굴모양을 미국놈식으로 만드는 정형수술놀음까지 벌어지고있다. 또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옷차림대신에 퇴폐적이고 괴상망측한 옷차림이 사회적풍조로 되고있어 사람들이 입고다니는 옷색갈과 모양은 양풍, 왜풍의 혼탕으로 되였으며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량속은 사라지고있다. 남조선사회가 얼마나 썩었는가 하는것은 부유특권층놈들의 녀편네들이 수백만원이 오가는 도박판을 벌려놓고있으며 술을 마시고 추태를 부리며 담배를 피우는 녀성들의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지어 《라체질주》, 《녀자레스링》, 《녀자축구》, 《녀자권투》와 같은 해괴망측한 놀음이 서울 한복판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있는데서도 잘 알수 있다.

남조선괴뢰도당은 퇴폐적인 《미국식문화》와 왜색왜풍을 끌어들임으로써 민족문화를 짓밟았을뿐아니라 귀중한 문화유물들을 서슴없이 상전에게 선물로 바치며 제멋대로 해외에 팔아먹고 닥치는대로 마사버리는 매국배족행위를 감행하고있다.

놈들은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명승고적들을 외국관광객들의 더러운 놀이터로까지 내맡기며 《관광》이란 이름밑에 유적지들에 온갖 잡스러운 접객시설을 차려놓고 일본관광객을 비롯한 외국관광객들을 마구 끌어들이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의 슬기와 로력이 깃들어있고 숭고한 민족적기개가 스며있는 유적지들이 음탕스러운 유흥지와 도박장으로, 범죄의 소굴로 되고있다.

《이민》, 《인력수출》책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남조선당국자들은 〈광부〉요, 〈간호원〉이요 하면서 수많은 남조선 인민들과 녀성들을 서독과 브라질을 비롯한 여러 자본주의나라들에 팔아먹

고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팔려간 남조선인민들은 낯선 이국땅에서 가혹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온갖 민족적 멸시와 천대를 받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164～165페지)

외래침략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 더러운 목숨을 이어가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은 1977년에도 남미주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들에 범죄적인 《이민교섭단》을 보내여 《이민협정》을 맺고 수많은 남조선주민들을 팔아넘겼으며 이른바 《인력수출》을 통한 동족매매행위를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괴뢰들이 극히 줄여서 발표한데 의하더라도 1977년에 놈들의 《인력수출》놀음에 의하여 해외에 팔려간 주민수는 8만 7천 470여명을 헤아렸다.

그 가운데서 3만 3천 800여명은 《건설 및 토목로동자》라는 이름으로, 9천 300여명은 《운전수와 정비공》의 이름으로, 1천 600여명은 《광부》라는 이름으로 각각 팔려갔다.

이해 1월부터 3월까지 사이에 경상남도에서만도 500여명의 로동자들이 서부독일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에 피눈물을 뿌리며 팔려갔다. 이리하여 서부독일의 루르탄광에서만도 1천 720여명의 남조선로동자들이 지하막장에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고있다.

괴뢰들은 《간호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도 7천 100여명의 녀성들을 세계 여러 지역에 팔아넘겼다.

놈들이 밝힌데 의하더라도 남조선의 의사, 간호원총수의 30%가 해외에 팔려갔다.

사람을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삼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은 《양자》, 《양딸》이라는 허울좋은 간판아래 수많은 철부지 어린것들도 팔아먹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놈들은 1977년에 오스트랄리아에만도 태여난지 석달부터 두살까지밖에 안되는 젖먹이들을 100여명이나 넘겨주었으며 한명에 640딸라씩 받아 배속을 채웠다.

또한 괴뢰들은 일본 오끼나와에 있는 미군사인원들에게 1976년 9월부터 1977년 2월까지사이에 태여난지 다섯달부터 다섯살까지에 이르는 60여명의 어린이들을 팔아먹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이민》의 이름으로 남조선주민들을 수없이 팔아먹고있는데 제놈들이 공식발표한 자료에 의하여도 그수는 1977년에 4만 3천 990여명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박정희괴뢰도당의 《이민》과 《인력수출》책동에 의하여 해외에 팔려간 남조선주민들의 수는 50만명을 훨씬 뛰여넘고있다.

해외에 팔려간 남조선인민들은 참을수 없는 민족적멸시와 천대속에서 고통을 겪고있다.

외국독점자본가들과 농장주들은 남조선인민들을 《천한 직업의 담당자》, 《순종할 의무만이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떠벌이면서 일상생활에서까지 인격적모욕을 가하고있다.

해외에 팔려간 남조선인민들은 수도와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산간벽지에서만 살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원주민들이 살지않는 산악지대, 습지대와 같은 사람못살 곳에서 살고있는 기막힌 처지에 놓여있다.

《이민》의 이름으로 남미주와 중근동에 팔려간 남조선인민들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들에게는 《원시상태 그대로의 황무지와 습지대》가 아니면 《길조차 없어서 공중수송만이 가능한》 사람못살 지대들이 차례지고있다한다.

그들은 임금면에서도 민족적차별대우를 받고있는데 그것은 《인력수출》로 미국, 서독, 일본 등에 팔려간 남조선인민들의 경우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있다.

일본에 팔려간 남조선녀성로동자들은 일본녀성로동자들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임금을 받고있으며 남미주에 팔려간 인민들은 원주민들의 12분의 1도 되나마나한 낮은 임금을 받고있는 형편이다.

해외에 팔려간 남조선인민들은 외국독점자본가들과 농장주들의 자본의 철쇄에 얽매여 고된 로동을 강요당하고있다.

미국의 시카고, 데트로이트 지방에 팔려간 남조선로동자들은 거의 매일과 같이 18시간 로동에 시달리고있으며 서부독일의 탄광들에 끌려간 탄부들중 이미 수많은 사람들은 로동재해로 목숨을 빼앗기거나 불구가 되였다. 또한 그곳에 간 탄부들의 60%가 돌가루와 탄가루때문에 진폐증과 폐결핵에 걸려있다 한다. 여기에 괴뢰중앙정보부의 감시와 통제까지 겹쳐 사실상 숨막히는 감옥살이를 하고있다.

박정희괴뢰도당은 해외략탈자들에게 팔아넘긴 인민들을 감시하기 위하여 현지에 《로무관》이라는 관리를 두고있을뿐아니라 이른바 《반장》이니 《통역》이니 하는 이름으로 밀정들을 박아넣고있다. 팔려간 인민들은 특무들의 감시와 박해속에서 마음대로 나다니지도 못하고 힘겨운 일에 시달리다가 무시로 쓰러지고있으며 같이간 사람들끼리 이야기조차 마음놓고 할수없는 기막힌 생활을 강요당하고있다.

해외에 팔려간 남조선인민들은 죽도록 일하고도 입에 풀칠조차 제대로 하지못하고있으며 쓰고살 한칸의 집도 없이 헤매고있다.

특히 빠라과이,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주와 미국, 카나다, 서부독일에 팔려간 남조선인민들은 빵 한두쪼각으로 끼니를 에우며 살아가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지어 해외에 팔려간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생활

고에 시달리다 못하여 굶어죽는 참극까지 일어나고있다.

갖가지 사고와 재해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식민지군사화책동으로 사회적혼란과 무질서가 극도에 이른 남조선에서는 이러저러한 사고와 재해가 빚어져 인민들에게 고통과 재난을 들씌우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해마다 화재사고로 큰 피해를 입고있다.

괴뢰내무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77년에 남조선에서는 5천 360여건의 불이 일어나 1천 500여명의 주민들이 타죽거나 화상을 입었으며 44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것은 1976년보다 화재건수가 15% 늘어난것이며 이 가운데 36%가 살림집과 가게방을 태워버린 것이였다.

산불도 그칠사이없이 일어났는데 1977년 첫두달동안에만도 330여건의 불이 일어나 수많은 면적의 산을 벌거숭이로 만들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전쟁준비책동으로 교통사고가 꼬리를 물고일어나 가난한 주민들에게 돌이킬수 없는 재난을 들씌우고있다.

1977년 11월말현재 8만 1천 750여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 생죽음을 당했거나 중경상을 입은 사람은 수만명을 헤아렸는데 이것은 박정희괴뢰도당이 집권한후 그 어느해보다도 《가장 높은 기록》을 낸것이였다.

이 가운데는 11월 8일 경상남도 함안군 산인면에서 뻐스가 낭떠러지에 굴러떨어져 60여명의 주민들이 무참히 숨졌거나 중상을 입은 사고와 충청남도 부여에서 뻐스가 서로 들이받아 70여명이 무리죽음을 당한것 등이 들어있다.

더욱 참혹한것은 철도사고였는데 1977년에는 3천 15건의 철도사고가 일어나 700여명이 숨지고 764명이 다쳤다.

이 철도사고의 90%는 달리는 렬차들이 서로 맞부딪치거나 차량들과 철길이 낡을대로 낡아 운행중 나딩군 사고였다.

7월 서울—부산사이의 철길에서 려객렬차가 서로 들이받아 110여명의 사람이 무리죽음을 당하거나 크게 다친 사고와 12월 경상북도 영주에서 대구로 가던 려객렬차가 기름을 실은 렬차를 들이받아 70여명의 주민들에게 재난을 들씌운 소름끼치는 사고들이 그 실례로 된다.

이밖에도 미제침략군놈들과 괴뢰들이 전쟁준비에 날뛰면서 군수물자를 실어나르기 위한 군용차들을 마구 내몰아 사람들을 깔아죽이거나 뻐스와 살림집들을 들이받아 인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사회적혼란이 심해지는가운데 남조선에서는 폭발물사고도 자주 일어나 인민들에게 커다란 재난을 들씌웠다.

11월 11일 전라북도 리리역구내에서는 30톤이나 되는 화약을 실은 화차가 폭발하여 1천 100여명의 시민들이 죽거나 크게 다쳤으며 1만채의 살림집이 마사지는 큰 참사가 빚어졌다.

이것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조선에서 얼마나 전쟁준비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가하는것을 보여주는 실례로 된다.

땅에서뿐아니라 바다에서도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전쟁도발소동, 일본어선들의 령해침입, 해운시설의 불비, 바다기상에 대한 예보의 결여 등으로 끔찍한 사고들이 자주 일어나고있다.

남조선 해상에서는 이해 11월까지 737척의 고기배들이 조난사고를 일으켜 6천 470여명의 인명피해 또는 물질적피해를 입었다.

이 기간에 경상북도 앞바다에서만도 50건의 해상사고가 빚어져 30여명의 어민이 숨졌다.

1975년부터 1977년 10월까지의 사이에 동해의 남쪽에서는 380여건의 사고로 420명의 어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해 서울과 경기도, 충청남도를 비롯한 곳곳에서 무더기비가 내려 인민들이 재난을 당하였다.

충청남도 대전에서는 7월 6일 새벽에 무더기비가 내려 86채의 살림집이 물에 잠기고 뚝이 무너져 30여정보의 논밭이 못쓰게 되여 2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날 천안지방에서도 비가 쏟아져 50여세대의 살림집이 물에 잠겼다.

남조선에서는 탄광, 광산을 비롯한 각곳의 작업장들에서 로동재해가 무시로 일어나고있는데 1977년에만도 11만 8천 300여명의 로동자들이 로동재해를 입어 죽거나 다쳤다. 그 가운데 목숨을 잃은 로동자의 수는 1천 160여명이나 되였다.

11월 16일 남조선강원도 삼척군 장성읍에 있는 장성광업소의 수직갱에 설치된 변압기에서 불이 일어나 450여명의 탄부들이 들어가 일하는 갱이 완전히 막힘으로써 지하 1천메터의 갱안에서 탄을 캐던 수많은 탄부들이 무리죽음을 당한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밖에도 10월에는 남조선강원도의 녕월탄광에서의 가스폭발사고, 이 도안의 사북탄광에서 굴이 무너지는 사고로 수많은 로동자들이 생명을 잃었다.

이러한 로동재해가 일어나는 원인을 보면 99% 이상이 미제와 괴뢰도당이 로동자들의 생명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식민지초과리윤을 짜내는데만 피눈이 되여 아무런 로동안전시설과 로동보호대책을 세우지 않고 작업장에 로동자들을 마구 내몰고있는데로부터 일어난것이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애국적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8년 새해를 맞이하여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에게 보내신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은 지난해에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일군들과 동포들을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웠으며 그들을 조국통일사업을 비롯한 제반 애국과업수행에 훌륭히 조직동원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극진한 보살피심속에서 총련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1977년에도 제반 애국과업수행에서 빛나는 성과를 거둠으로써 주체의 해외교포운동사에 또하나의 자랑찬 위훈을 아로새겼다.

이해에 총련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조직을 그 어느때보다도 주체사상이 꽉 들어찬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로 더욱 튼튼히 꾸리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5돐을 맞으며 벌린 충성의 애국운동과 총련제11차전체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5개월운동은 총련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며 일군들과 동포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는데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또한 이해 9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극진한 배려와 보살피심속에서 진행된 총련제11차전체대회는 총련을 주체사상화하는데서 새로운 리정표로 되였으며 총련의 모든 애국적과업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는데서 획기적인 계기로 되였다.

총련제11차전체대회는 총련이 지난기간 조국과 인민앞에 쌓아올린 성과들을 자랑스럽게 총화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회앞으로 보내주신 축하문교시를 철저히 구현하여 총련조직안에 주체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우는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다. 대회이후 총련의 각급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축하문교시 관철을 위한 투쟁에 총궐기한 기세로 떨쳐나섰다.

총련은 본부대회와 지부정기대회, 분회총회들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업을 통하여 총련의 모든 조직을 공화국의 믿음직한 해외교포조직으로 한층 공고히 다져놓았다.

총련의 기층조직인 분회를 다 힘있는 조직으로 만들고 더 많은 동포들을 총련조직에 묶어세운것은 총련이 이해에 이룩한 또하나의 큰 성과이다.

이해초부터 《모든 분회를 다 힘을 내는 분회로 만들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2주일분회소조운동을 련속 벌리면서 모든 일군들이 1주일에 한번씩 자기가 살고있는 지역분회에 들어가 사업하는 분회담당소조체계를 새로 내오고 줄기차게 밀고나갔다.

이 과정에 많은 분회들이 생동하게 움직이게 되고 분회안에 반이 새로 나오게 되였으며 분회사업, 대중과의 사업경험을 쌓은 젊은 일군들이 분회위원으로 많이 자라나게 되였다.

총련은 조청, 녀맹, 상공회와 이해 새로 결성된 재일본조선인의학협회 등 단체, 사업체들을 더욱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한층 높이였다.

이해 민족교육사업과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는 사업에서도 많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총련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와 민족교육부문에 주신 교시를 높이 받들고 교수교양사업에서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다.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은 생활권을 옹호하는 투쟁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금강보험주식회사》 등을 꾸려놓고 동포들의 생명재산옹호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조선신용조합의 일군들과 열성조합원들이 경제의 불경기속에서도 4천 30억원의 예금액을 달성한 것 등 동포들의 기업권을 옹호하는 사업에서도 새로운 성과가 이룩되였다.

총련은 이해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모든 동포들을 이 사업에 힘있게 조직동원하였다.

총련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 그리고 4개항목의 구국방안 등을 내외에 해설선전하는 선전활동을 널리 벌렸으며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박정희괴뢰도당의 온갖 매국배족행위를 폭로규탄하는 각종 형태의 투쟁을 광범히 벌리였다.

동시에 《민주구국헌장》을 발표하여 박정희괴뢰도당의 퇴진과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용감하게 일떠선 남조선의 민주인사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는 사업도 더많은 동포들의 참가밑에 추진되였다.

이 과정에 수많은 분회일군들과 열성동포들이 《조국통일사업을 잘하는 분회로 만들자》라는 구호

밑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안고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 한몸바쳐 나서게 되였다.

총련은 대외사업도 활발히 벌려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을 두터이하고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렬을 더욱 늘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돌려주신 뜨거운 사랑과 배려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사상의 찬란한 빛발로 총련과 재일동포들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매 시기마다 그들앞에 나선 투쟁과업과 그 실현을 위한 방도를 명확히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해마다 새해에 즈음하여 친히 보내주신 축전을 비롯하여 매시기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여 재일조선인운동에서 나서는 리론과 방침들을 새롭게 밝혀주시고 총련이 앞을 가로막아나서는 애로와 곤난을 이겨내면서 곧바른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할수 있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성된 정세와 재일조선인운동발전의 합법칙적요구, 재일동포들의 실태를 과학적으로 심오히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총련을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방침과 총련의 4대기본과업을 제시하여 주시였으며 총련 지부, 분회의 위치와 역할, 일군들의 사업 방법과 작풍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심으로써 총련사업발전을 위한 힘있는 사상, 리론적 무기를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총련제11차전체대회앞으로 친히 축하문을 보내시여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총결기간 총련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와 업적을 높이 평가하시고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총련사업을 더 한층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강령적과업을 명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거치른 이역땅에 살고있는 재일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의 민족권리를 옹호하여 할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하여주시였으며 일군들과 동포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여 해마다 선물을 보내주시고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주시였으며 참으로 친부모도 미치지 못할 뜨거운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총련결성20돐을 국가적명절처럼 기념케하여주시고 친히 축하문과 귀중한 선물들을 보내주시였으며 공화국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을 비롯한 국가수훈과 칭호를 총련의 기관들과 학교들, 일군들과 동포들에게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총련결성 20돐기념메달》을 새로이 제정하여 주시여 일군들과 동포들의 가슴마다를 긍지와 자랑으로 빛내여주시였다.

1977년에는 7명의 각계각층 재일동포대표들을 또다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되게 하여주시고 조국을 방문한 재일조선녀성대표단 성원들에게 로력영웅칭호와 높은 국가수훈의 영예를 안겨주시는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설명절때에만 하여도 총련산하 1, 800개의 분회들에 갖가지의 수많은 선물들을 안겨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안팎의 반동들의 모략책동으로부터 총련조직을 지키고 재일동포들을 보호하기 위한 온갖 국가적 및 사회적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동포상공인들의 기업활동을 보장하도록 대책을 취하여주시였으며 재일동포들에게 조국에로의 귀국과 방문의 길을 계속 열어주시였을뿐아니라 자애로운 친어버이사랑으로 일군들과 동포들의 사업과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국을 방문하는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일일이 만나주시고 그들을 한품에 안아 극진히 보살펴주시는 최상의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총결기간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대표단을 비롯하여 2천여명에 달하는 총련 일군들과 동포들, 예술인, 체육인, 청년학생, 과학자, 상공인들을 사회주의조국에 불러주시고 그토록 바쁘신가운데서도 친히 만나시여 강령적지침을 주시는 최상의 영예를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1977년에만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탄생 예순다섯돐 재일조선인축하단(4월 17일과 25일), 60만 재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4월 25일), 재일조선인축구선수단 (4월 25일), 재일본조선무역상사일군대표단 (4월 25일),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결성 30돐에 즈음하여 수령님께 감사드리기 위하여 조국에 온 재일조선녀성대표단 (11월 5일), 재일조선출판보도일군대표단 (11월 20일), 총련일군대표단 (12월 22일)등을 접견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재일동포들이 일본땅에서도 조국의 숨결을 몸가까이 느낄수 있도록 여러 대표단을 일본에 거듭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재일조선청소년 학생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발전을 위하여 총결기간에만도 14번에 걸쳐 일본돈으로 92억 5천여만원의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였으며 그밖에도 각종 서적들과 교재들, 여러가지 교구비품들과 민족악기를 비롯한 귀중한 선물들을 보내주시는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랜세월을 두고 식민지노예의 불행과 굴욕에 시달려온 재일동포들에게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의 해외공민된 긍지와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안겨주시고 그들을 주체형의 피만이 흐르는 공화국공민으로 키워주신 재생의 은인이시고 자애로운 스승이시며 그들을 보다 희망찬 래일에로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사랑의 태양이시다.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은 대오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일군들과 동포들을 우리 당과 사회주의조국에 끝없이 충실한 열렬한 혁명가로, 진정한 애국자로 만들고 총련조직을 참다운 주체형의 해외공민단체로 튼튼히 다져놓았습니다.

총련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대오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을 이룩한것은 총련이 이룩한 가장 귀중한 성과이며 가장 큰 승리입니다.》

총련은 총결기간 무엇보다도 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며 각계각층 동포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을 첫째가는 사업으로 틀어쥐고 힘있게 밀고나갔다.

총련은 동포들속에서 주체사상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따르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를 확고한 지침으로, 철석같은 신조로 삼고 그것을 견결히 옹호관철해나가는 끝없는 충성심을 높이 발휘하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5돐을 맞으며 벌린 충성의 애국운동과 총련 제11차전체대회를 충성의 대회, 승리와 단결의 대회로 맞이하기 위한 5개월운동은 일군들과 동포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전사, 열렬한 애국자로 키워나가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이 운동기간 총련의 각급 조직들속에서는 조직별로 되는 정기학습과 문답식학습경연, 분회학습반과 성인학교, 청년학교 운영, 대중강연회, 각계층 동포들과의 개별담화 등 주체사상교양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조직되였다.

일군들과 동포들 속에서는 《김일성저작선집》 1권부터 6권까지에 대한 《충성의 독서운동》이 힘있게 벌어졌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를 비롯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로작들과 강령적교시들 특히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축전과 축하문을 비롯하여 매시기 총련사업부문에 주신 강령적교시들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학습하는 기풍이 높이 발양되였다.

이러한 과정에 일군들과 동포들 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이 비할바없이 높아졌으며 모두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사는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높은 긍지와 행복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한길따라 주체위업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가려는 숭고한 충성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총련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충성심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 65돐을 민족 최대의 경사의 날로 가장 열렬히 축하한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였다.

4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와 충성심으로 가슴불태우면서 전군중적인 애국운동을 벌려 자기들이 정성껏 마련하여온 충성의 선물을 수령님께 삼가 올리였다.

총결기간 총련은 일군들속에서 조직생활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하게함으로써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공고히 하도록 하였다.

총련은 총결기간에 산하조직 특히 분회들을 주체사상체계가 선 힘있는 조직으로, 생기발랄한 조직으로 꾸리는데 각별한 힘을 돌리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총련 제13차분회열성자대회에 즈음하여 보내주신 축하문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 1976년부터 총련이 처음으로 벌린 분회소조운동은 분회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축하문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조직들과 열성자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총련은 우선 제13차분회열성자대회를 중앙과 5개지방에서 크게 조직하였다.

한편 도꾜, 오사까를 비롯한 각지에서 총련과 녀맹 분회장, 조청반장들의 모임을 거듭 조직진행하고 분회일군들과 열성자들이 총련의 주인이며 애국사업의 직접적담당자로서 자기의 성스러운 의무를 더잘 수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총련은 처음으로 분회소조운동을 벌리는 획기적인 대책을 취하였으며 이 운동에 모든 일군들이 참가하도록 하였다.

총련중앙과 단체, 사업체, 본부, 지부 일군들로 무어진 5개월, 2개월소조들은 1, 200여개 분회에 들어가 위대한 수령님식사업방법을 따라 배우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분회들에 대한 집중방조사업을 진행하였다.

1977년부터는 모든 전임일군들이 거주지분회에 들어가 사업하는 분회담당소조체계를 새로 내옴으로써 분회사업을 도와주는 사업체계를 더욱 정연하게 세워놓았다.

분회소조운동을 통하여 많은 분회들이 생동하게 움직이게 되고 분회안에 새로 반이 나오게 되였으며 젊은일군들이 자라나게 되였다.

한사람이 열사람, 열사람이 백사람을 설복교양하는 방법으로 조선사람되찾기운동을 벌려 더 많은 동포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조국통일을 비롯한 총련의 제반애국과업을 분회를 단위로 진행하는데서도 새로운 경험들이 창조되였다.

조청, 녀맹, 상공회를 비롯한 단체들이 튼튼히 다져지고 그 역할이 한층 높아졌다.

조청에서 벌린 100일간 충성의 혁신운동과 2만명칭년담화운동, 녀맹에서 벌린 학교를 사랑하는 운동, 상공회에서 벌린 동포들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들은 총련산하 단체들의 역할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총련은 이와같이 총결기간에 각급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를 확고히 세우고 그에 기초한 일군들과 동포들의 정치사상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튼튼히 이룩하여 놓았으며 자기 조직을 어떠한 풍파에도 드놀지 않는 강위력한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로 강화발전시키였다.

총련 제11차전체대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보살피심속에서 총련 제11차전체대회가 1977년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도꾜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체 재일동포들의 드높은 애국적열의와 조국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속에서 열리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11차전체대회는 우리 나라 해외교포운동발전과 재일동포들의 애국투쟁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사변으로 됩니다.》

총련 제11차전체대회는 제10차전체대회 이후 3년동안 총련이 성스러운 애국사업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총화하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총련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강령적방침을 더욱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과업을 토의하였다.

대회에는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전사들인 총련의 각급 기관과 단체, 사업체들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애국가의 주악으로 시작된 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앞에 대의원대표들이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전체 총련 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과 불같은 충성심을 담아 꽃바구니를 정중히 드리였다.

대회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57명으로 된 대회집행부와 의장단을 선거하고 대회서기부를 선출하였으며 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대회에서는 먼저 민족의 태양이시며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총련 제11차전체대회앞으로 보내주신 축하문이 전달되였다.

대회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친히 보내주신 귀중한 선물들과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사업을 위하여 66번째로 일본돈으로 9억원이 넘는 막대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감격적인 소식이 전달되였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대회에서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에서 대회에 보내온 축기가 전달되였으며 일본정부당국의 부당한 입국거부로 말미암아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축하단 단장의 연설문이 전달되였다. 또한 일본당국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축하단의 일본입국을 거부한것을 규탄하여 발표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의 성명이 전달되였다. 이어 대회앞으로 보내온 축전들이 소개되였다.

대회 대의원들의 자격심사결과보고에서는 총련의 49개 지방본부들을 비롯하여 지부, 분회 등 각급 기관들과 총련산하 17개 단체들 및 16개 사업체들에서 선출된 2천 68명의 대의원들 100%가 대회에 참가하였다는것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총련조직안에 주체의 사상체계가 튼튼히 섰으며 그에 기초한 대렬의 통일과 단결이 일층 강화되였다는것을 다시한번 내외에 크게 과시한것으로서 대회를 파괴하려는 내외원쑤들에 대한 커다란 타격으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대회는 다음과 같은 의제로 진행되였다.

1. 총련중앙위원회 사업총화
2.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사업총화
3. 재정 결산 및 예산안 심의
4. 의장, 부의장, 중앙위원회 위원 및 감사위원회 위원 선거

대회에서는 한덕수의장이 총련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였다.

대회에서는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스물아홉돐 재일조선인축하단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대회기간 재일조선소년단축하단, 재일조선청년학생축하단, 재일조선문학예술인들의 축하단이 입장하여 대회를 축하하였다.

대회에서는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 간부회 부위원장, 도꾜도 지사,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 회장,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일본위원회 사무국장, 중립로동조합련락회의 사무국장, 공명당 소속 중의원 의원, 일조국교정상화국민회의 대표위원, 일조협회 회장, 일조문화교류협회 리사장, 일본아세아

아프리카단결위원회 사무국장,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 회 대표위원 등 일본의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들은 일치하게 총련 제11차전체대회를 열렬히 축하하고 총련의 애국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으며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과의 련대를 더욱 강화할 자기들의 결의를 표명하였다.

대회에서는 총련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 대한 26명의 대의원들의 토론이 진행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대회앞으로 친히 보내주신 축하문의 교시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강령적문헌이며 새로운 승리에로 불러일으키는 전투적기치라고 강조하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축하문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불멸의 주체사상을 총련의 모든 부문에 구현하여 애국사업수행에서 새로운 앙양과 일대 전진을 이룩할것을 제기한 총련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지지찬동하였다.

대회에서는 총련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와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전원일치로 찬동하였다.

대회는 한덕수동지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으로 또다시 선거하였고 6명의 부의장, 327명의 총련중앙위원회 위원들과 5명의 중앙감사위원회 위원들을 선거하였다.

대회에서는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일본정부에 보내는 요청문,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거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견결히 수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11차전체대회에 보내신 축하문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은 긍지높은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의 재일동포들의 민족적존엄을 지키고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견결히 수호하였으며 이 과정에 동포대중속에서 더욱 두터운 신뢰와 사랑을 받게 되였습니다.》

제10차전체대회가 있은 때로부터 1977년 제11차전체대회까지 이르는 3년동안 총련은 총련의 합법적지위와 재일동포들의 사회활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총련은 안팎의 원쑤들의 총련파괴책동을 내외에 철저히 폭로규탄하고 놈들의 부당한 도발적폭력행위를 물리치기 위한 투쟁을 군중적으로 강력히 벌렸다.

이와 함께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위협, 공갈과 같은 사기적방법으로 남조선에 랍치해가려는 음모책동에 대해서도 제때에 강력히 폭로 규탄해나섰으며 총련을 내탐하고 간첩행위를 감행해온 사실들에 대한 항의투쟁도 힘있게 벌리였다.

또한 1976년에 《외국인등록법》을 개악하여 재일동포들에 대한 억압통제를 강화하려는 일본 당국의 기도를 물리쳤다.

총련은 총결기간 동포들의 공민권과 인권, 생활권을 옹호하는 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들을 거두었다.

총련은 이른바 《고향방문》책동을 벌리면서 괴뢰 《한국국적》 강요와 귀화책동을 계속 악랄하게 감행해나선 내외반동들의 책동을 그때마다 폭로배격하고 괴뢰 《한국국적》을 강요당하고 있는 동포들과의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조선사람되찾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조선사람이 일본사람으로 동화되지 않도록 하며 모든 동포들이 공화국의 해외공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떳떳하게 살아나가도록 하는데 많은 힘을 돌리였다.

총련은 내외 반동들이 계속 집요하게 감행해온 총련학교 학생들에 대한 집단폭행, 《간첩날조》, 부당체포 등의 사건이 일어날때마다 강력한 항의운동을 벌려 재일동포들의 인권을 견결히 옹호하였다.

총련은 총결기간 조국에로의 귀국 및 왕래의 권리, 제3국에로의 려행의 권리를 지키는 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총련 제10차 전체대회가 있은때로부터 총련 제11차전체대회가 있기까지 기간에 171차로부터 178차에 걸쳐 1,024명의 동포들이 영광스러운 조국의 품에 안겨 행복하고 보람찬 새 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1965년에 처음으로 조국왕래의 길이 열린 때로부터 왕래자총수 2, 381명가운데서 총결기간에는 1,961명의 일군들과 동포들이 조국을 방문하였다.

제3국에로의 려행의 길도 훨씬 넓어져 총결기간 349명이 국제회의 등으로 제3국에 갔다왔다.

총련은 이밖에도 재일동포들의 생활권옹호투쟁을 적극 벌렸으며 특히 상공인들의 기업권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기간 나가사끼에 새로 조합이 생기여 36개의 조합에 140개점포를 가지게 된 신용조합은 15만여명의 조합원과 4천 30여억원의 예금액을 가진 자주적인 민족금융기관으로 발전되였다.

총결기간 총련은 특히 재일동포들의 민족적권리와 민족적존엄을 지키는데서 중요한 사업인 민족교육사업에 큰 힘을 넣은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 기간에 총련은 재일동포들의 중등교육실시 30돐과 조선대학교 창립 20돐,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20돐을 뜻깊게 기념하였으며 이 과정에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의 우월성과 정당성을 내외에 크게 시위하였다.

총련의 교육일군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교육사상과 해외교포교육에 관한 사상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교시 《총련교육일군들의 임무에 대하여》를 관철하기 위하여 학습과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자신을 더욱 단련하였으며 교육방법 연구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교수교양의 질을 훨씬 높이였다.

총련은 현실에 맞게 각급 학교들의 교과서내용을 개편하고 학생들의 실력도 높이였으며 교육체계도 더욱 정비강화하였다.

이 기간에 조선대학교에 연구원을 설치하였으며 고급학교들에는 상업과를 새로 내왔다.

한편 학부형들속에서는 학교를 사랑하는 운동이 힘있게 벌어져 상잉 초중급학교, 아마가사끼조선초중급학교, 호꾸리꾸조선초중급학교를 비롯한 25개학교들이 새로 꾸려지고 학교의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갖추어졌다.

총련은 과학연구사업부문에서도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였다.

재일조선과학자들은 과학연구사업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워 총련애국사업과 조국의 주체과학, 주체공업에 이바지할수 있는 귀중한 연구성과들을 거두었다.

사회과학자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사업과 해석선전사업을 널리 진행하였으며 애국의 필봉을 높이 들고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죄행을 폭로 규탄하는 글들을 수많이 발표하였다.

자연과학자들의 연구사업도 한층 심화되여 세계적수준에 이른 귀중한 연구성과들이 많이 발표되였다.

의료부문일군들은 이 기간 새로 재일본조선인의학협회를 결성하였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은 민족앞에 영구분렬의 위험이 조성된 엄숙한 시기에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으며 각계각층 재일동포들속에서 민족단합사업을 강화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의로운 애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함으로써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사업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을 높이 받들고 총련은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통일위업을 앞당겨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총련은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조국통일방침들을 동포대중속에 널리 해설침투시킴으로써 그들 모두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애국과업수행에 한결같이 떨쳐나서도록 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돌렸다.

총련제10차전체대회에서 《조국통일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자》라는 구호를 제기한 총련은 총결기간 해마다 조국통일촉진월간을 설정하였으며 연설회, 강연회, 좌담회, 자동환동선전, 기동선전, 예술선전, 가두선전, 삐라살포, 전호방문운동, 서명운동, 도보행진, 출판물에 의한 선전사업 등 여러가지 형태의 운동을 벌려 일군들과 동포들을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 적극 조직동원하였다.

1974년에 총련은 6월 1일부터 9월말까지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는 애국운동월간》으로 정하고 연 20여만명의 동포들을 통하여 1천 수백만장에 달하는 선전물을 살포하는 등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만행을 견결히 규탄하였다.

또한 8월 25일부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5대방침을 높이 받들고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반대하며 대민족회의를 이해안으로 열데 대한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 호소를 적극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하여 여기에 14만여명의 동포들을 참가시키였다.

1975년에는 7월부터 10여만의 각계각층 동포들이 한달남짓한 기간 5천 300리길을 걸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핵전쟁도발반대,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거요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촉진 대행진》과 500만명의 서명운동을 군중적으로 크게 벌렸다.

총련은 특히 1976년 6월부터 9월까지 《조국통일촉진 분회강화 3개월운동》을 벌려 《판문점사건》을 일으켜 조선에서의 분렬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감행해나선 미제의 침략적본성과 박정희파쑈도당의 15년간의 매국적죄행, 부정부패행위를 낱낱이 까밝힘으로써 안팎의 원쑤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1977년에도 총련은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방침과 새로운 4개항목의 구국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총련제11차전체대회를 앞두고 5개월운동을 힘있게 벌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반대하며 미제침략군의 전면적이고 즉시적인 철거를 요구하고 《한》 미, 《한》 일 유착관계를 철저히 폭로하는 각종 선전사업과 대중투쟁을 강력히 밀고나갔다.

총련은 총결기간 《민단》 산하동포들과의 민족단합을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다.

총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주체

사상과 그를 구현한 조국통일방침,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덕성을 각종 선전수단과 호별방문을 통하여 《민단》 산하 동포들속에 널리 선전하는 한편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모임, 계층별 동포들의 교류모임, 때야유회를 조직하며 그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민단》 산하 동포들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경모의 정이 날로 더욱 높아지게 되였다. 그리고 그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감시와 통제를 박차고 민족분렬고정화책동을 반대하며 민족단합사업에 적극 떨쳐나섰다.

총련은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백방으로 지지성원하였다.

남조선의 민주인사들과 각계층 인민들이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새 전쟁 도발책동을 반대하여 용감히 일떠설때마다 총련은 그들의 정의의 투쟁을 고무하며 놈들의 책동을 견결히 규탄하는 군중적운동을 적극 벌렸다.

또한 일본을 오가는 각계층 남조선인민들을 동포애의 정으로 따뜻이 맞이하여 그들과의 련계를 더욱 강화하였다.

대외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총련은 또한 일본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줄기차게 벌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더 많은 지지와 동정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총련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에 정확히 립각하여 대외활동을 적극 벌림으로써 총결기간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총련은 총련제10차전체대회이후 《김일성저작집》 제6권, 《김일성주석담화집》을 비롯한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묶은 서적들 39점을 세계 여러나라말로 번역출판하여 일본과 여러나라에 보급한것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국제무대에서 더욱 빛내이였다.

또한 총련은 조국통일을 위한 국제적환경을 더욱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한 대외사업을 적극 벌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대렬을 늘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총련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유일정당한 조국통일방침을 널리 소개선전하는 한편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며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폭로분쇄하기 위한 대외선전사업을 힘있게 벌렸다.

또한 총련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과 매국배족행위를 철저히 폭로하여 괴뢰들을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국제적지원이 더욱 높아지도록 하며 《한》 일간의 유착관계를 규탄하는 여론이 더욱 높아지도록 하는 대외사업을 적극 진행하였다.

총련은 출판물을 통한 일상적인 선전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중요한 시기마다 기자회견, 강연회, 가두선전과 시위, 서명운동, 조국통일촉진대행진 등 여러가지 형태로 조국통일을 위한 국제적환경을 더욱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한 대외활동을 힘있게 벌리였다.

총결기간 세계 여러나라 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도 더욱 강화되였다.

총련은 영어, 프랑스어, 에스빠냐어로 된 《인민조선》 과 《조선자료》 등 많은 출판물을 세계 140여개나라의 각계 인사들속에 보급선전하고 세계인민들속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총련은 웽그리아, 뽈스까, 오스트랄리아, 벨가리아, 인도, 애급, 유고슬라비아, 알제리, 메히꼬, 영국,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카나다, 스리랑카, 가나, 수리아, 쏘련 등에서 열린 국제의회동맹, 세계민주청년련맹, 국제민주녀성련맹, 국제학생동맹, 국제민주법률가협회, 국제기자동맹, 세계과학자련맹, 세계교직원련맹, 아세아불교도평화회의 등의 국제회의에 연 25번에 걸쳐 자기대표단을 참가시켰다.

1977년에만도 총련은 각계층 대표단을 16개나라와 쏘련, 수리아, 카나다, 벨가리아, 오스트랄리아 등에서 진행된 8개 국제회의들에 보내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성원을 크게 불러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총련은 총결기간 산하단체들로 하여금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세계평화리사회 등에 새로 가맹하게 함으로써 9개의 국제단체에 가맹하여 국제기구들과 여러 나라 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였다.

총련결성 20돐에 즈음하여 32개나라로부터 54명의 각계 대표들이 일본에 와서 축하해준 사실은 총련의 대외적위신이 얼마나 높으며 그 국제적련대성이 얼마나 강화되고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총결기간 대외활동이 총련 중앙과 현본부에서는 물론 지부단위에서도 활발히 벌어졌으며 특히 분회단위에서 수백명을 망라한 조일친선운동이 여러지역에서 벌어진것은 총련의 대외사업이 대중화되였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이리하여 총련은 공화국의 해외공민단체로서 세계인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권위있는 조직으로 더욱 발전하였으며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교류와

단결을 강화하고 우리 인민의 지지자, 동정자 대렬을 한층 늘이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문학예술, 체육

총련제10차전체대회가 있은때로부터 총련제11차전체대회를 맞이한 1977년에 이르는 동안 총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문예사상을 높이 받들고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예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해내였다.

총련의 작가, 예술인들은 자기들이 창작한 노래와 춤 《수령님의 만수무강을 60만은 축원합니다》, 노래 《수령님 품속에 다시 안기여》, 《세금제도없는 새시대를 열어주셨네》, 무용 《공화국기발을 목숨으로 지키리》, 노래이야기 《붉은 한마음》 등을 가지고 조국을 방문하여 민족적대경사의 날인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일에 경애하는 수령님을 모시고 공연하였으며 그이의 높은 치하의 말씀까지 받는 더없는 영예를 지녔다.

재일조선 작가, 예술인들이 창작한 소설 《다시 찾은 해빛》, 《선물》, 시 《남녘땅에 눈이 내린다》, 가요 《인자하신 그 영상을 우러릅니다》 등 17편의 문학작품들은 조국에서 진행된 현상모집에 당선되기까지 하였다.

《조선은 하나이다》, 《매국노》, 《꽃피는 민족교육》 등 21편의 총련영화와 유화 《해상데모》, 조선화 《나도 한몫》 등 2,000여편의 문학예술작품들은 일군들과 동포들을 총련 애국과업수행에로 적극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총련은 예술영화 《금희와 은희의 운명》, 《압연공》, 《농민영웅》, 기록영화 《평양》 등 50여편의 영화를 지부와 분회, 일터와 학교마다에서 일상적으로 상영한것을 비롯하여 조국의 문예성과들을 동포들속에 널리 보급하였다.

총화기간 경애하는 수령님의 배려에 의하여 세계에 그 류례가 없는 해외예술인들의 가극단인 《금강산가극단》이 무어지고 조국에서 배운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 등을 일본에서 대성황리에 공연하였다.

이 기간 총련은 혁명가극 《금강산의 노래》와 음악무용종합공연을 500여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여기에 34개 나라 각계 인사들을 포함한 연 90여만명의 내외관중을 망라하였다.

이리하여 금강산가극단과 총련지방가무단들은 140여만명의 내외관중들을 대상으로 2,500여회공연을 진행함으로써 그들에게 사회주의조국에서 꽃피고있는 주체예술과 총련의 예술성과를 감동깊게 보여주었다.

1977년에만도 총련의 금강산가극단과 지방가무단들은 814회의 공연에 44만명의 내외관중들을 망라시켰다. 이해 영화상영에는 1,800여회, 14만여명의 내외관중들을 망라시켰다.

총화기간 총련은 체육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다.

총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체육사상을 높이 받들고 그를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 체육을 총련애국사업에 철저히 복무하는 애국적이며 대중적인 체육으로 더욱 발전시켰다.

총련은 우선 체육사업을 전동포적인 사업으로 철저히 전환시키기 위하여 총련의 지부와 분회, 학교와 일터마다에 축구, 배구, 탁구, 야구 등 체육소조를 새로 수많이 내왔다. 그리하여 동포들이 사는 모든곳에 1,500여개의 체육소조들이 무어지고 수많은 동포들이 이에 망라되여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벌려나가고있다.

총련은 또한 국가적인 명절과 기념일마다 각종 체육경기대회와 운동회, 야유회 등 다채로운 체육모임과 산하단체들의 계층별 체육활동을 보다 널리 벌렸으며 연 59만명의 광범한 동포들을 이에 망라시켰다.

총결기간 재일조선체육선수들은 주체적인 체육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체육기술을 한계단 높임으로써 대외경기에서 승리자의 영예를 계속 떨치였다.

재일조선축구단은 무어진이래 처음으로 사회주의조국을 방문하고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에 참가하였으며 대외친선경기에서 500승의 자랑찬 기록을 세웠다.

오사까조선축구단, 효고조선롱구단, 도꾜조선야구단을 비롯한 100여개의 종목별선수단도 일본의 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해마다 련속 우승의 영예를 떨치였다.

재일조선체육선수들은 특히 평양에서 열린 제3차아세아탁구선수권대회와 사회주의나라청소년국제유술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주체조선의 해외체육인의 기개를 높이 발휘하였다.

총련전체대회 일람

차 수	날 자
총련 결성대회	1955. 5. 25～5. 26
총련제2차전체대회	1956. 5. 28～5. 30
총련제3차전체대회	1957. 5. 27～5. 29
총련제4차전체대회	1958. 5. 27～5. 29
총련제5차전체대회	1959. 6. 10～6. 12
총련제6차전체대회	1961. 5. 23～5. 25
총련제7차전체대회	1964. 5. 25～5. 27
총련제8차전체대회	1967. 5. 24～5. 26
총련제9차전체대회	1971. 1. 28～1. 30
총련제10차전체대회	1974. 2. 23～2. 25
총련제11차전체대회	1977. 9. 26～9. 28

재일동포들의 조국방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다섯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조국을 방문하는 총련 금강산가극단 3월15일～6월7일

제28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 3월15일～4월5일

재일본조선무역상사일군대표단 3월

재일조선인축구선수단 3월31일～5월2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탄생 예순다섯돐 재일조선인축하단 4월8일～6월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탄생 65돐을 축하하는 60만 재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4월10일～5월24일

재일조선인건설사업대표단 5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20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 감사드리는 재일조선교육회일군대표단 5월14일～6월7일

제29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 5월14일～6월7일

제30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 5월29일～6월18일

총련분회일군대표단 6월18일～7월10일

제32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 6월18일～7월10일

제33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 7월18일～8월10일

제34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 7월18일～8월10일

총련에도가와지부및우에노제2분회대표단 8월13일～9월14일

총련지부일군대표단 8월16일～10월3일

제35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 8월16일～9월14일

제5차재일조선교육일군대표단 8월16일～10월3일

총련무역상사일군대표단 8월23일～9월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스물아홉돐 재일조선인축하단 9월6일～10월3일

재일본조선민주법률가협회대표단 9월6일～9월20일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참가할 재일조선인과학자대표단 9월8일～11월1일

재일조선출판보도일군대표단 9월30일～11월22일

제36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 9월30일～10월18일

제37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 9월30일～10월18일

재일조선설계일군대표단 10월

재일조선상공인조국방문단 10월22일～11월15일

총련일군대표단 10월25일～12월24일

제38차재일동포조국방문단 10월25일～11월26일

총련미에현기술일군조국방문단 10월29일～12월20일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결성 30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감사드리기 위하여 조국을 방문하는 재일조선녀성대표단 11월1일～12월18일

재일본조선인삼흥기연일군대표단 12월3일～12월27일

총련일군대표단 12월25일～1978년 3월15일

해외동포들의 투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해에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과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동포들은 민족적대단결의 원칙에서 힘을 합치고 굳게 단결하여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야 할것입니다.》 (《신년사》, 1977년, 13～14페지)

1977년에 해외 여러나라들에 살고있는 애국적인 조선동포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독재와 매국배족행위를 반대하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였다.

해외동포들은 대중적인 집회와 시위를 벌리고 항의성명을 내며 학술 및 종교단체들의 회의를 가지는 등으로 애국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리였다.

이해 1월 일본 도꾜에서 《민단》계 동포들이 미국의 정계와 언론계, 학계와 종교계에 호소문을 보내고 박정희역도의 퇴진을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벌린데 이어 2월에는 미국 워싱톤에서 재미교포들

이 집회를 가지고 《유신헌법》의 철폐와 박정희독재 《정권》의 즉시 타도,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반대하고 하나의 통일된 조선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리였다. 11월 26일 뉴욕에서는 《미주민주국민련합》의 주최밑에 수많은 교포들이 괴뢰총령사관앞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는 집회를 가진 다음 《위기에 빠져 발악을 하는 박정희독재를 타도하기 위해 최후의 일격을 가하자》, 《박정권물러가라》, 《민주화는 유신집단퇴진뿐》이라는 구호판들을 들고 거리에 떨쳐나와 힘찬 시위투쟁을 벌렸다.

또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의 캘리포니아주 산 버너디노에서는 100여명의 해외동포들이《북미한인기독교학자회》 제11차년례학술대회를 열고 《한국의 민주회복과 인권 문제에 관한 선언서》를 발표하여 감옥에 잡혀들어간 남조선의 모든 민주인사들과 청년학생들의 즉시 석방과 《긴급조치의 전면철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러한 해외동포들의 반독재민주화투쟁은 일본과 미국에서뿐아니라 카나다, 서독, 프랑스, 스웨리예 등 여러 나라들에서도 힘차게 벌어졌다.

이와 함께 해외동포들은 이해에 광범한 계층을 계몽시켜 투쟁에 궐기시키며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이며 범죄적인 죄행을 단죄하는 출판활동과 문예활동도 활발히 벌리였다.

《민족시보》, 《한민신보》, 《국민의 소리》, 《해외민보》, 《주체》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 여러지역에서 발행하고있는 신문, 잡지들은 이해에도 해외동포들의 민족애를 고취하는 내용과 남조선에서 벌어지고있는 반박정희투쟁을 소개하는 글들과 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를 폭로하는 글들을 두드러지게 편집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에 련대성을 보내며 광범한 해외동포들을 반박정희투쟁에로 적극 불러일으켰다.

또한 이미 《한민통》이 제작한 기록영화들인 《고발》, 《통일의 불꽃》 1, 2, 3부, 《고행—1974년》을 계속 상영하는 한편 《민중의 소리》 등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배족행위를 단죄하는 기록영화를 수많이 제작하여 상영함으로써 동포들은 물론 일본인민들속에까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해에 해외동포들의 애국운동에서 특징적인것은 그들이 비록 여러나라와 지역에 흩어져 살고있지만 조직적으로 공동투쟁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간것이다.

1월 15일 재미교포들은 미국에서 활동하고있는 반박정희투쟁단체들사이의 련계를 강화하고 공동투쟁을 벌리기 위하여 《한국민주화련합운동》이라는 투쟁단체를 새로 내왔다. 이 련합조직은 2월에 워싱톤에서 모임을 가지고 박정희괴뢰도당의 《유신》독재를 반대하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제1차통일행동을 벌렸으며 6개항목에 걸치는 투쟁과업을 내놓았다.

2월에 또한 서부독일의 《남북사회문제연구회》를 비롯한 교포단체들이 공동조직으로 《한국위원회》를 뭇고 남조선인민들의 반파쑈민주화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독재를 반대하는 련대적인 공동투쟁을 벌려나갔다.

일본과 미국, 구라파에서 살고있는 해외동포들은 이해 5월 《민주구국헌장서명운동 해외동포추진위원회》를 뭇고 남조선 각계 인사들의 《민주구국헌장》 서명운동에 적극 호응하며 지지와 련대성을 보냈다.

이 추진위원회는 세계 여러곳에 살고있는 추진위원 214명의 련명으로 된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유신체제》를 없애버리며 민주주의를 위하여 남조선인민들과 함께 싸우는것은 《해외동포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권리》라고 강조하고 《조국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위해서도 박독재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해외교포들은 도꾜, 뉴욕, 서부독일에 각각 이 추진위원회의 운동본부를 두며 그 밖의 주요 지역들에는 사무국을 각각 설치하고 서명활동을 넓혀나갔다.

또한 이해 6월 미국과 카나다에서 활동하고있는 10여개의 교포단체들은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는 《민주국민련합》을 조직할데 대한 남조선민주인사들의 호소에 호응하여 자기 단체들의 련합체로서 《미주민주국민련합》이라는 조직을 내오고 전체 해외동포들에게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포들의 국제적인 련합전선에 참가할것을 호소하였다.

해외동포들의 투쟁단체는 이밖에도 프랑스, 스웨리예, 단마르크, 노르웨이 등 여러나라들에 60여개나 조직되였다.

해외동포들은 투쟁과정을 통하여 자기들의 투쟁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고있는 해외동포들의 애국운동을 통일적인 조직체에 결속시켜 조직적인 공동투쟁을 벌리는것이 필요하다는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였다. 이로부터 그들은 오늘 긴급과제는 《련합전선을 구축하는것》이라고 하면서 해외동포들의 통일적인 투쟁단체를 내오기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벌려나갔다.

이와 같이 투쟁조직을 련합하려는 요구가 높아가고있는 가운데 이해 8월 도꾜에서는 반파쑈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해외동포들이 한자리에 모여 통일적인 투쟁단체를 내오기 위한 《해외한국인민주운동대표자회의》를 가지였다.

《해외한국인민주운동대표자회의》; 회의는 8월 12일부터 3일동안 진행되였다.

이 회의는 림창영(괴뢰정부의 이전 유엔대사이며 미주민주국민련합 의장), 정재준(일본거주 《김대중구출대책위원회》 위원장), 김재준(카나다거주

이전 《한국신학대학》 학장), 김재화(일본거주, 이전 《한국국회의원》, 《한민통》 일본본부 의장대리), 배동호(일본거주, 《한민통》 일본본부 상임고문), 윤이상(서부베를린대학 교수), 리룡운(미국거주, 이전 《한국》 해군참모총장), 김성락(이전 숭실대학 학장), 리희세(프랑스거주 화가)등 9명을 발기인으로 하여 소집되였다.

회의에는 발기인들을 비롯하여 일본, 미국, 카나다, 스웨리예, 단마르크, 서부독일, 오스트랄리아, 홍콩, 브라질, 프랑스, 영국 등의 나라와 지역들에서 온 대표들 34명과 재일 《민단》 계 교포인사 70여명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한민통》 일본본부 상임고문 배동호, 남조선괴뢰정부의 이전 유엔대사 림창영, 서부베를린대학교수 윤이상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한결같이 《유신》 체제를 박정희반역도당의 포악한 개인파쑈독재체제로, 악랄한 민족영구분렬체제로 준렬히 폭로단죄하고 남조선에서 《박독재정권을 퇴진시키고 민주련합정부를 건립하며 민주화를 실현하는것은 민족사의 절박한 요청》이며 민족분렬의 비극사에 종지부를 찍고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박독재정권의 존속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연설자들은 또한 《박독재를 반대하고 민주민족통일을 위한 구국운동의 가속적인 전진을 도모하자면 해외동포들이 굳게 단결하는것이 선행과제로 제기된다》고 하면서 민주민족통일운동의 전일적인 조직체인 《민주민족통일해외한국인련합》 (략칭 — 《한민련》)을 결성할것을 주장하였다.

회의는 일본반동들의 입국거부와 박정희괴뢰도당의 회의장습격 등 악랄한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8월 13일 드디여 《민주민족통일해외한국인련합》을 결성하고 림창영을 그 수석의장으로 하는 9명의 의장단을 선출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한민련》 의 국제사무국을 도꾜에 두고 여러나라들에는 각각 사무국을 두며 당면하게는 해외동포들의 단결을 강화하며 살고있는 해당 나라들에 박정희괴뢰도당에 대한 지원을 중지하도록 요구하는 운동을 벌리기로 하였다.

회의에서는 《한민련》 의 《최종행동목표는 민주의 지반우에서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실현하는것》 으로 하는 창립선언과 강령, 규약 그리고 《국내외의 모든 동포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한민련》 의 결성은 종전까지만하여도 해외 여러나라들에서 개별적 또는 분산적으로 벌리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보다 조직화하는데 중요한 계기로 되였으며 싸우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커다란 고무적힘을 주게 되였다.

그러므로 해외동포들은 《한민련》 의 결성을 열렬히 지지하며 그에 뭉쳐 싸워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8월 일본 도꾜에서 《한민통》 일본본부, 《민족통일협의회》, 《민단》 도꾜본부 등 8개의 《민단》계단체들의 공동주최로 《8. 15광복절 32주년기념민주민족통일해외한국인련합결성선포대회》 가 진행된것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500여명의 해외동포들이 참가한 이 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이 일치하게 새로 결성된 《한민련》 에 굳게 뭉쳐 박정희괴뢰정권을 퇴진시키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굴함없이 싸워나갈데 대한 결의를 다지였다.

《민주민족통일해외한국인련합》 강령

1. 우리는 본국(일본)과 해외 각계각층 동포들의 총집결로 광범위한 국민련합을 실현하고 현 유신독재정권을 제거하며 민주주의, 민족자주,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주련합정부의 수립을 기한다.

2. 우리는 유신헌법을 위시한 각종 악법과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일체 독재기구를 철폐하고 인권과 생존권의 보장, 정치활동,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신앙과 학문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제반 민주주의적기본권리의 확립을 기한다.

3. 우리는 군사력을 포함한 온갖 형태의 외세의 개입과 외세의존을 배격하고 민족자주권의 원칙을 고수하며 호혜, 평등에 립각한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기한다.

4. 우리는 대외예속적인 경제체제와 매판본위의 부패특권경제를 반대하고 민족산업과 국민경제의 자립적발전을 도모하며 부의 균등분배원칙에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서민대중의 생활안정과 향상을 기한다.

5. 우리는 민족고유의 전통문화를 침식하는 사대풍조를 배제하고 민족문화와 민족교육의 건전한 발전, 민족자주의식과 애국애족정신의 함양을 기한다.

6. 우리는 남북쌍방이 정치리념과 사상의 차이를 초월하고 사회체제를 상호존중하는 원칙에서 전민족적 화해와 대단결을 이룩하며 통일을 원하는 모든 세력의 폭넓은 대화의 광장조성을 기한다

7. 우리는 전쟁을 자극하는 남북간의 대결과 분단의 고정화정책을 반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7. 4공동성명의 3대원칙에 기초한 조국통일의 실현을 기한다.

8. 우리는 해외동포들과 교포단체들에 대한 일체의 박해와 탄압을 반대하고 제반민주주의적민족적권익을 옹호하며 동포대중의 굳은 단결과 생활안정을 기한다.

9. 우리는 반유신민주구국운동을 지지하는 세계 각국의 민주세력과의 친선단결과 국제적뉴대의 강화발전을 기한다.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
LONG LIVE THE GREAT JUCHE IDEA!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는것은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조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주체사상은 날이 갈수록 세계인민들속에서 더욱더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습니다. 그것은 주체사상이 자주성을 요구하는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부합되기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171페지)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공적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 수억만 인민들로부터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를 받고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그 위대성과 진리성, 불패의 생활력으로 하여 지구상의 모든 대륙, 모든 지역에 널리 퍼지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절대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세계인민들속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려는 열의가 높아가고있는 가운데 1977년에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위원회》,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등 여러가지 이름을 단 연구위원회와 연구소조들이 새로 결성되였다.

레바논에서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레바논인테리위원회》,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레바논녀성소조》가 새로 무어지고 일본에서 교직원《주체사상연구회련락협의회》가 새로 결성되였다. 또한 잠비아 수도에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유엔나미비아대학위원회》, 가이아나 수도에서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연구쎈터》, 부룬디에서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핀란드에 있는 칠레인들의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 《빠나마주체사상연구소조》 등도 새로 나왔다.

이딸리아에서는 3월에 주체철학국제연구소가 창립되였다. 창립모임에서 연설한 이딸리아국제관계연구소 총서기이며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문제연구소 총서기인 장까를로 엘리아 발로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철학을 연구하는 사업이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김일성주의를 연구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는 주체철학국제연구소창립을 선포한다고 긍지높이 말하였다.

일본청년주체사상연구회련락협의회 책임자 오가미 겡이찌는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서 《오늘 일본 전국각지에서는 200여개의 김일성주의연구소조가 활동하고있으며 주체사상연구전국련락회의에 망라되여 서로 련계와 협조를 강화하면서 발전하고있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세계인민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금치못하면서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그이의 존함과 결부시켜 부르는것을 최대의 영예, 끝없는 행복으로 간주하고있다.

이해에 시에라레온에서 《위대한 김일성주의과학연구소조》, 파키스탄에서 불로치스탄 《김일성주의연구소조》, 센드 《김일성주의연구소조》 등이 새로 무어졌다. 또한 라호르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김일성주석로작연구위원회》는 라호르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로, 레바논의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레바논인테리위원회》는 《김일성주의연구레바논인테리위원회》로,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레바논녀성소조》는 《김일성주의연구레바논녀성소조》로 이름을 바꾸고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나가고있다.

라호르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김일성주석로작연구위원회》를 라호르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어부르기 위한 모임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올린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주석각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세계혁명적인민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을 가질수 있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오늘 세계인민들의 투쟁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으며 주체사상에 의하여 완성된 혁명리론과 군중령도방법은 각하의 존함과 떼여놓고는 전혀 생각할수 없습니다.

각하의 혁명사상은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필수불가결의 요구를 반영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현시대의 요구와 우리 조직의 모든 성원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하여 우리 조직을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로 개칭할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개별적단위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적인 범위에서 연구되고있으며 많은 나라들에서 그것이 실천적으로 구현되고있다.

1977년에만 하여도 9월에 평양에서 73개 나라와 4개의 국제기구에서 온 89개의 대표단과 대표들의 참가밑에 성대히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를 비롯하여 일본에서 제10차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 주체사상에 관한 레바논전국토론회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을 기념하여 또고에서는 주체사상에 관한 전국토론회가, 가이아나에서는 주체사상에 관한 토론회가 각각 진행되였다.

또한 이해에 여러 나라들에 있는 주체사상연구소조성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연구토론회도 끊임없이 진행하였다.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려는 한결같은 지향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출판보급하는 사업이 전례없는 규모에서 활발히 벌어지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이해 상반년동안에만도 세계 90여개 나라들에서 수백종에 달하는 출판물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실었다. 일련의 나라들에서는 10종 지어 20여종에 달하는 신문, 잡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들을 실었다.

이해의 제반사실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자주성을 요구하는 세계수억만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으며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려는 그들의 절절한 지향과 념원을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다는것을 힘있게 립증해주었다.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

1977년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토론회는 사람들이 자주적으로 살것을 요구하는 시대적조류가 세계를 휩쓸고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려는 열의가 날로 높아가고있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을 반영하여 소집되였다.

1976년에 말가슈민주주의공화국의 수도 안따나나리부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과학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을 경축하여 평양에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를 가지기로 결정하였다.

토론회장 정면에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토론회에는 세계 73개 나라와 4개의 국제기구들에서 온 89개의 대표단들과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토론회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단과 통일혁명당대표단, 재일본조선인과학자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제5차재일조선교육일군대표단, 재일본조선민주법률가협회대표단, 우리 나라에 머무른 외국손님들이 토론회에 방청으로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전체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심정을 담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열광적인 환호와 끝없는 감격속에 채택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 조직위원회 명예위원장인 말가슈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디디에 라찌라까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 당, 국가 및 정부 지도자들, 정당, 사회단체 및 친선단체들, 주체사상연구소조들, 조선통일지지위원회들과 투쟁단체들, 국제기구들에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를 축하하여 보내여온 축전과 축하편지들이 참가자들의 우렁찬 박수속에 랑독되였다.

또한 토론회앞으로 보내온 축전과 축하편지들도 랑독되였다.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수리아아랍공화국 교육부장 박사 샤키르 알파함의 개막사에 이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의 축하연설이 있었다.

토론회에서는 토론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인민들을 승리에로 이끄는 위대한 지도사상》이라는 제목의 보고를 하였다.

그는 보고에서 《주체사상, 이것은 끝없이 심오하고 독창적이며 풍부한 사상리론적재부를 담고있는 백과전서적인 혁명사상》이라고 하면서 주체사상에서 기본을 이루는 문제들에 대하여 폭넓고 깊이있게 해설하였다.

보고에 이어 여러 나라 대표단단장들과 대표들이 토론하였다. 또한 많은 나라 대표들이 서면토론을 제출하였다.

토론회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열렬한 흠모와 끝없는 존경,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끓어넘치였다.

토론회에 참가한 모든 대표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평양국제토론회 전체 참가자들을 접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명깊게 말하면서 자기들에게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신 그이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뉴질랜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 전국부위원장은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고 그이의 위대성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였을 때 비로소 자기자신도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고 하면서 《가장 경애하는 수령이신 김일성주석께서 나와 대표여러분들을 접견해주시는 영광을 베풀어주신데 대하여 그이께 충심으로부터의 감사를 드리는바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하였다.

세네갈 다까르시 리사이며 시인인 부바까르 까마라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으신 명성은 아세아대륙을 넘어 온세상에 떨친다고 하면서 자기가 지은 시 《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 김일성 원수님께 드리는 송가》를 격조높이 읊었을 때에는 장내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경모의 정으로 세차게 끓이쳤으며 모두 일어서서 우렁찬 박수를 쳤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은 그이께 귀중한 선물과 축기를 드린데서도 나타났다.

라틴아메리카기자련맹 서기장은 8년전 바로 9월 18일 평양에서 첫 세계기자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때 위대한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세계 여러지역에서 온 200여명의 인사들을 만나주시고 인민들에게 복무하기 위하여 기자들이 할 과업에 대한 위대한 교시를 주시였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집필출판한 《김일성, 사회주의에 바치시는 한평생》이라는 책을 경애하는 수령님께 드릴것을 회의 의장에게 제의하였다.

일본주체사상연구학술대표단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 드리는 일본인민들의 경모의 마음을 담은 축기를 전달하였다. 축기에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김일성주석의 만년장수를 축원하는 글발이 수놓아져있었으며 그 뒤면에는 주체의 홰불이 타오르는 지구가 그려져있었고 《불멸의 주체사상 만세!》라는 글발이 새겨져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은 모든 토론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만세!》,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 《김일성, 주체》를 소리높이 웨침에 따라 온 토론회장에서 우뢰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오른데서도 표현되였다.

구라파에 있는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위원장이 토론을 끝내면서 《주체, 김일성》이라고 힘차게 웨친다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흠모하는 마음으로 모두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를것을 제의하자 전체 참가자들은 일어서서 열광적인 박수로 이에 호응하고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우렁차게 합창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은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 참가자들의 이름으로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 드리는 편지를 올린데서도 뚜렷이 나타났다.

토론회과정을 통하여 세계혁명적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얼마나 높이 우러러 모시고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고있는가를 잘 보여주었다.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주체, 김일성주의, 이는 우리 시대의 등대》, 《주체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은 로동계급과 혁명가들에게 모든 단계와 형태의 투쟁을 승리에로 이끄는 불패의 무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20세기에 세계를 움직이고 개혁하는 근본철학》, 《사회혁명의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혁명리론》, 《혁명의 가장 정확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밝혀주는 위대한 지도사상》, 《투쟁의 군기, 승리의 군기》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이에 대하여 리론적으로 분석하고 실천활동의 풍부한 자료를 가지고 론증하였다.

일조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 의장이며 일본주체사상연구학술대표단 단장인 야스이 가오루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그이의 존함과 결부시켜 불러야 할 근거를 리론적으로 해명하였다.

그는 1974년 10월 도꾜에서 진행된 《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에서 한 기본보고에서 김일성주석의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체계를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과 결부시켜 부를것을 제기하였는데 말가슈에서 있은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과학토론회》에서는 이를 지지하여 《이 독창적인 사상을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결부시켜 부르는것은 옹당한 일이라고 인정한다》는 선언을 채택하였다는것을 긍지높이 말하였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주체사상이 날이갈수록 세계 인민들속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으며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을 자주적인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전투적기치로 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토론자들은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구현하는 사업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앞으로 그를 더욱 깊이 학습하고 광범하게 해설선전함으로써 인민들의 념원과 기대에 보답하며 시대앞에 지닌 숭고한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해나갈 결의들을 다지였다.

레바논에 있는 《김일성동지로작번역 및 출판위원회》부위원장은 주체사상을 연구하며 김일성동지로작을 번역출판하는 모든 위원회들이 레바논에 모여 레바논에서 김일성주석의 로작들을 출판하고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그것을 신도록 하기 위한 연구소를 바이루트에 내올데 대한 준비적조치

를 취할것을 이미 결정한 사실을 전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들이 《주체는 리론과 실천이다》라는 책을 이미 출판하여 보급하였으며 《주체사상은 세계혁명을 승리에로 향도한다》와 《주체원칙에 기초한 조선통일문제해결》 등에 대한 연구회를 가진 사실을 자랑스럽게 전하면서 앞으로 이러한 연구토론문들을 아랍어를 비롯한 여러 나라말로 출판하여 세계 모든 나라들에 다 보낼것을 제의하는 동시에 모든 참가자들이 자기 나라에 주체사상연구소를 창설하고 더 광범한 지역의 대중에게 주체사상을 선전할것을 호소하였다.

미국에 있는 《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인 《가디언》지 행정부주필은 자기들이 김일성주석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우리 혁명에서의 주체에 관하여》 제1권을 출판하였으며 세계혁명운동과 국제공산주의운동에 관한 일련의 중요한 리론문제에 대한 로작들을 수록한 제2권도 출판하였다는것을 자랑스럽게 전하면서 이 책들은 미국에서 진행되는 사상전에서 중요한 무기로 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감비아인민진보당및정부대표단 단장은 자기토론에서 진보적인민들속에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려는 지향과 열망이 높아가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외국인류학생들을 위하여 조선의 대학들에 주체사상학부를 내올것을 제의하였다.

레바논에 있는 《김일성주의연구레바논위원회》 대표단 단장은 토론에서 주체사상을 심오히 연구체득하며 혁명과 건설에 구현하는것은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신성한 의무로, 보람찬 과업으로 된다고 하면서 주체사상연구를 위한 국제적인 전문과학연구소를 내와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11월에 자기 나라에서 김일성주의대회를 가지게 된다는것과 레바논에 김일성동지혁명사상전문보급소를 내온다는것을 알리면서 이 사업에 적극적방조를 줄것을 제기하였다.

일본청년주체사상연구회 련락협의회 책임자는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기구를 창설할데 대한 문제는 이제 더는 지체할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고 하면서 주체사상연구에 관한 국제기구를 내오기 위한 조직위원회를 조직할것을 제기하였다.

파키스탄 라호르《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 위원장인 파키스탄최고재판소 변호사는 이미 말가슈에서 있은 국제토론회에서 제기한대로 세계인민들의 념원을 담아 평양토론회에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적연구기구가 조직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조직위원회에서 토론회가 끝나기전에 그 실천대책을 세울것을 제의하였다.

또한 토론회 참가자들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확고히 지지하였으며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범죄적인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견결히 배격하고 규탄하였다.

시에라레온 《플라쉬》신문 주필은 자기 토론에서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모든 나라들에서 조선통일지지위원회를 결성하고 집회, 시위, 성명 발표 등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조선의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운동을 광범히 벌릴것을 호소하고 《양키는 물러가라!》라는 구호를 힘있게 웨쳤다. 모든 참가자들이 이에 호응하여 구호를 불렀다.

사하라아랍민주주의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은 모든 나라들이 남조선괴뢰들과의 관계를 끊을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할것을 제의하였다.

파키스탄 라호르《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 위원장인 파키스탄최고재판소 변호사는 토론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 그리고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채택된 4개항목의 구국방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할것을 제의하였다.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대표단 단장은 자기 토론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투적인 련대성을 표시하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데로 전세계인민들을 조직동원하기 위하여 《조선통일의 날》을 설정하자는것을 제기하였다.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리념으로 하는 통일혁명당이 주체의 기치밑에 조국의 통일과 새 정치, 새 생활을 위한 간고한 투쟁을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한 통일혁명당대표단 단장의 토론은 참가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가 토론을 마치고 연단에서 내리자 재일조선인과학자대표단 성원들이 그를 목마에 태웠으며 여러 나라 대표들이 달려나와 그를 뜨겁게 포옹하며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이 모든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숙원인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세계혁명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성원의 표시였으며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끝없이 고무하여주었다.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서는 참가자들의 일치한 제기와 지지찬동밑에 력사적인 평양선언이 채택되였다.

평양선언은 력사가 자주의 궤도를 따라 장엄하게 전진하고있다는것을 확증하고 자주시대의 요구를 구현하고있는 주체사상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며 인민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위대한 지도사상,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이라는것을 힘있게 천명하였다.

토론회는 주체의 진리를 탐구하며 연구체득하려는 인민들의 높은 열망과 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국제적조직창설의 성숙된 요구를 반영한 토론자들의 제기를 찬동하고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적인 연

구조직을 창설하기 위한 조직위원회를 9명의 성원들로 구성하였다.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를 끝내면서 토론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의 폐막사가 있었다.

4일동안 진행된 평양국제토론회 전과정은 력사의 새시대, 자주성의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주체사상의 심오한 철학적원리와 풍부한 내용, 그 정당성과 생활력을 다시금 확증하였으며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며 실천활동에 빛나게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 나선 우리 시대의 선각자들인 토론회참가자들의 확고한 지향과 높은 결의를 보여주었다.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 참가자들이 우리 나라 여러곳을 참관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참가하였던 여러나라에서 온 대표단들과 대표들은 우리 나라에 머무르는동안 평양시와 지방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손님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인류사상발전과 인민들의 혁명위업에 빛나는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안고 만수대언덕에 높이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에 꽃바구니를 드리고 그이께서 만수무강하실것을 삼가 축원하였다.

손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시여 어린시절을 보내신 유서깊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손님들은 만경대방문을 길이 기념하기 위하여 이 혁명의 성지에 나무를 심었으며 고향집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손님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투쟁력사와 그이께서 창시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을 보여주는 사료들과 사적물들이 전시되여있는 조선혁명박물관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손님들은 이밖에도 당창건사적관, 김일성종합대학, 인민경제대학, 중앙공업및농업전람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조선미술박물관, 평양학생소년궁전과 개성지구와 판문점을 비롯한 지방의 여러곳을 돌아보았다.

한편 그들은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즈음하여 인민문화궁전에 마련된 김일성동지로작전시관과 사진전시회를 돌아보았다.

손님들은 만수대예술극장에서 진행된 음악무용이야기 《락원의 노래》 공연을 보았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이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의 성과를 축하하여 차린 연회에 9월 18일 저녁에 초대되였다.

9월 19일 그들은 모란봉경기장에서 5만명의 평양시 학생소년들이 출연하는 대집단체조 《조선의 노래》를 보았으며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를 경축하는 평양시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의 성대한 야회에 참가하였다.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참가하였던 여러나라 대표들은 9월 22일 모란봉에서 뜻깊은 친선련환모임에 참가하여 즐거운 하루를 보냈으며 주체의 광휘로운 해발을 안고 자주의 새 사회를 건설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평 양 선 언

반제자주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진보적인민들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가 1977년 9월 14일부터 17일 사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세계 73개의 나라와 4개의 국제기구에서 온 89개의 대표단과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주체사상을 연구하며 자주,자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귀중한 성과들이 발표되였으며 가치있는 경험들이 교환되였다.

토론회참가자들은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 평양회의가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지향과 기대에 맞게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인정하며 이에 대하여 만족감을 표시한다.

우리는 토론회가 주체사상에 대한 리해와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고 주체사상을 우리의 실천활동에 성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서 새로운 리정표로 되였다고 인정한다.

우리는 토론회가 자주와 독립,새 사회 건설을 위하여 떨쳐나선 인민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였으며 진보적인민들사이의 리해를 두터이하고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확신한다.

토론회참가자들은 현시대가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력사의 새시대, 자주성의 시대라는것을 강조하였다.

지구상의 많은 나라 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고있으며 온갖 형태의 예속을 반대하여 투쟁하고 있다.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이 인민들을 제멋대로 억압하고 략탈하며 그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세계인민들이 자주성을 요구하며 수많은 나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이다.

토론회참가자들은 우리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주체사상이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라는것을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올바른 해답을 주는 과학적학설이

며 인민들을 승리에로 이끄는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주며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강력한 무기를 준다. 주체사상에 의하여 인민대중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 자기자신이며 자기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진리를 체득하게 되였으며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노예적굴종의 사상에서 벗어나 자기 운명의 주인된 자각과 자기 힘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이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류해방의 위업을 수행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앞길을 가리켜준다.

주체사상은 력사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게 하며 그들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양시키는 위력한 방법을 밝혀준다.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은 이미 실천에서 검증되였다. 오늘 주체사상은 거대한 견인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널리 파급되고있으며 지난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을 자주적인 새 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 시대에 타오른 주체의 홰불은 자주의 길을 따라 억세게 나아가는 인민들의 앞길을 밝게 비쳐주고있다.

우리는 온갖 형태의 예속과 착취를 청산하며 인민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헌신하고있는 선진투사들이며 선각자들이다.

우리는 이 기회에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 일떠선 세계 모든 나라 인민들에게 전투적인 련대성을 보내며 력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려보려는 제국주의자들과 식민주의자들, 지배주의자들을 준렬히 단죄한다.

토론회참가자들은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도당의 범죄적인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견결히 배격하고 규탄하면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확고히 지지하며 그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한다.

우리는 식민주의와 인종주의, 유태복고주의의 저주로운 철쇄를 끊어버리고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식민지예속국가 인민들의 민족해방위업에 확고한 지지와 련대성을 보낸다.

우리는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부강하고 문명한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낡은 국제질서를 마스고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신흥세력나라 인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우리는 자유롭고 행복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회주의나라 인민들에게 련대성을 표시한다.

우리는 자본의 예속을 반대하며 자주성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모든 자본주의나라 인민들과 착취와 억압이 없는 새 사회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의 모든 진보적인민들에게 전투적련대성을 표시한다.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려는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향은 날로 높아가고있으며 력사는 자주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구현하는 사업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앞으로 이 위대한 사상을 더 깊이 학습하고 광범히 해설함으로써 인민들의 념원과 기대에 보답하며 시대앞에 지닌 숭고한 임무를 영예롭게 수행할 확고한 결의를 표명한다.

토론회참가자들은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려는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을 반영하여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적인 연구조직을 내올데 대한 제의를 일치하게 찬동하였으며 이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하여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우리는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 평양회의에서 천명된 리념이 진보적인민들의 한결같은 찬동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리라는것을 확신한다.

자주성을 요구하여 투쟁하는 인민들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반제자주의 혁명적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제국주의도, 식민주의도, 지배주의도, 어떠한 착취와 억압도 없는 새 세계를 창조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자.

위대한 주체사상 만세!

1977년 9월 17일
평 양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참가한 대표단 및 대표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통일혁명당대표단
재일조선인과학자대표단
수리아아랍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
일본주체사상연구학술대표단
또고공화국 정부대표
말가슈민주주의공화국 정부대표단
꼬스따 리까사회당대표단
라틴아메리카기자련맹 서기장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대표단
말리공화국 정부대표단
가이아나협동공화국 정부대표단
산토메 프린시페민주주의공화국 정부대표단

우간다공화국 정부대표단
이라크아랍사회부흥당대표단
앙골라인민해방운동 대표
말따레이버당대표단
에스빠냐공산당대표단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대표단
짐바브웨애국전선대표단
노르웨이사회주의좌익당대표단
가나 《피플즈 이브닝뉴스》 신문 부주필인 가나기자협회 총서기
가봉민주당대표단
감비아인민진보당및정부대표단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라틴아메리카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 혁명활동력사및로작연구소조》 책임자
구라파에서 공부하는 아프리카류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책임자
구라파에 있는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위원장
기네-비싸우공화국 당및정부대표
까메룬전국기자동맹 및 까메룬농촌발전위원회 대표
꽁고로동당대표단
끼쁘로스사회당대표단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정부대표단
뉴질랜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 전국부위원장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대표단
르완다전국혁명발전운동 및 정부대표단
룩셈부르그변호사 알베르트 로메쉬
레바논에 있는 《김일성주의연구레바논위원회》 대표단
레바논에 있는 《김일성동지 로작번역 및 출판위원회》 부위원장
말따의 《말따뉴스》주필
모리셔스 포트루이스고등중학교 교장
미국에 있는 《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
부룬디민족통일진보당대표단
베닌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
베네수엘라중앙종합대학 철학부장
빠나마기자동맹 위원장
뻬루의 리마 싼 마르꼬스국립종합대학 교수 알베르또 따우로
사하라아랍민주주의공화국 정부대표단
상부볼따공화국 신문 《데 쑐레이 데 오뜨볼따》 사장
상부볼따공화국 발전애국련맹 재정책임자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대표단
서독텔레비존촬영가 페기날드 보이트베르부부
수단사회주의동맹대표단
스위스자주사회주의당대표인 스위스자주사회주의당 총비서대리
스위스진보조직대표단
스웨리예공산주의자좌익당대표단
시에라레온전인민대회당 대표
시에라레온 《플라쉬》 신문 주필인 시에라레온기자협회 부총서기
세네갈공화국 정부대표단
세네갈 다까르시 리사이며 시인인 부바까르 까마라
세이쉘공화국 정부대표단
아랍변호사동맹 대표
아랍만출판공보기구 총국장
아랍추장국련방 샤르과추장 공보고문인 《두바이》 방송국장
아프리카로조통일기구 제1부총서기
아랍작가이며 기자인 줄피카르 고메이씨
요르단주간지 《알싸하피》 사장 겸 주필
이딸리아 밀라노검찰소 부소장
이딸리아국제관계연구소 총서기
인도신문 《인디안 타임스》 주필 비슈와나스부부
애급 《알 굼후리아》 신문 부주필
에꽈도르사회혁명당대표단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전선통일정치조직대표단
예멘아랍공화국 정부대표
잠비아《데일리 메일》 신문 주필
적도기네민족유일로동당대표단
챠드공화국 정부대표
칠레좌익혁명운동 대표
파키스탄 라호르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 위원장
파키스탄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카라치위원회 서기장
팔레스티나해방조직대표단
프랑스 《김일성주석의 로작연구소조》 책임자인 《알프레드 에이벨》 출판사 사장

핀란드사회주의로동당대표단
탄자니아당및정부대표단
화란조선공보위원회대표단
화란기자 쟈프 반 긴네켄
희랍공산당(국내)대표단
전희랍사회주의운동(파쏘크) 대표
중앙아프리카제국 정부대표단
아르헨띠나로동자혁명당대표단
레유니옹로동총련맹 대표

또고전국주체사상에 관한 토론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을 기념하여 《또고전국주체사상에 관한 토론회》가 1977년 4월 13일부터 14일까지의 사이에 로메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토론회에는 또고인민련합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또고공화국 공보부장이며 토론회준비위원회 위원장인 꽈오비 벤니 죤손, 또고인민련합 중앙위원회 위원인 최고재판소 소장, 또고인민련합 중앙위원회 위원인 또고근로자전국동맹 총서기, 또고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 또고에 있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연구소조》 대표들, 또고근로자전국동맹대표단, 또고녀성전국동맹대표단, 베닌종합대학 대학생협회대표단 그리고 수많은 방청자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우렁찬 박수속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토론회에서는 또고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이며 토론회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인 쏘싸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에 대하여 개괄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보고에 이어 《주체사상과 농촌문제, 또고의 경험》, 《아세아와 세계를 이끄시는분이신 김일성주석에 대하여》, 《주체사상과 세계 인민》, 《주체사상과 농촌발전에 대한 반향》, 《주체사상과 민족공업》, 《주체사상의 철학적기초》, 《주체사상과 민족경제의 발전》, 《주체사상과 예술》, 《주체사상과 민족문화건설》 등의 제목으로 여러명의 대표들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그이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또고전국주체사상에 관한 토론회》 결의가 채택되였다.

결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존경하는 김일성주석각하께서 창시하시고 발전풍부화시키신 불멸의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가장 과학적인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는 혁명사상으로서 우리 시대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가장 정확한 해답을 주는 보편적인 사상이라고 우리들은 인정한다.

김일성주석각하의 혁명사상이 오늘 세계적으로 김일성주의로 불리우고있는것은 응당한 일이라고 우리들은 확언한다.

우리들은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옹호하여 나아가는 인민들의 투쟁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있는 혁명사상으로서 아프리카, 아세아, 라틴아메리카 인민들의 혁명투쟁의 지도적지침이라고 인정한다.》

또한 결의는 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준렬히 규탄하며 제국주의 군대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갈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한다고 지적하였다.

결의에서는 또한 토론회참가자들이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며 널리 해설선전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조직을 광범히 내오며 이러한 토론회를 계속 발전시켜나갈것을 결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주체사상에 관한 레바논 전국토론회

1977년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의 사이에 레바논의 수도 바이루트에서 주체사상에 관한 레바논 전국토론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토론회장정면에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토론회에는 레바논사회진보당 제1부위원장, 국회 사회로동사업위원회 위원장인 레바논사회진보당 부위원장, 대통령궁전 총국장, 레바논사회로동련맹 위원장대리, 잡지 《알 라이트》 편집국장을 비롯한 레바논의 이름있는 사회정치활동가들과 박사, 교수들, 신문사 사장들과 주필들, 출판총국장들, 여러 부의 공무원들, 레바논에 있는 연구소조 대표들, 학교 교원들 250여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 기관지 《알 하다프》 국장과 아랍만출판공보기구 총국장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토론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레바논국가 주악으로 시작되였다.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토론회에서 《김일성주의연구레바논위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샤우끼 아자미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먼저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가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을 보여주며 그의 불멸의 진리를 연구체득하는데 크게 기여한 하나의 중요한 국제적모임이였으며 주체사상의 승리를 경축하는 대축전이였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자는 우리 시대가 선행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력사발전의 새시대라고 지적하고 우리 시대 앞에 제기된 이 력사적과제는 주체사상에 의하여 비로소 빛나는 해결을 보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보고자는 계속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를 정중히 인용하고 주체사상의 기본을 이루는 몇가지 주요측면들과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밝혀진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에 대하여 깊이있게 해설하였다.

그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의 발견이 가지는 의의를 강조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이 기초하고있는 철학적원리로부터 출발하시여 주체사상의 심원한 내용을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보고자는 주체사상이 가지는 세계사적의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일성주의가 창시됨으로써 우리 시대의 요구에 옳바른 해답을 주며 세계에 대한 과학적인식과 개조의 승리를 확고히 담보하는 새로운 혁명적세계관, 힘있는 방법론이 마련되였으며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전략전술이 전면적으로 밝혀지고 체계화되였으며 대중령도의 본질과 제 원칙들이 완벽하게 밝혀지게 되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는 인류의 해방위업과 사상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온 력사적사변이다.

주체사상이 창시됨으로써 혁명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였으며 근로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참다운 길이 열리게 되였다.

참으로 불멸의 주체사상은 자주성을 요구하는 인류의 공통된 지향과 념원에 완전히 부합되는 가장 혁명적이고 과학적인 지도사상이며 매개 나라에서의 혁명의 승리와 세계혁명의 승리를 담보하는 가장 옳바른 지도적지침이다.》

보고자는 불멸의 주체사상은 끝없이 귀중하고 풍부한 사상리론적재부들과 그의 심오성과 독창성으로 하여 조선의 범위를 멀리 벗어나 우리 시대의 기본사조로서 날을 따라 세계 광범한 인민들속에 급속히 퍼지고있으며 그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은 우리 시대의 거창한 현실에 의하여 뚜렷이 실증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보고를 마치면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토론회 전체 참가자들의 한결같은 존경과 흠모의 정을 담아 최대의 감사와 영예를 드리며 그이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실것을 삼가 축원하였다.

보고에 이어 《김일성주의연구레바논위원회》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레바논에 있는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 책임자, 《김일성주의연구레바논인테리위원회》 성원을 비롯하여 14명이 연구토론을 하였다.

보고와 축하연설, 토론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이 언급될 때마다 참가자들은 오래동안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다.

토론회는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의 노래와 레바논국가의 주악으로 끝났다.

토론회에 앞서 토론회준비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전시회와 함께 사진전시회를 조직하였다.

한편 레바논의 신문사, 출판사들은 토론회가 진행되는것과 관련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그이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신문에 싣고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레바논 《런대성 서점》은 토론회를 계기로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보급하였다.

일본 제10차주체사상과학 토론전국집회

제10차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가 《김일성주석저작연구회전국련락회의》와 일조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의 공동주최로 1977년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전국집회에는 40여개 도, 도, 부, 현에서 온 500여명의 교원 《주체사상연구회》 성원들과 청년 《주체사상연구회련락협의회》 성원들,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로동자, 청년학생, 지식인, 학자, 문화인, 녀성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에는 또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이 초대되였다.

집회에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우렁찬 박수속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집회에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연구를 깊이하여 그 위대한 진리를 력사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속에 널리 보급하자》라는 제목으로 일조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 의장이며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연구소 조직위원회 위원장인 호세이대학 교수 야스이 가오루가 기본보고를 하였다.

그는 기본보고에서 1977년 9월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서 거둔 중요한 성과와 깊이 련관시키면서 일본에서의 주체사상연구활동의 발전과정과 현실태,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어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대하여 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던 《김일성주석저작연구회전국련락회의》 사무국 차장 하나와 후지오가 보고하였다.

그는 일본주체사상연구학술대표단이 공화국에 머무르는 동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온 감동적인 사실과 국제토론회에서 한 보고와 토론들에 대하여 자세히 소개하였다.

집회에서는 《조선사회주의헌법의 국가적 및 국제적 의의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일조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 회원인 와세다대학 교수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오사까교원 《주체사상연구회》대표가, 《조선의 통일과 오끼나와문제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끼나와 청년 《주체사상연구회》대표가 각각 연구보고를 하였다.

연구보고들은 위대한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내용을 전개하였으며 이 집회를 계기로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활동을 더욱 깊이있게 널리 벌릴데 대한 결의를 표명하였다.

집회에서는 또한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주체사상연구활동과 보급사업을 줄기차게 벌려온 15명의 대표들이 활동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들은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수년동안에 주체사상이 광범한 일본인민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커다란 견인력과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는 현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주체사상연구소조들이 늘어나고 그 활동이 크게 발전한데 대하여 한결같이 지적하였다.

보고자들은 일치하게 위대한 수령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였다.

집회에서는 집회이름으로 된 호소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호소문에서는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학습에서 더욱 전진을 가져오며 주체사상을 더 광범히 보급선전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일본 제3차청년주체사상연구회전국집회

제3차청년주체사상연구회전국집회가 일본청년주체사상연구회련락협의회의 주최로 1977년 11월 19일 일본 도꾜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집회에는 일본의 여러 지역에서 온 200여명의 일본청년들이 참가하였다.

집회에서는 일본청년 《주체사상연구회련락협의회》 책임자 오가미 겡이찌가 기본보고를 하였다.

그는 기본보고에서 1974년 5월 26일 청년주체사상연구회련락협의회가 조직된 이후 청년들속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널리 소개선전한 경험과 성과들에 대하여 자세히 지적하고 일본의 47개 도, 도, 부, 현마다에 연구조직을 내올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그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과 주체사상을 실천활동에 구현한 생동한 모범들에 대하여 개괄하였다.

또한 그는 앞으로의 투쟁방침과 주체사상연구회를 대중적으로 조직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지적하고 일본 도꾜에 새로 내오는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연구소의 활동에 적극 기여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는 끝으로 위대한 주체사상을 연구체득하는 높은 긍지와 영예를 안고 앞으로도 불멸의 주체사상을 투쟁의 지침으로 삼고 끝까지 싸워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집회에서는 이어 여러 지역의 연구회 활동에 관한 보고들이 있었으며 경험들이 교환되였다.

지방대표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에 접했을 때의 크나큰 감격에 대하여 격조높이 말하고 각계각층 일본청년들속에 주체사상을 알려주고 그것을 자기들의 생활과 실천활동에 빛나게 구현하여 거둔 성과들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보고자들은 한결같이 위대한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만수무강을 삼가 축원하였다.

주체사상에 관한 토론회 일람 (1977년까지)

	토론회 이름	진행된 곳	날자
	세계 및 지역 토론회		
1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과학토론회	말가슈 안따나나리부	1976.9. 28～30
2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	조선 평양	1977.9. 14～17
3	《중근동지역 김일성동지의창조적주체사상연구토론회》	레바논 바이루트	1971.12. 20～22
4	《전아프리카 김일성동지주체사상토론회》	시에라레온 프리타운	1972.12. 18～20
5	《중근동및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에 관한 과학토론회》	소말리아 모가디쇼	1973.11. 19～21
6	《김일성주석의 농촌테제발표 10돐을 기념하는〈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제3세계인민들의 과업〉에 관한 과학토론회》	또고 로메	1974.10. 2～4
7	《라틴아메리카 주체사상과학토론회》	뻬루 리마	1975.10. 17～18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전국토론회		
1	제4차주체사상연구전국토론집회	일본 도꾜	1974.4. 14
2	《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	일본 도꾜	1974.10. 13
3	제6차주체사상과학토론 전국집회	일본 도꾜	1975.5. 25
4	《조선로동당창건30돐기념 주체사상 과학토론전국집회》	일본 도꾜	1975.10. 26
5	주체사상 토론회	끼쁘로스	1975.12. 21
6	제8차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	일본 오사까	1976.4. 25
7	《주체사상에 관한 제1차전국과학토론회》	꼬스따 리까 싼 호쎄	1976.8. 20～21
8	제9차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	일본 도꾜	1976.11. 13～14
9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각하의 탄생 65돐기념 또고전국주체사상에 관한 토론회》	또고 로메	1977.4. 13～14
10	주체사상에 관한 레바논전국토론회	레바논 바이루트	1977.11. 12～13
11	제10차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	일본 도꾜	1977.11. 19～20
12	제3차청년주체사상연구회전국집회	일본 도꾜	1977.11. 19

주체사상연구소조 결성 및 활동
(1977년)

1월

11일 핀란드조선협회 《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 성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연구발표모임을 가짐.

28일 레바논의 바이루트에서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레바논인테리위원회》 결성.

29일 일본의 고베에서 제1차주체사상연구과학토론효고현집회 진행.

2월

4일 레바논의 바이루트에서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 레바논녀성소조》 결성.

7일 파키스탄에서 라호르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김일성주석로작연구위원회》를 라호르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로 고침.

▲레바논 두웨리에 《김일성동지사상연구위원회》 성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인민군창건에 즈음하여》에 대한 연구모임 진행.

18일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에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 유엔나미비아대학위원회》결성.

▲애급의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팔레스티나인들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위원회》에 새로운 성원들을 받아들이는 모임 진행.

2월 일본의 교도부안의 로동자, 사무원, 학생들이《김일성저작연구회》를 뭇고 첫 학습모임을 진행.

3월

20일 이딸리아의 마젠따시에서 주체철학국제연구소 창립.

26일 일본에서 제10차주체사상과학토론 도꾜집회 성대히 진행.

28일 레바논에서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레바논인테리위원회》를 《김일성주의연구레바논인테리위원회》로 고침.

4월

1일 중근동에 있는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연구위원회》를 중근동에 있는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로 고침.

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을 기념하여 아프리카에 있는 르완다인 《김일성사상연구소조》성원들과 아프리카에 있는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성원들이 《김일성동지략전》에 대한 련합연구모임 진행.

3일 일본 오사까에서 제1차깅끼지구주체사상과학토론집회 진행.

▲ 이라크의 바그다드종합대학에서 공부하고있는 팔레스티나학생동맹 성원들이 위대한 주체사상에 관한 연구토론회 진행.

5일 레바논의 바이루트에서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레바논녀성소조》를 《김일성주의연구레바논녀성소조》로 고침.

6일 스웨리예의 스톡홀름에서 칠레인들인 로드리고 전우들의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연구소조》가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하여》에 대한 연구토론회 진행.

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서아프리카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 성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략력에 대한 토론회 진행.

8일 부룬디 수도 부줌부라에서 부룬디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결성.

1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을 기념하여 토고의 수도 로메에서 주체사상에 관한 전국토론회 진행(14일까지).

▲ 헬싱키에서 핀란드에 있는 칠레인들의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결성.

1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가이아나의 죠지타운에서 주체사상에 관한 토론회 진행.

5월

30일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있는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 성원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위원회》가 보천보전투승리 40돐에 즈음하여 회상기 《보천보전투》에 대한 발표모임 진행.

31일 보천보전투승리 40돐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창립 50돐에 즈음하여 구라파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프리카학생들의 《김일성동지혁명철학연구소조》와 모리셔스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말가슈학생들의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소조》, 아프리카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소말리아학생들의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가 보천보전투에 대한 련합연구학습토론회 진행.

6월

1일 시에라레온 수도 프리타운에서 알버트 아까데미중학교 교원 및 학생들이 《위대한 김일성주의연구소조》결성.

2일 보천보전투승리 40돐에 즈음하여 애급 및 중근동지역주재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대표부 성원들의《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성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일제를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할데 대하여》에 대한 연구토론회 까히라에서 진행.

10일 가이아나에서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연구쎈터》결성.

1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모든것을 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를 발표하신 기념일에 즈음하여 레바논의 사이다시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전람회 개막.

25일 부룬디에 있는 르완다인《김일성사상연구소조》성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민족의 분렬을 방지하고 조국을 통일하자》에 대한 연구모임 진행

26일 일본 도꾜에서 제1차 일본교직원《주체사상연구회》진행.

7 월

10일 일본에서 제1차 오사까교원 《주체사상연구회》 진행

18일 일본선박 《도요마루》선원들이 남포항에서 《김일성주의연구회》 결성.

23일 레바논의 비까주 발바크시에서《김일성주의연구레바논위원회》와 레바논 비까주 발바크청년문화구락부가 공동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전시회 및 사진전람회 개막.

24일 레바논의 사이다시에서 사이다시 과학및문화구락부 《김일성도서관》 개관.

29일 빠나마에서 《빠나마주체사상연구소조》결성.

8 월

12일 스웨리예의 스톡홀름에서 칠레인들인 로드리고 전우들의《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연구소조》성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발표 10돐 기념연구모임 진행.

2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발표 10돐에 즈음하여 알제리에 있는 브라질인들의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와 칠레인들의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성원들이 련합연구모임 진행.

9 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29돐에 즈음하여 서아프리카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가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일본방송협회취재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 대한 연구토론회 진행.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29돐에 즈음하여 레바논의 바이루트에서 《김일성주의연구레바논인테리위원회》, 《김일성주의연구레바논녀성소조》, 레바논에 있는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가 련합연구모임 진행.

1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 평양에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 진행(17일까지), 평양선언 채택.

10 월

4일 조선로동당창건 32돐에 즈음하여 가이아나의 죠지타운에서《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연구쎈터》가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대한 연구토론회 진행.

7일 조선로동당창건 32돐에 즈음하여 핀란드조선협회《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가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 대한 연구모임 진행.

10일 프리타운에서 시에라레온 《위대한 김일성주의과학연구소조》 결성.

11 월

6일 파키스탄의 불로치스탄주 쿠웨타시에서 불로치스탄 《김일성주의연구소조》 결성.

8일 일본 도꾜에서 가이세이해운통상주식회사 《김일성주석로작애독회》 결성.

12일 레바논의 수도 바이루트에서 주체사상에 관한 레바논전국토론회 진행(13일까지).

17일 핀란드조선협회 《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 성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대한 연구모임 진행

19일 일본 도꾜에서 제10차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 진행(20일까지)

▲ 일본 도꾜에서 제3차청년주체사상연구회 전국집회 진행.

26일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서 알제리에 있는 브라질인들의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성원들과 칠레인들의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성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대한 련합연구모임 진행.

12월

1일 파키스탄의 카라치에서 씬드 《김일성주의연구소조》 결성.

11일 부룬디 수도 부줌부라에서 부룬디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 결성.

25일 파키스탄 라호르 《주체사상연구소조조정위원회》를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로 고침.

28일 이라크에 있는 팔레스티나해방인민전선 《김일성동지로작및혁명력사연구위원회》성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대한 연구토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에 대한 국제적반향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주체사상이 세계의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는것은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이 자주성을 요구하는 세계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에 부합되기때문이라고 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111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연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는 로동계급의 혁명주권건설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고 집대성한 불후의 기념비적문헌이며 사회주의정치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위대한 강령이며 제국주의반동들의 반공소동을 폭로분쇄하는 예리한 사상리론적무기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연설은 그 독창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물론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 통신, 방송, 신문들이 널리 보도하였으며 광범한 반향을 불러일으키였다.

중국의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광명일보》, 《해방군보》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력사적인 연설의 상세한 요지를 크게 보도하였다.

《인민일보》는 《김일성주석께서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중요한 연설을 하시였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실현하자. 조선인민이 6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 사회주의의 물질적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공화국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자》라는 제목을 달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의 상세한 요지를 실었다.

쏘련을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 서방의 통신, 방송, 신문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연설에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에 대하여 언급하신 부분과 제국주의자들이 《민주주의》와 인권의 《옹호자》로 자처하면서 사회주의제도를 비방하고 있는것을 규탄하신 부분을 광범히 보도하였다.

쏘련신문 《이즈베쓰찌야》는 《김일성동지의 연설》이란 제목밑에 《김일성동지께서는 자기 연설의 많은 부분을 인권에 관한 부르죠아선전을 비판하시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회주의나라들에 대한 그들의 비방중상을 비판하는데 돌리시였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민주주의》의 반동적본질과 사회주의적민주주의의 정당성에 대하여 언급하신 부분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따쓰》통신과 《쁘라우다》지, 로므니아 《쓰끄떼아》, 《로므니아리베러》, 《쓰끄떼아 떠네레둘루이》신문, 체스꼬슬로벤스꼬신문 《루데 쁘라보》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주간신문 《호리존트》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보도하였다.

웽그리아사회로동당기관지 《네프싸바드샤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을 소개하면서 김일성주석께서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적민주주의를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에 구체적으로 언급하시고 새 7개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시였다고 썼다.

여러 나라 통신, 방송, 신문들은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2차 7개년계획에 대하여 밝히신 부분을 널리 보도하였다.

꾸바신문 《그란마》는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2차7개년계획의 기본과업을 제시하시였다》라는 제목밑에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내용을, 뽈스까신문 《뜨리부나 류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7개년계획과제》라는 제목밑에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요지를 실었다.

라오스중앙방송과 《시앵 파싸쏜》지도 연설의 제2차 7개년계획부분을 보도하였다.

일본의 주요신문인 《마이니찌신붕》은 《1984년까지에 생산을 2배이상으로—7개년계획》, 《도꾜신붕》은 《래년부터 새로운 7개년계획, 생산배가를 지향, 김일성주석께서 연설》, 《아사히신붕》은 《새로운 7개년계획의 목표를 발표, 래년부터 착수》, 《요미우리신붕》은 《생활향상을 강조, 김일성주석께서 연설》, 《산께이신붕》은 《현대화, 과학화를 촉진, 래년부터 제2차 7개년계획, 김일성주석께서 연설》 등의 제목을 달고 그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연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를 소말리아, 잠비아, 수단, 인도, 수리아, 말가슈, 네팔, 파키스탄, 세네갈, 방글라데슈, 탄자니아, 꽁고, 애급, 버마, 감비아, 세이쉘, 가이아나 등 세계 수많은 나라 통신, 방송, 신문들이 광범히 보도하였다.

소말리아신문《선봉》, 잠비아신문《잠비아 데일리메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전문을 실었다.

한편 인도, 방글라데슈, 뻬루 등 여러 나라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책으로 출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연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는 세계의 진보적사회활동가들과 혁명적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수단 《김일성주의연구소조》를 비롯하여 민주예멘, 부룬디 등 여러 나라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력사적인 연설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자》에 대한 학습토론회, 연구토론회, 연구모임들이 위대한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대한 국제적반향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국가의 혜택으로 전체 인민이 다 공부하는 〈교육의 나라〉, 〈배움의 나라〉입니다.》(《김일성저작선집》, 6권, 347폐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사회주의교육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전면적인 과학적해답을 준 백과전서적인 문헌으로서 우리 인민들뿐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 특히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새 사회 건설에 떨쳐나선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크나큰 고무와 신심을 안겨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가 발표되자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는 《최고봉의 교육리론》, 《위대한 교육강령》, 《교육총서》, 《귀중한 재부》, 《교육대강》으로 그를 높이 칭송하면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인도신문 《인디안 엑스프레스》, 《패트리오트》, 《스테이츠맨》, 잡지 《인도조선친선》, 소말리아신문 《선봉》을 비롯한 세계의 권위있는 출판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그이의 로작 전문을 실었으며 잠비아신문《잠비아 데일리 메일》, 세네갈신문 《솔레이》, 네팔신문 《미러》, 《아르판》, 방글라데슈신문《홀리데이》, 시에라레온신문 《싼디플라쉬》, 《위온》, 《비지니스 쿼터리》, 예멘아랍공화국 잡지《아드와 알 예멘》, 뻬루주간잡지 《마르까》 등은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그이의 로작의 부분별전문을 실었다.

그리고 중국신문 《인민일보》, 《광명일보》, 《해방군보》를 비롯하여 로므니아잡지 《루메아》,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주간신문 《호리존트》, 수리아신문 《알 우쑤부우 알 리야뒤》, 《알 바아스》, 핀란드신문 《칸산 우우티세트》, 광고신문 《광고생활》 등 여러 신문들과 잡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요지를 상세히 실었다.

또한 영국 《로이터》, 프랑스 《에이에프피》, 미국 《유피아이》, 라오스 《파테트 라오》통신들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광범히 전하였다.

한편 꼬스따 리까, 핀란드, 버마, 스웨리예, 미국 등 여러 나라들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을 책으로 출판하였다.

수리아신문 《알 우쑤부우 알 리야뒤》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는 지난시기 조선의 교육사업에서 이룩한 훌륭한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작성된 사회주의하에서의 교육에 관한 기본 강령》이라고 하면서 《조선에서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여 모든 청소년들이 로동할 나이까지 무료로 공부하고있다》고 썼다.

프랑스 통신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전원회의 심의에 제출하신데 대하여 보도하면서 《김일성주석께서는 이 테제를 집필하시게 된 취지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가 사회주의교육을 발전시킬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는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다》고 지적하였다.

파키스탄잡지 《나키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이신 김일성원수님께서 발표하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라는 제목으로 쓴 잡지사주필의 글에서 《이 테제는 인류의 교육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주체적교육사상을 집대성한 위대한 력사적문헌이며 완성된 교육학의 불후의 위대한 백과전서이다》라고 썼다.

이딸리아신문 《빠에제 쎄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해설하는 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교육, 사람들은 자력갱생의 정신을 배운다》라는 제목에서 이딸리아와 서구라파나라들을 포함하는 거의 모든 나라들이 학교체계, 교육방법, 문화분야에서 더욱더 큰 위기를 겪고있을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새로운 교육강령은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에서 실시되고있는 교육에 비할수 없는 우월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여러 나라 정계를 비롯한 광범한 사회계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높이 칭송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높이 칭송하여 일본도꾜대학 대학원 연구원 미조구찌 사다히꼬는 《최고봉의 교육리론》이라는 제목의 론문을 발표하였다.

인도, 핀란드, 파키스탄 등 여러 나라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대한 연구토론회, 련합연구토론회, 연구발표모임, 연구모임들을 조직하였다.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의 강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해에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인 대외정책과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우리 혁명의 국제적 련대성이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우리 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발전하였으며 우리의 혁명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렬이 훨씬 늘어났습니다.》(《신년사》1978년, 단행본, 6페지)

1977년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위업을 지지하는 목소리들이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세차게 울려퍼지고 우리의 지지자, 동정자 대렬이 끊임없이 늘어났다.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원칙과 방침을 구현하여 1월 평양에서 진행된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가 내놓은 4개항목의 구국방안에 전적인 공감을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세계의 수많은 나라의 국가 및 정부 수반들, 진보적 정당, 조직들의 책임일군들, 저명한 사회활동가들, 조선인민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위원회들, 여러 군중집회 참가자들은 전문, 편지 등을 올리여 위대한 수령님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는 동시에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제시하신 우리 공화국의 조국통일방침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이해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당, 정부 및 기타 대표단들, 각계의 저명한 인사들이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고 앞으로도 우리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노력할것이라고 하였다.

수많은 나라의 진보적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이 우리 당과 우리 나라의 해당한 사회단체들에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전문과 편지들을 보내왔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민족위원회들과 지방위원회들 그리고 련대성단체들은 여러 계기들을 리용하여 성대한 련대성 집회, 시위 등을 조직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이였다.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은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전례없이 높아졌다.

위대한 수령님께 이 월간에 즈음하여 라오스, 애굽, 부룬디, 말가슈, 알제리, 베닌, 모잠비끄, 적도기네, 수단, 소말리아, 이라크, 말리, 수리아, 앙골라, 민주예멘, 예멘아랍공화국, 꽁고, 산토메 프린시폐 등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에스빠냐공산당 총비서, 스웨리예공산주의자좌익당 위원장, 단마르크사회인민당 위원장, 노르웨이사회주의좌익당 총비서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의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과 친선단체들, 국제민주단체들, 각계인사들로부터 290여건의 련대성 전문과 편지를 보내왔다.

또한 우리 당과 우리 나라의 해당한 사회단체들에 90여건의 련대성전문을 보내왔다.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대규모적인 군중집회, 시위를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련대성행사들이 널리 벌어지고 국제민주단체들과 친선단체들, 련대성조직들과 여러 나라의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 이름있는 각계인사들, 출판물들과 통신, 방송들은 성명, 호소문, 결의문, 항의문 , 담화 등을 발표하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의로운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이해에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널리 진행된 반미공동투쟁월간행사와 관련된 련대성조치는 100여개 나라에서 1천 600여건에 달하였다.

이와 같은것은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성원하는것이 시대의 막을수 없는 흐름으로 되였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련대성운동은 세계 모든 지역의 많은 나라들에서 활발히 전개되였다.

일본에서는 1977년 12월 27일현재 일본 여러지역의 804개의 지방자치체 의회들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결의와 의견서들이 채택되였다.

세계적으로 광범히 그리고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군중적운동에 기초하여 2월에 벨지끄의 브류쎌에서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대회가 《조선은

하나이다》라는 구호밑에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세계의 68개 나라들에서 온 당, 정부, 사회단체들의 대표단들,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위원회 대표단들과 대표들, 여러 나라의 많은 국회의원들, 저명한 민주인사들 170여명이 참가하였다. 대회는 조선문제가 세계에서 가장 중심문제의 하나이라고 강조하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욱 높일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특히 대회기간에 대회국제준비위원회는 대륙별 대표들의 협의회를 가지고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국을 조직하고 국제련락위원회가 정식으로 조직될 때까지 그 사업을 맡아보기로 하였다.

이에 뒤이어 6월에는 알제리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제1차회의를 진행하고 브류쎌회의의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으로써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였으며 그 규약과 1977—1978년도 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 행동강령은 조선의 통일지지운동대렬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벌리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광범한 여론을 불러일으키며 1978년에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대회를 소집할데 대하여 계획하였다.

10월에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상설서기국이 빠리에서 문을 열었다.

상설서기국은 외세의 간섭이 없이 조국을 자주적으로 평화적방법에 의하여 통일하려는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는것을 그의 기본사명으로 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11월에는 일본 도꾜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제2차세계대회를 1978년에 소집할데 대한 준비사업문제를 토의하는 간담회가 진행되였다.

또한 일본 도꾜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녀성국제회의,《한국민주화국제련대성위원회》결성회의, 이딸리아의 로마에서 《조선의 평화적통일문제에 관한 이딸리아민주세력들의 회의》 등 조선인민과의 련대성회의들이 진행되였다. 미국에서도 《미국의 대한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요구하는 국제회의》, 《조선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회》 등이 진행되고 미국의 조선정책이 하나의 조선이라는 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쁠럭불가담국가조정위원회 회의, 유엔총회 제32차회의, 국제학생동맹 제12차대회, 세계평화건설자대회, 원수폭금지세계대회 국제회의,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상무위원회 제5차회의, 녀성국제평화자유련맹 제20차총회를 비롯하여 수많은 국제회의들에서 조선의 분렬을 반대하고 통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있게 울려나왔다.

국제적규모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운동이 이처럼 줄기차게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1977년에만 하여도 프랑스, 버마, 방글라데슈, 오스트랄리아, 민주예멘, 세네갈, 부룬디, 나미비아, 에티오피아, 노르웨이, 뽀르뚜갈, 가이아나 등 10여개 나라들에서 60여개를 헤아리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조직들이 새로 무어졌다. 이리하여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민족위원회들과 지방위원회들은 60여개나라에 120여개에 달하였다.

일본에서만 하여도 1976년 6월에 중앙적인 규모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일본위원회가 무어진데 이어 1977년까지 불과 1년반이라는 짧은기간에 혹가이도로부터 오끼나와에 이르는 47개의 도, 도, 부, 현들가운데서 40개 도, 부, 현들에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위원회들이 결성되였다. 이것은 조선인민의 통일위업을 지지하는 운동이 얼마나 넓은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었다.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보다 유리한 국면을 열어주는 이와같은 사태발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과 자주적이며 원칙적인 대외정책의 정당성과 그 거대한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하여 주었다. 동시에 이것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해 힘차게 싸우고있는 조선인민에게는 커다란 고무로 되며 조선의 분렬을 고착시키려고 꿈꾸고있는 원쑤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으로 되였다.

우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가 더욱 높아지고 우리 혁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이 이처럼 강화된 반면에 외세에 빌붙어 온갖 매국배족행위를 일삼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은 이해에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되여 《국제고아》로서의 가련한 몰골을 그대로 드러내놓았다.

특히 4월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미국의 대한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요구하는 국제회의》와 11월에 프랑스의 수도에서 열린 남조선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법률가위원회 제2차회의는 나라의 분렬을 영구화하고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며 남조선에서 파쑈적폭압에 미쳐날뛰는 박정희괴뢰도당을 준렬히 단죄규탄하는 심판장으로 되였다.

광범한 세계사회여론은 남조선의 박정희괴뢰도당의 매국적폭압통치가 응당 끝장나고 남조선에 민주주의정권이 수립되여야 하며 북과 남의 애국력량의 대단결에 의하여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이 이룩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로 이해에 세계이르는곳마다에서 우리 인민에게 보내는 지지와 련대성의 목소리는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더욱더 유리한 정세를 조성하였다.

이 모든 성과와 승리는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지니신 높으신 국제적권위로 하여 마련된것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적

인 조국통일방침과 대외정책으로 하여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대회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대회가 1977년 2월 21일부터 22일까지의 사이에 벨지끄의 수도 브류쎌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세계 68개 나라들에서 온 당대표단, 정부대표단, 사회단체대표단, 조선통일지지위원회 대표단들과 대표들, 여러 국제기구 대표들, 여러 나라의 국회의원들과 저명한 사회계 인사들 170여명이 참가하였다.

또한 벨지끄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출판보도계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는 또한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초대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대회에 보내신 축전이 정중히 전달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대회 조직위원회의 명의로 된 편지를 올리였다.

대회는 여러 나라들의 국가수반들과 정계인사들의 후원밑에서 열렸다. 말가슈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또고공화국 대통령, 베닌인민공화국 대통령, 일본사회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 에스빠냐공산당 총비서, 일본 도꾜도 지사, 빠나마종합대학 총장인 국가수반의 특별고문 등이 국제후원위원회 위원들로 되였다.

또한 대회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국제준비위원회가 조직되였다.

대회에서는 대회국제준비위원회를 대표하여 일본의 이전 로동조합 총평의회 의장이며 현 고문인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일본위원회 대표위원 이찌가와 마꼬도가 기본보고를 하였으며 프랑스공산당출신 상원의원 앙드레 오브리가 《조선에서 새 전쟁을 방지하고 공고한 평화를 유지할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미국신문 《가디언》 대외주필이며 조선통일지지가디언위원회 대표인 까렌 겔렌이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시키고 나라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할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이딸리아 상원의원이며 인민들의 권리와 해방을 위한 국제조직 위원장인 바쏘가 《남조선에서 민주인사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중지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각각 보충보고를 하였다.

대회에서는 여러 나라 대표들이 조선인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지지하여 연설하였다.

한편 대회기간에 대회국제준비위원회는 대륙별 대표들의 협의회를 조직하고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할 목적으로 국제련락위원회를 내오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협의회에서는 당면하여 11개 나라 대표들이 참가하는 국제련락위원회 서기국을 조직하고 서기국을 림시로 브류쎌에 두기로 하였으며 국제련락위원회가 정식사업을 시작할때까지 그 사업을 맡아보게 하기로 하였다.

대회는 국제적인 련대성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시기에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제2차세계대회를 열것을 제의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대회 총결의와 세계 여러 나라 국가 및 정부 수반들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보내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총결의는 유엔의 간판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군의 즉시 철거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핵무기의 즉시 철수를 요구하였다.

또한 총결의는 민족의 영구분렬을 추구하며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는 미일정부들과 박정희괴뢰정권의 책동을 규탄하였다.

총결의는 남조선의 민주인사들과 애국자들에 대한 남조선괴뢰정권의 탄압책동을 견결히 규탄하며 남조선애국자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할것을 서방나라들의 진보적세력들에 호소하였다.

총결의는 또한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의 3대원칙과 1977년 1월 25일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가 내놓은 남북의 제정당, 사회계 대표들이 참가하는 남북정치협상회의 소집제안을 지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총결의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련락위원회를 창설할것을 선포한다고 지적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 국가 및 정부 수반들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대회에서 채택된 총결의의 기본조항들에 담겨진 내용을 다시 밝히고 편지와 함께 대회의 총결의를 보낸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의 대한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요구하는 국제회의》

1977년 4월 1일부터 3일까지 미국의 뉴욕에서 《미국의 대한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요구하는 국제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미국의 하바드종합대학 교수이며 노벨상수상자인 조지 월드, 워싱톤종합대학 교수 마크 셀덴, 카나다의 맥길종합대학 교수 사무엘 제이 누모프, 워싱톤광장 통일감리교회 뉴욕목사 파울 아벨스, 뉴욕에 있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위원회 서기장 보브 캠브리아 등이 성원으로 되여있는 《미국의 대조선정책 새 방향위원회》의 발기에 의하여 박정희괴뢰도당의 야만적인 인민탄압만행을 폭로규탄

하고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의 철거를 포함한 미국의 대《한》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요구할 목적밑에 진행되였다.

미국회 상원의원들, 아세아문제연구학자들인 박사, 교수들, 《아세아에 관심있는 학자들의 위원회》, 사회변혁을 위한 감리교련합, 퀘이커교도위원회 등 백수십명의 미국의 정계, 학계, 종교계, 사회계의 이름있는 인사들과 반전평화단체들이 이 국제회의의 목적을 지지하고 적극 협력하였다.

회의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메히꼬, 서독, 스위스, 카나다 등에서 온 대표들과 해외동포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주최자측의 기본연설과 많은 사람들의 연설이 있었다.

회의기간에 인권문제분과회의, 군사및정치분과회의, 경제분과회의들이 있었다.

회의참가자들은 일치한 찬동으로 《미국의 대한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요구하는 국제회의》의 이름으로 된 결의를 채택하여 미국대통령과 미국국회, 일본총리 등에게 보냈다.

결의는 미국국회와 미국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1. 남조선으로부터 모든 핵무기를 당장 철수할것

2. 남조선으로부터 미군과 살용무기 그리고 준군사인원들을 철수할것

3. 박정희《정권》에 대한 미국의 모든 군사 및 경제 《원조》를 중지할것

결의는 또한 남조선의 현 상태를 우려하는 미국인민들에게 가능한 범위에서 지역적으로, 지방적으로 그리고 전국적으로 미국의 대《한》정책에서의 변경을 가져오도록 조직활동을 전개할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박정희독재《정권》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뒤받침해주고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결의의 목적과 이 회의의 정신에 대한 사회여론의 지지가 있을것을 호소하였다.

결의는 남조선에서의 정치탄압의 모든 피해자들 즉 정의와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고 하였다는 리유로 체포된 사람들을 즉시 석방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박정희독재《정권》이 물러나게 하고 그 자리에 광범한 민주련합정권을 세우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회의에서는 해외동포참가자들의 성명이 발표되였다.

성명에서 해외동포참가자들은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것을 다짐하였으며 여러곳에 살고있는 《한국》인들에게 조국통일의 3대원칙을 실현하는데 힘을 합칠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박정희독재《정권》을 물러나게 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국민적련합》을 실현할것을 호소하였으며 이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서 해외《한국》동포들의 회의를 열것을 제기하였다.

조선의 평화적통일문제에 관한 이딸리아민주세력들의 회의

1977년 4월 21일 이딸리아의 로마에서 이딸리아조선련대성위원회, 인민들의 권리와 해방을 위한 련맹, 이딸리아민주법률가협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문화련락이딸리아협회의 공동주최로 조선의 평화적통일문제에 관한 이딸리아민주세력들의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이딸리아 공산당, 사회당, 사회민주당, 기독교민주당, 공화당을 비롯한 30여개의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과 학계, 문화계, 종교계 대표들, 로마시장과 뻬르니시장, 삐에몬떼주리사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 지방 대표들, 정부간부들, 여러 정당소속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이 나라의 신문, 통신, 방송 기자들, 로마에 주재하고있는 여러 나라 통신사 특파기자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회의에는 우리 나라 대외문화련락협회대표단이 초대되였으며 로마주재 여러 나라 대사들, 바띠까노대표가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떼라모종합대학 정치학부 학부장이며 교수인 알도 베르나르디니의 보고에 이어 여러명이 토론하였다.

모든 토론자들은 일치하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과 방안들을 전적으로 지지하였으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또한 그들은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두개 조선》 조작음모와 새 전쟁 도발책동, 남조선인민들에 대한 파쑈적만행과 인권유린행위를 구체적실례를 들어가면서 신랄히 폭로규탄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남조선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미군을 비롯한 모든 외국군대가 군사장비들을 걷어가지고 무조건 즉시 철거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리고 토론자들은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이딸리아의 모든 민주세력들이 조국통일위업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에서 공동행동을 취할것을 한결같이 주장하였다.

회의에서는 이딸리아 정부 및 민주세력들에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회의가 끝난후 회의발기위원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회의진행정형을 보고올리는 정중한 편지를 드리였다.

그리고 회의발기위원회는 세계 여러 나라들에 있는 조선통일지지위원회, 친선협회, 련대성위원

회들에 1977년 1월에 평양에서 진행된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채택된 4개 항목의 구국방안을 지지하고 6.25—7.27련대성월간에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을 광범히 벌릴것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다.

한편 회의발기위원회는 회의진행정형에 대한 출판콤뮤니케를 발표하였으며 미국대통령에게 선거공약대로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거시킬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제1차회의

1977년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제1차회의가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알제리, 꾸바, 말가슈, 기네, 라오스, 민주예멘, 프랑스, 벨지끄, 이딸리아, 일본, 미국에서 온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회의에는 우리 나라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알제리에 와있는 중국, 쏘련, 이라크, 수리아, 애급, 영국의 통신 및 방송 기자들과 알제리의 기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의정으로 세가지문제가 상정되였다.

1. 브류쎌대회이후 조선에 조성된 정세에 대하여와 그리고 《두개 조선》 조작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보다 효과적인 지지를 보내고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하여

2.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의 규약과 행동강령의 채택 및 지도기관선거에 대하여

3.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제2차세계대회소집문제에 대하여

의정 첫째문제에 대한 보고에 이어 연설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을 전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조선이 《두개 조선》으로 갈라져서는 안되며 반드시 하나로 통일되여야 한다고 일치하게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둘째의정에 대한 토론에 이어 정치선언과 규약, 행동강령이 채택되였다.

정치선언은 위원회가 조선인민의 일치한 지향과 전세계 인민들의 의사에 배치되는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견결히 규탄하고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와 외국의 무기들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위원회가 남북공동성명에 지적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 대단결의 원칙들과 조선통일을 위한 5대방침을 무조건 지지하였다고 정치선언은 강조하였다.

회의에서 채택된 1977—1978년도 행동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는 1977년의 하반년 또는 1978년초에 회의를 소집하고 자기 활동을 총화하며 1978년말에 열리게 될 제2차세계대회 준비문제를 토의한다.

이 회의에 즈음하여 위원회는 민족위원회들과 함께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과의 국제적인 련대성의 날을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활동들을 조정한다.

2. 1978년에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대회를 소집한다.

3. 조선통일지지운동대렬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활동을 벌린다.

—여러 나라들에 조직된 조선통일지지민족위원회들과 정상적인 련계를 유지발전시키고 그들의 활동을 도와준다.

—아직 조선통일지지위원회들이 조직되여있지 않은 나라들에서 매개 나라들에 적합한 형태로 보다 효과적인 련대성행동을 벌리기 위하여 조선통일지지위원회들의 결성을 장려한다.

4. 세계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여론을 불러일으키며 광범한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6.25—7.27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반제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호소문을 발표하며 집회, 시위, 서명수집운동 등 보다 다양한 형태로 련대성운동을 조직한다.

—미군의 남조선강점날인 9월 8일과 제32차유엔총회에 즈음하여 남조선으로부터 미군과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전쟁수단들을 유엔 제30차총회 3390비결의에 부합되게 철수시키기 위한 국제적인 깜빠니야를 벌린다.

—4.19인민봉기날에 즈음하여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운동을 벌린다.

—유엔인권위원회와 국제민주법률가협회 및 인권과 초보적인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모든 단체들과의 협력밑에 남조선《정권》과 남조선에서의 인권유린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조사사업을 진행하고 백서를 발표한다.

—매개 나라들에서 광범한 정치 및 사회단체들과 개별인사들의 참가밑에 조선통일을 지지하기 위한 민족적인 련대성행사들을 조직하도록 한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지역별 련대성회의 특히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 련대성회의를 소집할것을 민족위원회들에 권고하며 그것이 실현되도록 방조한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거나 동정하고 있는 모든 정부들과 민족단체들, 지역 및 국제기구들, 개별인사들과 련계를 맺고 그들과 협조한다.

—조선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출판 사업을 진행하며 특히 정상적으로 불레찐을 발간하도록

한다.

서기국의 책임밑에 위원회의 기관지로서 잡지 《조선은 하나이다》를 발행한다.

회의에서 채택된 규약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국제련락위원회는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시키며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파탄시키며 조선의 분렬을 반대하며 남조선에서 파쑈독재를 청산하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광범한 련대성운동을 벌리는데 기여할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한다.

규약은 국제련락위원회의 성격을 각이한 나라들에 조직된 조선통일지지운동들사이에 련계를 맺어주고 협조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조정기구이라고 지적하였다.

국제련락위원회 서기국의 소재지는 프랑스 빠리로 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위원장과 4명의 부위원장들, 서기장이 각각 선거되였다.

계속하여 회의는 셋째의정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제2차세계대회 소집문제에 대하여를 토의하였다.

보고와 토론에 이어 참가자들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제2차세계대회를 1978년 가을에 일본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하고 회의를 성과적으로 끝마쳤다.

《한국민주화국제련대성위원회》결성모임

1977년 8월 14일 《한국민주화국제련대성위원회》 결성모임이 일본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이 련대성위원회의 결성문제는 1976년 8월 도꾜에서 진행된 《한국문제긴급국제회의》에서 토의되였으며 그후 1977년 4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미국의 대한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요구하는 국제회의》를 거쳐 이 위원회가 정식으로 결성되였다.

결성모임에는 《일한련대련락회의》 대표 아오찌 싱을 비롯한 일본의 각계 인사들과 미국 워싱톤대학 교수, 서부독일 오스나브룩크대학 교수, 말레이시아인민사회당 중앙위원회 위원 등 국제적으로 이름난 학자들과 사회활동가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모임에는 《민주민족통일해외한국인련합》 수석의장을 비롯한 해외에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운동을 벌리고있는 교포단체대표들이 수많이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아오찌 싱을 위원장으로 하고 오다마꼬도를 사무국장으로 하는 《한국민주화국제련대성위원회》의 정식결성을 선언하였다.

모임에서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선의 통일을 다그치기 위하여 여러 나라의 련대성운동들이 남조선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교환하며 그에 기초하여 운동을 옳은 방향에서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갈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또한 모임에서는 이에 기초하여 련대성위원회가 국제련대성통지문 《우리들》을 정기적으로 발행하기로 토의하였다.

모임에 이어 《한국문제국제소토론회》가 진행되였다.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반대하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과의 국제적 련대성집회

1977년 9월 18일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 조직위원회주최로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반대하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집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가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집회에는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참가한 여러 나라 대표단들과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단, 통일혁명당대표단, 재일조선인과학자대표단이 우리 나라 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문화, 예술, 출판보도일군들, 평양시안의 근로자들, 청년학생들과 함께 집회에 참가하였다.

꼬스따 리까사회당대표단 단장의 사회밑에 집회에서는 말가슈민주주의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 일본주체사상연구학술대표단 단원, 미국에 있는 《주체사상연구소조》 위원장인 《가디언》지 행정부주필, 노르웨이사회주의좌익당대표단 단장, 통일혁명당대표단 단장,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조선위원회 위원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들은 일찌기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면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에 따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이 하루속히 실현되여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 《두개 조선》을 조작하며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며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려고 미쳐날뛰고있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준렬히 규탄하면서 연설자들은 미국이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들을 비롯한 모든 살인무기들을 걷어가지고 당장 물러갈것을 요구하였다.

연설자들은 세계의 모든 나라 인민들이 조선의 통일문제에 계속 깊은 관심을 돌리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

성원하며 조선인민과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집회에서는 세계 여러 나라 정부와 정당, 사회단체, 국제기구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이어 사회자가 집회에 참가한 여러 나라 대표단들과 대표들의 요청으로 언제나 흠모하여 마지않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노래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를것을 제의한다고 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우렁차게 합창하였다.

집회를 끝마치면서 전체 참가자들은 사회자의 선창에 따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 만세!》,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만세!》를 소리높이 불렀다.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녀성국제회의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녀성국제회의가 일본의 《조선녀성들과의 련대성회》의 주최로 1977년 10월 11일 일본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회의는 일본사회당소속 참의원의원 다나까 스미꼬를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일본부인회의 의장 등 6명을 위원으로 한 녀성국제회의 준비위원회에 의하여 조직되였다.

회의에는 주최자들을 비롯하여 일본녀성대표들과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들을 포함한 13개나라대표들 120여명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녀성국제회의준비위원회 위원장이 기본보고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오스트랄리아, 오지리, 카나다, 핀란드, 인도, 뻬루, 스리랑카, 수리아, 미국 등 여러 나라 대표들이 연설하였다.

회의에서는 남조선에 공부하러 갔다가 남조선괴뢰중앙정보부에 의하여 체포되여 갖은 고문과 폭행을 당한 재일《한국》인 녀자류학생 권말자와 재일《한국》인 한수미, 일본녀성평론가를 비롯한 수십명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녀성국제회의의 결의문과 전세계 녀성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각각 채택되였다.

결의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 그리고 1977년 1월에 평양에서 진행된 제 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채택된 4개항목의 구국방안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결의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지적되였다.

1.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서는 모든 외부세력이 물러나야 한다는것을 확신하고 미국정부에 대하여

남조선주둔 미군의 즉시 철거와 남조선에 배치된 일체 핵장비를 끌어내갈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국간의 군사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것을 요구하였다.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가 조선침략을 위한 출격기지로 되고있는 현 상태를 반대하며 특히 오끼나와의 핵공격기지화를 반대하였다.

또한 미일 두 나라 정부가 박정희괴뢰정권에 대한 부추김을 그만둘것을 요구하였다.

2. 박정희괴뢰정권의 비인도적인권탄압에 대하여 견결히 규탄하였다.

3. 일본정부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방해하고있는 현 상태를 반대하였다.

4.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재일조선인탄압과 국적에 의한 차별을 중지하며 국내 및 국외에서의 이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할것을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결의문을 모든 민주주의적녀성단체들 및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세력들에 보내여 세계의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유관정부들과 유엔에 보내여 세계인권선언에 기초한 그의 빠른 실현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하였다.

전세계 녀성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는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모든 책동들을 규탄하고 조선의 통일문제는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조선문제에 더욱 깊은 관심을 돌리고 그 해결을 위하여 련대성행동을 강화해나갈것을 결의하였다.

남조선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법률가위원회 제2차회의

1977년 11월 6일 남조선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법률가위원회 제2차회의가 프랑스의 빠리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프랑스, 이딸리아, 뽈스까, 룩셈부르그, 오지리, 벨지끄, 스웨리예, 알제리, 인도, 일본, 오스트랄리아의 법률가대표들과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아랍변호사동맹,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대표들을 비롯하여 많은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남조선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법률가위원회 서기장이 편지를 드리였다.

프랑스민주법률가협회 위원장이며 빠리제1종합대학 법학부장이며 법학교수인 삐에르 라빈느가 회의를 사회하였다.

그는 남조선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법률가위원회가 결성된후 지난 1년간 남조선에서의 인권탄압행위는 더욱 강화되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여 고문당하고 처형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러한 정세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를 더욱 확대강화하며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인권유린행위를 폭로규탄하는 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릴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회의는 남조선에서의 인권유린의 장본인들에게 응당한 처벌을 가해야 할것이다.

회의에서는 남조선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법률가위원회 서기장이며 프랑스의 니스종합대학 법학부장인 로베르 샤르뱅과 프랑스민주법률가협회 서기장이며 프랑스 빠리고등법원 변호사인 니꼴 드레이퓌스가 《남조선에서의 탄압에 관한 백서》를 발표하였다.

백서의 기본체계는 다음과 같다.

1. 남조선사법체계에 대한 분석; 탄압의 전제조건

2. 경찰, 형법 및 사법 기관들의 행위에 관한 분석; 탄압

3. 국제적규모; 남조선에서의 인권문제가 조선의 통일에 미치는 영향

일본법률가 사이또 가즈요시가 《남조선에서의 인권탄압의 진상과 그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기본보고를 하였다.

기본보고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남조선의 파쑈적《법》체제
2. 《한국중앙정보부》와 고문
3. 탄압의 진면모
4. 김대중사건
5. 인권탄압의 근원과 우리의 책임

다음으로 회의에서는 해외에 망명한 남조선민주인사 림민식이 남조선에서의 인권유린행위를 폭로하여 연설하였다.

이어 프랑스민주법률가협회 서기장인 빠리고등법원 변호사, 이딸리아꽁뜨재판소 참심원, 알제리변호사, 뽈스까법률가협회 부위원장,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 국제민주법률가협회 위원장, 오스트랄리아 따스마니아종합대학 법학부장이 각각 연설하였다.

회의에서는 백서와 행동강령이 포함된 결의를 회의문건으로 채택하였으며 특히 1978년에 있을 유엔총회 제33차회의와 유엔인권위원회 회의를 계기로 이 기구 책임자들에게 회의에서 채택된 문건들을 보내며 취급하도록 제기할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결의는 다음과 같은 행동강령을 실행할것을 결정하였다.

1. 남조선에서의 인권수호에 기여하며 서울에 조사위원회를 파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있는 모든 국제조직들과 실제적인 협조를 실현할것이다.

2. 이 회의에서 채택된 《남조선에서의 탄압에 관한 백서》를 배포하여 전세계 법률가들이 남조선의 인권실태를 널리 알도록 할것이며 남조선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민족위원회들의 창설을 장려할것이다.

3. 유엔사무국과 유엔인권위원회에 대표단들을 파견하여 이 국제기구들이 남조선에서 감행되고있는 인권유린행위를 끝장내기 위한 적절한 대책들을 취할수 있도록 할것이다.

4. 세계법률가들에게 남조선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회복을 도와줄수 있는 참고자료와 분석자료들을 주기 위하여 분기에 한번씩 내는 소책자를 발행할것이다.

5. 남조선의 정치범들에 대한 변호를 담당하거나 법적참관인의 기능을 수행할 국제변호인단을 조직할것이다.

한편 7일 남조선에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국제법률가위원회 위원장이 회의가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유엔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였다.

또한 회의가 성과적으로 진행된것과 관련하여 같은날 빠리에서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1977년에 결성된 조선통일지지 위원회들

조선의 민주주의적평화통일지지뽀르뚜갈위원회 1월 14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사이다마현민위원회(일본) 1월 19일
조선통일지지부룬디위원회 1월 31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유엔나미비아대학위원회(잠비아 수도 루사카) 2월 18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아오모리현련대성위원회(일본) 2월 25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지바현민련합(일본) 2월 26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효고현민위원회(일본) 3월 1일
조선통일지지방글라데슈련대성위원회 3월 8일
스웨리예에 있는 라틴아메리카인들의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위원회 3월 14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시즈오까현련대성위원회(일본) 3월 24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도꾜도 네리마구련대성위원회(일본) 4월 13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도시마구민회의(일본 도꾜) 〃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고찌현련대성위원회(일본) 4월 26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이와데현련대성위원회(일본) 4월 27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미야기현민회의(일본) 4월 28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나가사끼현위원회(일본) 5월 16일
에티오피아조선친선및련대성위원회 5월 20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군마현위원회(일본) 5월 21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와까야마현민회의(일본) 5월 25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아끼다현민회의(일본) 5월 30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니이가다련대성위원회(일본) 5월 31일
세네갈조선국회친선그루빠및조선인민과의 련대성세네갈위원회 6월 10일
조선통일지지버마위원회 6월 23일
예멘조선친선및조선통일지지협회(민주예멘) 6월 29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나가오까지구 청년련락회의(일본) 7월 19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교도위원회(일본) 7월 27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이바라기현위원회(일본) 8월 27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아이찌현민회의 (일본) 10월 17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효고현 니시고베지구일조청년련대성위원회(일본) 11월 4일
조선통일지지파키스탄련대성위원회 쿠웨타지부 11월 7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기후현련대성위원회 11월 16일
노르웨이청년조선통일지지위원회 〃
일조우호미에현민회의 11월 17일
조선통일지지우따르 쁘라데쉬주위원회(인도) 12월 11일

우리 나라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채택된 4개항목의 새로운 구국방안을 지지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된 련대성 행사들

련대성집회

레바논《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위원회》성원들의 모임 2월 2일
조선통일지지레바논위원회 회의 2월 5일
레바논《김일성동지사상연구위원회》중앙위원회확대회의 〃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와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련대성집회 2월 7일
쏘련 모스크바의 오뜨보프크시에서 사회계 집회 2월 9일
꾸바의 《꾸바나 데 아쎄로》명칭강철공장집회 2월 14일
쏘련 모스크바녀성들의 련대성집회 〃
끼쁘로스의 리마쏠에서 집회 3월 4일

성명

국제학생동맹 1월 28일
조선통일지지제네바위원회 2월 1일
일본에 있는 《김일성주석저작연구회전국협의회》 2월 2일
말가슈로조련합회 〃
말가슈전국기자동맹 〃
아세아아프리카법률가회의 상설서기국 2월 3일
체스꼬슬로벤스꼬아.아인민단결위원회 〃
세계민주청년련맹 뷰로 〃
쏘련직업동맹 중앙평의회 2월 4일

조선통일지지인도위원회 2월 4일
일조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 2월 7일
라왈핀디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
파키스탄 제정당, 사회단체(공동성명) 〃
조선통일지지꾸바위원회 2월 8일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 2월 9일
라왈핀디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 2월 9일
아세아불교도평화회의 위원장 〃
조선통일지지라오스위원회 2월 10일
국제식료, 담배, 려관및관계부문일군직맹 〃
감비아전국청년조직 2월 12일
까히라에 있는 팔레스티나녀성총동맹 2월 13일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2월 14일
체스꼬슬로벤스꼬반파쑈투사동맹 〃
전아랍녀성동맹 〃
이라크녀성총동맹 〃
팔레스티나녀성총동맹 〃
핀란드평화위원회 〃
벌가리아아세아아프리카인민들과의련대성위원회 2월 15일
프랑스에 있는 김지하석방위원회 〃
국제민주녀성련맹 〃
일본 교도종교인평화협의회 〃
스위스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단결위원회 2월 16일
국제민주법률가협회 2월 17일
뽈스까직업동맹 중앙평의회 〃
뽈스까전국평화위원회 상무위원회 〃
조선통일지지스위스위원회 〃
수리아련대성위원회 2월 21일
뽈스까농업근로자직맹 중앙위원회 2월 22일
아랍청년련맹 〃
세계평화리사회 2월 23일
핀란드조선협회 2월 28일
쏘련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2월
노르웨이 제3세계와의 련대성을 위한반제위원회 3월 10일
스웨리예평화위원회 3월 18일
벌가리아 수도 쏘피아에서 진행된 세계평화리사회 상무위원회 회의와 세계평화대회 국제준비위원회 회의에 참가하였던 말가슈, 서남아프리카, 영국, 핀란드, 미국, 에티오피아, 스웨리예, 수단, 스리랑카, 애급, 말리, 세네갈, 앙골라, 벨지끄, 희랍, 토이기, 카나다, 프랑스, 뽀르뚜갈, 룩셈부르그 등 여러 나라 대표들이 공동성명 2월 13일

호소문

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인민단결기구집행서기국 2월 14일
아랍변호사동맹 2월 15일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진행된 련대성 행사들

집회

노르웨이 수도 오슬로에서 군중집회 6월 23일
쏘련 모스크바에서 수도사회계대표들의 집회 6월 24일
조선통일지지인도위원회와 전인도조선친선협회가 군중집회 〃
몽골 울란 바따르편직물공장에서 집회 6월 25일
웽그리아조선친선녀지까다협동조합에서 집회 〃
수리아의 디마스끄에서 군중집회 〃
네팔수도 까뜨만두에서 군중집회 〃
소말리아 모가디쇼시련대성군중집회 6월 26일
탄자니아의 잔지바르에서 집회 〃
로므니아의 부꾸레슈띠에 있는 라지에타및철제의료기구공장에서 집회 6월 27일
라오스의 비엔티안에서 군중집회 〃
꾸바의 아바나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촌중학교》에서 집회 6월 28일
수리아인민군 사령부관하 홈스도 하기훈련소에서 집회 6월 29일
꾸바의 씨에고 데 아빌라주에서 집회 〃
꾸바의 《천리마조선소》에서 집회 6월 30일
쏘련 모스크바다이야공장에서 집회 〃
스웨리예 스톡홀름에서 군중집회 7월 4일
쏘련 모스크바《프레제르》절삭공구공장에서 집회 7월 5일
꾸바의 마딴사스주에서 군중집회 〃
꾸바의 아바나에 있는 꾸바파학원《만경대》기계직장에서 종업원집회 〃
베닌의 꼬또누에서 련대성집회 〃
웽그리아 웨스쁘렘에 있는 인민군 한군부대에서 군인집회 7월 6일
꾸바의 삐노스특별지구 소재지 누에바헤로나에서 집회 7월 7일
벌가리아의 쏘피아에서 중앙군중집회 〃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에서 집회 〃
뽈스까에서 전뽈스까류학생위원회가 집회 7월 8일
말가슈의 안따나나리부에서 집회 〃
세네갈 삐낀시에서 군중집회 7월 9일
가이아나의 죠지타운에서 군중집회 7월 11일
웽그리아 보니하드군 베와르어이리에서 군중집회 〃
뽈스까조선친선 오뜨보쯔크시에서 집회 7월 12일
말가슈 피아나란쭈주련대성군중집회 〃

체스꼬슬로벤스꼬의 끌라드노전선공장에서 군중집회 7월 13일
꾸바의 라스 뚜나스주소재지에서 군중집회 〃
뽈스까조선친선 모델농업협동조합에서 집회 7월 14일
몽골조선친선 《허덜머르》농업협동조합에서 집회 〃
라오스 참파싸크주행정위원회가 집회 7월 15일

로므니아 삐떼슈띠시에 있는 고무공장에서 집회 〃
탄자니아의 다르 에스 살람종합대학에서 련대성 모임 7월 16일
말가슈 안따나나리부에서 군중집회 〃
민주예멘 아덴시에서 군중집회 7월 17일
뽈스까 쁘와브질소비료공장에서 집회 7월 18일
일본도꾜에서 《일미한의 군사일체화를 규탄하고 남조선에 있는 모든 미국군대를 즉시 철거시킬것을 요구하는 중앙집회》 7월 19일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교외에 있는 청년로동야영지에서 련대성모임 7월 20일
몽골 울란 바따르우유가공공장에서 집회 〃
뽈스까 쁘워쯔크도법률가들의 집회 〃
일본 도꾜에서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국제련대성월간 중앙집회》 7월 21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조선친선크리페나농업협동조합에서 집회 7월 22일
라오스의 비엔티안주 싸이타나군행정위원회가 집회 7월 24일
로므니아인민군의 한부대에서 군인집회 7월 25일
뽈스까의 크라꼬브시에서 집회 〃
몽골 울란 바따르가축가공공장에서 집회 〃
앙골라의 북구완자주 돈도시에서 집회 7월 30일
수리아의 알레포에서 집회 8월 9일

성명

국제학생동맹 6월 13일
가이아나평화단결위원회 6월 24일
뽈스까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
조선통일지지인도위원회와 전인도조선친선협회 6월 25일
방글라데슈제정당, 사회단체들 〃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6월 26일
노르웨이제정당, 사회단체들 6월 27일
말가슈외교부장 7월 5일
조선통일지지꾸바위원회 〃
국제건축, 목재 및 건재로동자직업련맹 7월 5일
아세아아프리카법률가회의 상설서기국 7월 6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프랑스지지및행동위원회 〃
말가슈혁명청년조직 7월 8일
말가슈혁명로조 〃
말가슈진보적지식인조직 〃
말가슈혁명녀성조직 〃
스웨리예평화위원회 서기장 7월 9일
조선통일지지팔레스티나위원회 7월 10일
뽈스까직업동맹 중앙평의회 7월 11일
조선통일지지인도위원회 위원장 〃
핀란드인민민주련맹 집행위원회 7월 13일
조선인민과의 련대성라틴아메리카위원회 〃
예멘평화및련대성리사회와 예멘조선친선및조선통일지지협회 7월 15일
스웨리예공산주의청년동맹 7월 18일
애급 및 중근동지역주재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대표부 〃
상부볼따애국발전련맹 7월 21일
중근동 및 애급주재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회의 대표부 7월 25일
프랑스민주법률가협회 〃

호소문

3대륙인민단결기구 집행서기국 6월 17일
국제운수로동자직맹 6월 20일
국제방직, 피복, 피혁, 모피공업로동자직업련맹 6월 23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일본위원회 6월 25일
일조로동자교류련대련락회의 〃
일본 각정당, 사회단체, 각계의 저명한 인사들 〃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상설서기국 7월 11일
희랍의 저명한 사회계인사들 7월 16일

기자회견

조선통일지지꾸바위원회 위원장 6월 21일
벌가리아기자동맹 6월 28일

사진전람회

뽈스까의 따르노브쩨그국제서점구락부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에 즈음한 사진전람회》 6월 21일
꾸바의 빌랴 끌라라주소재지 싼따끌라라시에서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 6월 24일
수리아의 디마스끄에서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

국 제 회 의

쁠럭불가담국가통신사련합 조정위원회 회의

1977년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쁠럭불가담나라통신사련합 조정위원회 회의가 애급의 수도 까히라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 채택된 성명은 보도사업을 제국주의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해야 하며 보도령역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원회는 통신사련합의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행동강령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쁠럭불가담나라통신사들사이의 기술적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쁠럭불가담나라통신사련합은 1976년 7월 8일부터 13일까지 인도의 뉴델리에서 진행된 쁠럭불가담나라 공보부장 및 통신사 사장들의 회의에서 조직되였으며 같은해 8월 제5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 승인되였다.

쁠럭불가담나라정부간 보도조정위원회 제1차회의

1977년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쁠럭불가담나라정부간 보도조정위원회 제1차회의가 튜니지의 수도 튜니스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15개나라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대표들은 연설에서 협조를 강화하여 이 분야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독점을 끝장낼 쁠럭불가담나라들의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또한 쁠럭불가담나라들의 보도수단이 주요한 세계적인 문제들과 불공정한 국제경제질서로부터 초래되는 문제들을 보도함으로써 모든 나라 인민들의 편의를 도모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회의는 쁠럭불가담나라들이 보도, 방송, 텔레비죤분야에서 협조를 진행할데 대한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제2차회의는 꾸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1978년에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조정위원회는 1976년 8월에 진행된 제5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결의에 따라 창설되였다.

쁠럭불가담국가조정위원회 회의

1977년 4월 7일부터 11일까지의 기간에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쁠럭불가담국가조정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이 위원회 성원국 외교부장들이 참가하였다. 또한 여기에 우리 나라 대표단을 포함하여 여러 나라 대표단들이 옵써버로 참가하였으며 인도주재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이 초대되였다.

인도외교부장이 회의의장으로 선거되였다.

회의에서는 1976년 8월 콜롬보에서 진행된 제5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 이후 국제정세(정치정세와 경제정세)에 대한 전반적인 총화와 평가, 수뇌자회의에서 채택된 문건들을 리행할데 관한 문제 등 일련의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정치, 경제 문제들에 대한 총화문건들이 비준되였다.

최종콤뮤니케는 조정위원회가 조국통일 3대원칙에 따라 민족적대단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라를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지지를 표명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콤뮤니케는 또한 조정위원회가 자립적민족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얻은 경험을 교환하며 민족경제의 자립성을 강화하며 그들사이의 경제협조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쁠럭불가담나라들과 기타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의 토론회를 1978년 가을 평양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는것을 지적하였다.

콤뮤니케는 많은 쁠럭불가담나라들이 직접적인 전복활동과 간섭행위에 부딪치고있다고 지적하고 아프리카나라들에서 간섭행위에 매달리는 제국주의세력들을 규탄하였다.

콤뮤니케는 또한 중근동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문제들에 언급하였으며 디에고 가르시아섬에서와 같이 인도양지역에 외국의 군사기지들을 건설하는것을 규탄하였다.

콤뮤니케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수립문제를 포함한 경제문제들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회의에서는 쁠럭불가담국가조정위원회 다음번 회의를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회의는 1978년에 있을 쁠럭불가담국가외교부장회의를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쁠럭불가담국가외교부장 비상회의

1977년 9월 30일 쁠럭불가담국가외교부장비상회

의가 미국 뉴욕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우리 나라 부총리 겸 외교부장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유태복고주의자들의 로골적인 령토팽창책동으로 중근동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와 남부아프리카정세가 토의되였다.

우리 나라 부총리 겸 외교부장을 비롯한 여러 나라 대표들이 연설하였다.

회의에서는 《최근 악화되고있는 정세와 관련한 중근동 및 팔레스티나 문제에 관한 선언》과 《남부아프리카문제에 관한 선언》이 채택되였다.

《최근 악화되고있는 정세와 관련한 중근동 및 팔레스티나 문제에 관한 선언》은 아랍인민들과 팔레스티나인민을 반대하는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침략과 음모 책동의 계단식확대로 인하여 중근동의 정세가 심히 악화되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선언은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 경제 및 군사적 지원을 중지할것을 서방나라들 특히 미국에 요구하였다.

《남부아프리카문제에 관한 선언》은 남부아프리카의 인종주의정권들을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한 깜빠니야를 벌리며 짐바브웨,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데 대한 쁠럭불가담나라들의 결의를 재확인하였다.

한편 우리 나라 부총리 겸 외교부장은 뉴욕에 머무르고있는 기간 여러 나라 외교부장들과 유엔사무총장을 만났으며 10월 3일에는 성대한 연회를 차렸다.

쁠럭불가담나라 방송기관들의 제1차회의

1977년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쁠럭불가담나라 방송기관들의 제1차회의가 유고슬라비아의 싸라예보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한 70여개 나라 대표단들과 옵써버들, 손님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쁠럭불가담나라 방송기관들의 협조문제, 쁠럭불가담나라 방송기관들의 새기구창설문제 등을 토의하고 회의선언, 쁠럭불가담나라 방송기관들의 행동강령과 협조조정에 관한 문건 등을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우리 나라를 포함한 19개 나라 대표들로 구성되는 쁠럭불가담나라 방송기관들의 협조위원회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제1차아랍아프리카수뇌자회의

제1차아랍아프리카수뇌자회의가 1977년 3월 7일부터 9일까지 애급의 수도 까히라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60개의 아랍, 아프리카 나라 지도자들과 팔레스티나해방조직 및 아프리카민족해방운동들의 지도자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수뇌자회의에 보내신 축전이 회의에서 정중히 전달되였다.

회의에서는 제국주의와 신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남부아프리카의 인종주의정권들을 반대하며 이스라엘이 강점한 아랍령토들을 해방하고 팔레스티나 아랍인민의 합법적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통일적인 투쟁전략의 작성, 아랍, 아프리카 인민들의 경제, 사회적 진보를 위한 투쟁 그리고 아랍나라들과 아프리카나라들사이의 경제 및 재정적 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 보다 공정한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 등 일련의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수뇌자회의에서는 정치선언, 까히라선언, 아랍아프리카행동강령, 아랍아프리카 경제 및 재정 협조에 관한 선언, 아랍아프리카협조실현을 위한 조직과 방법에 관한 합의서 등 문건들이 채택되였다.

제1차아랍아프리카수뇌자회의는 아랍아프리카수뇌자회의를 3년에 한번씩 가지며 외교부장회의를 1년에 한번씩 가지기로 결정하였다.

유엔물대회

1977년 3월 14일부터 25일까지의 사이에 유엔물대회가 아르헨띠나의 마르 델 쁠라따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을 비롯하여 세계 100여개 나라와 국제기구들의 대표단들과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마시는 물을 포함한 물공급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서 관수를 도입하여 식량을 해결할데 대한 문제, 공해방지문제, 물분야에서의 국제적협력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 등 물과 관련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대회에서는 물자원을 보호리용하며 지구상의 주민들에게 물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의들과 권고들을 채택하였다.

대회의 마지막날에 채택된 행동권고에서는 물자원의 확보와 물의 효과적리용, 물의 오염방지대책 등을 모든 나라 정부들에 호소하였다.

세계평화건설자대회

세계평화건설자대회가 1977년 5월 6일부터 11일까지 뽈스까의 수도 와르샤와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대표단을 비롯하여 세계의 120여개 나라에서 온 대표단들과

50여개의 국제단체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신구파시즘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식민주의, 인종주의, 인종격리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포함하여 일련의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에 관한 결의와 남조선에서의 파쑈독재와 관련한 결의가 채택되였다.

대회에서는 또한 지구상의 모든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대회기간에 와르샤와에서는 세계평화리사회회의가 진행되였으며 새 지도기관이 선거되였다.

세계평화리사회회의결정에 의하여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표들이 세계평화리사회 상무위원회 성원 및 리사들로 되였으며 재일본조선인 평화위원회 대표들도 세계평화리사회 성원으로 들어갔다.

한편 세계평화건설자대회에 참가한 85명의 미국대표단성원들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여 미국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짐바브웨및나미비아 인민들을 지지하는 국제회의

짐바브웨및나미비아 인민들을 지지하는 국제회의가 1977년 5월 16일부터 21일까지 모잠비끄 수도 마뿌또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92개의 유엔성원국 대표단들과 남부아프리카해방운동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독립과 자유를 위한 피압박인민들의 투쟁이 벌어지고있는 남부아프리카정세를 심의하고 남아프리카와 로데시아 인종주의정권들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토의되였으며 싸우는 남부아프리카인민들에 대한 물질적, 경제적 및 기타 원조를 강화할것을 유엔성원국들과 세계 모든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회의에서는 《짐바브웨및나미비아 인민들을 지지하는 마뿌또선언》과 《짐바브웨와 나미비아의 해방을 위한 행동강령》이 채택되였다.

남부아프리카에서의 인종격리, 인종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세계대회

남부아프리카에서의 인종격리, 인종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세계대회가 1977년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뽀르뚜갈의 리스봉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40여개 나라에서 온 대표들과 국제단체대표들 그리고 남부아프리카의 민족해방운동단체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인종격리, 인종주의, 식민주의에 대한 무조건적이며 결정적인 규탄,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싸우는 남부아프리카인민들과의 국제적련대성을 적극 벌려야 할 필요성 등의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대회에서는 총선언이 채택되였다.

총선언은 싸우는 남부아프리카인민들에게 정치적, 도덕적, 물질적 지원을 주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것을 동원할것을 세계 사회계와 선량한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하였다.

제14차아프리카통일기구 국가및 정부수뇌자회의

1977년 7월 2일부터 5일까지 제14차아프리카통일기구 국가및정부수뇌자회의가 가봉 수도 리브르빌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아프리카통일기구성원국들의 국가 및 정부 지도자들과 그 대표들이 참가하였으며 아프리카해방운동 대표들이 옵써버로 참가하였다.

가봉대통령이 회의 의장으로 선거되였다.

회의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인종주의와 식민주의의 마지막보루를 청산하고 아프리카대륙의 정치적독립과 경제적자립을 공고히 하며 아프리카나라들사이의 경제적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해결을 기다리는 이 대륙의 절박한 문제들을 토의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일련의 결의들을 채택하였다.

짐바브웨에 관한 결의에서 회의참가자들은 짐바브웨애국전선을 짐바브웨아프리카인다수파의 유일한 합법적대표로서 만장일치로 인정하였다. 또한 나라의 독립과 자유를 위한 짐바브웨인민의 정의의 무장투쟁에 대한 재정, 물질, 정신, 정치적 지원을 강화하며 로데시아인종주의도당에 경제적제재를 가할것을 전세계에 호소하였다.

남아프리카에 관한 결의는 남아프리카인종주의정권과 결탁하고있는 미국 및 이스라엘 등을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국제무대에서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을 더욱더 고립시키며 인종차별정책을 반대하는 공동행동을 강화할것을 전체 성원국들에 호소하였다.

나미비아에 관한 결의는 나미비아에서 모든 남아프리카군대를 철거시키고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할것을 보스터인종주의도당에 요구하였으며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에 대한 외교, 물질, 재정적 원조를 강화할것을 성원국들에 호소하였다.

회의는 또한 비법적인 스미스인종주의정권의 무장도발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지키고있는 모잠비끄인민공화국에 대한 아프리카통일기구의 전적이며 무조건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재확언하며 모잠비끄에 대한 놈들의 침략행위를 단죄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중동과 팔레스티나문제에 관한 결의들에서 회

의참가자들은 이스라엘이 강점한 아랍령토로부터 완전히 물러가며 자주권과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자결과 자주적독립국가를 창설할데 대한 팔레스티나인민의 합법적인 민족적권리를 인정할것을 요구하였다.

회의에서는 아프리카와 아랍사이의 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 아프리카문제를 아프리카자체의 힘으로 해결할데 대한 문제, 아프리카에서의 고용병모집을 규탄할데 대한 문제와 관련한 결의들도 채택되였다.

회의에서는 지부티공화국을 아프리카통일기구의 49번째 정식성원국으로 받아들이였다.

원수폭금지세계대회

1977년 8월 3일부터 6일까지 원수폭금지세계대회가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진행되였다.

14년만에 처음으로 일본 공산당과 사회당의 공동주최로 열린 대회는 국제회의와 총회로 나뉘여 진행되였다.

3일부터 4일까지 진행된 국제회의에는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대표단을 비롯한 30여개의 나라 대표들과 14개국제조직대표들을 포함하여 거의 400명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주최자측을 대표한 원수폭금지통일실행위원회 대표간사의 연설에 이어 총련대표단 단장을 비롯한 여러 나라 대표들의 연설이 있었다.

4일회의에서는 조선문제를 비롯한 일련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통일견해가 발표되였다.

통일견해는 미국에 의하여 조성된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위험을 없애는것이 아세아 및 세계 평화와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조선에서 핵전쟁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미제가 남조선에서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살륙무기들을 끌어내가야 하며 미군을 전면적으로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통일견해는 조선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그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반대한다고 지적하고 조선은 어디까지나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통일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 총회에서는 대회 주최자측 대표들과 기타 일련의 나라 대표들이 연설하였다.

그들은 연설들에서 핵무기의 철페를 위하여 모든 지역들에서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을 호소하였다.

대회를 결속짓는 6일 총회에서는 결의와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앞으로 1년간을 《핵무기철페와 그에 대한 사회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행동의 해》로 설정하기로 결정한 대회결의는 조선문제에 언급하여 《남조선주둔 미군을 철거시키며 남조선과 오끼나와에서 핵무기를 철수할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하였다.

호소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의 참화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하여 사상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두가 힘을 합쳐 싸워나갈것을 세계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1977년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앞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히로시마에서는 원자폭탄피해자문제국제토론회가 진행되였다.

녀성국제평화자유련맹 제20차총회

녀성국제평화자유련맹 제20차총회가 1977년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일본 도꾜에서 진행되였다.

총회에는 영국, 프랑스, 핀란드를 비롯한 서구라파나라들과 미국, 메히꼬, 오스트랄리아, 일본 그리고 일부 아프리카나라들을 포함한 23개 나라에서 온 300여명의 녀성사회활동가들이 참가하였다.

총회에서는 조선문제가 중요하게 토의되고 《조선의 통일과 남조선에서의 인권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였다.

한편 녀성국제평화자유련맹 제20차총회에 참가한 미국, 영국, 서부독일, 단마르크, 카나다, 메히꼬, 스리랑카 등 11개 나라에서 온 대표들 25명은 남조선으로부터의 핵무기의 즉시 철거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인권탄압만행의 중지를 요구하여 련명으로 조선문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였다.

녀성국제평화자유련맹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동하는 반전 및 평화를 위한 녀성사회활동가들이 들어가 있는 단체로서 3년에 한번씩 총회를 진행한다.

인종격리반대세계행동대회

1977년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인종격리반대세계행동대회가 나이제리아 수도 라고스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의 약 70개 나라에서 온 대표단 및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인종격리반대세계행동대회에 보내신 축전이 대회에서 정중히 전달되였다.

대회에서는 남부아프리카의 정세, 남부아프리카에서 식민주의와 인종주의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에 세계 진보적사회계가 적극 참가하며 남부아프리카해방운동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대회에서는 인종격리반대행동라고스선언이 채택되였다.

선언은 대회가 온갖 형태의 인종격리 및 인종주의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남부아프리카에서 인

종주의와 식민주의의 주되는 아성은 남아프리카의 인간증오정권이라고 강조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선언은 인종차별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아프리카인민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과 수단을 다 리용할수 있는 그들의 떼여낼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였다.

선언은 인종격리정권들을 더욱더 고립시키기 위한 깜빠니야를 확대할것을 모든 나라 정부 국가기관 및 사회단체들에 호소하였다.

선언은 남아프리카에 핵잠재력을 가질수 있는 가능성을 주게 되는 그 어떠한 《원조》나 《협조》도 그만둘것을 모든 나라들에 호소하였다.

선언은 남아프리카정권에 대한 무기 판매와 공급을 그만둘것을 모든 나라들에 호소하고 남아프리카에 대한 무기수출금지조치를 준수하도록 통제하는 감독위원회를 창설할것을 권고하였다.

대회는 1978년을 인종격리를 반대하는 국제적투쟁의 해로 선포할데 대한 제의를 찬동하였다.

유엔총회 제32차회의

유엔총회 제32차회의가 1977년 9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뉴욕에서 진행되였다.

총회에는 140여개 유엔성원국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총회에서는 중근동문제, 남부아프리카문제를 비롯하여 126개의 의제들이 토의되였다.

9월 26일부터 진행된 일반토의에서 여러나라 대표들은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온갖 책동을 신랄히 규탄하고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채택된 조선에 관한 결의가 하루 빨리 리행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또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고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들이 당장 무조건 철수할것을 요구하였다.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외무담당련방비서는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조선문제가 이번 회의 의정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우리는 이에 큰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것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부정적후과를 가져오기때문이다.

유고슬라비아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책을 지지한다.

유고슬라비아는 남조선으로부터의 외국군대의 철거, 외국군사기지의 철폐, 나라의 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민족적목적을 실현할 조건을 조성하게 될 평화협정의 체결을 주장한다.

우리는 유엔이 이러한 노력을 더욱 견결히 지지하며 《두개 조선》으로 영구히 분렬하려는 책동을 저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꾸바공화국 외교부장은 연설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의 야만적독재를 지지하며 평화적이며 자주적인 조선의 통일을 저애하는 외국군대의 주둔이 남조선에서 계속되고있는데 대하여 규탄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남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와 군사장비들의 철수 및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목적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당한 요구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유엔총회 제32차회의 일반토의에서 연설한 여러나라 대표들은 중근동문제에 언급하여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침략 및 팽창 책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아랍인민들과 팔레스티나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유엔총회 제32차회의 일반토의에서 연설한 여러나라 대표들은 또한 남부아프리카문제에 언급하면서 백인인종주의정권들을 규탄하고 싸우는 남부아프리카인민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유엔총회 제32차회의에서는 강점된 아랍령토에서의 이스라엘의 《정착촌》건설을 규탄하는 결의, 아랍강점지역에서의 이스라엘의 범죄행위를 규탄하는 결의, 남아프리카와 로데시아의 소수백인인종주의정권들에 어떠한 종류의 원조도 주지말것을 모든 나라들에 요구하는 결의, 로데시아와 나미비아에서의 흑인다수파통치를 지지하는 마뿌또회의 결정들을 승인하는 결의, 남아프리카에 대한 의무적인 석유수출금지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또한 총회에서는 마요뜨섬의 비식민지화 및 인권에 관한 결의, 끼쁘로스로부터의 토이기군의 철수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는 결의, 미령버진군도에 자결권을 주도록 미국에 요구하는 결의, 동부띠모르에 유엔조사단과 유엔사무총장의 대표를 파견할데 대한 결의, 팔레스티나문제에 관한 결의, 칠레에서의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결의 등이 채택되였다.

총회는 유엔과학기술회의를 1979년에 윈에서, 다음번 유엔해양법회의를 제네바에서 열기로 각각 결정하였다.

유엔총회 제32차회의는 웰남사회주의공화국과 지부티공화국을 새 성원국으로 받아들였다. 이로써 유엔성원국은 모두 149개국으로 되였다.

총회는 새 의장으로 유고슬라비아 외무담당련방 제1부비서 라자르 모이쇼브를 선거하였다.

10월 24일 유엔총회 본회의는 체스꼬슬로벤스꼬, 쿠웨이트, 볼리비아, 가봉, 나이제리아를 2년임기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비상임리사국으로 새로 선거하였다. 같은날 총회는 경제사회리사회 54개 리사국가운데 18개국(임기 3년)을 새로 개선하였다.

국제학생동맹 제12차대회

1977년 10월 25일부터 11월 1일까지 국제학생동

맹 제12차대회가 벌가리아수도 쏘피아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조선학생위원회대표단과 재일본조선학생위원회대표단을 비롯하여 국제학생동맹 성원단체 대표단들, 국제 및 지역 기구대표들, 해방운동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국제학생동맹 제11차대회이후의 사업을 총화하고 앞으로의 과업과 일련의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에 관한 결의, 총결의, 아세아결의를 채택하였다.

조선에 관한 결의는 조선의 통일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내놓은 가장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방안인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채택된 4개 항목의 새로운 구국방안에 따라 실현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에 관한 결의는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대회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 인민과 청년학생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회의 및 토론회를 조직할 가능성을 연구할것을 서기국에 위임한다.

대회는 해마다 6.25—7.27기간을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시키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조선인민및청년학생들과의 국제적련대성월간》으로 할것을 결정한다.

총결의는 조선문제에 언급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안들을 지지하고 《두개 조선》 조작을 위한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규탄하며 미군을 남조선으로부터 철거시키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 인민과 학생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한다.

아세아결의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과 학생들의 투쟁에 굳은 지지를 표시하였으며 또한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싸우고있는 재일조선공민들에게 굳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말가슈, 또고, 수리아, 부룬디, 온두라스, 메히꼬, 리비아 등 나라대표들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 인민과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끝장난 세아토

아세아사회주의나라들을 반대하며 동남아세아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진압하기 위하여 미제가 1954년 9월에 꾸며놓았던 저주로운 침략기구 세아토(동남아세아조약기구)가 23년동안의 침략의 력사에 치욕스러운 오점을 남기고 1977년 6월 30일 자기의 더러운 존재를 완전히 끝마쳤다.

아세아에 대한 침략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제가 1954년 9월 8일 필리핀의 마닐라에서 영국, 프랑스,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등 8개나라들을 긁어모아 만들어낸 세아토는 날이 갈에 따라 내부모순이 격화되여 왔다.

1962년부터 세아토의 범죄적활동에 끼여들기를 거부해온 파키스탄은 1972년 7월 이 침략기구와 모든 관계를 끊어버렸다.

미제의 지휘봉에 고분고분 굽어들려고 하지 않은 프랑스는 세아토의 군사연습에도 참가하지 않았으며 저들의 군사인원을 세아토본부로부터 철수시키고 세아토 《방위분담금》지불까지 거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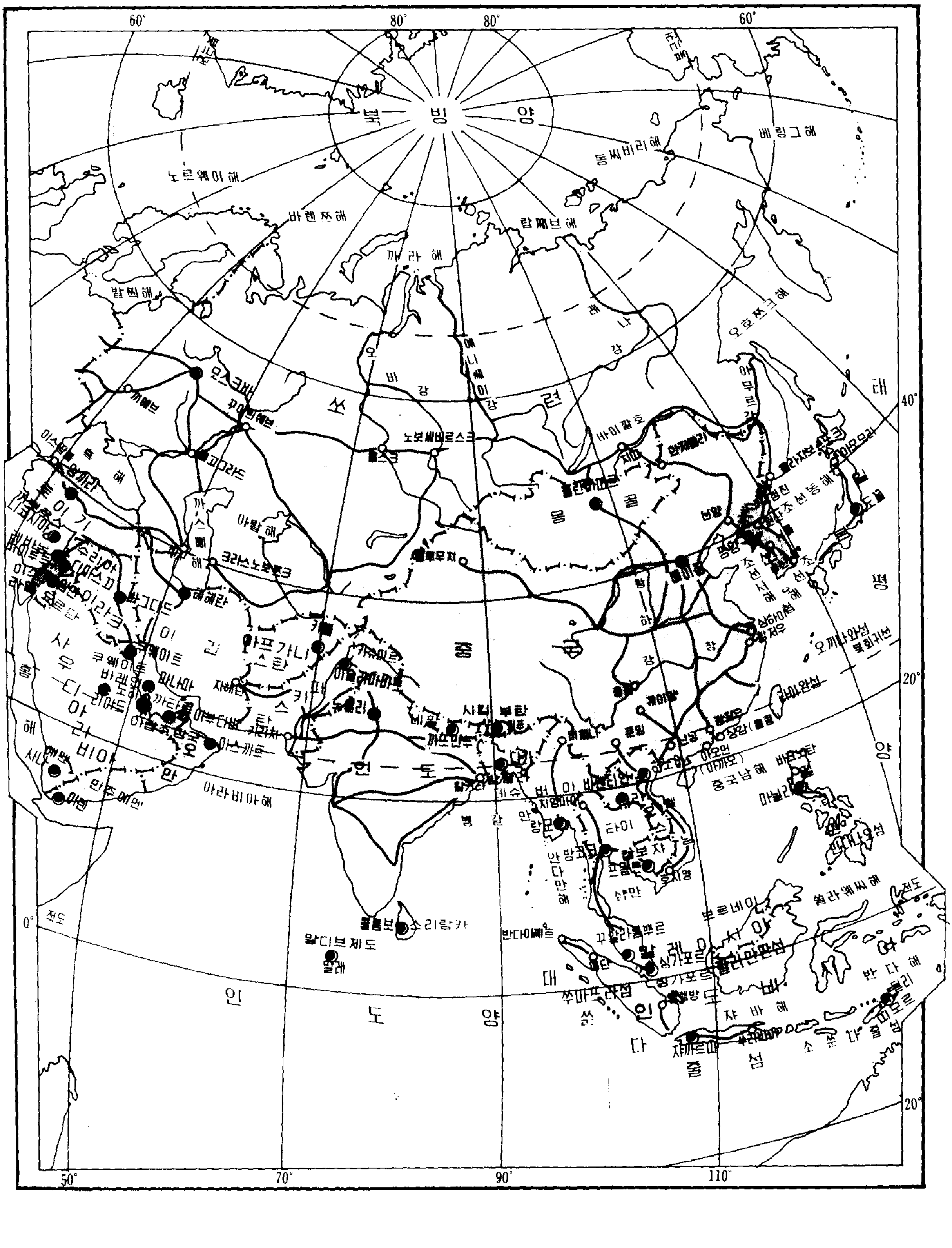
그밖에 일련의 세아토성원국들도 세아토는 《시대착오적인 존재》, 《세아토는 사멸하였다》고 하면서 자기들을 아세아침략에 리용하려는 미제의 책동에 도전하여나섰다.

이러한 형편에서 미제는 그 무슨 세아토의 《성격변형》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그 성원국들을 어떻게하나 이 침략기구에 얽어매놓으려고 획책하였다.

그러나 웰남, 라오스, 캄보쟈에서의 미제의 수치스러운 패배는 세아토의 마지막 붕괴과정을 더욱 다그쳤다.

미제는 하는수 없이 1975년 9월 24일 세아토각료리사회회의라는것을 벌려놓고 이 침략기구를 앞으로 2년사이에 점차적으로 해체하기로 결정짓지 않을수 없었으며 마침내 엄연한 현실로 끝장나고 말았다.

아 세 아



북 빙 양
노르웨이해
바렌쯔해
까라해
랍쩨브해
동씨비리해
베링그해
오호쯔크해
발찌해
오 비 강
예니쎄이강
레 나 강
쏘 련
모스크바
노보씨비르스크
바이깔호
몽 골
중 국
조선동해
조선서해
평양
도꾜
태 평 양
흑 해
까 스 삐 해
테헤란
바그다드
이라크
이 란
꾸웨이트
바레인
까따르
아부다비
마스까트
오 만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민주예멘
아덴
아프가니스탄
까라치
뉴델리
인 도
뱅갈만
아라비아해
스리랑카
꼴롬보
말디브제도
말레
방글라데슈
타이
캄보쟈
호지명
중국남해
마닐라
브루네이
싱가포르
자바해
반다해
인 도 양
적도
60°
80°
40°
20°
0°
50°
70°
90°
110°

아 세 아

중 국

(중화인민공화국)

넓이 959만 6,961km²
인구 약 8억명
수도 베이징(주민 약 800만명)

자연 및 주민

중국은 아세아의 동부와 중앙부의 넓은 대륙과 대만섬, 해남섬을 비롯한 약 3천 400개의 섬들로 이루어졌다.

땅생김새가 복잡하고 다양하며 아열대, 온대, 한대, 건조지대로 나뉘여진다.

비내리는 량도 지역과 계절에 따라 차이가 크다.

다민족국가로서 한족이 전 인구의 94%를 차지한다. 그밖에 60개의 소수민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중어이다.

정 치

중국인민은 모택동동지와 중국공산당의 령도밑에 오랜 기간의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제국주의, 봉건주의, 관료자본주의의 반동통치를 뒤집어엎고 중국혁명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1949년 10월 1일 첫 프로레타리아독재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후 중국인민은 안팎의 계급적원쑤들의 거듭되는 준동을 걸음마다 짓부시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중국인민은 3년간의 복구기(1949—1952년)를 거쳐 제1차 5개년계획(1953—1957년)을 수행하였다. 이 기간에 농업, 수공업, 자본주의적상공업의 사회주의적개조를 기본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사회주의공업화의 초보적토대를 닦았다.

1966년 8월 중국공산당 제8기 제11차전원회의에서 《프로레타리아문화대혁명》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69년 4월 제9차당대회에서는 프로레타리아문화대혁명의 경험을 총화하고 당규약을 채택하였다.

1973년 8월 중국공산당 제10차대회에서는 림표반당집단을 분쇄한 투쟁의 기본경험을 총화하고 프로레타리아독재하에서의 계속혁명의 방향과 과업을 밝혔다.

1976년에 중국인민의 위대한 수령 모택동동지(9월)와 주은래총리(1월)가 서거하였으며 왕홍문, 장춘교, 강청, 요문원 《4인무리》 반당도당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 당과 국가의 최고권력을 탈취하려는 음모책동을 강화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오늘 형제적중국인민은 자기의 영명한 수령 화국봉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4인무리〉를 분쇄하고 프로레타리아문화대혁명을 성과적으로 결속지었으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고있습니다.》

1976년 10월 중국인민은 화국봉동지의 령도밑에 《4인무리》의 당및국가권력탈취음모를 일격에 짓부심으로써 당의 제11차로선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 이로써 중국에서는 제1차프로레타리아문화대혁명이 승리적으로 결속되였고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발전시기에 들어서게 되였다.

1977년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0기 제3차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는 1) 화국봉동지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 및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임명한것을 확인하며 2) 등소평동지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위원,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주석,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국무원 부총리,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의 직무를 회복하며 3) 왕홍문, 장춘교, 강청, 요문원 반당집단을 당으로부터 영원히 내쫓으며 당내외의 모든 직책으로부터 철직시킬데 대한 3개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또한 전원회의는 당 제11차전국대회를 1977년의 적절한 시기에 소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당 제11차전국대회 의정을 만장일치로 승인하였다.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중국공산당 제11차전국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정치보고, 당규약개정에 관한 보고, 중국공산당의 새 규약을 만장일치로 찬동하였으며 당중앙위원회를 선거하였다.

8월 19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1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화국봉동지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으로 다시 선거하였다.

중국공산당 제11차전국대회가 승리적으로 끝난것을 열렬히 경축하여 베이징을 비롯하여 상해, 천진 등 주요 도시들과 여러곳에서 시위와 군중집회들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8월 20일저녁부터 21일까지 베이징에서 진행된 경축시위에는 400여만의 군중들이 참가하였다.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제4기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4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제의에 따라 1978년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기 제1차회의를 소집할것을 결정하였다.

12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인민정치협상회의 제4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제7차확대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1978년봄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 제5기 제1차회의를 소집하며 이 회의참가자들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기 제1차회의에 참가시킬데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제의를 찬동하는 결정을 채택하였다.

4월 20일 대경을 따라배우는 전국대회가 대경 유전에서 열렸다.

대회는 전당과 전국의 로동계급을 동원하여 모택동주석의 위대한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모택동사상을 학습하는 새로운 고조를 일으키며 《4인무리》를 더욱 깊이있게 폭로비판하고 공업이 대경을 따라배우는 군중운동을 새로운 단계에로 끌어올리며 대경식기업소를 일반화하고 나라를 하루빨리 현대화된 사회주의강국으로 건설할데 대한 과업을 토의하였다.

4월 27일부터 대회는 베이징에 옮겨와 계속되였으며 5월 13일에 끝났다.

또한 1977년에 중국에서는 전국석탄공업회의(1월), 전국철도일군회의(2월), 전국수산부문회의(3월), 전국야금공업회의(3월), 전국기본건설부문회의(3월), 전국교통일군회의(4월), 전국지질부문회의(7월), 전국체신부문회의(8월), 전국전력공업회의(11월), 전국여름작물생산회의(6월), 전국목화생산회의(6월), 전국농경지기본건설회의(7월), 전국소비합작사주임회의(4월), 과학원일군회의(6~7월)등 인민경제 여러부문 회의들이 진행되였다.

부문별회의들에서는 이 부문에 끼친 《4인무리》의 죄행을 폭로비판하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을 빨리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1977년에 중국은 리베리아(2월), 요르단(4월)과 새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아르헨띠나와 무역협정(2월), 애급과 장기무역협정과 장기지불협정(3월)을 각각 맺었다.

1977년에 모리따니대통령(4월), 가이아나대통령(4월), 버마대통령(4~5월, 9월), 가봉대통령(5월), 라오스총리(6월), 꽁고총리(6월), 수단대통령(6월), 적도기네대통령(9월), 유고슬라비아대통령(8~9월), 니제르최고군사리사회의장(9월), 캄보쟈공산당비서이며 정부총리인 뽈뽀트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주의캄보쟈당및정부대표단(9~10월), 까메룬대통령(10월), 말따총리(11월), 윁남공산당 총비서 러순을 단장으로 하는 윁남당및정부대표단(11월), 파키스탄의 정부수반 겸 계엄사령관 모함마드 지아 울 하크(12월)등이 중국을 각각 방문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최고주권기관이며 임기는 5년(특수한 조건에서 임기를 연장할수 있다), 헌법을 수정하고 법을 제정하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원총리와 국무원 성원들을 임명 및 소환하며 인민경제계획, 국가의 예산 및 결산을 비준한다. 현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제4기로서 1975년 1월에 선거되였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상설기관은 상무위원회이다.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소집하며 법을 해설하고 법령을 제정하며 해외에 주재할 전권대표를 파견 및 소환하며 외국사절을 받아들이고 외국과 맺은 조약을 비준 및 폐지한다.

상무위원회 위원장 엽검영(1978년 3월—)

국무원 최고집행기관, 총리 화국봉(1976년 4월—), 외교부장 황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7월 1일 창건, 주석 화국봉, **인민정치협상회의, 국민당혁명위원회, 전국총공회, 공산주의청년단, 부녀련합회**

경제, 사회문화

중국인민들은 현세기안에 중국을 현대화된 사회주의강국으로 건설할데 대한 중국공산당 제11차전국대회 결정을 받들고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여러전선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고있다.

공업부문에서는 1977년 4월 공업이 대경을 따라배우는 전국대회가 있은후 대경을 따라배우고 대경식기업소를 일반화하기 위한 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 전국적으로 3천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대경식기업소의 대렬에 들어섰다.

이 나라의 주요공업부문은 연료동력공업, 흑색금속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등과 경공업이다.

연료동력공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석탄공업이다.

주요석탄산지는 동북지구의 무순, 푸신, 허강, 지시 탄전들과 화북지구의 개란, 다둥 탄전들, 화동지구의 화이난탄전이다.

최근년간 새 탄광건설이 다그쳐짐으로써 석탄을 캐보지 못한 티베트지구와 장강이남지역에서도 여러개의 중소규모의 탄광이 생겨났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1977년에 전국적으로 년간계획을 28일간 앞당겨 완수하였으며 석탄생산량은 1976년의 같은 때에 비하여 10.2% 늘어났다.

연료동력공업에서는 원유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이 부문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몫이 점차 높아지고있다. 이 나라의 주요원유공업기지인 대경유전의 원유생산자들은 17년동안 해마다 평균 28%의 높은 장성속도로 원유생산을 늘여왔으며 1977년에는 원유생산계획을 5일간 앞당겨완수하였다. 이 유전에서 1977년에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한 유정은 1976년에 비하여 10개로 늘어났으며 채유대는 년초의 13개로부터 년말에는 76개로 늘어났다.

철광석과 석탄이 풍부하고 합금용금속이 많이 생산됨으로 야금공업의 발전전망이 크다.

큰 금속공업기지는 안산, 무한, 뽀오터우와 그밖에 주천, 중경, 태원, 상해, 베이징 등이며 주로 선철, 강철, 특수강 등을 많이 생산한다.

1977년에 야금공업부문에서는 강철, 강재, 8가지 유색금속제품 등 생산에서 모두 국가계획이 앞당겨 완수되였으며 이 부문 기본건설과 광산개발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였다. 이해 야금공업부문에서는 50여개의 크고작은 기본건설대상이 새로 건설되거나 복구되여 생산에 들어갔다. 흑색금속광산들에서 채광, 선광 등 여러 공정에서의 생산이 늘어났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분사식비행기와 대형증기타빈, 선박용디젤, 화물자동차를 비롯한 여러가지 기계설비들을 생산하고있다.

화학공업분야에서는 기초화학, 유기합성공업 등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1977년에 화학비료생산에서는 12월 10일까지 년간계획을 완수하였으며 이 기간에 생산된 화학비료량은 1975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1.9% 늘어났다.

또한 원유채취량이 늘어남에 따라 석유화학공업도 발전하였다. 화학공업의 중심지는 동북지구와 동북연해지구이다.

라지오공업도 발전하여 지난날 공업이 발전하지 못하였던 신강위구르자치구, 티베트자치구, 내몽고자치구의 150여개 공장, 기업소들에서 라지오를 생산하고있다. 1975년에 라지오생산량은 1965년의 10배이상으로 늘어났으며 그 가지수도 늘어났다.

경공업은 비교적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으며 그 가운데서 면방직공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면방직공업중심지는 상해와 그 주변 도시들이다.

농업에서 기본은 알곡생산이며 공예작물생산, 축산업도 적지 않은 몫을 차지한다. 알곡과 감자류가 전국씨불임면적의 약 90%를 차지한다.

주요농작물은 벼, 콩, 수수, 조, 목화, 밀, 차 담배, 고구마,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공예작물 가운데서는 목화가 큰 몫을 차지한다. 이 나라 목화생산량의 3분의 2는 황하중하류의 벌방지대에서 생산된다.

주요집짐승은 돼지, 소, 말, 양, 염소, 락타, 가금 등이다.

양잠업도 오랜 력사를 가지고있다. 주요잠업지역은 양자강류역, 주강삼각주, 쓰촨분지 등이다.

1977년에 중국 각지 농촌들에서는 농업이 대채를 따라배우기 위한 제2차전국대회방침을 받들고 가물피해를 이겨내고 농사를 잘 짓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으며 농경지기본건설을 활발히 벌렸다. 중국의 26개 성, 시, 자치구들에서 농경지기본건설지휘부를 내오고 이 사업을 밀고나갔다. 산동성에서는 1977년 12월까지 이 성에 있는 부침땅의 5분의 1을 정리하였다. 산서성 평정현에서는 1975년 11월부터 1977년 6월까지의 기간에 827개의 크고작은 관개공사를 끝내고 여러개의 물길들을 건설하였다.

운수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철도운수이며 그다음 해상운수와 하천운수이다. 주요무역항은 상해, 천진, 뤼따, 칭도, 광주 등이며 하천운수는 양자강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된다.

1977년에 중국의 철도부문에서는 짐을 더 많이 끌고 더 빨리 달리기 위한 투쟁을 벌려 전국적으로 짐나르기계획을 24일간 앞당겨 끝냈다. 광주철도국에서는 짐싣기, 짐부리우기 등 16개 계획지표들을 모두 완수하였다.

주요수출품은 각종 광물류와 농축산물, 수산물, 섬유제품을 비롯한 경공업제품들이다.

주요수입품은 기계 및 설비, 철강제품, 유색금속, 화학비료, 섬유원료, 밀, 천연고무 등이다.

화폐단위는 웬이다.

1977년 9월 17일 핵시험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였다.

출판보도; 통신 신화통신

신문 인민일보(공산당기관지), 광명일보, 해방군보(인민해방군기관지), 베이징일보

잡지 홍기(공산당기관잡지)

방송 중앙인민방송, 베이징방송, 베이징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9년 10월 6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3년 11월에 조중경제및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1957년 12월에는 조중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1년 7월 11일에는 조중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1971년 7월에는 해안구조협조에 관한 협정을, 1976년 1월에는 우편통신및전기통신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당및 정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1975년 4월 18일부터 4월 26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탄생 65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사진전람회》가 1977년 4월 14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높이 추대되신데 대하여 중국 신문들과 통신, 방송이 널리 보도하였다.

1977년에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련락부 부부장일행(4월), 농림부대표단(4월), 제1차중국친선참관단(4~5월), 중국인민해방군친선참관단(5~6월), 신화통신사대표단(5월), 중앙악단(8~9월), 축구선수단(8월), 인민해방군8.1녀자롱구선수단(8월), 우전대표단(9월), 제2차중국친선참관단(9월), 활쏘기선수단(10월), 인민해방군8.1사격선수단(10월), 위생대표단(12월) 등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로부터는 부총리겸외교부장(2월), 정부무역대표단(3월), 조선로동당친선참관단(5월), 건재공업부대표단(1월), 과학기술대표단(2월), 조중친선협회대표단(3월), 조선중앙통신사대표단(10월), 조선화전람회대표단(11월), 무역은행대표단(12월), 남자롱구선수단(7월), 축구선수단(7월) 등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홍　콩(샹강)

넓이 1,034Km²
인구 437만 9,000명(1975년말)
행정중심지 홍콩

자연 및 주민

중국령토인 홍콩은 광주시에서 동남쪽으로 140Km 떨어진곳에 있는 홍콩섬(82Km²)과 구룡반도(7Km²), 그 부근에 널려있는 235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졌다.

기후는 열대성기후에 속하나 철바람의 영향으로 변화가 많다. 한해평균기온은 22°C이며 한해 평균강수량은 2,000mm이다. 1977년에 홍콩에서는 《90년래 최악의 가물》로 강수량이 평년보다 36% 떨어졌다.

주민의 98%이상이 중국사람이며 영국사람과 기타 구라파사람들이 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나 일상적으로 중어를 많이 쓴다.

정　　치

1839—1842년사이에 영식민주의자들은 중국을 반대하는 침략적인 《제1차아편전쟁》을 통하여 홍콩을 강점한후 1842년 10월 29일 당시 만청정부에 불평등한 《남경조약》을 강요하여 홍콩을 완전히 강점하였다.

홍콩을 중심으로 중국침략을 강화한 영식민주의자들은 1860년 10월 또다시 침략적인 《베이징조약》을 강요하여 구룡반도의 남부지역을 떼내였으며 1898년에는 홍콩일대의 섬(신개지)들을 99년간의 《조차지》라는 이름밑에 빼앗아냈다.

제2차세계대전기간에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홍콩을 3년 8개월동안 무력으로 강점하고있었다.

일제가 패망한후 영제국주의자들이 중국인민의 령토인 홍콩에 다시 기여들었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오래동안 홍콩을 발판으로 하여 중국에 대한 략탈과 침략을 감행하여 왔으며 극동의 무역을 위한 해상운수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근거지로 삼아왔다.

홍콩의 로동자들은 영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략탈을 반대하고 삶의 권리를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는 영국과 미제독점자본에 장악되여있으며 외래독점체들의 3대은행이 경제전반을 틀어쥐고 있다.

홍콩은 자유무역지대로서 경제에서 홍콩의 자유무역항을 통한 중계무역과 수입한 원료를 다시 가공하여 파는 중계가공무역이 큰 몫을 차지한다. 그 가운데서도 중계가공무역의 몫이 크다.

홍콩에서는 주로 비금속광물, 직물 및 각종 옷류, 의약품, 기름작물, 사탕가루와 그 가공제품, 남새, 과일, 커피, 홍차, 향료, 기계류, 물감, 손목시계, 반도체라지오, 인삼 등이 재수출되며 이것은 무역총액의 20~30%를 차지한다.

공업에서는 방적, 직물, 뜨개제품 등 섬유공업을 위주로 한 경공업이 공업총생산액의 약 90%를 차지하며 그 가운데서 방직공업이 거의 30%를 차지한다.

농업부문에서는 인구의 8.5%가 일한다. 부침땅은 전령토의 13%정도이며 그 가운데서 씨붙임땅의 43%는 논이고 30%는 남새, 12%는 꽃밭으로 리용되고있다. 알곡은 대부분 수입하며 생산되는 알곡으로는 수요의 10%밖에 충족시키지 못한다.

한해동안에 약 10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이 홍콩에 드나들며 여기에서 얻는 수입도 주요재정원천의 하나로 되고있다.

홍콩은 영국의 《파운드지대》에 속하지만 무역지대에서는 자유외화로 쓰고있는 홍콩딸라를 쓴다.

주요수출품은 각종 천과 옷류, 부인용가방, 놀이감, 신발, 전기기구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료품과 섬유원료, 식량, 남새, 집짐승, 고기, 소젖제품, 물고기, 과일, 알류, 운수기재, 전기설비, 광학제품, 석유와 그 제품이다. 지어 물까지 수입한다.

근로자들의 생활은 어려우며 수십만명이 빈민굴에서 산다.

1977년에 홍콩에서는 심한 가물로 인한 물부족으로 6월 1일부터 물제한조치를 취하였으며 7월 5일부터는 하루 10시간동안의 물공급제가 실시되였다.

출판보도; **신문** 문회보, 대공보, 성도만보, 홍콩상보, 홍콩스탠다드, 스타, 챠이나 메일

방송 홍콩방송, 홍콩상업방송, 홍콩텔레비죤방송

마카오(아오먼)

넓이 16Km²
인구 32만명
행정중심지 마카오

자연 및 주민

중국령토인 마카오는 중국의 남해기슭, 홍콩에서 서쪽으로 60~70Km 되는곳에 자리잡고있다.

기후는 따뜻한 편이며 겨울에는 몹시 메마르다. 한해 비내리는량이 매우 적다.

주민의 98%가 중국사람이다.

공용어는 중어이다.

정 치

1516년부터 중국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한 뽀르투갈식민주의자들은 1557년에 중국의 해적토벌에 《원조》를 주었다는 구실로 거주권을 얻어내고 이곳을 《조차지》로 만들었다. 1887년 12월에 놈들은 《조차료》지불조차 거부하면서 당시 청국정부에 강요하여 마카오를 강점하였다.

중국정부는 1955년 10월 마카오가 중국의 령토이며 이에 대하여 중국이 반환할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성명하였다.

뽀르투갈은 마카오에 《총독》을 두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어업이며 한해에 500만딸라에 이르는 물고기를 잡아 가공품으로 판다.

이밖에 천과 성냥, 애자, 금세공품 등을 만드는 가내수공업이 있다.

알곡생산량이 적기때문에 식량은 사들인다.

마카오는 또한 국제도박장을 통한 세금수입과 관광수입으로 재정을 유지하고있다.

마카오는 홍콩을 통한 중계무역을 주로 한다. 대외무역은 한해에 6천 500만~7천만딸라이며 수입은 수출의 2배를 넘는다.

주요수출품은 다른 나라에서 가져다 다시 세공한 금세공품을 비롯하여 각종 수공업제품, 식료품, 물고기, 새우, 가죽제품, 뜨개제품, 옷, 신발, 도자기, 섬유제품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금, 대리석, 식량, 과일, 고기제품, 담배, 양털, 목재, 마실물 등이다.

주민들의 문화수준은 낮으며 그들의 생활은 어려운 형편에 있다.

몽 골

(몽골인민공화국)

넓이 156만 5,000Km²
인구 142만 2,400명(1975년 1월 1일)
수도 울란 바따르(주민 27만명)

자연 및 주민

아세아의 중동부 쏘련과 중국사이에 자리잡고있다. 중서부는 산악지대이고 남쪽은 사막지대이다.

대륙성기후로서 춥고 메마르다.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의 기온의 차가 심하다. 비와 눈은 적게 내린다.

주민은 90%이상이 몽골사람이며 그 밖에 까자흐사람, 중국사람, 로씨야사람 등이 있다.

공용어는 몽골어이다.

정 치

몽골인민은 인민혁명당의 령도밑에 외래침략자들과 봉건통치배들을 때려부시고 1921년 7월 11일 인민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1924년 11월 26일 몽골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몽골인민은 인민혁명당의 령도밑에 민주주의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당 제15차대회에서 사회주의물질기술적토대를 쌓을데 대한 과업을 내놓았다.

몽골인민은 1975년까지 제5차 5개년계획을 수행하고 1976년부터 당 17차대회에서 내놓은 제6차 5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7년 12월 21일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1978년도인민경제 및 문화발전국가계획에 관한 보고와 국가예산에 관한 보고를 토의하였다.

1월과 2월에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와 내각은 축산업과 관련한 결정서, 사회급양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과업에 대한 결정서를 각각 채택하였다.

6월 19일에 제9기대인민후랄선거가 진행되였다.

6월 27일 대인민후랄 제9기 제1차회의에서는 대인민후랄 상임위원회 위원선거에 관한 결정과 내

각구성에 관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12월 대인민후랄회의에서는 1978년도 인민경제 및 문화발전국가계획과 1978년도국가예산을 토의하고 승인하였다.

1977년에 몽골은 꼬스따 리까(6월), 에스빠냐(7월)와 각각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5월에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대인민후랄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유. 쩨덴발을 단장으로 하는 몽골당및정부대표단이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하였다.

대인민후랄 최고주권기관이며 임기는 3년, 현대인민후랄은 제9기로서 1977년 6월에 선거

상임위원회 위원장 윰좌긴 쩨덴발(1974년 6월—)

정부 총리 즈•바뜨멍호(1974년 6월—), 외교부장 만갈린 두게르쑤렌, 보위부장 바떤 도르쥬

정당, 사회단체; 인민혁명당 1921년 3월 1일 인민당으로 창건, 1924년 8월 제3차당대회에서 인민혁명당으로 고쳤다. 1976년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제17차 당대회 진행, 제1비서 윰좌긴 쩨덴발, 직업동맹, 혁명청년동맹, 근로녀성동맹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축산업을 중심으로 한 농업이다. 축산업은 농업총생산액의 80～85%, 국민총생산액의 60%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양(집짐승마리수의 70%), 염소, 소, 말, 락타 등이다. 인구 한사람당 집짐승마리수에서 세계 첫자리를 차지한다.

곳곳에 판 우물을 관개수로 리용하여 봄밀, 남새, 집짐승먹이풀을 심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귀밀, 감자 등이다.

공업은 국민총생산액에서 약 40%를 차지한다. 주요공업부문은 축산물가공을 위주로 한 식료공업, 가죽공업, 모방직공업과 채굴공업, 목재가공공업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석탄, 원유, 철, 금, 은, 동, 망간, 중석 등이다. 령토의 10%(1천 500만헥타르)가 산림이다.

주요공업중심지는 울란 바따르, 다르한, 쵸이발산, 쑤헤바따르 등이다. 그 가운데서 울란 바따르의 공업생산이 이 나라 공업생산액의 절반을 차지한다.

1976년부터 제6차 5개년계획을 수행하고있다. 1977년에 공업총생산액은 1976년에 비하여 4% 늘어났다. 공업기업소들의 80%이상이 년간계획을 수행하였다.

공업기업소들은 8천 200만뚜그리크어치의 제품을 계획외에 더 생산하였다.

운수에서 기본은 철도운수이다. 철도수송량이 화물총수송량의 70%이상을 차지한다. 1977년에 쌀히뜨—에르데네뜨사이, 다르한—에르데네뜨사이의 철길과 힐가나뜨—에르데네뜨사이의 자동차길이 새로 닦아졌다.

무역은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이 기본이며 쏘련과의 무역이 80%이상을 차지한다.

주요수출품은 집짐승, 가죽, 양털, 고기 및 그 제품 등 축산물(수출총액의 80%이상)이며 그밖에 모직물, 모포, 형석, 중석 정광 등이다.

주요수입품은 강재, 공업설비, 건재, 농기구, 수송기계, 천, 의약품 등이며 그밖에 원유제품, 뜨락또르, 공구류, 일용품, 화학제품, 의류, 식료품 등도 수입한다.

화폐단위는 뚜그리크이다.

교육분야에서는 전반적중등의무교육제가 실시되고있다. 1975—1976학년도에 학생수는 30여만명이였다.

출판보도; 통신 몬짜메

신문 우넨(당및정부기관지), 허덜머르(직업동맹기관지), 잘로츠딘 우넨(혁명청년동맹기관지), 울란 오드(인민군기관지)

잡지 나린 아미드랄(인민혁명당기관잡지)

방송 울란 바따르라지오및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0월 15일에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1969년 6월 7일에는 령사협약을 맺었다.

1956년 5월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같은해 11월에는 경제및문화협정을 맺었다.

1960년 8월 12일에는 몽골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수도 울란 바따르를 비롯하여 지방도시들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들이 진행되였다.

1977년에 몽골 작곡가(4월), 인민군대표단(5월), 몽골조선친선협회대표단(7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 최고인민회의대표단(2월), 직맹대표단(5월), 조선몽골친선협회대표단(7월)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웰　　남

(웰남사회주의공화국)

넓이 33만 2,559Km²
인구 4,870만명(1976년 2월)
수도 하노이(주민 65만명)

자연 및 주민

아세아의 동남쪽에 길게 자리잡고있다.

나라의 절반이상이 산간지대이다.

열대성기후로서 사철 더우며 장마철과 가물철로 나뉜다. 한해평균기온(하노이)은 23.6°C, 한해강수량은 1,700mm이다.

주민은 웰남족(경족)이 약 90%이며 그밖에 60여개의 소수민족이 있다.

공용어는 웰남어이다.

정　　치

웰남인민은 공산당의 령도밑에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통치를 뒤집어엎고 1945년 9월 2일 동남아세아에서 첫인민민주주의국가인 웰남민주공화국을 창건하였다.

1975년 4월 30일에는 20여년간의 영웅적인 반미구국투쟁에서 완전승리를 이룩하였다.

1976년 4월 25일 남북총선거를 진행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였으며 6월 24일 웰남사회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웰남은 전국적범위에서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길에 들어섰다.

1977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인민회의 제6기 2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1977년도 국가계획의 방향, 과업 및 목표에 관한 결정을 비롯한 여러개의 결정들과 1977년도 예산안이 채택되였다.

12월에 진행된 인민회의 제6기 3차회의에서는 1978년도 국가계획과 1978년도국가예산 그리고 기타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9월에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호지명박물관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4월에 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혁명의 새 단계에서의 문화예술사업과 관련한 지시문을 발표하였다.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호지명시에서 통일전선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웰남조국전선, 남부웰남민족해방전선, 웰남민족민주평화력량동맹을 하나의 조직체로 통합하여 웰남조국전선을 내오기로 결정하고 새 규약과 강령을 채택하였다.

1월 18일에는 남북의 두 문학예술단체들을 통합하여 웰남작가예술인동맹을 창립하였다.

12월 31일에 웰남은 웰남—캄보쟈국경문제와 관련한 자기의 립장을 천명하는 정부성명을 발표하였다.

웰남은 유엔총회 제32차회의에서 149번째성원국으로 되였다.

12월 4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친선및협조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7월에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정부총리가 이끄는 당및정부대표단이 라오스를 방문하고 두 나라 사이의 친선및협조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11월에는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당및정부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 임기 4년, 대의원수 492명, 현인민회의는 제6기로서 1976년 4월에 선거

상무위원회 위원장 장 정

주석 인민회의에서 선거, 주석 손덕승(1969년 9월—)

정부 1976년 7월 3일 구성, 총리 범문동, 외교부장 원유정, 국방부장 무원갑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0년 2월 3일에 창건, 1951년 2월 제2차 전국대표자회에서 로동당으로 고침, 1976년 12월 제4차 당대회에서 공산당으로 고침, 총비서 려순, **조국전선, 직업총련맹, 호지명공산주의청년동맹, 녀성동맹**

경제, 사회문화

인민경제에서 농업생산이 아직 높은 몫(약 50%)을 차지한다.

주민의 80%이상이 농사한다. 농업에서는 알곡생산이 기본이다. 부침땅의 90%에 알곡작물을 심으며 그중 80%이상이 논이다.

주요농작물은 벼, 강냉이 등이며 그밖에 천연고무, 사탕수수, 바나나, 야자, 카싸바, 커피 등 열대작물이다. 벼의 주요산지는 홍하하류벌이다. 여기에서는 이 나라 벼생산량의 절반이상이 생산된다. 1976년부터 오랜 고무재배원의 70%가 다시 고무를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그중 3분의 2가 북부지역에 있다. 찌크나무, 자단나무, 흑단나무, 대나무 등 쓸모있는 나무들이 많다. 전쟁시기에 피해를 입은 산림을 복구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1977년에 20만헥타르의 산림이 새로 조성되였다.

공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은 석탄, 린회석을 비롯한 채취공업이다. 바크보만기슭의 홍가이탄전(년산 300만톤이상)은 동남아세아에서 가장 큰 탄전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석탄, 린회석, 철, 주석, 연, 아연, 중석, 크롬, 금, 안티몬 등이다.

흑색금속공업과 기계공업을 비롯한 중공업과 경공업도 발전하고있다.

1977년에 농업, 림업, 수산업, 소비품 생산을 늘이는 동시에 기계공업과 농업에 복무하는 기타 중공업의 건설과 생산을 다그치는것을 중심과업으로 내놓았다.

운수에서 기본은 철도운수와 해상운수이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인민경제 여러부문의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보장하기 위하여 1977년 7월 1일부터 렬차운행시간을 늘이였다.

1977년에 퀴 논항이 복구되여 4천톤짜리까지의 배가 드나들수 있게 되였다.

무역총액의 90%를 사회주의나라들과 진행한다.

주요수출품은 석탄, 주석, 린회석 등 광물과 섬유제품, 뽕누에실, 견직물, 수예품, 통졸임, 가죽제품, 황마, 차, 커피, 담배, 바나나, 기름작물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설비를 비롯한 공업제품

이다.

1977년에 호지명시에서 국립종합대학이, 하노이에서는 군사대학이 문을 열었다.

남부주들에서는 해방후 1년반동안에 64만명이 글을 읽고 쓸수 있게 되였다.

출판보도; 통신 웰남통신(브이엔티티엑스)

신문 인민(공산당기관지), 구국(조국전선기관지), 인민군(인민군기관지)

잡지 학습(공산당리론잡지)

방송 《웰남의 소리》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0년 1월 3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7년 11월 20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76년 11월 27일에는 조선중앙방송위원회와 《웰남의 소리》방송국사이에 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분야에서 호상협조할데 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1965년 8월 12일에는 웰남조선친선협회가, 1976년 3월 15일에는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투쟁지지웰남위원회가 각각 결성되였다.

1977년 6월 25일 하노이에서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주구들을 반대하며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과의 련대성월간》을 개막하는 집회가 진행되였다. 7월 25일에는 반미공동투쟁월간이 끝나는것과 관련하여 남딘시에서 군중집회가 진행되였다.

2월 4일 통일전선대회에서는 우리 나라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내놓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새로운 구국방안을 지지하여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에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1977년에 웰남 민용항공총국대표단(1월),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투쟁지지웰남위원회대표단(4월), 인민군대표단(5월), 민족음악단(6월) 등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또한 이해에 우리 나라 과학기술협조대표단(2월), 정부무역대표단(2월), 민용항공대표단(9월) 등이 웰남을 방문하였다.

라 오 스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넓이 23만 6,800Km²

인구 300만명 (1977년)

수도 비엔티안(주민 14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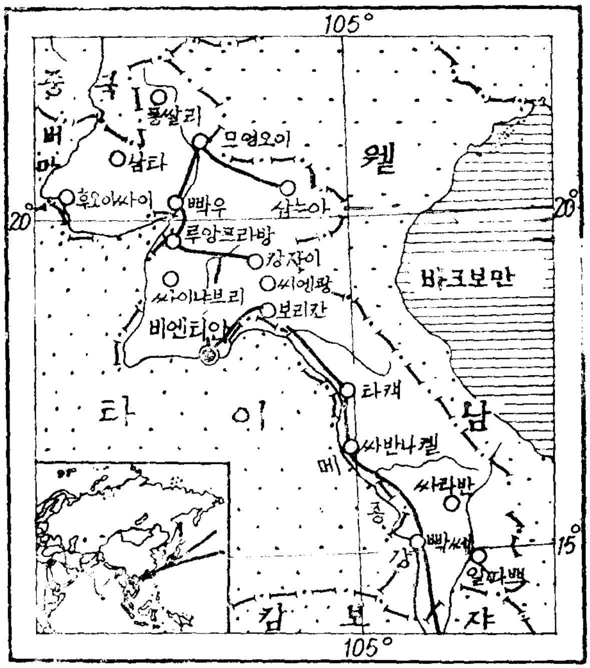
자연 및 주민

아세아의 동남쪽에 자리잡고있으며 대부분이 산지대와 높은벌로 되여있다.

열대철바람지역에 놓여있으나 다른 열대지방에 비하여 기온이 낮다. 비가 많이 내리며 장마철(5~10월)과 가물철(11~4월)로 나뉜다.

다민족국가로서 30여개의 민족,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그중 전체 주민의 3분의 2가 라오족이다.

공용어는 라오스어이다.



정 치

라오스인민은 인민혁명당의 령도밑에 외래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오래동안의 반미구국투쟁을 통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와 봉건군주제도를 뒤집어 엎고 1975년 12월 2일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해방혁명이 승리한 다음 라오스인민은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인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라오스인민은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고 안팎의 계급적원쑤들의 온갖 파괴책동으로부터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키며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민족자주로선에 따라 자립경제를 건설하며 점차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쌓을데 대한

과업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7년 3월 최고인민회의와 정부의 련합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공화국창건이후 정부의 계획실행정형에 대한 보고를 심의하고 토의하였다.

4월 8일 최고인민회의와 정부의 련합회의에서는 1977년도 국가예산을 승인하였다.

6월 11일에는 최고인민회의 특별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특별전원회의에서는 새 세금정책을 심의하고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며 사회주의 개조와 건설을 다그치며 이전의 세금제도를 없애기 위하여 조직된 정부위원회가 작성한 공업 및 국내상업세와 수출입세에 관한 규정들이 채택되였다.

3월에 라오스인민은 인민정권을 뒤엎을것을 목적한 반정부음모를 적발분쇄하였다.

대외적으로 라오스는 자주적이며 평화애호적인 정책을 실시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를 밀접히 하고 쁠럭불가담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있다.

1977년 1월에 베닌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새로 맺었다.

7월 18일에는 윁남과 우호협조조약을 맺었다.

또한 쏘련과 농업협조에 관한 협정(1월)과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7월)을, 웽그리아와 경제, 과학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3월)과 문화, 기술협조협정(5월)을 각각 맺었다.

1977년에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정부총리인 카이손 폼비한을 단장으로 하는 당및정부대표단이 독일민주주의공화국(5월), 중국(6월) 등을 방문하였다.

최고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 45명의 위원들로 구성.

상무위원회 위원장 수파누봉(1975년 12월—)

주석 국가수반, 1975년 12월 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임명. 주석 수파누봉(1975년 12월—)

정부 1975년 12월 2일 38명으로 구성, 총리 카이손 폼비한, 외교부장 푼 시파세우트, 국방부장 캄타이 시판돈

정당, 사회단체; **인민혁명당** 1955년 3월 22일 인민당으로 창건, 1972년 2월 제2차당대회에서 인민혁명당으로 고침, 총비서 카이손 폼비한, **애국전선, 인민혁명청년동맹, 애국녀성동맹**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90%가 농업과 림업 부문에서 일한다.

농업에서 기본은 벼생산이다. 씨뿌림땅은 약 100만헥타르이며 그중 96만헥타르가 논이다.

주요농작물은 벼, 강냉이, 고무, 담배, 목화, 커피, 아편 등이다.

1977년에 124키로메터의 물길과 200여개의 뚝이 수리되여 1만 1천 400헥타르의 땅에 물을 댈수 있게 되였다.

또한 한해동안에 5만헥타르의 묵은땅과 3만헥타르의 황무지를 씨뿌림땅으로 만들었다.

축산업도 농업에서 비교적 큰몫을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물소, 소, 돼지 등이다.

공업은 산림자원과 농산원료에 기초하고있다. 주요공업부문은 도자기, 나무제품, 공예품 등을 생산하는 일용품공업, 정미업, 제재업, 직조업 등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주석, 연이며 그밖에 동, 중석, 금, 백금, 망간, 철 등이 있다. 령토의 70%가 산림이다. 찌크, 흑단, 백단 등 귀중한 나무들이 많다.

이 나라에는 철길이 없다. 교통운수는 물길과 도로망에 의존하고있다. 인민정권이 수립된후 지난 2년동안에 약 1천키로메터의 도로가 새로 건설되였다.

주요수출품은 주석, 찌크재, 커피, 목화, 집짐승, 담배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식료품, 천, 원유제품, 금속가공품 등이다.

화폐단위는 해방키프이다.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라오스말로 글을 가르치고 있다. 1977—1978학년도에 학생수는 51만 9천여명에 달하였다. 1977년에 15만명이 문맹을 퇴치하였으며 1천 90여개의 마을이 문맹에서 벗어났다.

해방후 2년동안에 12개의 주병원을 비롯하여 군과 마을들에 모두 516개의 병원과 진료소, 약국과 의학실험소들이 세워졌다.

종교는 불교가 지배적이다. 산간지대의 소수민족은 지방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파테트 라오통신

신문 시엥 파싸쏜(인민혁명당기관지), 라오 하크사트(애국전선기관지), 비엔티안 마이, 비엔티안 포스트, 사이캉

방송 파테트 라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6월 24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6년 10월 13일 조선통일지지라오스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조선통일지지라오스위원회는 1977년 1월 우리나라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채택된 조국통일을 위한 새로운 구국방안을 지지하여 2월 10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11월 18일에는 조선문제에 관한 유엔총회 제30차회의의 결의를 리행할것을 요구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이 나라에서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군중집회들이 진행되였다.

1977년 6월 13일부터 18일까지 라오스인민혁명당 총비서이며 정부총리인 카이손 폼비한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당및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캄 보 쟈

(민주주의캄보쟈)

넓이 18만 1,035km²
인구 776만명(1977년)
수도 프놈 펜(주민 20만명)

자연 및 주민

아세아의 동남쪽끝에 자리잡고있다. 나라의 대부분이 벌로 되여있다.

열대성바람기후로서 일년내내 기온이 높다. 장마철(5~10월)과 가물철(11~4월)이 뚜렷하다. 한해평균강수량은 2,000mm이다. 바다가지방에서는 4,000~5,000mm의 비가 내린다.

주민의 87%가 크메르족이며 그밖에 20여개의 종족들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캄보쟈어이다.

정　　치

캄보쟈인민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영웅적인 혁명전쟁을 통하여 1975년 4월 17일 나라를 완전히 해방하고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민주주의캄보쟈를 창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캄보쟈공산당창건 17돐에 즈음하여 캄보쟈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뽈 뽀트동지에게 보내신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승리후 용감한 캄보쟈 인민과 혁명군은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귀 당의 올바른 령도밑에 독립, 자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다지면서 나라를 보위하고 건설하며 경제를 복구하기 위한 새로운 력사적단계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고있습니다.》

혁명승리후 캄보쟈공산당은 3가지 과업을 내놓고 인민들을 새로운 혁명과업 수행에로 불러일으켰다.

1) 민주주의캄보쟈를 견결히 수호하고 우리의 독립, 자주권과 현재의 국경테두리안에서의 령토완정을 보위하며 당의 로농정권과 우리의 신성한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여야 한다.

2) 사회주의혁명을 계속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잘하여야 한다. 즉 각 분야에서의 우리의 사회적 소유제를 점차 공고발전시켜야 한다.

3) 우리 민주주의캄보쟈의 사회주의건설에 노력하고 이를 중요시하여야 한다. 즉 각 분야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잘, 더빨리 진행하여야 한다.

캄보쟈인민은 안팎의 원쑤들의 파괴암해책동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령토완정과 혁명주권을 굳건히 지켜냈으며 나라의 안정을 이룩하였다.

1977년 9월 27일 프놈 펜에서 캄보쟈공산당 창건 17돐과 이 당의 공개를 기념하는 경축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경축대회에서 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 뽈 뽀트는 공산당창건 17돐에 즈음하여 캄보쟈공산당은 자기의 존재를 내외에 공개한다고 정식으로 선언하였다.

대외적으로는 독립, 평화 및 중립, 쁠럭불가담정책을 견지하면서 쁠럭불가담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적극 발전시키고있으며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을 견결히 지지하고있다.

1977년 12월 31일 민주주의캄보쟈정부는 캄보쟈—윁남국경문제와 관련하여 세계5대륙의 민주주의캄보쟈의 멀고 가까운 벗들과 세계여론에 보내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1월 10일 외교부는 계속되는 타이의 국경도발행위와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공보를 발표하였다.

3월 19일 외교부대변인은 미국대표단의 민주주의캄보쟈방문 제기와 관련하여 캄보쟈인민은 이 제기를 받아들일수 없으며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만날수 없다는 립장을 표시한 보도를 발표하였다.

8월부터 라오스와의 항공운행이 다시 시작되였다.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공산당 비서이며 정부총리인 뽈 뽀트를 단장으로 하는 당및정부대표단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인민대표회의 최고립법기관, 대의원수 250명, 임기 5년, 1976년 3월 20일에 선거, 인민대표회의는 국가상임위원회를 선거하며 정부를 임명한다.

상설회의 의장 누구온 찌에

국가상임위원회 인민대표회의에서 5년임기로 선거되며 주석, 제1부주석, 제2부주석으로 구성된다. 국가상임위원회는 헌법의 테두리안에서 그리고 인민대표회의 법령과 로선에 따라 대내외문제에서 민주주의캄보쟈를 대표한다.

주석 키에우 삼판(1976년 4월—)

정부 1976년 4월 14일 구성, 총리 뽈 뽀트, 외무담당부총리 이엥 싸리, 국방담당부총리 손 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60년 9월 30일 창건, 비서 뽈 뽀트, **근로자동맹, 민주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85%이상이 농사한다. 농업에서 기본은 벼생산이며 부침땅의 80%가 논이다.

주요농작물은 벼, 강냉이, 후추, 차, 목화, 콩, 고무 등이다.

농업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를 발전시키고있다.

1976년에 1헥타르당 3톤의 벼생산계획이 수행되였다.

1977년상반년현재 약 40만헥타르의 관개를 실시하였으며 알곡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였다.

이 기간 2억립방메터의 물주머니를 비롯하여 여러개의 물주머니를 마련하였다.

소, 물소, 돼지 등을 기본으로 하는 축산업이 발전하여 1977년현재 소는 100만마리이상, 물소는 50만마리에 달하였다.

주요공업으로는 제재, 정미, 도자기, 고무가공, 방직, 세멘트, 종이, 합판 공업 등이다.

주요지하자원은 금, 연, 몰리브덴, 질콘 등이다. 나라의 45%가 산림지대이며 찌크나무, 망그로브 등 질좋은 나무들이 많다.

공업분야에서는 농업생산과 인민생활에 복무하는 공장을 주로 일떠세우는 방침을 내놓고 새로운 공장들을 건설하고있으며 외국원료에 의거하고있던 공장들을 기본적으로 자기 나라 원료를 쓰는 공장으로 개조하고있다.

이와 함께 수공업체계도 세우고 공고발전시키고 있다.

전쟁시기 모든 공업, 기업소들의 80%가 파괴되여 못쓰게 되였다. 혁명후 1년동안에 전국의 100여개의 공장과 직장이 생산을 회복하였다. 2년남짓한 기간에 조선소, 자동차수리공장, 제6기계제작공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건설확장되였다. 지구, 지역, 군들에는 농업발전과 인민생활에 직접 이바지할수 있는 공장과 수공업직장들이 건설확장되였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와 수상운수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자동차길의 총길이는 6천 500키로메터이다. 국내수송운수에서는 메콩강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수출품은 쌀, 고무, 후추, 목재, 수산물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금속, 천, 식료품, 화학제품 등이다.

교육분야에서는 정규적인 학교교육사업과 함께 문맹퇴치운동을 벌린 결과 1977년현재 글모르는 사람들의 80~90%가 글을 읽고 쓸수 있게 되였다.

보건분야에서는 학질을 비롯한 질병을 없애기 위한 4개년계획을 세우고 첫해인 1977년에 70~80%를 없앴다.

병원과 약국들이 수도와 지구, 지역 협동농장들에 다 들어갔다. 약품수요의 80%를 자체의 원료로 만든 약으로 보장하고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12월 20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3년 11월에는 무역및지불에 관한 협정, 1974년 4월에는 문화및과학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4년 12월 7일에는 캄보쟈조선련대성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캄보쟈공산당 중앙위원회 비서이며 민주주의캄보쟈 정부총리인 뽈뽀트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주의캄보쟈 당및정부대표단이 1977년 10월 4일부터 8일까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7년 6월 13일 외교부대변인은 일본정부가 박정희괴뢰도당과 부당하게 꾸며낸 《일한대륙붕협정》이 무효라는것을 엄숙히 선언한 우리 나라 외교부의 6월 7일부 성명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977년에 우리 나라 기자대표단(2월)이 캄보쟈를 방문하였다.

일 본

넓이 37만 9,873km²
인구 1억 1,415만명(1977년 10월 1일)
수도 도꾜(주민 1,163만 3,870명, 1974년 7월)

자연 및 주민

일본은 아세아주의 동부에 있는 4개의 섬들과 그 주변의 자그마한 섬들로 이루어졌다.

기후는 전반적으로 해양성기후의 특징을 띤다. 평균기온은 겨울에 0~8°C이며 여름에는 20~26°C이다. 한해평균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에서 1,000~2,000mm이다. 1977년 5월 홋가이도에 약 90년만에 처음보는 때아닌 눈이 쏟아져 내렸다.

주민의 90%가 일본사람이며 홋가이도에 원주민인 아이누족이 약간 있다. 공용어는 일본어이다.

정 치

1977년에 일본반동들은 미제의 부추김밑에 군비경쟁을 강화하면서 군사비를 대폭 늘여 군사기구를 새로 정비하고 무력을 증강하며 현대적인 군사장비들로 《자위대》를 무장시키기 위해 미쳐날뛰였다.

일본반동들은 1977년에 군사비로 1976년에 비하여 12%나 많은 1조 7천억엔을 들이밀고 많은 몫을 《자위대》 무력의 《질적현대화》를 실현하는데 돌렸다. 그리하여 일본 《자위대》는 이미 땅크, 전투폭격기, 각종 로케트, 함선 등 새형의 무기들로 장비되였으며 앞으로 새로운 공격용 무기들과 항공모함들로 장비를 강화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일본반동들은 또한 《방위》태세를 갖춘다는 구실밑에 전쟁준비를 다그치면서 군사연습을 자주

벌렸다. 11월에 방위청장관놈은 《유사시》에 일본의 《자위권을 발동하는 범위》가 일본 《령토밖》에서 500마일, 《항로》에서 1천마일까지라고 하면서 《자위》라는 이름밑에 군사행동을 취하려는 의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대외적으로 일본반동들은 미제와의 군사적결탁을 더욱 강화하면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아세아나라들을 반대하는 악랄한 도발책동을 더욱 강화하였다.

일본반동들은 우선 미제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과 새로운 조선전쟁준비책동에 적극 가담하고 남조선에 대한 재침을 강화하는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로골적으로 실시하였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킬데 대한 문제가 제기되자 일본반동들은 한편으로 《내각회의》요, 《협의회》요 하는것을 벌려놓고 소란을 피우면서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철수를 극력 반대하여 나섰다. 놈들은 남조선에서 미군이 나가면 조선반도에서의 《세력균형》이 허물어지고 《열전》을 초래할수 있다고 하면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위기감을 조성하기에 열중하였으며 미군은 《제지력》으로써 남조선에 계속 남아있어야 하며 《남북조선은 병존》하여야 한다고 떠벌였다.

심지어 후꾸다는 미국과의 회담마당에서까지 《철퇴》가 아니라 《삭감》이여야 한다고 하면서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회하는것을 반대하는 자기의 립장을 고집하였으며 회담후에는 기자회견을 열어놓고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의 철거는 《제반정황을 살핀》데 기초하여야 한다느니, 《서서히 진행》해야 한다느니 뭐니 하고 떠들었다.

또한 일본반동들은 남조선에서 식민지지배자의 옛지위를 되살려보려는 목적밑에 남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 군사적 침투를 더한층 다그쳤다.

2월 16일 일본반동들은 박정희괴뢰도당과 도꾜에서 제6차 《한일의원련맹》총회를 벌려놓고 《조선반도정세》와 《동북아세아의 안전》, 《경제협력의 확대》, 《대륙붕협정》 등 문제들을 가지고 매국과 침략의 모의를 벌렸다. 그후 5월 일본반동들은 남조선에 대한 재침의 길을 더욱 넓히고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으려는 음흉한 목적밑에 모략적방법으로 국회에서 《한일대륙붕협정》을 강다짐으로 승인케하는 놀음을 벌렸다.

이렇듯 후꾸다정부는 1974년이래 일본의 력대정부들이 감히 성립시키지 못한 이 협정의 국회비준을 강행함으로써 대륙붕 석유개발을 통해 남조선에 대한 경제적침투와 군사적진출을 보다 적극화하려고 하였다.

또한 9월 일본반동들은 박정희괴뢰도당과 도꾜에서 《제9차일한정기각료회의》를 벌려놓고 남조선괴뢰들에 대한 일본의 《원조》문제 등 일《한》사이의 공모결탁을 일층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음모를 꾸몄다.

일본반동들은 박정희괴뢰도당과 정치적결탁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남조선에 있는 미지상군의 《철수》계획과 관련한 괴뢰도당의 이른바 《보완조치》를 도와준다는 구실밑에 괴뢰도당에게 더 많은 경제군사적 《원조》를 주었다.

일본반동들은 이렇듯 남조선괴뢰들을 민족영구분렬책동에로 적극 부추겨 《두개 조선》을 꾸며내려고 획책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일본반동들은 조일 두 나라 사이에 인사래왕을 하자고 하면서도 8월 일본에서 진행된 원수폭금지세계대회에 참가할 우리 나라 대표단의 일본입국에 터무니없는 조건을 붙여 그를 가로막아 나섰으며 총련제11차전체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나라 축하단과 기타 대표단들의 일본입국을 거부하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추천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한덕수의장을 비롯한 7명의 총련일군들이 조국을 방문하는것도 가로막았다.

1977년에 일본반동들과 미제는 여러차례 회담을 벌려놓고 일미 《안보》체제와 이에 기초한 《군사적협력》을 강화하였다.

1월에 일본반동들은 미국부대통령 몬데일과, 3월에는 미국대통령 카터와, 7월에는 미국방장관 브라운과 쑥덕공론을 벌렸으며 9월에는 미국에서 일미국방장관회의를 벌려놓았다.

또한 6월과 8월에 일본반동들과 미국군부우두머리놈들은 《일미방위협력소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일미간의 군사적결탁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모의하였다.

일본반동들은 또한 《원조자》의 탈을 쓰고 아세아의 《맹주》가 되려는 망상밑에 동남아세아나라들에 대한 경제, 군사적 침투를 더욱 강화하려고 발광하였다.

8월 6일부터 18일까지의 사이에 총리 후꾸다는 《아세안》성원국들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타이, 필리핀 등을 행각하였다.

1977년에 일본에서는 미제의 군사기지의 철페를 요구하며 정부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권리와 생활조건의 개선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벌어졌다.

3월 사세보에서는 약 1만명의 시민들이 미핵함선 《무쯔》호의 사세보입항을 반대하여 집회와 시위를 벌렸으며 4월 오끼나와의 나하에서는 1만명의 주민들이 《오끼나와에서 모든 군사기지들을 철페하라!》고 웨치면서 집회와 시위를 벌렸다.

10월에는 일본의 18개도시에서 《일본인민을 전쟁에 끌어넣으려는 책동에 항의한다!》,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 조작책동을 분쇄하라!》등의 구호밑에 일제히 반전 집회와 시위들이 벌어졌다.

4월 8일부터 일본의 41개로조에 망라된 880만명의 근로자들이 생활처지의 개선을 요구하여 통일파업을 벌렸다. 가을철공동투쟁기간에도 근로자들의 대중적투쟁이 세차게 벌어졌다.

또한 이해에 당국의 반동적인 농업정책을 반대

하는 농민들의 투쟁과 수업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청년학생들의 투쟁도 활발히 벌어졌다.

천황 히로히도(1926년 12월—)

국회 중의원과 참의원의 량원제, 중의원은 511석이며 임기는 4년, 1976년 12월 5일 제34차 중의원선거 진행, 선거결과 자유민주당 249석, 사회당 123석, 공명당 55석, 민주사회당 29석, 공산당 17석, 신자유구락부 17석, 무소속이 21석을 차지, 참의원은 252석이며 임기는 6년, 3년마다 의원의 절반을 다시 선거한다. 1977년 7월 10일 제11차 참의원선거 진행

정부 1976년 12월 24일 새 정부 구성, 1977년 11월 28일에 개조, 총리 후꾸다 다께오, 외교부장 소노다 스나오, 방위청장관 가네마루 신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1922년 7월 15일 창건, 1977년 10월 14차당대회 진행, 의장 노사까 산조, 간부회 위원장 미야모도 겐지, **사회당** 1945년 11월 2일 창건, 1977년 9월에 제41차당대회 진행, 위원장 아스까다 이찌오, **공명당**, **자유민주당**(집권당), **민주사회당**, **로동조합총평의회**, **전일본로동총동맹**, **중립로동조합련합회**, **민주청년동맹**, **사회주의청년동맹**

경제, 사회문화

일본은 원료의 대부분을 눅은 값으로 수입가공하여 다른 나라에 비싸게 팔아먹고사는 기생충적인 자본주의적공업국가이다. 일본은 자기에게 필요한 원유, 철광석, 동, 보크사이트, 생고무, 양털의 거의 100%, 콕스탄의 80%, 목재의 60%를 수입하고있다. 일본경제는 미제에 심히 예속되여있으며 외자도입중 미제독점자본의 몫이 90%이상에 달한다.

일본경제는 부문별구조에서 불균형이 심하다. 공업은 주요군수생산과 관련된 중화학공업에 치우치고있으며 공업과 농업간에 심한 불균형이 조성되고있다.

주요공업부문은 강철, 기계, 자동차, 배무이, 화학, 방직 공업 등이다.

1977년에 일본경제에서는 전반적으로 공업제품생산이 줄어들고 재정난이 더욱 심화됨으로써 기업체들이 무리로 파산되였다. 특히 경제적침체는 중소기업체들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일본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77년 4월에 공업생산은 1.4%, 5월에는 2.1% 줄어들었다. 특히 강철생산은 1977년 상반년기간에 그전 6개월동안에 비하여 8.4% 줄어들었다. 생산의 감퇴는 유색금속, 방직, 화학, 자동차, 전력 공업부문들에서 눈에 띄게 나타났다. 철도부문들에서도 심각한 수송위기를 겪었다. 국철당국은 만성적인 적자로 하여 1977—1978회계년도에 180개역에서 화물수송을 그만두기로 하였다.

생산이 줄어들고 재정난이 심해짐에 따라 수많은 기업소들이 파산당하였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77년 3월 31일로 끝난 1976—1977회계년도에 중소기업체의 파산건수는 1만 6천 600건에 달하였다. 이해에 1천만엔이상의 빚을 지고 문을 닫은 기업체들만 하여도 1만 8천 470여개에 달하였다.

기업체들의 대대적인 파산으로 말미암아 실업자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일본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데 의하면 1977년 3월에 실업자수는 최근 18년간의 가장 높은 수자인 127만명에 달하였다.

정부의 반인민적농업정책과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농업생산도 계속 줄어들고있으며 세계알곡시장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있다.

1977년에 중부와 동부 지역의 수많은 현들에서 무더기비와 큰물, 태풍 등으로 논밭들이 피해를 입었다. 농촌경리의 파산으로 지난 15년동안 농가수는 20%나 줄어들었다. 1976년에 농민들의 수입은 1975년에 비해 4분의 1이나 적어졌다.

심한 경제위기로 물건값이 련속 뛰여오르고 인민생활은 더욱더 어려워만졌다. 1976년 5월부터 1977년 5월까지의 기간에 소매가격이 9.3% 비싸졌다. 특히 대중소비품 값이 많이 올랐다. 쌀소매가격은 9월 1일부터 9.8% 비싸졌으며 남새값은 8월에 그 전달에 비하여 23.9%나 뛰여올랐다.

일본에서는 매해 교통사고가 늘어나고있으며 각종 범죄가 판을 치고있다. 1976년에는 47만 1천여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 9천 730여명이 죽고 61만 3천 950여명이 불구가 되였다. 각종 범죄건수도 1976년에 1975년에 비하여 1만 3천여건이나 늘어나 약 124만 7천건에 달하였다. 특히 소년범죄자수는 1977년 7월현재 약 14만명에 달하였다.

출판보도;**통신** 지지, 교도, 재팬프레스, 니홍뎀빠

신문 아까하다(공산당기관지), 아사히신붕, 마이니찌신붕, 요미우리신붕, 쥬니찌신붕, 산께이신붕, 니홍게이자이신붕, 샤까이신뽀(사회당주간지), 고메이신붕(공명당기관지)

잡지 세까이 세이지시료(공산당반월간잡지), 세까이(정치리론잡지)

방송 엔에취케이방송, 아사히방송, 도꾜방송, 엔에취케이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인민들과 진보적인 계층들속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선린관계를 맺기 위한 운동이 광범히 벌어지고있습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235페지)

일본에는 일조협회(1951년), 일조무역회(1956년),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1971년)을 비롯하여

일조자유래왕실현련락회의, 재일조선인의 인권을 지키는회, 재일조선인귀국협력회, 재일조선인민족교육문제간담회, 일조사회과학자련대위원회, 일조문화교류협회 등 우리 나라와 친선관계를 맺으며 제반교류의 촉진과 국교정상화를 요구하는 수많은 조직들이 무어져 활동하고있다.

1976년 6월에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일본위원회가 무어지고 1977년 12월에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전국련락회의가 결성되였다. 또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일본위원회가 결성된후 1년반동안에 일본의 47개 도, 도, 부, 현가운데서 40개의 도, 부, 현들에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위원회들이 무어졌다.

1977년에만도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사이다마현민위원회, 효고현민위원회, 시즈오까현련대성위원회, 나라현련대성위원회, 미야기현민회의, 아끼다현민회의, 오끼나와현련대성위원회, 이바라기현위원회, 가나가와현련대성위원회, 기후현련대성위원회 등이 무어졌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 흠모하고있는 일본인민들은 《김일성주석저작연구회전국련락회의》, 청년《주체사상연구회련락협의회》, 교원《주체사상연구회》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수많은 연구소조들을 묶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학습하고있다.

1977년에 일본에서는 제10차주체사상파학토론전국집회(11월 19~20일), 제3차청년주체사상연구회전국집회(11월 19일)를 비롯하여 제1차주체사상연구파학토론 효고현집회(1월), 제10차주체사상파학토론 도꾜집회(3월), 제1차깅끼지구주체사상파학토론집회(4월), 제1차 일본교직원 《주체사상연구회》(6월), 제1차 오사까교원《주체사상연구회》 등이 진행되였다.

토론회참가자들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것을 널리 소개선전한 경험들을 토론하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더욱 깊이 연구하며 그를 구현해나갈 결의들을 다지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을 축하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 일본 세이와해운주식회사와 화이트라인주식회사, 일본선박《다이쥬이찌가즈마루》선원들은 선물을, 메이쇼특수산업주식회사에서는 축하문과 선물을, 일본선박《다이이찌유세이마루》선원들은 축기를 각각 보내여왔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5돐을 축하하여 4월 11일 도꾜에서는 일본의 각계 저명한 인사들의 발기밑에 성대한 연회가 있었으며 4월 15일에는 시즈오까현에서 일본청년《주체사상연구회 련락협의회》의 주최로 축하모임이 진행되였다.

1977년에 일본인민들속에서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이 일본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여러 계층의 군중의 참가밑에 더욱더 폭넓고 깊이있게 벌어졌다.

1월 우리 나라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4개항목의 구국방안을 지지하여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일본위원회, 일조로동자교류련대련락회의, 일조문화교류협회를 비롯하여 여러 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일본의 여러 단체들과 각계 인사들은 결의문, 호소문, 담화 등을 발표하여 조선의 분렬을 영구화하려는 안팎의 분렬주의자들의 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대한 련대성운동은 일본정부의 《두개 조선》 고정화정책을 반대하며 조선에 대한 정책을 바꿀것을 요구하는 일본인민들의 실천투쟁과 결부되여 더욱 세차게 벌어졌다.

4월 28일 일조국교정상화국민회의에 망라된 각 정당소속국회의원들과 총평, 중립로련, 국철로조, 전일본체신로조 등 20여개 단체의 수많은 대표들은 도꾜에서 《일한대륙붕협정》비준놀음을 규탄하는 긴급집회를 가지고 결의를 채택하여 일본정부와 자민당이 《일한대륙붕협정》을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강다짐으로 《통과》시킨것을 규탄하고 이 《협정》을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혹가이도의 저명한 교수, 학자들은 련명으로 일본반동들의 이 범죄적책동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정계, 학계, 문화계 등 각계층 대표들과 저명한 사회활동가들은 련일 국회와 총리관저, 외교부를 찾아가 강력한 항의투쟁을 벌렸다.

또한 조선인민의 자주적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남조선으로부터의 미제침략군의 철수를 요구하며 일《한》의 검은 유착관계를 폭로하는 투쟁을 통하여 더욱 높아갔다.

9월 4일 도꾜에서는 일본 각지의 20여개단체들에서 온 각계 인사들과 도꾜의 각계층 시민들 1천200여명의 참가밑에 범죄적인 《일한정기각료회의》를 반대하는 전국공동집회가 진행되였다. 5일 일조국교정상화국민회의는 《일한정기각료회의》를 반대하는 항의성명을 발표하였다.

《10월 21일 국제반전의 날》에 즈음하여 도꾜에서는 14개 정당, 사회단체들이 공동주최로 《10월 21일전국통일행동중앙집회》를 열고 일미《한》의 군사적일체화를 반대하며 일《한》유착을 철저히 규탄하며 남조선으로부터의 미제침략군 철거와 후꾸다내각의 대조선정책의 근본적전환의 요구 등 7개항목으로 된 구호를 채택하였으며 일본총리와 미국대통령에게 보내는 항의문을 각각 채택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일본각지에서는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집회들이 진행되였으며 많은 정당, 사회단체들과 여러 지방자치체의회들, 그리고 이름있는 각계인사들이 남조선으로부터의 미제침략군철거를 요구하는 성명, 결의문, 호소문을 발표하였으며 편지를 채택하였다.

이와 같이 1977년에 일본인민들의 련대성운동은 전국적인 규모에서 조직적인 성격을 띠고 활발히

진행되였다.

1977년에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회장일행(1월), 요미우리신문사상무취체역인 편집국장일행(4월), 로동조합총평의회대표단(4월), 전국전기통신로동조합우호조선방문단(4월), 일조우호청년대표단(5월), 방송협회취재단(7월), 교원《주체사상연구회》대표단(7월),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 제2차조선방문단(9월), 교직원조합대표단(10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오사까련대위원회대표단(11월), 로동조합총평의회 청년로동자대표단(11월), 일본사회당 조선문제대책특별위원회대표단(12월) 등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또한 9월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과학토론회에 주체사상연구학술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또한 이해에 우리 나라 교육문화일군직맹대표단(1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의원그루빠대표단(5월), 녀맹대표단(10월), 직맹대표단(12월) 등이 일본을 방문하였다.

필 리 핀

(필리핀공화국)

넓이 30만km^2
인구 4,400만명(1977년)
수도 마닐라(주민 131만명)

자연 및 주민

아세아대륙의 동남쪽 태평양에 있는 7천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서 사람이 살고있는 섬은 1천여개이다.

령토의 75%가 산지와 높은벌로 되여있다.

열대성해양기후에 속하며 장마철(5~10월)과 가물철(11~4월)로 나뉜다. 기온과 습도가 높으며 비가 많이 내린다.

다민족국가이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것은 비사이야족(43%), 따갈로그족 (20%), 일또깐족(11%)등이다.

국어는 따갈로그어이나 영어와 에스빠냐어도 쓴다.

정 치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통하여 필리핀인민은 1898년 6월 12일 독립하였으나 미국—에스빠냐전쟁에서 에스빠냐가 진 결과 다시 미제의 식민지로 되였다.

민족적독립을 위한 이 나라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부딪친 미제는 1946년 7월 4일 필리핀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필리핀인민은 그후 미제로부터 《경제협정》, 《군사원조협정》, 《호상방위조약》 등 일련의 예속적인 불평등조약과 협정들을 강요당하였다.

필리핀반동정부는 아세아침략을 위한 미제의 침략도구인 세아토(1977년 6월 30일에 해체), 아스파크(아세아태평양지역각료리사회), 아세안 (동남아세아국가련합)에 들어갔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족적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필리핀인민들의 투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가고있는 가운데 필리핀정부는 미제에 대한 의존정책에서 점차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수 없었다.

1972년 6월 마르코스대통령은 《동맹국》들에 《필리핀의 운명을 맡길수 없다》고 하면서 진정한 《독립》을 위해 《미국과 맺은 모든 조약 및 협정》들을 《심각히 검토》할것을 주장하였다.

1976년 4월 필리핀에 있는 미제의 공군 및 해군기지에 대한 회담에서 필리핀정부는 미국이 기지사용값을 물어야 하며 기지들에 대한 필리핀의 주권을 인정하고 필리핀사람을 이 기지들에 사령관으로 임명하며 필리핀기발을 띄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77년 1월 12일 대통령은 필리핀정부가 미국과의 모든 군사협정들을 폐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대통령은 9월 21일에 미국과의 군사기지협정을 수정하여 필리핀의 민족적자주권이 전면적으로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1월 16일 미제는 필리핀에 있는 미군사기지들을 필리핀군사령관들의 관할밑에 두는데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을수 없었다.

필리핀에서는 1972년부터 《모로민족해방전선》의 지도밑에 회교도들이 자치를 요구하여 투쟁을 벌려왔다. 1976년 12월 23일 필리핀정부와 《모로민족해방전선》지도자들사이의 제1차평화회담에서 정화가 이루어졌다.

1977년 2월 7일부터 리비아의 타라불스에서 남부필리핀의 자치를 위한 제2차평화회담이 다시 열렸으나 해결을 보지 못한채 3월 3일에 중단되였다.

4월 17일 남부필리핀의 회교도거주지구를 그들의 자치지역으로 정할데 대한 국민투표가 일방적으로 진행되였다. 《모로민족해방전선》측은 전체남부지역의 자치를 요구하면서 국민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

대외적으로 필리핀은 정치, 사회제도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강화발전시키는 원칙을 내놓고있다.

1977년에 필리핀은 에티오피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또한 체스꼬슬로벤스꼬와 무역및경제협정(3월), 중국과 동정광을 팔데 대한 협정 (3

렬), 방글라데슈와 경제및기술협조에 관한 협정(3월), 쏘련과 사회적및문화적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정(3월),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두 나라사이의 무역을 늘일데 대한 협정과 호상 경제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협정(12월)을 각각 맺었다. 또한 12월 9일 필리핀은 16년동안 끊어졌던 꾸바와의 무역을 다시 시작하기로 하였다.

8월 5일 필리핀은 말레이시아와 국경협정을 맺었다.

국회 1972년 계엄령 선포후 정지

정부 대통령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1965년—)

정당, 사회단체; 1972년 계엄령선포후 해산 또는 활동정지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75%가 농사한다. 농산물이 국민총생산액의 약 35%, 수출의 60%를 차지한다. 부침땅은 약 1천 400만헥타르이나 실지 리용되고있는 땅은 절반밖에 안되며 땅의 대부분을 지주들이 가지고있다.

주요농작물은 야자, 사탕수수, 마닐라삼, 담배, 벼, 강냉이 등이다. 세계에서 첫째가는 코프라생산국이며 마닐라삼의 원산지이다.

야자, 사탕수수, 담배, 마닐라삼은 이 나라의 4대특산물이다. 야자는 이 나라의 모든 바다가지방에서, 사탕수수는 주로 서쪽바다가지방에서, 마닐라삼은 마닐라남쪽지방에서 심는다. 1974—1975 농업년도에 코프라는 71만 9천톤, 마닐라삼은 13만 4천톤 생산하였다.

공업에서 기본은 채광업과 수출용농산물의 가공업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철, 크롬, 동, 망간, 금, 원유 등이다.

채광업에서 중요한것은 철, 크롬, 금 등 광석채굴인데 미국과 일본 독점자본이 틀어쥐고있다.

가공공업에서 기본은 사탕공업이다.

섬나라이지만 수산업은 발전되지 못하였다.

령토의 40%이상이 열대산림지대이며 라완재를 비롯한 좋은 목재들이 많다.

해상운수가 대외무역에서 뿐만아니라 국내화물및 려객 수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논다. 철길은 루손섬과 파나이섬에만 약 1천 167키로메터정도 있다.

주요수출품은 사탕, 코프라, 마닐라삼의 90%, 야자기름의 50%, 철광, 크롬광, 동광 등 광물의 거의 전부, 목재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 및 운수설비, 연료, 섬유제품, 금속제품, 식량 등이다.

주요수출대상나라는 일본, 미국 등이다.

최근년간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관계도 발전시키고있다.

화폐단위는 페소이다.

이 나라 민족경제개발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1977년현재 인구의 절반이상 (53.8%)이 심한 영양부족으로 고통받고있다.

출판보도;통신 피엔에스

신문 앙그바얀(공산당기관지), 마닐라 타임스, 마닐라 크로니클, 데일리 스타, 데일리 미러, 탈리바

방송 피비에스방송, 에이비씨방송, 필리핀텔레비죤방송

브루네이

(영국《보호령》)

넓이 5,765km²

인구 13만명

행정중심지 반다르 세리 베가완(주민 약 6만명)

자연 및 주민

브루네이는 인도네시아의 깔리만딴섬 북부에 자리잡고있다.

전형적인 열대해양성기후로서 한해평균기온은 27°C, 한해평균강수량은 2,500~3,500mm이다.

주민은 절반이상이 말라이족이며 그밖에 중국사람, 다야크사람 등이 있다.

공용어는 말라이어이다.

정 치

원래 오늘의 북부깔리만딴 전지역이 브루네이였다.

1888년 영국식민주의자들은 이른바 《협정》을 강요하여 브루네이를 《보호령》으로 만들고 북부깔리만딴을 세지역(브루네이, 사라와크, 사바흐)으로 나누어 통치하였다.

제2차세계대전기간에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브루네이를 강점하고있었으며 일제가 패망하자 1946년 7월에는 영제국주의자들이 다시 기여들어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브루네이에서는 민족해방투쟁이 앙양되였으며 1956년 8월에는 브루네이인민당이 창건되였다. 투쟁의 불길속에서 1963년 1월 1일 브루네이인민당 위원장 아자하리를 수반으로 하는 북부깔리만딴혁명정부가 수립되였으며 민족해방군이 조직되였다.

1965년 3월 영제국주의자들은 민족적독립을 위한 이 지역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괴뢰들로 새 립법평의회를 꾸며냈다.

1971년 11월부터 브루네이는 내부자치를 실시하고있다.

립법평의회 일원제, 총의석 21석, 형식상 10명은 선거하며 6명은 관리들가운데서 나오며 5명은 임명한다.

추장 펭기란 무다 마코타 하싸날 볼키아흐(1967년 10월—). 추장이 최고권력을 가지고있다고는 하나 외교, 국방, 치안권은 영국고등판무관이 틀어쥐고있다.

경제,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원유 및 천연가스 채취업이다. 로동인구의 4분의 3이 이 부문에서 일하며 재정수입의 90%가 여기에서 얻어진다. 원유채취권은 미영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으며 일본독점자본의 침투도 강화되고있다.

가공공업으로서 일용품을 생산하는 가내수공업과 제재소 및 목재가공공장 등이 있다.

부침땅의 절반은 고무재배원(1만 2천여헥타르)이며 고무재배원의 대부분은 영국독점체들이 가지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벼, 고무(1천여톤), 야자, 후추 등이다. 식량수요의 3분의 2는 수입한다.

철길은 없고 하천운수와 해상운수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요수출품은 원유와 천연가스(90～95%), 그밖에 고무, 목재, 후추, 코프라, 통나무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건재와 채취설비, 운수수단, 천, 식량 등이다.

화폐단위는 브루네이딸라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글을 모르며 병원도 도시에만 몇개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신문 데일리 스타, 보르네오 불레틴, 살람, 페즐리타 브루네이

방송 브루네이방송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공화국)

넓이 190만 4,345km²
인구 1억 3,500만명(1977년)
수도 쟈까르따(주민 491만 5,260명)

자연 및 주민

아세아대륙의 동남쪽 태평양과 인도양사이에 있는 1만 3천 667개의 섬들로 이루어졌다. 그가운데서 사람이 살고있는 섬은 6천여개이다.

전형적인 적도해양성기후로서 일년내내 기온의 차가 거의 없으며 거의 날마다 소나기가 내린다. 1977년에 몇개주에는 심한 가물이 들었다.

한해평균기온은 24～27°C이며 한해강수량은 3,000mm(최고 7,000mm)이다.

주민은 쟈바족(50%), 순다족(15%), 마둘라족(7%)등 110여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인도네시아어이다.

정 치

인도네시아는 1596년부터 350년동안 화란식민지로 있었으며 제2차세계대전시기에는 일제침략자들에게 강점당하였다. 일제가 패망하자 1945년 8월 17일 독립을 이룩하였다.

인도네시아는 1950년 8월 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1954년 8월에는 《화란—인도네시아련방》에서 떨어져나왔다. 1963년 5월에는 이리안 쟈야 (서부이리안)를 되찾았다.

1976년 7월 17일에는 동부띠모르를 인도네시아에 병합할데 대한 법령이 채택되였다.

1965년 《9월 30일운동》후 독립이래 정권을 잡고있던 수카르노정부가 해산되고 수하르또를 대통령으로 하는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1977년 2월 21일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외국회사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1978년 1월부터 외국사람이 경영하는 기업소들에서 생산된 제품의 분배 및 실현에 대한 모든 기능은 인도네시아의 국영회사들에 넘겨지게 되였다.

1977년 5월 2일 독립후 세번째로 되는 총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에서는 집권당인 골까르가 승리하였다.

인도네시아는 대외적으로 중립, 쁠럭불가담정책을 내세우고있으며 동남아세아나라들사이의 지역적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1977년 8월 16일 독립절에 즈음하여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수하르또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며 쁠럭불가담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노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1977년에 인도네시아는 인도와 두 나라 사이의 바다경계선을 확정하는 협정(1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와 말라카해협과 싱가포르해협에서의 안전항행확보 및 오염방지에 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10월에 대통령이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까타르, 아랍추장국련방, 수리아, 애급 등 나라들을 방문하였다.

인민협상회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5년에 한번씩 열리며 대통령과 부대통령을 선거한다. 또한 헌법을 제정하며 정강을 채택한다. 국회의원 460명과 지역대표,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대표, 직농그

루빠대표 등 총 920명으로 구성

인민대표회의(국회) 일원제로서 립법문제를 취급하나 대통령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총의석 460석, 대통령이 100석(군인 75석, 직능그루빠 25석)을 임명하고 360석은 선거한다. 1977년 5월 선거결과 골까르 232석, 회교도련합개발당 99석, 민주당 29석 차지

대통령 국가 및 정부 수반으로서 군사령관을 겸한다. 임기 5년, 대통령 수하르또(1968년 3월—)

정부 대통령이 총리를 겸한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5월 23일 창건, 1965년 《9월 30일운동》후 비법화, 골까르(직능그루빠), 회교도련합개발당, 민주당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70%이상이 농사한다. 부침땅은 약 1천 760만헥타르이며 대부분 쟈바섬과 마두라섬에 집중되여있다.

주요농작물은 후추, 키니네, 천연고무, 커피, 야자, 차, 사탕수수, 사이잘삼 등 수출용작물과 벼, 강냉이, 밀, 콩, 고구마, 땅콩 등이다.

키니네(학질의 특효약재)는 이 나라의 특산물로서 세계총수출량의 90%이상을 차지한다. 후추도 그 생산량과 수출에서 세계 첫자리를 차지한다. 천연고무는 말레이시아 다음가는 자리, 야자재배와 그 제품생산 및 수출에서는 필리핀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번째자리를 차지한다. 1974년에 83만 9천톤의 천연고무, 136만 6천톤의 코프라가 생산되였다.

이 나라의 농업은 큰 농장경리와 소농 경리가 결합되여있는것이 특징이다. 대농장은 미영제국주의자들이 틀어쥐고 수출용 열대작물만을 재배하고있다. 소농경리에서는 주로 알곡을 재배한다. 쌀은 아직 수입에 의존한다.

축산업은 부차적의의를 가진다. 주요집짐승은 소, 물소, 말, 염소, 양, 돼지 등이다.

령토의 60%이상이 산림이며 한해동안에 2천만립방메터의 목재가 생산된다. 찌크재와 같은 질좋은 목재채벌은 일본독점자본이 틀어쥐고있다.

공업은 국민소득의 10%를 차지한다. 공업의 대부분이 소비품을 생산하는 중소규모공업이며 중공업은 거의 없다. 비교적 큰 공업은 수출용광물채굴업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원유, 주석, 석탄, 보크사이트, 니켈, 망간, 금, 은, 동, 크롬, 아연 등이다. 1976년에 주석은 2만 5천톤 생산되였다. 주석생산은 말레이시아, 볼리비아 다음가는 자리를 차지한다.

운수에서는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좁은 철길)의 길이는 약 8천 600키로메터이며 그의 70%가 쟈바섬에 집중되여있다. 큰 섬들사이에는 항공로가 통하고있다.

1975년부터 제2차 5개년계획(1975—1979년)을 수행하고있는데 주로 다른 나라의 원조에 의거하고 있다.

주요수출품은 원유, 천연고무, 주석, 담배, 코프라, 차, 커피, 후추, 키니네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기계설비, 천, 화학제품, 일용품, 운수수단 등이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중국, 일본, 싱가포르, 서부독일, 오스트랄리아, 미국 등이다.

주민의 80%이상이 의료봉사체제에서 벗어나있다.

주민의 90%이상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안따라통신

신문 베리따 유다, 안뻬라 레뷰, 쟈까르따 타임스, 메르데까, 와르따 하리안, 와르따 베리따, 인도네시안 옵써버, 앙까딴 베르센쟈따(국방부기관지)

방송 인도네시아방송, 쟈까르따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1년 6월 17일 우리 나라와 총령사관계를 맺었으며 1964년 4월 16일에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3년 11월 15일에는 무역협정과 과학기술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싱 가 포 르

(싱가포르공화국)

넓이 581.5km²

인구 227만 8,200명(1976년 7월말)

수도 싱가포르(주민 154만 9,000명)

자연 및 주민

아세아대륙의 동남쪽, 말라이반도 남쪽끝에 있는 섬나라로서 태평양으로부터 인도양과 대서양으로 가는 배길우에 놓여있다.

일년내내 무더우며 장마철과 가물철의 구분이 명백치 않고 비가 많이 내린다. 한해기온은 제일 높을때 31°C, 제일 낮을때 24°C이며 한해강수량은 2,50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중국사람(75%)이며 그밖에 말라이사람(14%), 파키스탄사람, 인도사람, 인도네시아사람, 구라파사람 등이 있다.

공용어는 중어, 말라이어, 영어, 타밀어 등이다.

정 치

싱가포르는 1959년 6월 영련방안의 《자치령》으로 되였다. 1963년 9월 말레이시아련방에 들어갔

다가 1965년 8월 9일 영련방성원국으로 독립하였다.

독립후 계속 집권하고있는 인민행동당이 1976년 12월 선거에서도 전의석을 차지하였다.

1971년부터 1976년 2월까지 싱가포르에 주둔하고있던 영국침략군이 완전히 철수하였다.

싱가포르는 대외적으로 쁠럭불가담정책을 내세우면서 사회주의나라들을 비롯한 일련의 나라들과의 정치 및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고있다. 특히 동남아세아나라들과의 관계를 밀접히 하고있다.

1977년 2월에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말라카해협과 싱가포르해협에서의 안전항행확보및오염방지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3월에 싱가포르는 캄보쟈와 무역 및 경제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1977년에 총리가 타이와 필리핀(1월), 카나다(10월), 미국(10월) 등을 방문하였다.

국회 일원제, 총의석 69석, 임기 5년, 1976년 12월 23일 총선거 진행, 인민행동당이 전체 의석을 차지

대통령 벤쟈민 헨리 새어즈(1971년 1월—)

정부 1976년 12월 29일 11명으로 구성, 총리 리관유, 외교부장 에쓰. 라쟈라트남, 국방부장 고켕스웨

정당, 사회단체; **인민행동당**(집권당), **사회주의전선, 로동당, 인민련맹, 인민전선, 전국로동조합회의, 로조련맹**

경제, 사회문화

중계무역이 경제의 기본이다. 국민소득의 80% 이상이 중계무역과 관련된 부문에서 얻어진다.

이 나라는 동남아세아와 아세아의 여러 나라들에서 들어오는 원유, 고무, 주석, 코프라, 통나무, 향료 등을 가공하여 팔거나 원료 그대로 세계여러나라들에 다시 수출한다. 동시에 싱가포르는 이러한 나라들의 수입을 중계하고 있다. 싱가포르항은 아세아에서 제일 큰 중계무역항으로서 1975년에 2만 200여척의 짐배들이 드나들었다.

농업은 보잘것 없다. 부침땅(약 1만 5천헥타르)의 대부분은 천연고무와 야자, 코코아를 재배하는 작은 농장들이 차지하고있으며 그밖에 소농경리로서 남새를 재배하고있다. 고무나무부침땅은 2천 391헥타르이며 1974년에 975톤의 생고무를 생산하였다.

공업은 경제에서 부차적인 부문으로 되고있다. 《외자도입》에 기초한 공업건설을 내세우고 외국자본과의 《합영》,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장려하고있다. 이러한 공업부문은 원유가공 및 목재가공, 배무이 등이다.

공업에서는 식료공업 (공업총생산액의 16%)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밖에 방직, 피복, 가죽, 합판, 다이야, 담배, 자동차조립 공장 등이 있으나 규모가 그리 크지 못하다.

운수에서는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련결하는 원길(19.2키로메터) 이 하나 있을뿐이다.

무역총액의 60~70%가 중계무역이다.

주요수출품(재수출포함)은 원유제품, 천연고무, 섬유제품, 코프라, 향료 및 기타 가공제품이며 수입품은 기계설비, 세멘트, 원유제품, 쌀, 각종 직물류, 원료 등이다. 수입품의 약 80%는 다시 수출한다.

주요수출대상나라는 중국, 말레이시아, 영국, 일본 등이며 주요수입대상나라는 중국, 말레이시아, 일본, 영국, 미국 등이다.

화폐단위는 싱가포르딸라이다.

1975년현재 391개의 초등학교, 114개의 중학교, 5개의 대학이 있었으며 32만 8천 400명이 초등학교에서 공부하였다.

중국사람들은 불교, 말라이사람들은 회교, 인도사람들은 힌두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바리산(사회주의전선기관지), 명보, 심명일보, 남양상보, 신평일보, 성주일보, 인터내슈널뉴스, 스트레이츠 타임스, 썬데이 타임스

방송 싱가포르방송, 싱가포르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5년 11월 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7년 5월 13일에는 두 나라 사이에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각각 무역대표부를 설치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련방)

넓이 33만 1,321km²
인구 1,224만 9,000명(1976년초)
수도 꾸알라 룸뿌르(주민 50만명)

자연 및 주민

말라이반도의 남쪽에 있는 말라이와 인도네시아의 깔리만딴섬에 있는 서라와크, 사바호로 이루어졌다.

전형적인 적도기후이다. 동해안을 내놓고는 철의 변화가 거의 없고 일년내내 무더우며 비가 많이 내린다. 한해평균기온은 25~31°C이며 한해 강수량은 3,000~5,000mm이다.

주민은 약 절반이 말라이족이며 그밖에 중국사

람(34%), 인도 및 파키스탄 사람 등이 살고 있다.

공용어는 말라이어이며 중어, 영어, 타밀어 등도 쓴다.

정　치

1957년 8월 31일 《영련방》안에서 독립하였다.

1963년 9월 16일 말라이 11개주, 싱가포르, 사바흐, 서라와크를 각각 1개주로 하여 14개주로서 말레이시아련방이 선포되였다. 1965년 8월 9일 싱가포르가 《련방》에서 떨어져나갔다.

말레이시아는 대내적으로 경제의 《말레이시아화》를 내세우고있다.

1975년 4월 정부는 제국주의자들과 맺었던 모든 불평등한 협정들을 폐기하고 말레이시아의 민족적리익에 맞게 석유산지의 개발에 대한 새로운 협정을 맺도록 하였다.

1976년 7월에 총리는 만일 제국주의독점체들이 11월 15일까지 새로운 조건에서 국영석유회사와 협정을 맺지 않는다면 정부가 그들의 석유채취권을 빼앗을것이라고 말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쁠럭불가담, 중립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1977년 3월 10일 총리 후쎄인 온은 말레이시아 대외정책의 기본은 말레이시아의 독립과 령토완정을 존중하고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지키는 모든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가지는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그는 동남아세아에 평화와 자유 및 중립지대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의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할것이라고 하였다.

1977년에 말레이시아는 애급과 경제, 상업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1월), 리비아와 무역, 문화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1월), 쏘련과 고무에 관한 기술정보교환 협정(1월), 이라크와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8월) 등을 각각 맺었다.

2월에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 말라카해협과 싱가포르해협에서의 안전항행확보 및 오염방지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3월에는 타이와 국경협정을 맺었다.

련방의회 상하량원제, 상원은 58석, 그가운데서 26명은 각 주의회에서 선출하며 32명은 국왕이 임명, 임기는 6년, 하원은 154석, 임기 5년, 1974년 8월 24일 총선거 진행, 선거결과 민족전선(련맹당을 비롯한 9개정당의 련합)이 135석, 민주행동당이 9석, 서라와크국민당이 9석, 사회정의당이 1석을 각각 차지

국왕 각주 추장들의 합동회의에서 선출, 임기 5년, 국왕 뚜안꾸 야히아 뻬뜨라 이브니 알 마르훔 술딴 이브라힘(1975년 9월—)

정부 총리 후쎄인 온(1976년 1월—, 국방부장겸임), 외교부장 떵꾸 아호마드 리따우딘 빈 떵꾸 이스마일

정당, 사회단체: 말라이공산당 1930년 4월에 창건, 1948년에 비법화, 련맹당(집권당) 1952년에 통일말라이국민조직, 말라이—화교협회, 말라이—인도인대회를 련합하여 창립, 민주행동당, 서라와크국민당, 사회정의당, 전말라이회교도당, 인민운동당, 인민진보당, 서라와크인민련합, 인민사회당, 사바흐련맹당, 사바흐사회민주당, 사바흐국민당, 로조대회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고무생산과 주석채굴이다. 고무생산량은 세계 제1위로서 세계 천연고무생산량의 35～40%를 차지하며 국민총생산액의 15%, 수출총액의 60%를 차지한다. 주석은 이 나라 광업생산액의 90%, 자본주의나라주석생산량의 40%를 차지한다.

농업에서는 고무재배가 기본이며 그밖에 벼, 차, 야자, 후추, 커피, 파이내플 등을 재배한다.

부침땅의 3분의 2가 고무재배원이다. 고무생산량의 60%이상은 영제국주의자들이 경영하는 농장에서 생산된다. 주산지는 서해안지대이다. 1974년에 약 146만 1천 600톤의 고무를 생산하였다.

본래 쌀을 수출하던 나라였으나 영제국주의자들의 강요로 고무재배에 치우치게 되여 식량수요의 40%를 수입한다. 벼재배면적은 부침땅의 5%정도에 불과하다.

경제에서 림업이 고무, 주석 다음가는 자리를 차지한다. 령토의 4분의 3이 산림이며 남방목재들이 많이 생산된다.

공업에서 기본은 광업과 농산물가공공업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주석, 철, 보크사이트, 원유, 석탄 등이다. 주석, 철광석, 보크사이트는 말라이에서, 원유는 서라와크에서 채취된다. 1975년에 6만 3천 346톤의 주석과 3천 300만바렐의 원유가 생산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이 주석생산의 40%를 틀어쥐고 있다.

가공공업으로는 천연고무, 파이내플, 코프라, 목재 등의 가공공업과 정미업 등이 있다.

공업은 대부분 말라이지역에 집중되여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서부독일 등 외래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다.

말레이시아는 1976년부터 제3차 5개년계획(1976—1980년)을 수행하고있다.

말라이에서는 철도운수와 해상운수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철길은 약 1천 600키로메터이며 자동차길은 약 1만키로메터정도이다.

주요수출품은 천연고무, 주석, 철광석, 목재, 보크사이트, 야자기름, 코프라, 후추, 남방과일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쌀, 기계설비, 섬유제품, 식료품, 화학제품 등이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타이, 미국, 오스트랄리아 등이다.

지역과 주민구성에 따라 중어, 말라이어, 영어, 타밀어 등으로 교육하고있으며 일부지방의 소수민족들은 자기의 민족어로 교육하고있다. 1975년에 이 나라의 학생수는 280만명이상에 달하였다.

말라이사람들은 회교, 중국사람들은 불교, 인도사람들은 힌두교를 믿는다.

출판보도;통신 베르남

신문 웃산 멜라이우, 말라이 메일, 말라이 타임스, 광화일보, 스트레이쯔 타임스

방송 말레이시아방송, 말레이시아텔레비죤방송, 사바호와 서라와크에도 각각 1개의 방송국이 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6월 30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5년 10월에는 무역협정을 맺었다.

타 이

(타이왕국)

넓이 51만 4,000km²

인구 4,354만 5,000명(1976년말)

수도 방코크(주민 450만명, 1976년말)

자연 및 주민

아세아의 동남쪽 말라이반도의 북부에 자리잡고있다. 령토의 대부분은 벌지대와 이벌을 둘러싼 산지들로 이루어졌다.

열대철바람의 영향으로 날씨는 사철 무덥다. 장마철(5~10월)과 가물철(11~4월)로 나뉜다. 년평균기온은 25~27°C, 한해강수량은 1,200~2,500mm이다.

주민은 약 30개의 민족과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그가운데서 타이족이 50%, 라오족이 25%이다.

공용어는 타이어이다.

정 치

1932년 6월 24일 타이는 전제군주국으로부터 립헌군주국으로 되였으며 1939년 5월 20일 나라이름을 타이(이전에는 샴)로 고쳤다.

1941년 12월 일제와 《군사동맹》을 맺고 일제의 아세아침략에 적극 끼여들었다.

1950년에는 미제와 《군사원조협정》, 《경제기술협정》을 맺었으며 1954년에는 아세아침략을 위한 미제의 침략도구인 세아토에 끼여들었다.

타이인민들은 미제와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여 오래동안 완강한 투쟁을 벌려왔다.

1973년 10월 14일 군사파쑈통치와 대미대일추종정책을 반대하는 청년학생들의 반정부폭동에 의하여 1963년부터 군사파쑈통치를 실시하여온 타놈친미반동정부가 거꾸러지고 새 민간인정부가 수립되였다.

1976년 10월 6일 군사정변이 일어났으며 타닌크라이비치엔을 총리로 하는 정부가 구성되였다.

1977년 10월 20일 다시 군사정변이 일어나 타닌정부가 무너지고 새로 혁명리사회가 조직되였다. 혁명리사회는 1976년의 헌법을 폐지하고 국회와 정부를 해산시켰다.

11월 10일에 혁명리사회는 림시헌법을 발포하고 국가정책리사회를 새로 내왔다. 국가정책리사회는 새내각구성을 발표하고 국가립법의회 의원들을 임명하였다.

11월 14일 새정부는 군사파쑈통치를 《일부완화》하고 《민족통일의 촉진》, 《부정부패의 반대》, 《통화팽창의 억제》, 《수출의 장려》, 《인민생활개선》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강령을 발표하였다.

또한 정부강령은 대외정책분야에서 이웃나라들과의 관계를 《그들의 리념에 관계없이 발전시킨다》고 지적하였다.

총리는 12월 1일 첫 정책연설에서 《타이정부가 이웃나라들 특히 웰남, 라오스 및 캄보쟈와의 친선협조관계를 촉진할것》이라고 말하였다.

1977년 12월 2일 타이와 웰남은 두 나라 사이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12월 12일 타이와 라오스는 방코크—비엔티안사이의 민용항공봉사를 다시 열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타이외교부장은 캄보쟈를 방문하여 1978년 1월 31일 두 나라 사이에 대사교환과 경제 및 무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국왕 부미볼 아둘리야데즈(1950년 5월—)

국가립법의회 일원제, 의석수 360석(군인 229석, 경찰 14석, 녀성 11석, 기타), 국가정책리사회가 의원전원을 임명

국가정책리사회 최고권력기구, 23명으로 구성, 총리를 임명 또는 해임하며 정책작성에서 내각을 방조한다. 의장 산가드 찰로류(1977년 11월—)

정부 1977년 11월 13일 33명으로 구성, 총리 크리앙사크 챠마난드, 외교부장 우파디트 파챠리양쿤, 국방부장 레크 네우말리

정당, 사회단체; 1976년 10월 군사정변후 모든 정당활동은 금지됨, 정변이전에 40여개의 정당들이 활동, **공산당** 1942년 12월 2일 창건, 1947년부터 비법화, **민주당**, **사회행동당**, **사회농민당**, **민주사회당**, **신세력당**, **국민당**, **사회정의당**, **사회민족당**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80%이상이 농사한다. 농업은 국민총생산의 약 60%를 차지한다. 농업에서는 벼농사가 기본이다. 부침땅은 령토의 약 10%정도이며 그가운데서 90%이상이 논이다.

주요농작물은 벼와 천연고무이며 그밖에 담배, 목화, 강냉이, 사탕수수, 콩, 나무감자, 사이잘삼, 후추, 코코야자 등이다.

벼는 메남강삼각벌(생산량의 절반이상)에서, 천연고무는 말라이반도의 북부에서 주로 생산된다. 천연고무생산량은 세계적으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음가는 자리를 차지한다. 1977년 여름 동북부, 북부 및 중부 지역이 가물피해를 입었다.

주요축산지대는 코라트높은벌의 열대풀벌지대이다.

주요집짐승은 소, 물소, 말, 코끼리 등이다.

나라의 60%이상이 산림지대이며 찌크재 등 질좋은 목재가 생산된다.

공업은 뒤떨어져있으며 국민소득에서 10%(그가운데서 수공업이 6～8%차지)정도 차지한다.

주요공업부문은 농산물가공업과 방직공업을 위주로 한 경공업, 채광업 등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주석, 철, 중석, 동, 안티몬 등이다.

채광업에서는 주석채굴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석은 말라이반도 서쪽 푸케트섬에서 캐는데 대부분 수출한다.

제재업, 정미업은 방코크에 집중되여있다.

운수에서 기본은 하천운수이다. 국내화물수송량의 3분의 2이상이 하천운수에 의하여 진행된다. 철길은 방코크를 중심으로 3천 100키로메터정도 뻗어있다.

주요수출품은 쌀, 고무, 주석, 찌크재, 마대, 강냉이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류, 전기기계, 철강재 및 금속제품, 비료, 섬유제품, 식료품, 기타 일용품과 건재 등이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일본, 미국, 서독, 영국, 말레이시아 등이다. 1977년에 수출에 비하여 수입이 10% 초과하여 무역적자는 10억딸라였다. 국제수지에서는 3억 7천 500만딸라의 적자가 났다.

화폐단위는 바트이다.

국교는 불교이다.

출판보도;신문 산 세, 방코크 포스트, 방코크 월드, 샴 뉴스

방송 타이전국방송, 타이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5년 5월 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버　마

(버마련방사회주의공화국)

넓이 67만 8,033km²
인구 3,083만명(1976년 1월 1일)
수도 랑군(주민 318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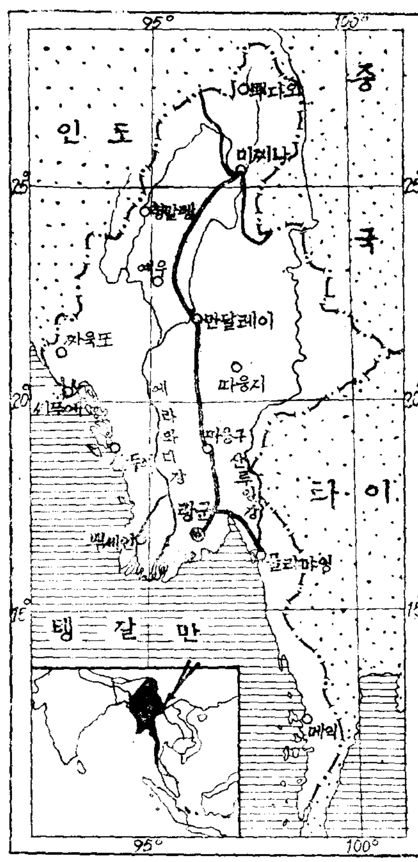
자연 및 주민

버마는 동남아세아의 서북쪽에 자리잡고있으며 중국, 라오스, 타이, 인도, 방글라데슈와 국경을 같이하고있다.

기후는 열대철바람기후로서 사철 기온의 변화가 극히 적고 장마철(5～10월)과 가물철(11～4월)로 나뉜다. 한해평균기온은 20°C이며 한해강수량은 2,000mm이다.

주민은 버마족, 카랜족, 카친족, 샨족, 몬족 등 70여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버마어이며 영어도 쓴다.



정　치

버마는 1948년 1월 4일《영련방》안에서 떨어져나와 독립하였으며 1974년 1월 나라이름을 버마련방사회주의공화국으로 고쳤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버마인민은 존경하는 우 네 윈대통령각하의 올바른 령도밑에 자력갱생하여 민족적독립을 공고히하며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1955년에 버마는 영제국주의자들과 맺었던 《방위협정》을 폐기하였으며 제국주의적《관세특혜제도》로부터 떨어져나왔다.

1962년 4월 30일에는 《버마식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정치선언이 발표되고 이 선언에 기초하여 7월 4일 유일당인 사회주의로선당이 창건되였다.

1963년에 정부는 기업국유화법령을 발포하고 제국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공업기업소들과 은행들을 국유화하였다.

1966년에 버마는 식민지적통화블럭인 《파운드지역》에서 떨어져나왔다.

1971년 6월 28일부터 7월 11일까지 진행된 버마사회주의로선당 제1차대회는 당을 강화하고 민족적통일을 이룩하며 대외적으로는 《엄정중립정책》을 실시할것을 결정하였다.

1977년 2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버마사회주의로선당 제3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는 버마사회주의로선당 중앙위원회의 정치보고와 제3차4개년경제발전계획에 관한 지시문을 토의하고 승인하였다. 또한 대회는 당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버마사회주의로선당 비상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는 국내정치정세와 당안의 형편에 관한 버마사회주의로선당 위원장 우 네 윈의 보고를 토의하였으며 당지도기관을 선거하였다.

대외관계분야에서 버마는 독자성과 민족적존엄을 지키고 일관하게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고있다.

1977년에 버마는 꼬스따 리까(3월)와 새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팔레스티나해방조직(8월)이 랑군에 대표부를 설치하는데 동의하였다.

1977년에 대통령이 네팔(4월), 중국(4～5월, 9월), 캄보쟈(11월) 등 나라들을 방문하였다.

인민회의 일원제, 총의석 451석, 1974년 3월 새 헌법에 의하여 새로 창설됨

국가리사회 최고집행기관, 28명으로 구성, 의장 우 네 윈(1974년 3월—), 국가리사회 의장은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을 겸한다.

대통령 우 네 윈(1974년 3월—)

정부 1977년 3월 29일 내각을 다시 조직, 총리 우 마웅 마웅카, 외교부장 우 라 폰, 국방부장 쪼 틴

정당, 사회단체; 1964년 3월 사회주의로선당 이외의 모든 정당들은 금지, **공산당** 1939년 8월에 창건, 1946년 2월 적기공산당과 백기공산당으로 갈라짐, 현재 비법화, **사회주의로선당** 1962년 7월 4일에 창건된 유일집권당, 위원장 우 네 윈, **인민로동자리사회, 인민농민리사회**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83%가 농사한다. 농업은 국민소득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외화수입의 80～90%를 농산물수출에서 얻고있다.

농업에서 기본은 벼농사이다. 부침땅은 약 1천600만헥타르이다. 그 가운데서 실지 리용되고있는 땅은 880만헥타르이며 480만헥타르가 논이다. 버마는 세계적으로 벼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들의 하나이다.

그밖에 농작물은 고무, 황마, 사탕수수, 목화, 차, 땅콩, 콩, 밀, 담배, 깨 등이다.

축산업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 물소, 돼지, 코끼리 등이다.

버마정부는 농업을 기초로 하여 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경제로선을 제기하고 농업발전에 큰 힘을 넣고 있다. 특히 벼농사에 힘을 넣고있다. 1977—1978농업년도에 논면적을 1천 280여만에이커로 늘이기로 하였다.

림업도 이 나라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해마다 880만립방메터의 질좋은 통나무가 생산된다. 특히 찌크나무는 이 나라의 특산물로서 목재 총수출량의 80%를 이루고있다. 버마에서는 야생코끼리를 길들여 통나무를 나르는데 그 수는 3천마리를 넘는다.

공업에서 기본은 채취공업과 가공공업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원유, 연, 아연, 주석, 중석 등이다.

버마정부는 채취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이고있다. 특히 원유공업발전에 힘을 넣은 결과 1976—1977회계년도에 858만바렐의 원유와 100억립방피트의 천연가스를 생산하였다. 그리하여 원유에 대한 국내수요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고 있다. 또한 1975—1976회계년도에 6천톤의 아연, 500톤의 중석, 700톤의 주석, 3천 600톤의 연이 생산되였다.

채취공업과 함께 세멘트, 전력, 화학비료, 방직, 사탕 공업도 발전하고있다. 1975—1976회계년도에 세멘트 24만 4천톤, 전력 7억 8천키로와트시, 광물질비료 12만 2천톤이 생산되였다.

가공공업은 국민총생산액의 약 10%를 차지하며 여기에서 정미업과 제재업이 기본을 이루고있다. 이 나라 공장수의 4분의 3은 정미공장이며 전국 공업로동자수의 절반이상이 여기에서 일하고있다.

버마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공업에서 국영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고있다.

1977년에 진행된 버마사회주의로선당 제3차대회는 버마경제에서 국가소유의 몫은 48%로, 협동소유와 개인소유의 몫은 각각 26%로 할것을 결정하였다.

운수에서는 철도운수가 기본이며 대외무역은 해상운수에 의거하고있다. 철길은 약 4천 300키로메터이나 모두 좁은 철길이다.

하천운수로는 이라와디강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배길은 약 1천 500키로메터이며 랑군으로부터 만달레이까지는 1천톤급의 배가 다닐수 있다.

주요수출품은 쌀(수출총액의 40%), 찌크재(수출총액의 32%), 광석, 생고무, 목화, 콩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일용필수품, 기계설비, 공업원료 및 자재 등이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중국, 쏘련,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비롯한 사회주의나라들과 일본, 인도, 서부독일, 영국 등이다.

화폐단위는 챠트이다.

교육부문에서는 교육기관들이 국유화되고 통일적인 교육시책들이 실시되고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글모르는 사람을 없애기 위한 운동을 벌린 결과 지난 12년동안에 약 120만명이 글을 읽고 쓸수 있게 되였다.

보건분야에서도 지난 14년동안에 병원침대수는 거의 배로, 의사수는 2.5배로 늘어났다. 농촌지역들에는 1천여개의 진료소가 새로 생겨났다.

1963년부터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1977년현재 천연두가 완전히 없어졌다.

국교는 불교이다.

출판보도;통신 버마통신

신문 러마비뜨네싱, 만마아링, 워킹 피플즈 데일리, 보더타웅, 한사워디, 쩨몽, 가디언

방송 버마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1년 5월 15일 우리 나라와 총령사관계를 맺었으며 1975년 5월 19일에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7년 10월 2일에는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1958년 3월에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랑군에 설치되였다.

1963년 8월에는 버마조선친선협회가, 1977년 6월 23일에는 조선통일지지버마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버마련방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이며 국가리사회 의장인 우 네 윈이 1977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전버마조선친선협회 위원장 마혼 나와이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 모시자》라는 제목으로, 버마기자 네이 윈은 《진보적인류의 가장 경사스러운 날》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기념론설들을 발표하였다.

1977년 1월 17일 버마조선친선협회 집행위원회는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를 하루 빨리 실현시킬것을 요구하여 유엔사무총장에게 전문을 보냈다.

11월 14일 조선통일지지버마위원회 위원장은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가 채택된 때로부터 두돐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담화를 발표하였다.

부 탄

(부탄왕국)

넓이 4만 6,600km²
인구 117만 3,000명(1975년)
수도 팀푸

자연 및 주민

부탄은 히말라야산줄기의 동남쪽에 자리잡고있다. 령토의 절반이 해발 3,000m이상의 산악과 높은 벌로 되여있다.

기후는 산지열대철바람기후이다. 비는 북부의 히말라야산줄기에 많이 내린다.

주민은 80%가 부탄족이며 나머지는 네팔족이다.

공용어는 티베트어이다.

정 치

부탄은 1910년부터 영국의 《보호령》으로 있다가 1947년 8월 인도의 독립과 함께 영제국주의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났다.

독립후 부탄은 오래동안 자체고립정책을 실시하여왔다.

1972년 8월 국왕 지그므 싱기 왕츄크는 자체고립정책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갈 립장을 표시하였다.

1971년에 부탄은 1949년 인도에 넘겨주었던 외교권을 되찾고 이해 5월 첫 외교대표부를 인도에 설치하였다.

대외적으로 부탄은 쁠럭불가담과 평화공존에 기초하여 모든 나라들과 친선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립장을 취하고있다.

1971년에 부탄은 유엔에 들어갔으며 1973년에는 처음으로 쁠럭불가담국가회의에 참가하였다.

부탄은 다른 나라에 두개(인도와 유엔본부)의 외교대표부만 두고있다.

국왕 지그므 싱기 왕츄크(1974년 6월—), 국가원수로서 립법권과 행정권을 가진다. 국왕의 자문기관으로 협의위원회(8명의 고문으로 구성)와 국가회의(30명으로 구성)가 있다.

정부 국왕이 총리를 겸한다. 외교부장 림포 다바 치야링

정당, 사회단체; 정당활동은 금지되여있다.

경제, 사회문화

농목축업을 주로 하는 농업국가로서 봉건적인 생산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있다. 부침땅은 대부분이 다락논과 다락밭으로 되여있다.

주요농작물은 벼, 보리, 인도밀, 강냉이, 감자 등이며 남부지방에서는 망고와 바나나가 재배된다.

북부산악지대에서는 목축업을 많이 한다.

주요집짐승은 야크(소의 일종), 양, 당나귀, 말 등이다. 1975년에 소는 19만 5천마리, 양은 3만 9천마리, 당나귀는 1만 6천마리, 말은 1만 8천마리 있었다.

령토의 70%가 산림이며 목재생산이 경제에서 적지않은 몫을 차지한다.

공업은 아직 뒤떨어져있으며 동, 석탄, 돌비늘, 백운석, 석고 등이 채취된다. 수공업적방법으로 종이(한지)와 모직도 생산한다.

작은 규모의 목재가공공장과 과일가공공장이 있으며 팀푸에는 작은 규모의 발전소(능력 400키로와트)가 있다.

철길은 없다. 야크, 당나귀, 말 등이 주요운수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1976년현재 도로의 총길이는 1천 500키로메터에 달하였다.

주요수출품은 목재, 과일통졸임, 농산물, 광물, 상아이며 주요수입품은 공업제품, 연료, 사탕 등이다.

우표판매가 주요외화원천의 하나로 되고있다. 여기에서 한해동안에 약 13만딸라를 얻는다.

1974년부터 자기의 화폐를 사용하고있다.

1975년에 100개이상의 초등학교가 있었다.

대부분의 농촌들에 아직 전기가 들어가지 못하였다.

주민의 대부분이 라마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쿠엔셀(정부기관지)

네 팔

(네팔왕국)

넓이 14만 797km²
인구 1,257만 2,000명(1975년)
수도 까뜨만두(주민 35만 3,700명)

자연 및 주민

네팔은 히말라야산줄기의 남쪽기슭에 있는 산악의 나라로서 중국과 인도사이에 있다. 해발 1,000m를 넘는 지역이 전령토의 절반을 차지한다.

기후는 열대철바람기후와 고산기후가 결합된 특성을 가지고있다. 수직높이에 따라 열대로부터 한대에 이르는 서로 다른 기후와 식물대를 가지고있으며 눈선은 해발 4,500m이다. 한해강수량은 3,000mm이다.

주민구성은 매우 복잡하다. 크게는 티베트혈통(네와르족)과 인도혈통(쿠르카족)의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네팔어이며 힌디어, 영어도 쓴다.

정 치

네팔은 1951년 2월 18일 105년간에 걸치는 라나봉건일가의 독재정권을 뒤집어엎고 립헌군주국을 선포하였다.

1962년 12월 16일에 네팔은 의회제도를 페지하고 《당이 없는 참사회(판챠야트)제도의 민주주의적체계》를 규정한 새헌법을 채택하였다.

1963년 4월 민족판챠야트 제1차회의에서 국왕은 대내적으로는 민족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며 대외적으로는 중립을 지킬데 대한 대내외정책을 밝혔다.

그후 네팔인민은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외래제국주의자들의 독점회사들을 국유화하였으며 민족화폐를 새로 제정하였다.

1977년 6월 15일 국왕은 민족판챠야트 제28차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대내정책에 언급하여 국내자원을 동원하여 민족경제건설과업을 수행할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대외정책에 언급하면서 그는 네팔은 평등, 자주권, 내정불간섭, 호상존중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것을 결의하고있다고 말하였다.

9월 25일 총리 비스타는 한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네팔은 언제나 대외정책에서 평화와 친선의 정책을 추구한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그는 네팔의 쁠럭불가담정책에 언급하면서 네팔은 작은 나라이지만 자기의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1977년에 네팔은 까타르(1월), 바레인(1월), 오만(1월), 사우디 아라비아(3월), 꼬스따 리까(8월)와 각각 대사급 외교관계를 새로 맺었다.

2월에 네팔은 스리랑카와 항공운수협정을 맺었다.

국왕 비렌드라 비르 비크람 샤호 데바(1972년 1월—), 국왕은 민족판챠야트와 정부를 통하여 립법권과 행정권을 행사한다.

민족판챠야트 일원제, 의원수 125명, 그 가운데서 30명은 국왕이 임명, 나머지는 2년마다 의원의 3분의 1을 다시선거, 민족판챠야트에서 채택된 일체 법령은 국왕의 비준을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국가리사회 국왕의 최고자문기관으로서 1963년 5월에 창설, 국가리사회성원은 국왕이 임명

정부 정부성원은 국왕이 민족판챠야트성원중에서 임명, 1977년 9월 12일 새내각 구성, 총리 키르티 니드히 비스타(국방부장겸임), 외교부장 끄리쉬나 라즈 아르얄

정당, 사회단체; 1961년 1월 일체 정당활동은 금지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90%이상이 농사한다. 농산물은 이 나라 국민총생산액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부침땅은 약 180만헥타르이며 그의 절반이상이 해발 1천 800메터의 다락논이다.

주요농작물은 벼이며 그밖에 밀, 강냉이, 보리, 메밀, 사탕수수, 황마, 목화, 담배, 차, 바나나 등이다.

1975—1976회계년도에 310여톤의 차를 생산하였다.

정부는 농업발전을 위하여 이 부문에 우선적힘을 돌리면서 관개공사를 진행하고 종자를 개량하며 선진영농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1973년에 이르러 관개된 땅은 12만헥타르에 달하였다. 특히 정부는 1975—1976년을 《농업의 해》로 정하고 이기간에 26개대상의 관개시설공사를 계획하고 추진시켰다. 또한 정부는 1976—1977회계년도의 첫 6달동안에만도 2만 2천여톤의 화학비료를 농촌에 보내주었다.

목축업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 털소, 양, 염소, 당나귀 등이다.

령토의 50%가 산림지대이므로 통나무도 많이 생산된다.

공업부문은 작은 규모의 채광업, 방직공업, 식료공업, 기타 경공업 등이 약간 있으며 대부분이 수공업이다.

국내원료에 기초한 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발전소들, 세멘트공장, 금속가공공장, 방직공장, 사탕공장, 구두공장, 담배공장, 종이공장 등 중소규모의 공장들이 많이 건설되였다. 또한 민족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까뜨만두의 발라주공업지구, 헤타우라공업지구 등 공업지구들이 새로 생겨났다. 1977년말현재 이 나라의 한해공업생산액은 10년전의 3배이상에 달하고있다.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도로건설에 큰 힘을 넣고있다. 지난 10년동안에 450키로메터의 도로를 새로 닦았다. 자동차길은 약 4천키로메터, 철길은 남부벌방지대에 약 127키로메터(좁은 철길)정도 있다.

소, 당나귀 등도 운수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쌀, 밀, 목재, 황마, 가죽, 담배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천, 각종 연유, 운수기재, 공업제품 등이다. 무역에서 인도와의 거래가 많은 몫을 차지하며 무역상품의 거의 모두가 인도를 거쳐 수송된다. 1975—1976회계년도에 이 나라의 대외무역총액은 31억 6천만루피에 달하였다.

민족어에 의한 교육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1977년말현재 79개의 대학과 약 1만 2천개의 초등 및 중등 학교들이 있었다. 또한 이 나라에는 약 4천개의 문맹퇴치강습소들이 있었다.

1977년말현재 이 나라에는 60여개의 병원이 있었으며 산간지대와 농촌지대들에 450여개의 진료소가 있었다. 또한 이 나라에는 370여명의 외과및 내과 의사, 3천 900여명의 간호원, 조산원, 간병원들이 있었다.

국교는 힌두교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힌두교, 불교,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통신 라스뜨리아 삼바트 사미티통신

신문 쿠르카 파뜨라(정부기관지), 마더랜드, 마뚜리 푸미, 코머너, 파샤파트리카, 써마지, 라이징네팔

방송 네팔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7월 10일 우리 나라와 총령사관계를 맺었으며 1974년 5월 15일에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9년 5월 11일에는 우리 나라와 무역관계를 맺기로 합의하였다.

1957년 9월 19일 네팔조선친선협회가, 1976년

11월 16일에는 조선통일지지네팔위원회가 각각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 흠모하고있는 네팔인민들은 《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 《김일성주석로작편집부》 등을 묻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깊이 연구학습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신문《코머너》 1977년 4월 15일호는 《경사스러운 김일성주석각하 탄생 65돐》이라는 제목의 특집을 조직하였으며 《코머너》신문사는 잡지 4월호를 특간호로 출판하였다. 특간호의 표지에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 김일성》이라는 글발이 씌여져있었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네팔조선친선협회와 조선통일지지네팔위원회의 공동주최로 1977년 6월 25일 까뜨만두에서 련대성군중집회가 진행되였다. 7월 18일 네팔세계평화위원회는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이 발표한 호소문을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방글라데슈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

넓이 14만 1,157km²
인구 8,080만명(1976년)
수도 다카(주민 131만 1,000명)

자연 및 주민

방글라데슈는 동, 서, 북이 인도에 둘러싸여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벌과 강으로 이루어졌다.

기후는 무더운 열대성기후이며 장마철(4~10월)과 가물철(11~3월)로 나뉜다. 장마철에는 전령토에 매일 소나기가 내리며 때로는 주먹같은 우박이 폭우에 섞여내린다. 기온은 여름철에 평균 28~29°C, 겨울철에 16~18°C이며 한해강수량은 동부의 높은 지대에서 5,000mm, 치타공에서는 2,700mm에 달한다.

주민은 98%가 벵갈족이며 아라칸족, 카시아족 등 소수민족이 있다.

공용어는 벵갈어이다.

정 치

방글라데슈는 1971년 3월 26일 파키스탄으로부터 떨어져나와 독립하였으며 같은해 4월 17일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75년 8월 군사정변으로 독립이래 정권을 잡고있던 무지부르 라호만정권이 무너지고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1977년 4월 21일 새로 대통령으로 된 지아우르 라호만은 민족경제건설에서 자력갱생할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행동강령을 발표하였다.

그는 《경제적자립은 민족적존엄을 보존하기 위해 중요하다. 우리는 모든 부문,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자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라고 말하였다.

방글라데슈의 대외정책에 언급하여 그는 《우리의 대외정책은 나라의 독립과 령토완정, 자주권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는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방글라데슈는 모든 나라들과 평등에 기초하여 친선을 도모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5월 30일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되였다. 투표결과 투표참가자의 압도적다수가 라호만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였다.

1977년에 방글라데슈는 알바니아(8월)와 새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중국과 경제및기술협조협정, 무역및지불협정(1월), 이란과 경제, 문화및기술협조에 관한 협정(3월), 파키스탄과 새로운 원거리 통신망설치에 관한 협정(4월), 말레이시아와 경제및기술협조에 관한 협정(3월) 등을 각각 맺었다.

또한 방글라데슈는 11월 5일에 인도와 간지스강물을 나누어 쓸데 대한 협정을 맺는 등 두 나라관계를 발전시키고있다.

1977년에 라호만대통령이 중국(1월),이란(3월), 버마(7월), 사우디 아라비아(7월), 애급(9월), 네팔(12월), 인도(12월), 파키스탄(12월) 등을 각각 방문하였다.

대통령 지아우르 라호만(1977년 4월 21일—)

자문리사회(내각) 1975년 11월 26일 구성, 대통령이 외교부장, 국방부장을 겸한다.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1948년 인도공산당에서 떨어져나와 창건, **인민련합당, 민족동맹, 민족아와미당, 민족해방인민동맹, 민족당, 로동당, 민족로동당, 직업총동맹, 로동자련맹, 청년동맹, 녀성해방동맹**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민의 약 85%가 농사하며 국민소득의 절반이상이 농산물에서 얻어진다. 부침땅은 약 2천 600만에이커정도인데 그 80%에 벼, 밀, 보리, 강냉이를 심는다.

주요농작물은 벼, 밀, 보리, 강냉이, 황마, 차, 사탕수수 등이다. 황마생산은 세계 제1위로서 세계 총생산량의 80%를 차지한다. 1977년에 황마는 약 120만톤, 차는 3만 5천톤 생산하였다.

정부는 농업발전을 위하여 관개시설들을 건설하고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이고있다. 1975년 1월부

터 6월까지의 기간에만도 약 190만에이커의 땅을 적실수 있는 작은규모 관개공사들이 완공되였다.

공업은 대부분 수공업적인 작은규모의 공업과 가내수공업으로서 사회총생산액에서 약 9%를 차지한다.

주요공업부문은 황마가공공업이며 그밖에 작은 규모의 면방직, 면방적, 합성섬유, 세멘트, 사탕공장들이 있다. 이 나라에는 77개의 황마가공공장이 있으며 나라양간쥐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황마가공공장이 있다. 정부는 황마가공공업발전을 위하여 공장들을 현대화하고 확장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이고있다.

민족경제발전에 힘을 넣은 결과 1976—1977회계년도에 이 나라의 공업생산은 1975—1976회계년도에 비해 5.5% 늘어났다. 같은기간에 국민총생산액은 3% 늘어났다.

운수에서는 하천운수가 기본이다. 배길은 장마철에 6천 500키로메터, 가물철에 4천 300키로메터에 달한다. 가장 큰 항구는 치타공이다.

이 나라는 철도운수발전에 큰 힘을 넣고있다. 1975—1976회계년도에 다카—치타공구간의 철길이 개건되였으며 파리드푸르—바리살, 치타공—라크샴, 톤티—다카 사이의 철길이 새로 건설되였다.

주요수출품은 황마와 그 제품 (이 나라 수출총액의 73%, 외화수입의 5분의 4를 차지), 차, 목화실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와 설비, 건재, 석탄, 화학제품, 식량, 목화 및 유색금속 등이다. 수출품의 48%는 원료이며 52%는 반제품과 일부 완제품이다. 1975—1976회계년도에 황마제품은 44만톤, 차는 약 3만톤 수출하였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쏘련, 영국, 인도, 서부독일, 일본 등이다.

화폐단위는 타카이다.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주민의 80%가 글을 모른다. 정부는 글모르는 사람을 없애기 위하여 1977년 1월 남부의 쿨라시에 이 나라의 첫 문맹퇴치쎈터를 창설하였다.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농촌지역들에서는 이동의료소가 설치되여 활동하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에꼬다(공산당기관지), 방글라데슈 타임스(정부기관지), 홀리데이, 방글라바니, 싼그바드, 모닝뉴스, 아자드, 메일, 나야 유그, 고노속디

방송 다카방송, 치타공방송, 다카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12월 9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4년 2월에는 무역및지불에 관한 협정, 1976년 10월 26일에는 문화협정을 맺었다.

1977년 3월 6일에는 방글라데슈조선친선협회가, 1977년 3월 8일에는 조선통일지지방글라데슈련대성위원회가 각각 결성되였다.

1977년에 방글라데슈에서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행사들이 광범히 진행되였다.

1977년 1월에 진행된 우리 나라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구국방안을 지지하여 방글라데슈 민족동맹, 인민련합당, 민족해방인민동맹, 민족당, 공산당, 로동당, 민족로동당, 민족아와미당, 로동자련맹, 직업총동맹, 녀성해방동맹, 청년동맹 등 이 나라의 정당, 사회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6월 25일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이 나라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들이 또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8월 24일에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규탄하여 조선통일지지방글라데슈련대성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11월 15일 조선통일지지방글라데슈련대성위원회는 미제의 부추김밑에 박정희괴뢰도당이 로동자, 농민, 지식인, 청년학생들을 무참히 탄압하고있는 범죄적행위를 규탄하여 유엔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냈다.

1977년에 방글라데슈 정부무역대표단(8월), 방글라데슈 조선친선협회대표단(10월)이 우리 나라를 각각 방문하였다.

또한 9월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방글라데슈인민련합당 총비서이며 방글라데슈로동자련맹 위원장인 《나야 유그》신문 주필을 단장으로 하는 방글라데슈인민공화국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인 도

(인도공화국)

넓이 326만 8,090km²

인구 6억 1,000만명(1976년 3월 1일)

수도 뉴델리(주민 500만명)

자연 및 주민

인도는 아세아주의 중남부에 자리잡고있다. 히말라야산악지대, 인다스강가벌, 인도반도의 세지역으로 나뉜다.

기후는 전형적인 열대철바람기후이며 장마철(6~9월)과 가물철(11~4월)로 나뉜다. 한해평균기온은 더울때에 22~26°C(최고 45~48°C), 추울

때에 16～25°C이며 한해강수량은 서해안, 서부벵갈지대에서 2,700mm, 중부간지스벌지대에서 1,000～2,000mm이다.

1977년 1월 북부지역에 전례없는 강추위가 들이닥쳐 잠무및카슈미르, 히마짜르 등지에 많은 눈이 내렸다.

주민은 200여개의 민족과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기본민족은 힌두스탄족, 벵갈족, 비하르족, 구쟈라티족, 판잡족, 타밀족, 카슈미르족 등이다.

전국적인 공용어는 힌디어와 영어이며 지방공용어로 14개언어가 법적으로 인정되고있다.

정　치

1947년 8월 15일 《영련방》안의 《자치령》으로 독립하였으며 1950년 1월 26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52년에 인도 력사상 처음으로 총선거가 실시되였으며 국민대회당의 네루를 총리로 하는 정부가 구성되였다. 그후 국민대회당은 4차례의 선거에서 계속 승리하였으며 약 30년동안 집권하였다.

1977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제6차 총선거가 진행되였다. 총선거에서 독립이래 정권을 쥐고있던 국민대회당이 패배하고 쟈나타당을 포함한 야당련합이 승리하였다. 그리하여 쟈나타당 위원장 모라르지 란쵸드지 데사이를 총리로 하는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3월 24일 새총리는 인도의 대외정책은 《완전한 쁠럭불가담정책》이라고 하면서 이웃 나라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3월 28일 한 기자회견에서 인도를 《철저히 중립화할 의향》이라고 말하였다.

1977년 1월 인도는 200마일경제수역설정을 선포하였다.

1977년에 인도는 쏘련과 경제, 기술협조협정과 대류권통신창설협정(4월), 뽈스까와 원자력의 평화적리용에 관한 협조협정(9월),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과학및인도협력계획(9월)을 맺었다. 또한 5월에는 약 15년동안 끊어졌던 중국과의 무역을 다시 시작하기로 하였다.

11월 5일에 인도는 방글라데슈와 간지스강물을 나누어 쓸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이리하여 두 나라는 15년동안에 걸친 분쟁문제를 끝장냈다.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총리 데사이가 쏘련을 방문하였으며 쏘련—인도공동선언이 채택되였다. 또한 두 나라는 공동경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의회 련방원(상원)과 인민원(하원)의 량원제, 상원의원 243명, 임기 6년, 2년마다 의원수의 3분의 1을 다시 선거, 하원의원 542명, 임기 5년, 1977년 3월 제6차 총선거 진행, 선거결과 쟈나타당이 270석, 민주국민대회당이 28석, 국민대회당이 153석 등을 각각 차지

대통령 니람 산지바 레디(1977년 7월—), 대통령은 상하량원과 각 주의 하원의원들로 구성되는 선거집단에 의해 선거된다. 임기 5년, 1977년 7월 21일 대통령선거 진행

정부 1977년 3월 26일 쟈나타당과 민주국민대회당의 련립정부 구성, 총리 모라르지 란쵸드지 데사이, 외교부장 아탈 비하리 바즈파에, 국방부장 자그지완 람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3년 5월 28일 창건, 1964년 9월이후 이. 엠. 에쓰. 남보디리파드를 총비서로 하는 공산당(맑스주의)과 당게를 위원장으로하는 공산당으로 분렬, **쟈나타당**(집권당)1977년 1월 우파국민대회당, 쟌산당, 사회당, 인도인민당을 련합하여 창립, **민주국민대회당**(집권당) 1977년 2월 좌파국민대회당에서 떨어져나와 조직, **국민대회당**1969년 10월 두개의 파로 분렬, **드라비다진보동맹, 판잡당, 전인도직업동맹, 인도전국녀성련맹, 전인도청년련맹**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80%가 농사한다. 국민총생산액에서 농업이 79%를 차지한다. 부침땅은 약 3억에이커이며 그가운데서 4분의 3이 알곡재배지이다.

주요농작물은 벼, 밀, 보리, 강냉이, 기장, 목화, 황마, 사탕수수, 커피, 차, 고무 등이다. 목화와 황마생산은 자본주의나라들가운데서 제2위를 차지한다. 1972년에 목화는 112만 7천톤, 황마는 87만 6천 300톤 생산되였다. 관개면적을 늘이기 위해 1977—1978회계년도에 123억루피를 돌리기로 하였다. 1977년현재 관개된 땅은 부침땅의 30%였다.

축산업은 농업의 부업으로 되고있다.

주요집짐승은 소, 물소, 양, 염소, 말, 코끼리 등이다. 소와 물소마리수에서 세계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나 종교적관습으로 하여 잡지 않으므로 경제적으로 큰 의의를 못가진다.

공업은 국민총생산액의 20%를 차지하며 인구의 약 10%가 이 부문에서 일한다.

주요지하자원은 석탄, 철, 망간, 돌비늘, 보크사이트, 원유, 동, 알루미니움 등이다. 돌비늘생산량은 한해에 1만 6천톤정도로서 자본주의나라들가운데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소규모공업과 수공업이 공업생산에서 약 절반을 차지한다.

공업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면방직공업이다. 그 중심지는 봄베이이며 이 나라 면천생산량의 3분의 2가 여기에서 생산된다.

독립후 흑색금속공업, 화학공업, 기계제작공업,

전력공업 등 중공업이 발전하고있다.

령토의 약 22%가 산림이며 찌크재를 비롯한 여러가지 목재들이 생산된다.

운수에서는 철도운수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철길의 총연장길이는 5만 9천 600키로메터이다. 해상운수분야에서는 1977년현재 371척의 배가 있는데 수출입품의 50%를 자체의 상선대로 실어나른다.

주요수출품은 황마 및 그 제품(14%이상), 차(약 9%), 철광석, 면직물, 가축과 그 가공품, 호두씨, 목화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 및 설비(25%), 식량(20%이상), 흑색 및 유색금속, 비료, 원유, 화학제품 등이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쏘련, 영국, 서부독일, 일본, 미국 등이다.

화폐단위는 인도루피이다.

인구의 85%가 인도교도(힌두교도)이며 10%가 회교도이다. 그밖의 주민들은 기독교, 불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1977년 11월 4개의 통신사체제를 다시 살릴데 대하여 결정, 피티아이, 유엔아이, 힌두스탄 사마챠르, 사마챠르 파러뜨

신문 뉴 에이지(공산당계), 나브바라트 타임스(국민대회당계), 인디안 엑스프레스, 타임스 오브 인디아, 힌두스탄 타임스, 패트리오트, 이벤트, 피플즈 데모크라씨, 스탠다드, 이브닝 뉴

방송 인도방송, 전인도라지오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2년 3월 1일 우리 나라와 총령사관계를 맺었으며 1973년 12월 10일에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6년 7월 1일에는 문화협정을 맺었으며 6월에는 우리 나라 항공회사《조선민항》과 인도항공회사《애어 인디아》사이에 항공봉사협정을 맺었다.

1956년 12월 25일에는 인도조선문화협회가, 1969년 12월 15일에는 전인도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0년 12월 28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회관이 뉴델리에 설치되였다.

1976년 9월 7일에 조선통일지지인도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인도에서 경축행사들이 진행되였다.

《인도조선친선청년토론회》는 4월 4일에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에 대한 강연회를 조직하였으며 전인도조선친선협회와 조선통일지지인도위원회는 4월 14일에 공동명의로 경축집회를 진행하였다.

인도친선협회도 4월 12일에 경축집회를 진행하였다.

1977년에 인도에서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운동들이 벌어졌다.

2월 4일에 조선통일지지인도위원회는 1977년 1월에 진행된 우리 나라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구국방안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조선통일지지인도위원회와 전인도조선친선협회는 출판물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인도친선협회는 련대성집회를 가졌다.

7월 25일 전인도청년련맹 델리주위원회는 뉴델리에 있는 미국대사관 앞에서 대중적인 시위를 조직하고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의 철거를 요구하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비망록을 미국대사관에 들이댔다.

10월 30일 전인도청년련맹과 전인도학생련맹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1월 7일에 조선통일지지인도위원회 위원장과 전인도조선친선협회 부위원장은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의 무조건리행을 요구하여 미국대통령에게 각각 편지를 보냈다.

1977년에 인도신문《인디안 타임스》주필(4월), 정부무역대표단(5월) 등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또한 9월에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인도신문《인디안 타임스》주필이 참가하였다.

이해 4월에 인도에서 진행된 쁠럭불가담국가 조정위원회 외교부장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파 키 스 탄

(파키스탄회교공화국)

넓이 80만 6,538km²
인구 7,237만명(1976년 6월 1일)
수도 이슬라마바드(주민 10만명)

자연 및 주민

파키스탄은 인도의 서북쪽에 자리잡고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산지와 높은벌로 되여있다.

아열대성기후에 속하나 기온이 높고 메마른것이

특징이다.

한해강수량은 판잡지역에서 1,000mm, 기타 지역에서 250~400mm이다.

주민은 판잡족, 신디족, 파르지아족 등이다.

공용어는 우르두어이나 영어도 많이 쓴다.

정 치

파키스탄은 1947년 8월 14일 인도에서 떨어져나와 독립하였으며 1956년 3월 23일 회교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공화국선포후 파키스탄은 정당들사이의 불화와 동서파키스탄사이의 대립 등으로 인하여 국내정세는 매우 불안정하였으며 오래동안 군사정권의 통제밑에 있었다.

1971년 12월 인도—파키스탄전쟁을 계기로 군사정권은 거꾸러지고 인민당정부가 수립되였다. 정부는 1972년에 토지개혁법령과 경제개혁령을 발포하여 대토지소유자들의 토지소유규모를 제한하고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주었으며 기간공업부문들과 은행들을 국유화하였다.

1977년 3월 7일 국민회의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결과 인민당이 국민회의의 200개 의석가운데서 155석을 차지하였으며 야당련합인 민족동맹은 36석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주의회선거에서도 인민당이 460개 의석가운데서 427석을 차지하여 압도적인 승리를 이룩하고 다시 정권을 잡게 되였다.

총선거에서 패배한 9개의 야당련합인 민족동맹은 인민당정부가 선거에서 《협잡》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반정부시위와 파업, 폭력행동을 벌렸다.

나라에 조성된 정세를 바로 잡기 위하여 7월 5일 륙군참모장 모함마드 지아 울 하크가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고 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지아 울하크는 전국인민에게 보내는 방송연설에서 국민회의와 주의회를 해산하며 헌법의 일부분의 리행과 정당들의 활동을 일시 금지한다고 선포하였다.

그는 파키스탄의 대외정책에 언급하여 《이전정부들이 맺은 모든 협정과 의무들을 새 행정부가 존중》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

10월 1일 모함마드 지아 울 하크는 선거를 무기한 연기하며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한다고 발표하였다.

1977년 파키스탄은 이라크와 무역경제및기술협정(1월), 이란, 토이기와 경제, 기술, 문화 등 분야들에서 협조를 확대할데 대한 협정(5월)을 각각 맺었다. 3월에는 아프가니스탄과 정기항공운영을 다시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12월에 모함마드 지아 울 하크가 중국을 방문하였다.

국민회의 1977년 7월 5일 군사정변후 해산

대통령 파잘 엘라히 쵸우드리(1973년 8월—)

군사위원회 1977년 7월 5일 군사정변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륙해공군 참모장들로 구성, 대통령의 사업을 도와준다.

자문리사회(내각) 1978년 1월 14일 16명으로 구성, 정부수반 겸 계엄사령관 모함마드 지아 울 하크(국방담당겸임), 외무담당고문 아가 샤히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8년 인도공산당에서 떨어져나와 창건, **인민당**, **사회주의당**, **민족동맹** 1977년 1월 9개당이 련합하여 결성, **회교도련맹당**, **로조련맹**, **민족청년련맹**, **전파키스탄녀성협회**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85%이상이 농사한다. 국민소득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몫은 약 46%정도이다.

주요농작물은 벼, 밀, 목화, 사탕수수 등 4대작물과 그밖에 조, 수수, 유채, 황마 등이다. 1976—1977농업년도에 42만 7천톤의 목화를 생산하였다.

파키스탄에서는 농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1976년말현재 총경지면적의 6.7%에 해당하는 320만에이커의 대지주들의 땅이 몰수되여 13만명의 땅없는 농민들에게 분여되였다. 또한 농촌에서 농민들을 고용하는 제도가 폐지되였다.

1977년 1월 5일 발표된 새 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이미 제정되였던 개인의 토지소유한도가 낮추어졌으며 수세기동안 존재하여 오던 토지세제도가 페지되고 유일적인 농업소득세제가 실시되고있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등이다. 판잡주에서는 락타를 많이 길러 짐나르기에 리용하고있다.

주요공업부문은 방직공업, 기계공업, 강철공업, 세멘트공업, 원유가공공업, 가죽가공공업, 식료공업 등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천연가스, 석탄, 크롬, 철, 우라니움, 류황, 돌소금 등이다.

파키스탄정부는 민족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1972년에 《경제개혁령》을 발포하고 일련의 큰 기업소들을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77년초현재 이 나라에서는 야금, 기계, 화학 등 10여개의 주요공업부문들과 은행부문들이 국유화되였으며 2천 190여개의 기업소가 국가의 수중에 장악되였다. 최근 4년간 국영기업소들의 제품생산은 2배로 늘어났으며 여기서 일하는 로동자수는 40%나 장성하였다.

운수에서는 해상운수와 철도운수가 중요하다. 철길의 길이는 약 8천 775키로메터이나 좁은 철길이다.

주요항구는 카라치항이다.

주요수출품은 목화, 목화실, 천, 양털, 가죽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석유, 화학제품, 강철, 기계, 운수설비, 식량이다.

화페단위는 파키스탄루피이다.

교육부문에서는 1972년 3월 새교육개혁안이 발표되고 그해 10월부터 사립학교들에 대한 국유화가 실시되였다. 1976년말현재 국립 초등 및 중등학교수는 5만 8천여개에 달하였다.

정부는 정규적인 학교교육을 발전시키는것과 함께 해마다 10월 1일을 《문맹퇴치를 위한 투쟁의 날》로 정하고 문맹퇴치를 위한 사회적운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도이다.

출판보도;통신 에이피피(파키스탄합동통신), 피피아이(파키스탄국제통신)

신문 파키스탄 타임스, 장, 무싸와트, 힐랄레 파키스탄, 돈, 와파크, 마슈리크, 카싸드, 타이르, 알파테흐

방송 파키스탄방송, 파키스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11월 9일에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6년 11월 8일에는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974년 7월에는 우리 나라 민용항공회사와 파키스탄국제항공회사 사이에 항공운수분야에서 총대리 및 호상봉사제공에 관한 협정, 1975년 1월 26일에는 두 나라 정부사이의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1971년 2월 11일에는 조선중앙통신사와 파키스탄국제통신사 사이에 보도교환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파키스탄에는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 파키스탄조선녀성친선협회 등 20여개의 친선협회들과 조선통일지지파키스탄련대성위원회(카라치, 1975년 12월 6일), 조선통일지지파키스탄위원회(라호르, 1976년 2월 24일) 등이 무어져 활동하고있다.

1977년 11월 7일 조선통일지지파키스탄련대성위원회 쿠웨타지부가 새로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 흠모하고있는 파키스탄인민들은 《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들을 뭇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깊이 연구하고있다.

1977년에 파키스탄에서는 불로치스탄 《김일성주의연구소조》(11월 6일)와 씬드 《김일성주의연구소조》(12월 1일)가 새로 결성되였다.

1977년에 파키스탄에서는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행사들이 광범히 진행되였다.

1월에 진행된 우리 나라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구국방안을 지지하여 라왈핀디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와 라왈핀디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는 각각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파키스탄의 제정당, 사회단체들은 이 새로운 구국방안을 지지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밖에도 파키스탄에서는 새로운 구국방안을 지지하는 련대성집회들이 진행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라호르파키스탄조선청년친선협회와 파키스탄과 제3세계와의 청년련대성위원회는 조선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공동모임을 가졌다.

유엔총회 제32차회의가 진행되는것과 관련하여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와 조선통일지지파키스탄위원회는 10월 12일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의 리행을 요구하여 유엔사무총장과 미국대통령에게 각각 편지를 보냈다.

10월 24일 파키스탄사회주의당, 파키스탄평화리사회, 파키스탄로조련맹, 파키스탄농조위원회, 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조선통일지지파키스탄위원회 등은 유엔이 조선문제에 대한 자기의 결의를 리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1977년에 파키스탄 정부무역대표단(3월), 국방대학견학단(5월), 라왈핀디파키스탄조선친선협회 서기장(9월)등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또한 9월에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파키스탄 라호르《김일성주의연구위원회》위원장,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카라치위원회 서기장이 참가하였다.

이해에 우리 나라 군사대표단(1~2월), 조선민주법률가협회대표단(1월), 정구협회대표단(11월) 등이 파키스탄을 각각 방문하였다.

스리랑카

(스리랑카공화국)

넓이 6만 5,610km²
인구 1,398만 6,000명(1975년)
수도 콜롬보(주민 약 60만명)

자연 및 주민

스리랑카는 인도반도의 동남쪽에 있는 섬나라로서 인도양에서 아프리카, 아세아, 대양주를 잇는 중요한 배길에 놓여있다.

열대기후로서 기온은 늘 높다. 비는 비교적 고르롭게 내린다. 한달평균기온은 25~29°C이며 한해강수량은 1,000~2,000mm이다. (높은 벌의 비탈면은 4,000~5,000mm)

주민은 대부분이 싱할족(70%)이고 그밖에 타밀족(23%), 말라이족 등이 있다.

공용어는 싱할어이다. 타밀족은 타밀어를 쓴다.

정 치

스리랑카는 1948년 2월 4일 《영련방》안의 자치령으로 독립하였으며 1972년 5월 22일 새 헌법을 채택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자유당정부와 통일국민당정부가 여러번 바뀌여졌다.

1956년 4월 총선거에서 자유당은 독립이래 정권을 잡고있던 통일국민당을 물리치고 승리하였다. 1965년 3월 총선거에서 통일국민당이, 그후 1970년 5월 총선거에서는 민주력량의 통일전선(자유당, 공산당, 평등사회당)이 각각 승리하였다.

통일전선정부는 1973년에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여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를 없애버렸으며 1975년 10월에는 외국사람들이 가지고있던 모든 땅을 국유화할데 대한 토지개혁법수정안을 채택하였다.

1977년 7월 21일 총선거가 진행되였다. 총선거에서 통일국민당이 승리하였으며 당수 자예와르데네를 총리로 하는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8월 4일 대통령은 민족국가회의에서 한 정책성명에서 새 정부가 《정치적 통제와 간섭이 없는 출판과 사법의 독립성을 재수립할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수출과 일자리를 늘이며 외화를 벌기 위해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써 《외국과의 합작과 외국의 직접적개입》을 통하여 나라의 《공업을 개발》할것이라고 하였다.

8월 6일 재정부장은 새 정부가 이전정권시기에 《국유화된 4개의 기업체를 이전주민들에게 되돌려줄것》이라고 하면서 이전정부가 《국유화한 약 30개의 기업체들에 대해 조사할것》이라고 말하였다.

7월 23일 새 총리는 자기 정부가 이전정권의 《대외정책을 따를것》이며 《동방과 서방과의 관계를 유지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자기 나라가 《동남아세아국가련합》(아세안)에 들어가는데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7월 24일 외교부장은 스리랑카가 《그 어떤 나라로부터도 부대조건이 없는 원조를 받아들일것》이라고 말하였다.

10월 4일에 민족국가회의는 대통령제정부를 세울데 대한 헌법수정안을 채택하였다.

12월에 정부는 《자유무역지대》설치에 관한 법안을 발표하였다.

1977년 10월에 스리랑카는 중국과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었다.

민족국가회의 일원제, 총의석 168석, 임기 5년, 1977년 7월 21일 총선거 진행, 선거에서 통일국민당이 139석, 자유당이 8석을 각각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헌법에 따라 총리가 임명한다. 임기는 4년, 대통령 윌리암 고팔라와 (1972년 5월—)

정부 1977년 7월 24일 24명으로 된 새정부구성, 총리 제이. 아르. 자예와르데네(국방부장겸임), 외교부장 에이. 씨. 에스. 하미드(독립후 처음으로 되는 전임 외교부장)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1943년 7월 3일 창건, 1963년에 두개 당으로 갈라짐, **통일국민당**(집권당), **자유당, 평등사회당, 련방당, 로조련맹, 공산주의청년련맹, 자유당청년련맹, 진보녀성협회**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70%이상이 농사한다.

주요농작물은 차, 고무, 야자 등 수출용작물이다. 그밖에 벼, 밀, 강냉이, 목화 등도 심고있다. 차, 고무, 야자는 이 나라 농업생산액의 75%, 수출총액의 92%, 외화수입의 65%,국민소득의 3분의 1을 각각 차지한다. 부침땅(약 150만헥타르)의 3분의 2가 차, 고무나무, 야자 재배지이다. 차는 중부의 높은벌과 남서부의 바다가지방에서, 고무와 야자는 서부와 바다가지방에서 주로 재배된다. 1977년에 21만 5천톤의 차잎을 따들였다. 1975년에 고무는 2억 9천 590만폰드, 야자는 25억 5천만개 생산하였다.

1977년에 습한땅을 일구어 8천에이커의 새땅을 얻었다.

목축업도 하고있다. 주요집짐승은 소, 돼지, 양 등이다.

공업에서 기본은 농산물가공을 위주로 하는 가공공업이다. 그밖에 세멘트, 방직, 종이, 담배, 다이야, 합판, 화학제품, 원유가공, 비료 공장 등이 있다.

광업에서는 흑연채굴이 기본이며 석고, 돌비늘, 형석 등을 캐내는 광산들이 있다.

1975년부터 원유채취를 시작하였다. 청옥, 홍옥, 황옥, 람옥, 석류석 등 보석류도 캐내고있다.

수산자원이 풍부하나 연해세소어업에 기초하고 있어 물고기잡이량은 얼마되지 않는다.

국내운수는 기차와 자동차로, 대외무역은 배로 한다. 철길은 1천 445키로메터, 자동차길은 1만 7천 440키로메터이다.

주요항구는 콜롬보항이다.

주요수출품은 차, 생고무, 야자씨, 보석, 흑연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쌀, 각종 식료품, 천, 의류, 기타 일용필수품, 기계류이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중국, 쏘련, 영국, 일본, 서부독일 등이다.

화폐단위는 스리랑카루피이다.

싱할족의 대부분은 불교를, 타밀족의 대부분은

힌두교를 믿는다.

출판보도;통신 스리랑카통신

신문 아따(공산당기관지), 자나디나(평등사회당기관지), 데일리 미러, 스릴라거, 자나사티아, 란카디파, 다바싸, 비라케사리

방송 스리랑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1월 25일 우리 나라와 령사관계를, 1970년 7월 15일에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2년 2월에는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1963년 5월에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콜롬보에 설치되였다.

말 디 브

(말디브제도공화국)

넓이 298km²

인구 12만 8,600명(1974년)

수도 말레(주민 1만 6,200명)

자연 및 주민

스리랑카에서 서쪽으로 670키로메터 떨어진 인도양가운데 있는 2천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졌다. 그가운데서 사람이 살고있는 섬은 약 220개이다. 섬들의 평균높이는 해발 1.2메터이며 강과 호수는 없다.

열대성기후로서 매우 덥고 습하다.

한해평균기온은 27°C, 한해평균 2,000mm의 비가 내린다.

주민의 대부분이 말디브사람이며 그밖에 인도사람, 말라이사람, 아랍사람 등이 있다.

공용어는 말디브어이나 아랍어, 영어도 쓴다.

정 치

말디브는 1965년 7월 26일 78년간에 걸치는 영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독립을 이룩하였으며 1968년 11월 11일 새 헌법을 채택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말디브는 대내적으로 영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며 어업, 농업 등 민족경제발전에 힘을 넣고있다.

정부는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침해로부터 나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1969년에 령해를 3마일로부터 12마일로 넓혔으며 대외무역에 대한 국가적통제를 실시하였다.

또한 섬주변의 100마일수역을 자기의 어업구역으로 선포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중립, 쁠럭불가담정책을 내세우고있다. 또한 인도양을 평화지대로 만들것을 주장하고있다.

1977년 1월에 말디브는 꾸바와 새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국민의회 일원제, 총의석 48석, 그가운데서 40석은 선거하며 8석은 대통령이 임명, 임기 5년

대통령 아미드 이브라힘 나시르(1968년 11월—) 5년임기로 국민투표에 의해 선거된다.

정부 대통령이 총리를 겸한다.

정당, 사회단체; 공식적인 정당, 사회단체는 없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어업이며 주민의 대부분이 물고기잡이를 한다. 1975년에 3만 7천 500톤의 물고기를 잡았다.

땅이 메마르기때문에 기장을 약간 심는 외에 다른 곡식은 거의 심지 못하며 식량은 사들여온다. 그밖에 야자, 바나나, 코코아, 감귤류 등 열대작물과 남새를 재배하고있다.

1975년에 코코아 8천 390톤, 코프라 1천 420톤을 생산하였다.

가금업도 약간 한다.

운수에서는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일부 섬들에서는 자동차운수의 비중이 높아지고있으나 내륙운수에서는 자전거가 많이 리용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말린물고기와 물고기가루, 물고기통졸임, 코프라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쌀, 밀가루, 사탕, 소금, 천, 황마제품, 일용품 등이다. 물고기제품이 수출의 97%를 차지한다.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생활문화수준이 낮다. 1975년에 초등 및 중등 학교 교원은 60명, 학생은 1천 455명이였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말디브어로 발간되는 일간신문과 방송국이 하나 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0년 6월 14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공화국)

넓이 64만 7,497km²
인구 1,928만명(1975년)
수도 카불(주민 53만 4,000명)

자연 및 주민

아프가니스탄은 서남아세아의 동북쪽에 자리잡고있는 해발 1,000m이상 되는 산악국가이다. 령토의 80%가 산과 높은벌로 되여있다.

기후는 전반적으로 메마르며 비가 적게 온다. 계절과 지역에 따라 기온의 차가 심하다. 카불의 한달평균기온은 7월에 25°C, 1월에 —1°C이며 한해강수량은 350mm이다.

주민은 아프간족(약 50%), 따쥐크족, 우즈베크족, 뚜르크메니야족 등 20여개 민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푸슈트어와 다리어이다. 도시에서는 이란어가 통용된다.

정 치

아프가니스탄은 1919년 5월 27일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하였으며 1973년 7월 17일 봉건군주제도를 뒤집어엎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공화국선포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사회경제적 개혁을 실시할것을 규정한 새 강령에 따라 개인은행들과 보험기관들이 국유화되였으며 토지개혁법령, 교육개혁법령 등 일련의 법령들이 발포되였다.

1977년 2월 13일 대회의 제1차회의에서 공화국의 첫 헌법이 채택되였다.

2월 14일 모함메드 다우드가 대회의에서 채택된 첫 헌법에 따라 대통령으로 선거되였다.

2월 26일 대통령은 1973년 7월 국가정변후 조직되였던 나라의 최고기관인 중앙위원회와 정부를 해산하였다.

아프가니스탄은 대외적으로 적극적인 중립, 쁠럭불가담, 해방운동에 대한 지지, 세계의 모든 평화애호나라들과의 친선협조, 선린관계의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있다.

1977년에 아프가니스탄은 쏘련과 경제적협조를 발전시킬데 관한 협정(4월), 헝그리아와 과학, 기술, 보건, 운수 및 기타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10월)을 각각 맺었으며 3월에는 파키스탄과 두나라 사이의 정기항공운영을 다시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6월에 아프가니스탄은 1973년 3월 이란과 맺은 협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함으로써 헬만드강물 분배를 둘러싸고 세기를 두고 내려오던 분쟁을 끝장냈다.

대회의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 84석, 하원(국민회의) 216석, 임기 4년, 1977년 1월 30일부터 2월 13일까지 제1차회의 진행, 새 헌법을 채택하고 대통령을 선거

대통령 국가 및 정부 수반, 임기 6년, 대통령 모함메드 다우드 한(1973년 7월—, 1977년 2월 14일 새 헌법에 따라 다시 대통령으로 선거됨)

정부 1977년에 새정부 구성, 대통령이 총리, 외교부장을 겸한다. 국방부장 굴람 하이데르 라술리

정당, 사회단체; 민족혁명당 1977년에 창건된 유일당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75%이상이 농업과 축산 부문에서 일한다. 농업은 국민총생산액의 약 50%, 수출총액의 80%를 차지한다. 부침땅은 1천 400만헥타르에 달하나 실지 리용되는 땅은 그 절반밖에 안된다.

주요농작물은 밀, 강냉이, 벼, 목화, 사탕수수, 사탕무우, 과일 등이다.

토지개혁이 실시되고 여러가지 형태의 농업협동조합들이 무어졌다.

1977년말현재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농업협동조합들이 무어졌으며 5천 400여세대가 땅을 받았다.

농업에서 축산업이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축산업은 풀벌을 따라 이동하면서 집짐승을 기르는것이 기본이다. 농업총생산액의 약 절반이 축산업에서 얻어진다.

주요집짐승은 양, 염소, 말, 소, 당나귀, 락타 등이다.

공업은 국민총생산액의 20%에 불과하다. 옥석제품, 주단 등을 생산하는 수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다.

주요지하자원은 금, 은, 철, 아연, 석탄, 대리석, 원유, 천연가스, 돌소금, 류황 등이며 수력자원도 풍부하다.

새로운 민족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방직공장, 과일통졸임공장, 농기구공장, 축산물가공공장, 사탕공장, 세멘트공장, 건재공장, 가죽이김공장, 수력발전소 등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새로 건설되였거나 확장되였다.

아프가니스탄은 1976년부터 사회경제발전 제1차 7개년계획(1976—1983년)을 수행하고있다. 계획기간 공업부문에서는 중공업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많은 힘을 넣는데 특히 원유 및 가스공업과 기타 가공공업발전에 힘을 넣게 된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자동차길은 약 7천 500키로메터이다. 철길은 약 7키로메터정

도박에 안된다. 항공운수가 국내주요도시들을 련결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목화, 자색가죽, 양털, 주단, 과일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여러가지 설비들, 섬유제품, 운수수단, 차, 사탕 등이다. 양가죽과 양털, 목화, 과일은 이 나라 수출총액의 80%를 차지한다. 1976년에 130만장의 양가죽이 수출되였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쏘련, 인도, 영국, 미국, 파키스탄 등이다. 대외무역을 직접 국가가 장악통제하고있다.

화폐단위는 아프가니이다.

기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1975년부터 실시하고있는 교육개혁법령에 따라 1977년초까지의 2년동안에 188개의 농촌학교들과 1천 106개의 초등학교들이 8년제교육으로 넘어갔다. 또한 이 기간에 4개의 중학교가 직업기술학교로 개편되였다.

주민의 95%가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통신 바크타르

신문 카불 타임스, 이슬라, 카라반 데일리, 모사바트, 아니스, 바다크산, 베다르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12월 26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6년 1월 7일에는 우리 나라 항공회사인 《조선민항》과 아프가니스탄 알리아나 아프칸항공회사 사이에 항공봉사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이　란

(이란제국)

넓이 164만 8,000Km²

인구 3,458만 8,100명(1976년 6월)

수도 테헤란(주민 약 500만명)

자연 및 주민

이란은 아세아대륙의 서남쪽 까스삐해와 아랍만사이에 자리잡고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높은벌(평균높이 해발 1,000m)로 되여있다.

기후는 몹시 마른 전형적인 대륙성기후이다. 평균기온(중부높은벌지대)은 제일 높을때 45°C, 제일 낮을때 —20°C이며 한해강수량(까스삐해 벌방지대)은 1,000~1,300mm이다.

주민은 약 절반이 이란사람이며 그밖에 아제르바이잔사람, 쿠르드사람, 아랍사람 등이 있다.

공용어는 이란어이다.

정　치

이란은 1906년에 립헌군주제국가로 되였으며 1935년에 페르샤라고 부르던 나라이름을 이란이라고 고쳤다.

1955년 10월 이란은 《쎈토》에 들어갔으며 1959년 3월에는 미국과 《쌍무군사조약》을 맺었다.

1963년 1월 26일 이란황제는 토지개혁, 선거법제정, 산림 및 목장국유화, 문맹퇴치, 로동자들에 대한 기업리익금의 배당, 행정및교육개편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근대화》를 위한 《백색혁명》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였다.

풍부한 석유자원을 가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오래동안 제국주의자들의 략탈대상으로 되여온 이란은 1970년대에 와서 경제의 《이란화》를 주장하면서 제국주의석유독점체들의 지배와 통제권을 청산하기 위한 투쟁을 벌렸다. 정부는 1973년 3월 제국주의석유독점체들로부터 석유생산의 통제권을 완전히 넘겨받았으며 이해 7월에는 외래독점체들이 관리운영하던 석유공업을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1977년 3월 이란국립은행은 로데시아인종주의도당의 은행 및 재정 기관들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일체 은행사무를 그만두기로 결정하였다.

5월 12일 정부는 50마일어로수역을 설정하였다.

대외적으로 이란은 평등, 호혜, 호상협조, 내정불간섭 및 령토완정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있다. 특히 이 나라는 지역적협조를 강화하고있으며 중동에 핵무기없는 지대를 창설할것을 주장하고있다.

1977년에 이란은 인도와 원자력의 평화적리용에 관한 협조 협정(2월), 알바니아와 물물교환협정(3월),방글라데슈와 경제, 문화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3월), 토이기, 파키스탄과 경제, 기술, 문화 등 분야들에서 협조를 확대할데 대한 협정(5월),뽈스까와 경제협조발전에 관한 협정(8월)을 각각 맺었다.

8월에 황제가 뽈스까와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하였다.

황제 국가수반이며 군총사령관, 국회에서 채택한 법령과 정령을 비준 또는 부결하며 국회를 해산할수 있으며 정부성원들을 임명한다. 황제 모함메드 레자 파흐라비(1941년 9월—)

국회 상하량원제, 임기는 각각 4년, 상원은 60석, 그 가운데서 30석은 선거하며 나머지는 황제가 임명, 국민의원(하원)은 268석

정부 1977년 8월 7일 새 정부 구성, 총리 잠쉬드 아무제가르, 외교부장 아빠스 알리 할라트바

리, 국방부장 레자 아지미

정당, 사회단체; **인민당** 1920년에 공산당으로 창건, 1949년부터 비법화, 제1비서 에스깐다리 이라주, **이란민족부흥당** 1975년 3월 2일에 창건된 유일집권당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75%가 농사한다. 농업생산은 국민소득(원유수입제외)의 약80%를 차지한다. 농업에서 기본은 알곡생산이며 부침땅의 90%에 알곡을 심는다.그 가운데서 70%에는 밀을 심는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벼, 목화, 사탕무우,포도, 차, 대추야자 등이다. 1977년에 2만 9천톤의 차가 생산되였다.

농업에서 축산업이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농업인구의 25%가 이 부문에서 일한다. 축산업에서는 자연먹이에 기초한 이동방목이 위주로 되고있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당나귀, 말, 노새, 락타 등이다. 1975년에 소는 6천 500마리, 양은 3만 5천마리, 염소는 1만 4,000마리정도 있었다.

공업에서 기본은 원유채취와 그 가공공업이다. 원유(가스포함)는 이 나라 예산수입의 약 80%, 외화수입의 약 90%를 차지한다. 1977년에 원유생산량은 2억 9천 480만톤에 달하였다.

이란정부는 생산된 원유를 제때에 가공처리하기 위하여 이미 있는 원유정제공장들을 확장하는 사업과 새로운 원유정제공장들을 건설하는 사업을 벌리고있다. 반다르 사푸르원유화학공업기업소를 비롯하여 이 나라의 서북부와 동북부, 남부와 서부에 새로운 원유정제공장건설이 진행되였다.

원유공업외에 화학, 강철, 기계 등 기간공업부문들과 경공업도 발전하고있다.

중요 공장, 기업소들로서 원유가공, 세멘트, 판유리, 물감, 제약, 방직, 식료, 가죽이김, 양탄자공장 등이 있다. 특히 이란의 양탄자는 오래전부터 잘 알려져있다. 1976년에 이 나라에는 50여개의 주단생산기지가 꾸려져있었다.

운수에서 기본은 철도운수이다. 철길의 총연장길이는 4천 500키로메터이다. 주요수출품은 원유, 양탄자, 목화,과일,가죽,광석 등이며 그 가운데서 원유와 그 제품이 수출총액의 90%를 차지한다. 1975년에 원유수출총액은 11억 7천 377만 7천리알에 달하였다. 주요수입품은 기계 및 기계설비,흑색금속 및 그 제품, 의약품, 화학제품,수송수단, 전기설비 등이다. 수입무역은 기본적으로 자유화방침을 실시하고있다.

화폐단위는 리알이다.

1975—1976학년도에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수는 700만명이상에 달하였다. 이 나라에는 10개의 대학이 있다.

국교는 회교이다.

출판보도; **통신** 이란국제통신, 파르즈통신

신문 라스타키즈(정부기관지), 네다예 이란—노비, 매흐레 이란, 카이한, 테헤란 저널, 카이한 인터내슈널, 에텔라아트, 페이그하메 엠루즈

방송 이란방송, 이란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4월 1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3년 9월에는 우리 나라와 무역및지불협정을 맺었다.

이 라 크

(이라크공화국)

넓이 43만 4,924Km²

인구 1,150만 5,234명(1976년)

수도 바그다드(주민 280만명, 1976년)

자연 및 주민

이라크는 아세아의 서남부 아라비아반도의 북쪽에 자리잡고있다.

기후는 아열대성 및 대륙성 기후로서 여름에는 몹시 덥고 마르며 겨울에는 따뜻하다. 비내리는량은 적으나 겨울에 비가 내리는것이 특징이다. 한해평균기온(바그다드)은 21∼25°C, 한해강수량(바그다드)은 200mm이다.

주민은 75%이상이 아랍사람이며 그밖에 쿠르드사람(20%), 토이기사람 등이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정 치

이라크는 영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1932년에 독립하였으며 1958년 7월 14일 립헌군주제도를 뒤집어엎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8년 7월 17일혁명에 의하여 혁명지도리사회가 새로 창설되였으며 아흐마드 하싼 알 바크르가 대통령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라크에서의 7월 14일혁명 19돐과 7월 17일혁명승리 9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보내신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이라크인민은 이라크공화국 선포후 특히는 7월

17일혁명승리후 대통령각하의 올바른 령도밑에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라의 자주적발전과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있습니다.>

이라크정부는 1975년말까지 이 나라에서 착취와 략탈을 일삼아오던 외래제국주의석유독점회사들을 완전히 국유화하였다.

1976년 12월에는 나라의 물자원을 국유화하고 수산업을 국가의 손안에 넣었다.

이라크정부는 또한 1958년과 1969년 두 차례에 걸쳐 토지개혁법령과 토지개혁수정법을 발포하여 개인토지소유권의 최고한계를 퍽 낮추고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땅을 나누어주었다. 또한 농촌경리의 협동화를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농촌경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힘쓰고있다.

1977년 10월 아랍사회부흥당 제11차민족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총비서로 이 당의 창건자인 미첼 아플라크가, 부총비서로 아흐마드 하싼 알 바크르가 각각 선거되였다.

대외적으로 이라크정부는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와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정책을 견결히 반대하고있으며 쁠럭불가담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있다.

1977년 8월에 이라크는 파푸아 뉴기니아와 새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또한 이라크는 파키스탄과 무역경제및기술협조협정(1월), 나이제리아와 무역협정(2월), 튜니지와 문화협조협정(3월), 말레이시아와 경제및기술협력에 관한 협정(8월)을 각각 맺었으며 소말리아와는 농업, 축산업, 수산업 발전을 위해 련합회사를 창설할데 대한 협정(5월), 민주예멘과는 련합수산회사를 창설할데 대한 협정(11월)등을 맺었다.

1977년 2월에 이라크는 아랍항구동맹헌장에 조인하였다.

혁명지도리사회 1968년 7월에 창설된 국가의 최고지도기관, 리사회는 대통령을 선출한다. 1977년 9월 4일 리사회성원을 15명으로부터 22명으로 늘임, 의장 아흐마드 하싼 알 바크르(1968년 7월—)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이다. 대통령 아흐마드 하싼 알 바크르, 외교부장 사아둔 함마디, 국방부장 아드나네 카이랄라흐 탈파흐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4년 4월 2일 창건, 제1비서 아지즈 무함메드, **아랍사회부흥당**(집권당) 1947년에 창건, 1977년 10월 제11차민족대회 진행, 총비서 아플라크, 부총비서 아흐마드 하싼 알 바크르(현대통령), **쿠르드민주당**, **쿠르드진보당**, **민족진보전선** 1973년 7월에 아랍사회부흥당을 중심으로 조직된 공산당을 포함한 각 정당들의 통일전선체, **로동조합총련맹**, **청년총동맹**, **녀성총동맹**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75%이상이 농사한다. 부침땅은 약 1천 400만헥타르이나 실지 리용되고있는 땅은 약 800만헥타르이다.

주요농작물은 대추야자, 밀, 보리, 벼, 목화, 강냉이, 수수, 담배, 커피 등이다. 대추야자는 세계생산량의 절반, 세계수출량의 80%를 차지한다. 1975년에 40만톤의 대추야자가 생산되였다.

이라크정부는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주들의 땅을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으며 국영농장과 협동조합들을 광범히 조직하고 이 부문에 대한 국가투자를 늘이고있다. 1975년이후부터 북부주들에서만도 150여만도눔의 지주의 땅을 몰수하여 9만 6천여세대의 농사집들에 나누어주었으며 1977년현재 약 2천 200개의 농업협동조합들이 조직되였다. 또한 1976년부터 시작된 경제발전 5개년계획기간 농업발전에 30억이라크디나르가 돌려지게 된다.

축산업도 농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양기르기가 기본이다.

공업에서 기본은 원유채취 및 가공 공업이다. 공업로동자의 3분의 1이 원유공업부문에서 일하며 이 나라 예산총액의 약 60%를 원유수입에서 얻고있다. 탐사된 원유문헌량은 약 38억 9천 800만톤에 달하며 우물당 원유생산량에 있어서 세계에서 두번째자리를 차지한다. 1975년에 원유생산량은 1억 1천 100만톤에 달하였다. 원유가공능력이 늘어나고있다. 1976년현재 7개의 원유가공공장이 있었는데 1977년에 끼르꾸주와 다우라에 4개의 원유가공 및 저장 설비들이 새로 설치되여 조업하였다.

이라크정부는 나라의 공업화의 기초를 쌓기 위하여 원유수출에서 얻은 자금을 여러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을 건설하는데 돌리고있다. 1976—1977회계년도에 정부는 63억이라크디나르의 자금을 민족경제건설에 돌렸으며 식료공장, 세멘트공장, 벽돌공장 등 38개의 공업대상건설을 진행하였다.

정부는 수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산업발전을 위한 5개년계획(1976—1980년)을 작성하고 1977년에 6척의 고기배를 가진 첫 어선대를 무었으며 31대의 자동차로 물고기수송대를 조직하였다.

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하천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의 길이는 1천 915키로메터, 도로의 총연장길이는 1만키로메터정도이다. 1977년에 바스라와 주바이르, 바스라와 나쎄리야흐, 씨에바와 파오 등을 련결하는 총 220여키로메터의 도로건설이 진행되였다. 1977년현재 이라크에는 강하천운수에 리용되는 67척의 배가 있었다. 또한 이 나라 상선대는 총 12만톤이상의 짐을 싣고 먼바다를 드나들수 있는 짐배 14척을 가지고 있었다.

주요수출품은 원유, 대추야자와 그밖에 양털,

가죽, 목화, 세멘트이며 주요수입품은 흑색금속제품, 기계설비, 농기계, 자동차, 의약품, 전기가정용품, 섬유제품, 일용품, 사탕, 밀 등이다.

주요수출대상나라는 중국, 쏘련 및 린접한 아랍나라들이며 주요수입대상나라는 중국, 쏘련, 영국, 일본, 프랑스, 이딸리아 등이다.

1976년에 대외무역의 80%이상을 국가가 장악통제하고있었다.

화페단위는 이라크디나르이다.

민족교육발전에 큰 힘을 넣은 결과 1975—1976학년도에 초등학교수는 7천 602개로, 중등학교수는 1천 221개로 늘어났다. 직업교육에 큰 힘을 넣고있는 정부는 1976—1977학년도에만도 9개의 공업학교와 4개의 상업학교, 1개의 농업학교를 새로 창설하였다.

또한 이라크정부는 1974년에 문맹퇴치법을 발포하고 1976년부터 전문교육기관들을 동원하여 문맹퇴치운동을 벌리고있다.

보건부문에서 특히 농촌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사업이 개선되고있다. 1976년초현재 농촌에 약 1천 200개의 진료소와 300개이상의 종합진료소, 약 100개의 약국이 건설되였다.

주민의 90%가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이라크통신

신문 알 사우라(정부기관지), 알 따아키, 따리끄 앗 샤아브, 알 줌후리아, 바그다드 옵써버, 알 라쉬드, 알 무하리브, 하우카리

방송 이라크방송, 바그다드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1월 30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9년 7월에는 우리 나라와 통상및지불에 관한 협정과 문화협정, 1971년 4월에는 우편물교환에 관한 협정과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1969년 7월 6일에는 이라크조선친선협회가, 1976년 6월 24일에는 조선통일지지이라크전국위원회가 각각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이라크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친서를 1977년 1월 16일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 단장이 정중히 전달하였다.

1977년에 이라크 군대대표단(5월), 정부문화대표단(6월), 아동문화일군대표단(6월), 청년총동맹대표단(8월)등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또한 9월에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아랍사회부흥당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이해에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1월), 조선로동당대표단(4월, 11월), 농근맹대표단(5월), 정부무역대표단(9월), 레스링선수단(10월)등이 이라크를 방문하였다.

수 리 아

(수리아아랍공화국)

넓이 18만 5,180Km²
인구 870만 5,330명(1976년말)
수도 디마스끄(주민 93만 6,567명, 1975년말)

자연 및 주민

수리아는 아세아의 서부, 지중해기슭에 자리잡고 토이기,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등과 국경을 같이하고있다.

기후는 지중해성기후로서 겨울에 비가 오며 여름에는 마르고 더운 날씨가 계속된다. 한해평균기온(서쪽바다가)은 18°C이며 한해강수량은 600∼1,000mm이다.

주민은 대부분이 아랍족인 수리아사람이며 소수민족으로서 쿠르드족, 아르메니야족, 아씨리아족, 베드윈족 등이 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정 치

수리아인민은 외래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1946년 4월 17일 독립을 이룩하였으며 1961년 9월 29일 수리아아랍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3년 3월 8일에는 아랍사회부흥당을 중심으로 한 군부세력이 혁명을 일으키고 정권을 잡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수리아혁명절에 즈음하여 대통령 하페즈 알 아싸드에게 보내신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승리후 수리아인민은 아랍사회부흥당의 령도밑에 제국주의자들과 유태복고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을 물리치고 민족적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며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왔습니다.》

수리아정부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인민방위최고위원회를 창설하고 제국주의자들에게 대처할수 있게 근로자들에게 무기를 나누어주고 그들을 훈련시키였다. 수리아인민은 미제의 부추김밑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무력침공을 할 때마다 이에 즉시 반격을 가하군 하였으며 나라의 독립과 민족적존엄을 영예롭게 지켜냈다.

1970년 11월 13일 시정조치후 수리아인민은 하페즈 알 아싸드대통령의 령도밑에 민족적단합을 강화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경제분야에서 정부는 국영부문의 비중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국가투자를 늘이고있으며 국가계획위원회를 창설하고 통일적인 계획밑에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운영하고있다.

또한 수리아정부는 공장들을 여러지방에 골고루 배치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농업분야에서도 정부는 토지개혁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농촌에서 협동화를 적극 밀고나가며 국가투자를 늘이는 등 농업을 추켜세우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고있다.

1976년 7월에 정부는 농업발전을 위한 특별리사회를 내오고 이 특별리사회가 농업생산과 관련한 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장악통제하도록 하였다. 1977년 9월에는 농업및토지개혁부밑에 농업의 기계화와 관련되는 모든 문제들을 맡아보는 농업기계화총국을 새로 내왔다.

1977년 8월 1일과 2일에 걸쳐 인민회의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에서는 민족진보전선이 195석 가운데서 162석을 차지하였다.

수리아는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으로서 대외적으로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 식민주의, 유태복고주의를 반대하며 아랍의 공동위업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다.

1977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수단의 수도 하르툼에서 수리아대통령 하페즈 알 아싸드, 애급대통령 무함마드 안워르 앗 사다트, 수단대통령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가 수뇌자회의를 진행하고 련합정치지도부를 조직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1977년에 수리아는 꽁고와 새로 대사급 외교관계(2월)를 맺었으며 애급(1월), 튜니지(5월)와 각각 무역협정을 맺었다.

1977년에 대통령이 로므니아(2월), 쏘련(4월)을 각각 방문하였다.

인민회의 일원제, 총의석 195석, 임기 4년, 1977년 8월에 총선거 진행, 선거결과 민족진보전선 162석(그 가운데서 아랍사회부흥당 128석, 통일사회당 12석, 공산당 6석, 수리아아랍사회주의동맹 8석, 아랍사회당 8석), 무소속 33석 차지

대통령 하페즈 알 아싸드(1971년 3월—), 국가수반, 1973년 3월에 채택된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은 군총사령관, 아랍사회부흥당 총비서, 민족진보전선위원장을 겸하며 부대통령, 총리 및 정부성원들을 임명 또는 해임시킬 권리를 가진다.

정부 1976년 8월 7일 구성, 총리 아브둘 라흐만 클레이파위, 외교부장 아브델 할림 하담, 국방부장 무스타파 틀라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4년에 수리아—레바논공산당으로 창건, 1958년 11월에 각각 갈라짐, 1972년에 처음으로 합법화됨, **아랍사회부흥당**(집권당), **수리아아랍사회주의동맹**, **통일사회당**, **아랍사회당**, **민족진보전선** 1972년 3월 7일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을 련합하여 결성, **근로자로동조합련맹**, **혁명청년동맹**, **녀성동맹**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로동인구의 약 75%가 이 부문에서, 일한다. 부침땅은 600여만헥타르이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목화이며 그밖에 수수, 강냉이, 담배, 콩류, 올리브, 포도 등이다. 주요 농업지대는 할라브벌이며 여기에서 이 나라 밀생산량의 3분의 1, 보리 및 목화 생산량의 40%이상을 생산하고있다.

1975—1976농업년도에 15만 8천톤의 목화가 생산되였다.

수리아정부는 농업발전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농촌에서 토지개혁사업과 함께 농업협동조합들을 뭇는 사업을 계속 힘있게 내밀었다. 그러하여 지난 10년동안에 150여만헥타르의 대봉건령주들과 지주놈들의 토지가 몰수되였다. 12만세대의 농민들이 땅을 받았다. 1977년현재 수천개의 농업협동조합들이 무어졌다.

공업은 국민소득의 19%, 수출총액의 20%를 차지하며 로동인구의 10%가 이 부문에서 일한다. 공업부문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원유채취및가공, 방직 공업이며 이것은 공업총생산액의 60%를 차지한다.

민족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새로 건설되였으며 기계제작공업, 원유화학공업, 전력공업 등 중공업부문들이 창설되였다.

1975년에 공업총생산액에서 국영부문이 차지하는 몫은 98%에 달하였다. 전력 생산과 공급, 주요 유용광물의 채취, 철도운수는 완전히 국가가 틀어쥐고있다.

정부는 1976년부터 수행하고있는 제4차5개년계획(1976—1980년)기간에도 국영부문을 더욱 강화할것을 계획하고 총투자액의 80%이상을 국영부문에 돌리고있다.

1977년에 원유는 1천 120만톤, 전력은 16억키로와트시 생산되였다. 또한 이해에 디마스끄남쪽에 있는 45만키로와트생산능력을 가진 발전소가 복구되여 새로 조업하였으며 하마철강회사에서 자체의 기술과 자금으로 변전소를 건설하였다. 라타니야시 가까이에 225만톤능력의 세멘트공장건설이 시작되였다. 또한 한해동안에 50만벌의 옷을 생산할수 있는 수리아에서의 첫 국영옷공장이 새로 건설되였다.

운수는 국민소득에서 약 10%를 차지하며 철도운수와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대외무역에서는 해상운수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해상운수를 발

전시키기 위하여 1975년에 상선대를 새로 내왔다.

대외무역은 국민소득에서 17%를 차지하며 국영상사들이 지배적역할을 한다. 국영상사들이 1975년에 수출에서 87.8%, 수입에서 72.6%를 차지하였다.

주요수출품은 목화, 밀, 보리, 양털, 가축, 원유와 원유제품, 과일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금속제품, 기계설비, 화학제품 등과 인민소비품이다.

수입에서는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계및설비, 원료자재에 우선권을 주고 사치품의 수입은 제한하고있다.

주요수출대상나라는 중국, 쏘련, 로므니아, 레바논, 이딸리아, 프랑스 등이며 주요수입대상나라는 쏘련, 이딸리아, 프랑스, 서부독일 등이다.

화폐단위는 수리아파운드이다.

민족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에 의하여 1945～1975년기간에 초등학교수는 1천여개로부터 6만 7천개이상으로, 중등학교수는 64개로부터 1천여개로 늘어났으며 이 기간 학생수는 14만명으로부터 120만명으로, 1만 1천명으로부터 43만명으로 각각 늘어났다. 그리하여 1977년현재 학교갈 나이의 어린이들의 84%가 학교에서 배우고있다.

디마스끄종합대학을 비롯하여 여러개의 대학들이 있다.

또한 여러가지 기술을 전공하는 50여개의 기술및 직업 학교와 90여개의 전문학교들이 있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모든 교원은 수리아사람들이며 대학들도 대부분 수리아교원들에 의하여 운영되고있다.

주민의 85%가 회교도이며 12%가 기독교도이다.

출판보도; 통신 수리아아랍통신

신문 알 바아스(아랍사회부흥당기관지), 알 사우라, 알피다, 니달 알 팔라힌

방송 수리아방송, 수리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6년 7월 2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5년 10월 4일에는 무역및지불에 관한 협정, 1966년 6월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1970년 3월 28일에는 수리아아랍지역조선친선협회가, 1976년 6월 1일에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수리아련대성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4년 10월 1일 수리아아랍공화국의 최고훈장인 《대우마이예훈장》을 수여받으시였다.

1974년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수리아아랍공화국대통령 하페즈 알 아싸드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웅칭호를 받았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1977년 4월 11일 알레포종합대학에서 교직원 학생들이 경축집회를 가졌으며 4월 4일 디마스끄종합대학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가 있었다.

2월 21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성원하는 수리아련대성위원회는 1월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채택된 편지를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알레포도에서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가 진행되였으며 디마스끄에서는 문화및민족지도부의 주최로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와 영화감상회가, 다르아시에서는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가 각각 진행되였다.

1977년에 수리아아랍친선대표단(4월), 아랍사회부흥당대표단(6월), 변호사협회대표단(6월), 바아스소년선봉대지도일군대표단(8월), 혁명청년동맹대표단(9월)등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또한 9월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교육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이해에 우리 나라로부터는 조선로동당대표단(2월), 농근맹대표단(11월), 조선학생위원회대표단(3월), 영화대표단(7월) 등이 수리아를 방문하였다.

레 바 논

(레바논공화국)

넓이 1만 400km²
인구 287만명 (1975년)
수도 바이루트 (주민 80만명)

자연 및 주민

지중해의 동쪽기슭에 자리잡고있으며 령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되여있다.

기후는 지중해성기후의 특성을 가지고있어 여름에 무덥지 않으며 겨울에도 따뜻하다. 그러나 약 3,000m에 달하는 산줄기의 산봉우리들은 일년내내 눈에 덮여있다.

평균기온은 1월에 13°C, 7월에 28°C이며 한해강수량은 90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사람들이며 그밖에 아르메니야사람, 희랍사람, 토이기사람 등이 있다. 또한

약 40만명의 팔레스티나사람들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나 프랑스어도 많이 쓴다.

정 치

레바논인민들은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1943년 11월 22일 독립을 이룩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레바논에서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이 쫓겨난후 레바논인민은 《원조》를 미끼로 자기 나라에 대한 침략과 간섭 책동을 벌려온 미제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중근동전쟁을 일으켰을 때마다 레바논 정부와 인민은 아랍인민의 편에 서서 싸웠다.

1975년 4월부터 1976년 11월까지 레바논에서는 기독교도와 회교도사이에 국내전쟁이 진행되였다.

국내전쟁이 끝난후 레바논 정부는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1977년 1월 8일에 열린 내각회의는 나라의 정세를 토의하고 경제, 재정, 사회 문제들과 관련되는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에는 살림집건설을 위한 은행을 내오며 국영은행의 권한을 넓히는 문제들이 들어있다.

또한 정부는 1976년 12월 24일 채택된 《특별권한법》에 기초하여 민족내부의 불화와 분렬을 가시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서 나라의 리익을 해칠수있는 글들과 자료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1월 1일 신문들과 기타 출판물들에 대한 검열제를 실시할데 대한 정령을 발표하였다. 그리하여 1월 3일부터 정부는 보도기관들의 모든 출판보도물에 대한 엄격한 사전검열을 실시하였다.

정부는 또한 새로운 4만명의 정규무력을 창설할데 대한 계획을 토의하였다.

그러나 레바논에서는 국내전쟁이 끝난후에도 정세가 의연히 긴장되여 왔다.

미제의 부추김밑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은 1977년초부터 남부레바논에서 막대한 량의 물질적 및 군사적원조를 주어 우파기독교도부대들로 하여금 팔레스티나—좌파동맹군 (팔레스티나유격대, 회교도 및 좌파련합군)진지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케함으로써 레바논에서 민족적 불화와 분렬을 또다시 조장시켰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비행기,포의 엄호밑에 우파기독교도부대들은 9월 16일부터 팔레스티나—좌파동맹군에 대한 전례없는 공세를 취하였으며 9월 20일에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직접 남부레바논령토에 침입하였다. 9월 26일 정화협정에 의하여 전투가 끝났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정화협정위반행위를 물리치고 레바논인민들은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켜냈다.

국회 일원제, 총의석 99석, 임기 4년, 국회의석은 종교단체 대표비률의 원칙에 따라 배정된다. 1972년 4월의 선거에서 마론파기독교도가 30석, 순니파회교도가 20석, 시아파회교도가 19석, 희랍정교도가 11석, 나머지는 기타 교파들이 각각 차지, 1976년 1월현국회의 임기를 1년동안 연장하기로 결정

대통령 국가수반으로는 마론교도 (기독교일파)만이 선출된다. 임기는 6년, 대통령 알야스 사르키스(1976년 9월 23일—)

정부 1976년 12월 새 정부 구성, 총리 셀림 알 호스, 외교부장 겸 국방부장 푸아드 부트로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4년에 수리아—레바논공산당으로 창건, 1944년에 독자적인 당으로 됨, 총비서 니꼴라이 샤우이, **사회진보당** 1948년에 창건, 주로 회교도들을 망라하고있으며 소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 위원장 카말 쥼블라트가 1977년 3월 살해되고 4월 30일 그의 아들 왈리드 쥼블라트가 위원장으로 선거됨, **팔랑헤당, 아랍사회부흥당, 국민자유당, 국민블럭, 인민사회당, 아랍사회주의로동당, 아랍로동자청년당, 통일로조련맹, 근로자총련맹, 로동자사무원로조전국련맹, 민주청년동맹**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무역, 금융, 관광업이다. 무역에 의한 소득은 이 나라 국민소득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무역에서는 중계무역이 큰 몫을 차지하며 이 나라 수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주요중계무역품은 천류, 광물성연료, 기계설비 등이다.

바이루트는 중근동에서 하나의 《재정금융중심지》로서 국제적인 금융 및 상품 거래가 널리 진행되고있다. 그러므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바이루트에 은행지점들을 두고있다. 1977년 1월 17일부터 국내전쟁시기에 문을 닫았던 모든 은행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다.

관광업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국민소득의 20%정도를 차지한다.

주민의 약 절반이 농사하며 국민소득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몫은 약 20%정도이다. 부침땅은 약 30만헥타르이며 그의 절반이상을 대지주들이 가지고있다.

주요농작물은 귤, 포도, 올리브, 사과, 바나나, 레몬 등 과일과 남새이다. 농산물생산에서 과일이 60%, 남새가 20%를 차지한다. 그밖에 밀, 보리, 강냉이 등 알곡작물도 심고있으나 식량수요의 70~80%는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공업은 국민소득의 약 15%를 차지하며 농산물가공공업이 기본이다.

가공공업에서는 농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료품, 섬유, 피복 및 가죽가공 공업이 기본이다. 그밖에 금속공장들과 건재공장, 원유가공공장, 세멘트공

장 등이 있다. 대부분이 중소규모 공장들이다. 철광석, 피치, 갈탄 및 원유가 약간 생산되나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은 약 670키로메터정도이며 주요항구는 바이루트항, 뜨리뽈리항이다. 바이루트항은 복구되여 1977년말현재 전쟁전 능력의 50%에서 운영되고 있다.

주요수출품은 귤, 사과, 바나나 등 과일과 남새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식료품, 원유 및 원유제품, 설비품 등이다.

화폐단위는 레바논파운드이다.

1977년초현재 약 50만명이 일자리를 잃고있었다.

주민의 60%는 회교도이고 40%는 기독교도이다. 이 두 교파는 여러갈래의 파로 갈라져있다.

출판보도; **신문** 알 안와르, 안 나다, 알 무하리르, 알 욤, 알 사아브, 알 발랴그, 싸우툴 오루바, 앗두니야, 알 리와, 알 안바, 리싼할, 알 샤르끄, 알 줌후리예

방송 레바논방송, 레바논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9월 15일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1968년 12월에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바이루트에 설치되였다.

1976년 9월 2일 조선통일지지레바논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 존경하고있는 레바논인민들은 《김일성주의연구레바논위원회》, 《김일성주의연구레바논인테리위원회》, 《김일성주의연구레바논녀성소조》, 《김일성주의로작번역및출판위원회》 등을 묶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깊이 연구하고있다.

1977년 7월 24일 사이다시에 《김일성주의연구레바논위원회》와 남부지구 사이다시과학및문화협회의 공동주최로 《김일성도서관》이 개관되였다.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바이루트에서 주체사상에 관한 레바논전국토론회가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모든것을 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를 발표하신 기념일에 즈음하여 사이다시에서 《김일성주의연구레바논위원회》 중앙위원회산하 사이다《김일성주의연구레바논위원회》와 남부지구 사이다시 과학및문화협회 행정위원회의 주최로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전람회가 6월 12일에 열렸다. 7월 23일에는 비까주 발바크시에서 《김일성주의연구레바논위원회》와 비까주 발바크청년구락부의 공동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전시회 및 사진전람회가 열렸다.

1월 우리 나라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채택된 남조선 제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지지하여 조선통일지지레바논위원회, 레바논 《김일성동지혁명사상연구위원회》 성원들이 2월 5일에 회의와 모임을 열고 남조선 제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각각 채택하였다.

8월 17일 바이루트에서 진행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조선통일지지레바논위원회 및 레바논조선친선협회 련합확대회의에서는 남조선의 제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남조선으로부터 모든 미군과 작전장비를 무조건 즉시 철수시키며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를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는 성명이 채택되였다.

공화국창건 29돐에 즈음하여 8월 20일 뜨리뽈리시에서 우리 나라 도서 및 사진전람회가 열렸다.

전람회개막식에서는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거를 요구하는 성명이 채택되였다.

1977년 9월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김일성주의연구레바논위원회》 대표단, 《김일성주의로작번역및출판위원회》부위원장이 참가하였다.

요 르 단

(하쉐미트요르단왕국)

넓이 9만 7,740km²
인구 약 275만명 (1976년)
수도 암만 (주민 85만명, 1977년 1월 1일)

자연 및 주민

요르단은 아라비아반도의 서쪽에 자리잡고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사막, 반사막, 산지이다.

기후는 아열대성기후로서 여름은 덥고 메마르며 겨울은 따뜻하다. 8월의 평균기온은 30°C, 1월의 평균기온은 2°C이며 한해강수량(서부지역)은 600～800mm(사막지대는 100mm미만)이다. 1977년 7월 요르단에 보기드문 열풍이 들이닥쳐 암만에서는 기온이 47°C, 아카바에서는 52°C에 달하였다.

주민은 아랍족이 기본이며 그밖에 쿠르드족, 치르카스족, 아르메니야족 등이 있다. 또한 85만명의 팔레스티나사람들이 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정　치

요르단은 1946년 5월 25일 영제국주의자들의 《위임통치》로부터 독립하였으며 1949년 3월 팔레스티나전쟁후 아랍측에 남은 팔레스티나동부지구를 통합하여 하쉐미트요르단왕국을 선포하였다.

1967년 이스라엘침략자들이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일으키자 요르단은 이스라엘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이 전쟁에서 요르단은 요르단강 서쪽의 5천 600평방키로메터에 달하는 땅을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강점당하였다.

1975년에 요르단정부는 팔레스티나유격대가 요르단군의 통제밑에서 자기 나라에 주둔하는것을 허용하였다.

1977년 3월 요르단은 팔레스티나대표단과 암만에서 회담하고 발표한 공보에서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이 팔레스티나인민의 유일한 합법적대표라는것을 확인하였다.

5월 25일 독립기념일에 즈음하여 한 텔레비죤방송연설에서 후쎄인왕은 중근동에서의 평화는 이스라엘이 강점한 아랍령토에서 완전히 물러가고 팔레스티나인민이 자기 땅에서 자기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행사할 때에만 이루어질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8월에 후쎄인왕은 한 주간지기자와의 회견에서 이스라엘이 중근동의 정세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환시키려고 책동하고있는데 대하여 경고하고 아랍세계는 이에 대처할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총리》 베긴놈이 내놓은 《평화방안》을 《이미 알려진 이스라엘 우두머리놈들의 극단주의적립장의 확인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1977년에 요르단은 민주예멘 (3월), 중국 (4월)과 새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또한 후쎄인왕이 애급 (1월, 7월), 수리아(2월), 쿠웨이트 (7월), 바레인 (7월), 까타르 (7월), 아랍추장국 (7월) 등 나라들을 각각 방문하였다.

국왕 아미르 아브달라흐 후쎄인 1세 (1952년—), 국가수반으로서 총리를 임명하며 법령을 비준하고 국회를 소집 또는 해산할수 있다. 3군총사령관을 겸하며 군대의 통수권을 쥐고있다.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 30명, 임기 4년, 국왕이 임명하며 2년마다 절반씩 다시 임명한다. 하원의원 60명, 임기 4년, 1967년 국회선거 진행, 1971년에 임기를 3년간 연장, 1974년에 라바트수뇌자회의의 결의에 따라 팔레스티나해방조직에 요르단강서안에 대한 관할권을 넘겨주기 위한 준비로 국왕이 국회를 해산하였다.

정부 1976년 7월 13일 구성, 총리 무다르 바드란 (외교부장, 국방부장 겸임)

정당, 사회단체; 1957년 4월부터 모든 정당, 사회단체의 활동이 금지됨, **공산당** 1943년에 창건, 1951년까지 민족해방련맹이라고 부름, 제1비서 파에크 와라드, **아랍사회부흥당**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목축업이며 주민의 83%가 농사한다. 부침땅은 전령토의 10분의 1정도이며 주로 요르단강골짜기에 집중되여있다. 그 가운데서 관개된 땅은 1%에 불과하다. 토지의 대부분은 왕족, 지주, 족장들이 가지고있으며 땅없는 농민이 40%나 된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콩, 올리브, 바나나, 포도, 귤 등이다. 1975년에 밀은 1만 1천 800톤, 바나나는 630톤, 귤은 1천 280톤 생산되였다.

주민들은 양, 염소, 소, 당나귀, 락타 등 풀먹는 집짐승을 기르며 그들은 풀밭을 따라 떠돌아다니며 생활한다. 1975년에 125만 3천 400마리의 양과 염소가 있었다.

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카리염과 린회석 채굴, 대리석채취와 가공, 세멘트생산 등이다. 이밖에 원유가공과 식료 및 일용 공업 등이 있다. 원유가공은 사우디 아라비아로부터 이 나라를 통해 레바논에 들어가는 송유관의 원유통과값으로 약간의 원유를 받아 정제하는 정도이다. 공업기업소의 대부분은 작은 규모의 수공업기업소들이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와 철도운수가 기본이다.

수리아와 이라크를 련결하는 자동차길 (9천키로메터)과 수리아와 사우디 아라비아를 련결하는 한줄기의 철길 (329키로메터)이 있다.

주요수출품은 린회석, 축산물, 남새, 과일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료품, 섬유원료, 기계류, 흑색금속제품 등이다.

아랍나라들에 대한 수출이 수출총액의 약 70%를 차지한다.

화폐단위는 요르단디나르이다.

1976년에 초등 및 중등 학교수는 2천여개에 달하였다.

주민의 80%이상이 회교도이며 기독교도가 8%를 차지한다.

출판보도; **신문** 오피셜 가제트, 알 라이, 알 사바, 알 두스투르, 아흐바르 알 우쑤부오, 요르단타임스, 알 디파아, 알 요르단, 후나 암만, 알 쐑하피

방송 하쉐미트요르단방송, 요르단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7월 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6년 9월 9일에는 조선인민과의 친선및련대성 요르단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7년 9월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요르단주간지 《알 쌰하피》 사장겸 주필이 참가하여 토론하였다.

이 스 라 엘

넓이 2만 700km² (1949년 아랍국가들과의 정전선에 의한것, 1947년 팔레스티나분할에 관한 유엔결정에 의하면 1만 4, 000km²)
인구 357만 3, 000명 (1977년 1월)
수도 텔 아비브 (주민 38만 5, 000명)

자연 및 주민

이스라엘은 지중해의 동쪽기슭에 자리잡고있다.

기후는 여름에 몹시 덥고 메마르며 겨울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지중해성기후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역적차이가 심하다.

1977년 8월 24일 꾸드스의 기온은 40°C까지 올라갔으며 심한 열파에 시달렸다.

주민은 대부분이 유태사람이며 그밖에 아랍사람들이 있다.

공용어는 헤브라이어이나 아랍사람들은 아랍어를 쓴다.

정 치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미영제국주의자들이 유태복고주의자들의 반아랍감정과 침략적야욕을 리용하여 제놈들의 중근동침략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팔레스티나를 분할하여 조작한 나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중동위기는 유태복고주의자들을 〈돌격대〉로 내세워 아랍인민들속에서 앙양되고있는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압살하며 이 지역을 자기들의 예속밑에 넣으려는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의하여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오늘까지 해결되지 않고있고 중근동정세가 계속 긴장되여있는것도 전적으로 이스라엘침략자들과 그를 조종하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의 파렴치한 침략책동에 기인합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144페지)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생겨난 첫날부터 미제의 부추김밑에 제놈들의 령토적야망을 실현하려고 날뛰면서 아랍인민을 반대하는 침략과 도발책동을 일삼아왔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이스라엘국가》가 조작된 다음날인 1948년 5월 15일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전쟁》을 일으켰으며 약 6천 700평방키로메터에 달하는 아랍땅을 강점하였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은 더욱더 넓은 령토를 강탈하려는 목적밑에 1967년 6월 5일 미제의 부추김밑에 또다시 새 전쟁을 일으켰으며 애급의 시나이반도, 수리아의 골란고지, 요르단강서쪽지역 등 6만평방키로메터의 아랍땅을 비법적으로 강점하였다. 그후 이스라엘침략자들은 비법적으로 강점한 아랍땅을 계속 거머쥐기 위하여 오만무례하게 책동하였으며 1973년 10월에는 아랍나라들을 반대하는 전면적인 침략을 감행하여 제4차중근동전쟁을 일으켰다.

제4차 중근동전쟁후에도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침략야망을 의연히 버리지 않고 비법적으로 강점한 아랍땅을 영구히 병탄하며 나아가서는 새로운 령토팽창야망을 이루어보려고 아랍나라들과 팔레스티나인민들을 반대하는 침략과 군사적도발 책동을 일삼고있다.

강점한 아랍땅을 영원히 이스라엘에 병탄하려고 발광하고있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은 1976년 6월 중근동전쟁이후 10년동안에 시나이반도와 요르단강서쪽지역을 비롯한 강점지역 여러곳에 76개의 이스라엘 《정착촌》들을 만들어놓았으며 가까운년간에 27개의 《정착촌》들을 더 꾸리기 위해 1977년에만도 1976년보다 12.5%나 더 많은 2억 4천이스라엘파운드를 지출하였다.

1977년 7월 26일 이스라엘반동정권은 제놈들이 강점한 요르단강서쪽에 비법적으로 조작한 3개의 유태인 《〈정착촌〉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또한 베긴도당은 아랍강점지역에로 이주하는 유태인들에게 《특별보조금》을 주며 세금을 면제시키는 등 《특별우대조치》를 실시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베긴도당은 1977년 8월 17일 제놈들의 강점밑에 있는 요르단강서쪽지역에 3개의 이스라엘 《정착촌》을 더 건설하기로 하였으며 10월 2일에는 극악한 인종주의단체인 《구쉬 에무님》의 약 30세대로 무어진 한 집단을 요르단강서쪽지역의 군사기지에 《정착》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은 1977년에 미제의 적극적인 지원밑에 군비를 대대적으로 확장하고 침략전쟁준비에 더욱더 박차를 가하였다. 1973년 제4차중근동전쟁이후에만도 미제는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70억딸라에 달하는 막대한 군사경제 《원조》를 주었으며 1977회계년도에는 또다시 약 20억딸라의

《원조》를 주었다.

또한 미제는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현대적살인무기들과 군사장비들을 계속 넘겨주고있다. 이리하여 이스라엘침략자들은 제4차중근동전쟁이후 땅크와 비행기수는 50%, 군함은 55%, 자동포는 100%, 장갑수송차는 1000%로 각각 늘였다.

이스라엘침략자들은 바로 미제의 강화되는 뒤받침에서 힘을 얻어 제놈들의 더러운 팽창야망을 이루어보려고 군비경쟁을 더욱 강화하고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반동들의 직접적군사비는 예산의 51%를 차지하며 여기에 간접적군사비까지 합치면 그것은 무려 예산의 59.6%에 달하고있다.

이스라엘반동정부의 이러한 침략적이며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며 생활처지의 개선을 요구하여 1977년에도 이스라엘근로자들은 파업투쟁을 세차게 벌렸다.

2월 한달동안에만도 임금을 올리며 로동조건을 개선할것을 요구하여 20만명이상의 로동자들이 파업투쟁에 참가하였다. 또한 7월 21일에는 약 5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생활처지의 개선을 요구하여 파업투쟁을 벌렸다.

강점지역인 요르단강서쪽의 라말라호시를 비롯하여 나블루스, 헤브론 등 여러 도시들에서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의 영구강점책동과 탄압만행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이 전개되였다. 이 지역 인민들의 투쟁은 평화적인 시위투쟁의 범위를 벗어나 폭동적인 성격을 띠면서 더욱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으로 진행되였다.

1977년에 이스라엘침략자들은 대내적으로 군사화를 더욱 다그치면서 대외적으로는 아랍나라들에 대한 군사적침략과 도발책동을 더욱 로골화하였다. 특히 이스라엘침략자들은 남부레바논에 대한 군사적도발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였으며 9월 20일에는 장갑차, 포병 부대를 비롯한 기동부대들을 동원하여 남부레바논에 대한 대규모의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또한 이스라엘침략자들은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과의 군사경제적결탁을 더욱 강화하였다. 놈들은 《이스라엘은 남아프리카를 포기하지 않을것》이라고 떠벌이면서 1976년에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과의 무역총액을 1961년에 비하여 40배나 늘였다. 또한 보스터인종주의도당은 1977년에 이스라엘의 군수공업부문에 3천 200만란드를 투자하였다. 이리하여 놈들은 살인무기와 전략원료들을 서로 제공해주고있다.

1977년 5월에 이스라엘은 뽀르뚜갈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7년에 이스라엘 《총리》 베긴이란놈이 미국(7월, 11월)과 애급 (12월)을 행각하였다.

또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애급대통령 무함마드 안워르 앗 사다트가 이스라엘을 방문하였다.

10월 28일 유엔총회 제32차회의에서 이스라엘침략자들이 강점한 아랍령토에 유태인 《정착촌》을 건설하는것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였다.

국회 일원제, 총의석 120석, 임기 4년, 1977년 5월 17일 총선거 진행, 선거결과 리쿠드당 (우파련합) 43석, 레이버당 32석, 국가종교당 12석, 정통종교당 5석, 독립자유당 1석 등을 각각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으로서 임기는 5년, 국회에서 선출된다. 대통령 에프라힘 카쯔이르 (1973년 5월—)

정부 1977년 6월 19일 리쿠드당, 국가종교당, 정통종교당의 련립정부 구성, 총리 메나헴 베긴, 외교부장 모쉐 다얀, 국방부장 에제르 웨이즈만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 팔레스티나공산당으로 창건, 1948년 5월 이스라엘공산당으로 이름을 고침, 총비서 메이르 윌네르, **리쿠드당** (우파련합), **레이버당**, **국가종교당**, **정통종교당**, **독립자유당**, **통일로동당**, **전국로동총련맹**, **공산주의청년동맹**, **민주녀성련맹**

경제, 사회문화

경제는 외국자본 특히 미제독점자본에 얽매여있다. 외국자본투자액가운데서 미제독점자본이 70%를 차지한다.

공업은 군수산업일면에 치우쳐있다. 군수공업분야에서 약 6만 2천명이 일하고있으며 련접분야까지 포함하면 약 30만명에 달한다. 경제의 군사화는 군수생산의 기형적장성과 공업생산의 심한 침체를 가져오고있다.

군수공업을 내놓고 주로 수출을 목적으로 한 린비료, 면방직, 다이야, 세멘트, 종이, 자동차조립, 금강석연마, 광학유리, 정밀기계, 석유가공, 식료가공 공장 등이 있다.

농업은 수출용 열대과일재배에 치우쳐있으며 주민의 약 18%가 이 부문에서 일한다. 부침땅은 42만헥타르이며 그 가운데서 관개된 땅은 17만헥타르밖에 안된다.

주요농작물은 귤, 포도, 레몬, 올리브 등 열대과일과 밀, 보리, 강냉이, 사탕무우, 담배 등이다. 식량은 수요의 절반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철길은 좁은 철길 (762키로메터)로서 주요항구들과 련결되여 있다. 주요항구는 텔아비브와 하이파이다.

주요수출품은 연마한 금강석, 다이야, 감귤류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연마하지 않은 금강석, 식량, 흑색압연제품, 화학제품, 원유제품, 수송설비 및 전기설비 등이다.

막대한 군사비로 이스라엘에서 경제형편은 더욱 악화되고있다. 1976년에 이스라엘은 5억 5천 500만딸라의 예산적자를 냈다.

대외무역적자는 무려 35억딸라에 달하였다. 특히 이스라엘이 외국에 진 빚은 107억딸라에 달함으로써 인구 1인당 외국에 진 빚은 평균 3천여딸라에 이르렀다. 1976년에 통화팽창률과 소매물

가지수는 40%이상 뛰여올랐다. 세대당 최저생활비지출은 1968년의 910이스라엘파운드로부터 1975년에는 무려 3천 870이스라엘파운드로 뛰여올랐다.

1976년에 실업률은 5%에 달하였다.

주민의 대부분이 유태교를 믿는다.

출판보도;통신 이스라엘통신(아이엔아이), 이스라엘련합통신(아이티아이엠)

신문 률 하암 (공산당기관지), 하포엘 하트자이르(레이버당기관지), 알 하미쉬마르 (통일로동당기관지), 다바르 (전국로동총련맹기관지)

방송 률 이스라엘방송, 중앙텔레비죤방송

사우디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왕국)

넓이 214만 9,690km²

인구 896만 6,000명 (1975년)

수도 리야드 (주민 66만 7,000명, 정부소재지)
메카 (주민 36만 7,000명, 회교성지)

자연 및 주민

사우디 아라비아는 아라비아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으며 북동쪽은 아랍만, 서쪽은 홍해에 면해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사막과 반사막으로 되여있다.

기후는 몹시 마르며 북쪽은 아열대성, 남쪽은 열대성 기후에 속한다. 대부분지역은 여름에 덥고 겨울에 따뜻하다. 한해강수량은 대부분지역에서 100mm를 넘지 못하나 산간지방에서는 400mm에 이른다. 1977년에 심한 가물이 들었다.

주민은 대부분이 아랍사람 (85%)이며 그밖에 아프리카사람, 이란사람, 인도사람 등이 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정 치

사우디 아라비아는 16세기에 토이기의 지배밑에 들어가 추장국들 (히쟈즈, 네쥬드)로 갈라져있었다.

1926년 1월 이븐 사우드(네쥬드왕)가 아라비아반도를 통일하고 1932년에 나라이름을 사우디 아라비아왕국으로 고쳤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세습군주제국가로서 국가의 모든 법률은 회교성전에 기초하고있으며 국회도 정당도 없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1951년 1월 미제와 예속적인 이른바 《제4항목계획》이란 《협정》을 맺었으며 이해 6월에는 《공동방위원조협정》을 맺었다. 1966년 10월에는 미제에게 자기 나라에 있는 비행장과 항구들을 임의의 시각에 마음대로 사용할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1975년 3월에 파이살왕이 죽고 할리드가 새 국왕으로 올라앉았다. 새 국왕은 모든 분야에서 죽은 파이살왕의 정책을 그대로 계속할것이라고 하였다.

정치, 군사적으로 미제에 철저히 예속되여있는 사우디 아라비아는 1977년 1월 1일부터 석유값을 한바렐당 10% 올리기로 결정한 석유수출국가기구의 대부분의 성원국들과는 달리 미제의 압력에 눌리여 석유값을 한바렐당 5%만 올렸다.

12월에 진행된 석유수출국가기구 부장들의 제50차총회에서 사우디 아라비아는 미제로부터 《군사기술기재와 장비들을 계속 대량적으로 공급》받는 대가로 1984년까지 원유값을 5%이상 올리지 않는 《비밀협정》까지 맺었다.

한편으로는 미제를 비롯한 서방제국주의자들에게 적극 추종하는 로선을 취하면서 석유를 무기로 하여 아랍나라들을 우경에로 돌려 세우기 위하여 책동하고있다.

1977년 7월 31일부터 8월 2일사이에 결쳐 민주예멘대통령리사회 위원장이 사우디 아라비아를 방문하고 사우디 아라비아왕과 두 나라 사이의 관계문제를 토의하였으며 홍해지역을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하였다.

1977년에 사우디 아라비아는 네팔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새로 맺었다.

사우디 아라비아는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조선문제토의시 미제의 부추김밑에 우리측 결의안의 통과를 막아보려고 필사적으로 발악하였다.

국왕 국가수반으로서 립법권과 행정권을 가지며 종교적인 최고권력자로서 제한없는 권력을 가진다. 국왕 할리드 이븐 아브델 아지즈 (1975년 3월—)

정부 총리 국왕이 겸한다. 외교부장 사우드 이븐 파이살, 국방부장 술탄 이븐 아브델 아지즈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원유채취업이며 국가재정의 85%를 원유에서 얻고있다. 국민총생산액에서 원유와 련결된 부문이 차지하는 몫은 86.5% (1975년현재)에 달한다. 원유문힌량은 약 200억톤에 달하며 한해동안에 약 3억 5천 216만톤 (1975년)의 원유를 생산한다. 이 나라의 원유생산은 미제를 비롯한 일본, 이딸리아 등 제국주의독점체들이 틀어쥐고 있다.

원유채취량에 비하여 정제공업이 매우 미약하며 라스타누라에 원유정제공장 (능력 1천만톤)이 있을뿐이다. 채취된 원유의 대부분은 송유관을 통하여 지중해기슭의 항구로 날라가거나 또는 아랍만기슭의 항구를 통하여 수출된다.

원유가공을 내놓고 가공공업은 보잘것 없으며 가죽, 천, 도자기, 비누, 사탕, 가구, 세멘트, 유리 등을 생산하는 수공업적인 령세기업체들이 있을뿐이다.

농업은 국민총생산액에서 약 10%정도 차지한다. 부침땅은 약 40만헥타르이며 그 대부분은 왕족들과 봉건령주들, 사원이 차지하고있다. 알곡생산량은 국내수요의 10%에 불과하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강냉이, 대추야자, 커피, 남새 등이며 그 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대추야자이다. 대추야자생산 (1975년 생산량 26만 2천톤)은 이라크 다음가는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양, 염소, 락타, 말, 당나귀 등이다. 1975년에 양은 310만 2천마리, 염소는 172만 2천마리, 락타는 60만 6천마리 있었다.

홍해기슭에서는 적지 않은 주민들이 물고기잡이를 하고있다. 특히 아랍만에서는 진주조개가 많이 잡힌다.

철길은 서부지역의 알마디나로부터 요르단과의 국경까지 뻗은 철길과 리야드와 아랍만기슭의 아드담맘을 련결하는 철길 (580키로메터)이 있다. 주요자동차길은 리야드와 동서부를 련결하는것과 바다기슭을 따라 총 4천키로메터가 있다.

국내운수에서는 아직도 락타가 큰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수출품은 원유와 그 제품 (수출총액의 약 95%)이며 그밖에 대추야자, 과일, 양털, 양가죽, 집짐승 등이다. 주요수입품은 식량을 비롯한 식료품과 소비품들이며 일부 기계설비 및 수송수단들이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미국, 일본, 영국, 이딸리아, 서부독일, 에스빠냐, 화란 등이다.

1977년에 이 나라에서는 가물로 인하여 마실물조차 부족하여 비상조치까지 취하는 엄중한 사태가 벌어졌다. 지다의 일부 주민들은 수주일동안 물을 공급받지 못하였다.

주민의 약 95%가 글을 모른다. 학교들은 대부분 도시에 집중되여 있다.

회교의 본거지로서 회교규률이 엄격하다.

출판보도;통신 사우디 아라비아통신

신문 타우라, 알 빌라드, 알 리야드, 메프리카

방송 사우디 아라비아방송, 사우디 아라비아국립텔레비죤방송

쿠 웨 이 트

(쿠웨이트국가)

넓이 2만 770km²(중립지대포함)

인구 110만명(1977년)

수도 쿠웨이트(주민 50만명)

자연 및 주민

쿠웨이트는 아라비아반도의 북동쪽 아랍만기슭에 자리잡고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해발 10m밖에 안되는 평평한 사막으로 이루어졌다.

기후는 전형적인 사막성기후로서 매우 마르고 여름에 몹시 덥다. 평균기온은 1월에 11°C, 7월에 35°C이며 한해강수량은 약 10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아랍족이다. 이 나라 토착민은 47%정도이며 나머지는 이웃나라들로부터 들어온 사람들이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영어도 널리 쓰고있다.

정 치

쿠웨이트는 1961년 2월 25일 영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하였다.

독립후 쿠웨이트인민은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지반을 청산하고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1974년 1월 정부는 석유리권을 지키며 민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석유회사들의 주권의 60%를 국유화하기로 결정하고 이 나라 석유생산의 약 80%를 장악하고있던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소유인 쿠웨이트석유주식회사를 국유화하였으며 1975년 12월 1일에는 이 회사의 나머지 주권을 전부 국유화하였다.

1977년 9월에는 미국석유회사 《아메리칸 인데펜덴트 오일 콤파니》의 재산을 국유화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지반을 허물어버리고 국영공업의 비중을 높이기 위하여 국영석유회사를 새로 창설하였으며 원유의 채취, 가공, 판매권을 틀어쥐였다.

정부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1968년에 농업국을, 1973년에 농사최고리사회를 내오고 농업발전을 위한 10개항목의 결정을 내놓았다.

대외적으로 쿠웨이트는 쁠럭불가담원칙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있으며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한 아랍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또한 아랍만지역나라들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1977년 2월 쿠웨이트는 아랍항구동맹 헌장에 조인하였으며 12월에는 중국과 경제, 기술협조협정을 맺었다.

민족회의 일원제, 총의석 50석, 임기 4년, 1975년 1월 선거

추장 국가수반으로서 법령을 비준하며 내각을

통하여 행사되는 일체 집행권을 가진다. 1976년 8월 29일 추장은 민족회의를 해산하고 헌법의 일부조항을 정지하였으며 모든 권력을 추장과 내각에 집중시켰다.

추장 사바호 알 살렘 알 사바호(1965년 11월—)

정부 1976년 9월 6일 새 내각 구성, 총리 자베르 알 아호메드 알 자베르, 내무및국방부장 사아드 알 아브둘라호 알 살렘 알 사바호

정당, 사회단체;1963년 1월부터 모든 정당, 사회단체의 활동은 금지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원유채취업이다. 국가재정수입의 90%이상을 원유수출에서 얻고있다. 원유몯힌량은 약 89억 3천 800만톤에 달한다. 1976년에 7억 8천 520만바렐의 원유가 생산되였으며 1억 3천 300만바렐의 원유가공품이 수출되였다.

가공공업에서는 원유정제공업이 기본이다. 새로운 원유정제소들이 건설되고있으며 원유정제능력이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원유수송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조치도 취해지고있다. 1976년 12월현재 총 11억 5천 300만톤의 수송능력을 가진 7척의 유조선이 있었다.

정부는 원유공업에만 치우치던 경제의 일면성을 퇴치하고 민족공업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화학공업, 전력공업, 기계공업 등 기간공업부문들을 새로 창설하였다.

농업에서는 목축업이 기본이다. 씨뿥임면적은 약 7천 79도늪이다.

주요집짐승은 말, 양, 소, 락타, 가금류 등이다. 1977년말현재 이 나라에는 9천 800여마리의 소와 24만마리의 양, 500만마리의 닭이 있었다.

주요농작물은 콩과 남새이다. 이 나라에서는 도마도, 오이, 양배추, 무우, 감자 등을 시험재배하는데 성공하였다. 1977년말현재 이 나라에서는 남새에 대한 국내수요의 13%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다.

바다가주민들은 진주채취와 물고기잡이도 한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자동차길은 약 600키로메터이며 철길은 100키로메터정도이다.

주요수출품은 원유(수출총액의 96%)와 원유제품이며 식량과 일체 소비품, 건재및시설품 등은 수입에 의존한다. 비원유제품수출이 점차 늘어나고있다.

주요수입대상나라는 중국, 영국, 서독, 일본 등이다.

화폐단위는 쿠웨이트디나르이다.

민족교육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1976—1977회계년도에 교육부문에 1억디나르의 자금을 돌렸다.

1976년현재 이 나라의 각급학교들의 수는 325개에 달하였다. 유치원, 인민학교, 중학교 교원들의 대부분이 쿠웨이트사람들이다.

1977년초현재 이 나라에는 73개의 문맹퇴치쎈터가 창설되여 여기서 2만 3천여명이 글을 배우고 있었다.

주민의 95%가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신문 아호바르 알 쿠웨이트, 알 카바스, 쿠웨이트 타임스, 알와딴, 데일리 뉴스, 알 칼라즈, 알 라이 알 아암, 알 씨야싸

방송 쿠웨이트방송, 쿠웨이트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9월 17일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1968년 4월 20일에는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설치되였다.

1977년 2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쿠웨이트를 방문하였다.

바 레 인

(바레인국가)

넓이 598km²

인구 26만 6,000명(1975년)

수도 마나마(주민 약 8만명)

자연 및 주민

바레인은 아랍만의 까타르반도 북쪽에 있는 33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졌다.

기후는 아열대성기후로서 무덥다. 기온이 40°C를 넘을 때가 많으며 가장 추운때에 18~20°C이다. 한해평균강수량은 100미리메터정도로서 몹시 적다. 그러므로 사철 흐르는 강은 하나도 없다.

주민은 85%이상이 아랍사람이며 그밖에 이란사람, 인도사람, 파키스탄사람 등이 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정 치

바레인은 1971년 8월 14일 영국과의 예속적인 《조약》을 폐기하고 독립을 선포하였으며 8월 16일 나라이름을 바레인국가라고 하였다.

독립후 바레인은 대내적으로 《바레인화》의 구호를 들고 민족적자주권을 지키며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바레인정부는 1974년 9월 외래제국주의석유회사들의 주권의 60%를 국유화하였다.

1977년 6월 정부는 외래제국주의독점회사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법령에 따라 외래제국주의독점회사들은 바레인과

합영회사로 되여야 하며 합영회사에서 바레인이 차지하는 몫은 51%를 넘어야 한다.

바레인정부는 또한 11월 제국주의독점체들이 경영하던 모든 상점들을 국가가 장악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바레인정부는 6월 30일 바레인이 미국과 맺은 미제7함대의 ≪폐어해군기지사용에 관한 협정을 폐기하였다. 새로 채택된 결정에 따라 미국군함들은 이 나라의 무역항구에 들어갈수 있는 특전도 잃게 되였다.

대외적으로 바레인은 쁠럭불가담원칙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있다. 특히 이웃나라들과의 친선, 아랍만의 안전과 진보를 기본과업으로 내세우고 이 지역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있다.

1977년 1월 바레인은 네팔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7년에 바레인은 아랍만나라보건부장회의(2월), 아랍만나라들의 원거리통신 제1차조정회의(8월), 제1차아랍만나라무역부장회의(10월) 등 아랍만지역나라들의 지역협조기구회의들에 참가하였다.

국회 일원제, 총의석 39석, 1973년 12월에 처음으로 국회선거 진행

추장 이사 빈 술만 알 할리과(1942년—)

각료회의(정부) 1975년 8월에 구성, 총리 쉐이크 할리파 빈 술만 알 할리파, 외교부장 모함메드 빈 무바라크 알 할리파, 국방부장 쉐이크 모하메드 빈 할리파 빈 하마드 알 할리파

정당, 사회단체;합법적정당, 사회단체는 없다. 바레인민족해방전선, 바레인민족동맹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원유채취와 그 가공공업이다. 국민소득의 80%가 원유생산에서 얻어지며 로동인구의 4분의 1이 원유채취 및 가공 부문에서 일한다. 탐사된 원유문힌량은 약 1억톤에 달한다. 1975년에 304만톤의 원유를 생산하였다.

원유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제국주의석유독점회사들을 국유화하고 1976년에 원유, 가스 등의 탐사, 가공, 수송, 저장, 판매 및 수출사업을 직접 맡아보게 될 국영원유회사를 창설하였다.

바레인섬의 중부에 한해 1천만톤능력의 원유가공공장이 있다.

독립후 알루미니움제련공장, 세멘트공장, 벽돌공장 등이 새로 건설되였다. 1976년에 12만 2천 100톤의 알루미니움을 생산하였다.

농사는 오아시스부근에서 약간 한다. 부침땅은 약 1만 5천에이커정도이며 3분의 2는 대추야자농장이다.

주요농작물은 대추야자, 망고, 포도, 귤, 수박 등의 과일과 남새이며 벼도 약간 재배한다. 알곡은 자급자족 못하며 다른 나라에서 사들여온다.

바레인섬은 진주생산지로 이름이 높다. 진주채취의 대부분은 일본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다.

바다가주민들은 물고기잡이도 한다.

철길은 없고 자동차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자동차길은 약 200키로메터정도이다.

주요수출품은 원유와 진주이며 수입품은 식량, 일용품, 공업제품 등이다. 천, 양복, 가구, 세멘트, 목재, 사탕, 차 등은 이웃 나라들에 다시 수출한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영국, 일본, 미국 등과 이웃나라들이다.

화폐단위는 바레인디나르이다.

1975—1976학년도 초등학교학생수는 4만 1천 750명정도였다.

물이 부족한 바레인은 150키로메터의 수도관을 통하여 대륙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고있다.

주민의 90%가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신문 알 자리다 알 라스미야, 알나즈마르 알 아스부이아, 아왈리 매가진, 알 아드와아

방송 바레인방송

까 타 르

(까타르국가)

넓이 2만 2,014km²

인구 19만명(1975년)

수도 도하(주민 14만명, 1975년)

자연 및 주민

까타르는 아라비아반도의 동쪽기슭에 자리잡고 있으며 령토의 대부분이 사막으로 이루어졌다.

기후는 몹시 메마르고 덥다. 철바람이 주기적으로 불어 모래바람을 일구며 여름(4~10월)의 기온은 45~60°C까지 올라간다.

한해평균 100mm의 비가 내리며 사철 흐르는 강은 하나도 없다.

주민은 대부분이 아랍사람들이며 그밖에 인도사람, 이란사람, 토이기사람, 아프리카사람 등이 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정 치

까타르는 1971년 9월 1일 영국과의 예속적인 ≪조약≫을 페기하고 독립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지반을 허물어버리고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1974년에 이 나라의 원유 탐사와 채취를 틀어쥐고있던 제국주의자들의 석유독점체인 《까타르석유회사》와 《까타르 쉘》회사의 주권의 60%를 국유화하였다.

까타르정부는 또한 1976년 9월에 《까타르석유회사》, 1977년 2월에는 《까타르 쉘》회사의 나머지주권을 완전히 넘겨받았으며 원유자원에 대한 국유화를 완성하였다.

대외적으로 까타르는 공동의 리익의 호상존중, 내정불간섭, 쁠럭불가담의 원칙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있다. 또한 까타르는 아랍만지역나라들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고있다.

1977년 1월 까타르는 네팔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7년에 까타르는 아랍만나라들의 원거리통신 제1차조정회의(8월), 제1차아랍만나라무역부장회의(10월) 등 아랍만나라들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지역협조기구들의 회의에 참가하였다.

추장 할리파 빈 하마드 알 타니(1972년 2월—)

정부 추장이 총리를 겸한다. 외교부장 쑤힘 빈 하마드 알 타니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원유채취업이며 국민소득의 약 90%가 원유공업에서 들어온다. 탐사된 원유매장량은 약 4억톤이상이다. 1975년에 원유생산량은 2천 115만톤에 달하였다.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제국주의 석유독점체들을 국유화하고 1972년 4월 민족석유회사를 창설하였다. 또한 독립후 세멘트공장, 비료공장, 발전소 등을 새로 건설하였다.

농업은 뒤떨어졌으며 주민의 대부분이 집짐승들을 이끌고 풀밭을 따라 가면서 이동생활을 한다.

알곡작물로는 강냉이를 약간 심고있으며 남새와 과일을 생산한다.

바다가주민들은 물고기잡이와 진주채취를 한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며 철길은 없다.

주요수출품은 원유와 진주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소비품, 자동차 등이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인도, 서독이다.

화폐단위는 까타르리얄이다.

1975—1976학년도에 총학생수는 3만명이상에 달하였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알 아암, 알 아랍

방송 까타르방송, 까타르텔레비죤방송

아랍추장국

(아랍추장국련방)

넓이 8만 6,300km²

인구 65만 5,900명(1975년)

수도 아부 다비(주민 23만 5,600명, 1975년)

자연 및 주민

아랍추장국은 아라비아반도의 동쪽끝에 자리잡고있으며 7개의 추장국들로 이루어졌다. 령토의 대부분이 바위가 많은 사막지대로 되여있다.

기후는 메마르나 바다가지방에서는 습도가 90%에 달한다. 여름의 기온은 그늘진데서도 50°C를 넘을 때가 적지 않다. 한해에 100mm도 못되는 비가 내린다.

주민은 대부분이 자와슨족, 아부 아리족, 아부 파라살족을 기본으로 하는 아랍사람들이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정 치

1971년 12월 1일 6개의 추장국이 영국과의 《보호조약》을 폐기하고 련방을 창설하였으며 12월 2일 독립을 선포하였다. 1972년 2월 라스 알 카이마호 추장국이 련방에 들어갔다.

독립후 아랍추장국련방은 민족적독립을 공고히하며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정부는 1973년 1월 아부 다비에 있는 제국주의 석유독점체들의 주권의 25%를 국유화하였으며 1974년 9월에는 제국주의석유독점체인 《아부다비 페트롤 캄파니》회사주권의 60%를 국유화하였다.

정부는 또한 1975년 7월 두바이에 있는 외국인 석유및가스회사들을 완전히 국유화하였으며 1976년 3월에는 련방안에 있는 모든 천연가스매장지들을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대외적으로 아랍추장국은 쁠럭불가담의 원칙에 기초하여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있다. 또한 아랍만지역나라들의 단결과 협조를 주장하고있다.

1977년 2월에 창설된 련방민족리사회 제1차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대통령은 아랍만지역 인민들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1977년에 대통령이 예멘아랍공화국(3월), 민주예멘(3월), 이란(11월) 등을 각각 방문하였다.

또한 이해에 아랍추장국은 아랍만나라들의 원거리통신 제1차조정회의(8월), 제1차아랍만나라무역

부장회의(10월) 등 지역협조기구회의에 참가하였다.

1977년에 아부 다비에서 아랍만나라보건부장회의(2월), 아랍나라재정부장회의(4월) 등이 진행되였다. 아랍나라재정부장회의는 아랍통화기금을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련방민족리사회 일원제, 1977년 2월 16일에 창설

대통령 자이드 빈 술탄 알 나하얀(1971년 12월—, 1976년 12월 재선), 련방의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5년

련방정부 총리 마크툼 빈 라쉬드 엘 마크툼, 외교부장 아호메드 할리파 엘 수와이디, 국방부장 모하메드 빈 라쉬드 엘 마크툼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원유채취업이며 이 나라 재정수입의 대부분이 원유수출에서 얻어진다. 1974년현재 탐사된 아부 다비의 원유물힌량은 39억 4천 100만톤에 달하였다. 1975년에 8천 195만톤의 원유를 생산하였다.

원유공업을 기본으로 하여 민족공업을 발전시키고있는 이 나라는 제국주의자들의 석유독점체들을 국유화하여 아부 다비국영원유회사를 창설하였으며 원유가공공장들을 새로 건설하였다.

1976년 4월 아부 다비에 첫 원유가공공장이 건설되였으며 12월에는 샤르쟈에 새 윤활유공장이 또 건설되였다.

1977년 10월 다스섬에 해마다 230만톤의 액화가스를 생산하게 될 액화가스공장이 건설되였다.

이밖에도 세멘트공장, 석유화학공장 등을 비롯한 새로운 공장들이 건설되였다.

농사는 오아시스부근에서 약간 한다.

주요농작물은 대추야자, 강냉이 등이다. 1975년에 처음으로 밀을 심어 거두어들였다.

정부는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넓은 사막에 흩어져 살고있던 사람들을 전망에 한데 모여 농사를 짓게 하고있다.

또한 정부는 시험농장들과 토지연구소들을 꾸려 놓고 농업기술자들을 양성하며 농민들에게 영농기술을 배워주고있다.

주민의 10～15%는 목축업을 하며 락타를 많이 기른다.

바다가주민들은 물고기잡이와 진주채취도 한다.

철길은 없고 자동차운수와 해상운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바이항은 이 나라의 중계무역중심지이며 주요원유수출항이다. 두바이항은 관세를 받지 않는다.

주요수출품은 원유와 진주, 수산물이며 수입품은 공업설비, 운수수단, 식량, 일용품 등이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와 이웃나라들이다.

화폐단위는 파운드이다.

재정은 각 추장국에서 원유수입의 10%씩 바쳐서 유지한다.

아부 다비, 두바이, 샤르쟈를 내놓고 나머지 4개의 추장국은 원유가 나지 않는 가난한 나라들이다.

민족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각급학교수는 1971년에 29개로부터 1976년에 183개로 늘어났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시아파)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아랍추장국련방통신(왐)

신문 알 이티하드(정부기관지), 알 아이얌, 아랍추장국련방뉴스, 알 워스바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12월 우리 나라가 아랍추장국련방을 승인하였다.

1977년 9월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샤르쟈추장 공보고문인 《두바이》방송국장이 참가하여 토론하였다.

오 만

(오만추장국)

넓이 21만 2,457km²
인구 140만 3,000명(1974년)
수도 마스까트(주민 약 1만명)

자연 및 주민

오만은 아라비아반도의 동남쪽에 자리잡고있다.

기후는 덥고 메마른 열대성기후에 속한다. 1월평균기온은 20.7°C, 6월평균기온은 32°C이다. 한해강수량은 130mm도 못된다.

주민의 대부분은 아랍사람이며 그밖에 인도사람, 이란사람, 아프리카사람들이 산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정 치

18세기말부터 오만은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략탈대상으로 되였다.

1839년과 1891년에 영식민주의자들은 오만에 예속적인 조약을 강요하여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세력을 밀어내고 제놈들의 지배를 강화하였다.

식민주의자들의 침입을 반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려온 오만인민들은 1913년 봉기를 일으켜 내륙지방에 회교교주국을 세우고 독립을 선포하였다. 이리하여 오만은 회교교주국과 마스까트오만추장국으로 갈라지게 되였다.

1939년 영제국주의자들은 마스까트오만추장을 강박하여 《조약》을 맺고 이 추장국을 제놈들의 《보호령》으로 선포하였다.

1955년 12월 영제국주의자들은 제놈들의 무력을 직접 동원하여 회교교주국을 강점하였으며 마스까트오만에 강제로 병합시켰다.

1958년 7월 영제국주의자들은 마스까트오만과 《군사협정》을 맺고 제놈들의 해군기지와 공군기지를 설치하였으며 1965년에는 마스까트오만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제놈들의 무력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였다.

오만인민들은 오만해방인민전선의 지도밑에 외세의 간섭과 외국군대의 주둔을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다.

1970년 7월 가부스 빈 사이드가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고 처음으로 내각을 조직하였다.

새 추장은 대외적으로 완전히 고립되고 폐쇄된 지난날의 정책을 약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있다.

오만은 쁠럭불가담성원국이나 대외관계분야에서 보수적인 아랍나라들과의 관계를 밀접히 하고있다.

1977년 1월 오만은 네팔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추장 가부스 빈 사이드(1970년 8월—), 추장은 실권을 못가지며 대내외정책은 추장국주재 영국총령사에 의해 결정된다.

정부 총리 사이드 타리크 빈 타이무르(1970년 8월—), 외교부장 알 자와위

정당, 사회단체; **오만해방인민전선** 1971년 12월 20일 강점된 아랍만해방인민전선과 오만민족해방전선이 민족해방투쟁의 통일성을 이룩하기 위하여 중앙조직인 오만및아랍만해방인민전선을 창건, 1974년 7월 제2차전국대회에서 이름을 오만해방인민전선으로 고침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90%가 농업과 목축업을 한다. 농사는 주로 오아시스부근에서 하며 얼마안되는 부침땅은 지주와 일부 통치배들이 가지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대추야자, 밀, 보리이며 그밖에 목화, 담배, 남새 등이다. 식량은 수입에 의존한다.

높은벌과 사막지대에서는 락타, 염소 등을 많이 기른다. 특히 락타는 품종이 좋아 수출에서 인기가 있다.

바다가주민들은 물고기잡이도 하며 중계무역에도 종사한다.

공업은 원유채취업을 내놓고 다른것은 거의 없다. 원유채취권은 제국주의석유독점체인 《이라크석유회사》의 분회사인 《오만석유회사》가 틀어쥐고있다.

철길은 없고 약 400키로메터의 자동차길이 있다. 높은벌과 사막지대에서는 락타가 주요운수수단으로 되고있다. 대외무역은 해상운수를 통하여 진행한다. 주요항구는 마스까트와 마트라호이다.

주요수출품은 원유, 대추야자, 물고기, 락타 등이며 수입품은 식량, 천, 사탕, 운수수단, 일용품 등이다.

주민의 95%가 글을 모른다.

주민의 60%이상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사우트 알 사우라(오만해방인민전선기관지), 알 와탄

예 멘

(예멘아랍공화국)

넓이 19만 5,000km²
인구 667만명(1975년)
수도 사나(주민 12만명)

자연 및 주민

예멘아랍공화국은 아라비아반도의 서남쪽끝 인도양에서 홍해로 들어가는 길목에 자리잡고있다. 령토의 80%이상이 산지와 높은벌로 되여있다.

기후는 열대성기후에 속하나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철바람의 영향을 받아 아라비아반도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는 편이다. 사나의 평균기온은 1월에 14°C, 6월에 21°C이다. 한해강수량은 바다가지방에서 100mm이며 내륙산지대에서는 1,00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사람이며 이란사람, 소말리아사람 등이 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정 치

예멘아랍공화국은 1923년 토이기의 기반에서 벗어나 독립왕국으로 되였으며 1962년 9월 26일 봉건적인 왕권통치를 뒤집어엎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공화국선포후 예멘아랍공화국 인민은 공화제도를 지키며 새생활을 창조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1967년 11월 5일 공화리사회가 창설되였으며 1971년 4월에는 공화파, 왕당파, 추장파를 비롯한 각이한 정치세력을 망라한 협상리사회가 창설되였다.

1974년 6월 13일에는 알함디가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지도리사회를 새로 조직하였다. 시정운동후 예멘아랍공화국 인민은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나라의 정치적안정과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였다.

대외관계분야에서 예멘아랍공화국은 쁠럭불가담원칙에 기초한 자주정책을 실시하고있다. 특히 제국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피압박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고있으며 빼앗긴 령토와 민족적권리를 되찾기 위한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예멘아랍공화국은 1977년 6월 뽀르뚜갈정부가 이스라엘주재 대사를 임명하기로 결정한데 항의하여 뽀르뚜갈과 외교관계를 끊었으며 12월에는 애급과의 외교관계를 끊었다.

1977년 7월에 예멘아랍공화국 지도리사회 위원장인 알함디가 프랑스를 방문하고 경제및기술협조협정을 맺었다. 또한 4월에 예멘아랍공화국은 아랍련맹경제리사회와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7년 2월 예멘아랍공화국에서는 팔레스티나인민들과의 련대성주간을 설정하고 나라의 모든 지방들에서 여러가지 련대성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지도리사회 1974년 6월 13일에 구성된 최고기관으로서 립법권과 행정권을 가진다. 1977년 10월 11일 지도리사회 위원장 이브라힘 무함마드 알함디가 제국주의자들의 앞잡이들에 의하여 피살된것과 관련하여 회의를 열고 지도리사회 성원들을 새로 임명,

위원장 아흐메드 알가쉬미

정부 1976년 8월 내각 일부 개조, 총리 아브둘 아지즈 아브둘 가니, 외교부장 아브둘 라흐 알 아스나즈

정당, 사회단체;1974년 6월 유일당이였던 인민혁명당이 해산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90%이상이 농사한다. 부침땅은 약 235만헥타르이며 2～3모작을 한다.

주요농작물은 수수, 보리, 밀, 강냉이, 목화, 담배, 포도, 바나나, 대추야자, 커피 등이다. 수수는 이 나라 알곡총생산량의 90%를 차지한다.

정부는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농촌에 비료, 농약, 농기계 등 영농자재들을 대주고있다.

농업에서 축산업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축산업은 주로 유목 또는 반유목형태로 한다.

주요집짐승은 양과 염소이며 이밖에 말, 당나귀, 락타 등을 기른다.

공업은 오랜기간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수공업이 큰 몫을 차지한다. 수공업에서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천, 가죽가공과 금, 은, 보석 등의 세공, 기타 일용품을 만드는 가내수공업이다.

주요지하자원은 금, 은, 돌소금, 찌단, 망간, 석탄, 철, 동, 류황, 석회석 등이다.

1974년 6월 시정운동후 민족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지하자원을 자체로 개발하며 새로 지은 공장들에 대해서는 5년간 소득세를 받지않으며 다른 나라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높이는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의하여 세멘트공장, 제철소, 발전소, 유리공장, 방직공장, 신발공장 등 중소규모의 공장들이 수많이 건설되였다.

이 나라에서는 국내 천수요의 40%를 자체로 해결하고있다. 사나방직공장에서만도 하루에 2만 8천야드의 천을 생산하고있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도로의 총길이는 약 4천키로메터에 달하며 그 가운데서 포장도로는 2천여키로메터이다. 1977년 6월에 사나와 북부도시 사다를 련결하는 포장도로건설이 끝났다.

이 나라에서는 락타와 당나귀도 운반수단으로 리용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목화, 돌소금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목재, 식료품, 식량, 공업제품 등이다.

화페단위는 리얄이다.

1977년에 이 나라의 학생수는 22만여명으로서 1970년에 비하여 약 2배로 늘어났다. 그 가운데서 중등학교학생수는 1만 7천 600여명, 고등중학교학생수는 7천 190여명이였다. 또한 17개의 교원양성소와 3개의 상업학교, 1개의 기술학교에서 2천 150여명이 공부하고있었다.

이 나라에서는 각 주와 주요 도시들에 문화연구소조들이 조직되여 문맹퇴치운동을 벌리고있다.

병원과 진료소를 포함한 많은 의료시설들도 새로 건설되였다.

주민의 90%이상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통신** 예멘통신

신문 알리싸라, 알 싸아브, 알 와하다, 사나

방송 사나방송, 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3년 3월 9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4년 9월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76년 12월에는 경제및기술적협조에 관한 합의서가 조인되였다.

1977년 9월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예멘아랍공화국 정부대표인 외교부 정치총국 총국장이 참가하였다.

두 예멘사이의 관계

1977년 2월 15일 예멘아랍공화국 지도리사회 위원장과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통령리사회 위

원장이 예멘아랍공화국의 국경도시 카타바시에서 수뇌자회의를 가지고 두 나라의 상업, 공업, 농업을 비롯한 일부 경제부문을 예멘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조정할데 대한 문제들을 토의하였으며 두 나라 위원장들과 국방, 경제, 상업, 계획 및 외교부문의 관리들로 구성되는 공동리사회를 창설하기로 하였다. 공동리사회는 6개월에 한번씩 사나와 아덴에서 번갈아 회의를 가지기로 하였다.

또한 두 나라는 경제, 계획, 상업 일군들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두 나라중 한 나라만이 대사관을 두고있는 나라들에서 그 나라 대사관이 다른 한 나라도 대표하기로 합의하였다.

예멘아랍공화국과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공동위원회가 창설된후 첫 공동외교행동으로서 두 나라부장들로 구성되는 공동대표단을 무어 2월 15일부터 26일까지 이라크, 쿠웨이트, 아랍추장국련방을 비롯한 5개의 아랍나라들을 방문하였다.

민 주 예 멘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넓이 28만 7,683km²
인구 169만명(1975년)
수도 아덴(주민 26만명)

자연 및 주민

민주예멘은 아라비아반도의 남쪽끝 아덴만에 동서로 길게 뻗어있다. 아세아, 구라파, 아프리카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로서 전략상 의의가 매우 크다.

기후는 마른 열대성기후이다. 평균기온은 1월에 15~20°C, 7월에 30~35°C이며 한해평균강수량은 100mm안팎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아랍사람이며 그밖에 인도사람, 소말리아사람, 영국사람 등이 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정 치

1967년 11월 30일 민주예멘인민은 무장투쟁을 통하여 129년간의 영제국주의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독립을 이룩하였으며 1970년 11월 30일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민주예멘정부는 두 차례의 토지개혁법령(1968년 10월, 1970년 11월), 국유화법령(1969년 11월) 등을 발포하여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략탈적지반을 허물어버렸다.

1970년 11월 30일 민주예멘정부는 《민족민주주의혁명》을 당면과업으로, 나아가서는 《과학적사회주의》를 건설할것을 규정한 새 헌법을 채택하고 민족민주주의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1972년 5월 민족전선 제5차대회는 제국주의독점체들의 경제적예속에서 민족경제를 해방하며 봉건주의를 청산하고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며 사회주의적개조를 위한 물질기술적토대를 쌓기 위한 민족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의 행동강령을 채택하였다.

민주예멘인민은 경제발전 3개년계획(1971—1973년)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1974년부터 경제및사회발전5개년계획(1974—1978년)을 수행하고있다.

1977년 6월 모든 도들에 지방주권기관들을 내올데 대한 대통령리사회의 결정이 발표된데 뒤이어 11월에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실시되였다.

대외적으로 민주예멘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팔레스티나인민을 비롯한 아랍인민의 공동위업을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고있다. 또한 오만해방인민전선의 지도밑에 진행되는 오만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1977년에 민주예멘은 요르단(3월), 앙골라 (11월), 뛰니지(11월)와 새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7년에 대통령리사회 위원장이 사우디 아라비아(7~8월), 꾸바(9월)를 방문하였으며 민족전선통일정치조직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및정부대표단이 체스꼬슬로벤스꼬(4월), 웽그리아(4월)를 각각 방문하였다.

대통령리사회 1969년 6월 시정조치후 조직된 최고지도기관, 1971년 8월 민족전선통일정치조직중앙위원회 총비서, 정부총리를 포함하여 3명으로 구성, 위원장 쌀림 루바이아 알리(1969년 6월—)

최고인민회의 민주주의적인 최고립법기관, 101명으로 구성, 1970년 12월에 창설, 상임위원회 위원장 아브둘 파타흐 이스마일

정부 총리겸보위부장 알리 나쎄르 무함마드(1971년 8월—), 외교부장 무함마드 쌀레흐 무티으

정당, **사회단체;민족전선통일정치조직** 1975년 10월 민족전선정치조직, 인민민주주의동맹, 인민선봉당을 합치여 창설한 정치조직, 총비서 아브둘 파타흐 이스마일, **근로자총련맹, 청년동맹, 녀성총동맹**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80%이상이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한다. 부침땅은 약 12만 1천헥타르이다.

주요농작물은 목화이며 그밖에 담배,밀, 참깨,

남새 등을 심는다.

농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과 국영농장이 조직되였다. 1977년말현재 120개의 농업협동조합이 무어졌으며 그의 물질기술적토대도 강화되고있다. 또한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저수지건설, 지하수뽑아쓰기 등 물문제를 풀기 위한 일들이 벌어지고있다.

축산업발전에도 큰 관심이 돌려져 집짐승마리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주요집짐승은 양, 염소, 락타 등이다.

오랜기간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공업은 매우 미약하다. 독립전 이 나라에는 공업이라고 할만한것은 별로 없었다. 다만 자기 나라 항구에 드나드는 외국배들을 간단히 수리해주는 등 《봉사경제》가 있었을뿐인데 이것이 이 나라 국민소득의 80%를 차지하였었다.

정부는 식민지적기형성을 띤 《봉사경제》를 《생산경제》로 바꾸는것을 기본정책으로 내세우고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지반을 허물어버렸으며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새로 건설하였다. 나라의 곳곳에 세멘트공장, 농기계공장, 방직공장, 신발공장, 옷공장, 기름공장 등 공장, 기업소들이 일떠섰고 이미 있던 공장, 기업소들이 개건확장되였다. 1977년말까지 새로 건설된 공장들가운데서 국영부문에 속하는 공장수는 24개나 되였다. 같은해 국가수중에 들어간 공장들의 총생산액은 1천 500만디나르였다. 이것은 1969년에 비하여 2배이상, 1976년에 비하여 18.4% 늘어난것이다.

정부는 1977년 5월 1일 영국놈들이 가지고있던 아덴원유정제공장을 또 국가의 수중에 넣었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은 없고 2천 500키로메터의 자동차길이 있다. 아덴항은 인도양과 홍해를 련결하는 중계무역항이다. 1977년에 이 나라는 4천 500톤짜리 새 부도크를 만들었다.

주요수출품은 원유가공품, 목화, 가죽, 말린물고기, 소금 등이며 재수출이 적지 않은 몫을 차지한다. 선박용 연료를 비롯한 원유제품은 이 나라의 중요한 외화원천으로서 수출액의 거의 80%를 차지한다. 주요수입품은 식량, 기계, 각종 금속류, 기타 공업제품, 의약품 등이다.

화폐단위는 디나르이다.

민주예멘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민족교육말살정책의 후과를 가시고 새 사회건설의 요구에 맞는 민족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학교수와 학생수가 늘어나고있다. 1977년말현재 이 나라에서는 1천 100여개의 각급학교에서 23만 4천 800여명이 공부하고있었다.

정부는 나라의 전문및기술교육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1977년 2월에 전문및기술교육위원회를 새로 내왔다. 이 나라에는 아덴종합대학과 여러개의 단과대학들이 있다.

1977년에 민주예멘 보건부는 어린이들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데 대한 계획을 승인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아덴통신

신문 아르바아타 아샤라 욱투브르(정부기관지) 앗 싸우라, 싸우툴 움말, 타우라

방송 국립방송, 아덴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2월 7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9년 5월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6월에는 우리 나라가 민주예멘에 경제적원조를 줄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1971년 4월에는 우편업무에 관한 협정,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 우리 나라 중앙방송위원회와 민주예멘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국사이에 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분야에서 서로 협조할데 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1974년 11월 22일에는 우리 나라가 민주예멘에 경제및기술적협조를 줄데 대한 협정, 1975년 12월 20일에는 두 나라 정부사이에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 1975년 12월 22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1969년 5월 5일에는 민주예멘조선친선위원회가, 1977년 6월 29일에는 예멘조선친선및조선통일지지협회가 각각 결성되였다.

1972년에는 민주예멘에 우리 나라의 원조로 농기구수리공장이 건설되였으며 1975년 10월에는 제5도메이파하좌르관개공사가 준공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 존경하고 흠모하고있는 민주예멘인민들은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등을 뭇고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학습하고있다.

1977년 1월에 진행된 우리 나라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내놓은 새로운 구국방안을 지지하여 민주예멘조선친선위원회는 련대성전문을 보내여왔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예멘평화및련대성리사회와 예멘조선친선및조선통일지지협회는 7월 15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으며 7월 17일에는 공동주최로 아덴에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기 위한 군중대회를 성대히 진행하였다. 7월 10일 아덴부속품혁명공장에서도 예멘조선친선및조선통일지지협회의 주최로 군중집회가 진행되였다.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

가 채택된 때로부터 두돐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예멘조선친선및조선통일지지협회는 11월 14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977년 2월에 대통령리사회 위원장 특사, 4월에 민주예멘조선친선협회서기장, 5월에 아덴종합대학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9월에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민족전선통일정치조직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또한 이해에 조선로동당대표단(1월), 조선중앙통신사대표단(12월)이 민주예멘을 방문하였다.

토 이 기

(토이기공화국)

넓이 78만 576km²
인구 4,019만 7,000명(1975년)
수도 앙까라(주민 257만 2,000명, 1975년)

자연 및 주민

아세아의 서쪽 소아세아반도에 자리잡고있다. 나라의 대부분(96.9%)은 아세아주에 있으나 일부분은 구라파의 발칸반도 남쪽끝에 있다. 높은벌과 산지가 많다.

대륙성 및 지중해성 기후가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여름은 서늘하고 겨울은 따스하며 비도 많이 내린다. 봄에는 가무는것이 특징이다. 1977년 여름에 보기드문 열풍과 무더위가 이나라를 휩쓸었다. 남부지역에서는 기온이 69°C까지 올랐다.

주민은 80%가 토이기사람이며 그밖에 쿠르드사람, 희랍사람, 그루지야사람 등이 있다.

공용어는 토이기어이다.

정 치

토이기는 1923년 10월 29일 군주제도를 뒤집어엎고 부르죠아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 반동당국은 파쑈독일과 《우호호상불가침조약》을 맺고 파쑈독일을 적극 도왔으며 전후에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졸개로서 침략적인 《나토》(1952년)와 《쎈토》(1955년)에 끼여들었다.

또한 놈들은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5천명의 고용병을 보내여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적대행위를 저질렀다.

토이기인민들은 미제의 침략적인 군사기지의 철폐, 미제와 맺은 예속적인 협정의 폐기 등을 요구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렸다. 인민들의 반미투쟁기세에 눌린 토이기정부는 1970년대를 전후하여 점차 미제에 대한 의존정책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안되였다.

토이기정부는 1969년에 미제침략군의 전파탐지기지를 철폐하였으며 1975년 7월에는 토이기에 대한 미국의 무기수출금지조치에 불만을 품고 자기 나라에 있는 미제침략군의 군사기지들을 모두 접수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미국선박의 토이기항만 리용의 금지, 미제침략군비행기들의 토이기상공비행의 제한, 미군 및 그 가족들에게 주었던 특전 및 치외법권을 없애버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1977년 6월 5일 총선거가 진행되였다. 총선거에서 인민공화당이 승리하여 6월 21일 인민공화당 당수 에쩨비트를 총리로 하는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그러나 국회의 신임투표에서 패배하여 에쩨비트정부는 총사직하고 7월 21일 정의당, 구국당, 국민행동당의 련립정부가 다시 구성되였다.

12월 31일 국회의 신임투표에서 련립정부가 또다시 패배하고 1978년 1월 5일 인민공화당 당수 에쩨비트를 총리로 하는 정부가 겨우 구성되였다.

1977년에 토이기는 쏘련과 경제협조발전에 관한 협정과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3월), 이란, 파키스탄과 경제, 기술, 문화 등 분야들에서 협조를 확대할데 대한 협정(5월)을 각각 맺었다.

대국민회의 상하량원제, 상원 187석(그중 150명은 선거, 15명은 대통령이 임명, 22명은 종신), 임기 6년, 2년마다 의원의 3분의 1을 선거, 1978년 6월 50명의 의원을 다시 선거(인민공화당 27석, 정의당 21석, 구국당 1석 각각 차지), 하원 450석, 임기 4년, 1977년 6월 총선거 진행, 인민공화당 213석, 정의당 189석, 구국당 24석, 국민행동당 16석, 공화신임당 3석, 민주당 1석, 무소속 4석 각각 차지

대통령 국가원수로서 상하량원합동회의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거되며 임기는 7년, 대통령 파흐리 코르류르크(1973년 4월—)

정부 1978년 1월 5일 인민공화당정부 구성, 총리 뷸렌트 에쩨비트, 외교부장 군두즈 오크쿤, 국방부장 하산 에사트 이시크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1920년 9월에 창건, 1925년에 비법화, **로동당, 인민공화당, 정의당, 구국당, 국민행동당, 공화신임당, 민주당, 로조련맹, 진보로조련맹**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70%이상이 농사한다. 부침땅은 2천 500만정보이며 그 70%이상은 지주와 부농들이 가지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강냉이, 콩, 담배, 목

화, 아열대과일 등이다. 알곡은 기술의 락후성, 비료부족 및 자연재해로 정보당수확고가 낮으며 그 생산량은 해마다 오르내린다. 담배와 목화는 주요수출작물이다. 1975년에 19만 3천톤의 담배와 48만톤의 목화가 생산되였다.

농업에서 축산업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 나라의 앙고라종 염소털은 가늘고 길며 광택이 나는것으로서 질이 좋다.

공업에서 기본은 광업과 경공업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석탄, 크롬, 동, 철, 망간, 수은, 연, 아연, 원유, 류황 등이다.

채취공업에서 기본은 석탄, 크롬, 원유 생산이다. 1974년에 69만 4천톤의 크롬, 2만 9천톤의 동, 320만 9천톤의 원유를 생산하였다.

경공업에서 중요한것은 가치담배, 섬유, 종이, 유리, 양탄자 생산이다. 이 나라의 양탄자는 세계적으로 이름이 높다.

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의 총길이는 8천 135키로메터정도이다. 주요항구는 이즈미르, 이스딴불이다.

주요수출품은 농산물과 광물이다. 목화, 잎담배, 말린포도와 동, 크롬, 광석 등이 수출총액의 70%를 차지하고있다. 주요수입품은 금속제품, 기계, 화학제품, 원유제품 등이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과 미국이다.

주민의 3분의 2가 글을 모른다.

주민의 99%가 회교도(순니파)이다.

출판보도; 통신 아나똘리에통신, 토이기통신

신문 울루스, 쭘 후리예트, 후리예트, 예니 사바, 아달레트, 데일리 뉴스

방송 앙까라방송, 토이기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끼 쁘 로 스

(끼쁘로스공화국)

넓이 9,251km²
인구 64만 5,000명(1973년 12월)
수도 니코시아(주민 11만 8,000명, 1973년)

자연 및 주민

끼쁘로스는 지중해의 동쪽에 있는 섬나라로서 아세아, 아프리카, 구라파의 3대륙을 련결하는 바다배길에 놓여있다.

기후는 지중해성기후로서 겨울에는 습하고 따뜻하며 여름에는 대단히 덥고 메마르다. 한해평균기온은 20.5°C, 한해강수량은 500mm이다.

주민은 희랍계주민(78%)과 토이기계주민(18%)이며 그밖에 아르메니야사람, 아랍사람, 유태사람 등이 있다.

공용어는 희랍어와 토이기어이나 영어도 쓴다.

정 치

끼쁘로스는 1960년 10월 1일 영제국주의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나 독립하였다.

독립후 끼쁘로스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간섭과 분렬책동으로 말미암아 민족들사이의 류혈적인 충돌이 여러번 일어났다.

1974년 7월 15일 미제와 희랍반동들은 끼쁘로스의 극우익반동들을 부추겨 반동적인 군사정변을 일으켰다.

끼쁘로스에서 군사정변이 일어나자 토이기는 토이기계끼쁘로스사람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끼쁘로스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으며 북부지역의 40%의 땅을 강점하였다. 이리하여 끼쁘로스는 희랍계주민지대와 토이기계주민지대로 갈라지게 되였다.

끼쁘로스정부는 나라를 분렬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반대하고 나라의 독립과 령토완정을 회복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5년부터 끼쁘로스의 두주민지대대표들사이에 분쟁문제해결을 위한 5차례의 회담이 진행되였으나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1977년에 들어와서 끼쁘로스공화국대통령과 토이기계끼쁘로스 주민대표 덴크따쉬사이에 1월 27일과 2월 12일 두 차례에 걸쳐 분쟁문제해결을 위한 회담이 진행되였다. 이 회담에서는 끼쁘로스를 《2개자치제로 구성되는 련방제의 독립한 쁠럭불가담국가》로 한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3월 31일부터 4월 7일까지 1주일간에 걸쳐 오지리의 윈에서 유엔의 주최밑에 끼쁘로스의 두주민공동체대표들사이에 평화회담이 다시 진행되였다. 회담은 매개 공동체가 끼쁘로스련방공화국안에서 령토를 얼마나 차지하여야 할것인가 하는 문제와 헌법에서 중앙정부와 지역행정부들의 권한을 어떻게 규정할것인가 하는 문제에서의 의견차이로 아무런 전진도 보지 못한채 끝났다. 희랍계 주민대표는 토이기계 사람들이 인구비률에 맞게 끼쁘로스령토의 약 21%를 차지해야 한다는것과 끼쁘로스에 강력한 중앙정부를 세워야 한다는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토이기계 주민대표는 자기들이 북부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한다는것과 두지역이 각기 광범위한 자치권을 가져야 한다는것, 제한된 권력을 가진 대의제련방정부를 내와야 한다는것 등을 주장하였다.

8월 3일 끼쁘로스독립후 대통령으로 있은 마카리오스가 죽고 9월 3일 스삐로스 키쁘리아누가 끼쁘로스공화국 대통령으로 되였다. 취임연설에서 키

쁘리아누는 죽은 마카리오스의 정책을 계속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10월 8일 정부는 자립적경제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제2차2개년비상개발계획(1977—1978년)을 승인하였다.

민족리사회 일원제, 임기 5년, 총의석 50석, 희랍계주민지대에서 35명, 토이기계주민지대에서 15명을 선거, 1976년 9월 희랍계주민지대에 해당한 35개의석에 대한 선거 진행, 선거결과 민주전선당이 21석, 근로인민진보당이 9석, 사회당이 4석, 무소속이 1석을 각각 차지, 토이기계주민지대에 해당한 의석은 1974년 끼쁘로스분쟁후 비여있다.

정부 대통령은 희랍계사람, 부대통령은 토이기계사람중에서 선출한다. 대통령 스삐로스 키쁘리아누 (1977년 9월 3일—), 외교부장 죤클 그리스토피데스, 국방부장 크리스또드로즈 벤쟈민

정당, 사회단체; 근로인민진보당 1926년에 공산당으로 창건, 1941년에 근로인민진보당으로 고침, **사회당, 민주전선당(중간좌파), 민주집회당(중간우파), 국민련합당, 토이기공화당, 전끼쁘로스로조련맹, 통일민주청년조직, 녀성련맹**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로동인구의 40%가 이 부문에서 일한다. 부침땅은 약 45만헥타르이며 그의 3분의 1은 대토지소유자들과 교회가 가지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감자, 감귤류, 포도, 잎담배, 올리브 등이다. 그 가운데서 감자와 감귤류는 이 나라의 주요수출품이다.

목축업은 농업총생산액의 약 35%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양, 염소, 돼지 등이다.

공업은 아직 발전되지 못하였으며 채취공업이 기본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철, 동, 크롬, 돌솜 등이다.

비교적 규모가 큰 공장으로는 세멘트공장이 있고 그밖에 농산물을 가공하는 식료품 및 방직 공장들이 약간 있다. 경공업공장들의 대부분은 종업원이 10명도 못되는 기업체들이다.

정부는 경제건설을 위하여 제2차2개년비상개발계획(1977—1978년)기간에 총 1억 5천 500만끼쁘로스파운드를 투자할것을 계획하였다. 특히 이 기간 항구건설, 전기통신 및 농업 부문에 많은 자금이 돌려지게 된다.

운수에서 기본은 해상운수와 자동차운수이다. 철길은 없고 약 6천 400키로메터의 자동차길이 있다.

주요수출품은 철광석, 동, 돌솜을 포함한 광물류와 포도, 포도주, 감귤류, 감자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연료, 기계설비 및 수송수단, 섬유제품, 식료품 등이다.

화폐단위는 끼쁘로스파운드이다.

교육분야에서는 통일적인 정책이 실시되지 못하고 희랍계주민지대와 토이기계주민지대들에서 제각기 자기들의 민족어와 학제로 학생들을 가르치고있다.

희랍계주민은 희랍정교를, 토이기계주민은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하라브기(근로인민진보당기관지), 에트니키, 아곤, 아킨, 끼쁘로스 메일, 할킨세시, 니키, 포스, 필레페, 더 뉴스, 따네아

방송 끼쁘로스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2월 끼쁘로스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으며 1976년 6월 11일에는 조선통일지지끼쁘로스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5년 12월 17일 사회당중앙위원회 청사에서 《김일성동지의 로작연구및번역출판위원회》가 결성되였으며 12월 21일에는 사회당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주체사상토론회가 리마쏠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조선통일지지끼쁘로스위원회와 끼쁘로스조선친선협회 리마쏠지부는 1977년 4월 15일 리마쏠에서 성대한 기념집회를 가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끼쁘로스사회당 중앙위원회 집행위원이며 특별서기인 크리산 쇼스 싸비데스는 《위대한 김일성주의는 불멸의 지도사상》이라는 제목의 기념론설을 발표하였다.

1977년 1월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채택된 편지를 지지하여 끼쁘로스조선친선협회와 조선통일지지끼쁘로스위원회는 3월 4일 리마쏠에서 공동집회를 가지고 우리의 새로운 구국방안을 지지하는 성명을 채택하였다.

1977년 9월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끼쁘로스사회당대표단이 참가하였으며 이 당 특별서기인 크리산 쇼스 싸비데스가 토론하였다.

아 프 리 카

애　　급

(애급아랍공화국)

넓이 100만 1,449km²
인구 3,822만 8,180명 (1977년)
수도 까히라 (주민 840만 5,000명)

자연 및 주민

애급은 령토의 대부분이 아프리카대륙의 동북부에 있고 그 일부만이 아세아의 시나이반도에 자리잡고있다.

애급령토는 95%가 사막으로 되여있으나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나일강이 애급땅 한복판을 적시고있어 강류역과 삼각주지역에는 《지중해연안의 곡창지대》가 생겨났으며 여기서 인구의 약 97%가 살고있다.

주민의 90%이상이 아랍족이며 베드윈족, 베르베르족이 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정　　치

1517년부터 오토만제국의 한개 주로 예속되였던 애급은 1899년에 영국에 강점당하였다.

1952년 7월 23일 친영파르크왕조를 뒤집어엎고 1953년 6월 18일에 공화국을 선포한후 애급인민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들고 미제의 주구 이스라엘침략자들에게 강점된 아랍땅을 해방하기 위해 투쟁하여 왔다.

1977년에도 애급은 강점한 아랍땅에서 악랄한 파괴책동을 감행하고있는 이스라엘침략자들을 규탄하여 투쟁하였다. 애급외교부는 2월 26일 성명을 발표하여 이스라엘침략자들이 강점한 아랍땅에서 건물을 짓고 군사기지를 설치하며 아랍주민들을 내쫓고 자연부원을 략탈하는 등 비법적인 행위를 계속하고있는데 대하여 항의규탄하였다.

8월 26일에는 외교부 비망록을 발표하여 강점지역팔레스티나인민의 항쟁을 공동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세울것을 아랍나라들에 호소하였다. 비망록은 강점한 아랍땅에 유태인 《정착촌》을 조
하여 아랍땅을 영구히 강점하려는 이스라엘침략
들의 팽창주의적야망을 폭로규탄하였다.

애급대통령 무함마드 안워르 앗 사다트는 10
10월에 한 연설에서 애급의 립장이 중근동문제
평화적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나 만약 이에 배
되게 전쟁이 강요된다면 애급은 이스라엘을 반
하여 불가피하게 전쟁을 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중근동문제해결을 위해 사다트대통령이 11월
일부터 21일까지 이스라엘을 방문하였다. 방문
간 사다트대통령은 이스라엘지도자들과 일련의
담을 진행하였으며 이스라엘국회에서 연설하였ㄷ
그는 연설에서 자기의 방문이 《공정한 장기적
평화를 수립하기 위한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이스라엘총리 베긴이 12월 25일부터 26
까지 애급을 방문하여 사다트대통령과 회담하
다.

12월에 애급, 이스라엘, 미국, 유엔의 4개 대
단이 참가하는 중동평화까히라예비회의가 진행
였다.

애급은 12월 5일 수리아, 리비아, 이라크, 알
리,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끊기
결정하였다.

7월에 애급군대와 리비아군대사이에 국경충돌
있었다.

1977년에 애급은 영국핵잠수함이 아무런 예고
없이 수에즈운하를 마구 통과하려는것을 단호
거부하였으며 영국의 이런 행위를 남의 나라의
주권과 안전을 짓밟으려는 행위로 규탄하였다.

1977년에 애급은 수리아와 무역협정(1월), 일
과 두 나라에서 개인투자의 호상보호와 장려에
한 협정 (1월), 말레이시아와 무역의 촉진, 경
협력 및 문화교류의 3개협정(1월), 수단과 호상
위조약(1월), 중국과 장기무역협정과 장기지불
정(3월), 핀란드와 경제및기술협조에 관한 협
(3월), 쏘련과 문화,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ㅈ
소말리아와 항공운수협조협정 (5월), 니제르와
건, 농업, 교육 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협정
월), 서독과 재정원조협정 (6월), 로므니아와
전소 건설에 관한 협조협정 (7월), 프랑스와 기
협정(8월)을 맺었으며 중국 (3월), 쏘련 (3
과의 1977년도 무역의정서에 각각 조인하였다.

1977년에 애급 수도 까히라에서 아랍나라
교부장들의 회의 (1월), 제1차 아랍아프리카수
자회의 (3월), 제13차 팔레스티나민족회의 (3월
아랍련맹 외교부장회의 (9월), 애급과 수단긴

제1차 량국합동인민회의 (10월), 제5차 아랍통신사련맹회의 (1월) 가 진행되였다.

또한 제9차까히라국제도서전람회 (1월～2월), 제10차까히라국제상품전람회 (3월), 제2차국제영화축전 (10월)이 열렸다.

1977년에 애굽 대통령 사다트가 서독 (3월), 미국 (4월), 로므니아 (10월), 이란 (10월), 사우디아라비아 (11월), 수리아(11월)를 방문하였다.

1977년에 챠드최고군사리사회위원장, 말레이시아총리(1월), 요르단국왕 (1월, 7월, 11월), 유엔사무총장(2월), 수리아대통령 (2월), 에스빠냐국왕(3월), 뉴질랜드총리 (4월), 로므니아대통령(5월), 미국무장관 밴스(8월, 12월), 수단대통령(8월), 방글라데슈대통령(9월),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위원장 (10월), 인도네시아대통령(10월), 소말리아대통령 (11월)이 애굽을 방문하였다.

인민회의 일원제, 의석은 360석(그중 350명은 선거, 10명은 대통령이 임명), 현 인민회의는 1976년 11월에 선거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국회의 해산권과 부대통령, 총리 임명권을 가진다. 6년 임기로 선거된다. 대통령 무함마드 안워르 앗 사다트(1970년 10월—, 1976년 9월 다시 선거됨)

정부 1976년 11월 10일 새로 구성, 1977년 1월과 10월에 내각을 일부 개조, 총리 맘두흐 쌀렘, 외교부장 모함메드 이브라힘 카멜(1977년 12월—)

정당, 사회단체;아랍사회주의동맹 1962년 6월 인민력량전국대회의 결정에 따라 1957년 11월에 조직된 민족련맹이 발전적으로 해산되고 1963년에 창건되였다. 광범한 민족전선의 역할을 하는 대중적정치조직이다. 위원장 무함마드 안워르 앗 사다트, 1977년 7월에 이전 지도기관을 해산하고 475명으로 새로운 지도기관을 구성, 그중 360명은 인민회의 의원, 11명은 사회 및 정치활동가이다.

경제, 사회문화

독립후 애굽 정부와 인민들은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에즈운하를 비롯하여 제국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공장들과 농장 및 기타 시설들을 국유화하였다.

공업총생산량에서 국유화한 공업부문 생산량이 80%이상을 차지한다.

주민의 60%가 농사를 하며 국민소득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몫은 약 30%, 수출총액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몫은 약 62%에 달한다.

부침땅은 약 300만헥타르이다.

주요농작물은 목화, 벼, 강냉이, 밀, 옥파 등이다. 그중 목화는 이 나라 농업생산의 기본을 이루고있으며 농민의 약 70%가 목화농사를 하고있다.

1973년에 목화는 52만톤, 벼는 270만톤, 사탕수수는 770만톤, 밀은 214만톤(1974년) 생산되였다.

애굽은 1977년에 새 5개년경제개발계획(1978—1982년)을 세웠다. 이 기간에 총투자액은 140억애굽파운드이다.

농업의 기계화에 힘을 넣고있는 애굽에서는 1977년에 농촌기계화 5개년계획을 세우고 뜨락또르의 수입을 늘이는 한편 뜨락또르생산을 1976년의 3천대로부터 4천 700대로 늘였다.

이해에 서부사막지대에 있는 까따라부근에서 해마다 6억 8천 600만립방메터의 물을 뽑아 관개에 리용할수 있는 지하물주머니를 찾아냈다.

또한 이스마일리아항구도시에 과일 및 남새 생산 기지가 꾸려졌다. 남새생산면적은 1976년의 1만 2천페단으로부터 1980년에 8만페단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 나라에서는 이해에 바다에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것과 함께 호수들을 양어장으로 만들고 땅이 나빠 농사짓기에 불리한곳들에는 인공호를 건설하는 등 담수양어사업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었다. 특히 다깔리아도에 있는 만잘라호 호수가 좋은 양어기지로 꾸려졌다.

1977년에 많은 공장, 기업소, 발전소들이 건설되였다.

포드사이드에 하루 2톤의 경금속을 가공할수 있는 첫 금속가공공장을 비롯하여 옷, 편직물, 신발, 건재 및 가정용품, 식료품생산공장 등 9개의 공장이 건설되였다. 아부자아발시에 해마다 20만톤을 생산하는 철근생산공장이 건설되였다. 이해에 포드사이드에 46메가와트 능력의 2개의 발전기를 가진 가스발전소가 건설되였으며 이스마일리아시에서 도시주민들에게 전력을 보장하는 새 가스발전소건설이 시작되였다.

1977년에 수에즈만 북부에 있는 라스슈까이르지방에서 새로운 원유매장지가 발견되였다.

1977년 첫 9개월동안에 1976년 같은 기간에 비해 311만 6천톤 더 많은 1천 550만톤의 원유를 생산하였으며 이 기간에 830만톤의 원유가 가공되였다.

이해 지질탐사에 많은 힘이 돌려진 결과 여러가지 광물들과 지하자원들을 찾아냈다.

아부타르타우르지방에서 13억톤의 매장량을 가진 린회석광맥이, 엘바하리야 철광산부근에서 3개의 전망성있는 린회석매장지를 새로 발견하였다. 또한 나일강 삼각주 북쪽에서 200평방키로메터의 천연가스밭이 발견되였다. 천연가스매장량은 350억립방메터이며 매일 425만립방메터의 천연가스가 생산되고있다.

1977년에 나일강삼각주와 시나이반도를 련결하는 지하도건설사업이 활발하였다. 수에즈운하 수면에서 43메터 깊이에 104메터 너비로 수에즈운하밑을 가로지르게 되는 이 지하도는 총연장길이가 4.29 키로메터이다.

또한 알렉산드리아와 마뜨루호를 련결하는 288키로메터의 도로공사, 시와 오아시스와 마뜨루호를 련결하는 300키로메터의 도로공사, 까히라부근의 꼼옴보와 아스완의 에드프를 련결하는 도로가 새로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와 철도운수가 기본이다.

수출총액에서 목화를 비롯한 농산물과 그 가공품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공업제품수출에서 55%는 실과 천이며 농산물수출에서 70%는 목화이다.

린광석, 원유, 망간, 돌소금 등도 수출한다.

주요수입품은 기계류, 화학제품, 금속제품 등이다.

이 나라에서는 6년제무료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문제가 법령으로 채택되였다. 1981년까지 모든 학령아동들을 초등학교에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나가고있다. 1977년에 학령아동의 83%가 학교에 다녔다.

출판보도; 통신 멘통신

신문 알 굼후리아(정부기관지), 알 아흐람, 알 아흐바르, 알 메싸, 에집션 가제트, 쥬르날 에집트, 알 칼라즈, 알욤

방송 애급방송, 중동방송, 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3년 8월 24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이에 앞서 1961년 7월에는 령사관계를 맺었다.

1957년 12월에는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972년 9월에는 문화 및 보건 협정을 각각 맺었다. 1969년 2월에 애급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을 축하하여 애급잡지 《알 말루왈티자라》 1977년 4월호가 특간호를 발행하였으며 애급신문 《알 아흐바르》 4월 15일호가 기념론설을 발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국가주석으로 높이 추대되신데 대하여 12월 15일 애급의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이 널리 보도하였으며 신문들인 《알 굼후리아》, 《쥬르날 에집트》 12월 16일호가 크게 보도하였다.

1977년 12월 9일 우리 나라와 애급사이에 1978년도 상품류통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1977년 3월에 열린 제10차까히라국제상품전람회 우리 나라 상품전람관을 애급총리 맘두흐 쌀렘이 돌아보았으며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1977년에 우리 나라 경제대표단(9월)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아랍사회주의동맹대표단(3월), 애급아랍공화국 정부무역대표단(12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7년 9월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애급 《알 굼후리아》신문 부주필 참가하였다.

리비아

(리비아아랍사회주의인민공동체)

넓이 175만 9,540Km²
인구 244만명(1975년)
수도 타라불스(주민 73만 5,083명)

자연 및 주민

북아프리카대륙의 북쪽지중해에 면하고있는 비아는 령토의 98%가 반사막과 사막이며 었다. 계절의 차이와 그리고 낮과 밤의 차이 심하며 매우 메마른 열대사막성기후이다.

다만 북쪽바다가 지대만은 여름에 덥고 마트 겨울에는 따뜻하다.

평균기온은 1월에 북부가 11~12°C, 남부 15~18°C이며 7월에 북부가 27~29°C, 남부 32~35°C이다.

한해비내리는량은 북부에서 400~625mm, 남 및 동부에서 100mm이다.

이 나라에는 사철 흐르는 강은 없으나 깊지 은 땅속에 물이 많아 샘물이 솟아오르는 오아시 들이 많은데 여기는 땅이 기름지고 식물이 잘 라므로 주민들이 여기에 몰켜살고있다.

주민의 90%가 아랍사람들이며 그 밖에 흑인 이딸리아사람 등이 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정 치

리비아는 19세기초에 토이기에 강점되여 오토 제국에 편입되였다가 1911~1912년의 이딸리아 토이기전쟁의 결과 이딸리아의 식민지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영국, 프랑스 제국주 자들에게 강점되였다가 1951년 12월 24일 련합 국으로 독립하였다.

1969년 9월 1일 혁명을 일으켜 1951년이래 정 을 잡고있던 이드리스1세 봉건왕조를 뒤집어엎 리비아아랍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혁명지도리사 를 수립하였다.

1976년 11월 리비아아랍사회주의동맹 제3차대 에서 나라이름을 리비아아랍인민공화국으로 고 기로 결정하였다.

1977년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쎄브하시에 최고주권기관인 총인민대회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 채택된 《인민정권제도》 수립에 관한 령에 의하면 최고권력기관이던 혁명지도리사회

해체되고 나라의 모든 권력은 인민의 수중에 넘어가게 된다. 회의에서는 나라 이름을 리비아아랍사회주의인민공동체로 바꾸고 모아메르 엘 가다피를 리비아아랍사회주의인민공동체 총인민대회 총비서로 선거하였다. 또한 총인민대회는 각료리사회를 페지하고 새로 전국인민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977년 9월 전국인민위원회는 자기 나라에 기여들어 략탈행위를 일삼던 두개의 미제석유독점회사 《텍사코 오일》과 《에이셜 콤퍼니—캘리포니아》를 국유화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77년 10월 전국인민위원회는 중요한 경제과업들을 해결하기 위한 일련의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결정들에 의하면 나라의 사회경제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직업기술교육망을 전면적으로 발전시킬것과 또한 녀성들을 사회생활에 참가시키기 위하여 전문학교와 강습소들을 세워 부기원, 간호원, 초등학교 교원으로 양성할것을 예견하고있다.

리비아는 반제적인 대외정책을 계속 실시하고있다.

리비아총인민대회 총비서는 1977년 10월에 한 기자회견에서 리비아는 제국주의와 인종주의를 반대하여 계속 적극적인 투쟁을 벌릴것이며 팔레스티나해방운동을 지지하는것을 대외정책의 주요한 부분으로 간주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977년 리비아수도에서 《제인민간의 평등한 경제적관계를 위하여》라는 구호밑에 국제대학생토론회(1월)와 제8차회교도나라 외교부장회의 (5월)가 진행되였다.

이해 1월에 리비아총인민대회 총비서가 또고를 방문하였다.

한편 유고슬라비아대통령(1월), 말레이시아총리(1월), 말따총리(2월), 꾸바총리(3월), 빠나마정부수반(4월), 모잠비끄대통령(5월), 콩고대통령(6월)이 리비아를 방문하였다.

이해에 리비아는 웽그리아와 보건협조협정(1월), 파키스탄과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협조협정(2월), 보쯔와나와 경제, 기술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3월), 스리랑카와 경제및재정협조에 관한 협정(3월), 단마르크와 경제, 공업, 과학 및 기술협조협정(6월), 에티오피아와 무역, 문화, 경제 및 기술 분야에서의 일련의 협정들을 맺었다.

리비아는 1977년 3월에 타이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총인민대회 최고주권기관이다. 총비서 모아메르 엘 가다피 (1977년 3월 2일—)

전국인민위원회 (정부적기능을 수행한다.) 1977년 3월 2일 26명으로 구성, 위원장 아브델 아티 알 아비디, 외교비서 알리 아브둘 쌀람 앗 투레이키

정당, 사회단체; 총인민대회총비서국이 당적기능을 수행한다. **로동조합총련맹, 학생동맹, 녀성동맹**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원유공업으로서 국민총생산액의 83%를 차지한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유생산국이며 탐사된 원유매장량은 55억톤이다. 1977년에 9천 110만톤의 원유를 생산하였다. 리비아국영석유회사가 나라의 총원유생산의 70%를 통제하고있다.

1969년 혁명이후 리비아에서는 자기 나라에 있던 외래제국주의석유독점회사들의 약 3분의 1을 국유화하였으며 아직 국유화되지 않은 회사들도 국가의 엄격한 통제밑에 있다.

리비아는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일면성을 극복하고 경제를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고 민족공업의 토대를 마련하며 농업을 발전시킬것을 기본과업으로 하는 경제발전 5개년계획(1976—1980년)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있다.

계획실행에 들어선후 1977년까지 이 나라에서는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3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조업하였다. 이 중에는 나라의 첫 야금공장을 비롯하여 천연가스공장, 원유가공공장, 화력발전소, 방직종합공장, 물고기통졸임공장들이 있다.

1977년현재 이 나라 공업총생산액에서 국영부문이 차지하는 몫이 80%에 이르고있다.

정부는 수산업발전에도 큰 힘을 넣어 미스라타시에 리비아에서 가장 큰 어항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1977년현재 이 나라에는 20여척의 뜨랄선이 있다.

건설부문에서도 지난 7년동안에 20만세대의 살림집이 건설되였으며 학교, 병원, 기관 등 공공건물들이 많이 일떠섰다.

리비아에서는 국가적건설을 확대하는 방법과 함께 협동적 및 사적 살림집건설에 국가가 대부금을 주는 방법으로 살림집문제를 해결하고있다.

농촌개조사업이 성과적으로 진척된 결과 리비아의 농업은 급속히 발전하였다. 농촌에서의 개조사업은 대국영농장을 조직하며 협동화운동을 발전시키는 두개 방향에서 진행되고있다. 농촌개조사업에 의하여 이전에 메마른 지역들이였던 주프라와 페짠에 국영농장들이 조직되여 리비아에서 알곡, 우유, 고기 생산의 중심지의 하나로 되고있다.

리비아에서는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하여 알곡생산을 더욱 늘이기 위한 관개공사를 진행하며 새땅을 얻어내기 위한 사업이 여러곳에서 진행되고있다.

1977년까지 개간한 땅은 60만헥타르에 달한다. 1976년에 사하라사막지대에서는 3천헥타르의 새땅을 얻어냈다. 1975년에 200개의 관개시설이 건설되였다.

한랭전선의 영향으로부터 오는 피해를 막기 위하여 1천 663개의 크고작은 우물을 팠으며 5개년

계획기간에 344개의 우물을 더 팔것을 계획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땅콩, 올리브, 야자, 포도 등이다.

주요집짐승은 락타, 염소, 양 등이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주요수출품은 원유, 땅콩, 올리브기름, 집짐승, 가죽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천, 운수수단 등이다.

1977년 새학년도에 초등및중등학교들에서 80여만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초등및중등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다.

리비아에는 1977년현재 약 2천명의 의사가 있으며 1만 4천 696대의 침대를 가진 61개의 병원이 있다.

가족수가 많은 사람들에 대한 보조금제, 유급휴가제 등 여러가지 사회적혜택들이 제정되고있다.

국교는 회교이다.

출판보도;통신 아랍혁명통신(아르나)

신문 알 사우라(전국인민위원회기관지), 알 호르리예, 알 뜨라, 알욤, 알 발랴그, 트리폴리 미러, 알 무싸와르, 알 나하르, 알 하즈를 쟈디드

방송 리비아라지오및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12월 26일 우리 나라와 무역대표부를 호상교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974년 1월 23일에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7년 7월 6일 우리 나라와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경제협조에 관한 합의서와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1977년에 리비아아랍사회주의인민공동체 정부대표단(7월), 농업대표단(10월), 기계체조선수단(7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이 해에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8월),직맹대표단(3월), 조선학생위원회대표단(1월), 친선문화대표단(6월), 평양예술단(10월)이 리비아를 방문하였다.

수　단

(수단민주주의공화국)

넓이 250만 5,813Km²

인구 1,775만 7,000명(1975년)

수도 하르툼(주민 32만 1,700명)

자연 및 주민

아프리카에서 령토가 제일 큰 나라인 수단은 동아프리카의 북쪽에 자리잡고 애급, 리비아, 챠드, 중앙아프리카, 자이르, 우간다, 케니아, 에티오피아와 국경을 같이하고있으며 북동쪽은 홍해를 끼고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사막지대이며 홍해연안과 남부에 산지대가 약간 있다.

더위가 유명하다. 중부지방의 한해평균기온이 28°C라고 하지만 최고 52°C까지 오른다.

주민은 아랍사람, 누비아사람, 아프리카흑인 등 500여종족으로 구성되여있다.

북부와 중부에는 회교도가 많고 남부에서는 지방종교와 기독교를 믿는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정　치

1877년부터 영국의 식민지였던 수단은 인민들의 독립을 위한 투쟁으로 1953년에 자치정부를 세웠으며 1956년 1월 1일 독립을 선포하였다.

1969년 5월 25일 수단군 장교들이 혁명을 일으켜 니메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혁명지도리사회를 조직하였으며 수단민주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5월혁명승리후 수단 정부와 인민은 《사회주의수단》건설을 목표로 내세우고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기 위하여 제국주의독점체들을 국유화하는 등 진보적조치를 취하였다.

1977년 1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수단사회주의동맹 제2차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새 중앙위원회를 선거하고 경제사회발전 6개년(1977—1983)계획을 채택하였다.

대회는 대외정책에 언급하여 아랍—아프리카통일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수단인민이 인종주의와 폭력을 반대하여 싸우는 나미비아, 짐바브웨, 남아프리카 인민들의 편에 확고히 서있다는것을 강조하였다.

1977년 5월 29일 수도 하르툼에서 청소년궁전개관식이 있었다.

1977년에 니메리대통령이 오만(3월), 소말리아(3월), 중국(6월), 사우디아라비아(8월), 애급(8월)을 방문하였으며 자이르대통령(7월), 소말리아대통령(11월)이 수단을 방문하였다.

1977년에 수단은 애급과 호상방위조약(1월), 중국과 1977년도 무역의정서 (3월), 경제및기술협조협정(6월)에 조인하였다. 2월에는 수단, 애급, 수리아합동정치사령부를 설치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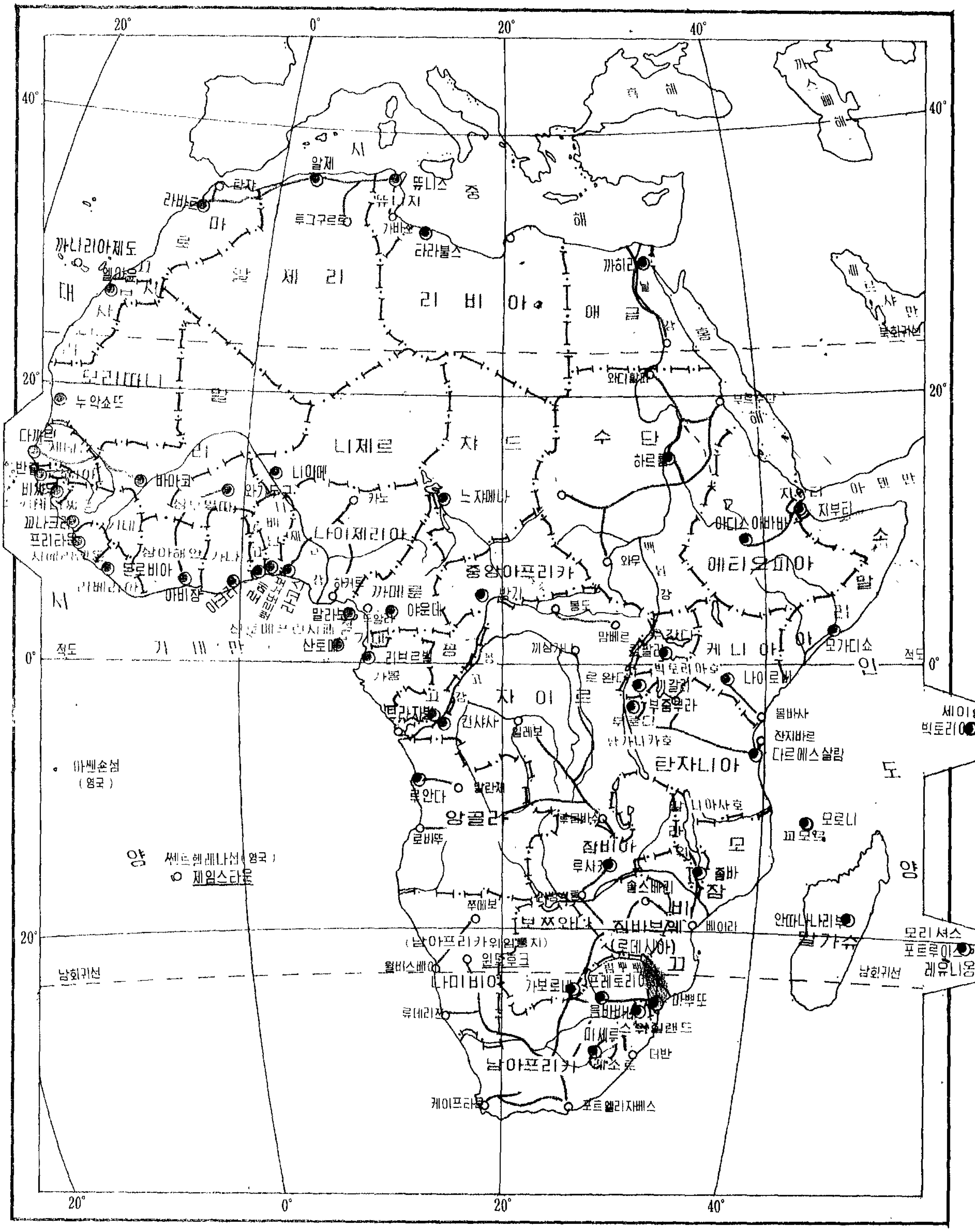
11월에 수단은 리비아와 다시 외교관계를 맺기로 결정하였다.

인민회의 최고립법기관, 1972년 조직, 의원수 250명

대통령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 (1971년 10월—), 임기 6년

정부 1973년 5월 10일 구성, 1977년 9월 내각개

아 프 리 카



20°
0°
20°
40°
40°
20°
0°
20°
흑 해
까 스 삐 해
알제
뚜니스
라바트
마 록
알 제 리
리 비 아
까히라
애 급
라라불스
까나리아제도
대
서
누악쇼뜨
니제르
차 드
수 단
하르툼
나이메
바마코
카노
느자메나
나이제리아
중앙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지부티
아 덴 만
모가디쇼
케 니 아
나이로비
라고스
아비쟝
아크라
말라보
야운데
리브르빌
적도
가 네 만
자 이 르
킨샤사
몸바사
잔지바르
다르에스살람
탄자니아
인
도
양
세이쉘
빅토리아
아쎈숀섬
(영국)
양
쎄트헬레나섬(영국)
제임스타운
루안다
앙골라
로비뚜
잠비아
루사카
모로니
마다가스까르
안따나나리부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레유니옹
나미비아
빈트후크
월비스베이
남회귀선
남회귀선
보쯔와나
가보로네
프레토리아
마뿌또
더반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포트엘리자베스
베이라

조, 총리 자파르 모하메드 니메리(1977년 9월—), 외교부장 엘 라쉬드 엘 따히르 바크르

정당, 사회단체; **수단사회주의동맹** 1972년 1월 10일에 창건된 유일한 정치조직, 위원장 쟈파르 모하메드 니메리(1977년 2월 재선), **청년동맹**, **전국녀성대회**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목축업이며 주민의 80%가 이 부문에서 일한다.

농업은 이 나라 총생산액의 약 80%, 수출총액의 95%를 차지한다.

주요농작물은 목화와 아라비아고무이며 그밖에 땅콩, 수수, 사탕수수, 참깨, 강냉이, 밀, 보리, 조, 콩 등이다. 목화생산량은 아프리카에서 제2위이다. 아라비아고무는 세계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있다.

혁명승리후 수단정부는 묵은땅을 갈아 새땅을 얻는 사업과 관개공사를 힘있게 벌리는 등 농업발전에 큰 힘을 넣었다.

또한 정부는 농업의 일면성을 극복하고 농촌경리를 여러모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목화와 아라비아고무생산을 더 늘이는 한편 사탕, 커피, 차, 밀, 강냉이, 벼, 땅콩, 바나나, 레몬, 담배 농사도 발전시켜나갔다.

1974—1975회계년도에 밀생산량은 35만 4천톤이였으며 1975년에 목화생산량은 67만톤이였다.

수단은 아프리카에서 집짐승을 많이 기르는 나라들중의 하나로서 주로 유목민들이 소, 양, 염소, 락타, 말, 노새 등을 기른다.

공업에서 기본은 채취공업이며 주요광물은 금, 망간, 돌소금, 크롬, 철광석, 마그네사이트, 석고 등이다.

국민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12%이다.

나일강의 많은 폭포를 리용하여 수력발전소들이 많이 건설되였으며 원유가공공장, 야금공장도 있다. 또한 70여개의 식료가공공장이 있다. 목화를 원료로 하는 방직공업이 발전하였는데 해마다 1억메터의 면직물을 생산한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와 철도운수가 기본이다. 자동차길과 철길은 주로 지중해기슭의 도시들을 련결하고있다.

주요철길은 수도 하르툼을 거점으로 한 3개방향으로 련결되여있다. 1977년에 하르툼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140마일 뻗은 큰 도로가 건설되였다.

주요수출품은 목화, 아라비아고무를 비롯한 농산물과 축산물이며 목화는 수출총액의 70%를 차지한다. 주요수입품은 설비, 일용품, 식량 등이다.

교육부문에서는 혁명승리후 《교육의 민주화》, 《모든 공민들에게 교육의 권리를 부여》라는 구호를 들고 문맹퇴치운동을 벌렸다.

혁명승리후 소학교 1천개, 중고등학교 180개가 늘어났으며 기계공학기술학교, 농업기술학교, 건축기술학교 등 고등학교들이 새로 건설되여 자체의 민족기술인재들을 길러내고있다.

보건부문에서도 1973년에 병원수는 1969년의 77개로부터 122개로 늘어났으며 천연두환자가 거의 없어졌다.

출판보도; **통신** 수단통신, 하르툼통신

신문 알 싸하파(정부기관지), 알 아얌, 알 라이 알암, 앗 수단 알 쟈디드, 모닝 뉴스, 알 아호바르, 나일미러

방송 수단방송, 수단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4월 23일 우리 나라와 령사관계를, 6월 21일에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9년 4월 13일에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5년 5월 14일에 수단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0년 8월 니메리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5돐을 기념하여 신문 《알 아얌》 4월 15일호가 기념특집을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높이 추대되신데 대하여 신문 《알 아얌》 12월 17일호가 특집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특사가 1977년 1월에 수단을 방문하였다. 1977년에 조선로동당대표단(1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6월)이 수단을 방문하였으며 수단청소년궁전지도교원대표단(9월), 수단청소년궁전총국장(12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7년 9월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수단사회주의동맹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뜌 니 지

(뜌니지공화국)

넓이 16만 4, 150Km²

인구 558만 8,000명(1977년)

수도 뜌니스(주민 79만명)

자연 및 주민

튜니지는 아프리카의 북쪽에 자리잡고있는 리비아, 알제리와 잇닿아있으며 북쪽과 동쪽은 지중해에 면해있다. 나라의 약 절반이 사막지대이다.

한해평균기온은 7월에 25~33°C, 1월에 5~12°C이며 한해비내리는량은 북부에서 700mm, 남부에서 200mm이하이다.

주민의 90%이상이 아랍족과 베르베르족이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정 치

튜니지는 1837년부터 프랑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881년 5월에는 프랑스의 《보호령》으로, 1883년 6월에는 그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1956년 3월 20일 독립하고 1957년 7월 25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3년 10월 15일 비제르따기지에서 프랑스침략자들을 마지막으로 몰아내고 제국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토지들과 수력발전소, 교통기관을 국유화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1964년 5월 외국인들의 토지를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고 프랑스독점체 《모른》회사에 속한 27만정보의 땅을 몰수하였다.

1972년에 석유채취 및 가공 공업을 지도하며 이 부문에 요구되는 민족간부를 양성하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맡아보는 새로운 국영석유회사를 창설하였으며 1975년 8월에는 비제르따석유정제공장과 아지쁘윤활유공장을 국유화하기로 결정하였다.

1977년 10월 튜니지민족회의에서는 사회경제발전 5개년계획(1977—1981년)을 승인하였다.

1977년 3월 20일 카르타고에서 튜니지독립 21돐을 기념하는 경축행사가 진행되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각종 전람회를 비롯한 경축행사들이 진행되였다.

튜니지정부는 대외적으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를 반대하는 팔레스티나와 아랍 인민들의 의로운 투쟁과 아프리카민족해방투쟁 특히 남부아프리카에서의 무장투쟁을 지지하고있다.

1977년 3월 한 연설에서 튜니지대통령은 오직 팔레스티나인들만이 자기들에게 맞는 중요한 결정을 채택할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튜니지는 팔레스티나혁명을 지원할것이라고 말하였다.

1977년 튜니지의 수도에서는 제2차아랍나라 공업부장회의(11월), 쁠럭불가담나라정부간 보도조정위원회 제1차회의(2월), 팔레스티나작가및기자총련맹 제2차대회 (3월)가 진행되였다.

이해 4월 튜니지총리가 쏘련을 방문하였다.

튜니지는 1977년에 이라크(3월)와 문화협조협정, 수리아(5월)와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민주예멘(11월)파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민족회의 일원제, 의석 112석을 데스트르사회당이 차지, 임기는 5년

공화국리사회 나라의 최고심의기관으로서 데스트르사회당 정치국위원들과 정부성원들로 구성된다.

대통령 하비브 부르기바(1957년 7월—, 1975년 3월 민족회의에서 종신대통령으로 임명)

정부 1977년 12월 26일 내각 개조, 총리 헤디 누이라(1974년 9월—), 외교부장 모하메드 퍼투리

정당, 사회단체; 데스트르사회당(집권당) 1934년에 창건, 당수 하비브 부르기바, 총비서 헤디 누이라, **공산당** 1920년 프랑스공산당 지부로 되였다가 1934년에 독자적인 당으로 창건, 1963년에 비법화, **로동자총련맹, 농민련맹, 청년동맹, 녀성련맹**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75%가 농사를 하고있다. 농업생산액은 국민소득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농사를 지을수 있는 땅은 약 900만헥타르이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강냉이, 감자, 콩, 목화, 사탕무우 등과 수출작물인 올리브, 귤, 포도, 대추, 담배, 남새, 알파초(종이원료) 등이다.

튜니지정부는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하여 농작물파종면적을 늘이고 관개공사를 진행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있다.

독립후 튜니지에서는 15개의 저수지를 건설하고 3천여개의 우물을 팠는데 이 관개시설들을 리용하여 1977년현재 1956년에 비하여 2배나 많은 농경지에 물을 대주고있다.

정부는 농업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현5개년계획 (1977—1981년)기간에 전 4개년계획(1973—1976년)기간보다 130% 더 많은 자금을 돌리기로 결정하였다.

5개년계획기간에 식료품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며 공업설비의 생산을 늘이고 뒤떨어진 지역들을 추켜 세울것을 예견하고있다.

계획기간에 국민총생산의 한해평균장성률은 7.5%에 달하게 되며 이 계획기간에 투자총액은 42억 튜니지디나르에 달하게 된다.

1975년에 식량은 129만톤 생산되였으며 1976년에는 11만 9천톤의 사탕무우와 4천 500여톤의 담배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공예작물을 거두어들이였다.

밀 다음가는 주요농작물인 감자의 파종면적은 1975년에 1만헥타르였으며 그 생산량은 10만 5천

론이였다.

독립후 정부는 물이 없던 사막지대를 관개하여 올리브나무밭을 새로 조성하는 조치들을 취한 결과 올리브나무수는 5천만그루에 달하며 올리브기름생산량은 한해 13만톤수준에 이르고있다.

목축업은 이 나라 농업생산액의 약 25%를 차지하며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락타, 말 등이다. 뚜니지의 쏘우쎄지역에서 많은 집짐승을 기르고 있는데 1977년현재 양은 13만마리, 소는 9천마리 있다. 이 지역의 먹이밭면적은 1976년에 3천 400헥타르였다.

공업에서 기본은 채굴공업이며 린회석, 철광석, 아연, 연, 원유, 돌소금 등이 채굴된다.

린회석매장량은 약 120억톤이며 그 생산량은 1974년에 390만톤으로서 세계주요생산국의 하나로 되였다.

1977년현재 이 나라에는 1천여개의 공장, 광산, 기업소가 있으며 특히 원유화학공업, 세멘트공업, 비료공업, 동력공업 등 중공업부문기업소들과 방직공업, 종이공업을 비롯한 경공업부문기업소들이 여러곳에 일떠서서 돌아가고있는데 공장들은 주로 국내의 풍부한 자연부원에 의거하고있다.

방직공업이 발전함에 따라 이 부문 로동자, 기술자수는 1976년에 2만 8천명에 달하였는데 이것은 1972년보다 배나 더 많은것이였다.

공장들에서의 제품생산도 늘어나고있다.

1976년에 이 나라에서는 1만 5천 900여톤의 종이, 390만톤의 원유 그리고 2개의 세멘트공장에서 79만 3천톤의 세멘트를 생산하였다.

운수에서는 철도와 해상 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의 총길이는 2천키로메터이다.

이 나라에서는 1976년에 항구들을 통하여 980만톤의 화물을 처리하였다.

주요수출품은 올리브기름, 린회석, 원유, 철광석, 연, 알파초, 농산물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설비, 각종 공업제품, 식량 등이다.

민족교육발전을 위한 일련의 진보적조치들이 취해진 결과 1976년현재 초등학교수는 독립후 초기의 933개로부터 2천 346개로, 중등학교수는 80개로부터 183개로 늘어났다.

1959년 첫 대학인 뚜니지종합대학이 창설된 이후 이 나라에는 19개의 대학과 연구소들이 련이어 일떠섰다.

1976년에 대학생수는 약 3만명이였으며 1977년현재 학생들의 총수는 125만명에 이르고있다.

회교가 국교이다.

출판보도;통신 뚜니지아프리카통신

신문 악송, 알 아말(데스트르사회당기관지), 아랄레아(공산당기관지), 아스샤바호(청년동맹기관지), 러땅, 쥬르날 오피씨엘 뚜니지엥, 알 사바흐, 라 쁘레쓰 더 뚜니지

방송 뚜니지방송, 뚜니지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5년 7월 16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7년에 조선로동당대표단(2월), 정부대표단(3월), 사로청대표단(1월), 평양예술단(10월)이 뚜니지를 방문하였다.

조선로동당대표단은 2월 18일 데스트르사회당총비서인 뚜니지공화국 총리 헤디 누이라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표시하면서 데스트르사회당 총비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하비브 부르기바대통령의 열렬한 인사와 위대한 수령님의 만수무강과 행복을 축원하는 우리의 인사를 전해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의 통일문제에 언급하여 한 나라 인민이 갈라져 살수 없다고 하면서 조선은 반드시 조선인민자신의 손에 의하여 통일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알 제 리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

넓이 238만 1,741Km²
인구 1, 825만명(1978년 1월 1일)
수도 알제 (주민 164만명)

자연 및 주민

북아프리카의 지중해기슭에 있는 알제리는 뚜니지, 리비아, 말리, 니제르, 모리따니, 마로끄와 잇닿아있다.

북부해안지대는 지중해성기후로서 1월평균기온은 12°C, 7월평균기온은 25°C이다. 남부의 사하라사막지대는 메마르고 무덥다. 7월에는 32～～36°C이다.

한해 비내리는량은 북부에서 500～1,200mm, 남부사막지대에서는 50mm이하이며 비가 전혀 오지 않는 지역도 있다.

주민의 97%가 아랍족과 베르베르족이며 이밖에 프랑스사람, 이딸리아사람 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정 치

알제리인민은 7년 5개월간의 무장투쟁을 통하여 132년간에 걸친 프랑스식민지통치를 짓부시고 1962년 7월 5일 민족적독립을 쟁취하였으며 이해 9월

25일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76년 11월 알제리를 사회주의국가로 규정한 새 헌법이 채택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7년 7월 4일 알제리독립 15돐에 즈음하여 후아리 부메디엔대통령에게 보내신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래동안의 무장투쟁을 통하여 나라의 독립을 이룩한 알제리인민은 각하의 올바른 령도밑에 나라의 자주권을 튼튼히 지키면서 공업혁명, 농업혁명,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켜왔으며 최근시기 새로운 국가기구체계를 내오고 사회주의건설과정을 촉진시키는데서 더욱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1977년 2월 25일 첫 민족인민회의 선거가 진행되였다. 4월 1일 민족인민회의 회의에서 이 나라 대통령은 최근 10년동안에 나라의 지도부가 현대적인 국가를 건설하며 과학적인 계획화에 기초한 경제정책을 작성하며 식민주의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사회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주목을 돌려왔다고 지적하고 1978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4개년계획기간에는 의료봉사와 살림집건설에 대한 투자를 늘이며 인민경제에서 불균형을 없애는데 커다란 힘을 돌리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977년에 알제리인민은 자력갱생의 원칙에서 공업혁명, 농업혁명,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키며 알제리민족헌장에 규정된 사회주의건설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감으로써 제2차 4개년계획(1974—1977년)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정부는 1971년 11월 발포된 《토지혁명법》의 5단계에서 제1단계와 제2단계가 성과적으로 수행되고 1977년에는 제3단계과업이 진행되였다.

이미 이룩한 공업화의 토대를 공고확대하는것을 중요과업으로 내세운 제2차4개년계획의 공업혁명도 성과적으로 진척되였다.

대외정책에 언급하여 1977년 4월에 이 나라 대통령은 알제리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반제로선을 실시할것이며 민족과 혁명의 최고리익을 지침으로 삼을것이라고 말하였다.

1977년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서 문화활동가들의 국제반제대회(10월)와 자유와 독립을 위한 팔레스티나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하여 국제교원회의(4월), 제1차아랍아프리카로조대회(10월) 등이 진행되였다.

1977년 7월에 알제리대통령이 애급을 방문하였으며 이해에 꾸바총리(3월), 베네수엘라대통령(7월), 까메룬대통령(7월), 콩고대통령(10월), 유고슬라비아대통령(10월), 니제르국가수반(11월), 말따총리(12월)가 알제리를 방문하였다.

이해에 알제리는 4월에 말따와 해상운수협조에 관한 협정을, 7월에는 뽈스까와 우편및원거리통신협조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동쁠파는 1977—1978년도 과학문화협조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혁명리사회 최고지도기관으로서 1965년 6월 19일조직, 11명으로 구성, 의장 후아리 부메디엔(1965년 6월—)

민족인민회의 (국회) 1977년 2월 25일 선거 진행, 대의원 261명, 임기 5년, 의장 라바호 비타트

대통령 알제리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은 국가수반이며 무장력의 최고령도자로 된다. 임기는 6년이며 민족해방전선에 의하여 추천된다. 대통령 후아리 부메디엔(1976년 12월 10일—)

정부 1977년 4월 21일 17명으로 구성, 대통령이 정부수반을 겸한다. 외교부장 아브델 아지즈 부떼플리까

정당, 사회단체; 민족해방전선 집권당이며 유일당, 1954년 8월에 창건, **근로자총동맹, 전국청년동맹**(1975년 5월에 창립), **알제리옛투사회, 전국녀성동맹, 전국농민동맹**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농업과 원유를 비롯한 채취공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민의 70%가 농업분야에서 일한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포도, 귤, 강냉이, 귀밀, 담배, 올리브, 남새 등이다.

1975—1976회계년도에 290만톤의 알곡과 1만 7천톤의 올리브기름이 생산되였다.

1975년에 밀은 89만 9천톤, 보리는 36만 4천톤, 귀밀은 38만 2천톤 생산되였다.

포도재배면적은 농경지의 5%밖에 안되나 농업총생산액의 3분의 1을 차지하며 그것은 이 나라의 주요수출품으로 되여있다.

농업혁명의 제3단계과업이 성과적으로 추진된 결과 1977년현재까지 국유화된 땅의 면적은 약 120만헥타르에 달하고있으며 11만명의 농민들이 새땅의 주인으로 되였다. 농촌의 곳곳에 여러가지 형태의 협동조합들이 무어지고있는데 1977년현재 그 수는 6천개에 달하고있다.

알제리인민은 농업부문에서 한랭전선에 의한 피해를 막고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크고작은 저수지들을 비롯한 관개시설들을 건설하는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고있다. 결과 건설된 저수지들의 물저장능력은 수억립방메터에 달하고있으며 최근년간에만 하여도 2천 300헥타르의 반사막지대에 물을 대여 좋은 땅으로 만들었다.

한편 농업을 과학기술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곳에 농업연구기관들이 창설되여 운영되고있다. 그리하여 이 나라에서는 알곡을 비롯한 남새, 기름작물, 과일, 축산물 생산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목축혁명》이라고 불리우는 농업혁명의 제3단계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먹이밭들을 국유화

하여 목축업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목축협동조합들을 조직하여 목축업자들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결과 므씰라도에서만도 협동조합이 조직된 때로부터 1년이 되는 1977년현재에 와서는 모든 목축업자들에게 1만디나르의 리익금을 분배해줄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이다.

동, 서, 중부 지역에 창설된 가금업기지들에서는 1년동안에 1만 1천 400여톤의 닭고기와 1억개의 소비용 닭알을 생산하고 1천 600만마리의 병아리를 깨우고있다.

주요공업부문은 원유채취업을 비롯한 광업과 농산물가공공업이다.

원유채취업은 이 나라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현재 아프리카에서 리비아다음가는 원유생산국으로 되여있다.

공업총생산액에서 채취공업이 3분의 2를 차지하는데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이 위주로 되고있다.

1977년에 5천 350만톤의 원유와 100억립방메터의 가스를 생산하였는데 이것은 1976년보다 원유는 6.7%, 가스는 10% 늘어난것으로 된다. 알제리는 지난 4~5년동안에 해마다 6~7개의 원유발을 새로 발견하였다. 이 나라에서는 1976년에 74만톤의 세멘트와 1975년에 386만톤의 철광석, 2만 4천 400톤의 아연이 생산되였으며 해마다 175만톤의 선철, 154만톤의 압연강재, 220만톤의 강철을 생산하고있다.

1977년에 알제리에서는 경제발전 제2차4개년계획(1974—1977년)이 끝났다.

이 기간에 국민총생산액은 400억디나르 더 늘어 700억디나르에 이르렀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와 철도 운수가 기본이며 사막지대에서는 락타와 말 등이 중요한 운수수단으로 되여있다. 자동차길(6만키로메터)파 철길(4천 500키로메터)은 주로 바다가지대와 마로끄, 뜌니지철도와 이어져있다.

해상운수도 발전하여 1976년에 45척의 현대적인 여러가지 배들을 가지고있었다. 1977년에 지중해연안의 주요항구들의 개건 및 확장공사가 진행되였다.

국영 쏘나트람운수회사에서는 약 5천만디나르를 투자하여 알제항에 두개의 새로운 부두를 건설하고있으며 이 나라에서 두번째로 큰 항구인 오랑항에서도 개건확장공사가 진행되고있다.

1976년에 해상을 통하여 아프리카나라들과 진행한 무역총량은 6만 3천톤에 달하였다.

해상운수는 이 나라 총수송액의 17%를 차지한다.

주요수출품은 원유, 가스, 철광석, 포도술, 귤, 올리브, 가죽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섬유제품, 기계, 사탕 등이다. 수출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몫이 90%이상이다. 1976년에 4천 500만톤의 원유를 수출하였다.

정부는 교육의 《민주화》, 《알제리화》를 실현할데 대한 방침을 내세우고있다. 1977년에 예산의 20%를 교육부문에 돌렸다.

1977—1978학년도에 인민학교학생수는 290만 4천명, 중학교 학생수는 68만명, 고급중학교 학생수는 13만명이였다.

이 나라에는 알제종합대학, 오랑종합대학 등 3개의 종합대학파 32개의 기술단과대학이 있으며 여기에서 3만 7천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1977년현재 대학생수는 6만명이다.

1977년현재 도병원은 7개, 군병원은 30개, 진료소는 159개 그리고 의사수는 4천여명이다. 일부 지역들에서는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다.

정부는 살림집을 더 많이 건설하기 위하여 1977년에 도시살림집건설예산을 전해보다 150% 늘이였다. 도합 1천개의 사회주의농촌마을을 건설하여 농촌살림집문제를 해결할것을 계획하고 1973년 6월 17일에 첫 사회주의농촌마을건설을 시작한지 5년동안에 전국의 31개도에 58개의 사회주의농촌마을들을 건설하였다. 1966~1976년간에만도 20만세대의 다층주택이 건설되였다.

건설된 사회주의농촌마을에는 학교, 병원, 회관, 상점 등 편의봉사시설들과 문화시설들이 갖추어져 있다.

또한 1987년까지 전국적으로 96%에 해당하는 살림집들에 전기를 넣기 위한 사업이 벌어지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아빼에쓰

신문 엘 무자히드(민족해방전선및정부기관지), 알 샤아브(정부기관지), 안나스르, 라 레쀼블리끄, 레볼류씨옹 에 트라바이 (근로자총동맹기관지), 유니떼(청년동맹기관지), 알제리 악뜌알리떼

잡지 레볼류씨옹 아프리깬(민족해방전선기관지), 엘 제이슈(민족인민군기관지), 엘자자이리아(녀맹잡지)

방송 알제리방송, 알제리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8년 9월 2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4년 9월 16일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0월에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976년 10월 7일에는 장기무역협정을 맺었다.

1977년 12월 5일 우리 나라와 보건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높이 추대되신데 대하여 알제리신문 《엘 무자히드》 1977년 12월 17일호는 《김일성각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으로 다시 추대되시였다》라는 제목을 달고 널리 보도하였으며 이에 앞서 이 나라 방송도 이 소식을 전하였다.

알제리잡지 《엘 제이슈》 1977년 8월호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글을 실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및정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1975년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알제리민주인민공화국을 공식국가방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1974년 3월에 알제리혁명리사회 의장인 후아리 부메디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7년에 알제리상품전람회대표단(3월)과 탁구선수단(8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이해 9월에 우리 나라 사로청대표단이 알제리를 방문하였다.

마 로 끄

(마로끄왕국)

넓이 44만 6, 550km²(이프니 포함)
인구 1, 780만명(1977년)
수도 라바트(주민 70만명)

자연 및 주민

마로끄는 아프리카대륙의 서북단에 자리잡고 북쪽은 지중해, 서쪽은 대서양을 마주하고있으며 남쪽은 알제리, 서부사하라와 잇닿아있다.

대부분지역이 지중해성기후이며 장마철은 10～4월기간이다. 서부의 벌방지대와 높은벌지대는 대체로 따뜻하나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세며 남부사막지대는 덥고 메마르다.

주민의 대부분은 아랍족과 베르베르족이며 그밖에 프랑스, 에스빠냐, 유태 사람 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다.

정 치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마로끄는 1956년 3월 2일 독립을 쟁취하였다. 이해 4월 7일 에스빠냐령 마로끄가 이에 귀속되였으며 10월 26일에는 탄제르지역에 대한 《국제관리》가 철페되였다. 1957년 6월에 마로끄는 프랑스치외법권을, 1963년 6월에는 미제의 군사기지를 철폐하였다.

마로끄는 1962년 12월 첫 헌법을 제정하고 립헌왕국으로 되였으며 1969년 1월 4일 에스빠냐령 이프니를 통합함으로써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였다.

서부사하라인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마로끄는 에스빠냐와 《마드리드협정》을 꾸며내여 1976년 1월에 서부사하라의 15만～17만평방키로메터의 지역을 강점하였다.

1977년 6월 마로끄에서 7년만에 처음으로 진행된 총선거에서 친정부계무소속파가 승리하였다. 이에 앞서 1월에는 33개 주 및 시 의회선거가 진행되였다.

1977년 6월에 마로끄는 모리따니와 최고합동방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해 1월에 마로끄총리가 모리따니를 방문하였으며 애급대통령(7월)과 이란총리(1월)가 마로끄를 방문하였다.

국회 일원제로서 의원은 264명이며 임기는 6년, 총의원수의 3분의 2(176명)는 직접선거, 그 나머지는 간접선거, 1977년 6월에 선거된 국회의원중 140명은 왕궁파 무소속이 차지하였다.

국왕 물라이 하싼 2세(1961년 3월—), 국가수반이며 군총사령관이다. 1970년 헌법에 의하여 국왕이 총리와 내각성원들을 임명하거나 해임할수 있고 국회를 해산시킬수 있다.

정부 1977년 10월 새 내각 구성, 총리 아흐메드 오스만, 외무담당국무부장 하메드 부쎄따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프랑스공산당지부로 조직되였다가 1943년 독자적인 당으로 창건, **이스티클랄당**(독립당), **인민운동당**, **인민력량사회주의동맹**(좌익야당), **립헌민주인민운동당**, **행동당**, **진보및사회주의당**, **로동련맹**, **근로자총련맹**, **로동청년동맹**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농업, 축산업, 광업이 기본을 이루고 있다.

로력인구의 85%가 농사를 하며 국민총생산액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몫은 35%이다. 부침땅은 700만헥타르이상이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강냉이, 벼, 목화, 올리브, 포도, 대추야자, 감귤류 등이다. 밀, 보리, 강냉이 밭이 씨붙임땅의 85%를 차지한다. 1975년에 강냉이 37만 1천톤, 올리브 30만 3천톤, 포도 28만톤, 대추야자 9만 4천톤 생산하였다.

남부 높은벌지대에서는 소, 양, 염소, 말, 당나귀 등의 집짐승을 많이 기르고있다.

공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몫은 이 나라 총생산액의 3분의 1이며 주되는 부문은 채취공업이다.

린회석매장량은 300억톤으로 추산된다. 린회석채굴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제2위를 차지하며 이 나라 채굴공업생산액의 70%에 달한다.

1975년에 린회석 1천 411만 9천톤, 망간 13만 1천톤, 코발트 1만 4천톤 생산되였다. 이밖에 철광석, 연, 아연, 석탄, 석유, 동 등이 생산된다.

1973년부터 시작된 경제발전 5개년계획기간 공업부문에 11억 3천만디르함이 투자되였다.

교통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자동차운수가 기본

이다. 철길은 1천 750키로메터, 도로는 2만 4천여키로메터에 달한다.

주요수출품은 린산염, 망간 등 광물류와 감귤류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천, 식량, 기계, 차, 사탕을 비롯한 식료품 등이다.

교육의 《아랍화》를 위하여 민족간부양성사업을 추진시키며 민족문화를 건설하고있다. 4개의 대학이 있다.

회교가 국교로 되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마그레브아랍통신

신문 알 알람(이스티클랼당기관지), 오삐니옹(이스티클랼당기관지), 레삐띠뜨 마로끄, 라 비지 마로끄, 알 안바아(공보부신문), 알 마그레브, 알 아라비, 아방가르드, 사무뜨 알 마그레브, 팔라스띤, 알끼파흐, 알 와따니, 알 바얀

방송 마로끄방송, 마로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5년 5월 2일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다.

서부사하라

(사하라아랍민주주의공화국)

넓이 26만 6,000km²
인구 117만명 (1975년)
수도 엘 아윤 (주민 5,300명)

자연 및 주민

서부사하라는 아프리카의 서북부 마로끄의 서남쪽에 있다.

이 나라는 기온의 차이가 심하며 평균기온은 35~40°C, 지어는 75°C까지 올라가는 때가 있다. 비는 극히 적게 내리며 (한해평균 250~500mm) 전혀 비가 오지않는 해도 있다.

주민은 베드윈족과 베르베르족으로 구성되여 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와 베르베르어이다.

정 치

서부사하라는 15세기중엽부터 뽀르뚜갈, 프랑스, 에스빠냐 식민주의자들에게 강점당하였다가 19세기말 20세기초에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되였다.

서부사하라를 강점한 에스빠냐침략자들은 이 나라를 한개 《아프리카주》로 선포하고 1만 5천명의 침략무력의 부추김밑에 총독통치를 실시하였다.

1970년대초에 결성된 뽈리싸리오전선의 지도밑에 이 나라 애국자들은 60자루의 총을 가지고 첫 무장대오를 조직하였으며 1973년부터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벌렸다. 그러나 서부사하라문제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자들의 간섭과 침략 책동으로 하여 매우 복잡하여졌다.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은 서부사하라인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1975년 11월 14일 서부사하라를 분할하여 이양할데 대한 이른바 《마드리드협정》을 꾸며냈다. 이 협정에 따라 마로끄와 모리따니가 서부사하라를 강점하였다.

서부사하라인민들의 오랜 기간에 걸치는 투쟁에 의하여 93년간의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의 통치가 끝장나자 마로끄가 서부사하라의 엘 아윤과 린광산지인 부끄라지방을 비롯하여 15만~17만평방키로메터에 달하는(북위 24도선이북)지역을 강점하였고 모리따니는 서부사하라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이며 항구도시인 빌라씨스네로스이남의 대서양에 면한 중요도시들을 비롯하여 약 10만~13만평방키로메터의 지역을 차지하였다.

뽈리싸리오전선은 알제리국경지역으로부터 19키로메터 떨어진 마호베스를 중심으로 알제리 및 모리따니와 접한 지역을 차지하였다.

뽈리싸리오전선은 이러한 정세하에서 1976년 2월 27일에 사하라아랍민주주의공화국을 선포하고 3월 5일에는 모하메드 라민 울드 아호메드를 총리로 하는 정부를 구성하였다.

뽈리싸리오전선의 지도밑에 서부사하라인민들이 개시한 해방투쟁은 1977년에 더욱 강화되였다.

서부사하라의 전략적위치와 풍부한 자연부원에 눈독을 들인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은 사하라아랍민주주의공화국을 없애치우려고 공모결탁을 강화하였으며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11월 사하라인민해방군과 인민들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였다.

제국주의자들의 부추김밑에 마로끄와 모리따니당국은 서부사하라를 병합하기 위한 군사정치적공모결탁을 더욱 강화하였다.

1977년 5월 마로끄와 모리따니 두 나라가 《호상방위조약》을 맺은후 6월에는 《최고합동방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두 나라의 군사령부들을 통합하기로 하였다.

이해 11월 마로끄왕은 사하라인민해방무장력의 전투행동이 《알제리정규군》에 의한것인듯이 묘사하면서 《알제리국경을 침입》하겠다고까지 떠들었다.

알제리는 마로끄가 알제리국경을 침범하면 《침략으로 간주》할것이며 그것은 마로끄에 《파국적인 영향을 줄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혁명지도리사회 1976년 8월 9명의 성원으로 구성, 의장 모하메드 아브델 아지즈(뽈리싸리오전선 총비서)

민족리사회 립법권과 자문권을 가진다. 1976년 8월 41명의 성원으로 구성

정부 총리 모하메드 라민 울드 아호메드(1976년 3월 5일—), 외교부장 하킴 이브라힘

정당, 사회단체; **뽈리싸리오전선**(서부사하라해방인민전선) 총비서 모하메드 아브델 아지즈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목축업이며 인구의 절반이상이 유목민이다. 주요집짐승은 락타, 염소, 양이다.

오아시스부근에서 보리와 기장을 심는다.

이밖에 수산부문에서는 물고기잡이와 바다풀채취를 한다. 대서양연안에서는 왕새우도 많이 잡는다. 작은 물고기통졸임공장들이 몇개 있다.

최근 몇해사이에 서부사하라의 부크라지방에서 17억톤으로 추산되는 큰 린산염매장지 개발이 시작되였다.

주요지하자원은 원유, 철광석, 동, 석탄, 카리염 등이다. 주로 베드윈족은 유목생활을 하며 베르베르족은 오아시스주변에서 농사와 물고기잡이를 한다.

오랜기간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문화수준이 낮고 주민의 대부분이 문맹자이다.

출판보도; **신문** 사하라리브르

방송 사하라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6년 3월 16일 우리 나라 정부가 사하라아랍민주주의공화국을 승인하였다.

이해 7월 17일 사하라아랍민주주의공화국 해방지역인 옴드레이가에서 조선통일지지사하라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7년 5월 뽈리싸리오전선창건 4돐기념 행사에 조선로동당 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이해 9월에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사하라아랍민주주의공화국 정부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모 리 따 니

(모리따니회교공화국)

넓이 103만 700km²
인구 132만명(1975년)
수도 누악쇼뜨(주민 13만명)

자연 및 주민

모리따니는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대서양연안에 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사막과 반사막지대이다.

기후는 열대성기후로서 메마르고 무더운 날씨이다.

남부지방의 일부에서 한해동안 400~500mm의 비가 오는 정도이고 그밖의 지방은 거의나 비가 오지 않는다.

주민의 대부분이 베르베르족이며 나머지는 흑인이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며 프랑스어도 쓴다.

정 치

1920년에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던 모리따니는 1958년 11월 28일에 《프랑스공동체》안의 자치공화국으로 되였으며 1960년 11월 28일에는 《프랑스공동체》안에서 민족적독립을 쟁취하고 회교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모리따니는 1961년 5월에 새 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제를 내왔으며 이에 기초하여 같은해 8월에 독립후 첫선거를 진행하였다.

1976년에 서부사하라에 대한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의 통치가 끝장나자 모리따니는 서부사하라에서 두번째로 큰 도시이며 항구도시인 빌라씨스네로스이남의 대서양에 면한 중요도시들을 비롯하여 약 10만~13만평방키로메터의 지역을 차지하였다.

1977년에 이 나라 대통령이 말리(1월)와 중국(4월)을, 로므니아대통령이 2월에 모리따니를 방문하였다.

민족회의 일원제, 1976년 8월에 선거, 의석수는 50석이고 임기는 5년, 인민당이 전의석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5년, 대통령 모크타르 울드 다다호(1961년—, 1976년 8월 다시 선거됨)

정부 대통령이 정부수반을 겸한다. 1977년 8월 4일 새 정부 구성, 외무담당국무부장 함디 울드 무크나쓰

정당, 사회단체; **인민당** 집권당이며 유일당, 1961년 12월 4일에 4개의 정당이 통합되여 성립, 총비서 모크타르 울드 다다호, **근로자동맹**, **인민당청년최고리사회**, **인민당녀성최고리사회**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축산업이며 그밖에 광업과 수산업 등이 있다.

주민의 70%이상이 축산부문에서 일하고있으며 축산물이 농업총생산액의 70%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락타 등이며 이밖에 말, 노새 등도 많이 기르고있다.

이 나라의 전체 부침땅은 30만헥타르이다. 주요농작물은 수수, 조, 보리, 콩, 강냉이, 대추야자, 아라비아고무, 담배 등이다.

공업은 매우 뒤떨어져있으며 광업이 기본으로 되여있다. 주요지하자원은 철광석, 동, 원유, 크롬, 주석, 니켈, 돌소금 등이다.

해마다 1천만톤의 철광석과 1만 5천톤의 석고를 생산한다.

가공공업인 축산물가공공업을 비롯한 식료품공업이 수도 누악쇼뜨에 배치되여있다.

물고기는 해마다 약 30만톤정도 잡는다.

운수수단으로서 철광석산지와 동광산지에서 항구까지를 련결하는 철길(680키로메터)이 있고 이 나라 남북을 련결하는 도로가 있다. 사막지대에서는 락타, 말, 노새가 운수수단으로 리용된다. 누악쇼뜨와 네마를 련결하는 1천키로메터는 포장도로이다.

주요수출품은 철광석(수출총액의 80%), 집짐승을 비롯한 축산물과 아라비아고무, 대추야자, 돌소금, 농수산물가공품 등이다. 주요수입품은 각종 기계류와 운수수단, 원유제품, 식료품, 생활필수품, 원료 등이다.

교육분야에서 《모리따니화》가 실현되고 교원들이 전반적으로 모리따니사람으로 교체되고있다.

보건분야에서 1975년에 11명의 의사와 300여명의 간호원, 120명의 보조간호원이 있었다.

독립후 누악쇼뜨의 민족병원을 비롯한 8개의 병원이 건설되였으며 전국에 72개의 진료소, 13개의 이동치료대가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모리따니통신

신문 앗 샤아브(인민당기관지), 삐뿔, 쥬르날 오피씨엘

방송 모리따니국립방송

말 리

(말리공화국)

넓이 124만km^2

인구 584만명 (1976년)

수도 바마코(주민 35만명)

자연 및 주민

서아프리카의 중부 사하라사막의 서부지대에 있는 말리는 알제리, 모리따니, 세네갈, 기네, 상아해안, 상부볼따, 니제르와 잇닿아있다.

기후는 몹시 무덥다. 한해평균기온은 35°C, 최고 60°C이다.

한해평균비내리는량은 북쪽사막지대에서 100 mm, 기타 지역에서 700mm이다.

이 나라에서는 몇년째 심한 가물이 들었다.

주민은 밤바라족, 프리니족, 마르카족, 송가이족, 말린케족 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며 그밖에 여러 종족어들이 쓰이고있다.

정 치

말리는 1959년 4월에 세네갈과 통합하여 《말리련방》을 형성하고 1960년 6월 20일에 《프랑스공동체》안에서 독립하였다.

1960년 8월에 세네갈이 《말리련방》에서 떨어져나가자 수단으로 불리우던 나라 이름을 말리로 고치고 9월 22일에 말리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8년 11월 19일 군인들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모디보 케이타정권을 전복하고 군사정권을 수립하였으며 헌법을 폐지하고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을 해산하였다.

말리정부와 인민은 독립후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외래제국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회사와 은행, 공장과 농장들을 국유화하였으며 이와 함께 금, 망간을 비롯한 자연부원들을 적극 개발하고 새 공장들을 많이 일떠세웠다.

말리에서는 3개년계획(1971～1973년)을 수행한 후 새 5개년계획(1974～1978년)을 세우고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

말리국가수반은 1977년 1월 20일 말리군대절에 즈음하여 한 연설에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체의 힘에 의거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있다》고 말하였다.

말리는 쁠럭불가담원칙에 기초한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면서 피압박인민들의 반제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아랍과 아프리카의 긴밀한 협조를 실현하며 아프리카에서 식민주의를 종국적으로 청산하고 아프리카대륙의 완전해방과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말리국가수반은 1977년 4월 30일 전국 인민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식민주의자들과 남부아프리카의 인종주의 파쑈정권들을 완전히 없앨때까지 이 지역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977년 3월에 말리—세네갈협조공동위원회 제2차정기회의가 말리수도 바마코에서 진행되였다.

6월에 말리는 기네와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협조에 관한 합동위원회를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해 2월에 프랑스대통령이 말리를 방문하였다.

민족해방군사위원회 1968년 11월에 창설된 최고기관, 립법권을 행사한다. 위원장 무싸 뜨라오레

정부 국가수반 겸 정부총리 무싸 뜨라오레(1968년 11월—), 외무 및 협조부장 샤르레스 쌈바 씨쏘꼬

정당, 사회단체; **인민민주동맹** 집권당, 1976년 9월에 창건, **전국근로자동맹**, **전국녀성동맹**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90%이상이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하고있으며 농업총생산액은 국민소득과 수출총액에서 70%이상을 차지한다.

주요농작물은 조, 강냉이이며 수수, 목화, 땅콩, 벼, 사탕수수, 나무감자, 고구마, 차 등도 생산된다. 약 200만헥타르의 경지면적가운데서 조와 강냉이 파종면적이 75%나 된다.

1975—1976농업년도에 수수는 100만톤, 벼는 30만톤, 땅콩은 20만 5천톤 생산되였다.

목화생산량은 서아프리카에서 제1위를 차지하고있는데 1976년에 그 생산량은 11만 3천톤에 달하였다.

말리정부는 여러해동안 지속되여온 심한 가물피해를 극복하고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수만헥타르의 땅에 물을 댈수있는 쎌링베수리동력종합시설건설에 힘을 넣고있다.

또한 5개년계획기간(1974—1978년)에 총투자액의 33%를 농업부문에 돌리고 이 기간에 식량과 식료품에 대한 국내수요를 자체로 보장하는 문제를 주요과업의 하나로 제기하고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탕수수를 심는 운동을 전국적범위에서 널리 벌림으로써 1983년에 가서 사탕생산량을 1977년현재 4천톤수준으로부터 7만 9천톤까지 끌어올릴 전망계획도 가지고있다.

축산업은 이 나라 국민총생산액의 23%를 차지한다. 집짐승마리수에서는 서아프리카에서 첫자리를 차지하며 주로 소, 양, 염소, 당나귀, 말, 락타 등을 유목 또는 반유목으로 기르고있다.

집짐승은 인구 한사람당 3마리가 차례진다. 큰뿔난 집짐승은 510만마리, 양과 염소는 1천만마리정도이다.

민족공업을 추켜세우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나라의 여러곳에 수력발전소들이 일떠섰으며 종합방직공장, 세멘트공장, 사탕공장, 기름공장, 고기가공공장 등 자기 나라 원료로 움직이는 30여개의 공장, 기업소들이 건설되였다. 현5개년계획기간에 세멘트공장, 방직공장, 사탕공장들이 새로 또 건설되게 된다.

운수에서는 철도와 하천 운수가 기본이다.

1977년현재 이 나라의 자동차도로 총길이는 1만 4천 700여키로메터에 달한다.

주요수출품은 목화, 땅콩 및 기름, 집짐승이며 주요수입품은 사탕, 기계설비, 부속품, 건재, 각종연료 및 기타 일용품이다.

정부는 해마다 국가예산의 15%를 교육발전에 돌려 학교들을 새로 많이 늘이고 교원들을 길러내고있다. 하나의 대학도 없었던 이 나라에 1977년현재 5개의 대학이 창립되여 2천 5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한편 전국적인 문맹퇴치운동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정부는 보건사업도 추켜세워 2개의 국립병원과 여러개의 종합진료소, 산과병원, 395개의 진료소들을 건설하였다. 모든 행정지역에 병원이 있으며 주마다에 종합진료소가 있고 군마다 진료소를 가지고있다.

정부는 자체의 보건일군들을 길러내기 위하여 수도 바마코에 중등보건학교와 의학학교를 세웠다. 그리하여 보건일군들의 90%를 말리사람으로 충당할수 있게 되였다.

주민들은 회교(65%)와 지방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말리통신

신문 에쏘르(민족해방군사위원회기관지), 부아듀 삐쁠(인민민주동맹기관지), 선봉

방송 말리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0년 10월 3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1년 7월 무역및지불에 관한 협정과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5년 10월 21일 우리 나라와 우편물교환에 관한 협정과 전기통신련락에 관한 협정, 1971년 5월 21일에는 교육, 과학, 예술, 체육, 정보 및 영화에 관한 문화협정을 맺었다.

1972년 1월 말리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으며 1975년 7월 15일에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말리지지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0년에 말리인민들은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 등을 뭇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학습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을 축하하여 말리방송은 4월 14일 특별방송을 하였으며 신문 《에쏘르》 4월 15일호는 기념론설을 실었다.

한편 1977년 12월 15일 말리방송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높이 추대되신데 대하여 널리 보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말리공화국의 민족해방군사위원회 위원장이며 국가수반 겸 총리인 무싸 뜨라오레각하가 1976년 5월에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였다.

1977년 9월에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말리공화국 정부대표단이 참가하였다.

감 비 아

(감비아공화국)

넓이 1만 1,295km²
인구 54만명(1976년)
수도 반줄 (주민 3만 9,476명)

자연 및 주민

감비아는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대서양연안에 있다. 땅생김이 평탄하고 낮은 벌로 되여있는 이 나라의 기후는 열대성기후로서 한해평균 1,000~1,500mm의 비가 내린다.

1977년에 감비아는 1976년에 비해 비가 5분의 1밖에 내리지 않아 자기 나라를 가물피해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주민은 말린케족, 풀베족, 월로프족, 만딩고족 등 여러 종족들로 이루어져있다.

공용어는 영어와 아랍어이다.

정 치

1455년에 뽀르뚜갈의 식민지로, 1783년부터는 영국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던 감비아는 1965년 2월 18일 《영련방》안에서 독립하였으며 1970년 4월 24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감비아는 《평화, 진보 및 번영》의 구호밑에 제국주의식민지후과를 가시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1971년 4월에 자체의 중앙은행이 창설되였으며 7월에는 낡은 화페대신 자체의 민족화페인 《달라시》가 발행되여 나라의 재정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였다. 무역을 통제하는 국영무역회사도 창설되였다.

1973년 4월 25일 식민주의자들이 달아놓았던 수도이름 바더스트를 반쥴로 고쳤다.

1977년 4월 5일 총선거에서 집권당인 인민진보당이 승리하였다.

다우다 카이라바 자와라가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되였다(헌법에 의하여 국회의석의 대부분을 차지한 정당이 국가수반을 선출한다).

이어 대통령은 4월 9일 11명으로 구성된 새 내각을 조직하였다.

감비아정부는 대외적으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아프리카의 통일과 협조를 주장하고있으며 짐바브웨, 나미비아, 아자니아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1977년 5월에 감비아는 토고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국회 일원제의 최고립법기관이다. 1977년 4월에 진행된 선거결과 총의석 34석중 인민진보당이 27석, 나머지 7석은 야당련합이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5년, 대통령 다우다 카이라바 자와라(1970년 4월—, 1977년 4월 다시 선거됨)

정부 대통령이 정부수반을 겸한다. 1977년 4월 9일 11명으로 구성된 새 내각을 조직, 부대통령 알리에우 바다라 느지에, 외교부장 엘 케이. 자방

정당, 사회단체; 인민진보당 1959년에 창건되였으며 집권당이다. **통일당** 1951년에 창건, **민족대회당** 1975년에 조직, **민족자유당** 1975년에 결성, **인민진보동맹, 로동동맹, 로동자련맹, 전국청년조직, 녀성련맹, 교원동맹**

경제, 사회문화

나라의 경제는 수출의 95%를 차지하는 땅콩생산에 의존하고있다.

주민의 90%가 농사를 하고있으며 부침땅은 22만 1천헥타르이다.

중요한 광물자원이 없는 이 나라는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를 발전시키는 길로 나아가고있는데 수출작물과 주민용 식량생산에 힘을 넣고있다.

정부는 농민들에게 좋은 종자와 화학비료를 공급해주면서 그들이 벼, 목화, 남새를 심으며 어업과 축산업을 발전시키도록 하고있으며 벼재배면적을 늘여 자급자족할것을 계획하고있다.

1974—1975회계년도에 땅콩생산량은 13만 7천톤에 달하였다. 그밖에 야자, 조, 수수, 강냉이, 기장 등 알곡과 남새를 심고있다.

이 나라에는 27만마리의 젖소가 있으며 평균 두사람당 한마리씩 차례진다.

어업도 발전하여 1973—1974회계년도에 4천 300톤이상의 랭동한 물고기가 수출되였다.

공업부문에는 큰 공업기업소가 거의 없고 땅콩을 가공하기 위한 가공공장, 기름공장이 있다. 그밖에 원유가공, 가죽이김, 방직, 청량음료, 의혁신발, 옷 공장 등과 수력발전소가 있다.

철길은 없으며 감비아강을 리용하는 하천운수가 기본이다. 1천 200키로메터에 달하는 자동차길이 있다.

주요수출품은 땅콩, 땅콩기름, 야자씨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알곡을 비롯하여 천, 기계, 석유제품 등이다.

독립후 교육, 문화, 보건 분야에서도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감비아 뉴스 불레틴(정부기관지), 감비아 온워드, 더 감비아, 더 프로그레씨브 뉴스페이퍼, 더 감비아 아우트루크, 더 워커, 더 네이션

잡지 더 감비아 마가진

방송 감비아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3월 2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8년 6월 11일 감비아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7년 3월 24일 반줄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 감비아위원회를 결성하는 모임이 진행되였다.

이해 12월 19일 감비아신문 《더 감비아 아우트루크》는 《김일성각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주석으로 다시 추대되시였다》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이에 앞서 2월 12일 감비아전국청년조직은 우리나라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가 내놓은 새로운 구국방안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해 9월에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감비아인민진보당및정부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세 네 갈

(세네갈공화국)

넓이 19만 6,192km²
인구 511만명 (1976년)
수도 다까르 (주민 약 67만명)

자연 및 주민

대서양을 끼고 아프리카의 서쪽끝에 있는 세네갈은 북동쪽에서 모리따니, 말리, 남쪽에서 기네와 접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월로프족(30%), 풀베족, 쎄레이족, 뚜꿀레르족 등이며 약 5만명의 백인이 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나 각 종족어들도 쓰고있다.

정 치

1815년 프랑스의 완전한 식민지로 된 세네갈은 1958년 11월 25일 《프랑스공동체》안의 《자치공화국》으로 되였고 다음해 4월에 말리와 통합하여 말리련방을 형성하였다.

세네갈은 1960년 4월 4일 말리련방의 한 성원국으로 독립하였다.

1960년 8월 19일 련방회의 의장이던 쎈고르가 군사혁명을 승리적으로 이끌어 8월 20일 세네갈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세네갈 정부와 인민은 《경제적자립이 없이는 정치적독립이 있을수 없다》는 구호밑에 경제의 《세네갈화》를 적극 밀고나감으로써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을 더욱 확고히 담보해나가고있다.

독립후 세네갈정부는 도로, 철도, 항만, 물 및 전기 회사들을 국유화하였으며 령해권과 110마일의 어획구역을 확정하는 등 진보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수입에 의존하던 파일과 남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77년에 정부는 세네갈남새및파일회사(해마다 1만 1천톤씩 생산)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회사의 관리일군들가운데서 외국사람들을 세네갈사람들로 바꾸어꾸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1977년에 세네갈민족회의는 경제및사회발전 제5차5개년계획(1977—1981년)을 채택하였다.

정부는 이해 10월에 수도 다까르에서 수공업에 관한 전국토론회를 조직하였으며 수공업발전문제를 보는 세네갈수공업촉진회사를 새로 내왔다. 12월에는 다까르에서 아프리카나라들에서의 중소규모공업발전 및 창설에 관한 아프리카나라들의 토론회가 있었다.

정부는 외국배들이 자기 나라 령해에 들어와 물고기를 잡아가는 략탈행위를 막기 위해 1977년에 해군초계정의 수를 늘이는 조치를 취하였다.

나라의 대외정책에 언급하여 세네갈 총리는 이해 12월 세네갈의 대외정책이 아프리카의 단결의 원칙에 기초하고있다고 하면서 세네갈은 언제나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에 도움이 되는 모든 조치들을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1977년 1월 수도 다까르에서 아프리카민족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회사련합총회가 진행되였다. 총회에서는 선전수단을 통한 제국주의나라들의 아프리카침투를 막기 위하여 아프리카나라들이 민족라지오 및 텔레비죤 방송부문에서 행동일치강령을 작성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였다.

1977년에 세네갈은 뽀르뚜갈과 경제, 문화, 보건, 운수 및 관광 협조협정(2월), 로므니아와 운수 및 무역과 기술 및 경제협조에 관한 협정(2월)을 맺었다.

1977년에 세네갈대통령이 베르데갑(3월), 서독(5월), 이딸리아(5월), 베네수엘라(11월)를 방문하였으며 로므니아대통령 (2월), 팔레스티나해방조직위원장(6월)이 세네갈을 방문하였다.

민족회의 일원제, 의석 100석, 임기 5년, 1978년 2월 26일 민족회의선거 진행

대통령 레오뽈드 쎄다르 쎈고르(1960년—,1978년 2월 26일 다시 선거),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5년이다.

정부 총리 아브두 디우프, 외무담당국무부장 아싼 쎅크

정당, 사회단체; **사회당**(집권당) 1958년 9월 25일 창건, 총비서 레오뽈드 쎄다르 쎈고르, **아프리카독립당** 1957년에 창건, 1960년에 비법화, **전국근로자련맹**, **근로자전국련합**, **청년전국리사회**, **녀성전국리사회**, **세네갈공화운동** 1977년 8월에 조직, 당비서 부바까르 부에이예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90%가 농사를 한다.

농업에서 기본은 땅콩생산인데 수수, 조, 기장,

강냉이, 목화, 사탕수수도 심는다.

부침땅의 절반이 땅콩밭이며 땅콩생산량은 농업총생산액의 35%, 농민들의 총화폐수입의 65%, 세계땅콩생산량의 10%(4위)를 차지한다.

땅콩생산량은 1974—1975년에 85만 5천톤, 1976년에 95만톤이였다.

세네갈정부는 경제건설에서 《우리의 힘, 우리의 자원으로 민족경제를 건설하자》라는 구호밑에 중소규모공업발전에 큰 의의를 부여하고있다.

정부는 제5차5개년계획기간(1977—1981년)에 농업부문에서 식민지적단작경리의 후과를 없애며 식량에 대한 국내수요를 보장하기 위하여 농업을 여러모로 발전시키는데 모를 박고 투쟁할것을 계획하고있다.

공업부문에서는 방직공업을 비롯한 주요공업부문들을 추켜세우는 한편 지방공업, 수공업들에도 동시에 힘을 넣음으로써 국가가 나라의 시장을 틀어쥐고 나갈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심한 가물로 인한 경제적혼란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1977년에 세네갈강을 리용하는 큰 관개공사를 진행하는 한편 많은 우물들을 팠다. 1976년에 우물이 120개 있었다.

1976—1977농업년도에 4만 7천 200여톤의 목화를 땄다.

1975년에 소는 238만마리, 양은 174만 9천마리 있었다.

공업의 비중이 높아져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몫이 21.6%였다. 독립후 이 나라에는 전력, 건재, 화학 공업을 비롯한 새로운 공업부문들과 200여개의 공장들이 건설되였다.

1977년에 세네갈 남부지역에서 1억톤의 원유가 묻혀있는 새 원유매장지를 찾아냈다. 한편 수도 다까르근처에 해마다 120만톤의 원유를 가공하는 원유가공공장건설이 시작되였다.

어선대를 늘이며 수산설비를 더잘 갖추는 등 물고기생산을 늘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1974년에 34만 7천톤의 물고기를 잡았다.

정부는 물고기생산을 높이기 위하여 어선대를 늘이며 수산설비를 부단히 개선해나가고있다.

이 나라에는 3개의 다랑어 및 정어리통졸임공장을 비롯하여 20여개의 물고기가공공장이 있다.

1976년에 자동차길의 총연장길이는 1만 3천 300키로메터, 그중 포장도로는 2천 500키로메터였다. 또한 1976년에 국영해운회사가 창설되였다

주요수출품은 땅콩과 땅콩기름(수출총액의 80%이상을 차지)이며 린광석과 물고기통졸임도 수출한다.

주요수입품은 식량 및 식료품, 전기기계, 세멘트와 공업원료 등이다.

《간부의 세네갈화》방침에 의하여 1973년에 창설된 과학기술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세네갈사람들의 수는 창립당시의 불과 8명으로부터 1976—1977회계년도에 46명으로 늘었다. 1977—1978회계년도에 그 수는 77명에 이른다.

1976년에 5천여개의 소학교, 수십개의 중학교를 비롯하여 민족농업간부학교, 민족경제학교, 고등사범학교 등이 있었다.

이 나라에서는 100개의 문맹퇴치소와 한개의 전국문맹퇴치위원회가 있다.

1976년에 녀의사 및 간호원수는 560명, 조산원은 280명이였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70%)를 믿으며 기타 지방 종교와 기독교도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세네갈통신

신문 유니떼 아프리깽(사회당기관지), 앵포르마씨옹 아프리깽, 다까르 마땡, 모니떼르 아프리깽, 쏠레이, 아프리끄 누벨, 우에스트 아프리깽

방송 세네갈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9월 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4년 5월에 세네갈공화국 대통령 레오뽈드 쎄다르 쎙고르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7년 6월 10일 수도 다까르에서 세네갈조선국회친선그루빠성원들이 세네갈조선국회친선그루빠 및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세네갈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결성모임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9월에 세네갈국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9월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세네갈 다까르시 리사이며 시인인 부바까르 까마라, 중국주재 세네갈공화국 대사관 1급참사가 참가하였다.

1월에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세네갈을 방문하였다.

기네—비싸우

(기네—비싸우공화국)

넓이 3만 6,125km²

인구 53만명(1976년)

수도 비싸우(주민 3만 9,476명)

자연 및 주민

아프리카대륙의 서쪽끝, 대서양을 바라보고있는 기네—비싸우는 굴곡이 심한 해안을 가진 대륙부와 앞바다의 60여개의 작은섬들로 이루어져있다.

동북대륙지방은 덥고 메마르며 그밖의 지방은

비가 많이 온다.

주민의 대부분은 반투족이다.

공용어는 뽀르뚜갈어이다.

정 치

1879년에 뽀르뚜갈의 식민지로 된 기네—비싸우 인민들은 기네—비싸우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의 지도밑에 1961년 8월부터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벌렸다.

1972년 8월부터 10월사이에 이 나라 력사상 첫 국가주권기관인 전국인민회의선거가 진행되였다.

1973년 9월 24일에 진행된 전국인민회의 제1차회의는 헌법을 채택하였으며 《기네—비싸우국가선언》을 발표하고 나라의 독립을 선포하였다.

1977년 3월 13일 전국인민회의 제2차회의의 비상회의에서는 루이스 까브랄이 기네—비싸우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으로 다시 선거되였다.

국가리사회위원장은 3월 15일 프랑시쓰꼬 멘데스를 공화국 국가위원리사회 책임위원으로 임명하였으며 이어 공화국 국가위원들을 임명하는 국가리사회의 결정을 발표하였다.

루이스 까브랄은 한 연설에서 나라를 발전시킴에 있어서 농업에 선차적힘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1977년에 알곡생산을 늘일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한편 기네—비싸우공화국과 베르데갑공화국의 300여명의 대표들의 참가밑에 기네—비싸우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제3차대회가 1977년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비싸우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당규약이 채택되였으며 아리스떼데스 뻬레이라가 이 당 총비서로 다시 선거되였다.

기네—비싸우는 사회주의나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있으며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과 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루이스 까브랄은 한 군중집회연설에서 아프리카는 단결을 통해서만 자기의 리익을 고수할수 있다고 하면서 대륙의 완전해방을 위하여 아프리카인민들이 단결할것을 호소하였다.

이 나라 국가리사회 위원장은 1977년에 소말리아(7월), 앙골라(9월), 까타르(7월)를 방문하였으며 그의 부인은 4월에 중국을 방문하였다.

전국인민회의 최고립법기관, 1972년 총선거에서 120명의 의원들을 선거

국가리사회 위원장은 국가수반, 1977년 3월 13일 국가리사회 위원 15명선거, 위원장 루이스 까브랄 (1977년 3월 13일 전국인민회의 제2차회의 비상회의에서 다시 선거됨)

국가위원리사회 1977년 3월 15일 국가리사회위원장이 공화국 국가위원들을 임명, 책임위원 프랑시쓰꼬 멘데스, 대외사업담당위원 빅또르 쏘데 마랴아

정당, 사회단체; 기네—비싸우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1956년 9월 19일 창건, 1977년 11월 제3차당대회 진행, 총비서 아리스떼데스 뻬레이라, 부총비서 루이스 까브랄, **민족독립전선, 민족인민동맹, 전국근로자동맹**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인구의 80%이상이 이 부문에서 일하고있다.

1977년에도 《농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자》라는 구호밑에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한 운동은 이 나라 인민들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으로 제기되였다.

전국인민회의법령에 의하여 국내외의 자본가들과 지주놈들이 가지고있던 땅이 몰수되였다.

토지의 국유화에 토대하여 국영농목장과 농업협동조합들이 조직되고있다.

정부의 농업발전강령에 따라 땅콩, 피마주, 야자, 코코아 등 수출작물뿐아니라 벼생산을 늘이기 위한 조치를 비롯하여 농업을 여러모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있다.

또한 가물을 이겨내고 논밭에 물을 대기 위한 관개공사가 벌어지고 토지를 정리하며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이는 등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에 커다란 관심이 돌려지고있다.

1975년에 5천톤의 코프라, 2만 7천톤의 코코아, 3만 2천톤의 벼가 생산되였다.

민족공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1977년에 상공업회사, 목재판매및가공회사, 유용광물과 원유를 탐사하고 개발하는 사업을 맡아하는 《뻬뜨로미나스》국영회사와 《쎌로 디아따》전국운수회사들이 창설되였다.

1977년 3월에 년산 1천 800톤의 생산능력을 가진 과일즙공장건설이 완공되여 돌아가게 되였다. 그밖에 2개의 벽돌공장, 제분공장, 기름공장, 수지공장들과 조선소 등이 건설되였다.

철길은 없고 자동차길은 357키로메터이다.

낡은 식민지교육체계가 개편되고 새로운 교과서들이 편찬되고있다.

1977년 현재 1천명의 기술자들이 양성되였다.

나라의 총투자액의 12%를 보건발전에 돌리고 있다.

1977년에 이 나라에는 700여명의 보건일군들이 있었다. 독립후 3년동안에 7개의 병원이 새로 건설되였다. 1977년에 12개의 병원과 수십개의 의료소가 있었다. 질병을 없애기 위한 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해마다 도시와 농촌의 어린이들에게 예방주사를 놓아주는 사업이 진행되고있다.

한편 정부가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한 결과 이미 70여개의 대중상점망들이 주민들에게 봉사하고있으며 127개의 국영상점들이 곳곳에 일떠섰다.

주민들은 회교(35%) 또는 지방종교(63%),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1975년 11월 국영통신사 창설

신문 벤챠(정부기관지)

방송 기네—비싸우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3월 16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7년 5월에 기네—비싸우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의 부인과 그 일행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또한 이해 9월에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이 나라 당및정부대표가 참가하였다.

베르데갑

(베르데갑공화국)

넓이 4,033km²

인구 30만명(1976년)

수도 쁘라야(주민 4만 4,618명)

자연 및 주민

베르데갑은 아프리카대륙 서쪽, 대서양에 있는 15개 섬으로 이루어졌으며 매 섬이 불산섬이다.

기후는 메마른 열대성기후이며 한해평균비내리는 량은 250～300mm이다.

1977년에 이 나라에서는 혹심한 가물이 들었다.

주민은 물라트(혼혈종)와 아프리카사람들이다.

공용어는 뽀르뚜갈어이다.

정 치

베르데갑은 1495년에 뽀르뚜갈식민지로, 1951년에는 뽀르뚜갈의 《해외주》로 총독통치를 받아왔다.

1975년 7월 5일 베르데갑은 뽀르뚜갈의 거의 500년에 걸치는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였다.

1976년 7월에 이 나라의 명줄을 틀어쥐고있던 식민주의자들의 《민족해외은행》이 국유화되였으며 국영은행이 창설되였고 또한 비행장과 항구가 국유화되였다.

이에 앞서 이 나라는 1월에 나라의 령해를 100마일로 선포하였으며 기네—비싸우와 항공로를 개설하였다.

베르데갑총리는 1977년 10월에 한 연설에서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의 민족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민족경제를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진정한 독립을 이룩할수 없다고 하면서 진정한 독립을 이룩하자면 다른 나라의 경제, 재정적 통제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앞서 4월 전국인민회의 제4차회의연설에서 대내정책에 언급하여 그는 정치적독립의 달성은 투쟁이 끝났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정부가 군대와 인민무장대를 강화하는데 배가의 노력을 기울일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대외정책에 언급하면서 그는 베르데갑정부는 쁠럭불가담원칙을 고수하고있다고 지적하였다.

1977년 3월에 이 나라 대통령은 한 담화에서 자기나라는 민족적독립을 위해 싸우는 남부아프리카인민들의 편에 확고히 서있다고 하면서 남부아프리카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1977년 3월에 베르데갑 대통령이 기네—비싸우를, 1월에 총리가 뽀르뚜갈을 방문하였으며 3월에 세네갈대통령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전국인민회의 최고립법기관, 의원수 56명 (기네—비싸우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성원들), 1975년 7월에 선거, 의장 아빌리오 두아르또

대통령 아리스떠데스 뻬레이라(1975년 7월 5일 첫 대통령으로 선거)

정부 1975년 7월 11일 새 정부구성, 총리 뻬드로 삐레스, 외교부장 아빌리오 두아르또

정당, 사회단체; 기네—비싸우및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집권당) 1956년 9월 창건, 총비서 아리스떠데스 뻬레이라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인구의 80%가 이 부문에서 일한다.

독립후 정부는 농업을 발전시켜 식량을 자체로 해결할 목적밑에 전국적인 농업생산운동을 전개하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백개에 달하는 작은 뚝과 저수지들, 물길과 우물들이 건설되였으며 많은 묵은 땅이 부침땅으로 변하였다.

1977년에 이 나라의 여러섬들에서 가물을 극복하기 위한 개발사업이 벌어진 결과 싼디아구섬의 산간지대에서는 이미 많은 관개수로가 건설되였으며 보아 바슈땀섬에는 모래와 야자나무림의 골짜기를 가로지른 뚝들이 생겨났다.

주요농작물은 커피와 담배, 이밖에 강냉이, 땅콩, 사탕수수, 바나나, 나무감자 등이다.

1975년에 강냉이 1만 3천톤, 땅콩 2천톤, 사탕수수 9천톤, 바나나 7천톤이 생산되였다.

농업생산에서 축산업도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며 소, 염소, 돼지를 기른다. 1975년에 소는 1만 3천마리였다.

일부 주민들은 물고기잡이도 한다.

정부는 민족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원유가공

공장, 선박수리공장 등 국영공업기업소들을 여러곳에 건설하며 지하자원들을 적극 개발할것을 계획하고 이 사업을 적극 추진시키고있다. 또한 소규모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밀가루공장, 목공협동조합 등이 일떠섰으며 2개의 세멘트공장건설을 위한 준비사업이 진행되고있다. 이 나라에는 세멘트원료가 많다.

공업부문에는 농산물가공공장과 물고기가공공장 등이 있으며 돌소금도 채굴된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담배, 광물, 물고기 및 그 가공품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천, 식량, 일용품 등이다.

정부는 교재들을 새로 편찬하도록 조치를 취한 결과 력사와 국어, 지리 교과서들이 새로 편찬되였다.

또한 민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정부는 교육과 생산로동을 결합하는 새로운 교육방법을 받아들이도록 하였으며 여러곳에 공업, 상업, 의학 학교들을 세웠다.

이 나라 중등학교 교원의 90%이상은 베르데갑사람들이다.

1975—1976학년도에 초등 및 중등 학교 학생수는 7만명에 달하였으며 600여개의 초등 및 중등학교가 운영되였다.

독립후 정부는 보건일군들을 키워내는데 힘을 넣은 결과 29명의 의사와 127명의 간호원이 일하고있다.

정부는 또한 산간지역과 농촌지역들에 치료기관들을 세우는 조치를 취하였다.

주민들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출판물** 노며씨아스 데 까보 베르데, 오 아르귀벨라고, 블레띵 오피씨알

방송 베르데갑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5년 8월 1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기　　네

(기네공화국)

넓이 24만 5,857km²
인구 514만 3,000명(1975년)
수도 꼬나크리(주민 53만명)

자연 및 주민

아프리카의 서쪽에 자리잡고있는 기네는 말리, 세네갈, 기네—비싸우, 시에라레온, 리베리아 및 상아해안과 잇닿아있다.

열대성기후로서 한해평균기온은 26～28°C, 한해평균비내리는량은 3,000～4,000mm이다.

주민은 풀베족(40%), 말린케족, 판닝그족, 수수족 등 20여개종족으로 이루어져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나 종족어들도 쓰고있다.

정　　치

기네는 1848년부터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860년에 놈들의 《보호령》으로 되였으며 1895년에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다.

기네인민들의 반식민주의투쟁으로 1958년 10월 2일 서아프리카에서 제일 먼저 독립하였다.

독립후 기네는 《프랑스공동체》안에서 떨어져나왔으며 1958년 11월 2일에는 새로운 헌법을 채택하였다.

정부는 식민지통치시기에 있던 국가기관들과 사법, 안전기관들을 개편하고 식민주의자들의 경제적지반을 청산하기 위한 사업을 강력히 밀고 나갔다.

1960년에는 외래침략자들로부터 나라를 보위하기 위한 민족군대를 창건하였으며 프랑을 페지하고 새로운 민족화페를 발행하였다. 또한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소유로 되여있던 은행과 항, 운수회사들을 국가의 통제하에 넣고 대외무역을 완전히 국가가 장악하는 진보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1970년 5월에는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으로부터 나라를 보위하기 위하여 의무병역제를 실시하였다.

기네인민은 1970년 11월 22일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밑에 감행된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강도적인 무력침공을 물리쳤으며 1977년 9월에는 반혁명분자들의 음모책동을 적발분쇄하였다.

1977년 5월 14일에 기네민주당창건 30돐기념집회, 11월 22일에는 기네혁명승리의날 7돐을 기념하는 군중집회들이 있었다. 집회들에 이어 군중시위와 민병및인민군의 무력시위, 집단체조가 있었다.

기네민주당창건 30돐기념집회에서 연설하면서 아호메드 세쿠 투레는 기네인민앞에 나서는 투쟁과업은 광업, 전력공업의 우선적발전에 기초한 민족공업의 창설과 농업, 목축업의 발전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기네의 대외정책에 언급하여 그는 기네는 앞으로도 제국주의와 신구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모든 나라 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할것이라고 말하였다.

1977년 2월 기네 수도에서는 제6차전국경제회의와 남부아프리카인민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녀성토론회가 진행되였다.

1977년에 잠비아대통령(1월)과 팔레스티나해방조직위원장(2월)이 기네를 방문하였다.

이해 5월에는 중국과 쌍무적무역을 증대시키기 위한 협조협정을 맺었다.

국회 일원제, 민주당이 전의석(150석)을 차지하고있다. 1974년 12월 선거, 임기 7년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무장력의 최고사령관, 임기는 7년, 대통령 아호메드 세쿠 투레 (1961년—, 1974년 12월 다시 선거됨)

정부 총리 란사나 베아보기, 외교부장 필리 씨쏘꼬

정당, 사회단체; **민주당** 유일당이며 집권당, 1947년 5월 14일 아프리카민주련맹의 지부로 창건, 1958년 11월 19일 독립적인 정당으로 됨, 총비서 아호메드 세쿠 투레, **근로자전국련맹, 아프리카민주혁명청년전국리사회, 전국녀성위원회**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농업과 광업이다.

농업은 서아프리카에서 발전한 나라로서 주민의 86%가 이 부문에서 일하고있다.

독립후 정부는 《농업은 경제발전의 기초》라고 하면서 기네인민이 알곡을 자급자족할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지면적을 늘이고 관개시설공사들을 벌리며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이는 등 농촌경리의 다각적발전을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1977년현재 벼, 강냉이, 수수, 기장 등 여러가지 알곡작물들을 심고있다.

한편 농촌들에서 협동조합들이 무어지고있는데 1975—1976년기간에 434개의 생산작업반이 생겨났고 1976년에 그 수는 1천 500개로 늘어났다.

주요농작물은 바나나, 커피, 파이내플, 코코아, 사탕수수 등 열대작물과 벼, 강냉이, 기장, 수수 등 알곡작물이다. 그밖에 조, 고구마, 귤, 나무감자, 목화, 잎담배 등도 생산하고있다.

축산업도 발전하고있는데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등이다.

1976년에 소는 1973년에 비하여 11만마리나 더 많은 198만마리에 달하였고 같은기간에 양과 염소도 107만마리로부터 116만 5천마리로 늘어났다.

이 나라에는 아프리카의 《보물고》라고 할 정도로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다. 특히 보크사이트와 철, 금, 금강석 등이 많다. 탐사된 보크사이트 매장량은 97억톤인데 이것은 세계총매장량의 약 46%에 달한다. 1976년에 보크사이트는 920만톤 생산되였으며 1975년부터 1976년에 걸쳐 보크사이트, 철광석, 금, 금강석 등 광물수출은 이 나라 총수출에서 90%이상을 차지하였다. 1976년에 알루미나는 65만톤, 보크사이트는 900만톤 수출되였다.

현5개년계획기간(1974—1978년)에 정부는 총예산 594억 9천만실리중에서 343억 9천만실리를 채취공업부문에 돌리고있다.

공업에서 국영부문이 강화되여 1976년현재 이 나라의 국영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은 140여개에 이르렀다.

1976년에 기네에서는 18만톤의 동, 5억 3천 400만키로와트시의 전력, 200만메터의 천을 생산하였다.

철도망과 도로망은 아프리카에서 비교적 발전하였다. 철도는 660키로메터, 자동차길은 2만 8천 400키로메터에 달한다.

주요수출품은 바나나, 파이내플, 커피, 철광석, 보크사이트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공업제품, 운수수단 등이다.

1964년부터 법적문건에 민족어를 쓰고있다.

독립후 교육체계가 개편되고 교육망이 늘어났으며 학교들에서 민족어교육이 실시되고있다. 꼬나크리종합대학을 비롯하여 여러개의 대학이 창설되였으며 전문학교, 중학교 등 각급학교들이 도처에 세워졌다.

1977년현재 전국의 각급학교들에서 35만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있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문맹퇴치전국위원회가 설치되고 각지에 문맹퇴치기관이 세워져 문맹퇴치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

독립당시 2개의 병원과 26개의 보건쎈터를 가지고 있었던 기네는 1977년현재 21개의 병원과 276개의 지역보건쎈터, 매개지역마다에 1개의 국영약국을 가지고 있다.

독립후 기네는 의학학교들을 일떠세우고 약 300명의 의사와 700여명의 간호원들을 키워냈으며 1977년에는 치과전문의사들도 키워냈다.

주민의 65%가 회교도이고 그밖에 지방종교와 기독교도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기네통신

신문 호로야(민주당기관지), 쥬르날 오피씨엘 드 기네(정부기관지), 뜨라바예르 드 기네

방송 기네 《혁명의 소리》 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58년 10월 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1년 6월 통상및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68년 4월에는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6년 11월 10일 수도 꼬나크리에서 조선통일지지기네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기네신문 《호로야》 4월 10일호와 잡지 《포니께》 3월호가 특집을 하였다.

잡지는 《김일성주석, 투쟁의 65년》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전세계진보적인민들은 4월에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이시며 위대한 사상가이신

김일성주석의 탄생 65돐을 뜻깊게 경축한다고 썼다.

한편 《조선민족을 통일하자》 라는 제목의 글에서 잡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조국통일 5대방침을 상세히 소개하고 이 방침은 조선인민과 전세계 모든 인민들의 념원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1977년 5월 16일 이 나라 대통령이 기네를 방문한 조선로동당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대표단을 만난 석상에서 대통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만수무강을 충심으로 축원하였다. 그는 또한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며 정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의 편에 항상 서있을것이라고 하였다.

시에라레온

(시에라레온공화국)

넓이 7만 1,740km²
인구 311만명(1976년)
수도 프리타운(주민 27만 4,000명)

자연 및 주민

시에라레온은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대서양연안에 자리잡고 기네와 리베리아에 둘러싸여있다.

기후는 적도열대성기후로서 한해평균기온은 약 27°C이며 해안지대의 한해 비내리는 량은 4,000mm이상이다.

주민은 멘데족(30%), 크레올족을 비롯한 13개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정　　치

1807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되였던 시에라레온은 민족적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1961년 4월 27일 《영련방》 성원국으로서 독립하였다.

1968년 4월 17일 병사들이 일으킨 군사정변으로 스티븐스를 총리로 하는 전인민대회당 정부가 구성되였다.

정부는 1969년 12월 이 나라 경제명맥을 쥐고있던 영제국주의자들의 금강석 및 광업회사를 국유화하였으며 제국주의자들의 토지소유를 금지하였다.

1971년 4월 19일 스티븐스는 자기 나라를 공화국으로 선포하고 영국녀왕이 시에라레온의 왕으로 된다는 법령을 폐지하였다.

이해 4월 주요상품의 수입과 판매를 통제하기 위하여 국가무역회사를 내오도록 하였으며 1973년 2월에 완전히 자기 나라의 소유인 민족상업은행을 창설하였다. 3월에는 자기 나라 사람들로 기업소를 운영할데 대한 조치도 취하였다.

1971년 4월 19일에 나라의 령해권을 12마일로부터 200마일로 확대하였으며 1973년 12월 18일 민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업권수정법을 채택하였다. 이에 앞서 4월에 해군을 창건하고 해군들이 령해와 바다자원을 지키도록 하였다.

정부는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에 대처할수 있도록 국방력을 강화하는것은 나라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 라고 하면서 민병을 조직하고 해안방위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었다.

1977년 5월 총선거가 실시되고 새 내각이 구성되였다. 대통령은 국회의 개막회의에서 쁠럭불가담원칙은 예나 지금이나 시에라레온의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이라고 말하였다.

1977년 1월에 잠비아대통령이 시에라레온을 방문하였다.

국회 일원제, 1977년 5월 총선거 진행, 총의석 100석중 대부분은 전인민대회당이, 15석은 인민당이 차지

대통령 시아카 프로빈 스티븐스(1971년 4월—, 1976년 3월 26일 다시 선거됨), 임기 5년

정부 1977년 5월 13일 28명으로 된 새 내각을 구성, 총리 씨. 에이. 카마라 테일러, 외교부장 아브둘라이 콘테

정당, 사회단체; 전인민대회당 1960년 창건, 1968년 4월부터 집권당, 당수 시아카 프로빈 스티븐스, 총비서 이. 티. 까마라, **인민당**, **로동대회**(국제자유로조련맹에 가입), **청년리사회**, **녀성조직전국련맹**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약 90%가 농사를 하며 사회총생산액에서 농업이 84%를 차지하고있다.

부침땅은 3만 6천 617평방키로메터이다.

주요농작물은 커피, 코코아, 종려씨, 강냉이, 벼, 수수 등이며 그 가운데서 종려생산이 기본이다.

정부는 농민들에게 농기계와 비료, 살충제 등을 공급하고있으며 종자를 개량하고 그를 광범히 도입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다.

정부는 로쿠프르벼연구소를 내왔으며 1972년에는 국가농업과학연구회를 창설하였다.

또한 정부는 농업학교, 양성쎈터, 벼재배농장들을 만들어 놓고 농민들과 학생들이 농업기술을 배우게 하였다. 1974년에 농업기술자들은 540명이였다.

이해에 1만 5천에이커의 새땅이 개간되였으며 49만 2천톤의 벼를 생산하였다.

공업에서 기본은 채취공업이며 금강석을 비롯한 철광석, 보크사이트, 금, 주석 등이 채굴되고있다.

금강석생산량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제4위를 차지하며 철광석문힌량은 4억톤, 보크사이트문힌량은 2천만톤이다.

1976년에 조업한 종려기름공장을 비롯하여 신발공장, 정미공장 등 30여개의 공장들이 여러지방에 건설되였다.

한편 정부는 수산업을 발전시켜 1975년에 1972년보다 86%나 더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와 철도운수가 기본이다. 자동차길은 3천 500키로메터이며 철길은 내륙지방과 련결되였을뿐 산간지방에는 없다.

주요항구는 프리타운항과 페펠항이다.

주요수출품은 금강석, 철광석, 보크사이트, 종려씨, 코코아, 커피 등이며 그중 광물이 수출총액의 80%를 차지한다. 주요수입품은 식료품, 기계설비, 천, 차량, 석유 등이다.

1973년에 소학교는 1천 100여개, 소학교학생수는 18만 1천여명이였다.

같은 해에 중학교수는 108개, 중학교학생수는 3만 6천명이였다.

정부는 이전 《상업교육》의 낡은 식민지교육체계를 새로운 《기술교육체계》로 개편하고 학생들에게 민족경제건설에 필요한 기술을 배워주고있으며 자기 나라의 력사와 문화를 가르치고있다. 교원, 기계기술자, 농업기술자, 상업 및 행정 일군을 양성하는 학교들도 운영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지방종교를 믿으며 그밖에 회교와 기독교도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데일리 메일(정부기관지), 더 네이슌, 우니티, 아드반스, 엑스프레스, 피플, 위욘, 플라쉬, 위쉐, 쌍바이, 스펙태클러

방송 시에라레온방송, 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10월 14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8년 9월 9일 시에라레온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1년 3월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대한 련대성위원회》가, 1976년 4월 15일 《조선통일지지 시에라레온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시에라레온인민들은 《김일성동지주체사상및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1977년 10월 10일 프리타운에서 시에라레온 《위대한 김일성주의과학연구소조》 결성모임이 진행되였으며 이에 앞서 6월 1일에는 시에라레온 알버트 아까데미 중학교의 《위대한 김일성주의연구소조》 결성모임이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진행한 모임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이해 1월 13일 프리타운에서 우리 나라 정부와 시에라레온정부사이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실행을 위한 1977—1978년도 문화교류계획서가 조인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을 기념하는 경축집회가 조선통일지지시에라레온위원회의 주최밑에 1977년 4월 14일 프리타운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이해에 시에라레온신문 《비지니스 쿼터리》 10월 24일호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찬양하여 글을 실었다.

이해 9월에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시에라레온전인민대회당대표와 시에라레온 《플라쉬》 신문주필이 참가하였다.

리 베 리 아

(리베리아공화국)

넓이 11만 1,369km²
인구 183만명(1978년)
수도 몬로비아(주민 20만명)

자연 및 주민

리베리아는 아프리카의 서남부 대서양의 기네만 기슭에 자리잡고 시에라레온, 기네, 상아해안과 잇닿아있다.

날씨는 무덥고 습하며 비가 많이 내린다.

주민은 27개의 아프리카인 종족들로 이루어져있는데 그중 많은 종족은 크펠레족과 바이족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그러나 적지않은 종족들은 자기의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있다.

정 치

리베리아는 1822년 《미국식민지협회》가 보낸 《해방노예》들이 만들어낸 나라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해방노예》를 끌어다 리베리아라는 이름을 단 첫 《국가》를 세우게 하고 저들의 총독놈을 통하여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1847년 7월 26일에 리베리아는 독립을 선포하고 리베리아공화국을 창건하였다.

리베리아는 국내에서 농업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있으며 경제의 《다양화》와 외국자본

기업체의 《리베리아화》를 실현함으로써 인민경제가 민족적독립의 길에서 발전하도록 힘을 넣고있다.

국제문제에서 리베리아는 이웃나라들과 친선관계를 유지하며 서아프리카나라들의 경제공동체의 결정을 지지하고있다. 또한 이 나라는 남아프리카와 로데시아 백인인종주의정권의 인종차별과 인종격리정책을 반대하고 남부아프리카인민의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고있다.

리베리아는 1977년 2월에 중국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두 나라사이의 경제기술협조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앞서 1월에 리베리아는 11번째의 철광석수출국련합성원국으로 되였다.

립법회의 최고립법기관이며 량원제, 상원의원은 18명이며 임기는 6년, 하원의원은 71명이며 임기는 4년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8년, 재선될때의 임기는 4년, 대통령 윌리암 리챠드 톨버트(1972년 11월—, 1976년 1월 5일 다시 선거됨)

정부 대통령이 정부수반을 겸한다. 1977년 7월 23일 내각 일부 개조, 외교부장 씨. 쎄씰 데니스 2세

정당, 사회단체;진정독립당 1869년에 창건된 집권당이며 유일당, 1955년부터 진정독립당이외 정당들의 활동은 금지, **생산로조대회**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고무재배를 위주로 하는 농업과 철광석생산을 비롯한 채취공업이다.

로동인구의 80%이상이 농사를 한다.

주요농작물은 고무, 그밖에 코코아, 커피, 기름야자 등 열대작물이다. 그중에서 고무와 코코아는 이 나라 2대특산물이며 생고무생산량은 1975년에 9만 4천 200톤으로서 아프리카에서 첫자리를 차지하였다.

벼, 강냉이를 기본으로 하는 알곡작물은 아직도 자급자족하지 못하고있다.

공업부문에는 철광석, 금, 금강석 등의 채취공업과 고무, 목재가공, 농산물가공 공업 등이 있다.

주요지하자원은 철광석(묻힌량 10억톤이상), 보크사이트, 망간, 금강석, 금, 동 등이다.

년간 철광석채취량은 아프리카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물고기는 1년에 1만 5천톤정도 잡으며 그 절반은 수출되고있다.

리베리아의 해운업은 세계에서 특수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1976년에 리베리아에 등록하고 리베리아의 국기를 띄우고 항행한 외국짐배는 연 7천 300여만톤에 달하였으며 세계에서 첫 자리를 차지하였다. 운수에서는 해상운수가 기본으로 되고있으며 철도운수는 아주 뒤떨어져있다.

1975년에 수출총액의 70%는 철광석, 20%는 생고무였다.

주요수출품은 철광석, 생고무, 금강석, 커피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류와 식량, 그리고 천을 비롯한 생활필수품 등이다.

독립후 학교교육사업에서 일정한 전진을 이룩하였다. 890여개의 각급학교들에서 13만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1976년에 정부는 나라의 교육강령을 발전하는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 조치에 따라 모든 학교들에서 1주일에 두번씩 체육수업을 하게 되며 고등학교 학생들은 매주에 두시간씩 생산로동에 참가하게 되였다.

주민들은 회교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출판물 리베리언 에이지, 리베리언 스타(무소속), 데일리 리스너, 크겔레 메쎈저, 팔름, 썬데이 디제스트

방송 리베리아방송, 리베리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5년 7월 3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상 아 해 안

(상아해안공화국)

넓이 32만 2,463km^2

인구 502만명(1976년)

수도 아비쟝(주민 85만명)

자연 및 주민

상아해안은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기네만기슭에 있으며 리베리아, 기네, 말리, 상부볼따, 가나 등 여러 나라들에 둘러싸여있다.

기후는 적도기후로서 한해평균기온은 23~25°C, 비내리는량은 남부에서 4,000mm, 북부에서 820mm이다.

주민은 수단흑인이며 이밖에 바올레족, 크루족, 말린케족 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정 치

1889년에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던 상아해안은 1946년에 프랑스의 《해외령지》로 되였다가 1958

녀 12월에 《프랑스공동체》 안의 한개 자치국으로 되였다.

이 나라는 1960년 8월 7일 《프랑스공동체》 안에서 독립하였으며 1961년 2월 11일에는 이 《공동체》 안에서 떨어져나왔다.

그러나 1961년 4월에 프랑스와 예속적인 《협조협정》을 맺음으로써 대외, 국방,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여전히 프랑스에 얽매여있다. 또한 미제와도 예속적인 협정들을 맺고있다.

1977년 2월에 로므니아대통령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민족회의 일원제, 의원수 120명, 임기는 5년, 1975년 11월 16일 선거, 민주당이 총의석을 독차지하고있다.

대통령 펠릭스 후푸에 브와니(1960년—, 1975년에 4선)

정부 대통령이 총리를 겸한다. 1977년 9월 20일 내각개조, 외교부장 씨메온 아께

정당, 사회단체; 민주당 집권당이며 유일당, 1946년에 창건, **민족해방위원회, 근로자총련맹**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축산업과 림업이며 주민의 80%가 이 부문들에서 일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커피, 코코아, 바나나, 목화, 벼, 강냉이, 감자 등이다.

아프리카의 최대 커피산지로 되여있는 이 나라의 커피생산량은 매해평균 24만~27만톤이며 코코아생산량은 18만~22만톤, 바나나는 약 22만톤, 목화는 5만~10만톤정도 생산된다.

경제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림업에서는 20여종의 질좋은 통나무가 생산되며 한해생산량은 약 500만립방메터이다.

공업에서는 목재가공, 식료, 채굴 공업이 기본이다.

국민총생산액에서 공업은 22%를 차지한다.

주요지하자원은 금강석, 망간, 원유 등이다.

금강석은 해마다 약 21만카라트, 망간은 11만~12만톤정도 채굴되고있다.

대부분의 공장, 기업소들은 프랑스자본에 의하여 운영되며 채취공업부문에 미제독점체들이 침투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코코아, 목재, 바나나, 망간, 축산물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소비재와 공업원료, 기계, 수송기재, 직물류 등이다.

철길은 아비장에서 북쪽으로 뻗어 상부볼따와 련결하는 한개의 선밖에 없다.

종족어는 있으나 문자는 없다.

주민의 80%가 글을 모르며 어린이들의 30%만이 겨우 학교에 다닌다.

병원은 단 몇개밖에 없다.

주민의 대부분이 지방종교를 믿으며 회교(20%)와 기독교(13%)도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상아해안통신

신문 프라떼르니떼(민주당기관지), 프라떼르니떼 마땡(정부신문), 앙땅뜨 아프리깽, 르 쥬르날

방송 아비장방송, 부아께방송, 상아해안텔레비죤방송

상부볼따

(상부볼따공화국)

넓이 27만 4,200km²

인구 617만명(1976년)

수도 와가두구(주민 15만명)

자연 및 주민

상부볼따는 서아프리카의 중부에 있는 내륙국가로서 말리, 니제르, 베닌, 또고, 가나, 상아해안에 둘러싸여있다.

이 나라는 적도계절풍기후로서 한해평균기온은 1월에 24~26°C이며 5월에 30~35°C이다.

한해 평균비내리는량은 약 1,000mm이다. 몇년째 심한 가물이 계속되고있다.

주민은 모시족, 로비족, 보보족, 구룬시족 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정 치

1909년에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던 상부볼따는 1943년에 프랑스령서아프리카에 강제편입되였다.

1960년 8월 5일 상부볼따는 《프랑스공동체》안에서 독립하였다.

1966년 1월 4일 총참모장이였던 상굴레 라미자나가 정변을 일으켜 독립이래 정권을 잡고있던 야메오고정권을 전복하고 군사정권을 세웠다.

1970년 6월 14일 새 헌법이 채택되였으며 1970년 12월 20일 민족회의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결과 라미자나를 대통령으로, 민간인을 총리로 하는 군인들과 정당대표들의 민간—군인정부가 수립되였다.

1974년 2월 8일 라미자나대통령은 10개항목의 선언을 발표하여 민족회의를 해산하고 헌법을 정지시켰으며 6월 29일에는 대통령의 명령으로 새로운 민족자문리사회를 창설하였다.

라미자나대통령은 1977년 1월 14일 주요정당들인 아프리카민주련합, 아프리카재편성당, 독립민족동맹 등 3당이 참가하는 새 정부를 구성하였다.

상부볼따정부는 대외적으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민족해방투쟁을 지지하고있다.

1977년 3월 상부볼따의 수도에서 서아프리카협상위원회 성원국들의 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끝에 발표된 콤뮤니케는 성원국들사이의 경제적협조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결의를 표명하였으며 또한 인종주의자들의 인종격리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미비아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이해 1월에 상부볼따는 알바니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민족자문리사회 1974년 6월 29일 창설(정부에 조언을 주고 군중에 대한 정치선동을 목적)

대통령 엘 하지 아부바까르 상굴레 라미자나 (1966년 1월—)

정부 1977년 1월 14일 아프리카민주련합, 아프리카재편성당, 독립민족동맹이 참가하는 새 정부구성, 총리는 대통령이 겸한다. 외교부장 까르구구

정당, 사회단체; 민족부흥운동 1975년 11월 29일 창건, **아프리카민주련합, 아프리카재편성당, 독립민족동맹, 애국발전련맹, 근로자직업동맹, 아프리카로조련맹**(세계직련에 가맹)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95%가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한다.

주요농작물은 목화, 땅콩이며 강냉이, 기장, 벼, 조, 수수 등이 생산된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등이며 축산물수출액은 이 나라 수출총액의 80%를 차지한다.

공업에서 주되는것은 농산물가공공업과 축산물가공공업이며 채굴업과 수공업적인 식료공업, 일용품공업이 있다. 그밖에 신발공장, 벽돌공장, 각종 자동차조립공장 등 중소규모의 공장들이 있다.

1977년 상부볼따의 지출과 수입예산은 231억아프리카프랑에 달하였다. 이것은 1976년에 비하여 9.47% 늘어난것이였다. 특히 예산지출규모는 1976년에 비하여 17.6% 늘어났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며 철길은 와가두구로부터 상아해안국경까지 련결되여 주로 수출입을 하고있다. 1977년현재 자동차도로 총연장길이는 1만 6천 600여키로메터였으며 8천 100여대의 화물자동차가 있다.

주요수출품은 집짐승, 목화, 땅콩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쌀을 비롯한 식량과 담배, 석유제품, 광물성연료 등이다.

1969년부터 민족문자를 제정하고 민족어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고있다.

1972—1973년도 국가예산의 10%를 교육부문에 돌렸다.

의료시설이 점차 확장되고 전염병도 현저히 줄었다.

주민의 대부분이 지방종교를 믿으며 회교와 기독교도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까래프르 아프리깬(정부기관지), 옵쎄르바떼르, 레쏠레이 데 오뜨볼따, 쥬르날 오피씨엘 드 라 레쀼블리끄 드 오뜨볼따, 불레땡 꼬띠디앵 드 앵포르마씨옹

방송 상부볼따방송, 상부볼따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10월 1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6년 3월에 우리 나라와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7년 3월 15일 상부볼따의 수도 와가두구에서 《싸우는 인민들과의 련대성주간》 이 개막된것과 관련하여 《애국발전련맹》 의 주최로 이날을 《조선의 날》 로 정하고 모임이 진행되였다.

이해 7월 21일 상부볼따단결평화위원회가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여 련대성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날 상부볼따애국발전련맹이 남조선으로부터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기 위한 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해 9월에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상부볼따공화국 신문 《레 쏠레이 데 오뜨볼따》 사장과 상부볼따공화국 애국발전련맹재정책임자가 참가하였다.

가　나

(가나공화국)

넓이 23만 8,537km²
인구 1,031만명(1976년)
수도 아크라(주민 63만 9,000명)

자연 및 주민

가나는 서아프리카의 중부 기네만연안에 자리잡고 상부볼따, 상아해안, 또고에 둘러싸여있다.

날씨는 늘 무덥고 장마철(3～4월초, 9～11월초)에는 비가 많이 내린다.

주민의 대부분이 아샨티족(44%)과 에웨족이며 기타 다고아족, 후아티족 등 50개의 종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정　치

1957년 3월 6일 황금해안과 영국의 후견령 또고(서부또고)가 통합되여 《영련방》 안에서 독립하였으며 나라 이름을 가나로 고쳤다.

1972년 1월 13일 제1보병려단 지휘관이던 아참퐁대좌를 비롯한 장교집단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반동적인 부시아정부를 전복하고 구국리사회를 조직하였다.

정부는 1973년 1월 11일 정부강령인 《부흥헌장》을 발표하였다. 헌장은 가나의 대내정책이 인민의 리익을 보장하며 민족적통일을 강화하고 사람에 의한 사람의 온갖 형태의 착취를 없애고 인민들을 애국주의의 정신으로 교양하며 공화국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정신, 물질적력량을 동원하는것이라고 선포하였다.

1975년 10월 9일 국가기구개조에 관한 법령에 따라 최고립법 및 행정권력기구로서 최고군사위원회가 새로 창설되였으며 뒤이어 새 구국리사회 창립이 선포되였다.

1977년 4월 18일 가나국가수반은 1980년에 끝나는 사회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발표하였다.

가나는 5개년계획기간에 총 67억세디를 지출하게 된다고 하면서 그는 가나의 5개년계획의 기본목적은 자체의 자연부원에 의거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977년에 가나는 자기 나라에서 활동하던 33개의 외래제국주의회사들을 몰수하였다.

경제를 가나인민의 수중에 장악할데 대한 1977년 1월 1일 발포된 투자정책법령에 따라 취해진 이 조치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피복 및 가죽제품생산회사, 상업은행, 담배회사, 양조회사, 목재회사, 채광회사, 알루미니움회사, 석유회사, 소매 및 도매 상업체들이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농업발전에 힘을 넣고있는 이 나라는 1977년 3월 25일 농업발전전국건설대를 조직하였다. 가나 구국리사회 위원장은 전국방송연설에서 이 건설대가 강냉이를 비롯한 알곡작물재배에 선차적인 힘을 넣을것이라고 말하였다.

1977년 1월 13일과 3월 7일에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가나혁명 5돐과 가나공화국 독립 20돐을 기념하는 열병식들과 군중시위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이에 앞서 12일 전국 라지오 및 텔레비죤 방송연설에서 구국리사회위원장은 《자급자족운동》의 구호밑에 1976년에 이룩된 성과에 언급하고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휘하여 경제를 발전시키며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쓸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그는 대외정책에 언급하여 가나는 인종격리정책을 반대하고 짐바브웨와 나미비아인민의 해방운동을 지지하며 아프리카나라들과의 단결을 강화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977년 8월에 정부는 령해와 대륙붕에 관한 법령을 발포하고 나라의 령해를 30마일로부터 200마일로 늘이였다.

이해에 잠비아대통령(1월), 로므니아대통령(2월), 모잠비끄대통령(10월)이 가나를 방문하였다.

이해 가나는 2월에 유고슬라비아와 과학, 기술협조 협정을, 8월에는 파푸아 뉴기니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최고군사위원회 1975년 10월 9일 창설, 최고립법 및 행정권력기구, 위원장 아이. 케이. 아참퐁

구국리사회(정부) 1975년 10월 9일 새로 창설, 위원장 아이. 케이. 아참퐁, 외무담당위원 아르. 제이. 에이 펠러

정당, 사회단체; 1972년 1월 혁명후 모든 정당활동은 금지됨, **로조대회, 전국학생동맹**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광업이다.

주민의 3분의 2이상이 농사를 한다.

주요농작물은 코코아, 바나나, 커피, 야자, 고무, 목화 등 수출작물과 벼, 강냉이, 수수 등이다.

코코아생산량은 세계에서 제1위로서 세계생산량의 30%이상을 차지한다. 농민의 60%가 코코아재배농장에서 일한다.

1976—1977농업년도에 30만 8천톤의 코코아를 생산하였다. 이 기간 목화밭면적은 2만 3천 900헥타르로 늘어났으며 목화생산량은 1만 2천 700톤, 고무생산량은 1976년에 3천 400톤이였다.

정부는 경제의 기본을 이루는 농업발전에 힘을 넣고있다.

정부가 계획한 15개의 관개시설대상중에서 7개가 이미 완공되여 7천 940헥타르의 땅을 적시고있으며 또한 여러지역들에서 수많은 소규모관개공사들이 벌어지고있다.

이 나라 농업부는 1977—1978회계년도에 농업발전을 위하여 3천 250만파운드의 자금을 돌리였다. 그 가운데서 1천 300만파운드는 알곡생산에, 530만파운드는 축산업발전에 돌려지게 되였으며 이 기간에 벼, 강냉이 등 알곡작물생산을 늘이며 사탕수수와 목화씨붙임땅을 늘일것을 계획하고 이 사업을 추진시키고있다.

집짐승은 주로 북부지방에서 많이 기르는데 소, 양, 말 등을 기르고있다.

공업에서는 채굴공업이 기본이며 금강석, 금, 망간, 보크사이트를 생산한다.

1976년에 금강석생산량은 240만카라트였다.

그밖에 매년 금은 70만온스, 망간은 28만~30여만톤, 보크사이트는 24만톤정도 생산되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가나석유회사》를 비롯한 국영회사들이 조직운영되고있으며 비누공장, 코코아가공공장, 제강소, 가구공장, 일용품공장, 원유가공공장 등 자체의 원료에 의거하는 수십개의 공장들이 새로 건설되여 돌아가고있다.

1977년에 가나에서 두번째로 큰 16만키로와트의 능력을 가진 수력발전소와 해마다 20만톤능력을 가진 제철소, 자체의 원료를 쓰는 고무공장 등이 건설되고있다.

운수는 아크라와 코코아산지 및 광산지대를 련결하는 철도운수가 있고 자동차운수, 볼따강을 리용하는 해상운수가 있다.

철길은 1천 290키로메터, 자동차길은 3만키로메터이다.

주요수출품은 코코아, 금강석, 보크사이트, 망간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기계, 연료이다.

이 나라에는 3개의 대학이 있다. 아크라에 창설된 해양대학은 1977년현재까지 300여명의 선박공업부문 기술자들을 양성하였다. 1977년 볼따강류역에 수산학교가 일떠섰다.

1977년 11월 이 나라에서는 코코아생산자들을 위한 두번째 이동진료소가 나왔다.

주민들의 43%가 기독교, 12%는 회교, 나머지는 지방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가나통신

신문 가나타임스(정부기관지), 데일리 그래피크, 이브닝 스탠다드, 피플즈 이브닝뉴스, 미러

방송 가나방송, 가나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12월 2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7년 9월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가나 《피플즈 이브닝뉴스》 신문 부주필인 가나기자협회 총서기가 참가하였다.

또　고

(또고공화국)

넓이 5만 6,000Km²
인구 228만명(1976년)
수도 로메(주민 21만 4,000명)

자연 및 주민

넓이가 아프리카에서 제일 좁은 나라의 하나인 또고는 동쪽의 베닌과 서쪽의 가나사이에 끼여 남북으로 길게 놓여있다.

적도에 가까운 또고는 가물철과 장마철이 있을뿐이다.

에워족이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있으며 마나족, 까뜨시족, 까부레족 등 40여개의 종족이 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정　치

1884년에 독일식민지로 되였던 또고는 1914년 8월에 또다시 나라의 동부와 서부를 각각 프랑스, 영국침략자들에게 강점당하였다.

1957년 3월에 서부또고가 가나에 통합되고 1960년 4월 27일에 프랑스령 또고(동부또고)가 독립하였다.

독립후 또고정부는 외래독점체들이 경영하고있던 공장, 기업소들을 국유화하고 새로운 공업부문을 창설하며 중소기업소들의 건설에 힘을 넣는 등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또한 농업을 《국가경제의 기초》로 선포하고 토지개혁과 함께 농업을 여러모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7년 3월 7일부터 10일까지 수도 로메에서 농업생산운동에 관한 전국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에서는 알곡과 공예작물생산을 늘일데 대한 문제와 토지개혁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개막식에서 연설하면서 에야데마대통령은 또고가 경제발전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인 인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는 5년동안에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언급하면서 농업생산에 적극 참가할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전국적으로 농업생산운동을 벌릴것을 호소하는 권고문들이 채택되였다.

8월 3일부터 7일까지는 농촌개발에 관한 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에서는 또고의 경제적독립을 이룩하는데서 농업생산을 늘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는것이 강조되였다.

토론회에서는 토지를 정리하고 관개공사를 하며 농업기술자들을 많이 양성하여 농업생산 특히 알곡생산을 늘일데 대한 결의들이 채택되였다.

1977년 8월 2일에 또고정부는 200마일령해를 선포하였다.

이웃 나라들과의 친선관계, 평화, 협조, 민족해방투쟁에 대한 지지, 자주성의 존중, 쁠럭불가담운동들을 내세우고있는 또고정부는 1977년에도 남부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였다.

3월 21일 수도 로메에서 민족해방과 나라의 독립을 위한 남부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수천명의 청년들이 시위를 벌렸다. 이날 발표한 문건에서 이 나라 외교부장은 인종주의자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는 남부아프리카에서 그들을 고립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1977년 1월 13일 수도 로메에서 민족해방절 10돐을 성대히 기념하였다. 대통령의 참가밑에 열병식과 군중시위, 집단체조, 경축연회가 있었다.

4월 27일에는 수도 로메에서 또고독립 17돐을 기념하여 에야데마대통령이 참가하는 여러가지 기념행사들이 진행되였다.

1977년에 토고는 감비아(5월), 알바니아(6월)와 각각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7년에 토고는 서독과 기술원조협정(2월), 재정및기술협조협정 (6월)을 맺었다.

1977년에 토고대통령이 나이제리아, 서독(9월)을 방문하였으며 가봉대통령(1월), 리비아총인민대회 총비서(1월)가 토고를 방문하였다.

대통령 그나씽그베 에야데마(1967년 1월—)

정부 대통령이 정부수반을 겸한다. 외교부장 에뎀 꼬조

정당, 사회단체; 인민련합 유일당이며 집권당, 1969년 11월 29일 창건, 1976년 11월 26일부터 29일까지 제2차대회 진행, 중앙위원회 위원장 그나씽그베 에야데마, **근로자전국동맹**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90%가 농사를 한다.

농경지는 4만평방키로메터이다.

주요농작물은 코코아, 커피, 야자, 목화, 강냉이, 땅콩 등이다.

이 나라에서는 해마다 커피 1만여톤, 목화 1천 300～3천톤, 야자씨 1만 6천톤, 땅콩 5천톤을 생산한다.

제3차 5개년계획(1976—1980년)을 수행하고있는 토고는 계획기간 공업과 상업 발전에 750억아프리카프랑, 농촌지역발전에 560억아프리카프랑을 지출한다.

정부는 농업의 식민지적편파성을 없애고 농업을 여러모로 발전시키며 알곡생산을 늘여 가까운 년간에 그 수요를 자체로 해결하기 위하여 선진기술과 새 영농방법을 받아들이는데 많은 힘을 넣고있다.

한랭전선으로 인한 가물피해를 이겨내고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하여 1977년 12월에는 시오강의 포따지역관개시설건설을 시작하였다.

토고정부는 축산업발전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1977년에 1976년보다 4.5배 더 많은 자금을 돌렸다.

1976년에 소는 22만 5천마리, 양은 50만마리, 닭은 250만마리 있었다. 토고의 린회석생산량은 세계에서 5～6위를 차지하며 이 나라 외화수입의 76%를 이루고있다. 1974년에 린회석생산량은 250만톤이였다.

제국주의독점회사들을 국유화하며 민족공업발전기구들을 내오는 등 민족공업의 토대를 쌓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로 이미 50여개의 공장들을 가지고있는 토고에서는 1977년 3월 국내원료에 의거하는 새로운 제철공장건설에 착수하였다. 이 공장건설에 약 70억아프리카프랑이 지출된다.

교통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1976년말 현재 아스팔트포장도로는 1천 140키로메터, 기타 도로들의 총연장길이는 7천 200키로메터였다.

주요수출품은 린회석, 커피, 코코아, 목화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천, 식료품, 금속제품, 기계류이다.

식민지가 남겨놓은 문화적락후성을 퇴치하기 위한 정부와 인민의 노력으로 초등학교수는 1967년의 860개로부터 1975년에는 1천 200개로, 이 부문 학생수는 17만 1천여명으로부터 33만명으로 늘어났다. 1975년 6월 현재 128개의 중등학교들에서 4만 4천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였다.

이 나라에는 23개의 병원과 300여개의 농촌진료소, 의료소, 5개의 국영제약회사와 65개의 제약판매소가 있다.

1967년에 창설된 국립조산원학교에서는 1977년까지 200여명의 조산원을 키워냈다.

주민의 대부분이 지방종교를 믿으며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30만명가량 된다.

출판보도; 신문 토고 프레스

방송 토고방송, 토고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1월 3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9년 11월 4일 토고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6년 6월 24일 우리 나라와 토고 사이의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이 맺어졌다.

1974년 9월에 에야데마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특사가 1977년 1월과 10월에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나라에 파견하여주신 우리 나라 기술자, 전문가들의 방조에 의하여 건립된 그나씽그베 에야데마대통령의 동상제막식이 이해 1월 12일 로메에서 있었다.

또한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선물로 지어주시는 토고인민련합 당학교건설착공식이 로메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65돐을 기념하여 주체사상에 관한 전국토론회가 4월에 로메에 있는 《로동회관》에서 진행되였다.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수도 로메에 있는 인민련합회관에서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공예품전람회가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와 토고공화국사이에 라지오 및 텔레비존방송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협정(2월)이 로메에서 맺어졌다.

이해에 또한 우리 나라 직맹대표단과 집단체조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12월에는 토고인민련합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

문하였다.

1977년 9월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또고정부대표가 참가하였다.

베 닌

(베닌인민공화국)

넓이 11만 2,622Km²
인구 320만명(1976년)
수도 꼬또누(주민 12만명)

자연 및 주민

아프리카서해안의 기네만에 위치하여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는 베닌은 많은 물줄기들을 한몸에 품었다고 하여 《물의 고향》으로 불리운다.

이 나라 기후의 특징은 방금 맑게 개였다가도 갑자기 폭우가 내리는것이다.

주민은 폰족, 아쟈족, 요르바족, 바리바족, 풀베족 등 30여개 종족으로 구성된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정 치

1904년에 프랑스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던 베닌은 1960년 8월 1일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1961년 2월 11일 《프랑스공동체》안에서 떨어져나왔다.

독립후 12년동안 이 나라에서는 5차례의 정변과 9차례의 정권교체가 있었다.

1972년 10월 26일 락하산부대 사령관이던 마티어 께레꾸의 지휘밑에 진보적장교들이 친서방적인 마가정권을 뒤집어엎고 군사혁명정부를 조직하였으며 나라를 새생활창조의 길로 이끌기시작하였다.

1972년 혁명승리 이후 《민족해방혁명의 현단계를 사회주의혁명의 길을 열어주는 인민민주주의혁명단계》로 규정한 베닌정부는 식민주의잔재를 가시고 튼튼한 자립적민족경제와 문화를 건설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나가고있다.

베닌정부의 진보적조치에 불안을 느낀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베닌의 현 진보적인 정권을 뒤집어엎기 위한 모략책동을 감행해오던 끝에 1977년 1월 16일 또다시 까제옹, 쟈끄고, 호에이오 등 수도의 여러지역에 대한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베닌인민은 놈들과 단호히 맞서 싸워 원쑤들의 무력침공을 철저히 짓부셨으며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였다.

이해 5월에 꼬또누에서 진행된 베닌인민공화국 내각회의에서는 민병사령관으로 임명된 마티어 께레꾸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베닌인민무장력의 통일총참모부를 창설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5월 22일부터 8월 3일까지 베닌인민공화국 헌법초안과 제1차 국가발전계획에 대한 전인민적토의가 있었다.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된 베닌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절박한 국내외문제들을 토의하였으며 헌법초안수정안과 제1차 국가발전계획을 심의하였다.

회의에서는 또한 베닌인민혁명당의 총로선과 베닌혁명의 기본단계에 관한 선언이 발표되였다.

베닌혁명의 3개의 기본단계는 민족해방단계, 인민민주주의혁명의 과업수행에 참가한 계급들의 밀접한 동맹에 기초하여 인민정권을 강화하는 시기,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수립하여 혁명적전취물을 공고히 하며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마련하며 사회주의적생산관계를 수립하는 시기로 규정되였다.

전원회의에서는 당을 나라에서의 사회주의혁명의 전위대로 규정한 베닌인민혁명당 규약이 발표되였다.

8월에 베닌인민혁명당 제1차전국대표자회의가 진행되였다.

대표자회의에서는 민족해방의 혁명적과정을 더욱 촉진시키며 새 헌법과 제1차국가발전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와 수단들을 토의하였다. 또한 당건설문제들 특히 베닌인민혁명당 조직구조를 완성하며 혁명적간부들을 길러내며 당과 대중과의 련계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들에 특별한 주의가 돌려졌다.

8월말에 진행된 베닌전국혁명리사회 비상회의에서 제1차3개년국가발전계획이 승인되였다.

회의에서 마티어 께레꾸대통령은 첫 국가발전계획에 언급하면서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고 외국의 영향을 막으며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과업들을 계획적으로 수행해나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제1차국가발전계획과 새로운 헌법이 로동자, 농민들의 리익에 맞는 사회경제적변혁을 실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무기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베닌은 쁠럭불가담원칙과 평등, 호혜, 호상존중의 원칙에서 다른 나라들과의 련계를 맺을것을 내세우고있으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족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지지하고있다.

1977년에 베닌은 라오스와 대사급 외교관계(1월)를 맺었으며 나이제리아와 직접 련계를 가질수 있는 무선통신망을 창설(1월)하였다.

전국혁명리사회 1973년 10월 19일에 창설된 최고지도기관, 위원장 마티어 께레꾸

군사혁명정부 1972년 10월 26일 12명의 장교들로 구성, 1976년 1월 내각개조, 정부수반은 대통령이 겸한다. 외무 및 협조부장 미쉘 알라다이에

정당, 사회단체; 베닌인민혁명당 1975년 11월 30일 창건, 위원장 마티어 께레꾸, **근로자로동조합전국동맹, 녀성전선**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90%이상이 농사를 한다.

독립후 농업을 여러모로 발전시키기 위한 베닌정부의 노력으로 농업에서 종려만 심던 기형성이 극복되고 나무감자, 고구마, 강냉이, 땅콩, 목화, 커피, 수수, 바나나를 생산하고있다. 한편 종려나무재배에도 계속 큰 힘을 넣은 결과 1976년 현재 전체 씨붙임땅의 절반이상(60만헥타르) 에 종려나무를 심었다.

나라의 내륙지대들에서는 소, 양, 염소, 돼지, 말 등 집짐승들을 많이 기르고있다.

독립후 이 나라에서는 방직공장, 세멘트공장, 종려기름공장, 타일공장, 비누공장, 빵공장, 원유가공공장, 농산물가공공장, 식료가공공장 등을 건설하여 민족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필요한 제품들을 만들어내고있다.

1977년에는 싸베에서 사탕공장건설, 오니그호보에서 세멘트공장건설, 모노강개수공사가 진행되였다. 1976년에 황무지 60만헥타르를 농경지로 개간하였다.

국민총생산액에서 공업생산이 차지하는 몫은 약 9%이다. 주요지하자원은 금, 철광석, 린회석, 크롬이다.

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은 620키로메터, 자동차길은 7천 600키로메터이다.

주요수출품은 종려씨와 종려기름 (수출총액의 70%), 땅콩, 목화, 커피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료품, 천, 원유제품, 금속제품, 담배 등이다.

정부는 교육, 문화, 보건 부문에서도 식민주의 잔재를 없애기 위하여 투쟁하고있으며 새로운 민족문화와 민족교육을 발전시켜나가고있다.

모든 사립학교가 국유화되였으며 전국 각지에 소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고등학교들이 있다.

문맹퇴치 및 농촌출판물문제위원회가 모든 도시와 주, 농촌주민지대들에 조직되여 성인문맹퇴치운동을 국가적으로 밀고나가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외국영화와 출판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있으며 인민문화지도국을 새로 내오고 각 지방에서 예술소조들을 움직이고있다.

정부는 병원과 진료소, 산원 등 의료망을 늘이고 의료시설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제약공업을 국가가 장악하고 생산과 판매를 통제하고있다.

1977년에 30헥타르의 부지에 3만 1천석의 좌석과 실내체육장, 수영장, 야외훈련장을 가진 꼬또누경기장이 건설되였다.

1977년 수도 꼬또누에 아프리카의료일군들을 위한 국제의학연구소가 생겼다.

주민들은 지방종교를 믿으며 회교와 기독교도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베닌통신

신문 다오엑스프레스(정부기관지), 악씨옹 뽀뿔레르, 로브 누벨, 베닌 앵포르마씨옹, 르 데모끄라뜨, 미쎄누—미쎄그베, 이볼레

방송 베닌방송, 베닌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2월 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68년 9월 6일 베닌조선친선협회, 1971년 5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과 독립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베닌련대성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6년 5월 3일 베닌의 꼬또누에서는 우리 나라와 베닌사이에 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이 맺어졌다.

1976년 7월 마티어 께레꾸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베닌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공예품전람회가 1977년 4월 8일부터 14일까지 꼬또누대회당에서 진행되였다. 마티어 께레꾸대통령을 비롯한 이 나라 당과 정부 간부들이 전람회를 돌아보았다.

1977년 7월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베닌에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련대성집회들이 조직되였으며 베닌정부와 인민은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였다.

1977년 1월에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7년 9월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베닌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나이제리아

(나이제리아련방공화국)

넓이 92만 3,768Km²
인구 6,475만명 (1976년)
수도 라고스(주민 90만 1,000명)

자연 및 주민

나이제리아는 아프리카의 서부 기네만기슭에 있는 나라로서 니제르, 까메룬, 베닌 등과 국경을 같이하고있다.

나라의 북쪽은 넓은 고원지대로 되여있고 남쪽으로 점차 낮아지면서 초원지대, 산림지대, 진펄지대가 있다. 지방에 따라 기후의 차이가 심하다.

주민은 다민족국가로서 하우사족, 요르바족, 이보족을 비롯하여 300여개의 종족으로 구성되여있는

데 대부분이 수단계통의 흑인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정　치

나이제리아는 1960년 10월 1일 《영련방》안에서 독립하였으며 1963년 10월 1일 련방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6년 7월 29일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야쿠부 고원이 1967년 5월에 련방의 새 체계를 내오고 12개주로 구성되는 련방공화국을 수립하였다.

1975년 7월 29일 군부안의 장교들의 《무혈군사정변》으로 무리탈라 라나트 모하메드륙군준장이 국가원수 겸 군총사령관으로 임명되였으며 새 련방군사정부를 구성하였다.

1976년 2월 13일 반란자들에 의한 군사정변으로 국가수반이였던 무리탈라 라나트 모하메드가 살해되였다. 반란자들의 정변음모는 즉시 진압되였으며 국가수반으로 나이제리아군총참모장 올루세군 오바산죠가 임명되였다.

정부는 외래제국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많은 회사, 공장, 은행들에 대한 통제 및 국유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체의 민족공업을 건설해나가고있다.

1977년 10월 1일 독립 17돐을 기념하는 열병식에서 국가수반 올루세군 오바산죠는 국내자원에 의거하여 나라를 건설할것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대외적으로 나이제리아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7년 8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이 나라의 수도 라고스에서 인종격리반대세계행동대회가 진행되였다.

1977년에 나이제리아는 베닌과 직접 련계를 가질수 있는 무선통신망을 창설(1월)하였다. 1977년에 나이제리아는 니제르와 항공봉사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1월), 이라크와 무역협정(2월), 인도와 경제및기술협조협정(12월)을 맺었다.

1977년에 잠비아대통령(1월), 로므니아대통령(3월), 모잠비끄대통령(12월)이 나이제리아를 방문하였으며 나이제리아국가수반이 니제르(7월), 까메룬(8월), 모잠비끄(9월), 탄자니아(9월), 잠비아(9월), 자이르(9월), 미국(10월)을 방문하였다.

련방군사정부 최고군사리사회, 민족국가리사회, 련방집행리사회로 구성된 최고기관, 립법권과 집행권을 가짐, 정부수반이 군총사령관직을 겸임, 수반 올루세군 오바산죠(1976년 2월 14일—)

최고군사리사회 립법기관으로서 국가수반 겸 군총사령관, 최고사령부 총참모장, 륙해공군총참모장들, 경찰총감 등 20여명으로 구성

련방집행리사회(내각) 집권기구로서 최고군사리사회의 직속기관, 의장 올루세군 오바산죠, 외무담당위원 제이 엔 가르바

민족국가리사회 1975년 7월 30일 새로 구성

정당, 사회단체; 1966년 5월 모든 정당, 사회단체를 해산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80%가 농사를 한다. 부침땅은 령토의 35%이다.

주요농작물은 야자, 코코아, 땅콩, 잎담배, 목화, 천연고무 등인데 야자, 코코아, 땅콩 등의 생산량과 수출량은 세계적으로 손꼽힌다. 야자기름 생산량은 세계에서 제일 많다. (약 50만톤) 이 밖에 수수, 강냉이, 벼 등도 심는다. 1976—1977년도에 코코아는 16만 5천톤, 목화씨는 14만 8천톤 생산되였다. 북부지역 초원에서는 소, 양, 염소, 락타 등을 많이 기른다.

정부는 농업을 여러모로 발전시키기 위해 1977년에 종자생산기지들을 꾸렸으며 189개의 농업봉사소를 내올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농업봉사소들은 농촌에 화학비료와 농약 등 영농자재를 보내주고 농민들에게 뜨락또르를 대여해주는 사업을 맡아한다.

령토의 3분의 1이 산림지대인 이 나라에서 채벌되는 나무의 대부분은 경질목재들인데 많은 량은 통나무 그대로, 일부는 합판으로 가공되여 수출되고있다.

공업은 원유, 콜롬바이트, 주석, 우라니움, 중석, 탄탈, 석탄, 금, 철광석 등을 캐내는 채굴공업과 원유가공공업이 기본으로 되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채취공업에 치중하던 지난날의 식민지적편파성을 없애고 공업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여러 공업부문 특히 야금공업, 기계제작공업, 원유공업과 운수발전에 힘을 넣고있다.

세계 10대원유생산국의 하나인 이 나라에서는 1976년에 1975년에 비하여 16% 늘어난 1억 200만톤의 원유를 생산하였다. 1977년 첫 6달동안에는 1976년 같은기간에 비하여 410만톤이나 더많은 5천 430만톤의 원유를 생산하였다. 1976년에 얻은 화폐수입액은 1975년에 비하여 4억 5천만딸라 더 많았다.

1977년에 20개의 원유저장고와 2개의 원유가공공장 건설이 진행되였다.

1976년에 이 나라의 공업제품생산은 1975년에 비하여 14.5% 늘어났다.

1977년에 아쟈오쿠타의 큰 야금종합공장건설을 비롯하여 사펠시에서 48만키로와트의 발전능력을 가지게 되는 화력발전소, 라고스, 카두나에서 화력발전소, 쥐바에서 수력발전소 건설이 진행되였다.

교통운수에서 철도와 하천 운수가 기본이다. 철

길의 총길이는 3천 500키로메터, 도로의 총연장길이는 5만 9천마일이다.

1976년 대외무역총액은 1975년에 비하여 37% 늘어난 118억 5천만내이라였다.

주요수출품은 원유(1976년에 총수출액의 94%를 차지), 코코아, 땅콩 및 땅콩기름, 목화, 콜롬바이트, 주석, 목재, 가죽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천, 식료품, 의약품, 섬유제품, 세멘트, 강재, 기계류 등이다.

교육은 수도의 교육과 이바단에 있는 대학만을 련방정부가, 기타 주교육행정은 각 주정부들이 맡아본다. 따라서 주마다 교육제도가 다르다. 1973년에 중등학교수는 1천 494개, 중등기술전문학교수는 78개였다. 1977년에 대학은 13개였다. 1977년 4월 정부는 일로린, 까노 및 뽀르뜨—하르꼬르뜨에 있는 단과대학들을 종합대학으로 만들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자체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의하여 1975년부터 1977년까지의 기간에 공업연구소, 전국의학연구소를 포함하여 6개의 과학연구소들이 나왔다. 1977년 3월에는 나라의 전반적과학연구활동을 지도하는 전국과학기술연구소가 나왔다.

보건사업은 각 주정부들이 맡아보고있다.

인구의 47%가 이슬람교, 34%가 기독교를 믿으며 나머지는 전통적인 지방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신문** 모닝 포스트(련방정부기관지), 데일리 타임스, 데일리 엑스프레스, 데일리 스케취, 나이제리언 모닝포스트, 뉴스, 썬데이 스타, 나이제리언 워커

방송 나이제리아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 카더나북부나이제리아텔레비죤방송, 나이제리아국제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6년 5월 2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0년 12월 라고스에서 나이제리아조선인민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1971년 5월 나이제리아에서 《김일성서점》을 개관하였다.

1977년 2월 수도 라고스에 있는 라고스기술종합대학 회관에서 나이제리아조선인민친선협회의 주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 사진 및 공예품전람회가 진행되였다.

1977년에 우리 나라 경제기술대표단, 조선소년단지도일군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1월에 우리 나라 정무원 부총리 겸 외교부장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국가수반 올루세군 오바산죠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오바산죠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진행하고있는 정당한 투쟁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경탄을 표시하면서 나이제리아가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들에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이전과 같이 앞으로도 계속 지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977년 1월과 8월에 나이제리아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7년 9월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이 나라 정부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니 제 르

(니제르공화국)

넓이 126만 7,000Km²
인구 473만명(1976년)
수도 니아메(주민 10만 2,000명)

자연 및 주민

니제르는 서아프리카 사하라사막남부에 있는 내륙나라이다.

령토의 대부분은 사막과 풀벌로 되여있다.

열대사막기후로서 년중 기온이 높으며 한해평균기온은 30°C이며 한해에 비가 남부에서 250～300mm, 북부에서 100mm내린다.

주민은 하우사족(50%), 송가이족(20%), 제르마족, 풀베족 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나 5개의 민족어도 쓴다.

정 치

19세기후반기부터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침입을 받아온 니제르는 1908년부터 《프랑스령서아프리카》에 속해있다가 1960년 8월 3일 《프랑스공동체》안에서 독립하였으며 1961년 2월에는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나왔다.

1974년 4월 15일 군총참모장이던 쎄이니 꾼체가 정권을 잡고 최고군사리사회를 조직하였으며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활동을 금지시켰다.

니제르 정부와 인민은 《식량을 자급자족하자》, 《농업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주로 자체의 힘에 의거하자》라는 구호를 들고 1976년부터 농업발전3개년계획을 수행하고있다.

1977년 11월 한 연설에서 이 나라 국가수반은 알곡을 자급자족한다는것은 니제르인민에게 있어서 빈구호가 아니라고 말하고 알곡을 자급자족하기 위해서는 니제르경제를 자연의 피해로부터 구원하는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1977년에 가물과 기타 자연기후조건으로 인한 피해가 있었지만 이것은 결코 니제르인민의 사기를 꺾지못할것이라고 말하고 이러한 피해를

딱기 위하여 모든 힘을 기울일것을 호소하였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쁠럭불가담정책을 내세우면서 아프리카의 완전통일을 주장하고있다.

1977년 11월 니제르에서 상부볼따, 또고, 니제르 국가수반들의 회의가 진행되였으며 이에 앞서 3월에는 사하라사막주변 5개국 알제리, 말리, 니제르, 챠드, 리비아 국가수반들의 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다.

이해에 니제르는 애급과 보건, 농업, 교육 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협정(5월), 나이제리아와 항공봉사 및 기술협조에 관한 두건의 협정(1월)들을 맺었다.

이해에 이 나라 국가수반이 중국(9월)과 알제리(10월)를 방문하였다.

최고군사리사회 1974년 4월 15일 군사정변후 조직된 최고기관, 의장 쎄이니 꾼체

정부 국가수반, 총리 쎄이니 꾼체(1974년 4월—, 1976년 2월 내각개조), 외무 및 협조 부장 무무니 제르마꼬이에 아다무

정당, 사회단체; 1974년 4월 정변후 일체 정당활동을 금지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90% 이상이 농사를 짓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땅콩, 목화, 기장, 수수, 벼 등이다. 해마다 땅콩 20만톤, 목화 1만톤 정도 생산된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토지개혁이 실시되고 땅이 없는 농민들이 국가로부터 땅을 받고있으며 농업협동조합들이 무어지고있다.

또한 이상기후현상에 의한 피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이 적극 벌어진 결과 나라의 여러지역에 많은 소규모의 저수지와 우물이 생겨나고있으며 사막지대에는 바람막이숲이 이루어지고있다. 황무지를 일구는 사업도 벌어져 씨붙임땅이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농업발전 3개년계획이 끝나는 1978년에 땅콩 22만톤,목화 1만 5천톤을 생산할 목표를 세우고있다.

니제르는 아프리카에서 손꼽히는 축산의 나라로서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락타 등이다. 1977년에 소는 400만마리이상, 양과 염소는 700만마리이상이였다.

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광업과 농축산물가공공업이다.

독립당시 6개의 공장밖에 없었던 이 나라에 40여개에 달하는 크고작은 공장들이 일떠섰다.

주석, 우라니움을 캐내는 광산들이 있다.

철길은 없고 자동차길도 아직 발달되지 못하였다.

니제르는 1977년에 2천톤의 농축우라니움을 수출함으로써 세계에서 5번째의 우라니움수출국가로 되였다. 광물수출액은 근 1억 8천만딸라에 달하는데 그것은 국가예산의 3분의 1이상을 담당한다.

주요수출품에서 땅콩과 땅콩기름, 집짐승과 축산물 등이 수출총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주요수입품은 천, 자동차, 기계, 원유제품 등이다.

1960년 독립당시 단 몇개의 초등 및 중등 학교만 있었던 이 나라에 1977년 현재 한개의 종합대학, 48개의 중등및기술학교, 990개의 초등학교가 있다. 초등학교학생수는 1959년의 8.1배인 12만 900여명에 달한다. 중등학교학생수는 약 1만 2천 300명이다.

1976년에 1천 590여개의 교실이 완공되였다.

자체의 교원대렬을 꾸리기 위하여 정부는 3개의 교원양성학교를 건설하였다. 1977년현재 3천명의 초등학교 교원들은 모두 니제르사람들이다.

독립당시까지만 해도 주민의 99%가 문맹자였던 사정과 관련하여 글모르는 어른들에게 글을 가르쳐주기 위한 440여개의 문맹퇴치소가 설치되여 운영되고있다.

2개의 작은 병원밖에 없었던 이 나라는 1975년 말까지 5개의 주소재지들에 각각 병원이 일떠섰다. 니아메와 진데르에는 2개의 국립병원이 새로 확장건설되였다.

군마다 꾸려진 의료소와 전국 각지에 세워진 170여개의 진료소는 주민들의 건강관리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자체의 보건일군을 양성하기 위하여 2개의 의학학교가 건설되였으며 니아메종합대학안에 의학대학이 나왔다.

농촌지대들에서는 간호원 및 간병원들을 키워내기 위한 단기양성소가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있다.

민족어발전을 위한 전국편찬위원회가 1961년초에 나왔다. 그리하여 1977년현재 니제르는 5개의 민족어를 가지게 되였으며 민족어로 정기간행물이 발간되고있다.

종교는 회교도 (95%)가 기본을 이루고있다.

출판보도;**신문** 르땅 듀 니제르, 쥬르날 오피씨엘 드 라 레쀼블리끄 듀 니제르, 르 니제르, 레 싸헬

방송 니제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9월 6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챠 드

(챠드공화국)

넓이 128만 4,000Km²

인구 412만명(1976년)

수도 느자메나(주민 18만명)

자연 및 주민

아프리카대륙의 중앙부에 있는 챠드는 리비아, 수단, 니제르, 까메룬, 중앙아프리카 등과 잇닿아있는 바다를 끼지못한 나라이다. 전령토의 3분의 1이 사막이다.

한해평균기온은 30°C이며 한해평균비내리는량은 100～250mm이다.

1977년에 챠드에서는 심한 가물이 들었다.

주민의 대부분은 아랍족, 하우사족, 사라족, 투부족 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나 북부에서는 아랍어, 남부에서는 여러 종족어를 쓴다.

정 치

19세기중엽부터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기시작한 챠드는 1900년 9월 프랑스의 《군정지역》과 《보호령지역》으로 나뉘여 식민지통치를 받았다.

1908년에 두 식민지지역은 《프랑스령적도아프리카》에 편입되였다.

챠드인민들은 오랜 투쟁을 통하여 1957년초에 《프랑스공동체》안에서 《반자치공화국》으로, 1958년에는 《자치공화국》으로 되였다가 1960년 8월 11일에는 《프랑스공동체》안에서 독립하였다.

1973년 9월 정부는 포르라미로 불리던 수도 이름을 느쟈메나로 고쳤으며 식민지시기에 불리우던 수도의 모든 거리이름들도 고쳐부르게 하였다.

1975년 4월 13일 군사정변에 의하여 똠발바예가 죽고 최고군사리사회가 새로 구성되였으며 림시정부가 수립되였다.

최고군사리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헌법의 효력이 정지되고 정부와 국회, 최고재판소, 이전 대통령이 창설한 진보당이 해산되였다.

1975년 10월까지 독립후에도 계속 주둔하고있던 약 2천 330명의 프랑스군과 그들의 가족들이 챠드에서 완전히 철수하였으며 챠드정부에 대한 군사, 기술 고문들만이 남아있게 되였다.

챠드는 종족들을 하나로 묶어세우기 위한 투쟁과 함께 나라의 자주권을 공고히 하며 사회생활의 여러부문에서 식민지적잔재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진행하고있다.

챠드정부는 대외적으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챠드국가수반은 2월에 외교사절들과 만난 자리에서 챠드는 팔레스티나인민의 위업과 아직 식민주의 및 인종주의자들의 통치밑에 있는 여러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계속 지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977년 1월 챠드국가수반이 애급을 방문하였다.

최고군사리사회 1975년 4월 16일 수립, 국가수반, 최고군사리사회 위원장 펠릭스 말룸 느가꾸뚜베이 느디

정부 총리는 최고군사리사회 위원장이 겸한다. 외무및협조부장 까무게 와달 아브델 까데르

정당, 사회단체; 1975년 4월 13일 군사정변후 모든 정당활동은 금지되였다.

경제, 사회문화

목화농사와 목축업을 위주로 하는 농업이 경제의 기본으로 되여있다.

주민의 90%가 농사를 짓고있으며 부침땅은 전령토의 5%이다.

국민소득의 80%가 농업에서 얻어진다.

주요농작물은 목화이며 그 밖에 땅콩, 벼, 수수, 기장, 사탕수수를 가꾼다.

목화생산액은 사회총생산액의 20%, 수출총액의 80%이상을 차지하고있다.

1976—1977회계년도에 이 나라는 7만 1천톤의 목화를 땄다.

정부는 목화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목화의 재배와 수매, 가공, 수출을 통일적으로 장악통제하는 《챠드목화회사》를 내왔으며 새 땅을 일구고 관개공사와 선진영농법을 받아들이는 사업도 진행하고있다.

한편 정부는 농업을 여러모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있다.

이 나라는 좋은 종자집짐승들을 받아 기르며 축산기지를 튼튼히 꾸리는 등 축산업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있다.

1977년현재 이 나라는 주민 한사람당 집짐승마리수에서 아프리카나라들 가운데서 첫자리를 차지하고있으며 해마다 많은 고기를 생산하여 수출하고있다.

이 나라에는 약 1천만마리의 집짐승이 있으며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말, 락타 등이다.

챠드호를 비롯한 여러 호수들에서 1974년에 11만 5천톤의 물고기를 잡았다.

경제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10%정도이다.

공업에서는 농축산물을 초보적으로 가공하는 솜타기, 기름, 정미, 가죽이김 공장 등이 기본이다.

새로 건설된 화력발전소, 원유가공공장, 방직공장, 사탕공장 등은 나라의 민족경제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있다.

챠드에는 철도가 없다.

정부가 자동차길닦는 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린 결과 1977년에 자동차길 총길이는 3만 700여키로메터에 달하였다.

주요수출품은 목화와 땅콩, 집짐승, 고기, 가죽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천, 식량, 일용품, 운수수단, 기계류 등이다.

민족교육발전을 위한 조치에 의하여 독립당시 5만명밖에 안되던 이 나라의 학생수는 1971년에

20만명으로 늘어났다.

1972년에 이 나라수도에 첫 국립대학이 일며섰다.

주민의 약 절반이 회교를, 그밖에 주민은 지방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챠드통신

신문 앵포 챠드, 앵포르마씨옹 에꼬노미끄, 쥬르날 오피씨엘 드 라 레쀼블리끄 듀 챠드

방송 챠드라지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5월 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챠드라지오방송은 여러차례 특집방송을 하였다.

1977년 9월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챠드공화국 정부대표가 참가하였다.

까 메 룬

(까메룬련합공화국)

넓이 47만 5,442Km²

인구 653만 9,000명(1976년)

수도 야운데(주민 27만 5,000명)

자연 및 주민

까메룬은 아프리카대륙의 서쪽 기네만에 면해있다. 한해 평균기온은 25°C, 평균 비내리는량은 1,600mm이다.

주민은 반투족, 세미반투족, 풀족, 함족 등 130여개 종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이다.

정 치

1916년에 까메룬을 강점한 영국과 프랑스 침략자들은 1919년에 동서로 분할하여 각각 식민지통치를 실시하였다.

1960년 1월 1일에 프랑스령까메룬이, 1961년 2월에는 영령까메룬이 각각 독립하였으며 같은해 10월 1일에는 이 두지역이 통합하여 까메룬련방공화국을 형성하였다.

1972년 5월 20일 새 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진행되고 련방을 이루고있던 동서까메룬이 단일한 국가체제인 까메룬련합공화국으로 선포되였다.

독립후 까메룬인민은 제국주의식민지통치가 남겨놓은 악독한 후과를 가시고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벌리고있다.

까메룬대통령은 《자립적인 경제적토대가 없는 정치적자주권은 주추돌이 없는 집과 같다》라고 하면서 인민들을 자립경제건설에로 불러일으켰다.

독립후 3차례의 5개년계획이 성과적으로 수행됨으로써 민족경제의 토대가 점차 축성되고 나라의 경제적자립성은 날로 강화되고있다.

1977년 11월 17일 대통령은 서부주의 바푸쌈에서 진행된 농산및축산물전람회 개막식연설에서 나라의 내부원천을 동원하여 농업을 자체의 힘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외국의 원조는 나라의 발전을 위한 투쟁에서 하나의 보충적수단으로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이해 5월 20일 까메룬의 민족적명절 5돐을 기념하여 수도 야운데에서 군중시위와 열병식이 있었다.

대통령은 1월 15일 까메룬민족동맹 제4차전국회의개막식에서 연설하면서 까메룬은 일관하게 평화, 독립, 쁠럭불가담, 다른 나라들과의 협조정책을 추구한다고 말하였다.

이해 까메룬대통령이 알제리(7월), 중국(10월), 을 방문하였으며 8월에 나이제리아국가수반이 까메룬을 방문하였다.

국회 일원제, 총의석 120석을 민족동맹이 차지, 임기 5년, 1973년 5월 18일 선거

대통령 국가수반이다. 대통령 아호마두 아히죠(1960년—,1975년 4월 5일 다시 선거됨)

정부 1975년 6월 30일 새 정부 구성, 총리 뽈비야, 외교부장 장꺄챠

정당, 사회단체; 민족동맹(집권당) 1966년 9월 1일 동서까메룬의 6개정당들이 통합되여 결성, 위원장 아호마두 아히죠, **전국근로자동맹, 민주녀성동맹, 민주청년동맹**

경제, 사회문화

인구의 85%가 농업부문에서 일하고있으며 국민총생산액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몫은 33%이다.

주요농작물은 코코아, 커피, 바나나, 종려, 목화, 강냉이, 조, 벼, 고구마, 땅콩 등이다.

최근년간 정부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늘이고 씨붙임땅을 늘이며 관개공사를 벌리고 병충해를 방지하는 등 농업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였다.

1977년에 정부는 농업발전을 위해 15억아프리카프랑을 더 지출하였다.

1976—1977농업년도에 커피는 9만 5천톤, 코코아는 8만 3천톤, 땅콩은 6만 5천여톤, 목화는 4만 9천 462톤(1975—1976농업년도), 목화씨는 3만 8천톤을 각각 생산하였다.

목축업은 농업과 함께 까메룬의 경제에서 주요부문을 이루고있다. 주로 북부와 서부지역에서 소, 양, 염소, 돼지 등을 많이 기르고있다.

1975—1976회계년도에 소는 300만마리이상,

1977년에 양은 360만마리 있었다

까메룬 동부주에는 보크사이트가 많으며 나이제리아와의 국경지대에서 석유도 채취되고있다.

독립후 3차례의 5개년계획이 수행됨으로써 이 나라에 방직공장, 통졸임공장, 알루미니움공장, 벽돌공장, 화학제품공장, 세멘트공장 (1975년에 23만 8천톤 생산)들이 새로 일떠섰다. 여기에서 생산되는 공업제품들은 민족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돌려지고있다.

1977년에는 까메룬사탕회사와 보나베리화학공장이 조업하였다.

운수는 철도운수와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의 총연장길이는 800키로메터이다.

1976—1977회계년도에 이 나라의 철도짐수송량은 4억 8천 640만톤이였다.

주요수출품은 코코아, 커피, 바나나, 목재, 목화, 종려기름, 땅콩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원유제품, 기계류, 운수수단, 천, 식량 등이다.

정부는 《간부의 까메룬화》방침에 따라 기술교육부문에 대한 투자를 점차 늘이고 기술학교들을 확장하거나 새로 건설하고 자체의 기술교육부문교원들을 키워내고있다.

각급 중등기술및직업학교수는 1967년의 79개로부터 1973—1974학년도에 130개로 늘어났다. 1974—1975학년도에 이 학교들의 총학생수는 1967년의 거의 3배인 2만 7천여명에 달하였다.

같은 기간 교원수는 약 180명으로부터 1천 200여명으로 늘어났다.

1975년에 4천 600개의 소학교와 중학교가 있었다. 야운데에 종합대학이 있다.

까메룬에서 약초를 리용하는 전통적인 치료법을 널리 발전시키고있다.

정부는 나라에 풍부한 약초에 대한 연구사업과 그 리용을 대중화할 목적으로 1974년에 이미 약초연구소를 내왔었다.

1977년 7월에 까메룬에서 《쏘씨에떼 데 쁘레쓰에 데디씨옹 듀 까메룬》국영출판회사를 내왔다.

주민의 절반이 지방종교를 믿으며 그 밖에 기독교(33%)와 회교(15%)도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까메룬통신

신문 유니떼(민족동맹기관지), 까메룬 트리뷴, 라드레스뒤 까메룬, 쁘레스 드 까메룬, 레포르 까메룬네, 프레스 앤때르

방송 까메룬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3월 3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7년 5월 까메룬의 수도 야운데에서 우리 나라 도서 및 공예품전람회가 진행되였다.

이해 9월에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까메룬전국기자동맹 및 까메룬농촌발전위원회 대표가 참가하였다.

중앙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제국)

넓이 62만 2,984Km²
인구 320만명(1976년)
수도 방기(주민 35만명)

자연 및 주민

아프리카대륙의 중앙부에 있는 중앙아프리카는 수단, 챠드, 까메룬, 콩고, 자이르 등에 둘러싸여있다.

비는 년평균 남부지역에서 1,000~2,000mm, 북부지역에서는 300~500mm 온다.

주민은 주로 우방기족, 방다족, 망시아족, 사라족, 페르따족 등을 비롯한 8개의 종족으로 되여있으며 백인들도 좀 살고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정 치

1894년에 프랑스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던 이 나라는 1910년에 프랑스령적도아프리카에 병합되였다. 1911년에 독일식민지로 넘어갔다가 제1차세계대전후 다시 프랑스식민지로 되였으며 1958년까지 우방기샤리라는 이름으로 프랑스령적도아프리카에 속해있었다.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1958년 12월 1일 《프랑스공동체》안에서 자치공화국을 선포하고 우방기샤리라고 부르던 나라이름을 중앙아프리카공화국으로 고쳤으며 1960년 8월 13일에는 《프랑스공동체》 안에서 독립하였다.

1965년 12월 31일 륙군참모총장이던 보카싸는 반동적인 다꼬정부를 뒤집어엎었으며 1966년 1월에 헌법을 페지하고 민족회의를 해산하였다.

그리고 보카싸가 국가수반으로, 대통령으로 되였다.

1976년 12월 4일 새헌법에 의하여 보카싸대통령을 초대황제로 하는 《의회제군주국》으로 되였다.

중앙아프리카인민은 대민족혁신당인 흑아프리카사회진화운동당의 두리에 뭉쳐 《보카싸작전》을 벌려식민주의의 잔재를 영원히 청산하며 자주적인 국가를 창설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정부는 1966년 5월에 녀성들에게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주는 법령을 발포하였으며 1970년 1월에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중앙금고》를

국가의 통제밑에 두고 강하천운수회사를 국유화하였다. 1970년 9월에 토지개혁실시를 공포하고 농산물수매기구를 창설하였다.

1974년 5월에 《쉘》, 《모빌》, 《텍사코》를 비롯한 다섯개의 외국석유회사 재산을 국유화하였다.

1977년 12월 4일 수도 방기에서 중앙아프리카제국 황제 보카싸1세의 대관식이 있었다.

이 나라는 대외적으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 특히 반제적인 아프리카나라들과의 관계를 밀접히 하고있다.

국민의회 성원들은 흑아프리카사회진화운동당에 의하여 지명추천되며 5년임기의 의원으로 선거된다. 예산편성, 계획작성, 로동 및 사회안전 문제들에 관한 립법권을 가진다.

황제 국민의회를 해산시킬수 있으며 정부총리를 선발한다. 《제국의 정책》을 결정한다. 내각결정에 서명하고 법령들을 발포하며 모든 관공직의 임명과 군사적임명을 하고 대사를 선정하고 자기 후계자도 선발한다. 수석행정장관이다. 황제 보카싸1세

정부 황제가 선발한 총리가 있다. 1976년 12월 14일 새 정부(22명)구성, 총리 앙빠따세(1976년 12월 14일—), 외교부장 장 빠울모꼬도뽀

정당. 사회단체; **흑아프리카사회진화운동당** 1946년 창건, 1963년부터 유일당이며 집권당, **근로자총련맹, 녀성동맹, 민족청년동맹**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은 농업이며 인구의 85%가 농사를 한다. 부침땅은 약 150만정보이다.

주요농작물은 목화, 커피이며 그밖에 황마, 수수, 강냉이, 후추, 땅콩, 담배, 벼, 나무감자 등도 심는다.

1977년에 목화는 5만톤 생산되였으며 커피, 담배, 황마 생산도 늘어났다. 이 나라에서는 지금 야자나무, 코코아, 사탕수수 심기를 대중화하고 있다.

산림자원이 풍부하며 12가지 질좋은 목재가 생산된다.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나무찍는 구역이 12만헥타르로 따로 규정되였다. 결과 통나무생산량은 1977년에 1967년 생산량의 3배인 50만립방메터에 이르렀다.

민족공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나라의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강석채취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지금 년간 금강석생산량은 독립전의 4배에 달한다.

독립후에 건설된 방직공장, 염색공장, 황마공장, 황마자루공장은 1977년현재 자기 나라의 목화와 황마를 원료로 이 나라 인민의 힘과 지혜로 운영되고있으며 여기서 생산되는 일부 제품들은 수출까지 하고있다.

국영기업체, 국영—민간합영기업체들이 창설되고있으며 부문별 공업회사들도 생겼다. 지금 채광 및 금강석가공회사, 담배가공회사, 농산물가공회사, 방직공업회사 등 10여개의 회사들이 있다.

철길은 없고 하천운수와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도로의 총길이는 2만키로메터이다.

주요수출품은 금강석, 커피, 목화이며 이 세가지의 수출이 수출총액의 80～90%를 차지한다. 이밖에 목재, 천연고무, 땅콩 등도 수출한다.

주요수입품은 식료품, 천, 구두, 의약품, 밀가루, 기계, 자동차 등이다.

교육사업에서 정부는 민족간부의 양성과 간부들의 중앙아프리카화방침을 내세우고있다. 1977년에 이 나라에는 22개의 중학교와 800여개의 소학교, 몇개의 대학이 있다.

인구의 71%가 지방종교를 믿으며 그밖에 기독교, 회교도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떼르 아프리깬(흑아프리카사회진화운동당기관지), 쁘레쓰, 쥬르날 오피씨 엘드라 레쀼블리끄 쎈트 아프리깬, 방기 라쏘

방송 중앙아프리카제국의 소리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9월 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0년 10월 7일에는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과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특사가 1977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2월에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중앙아프리카제국 황제의 특별고문이 1977년 6월과 10월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7년 9월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중앙아프리카제국 정부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적 도 기 네

(적도기네공화국)

넓이 2만 8,051km²
인구 31만 8,000명(1976년)
수도 말라보(주민 3만 7,2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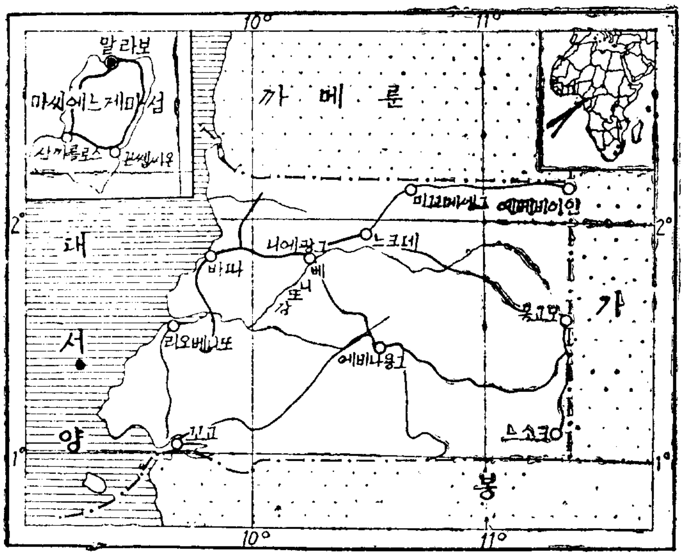
자연 및 주민

적도기네는 까메룬과 가봉사이에 있는 리오 무니주와 기네만에 있는 마씨에 느게마섬을 비롯한 4개의 작은 섬들로 구성되여있는 나라이다.

기후는 사철 무덥고 습기가 많다. 한해 평균기온은 25°C이상이며 평균비내리는량은 2,00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판그족(리오 무니에서 산다), 부비족(마씨에 느게마섬에서 산다)이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정 치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은 1778년에 페르난도 뽀섬(마씨에 느게마섬)을, 1886년에는 대륙에 붙어있는 리오 무니를 강점하고 식민지총독정치를 실시하였다. 적도기네인민들은 완전독립을 위한 오랜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1968년 10월 12일 에스빠냐의 식민지통치를 뒤집어엎고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였다.

독립후 적도기네는 민족적리익에 맞게 국가기구를 개편하고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방해책동과 경제봉쇄정책을 짓부시며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발전시켜나가고있다.

1969년 3월 5일 제국주의자들의 정변음모를 짓부시고 이날을 식민주의청산의 날로, 전국적인 명절로 기념하고있다.

이해에 에스빠냐침략군과 그 군사기지를 철수시켰으며 식민지통치시기 낡은 경찰제도를 페지하고 민족경찰과 전국경비대를 새로 조직하였으며 군사학교를 설치하였다.

1970년 1월에는 미제의 군사기지설치기도들을 물리쳤으며 미제의 석유회사와 《국제적십자사》의 간판밑에 적도기네에 둥지를 틀고있던 미국놈들을 내쫓았다.

1973년 7월 민족유일로동당 제3차대회에서는 새헌법을 채택하였고 산타 이사벨을 말라보시로, 페르난도 뽀섬을 마씨에 느게마섬으로 고쳐부르기로 하였다.

1976년 3월에 이 나라에서 내정간섭을 일삼던 미국대사와 총령사를 추방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1977년 3월 5일 적도기네종신대통령은 이 나라 완전독립 8돐을 기념하는 군중집회에서 연설하면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신구식민주의, 인종주의를 준렬히 규탄하고 적도기네는 이웃나라들을 비롯한 아프리카나라들과의 단결을 강화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977년 11월에 진행된 적도기네민족유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의 기초건설에 대하여》와 《당을 강화하고 적도기네혁명을 잘할데 대하여》, 《인민무력건설에서 나서는 몇가지문제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전원회의에서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은 적도기네민족유일로동당이 농업건설에 주되는 힘을 돌리고있다고 하면서 적도기네는 공업토대를 마련하고 자립경제를 건설해야 하며 사회주의를 건설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한 당을 강화하고 적도기네혁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선로동당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적도기네공화국은 대외관계에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고있으며 자주, 독립을 위한 피압박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1977년 9월에 적도기네종신대통령이 중국과 웰남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이 나라는 중국과 경제및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웰남과는 문화, 무역, 과학, 기술 및 경제적 협조에 관한 협정들을 맺었다.

민족인민회의 최고립법기관으로서 일원제, 의원수는 35명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정부수반이기도 하다. 대통령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1968년 9월—, 1972년 7월 민족통일당 제2차 대회에서 종신대통령으로 선거)

정부 총리는 대통령이 겸한다. 외교및제인민간의 친선부장 느게마 에쏘노 느차마

정당, 사회단체;민족유일로동당 유일당이며 집권당, 1970년 7월 7일 창건, 1972년 7월 제2차당대회에서 민족통일당을 민족유일로동당으로 고침, 위원장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 당 산하에 **《마씨에와 함께 전진하는》청년조직, 전국녀성조직** 등이 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대부분이 농사를 한다.

주요농작물은 코코아, 커피, 기름야자, 나무감자, 담배, 바나나 등이다.

커피는 주로 리오 무니에서 생산 (총생산량의 80%)되며 코코아는 마씨에 느게마섬에서 생산(총생산량의 90%)된다.

해마다 커피는 6천~8천론, 코코아는 2만 8천~3만 7천론정도 생산된다.

이외에 리오 무니주에서 질좋은 통나무도 많이 생산된다. 나라의 총 통나무생산량의 70%를 담당하고있는 이 주에서는 1년에 약 35만론의 질좋은 통나무를 생산하고있다.

적도기네정부는 《농업은 민족경제발전의 기초이다》라는 구호밑에 식민지단작경리의 후과를 없애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으며 지난날 코코아와 커피만 심던 땅에 벼, 강냉이 등 알곡작물을 심어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이 투쟁에서는 독립후 조직된 국영시험농장들과 농업협동조합들이 앞장에 서고있다.

공업부문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있다.

세멘트, 제재, 제분, 식료가공 등 일련의 가공공업이 발전하고있으며 자체원료에 의거하는 생활필수품생산기지들이 새롭게 창설되고있다. 1977년에는 수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등 중공업기업소들의 건설도 추진되였다.

이 나라에서는 국내의 모든 은행업무와 항구, 비행장, 발전소, 학교, 병원, 려관, 인쇄소들과 많은 공공건물들, 항공및해상 운수 등을 국가가 장악하고있다.

정부는 락후한 경제를 추켜세우며 민족경제를 창설하기 위하여 경제관리를 적도기네인민들에게 맡기게 하였으며 국가경제계획을 작성하기 위한 경제발전조직위원회를 내왔다. 또한 화폐개혁을 실시하고 공화국은행을 창설하였다.

철길은 없고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이 나라의 가장 큰 항구도시 바따에는 한해에 100만론의 짐을 싣고 부릴수 있는 설비들이 있다.

1977년 12월에 누꾸에와 몽고모 사이를 련결하는 도로가 건설되여 개통되였다.

자동차도로의 총연장길이는 1천키로메터이며 1977년현재 3천여대의 화물자동차와 뻐스가 있다.

자체의 민족간부양성을 위한 정부의 《간부적도기네화》방침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이 양성되였으며 여러개의 교육기관들이 새로 창설되여 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있다. 이 나라에 대학은 없고 인민학교, 중학교, 기술학교는 총 336개이며 학생수는 9만명이다.

또한 정부는 자체의 보건일군들을 양성해내는데 힘을 넣고있다.

1976년 6월에 보건일군양성소의 첫 졸업생들이 여러 지역의 치료기관들에 배치되였다.

출판보도; 신문 우니다드 델 라 기네아 에꽈또리알(정부기관지)

방송 적도기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1월 30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적도기네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이 1977년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의 방문기간인 9월 18일 평양에서 우리 나라와 적도기네사이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경제및기술협조에 관한 합의서가 조인되였다.

1977년 11월 이 나라 종신대통령은 우리 나라를 비롯한 외국방문결과를 환영하는 집회에서 연설하면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령도하시는 조선을 방문하고 영웅적조선인민을 따라 배워야 하겠다고 결심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이 나라 종신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에 앞서 7월에 종신대통령부인이며 적도기네민족유일로동당 전국녀성조직 명예위원장인 빈당 마씨에 느게마 비요고 네겐동녀사가 휴양차로 자녀들과 같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해 9월에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적도기네민족유일로동당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이해 7월 7일 적도기네민족유일로동당 창건 7돐에 즈음한 군중대회에서 이 나라 종신대통령은 적도기네가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견결히 지지한다고 강조하였다.

가　봉

(가봉공화국)

넓이 26만 7,667km^2

인구 90여만명 (1977년)

수도 리브르빌(주민 25만 1,400명)

자연 및 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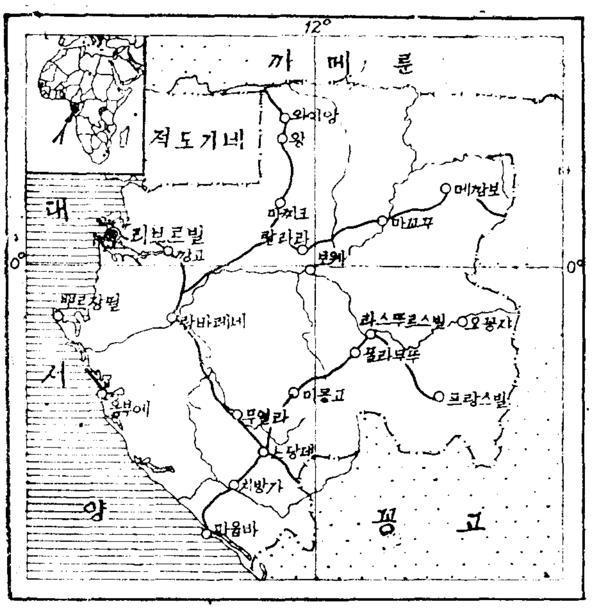
가봉공화국은 적도선을 가로지나 대서양을 끼고 서아프리카의 중부해안선에 위치하고있다. 동부와 남부는 콩고와 국경을 이루고있으며 북부는 까메룬, 서북부는 적도기네와 잇닿아있다. 령토의 85%가 산림지대이다.

이 나라는 적도상에 놓여있으므로 열대성기후로서 몹시 더우며 년간을 통해 기온의 변화가 적다.

한해평균기온은 30~35°C이며 한해비내리는량은 2,000~2,50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반투족이며 그밖에 피그미족, 팡족 등 40여종족으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정 치

가봉은 16세기말부터 뽀르투갈을 비롯한 구라파식민주의자들의 침략을 받아오다가 1910년부터 프랑스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1958년 11월에 가봉은 《프랑스공동체》안의 《자치공화국》으로 되였고 1960년 8월 17일에 독립을 선포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독립후 가봉인민은 민족적독립의 공고화와 나라의 번영을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독립후 가봉정부와 인민은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면서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힘쓰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지반을 청산하고 자체의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기업의 가봉화》의 구호밑에 무엇보다 먼저 외래독점체들의 리권을 국가의 수중에 장악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정부는 자기 나라에서 외래독점자본가들이 캐내고있는 우라니움값을 올리기로 결정하였다.

1974년 5월 가봉대통령은 우라니움을 비롯한 광물의 판매와 가격을 가봉이 통제할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정부는 이해 6월 외국자본에 의해 경영되던 메캄보철광회사주권의 60%와 오웬도세멘트회사주권의 51%를 국가가 장악하도록 결정하였다.

정부는 또한 기본자원의 하나인 석유제품판매를 통제하는 전국석유회사를 창설하였으며 외국인이 경영하는 가봉국제전신회사의 60%를 장악하기로 결정하였다.

1977년 현재 가봉인민은 제3차 5개년계획을 수행하고있으며 경제적해방을 위한 투쟁을 적극 벌리고있다.

가봉은 대외관계분야에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고있다.

가봉대통령은 1977년 6월 한 기자와의 담화에서 이스라엘이 강점한 아랍령토에서 물러가야 하며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창설하려는 팔레스티나인민들의 권리는 회복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1977년 7월에 가봉의 수도 리브르빌에서 제14차 아프리카통일기구 국가 및 정부 수뇌자회의가 진행되였으며 이에 앞서 6월에는 아프리카통일기구 부장리사회 제29차회의가 진행되였다.

가봉대통령은 1977년에 또고(1월), 중국(5월), 미국(3월), 프랑스(10월), 에스빠냐(11월), 카나다(10월), 아르헨띠나(10월)를 방문하였으며 같은해 6월에 꽁고대통령이 가봉을 방문하였다.

이해 1월에 가봉은 또고와 문화, 과학 및 기술, 체육 및 관광에 관한 협정과 통신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국민회의 일원제의 최고립법기관이다. 의원수 70명 (모두 민주당원들이다), 1973년 2월 선거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7년, 대통령 엘 하지 오마르 봉고(1967년 11월—, 1973년 2월에 다시 선거됨)

정부 총리 레온 메비암, 외무및협조부장 마르땡 봉고

정당, 사회단체; 민주당 집권당이며 유일당, 1968년 3월 12일 민주련맹과 민주사회동맹을 합당하여 창건, 총비서 엘 하지 오마르 봉고, **로조총련맹, 근로자전국련맹**

경제, 사회문화

《수림의 나라》로 불리우는 가봉경제의 기본은 림업, 목재가공업, 채굴업이다.

정부는 해마다 림업발전에 많은 자금을 돌리고 있다.

1975년까지의 몇해동안에만도 140억이상의 아프리카프랑이 이 부문에 돌려졌다.

통나무생산량은 해마다 230만립방메터에 달하고 있다. 그중 가장 값진 목재의 하나인 오꾸메나무의 한해생산량은 190여만립방메터로서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그밖에 해마다 4만여립방메터의 제재목과 질좋은 합판(1974년에 7만 900립방메터)이 생산되고있다. 오쿠메나무는 가봉의 특산물로서 합판제작에 쓰이고있다.

이 나라에서 수출되는 통나무와 목재가공제품은 대외무역의 37%를 차지하고있다.

팔프원료가 많기때문에 종이공업도 발전하였다.

많은 지하자원가운데서 원유와 망간, 우라니움은 이 나라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원유생산량은 1975년에 1천 200만톤이였다. 아프리카원유생산국들중에서 네번째자리를 차지한다.

망간은 약 2억톤 매장되여있으며 1974년에 그의 생산량은 11만 9천톤이였다. 또한 우라니움(1974년에 1천 713톤의 농축우라니움생산), 천연가스(1974년에 4천 562만 5천립방메터) 등도 채굴된다.

광물수출은 이 나라 수출총액의 60%를 차지하고있다.

제3차 5개년계획을 수행하고있는 가봉인민의 노력에 의하여 청량음료, 식료품, 방직, 합성수지, 비누 공장들이 건설되였다.

가봉의 1977년 지출과 수입 예산규모는 2천 558억아프리카프랑으로 규정되였다. 이것은 1976년에 비하여 32% 더 많은것이다. 그중 기본건설부문의 예산액은 1천 700억아프리카프랑에 달한다.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몫은 매우 낮다.

인구의 3분의 2가 농촌에 살고있는것을 고려하여 정부는 농촌발전에도 관심을 돌리고있다.

1963년에 본보기농장들과 가봉농촌개발회사를 설치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1965년에 정부는 전국상업및농업국을 내왔다.

국민총생산액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몫은 12%이다.

주요농작물은 코코아, 커피, 나무감자, 바나나, 땅콩 등이다. 1975년에 5천톤의 코코아, 17만 9천톤의 나무감자, 1만톤의 바나나, 600톤의 커피가 생산되였다.

축산업은 거의 없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와 강하천운수가 기본이다. 자동차길은 7천키로메터, 배길은 1천 700키로메터이며 광산들과 항구를 련결하는 철도가 부설되고있다. 주요항구는 젠틸항과 리브르빌항이며 오웬도에 새로 큰 무역항을 건설하였다.

비행장은 아프리카나라들중에서 가장 조밀하게 배치되여있는데 23개의 비행장중 3개는 국제비행장이다.

주요수출품은 원유, 통나무 및 그 가공품, 망간, 우라니움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강재, 전기기계, 자동차, 화학제품, 식료품 등이다.

독립후 교육이 발전하고있다. 1974—1975학년도에 초등학교는 734개, 중등학교는 57개, 전문학교는 12개였다. 1개의 종합대학이 있다.

도시에는 기독교가 우세하며 종족에 따라 서로 다른 지방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가봉통신

신문 악유알리떼 가봉내즈, 가봉 도쥬르듀이, 가봉 마땡, 르 빠뜨리오뜨, 류니옹

방송 가봉방송, 가봉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1월 29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7년 5월 12일 우리 나라와 가봉사이의 경제및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가봉민주당 총비서인 가봉공화국 대통령 오마르 봉고가 1977년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였다.

가봉대통령의 우리 나라 방문과 관련하여 5월 11일 이 나라 방송은 우리 나라에 대한 특별방송을 진행하였다.

1977년 4월에 가봉민주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이해 5월에는 우리 나라 외교부대표단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해 9월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가봉민주당대표단이 참가하였다.

꽁 고

(꽁고인민공화국)

넓이 34만 2,000km²

인구 139만명 (1976년)

수도 브라자빌(주민 30만 1,500명)

자연 및 주민

꽁고는 대서양에 흘러드는 꽁고강의 북부인 중앙아프리카의 중남부 바다가에 자리잡고있으며 자이르, 까메룬, 중앙아프리카, 가봉 등에 둘러싸여있다.

적도선우에 있으므로 사철 무더우며 제일 무더운때인 3,4월 평균기온이 27°C이고 제일 기온이 낮은 때도 평균기온이 22°C이다. 한해 비오는 량은 1,000～1,600mm이며 서부에서는 2,000mm의 비가 내린다.

주민의 97%가 반투족이며 피그미족도 약간 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며 반투어도 널리 쓰인다.

정 치

꽁고는 1960년 8월 15일에 프랑스《공동체》안에서 독립하였다.

1963년 8월 15일 애국적인민들이 전국적인 무장봉기를 일으켜 율루반동정권을 뒤집어엎고 혁명에서 승리하였다.

1968년 8월 당시 군총사령관이였던 느구아비가 전국혁명리사회를 창설하고 헌법을 폐기하였으며 집권당이였던 민족혁명운동당의 정치국을 해산하였다. 1969년 12월 31일에는 꽁고로동당을 창건하고 꽁고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의 독립후 꽁고인민이 걸어온 새 사회건설의 로정은 평탄하지 않았으며 제국주의, 신구식민주의 세력과의 날카로운 투쟁을 동반하였습니다.》

8월혁명승리후 꽁고인민은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끊임없는 파괴암해책동을 짓부시고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키며 《자력갱생》, 《자체의 힘에 의한 건설》이라는 진보적인 구호를 들고 새 사회, 새 생활창조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꽁고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정치경제적지반을 허물어버리기 위하여 제국주의자들과 맺었던 군사경제적협정들을 폐기하고 외국독점회사들을 국유화하였다. 외국독점체들이 가지고있던 광업 및 운수회사들이 국가의 통제밑에 장악되고 산림과 전력 및 식료 공업이 국유화되였다. 정부는 또한 국민소득의 많은 몫을 략탈하여오던 19개의 서방제국주의자들의 보험회사들의 활동을 금지시키고 국영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국영전력회사,국영벌목회사, 지하자원탐사및채굴민족협회 등을 창설하였으며 여러개의 공장, 기업소들을 새로 일떠세웠다.

자주적이며 진보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꽁고인민공화국의 성과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고있던 제국주의앞잡이들인 국내반동들은 1977년 3월 18일에 대통령 느구아비를 암살하였다. 대통령이 암살된 즉시로 전국에 야간통행금지령이 내렸으며 모든 집회들이 금지되였다.

꽁고로동당 중앙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나라의 권력이 11명으로 구성된 꽁고로동당 군사위원회에 넘어갔다.

이해 4월 3일 꽁고로동당 군사위원회에서는 조아심 이옴비 오빵고를 꽁고로동당 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국가수반겸부장리사회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4월 6일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꽁고인민공화국의 과업은 여전히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는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977년 6월 꽁고로동당 군사위원회는 민족인민군을 강화할데 대한 계획을 채택하였으며 전반적병역의무제를 실시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또한 11월 2일 부장리사회에서는 200마일령해권을 선포하였다.

1977년 8월 18일 대통령은 전국인민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꽁고인민공화국이 앞으로도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을 벌리고있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과 협조를 강화하는 로선을 계속 견지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대통령은 식민주의와 인종주의를 없애버리기 위하여 싸우고있는 남부아프리카 애국자들에 대한 원조를 강화할것을 여러 아프리카나라들에 호소하였다.

1977년에 꽁고대통령은 가봉(6월), 프랑스(6월), 리비아(6월), 독일민주주의공화국(10월), 앙골라(11월)를 방문하였다.

이해 2월에 꽁고는 수리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대통령 조아심 이옴비 오빵고(1977년 4월 6일)

정부 1977년 4월 5일 새로 조직, 총리 루이스 실뱅 고마, 외교및협조부장 테오필르 오벤가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집권당이며 유일당, 1969년 12월 31일 창건, **로동조합총련맹, 농업근로자직업동맹, 사회주의청년동맹, 녀성혁명동맹**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림업이며 주민의 80%이상이 이 부문에서 일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땅콩, 나무감자, 종려, 기장, 수수 등이며 최근에 벼, 커피, 사탕수수도 심는다.

독립후 이 나라에서는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농업회사를 국유화하고 국영농업회사, 농목장, 농업협동조합들을 무었다. 1977년현재 이 나라에는 200여개의 농업협동조합과 여러개의 국영농목장이 있는데 정부는 농업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1억아프리카프랑을 돌렸다.

이 나라에서는 홍나무, 경나무 등 진귀한 공업용목재들이 많이 생산되여 해마다 50만립방메터의 목재를 수출하고있다. 이것은 이 나라 수출총액의 70%에 해당된다. 국영목재가공회사에서 1976년에 417만립방메터의 목재를 가공하였다.

공업에서 중요한것은 광업과 목재가공업, 농산물가공업이다. 이 나라에서는 주로 금, 연, 주석동, 소금, 원유, 천연가스 등이 채굴되고있다. 국민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3분의 1에 해당된다.

1977년에 이 나라에서는 두번째로 큰 원유산지가 개발되였는데 한해에 평균 200만톤의 원유를 생산하게 된다. 제일 큰 원유산지는 에메로드산지이다. 이해에 꽁고에서는 국영원유가공공장이 건설되여 조업하게 되는데 100만톤의 원유를 가공하게 된다.

국가의 통제밑에 전력공업도 빨리 발전하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해마다 4천 500만~4천 800만 키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하고있다.

콩고목화회사는 1975년에 새로 일군 부엔자지역의 비옥한 땅 1천 500헥타르중에서 122헥타르에 목화를 시험적으로 심어 7월 중순까지 40톤의 목화를 땄다.

정부는 국영부문에 대한 지도를 개선하여 국유화된 기업소들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소들의 생산을 통제하는 혁명위원회들과 로조집행부를 창설하였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적지 않은 공업제품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있으며 천과 기타 일부 소비품들의 수요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 있다.

교통운수에서 철도가 주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철길의 총길이는 500키로메터이다.

1977년까지 3년간 정부는 도로건설에 109억아프리카프랑을 지출하였다. 1977년현재 이 나라의 자동차도로 총연장길이는 1만 1천키로메터이며 그중 310키로메터는 포장도로이다.

주요수출품은 통나무, 땅콩, 커피, 코코아, 바나나, 담배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류, 식량, 소비품 등이다.

콩고에서는 1965년에 학교들이 국유화되여 어린이들의 거의 모두가 학교에 다니고있다. 학생수는 독립전에 비하여 3배로 늘어났다. 중등학교만도 70여개에 이르고있으며 여기에서 7만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다.

교원양성사업도 추진되여 1975년말에 초등학교 교원수는 5천여명, 중등학교 교원수는 1만 3천여명에 달했다.

콩고정부는 보건분야에 해마다 투자를 10%씩 늘이였다. 1977년현재 수도 브라자빌에 있는 5개의 병원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20여개의 병원과 기동치료대, 예방의료소들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있다. 독립초기에 20명의 의사밖에 없던 이 나라에 1977년현재 1만 3천명당 1명의 의사가 차례지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콩고통신

신문 에뚬바(로동당기관지), 브라자빌, 라 부아 아프리깬, 꾸리에르 드 아프리끄, 브라자빌로와, 쁘띠 쥬르날 드 브라자빌, 쥬르날 오피씨엘 드 라 레뿌블리끄 듀 콩고, 라스맨, 무웨띠

방송 콩고 《혁명의 소리》방송, 브라자빌방송, 콩고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4년 12월 24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5년에 우리 나라와 과학기술협정, 무역 및 지불협정을 맺었으며 또한 우리 나라가 콩고에 경제 및 기술적 원조를 줄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1966년 12월에는 문화협정, 1967년 3월에는 통신 및 방송 협정, 9월에는 우편물교환협정을 각각 맺었다.

1968년 7월 25일 콩고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콩고인민에게 보내주신 빼뚜섬냥선물공장이 1970년 9월 26일 조업하였다.

1973년 8월 마리엔 느구아비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콩고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0년 콩고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김일성동지의 로작 및 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 《김일성동지혁명력사연구소조》,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연구소조》 등을 무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높이 추대되신데 대하여 콩고신문 《무웨띠》 1977년 12월 24일호를 비롯한 이 나라의 방송, 통신, 텔레비죤방송이 널리 보도하였다.

1977년 9월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콩고로동당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자 이 르

(자이르공화국)

넓이 234만 5,409km²
인구 2,500만명(1977년)
수도 킨샤사(주민 199만명)

자연 및 주민

자이르는 아프리카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수단, 우간다, 탄자니아, 콩고를 비롯한 9개의 나라들과 국경을 같이하고있으며 서쪽의 일부지역만이 대서양에 면해있다.

1977년 1월 12일 자이르동부의 키부주의 니라공고불산이 폭발하여 약 2천명이 죽었다.

기후는 무더운 적도열대성기후이고 한해평균기온은 24~27°c이다.

한해비내리는량은 북부에서 1,500~2,000mm, 남부에서는 1,600mm이다.

주민은 200여종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그중 반투혈통의 종족이 약 80%를 차지한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며 그밖에 스와힐리어를 비롯한 여러 종족어도 쓰고있다.

정 치

19세기 70년대에 벨지끄의 침략을 받아 1908년에 그의 식민지로 되였던 자이르는 1960년 6월 30일에 독립하였다.

독립후에도 이 나라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교활하고 집요한 파괴음모책동으로 5년동안이나 일시적인 분렬과 혼란이 조성되였다.

1965년 11월 당시 군사령관이던 모부투가 혼란된 정세를 수습하고 정권을 잡았다. 그후 자이르는 1967년 6월 새 헌법을 채택하고 민족회의를 일원제로 고쳤다.

자이르는 독립후에 《아프리카화》의 구호를 들고 식민지시대에 부르던 나라이름과 지방이름, 사람이름을 비롯한 거의 모든 이름들을 아프리카식으로 고쳤으며 국가적인 명절도 새로 정하였다.

1974년 12월 30일 자이르인민혁명운동은 나라의 경제, 교육, 군사 분야에서의 새로운 중요한 개혁들을 실시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75년 1월 인민혁명운동 정치국회의는 모든 공민들에게 그들이 외국에 가지고있는 재산, 회사 주권 및 증권들을 국가에 넘기며 그들이 국내의 외국은행들에 가지고있는 돈을 1976년 9월까지 넘길것을 명령하였다.

1977년 10월 자이르인민혁명운동의 정치국성원 18명을 선거하는것으로써 자이르에서 3단계선거가 끝났다.

첫단계에서는 1천 100명의 시참사회의원들이 선거되였으며 두번째단계에서는 민족회의(국회)성원 270명이 선거되였다.

한편 이해 12월 2일 대통령선거가 진행된 결과 모부투가 자이르공화국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되였다. 이어 자이르대통령은 12일에 24명으로 된 새 내각을 임명하였다.

1977년에 자이르대통령이 수단, 세네갈, 상아해안, 또고, 가봉, 마로끄, 잠비아, 프랑스, 벨지끄 등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였다.

이해 1월에 자이르는 앙골라인민공화국정부를 승인하고 그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민족회의 일원제 의원수 270명이며 임기는 5년, 1977년 10월 선거 진행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7년, 대통령 모부투 쎄쎄 쎄꼬 꾸꾸 느그벤두 와 자 방가(1965년 11월—, 1977년 12월 다시 선거됨)

정부 총리가 정부수반이다. 1977년 12월 12일 24명으로된 새 내각을 구성, 제1국무위원(총리) 므뼁가 까쎈다(1977년 7월 6일 자이르의 첫 총리로 됨), 외무및국제협조담당국무위원 옴바 디루떼떼

정당, 사회단체; **인민혁명운동** 1967년 5월에 창건, 집권당이며 유일당, **근로자전국동맹**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채광업과 열대농작물생산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우라니움, 동, 코발트, 금강석, 망간, 연, 아연, 중석, 라디움, 철 등이다.

금강석, 코발트, 우라니움 채굴량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하며 동채굴량은 세번째자리를 차지한다.

1975년에 금강석(공업용) 1천 241만 카라트, 코발트 1만 3천 600여톤, 동 49만 6천여톤, 망간 30만 8천 500여톤정도 생산되였다.

1976년 3월에 루샤뜨샤산지대에서 410만톤으로 추산되는 니켈매장지가 발견되였다.

1974년에 뜨락또르공장, 세멘트공장, 제철공장, 기름공장이 건설되였으며 1975년부터 제철공장에서 14만톤의 강철, 10만톤의 형강, 4만여톤의 아연도철판이 생산되였다.

주민의 70%가 농사하며 부침땅은 300만헥타르이다.

주요농작물은 커피, 야자, 목화, 담배,고무이며 이밖에 바나나, 차, 삼, 강냉이, 벼 등이 재배된다.

1975년에 강냉이 43만 3천톤, 커피 6만여톤, 바나나 7만 6천톤, 야자씨 7만 4천톤, 목화 (씨뽑은것) 1만 7천톤정도 생산되였다.

이 나라의 동부지대에서는 소, 양, 돼지 등 집짐승을 많이 기르고있다.

운수는 발전하지 못하였다. 광산지대에만 철길이 집중되여있다.

꽁고강은 배길로 리용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우라니움, 동, 금강석, 망간 등의 광석(광물이 수출총액의 80%)과 야자기름, 커피, 목화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광산기계와 설비품, 식량, 운수수단, 일용품, 석탄, 원유제품 등이다.

교육분야에서 1973—1974학년도의 학생수는 317만여명 특히 중학교학생수는 독립당시에 비해 10배나 늘어났다. 1974—1975학년도에 대학생수는 3천여명이였다.

1975년 2월 대통령은 나라의 모든 교회들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모든 학교들에서 종교교육을 금지시켰다.

주민의 절반이 지방종교를 믿으며 그외 주민들은 기독교,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자이르통신

신문 에뺑자, 쌀롱고, 엘리마(정부기관지), 모쟈, 디무까이, 맘뺑가

방송 꿀레그방송, 레오방송, 자이르국립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12월 1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1974년 12월에 모부투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부 룬 디

(부룬디공화국)

넓이 2만 7,834km²
인구 386만명(1976년)
수도 부줌부라(주민 9만명)

자연 및 주민

아프리카대륙의 중부에 있는 부룬디는 자이르, 르완다, 탄자니아와 국경을 같이하고있으며 바다를 끼지 못한 나라이다.

기후는 적도철바람기후로서 기온이 그리 높지 않으며 비교적 서늘하다. 한해평균기온은 23~25°C, 한해평균비내리는량은 1,000~1,50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바후투족이며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바투치족과 세계에서 가장 키가 작은 피그미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와 키룬디어이며 상업용어로는 스와힐리어도 쓴다.

정　치

독립전까지 부룬디는 《르완다—부룬디》로 불리여왔다.

부룬디는 1890년에 르완다와 함께 독일식민주의자들의 식민지로, 1922년부터는 벨지끄의 통치밑에 있었다. 그후 미제의 부추김밑에 1946년 12월부터 《유엔후견령》으로 되였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부룬디는 1962년 7월 1일 르완다와 갈라져 봉건왕국으로 독립하였다.

그후 1966년 11월 28일 반동적인 군주제도가 뒤집혀지고 공화국이 선포되였다.

1976년 11월 1일에는 군인들에 의하여 미좀베로정권이 전복되고 부룬디민족군 제1부총참모장이였던 대좌 쟝 바프띠쓰뜨 바가자를 의장으로 하는 최고혁명리사회가 조직되였다.

11월 10일 최고혁명리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쟝 바프띠쓰뜨 바가자가 나라의 대통령으로 임명되였으며 11월 11일에는 은잠비마나 에두아르드중좌가 총리로 임명되였다.

제2공화국사변이래 부룬디는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가 없는 공정한 사회건설을 지향하고있다.

1977년 4월 22일 정부는 자기 나라에 둥지를 틀고있던 미국놈이 경영하는 《카톨릭교방송국》을 폐쇄하는 단호한 반제적조치를 취하였다.

이해 7월 1일 수도 부줌부라에서 부룬디독립 15돐을 기념하는 열병식과 인민들의 시위와 군중집회가 진행되였다.

군중집회에서 연설한 이 나라 대통령은 나라의 대내정책에 언급하여 국가가 민족적통일을 강화하고 경제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정책을 계속 실시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대외정책에 언급하면서 그는 국가가 이웃 나라들과의 친선을 도모하며 적극적인 쁠럭불가담정책과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한 불간섭정책을 실시하며 민족해방운동들에 대한 국제적협조와 지지를 주는 원칙을 견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977년 8월에 대통령이 르완다를 방문하였으며 총리는 7월에 로므니아를 방문하였다.

부룬디대통령의 르완다방문끝에 조인된 공동콤뮤니케에서 쌍방은 남아프리카와 로데시아인종주의도당을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짐바브웨,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인민들의 해방투쟁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최고혁명리사회 1976년 11월 1일 구성, 의장 쟝 바프띠쓰뜨 바가자

대통령 국가수반으로서 모든 립법 및 집행권을 행사하며 임기는 7년, 대통령 쟝 바프띠쓰뜨 바가자 (1976년 11월 10일—)

정부 총리 은잠비마나 에두아르드(1976년 11월 11일—), 외교및협조부장 무강가 알베르

정당, 사회단체: 민족통일진보당 1966년 12월 24일에 유일당으로 선포된 집권당, **근로자총동맹, 르와가쏘레혁명청년동맹, 녀성동맹**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축산업이다.

주요농작물은 커피, 목화, 차, 바나나, 벼, 강냉이, 땅콩, 수수, 밀 등이다. 1975년에 1만 6천 900톤의 커피, 2만 3천 700톤의 땅콩, 49만 1천여톤의 강냉이가 생산되였다. 벼생산은 1975년에 1만 5천톤수준에 올랐다.

정부는 수출품생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1973년부터 해마다 1천헥타르씩 차밭을 늘여 1985년에 가서는 그것을 약 1만 2천 500헥타르에 이르게 할 목표를 세우고 밀고나가고있다.

1977년 1월 부룬디총리는 나라의 총생산액의 61%가 농업에서 나오기때문에 농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부룬디의 최고목적이 필요되는 식량을 모두 자체로 해결하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정부가 야자, 땅콩 등 기름작물을 많이 심으며 커피, 차, 목화 생산을 늘이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소를 많이 기를데 대한 방침에 의하여 여러 지

방에 국영소목장들이 새로 생겨났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등이다. 1975년에 80만마리의 소와 31만 1천마리의 염소가 있었다.

이 나라 경제에서는 탄가니카호에서의 수산업도 적지않은 의의를 가지고있는데 1975년에 1만 5천 400여톤의 물고기를 잡았다.

공업은 금, 주석 등을 캐내는 채취공업, 커피, 목화, 차 등의 농산물가공업과 축산물가공업이 기본으로 되여있으며 그밖에 세멘트, 가구, 식료품, 일용품, 방직 공장 등이 몇개 있다. 공장들은 대부분이 수도 부줌부라에 배치되여있다.

1977년 11월 부룬디의 무게베지방에서 새로운 수력발전소건설이 시작되였다.

철길은 없으며 자동차운수와 탄가니카호를 통한 수상운수가 기본이다.

1977년현재 총길이 5천 242키로메터에 달하는 자동차도로중 80키로메터는 포장되였다.

1977년현재 이 나라에는 1천 700대의 화물자동차가 있다.

수출품의 95%는 농산물이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목화, 차, 집짐승, 축산물가공품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기계제품, 일용품, 연료 등이다.

독립후 교육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74—1975학년도에 초등학교에서 약 13만명, 중등학교에서 약 6천명, 전문학교에서 900여명의 학생들이 공부하였다.

전국도처에 병원과 진료소들이 건설되고 주민들에 대한 의료봉사도 개선되고있다.

주민의 약 절반은 기독교를, 그밖에 주민들은 지방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플라슈 앵포르

신문 마잠베리(민족통일진보당기관지), 유니옹에 라 레볼류시옹, 미긴베, 앵포르 부룬디, 부룬디 크레띠앵, 인톰, 우부무에

방송 부룬디혁명의 소리방송, 코르다크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3월 1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9년 3월에 두 나라 사이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6년 12월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을 연구하기 위한 부룬디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가 결성되였다.

1977년 4월 8일 부줌부라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부룬디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결성모임이 진행되였다.

이에 앞서 1월 31일에는 나라의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지성원하기 위한 조선통일지지부룬디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높이 추대되신데 대하여 부룬디의 통신 및 방송이 널리 보도하였다.

1977년 9월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부룬디민족통일진보당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르 완 다

(르완다공화국)

넓이 2만 6,338km²

인구 420만 3,000명(1976년)

수도 끼갈리(주민 6만명)

자연 및 주민

르완다는 아프리카대륙의 중부에 있는 내륙국가로서 자이르, 우간다, 탄자니아, 부룬디와 잇닿아있다.

1977년 1월 르완다—자이르국경에서 니라공고불산과 니아물라기라불산이 폭발하였다.

적도기후로서 한해평균기온은 23°C이며 한해 비내리는량은 900~1,500mm이다.

주민은 바후투족(90%), 바투치족, 피그미족으로 이루어져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며 르완다어도 사용한다.

정 치

독립전까지 《르완다—부룬디》로 불리워오던 이 나라는 1890년부터 독일의 식민지로, 1922년부터 벨지끄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였다. 1946년 12월부터는 《유엔후견령》으로 실제상 벨지끄식민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받아오다가 민족적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으로 1962년 7월 1일 르완다공화국과 부룬디왕국으로 분리되여 각각 독립을 선포하였다.

1973년 7월 5일 민족군및경찰부장이였던 하비아리마나 쥬베날이 군사정변을 일으켜 독립이후 정권을 잡고있던 까이방다정부를 전복하고 제2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이해 8월에 새 정부를 구성하였다.

1975년 7월 6일 대통령은 르완다인민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혁명발전운동이라는 새 당의 창립을 선포하였다. 1976년 1월 4일 각주선거가 실시되였으며 1월 25일 처음으로 민족회의가 진행되였다.

르완다는 제2공화국선포후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나라의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경제, 사회문화 분야에서 《르완다화》를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1977년 7월 6일 르완다의 독립 15돐과 제2공화국선포 4돐, 그리고 전국혁명발전운동 창건 2돐을 기념하여 수도 끼갈리에서 군인들과 인민들의 시위와 예술공연이 있었다.

1977년 8월 부룬디대통령의 르완다방문끝에 조인된 르완다—부룬디공동콤뮤니케에서 쌍방은 남아프리카와 로데시아인종주의도당을 강력히 규탄하고 짐바브웨, 나미비아, 아자니아 인민들의 해방투쟁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5월에 르완다대통령이 탄자니아를 방문하였다.

대통령 국가 및 정부 수반이다. 임기는 4년, 대통령 하비아리마나 쥬베날(1973년 7월—)

정부 1973년 8월 1일 13명으로 구성, 대통령이 총리를 겸한다. 외무및협조부장 은세깔리제 알로이스

정당, 사회단체; 전국혁명발전운동 집권당, 1975년 7월 6일 창건, 위원장 하비아리마나 쥬베날(대통령), 총비서 하비마나 보나방뛰르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90%이상이 이 부문에서 일하고있다. 수확한 농산물의 약 18%만이 시장에서 판매된다.

주요농작물은 커피, 차이며 그밖에 목화, 바나나, 제충국, 콩, 감자, 강냉이, 고구마 등도 생산된다.

제2차5개년계획을 수행하고있는 르완다인민은 농업분야에서 감자, 강냉이를 비롯한 알곡생산에 힘을 넣고있으며 집단촌건설을 다그치고있다. 1976년에 감자 17만톤, 강냉이 7만톤, 밀 3천톤, 벼 2,700톤 생산하였다.

한해에 평균 커피는 12만톤(1977년), 차는 3천 400톤, 바나나는 150만～160만톤, 콩은 14만톤 가량 생산되고있다.

독립후 10년 남짓한 기간에 먹이밭은 80만헥타르로 늘어났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등이다. 1976년에 소 63만마리, 염소 68만마리, 양 24만마리, 토끼 11만마리, 돼지 7만마리를 가지고있었다.

공업으로는 채굴업과 소규모의 가공공업이 있다.

경제의 《르완다화》가 추진됨에 따라 주석을 비롯한 지하자원이 적극 개발되여 그 채취량이 늘어나고있으며 국내원료에 의거하는 공장들에서는 인민이 좋아하는 제품들의 생산이 늘어나고있다.

한해에 주석은 3천톤, 중석과 베릴리움은 100～200톤 생산된다.

이 나라에는 규모가 크지 않은 커피가공공장, 차가공공장, 우유제품가공공장, 제분소, 금속가공공장, 목재공장 그리고 비누, 안료및비닐신발을 생산하는 공장을 비롯하여 130여개의 중소규모공장들이 있다.

철길은 없고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자동차길은 6천 500키로메터이며 그 가운데서 포장된 길은 5[illegible] 키로메터이다.

주요수출품은 주석, 커피, 차, 목화, 제충국, 바나나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운수수단, 기계, 천, 식료품 등이다. 커피의 수출량은 한해에 약 2만 천톤정도이다.

정부는 리론지식습득과 육체로동을 배합시키는 교육방침을 내세우고있으며 학생들은 물론 모든 정부기관, 기업소일군들, 군인들이 1주일에 하루씩 공장이나 농촌들에 나가 육체로동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하고있다.

1977년현재 2천여개의 소학교와 20여개의 중학교, 4개의 대학이 있다. 소학교학생수는 42만 5천명이다.

병원수는 약 20개, 그 침대수는 4천 893대이며 병원에는 르완다인 의사 45명과 외국인 의사 27명이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지방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임와호, 라렐레브, 끼니아 마쟈까, 르완다 까르레프르 아프리끄, 트라히프로

방송 르완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4월 22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1년 5월에 부룬디에 있는 르완다인들의 《김일성사상연구소조》와 구라파에서 공부하고있는 르완다학생들의 《김일성동지로작및혁명활동력사연구소조》가 결성되였다.

1976년 10월 14일 르완다의 수도 끼갈리에서 조선통일지지르완다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을 축하하여 르완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철학적기초》,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라는 제목으로 그이의 불멸의 혁명사상과 고매한 덕성을 소개하는 특별방송을 진행하였다.

1977년 10월 28일 르완다대통령이 이 나라를 방문한 우리 나라 군사대표단을 만났다.

대통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실로 놀라운 변혁과 성과를 이룩하였다고 하면서 르완다인민은 여기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고있다고 말하였다.

대통령은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키고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위업을 르완다 인민과 정부는 시종일관 확고히 지지하였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해 9월에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르완다전국혁명발전운동및정부대표단이 참가하였으며 이에 앞서 5월에 르완다전국혁명발전운동경험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 간 다

(우간다공화국)

넓이 23만 6,036km²
인구 1,100만명(1977년)
수도 캄팔라(주민 33만 1,000명)

자연 및 주민

아프리카대륙의 동부에서 적도를 가로타고앉아 있는 우간다는 동서로 케니아 및 자이르와 국경을 같이하면서 남북으로 탄자니아 및 수단과 잇닿아 있다. 호수가 많은 나라로서 동남부에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빅토리아호가 있다.

적도기후로서 한해평균기온은 21.5°C이며 한해비내리는량은 1,500∼2,00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아프리카사람(99%)이며 그밖에 인도사람, 파키스탄사람, 구라파사람들이 살고 있다.

공용어로 영어를 써왔으나 1973년 8월부터 스와힐리어를 국어로 선포하였다.

정 치

우간다는 1894년에 영국식민주의자들에게 강점당하여 1896년부터 그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그후 영국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우간다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이 나라는 1962년 10월 9일 《영련방》안에서 독립을 쟁취하였다.

1967년 9월에 우간다공화국이 창건되였으며 1971년 1월 25일에는 우간다 제2공화국이 선포되였다.

공화국선포후 우간다인민은 《경제의 우간다화》의 구호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며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다.

우간다는 1972년 8월부터 1973년초에 걸쳐 백인과 영국계아세아사람 10만명을 내쫓고 외국기업을 접수하였다.

1977년 1월 25일 우간다제2공화국 선포 6돐기념집회에서 1977—1979년도 경제발전계획이 선포되였다.

이해 10월 9일 수도 캄팔라에서 우간다 독립 15돐을 기념하여 기념집회와 열병식이 있었다. 이날 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연설에서 대통령은 나라의 경제에서 농업이 노는 역할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물, 전력, 도로, 학교, 병원, 상점, 산업 및 대학이 농업에 복무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대외관계분야에서 우간다는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 유태복고주의를 반대하고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특히 자유와 독립을 위한 남부아프리카인민들과 팔레스티나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고있다.

1977년에 우간다대통령이 자이르(4월)와 가봉(7월)을 방문하였다.

민족회의 1971년 1월 정변후 해산

대통령 국가및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5년, 대통령 이디 아민 다다(1974년 8월—,1976년 6월 25일 국방회의에서 종신대통령으로 임명)

정부 총리는 대통령이 겸한다. 외교부장 쥬마 오리스

정당, 사회단체; 1971년 1월 정변후 모든 정당활동은 금지, 전국로조조직(1974년 5월 창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인구의 90%이상이 이 부문에서 일하고있다.

국민총생산액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몫은 60%이다.

부침땅은 약 2만 5천평방키로메터이며 그중 4분의 3에 목화와 커피를 심는다.

1976년에 논면적은 2만 7천헥타르, 밀밭면적은 그 전해에 비하여 47%나 더 늘어났으며 이해 알곡파종면적은 560만헥타르에 이르렀다.

주요농작물은 목화, 커피, 사탕, 차, 담배, 강냉이, 조, 수수, 바나나 등이다. 1977년에 1만 5천톤의 차를 따들이였다.

정부는 농업을 다각적으로 발전시켜 알곡생산을 늘이는것을 농업부문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현 경제발전계획(1977—1979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정부는 농업생산을 늘이는 한편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농민들과 축산일군들에게 돈을 대주어 더 많은 목장을 짓도록 하였다. 결과 소목장은 1971년의 190여개로부터 1976년말에는 370여개로 늘어났다. 높은벌의 초원지대에서는 소, 염소, 양을 많이 기른다.

주요지하자원은 동, 주석, 금, 린회석, 망간, 코발트, 철광석 등이다.

동광산지인 킬렘베에서는 매년 1만 5천톤의 동을 생산하고있다. 이밖에 6만 8천톤의 돌솜을 생산하고있으며 철광과 린광 개발사업도 진행되고있다. 전력은 년간 7억키로와트시 이상 생산된다.

주요가공공업은 솜타기, 커피가공, 제탕, 제분, 섬유 등이며 이밖에 비누, 성냥 등이 생산된다.

운수에서는 수상운수가 기본이다. 철길은 1천200키로메터, 자동차도로의 총길이는 2만 9천키로메터이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목화, 홍차, 담배, 가죽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류와 금속 및 그 제품, 수송수단 등이다.

독립후 교육발전에 큰 힘을 넣었다.

1976—1977학년도에 1971—1972학년도에 비하여 150%나 더 많은 3억우간다쉴링의 자금이 초등교육부문에 돌려졌다. 초등학교수는 1976년말에 1971년의 2천 800여개로부터 4천여개로 늘어났다.

이 기간에 늘어난 학교수의 90%는 농촌지역에 건설되였다. 이리하여 1976년에 학령아동의 45%에 달하는 100만여명의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니였는데 이는 독립전에 비하면 2배나 되는 수자였다. 1975년에 대학생수는 3천 500명이였다. 기술대학 졸업생은 1977년에 170여명이였다.

늘어나는 학생수에 맞게 교원양성학교도 30여개 건설되였다.

종교는 캄팔라주변에 기독교도가 많고 전국적으로 4분의 1을 차지한다. 북서부에는 회교도가 많다.

우간다정부는 1977년에 27개 종교단체들의 활동을 금지시켰다.

출판보도; **신문** 피플, 우간다 네이숀, 보이스 오브 우간다(국영), 타이타, 오무쿨 렘베즈, 드완르와크, 아프페타, 로보 메와, 무시지

방송 우간다방송, 우간다라지오및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8월 2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3년 10월 16일에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우간다신문《보이스 오브 우간다》 1977년 4월 15일호는 특집을 조직하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위대한 주체사상에 관한 론설을 발표하였다.

한편 우간다신문 《타이타》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수록한 《김일성동지략전》을 실었다.

1977년 1월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우간다를 방문하였다.

이해 9월에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우간다공화국 정부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에티오피아

(사회주의에티오피아)

넓이 122만 1,900km²

인구 2,868만명(1976년)

수도 아디스 아바바(주민 105만명)

자연 및 주민

아프리카대륙의 동북쪽에 자리잡고있는 에티오피아는 수단, 케니아, 소말리아와 잇닿아있으며 홍해를 마주하고있다.

높은 벌이 전령토의 3분의 2를 차지하고있으며 지역에 따라 기온의 차이가 심하다.

주민은 암하라족(50%)과 갈라족(40%)이 기본이며 그외 소말리아족과 샨가리족 등이 있다.

공용어는 암하라어이나 영어와 아랍어도 통한다.

정 치

1974년 9월혁명에 의해 에티오피아에서는 3천여년간 내려오던 왕권군주제가 끝장나고 새로운 림시군사행정리사회가 수립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3세계나라들이 착취없고 압박없는 새 사회를 건설하려면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한 기초우에서 점차 사회주의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218폐지)

에티오피아림시군사행정리사회는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나라의 번영을 완전히 담보하는 인민공화국의 창건을 민족민주주의혁명강령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투쟁하였다. 민족민주주의혁명강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림시군사행정리사회는 로동계급의 당을 창건하는 사업, 나라의 모든 진보적 력량과 대중단체들을 단합시키는 사업, 경제와 자연부원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제적관리원칙을 실현하는 사업을 밀고나갔다.

1977년에 사회주의에티오피아인민은 《혁명적인 조국이냐 죽음이냐》의 구호를 들고 군주제도의 잔재를 청산하고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의 악랄한 준동을 짓부시면서 새 사회건설에 힘썼다.

1977년 2월초 에티오피아림시군사행정리사회는 림시군사행정리사회안에서 제국주의자들의 지지밑에 국가정변을 조작하려던 반혁명그루빠의 음모책동을 분쇄하였다. 2월 11일 림시군사행정리사회 제1부위원장 멩기스토 하일레 마리암이 위원장으로 임명되였다.

멩기스토 하일레 마리암위원장은 정부의 새 성원들의 취임식에서 연설하면서 전복된 착취계급들이 새 에티오피아를 반대하는 파괴행위를 멈추지 않고있으며 대대적인 테로행위에 매여달리고있다고 지적하고 에티오피아인민들이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와 반동들을 반대하여 투쟁하며 다른편으로는 생산을 늘이고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기 위해 투쟁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77년초에 림시군사행정리사회는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할 목적밑에 민병부대들을 조직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77년 3월 23일부터 에티오피아민병들은 군대, 경찰과의 련계밑에 반동세력의 책동을 적발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벌려 간첩놈들과 반혁명분자들, 놈들이 감추어둔 여러가지 무기들과 탄약, 폭발물, 반동선전물들을 들춰냈다.

3월 30일 에티오피아공민으로 가장하고 이 나라에 기여들어 에티오피아의 진보적정권을 반대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여온 미중앙정보국 간첩 두놈을 잡아서 내쫓은데 이어 5월 25일에는 병원《원장》의 탈을 쓰고 에티오피아에서 파괴행위를 감행하여온 미중앙정보국 간첩 한놈을 잡아냈다.

4월 23일에는 에티오피아의 아스마라에 있는 미국, 이딸리아, 벨지끄, 프랑스, 영국 등 침략적인 나토성원국들의 령사관들을 폐쇄하였다. 같은날 림시군사행정리사회는 아디스 아바바에 있는 미국의 《군사원조사절단》, 《해군의학연구소》, 《공보원》과 미국 《위성방송및통신소》를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그 《직원》들을 내쫓았다. 5월 28일에는 에티오피아에 있는 미국과 영국의 무관사무소들을 폐쇄하였다.

또한 에티오피아정부는 서방어용통신들인 《로이터》, 《에이에프피》와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의 기자들을 내쫓았다.

5월에 진행된 림시군사행정리사회 대회에서는 에티오피아의 주요 대내외정책을 토의하였다. 대회는 근로자들의 리익에 맞는 사회경제적정책을 계속 실시하며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경제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밀고나가려는 리사회의 결의를 반영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대회는 또한 로동계급의 당을 창건하며 반혁명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할데 대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1977년 1월에 20만명의 근로자들을 망라한 8개의 부문별로조단체들이 들어있는 로조총련맹이 창건되였다.

에티오피아정부는 종교선전을 일삼고있던 개인방송국을 국유화하여 《혁명적에티오피아의 소리》방송국을 새로 내왔으며 3월 12일부터 민족어와 여러 나라말로 방송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갈라족이 쓰는 오로모어로 주간지 《바리싸》를 2월부터 출판하기 시작하였다.

대외관계에서 림시군사행정리사회는 반제자주,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사회주의나라들, 신흥세력나라 인민들과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다.

1977년 2월에 에티오피아는 필리핀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또한 이해 로므니아와 과학문화협조협정(1월), 예멘아랍공화국과 항공운수협정(3월)을 맺었다. 5월에는 에티오피아통신사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통신사간에 협조협정이 맺어졌다.

1977년에 멩기스트 하일레 마리암위원장이 벌가리아(5월), 쏘련(5월)을 방문하였으며 꾸바총리(3월), 벌가리아총리 (12월)가 에티오피아를 방문하였다.

림시군사행정리사회 1977년 2월 11일 구성, 위원장 멩기스트 하일레 마리암(국가수반 겸 무력총사령관)

정부 위원장이 총리직을 겸한다. 외교부장 게들레 기오르기스

정당, 사회단체; 유일당창건을 위한 준비사업을 하고있다. **로조총련맹** 1977년 1월에 창건

경제, 사회문화

인구의 90%이상이 농업과 목축업을 한다. 국민총생산액에서 농업이 65%를 차지한다.

주요농작물은 커피(수출총액의 60%)이며 그밖에 강냉이, 밀, 보리, 사탕수수, 목화, 담배 등이다.

농촌에서 국영농장과 농업협동조합이 많이 창설운영되고있다. 500만명이상이 협동조합원이다. 정부는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1976년에 농업및공업발전은행을 통하여 9천 600만에티오피아딸라를 투자하였으며 협동조합들에 뜨락또르와 좋은 종자를 보장해주고있다.

정부는 커피생산을 더 늘이는것과 함께 농업을 여러모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도 취하였다.

1977년에 에티오피아커피회사는 나라의 커피생산지역들에 8개의 커피생산기업체를 내올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아프리카에서 집짐승을 제일 많이 가지고있는 이 나라에서 축산물은 커피 다음가는 주요생산물이다. 1975년에 소는 2천 800만마리, 양과 염소는 2천 500만마리, 락타는 약 100만마리, 가금은 4천 500만마리가 있었다.

주요지하자원은 금, 은, 망간, 석, 동, 류황, 운모, 소금, 니켈, 철광석, 갈탄, 우라니움 등이다.

공업부문에는 방직공업, 식료품 , 이김가죽, 건재 등 경공업공장들이 있다.

이 나라에서는 사이잘삼을 리용하여 바줄, 구럭 등을 만들고 참대나무로 여러가지 세공품들을 만드는 수공업도 발전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목화, 돌소금, 집짐승, 밀, 가죽, 과일, 남새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천을 비롯한 일용품, 기계 및 수송기재, 금속제품, 건재, 사탕 등이다.

이전에 쓰던 에티오피아딸라대신 1976년 11월에

선포한 새 화폐 비르를 쓴다.

해마다 관광업으로 1천 500만에티오피아딸라를 벌고있다.

초등 및 중등 학교들을 국유화할데 대한 결정에 따라 820개의 각급 학교들이 국유화되였으며 혁명승리후 두해동안에 300여개의 학교들이 건설되였다. 1977년에 여러 지방도시들과 주로는 농촌지역들에 많은 학교를 건설하였다.

봉건군주통치의 후과로 주민의 90%이상이 글을 모르는 조건에서 정부는 1977년에 대학과 고등학교 학생들을 농촌에 보내 문맹퇴치사업을 돕도록 하였으며 많은 교과서들을 만들어 문맹퇴치강습소들에 보내주었다. 1976년 7월까지 15만 5천여명의 농촌주민들이 문맹에서 벗어났다.

정부에서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힘을 기울인 결과 40여개의 병원과 진료소가 건설되였다.

주민의 절반이상이 기독교를 믿으며 그밖에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에티오피아통신

신문 아디스 제멘, 에티오피언 헤랄드, 아디스 스와르, 쿼티디아노 에리트레아, 산데크 알라마트 친, 에메오삐 드오쥬르듀이, 바리싸(주간지, 1977년 2월)

방송 에티오피아방송, 에티오피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5년 6월 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1월 10일에는 우리 나라 회사와 에티오피아회사들사이의 항공봉사협정이 체결되였다.

1977년 5월에 에티오피아조선친선및련대성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이 결성모임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1977년 5월 4일 이 나라 수도에 우리 나라 대사관이 개설되였다.

5월 16일 우리 나라와 에티오피아간의 과학 및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이 조인되였다.

이해 우리 나라 친선문화대표단(5월)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사회주의에티오피아 림시군사정부대표단(3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소 말 리 아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넓이 63만 7,657km²
인구 350만명(1976년)
수도 모가디쇼(주민 40만명)

자연 및 주민

아프리카대륙의 동쪽끝 인도양연안에 자리잡고 있는 소말리아는 에티오피아, 케니아와 잇닿아있으며 북쪽은 아덴만, 동쪽과 남쪽은 인도양에 면해있다.

이 나라는 사철 메마르고 몹시 무더우며 기온에서 변화가 거의 없다.

한해비내리는 량은 해안지방에서 300～500mm, 내륙지방에서 200～30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사마르족이며 그밖에 아랍사람, 인도사람, 에티오피아사람이 있다.

공용어는 소말리아어이다.

정 치

소말리아는 19세기 80년대에 영국, 프랑스, 이딸리아 식민주의자들에 의해 세지역으로 나뉘여 강점당하였다.

민족적독립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1960년 6월 26일에 영령소말리아가, 6월 30일에는 이딸리아령 소말리아가 독립을 쟁취하고 같은해 7월 1일 두지역이 통합하여 단일한 소말리아공화국을 선포하였다. 프랑스령소말리아는 1977년 6월 27일 지부티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1969년 10월 21일 소말리아륙군이 혁명을 일으켜 친미반동적인 에갈정권을 뒤집어엎고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를 위원장으로 하는 최고혁명리사회를 조직하였다.

최고혁명리사회는 헌법을 폐지하고 국회와 정당들을 해산하였으며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77년에 소말리아정부는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나라의 자주적발전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1977년 3월 소말리아에서 인민무력을 강화할데 대한 소말리아사회주의혁명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결정에 따라 이 나라 민족군이 민족무력으로 개칭되였다.

1월에 소말리아사회주의혁명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결의를 채택하여 근로자들을 단합시키며 규률을 강화하고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낡은 식민지잔재를 청산함에 있어서 로조들과 기타 대중단체들이 노는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생산관리, 중요한 국가적과업의 해결, 협동화운동의 발전에 근로자들을 널리 참가시킬것을 호소하였다.

결의는 대외정책에 언급하여 아프리카대륙에서 인종주의와 식민주의의 마지막보루들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기 위해 싸우는 민족해방운동들에 대한 지지를 강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또한 결의는 인도양에 군사기지를 설치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계획을 규탄하고 인도양을 평화지대로 전변시킬 절박한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3월 4일부터 6일까지 수도 모가디쇼에서 제1차소말리아녀성대회를 진행하고 소말리아민주녀성조직

을 내오기로 결정하였으며 4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소말리아직업총동맹 제1차(창립)대회가 진행되였다.

5월에 소말리아혁명청년동맹 제1차(창립)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에서 채택된 규약은 과학적사회주의사상에 충실하고 새 사회건설자들의 앞장에서는 남녀청년들을 동맹대렬에 받아들인다고 규정하였다.

1977년에 소말리아는 이라크와 농업, 축산업, 수산업 발전을 위해 련합회사를 창설할데 대한 협정(5월), 애급과 항공운수협조협정(5월)을 체결하였고 중국과의 경제및기술협조협정의정서에 조인(6월)하였다.

1977년에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대통령이 8월에 쏘련을, 9월에 애급, 사우디 아라비아, 수리아, 쿠웨이트, 이라크, 아랍추장국련방을 방문하였으며 11월 7일부터 12월 3일까지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 애급, 수단, 아랍추장국련방을 또 방문하였다. 12월에는 이란을 방문하였다.

1977년에 꾸바총리 (3월), 수단대통령 (3월), 기네—비싸우대통령 (7월)이 소말리아를 방문하였다.

대통령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1976년 7월 1일—)

정부 총리 대통령이 겸한다. 외무담당국무비서 오마르 아르테흐 갈리브

정당, 사회단체; **소말리아사회주의혁명당** 1976년 7월 1일 창건, 유일당이며 집권당, 총비서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 **직업총동맹** 1977년 4월 창건, **혁명청년동맹** 1977년 5월 창건, **민주녀성조직** 1977년 3월 창건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축산과 농업이다.

인구의 90%가 농사를 짓고있으며 그 가운데서 75%가 유목을 위주로 하는 축산업을 하고있다.

주요집짐승은 양, 염소, 소, 락타, 닭이다. 이 나라에서는 축산업발전을 위해 상설적인 국가기관들을 내오고 새로운 먹이밭과 목장들을 많이 꾸림으로써 집짐승마리수가 해마다 늘어나 1977년현재 집짐승마리수는 인구한사람당 10마리씩 차례지고있다.

농업부문에서는 사회주의혁명당 중앙위원회 1977년 1월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미 조직된 협동조합들을 강화하는 한편 협동조합들을 더 조직하며 새로운 토지리용법을 받아들이는 사업들이 진행되였다. 1977년현재 농업협동조합수는 100여개였다.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농산물들에 대한 수매가격을 올리고 협동조합들에 대부금을 주며 농기계와 종자들을 보장해주었다. 묵은 땅을 새로 일구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된 결과 지금 씨붙임땅은 약 100만헥타르이다.

바나나, 강냉이, 목화, 땅콩, 사탕수수 등을 심는다.

해마다 평균 15만톤이상의 알곡을 생산한다.

자립적민족경제건설방침에 의하여 공업부문에서는 국영부문기업소들의 역할이 높아졌다. 가공공업의 총생산액가운데서 국영부문 기업소들이 차지하는 몫은 70%이상이다.

공업부문에는 수력발전소들과 방직공장, 고기가공공장, 과일통졸임공장, 가죽이김공장, 목재가공공장, 신발공장 등이 있다.

소말리아방직공장에서 1977년 상반년에 1976년 같은 기간에 생산한 천의 4배나 되는 700만야드(1야드는 약 0.9메터)의 천을 생산하였다.

소말리아사탕공장에서는 1975—1976회계년도에 1963—1964회계년도에 비하여 3배이상이나 많은 2만 7천톤의 사탕을 생산하였다.

해안지대에 21개의 수산협동조합이 조직되여있으며 해마다 4만톤의 물고기를 잡고있다. 1977년에 모가디쇼에 새 항구가 건설되였다.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며 도로의 총길이는 1만 7천 200여키로메터이다. 그 가운데서 1천여키로메터가 포장도로이다.

내륙지방에서는 락타가 운수수단으로 널리 리용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축산물, 바나나, 먹는기름, 목화, 향료 등이다.

집짐승과 바나나 수출액이 수출총액의 약 80%를 차지한다.

주요수입품은 식량, 일반기계, 수송기재, 금속제품 등이다.

《교육의 소말리아화》방침에 따라 초등무료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다. 초등및중등 학교수는 880여개, 기술학교수는 13개이다. 정부는 교과서와 학습참고서들을 소말리아어로 출판하여 학교들에 보내주고있다. 1977년부터 문예 및 정치 서적들까지 소말리아어로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문맹퇴치사업이 활발히 진행된 결과 인구의 73%가 문맹에서 벗어났다.

정부의 인민적보건시책에 의하여 1977년 현재 70여개의 병원과 220여개의 진료소가 있다. 보건일군을 양성하는 3개의 의학학교와 많은 보건일군양성소들이 창설되였다.

근로자들에 대한 유급휴가제와 사회적혜택들이 보장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를 믿으며 남부지방에서는 기독교도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소나통신

신문 히지그다 옥토바르(정부기관지), 선봉

방송 모가디쇼방송, 소말리아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4월 12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이에 앞서 1962년 12월 17일에 무역대표부교환에 관한 협정, 1972년 5월 23일에 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0년 11월 모가디쇼에서 《김일성도서관》이 개관되였다.

1972년 5월 모하메드 시아드 바레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5돐을 기념하여 1977년 4월 11일 소말리아국립종합대학에서 경축집회가 진행되였다.

또한 소말리아신문들인 《히지그다 옥토바르》(4월 13일호)와 《선봉》(4월 15일호)이 각각 특집들을 조직하고 기념론설을 발표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1977년 6월 25일 소말리아사회주의혁명당의 주최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모가디쇼시련대성군중집회가 진행되였다.

1977년 1월 29일 우리 나라 중앙통신사와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국영통신사사이의 보도교환및 호상협조에 관한 협정과 우리 나라 중앙방송위원회와 소말리아민주주의공화국 국립방송국사이에 방송분야에서 서로 협조할데 대한 협정이 각각 조인되였다.

1977년에 우리 나라 사로청대표단이 소말리아를 방문(5월)하였으며 소말리아 당및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6월)하였다.

지　부　티

(지부티공화국)

넓이 2만 2,000Km²
인구 25만명(1977년)
수도 지부티(주민 10만 2,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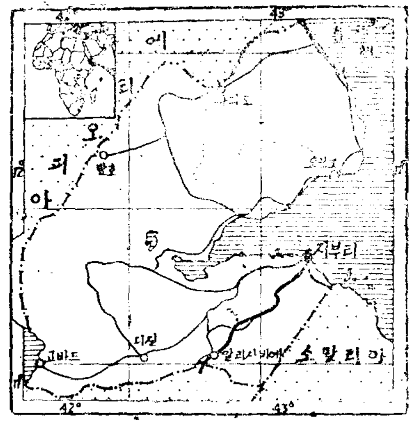
자연 및 주민

지부티는 아프리카대륙의 동북쪽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사이에 끼여있다.

날씨는 몹시 무더워 한해평균 30°C에 달한다. 한해평균비내리는량은 13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아파르족과 이싸족으로 구성되여있다.

공용어는 아랍어이나 프랑스어도 많이 쓴다.



정　　치

19세기말부터 지부티를 침략하기 시작한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은 이 지역을 1882년에 《보호령》으로, 1958년에는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1967년 6월에는 《아파르 이싸》로 고치고 《프랑스공동체》안의 《해외령토》로 만들었다.

1977년 6월 27일 아파르 이싸가 100여년간의 프랑스식민지로부터 지부티공화국으로 독립을 선포하였다.

하싼 굴레드 아프티돈이 지부티공화국의 첫 대통령으로 되였다.

이날 대통령궁전에서는 국기를 띄우는 의식이 있었으며 수도에서는 수만명의 참가밑에 독립을 경축하는 집회와 시위가 있었다.

7월 15일에는 아흐메드 디니 아흐메드를 총리로 하는 첫 정부가 구성되였다.

이에 앞서 5월 8일 독립을 앞두고 국회선거가 진행되였다.

한편 프랑스는 6월 27일 지부티와 《군사방위조약》을 비롯한 일련의 협정들을 맺고 제놈들의 4천 500명에 달하는 침략군대를 지부티항구에 주둔시키고있다.

아프리카대륙에서 49번째로 독립한 이 나라는 독립후 즉시 아프리카통일기구의 49번째 성원국으로, 9월에는 아랍련맹의 22번째 성원국과 148번째의 유엔성원국으로 되였다.

국회 총의원수 65명, 1977년 5월 8일 국회선거 진행

대통령 하싼 굴레드 아프티돈(1977년 6월 27일 첫 대통령으로 됨)

총리 1977년 7월 15일 첫 정부구성, 총리 아흐메드 디니 아흐메드(12월에 사임), 외교부장 아브달라흐 모하메드 까밀

정당, 사회단체; 소말리아해안해방전선, 1963년에 창건, 지부티해방운동, 아프리카인민독립동맹, 민족독립동맹, 인민해방운동, 민주청년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목축업이며 주민의 대부분이 이에 종사하고있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등이다.

농업은 관개시설이 되여있는 수도와 일부지역들에서 주로 파일나무와 남새, 종려와 커피를 재배하고있다.

공업에서 주요생산물은 소금이다. 한해에 6천~7천톤 생산된다. 아쌀호에 20억톤가량의 소금이 묻혀있다.

주요자원은 원유, 돌비늘, 석고, 류황 등이다.

공업기업소로서는 조선소, 선박수리공장, 가축공장, 식료가공공장 등과 기타 약간의 소규모공장들이 있다. 공업제품과 식량은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이 나라의 자원과 농산물은 보잘것없으나 지부티항은 세계적인 자유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놀고있으며 아세아, 아프리카 그리고 홍해와 수에즈운하를 통해서 지중해와 구라파를 련결하는 지리적위치로 하여 군사전략상 큰 의의를 가진다.

지부티와 아디스 아바바를 련결하는 긴 철길이 있다.

의료시설은 지부티밖에 없다.

주민들은 회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알라이드(소말리아해안해방전선기관지), 쥬르날 오피씨엘, 르 레베이 드 지부티

방송 지부티방송

케 니 아

(케니아공화국)

넓이 58만 2,644Km²
인구 1,500만명(1977년)
수도 나이로비(주민 63만명)

자연 및 주민

케니아는 아프리카대륙의 동쪽에 있다. 적도선에 놓여있으나 기후는 무덥지 않으며 서늘하다.

한해평균기온은 20°C, 한해평균 비내리는량은 750~1,000mm이다.

1977년에 이 나라에서는 오랜 가물끝에 큰물이나 전반적지역에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주민의 95%는 60여개 종족으로 이루어진 흑인들인데 그중 키쿠유족, 캄바족, 루오족, 발루야족 등이 많다.

공용어는 영어와 스와힐리어이다.

정 치

19세기말 케니아를 강점한 영식민주의자들은 1895년에 이 나라를 제놈들의 《보호령》으로, 1920년에는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었다.

케니아인민들은 1922년부터 간고한 민족해방투쟁을 벌려 1963년 6월에 죠모 케니아타를 초대총리로 하는 자치정부를 수립하였으며 이해 12월 12일에는 《영련방》 안에서 독립하였다. 그후 케니아는 1964년 11월 3일 새 헌법을 채택하고 12월 12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공화국선포후 케니아정부는 영국침략군을 내쫓고 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지반을 허물어버리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정부는 제국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던 750여개의 소규모회사들을 국유화하였으며 식민주의자들에게 빼앗겼던 50만헥타르의 땅을 사는 방법으로 몰수하여 3만 4천 500세대의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케니아는 제3차 5개년계획(1974-1978년)의 성과적수행에 큰 힘을 넣고있다.

정부는 이 기간에 총 14억 3천 860만케니아프랑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케니아화》정책에 따라 1977년에 129명의 외국인 무역업자들과 실업가들에게 4개월안에 자기들의 영업을 중지할것을 지시하였다.

1977년 12월 12일 케니아독립 14돐을 기념하여 수도 나이로비에서 한 연설에서 대통령은 경제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노력할 결의를 말하였다.

케니아는 식민주의와 인종주의를 반대하며 남아프리카, 짐바브웨, 나미비아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이 나라 외교부장은 1977년 2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무장투쟁이 짐바브웨의 해방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하고 케니아는 짐바브웨인민의 무장투쟁을 계속 지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케니아는 12마일의 령해권과 200마일의 경제수역을 지키고있다.

1977년 1월에 케니아는 뽀르뚜갈과 끊었던 외교관계를 다시 갖기로 결정하였다.

민족회의 일원제, 170명의 의원가운데서 158명은 선거하며 12명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5년, 대통령 죠모 케니아타(1963년 6월—)

정부 대통령이 정부수반을 겸한다. 외교부장 무뉴아 와이야키

정당, 사회단체; 아프리카인민족동맹 집권당이며 유일당, 1960년 3월에 창건, **로조중앙조직**(28개의 부문별 로조 포함)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96%가 이 부문에서 일하고있다.

농업이 국민총생산액의 34%를 차지한다.

주요농작물은 제충국, 커피, 차, 사이잘삼, 목화등 수출을 위한 공예작물이며 강냉이, 밀,보리 등 알곡작물생산은 극히 적다.

커피, 차 생산은 동아프리카나라들중에서 첫자리를 차지하며 제충국은 세계 총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

정부는 《차혁명》의 구호밑에 차생산을 급격히 늘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차는 1975년에 5만 4천톤 생산하였다.

기후가 좋고 먹이풀이 많은 높은벌지방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손꼽힐정도로 양, 소, 말 등을 많이 놓아기르고있다.

공업은 국민총생산액의 17%를 차지한다.

지하자원 가운데서 채굴되고있는것은 금,은,동, 철, 소금 등이며 공업에서 경공업이 위주이다.

주요가공공업은 농산물과 축산물가공공업으로서 소규모적인 축산물가공공장, 커피가공공장,사탕공장들이 있으며 그 밖에 방직공장, 세멘트공장, 원유가공공장, 자동차조립공장들이 나이로비와 몸바사 등 5개 도시들에 집중되여있다.

독립후 6개년계획, 제2차 5개년계획을 수행하고 1974년부터 제3차 5개년계획을 수행하고있는 케니아는 이 기간에 세멘트공장, 농산물가공공장, 다이야공장, 비누공장, 유리공장들을 새로 건설하였다.

1975년에 연은 177톤, 형석은 4만 9천여톤 생산하였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차, 사이잘삼, 제충국, 고기 및 그 가공품, 가죽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설비, 금속가공품, 원유, 운수수단, 천, 일용품 등이다.

이 나라에는 8천개의 초등학교와 987개의 중등학교가 있다.

독립후 정부는 나이로비종합대학과 케니아타종합대학을 창설하였으며 17개의 교원대학, 8개의 기술대학을 세웠다.

성인교육사업이 활발히 벌어진 결과 성인교육강습소들의 수는 1967년에 350개로부터 1975년에는 1천 600개로 늘어났다.

또한 초등 및 중등 학교들에서는 스와힐리어로 학생들을 가르치고있으며 스와힐리어로 된 교재들도 편찬되고있다.

지방종교가 기본을 이루고있다.

출판보도: 통신 케니아통신

신문 이스트 아프리칸 스탠다드, 데일리 네이숀, 타이파 레오, 썬데이 네이숀, 타이파 케니아

방송 케니아의 소리방송, 케니아의 소리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5년 5월 12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탄자니아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넓이 93만 9,703km²
인구 1,561만명(1976년)
수도 다르 에스 살람 (주민 43만명)

자연 및 주민

탄자니아는 탄가니카와 그로부터 바다를 사이에 두고 36키로메터 떨어져있는 잔지바르(펨바섬포함)로 이루어져있다.

탄가니카해안지역의 한해평균기온은 27°C이며 한해 비내림량은 1,200mm이다. 남북의 산기슭은 서늘하고 습기가 많아 농작물재배에 적합하며 내륙중심부 반사막지대는 바람이 강하고 비가 적게 내린다.

동쪽 앞바다에 있는 산호섬인 잔지바르와 펨바는 한해에 1,630mm의 비가 내리며 12월부터 3월까지 평균기온이 30°C까지 오른다.

주민의 대부분은 120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진 반투계흑인이며 그밖에 마사이족, 아랍사람, 인도사람, 파키스탄사람, 구라파사람들도 산다.

공용어는 스와힐리어와 영어이다.

정　치

탄자니아는 1964년 4월 26일 《영련방》성원국으로 있던 탄가니카와 잔지바르가 련합하여 이루어진 련합공화국이다. 협정에 의하여 잔지바르는 독자적인 헌법을 가지고 국방, 경제, 문화 분야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며 지역적립법기관과 행정기관을 가지고 자치를 실시한다.

1965년 7월 5일 민족회의는 유일당국가제도를 규정한 새로운 림시헌법을 채택하였다.

1967년 2월 5일 《사회주의와 자력갱생에 관한 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맹의 정책》이라는 《아루샤선언》이 발표되였다. 1977년 2월 5일 《아루샤선언》 10돐기념 경축대회에서 대통령은 탄자니아가 《아루샤선언》후 중요생산수단을 자기 손에 넣고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1977년 2월 5일에 탄자니아에서는 2개의 련립집권여당들인 아프리카본토의 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

맹과 잔지바르섬과 펨바섬의 아프리카쉬라지당의 통합으로 탄자니아혁명당(챠마 챠 마핀두지)이 결성되였으며 새로운 헌법이 채택되였다.

탄자니아는 대외적으로 아프리카의 완전해방과 제국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으며 아프리카에서의 반인종주의 투쟁에 대한 정치, 외교적지지를 강화하고있다. 또한 탄자니아는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과의 협조를 강화하며 피착취민족들과 단결하여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수립을 위해 투쟁하고있다.

1977년 4월 23일 탄자니아와 말가슈는 향료생산에 기초한 탄자니아—말가슈시장기구를 창설하였다.

이해에 탄자니아대통령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가 모잠비끄(6월), 카나다(8월), 미국(8월), 영국(8월)을 방문하였으며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국가리사회 위원장 (3월), 쏘련최고쏘베트상임위원회 위원장 (3월), 앙골라대통령(12월) 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민족회의 일원제, 련합공화국의 최고립법기관인 동시에 탄가니카내정문제에 관한 최고립법기관, 총의석 204석, 임기 5년, 1975년 10월 26일 선거, 잔지바르혁명리사회 의원전원이 민족회의에 망라된다.

대통령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1964년—, 1975년 10월 26일 재선),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군총사령관이다. 임기 5년, 탄가니카대통령을 겸한다.

정부 1977년 2월 13일 새 내각 구성, 총리 에드와드 엠. 소코이네

정당, 사회단체; 탄자니아혁명당 1977년 2월 5일 탄가니카아프리카민족동맹과 아프리카쉬라지당의 통합으로 결성, 위원장 쥴리어스 케이. 니에레레

잔지바르혁명로조련맹, 청년동맹(탄가니카와 잔지바르에 각각 있다), **전국녀성동맹**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인구의 약 90%가 농사한다.

부침땅은 나라 넓이의 10%정도인 4천만에이커이다.

그의 약 70%에 사이잘삼이 재배되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세계생산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이잘삼을 생산하고있다.

탄가니카에서는 사이잘삼, 커피, 목화, 잔지바르에서는 정향, 야자, 사탕수수 등이 난다. 잔지바르섬에는 약 600만그루의 야자나무와 그윽한 향기를 풍겨주는 약 400만그루의 정향나무가 있는데 정향생산은 세계생산량의 80%에 달한다.

집짐승기르기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 집짐승으로서는 소, 양, 염소이다.

《아루샤선언》후 정부는 농업에서 단작경리를 없애고 농업을 여러모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개공사, 농기구 및 토지개량을 진행하며 강냉이, 벼, 밀 생산을 늘이고있다. 1975년에 강냉이밭면적이 전해에 비해 30만헥타르나 더 늘어나 90만톤의 강냉이를 생산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통적인 수출작물인 목화, 커피, 사이잘삼 생산도 늘이고있다.

1976—1977농업년도에 전해농업년도보다 3천톤 더많은 5만 4천톤의 커피가 생산되였다. 잎담배는 1976년에 1만 9천 300톤, 차는 1만 5천톤 생산되였다.

탄자니아에서는 국영농목장들과 사회주의농업협동경리형태인 《사회주의촌》들이 농촌마을에 광범히 조직되였는데 1976년 현재 그 수는 1천 300만명의 농민들을 망라하는 7천 600여개에 이르고있다.

공업부문에서도 많은 성과가 이룩되였다.

1976년에 국민총생산액이 5.2% 늘어났는데 민족공업으로부터 얻은 수입도 전해에 비해 6.2% 늘어났다.

정부는 자체의 원료에 의거하는 공장들의 건설에 힘을 넣은 결과 방직, 신발, 담배, 사탕, 종이, 벽돌, 비누 등을 생산하는 1천여개의 중소규모공장들이 건설되였다. 이리하여 한해 9천만메터의 천을 생산할수 있게 되였으며 신발도 국내의 것으로 기본상 수요를 충족시키고있다.

1975년에 세멘트생산량은 35만톤이였으며 1978년에 가서 조업하게될 50만톤능력의 세멘트공장이 건설되고있다.

1977년에 탄자니아에서는 300억립방메터의 천연가스매장지를 발견하고 그 생산준비를 하고있다.

탄자니아정부는 림업과 목재가공발전에도 힘을 넣고있다. 정부는 제3차 5개년계획기간(1975—1979년)에 8개의 제재소와 2개의 합판공장을 건설하게 된다. 이 부문의 일군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이미 1973년초에 다르 에스 살람종합대학의 농학부안에 림업과를 내오고 아루샤에 림업대학을 새로 세웠다.

주요수출품은 사이잘삼, 커피, 목화, 정향, 야자, 담배, 가죽제품과 금강석을 비롯한 광물이며 주요수입품은 각종 기계류, 운수기재, 금속제품, 화학제품, 천, 석탄 등이다.

대외무역은 주로 다르 에스 살람의 항구를 통한 해상운수로 진행한다.

운수로는 자동차운수와 철도운수가 있다. 도로의 총연장길이는 1977년현재 독립이전보다 11배 더 많은 1만 7천키로메터이다.

1977년 2월《아루샤선언》 10돐을 기념하여 10쎈트짜리 주조화페를 만들었다.

탄자니아정부는 교육분야에서 식민주의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하여 해마다 국가예산의 5분의 1을 이 부문에 돌리고있다.

독립당시 하나의 대학밖에 없었던 이 나라에는 1976년현재 국립종합대학을 비롯한 31개의 고등교

육기관을 비롯하여 수십개의 기술학교들이 세워졌다. 1977년에 이 나라의 초등학교 학생수는 300만명에 달하고있다.

문맹퇴치운동이 적극 벌어진 결과 1977년 2월까지 5년동안에 500만명이 글을 읽을줄 알게 되였다.

전국에 130여개에 달하는 병원과 진료소가 생기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들이 벌어지고있다. 1977년에 다섯살아래의 어린이 60%가 천연두, 소아마비, 홍역, 결핵 등 전염병예방접종을 받았다.

출판보도;통신 탄자니아통신 (쉬하타)

신문 썬데이 뉴스, 데일리 뉴스(정부기관지), 우후루, 음잘렌도, 잔지바르 가제트, 아프리카 크웨트, 판아프리카

방송 탄자니아방송, 탄자니아잔지바르방송, 탄자니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5년 1월 13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5년 6월에 무역협정, 11월에는 과학기술협조협정, 1966년 7월에는 문화 및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0년 4월 탄자니아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71년 8월에 줄리어스 케이. 니에레레 대통령에게 타보라혁명학원 교육설비를 선물로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파견하여 주신 우리 나라 교원들에 의하여 꾸려진 다르 에스 살람민족교육대학 타누혁명력사연구실이 1972년 8월 21일에 개관되였다.

1973년 10월 10일 다르 에스 살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회관이 개관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높이 추대되신데 대하여 탄자니아신문들인 《우후루》와 《데일리 뉴스》 1977년 12월 17일호가 크게 보도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1977년 4월에 탄자니아의 수도 다르 에스 살람에서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와 사진및도서전람회가 진행되였다.

1968년 6월에 탄자니아련합공화국 줄리어스 케이. 니에레레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였다.

1977년에 우리 나라 당및근로단체대표단 (2월)과 군사대표단(9월), 평양예술단(8월)이 탄자니아를 방문하였다.

1977년 8월에 탄자니아련합공화국 대통령동생부부와 일행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이해 9월에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탄자니아당및정부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모 잠 비 끄

(모잠비끄인민공화국)

넓이 78만 3,030km²
인구 944만명(1976년)
수도 마뿌또 (주민 95만명)

자연 및 주민

모잠비끄는 아프리카대륙의 동남쪽 인도양기슭에 남북으로 길게 자리잡고 탄자니아, 말라위, 잠비아, 짐바브웨, 남아프리카와 잇닿아있다.

모잠비끄는 나라의 허리를 가로 지르는 잠베지강을 경계로 북부대지와 남부벌로 나뉜다. 남부지방의 기후는 아열대성을 띠고있지만 북부지방은 열대성기후의 특징을 나타낸다. 1월평균기온은 남부에서 26°C, 북부에서 30°C이며 7월평균기온은 남부에서 15°C, 북부에서 20°C이다. 한해 비내리는량은 바다가지방에서 1,000～1,500mm, 내륙지방에서는 500～700mm이다. 10월부터 다음해 4～5월까지는 장마철이다.

모잠비끄에는 진귀한 동물들이 많으며 이름난 17개소의 사냥터가 있다.

주민의 98%가 반투족이며 그밖에 약간의 백인이 살고있는데 그의 90%가 뽀르뚜갈사람이다.

공용어는 뽀르뚜갈어이다. 그러나 아프리카사람들은 반투계의 스와힐리어를 쓴다.

정　　치

모잠비끄인민은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오랜기간의 무장투쟁을 전개하여 1975년 6월 25일에 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날 모잠비끄해방전선 위원장이 모잠비끄인민공화국의 첫대통령으로 되였으며 6월 29일에는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1975년 5월 22일에 공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령이 발포되였으며 6월 26일에는 새 헌법이 발포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7년 6월 24일 이 나라 대통령에게 보내신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잠비끄인민은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모잠비끄해방전선의 두리에 굳게 뭉쳐 장기간의 무장투쟁을 힘있게 벌리여 민족적독립을 쟁취하였으며 독립후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있습니다.》

독립후 모잠비끄정부와 인민은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주적인 새생활건설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1977년 2월 모잠비끄해방전선 제3차대회에서는 해방전선조직을 로동계급과 농민의 당, 새형의 《맑스—레닌주의당》으로 개편하였으며 대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단위, 모든 부문들에 해방전선산하 각급 조직들을 내오고 그 대렬을 정비확대하였다.

12월에는 이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주권기관인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결과 약 3만명의 로동자, 농민 출신의 대의원이 선거되여 최고립법기관인 중앙인민회의와 각급 인민회의가 조직되였다.

이해 12월에 청년조직이 새로 결성되였다.

모잠비끄정부는 경제분야에서 제국주의식민지잔재를 청산하고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였다.

해방전선 제3차대회에서는 1980년까지의 인민경제계획을 채택하고 나라의 경제를 복구개건하며 공업에서 식민지적편파성을 퇴치하고 생산을 계획적으로 늘일데 대하여서와 농업부문에서는 협동적소유형태를 더욱 늘이며 1980년이후에는 식량을 자급자족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우선 농업발전을 위하여 토지를 국유화하면서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하였으며 농촌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대통령직속공동체마을지도국을 새로 내왔다.

또한 정부는 이해에 80만톤능력의 《쏘나레프》원유정제공장과 《쏘나프》휘발유회사 등 여러 부문에 대한 국유화를 실시하고 개인회사들과 기업소들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면서 새로운 공업부문을 창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는 대내외반동들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이해 7월에 자각적이며 선진적인 로동자들로서 민병부대들을 조직하였으며 8월에는 의무병역에 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모잠비끄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부추김을 받고있는 스미스인종주의자들의 계속되는 무장침공을 그때마다 단호히 물리치고 나라의 자주권을 굳건히 지켰다. 1977년에도 모잠비끄인민들은 5월 29일 폭격기편대들의 지원하에 가자주의 치꾸알라 꾸알라와 치먼가 등 지역에 있는 해방인민군진지들에 대한 스미스인종주의자들의 대규모적인 무장도발을 성과적으로 짓부셨다.

모잠비끄는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 아프리카대륙의 완전해방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으며 민족적해방과 자유를 위한 짐바브웨,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물심량면으로 지원해주고있다.

1977년에 이 나라 대통령은 핀란드(5월), 꾸바(9월), 나이제리아(12월)를 방문하였다.

또한 이해에 꾸바 총리(3월), 쏘련최고쏘베트상임위원회 위원장(3월)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중앙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 1977년 12월 총선거에서 226명의 대의원선거, 의장 사모라 모이세스 마셸(1977년 12월—)

대통령 사모라 모이세스 마셸(1975년 6월 25일—)

정부 1975년 6월 29일 구성, 총리부를 두지 않고 15명의 부장과 3명의 부부장들로 구성, 외교부장 호아낌 알베르또 쉬싸노

정당, 사회단체; 모잠비끄해방전선 1962년 6월 25일 창건, 1977년 2월 맑스—레닌주의적인 전위당으로 선포, 위원장 사모라 모이세스 마셸, **모잠비끄청년조직** 1977년 12월 결성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독립후 정부는 농촌경리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사탕수수, 사이잘삼, 목화, 야자, 바나나, 땅콩, 강냉이, 조, 콩, 수수, 밀, 나무감자 등이다.

1977년에 이 나라에서는 190만립방메터의 물이 차있는 마싼쥐루언제건설공사가 준공되였다. 이 저수지는 이 나라의 벼생산중심지인 쇼끄베지역의 9만헥타르의 땅을 적시게 된다. 이해에 정부는 나라의 차생산의 4분의 1을 독차지한 4개의 개인회사를 국가의 통제밑에 넣고 국영차련합관리국을 내왔다. 또한 토지를 국유화하면서 국영농장과 곳곳에 농업협동조합들을 조직하였다. 100여만의 농민대중이 협동조합이 조직된 공동마을에서 살고있거나 국영농업기업소에서 일하고있다. 1977년말까지 300개의 농업협동조합이 무어졌다.

주요집짐승은 양, 염소, 소이다.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공업은 발전하지 못하였다. 정부는 민족경제발전에 큰힘을 넣고 새로운 공업기업소를 창설하는 등 여러가지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이 나라에서는 석탄, 보크사이트, 금, 은, 우라니움, 석유, 주석 등을 채굴한다.

가공공업으로서는 규모가 작은 야자, 땅콩, 목화씨를 원료로 하는 기름공장과 사탕, 비누, 세멘트, 종이공장들이 몇개의 도시에 집중되여있다. 1978년에 가서 세멘트생산량은 95만～99만톤에 달하게 된다.

1977년에 전국살림집건설위원회가 창설되여 도시와 농촌 살림집건설을 밀고나가고있다. 수도에서만도 1만 2천세대가 전기불을 보면서 위생시설이 갖추어진 현대적인 집에서 살게 되였다.

주요수출품은 목화, 땅콩, 차, 사탕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원유제품, 천, 운수수단, 금속제품 등이다.

1977년부터 대외수출과 관련한 화폐업무는 오직 모잠비끄국영은행만이 한다.

수도 마뿌또항은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항구의 통과능력은 1천 400만톤이다.

정부는 교육기관의 국유화를 실시하고 교육제도와 교육내용을 개편하였으며 로동자, 농민 출신의 자녀들을 대학에 입학시키고있다. 문맹퇴치운동을 광범히 벌린 결과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고 읽게 되였다. 1만명이상의 초등학교 교원들도 양성되였다.

보건의료기관들이 사회화되고 녀성들이 병원에서 해산방조를 받고있다. 정부는 전염병을 없애기 위해 한해에 350만명의 주민들에게 결핵, 천연두, 홍역 예방주사를 놓았다.

출판보도; **신문** 모잠비칸 베블루숀(모잠비끄해방전선기관지), 노띠씨아스

방송 모잠비끄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5년 6월 25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7월에는 우리 나라와 경제및기술협조협정을 맺었다.

1976년 9월 모잠비끄정부는 수도 마뿌또의 중앙거리의 하나인 종합대학의 앞거리를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김일성거리》로 부르기로 결정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높이 추대되신데 대하여 모잠비끄신문 《노띠씨아스》 1977년 12월 17일호가 크게 보도하였다.

1977년 12월 20일 조선중앙통신사와 모잠비끄통신사 사이의 보도교환 및 호상협조에 관한 협정이 모잠비끄수도 마뿌또에서 조인되였다.

1971년 9월과 1975년 3월 두차례에 걸쳐 모잠비끄해방전선 위원장인(현재대통령)사모라 모이세스 마쉘을 단장으로 하는 모잠비끄해방전선및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7년 9월에 모잠비끄인민공화국 당및정부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이해 조선로동당대표단(2월)과 평양예술단(8월)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말 라 위

(말라위공화국)

넓이 11만 8,484km²
인구 517만 5,000명(1976년)
수도 좀바(주민 6만명)

자연 및 주민

말라위는 아프리카대륙동부에 자리잡고 탄자니아, 모잠비끄, 잠비아에 둘러싸여있다.

이 나라는 열대지역에 놓여있으나 날씨는 무덥지 않은 편이며 여름과 메마른 겨울이 엇바뀌며 낮은지대와 높은지대는 상당한 기온의 차이가 있다.

주민의 대부분은 아프리카사람들이며 기타 구라파, 아세아 사람들도 살고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정　치

1964년 7월 6일 《영련방》안에서 자치공화국으로 독립한 말라위는 니아살랜드로 불리워오던 나라이름을 본래의 이름인 말라위로 고쳤으며 1966년 7월 6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말라위는 다른 아프리카나라들과는 달리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있다.

국민회의 일원제립법기관, 의원수 55명, 그중 5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50명은 선거한다.

대통령 1970년 헌법수정법에 의해 종신대통령제, 대통령 헤스팅그스 카무주 반다(1964년 7월—)

정부 총리는 대통령이 겸한다.

정당, 사회단체; 말라위대회당(집권당) 1970년 9월 당대회에서 반다를 종신대통령으로 결정, **전국로동련맹, 로조대회**

경제, 사회문화

말라위는 뒤떨어진 농업국가로서 주민의 90%가 농사를 짓고있으며 농업생산이 사회총생산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농업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으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차, 담배, 목화, 커피, 땅콩 등 수출작물의 생산에 치우쳐있다.

메마른 땅에서는 주로 강냉이, 나무감자, 수수, 고구마 농사를 짓고있다.

주요집짐승으로는 소, 양(1975년에 78만 8천마리), 염소, 돼지 등이다.

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농산물을 가공하는 식료공업과 방직공업이다.

지하자원으로는 석회석, 돌솜, 보크사이트, 석탄, 금, 철광석, 망간, 금강석 등이 있으나 자원은 비교적 적다.

가공공업으로는 차, 담배 등을 가공하는 식료공업이 위주로 되여있으며 그밖에 농기구, 세멘트, 목재, 천, 신발 등을 생산하는 소규모공장들이 있다.

운수는 살리마에서 시작되여 모잠비끄로 통하는 철길이 있으며 수도에는 철길이 없다. 니아사호를 통한 배길을 많이 리용한다.

주민들의 생활은 어려우며 해마다 10여만명의 로동자들이 이웃나라들에 품팔이를 떠난다. 1974—1975학년도에 중등학교학생은 1만 3천 900명, 교원은 694명이였다.

주민의 대부분이 지방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말라위 뉴스(말라위대회당기관지), 디스 이즈 말라위(정부기관지), 말라위 가번멘트 가제트, 모니, 타임스

방송 말라위방송

잠 비 아

(잠비아공화국)

넓이 75만 2,614km²
인구 500만명(1977년)
수도 루사카(주민 41만 5,000명)

자연 및 주민

아프리카의 남부에 있는 잠비아는 말라위, 탄자니아, 자이르, 앙골라, 나미비아, 짐바브웨, 모잠비끄에 둘러싸여있다.

열대지대에 위치하고있으나 지대가 높은 관계로 무덥지 않다. 한해평균기온은 18~24°C, 한해평균 비내리는량은 750~1,000mm이다.

주민은 카프에트족, 벰바족, 바르트세족, 룬다족 등 73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있다. 이밖에 백인 5만명, 혼혈인과 아세아사람 1만명이 산다.

공용어는 스와힐리어이다.

정 치

잠비아는 1891년에 영국의 《보호령》으로, 1924년부터는 식민지로 되였다가 1953년에는 《중앙아프리카련방》에 강압편입되였다.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잠비아는 1963년 12월에 이 《련방》에서 떨어져나와 1964년 1월에 《내부자치권》을 가졌고 1964년 10월 24일에 공화국으로 독립하였다.

독립후 잠비아정부는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남아있는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청산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들에서 식민주의자들을 쫓아내고 《잠비아인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정부는 미영독점체들이 쥐고있던 광산개발권의 박탈과 광업회사의 국유화 등 일련의 경제적조치들을 취하였다.

대외적으로 잠비아는 짐바브웨와 나미비아를 비롯한 남부아프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지지하며 온갖 형태의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 파시즘을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다.

잠비아대통령은 1977년 6월 27일 민족통일독립당 전국위원회 제10차회의에서 연설하면서 잠비아는 앞으로도 짐바브웨,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인민들의 투쟁에 대한 믿음직한 후방기지로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모잠비끄, 보츠와나, 잠비아에 대한 인종주의도당의 침략책동을 강력히 단죄하였다.

1977년 1월에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에서 아랍과 아프리카 국가 외교부장들의 회의가 있었다.

이해 4월에 잠비아는 앙골라와 국방, 안전, 대외무역 및 농업 분야에서 긴밀한 협조를 진행하기 위한 협조협정을 맺었으며 이해 5월에는 모잠비끄와 무역협정을 맺었다.

이해 1월에 잠비아대통령이 나이제리아, 가나, 기네, 시에라레온을 방문하였으며 쏘련최고쏘베트상임위원회 위원장이 3월에, 나이제리아국가수반이 9월에 각각 잠비아를 방문하였다.

민족회의 일원제, 125석, 임기 5년

대통령 켄네스 다비드 카운다(1973년 12월 7일 3선, 임기 4년)

정부 1977년 7월 20일 내각 개조, 총리 마인자 마디아스 쵸나, 외교부장 시헤케 기브손 므왈레

정당, 사회단체; **민족통일독립당** 집권당이며 유일당, 1959년 11월 창건, 위원장 켄네스 다비드 카운다, **로조대회**, **민족통일독립청년운동**

경제, 사회문화

잠비아는 세계적인 동생산국이며 채광업이 국민소득의 80%이상을 차지한다.

1975년에 동은 67만 6,900톤 생산되였다.

특히 이 나라의 동광석은 품위가 높다.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국영동채취회사인 《느찬가콘쏠리데이티드코퍼 마인즈》는 1976년에 42만 8천톤의 동을 생산하였다. 동 이외에 코발트, 철광석, 연, 아연, 우라니움, 크롬, 금, 은, 금강석 등이 생산되고있다.

정부는 동채굴에만 치중하던 식민지경제의 일면성을 없애고 경제를 여러모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여러곳에 수력발전소, 세멘트공장, 비료공장, 전선공장, 제련소, 방직공장, 사탕공장을 포함한 많은 공장, 기업소들을 일떠세우고있다.

또한 나라에 산림자원이 많은 조건에서 여러곳에 산림관리및연구기관들을 내오고 산림을 조성, 보호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그리하여 1975년말 현재 산림면적은 6만 5천 500평방키로메터에 달하였

으며 림업으로부터의 수입액은 150만콰챠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인구의 70%가 일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밀, 강냉이, 담배, 땅콩, 목화, 콩, 조, 사탕수수 등이다.

독립후 잠비아에서는 농업을 빨리 발전시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였다.

농촌에 농업협동조합들을 내오고 농민들에게 좋은 종자와 화학비료를 공급하며 농업기술자들을 길러내고있다. 특히 정부는 농업발전계획을 세우고 농업을 여러모로 발전시켜 밀, 강냉이 재배를 위주로 하는 알곡작물과 공예작물 생산을 늘이는데 중심을 두고있다.

전적으로 수입에만 의존하던 커피는 1974년부터 생산이 정상화되였으며 100에이커의 커피밭이 조성되였다. 1975년에 사탕수수는 8만 5천톤, 1977년에 목화는 1976년보다 4천 200톤이나 더 많은 8천 700톤 생산되였다.

집짐승으로는 주로 소, 양, 염소, 돼지 등이다.

운수에서는 철도와 자동차 운수가 기본이다.

1977년에 이 나라의 자동차길의 총연장길이는 3만 4천 900여키로메터였다.

주요수출품은 동, 코발트, 철광석, 연, 아연 등을 비롯한 광물과 담배, 목화 등이며 그중에서 동은 수출총액의 90%를 차지한다. 주요수입품은 원유제품, 기계설비, 천을 비롯한 일용품과 식량 등이다.

잠비아종합대학을 비롯하여 많은 기술전문학교, 국립 초등 및 중등 학교가 건설되였으며 학교수가 계속 늘어나고있다.

1977년에 이 나라 종합대학에서는 509명의 전문가들을 길러냈으며 창설후 1977년까지는 약 3천명의 민족간부들을 키워냈다.

정부는 해마다 국가총자금투자액의 6~7%를 보건부문에 돌리고있다.

1977년까지 종합대학과 여러 의학학교들에서는 85명의 의사와 1천여명의 준의를 양성하였다. 이 나라에는 79개의 병원과 675개의 진료소가 있다.

독립후 10년간 농촌에서만도 116개의 진료소, 11개의 병원이 꾸려졌다. 1977년현재 농촌에 470개이상의 의료기관이 있다.

병원침대수도 늘어났는데 1976년에는 1972년의 1만 6천 300대로부터 1만 9천 500대에 이르렀다.

1977년초에 동의일군협회가 새로 창설되였다.

잠비아전국의약품회사에서는 항생제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약품들을 많이 생산하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지방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타임스 오브 잠비아(민족통일독립당기관지), 잠비아 메일(정부기관지), 잠비아 데일리메일, 잠비아 뉴스

방송 잠비아방송, 잠비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4월 12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1년 4월 18일 루사카에서 《잠비아조선청년친선협회》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한 련대성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2년 12월 12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잠비아에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잠비아조선청년친선협회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 등이 조직되여있다.

1977년 8월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서, 사진 및 공예품전람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이해 9월에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잠비아 데일리 메일》 신문주필이 참가하였다.

짐 바 브 웨

(로데시아)

넓이 38만 9,400km²

인구 631만명(1977년)

수도 솔스베리(주민 55만명)

자연 및 주민

짐바브웨는 아프리카대륙의 동남부 잠베지강이남에 자리잡고 모잠비끄, 보쯔와나, 잠비아, 남아프리카에 둘러싸인 내륙국가이다.

기후는 몹시 무더우며 최고 38°C를 넘는다. 한해평균비내리는량은 500~1,000mm이다.

주민의 대부분(98%)이 반투어계통의 흑인이며 그밖에 백인과 혼혈인 등이 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정 치

짐바브웨는 1895년 영국의 식민지로, 1923년에는 그의 《자치령》으로 되였다.

1953년에는 영국식민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중앙아프리카련방》에 편입되였다.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1963년말에 《련방제》가 무너지자 영국식민주의자들은 짐바브웨에서 백인인종주의정권을 조작하고 1965년 11월 11

일에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포케 하였다.

1969년 6월 스미스도당은 인종주의정권을 《합법화》하기 위하여 이른바 《헌법》을 채택하고 1970년 3월 2일에 《공화국》을 선포하였으며 4월에는 비법적인 소수백인인종주의 《정부》를 조작하였다.

한편 1966년 4월 28일 첫 무장투쟁의 총성을 울린 짐바브웨유격대는 나라의 북부와 서북부, 남부와 동남부를 비롯한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전선을 펴고 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에게 련속 심대한 타격을 주고있다.

이미 령토의 3분의 2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차지한 짐바브웨유격대들은 솔스베리의 변두리에까지 밀고들어가 스미스도당의 숨통을 바싹 조이고있다. 1977년 상반년동안에만도 2천여명의 청년들이 1972년 1월에 창건된 짐바브웨인민군에 입대하였다.

1977년 첫 9달동안에 짐바브웨애국자들은 적 1천 890명을 죽이고 적비행기 13대를 쏴떨구고 131대를 파괴하였으며 15대의 적군용자동차를 빼앗았다.

특히 7월부터 9월사이에는 72대의 적군용자동차, 13개의 전략적인 시설물, 6개의 유선통신소, 4개소의 동력시설을 마사버렸다. 또한 4척의 경비선을 물속에 처박았으며 많은 무기와 탄약을 빼앗았다.

짐바브웨애국자들은 1977년 9월이후 3달동안에 스미스인종주의도당의 군대 658명을 쓸어눕혔으며 이 기간에 75대의 자동차, 4대의 기관차, 20대의 차량, 3개의 다리를 까부시였다. 또한 적군용기와 장갑차도 많이 파괴하였으며 인종주의도당의 군사기지 13개와 20개의 다른 군사대상물들을 못쓰게 만들었다.

스미스반동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77년 한해동안에 로데시아에서 무려 1만 6천 630여명의 백인인종주의자들이 다른 나라로 달아났다.

스미스도당은 짐바브웨인민들의 해방투쟁을 말살하며 이웃 아프리카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적모험책동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1977—1978회계년도예산에서 군사비로 무려 2억 2천 820만딸라를 돌렸다.

스미스도당은 1977년 9월 로데시아에서 백인들의 의무적인 군사복무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였으며 남아프리카, 미국, 영국, 프랑스, 이딸리아, 이스라엘 등에서 수많은 고용병들을 끌어들이고있다. 1977년현재 스미스인종주의군대내에서 3분의 1은 외국고용병들이다.

로데시아인종주의도당은 1977년에도 모잠비끄, 보쯔와나, 잠비아 등 이웃 아프리카나라들을 반대하는 로골적인 군사적도발행동을 감행하였다.

이해 2월에 스미스인종주의자들은 날로 강화되고있는 짐바브웨인민의 무장투쟁을 탄압말살하며 다른 아프리카나라들을 반대하는 군사적도발을 강화할 목적으로 보쯔와나와의 국경선일대에 30키로메터의 너비의 《무인지대》를 만들어놓고는 이 지역에 《허가 없이 나타나는 사람은 그 누구를 불문하고 사격당할것》이라고 떠들어댔으며 모잠비끄와의 국경선일대에도 이와 같은 《무인지대》를 설치해놓았다.

한편 놈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촉밑에 그 무슨 《평화적해결책》과 《흑인다수파통치》요, 《총선거》요 하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짐바브웨인민의 투쟁의식을 마비시키고 투쟁조직사이에 반목과 리간을 조성시켜 짐바브웨인민의 해방투쟁자체를 말살해보려고 흉악하게 책동하였다.

1977년 9월 1일 미영제국주의자들은 위기에 처한 로데시아 스미스인종주의도당을 구원할 목적으로 로데시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그 무슨 《공동제안》이라는것을 내놓았다.

이 《공동제안》은 스미스놈의 《사임》과 그후 6개월내의 《총선거》의 실시, 영국정부에 의한 영국인 《행정장관》의 임명, 완전독립을 이룩할때까지 과도기간의 치안을 맡을 《유엔군》의 파견, 《국가재건》을 촉진시킬 《개발기금》의 설치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이해 8월에 잠비아의 수도에서 아프리카전선국가지도자들과 짐바브웨애국전선 지도자들의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참가자들은 로데시아문제에 관한 미영의 새로운 《조정계획》의 본질을 까밝히고 그것을 《신식민주의적인 계획》으로서 단호히 배격하였다.

로데시아인종주의정권을 짓부시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짐바브웨인민들의 의로운 투쟁은 전체 아프리카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의 한결같은 지지성원을 받고있다.

1977년에 모잠비끄의 수도 마뿌또에서 있은 짐바브웨및나미비아인민지지국제회의(5월), 짐바브웨애국전선을 짐바브웨인민의 유일하게 합법적인 대표로 인정하면서 그들의 의로운 투쟁을 적극 지지할데 대한 결의를 채택한 아프리카통일기구국가및정부 수뇌자회의(7월), 뽀르뚜갈의 리스봉에서 있은 남부아프리카에서의 인종격리, 인종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세계대회(6월)를 비롯한 여러 회합들, 유엔비식민지화특별위원회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국제민주단체들 그리고 여러 나라 지도자들은 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에게 제재조치를 가할것을 호소하면서 싸우는 짐바브웨인민을 물심량면으로 적극 지지성원할데 대한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1977년 9월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짐바브웨애국전선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의회 스미스인종주의도당이 민족적독립을 위한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만들어

변 《립법기구》, 상하량원제, 상원은 23명, 그중 아프리카인 10명, 하원은 66석, 흑인의석은 16석

대통령 크리포드워터 듀폰(1970년 4월—)

정부 총리 이완 스미스

정당, 사회단체; **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 1961년 12월에 창건,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위원장 죠수아 느코모, **짐바브웨아프리카민족동맹** 아프리카인민동맹에서 분리되여 1963년 8월에 결성된 민족해방투쟁단체, 위원장 로버트 지. 무가베, **통일아프리카민족회의**(흑인단체), **아프리카민족회의**(흑인단체), **짐바브웨애국전선** 1976년 10월에 인민동맹과 민족동맹이 통합하여 결성, 1977년 1월 애국전선지도자들의 회의에서는 해방투쟁에서 행동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로서 조정위원회를 창설하기로 결정, 공동위원장 죠수아 느코모, 로버트 지. 무가베, **로데시아전선**(인종주의자들의 정당), **아프리카로조대회**

경제, 사회문화

경제는 농업과 채굴업이 위주로 되여있는데 전형적인 식민지적기형성을 띠고있다.

경제의 명맥은 영국, 남아프리카,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쥐여져있다.

특히 영국산업회사들은 로데시아에 300여개의 자매회사들과 기업소들을 두고있다.

국민총생산의 25%를 차지하는 농업에서 이 나라 인구의 5.7%밖에 안되는 백인인종주의자들이 부침땅의 70%를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담배재배가 기본(농업총생산액의 80%)이며 이밖에 강냉이, 목화, 땅콩, 사탕수수, 밀, 차, 수수 등을 심고있다.

축산업과 림업도 이 나라 경제에서 큰 몫을 차지하고있다.

공업에서 기본은 채굴공업이다.

주요지하자원은 크롬, 니켈, 라디움, 철, 동, 석탄 등이며 돌솜도 많이 생산하고있다.

해마다 크롬광 70만톤, 돌솜 10만톤, 석탄 500만톤, 동 2만～2만 2천톤, 금 18톤, 니켈 7천 500톤 정도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생산되는 라디움의 80%를 채취하고있다.

가공공업에서는 농산물가공공업이 위주로 되고있다.

운수의 기본은 철도운수이다. 철길의 총연장길이는 3천 250키로메터이며 자동차길의 총연장길이는 6만 9천 400키로메터이다.

솔스베리에는 국제공항이 있다.

주요수출품은 담배, 크롬, 돌솜, 라디움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일용품 등이다.

백인인종주의자들은 60여종의 인종차별을 위한 각종 악법으로 아프리카원주민들을 억압착취하고있다.

이 나라의 아프리카원주민들은 제한된 거주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으며 려관과 식당, 상점들을 마음대로 드나들수 없으며 다층주택에서 살수 없다. 뿐만아니라 아프리카인로동자들은 아무런 로동보호시설도 없는 원시적인 작업장에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고있다.

아프리카인로동자의 92%가 이 나라에서 설정된 최저수준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있으며 그들의 임금은 백인로동자임금의 20분의 1밖에 안된다.

백인인종주의자들이 재산과 지식에 의한 선거권을 규정하고있기때문에 절대다수의 아프리카원주민들은 선거할 권리마저 잃고있다.

아프리카인들의 80%가 글을 모르며 백인과의 《공학》이 허용되지 않고있다.

아프리카인들은 지방종교를, 백인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짐바브웨 피플즈 보이스(짐바브웨아프리카인민동맹기관지), 로데시아 헤랄드, 크로니클, 썬데이 메일

방송 《짐바브웨목소리》방송, 로데시아방송, 로데시아텔레비죤방송

앙 골 라

(앙골라인민공화국)

넓이 124만 6,700km²

인구 600만명(1977년)

수도 루안다(주민 약 80만명)

자연 및 주민

아프리카대륙의 서남부에 있는 앙골라는 잠비아, 자이르, 나미비아와 잇닿아있다.

열대산림초원의 특성이 뚜렷한 기후는 5～8월의 가물철과 9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의 장마철로 구분되고있다. 한해평균기온은 17～28°C이다. 한해비내리는량은 남부내륙지방에서 750～1,000mm, 북부내륙지방에서 1,500mm이다. 해안지대의 비내리는량은 한류의 영향을 받아 내륙지방의 3분의 1도 못된다.

주민의 대부분(97%)이 반투족이며 크게는 세개의 종족으로, 세부적으로는 40여개의 종족으로 이루어졌다.

매개종족은 자기의 언어로 말하나 약 70%의 인구가 3개의 언어로 통한다. 전국적인 공용어는 반투어이다.

정　치

앙골라는 1482년부터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침입을 받은후 1885년에 놈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1956년 12월에 창건된 앙골라인민해방운동의 지도밑에 앙골라인민해방무장력은 1961년 2월부터 14년동안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뽀르뚜갈에서 새 정부가 수립된후인 1974년 10월 15일 앙골라해방투쟁조직들과 뽀르뚜갈정부사이에 정화협정이 조인되였다.

1975년 1월 15일 앙골라에 독립을 부여할데 관한 독립협정에 따라 이해 11월 11일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위원장 아고스띠노 네또가 앙골라의 독립과 앙골라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선포하였다. 이날 아고스띠노 네또가 앙골라인민공화국 기본법을 발포하였다.

독립후 앙골라에서는 앙골라가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는것을 방해하고 앙골라인민해방운동과 인민의 통일을 파괴하며 앙골라에서 불안을 조성하려는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세력의 준동이 우심하였다.

1977년 5월 앙골라 수도 루안다의 한 구역에서 저격무기, 탄약, 수류탄이 있는 반동세력의 비밀무기고가 적발되였으며 5월 27일에는 루안다에서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세력이 앙골라방송국을 점거하고 반정부적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중앙위원회와 혁명리사회 및 정부의 일부 일군들을 살해하였다. 그러나 앙골라정부와 인민은 놈들이 감행한 반정부무장반란을 제때에 때려부시고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수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네또대통령은 전국에 보낸 방송연설에서 앙골라인민해방운동이 찬동한 사회주의사회건설로선을 계속 관철하며 반동세력과 국제제국주의의 임의의 새로운 준동에도 타격을 줄 앙골라인민의 확고한 결의를 강조하였다.

1977년 10월 앙골라군대가 중부앙골라의 후암보에서 앙골라혁명을 반대하던 국내반동세력의 주요지하망을 적발분쇄하였다.

이해 12월 4일부터 10일까지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제1차대회가 루안다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에서는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중앙위원회 총화보고, 당창건문제, 1978—1980년도 사회주의경제발전기본방향 등을 토의하였다. 대회에서는 앙골라인민해방운동을 앙골라인민해방운동—로동당으로 부르기로 결정하고 당의 강령과 규약을 채택하였다. 또한 아고스띠노 네또가 앙골라인민해방운동—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되였다.

앙골라정부는 사회주의사회건설로선에 따라 1977년 2월에 외래제국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석유독점회사 《앙골》을, 9월에는 금강석회사《꼼빠니에 데 디아만떼스 데 앙골라》를 국가의 통제밑에 넣었다.

정부는 원유공업부문 모든 기업소들의 활동을 조정하며 기업소들의 경영활동에 대한 재정적통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12월에 원유 및 원유제품분배국가통제위원회, 이에 앞서 10월에 주요식료품과 일용필수품에 대한 국가적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전국식료위원회의 창설을 비롯한 국영기업소들을 관리할 위원회들을 내왔다.

앙골라는 대외적으로 사회주의나라 및 쁠럭불가담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며 제국주의,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고있다.

앙골라대통령은 10월에 한 연설에서 《앙골라인민공화국은 민족적자결권에 대한 존중, 평등, 다방면적인 협조의 확대에 기초하여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을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해 1월 앙골라수도에서 남부아프리카인민들과의 련대성전아프리카로조회의가 진행되였다.

1977년에 앙골라는 쏘련과 합동어업협회(3월)를 창설하였으며 콩고와 경제, 무역, 과학 및 문화 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협정(2월), 잠비아와 국방, 안전, 대외무역 및 농업 분야에서 긴밀한 협조를 위한 협조협정을 맺었다.

1977년에 앙골라대통령이 4월에 유고슬라비아와 뽈스까, 8월에 꾸바, 9월에 쏘련, 12월에 탄자니아, 잠비아, 모잠비끄를 방문하였으며 이해 3월에 꾸바총리, 9월에 기네—비싸우국가리사회 위원장, 11월에 콩고대통령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해 앙골라는 프랑스(1월), 에티오피아(7월), 가이아나(7월), 에스빠냐(10월), 영국(10월), 민주예멘(11월)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대통령 혁명리사회를 지도하며 군총사령관을 겸임, 대통령 아고스띠노 네또(1975년 11월 11일—)

혁명리사회 대통령이 지도하는 이 리사회는 인민해방운동—로동당 정치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성원들, 그리고 인민해방운동—로동당 정치국이 선출한 여러명의 정부 부장들로 구성, 대내외정책을 결정한다.

정부 총리 로뽀 도 나쓰씨멘또, 외교부장 빠울로 죠르쥬

정당, 사회단체; **인민해방운동—로동당** (1977년 12월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제1차 대회에서 인민해방운동을 인민해방운동—로동당으로 고침) 1956년 12월 9일 창건, 위원장 아고스띠노 네또, **전국근로자동맹, 녀성조직**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로동인구의 85%가 농사를 짓고있다.

주요농작물은 커피, 사탕수수, 사이잘삼, 강냉이, 조, 수수, 땅콩, 나무감자, 종려, 목화 등이다.

커피는 북부지대의 비옥한 땅에서, 목화는 루안다지역에서, 사탕수수와 사이잘삼은 바다가벌방지

대에서 주로 가꾼다.

기본수출작물인 커피는 1972년에 20만 4천톤을 생산하여 아프리카에서 제 2위를 차지하였다. 커피는 수출총액의 35%를 차지한다.

같은해에 목화는 8만 6천여톤, 사탕은 76만 4천톤을 생산하였다. 사이잘삼은 한해평균 6만톤 생산된다.

주민들의 기본식량으로 되여있는 강냉이, 조, 수수, 나무감자 등은 중부지역과 바다가 벌방지대에서 주로 심고있다.

축산업은 농업에서 적지 않은 몫을 차지하고있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돼지, 염소이며 주로 남부지역에서 기르고있다.

바다에는 수산자원이 많다.

공업에서 기본은 채취공업이다.

주요지하자원은 금강석, 금, 석유, 철광석, 동, 연, 아연, 망간 등이다.

1971년에 570만톤의 석유가 채취되여 아프리카에서 여섯번째자리를 차지하였다.

남부지역의 까싱가에서 1950년대에 철광석매장지가 발견된후 1967년부터 로천채굴이 시작되였다. 그의 매장량은 60～70%의 품위를 가진 철광석이 9천만톤, 35～40%의 품위를 가진 철광석이 4억톤에 달하며 해마다 600만～700만톤의 품위높은 철광석이 원광대로 수출된다.

또한 이 지역에서 1천 500만톤의 매장량을 가진 린광맥이 발견되였다.

가공공업의 중심지는 루안다와 로비또이다. 루안다에는 석유가공, 방직, 화학, 종이, 담배, 사탕, 신발 공장들이 있으며 이 항구에서 석유가 수출된다. 로비또는 식료공업의 중심지로서 제분, 통졸임, 고기 및 소젖가공 공장외에 세멘트공장과 조선소도 있다.

앙골라대통령은 한 방송연설에서 1978년에 공업과 건설사업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 국영부문을 많이 확대할것이라고 하면서 앙골라농업발전의 기본방향은 로동생산능률을 높이고 씨붙임면적을 늘이며 새로운 농업기술을 받아들이고 농업협동조합수를 늘이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1977년 4월현재 360개의 농업협동조합이 조직되였다.

이 나라에는 2천 400키로메터의 철길이 있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금강석, 철광석, 석유, 목재, 사이잘삼, 물고기 및 어분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소비품, 기계류, 반제품과 기타 공업제품 등이다.

정부는 독립후 학교들을 창설하고 학생수를 늘이고있으며 교원양성사업을 강화하고있다. 전반적무료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1977학년도에 100만명의 어린이들과 성인들이 공부하게 되였다.

이해 루안다와 기타 도시들에서 초등학교교원양성사업이 시작되였다.

1976년 11월 《문맹을 퇴치하자》라는 구호밑에 문맹퇴치운동이 벌어진이래 10만 2천여명의 주민들이 글을 읽고 쓸수 있게 되였다.

한편 보건사업발전을 위하여 의료일군양성소들을 내오고있다. 1977년 4월 30일부터 근로자들에 대한 무상치료가 실시되였다.

원주민들의 대부분은 지방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앙골라프레스

신문 워또리아 오우 모르떼(인민해방운동—로동당기관지), 죠르날 디 앙골라(정부기관지), 디아리오 데 루안다

방송 앙골라방송, 벵구엘라방송, 앙골라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5년 11월 16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높이 추대되신데 대하여 앙골라신문 《죠르날 디 앙골라》 1977년 12월 16일호가 널리 보도하였다. 같은날 앙골라방송도 이에 대한 소식을 전하였다.

이에 앞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앙골라신문 《죠르날 디 앙골라》는 글과 론설을 발표하였으며 앙골라텔레비죤방송은 특별방송을 하였다.

이해 7월 30일 앙골라의 북구완자주 돈도시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집회가 진행되였다.

1968년 9월과 1971년 8월 두차례에 걸쳐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위원장(현대통령) 아고스띠노 네또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7년 9월에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앙골라인민해방운동 대표가 참가하였다.

나 미 비 아

(서남아프리카)

넓이 82만 4,292km²
인구 85만 2,000명(1976년)
행정중심지 윈드후크(주민 7만명)

자연 및 주민

아프리카서남부에 자리잡고있는 나미비아는 서쪽은 대서양을 끼고 북쪽은 앙골라와 잠비아, 동쪽은 보쯔와나, 남쪽은 남아프리카와 국경을 같이

하고있다.

날씨는 무덥고 메마르며 비가 적게 내린다. 해안지대는 사막성기후이고 내륙지방은 고원성기후이다. 한해평균비내리는량은 250~500mm이다.

주민의 90%가 오밤보족, 부슈맨족, 호텐토트족 등 아프리카사람이며 백인도 있다.

아프리카사람들은 반투어를 쓰며 백인들은 영어와 독일어를 쓴다.

정 치

나미비아는 15세기부터 18세기까지 뽀르뚜갈, 화란, 영국식민주의자들의 침입을 받았으며 1890년에는 독일의 식민지로 되였다.

1915년 7월에는 영제국주의자들이 남아프리카에서 조작한 남아련방에 강점되였으며 1920년 12월부터는 남아련방의 《위임통치령》으로 되였다.

1949년 4월 남아련방은 《서남아프리카사무수정법안》을 조작하고 이 나라를 자기 령토에 비법적으로 포함시켰다.

1968년 6월 12일 서남아프리카로 불리우던 나라이름을 나미비아로 고쳤다.

1969년 3월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은 나미비아에 대한 저들의 통치를 합법화하기 위한 《법안》을 조작하여 이 나라의 행정 및 재정권을 장악하였으며 1977년현재까지 유엔의 결정을 무시하고 국제여론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줄곧 부당하게 나미비아를 강점하고있다.

1966년 5월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의 지도밑에 나미비아인민들의 무장투쟁이 시작되였으며 1968년 11월에는 동북부지역의 므파챠군사기지에 대한 공격을 계기로 무장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하였다.

10년동안 무장투쟁을 벌려온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은 1977년에도 무장부대들의 대렬을 확대강화하고 나라의 북부, 서북부, 동부의 넓은 지역들과 그리고 나라의 중심지역들인 그루트폰테인, 오타위, 오우조, 오마루루, 오치와롱고와 지어는 행정중심지인 윈드후크에까지 들어가 놈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었다.

나미비아인민해방군은 1977년 상반년동안에만도 인종주의도당의 장병 800여명을 소멸하고 적의 장갑수송차와 군용화물자동차 90여대를 마사버렸으며 적비행기 30대를 쏴떨구거나 마스고 기타 많은 무기들과 전투기재들을 빼앗았다.

날로 확대강화되는 나미비아인민의 무장투쟁에 의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는 보스터인종주의도당은 나미비아에 6만명의 침략군을 밀어넣고 평화적주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다.

1977년 6월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위원장은 놈들의 탄압만행을 규탄하면서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은 《힘에는 힘으로, 무장에는 무장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이에 앞서 4월 7일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은 남아프리카 보스터인종주의도당이 꾸며낸 나미비아에서의 이른바 《과도정부수립을 위한 제안》이라는 문건의 반동성을 폭로하였다.

이 문건에는 남아프리카가 나미비아의 《림시대통령》을 임명하며 앞으로 수립될 《과도정부》에서 국방, 외교, 재정, 운수, 무역, 안전 부문에 대한 통제권을 남아프리카가 계속 가질것이라는것이 공공연히 밝혀져있다고 지적하였다.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은 한 성명에서 보스터인종주의도당과 서부렬강이 나미비아에 이른바 《독립》을 선포하려고 서두르면서 나미비아를 보스터도당과 국제독점체들의 세습령지로 유지하려고 책동하고있는데 대하여 규탄하였다.

1977년 12월에 삼 누죠마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대표단이 체스꼬슬로벤스꼬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하였다.

립법회의 1968년 10월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이 민족적독립을 위한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말살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립법기구》로서 백인들로 구성

행정평의회 남아프리카대통령이 행정장관을 임명한다. 행정장관 스테인(1977년 9월 1일—)

정당, 사회단체;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1958년 4월 23일 창건, 위원장 삼 누죠마, 민족해방투쟁을 지도, **국민당**(집권당)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의 정당인 남아프리카국민당의 지부, **통일당, 서남아프리카로조, 나미비아근로자민족련맹, 청년동맹**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채광업과 축산업이며 해안지대에서는 어업도 한다.

채광업이 이 나라 총생산액의 40%를 차지한다.

주요지하자원은 금강석, 바나디움, 우라니움, 동, 아연, 금, 망간, 철광석, 은, 석유 등이다.

금강석은 주로 로친에서 채굴되고있는데 1972년에 약 185만카라트가 생산되였다.

영국, 미국, 남아프리카, 서독 등 100여개의 독점회사들이 이 나라의 자원을 마음대로 략탈해가고있다.

미영자본의 《합동금강석회사》는 금강석채굴의 99.6%를 독점하고 해마다 7천만딸라의 리윤을 짜내고있다.

가공공업으로는 수산물가공공장, 식료공장, 동제련공장 등이 있다.

토지의 90%는 백인인종주의자들이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강냉이, 밀, 콩 등이며 공예작물도 난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등이다.

해마다 300만매의 가죽을 수출한다.

항구들과 광산지대를 련결시키는 철길이 있다.

주요수출품은 가죽, 동, 연, 바나디움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일용품과 기타 제품이다.

인종차별정책에 의하여 나미비아인민은 공민권도 완전히 박탈당하고있으며 선거권, 교육을 받을 권리, 기능을 소유할 권리, 지어는 공직에 근무할 권리도 없다.

서남아프리카를 비법적으로 강점한 남아프리카 인종주의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나라를 두개 지역으로 갈라놓고 70여만이나 되는 아프리카인 원주민들을 살기어려운 척박한 북부지대에 강제로 이주시켜 살게 하고있으며 령토의 3분의 2에 해당한 지역을 《경찰지대》로 선포하고있다. 가장 비옥한 토지와 항구, 도로, 큰 도시들은 10여만밖에 되지 않는 백인이주민들이 독차지하고있으면서 아프리카인 주민들을 착취하고 략탈하고있다. 아프리카인주민들은 노예로동을 강요당하면서도 한달에 겨우 6~11란드(1란드는 1.15딸라)를 받고있을뿐인데 백인광부는 한달에 200란드를 받고있다.

인종주의자들의 가혹한 착취와 억압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인주민들의 50%는 10살도 되기전에 죽는다고 한다.

주민의 대부분은 지방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알게마이네 짜이퉁, 오피씨알 가제트 오브 사우즈 웨스트 아프리카, 윈드후크 애드버타이저

방송 아르에스에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3월 20일 잠비아에 있는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 성원들이 《김일성동지로작및혁명활동력사를 연구하고 그를 구현하기 위한 선봉소조》를 결성하였으며 투쟁대오안에 《김일성부대》를 조직하였다.

1975년 9월 3일 애급및중근동지역주재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대표부 성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를 애급의 수도 까히라에서 결성하였다.

애급및중근동지역주재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대표부 책임대표는 1977년 12월 17일 까히라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국가주석으로 높이추대한것은 비단 조선인민의 민족적경사일뿐아니라 김일성주석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홰불따라 반제자주의 길로 힘차게 전진하는 세계혁명적 인민들의 크나큰 기쁨이며 행복이라고 말하였다.

1965년 7월과 1973년 7월, 1975년 11월 세차례에 걸쳐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위원장 삼 누죠마를 단장으로 하는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7년 2월 18일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에서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연구유엔나미비아대학위원회》와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지지유엔나미비아대학위원회》 결성모임이 진행되였다.

결성모임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이해 9월에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서남아프리카인민조직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보쯔와나

(보쯔와나공화국)

넓이 60만 372km²
인구 73만명(1976년)
수도 가보로네(주민 3만 3,000명)

자연 및 주민

보쯔와나는 아프리카대륙의 남부에 있는 내륙나라이다. 령토의 대부분이 열대풀벌로 이루어졌다.

기후는 전형적인 대륙성기후로서 한해평균기온은 1월에 21~27°C, 7월에 16°C이다. 한해평균 480~600mm의 비가 내린다.

주민의 대부분은 아프리카사람이며 가장 큰 종족은 보쯔와나족(베추아족)이다.

공용어는 영어와 보쯔와나어이다.

정 치

19세기 영국식민주의자들이 보쯔와나를 침략하기 시작하였으며 1885년에 놈들은 이 지역을 두부분으로 나누고 북부는 저들의 《보호령》으로, 남부는 저들의 식민지인 《영령베추아날랜드》로 선포하였다.

1966년 9월 30일에 영련방성원국으로서 독립을 이룩한 이 나라는 베추아날랜드로 불리우던 나라이름을 보쯔와나공화국으로 선포하였다.

보쯔와나인민은 인종주의자들의 포위속에 있는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자력갱생》, 《통일》의 구호를 높이 들고 민족경제와 민족문화 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나라 대통령은 1977년 8월에 진행된 무역시장개막식에서 연설하면서 경제적자립을 이룩하는 것은 보쯔와나의 주되는 과업이라고 하면서 보쯔와나가 다른 나라에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77년 3월 31일 보쯔와나민족회의에서 민족보위군을 창설할데 관한 법안이 통과되였으며 6월 30일에는 새로운 항공규정이 발표되였다.

새로운 항공규정에 의하면 보쯔와나정부의 승인

이 없이는 그 어떤 나라의 비행기도 보쯔와나령공에서 항공촬영과 항공측량을 하지 못하며 또한 이 나라 정부의 승인이 없이는 그 어떤 비행기도 군수물자를 수송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것은 로데시아스미스인종주의도당이 보쯔와나인민을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도발과 침략책동을 계속 감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취해졌다.

1977년 9월 30일 보쯔와나독립 11돐을 기념하는 군중집회에서 이 나라 대통령은 보쯔와나에 대한 스미스도당의 계속되는 침략책동을 규탄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유와 조국을 지키기 위하여 더욱 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우리 자신을 보위할 결심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인종주의자들의 폭압속에 있는 린접한 짐바브웨, 나미비아, 남아프리카 인민들의 해방과 전체 아프리카대륙의 완전해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보쯔와나는 1977년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5월), 꾸바(12월)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유고슬라비아(5월)와 무역협정을 맺었다.

국회(민족회의) 일원제, 임기 5년, 32석중 27석은 주민들에 의하여 선거되며 나머지 4석은 특별히 선출되며 1석은 사법부장이 투표권 없는 국회의원으로 된다. 1974년 10월 제3차 총선거에서 선거되는 27석 모두를 집권당인 민주당이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국회와 함께 립법권도 행사, 대통령 쎄레쩨 카마(1966년 9월—)

정부 대통령이 정부수반을 겸한다. 외교부장 에이.엠.모그웨

정당, 사회단체; **민주당**(집권당)1962년에 창건, **인민당** 1960년에 창건, 식민주의를 반대하며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는 아프리카인들의 민족주의정당, **독립당**, **민족전선**, **로조대회**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축산업이며 인구의 75%가 이 부문에서 일하고있다.

정부는 농업연구소, 농산물수매국을 설치하고 농기구공급사업을 강화하면서 농업발전에 힘쓰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저수지건설, 물길째기와 우물파기, 농기구개량및선진영농기술보급 등 농업생산을 늘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있다.

부침땅은 약 800만헥타르에 달하며 주요농작물은 강냉이, 수수, 콩, 밀 등이다.

이 나라 대통령은 농업이 보쯔와나경제의 기본을 이루고있다고 말하고 주요농산물들을 어디까지나 보쯔와나에서 생산보장해야 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염병예방을 위한 전문기관과 수의사양성소, 검역소들을 새로 내오고 우물파기, 종축개량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하여 전국에 9개의 시범목장, 20개의 축산업지도기관을 설치하고 소의 개량과 과학적인 방목 및 관리 방법을 일반화하고있으며 가물지역에서 집짐승들의 물을 해결하기 위하여 독립후 50여개의 우물을 팠다.

주요집짐승은 소이며 그밖에 양, 염소 등이다.

1976년에 소는 300만마리, 염소는 100만마리, 양은 40만마리에 달하였다.

공업에서 축산물가공공업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정부는 외래독점체들이 가지고있던 로바체도살장을 넘겨받고 그 이름을 보쯔와나소고기회사로 고치였다. 이 회사는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도살장의 하나로서 하루 최고 1천 500마리의 소와 300마리의 양을 처리할수 있다.

주요지하자원은 동, 금강석, 니켈, 철, 망간, 석탄, 돌솜 등이다.

독립후 채취공업분야에서 금강석, 동, 니켈 광산들이 새로 개발되였다. 1977년에 새로운 큰 규모의 금강석매장지가 발견되였다.

오라버금강석광산은 세계에서 제일 큰 금강석광산의 하나이다. 1976년에 260만카라트의 금강석을 생산하였다.

1976년에 금강석으로부터 얻은 소득액은 3천 600만뽈라였다.

독립후 10년동안에 국민총생산액은 4배로, 국가예산수입은 6배로 늘어났다.

남아프리카와 짐바브웨를 련결하는 철길의 일부가 이 나라의 동부국경선을 통과(650키로메터)하고있다. 도로의 총연장길이는 7천 800여키로메터에 달하며 그중 포장도로는 1천 250키로메터이다. 1977년에 3천 100대의 화물자동차가 있었다.

주요수출품은 집짐승가죽, 고기가공품, 돌솜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천, 기계류, 원유제품 등이다.

축산물이 수출의 85%를 차지하고있으며 소고기수출국으로 알려지고있다.

독립후 교육문화분야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독립후 10년동안(1967~1976년)에 약 400개의 초등학교가 새로 일떠섰다. 초등학교 학생수는 76% 늘어났다. 국립중등학교수는 9개로부터 15개로 늘어났으며 중등학교학생수는 6배로 늘어났다.

또한 이 기간에 초등학교 교원수는 140%로, 중등학교 교원수는 5배로 장성하였다.

수도 가보로네에는 단과대학이 있다.

이 나라에는 12개의 병원을 비롯하여 많은 치료기관들이 있다.

주민들은 주로 지방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마사(인민당기관지), 데리사니오(민주당기관지), 무오 파(민족전선기관지), 데

일리 뉴스, 쿠툴와노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11월 27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보츠와나공화국 대통령 쎄레쩨 카마가 1976년 8월에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였다.

스워질랜드

(스워질랜드왕국)

넓이 1만 7,363km²
인구 52만 297명(1976년)
수도 음바바네 (주민 2만 4,000명)

자연 및 주민

스워질랜드는 아프리카대륙에서 감비아 다음으로 작은 나라로서 남아프리카의 동북쪽에서 모잠비끄와 국경을 같이하고있는 내륙국이다.

기후는 아열대기후에 속하며 주로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린다.

주민의 85%가 스워지족이며 그밖에 줄루족이 14%, 구라파사람이 1% 있다.

공용어는 영어와 스와힐리어이다.

정 치

스워질랜드는 1906년에 영국의 《보호령》으로 되였다.

1962년 2월 영국의 세《보호령》(스워질랜드, 레소토, 보츠와나)의 민족주의정당들이 통일전선인 범아프리카단결대회(스워질랜드진보당, 바수톨랜드대회당, 보츠와나인민당 망라)를 결성하고 민족적 해방과 독립을 위한 공동투쟁을 벌렸다.

1967년 4월 25일에 《내부자치권》을 가지게 되였으며 1968년 9월 6일에는 영련방안의 립헌왕국으로 독립하였다.

1977년에 스워질랜드정부는 민족항공회사를 창설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나라는 유엔과 아프리카통일기구에 가입하고있다.

립법회의 상하량원제, 상원의원 12명중 왕이 6명을 임명하고 하원에서 6명을 선거한다.

하원은 의원 24명중 왕이 6명을 임명한다. 상하량원의석은 모두 인보코드위민족운동당이 독차지하고있다.

국왕 소브후자 2세, 국가원수이다. 국왕이 국내에 없을때는 왕의 어머니가 대신한다.

정부 총리 마코쉬니 들라미니 (왕의 아들, 1970년 5월—)

정당, 사회단체; **인보코드위민족운동당** (집권당), 1964년에 창건, 당수 소브후자 2세, **민족해방대회당, 진보당, 스워질랜드통일전선**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주요부문은 농업과 목축업이며 령토의 대부분은 방목지로 리용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벼, 강냉이, 사탕수수, 오렌지, 땅콩, 감자 등이며 수출작물로서 목화와 담배도 심는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이다.

질좋은 목재도 많이 생산되고있다.

공업에서 기본은 채광업이다. 돌솜, 철광석, 금, 은, 주석 등이 채굴된다.

농산물 및 축산물 가공공장들과 합판공장들이 몇개 있다.

철길은 없고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원시적인 농업과 집짐승기르기를 하고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길을 찾아 남아프리카의 금광으로 품팔이를 떠난다.

주민의 80%가 문맹자이다. 이 나라에는 약 350개의 소학교가 있는데 그중 정부가 운영하는 학교는 38개, 나머지는 백인들의 소유이다.

원주민들의 40%는 지방종교, 그 나머지는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움비키(정부기관지), 타임스 오브 스워질랜드

방송 스워질랜드방송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넓이 122만 3,409km²
인구 2,612만 9,000명(1976년)
수도 프레토리아(주민 82만 5,700명)

자연 및 주민

남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륙의 남쪽끝에 자리잡고있다.

대서양과 인도양에 잇닿은 3면이 높은 산줄기로 둘러싸여있고 내륙은 대부분이 1,400m이하의 분지와 높은벌로 되여있다. 북쪽으로 가면서 지대는 점차 낮아진다.

기후는 대부분의 지역이 메마른 열대기후이며 남위 30도 이남지역은 아열대기후, 동부해안지대는 습한 열대해양성기후이다.

우리 나라와는 반대로 7월이 겨울이고 1월이 여름이다. 평균기온이 7월에는 18°C, 1월에는 25°C이다.

한해평균비내리는량은 동부해안지대에서 1,000 mm, 서부지방에서는 60～7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반투족이며 약 415만 8천명의 백인, 200만명의 혼혈인, 61만명의 아세아사람이 있다.

국어는 영어이며 원주민은 반투어를 쓴다.

정 치

남아프리카는 영제국주의자들이 1948년에 조작한 세계에서 가장 반동적인 백인인종주의정권이 지배하는 나라이다.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은 저들의 통치지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통행증법》, 《공산주의진압법》, 《인종격리법》, 《파괴활동금지법》 등 100여가지의 파쑈악법들을 만들어놓고 아프리카인들에 대한 가혹한 인종차별정책을 실시하고있다.

악명높은 《인종격리법》에 따라 놈들은 절대다수의 아프리카인들을 령토의 13%밖에 안되는 메마른 땅에 강제이주시키고 마음대로 탄압하고 학살하고있다.

1977년 11월 10일에는 2개흑인거주지역들에서 직승기까지 띄워놓고 무려 6시간동안이나 《소탕작전》을 벌리면서 626명의 아프리카인들을 체포하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 이에 앞서 10월 19일에는 인종격리정책을 반대하는 약 20개 단체들을 비법화하고 많은 흑인독자를 가진 출판물 발행을 금지시켰다. 또한 놈들은 인종격리정책을 반대하는 아프리카인투사들의 집과 그들의 조직의 본부들을 수색하였으며 애국자들을 체포학살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다른 한편 놈들은 자유와 해방을 위한 아프리카인들의 투쟁이 앙양되자 궁지에 빠진 인종주의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흑인자치》라는 간판밑에 살지못할 지역들에 《반투스탄》(흑인자치구)을 만들어 아프리카인들을 집단적으로 격리시키고있다. 이러하여 인종주의자들은 10개의 《반투스탄》을 만들어 여기에 제놈들의 앞잡이들을 내세워 통치하고있다.

또한 놈들은 민족적독립을 위한 이 나라 인민들의 투쟁을 말살하고 백인통치를 영구화하려는 목적밑에 1976년 10월에는 흑인자치구중 가장 큰 트란스케이에, 1977년 12월에는 보푸타츠와나에 《독립》을 주는 광대놀음을 벌려놓고 《국제적승인》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령토적인 장벽으로 종족별에 따라 분산》시킴으로써 그들 서로가 단결하지 못하게 하고 불화와 반목을 야기시켜 《흑인다수파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계속할것》을 노린 정치적모략행위로서 이 나라 인민들과 세계인민들의 일치한 규탄을 받고있다.

1977년 6월에 있은 남아프리카에서의 인종격리, 인종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세계대회와 8월 22일 나이제리아의 수도 라고스에서 열린 인종격리반대세계행동대회, 9월에 소집된 유엔인권위원회 차별방지및소수민족보호분과위원회 제30차회의, 10월 28일에 있은 유엔비식민지화특별위원회에서는 남아프리카 인종주의정권과 그를 비호하고 있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을 규탄하였다.

보스터인종주의도당은 야수적인 폭압정책을 실시하면서 로골적인 무력증강책동에 매달리고있다.

1976—1977회계년도에 군사비로 전해보다 40% 더 많은 13억 7천 500만란드를 지출한 놈들은 1977—1978회계년도에 또다시 《남아프리카 력사상 최고기록》인 16억 5천 400만란드(약 20억딸라)를 설정하였다. 이것은 10년동안에 15배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스터도당은 《무기분야에서 자립성을 보장》하여 《자체방위》를 해야 한다느니 뭐니하면서 살인무기생산에 미쳐날뛰는 한편 최근 10년동안에 미국, 영국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로부터 30억딸라어치의 살인무기들을 넘겨받았다.

보스터도당은 침략무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6월 3일에는 16살의 나어린 소년들에게까지 군대복무를 강요하고있으며 전반적으로 군사복무기간을 1년 더 연장하였다.

1977년에 남아프리카인민들은 보스터도당의 가혹한 착취와 인종차별정책을 반대하여 각종 투쟁을 벌렸다. 1월 24일 남아프리카의 요한네스부르그 가까이에 있는 크롬광산에서 1천여명의 광부들이 임금을 올리고 생활조건을 개선하며 로동안전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여 파업투쟁에 일떠섰으며 4월 27일에는 소웨토지역에서 2천여명이 집세를 30% 끌어올린것을 반대하여 시위를 벌렸다.

6월에는 인종차별정책의 하나인 《반투교육》제도를 반대하여 소웨토에서 3만명의 학생들이 투쟁에 일떠섰으며 이 투쟁은 전국에 번져가 약 20만명의 학생들이 망라되여 년말까지 계속되였다.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은 54명, 하원은 166명으로 구성, 국회의원은 백인만이 될수 있다.

대통령 니콜라스 디데리히스(1975년 4월—)

정부 총리 비.제이.보스터(1966년 9월—), 외교부장 피크 보사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7월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창건되였으나 인종주의자들의 《공산주의진압법》에 의하여 1950년에 해산, 1960년에 다시 조직되여 지하에서 활동, **남아프리카아프리카민족대회**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아프리카인들의

투쟁단체, 국민당(집권당), 민주주의자대회, 남아프리카인도인대회, 남아프리카유색인주민대회, 로조대회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채광업과 농업이다.

경제는 소수백인인종주의자들과 외래독점자본에 얽매여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원료공급기지로서 채광공업 일면에만 치우치고있다.

주요지하자원은 금, 백금, 금강석, 우라니움, 바나디움, 돌솜, 망간, 크롬, 석탄, 철광석, 동 등이다. 세계에서 금을 제일 많이 캐는 나라이며 금과 백금 생산량은 자본주의세계총생산량의 50%, 금강석은 60~70%를 차지한다. 1972년에 금은 910톤 생산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자원들은 제국주의자들의 략탈대상으로 되고있다.

1977년 현재 남아프리카에는 1천 600여개의 외국회사들이 활동하고있다. 그 가운데서 미제독점회사는 490여개, 프랑스회사는 85개, 서독독점회사는 300개, 화란회사는 57개, 벨지끄회사는 44개이다.

1976년 한해동안 남아프리카에 대한 미제의 직접투자액은 16억 6천 500만딸라이며 미국은행들이 제공한 차관은 8억 5천 300만딸라였다. 또한 서독독점회사들은 35억마르크에 달하는 자본을 들이밀고있다.

1977년에 남아프리카에 대한 《구라파공동시장》성원국들의 총투자액은 114억딸라에 달하며 이것은 모든 외국투자총액의 60%에 해당한다.

외래독점자본의 침투로 1976년 첫 10개월동안에만도 파산된 기업체수는 약 940개나 되며 1977년에 실업자수는 200여만명에 이르렀다.

1977년 1월부터 1천여가지의 물건값이 35% 비싸졌다.

농업은 국민소득의 6분의 1정도를 차지한다. 농업에서는 축산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돼지 등이다.

부침땅은 전 령토의 8%밖에 안되며 그중 90%는 소수인종주의자들과 외래독점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주요농작물은 강냉이, 밀, 목화, 담배, 사탕수수 등이다.

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해상운수가 기본이다.

주요수출품은 금, 금강석을 비롯한 광물자원들과 식료품, 양털, 금속제품 등이며 기계류와 운수수단(수입의 45%이상) 등을 수입한다.

인종차별로 하여 대학에서 아프리카인학생들의 비률은 0.05%, 중학교에서는 1% 미만이다.

의료시설도 이들에게는 차례지지 않으며 농촌의 흑인거주지에서는 병원이라는 말조차 모르는 형편이며 수많은 흑인들이 영양실조, 전염병 등으로 무리로 죽고있다.

아프리카인들은 지방종교, 백인들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남아프리카통신

신문 이꿀루레끄(공산당기관지), 트란스버러(정부계), 아거스, 케이프 타임스, 란드 데일리 메일

방송 남아프리카방송

레 소 도

(레소토왕국)

넓이 3만 355km²

인구 113만명(1976년)

수도 마세루 (주민 23만 7,800명)

자연 및 주민

레소토는 아프리카대륙의 제일 남쪽, 남아프리카에 둘러싸여있는 작은 나라이다. 령토의 대부분이 높은 벌로 되여있다.

겨울에는 날씨가 몹시 메마르며 한해평균비내리는량은 750~1,000mm이다.

주민의 95.5%가 아프리카사람들인데 그중 바수토족이 80%, 줄루족이 20%이다.

공용어로 영어를 쓰며 반투어와 줄루어 도쓴다.

정 치

1868년에 영국의 《보호령》으로 된 레소토는 1966년 5월에 《영련방》안에서 독립을 선포하고 같은 해 10월 4일에는 바수톨랜드로 불리여오던 나라이름을 레소토왕국으로 고쳤다.

1965년 4월 선거에서 민족당이 승리하여 당수인 죠나탄이 정권을 잡았다.

1970년 1월 27일 독립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국회선거에서 대회당이 승리하였다. 이렇게 되자 1월 30일 군사정변을 일으킨 총리 죠나탄은 선거를 《무효》로 하고 헌법을 정지시켰다. 그는 또한 야당지도자들을 잡아가두고 내각을 개조하였다.

1977년 4월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의 레소토국경침범행위를 규탄하여 발표한 성명에서 레소토정부는 남아프리카인종주의군대가 레소토의 국경을 침범하고 자주권을 심히 유린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이해 5월 유엔안보리사회는 결의를 채택하여 레소토와의 국경을 봉쇄한 남아프리카인종주의정권을 규탄하였다.

유엔안보리사회에서 연설한 레소토와 아프리카나라 대표들은 아프리카원주민들에 대한 식민지적

억압을 계속하는것을 합법화하려는 남아프리카인종주의정권의 시도들을 규탄하고 인종주의와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남부아프리카인민들의 투쟁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은 22명의 추장들과 왕이 임명하는 11명의 의원들로 구성, 하원(국민총회)은 5년기한으로 선거되는 60명의 의원으로 구성, 1970년 1월에 국회선거 진행

국왕 헌법에 의하여 국가수반, 국회와 함께 립법권을 행사, 국왕 모쉐슈 2세

정부 총리 레아부아 죠나탄(1965년 4월—), 외교부장 제이.아르.엘.코로소코아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62년 5월 5일에 창건, 현재 비법화, 총비서 케나, **민족당**(집권당), **대회당**, **마레마톨로우자유당**, **로조대회**

경제, 사회문화

뒤떨어진 농업국가로서 경제의 기본은 양털생산을 위주로 하는 목축업이다.

주요집짐승은 양, 염소, 소 등이다.

1975년에 161만마리의 염소, 55만마리의 소가 있었다.

주요농작물은 강냉이, 수수, 밀 등이다. 식량은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1975년에 10만톤의 강냉이,5만 1천톤의 밀을 생산하였다.

주요지하자원은 철광석, 돌솜, 석탄, 금강석 등이나 약간의 금강석채취를 제외하고는 개발되지 못하고있으며 가공공업도 없는 형편이다.

때문에 해마다 20여만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남아프리카의 광산과 농장들에 품팔려가고 있다.

교통은 매우 불편하며 남아프리카와 수도 마세루를 련결하는 철길이 있을뿐이다.

수입초과로 대외무역은 계속 적자를 내고있으며 국가예산에서도 수입보다 지출이 2배나 된다. 1인당 국민소득은 90딸라에 불과하다.

주민의 75%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레소토 타임스, 느케투(민족당기관지), 모에레트시오아 바소토, 모할라바니

방송 레소토방송

말 가 슈

(말가슈민주주의공화국)

넓이 59만 6,000km²

인구 827만명(1976년)

수도 안따나나리부(주민 37만명)

자연 및 주민

말가슈는 아프리카대륙의 동남쪽 약 300키로메터의 모잠비끄해협을 사이에 두고 인도양에 있는 세계에서 네번째로 큰 말가슈섬과 그 주변의 자그마한 섬들로 이루어져있다.

기후는 열대권에 속해있으나 산이 많고 바다의 영향을 받아 무덥지 않다. 여름(1월)의 최고기온은 36°C이다. 북동지방은 폭풍우가 휘몰아치나 서남부에서는 한해에 300mm의 비가 온다.

주민의 99%가 말가슈사람이며 기타 중국사람, 인도사람, 희랍사람들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말가슈어와 프랑스어이다.

정 치

말가슈는 1896년 8월에 프랑스식민지로, 1958년 10월 14일에 《프랑스공동체》안의 《자치공화국》으로 되였으며 1960년 6월 26일 《프랑스공동체》안에서 독립하였다.

1975년 2월 5일 이전 내무부장이던 리챠드 라찌만드라바가 공화국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으로 되였으나 2월 11일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에 의해 암살되였다.

이해 6월 15일 군부와 나라의 6개주 군인주지사들의 합동회의에서 이전 외교부장이던 디디에 라찌라까를 국가 및 정부 수반으로 임명하였다.

12월 30일에는 말가슈민주주의공화국이 선포되고 사회주의혁명헌장과 새 헌법이 채택되였으며 디디에 라찌라까가 대통령으로 선거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말가슈 독립 17돐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보내신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라의 독립후 특히는 당신이 집권한 때로부터 말가슈혁명과 말가슈인민의 생활에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말가슈인민은 각하의 옳바른 령도밑에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힘차게 전진하고있으며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습니다.》

말가슈정부는 사회주의사회건설로선을 대내정책으로 규정하고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진보적조치들을 취하고있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사회주의적경제건설에 힘쓰고있다.

1977년 1월 10일 정부는 사회주의기업관리헌장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말가슈에서 자본주의적 및 봉건적 생산관계로부터 사회주의적생산관계에로의 이행을 예견하고있으며 생산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관리문제가 지적되여있다. 또한 12월에는 말가슈경제의 계획적발전을 법적으로 공고히하기 위한 사회주의적계획을 세울데 대한 법을 승인

하였다.

정부는 협동화운동도 힘있게 내밀고있다.

이해 6월에 정부는 협동화운동을 다그칠 말가슈 협동조합운동헌장과 사회주의농업협동조합규약을 승인하였으며 7월에는 사회주의적협동화운동에 관한 헌장을 발표하였다. 이 헌장에는 생산 및 소비 협동조합들을 창설하며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 보수를 줄것이 밝혀져있다.

1977년 7월에 최고혁명리사회의 결정으로 농업, 광업, 가공공업부문에 손을 뻗친 다섯개의 큰 외국 독점체회사들이 국유화되였다.

1977년에 이 나라에서는 새로운 국가기구를 조직했다. 이해 6월 30일 민족인민회의선거가 진행되였으며 선거결과 혁명수호민족전선이 137개의 의석을 전부 차지했다.

7월 31일 대통령은 새정부를 구성하고 최고혁명리사회 새 성원들을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3월 20일에 있은 지방주권기관선거에서는 대통령이 이끄는 말가슈혁명전위가 유권자의 약 90%의 찬성을 받아 승리함으로써 지방주권기관 의석의 89.3%를 차지하였다.

1977년 7월 28일 전국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대통령은 제국주의와 반동세력의 책동에도 불구하고 말가슈인민이 사회주의사회를 건설하려는 각오로 가득차있다고 말하였다. 대외정책에 대하여 말하면서 대통령은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를 부단히 공고발전시키며 민족해방운동들에 지지를 주는 정책을 실시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최고혁명리사회 헌법조항에 따라 《말가슈사회주의혁명의 수호자》로 된다. 국가의 정책을 작성하고 조정하며 그 구현을 통제하는데서 대통령에게 방조를 주는 자문기관, 1977년 7월 31일 혁명수호민족전선 지도자들로 새로 구성

대통령 1975년 12월 30일 선거, 대통령 디디에 라찌라까(1976년 1월—)

민족인민회의 립법기관, 137명의 의원으로 구성 그중 혁명전위가 112석차지, 임기 5년, 1977년 6월 30일 선거

정부 1977년 7월 31일 구성, 총리 데지레 라꼬또아리자오나, 외교부장 레미크리스티안 러샤르

정당, 사회단체; **혁명전위** 1976년 4월에 조직, 총비서 디디에 라찌라까, **공산당** 제1비서 앙드리 앙자 러네앙쎌므, **독립대회당** 1958년에 독립을 요구하여 투쟁한 5개의 진보적정당을 망라하여 창건 **사회주의동맹, 사회민주당, 민족당, 통일당, 근로자로조련맹, 민주청년련맹, 혁명수호민족전선**(5개의 좌익정당 및 단체들이 망라)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을 이루고있는것은 농업이며 주민의 90%가 농업부문에서 일하고있다.

부침땅은 전령토의 5%에 해당하는 300만정보이다.

주요농작물은 벼와 그밖에 강냉이, 커피, 와닐라(향료), 나무감자, 바나나, 사탕수수, 담배, 사이잘삼, 땅콩, 목화 등이다. 와닐라생산은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유리한 자연조건을 리용하여 집짐승도 많이 기른다.

1977년에 정부는 농업을 발전시키고 주민들에 대한 식료품공급사업을 개선하는것을 기본활동방향의 하나로 내세우고 알곡재배 특히 벼재배운동을 전국적으로 벌릴데 대하여 호소하였다.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정부는 1976년까지 3년동안에 3만 1천헥타르의 새땅을 얻어냈으며 부침땅의 76%에 알곡작물을 심고있다. 1975년에 이 나라의 알곡생산은 197만톤에 달하였다. 벼재배면적도 늘어나 1975년에 106만 5천 600헥타르에 이르렀다. 주요농작물의 하나인 커피는 1976—1977농업년도에 전해보다 6천톤이 더 많은 7만 8천톤 생산되였다.

공업에서 주되는 부문은 채굴공업과 농산물가공공업이다. 주요지하자원은 흑연, 돌비늘, 린회석, 금, 우라니움, 크롬 등이다. 흑연채굴량은 세계적으로 손꼽힌다. 1975년에 흑연은 1만 7천 700톤, 크롬광은 17만 5천톤 생산되였다.

정부는 경제의 말가슈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1976년 6월 모든 외국석유회사를 장악하고 자체의 힘으로 석유공업을 운영하고있다. 또한 1977년 1월에 국영산업, 국영농업, 국영상업 은행들을 각각 창설하였다. 정부는 자체의 원료를 리용하여 생산할수 있는 공장들을 건설하며 인민생활에 필요한 가공공업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넣고있다.

말가슈에서는 교통운수도 발전하고있다. 독립당시 1천키로메터밖에 안되던 도로는 독립이후 8천 700키로메터로 늘어났다.

이 나라의 철길의 총연장길이는 864키로메터이다.

말가슈대통령 디디에 라찌라까는 1977년 7월 28일 새로 선거된 민족인민회의에서 지난 2년간의 성과를 개괄하면서 그 성과는 국유화, 은행들의 창설, 이전 외래제국주의자들이 가지고있던 2만 7천 800헥타르의 토지를 되찾게 한 토지개혁, 집체적으로 관리운영되는 사회주의적기업체에로의 국가독점체들의 이행 등이라고 지적하였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와닐라, 사이잘삼, 사탕 등을 비롯한 농작물이며 이것은 수출총액의 70%를 차지한다. 이밖에 광물류, 가죽, 고기도 수출된다.

주요수입품은 기계제품, 섬유 및 섬유제품, 화학제품, 석유제품, 식료품 등이다.

말가슈정부는 교육발전을 정부활동의 중요방침으로 내세우고있다. 1976년 10월 1일부터 전반적 초등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다.

말가슈는 아프리카대륙에서 보건사업이 비교적 발전한 나라로서 10여개의 병원과 400여개의 진료소를 가지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지방종교를 믿으며 기독교도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따라뜨라통신(국립통신사, 1977년 5월 9일 창설), 안따통신

신문 이뭉구 바우바우(정부기관지), 라 레뿌블리끄, 꾸리에 드 마다가스까르, 마뗑, 마다가스까라 마할레오테나, 헤이

방송 말가슈방송, 말가슈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11월 16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말가슈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 디디에 라찌라까각하가 1976년 6월 4일～11일까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높이 추대되신데 대하여 말가슈신문 《헤이》와 《마뗑》 1977년 12월 16일호를 비롯한 말가슈의 여러 신문들과 이 나라의 안따통신이 크게 보도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을 기념하여 1977년 4월 14일 말가슈따마따브청년회관건설자들의 모임이 진행되였으며 이에 앞서 4월 13일에는 말가슈종합대학 교직원학생들의 모임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모임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다.

이해 7월 16일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말가슈의 수도 안따나나리부에서 말가슈사회주의혁명헌장지지민주주의위원회와 이 나라의 여러 사회단체들의 주최로 군중집회가 진행되였다. 이에 앞서 7월 8일 조선의 통일을 위한 련대성집회도 진행되였다.

1977년에 우리 나라 농업대표단(10월), 은행대표단(10월), 평양예술단(8월) 등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해 10월에 말가슈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의 부모와 자녀들이, 6월에는 말가슈영화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6년 9월에 이 나라의 수도 안따나나리부에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과학토론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1977년 9월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말가슈민주주의공화국 정부대표단이 참가하였다.

까나리아

(에스빠냐식민지)

넓이 7,273Km²

인구 100만명

행정중심지 산따끄루스데떼네리페 (주민 13만 5,000명)

자연 및 주민

까나리아는 아프리카대륙의 서북쪽 마로끄의 서남부에서 115키로메터 떨어진 대서양에 있는 12개의 섬으로 이루어져있다. 대서양교통의 요충지이다.

기후는 따뜻하나 메마른 편이며 비교적 네계절이 구분된다.

주민의 대부분은 베르베르족에 속하는 까나리아족이고 그밖에 에스빠냐사람, 독일사람 등이 산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정 치

1516년에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된 까나리아는 에스빠냐총독이 실권을 틀어쥐고 통치하고있다.

1960년초에 까나리아자치운동이 조직되면서부터 민족적독립을 요구하는 까나리아인민들의 투쟁은 날을 따라 발전하고있다.

까나리아자결독립운동의 지도밑에 무장투쟁에 들어선 날인 1976년 11월 1일부터 까나리아인민들은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의 경제시설들과 군수물자들을 폭파하는 수십차례의 사건을 일으켰다.

1977년 3월 14일과 15일에는 일부 도시들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인민들의 봉기가 일어났다.

《독립과 인민의 자유, 사회주의》의 구호에 따라 이 나라 인민들은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과 까나리아에 기지를 두고있는 미제국주의자들을 반대하여 도처에서 투쟁을 계속하고있다.

1971년 4월 26일 까나리아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정당, 사회단체; 까나리아자결독립운동 1960년에 조직된 까나리아자치운동에 기초하여 1964년 10월 22일에 결성된 투쟁조직, 알제리에 대표부를 두고있다. 총비서 안또니오 꾸빌로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으로서 주민의 대부분이 농

사한다. 바다가주민들은 물고기잡이도 한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바나나, 옥파, 사탕수수, 포도, 감자, 귤 등이다.

집짐승으로는 소, 염소, 양, 락타를 기른다.

공업부문에는 원유정제, 세멘트, 화학, 선박수리, 식료, 수산물가공 공장 등이 있다.

미제의 석유독점회사는 이 섬에 석유탕크를 건설해놓고 많은 리윤을 짜내고있다.

주요수출품은 바나나, 물고기통졸임, 남새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연료와 천 등이다.

쎈트 헬레나

(영국식민지)

넓이 122Km²
인구 4,952명(1974년)
행정중심지 제임스타운 (주민 1,700명)

자연 및 주민

쎈트 헬레나는 아프리카대륙의 서남부 대서양에 있는 작은 섬이다. 열대권에 속하나 산이 많아 기후는 서늘하다.

주민은 구라파사람(영국, 화란, 뽀르뚜갈 사람의 후손들)이 대부분이며 아프리카사람, 중국사람 등도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영어를 쓴다.

정 치

1673년 영국의 식민지로 된 이 나라는 1956년 6월 1일부터 《내부자치제》를 실시하고있으며 영국총독이 형식상 《내부자치제》에 기초하여 수립된 《립법회의》와 《행정평의회》를 통하여 통치하고있다. 《립법회의》와 《행정평의회》 의장직은 총독이 겸하고있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제2차세계대전후 이 섬에 침략적군사기지를 설치하고 해군함대의 기지로 리용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목축업 그리고 이 섬에 드나드는 짐배들의 봉사부문에서 일한다.

농업의 기본은 아마재배이며 기타 남새, 과일 등도 심는다.

공업부문에는 몇개의 아마가공공장과 레스공장이 있다.

아마를 수출하고 식량과 공업제품을 수입한다. 무역은 영국이 독점하고있다.

소학교 8개와 중학교 4개가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뉴스 레뷰(주간지)
방송 쎈트 헬레나방송

산토메 프린시페

(산토메 프린시페민주주의공화국)

넓이 964Km² (산토메섬 836Km²)
인구 8만명(1976년)
수도 산토메 (주민 8,000명)

자연 및 주민

산토메 프린시페는 아프리카 중서부의 기네만에 있는 산토메와 프린시페의 두개섬으로 이루어졌다. 비내리는 량이 많고 따뜻하다.

주민의 대부분이 반투족(90%), 메티스족(8%)이며 구라파, 인도 사람들도 있다.

공용어는 뽀르뚜갈어이다.

정 치

1522년에 뽀르뚜갈의 식민지로, 1951년에는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의 《해외주》로 된 산토메 프린시페는 1975년 7월 12일에 독립하였다.

독립후 산토메 프린시페정부는 식민지시기의 반동군대와 경찰을 해산하고 새로 민족군대를 조직하였으며 토지개혁 등 일련의 사회경제적개혁들을 실시하였다.

1977년 7월에 이 나라에서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부추김을 받는 국내반동세력의 반정부음모를 적발분쇄하였다.

이 나라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한 전국방송연설에서 반혁명분자들은 나라를 진보적인 사회경제적개조의 길로부터 떼여낼 목적밑에 합법적정부를 반대하는 음모를 꾸몄었다고 폭로하였다. 그는 또한 놈들이 사회주의나라들과의 외교관계를 파탄시키고 나라를 분렬하며 프린시페섬에 군주정권을 수립하려고 계획하였다고 까밝혔다.

산토메 프린시페정부는 대외적으로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온갖 형태의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여 싸우는 여러 나라 인민들과 남부아프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에 지지를 표시하고있다.

1977년에 이 나라 대통령이 독일민주주의공화국(4월)을, 총리는 8월에 중국과 앙골라를 방문하였다.

대통령 마누엘 삔또 다 꼬스따 (1975년 7월—)
정부 1977년 7월 정부개조, 총리 미겔 뜨로보아다, 외교부장 레오넬 마리오 달바

정당, 사회단체; 산토메 프린시페해방운동 총비서 마누엘 삔또 다 꼬스따, **민족인민행동**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요농작물은 코코아, 바나나, 커피, 야자, 벼, 나무감자 등인데 1975년에 코코아 5천 865톤, 바나나 2천 181톤, 야자기름 3천 420톤 생산하였다.

정부의 조치에 따라 농업부문에서 토지개혁을 밀고나간 결과 이 나라 부침땅의 80%를 틀어쥐고있던 식민주의자들의 20여개의 큰 농장들이 이미 국유화되였으며 여러곳에 농업협동조합들이 조직운영되고있다.

한편 코코아, 커피, 바나나 등 몇가지 수출작물만을 심었으나 독립후 벼를 비롯한 여러가지 알곡작물을 심고있다.

농업과 함께 목축업과 수산업도 발전하고있다.

집짐승으로는 말, 노새, 당나귀, 염소 등이 있다.

해마다 물고기생산량은 770톤정도이다.

공업부문에는 맥주공장, 비누공장, 농산물가공공장, 제분소 등 경공업기업소들이 있다.

주요수출품은 코코아(수출총액의 70%), 커피, 야자기름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과 섬유제품 등이다.

독립후 민족교육발전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진 결과 많은 소학교와 중학교들이 새로 건설되였으며 글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줄었다.

특히 초등의무교육과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으며 교육분야에서 교원들을 산토메 프린시페사람들로 꾸리는 사업과 함께 초급농업학교를 세워 농업일군들을 길러내기 위한 대책도 세우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레볼류싸우(정부기관지), 불레띤 오피씨알, 알보스 데 산토메

방송 산토메 프린시페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5년 8월 9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산토메 프린시페방송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4월 15일 그이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략력을 소개하는 특별방송을 조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1975년 12월에 이 나라 대통령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7년에 산토메 프린시페민주주의공화국 정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8월)과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 나라 정부대표단(9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 나라 정부총리는 산토메비행장도착연설에서 우리 나라 방문결과에 언급하면서 대표단의 조선방문이 두 나라 사이의 협조 특히 농업, 보건 및 문화 교류분야에서의 협조를 더한층 강화하는데 이바지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세 이 쉘

(세이쉘공화국)

넓이 404Km²
인구 약 6만명(1976년)
수도 빅토리아 (주민 1만 4,500명)

자연 및 주민

세이쉘공화국은 아프리카대륙의 동쪽 인도양서남부에 있는 92개 섬으로 이루어져있다.

그 가운데서 마에섬이 제일 크며 주민의 80%가 여기에서 살고있다.

수도 빅토리아시도 마에섬에 있으며 이 제도가운데서 가장 큰 도시로, 항구로, 국제해상운수의 중요한 정박항구로, 중계장소로 되고있다.

세이쉘은 경치가 아름다운곳으로 알려져있다.

적도가까이에 위치하고있어 날씨는 몹시 무덥고 비가 많이 내린다.

한해평균기온은 약 26°C이며 비내리는량은 2천 400mm이다.

주민들은 주로 반투족, 크레올, 인도사람, 파키스탄사람 등의 후손들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나 일반주민은 프랑스어를 많이 쓴다.

정 치

16세기에 뽀르뚜갈사람들이 세이쉘제도에 들어왔다.

1742년부터 세이쉘에 대한 침략을 시작한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1756년에 이 나라를 강점하고 수십년간 이 나라에서 막대한 자원을 략탈해갔다. 1794년에는 영국식민주의자들이 이 나라를 강점하였으며 1903년에 자기들의 직할식민지로 만들었다.

1970년 3월에 이 나라에서는 《내부자치제》가 수립되였다.

세이쉘인민은 식민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오랜 기간의 줄기찬 투쟁을 통하여 1976년 6월 28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민주당과 인민통일당의 련립정부가 구성되였으며 제임스 아르. 맨참이 대통령으로 되였다.

1977년 6월 5일 련립정부의 총리였던 알버트 레

네가 제임스 아르.맨참정권을 뒤집어엎고 인민혁명정부를 수립하였으며 새 대통령으로 되였다.

6월혁명이 승리한 다음 세이쉘인민통일당과 정부는 나라의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농업과 어업을 발전시키며 사람들의 일자리와 살림집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어린이들에게 공부할수 있는 기회를 주며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 진보적인 조치들을 취하고있으며 사회주의를 지향하여나가고있다.

대통령은 방송연설에서 나라의 지도부는 민족적독립과 경제적자립을 공고히 하며 아프리카독립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로선을 취할것이라고 하였으며 대내외반동의 침해로부터 공화국을 보위하기 위하여 인민안전군을 창설한다는것을 선포하였다.

세이쉘인민은 디에고 가르시아섬에서 미제의 군사기지를 철폐하며 인도양을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세이쉘정부는 대외관계에서 쁠럭불가담정책을 견지하고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인종주의를 반대하고있으며 전체 아프리카의 완전한 해방과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7년 1월에 세이쉘은 오지리, 서독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민족회의 1977년 6월혁명후 해산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무력총사령관이다. 대통령 프란스 알버트 레네(1977년 6월 5일—)

정부 1977년 6월 6일 7명으로 구성, 총리는 대통령이 겸한다. 외교및관광부장 게이 씨논

정당, 사회단체; 인민통일당 1964년에 창건, 위원장 프란스 알버트 레네, **민주당, 세이쉘당, 로동자총동맹**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과 수산업을 한다.

주요농작물은 코프라, 종려, 향료, 계피 등이다. 차, 커피, 알곡 농사를 짓고있으나 식량은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코코아와 종려는 전체 부침땅의 58%를 차지한다. 코프라의 한해평균생산량은 6천톤, 계피기름은 2만 5천톤정도이다.

이 나라에는 200정보에 달하는 차재배원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해마다 35톤의 차를 생산하고있다.

독립후 세이쉘에서는 경제에서 식민주의후과를 가시고 나라의 자연지리적특성에 맞게 농업을 다각적으로 발전시키며 나라의 자연부원을 적극 탐구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있다.

1977년부터 제1차5개년계획에 들어섰으며 이 기간에 농업, 어업, 관광업을 발전시키며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을 집중하고있다.

정부는 시험농장들을 설치하고 선진영농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벌리고있다.

종축이 개량되고 새로운 집짐승기르기방법이 도입되고있다. 이리하여 소, 돼지 등 집짐승마리수가 늘어나고있다.

1977년현재 이 나라에는 소 2천 300마리, 돼지 1만마리이상, 닭 12만 8천마리이상이 있다.

이 나라의 주변바다에는 여러가지 물고기들이 많다.

정부는 뒤떨어진 수산업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수산자원을 개발하고 선진어로방법을 받아들이며 수산협동조합들을 뭇고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른 나라의 고기배들이 세이쉘의 수산자원을 략탈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12마일령해와 200마일경제수역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여 나라의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하고있다.

이 나라는 1976년현재 400여척의 고기배를 가지고있다.

공업으로는 약간의 나무배건조업, 농산물, 수산물 가공공업 등이 있다.

세이쉘정부는 나라의 경제토대를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국영항공및자동차회사, 민족개발은행, 전국농업협회 등을 창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나라는 관광업이 어느 정도 발전하였다.

1975년의 외국관광객들의 수는 3만 3천명이였으나 1980년에는 7만 4천명으로 늘일것을 계획하고있다. 이 나라는 관광업으로 해마다 1천 750만딸라의 외화를 벌어들이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코프라, 계피, 향료, 커피, 차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 사탕, 천 등이다.

독립후 이 나라에서는 새로운 교육체계가 마련되였으며 1977년에 국립학교들이 일떠섰다.

1977년현재 이 나라에는 35개의 초등학교와 15개의 중등학교, 5개의 종합기술 및 전문 학교, 한개의 교원대학이 있다. 여기에서는 1만 4천 40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는데 이것은 학령아동의 95%에 맞먹는 수자이다. 또한 교원의 97%가 이미 세이쉘사람으로 꾸려졌다.

주민의 90%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신문 피플(인민통일당기관지), 세이쉘위클리(민주당기관지)

방송 세이쉘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6년 8월 24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세이쉘공화국 지도자들과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고있다.

세이쉘은 또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동정과 지지를 표시하고있다.

1977년 9월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세이쉘공화국 정부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모 리 셔 스

(모리셔스공화국)

넓이 2,045Km²
인구 87만명(1976년)
수도 포트루이스 (주민 15만명)

자연 및 주민

모리셔스는 아프리카대륙 동남쪽, 인도양에 있는 말가슈섬으로부터 동쪽으로 800키로메터 떨어져있는 작은 불산섬의 나라이다.

때때로 열대태풍이 일어난다. 한해평균기온은 23°C, 한해비내리는량은 1,260mm이다.

주민은 인도사람과 파키스탄사람이 67%, 혼혈인과 구라파사람이 30%, 중국사람이 3%를 차지한다.

공용어는 영어이며 프랑스어도 많이 쓴다.

정 치

모리셔스는 16세기초에 뽀르뚜갈식민주의자들, 1598년에는 화란식민주의자들에게 각각 강점당하였다. 그후 이 나라는 1715년에 프랑스의 식민지로, 1810년부터 160년간은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다.

이 나라에서는 1967년 8월 12일에 내부자치제가 실시되였으며 1968년 3월 12일에는 영련방안에서 독립하였다.

독립후 정부는 나라의 경제적락후성과 빈궁, 문맹을 청산하는것을 기본과업으로 하는 경제발전 10개년계획을 수행하고있다.

모리셔스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 1976년 12월 20일 처음으로 진행한 총선거에서 이전에는 국민회의에 참가하지 못하던 모리셔스투사운동이 승리하였다.

그런데 레이버당과 회교행동위원회로 구성된 련립세력(독립당)은 사회민주당과의 새 련립정부를 구성하였다.

1977년 5월 국민회의는 나라의 령해를 12마일로 확장하며 200마일 경제수역을 설정할데 대한 제안을 승인하였다.

모리셔스정부는 대외적으로 쁠럭불가담원칙과 나라의 자주권, 령토완정, 내정불간섭원칙을 견지하고있다.

1977년 11월에 모리셔스총리가 인도를 방문하였다.

모리셔스는 1977년 6월에 새 세이쉘정부를 승인하였으며 이해 10월에는 알바니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국민회의 일원제의 최고립법기관으로서 총의석은 70석이다. 1976년 12월 20일에 진행된 선거결과 투사운동이 34석, 독립당(레이버당과 회교행동위원회로 구성된 련립세력)이 28석, 사회민주당이 8석을 차지

정부 1976년 12월 30일 구성, 총리 시우사구르 람굴람(1967년—), 외교부장 하롤드 에드워드 월터

정당, 사회단체; **레이버당** 1936년에 창건, (련립집권당), **사회민주당** (련립집권당), **회교행동위원회** (련립집권당), **투사운동** 이 당은 정권을 인민의 손에 넘겨 착취없는 《정의로운 무계급사회를 건설》한다는 기본투쟁강령을 가지고있다. 1976년 12월 국민회의 선거에서 제1당으로 되였으나 과반수는 차지하지 못함, 총비서 뽈 베랑제, **인민진보당**, **투사운동사회주의당** 투사운동에서 갈라져나온 당, **민주동맹**, **공화중앙당**, **로동련맹**, **로조련맹**, **로동대회**,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사탕수수재배를 위주로 하는 농업이다. 부침땅의 94%가 사탕수수밭이다.

사탕생산은 국민총생산액에서 약 30%이상을 차지한다.

사탕수수 다음가는 농작물은 차인데 생산된 차의 75%가 수출되고있다. 이밖에 담배, 삼, 향료, 감자, 생강, 바나나와 가지, 둥글파를 비롯한 남새 등이 재배된다. 1975년에 431만 6천톤의 사탕수수를 거두어들였으며 1만 5천 700여톤의 차, 686톤의 담배를 생산하였다. 식량은 주민수요의 10분의 1도 충족시키지 못한다.

경제발전 10개년계획이 수행되고있는 이 나라에서는 공업지대들이 새로 창설되였다.

사탕공업은 모리셔스의 가장 중요한 공업부문의 하나로서 1977년현재 22개의 사탕공장이 있다. 1975년에 46만 8천 256톤의 사탕이 생산되였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며 자동차길은 1천 323키로메터이다.

주요수출품은 사탕(수출총액의 90%), 차, 당밀, 코프라, 마대, 가죽 등이다.

어린이들의 90%가 공부하고있다.

이 나라에는 1975년에 종합대학 한개와 초등 및 중등 학교 350여개가 있었으며 종합대학에서는 1천 100여명이 공부하고 있었다. 고등교육기관들에서는 자체로 양성한 모리셔스교원들이 교육사업을 맡아보고있다.

구라파혈통의 백인들은 기독교, 인도사람은 힌

두교, 나머지는 회교, 불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액숀, 아드방스, 로브, 락시옹, 더 네이숀, 썬데이 뉴스

방송 모리셔스방송, 모리셔스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10월 4일 우리 나라와 령사관계를, 1973년 3월 16일에는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8년 9월 9일 모리셔스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으며 1971년 1월에 《조선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모리셔스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6년 11월 15일에는 조선통일지지모리셔스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이 나라에는 모리셔스조선친선협회 성원들의 《김일성동지로작연구소조》가 있으며 로므니아에서 공부하는 모리셔스학생들이 《김일성동지의 로작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1971년에 모리셔스에서 《김일성동지도서관》이 개관되였다. 이 도서관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이 수많이 전시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을 기념하는 집회가 조선통일지지모리셔스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위원회의 주최로 1977년 4월 8일 모리셔스의 수도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집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축전이 채택되였다.

이날 집회끝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5돐을 기념하는 사진전시회가 있었다.

이에 앞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모리셔스신문 《더 네이숀》 4월 9일호는 기념론설을 실었다.

이해 9월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모리셔스 포트 루이스고등중학교 교장이 참가하였다.

레 유 니 옹

(프랑스식민지)

넓이 2,510Km²
인구 47만 5,500명(1974년)
행정중심지 쌍드니 (주민 8만 9,000명)

자연 및 주민

레유니옹은 말가슈의 동쪽 인도양의 마스카렌제도에 있는 원추형의 섬이다.

1977년 4월 6일 레유니옹섬 삐똔데네쥬산에서 불산이 폭발하였다.

열대성기후이며 년평균기온은 20°C이다.

주민의 4분의 3이 구라파사람들이며 그밖에 인도, 말가슈 사람들도 있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정 치

1643년에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793년부터 레유니옹(이전에는 부르봉이라고 부름)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1810년부터 영국의 식민지로, 1815년에 다시 프랑스의 식민지로, 1946년부터는 프랑스의 《해외현》으로 되였다.

레유니옹에는 원자잠수함들과도 련계를 취할수 있는 프랑스—미국의 출력이 높은 8개의 《오메가》해상탐지기중에서 그 하나가 이 나라에 설치되여있으며 프랑스군의 인도양 서남부지역참모부도 여기에 있다.

이 나라 인민들은 레유니옹공산당의 지도밑에 프랑스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고 나라의 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의회 해외령의회로서 1971년 3월 선거에 의하여 36명으로 구성, 실권은 없다(프랑스정부가 임명하는 지사에 의하여 통치되며 지사는 최고통치자이다.) 프랑스의 국민의회에서 3석을, 참의원에서 2석을 차지한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프랑스공산당의 지부로 있다가 1959년 5월부터 독립적인 정당으로 되였다. 의회에서 2석을 차지, 1976년 8월 제4차당대회 진행, 총비서 뽈 베르제스, **로동총련맹**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절반이상이 농사를 하며 사탕생산이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주요농작물은 사탕수수, 나무감자, 커피, 담배, 벼, 감자, 콩, 땅콩 등이다.

사탕공업을 제외한 공업은 거의 없다.

사탕은 해마다 22만 5천~30만톤 생산된다.

프랑스독점체들이 경제전반을 틀어쥐고있다.

운수는 철도와 자동차 운수가 기본이다.

사탕과 술이 수출총액의 90%를 차지한다.

주민들의 생활수준은 매우 낮다. 글모르는 사람이 60%나 된다. 사탕수수가을이 끝나면 년중 7~8개월동안은 계절적인 실업자수가 급격히 늘어난다.

인구의 20%가 결핵환자이며 평균수명이 길지못하다.

인구의 85%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떼무아나쥐(공산당기관지), 쥬르날 드 질드 라 레유니옹, 라 데모끄라씨, 레 쿠

리에 듀 뻬뿔
방송 레유니옹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9월 레유니옹공산당 총비서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7년 9월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레유니옹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이며 레유니옹로동총련맹 총서기가 대표로 참가하였다.

꼬 모 르

(꼬모르비종교사회민주주의공화국)

넓이 2,171Km²
인구 30만명 (1975년)
수도 모로니 (주민 1만 6,300명)

자연 및 주민

꼬모르는 아프리카대륙의 동남쪽기슭과 말가슈사이의 모잠비끄해협북부에 위치하고있다. 이 나라는 4개의 주요섬들인 그란드 꼬모르, 안쥬앙, 모헬리, 마요뜨와 기타 작은 섬들로 구성되여있다. 습도가 높고 한해평균기온은 23°C이다.

1977년 4월 5일 꼬모르제도의 가장 큰 꼬모르섬의 까르따라산에서 불산이 폭발하였다.

주민은 꼬모르족과 말가슈족, 인도족 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정 치

1841년부터 꼬모르를 침략하기 시작한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은 1912년에 이 나라를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었다.

인민들의 투쟁에 못이겨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은 1961년 12월 꼬모르에 《내부자치권》을 주었으나 프랑스고등판무관이 재정, 국방, 외교 등의 실권을 계속 틀어쥐고 이 섬나라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계속해왔다.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꼬모르인민의 투쟁이 강화되자 프랑스정부는 1972년 12월 이 나라에 형식상의 《자치정부》구성을 승인하였다.

꼬모르는 군사전략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놓여있으므로 미제와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은 이 나라에 많은 군사기지들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정황밑에서 꼬모르는 1975년 7월 6일 일방적으로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프랑스정부는 꼬모르령토의 한 부분인 마요뜨섬을 계속 강점하고 거기에 프랑스군대와 군함들을 유지하고있으며 이 섬을 꼬모르에서 떼여내려고 꾀함으로써 이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계속 짓밟고있다.

1976년 12월에 프랑스는 꼬모르와 아프리카인민들의 압력에 못이겨 마요뜨섬에 자치를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1977년 10월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꼬모르총리는 마요뜨섬에 대한 프랑스의 통치는 오늘 국제법의 가장 엄중한 유린이라고 말하였다.

이해 5월 꼬모르의 새 헌법에 따라 수도 모로니에서 국가리사회가 조직되였다.

이에 앞서 4월 29일 꼬모르전국인민회의가 새 기본법을 승인하였으며 꼬모르국가수반 알리 소일리흐가 공화국대통령으로 되였다.

꼬모르는 1977년 6월에 벌가리아, 체스꼬슬로벤스꼬, 뽈스까와, 11월에는 일본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전국인민회의 헌법을 작성하고 정부의 주요경제계획들을 심의한다.

대통령 국가수반이다. 대통령 알리 소일리흐 (1977년 4월 29일—)

국가리사회(정부) 총리 아브달라흐 모하메드 (1976년 1월—), 중앙외교위원회 위원장 므자와르 아브달라흐

정당, 사회단체; 민족해방운동 1963년에 창건, **사회주의당, 민주동맹, 인민민주회의**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 목축업, 림업에 종사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커피, 사이잘삼, 코코아, 야자 등이며 바나나, 사탕수수, 목화, 담배, 와닐라, 벼와 감자류도 심는다.

꼬모르는 향료의 원료인 와닐라생산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기 때문에《향기로운 섬》이라고 불리우고있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염소 등이다.

한해평균 물고기생산량은 3천톤정도이다.

공업으로는 와닐라가공공장이 있다.

주요수출품은 담배, 커피, 사탕, 코코아, 와닐라기름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회교를 믿는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5년 11월 13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6년 8월 8일 꼬모르의 수도 모로니에서 《조선통일지지꼬모르위원회》가 결성되였다.

라틴아메리카

꾸 바

(꾸바공화국)

넓이 11만 4,524km²
인구 950만명 (1977년)
수도 아바나 (주민 175만 5,360명, 1970년)

자연 및 주민

꾸바는 까리브해에 있는 서인도제도가운데서 제일 큰 섬인 꾸바섬과 그 두리에 있는 1천 600여개의 크고작은 섬들로 이루어져있다.

날씨가 사철 무더운 나라로서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는 가물철이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장마철이다.

이 나라는 많은 비가 내린다. 7월의 평균기온은 28°C, 1월의 평균기온은 21°C이다.

주민은 백인(72.8%), 혼혈인(14.5%)이 기본을 이루며 인디안은 적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정 치

꾸바인민은 무장투쟁을 벌려 1959년 1월 1일 바띠스따친미독재정권을 뒤집어엎고 혁명의 승리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77년 1월 1일 꾸바혁명승리 18돐에 즈음하여 피델 까스뜨로동지에게 보내신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용감하고 근면한 꾸바인민은 혁명승리후 당신을 수반으로 하는 꾸바공산당과 정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끊임없는 침략과 파괴암해 책동을 물리치고 혁명의 전취물을 지키며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혁명승리후 꾸바에서는 1959년 5월, 1963년 10월 두차례의 토지개혁과 1960년 8월 6일과 10월 25일 산업국유화가 실시되였다.

꾸바혁명정부는 1960년에 《제1아바나선언》, 1962년에 《제2아바나선언》을 발표하였다.

1961년 4월 삘라야 히론전투에서 위대한 승리를 쟁취한 꾸바인민은 1962년 10월 《까리브해위기》때에도 미제의 《해상봉쇄》를 반대하여 영웅적으로 투쟁함으로써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적존엄을 지켜냈다.

꾸바인민은 1975년 12월 꾸바공산당 제1차대회가 제시한 제1차5개년계획(1976—1980)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꾸바인민은 1977년을 《국가기구공고화의 해》로 정하고 새로 조직된 인민주권기관들을 튼튼히 하고 인민경제발전 제1차5개년계획의 두번째해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였다.

이러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인민주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기 위한 대책들이 취해졌다. 7월에 진행된 인민주권민족회의 제1기 제1차회의에서는 나라의 사법체제를 새로 조직하며 로동리사회를 내오는 등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공고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인민주권기관들을 강화하는 사업과 함께 사회단체들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였다. 공산주의청년동맹 제3차대회(3월 31일~4월 4일), 전국소농협회 제5차대회(5월), 제2차전국농업근로자직맹대회(8월), 혁명수호위원회 제1차대회 등이 있었다. 특히 전국소농협회 제5차대회는 소농경리들을 보다 높은 경리형태인 농업생산협동조합에 묶어세울 조치를 취하였다.

한편 이해 6월에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는 국내 및 국제정세에 대한 피델 까스뜨로의 보고를 듣고 찬동하였다. 또한 당내부생활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2월에 진행된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1978년도 사회경제발전계획초안과 1978년도 예산안을 토의찬동하였다. 또한 당대렬장성문제 등이 토의되였다.

12월에 진행된 인민주권민족회의 정기회의에서는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12월전원회의에서 토의된 문제를 심의하고 승인하였다. 또한 국가의 법에 관한 문제와 기타 일련의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꾸바는 1977년 2월에 꼬스따 리까와 령사 및 경제관계를 회복하였다. 4월에 말따, 12월에 보쯔와나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해에 모잠비끄대통령(10월)이 꾸바를 방문하였으며 꾸바공산당 제1비서이며 내각총리인 피델

까스뜨로가 3월에 리비아, 민주예멘,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모잠비끄, 앙골라, 알제리를, 4월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10월에 쟈메이카를 각각 방문하였다.

인민주권민족회의 최고주권기관이며 약 500명의 대의원들로 구성, 1976년 11월 2일 선거, 민족회의 휴회기간의 상설적인 최고주권기관은 민족회의가 선거한 국가리사회(성원 31명)이다.

국가리사회 위원장은 국가수반이다. 위원장 피델 까스뜨로 루쓰(1976년 12월 3일—)

정부(내각) 1976년 12월 3일 새 내각 구성, 총리 피델 까스뜨로 루쓰(1959년 2월 16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62년 3월 8일에 《7월 26일운동》, 인민사회당(공산당), 《3월 13일혁명지도부》를 통합하여 《통일혁명조직》을 창건하였다가 1963년초에 사회주의혁명통일당으로 고쳤다. 1965년 10월 2일 사회주의혁명통일당 중앙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당의 이름을 공산당으로 고쳤다. 1975년 12월 제1차당대회 진행, 제1비서 피델 까스뜨로 루쓰, **근로자로조중앙, 공산주의청년동맹, 녀성련맹, 전국소농협회, 혁명수호위원회**

경제, 사회문화

꾸바공산당 제1차대회와 전국소농협회 제5차대회가 제시한 과업에 따라 1977년에 꾸바에서는 소농경리를 협동조합에 묶어세우는 사업이 진행되였다.

1977년 7월에 씨에고 데 아빌라주에 첫 농업생산협동조합이 생겨난데 뒤이어 이해에 약 150개의 여러가지 형태의 새 농업협동조합이 무어졌다.

이 협동조합들은 국가로부터 뜨락또르와 보습, 기타 농기계들을 받았다.

농업에서 가장 주되는 작물은 사탕수수이다. 사탕수수씨붙임땅은 1975년현재 151만 4천헥타르였다. 제일 품이 많이드는 사탕수수가을 작업과 운반작업의 기계화수준은 25%였다. 1977년 새형의 수확기인 《까메빼—1》호는 10명의 기능로동자를 대신하였다.

사탕수수이외에 벼, 강냉이, 콩, 땅콩, 감자 등 알곡작물과 귤, 커피, 레몬, 코코아, 파이내플, 나무감자, 담배, 목화, 남새류 등 농작물이 재배되고있다.

이해에 농작물의 안전한 수확을 보장하기 위하여 까마구에이주에서는 1억 6천 400만립방메터의 물을 잡아둘수 있는 저수지를 건설하였다.

주요집짐승은 소, 닭, 돼지이며 소는 1972년에 730만 2천여마리였다. 새 5개년계획기간(1976—1980)에 14개의 닭고기가공공장과 닭먹이공장을 건설하기로 하였다.

공업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사탕공업이다. 사탕공업은 공업총생산액의 5분의 1을 담당하며 사탕은 외화수입총액의 80%이상을 차지한다. 1천만톤 생산능력을 가진 150여개의 사탕공장들이 있다. 사탕공장들을 현대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1976년에 1억 1천만뻬소의 자금을 돌렸다.

그밖에 채취, 전력, 야금, 세멘트, 화학, 원유가공을 비롯한 기간공업부문과 축산물가공, 농산물가공, 담배가공과 기타 일용품생산 등 경공업이 있다.

채취공업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 니켈은 그 매장량(1천 800만톤)이 풍부하다. 1977년에 세멘트 생산량은 260만톤이였으며 이 나라에서 제일 큰 《호쎄 마르띠》 강철공장은 33만톤의 강철을 생산하였다.

전력생산에서 총 발전능력의 70%이상을 화력발전소들이 담당한다.

운수에서 철길과 배길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동서간을 련결하는 철도원길들을 새로 놓고있으며 자동차길은 혁명승리후 18년동안에 1만 7천 500키로메터이상에 달하였다.

1977년에 까리브해운회사 등 3개의 회사가 들어있는 상선대가 실어나른 짐은 1962년에 비하여 약 10배에 달하였다.

주요수출품은 사탕, 니켈을 비롯한 광물류, 잎담배와 그 가공제품, 커피, 물고기제품, 열대과일이며 석유와 그 가공제품, 철강재, 기계, 설비, 쌀 등이 주요수입품이다. 세계 80여개 나라와 무역관계를 맺고있다.

교육분야에서 모든 대학들과 양성기관 학생들은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는다. 1977년에 200여만명이 보통교육부문에서 공부하였다.

1977년에 광산야금대학을 비롯하여 여러개의 각급학교들이 새로 건설되였다. 1980년까지 모든 근로자들에게 6학년정도의 지식을 줄 성인교육이 추진되고있다. 1976—1977학년도에 9억 6천만뻬소의 자금이 교육분야에 돌려졌다.

현대적설비를 갖춘 250여개의 병원이 있으며 330여개의 종합진료소가 있다. 1차5개년계획(1976—1980) 기간에 100개이상의 의료기관이 건설된다.

1976년에 5천여세대의 살림집이 건설되였다.

출판보도; **통신** 쁘렌싸 라띠나

신문 그란마 (공산당기관지), 후벤뚜드 레벨데 (공청기관지)

잡지 베르데 올리보 (혁명군주간잡지), 꼰 라 파르디아 엔 알또(혁명수호위원회기관잡지), 보에미아

방송 국립방송, 국립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0년 8월 29일 우리 나라와 꾸바사이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8년 8월 6일 경제및과학기술협정을, 1968년 8월 6일 경제과학기술협조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꾸바에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꾸바조직위원회와 삐나르 델 리오시에 《영웅조선》도서관, 아바나에 《보천보도서관》, 《만경대기계직장》 등이 있다.

그밖에도 친선 학교, 농장, 기업소가 있다. 1976년 6월 16일 조선통일지지꾸바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7년 1월 우리 나라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구국방안을 지지하여 2월 8일 조선통일지지꾸바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하였으며 2월 14일에는 《꾸바나 데 아쎄로》명칭 강철공장에서 이 새로운 구국방안을 지지하는 집회를 가지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빌랴 끌라라주 소재지인 싼따 끌라라시에서 개막식이 성대히 진행된데 뒤이어 여러 기관, 기업소들에서 련대성집회, 사진전시회 등이 진행되였다.

1977년에 꾸바정부대표단(2월), 남녀배구선수단(5월), 친선군대체육위원회 제21차 전원회의에 참가할 꾸바혁명군대표단(5월), 꾸바공산당 당일군대표단(6월), 교예단(6월), 사회주의나라 청소년국제권투경기대회에 참가할 꾸바청소년선수단(8월), 공청전국위원회 국제부장(9월), 조선통일지지꾸바위원회 위원장부부(11월), 꾸바혁명수호위원회대표단(12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이해에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로동당대표단(1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대표단(3~4월), 농근맹대표단 (5월), 녀맹대표단(6~7월),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조선위원회대표단(6월), 평양시행정위원회대표단(9월), 조선로동당 당일군대표단(11월)이 꾸바를 방문하였다.

메 히 꼬

(메히꼬합중국)

넓이 197만 2,546km²
인구 5,811만 8,000명 (1974년)
수도 메히꼬 (주민 1천 300여만명, 교외인구포함, 1977년 1월현재)

자연 및 주민

메히꼬는 북아메리카의 남부에 자리잡고있으면서 과떼말라, 벨리제, 미국과 국경을 같이하고있으며 동쪽에는 대서양, 서쪽에는 태평양을 끼고있다.

평토의 대부분 (75%)은 메히꼬높은벌로 되여있다.

한해평균기온은 낮은산지대에서 27°C, 중간산지대에서 24°C, 높은지대에서 18°C이며 한해평균강수량은 2,000~2,500mm이다.

주민구성에서 인디안과 에스빠냐혈통의 혼혈인이 50%이상, 인디안이 30% 정도이고 나머지는 에스빠냐혈통의 백인이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정 치

메히꼬는 1521년부터 19세기초엽까지 300년동안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 9월 16일에 독립하였다. 1845—1848년사이에 미제가 일으킨 침략전쟁에 의하여 이 나라는 현재 미국령토의 3분의 1인 240만평방키로메터에 가까운 땅을 빼앗겼다.

1910년부터 1917년사이에 이 나라에서는 《메히꼬혁명》(부르죠아민주주의혁명)이 수행되였다.

1976년 7월 4일 메히꼬에서는 대통령 및 국회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에서 립헌혁명당출신인 호쎄 로뻬스 뽀르띨료가 대통령(60대)으로 당선되여 12월 1일에 취임하였다. 취임식에서 한 연설에서 대통령은 농업발전에 주목을 돌리며 가공공업, 광업, 강철공업 등 공업분야에도 큰 힘을 넣을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대외정책에서 《불간섭과 자결의 원칙에서 자주성》을 견지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같은해 12월 13일에 메히꼬에서는 200마일경제수역을 설정할데 관한 법령이 공포되였으며 이 법령에 의하여 외국고기배들이 경제수역안에서 물고기를 잡는것이 금지되였다.

1977년 1월 이 나라 대통령은 한 연설에서 민족경제발전을 위하여 힘쓸것을 강조하면서 농업생산을 늘여 식량수입을 줄이며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경제를 추켜세울 정부의 계획을 밝혔다. 그는 또한 9월에 국회에서 연설하면서 앞으로 메히꼬는 발전도상의 나라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며 그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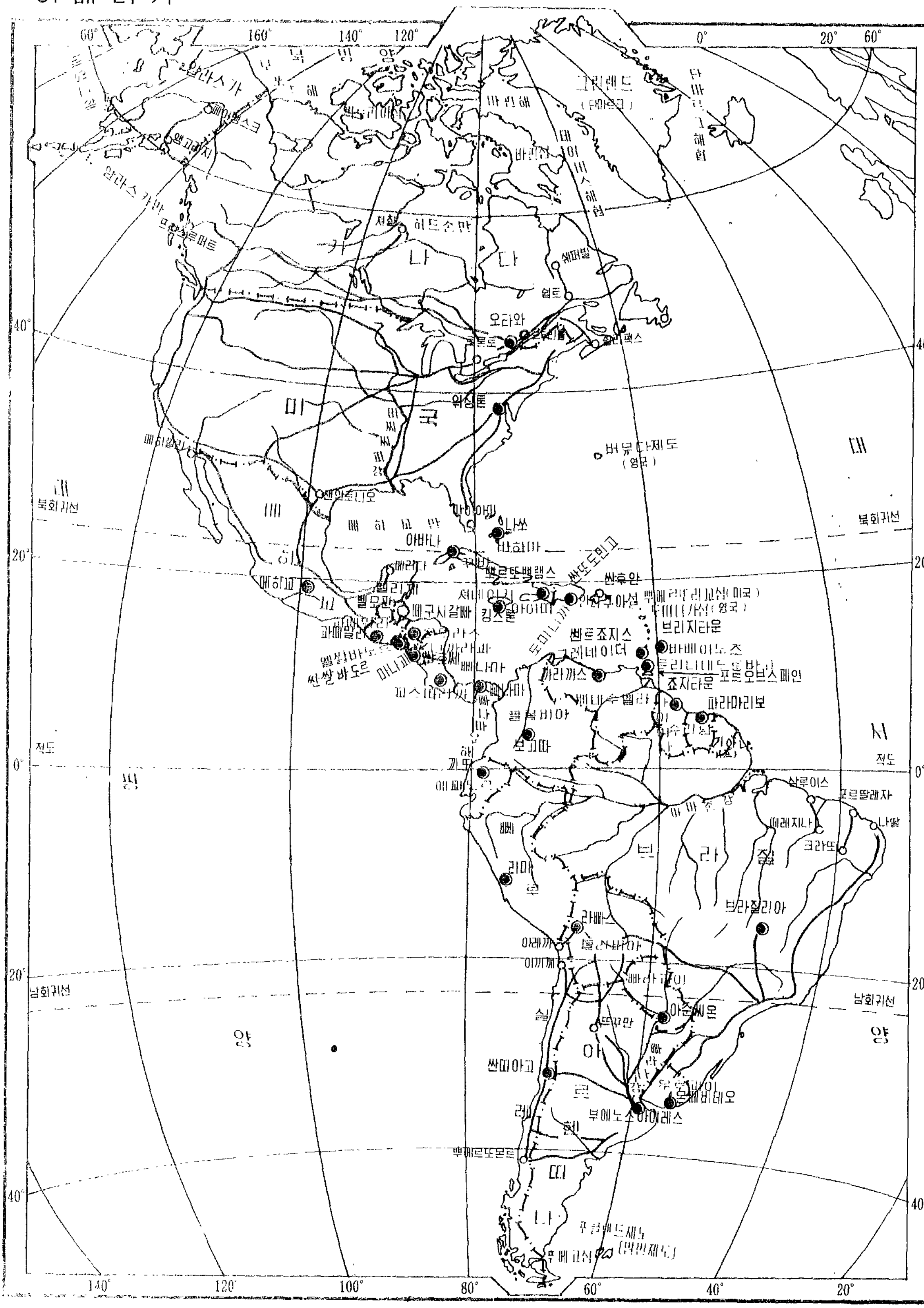
그러면서 그는 발전도상의 나라들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낡은 세력들을 반대하여 통일전선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메히꼬외교부장은 2월 9일 기자회견에서 한 연설에서 자기 나라의 대외정책은 자결, 불간섭, 호상존중, 평등의 원칙을 지지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그는 운하지대의 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빠나마인민의 투쟁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7월에 이 나라는 의약품값을 제멋대로 올리고 있는 20개의 다국적제약회사들에 각각 5만뻬소의 벌금을 물게 하였다.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석은 60석이며 임기는 6년, 하원의석은 208석이며 임기는 3년

아메리카



알라스까
앵고리지
허드손만
캐나다
그린란드
(단마르크)
배핀해
오타와
워싱톤
미국
버뮤다제도
(영국)
북회귀선
아바나
바하마
멕시꼬
킹스톤
싼후안
브리지타운
바베이도스
그레네이더
까라까스
쪼지타운
빠라마리보
보고따
적도
리마
브라질
브라질리아
라빠스
남회귀선
아순씨온
싼띠아고
몬떼비데오
부에노스아이레스

정부 대통령은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6년, 대통령 호쎄 로뻬스 뽀르띨로 (1976년 12월 1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 9월 15일 창건, 1977년 5월 제18차전국대회 진행, 총비서 베르두고 아르놀드 마르띠네스, 립헌혁명당(집권당), 인민당, 사회인민당, 사회주의혁명당, 국민행동당, 혁명정의당, 좌익력량동맹(공산당, 사회인민당, 사회주의혁명당, 사회인민당좌파와 일련의 진보적조직 망라), 독립농민중앙(공산당의 영향밑에 있는 농민조직), 메히꼬근로자련맹, 전국농민련맹, 국가기관사무원로조련맹, 독립로조전선, 로동자농민총동맹, 로동자농민혁명련맹, 공산주의청년동맹, 전국녀성련맹

경제, 사회문화

메히꼬는 라틴아메리카나라들가운데서 비교적 발전한 농업—공업국가이다.

이 나라에서 부침땅은 전령토의 10%정도이다. 부침땅의 63%가 메마른땅이거나 절반 메마른땅이다. 주요농작물은 강냉이, 땅콩, 밀, 보리, 참깨, 목화, 커피 등이며 사탕수수, 바나나, 사이잘삼, 고무나무 등도 많이 재배하고있다. 그 가운데서 강냉이와 밀은 기본 알곡작물로서 그것은 부침땅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1988년에 가서 고무나무재배지는 10만헥타르에 달하게 된다.

1973년까지만 하여도 수입총액의 35%를 차지한 식량수입을 줄이기 위한 농업발전계획(1975년 2월부터 1980년 2월)이 추진되고있다.

토지개혁에 의하여 1977년현재 300만호의 농사집들이 땅을 받았다. 아직 300만명의 땅없는 농민들이 있다. 앞으로 토지개혁의 제2단계가 진행된다.

농촌에는 농업생산협동조합인 《에히도》와 국영농장들이 있다. 이를 장려하기 위하여 전국에 《에히도장려금》이 설치되였다.

축산부문에도 《에히도》가 조직되였다.

1977년현재 3천여만마리의 소와 1천 400여만마리의 돼지가 있었다.

1977년에 메히꼬에서는 큰 가물이 들었다. 그리하여 《곡창지대》로 불리우는 씨노라—씨나로아지역에서 많은 피해가 났다고 한다. 이 지역에서는 이 나라의 밀 및 콩 생산의 거의 70%, 먹는기름을 짜는데 쓰는 잇꽃씨의 80%, 목화의 40%, 수출용소의 5분의 1 그리고 감자, 남새, 수박 등과 다른 많은 수출작물이 생산된다. 씨노라주의 겨울밀 씨붙임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가물을 《극복하자면 2~3년 계속 무더기비가 와야 한다》고 하였다.

1976년에 주식물과 소먹이의 수입액은 3억 3천 320만딸라였다.

한편 메히꼬에서는 1977년에 가물과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정부는 뚝과 양수장을 포함한 중소규모의 관개시설건설과 지하수개발에 힘을 넣었다. 이 나라에서 건설중에 있는 크고작은 관개시설건설대상은 2천여개에 달한다. 1977년에 정부는 관개시설건설과 지하수뚫기에 140억뻬소의 자금을 대주었다.

메히꼬는 수산업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새우, 정어리, 다랑어, 멸치 등이 잡히고 굴, 조개, 해초류 등이 채취된다. 그중 새우잡이량의 80%는 얼구어 수출하며 물고기가루도 많이 생산한다.

공업에서 기본은 채굴공업과 일부 가공공업이며 기타 부문은 아직 뒤떨어져있다. 정부는 원유, 광업, 석유화학, 전력, 철도 등 기본경제부문을 직접 통제하고있다.

채굴공업에서는 원유, 천연가스, 은, 연, 류황, 동 등이 채취된다.

1977년에 이 나라에서는 원유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힘을 넣었다. 1977년에 하루 120만바렐의 원유가 채취되였다. 1977년현재 탐사된 원유 묻힌량은 168억바렐이였으며 22개주에서 30개의 새 원유밭이 발견되였다. 메히꼬는 1974년 9월부터 원유를 수출하고있다.

제2차세계대전후 흑색금속, 화학, 세멘트, 자동차공업 등 중공업이 생겨났으며 원유채취와 함께 석유화학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경공업부문에서는 섬유, 식료가공, 농산물가공, 전기가정용품 등의 공장, 기업소들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메히꼬정부는 외래독점회사들에 대한 《메히꼬화》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중소규모공업발전에 힘을 넣으면서 투자를 늘이고있다.

또한 정부는 1976년에 국영공업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15년동안)을 세우고 원유, 광업, 전력, 석탄, 강철 공업부문에서 국영기업소들을 확대강화하고있다.

경제장성률을 보면 1976년에 2%, 1977년에 2.6%였다. 1977년에 통화팽창률은 21%였다.

1974년에 자동차길의 총길이는 17만 5천 540키로메터였다. 해운사업에 힘을 넣은 결과 1977년현재 메히꼬유조선대는 30척의 배를 가지게 되였다.

수출품가운데서 과일, 커피, 사탕, 고기를 비롯하여 식료품들과 목화, 광물이 기본수출항목이였으나 1973년이래 공업제품의 몫이 50%를 차지하였다.

주요수입품은 흑색금속, 자동차 및 그 부속품, 기계설비, 비료, 화학제품, 종이, 양털, 식량 등이다.

15살이상 주민의 23%가 아직 글을 모른다. 정부는 1976년 1월에 성인교육법을 발포하였다. 도

시와 농촌, 로동자구들에 문맹퇴치강습소를 내오는 조치가 취해졌다. 새로 세워진 농업및축산기술교육체계에는 840여개의 학교가 망라되여있다.

주민의 97%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엘 뽀뿔라르, 엘 디아, 엘 나씨오날(정부기관지), 라 쁘렌싸, 엘 우니베르쌀, 노베다데스, 엑쎌시오르

잡지 씨엠쁘레

방송 메히꼬방송, 까데나방송, 메히꼬텔레비존방송

과떼말라

(과떼말라공화국)

넓이 10만 8,889km²
인구 554만명 (1973년)
수도 과떼말라(주민 103만 3,100여명, 1970년)

자연 및 주민

과떼말라는 중앙아메리카, 메히꼬의 남동부에 자리잡고 메히꼬, 벨리제(영령 온두라스), 온두라스, 쌀바도르 등과 잇닿아있으며 남쪽은 태평양을 끼고있다. 령토의 70%가 해발 1,000~3,000m의 산지와 높은 벌로 되여있는데 불산이 많다.

주민의 대부분은 더위를 피하여 높은 지대에서 살고있다.

기후는 일반적으로 적도철바람기후로서 사철 무덥고 비가 많이 내리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심하다. 장마철은 5~10월까지, 가물철은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이다. 한해평균기온은 25~30°C (높은 지대 15~20°C)이며 한해 강수량은 2,000~3,000mm이다.

주민의 대부분(54%)은 인디안이며 이밖에 혼혈인, 흑인, 백인이 산다. 중미나라들가운데서 인디안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나 주민의 절반은 마야어를 쓴다.

정 치

과떼말라는 1524년부터 거의 300년동안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 9월 15일에 독립하였으며 1839년에 공화국으로 되였다. 독립후 이 나라는 1898년부터 다시 미제에 강점당하였다가 1944년에 벗어났으나 친미독재자들이 여전히 행세하고있다.

제2차세계대전후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온 과떼말라인민들은 1960년 11월 애국적군인들과 함께 무장폭동을 일으켰으며 1962년초부터 무장유격투쟁을 전개하고있다.

친미독재자 라우게루드는 반동 군대와 경찰 그리고 파쑈분자들을 내몰아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하여 싸우는 애국자들을 체포하여 잔인하게 고문하고 학살하였다. 1976년에만도 독재정권의 테로단체인 《마노 블란까》(흰손)에 의하여 800여명의 애국자들이 죽었다.

한편 과떼말라는 영국식민지인 벨리제에 대한 《령유권》을 주장하고있다.

1977년에 과떼말라는 벨리제(영령 온두라스) 문제를 둘러싸고 영국과 무장충돌의 위험성까지 빚어냈다. 과떼말라는 벨리제와 《련방》이나 《자치령제》 또는 그와 류사한 다른 형태라도 취하여 벨리제를 자기의 손아귀에 넣음으로써 까리브해로 나가는 출로를 얻으려고 시도하고있다.

국회(국민회의) 일원제, 의원수는 61명이고 임기는 4년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총선거에서 절대다수표에 의해 6년 임기로 선거, 대통령 에우헤니오 라우게루드(1974년 7월 1일—)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1949년 9월 28일에 창건된 공산당을 1975년에 로동당으로 고침, 총비서 이싸이싸스 데 레온, **립헌민주당**(집권당이였으나 1976년 6월 정부전복음모사건후 야당으로 됨), **국민해방운동**(집권당), **기독교민주당, 혁명당, 자치로조련맹, 로조리사회, 애국로동청년**

경제, 사회문화

과떼말라는 주민의 3분의 2가 농사를 하는 뒤떨어진 농업국가이다.

이 나라 전체 농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농민들이 한뙈기의 땅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미제의 《유나이테드 브랜즈》회사와 한줌도 못되는 대농장주들이 전체 부침땅의 거의 70%를 차지하고있다.

커피를 비롯한 바나나, 목화, 사탕수수 등의 재배가 전체 부침땅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커피는 수출총액의 35%를 차지한다. 미제의 《유나이테드 브랜즈》회사가 열대수출작물의 대부분을 틀어쥐고있다. 1975년에 커피 16만 2천톤, 목화 9만 9천톤이 생산되였다.

주요알곡작물은 강냉이, 당콩, 벼이다. 1975년에 강냉이 92만톤, 벼 4만 5천톤이 생산되였다.

령토의 60%가 산림지대이며 목재로 쓰이는 질좋은 나무들이 많다.

공업부문에는 소규모적인 광산, 원유정제공장, 세멘트공장, 수력발전소 그리고 직물공장, 신발공장, 열대농산물가공공장 등이 있을뿐이다. 미제의 《유나이테드 브랜즈》회사는 수출용 농산물뿐아니라 좋은 땅, 철도, 항구, 발전소, 통신시설, 상

하수도, 병원, 광산, 대외무역 등 주요경제명맥을 틀어쥐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바나나, 목화, 사탕 등인데 이 4대 농산물의 수출액은 수출총액의 65~70%를 차지한다. 주요수입품은 일반기계와 수송수단, 화학비료를 비롯한 화학제품, 금속제품과 천을 비롯한 생활필수품, 식량 등이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미국, 서부독일, 일본과 《중미공동시장》 성원국들이다. 화폐단위는 께뜨살이다.

파떼말라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잉여상품이 판을 치는 나라로, 빚더미에 짓눌려 허덕이는 나라로 더욱더 굴러떨어지고있다.

학교갈 나이의 2%만이 겨우 학교에 가고 15살이상 주민의 60%이상이 글을 모른다.

이 나라에서는 10만명의 농촌주민에게 1명의 보건일군이 차례지며 약 300만명의 근로자들이 굶주리고있다.

생활수준이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낮은 나라의 하나로서 주민의 절반이상이 맨발로 다니고있다.

주민의 97%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베르다드(로동당기관지), 쁘렌싸 리브레, 라 오라, 엘 그라삐꼬

방송 파떼말라방송, 국립텔레비죤방송

쌀 바 도 르

(엘 쌀바도르공화국)

넓이 2만 1,393km²

인구 398만명 (1974년)

수도 싼 쌀바도르 (주민 47만 1,800여명)

자연 및 주민

중앙아메리카나라들가운데서 제일 작은 나라로서 파떼말라, 온두라스와 잇닿아있으며 남쪽은 태평양에 면하고있다. 이 나라에는 불산이 많다.

《호수의 나라》로 불리우는 이 나라는 열대성기후의 영향으로 태평양기슭은 몹시 무더우며 내륙의 산지대는 비교적 온화한 편이다. 해발 680m의 높은벌지대에 있는 수도 싼 쌀바도르지방의 한해 평균 기온은 23°C이다.

주민구성에서 인디안과 에스빠냐혈통의 혼혈인이 78%정도 차지하며 나머지는 인디안과 백인이 거의 같은 비률을 이룬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정 치

쌀바도르는 1521년에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에게 강점된 후 1524년부터 거의 300년동안 놈들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 9월 15일 독립하였다.(1841년에 공화국을 선포)

독립후 1932년 반미반독재무장폭동, 1944년 5월 총파업과 반미반독재무장폭동 등 대중적인 투쟁이 일어났다.

1976년 3월에 진행된 국회선거에서 국민화해당이 전의석을 독차지하였으며 야당세력은 이 부정선거에 참가하기를 거부하였다.

1977년에 이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반정부적진출이 강화되였다. 2월 20일에 있은 대통령선거에서 우익국민화해당의 부정협잡행위에 항의하여 민족야당동맹 성원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대중적인 반정부시위가 일어났다. 선거직후에 있은 반동경찰놈들과의 충돌에서 100여명이 죽고 60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7월 1일 대통령취임날을 계기로 반정부시위가 또다시 벌어졌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체포되였다.

한편 이해에 쌀바도르에서 《인민해방무장력》이 반미반독재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리였다.

쌀바도르는 《미주방위리사회》와 《중미국가기구》(이 나라 수도에 그 본부가 있다)에 들어갔다.

국회(립법회의) 일원제, 의원수는 54명이고 임기는 2년, 1976년 3월 선거에서 국민화해당이 전의석을 차지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5년, 1977년 7월 국민화해당정부 구성, 대통령 까를로스 움베르또 로메로(1977년 7월 1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0년 3월 28일에 창건되였으며 1932년부터 비법화되여 지하에서 활동, 총비서 호르헤 샤삐고 한달, **국민화해당**(집권당) 반동적인 우익정당, **기독교민주당, 쌀바도르인민당, 민족진화공화당, 4월및5월혁명당, 혁명당, 민족민주련맹, 민족야당동맹**(진보적야당세력의 통일전선), **통일로조련맹**(세계직련에 속한 진보적로조), **근로자전국련맹, 근로자총련맹, 로조총련맹, 혁명청년동맹**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64%가 농업부문에서 일하는 뒤떨어진 농업국가이다. 부침땅은 령토의 32%(풀밭은 30%)이다. 인구의 4%에 불과한 대토지소유자들이 부침땅을 독차지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인 커피, 목화, 사탕, 헤네켄(사이잘삼)은 4대수출작물이며 바나나도 많이 생산한다. 특히 커피는 농산물생산액의 40%, 수출총액의 40%이상, 외화총수입의 50%를 차지하는 기본수출작물이다. 수출작물은 미제의 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다.

1975—1976 농업년도에 커피 273만 9천낀딸(1낀딸=100키로그람), 목화 361만낀딸이 생산되였다.

알곡작물로는 강냉이, 수수, 벼, 콩 등을 심는다. 수산자원은 많으나 연안세소어업이 지배적이며 새우를 많이 잡는다.

공업은 매우 뒤떨어져있으며 미제와 외래독점자본에 예속되여있다. 중소규모의 식료공장을 비롯한 경공업과 화학공업, 금속공업 등이 있다.

주요수출품은 커피, 목화, 사탕, 헤네켄, 축산물, 섬유제품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밀, 기계류, 운수수단, 화학제품, 강재 등이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미국, 중미나라들, 서독, 일본이다. 화폐단위는 꼴론이다.(1딸라는 2.5꼴론)

생활난으로 30만명이상이 다른 나라로 떠났다. 완전실업률은 20%, 반실업률은 40%를 차지한다. 10살이상 주민의 80%가 글을 모른다. 대학은 2개뿐이다. 주민들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엘 디아리오 데 오이, 라 쁘렌싸 그라피까

방송 쌀바도르방송, 중앙아메리카텔레비죤방송

온 두 라 스

(온두라스공화국)

넓이 11만 2,088km²
인구 293만 3,000명(1974년)
수도 떼구시갈빠(주민 31만 7,000명, 1970년)

자연 및 주민

온두라스는 중앙아메리카에 자리잡고있으면서 과떼말라, 니까라과, 쌀바도르와 국경을 같이하고 있으며 북쪽에는 까리브해, 남쪽은 좁은 만을 통하여 태평양에 면해있다.

령토의 4분의 3이 해발 500～1,500m의 높은벌로 되여있고 까리브해안을 따라 벌이 펼쳐져있다. 바다가지방은 기온이 높고 비가 많이 내리는 열대성기후이지만 산간지대는 온화하고 비내리는 량이 적다. 장마철은 5～11월기간이다.

한해평균기온(수도)은 제일 높을때 32°C, 제일 낮을때 20°C이며 한해 비내리는 량은 바다가지방에서 5,000mm이다.

1977년 6월 이 나라 서북부지역에 내린 무더기비로 하여 큰 피해가 났다.

주민구성에서 인디안과 에스빠냐혈통의 백인의 혼혈인이 90%이상 차지하며 그밖에 인디안, 흑인, 백인이 산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정　치

1520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통치를 받아온 온두라스는 1821년 9월 15일에 독립하고 1839년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두 부르죠아정당인 국민당과 자유당이 번갈아 통치하였다.

로뻬스 아렐라노 집권시기(1972년 12월부터 1975년 4월)에 일련의 긍정적조치들이 취해졌다. 정부는 1974년초 미제와 외래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던 산림자원을 국유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75년 1월에는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였다.

1975년 4월 22일 군총사령관 후안 알베르또 멜가르 까스뜨로가 일으킨 군사정변에 의하여 아렐라노정부가 무너졌다.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세력의 압력밑에 군사정부는 아렐라노정권시기에 선포된 《토지개혁법령》을 비롯한 일련의 사회경제개혁의 성과를 말살하고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농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또한 로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면서 군사정부는 나라를 점차 우경에로 이끌어가고있다.

국회 일원제이며 64명의 의원들로 구성, 1972년 12월 군사정변후 해산

최고군사리사회 25명의 장교들로 구성된 최고지도기관, 1975년 4월 군사정변후 조직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5년, 대통령 후안 알베르또 멜가르 까스뜨로(1975년 4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7년에 창건되여 1933년에 비법화되면서 해산되였다가 1954년에 다시 조직, 1977년 6월 제3차당대회 진행, 총비서 디오니시오 라모스 베하라노, **국민당**(일명 보수당), **자유당, 혁신통일당, 근로자총련맹, 전국농민동맹**

경제, 사회문화

온두라스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경제적예속과 략탈정책의 후과로 몇가지 수출작물재배를 위주로 하는 뒤떨어진 농업국가이다.

주민의 70%가 농사를 한다. 토지는 전체 인구의 약 5%에 불과한 대토지소유자들과 미제의 2개 바나나독점회사들인 《유나이테드 브랜즈》회사와 《스탠다드》과일회사의 자매회사들이 이 나라 토지의 대부분을 틀어쥐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바나나, 커피, 목화이다. 그밖에 사탕수수, 벼, 강냉이, 당콩, 콩, 담배가 있다.

1975년에 150만톤의 바나나, 5만 1천톤의 커피, 6천톤의 담배, 22만톤의 강냉이, 약 1만 6천톤의 벼가 생산되였다.

소, 돼지 등의 집짐승도 기른다.

여러가지 귀중한 지하자원들이 있으나 채취되고 있는것은 금, 은, 연, 아연 등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도 미제의 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다.

공업부문에서 채취(금, 은, 연, 아연)공업과 림업이 큰 자리를 차지할뿐 나머지는 농산물가공과 방직, 가죽이김, 석유가공, 사탕, 목재가공 등 크지않은 공장들이 약간 있다.

주요수출품은 바나나(수출총액의 3분의 2 차지), 커피, 목재, 광물류 등이다. 주요수입품은 각종 소비품과 공업원료, 기계류 등이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미국, 서부독일, 쌀바도르, 과떼말라, 일본이다. 사회주의나라들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허가제를 실시하고있다.

10살이상 주민의 60% 이상이 글을 모르며 배울나이의 어린이들의 60%가 학교에 가지 못한다. 인구의 87%에 달하는 사람들이 굶주리며 살아간다. 극심한 영양실조로 어린이들의 죽는 비률이 세계적으로 높다.

주민들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라 가쩨따(정부기관지), 엘 뿌에블로, 꼬르레오 델 노르떼

방송 온두라스방송, 온두라스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8월 13일 온두라스조선친선협회가, 1976년에 조선통일지지온두라스위원회가 결성되였다.

벨 리 제

(영국식민지)

넓이 2만 2,965km²

인구 14만명(1975년)

행정중심지 벨모판(주민 4만 2,000명, 1971년)

자연 및 주민

벨리제는 중앙아메리카의 유까딴반도남쪽에 있으면서 메히꼬, 과떼말라와 국경을 같이 하고있으며 동쪽은 까리브해에 면해있다.

땅생김새는 일반적으로 낮고 평탄하며 진펄이 많다. 열대성기후로서 한해평균기온은 24～27°C이며 한해 평균비내리는 량은 2,000mm이다. 령토의 92%가 산림지대이다.

주민의 75%이상이 흑인과 혼혈인이며 인디안은 주민의 17%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며 일부지역들에서는 에스빠냐어를 쓴다.

정 치

벨리제는 16세기초에 에스빠냐식민지로 되였다. 그후 영국식민주의자들이 이 나라에 손을 뻗치기 시작하여 1786년에 에스빠냐와 《런던조약》을 체결하고 벨리제의 산림경영권을 얻어냈다.

1821년에 에스빠냐로부터 독립을 쟁취한 과떼말라는 영제국주의자들이 손을 뻗치고있는 벨리제를 자기의 령토라고 선포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1862년 5월 벨리제를 자기의 식민지로 선포하고 영령 온두라스라고 불렀다.

제2차세계대전후 이 나라 인민들의 반영투쟁이 앙양되자 영제국주의자들은 1964년 1월 1일 벨리제에 《내부자치권》을 허용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 나라에 대한 《령유권》을 주장하는 과떼말라의 파렴치한 행동으로 하여 독립을 완강히 주장하고있는 이 나라 인민들의 념원은 실현되지 못하고있으며 오히려 국제적분쟁대상으로 확대되였다.

벨리제를 둘러싸고 1975년말에 국경연선에서는 과떼말라와 영국사이의 무력충돌의 위험이 조성되였으며 1977년에 벨리제정세는 더욱 격화되였다.

한편 과떼말라와 영국은 협상의 방법으로 벨리제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시도하면서 1977년 7월 6일과 7일에 첫회담을 가졌으며 7월말에 2차회담을 진행하였다. 회담은 앞으로 《회담을 계속 진행할데 대한 합의》를 본데 그쳤다.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을 위한 벨리제인민의 투쟁은 세계 절대다수나라들의 지지를 받고있다.

유엔총회 제30차회의 비식민지화위원회는 벨리제인민들에게 자결권을 줄데 대한 결의를 채택하였으며 뻬루의 리마에서 진행된 쁠럭불가담국가외교부장회의도 이 나라에서 식민주의적현상을 없앨것을 요구하였다.

1977년 8월에 있은 라틴아메리카및까리브지역수뇌자회의에서도 벨리제인민들의 투쟁은 지지를 받았다. 12월에는 7개의 까리브연안나라들이 벨리제의 독립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 나라는 1972년부터 벨리제라고 부른다.

식민지통치기구 영국총독이 모든 실권을 행사, 1964년부터 《자치정부》가 수립되였다. 총리 죠지 프라이스(인민통일당 당수)

국회 상원(8석)과 하원(18석, 임기 5년)으로 구성, 1974년 10월 30일 선거실시

정당, 사회단체; 인민통일당 1950년에 창건, 1964년부터 집권당, 당수 죠지 프라이스, **민족독립당, 인민민주운동, 로동자진흥총동맹**

경제, 사회문화

농업과 림업, 수산업이 국민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며 로동인구의 거의 40%가 농업부문에서 일한다.

부침땅은 약 20만헥타르이며 주요농산물은 사탕(년산 5만톤), 귤(4만 5천톤), 쌀, 야자, 바나나, 고무 등이다.

주요집짐승은 소, 돼지, 말, 노새, 당나귀이다.

경제에서 기본은 림업이다. 사탕공장, 파일가공공장 등 작은 경공업공장들이 있다.

이 나라는 사탕(수출의 50%), 귤, 과일즙, 목재 등을 수출하고 식량, 기계류, 생활필수품을 수입한다.

대외무역은 영국이 틀어쥐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글을 모른다.

국민학교 이외에 21개의 중학교와 3개의 전문학교가 있다. 어린이사망률이 매우 높다.

오랜기간의 식민지통치밑에서 인민들은 심한 생활난에 허덕이고있으며 문화수준은 매우 낮다.

출판보도; 신문 아만달라, 더 비컨, 벨리제 타임스(인민통일당기관지)

방송 벨리제방송

니 까 라 과

(니까라과공화국)

넓이 13만km²
인구 208만 4,000명(1974년)
수도 마나과(주민 39만 8,000명, 1970년)

자연 및 주민

니까라과는 중앙아메리카의 중부에 자리잡고 량쪽에 태평양과 까리브해를 끼고있으며 온두라스, 꼬스따 리까와 잇닿아있다. 중부지역은 험한 산지로 되여있고 불산이 많으며 자주 지진이 일어난다.

한해평균기온은 25~28°C이며 한해동안 비내리는 량은 동부에서 2,000~4,000mm, 서부에서 1,000mm이다.

심한 더위로 하여 주민의 80%가 해발 500~900m에 이르는 높은벌지대와 호수주변에서 살고있다.

주민구성에서 에스빠냐혈통의 백인과 인디안의 혼혈인이 대다수를 차지하며 10만명정도의 흑인과 3만명정도의 인디안이 산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정 치

니까라과는 1522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에 독립하였으며 1838년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39년부터 40년동안 소모사일당의 친미독재통치가 실시되고있다.

인민들의 앙양되는 투쟁에 질겁한 소모사친미독재정권은 1975년에 미제의 《군사사절단》을 끌어들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착취와 압박이 있는곳에서는 반드시 인민들의 혁명투쟁이 일어나는 법이며 압제자들의 폭압이 강화될수록 그에 항거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조직화되고 완강하여지는 법입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121페지)

니까라과인민들은 싼디노민족해방전선의 지도밑에 1959년부터 소모사친미독재정권을 뒤집어엎기위한 무장투쟁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1977년 9월 18일 싼디노민족해방전선은 니까라과 전령토에서 반동정부군을 반대하는 전쟁을 선포하였다. 니까라과유격대는 북쪽산지대에 유격근거지를 두고 로동자, 농민, 대학생들을 인입하고 그 투쟁을 확대하였다. 유격투쟁은 10월부터 수도 마나과를 비롯하여 레온주, 치난데가주, 히노데가주, 쎌라이주 등 넓은 지역에로 번져갔다.

그리하여 이해 이 나라 수도는 마치도 《포위된 요새》를 련상시켰다.

유격투쟁과 함께 니까라과 근로자들과 청년학생들도 친미독재정권의 중세기적인 탄압정책과 략탈을 반대하고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요구하여 시위와 집회, 파업과 동맹휴학 등을 벌리면서 반동정부를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날로 앙양되는 인민들의 투쟁을 가로막기 위하여 소모사도당은 미제로부터 1977회계년도에만도 310만딸라의 군사《원조》를 받았으며 미제의 지휘밑에 있는 《중미방위리사회》침략무력의 협력밑에 유격대《토벌》작전에 미친듯이 돌아쳤다. 친미독재정권은 나라의 도처에 집단수용소를 만들어놓고 유격대와 련계를 가지고있는 인민들을 대대적으로 잡아가두고 고문학살하였으며 수많은 농촌마을들을 파괴하였다.

그리하여 소모사일당이 40년간 통치하는 기간에 10만명이상의 인민들이 죄아닌 죄로 학살당하였다.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석은 30석, 하원의석은 70석이며 임기는 각각 6년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6년반, 대통령 아나스따시오 소모사 데 바일레(1967년 5월—)

정당, 사회단체; 사회당 1925년에 창건된 공산당에 기초하여 1944년에 창건, 1945년 이후부터 비법화되여 지하에서 활동, 제1비서 루이스 싼체

스 싼쵸, 국민자유당(집권당), 정통보수당, 보수당, 독립자유당, 기독교사회당, 공화동원당, 싼디노민족해방전선, 해방민주련맹, 로동총련맹

경제, 사회문화

경제는 미제의 략탈정책으로 하여 식민지적락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1974년에 국민총생산액에서 농업이 27%, 공업이 18%, 상업이 22%를 각각 차지하였다.

전체 주민의 80%가 농사를 하고있으나 외래독점체들과 국내의 대토지소유자들이 부침땅의 50%이상을 독차지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목화, 커피, 바나나, 사탕수수, 강냉이, 쌀 등인데 그중 목화와 커피는 농업생산과 수출총액에서 55~60%의 몫을 차지한다. 1975—1976농업년도에 목화는 270만낀딸(1낀딸=100키로그람), 커피는 90만낀딸, 강냉이는 417만 6천낀딸을 생산하였다.

풀밭을 리용하여 소를 비롯한 집짐승들을 기른다.

령토의 70%가 산림지대로 되여있으나 목재생산량은 얼마되지 않는다.

수산업은 태평양과 까리브해 연안에서 진행되는데 주로 새우를 잡는다.

채취공업에서 동광석은 광물총생산액의 약 60%를 차지한다. 1974년에 동정광생산량은 1천 775톤이였다.

가공공업에서 주되는것은 고기가공, 농산물가공, 사탕생산을 위주로 하는 경공업이다. 식료품생산에서 약 50%가 고기가공제품과 사탕생산이다. 이밖에 원유정제, 섬유, 담배, 세멘트 공장 등이 있다. 공업생산의 대부분을 미제를 비롯한 외래독점자본가들이 틀어쥐고있으며 이 나라에 대한 외래자본 총 투자액중에서 3분의 2가 미제의 사자본이다. 1977년현재 대외빚은 7억 6천 600만딸라에 달하였다.

주요수출품은 목화와 목화씨, 커피, 사탕, 고기, 새우, 목재, 동 등이며 주요수입품가운데서 기계류와 철제품들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무역대상나라들은 서독, 일본, 화란, 중미주나라들이다.

화폐단위는 꼬르도바이다.

주민의 65%가 글을 모르며 6살부터 12살까지의 어린이 40%가 학교에 가지 못하고있다. 대학은 2개밖에 없다.

주민 1만명당 의사수는 6명에 지나지 않으며 각종 질병과 영양실조로 주민들의 평균수명은 35살아래이다.

소모사일당이 1937년부터 1977년까지 40년동안에 인민들의 피땀을 짜내여 긁어모은 재산은 10억딸라이상에 달하였다.

출판보도; **신문** 노베다데스(국민자유당계), 라 노띠씨아(독립자유당계), 라 쁘렌싸 그라삐까(국민자유당계), 라 나씨온(보수당계)

방송 니까라과국립방송, 니까라과텔레비죤방송

꼬스따 리까

(꼬스따 리까공화국)

넓이 5만 700km²

인구 192만 1,000명(1974년)

수도 싼 호쎄(주민 22만명, 1973년)

자연 및 주민

꼬스따 리까는 아메리카대륙의 중부에 있는 나라로서 북쪽은 니까라과, 남쪽은 빠나마와 잇닿아있으며 동북쪽은 까리브해, 서남쪽은 태평양에 면해있다.

령토의 75%가 산림지대인데 그 절반이상이 무성한 열대원시림으로 덮여있다.

기후는 누진열대성기후이며 한해동안 비내리는 량은 3,000mm이다. 많은 땅이 미개발상태로 남아있고 사람이 살지 않는곳이 적지 않다.

주민구성에서 에스빠냐혈통의 백인, 인디안과 백인의 혼혈인들이 97.6%를 차지한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정　　치

꼬스따 리까는 1821년 9월 15일에 독립할 때까지 300년동안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었으며 1839년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꼬스따 리까는 1966년 4월 자기 나라의 령해를 200마일로 선포하였으며 1971년 2월 미제의 침략도구인 《중미방위리사회》에서 떨어져나왔다.

1975년 6월 립법회의는 진보적정당들의 활동을 금지하였던 이전 헌법조항을 없애고 인민전위당을 포함한 진보적정당들의 활동을 합법화하였다.

1977년 1월 꼬스따 리까인민전위당이 1948년이래 처음으로 1978년 2월에 있을 총선거에 합법적으로 참가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등록되였다.

이해 꼬스따 리까는 꾸바와 령사 및 경제 관계를 다시 맺기로 결정하였다. 두 나라는 호상 령사관 및 무역대표부를 두기로 하였다.

1977년에 꼬스따 리까는 3월에 버마, 6월에 몽골, 8월에 네팔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꼬스따 리까는 바나나수출국동맹, 육류생산국기구, 커피수출국기구, 사탕수출국기구, 라틴아메리

카경제체계 등 지역적경제협조기구들에 참가하고있다.

립법회의 일원제, 의원수는 57명이며 임기는 4년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4년, 대통령 다니엘 오두베르 끼로스(1974년 5월 8일—)

정당, 사회단체; 인민전위당 전신은 1931년에 창건된 공산당이며 1943년에 지금 이름으로 고침, 1976년 6월에 제12차당대회 진행, 총비서 마누엘 모라 발베르데, **사회당** 총비서 로마노 싼쵸, 위원장 호쎄 프란시스꼬 아길라르 불가렐리, **근로자당, 민족해방당**(집권당), **민족통일당, 민족독립당, 기독교민주당, 기독교사회당, 근로자총련맹, 민주근로자련맹, 선진청년단체**(인민전위당소속)

경제, 사회문화

몇가지 수출용 농산물생산에 주로 의거하는 기형성을 띤 농업이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로동인구의 거의 50%가 농업부문에서 일한다. 국민총생산액에서 1974년현재 농업(수산업 포함)이 차지하는 몫은 18%였다.

기본수출작물인 바나나, 커피, 코코아, 사탕수수, 목화는 미제의 《유나이테드 브랜즈》, 《스탠다드 푸르트》 회사들이 거머쥐고있었다. 1975년에 《유나이테드 브랜즈》에 속하였던 근 100만헥타르의 부침땅이 몰수되였다.

1975년에 약 8만 8천톤의 커피, 135만톤의 바나나, 약 6천톤의 코코아가 생산되였다.

소, 돼지 등 집짐승들도 기른다.

국민총생산액에서 공업(광업포함)이 차지하는 몫은 1974년현재 20%였다. 가공공업에서 사탕생산과 농산물가공 등이 압도적자리를 차지한다.

최근년간 경제에서 공업의 몫이 일정하게 늘었으나 외국에 대한 예속성은 더욱 촉진되였다. 미국, 일본의 독점자본은 이 나라의 세멘트, 종이, 합성수지, 석유가공, 질소비료, 아연도철판, 자동차조립부문을 틀어쥐고있다. 미제독점체들은 또한 보크사이트채굴과 석유탐사부문에 침투하였다. 일본독점재벌은 《합영》의 이름밑에 12개의 회사를 장악하고있다.

철길은 1천 400키로메터인데 그의 65%가 미제독점회사의 소유로 되여있다.

수출총액에서 커피가 29%, 바나나가 28%를 차지한다. 주요수입품은 기계, 화학제품, 식량 등이다.

15살이상의 주민들중 16%가 글을 모른다. 주민의 50%이상이 살림집이라고 말할수 없는 집에서 살고있다. 천주교가 국교로 되여있다.

출판보도; 신문 리베르따드(인민전위당기관지), 라 레뿌블리까(민족해방당기관지), 엘 뿌에블로

방송 꼬스따 리까방송, 꼬스따 리까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2월 10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3년 4월 13일 꼬스따 리까조선친선문화협회(위원장 꼬스따 리까사회당 위원장이며 기자동맹 위원장인 호쎄 프란시스꼬 아길라르 불가렐리)가, 1976년 4월 14일 조선통일지지꼬스따 리까위원회가 각각 결성되였다.

1977년에 꼬스따 리까의 종합대학들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였다.

꼬스따 리까종합대학 사회학부에서는 3월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토지개혁의 총결과 금후과업》, 《농촌경리의 금후발전을 위한 우리 당의 정책에 관하여》, 《사회주의적농촌경리의 정확한 운영을 위하여》,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더욱 강화발전시킬데 대하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를 비롯하여 10여편의 로작들에 대한 강의와 연구토론이 진행되였다.

꼬스따 리까민족자치종합대학의 로동연구대학에서도 3월부터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장별로 강의한 다음 그 기본내용에 대한 토론들이 진행되였다.

또한 이해 꼬스따 리까조선친선문화협회 주최로 8월 1일부터 9월말까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과 혁명력사에 관한 제2기 강습과 토론회》가 진행되였다. 강습과 토론회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인 **《새 조선 건설과 민족통일전선에 대하여》, 《중요산업의 국유화는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기초》, 《근로대중의 통일적당의 창건을 위하여》,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를 비롯하여 14편의 로작들에 대한 강의와 토론이 진행되였다.

또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이해에 꼬스따 리까조선친선문화협회의 주최로 군중집회가 진행되였다.

1977년 9월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꼬스따 리까사회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참가하였다.

또한 5월에 꼬스따 리까국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빠 나 마

(빠나마공화국)

넓이 7만 5,650km²(운하지대는 제외)
인구 171만 8,000명(1976년 7월 1일)
수도 빠나마(주민 41만 5,000명, 1976년 7월)

자연 및 주민

빠나마는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련결하는 지대에 자리잡고 꼴롬비아, 꼬스따 리까와 잇닿아있으며 북쪽은 까리브해, 남쪽은 태평양에 면해있다.

나라의 중부에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빠나마운하가 있다.

기후는 아열대성기후로서 사철 무더우며 비가 많이 내린다. 한해평균기온은 25~28°C이다. 해마다 2,500~3,700mm의 비가 내린다. 6~12월까지는 장마철인데 거의 매일과 같이 소낙비가 세차게 내린다.

주민은 흑인과 백인의 혼혈인 72%, 흑인 15%, 백인 13%이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정 치

빠나마가 독립한 1903년에 미제국주의자들은 이른바 《미국—빠나마운하조약》을 빠나마인민들에게 강요하여 《조차지》라는 이름밑에 운하를 건설할 1천 432평방키로메터의 땅을 이 나라로부터 빼앗아냈다.

1964년 1월 9일 빠나마인민은 미국과의 예속적인 《운하조약》의 폐기, 운하지대에 대한 민족적자주권을 요구하여 이 나라 력사상 가장 큰 반미폭동을 일으켰다. 빠나마인민은 이날을 《반미애국투쟁의 날》로 정하고 해마다 반미 집회와 시위를 벌려왔다. 이해부터 미제는 《미국—빠나마운하조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회담에 끌려나왔으나 놈들은 회담을 끌어오다가 일방적으로 파탄시켰다.

1968년 10월 11일 친미반동정권이 거꾸러지고 진보적인 새 정권이 수립된 후 빠나마정부와 인민은 운하와 운하지대에서의 완전한 자주권과 합법적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빠나마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과 국제사회여론의 압력에 부닥친 미제는 《미국—빠나마운하조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회담에 다시 응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미제는 회담을 계속 질질 끌면서 운하와 운하지대를 계속 틀어쥐려고 빠나마에 대한 갖은 위협과 회유기만책동을 다하였다.

빠나마 정부와 인민은 1977년을 《민족해방투쟁에서의 단결과 노력의 단합의 해》로 정하고 민족적자주권을 회복할 새로운 운하조약체결을 나라의 기본과업으로 제기하고 끊임없이 투쟁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운 빠나마운하조약의 체결은 제국주의와 신식민주의를 반대하고 민족적 독립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빠나마인민이 이룩한 새로운 승리로 됩니다.》

빠나마인민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1977년 9월 7일 미제는 13년동안이나 끌어온 새로운 빠나마운하조약에 조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이 조약에 따라 미제는 운하와 운하지대를 영구강점할수 없게 되였으며 그를 1999년말까지 빠나마에 넘겨주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

9월 9일 새로운 운하조약을 경축하는 군중집회에서 연설하면서 빠나마정부수반은 새 조약의 조인으로 1903년의 불평등조약은 끝장을 보게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빠나마인민의 투쟁은 한나라 인민이 해방위업을 완수할것을 결심할 때 그 어떤 위협도, 군사적강점도, 총알도 그 결심을 꺾을수 없다는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계속하여 빠나마인민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라고 말하였다.

10월 23일 빠나마에서 진행된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3분의 2이상이 새 빠나마운하조약에 찬성하였다.

그러나 미국회는 《부대조건》을 내놓고 빠나마에 압력을 가하면서 이 나라 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하는 파렴치한 책동에 매달렸다.

빠나마정부수반은 10월에 미국회가 새 빠나마운하조약을 승인하지 않으면 운하는 폐쇄될수 있다고 경고하였으며 11월 11일 빠나마학생련맹은 미국회가 새 빠나마운하조약에 대한 승인을 거부한다면 빠나마인민은 나라의 자주권을 완전히 되찾기 위하여 무장을 잡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977년에 빠나마정부수반은 리비아(4월), 메히꼬(5월), 유고슬라비아(10월)를 방문하였다.

국민회의 일원제이며 임기 3년인 505명의 의원들이 505개의 《자치체》(공동체)들에서 각각 1명씩 선출된다.

대통령 임기 6년인 대통령은 국민회의에서 선거, 대통령 데메뜨리오 바실리오 라까스(1972년 10월 11일—)

정부 정부 수반은 국민회의에서 임명, 정부수반 오마르 또리호스 에레라(1972년 10월 11일—), 국가평의회 의장, 국가보안군 총사령관 겸 총참모장 겸임

정당, 사회단체; **빠나마인민당** 1930년에 조직

된 공산당에 기초하여 1943년에 창건, 총비서 루벤 다리오 쏘우사, 민족자유당, 기독교민주당, 민족동맹, 빠나마당, 공화당, 《제4세력》, 전국근로자회의, 공산주의청년동맹, 전국농민조합련맹, 전국녀성동맹(1977년에 결성)

경제, 사회문화

오랜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농업이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있는 이 나라는 낡은 경제구조 대신 다각경제를 창설하기 위하여 힘쓰고있다.

정부는 대지주놈들과 미제독점회사들이 독차지하였던 땅을 몰수하여 국영농장들과 농업협동조합들을 뭇고 물질기술적방조를 주고있다. 또한 정부는 묵은 땅을 일구는 일도 추진시키면서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고있다. 1974년 현재 몰수한 땅은 약 32만헥타르였으며 이미 250개의 농업협동조합이 무어졌다.

빠나마정부는 바나나 재배와 수출을 독점하고있는 미제의 독점회사 《유나이테드 브랜즈》로부터 땅을 몰수하는 사업도 추진하고있다. 큰 사탕수수농장을 가진 4개의 공농기업체들이 국가의 통제밑에 있다.

이 나라의 주요농작물은 바나나, 커피, 사탕수수, 파이내플, 코코아, 담배 등 수출작물과 벼, 강냉이, 당콩 등의 알곡작물이다. 1975—1976농업년도에 424만 3천낀딸의 사탕수수, 10만 5천 900낀딸의 커피, 407만 4천 900낀딸의 벼, 143만 7천 700낀딸의 강냉이가 생산되였다(1낀딸은 100키로그람).

농업에서 축산업이 큰 자리를 차지하며 집짐승으로서 소, 돼지, 닭을 많이 기른다.

또한 수산자원이 풍부한 나라로서 왕새우, 멸치, 청어가 많이 잡힌다. 물고기 가루와 기름의 70%는 수출한다.

공업부문에서도 국영 및 협동 부문의 몫이 늘고있다. 보크사이트, 동파 같은 유색금속광물자원이 개발되고있으며 가공공업으로서 농축산물가공, 식료가공, 석유가공, 사탕, 방직, 신발 등 일련의 공장들이 있다. 《바야노》수력발전소와 《포르뚜나》수력발전소가 건설중에 있다.

주요수출품은 바나나(수출총액의 60%), 사탕, 커피, 물고기제품, 고기제품, 석유제품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원유를 비롯한 원료와 연료, 강재, 기계제품, 의약품, 천, 각종 일용품, 식량, 금속제품 등이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미국, 베네수엘라, 일본, 서독이다.

화폐단위는 발보아이다. 1영국파운드는 1.66발보아, 1미국딸라는 1발보아이다.

교육분야에서 《빠나마화》를 실시하고있는 이 나라에서는 1977년에 약 50만명의 학생이 공부하였으며 이 부문에 국가예산의 20%가 돌려졌다. 2개의 대학이 있다. 문맹퇴치사업이 진행되고있다.

산간지대들에도 국가가 통제하는 의료기관들이 설치되고있으며 주민의 약 85%가 의사의 검진을 받고있다. 이 나라는 라틴아메리카에서 아동사망률이 가장 낮은 나라의 하나로 되였다. 산간지대들에도 전기가 들어가고있다.

주민의 95%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모멘또(인민당기관지), 엘 빠나마 아메리카(무소속), 마뚜띠노, 끄리띠까, 라 에스뜨렐랴 데 빠나마, 도미니깔, 라 쁘렌싸, 엘 빠이스

방송 빠나마방송, 빠나마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11월에 빠나마조선친선문화협회가, 1976년 4월 22일에 조선통일지지빠나마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7년 7월 29일 《빠나마주체사상연구소조》가 결성되였다.

이해 12월 29일과 30일 이틀동안에 빠나마조선친선문화협회의 주최로 주체사상에 관한 빠나마종합대학 제1차토론회가 진행되였다. 토론회에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는 결의를 비롯하여 여러 결의들이 채택되였다.

1977년 9월에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빠나마기자동맹 위원장이 참가하였다. 그는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신문 《마뚜띠노》 10월 4일호에 《제3세계인민들은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였다.

1977년 4월에 빠나마외교부 정책고문인 라틴아메리카통일운동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5년에 진행된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빠나마는 43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우리측 결의안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빠나마 운하와 운하지대

넓이 1,432km², 그중 땅넓이는 952km²

인구 5만 1,400명(그중 미국인 약 3만 9,000명, 1970년)

행정중심지 발보아 하이쯔

빠나마운하지대는 빠나마운하의 두 기슭의 8km에 해당한 지역을 말한다(빠나마시와 꼴론시는 제외).

빠나마운하는 갑문식(갑문수 3개)으로 되여있고 길이는 82km(51마일), 너비는 90~300m이며 배가 운하를 통과하는데 7~8시간이 걸린다.

1903년에 미제는 불평등한 《미국—빠나마운하조약》을 빠나마에 강요하여 빠나마운하지대를 강점하였으며 1904~1914년사이에 빠나마인민의 피땀을 짜내여 운하를 건설하였다.

놈들은 운하지대에 총독과 침략군을 두고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이 지대를 《나라안의 나라》로 전변시켰다.

운하지대에는 미제의 까리브해통합사령부(미제침략군 남부사령부)와 14개의 군사기지가 도사리고 있다. 또한 이곳에 있는 특수학교(《미주학교》)와 특수부대(《푸른베레모》)는 라틴아메리카친미독재나라들의 우익악당들을 길러내고있다. 미제침략군의 군사기지들에는 1만명의 륙해공군 및 해병대 침략무력과 민간인의 탈을 쓴 6천여명의 군속인원들이 활개치고있다.

운하지대에서 미제는 경찰, 감옥을 두고 운하에서 일하는 빠나마사람들에게까지 제놈들의 《법》을 적용하고있다.

또한 미제는 운하지대에서 1개의 텔레비죤방송국과 2개의 라지오방송국, 3개의 일간신문사들을 운영하고있다. 미제의 이러한 어용선전수단들은 빠나마의 자주권을 해치며 이 나라에 대한 문화적 침투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 리용되고있다.

운하를 통하여 엄청난 리윤을 짜내고있는 미제는 최근년간 해마다 평균 1억 5천만딸라를 벌어들이고있는데 1914년부터 1976년까지 27억 4천 100만딸라를 짜냈다. 그런데 미제는 해마다 운하사용료로 겨우 230만딸라만을 빠나마에 물어왔다. 1974년에 미제는 운하통과세를 19.7% 올려 배 한척당 평균 7천 175딸라의 통과세를 받아냈다. 1976년 11월 23일 놈들은 운하통과세를 또다시 19% 올려 막대한 리윤을 짜내고있다.

빠나마운하의 통과능력은 1년에 2만 6천척이며 보통 한해에 1만 5천척이 통과한다. 1975년에 1만 4천 734척의 배가 통과하였다.

빠나마운하지대에서 미제는 빠나마사람들을 포함하여 피부색이 다른 로동자들에 대하여 인종차별정책을 실시하면서 지어 임금과 로동에서도 혹독한 차별대우를 하고있다. 빠나마로동자들은 미국로동자들의 10분의 1밖에 안되는 임금을 받고 가장 힘든 일을 강요당하고있다.

자 메 이 카

넓이 1만 962km^2

인구 199만 8,000명(1974년)

수도 킹스톤(주민 19만 2,000명, 1970년)

자연 및 주민

자메이카는 꾸바의 남쪽 까리브해의 대안틸제도에 있는 섬나라이다. 령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되여있으며 남쪽바다가로 가면서 땅은 낮아지고 뚤벌이 펼쳐져있다.

기후는 열대성기후로서 사철 무더우며 북쪽에서는 비가 많이 내리나 나머지 지역은 메마르다.

한해평균기온은 바다가에서 26°C, 산지(1,500m이상)에서 18°C이며 한해평균 비내리는 량은 1,800~2,000mm이다.

주민구성에서 흑인이 80%를 차지하며 그밖에 혼혈인과 인디안의 후손들이 살고있으며 백인은 1%에 불과하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정 치

자메이카는 150년동안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었으며 1655년에는 영국식민주의자들에게 또다시 강점당하였다. 《마드리드조약》에 의하여 자메이카는 1670년부터 영국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1961년 10월 이 나라는 1958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이 무어놓았던 《서인도련방》에서 벗어나 1962년 8월 6일 영련방성원국으로 독립하였다.

1972년 2월에 진행된 총선거에서 인민국가당이 친미정당인 레이버당을 누르고 승리한후 1976년 12월 15일에 있은 총선거에서도 이 당은 다시 승리하여 1977년 1월 마이클 맨리를 총리로 하는 새 내각을 구성하였다.

1977년 3월 8일에 진행된 지방주권기관선거에서도 레이버당을 타승한 인민국가당은 269석가운데서 204석을 차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라틴아메리카인민들은 미제의 지배와 통제를 반대하고 정치적자주권과 자연부원, 령해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리고있습니다.》
(《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64페지)

인민국가당이 이끄는 새 정부는 제국주의의 지배와 예속을 배격하며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자주권과 민족적존엄을 지키기 위한 일련의 진보적시책들을 실시하였다.

1977년 2월 2일에 자메이카정부는 해마다 300만~400만톤의 광석을 략탈하여가던 미제의 카이저보크사이트회사의 리권의 대부분을 국가의 수중에 넣었다.

또한 이 나라 총리는 2월에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이달말에 미국회사 《레이놀즈 자메이카 마인즈》를 국가통제밑에 넣을것이며 이해 중반기부터는 카나다회사 《알칸 자메이카 리미테드》와 《알파

트》의 주권을 장악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국유화조치에 의하여 4월에 정부는 25년간이나 쟈메이카의 보크사이트채취와 알루미니움생산을 독점하고있던 미국회사 《레이놀즈 메탈즈》의 주권을 장악하였다.

또한 8월 4일에 정부는 150년간이나 50여개의 지부를 가지고 자기 나라 인민들의 피땀을 짜내던 가장 큰 상업은행인 영국놈의 《바르클레이즈》은행의 재산을 완전히 장악하였으며 이 은행을 쟈메이카국영상업은행으로 부르기로 하였다.

뒤이어 정부는 9월 3일 27년동안이나 등지를 틀고있던 영국놈의 라지오방송국을 장악하기로 하였다.

대외적으로 쟈메이카는 쁠럭불가담운동 성원국으로서 쁠럭불가담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있으며 민족적해방을 위한 인민들의 투쟁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시하고있다.

1977년 10월 모잠비끄대통령의 쟈메이카방문 결과에 관한 공동콤뮤니케에서 쌍방은 쁠럭불가담운동이 정치경제적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계속 중요한 역할을 놀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쌍방은 또한 민족적해방을 위한 남부아프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과 팔레스티나인민의 투쟁에 지지를 표시하였다.

또한 같은달에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의 쟈메이카방문에 관한 공동콤뮤니케에서도 쌍방은 남부아프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였으며 이스라엘이 강점한 아랍땅으로부터 철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77년에 이 나라 총리는 베네수엘라(1월), 유고슬라비아(11월)를 방문하였으며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10월), 모잠비끄대통령(10월)이 쟈메이카를 방문하였다.

1977년에 쟈메이카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3월), 벌가리아(3월 22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또한 6월에 쟈메이카—꾸바협조협정이 아바나에서 체결되였다.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은 21명이며 총독이 임명, 하원의원은 60명이며 임기는 5년, 1976년 12월 15일 총선거에서 인민국가당이 48석 차지

총독 국가수반이며 영국녀왕이 임명

정부 1977년 1월 3일 녀성각료 3명을 포함한 22명의 각료로 새 내각을 구성, 총리 마이클 맨리(1972년—, 1977년 1월 3일재선, 국방부장겸임), 외교, 대외무역, 관광 부장 퍼시벌 제이.패터슨

정당, 사회단체: 인민국가당(집권당) 위원장 마이클 맨리, **공산당, 레이버당, 자유인민운동, 인민정치당, 인민국가당청년조직, 근로자해방련맹**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보크사이트채굴과 알루미니움공업이다. 보크사이트채굴량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하는데 그 생산량은 1년에 약 1천만톤에 달한다.

1976년 현재 탐사된 보크사이트만 하여도 20억톤에 달한다.

정부는 1976년부터 5개년계획을 수행하고있다. 정부의 경제계획은 일련의 개인은행들과 공장들을 국유화하여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것이다.

1976년 현재 6개의 보크사이트 및 알루미니움외래독점회사가운데서 《레이놀즈》, 《카이저》, 《리비어》 및 《알 코아》회사의 부분적통제권을 정부가 장악한데 뒤이어 1977년에는 미국회사 《레이놀즈 메탈즈》의 주권을 완전히 장악한것을 비롯하여 여러분야에 걸쳐 외래독점회사들에 대한 국유화조치가 취해졌다.

5개년계획기간에 정부는 민족경제발전을 위하여 투자된 자금의 거의 절반을 채취공업과 가공공업 발전에 돌렸다.

1977년 첫 9달동안에 이 나라는 그 전해 같은 기간보다 10% 늘어난 822만 6천 137톤의 보크사이트를 생산하였다. 이 기간에 1976년 같은 기간보다 5% 더 많은 보크사이트를 수출하였다.

또한 정부는 5개년계획기간에 방직공업, 야금공업, 알루미니움공업, 석유화학공업, 건재공업에 힘을 넣고있다. 1975년에 40만 6천톤의 세멘트가 생산되였다. 서부지역에 한해동안에 60만톤의 생산능력을 가진 새 세멘트공장건설이 추진되고있으며 남부지역바다가에 한해동안에 400만톤 능력의 국영원유가공공장이 건설되고있다.

정부가 1972년에 소규모공업발전국을 내온 이래 소규모공업기업소는 1975년에 125개로부터 1976년에 218개로 늘어났다.

식민주의자들에 의하여 농업부문에서는 사탕수수, 바나나, 커피, 귤, 담배 등 수출용 작물을 주로 재배하여왔으나 독립후 이 나라는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강냉이, 벼, 감자, 콩 등 알곡작물생산에 힘을 넣고있다.

정부는 1972년이래 국가토지에 의거하는 농장들을 창설하였으며 1977년 현재 이러한 농장은 10개가 창설되였다. 1976년에 나라의 주요작물의 하나인 고구마생산량은 2억 6천만폰드에 달하였다. 과거에 수입하던 콩, 남새 생산이 늘어났다.

주요수출품은 보크사이트, 사탕, 바나나, 커피, 귤, 람술이며 주요수입품은 천, 운수수단, 설비, 연료, 원료 등이다.

화폐단위는 쟈메이카딸라이다. 1977년에 국영무역회사가 창설되였다.

정부는 글 모르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1972년부터 문맹퇴치운동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정부는 이 부문에 1977년까지 4년동안에 1천850만쟈메이카딸라를 돌렸다. 결과 글 모르는 사람수의 3분의 1이 글을 읽고 쓸수 있게 되였다.

1977년에만도 9만 3천명이 성인학교에서 공부하였다. 아직도 50만명의 글 모르는 사람들이 남아있다. 1977년에 6천개의 성인학교가 운영되였다.

출판보도; 신문 트란페트(인민국가당기관지), 보이스 오브 저메이커(레이버당기관지), 파블리크 오피니언(인민국가당계), 데일리 글리너(무소속), 저메이커 데일리 뉴스

방송 저메이커방송, 저메이커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10월 9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6년 6월 1일 조선통일지지저메이커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아 이 띠

(아이띠공화국)

넓이 2만 7,750km²
인구 520만명(1973년)
수도 뽀르또 쁘랭스(주민 50만명)

자연 및 주민

이 나라는 까리브해에 있는 아이띠섬안에서 서쪽 3분의 1부분을 차지하고있으며 동쪽은 도미니까와 린접하고있다.

산이 많다고 하여 나라이름을 아이띠(인디안말로 《산이 많은 땅》이라는 뜻)라고 부르는 이 나라는 말 그대로 산지대로 되여있다.

장마철은 대체로 4~6월, 10~11월까지 두번 있으며 한해평균 비내리는 량은 2,000mm를 넘는 곳이 있는가 하면 500mm도 안되는 지역이 있다.

1977년에 심한가물이 북부, 서북부 및 중남부 지역을 휩쓸어 많은 농작물이 말라죽었다. 먹는 물에 대한 물배급제가 실시되였다.

주민구성에서 흑인비률(90%)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제일 높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정 치

에스빠냐, 프랑스의 식민지통치를 받아온 이 나라는 10여년동안의 무장투쟁을 통하여 1804년에 독립을 쟁취하였으며 1806년에는 세계에서 첫 흑인공화국이 선포되였다.

1956년에 정권에 들어앉은 프랑수아 듀발리에 군사독재정권은 국내에서 모든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비법화하고 수많은 애국자들을 체포, 투옥, 학살하였거나 다른 나라로 내쫓았다.

프랑수아 듀발리에가 죽은 다음 그의 아들 쟝 끌로드 듀발리에는 헌법을 날조하여 자신을 《종신대통령》으로 선포하였다.

친미독재정권은 1972년 8월에 미제의 《군사사절단》을 끌어들였으며 미국군사《고문》들의 지휘밑에 이른바 《반공부대》를 길들여 진보적력량을 탄압하고있다.

친미독재정권의 반인민적정책에 대한 높아가는 불만의 목소리는 광범한 인민대중은 물론 정부 각료들속에서도 나타났다.

1976년 3월부터 9월사이에만도 정부안에서 여러번 반정부사건이 일어났으며 로동자들은 파업권을 금지한 반동당국의 조치를 무시하고 6월에 처음으로 큰 파업을 일으켰다.

1977년에 친미독재정권은 기울어지는 경제를 추세워보려고 외래독점자본에 문을 열어놓음으로써 나라를 더욱더 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시켰다.

국민회의 일원제, 의원수 67명이며 임기는 6년, 1961년이래 선거를 진행하지 않음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이다. 1971년 헌법수정에 의하여 《종신대통령》, 대통령 쟝 끌로드 듀발리에(1971년 4월 22일—), 외교부장 에드네르 브뤼뛰쓰

정당, 사회단체; 공산주의자통일당 1934년에 창건된 공산당이 모체가 된 인민통일당과 민족해방인민당이 합당하여 1968년 12월에 창건, 현재 비법화되여 지하에서 활동, **혁명정부행동통일당**(집권당), **전국로동자련맹, 기독교로조련맹, 로조통일전선**(진보적로조, 현재 비법화), **통일공산주의청년**

경제, 사회문화

이 나라는 주민의 80%이상이 농업부문에서 일하는 뒤떨어진 농업국가이다. 주요경제부문은 미제독점자본이 지배하며 이 나라에 투자된 외래독점자본총액의 70%(5,000만딸라)를 미제가 차지하고있다.

주민의 1%밖에 안되는 지주놈들과 미제독점회사들이 부침땅의 3분의 2를 거머쥐고있다.

주요농작물은 커피, 바나나, 사이잘삼, 사탕수수, 벼, 강냉이, 콩, 나무감자, 담배, 목화, 남새이다.

수출작물은 미제가 완전히 틀어쥐고있다. 집짐승으로는 소, 돼지, 염소를 주로 기른다.

1977년에 혹심한 왕가물에 의하여 농작물이 말라죽고 약 3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었다.

공업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제일 뒤떨어진 나라의 하나이다. 미제는 이 나라 경제에 깊숙이 침투하여 《특허권》을 보장받고 각종 조세와 세금 부담에서 제외되는 등 주인행세를 하고있다.

주요공업은 보크사이트, 동을 채취하는 채굴공업과 세멘트, 방직, 사이잘삼가공, 사탕, 식료공장들이 있으나 그 규모는 작다.

관광업에서 적지않은 외화수입을 얻는다. 철길은 376키로메터, 포장도로는 80키로메터에 불과하다.

주요수출품은 커피와 사탕, 사이잘삼, 보크사이트, 동, 과일, 수공업제품이다. 공업제품의 대부분과 식량을 수입한다. 수출의 절반이상과 수입의 3분의 2를 미국이 독점하고있다.

글 모르는 사람은 주민의 90%를 차지하며 100만명의 학교갈 나이의 어린이들가운데서 3분의 2가 학교에 가지못하고있다. 대학은 하나밖에 없다. 인구의 95%가 영양부족으로 신음하며 수많은 로동자들이 적은 임금에 매달려 하루 14시간의 로동을 강요당한다. 1976년을 전후로 하여 1만여명의 아이띠인민들이 보잘것없는 돈에 팔려 다른 나라 농장주들에게 끌려갔다. 1인당 국민소득은 180딸라정도이다.

주민 30만명당 의사가 1명정도 차례진다. 또한 주민의 88%가 각종 병균이 들어있는 더러운 물을 마셔 위장염환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있으며 어린이 1천명당 148명은 한돐도 되기전에 영양부족으로 죽는다.

출판보도; 신문 아이띠 쥬르날, 르 나띠오날

잡지 부깐(공산주의자통일당월간잡지)

방송 아이띠방송, 뽀르또 쁘랭스방송, 아이띠텔레비죤방송

도 미 니 까

(도미니까공화국)

넓이 4만 8,734km²

인구 456만 2,000명(1974년)

수도 산또 도민고(주민 67만 2,000명, 1970년)

자연 및 주민

꾸바의 동쪽 아이띠섬에 자리잡고있는 도미니까는 아이띠와 국경을 같이하고있다. 해안선은 굴곡이 심하며 기후는 열대무역풍기후이기는 하지만 산간지대가 많기때문에 지역에 따라 차이가 심하다. 한해평균기온은 25~27°C이다. 낮은 지대에서는 낮기온이 30~33°C로서 몹시 더운가 하면 높은 지대의 새벽기온은 5°C로 떨어진다. 한해평균 비내리는 량은 1,000~2,000mm이다. 그러나 1977년에 오래동안 가물이 들었다.

보통 4월부터 11월사이에 많은 비가 내리며 남부지역은 태풍의 피해를 자주 받고있다.

주민구성에서 인디안과 혼혈인이 70%를 차지하며 그밖에 흑인과 백인이 절반정도씩 차지한다.

언어는 에스빠냐어가 공용어로 되고있으나 프랑스어와 영어도 쓴다.

정 치

이 나라는 1821년 독립이전까지 에스빠냐, 프랑스의 식민지로 있었으며 1844년에 공화국으로 되였다.

1916년부터 1924년까지 미제가 이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하고있었다.

1965년 4월 애국적인 군인들과 인민들의 무장봉기에 의하여 미제와 친미독재정권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그후 1974년 5월 선거에 이르기까지 호아낀 발라게르가 세번에 걸쳐 협잡선거를 벌려놓고 미제의 재정적뒤받침밑에 대통령으로 되였다.

1977년 3월에 산또 도민고의 국립종합대학 학생들이 반동당국의 반인민적정책과 탄압만행을 반대하여 시위를 벌리였다. 반동당국은 군대와 경찰놈들을 내몰아 대학을 차지하고 학생들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한편 1977년 11월 9일 도미니까공산당이 합법화되였다. 도미니까공산당의 합법화는 나라의 진정한 독립과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하여 간고한 시련을 겪어온 이 나라 공산주의자들의 커다란 승리였다.

민족회의 상하량원제, 상원의원은 27명, 하원의원은 91명이며 임기는 각각 4년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4년, 대통령 호아낀 발라게르(1966년 7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44년에 창건되여 1965년까지 인민사회당으로 불러오다가 그후 공산당으로 고쳤다. 1947년부터 비법화되여 지하에서 활동, 1977년 11월 9일에 합법화되였다. 총비서 나르씨쏘 이싸꼰데, **개혁당** 1964년에 창건된 이 당은 민족부르죠아지와 지주, 승려층으로 구성되였고 1966년부터 집권당, **혁명당, 《6월 14일 혁명운동》, 인민운동, 민족화해운동, 민주통합운동, 전국공민동맹, 기독교사회혁명당, 사회민주동맹, 기독교사회당, 자유진화당, 민주당, 근로자련맹, 공산청년동맹, 녀성련맹**

경제, 사회문화

도미니까는 뒤떨어진 농업국가이다. 경제의 주요부문은 미제를 비롯한 외래독점자본에 예속되여있다.

농업부문에서 로동인구의 3분의 2가 일하며 전체 부침땅의 절반을 450명에 불과한 대토지소유자

들이 독차지하고있다.

이 나라의 주요농작물은 사탕수수, 커피, 코코아, 담배 등 수출작물이다. 기타 농산물은 벼, 강냉이, 감자, 고구마, 나무감자 등이다. 식량은 해마다 적지않게 수입한다. 산간지대들에서는 축산업도 약간 한다.

주로 소, 양, 돼지 등의 집짐승을 기른다. 공업은 아직도 뒤떨어져있기때문에 이 나라 경제에서 큰 몫을 차지하지 못한다. 사탕공업, 채광공업이 기본을 이루며 약간의 가공공업이 있다. 16개의 사탕공장중에서 국가사탕위원회가 12개를, 국내자본가놈들이 3개를, 미제독점회사인 《갈프 앤드 웨스텐》이 1개를 각각 차지하고있다. 1975년에 사탕 총 생산량 120만톤 가운데서 미제독점회사가 그의 28.2%를 차지하였다.

미제와 카나다의 합영회사인 《알 코아》는 45~48%의 알루미니움의 함유량을 가진 보크사이트를 해마다 100만톤씩이나 략탈해가고있다. 미제독점회사의 하나인 《로싸리오 도미니까나》는 1975년 4월부터 이 나라에서 금과 은을 본격적으로 략탈해가고있다.

교통운수에서 기본은 자동차 및 해상 운수이다. 철길의 총연장길이는 1,800km이다.

주요수출품은 사탕(수출총액의 50%이상 차지), 커피(11~12%), 코코아(10%이상), 보크사이트, 담배 등 농산물과 광물이며 수입품은 식량과 천, 기계설비들이다. 주요 무역대상나라는 미국이다.

로동인구의 40%가 실업상태에 있으며 영양부족과 질병으로 어린이들이 죽는 비률이 매우 높다. 15살이상 주민의 36%가 글을 모른다. 대학은 3개뿐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1인당 국민소득은 360딸라정도이다.

출판보도; **신문** 엘 뽀뿔라르(공산당기관지), 리베르따드, 엘. 이. 헤14(《6월 14일혁명운동》기관지), 디아리오 데 라 따르데(인민운동기관지)

방송 도미니까방송, 도미니까텔레비죤방송

뿌에르또 리꼬

(미국식민지)

넓이 8,897km²

인구 303만 1,000명(1974년)

행정중심지 싼 후안(주민 80만 4,700명, 1970년)

자연 및 주민

이 나라는 까리브해의 대안띨제도에 있는 뿌에르또 리꼬섬과 비에께스섬, 꿀레브라섬, 모나섬들로 이루어졌다.

기후는 아열대성기후로서 지역에 따라 차이가 심하다. 한해평균기온은 바다가 지대에서 27°C, 산간지대에서는 20°C이다. 한해에 동북지역에서는 5,000mm, 서남지역에서는 750mm의 비가 내린다. 특히 바다로부터 자주 강한 폭풍이 몰려와 이 나라에서는 많은 재난을 입고있다.

1977년에 넉달이상 계속된 가물로 땅이 바짝 말라버리고 여러 지역에서 물부족으로 물배급제가 실시되였다.

주민의 80%가 에스빠냐혈통의 백인이며 그밖에 흑인과 혼혈인이 산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와 영어이다.

정 치

뿌에르또 리꼬는 1509년부터 에스빠냐식민지로 있다가 미국—에스빠냐전쟁의 결과 1898년부터 미제의 식민지로 되였다.

미제는 1952년 7월 25일 뿌에르또 리꼬에 이른바 《자유련합국》의 지위를 가지는 《내부자치권》을 주고 식민지통치를 계속하고있다.

1976년 11월 2일 총선거에서 뿌에르또 리꼬를 이른바 《미국의 한개 주》로 만들려는 신진보당이 승리하여 이 당의 출신들이 지사를 비롯한 중요한 직책들을 독차지하였다.

미제는 이 식민지령토의 13%이상에 달하는 땅을 저들의 군사기지, 정탐기지로 만들고 상시적으로 수만명의 침략군을 주둔시키고있다.

1976년 12월 31일 미제의 우두머리 포드는 이른바 《성명》을 발표하여 이 나라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려는 속심을 드러냈다.

미국의 이 파렴치한 책동에 항의하여 뿌에르또 리꼬의 각계층인민들은 미제를 견결히 규탄하고 정치적독립을 요구하였다.

뿌에르또 리꼬사회당은 성명에서 미제의 책동을 단호히 규탄하고 뿌에르또 리꼬인민만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뿌에르또 리꼬공산당은 성명에서 미국의 책동은 이 섬의 《장래를 제멋대로 결정하려는 시도》라고 규탄하고 민족적해방을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결의를 표명하였다.

1977년 8월에 진행된 유엔비식민지화특별위원회에서 거의 20개의 사회 및 정치 단체들의 이름으로 연설한 이 나라 대표는 자주권과 자유에 대한 뿌에르또 리꼬인민들의 떼여낼수 없는 권리를 보장할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은 27명, 하원의원은 51명이며 임기는 4년, 《자치권》테두리안에서 립법권을 행사, 최고립법권은 미국국회에, 최종재판심의권도 미국최고재판소에 속한다.

지사 집행권을 행사하며 협상리사회를 책임진다. 임기는 4년, 지사 까를로스 로메로 바르셀로 (1976년—)

협상리사회 지사가 리사회를 지도하며 그가 임명하는 9명의 각료로 구성된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4년에 창건되였다가 1944년에 해산, 1946년에 재건되였으나 현재 비법화, 총비서 프란꿀린 이리자리, **사회당** 1971년 11월에 창건된 애국적정당, 위원장 훌리오 비베스 바스께스, **뿌에르또 리꼬독립운동**, **뿌에르또 리꼬독립당**, **신진보당**(집권당), **인민민주당**, **국가공화당**, **인민당**, **근로자련맹**, **자유근로자련맹**

경제, 사회문화

뿌에르또 리꼬는 식민지농업국가로서 주요농작물은 사탕수수, 담배, 바나나, 커피 등 수출작물이다. 부침땅의 80%를 미제독점회사들이 독차지하고있다.

1977년에 오래 계속된 왕가물로 이 나라의 농민들은 약 4천만딸라의 손실을 입었다.

공업에서도 그의 80%는 미제독점회사들이 거머쥐고있다.

미제는 항공 및 해상 운수의 100%, 상업의 85%, 수출품생산의 90%, 수공업의 81%를 포함하여 전반적경제의 80%이상과 수출의 98%, 수입의 83%를 통제하고있다. 미제는 80억딸라의 막대한 자본을 들이밀어 이 나라 로동력의 81%를 장악통제하면서 해마다 25억딸라의 리윤을 짜내고있다. 미제독점회사들은 아무런 세금도 물지 않고 리윤을 몽땅 긁어가고있다.

15살이상 되는 주민의 약 20%가 글을 모른다.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은 30~35%에 달한다. 60%이상의 주민이 가장 낮은 생활비보다도 적은 돈으로 근근히 살아간다.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로 주민의 20%가 알콜중독자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끌라리다드(사회당기관지), 엘 임빠르씨알(무소속), 엘 문도(무소속), 싼 후안 스타, 엘 디아

방송 뿌에르또 리꼬방송, 뿌에르또 리꼬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1월 후안 마리 브라스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뿌에르또 리꼬사회당대표단, 같은해 5월에 뿌에르또 리꼬독립운동대표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1년 6월에는 뿌에르또 리꼬독립운동 청년대표가 다녀갔다.

트리니대드 토바고

(트리니대드 토바고공화국)

넓이 5,128km²(그중 트리니대드섬은 4,828km²)
인구 106만 4,000명(1974년)
수도 포트 오브 스페인 (주민 9만 3,954명, 1970년)

자연 및 주민

트리니대드 토바고는 까리브해의 서인도제도 남안에 있는 섬나라이다. 트리니대드섬과 토바고섬으로 이루어져있다. 무성한 열대산림이 트리니대드섬의 3분의 1을 덮고있다.

이 나라는 열대기후에 놓여있지만 무역풍의 영향과 해양성을 띠고있기때문에 그리 덥지 않다. 낮에 최고 기온은 35°C, 밤에는 23°C까지 내려간다. 1월부터 5월까지는 가물철, 6월부터 12월까지는 장마철이며 한해평균 비내리는 량은 1,548mm이다.

주민구성은 흑인(47%), 인도사람(35%), 백인(18%)들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정 치

트리니대드 토바고는 영제국주의자들의 오랜 식민지통치밑에서 벗어나 1962년 8월 31일 영련방안에서 독립하였다.

1976년 8월 1일 공화국이 선포되면서 동시에 《총독제》도 없애버렸다. 집권당인 인민민족운동은 1976년 9월 13일 새 헌법에 의한 첫 총선거에서 승리하여 다시 집권당으로 되였다.

9월 22일 윌리암즈를 총리로 하는 새 내각이 구성되였다. 같은날에 진행된 첫내각회의는 영제국주의자들과의 종속적관계를 완전히 끊기로 하였으며 9월 24일을 공화국절(국경절)로 기념하기로 결정하였다.

트리니대드 토바고정부는 1977년에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민족적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이해에 정부는 외래독점체들에 의한 석유자원의 략탈을 끝장내기 위하여 미제의 석유회사 《텍사코》를 몰수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는 한편 외래석유독점체들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또한 정부는 외래제국주의자들이 틀어쥐고있던 관광업을 국유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미국, 카나다 자본가놈들의 큰 려관들을 몰수하였다.

쁠럭불가담운동 성원국인 이 나라는 까리브해지역나라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관계발전을 대외정책의 주요강령으로 제기하였다. 또한 정부는 온갖 형태의 식민주의와 인종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벌리며 완전한 경제적해방을 위하여 싸우는 쁠럭불가담운동 나라들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은 24명, 하원의원은 36명이며 임기는 5년, 1976년 9월 선거에서 인민민족운동이 24석, 통일로동전선이 10석, 민주민족대회는 2석을 각각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 대통령 에리스 클라크

정부 1976년 9월 22일 새 내각구성, 총리 에리크 윌리암즈, 외교부장 카스버트 죠세프

정당, 사회단체; 인민민족운동(집권당), 통일로동전선, 민주민족대회, 민주로동당, 자유당, 인민민주당, 로동대회, 석유로동자로조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주요부문은 석유채취와 그 가공공업, 피치생산이다. 석유밭은 주로 바다가지역들에 있는데 석유문힌량은 탐사된것만도 6억 1천 200만바렐에 달한다. 1977년에는 나라의 동남쪽지역에서 새 석유밭이 마련되였다. 여기에서는 천연가스도 나온다. 피치는 해마다 13만 6천톤정도 생산한다.

정부는 외래제국주의자들의 공장, 기업소들을 국유화하고 놈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한편 국내산원료에 의한 중소규모공업을 발전시키고있다. 그리하여 국영석유회사, 국영사탕회사, 국영연유판매회사, 국영수산물회사 등이 새로 생겨났다. 석유를 원료로 하는 화학공장과 목재대용품공장, 옷공장, 과일가공공장, 물고기가공공장, 신발공장, 농산물가공공장 등이 건설되였다.

세멘트공장, 발전소를 비롯한 중공업기업소들도 있다. 4개의 발전소가 있으며 1976년에 그의 능력은 약 36만키로와트였다.

정부는 특히 경공업과 항공 및 해상 운수발전에 힘을 넣고있다. 1977년에 정부는 해상운수발전을 위한 국영해운기금을 세웠다.

독립전에 이 나라에서는 식민주의자들의 강요로 사탕수수, 코코아, 커피, 귤, 야자, 담배와 같은 몇가지 수출작물만을 심어왔다. 독립후 정부는 알곡생산을 늘여 식량수입을 줄이기 위하여 벼, 콩, 강냉이, 감자 생산에 힘쓰고있다. 1977년에 밭벼면적은 2만 4천에이커였다.

소, 양, 돼지, 닭 등 집짐승을 기른다. 고기수입은 1974년에 1970년에 비하여 38% 줄었다.

국내교통운수에서 자동차운수가 기본이며 대외무역은 해상운수로 진행한다.

주요수출품은 석유와 그 제품(수출총액의 80%이상 차지), 피치, 목재 등이다. 까리브공동시장 성원국들과 협조를 강화하고있다. 화폐는 트리니대드 토바고딸라를 쓴다.

이 나라에는 470개의 초등학교, 100여개의 중학교, 5개의 교원양성소와 1개의 대학이 있다. 교육부문에 남아있는 제국주의, 식민주의 잔재를 청산하며 중등 및 기술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한 15년을 기한으로 한 《교육발전계획》이 실시되고있다. 정부는 1976년에 기술학교 건설에 6억트리니대드 토바고딸라를 돌렸다.

보건부문에는 3천여명의 의료일군들과 16개의 병원, 진료소들이 있다. 1977년에 이 부문에 정부는 1억 1천 930만트리니대드 토바고딸라를 돌리기로 결정하였다.

출판보도; 신문 이브닝 뉴스(무소속), 가디언(무소속), 엑스 쁘레쏘

방송 트리니대드방송, 트리니대드 토바고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5년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이 나라 대표는 43개유엔성원국들이 공동발기한 우리측 결의안에 동정과 리해를 표시하였다. 같은해 8월에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트리니대드 토바고를 방문하였다.

그레네이더

(그레네이더공화국)

넓이 345km²
인구 11만명(1974년)
수도 쎈트 죠지스

자연 및 주민

까리브해의 서인도제도의 동남부에 자리잡고있다.

주민의 80%가 흑인이며 공용어는 영어이나 프랑스어를 기본으로 하는 사투리도 쓴다.

정 치

17세기초부터 영국과 프랑스의 침입을 받아왔으며 1783년에는 영국식민주의자들에게 강점당하였다. 이때로부터 200년간 놈들의 식민지통치를 받았다.

1967년부터 《내부자치》를 실시하여온 이 나라는 1974년 2월 7일 영련방성원국으로 독립하였다. 1974년 9월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 유엔성원국으로 되였으며 1975년 8월에 쁠럭불가담운동 옵써

버로 되였다.

1976년 8월 제5차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 옵써버의 자격으로 참가하였다.

같은해 12월 7일 총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에서 통일레이버당이 다시 승리하여 집권당으로 되였다.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은 13명, 하원의원은 15명이다. 하원 임기는 5년, 1976년 12월 7일 총선거 진행, 통일레이버당이 9석(이전의석 13석) 차지

정부 총리 에리크 매듀 게어리(1976년 12월 재선)

정당, 사회단체; 통일레이버당(집권당), 국민당

경제, 사회문화

농업을 위주로 하고있으며 주로 육두구(향료의 일종), 코코아, 바나나 등 3대수출작물과 그밖에 사탕수수와 목화를 가꾼다.

육두구는 이 나라의 특산물로서 세계 총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때문에 이 나라는 《향료의 섬》이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까리브공동시장 성원국들과 미국, 영국, 카나다이다.

관광업이 외화수입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였으나 독립후 국내정세의 불안정으로 수입원천이 줄었다.

인구 한사람당 국민소득은 300딸라에 지나지 않는다. 주민들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인디안, 가벤도(정부주간잡지)

방송 라지오방송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공화국)

넓이 91만 2,050km²

인구 1,199만 3,000명(1975년 6월)

수도 까라까스(주민 217만명, 1970년)

자연 및 주민

남아메리카의 북부에 자리잡고있는 베네수엘라는 까리브해에 면하고있으며 가이아나, 브라질, 꼴롬비아와 잇닿아있다.

이 나라는 적도에 가까운 열대권에 놓여있기때문에 낮은지대는 무더우나 높은지대에 올라가면 그리 덥지 않다. 한해평균기온은 25～29°C이다.

5월부터 10월까지는 장마철(여름)이고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가 가물철이다. 한해평균 비내리는 량은 북부지방에서 2,000～3,000mm, 중부지방에서 1,000mm정도이다.

주민구성은 혼혈인 65%, 백인 20%, 흑인 8%, 인디안 7%이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정 치

베네수엘라는 1550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11년 7월 5일 독립을 쟁취하였다.(1930년에 공화국 수립)

1973년 12월 9일 총선거에서 민주행동당이 상하원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여 집권당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베네수엘라독립절에 즈음하여 이 나라 대통령에게 보내신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선인민은 베네수엘라인민이 대통령각하의 령도밑에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며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그들의 정당한 위업에 굳은 련대성을 표시합니다.》

1974년 3월 12일 까를로스 안드레스 뻬레스가 대통령으로 된 이후 이 나라 정부와 인민은 《제국주의자들에게 나라가 예속되는것을 반대하는 자주적인 정책》을 실시하면서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며 경제적해방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4년 12월 7일 철광업을 국유화할데 관한 법령이 발포된 후 정부는 1975년 1월초에 그에 대한 국유화를 실시하였다.

1975년 8월 29일 이 나라 대통령은 석유공업의 국유화법안에 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1976년 1월 1일에 60년동안 나라의 석유자원을 략탈하여간 미제와 외래독점체들의 석유회사들과 그의 모든 재산을 몽땅 국유화하였다.

1977년 1월 이 나라 대통령은 성명에서 석유공업과 철광공업이 국유화됨으로써 베네수엘라 인민은 석유산지를 자체로 개발할수 있게 되였으며 철광공업을 자체로 운영할수 없다고 하던 제국주의자들의 궤변을 짓부셔버렸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나라의 주요자연부원을 자주적인 경제발전에 복무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뒤이어 대통령은 1월 23일에 한 연설에서 정부의 기본목적은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있다고 지적하고 농업개혁과 공업체계창설을 통하여 경제를 계속 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5월 26일에 농업발전을 위하여 일련의 주들에서 지주놈들의 토지를 몰수할데 관한 법령이 채택되였다. 또한 정부는 11월에 200마일 경제수역을 설정할데 대한 법안을 토의채택하였다.

대외관계분야에서 베네수엘라정부는 제국주의,

식민주의적 침략과 략탈을 반대하고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를 세우기 위하여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과의 친선협조관계를 확대강화하고있다.

3월에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편지에서 라틴아메리카의 운명 특히 베네수엘라의 운명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수립을 위한 투쟁과 련결되여있다고 하면서 라틴아메리카경제체계가 라틴아메리카통합을 위한 믿음직한 기구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4월에 있은 제1차 라틴아메리카 및 까리브지역나라들의 계획부장회의 개막식에서 그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수립을 호소하였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7월에 한 기자회견에서 운하지대를 되찾기 위한 빠나마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면서 《미씨시삐강이 미국의것인것과 마찬가지로 빠나마운하는 빠나마의것》이며 운하지대는 빠나마에 반환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 나라 대통령은 아프리카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지지하면서 10월에 한 연설에서 베네수엘라는 로데시아의 비법적인 스미스인종주의정권을 반대하는 경제적제재조치를 견결히 지지할것이라고 말하였다.

1977년에 베네수엘라대통령은 쿠웨이트(4월), 이란(4월), 알제리(5월) 등 일련의 나라들을 방문하였다.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석은 49석, 하원의석은 200석이며 임기는 각각 5년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5년, 1974년 3월 정부 구성후 1975년 1월 23일 다시 조직, 대통령 까를로스 안드레스 뻬레스(1974년 3월 12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1년 2월 지하에서 공산주의자들의 그루빠가 조직된후 1937년 8월에 창건, 1977년 9월에 제8차전국대표자회 진행, 위원장 구스따보 마챠도, 총비서 헤쑤스 파리아, **민주행동당**(집권당), **기독교사회당**, **좌익혁명운동**, **인민선거운동**, **공화민주련맹당**, **《새력량》**, **근로자통일중앙** 1976년 3월에 제7차대회 진행, **로조총련맹**, **농민련맹**, **공산주의청년동맹** 1976년 9월에 제4차대회 진행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은 석유공업(석유매장량 약 25억톤)과 철광업(철광석매장량 10억톤)이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적인 석유생산 및 수출국의 하나로서 라틴아메리카대륙의 원유채취량의 60%이상을 차지한다.

석유는 국가예산의 70%, 외화수입의 90%이상을 보장한다.

1976년 1월 1일 미제의 석유회사를 포함한 외국석유회사들에 대한 국유화조치이후 하루 350만바렐의 생산능력을 가진 생산시설, 하루 160만바렐의 가공능력을 가진 12개의 석유가공공장을 비롯하여 석유발, 저장 및 항만 시설 등을 국영석유회사가 관리운영하고있다.

1976년에 하루평균 230만바렐의 석유가 생산되였고 한해동안에 390억볼리바르어치의 석유가 수출되였다.

1977년에는 하루평균 224만바렐의 석유가 생산되였다. 석유탐사에는 5억볼리바르가 돌려졌다. 또한 같은해에 원유가공공장들을 확장하고 그 가공능력을 늘이기 위하여 관심을 돌린 결과 원유가공능력은 하루 150만바렐이였다.

국유화된 미제의 철광독점회사의 철광석매장지와 그 채취설비들은 1975년 12월 11일에 새로 내온 국영오리노꼬철광회사가 관리운영하고있다.

공업부문에는 그밖에 세멘트, 합성수지, 방직, 유리, 종이, 화학, 전기기계, 금속가공, 축산물가공, 농산물가공, 식료가공 공장들과 발전소 등이 있다.

베네수엘라는 중소규모의 공업발전에 힘을 넣고있다. 중소규모공업발전회사가 창설된 1974년 7월부터 1977년 2월중순까지 중소규모의 공업과 수공업 발전에 15억볼리바르의 자금이 투자되였다.

이 나라의 894개의 공업기업소중 그 대부분이 새로 건설된 중소규모의 공업기업소들이다.

베네수엘라국영개발회사는 1946년에 창설된이래 1977년말까지 175억 4천 400만볼리바르의 자금을 공업과 건설부문에 돌렸다. 그중 66억 9천 200만볼리바르는 1974년부터 1977년까지의 기간에 새로운 기업소건설에 돌렸다. 뒤떨어진 내륙지방의 공업발전에 힘을 넣고있는 정부는 이미 여러개의 공업지구를 창설하였으며 1975년부터 1976년기간에 새로운 공업설비의 89.13%를 내륙지방에 설치하였다.

농업은 아직 뒤떨어져있으며 주민의 40%가 이 부문에서 일한다. 1천 700만헥타르의 방목지와 목장, 160만헥타르의 부침땅이 있다. 이 모든것의 80%는 지주놈들과 미국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었다.

1977년 5월 25일 일련의 주들에서 지주놈들의 토지를 몰수할데 대한 법령에 의하여 26만 7천헥타르의 땅이 농민공동체들에 넘어가게 되였다.

주요농작물은 코코아, 커피, 바나나, 담배, 목화, 사탕수수 등 수출작물이며 식량은 아직 수입에 의존한다.

농업에서 축산업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를 위주로 하는 돼지, 염소 등이다.

주요수출품가운데서 원유와 그 가공제품이 기본을 이루며 그밖에 철광석, 커피, 코코아, 사탕, 가죽 등도 수출한다. 주요수입품은 농기계, 광산기계, 전기기계, 운수수단, 식량, 식료품, 소비품, 건재품 등이다.

교육, 보건분야에서도 성과들이 이룩되였다.

1973년부터 1976년까지의 기간에 38만 7천 300여명의 학생을 수용할수 있는 많은 교실들이 새로 건설되였다. 또한 같은기간에 2천 200여개의 침대를 가진 병원들이 건설되였다.

주민의 대다수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뜨리부나 뽀쁄라르(공산당기관지), 이스끼에르다(좌익혁명운동기관지), 엘 나씨오날(무소속), 엘 문도(무소속), 울띠마스 노띠씨아스, 라 따르데

방송 베네수엘라국립방송, 국립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10월 28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6년 5월 28일 조선통일지지베네수엘라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7년 9월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베네수엘라중앙종합대학 철학부장이 참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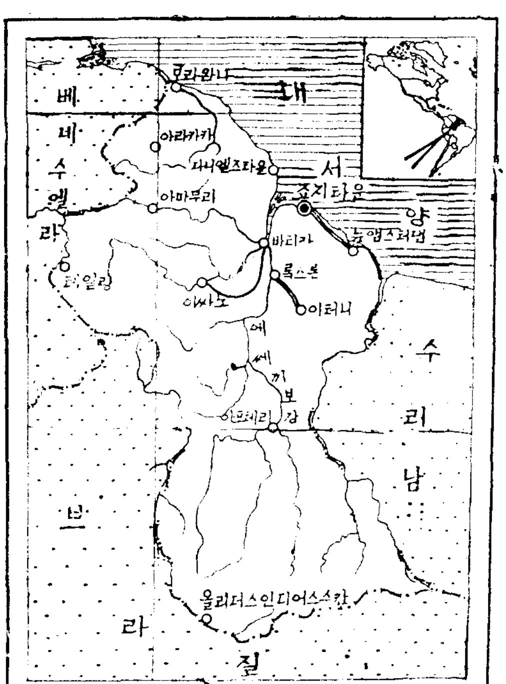
가 이 아 나

(가이아나협동공화국)

넓이 21만 4,969km²

인구 77만 4,000명(1974년)

수도 죠지타운(주민 19만 5,250명, 1970년)



자연 및 주민

남미대륙의 동북쪽 대서양연안에 자리잡고있다.

날씨는 사철 무덥다. 4~8월, 11~1월은 장마철이다. 한해동안에 2,000mm의 비가 내린다. 한해 평균기온은 26~28°C이다.

주민의 50%는 인도계사람들이며 그밖에 흑인(32%), 인디안, 혼혈인 등이 산다.

영어가 공용어이다.

정 치

영제국주의식민지통치밑에서 가이아나인민은 1966년 5월 26일 정치적독립을 이룩하였다. 1970년 2월 23일 협동공화국이 선포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가이아나인민은 인민민족대회당의 올바른 령도밑에 자력갱생의 구호를 높이 들고 자립적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건설하며 독창적인 〈협동적사회주의〉로선을 실현해나가고있습니다.》

가이아나정부는 《협동적사회주의》로선을 제기하고 외래독점회사들을 국유화하여 민족경제를 공고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1975년에 미제의 《레이놀즈》광업회사, 1976년 5월에 영제국주의자들의 《부커 맥커널》독점회사 등을 국유화함으로써 1977년현재 민족경제의 80% 이상을 국가가 틀어쥐게 되였다. 가이아나정부는 공업과 농업의 주요제품생산과 수출을 완전히 틀어쥐고있으며 1976년 9월 은행국유화방침을 내놓고 재정금융분야에서도 제국주의자들의 금융기관활동을 제한하고 국영 은행, 보험회사들을 창설하였다.

1977년 6월 3일 민족회의는 12마일령해를 포함한 200마일 경제수역설정을 규정한 새 해상경계법을 채택하여 령해와 바다자원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대외관계분야에서도 가이아나정부는 쁠럭불가담정책을 견지하면서 까리브해지역 나라들의 단결과 쁠럭불가담나라들의 반제공동위업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있다.

1973년 8월 1일 까리브 공동체와 공동시장에 가입하였다. 그의 본부는 이 나라 수도에 자리잡고있다.

1976년 8월에 진행된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 정부 총리가 참가하였다.

1977년에 이 나라는 3월에 불가리아, 7월에 앙골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1월에 칠레파쑈정권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이해에 가이아나 대통령이 중국(4월), 유고슬라비아(5월)를, 총리가 꾸바(7월)를 각각 방문하였다.

민족회의 의원은 53명이고 임기는 4년, 1973년 7월 선거에서 인민민족대회당이 37석, 인민진보당이 14석, 통일력량당이 2석을 각각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민족회의에서 6년임기로 선거, 대통령 아써 총(1970년 3월—, 1976년 3월 12일 다시 선거됨)

정부 1973년 7월 22일 구성, 총리 린든 포베스 쌤프슨 번함(1964년 12월—, 1973년 7월—)

정당, 사회단체; 인민민족대회당(집권당) 1955년에 창건, 《맑스-레닌주의의 과학적원칙에 의하여 지도되며 사회주의를 자기 사상》으로 한다고 주장, 1977년 8월 제2차당대회 진행, 지도자 린든 포베스 쌤프슨 번함, 위원장 비.람싸르프, 총비서 프틀레미 알렉싼데 레이드, **인민진보당** 1950년에 창건, 1976년 7월에 제19차당대회 진행, 총비서 체디 쟈간, **통일력량당, 로조대회, 인민진보청년동맹** 1976년 4월 제19차대회 진행, **사회주의청년운동** 인민민족대회당소속 청년단체, 1977년 4월 제 1차대회 진행, **평화단결위원회**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과 채취공업이다. 로력자의 80%가 농업부문에서 일한다. 주요농작물은 사탕수수와 벼 이외에 야자열매와 귤이다. 독립후 강냉이, 밀, 콩, 감자도 심는다. 전체 부침땅의 90%에 해당하는 해안지대에서는 사탕수수와 벼를 주로 심는다. 1975년에 벼 18만 3천톤, 강냉이 1천 200만폰드, 감자류 6천 300만폰드를 생산하였다.

1976년현재 약 30만마리의 큰뿔가진 집짐승과 20만마리의 돼지와 양이 있었다.

독립후 토지개혁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들과 국영농장들이 조직되였다. 1977년에 정부는 가물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내왔다.

정부는 제3차5개년(1977—1981년)계획기간에 식량문제를 풀것을 제기하였다.

공업부문에서 보크사이트채취공업과 그 가공공업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보크사이트문헌량은 약 3억 5천만톤에 달하며 그 생산량은 자본주의세계에서 4~5번째자리를 차지한다. 또한 지하자원으로서 망간, 금, 금강석, 몰리브덴, 석유가 있다.

사탕공업과 목재가공공업이 또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해마다 약 40만톤의 생산능력을 가진 16개의 사탕공장이 있다. 1년에 약 30만립방메터의 켜 목재를 생산한다.

1천 500개의 작은 공장들과 손로동작업소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주로 생산한다.

1975년현재 크고작은 1천 300척의 고기배와 4개의 물고기가공공장이 있었다. 1975년에 왕새우를 포함하여 3천 500만폰드의 물고기를 잡았다.

정부는 제3차5개년계획기간에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쌓을것을 제기하였다.

보크사이트, 알루미니움, 사탕, 목재를 수출하고 기계설비, 화학제품, 운수수단, 연료, 여러가지 완제품을 사들인다. 주요무역대상나라들은 영국, 미국, 카나다였다. 최근년간 까리브공동체나라들,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이 늘고있다.

교육분야에는 1977년현재 518개의 초등 및 중등학교가 있었다. 학생수는 약 22만명이였다. 종합대학에서는 1천 200명이 공부하였다. 새 교과서들과 교재들이 편찬되고있다.

1976년에 3천 580만가이아나딸라가 보건분야에 지출되였다.

정부는 민족문화와 체육활동을 통한 민족자주의식을 높이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다. 1977년에 전국예술축전, 전국미술전람회가 진행되였다.

출판보도; 신문 선데(인민진보당기관지), 뉴네이슌(인민민족대회당기관지), 썬(통일력량당기관지), 가이아나 크로니클, 데일리 크로니클, 그라피크, 이브닝 포스트, 미러, 썬데이 크로니클

방송 가이아나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우리 나라와 가이아나사이에는 1974년 5월 18일 대사급 외교관계를, 1973년 4월에 무역협정과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만을 전문으로 보급하는 서점이 수도 죠지타운에 있다.

1977년 6월 10일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연구쎈터》가, 7월 20일 조선통일지지가이아나위원회가 수도 죠지타운에서 각각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1977년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가이아나협동공화국 대통령 아써 총과 그 부인이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하였다.

이해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이아나대통령에게 보내신 선물영화 《가이아나인민의 친선의 사절》을 전달하는 모임이 이 나라 대통령궁전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주체사상에 관한 토론회가, 조선로동당창건 32돐과 공화국창건 29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이 나라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4월 14일 가이아나사회주의청년운동 제1차대회 참가자들은 성대한 집회를 가지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수도 죠지타운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월간이 진행되였다.

8월에 있은 인민민족대회당 제2차대회에서

이 당 지도자인 정부 총리는 연설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4월에 가이아나사회주의청년운동 제1차대회에서는 조선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였다.

1977년 9월에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가이아나정부대표단이 참가하였다. 6월에 가이아나민족간부양성경험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같은해 8월에 조선로동당대표단, 4월에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대표단이 가이아나를 방문하였다.

수 리 남

(수리남공화국)

넓이 16만 3,265km²
인구 43만 2,000명(1973년)
수도 파라마리보(주민 15만명)

자연 및 주민

남아메리카대륙의 동북부에 자리잡고있으며 동쪽에는 프랑스령 가이아나, 서쪽은 가이아나, 남쪽은 브라질, 북쪽에는 대서양이 있다.

날씨는 무덥고 습기가 많다. 한해 평균기온은 26～28°C이다. 한해동안에 평균 2,300mm의 비가 내린다.

주민은 흑인(약 42%), 인도사람(35%), 인도네시아사람(17%)들이며 그밖에 백인, 인디안들도 있다.

공용어는 화란어이며 주민들은 각기 자기 민족어를 쓰기도 한다.

정　　치

1667년 《브레다조약》에 의하여 화란식민지로 되였다. 1816년부터 화란령가이아나로 불리여오다가 1948년에 나라이름을 수리남으로 고쳤다.

수리남은 1954년부터 《내부자치》를 실시하였다. 1973년 1월과 2월에 있은 전국적인 총파업에 의하여 식민지통치지반은 허물어지기 시작하였다.

1973년말에 새 총리로 된 헨크 아론을 수반으로 하는 자치정부는 완전한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였다.

수리남은 1975년 11월 19일 국회에서 새 헌법을 채택하고 나라의 이름을 수리남공화국으로 부르기로 결정하였다. 11월 25일 독립을 선포하는 의식에서 총리는 정부가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1976년 3월에 수리남정부는 200마일령해권을 선포하였다.

1977년 1월 총리 헨크 아론은 방송연설에서 200마일령해안에서 나라의 자주권과 경제적리익을 지켜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또한 그는 경제의 락후성을 극복하고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발표하면서 선박, 항공, 재정기관을 비롯한 중요한 부문들을 국유화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1977년 10월에 독립후 처음으로 되는 총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에서 아론총리가 이끄는 수리남국민당을 중심으로 하는 4당련합이 39석중에서 24석을 차지하였다. 야당 통일민주당의 련합은 15석을 차지하였다.

수리남은 1977년 7월에 웽그리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4년에 수리남은 국제보크사이트생산국협회, 1975년 12월에 유엔 등 국제 및 지역적 기구들에 가입하였다.

국회 일원제, 39명의 의원들로 구성, 1977년 10월 31일 총선거 진행

정부 총리 헨크 아론(1977년—)

정당, 사회단체: 수리남국민당(집권당), 통일민주당, 국민진보당, 수리남민주당, 민족공화당, 진보로동자조직, 광업로동자동맹

경제, 사회문화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뒤떨어진 경제를 물려받았다. 주민의 70%가 농사하며 부침땅은 주로 북부의 해안선을 따라 길게 자리잡은 낮은 지대에 집중되여있다.

주요농작물은 벼이다. 그밖에 강냉이, 사탕수수, 감자, 남새, 바나나, 커피, 코코아를 가꾼다.

정부는 알곡생산에 힘을 넣고있다. 1976년초 화란자본의 벼농장을 몰수하였다. 땅이 좋은 콤메웨인지역을 일구고있다.

공업에서 보크사이트채굴과 그 가공공업, 그리고 금채취가 큰 몫을 차지한다.

보크사이트문힌량은 약 7억톤에 달하며 해마다 약 600만톤이 생산된다. 해마다 약 300만톤의 보크사이트와 그 가공제품이 수출된다. 이것은 수출총액의 90%를 차지한다. 국민소득에서 광업이 35%이상 차지한다.

아론정부는 1974년 4월 미제의 《레이놀즈》금속회사와 공동으로 경영하던 보크사이트공장을 독자적으로 경영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같은해 11월과 12월에 정부는 미제의 수리남보크사이트회사와 화란의 《빌리톤》광업회사에 대한 세금을 높이였다.

가공공업은 미약하며 소규모의 알루미니움가공공장, 목재 및 식료 가공공장들이 있다. 반수공업적으로 사탕, 람술도 생산한다. 령토의 약 80%가 열대림으로 뒤덮여있어 질좋은 목재들이 많이 생산된다.

철길은 담과 파라마리보까지를 련결하는 한줄기뿐이며 그 연장길이는 170키로메터에 불과하다.

주요수출품은 보크사이트, 알루미나, 알루미니움덩이, 사탕, 커피, 목재 등이다. 식량을 비롯한 옷, 생활필수품을 수입한다.

주민들은 자기 민족적종교형식을 따른다.

출판보도; 신문 데 와레 티즈드, 데 웨스트, 수리남

방송 수리남방송, 수리남텔레비죤방송

프랑스령 가이아나

넓이 9만 1,000km²
인구 5만 8,000명(1974년)
행정중심지 까옌느(주민 약 2만 4,500명)

자연 및 주민

남아메리카대륙의 북부에 자리잡고있으며 대서양을 끼고있다.

열대성기후로서 무덥고 비가 많이 내린다. 년평균기온은 28°C이며 6월부터 11월까지는 가물철,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는 장마철이다.

주민은 인디안, 흑인, 백인(프랑스사람들의 후손) 등이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정 치

1674년에 프랑스의 속령으로 되였으며 1870년부터 총독통치가 실시되였다.

이 나라는 1946년에 프랑스의 해외현으로 되였다.

1975년 8월 이 나라 독립운동단체의 하나인 《비식민지화운동》의 지도자는 《미개발천연자원개발》이라는 이름밑에 프랑스사람들을 이 나라에 대대적으로 이주시키려는 프랑스의 책동을 견결히 규탄하였다.

같은해 12월에 진행된 제10차영련방까리브지역국가 정부수반회의 참가자들은 프랑스가 프랑스령 가이아나의 독립을 억제하고 3만명의 프랑스사람들을 이 나라에 이주시키려는 책동을 단호히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식민지통치기구 프랑스정부가 임명한 지사가 실권을 장악하고있다. 지사밑에는 15명으로 된 총무회의가 있다.

정당, 사회단체; 가이아나사회당, 사회당, 인민동맹당, 비식민지화운동(독립운동단체), **로조련맹**

경제, 사회문화

이 나라는 뒤떨어진 식민지농업국가이며 경제적으로 프랑스에 완전히 예속되여있다.

경제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것은 금채취와 림업이다. 령토의 90%이상이 울창한 밀림지대이며 질좋은 목재가 많이 생산되고있다.

농작물로서 사탕수수, 나무감자, 바나나, 파이내플, 코코아와 같은 열대농작물과 벼, 강냉이 등의 알곡작물을 가꾼다.

소, 돼지 등의 집짐승을 주로 기른다.

공업부문에서는 사탕, 람술, 목재가공 공장 등 보잘것없는 기업소들이 약간 있을뿐이다.

주로 목재, 람술을 수출하고 식량, 기계류, 석유제품, 세멘트 등을 수입한다. 대외무역은 프랑스가 독점하고있다.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매우 낮으며 천주교도가 주민의 80%를 차지한다.

출판보도; 신문 라 쁘레스 드 가이아나

방송 가이아나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

브 라 질

(브라질합중국)

넓이 851만 1,965km²
인구 1억 973만명(1977년)
수도 브라질리아(주민 54만 5,000명, 1970년)

자연 및 주민

브라질은 남아메리카대륙의 동북부에 자리잡고있다.

땅이 크기때문에 열대, 아열대, 온대권에 다 속한다.

1~5월 사이가 장마철이며 강수량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 나라에는 4만여종의 특이한 동식물이 있다.

주민은 백인(61.7%), 흑인(11%), 혼혈안(26.5%), 기타(0.8%)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뽀르뚜갈어이다.

정 치

브라질은 16세기초에 뽀르뚜갈식민지로 된후 1822년 9월에 독립하고 1891년에 나라이름을 《브라질합중국》으로 선포하였다.

전후 브라질에 대한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정치, 경제적 침투가 강화되였다.

1974년 1월 15일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에르네스또 게이젤이 2월 21일에 새 정부를 구성하였다. 11월 15일 상하원선거에서 집권당인 민족부흥동맹이 승리하여 다수의석을 차지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라틴아메리카에서도 제국주의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지배권은 련이어 무너지고있습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문헌집》, 51폐지）

1977년에 브라질과 미국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였다.

미국의 내정간섭에 항의하여 3월 5일 브라질은 미국으로부터 1978년에 받기로 한 5천만딸라의 군사《원조》를 그만두기로 하였다. 뒤이어 3월 11일에는 1952년 3월 15일에 체결된 미국과의 《호상방위조약》을 폐기한다는것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였다. 또한 9월에 브라질은 미해군대표부를 브라질에 둘데 대한 1942년협정, 《브라질—미국합동군사위원회》와 미국에 있는 《방위합동위원회》의 기구에 관한 1952년협정들, 군사협정의 테두리안에서의 물자공급에 관한 1967년의 합의와 1952년 《지도제작에 관한 협정》 등을 취소한다는것을 미국에 알리였다. 이리하여 브라질과 미국과의 관계는 《가장 나쁜수준》에 이르러 미국은 1977년 11월에 국무장관을 포함한 일련의 대표단을 보내여 브라질을 달래보려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977년에 브라질은 헌법을 고치고 대통령임기를 5년으로부터 6년으로 연장하는 등 정치, 사법면에서 개혁을 실시하였다.

한편 정부의 《국가안전법》을 반대하는 대학생들과 각계각층 근로자들의 투쟁이 년중 계속되였다.

국민회의 상하량원제, 하원의원은 364명이며 임기는 4년, 상원의원은 66명이며 임기는 8년이다. 집권당인 민족부흥동맹은 하원에서 196석, 상원에서 21석을 차지(하원에서 11석은 미정)

대통령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6년, 대통령 에르네스또 게이젤(1974년 3월 15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2년 3월 25일 창건, 1965년 10월 군사정변후 비법화되여 지하활동, **민족부흥동맹** 1966년에 무어진 집권당, **브라질민주운동** 1966년에 무어진 유일한 합법적야당, **공업로동자전국련맹**, **상업일군전국동맹**, **륙운로동자전국련맹**

경제, 사회문화

외래독점자본에 심히 예속된 농업—공업국가이다.

농업부문에서 로력자의 50%가 일하고있다. 주민의 2%에 불과한 대토지소유자들이 80%의 좋은 부침땅과 넓은 방목지를 독차지하고있다. 또한 600만정보의 땅을 외래독점회사들이 거머쥐고있다.

1976년에 일본독점재벌놈들이 《공동개발》이라는 간판밑에 중부 브라질의 5만헥타르에 달하는 땅에 손을 뻗쳤다.

주요농작물은 커피, 코코아, 사탕수수, 목화, 담배, 바나나 등 수출작물과 강냉이, 벼, 밀, 콩 등의 알곡작물이다. 커피생산량(년산 100만～160만톤)은 세계 첫자리를 차지하며 이것은 세계 커피생산량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코코아(20만톤이상)는 세번째자리를 차지한다.

1977년 5월에 추위가 불의에 들이닥쳐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커피생산에서 기본을 차지하는 빠라나주와 기타 일부지역들에서 기온이 31도나 떨어져 커피나무의 20%가 얼어죽었다. 남쪽의 일부 지역들에서는 기온이 령하 4도로 내려가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었다.

강냉이 헥타르당 생산량은 1975년에 1.46톤, 1976년에 1.34톤이였다. 이 나라에서는 고무나무도 기르는데 1975년에 2만 1천톤의 고무를 생산하였다.

공업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비교적 발전한 편이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되여있다.

미국, 서독, 일본의 독점자본은 야금, 금속가공, 자동차 및 전기기계 등 주요기간공업부문을 틀어쥐고있다. 500개이상의 외래독점회사들과 36개의 외국은행지점들이 활개치고있다.

미제는 이 대륙에 200억딸라의 자본투자총액중 40억딸라를 브라질에 투자하고있다.

브라질은 동력과 원료를 석유에 많이 의존한다. 그러나 국내석유생산은 수요의 20%를 겨우 충족시키고있다.

브라질대외의존후과로 대외빚은 1977년에 290억딸라에 달하였다.

주요수출품중에서 커피(원료), 코코아, 사탕, 목화는 전통적인 품목이며 자동차와 그 부속품, 커피가루, 신발 등은 비전통적품목이다.

주요수입품은 식량을 포함한 식료품, 기계설비, 운수수단, 화학제품, 공업원료와 연료 등이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미국, 서독, 일본이다.

1977년에 브라질은 미국과의 무역을 절반이상 줄이고 서구라파나라들에 대한 수출을 28%로부터 35%로 늘이였다. 동구라파 사회주의나라들과 중국과의 무역액도 늘이였다.

이 나라의 교육문화수준은 대단히 낮다. 7살이상주민의 50%가 글을 모른다. 7살부터 14살에 이르는 590만명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못가는 형편이다.

주민의 5%에 달하는 소수의 특권계층이 정치, 경제적실권을 쥐고있다.

1977년 1월에 물건값이 비싸졌다. 고기값은 평균 21.5%로 올라갔으며 천을 비롯한 전반적물건값도 올라갔다.

출판보도; 통신 아헨씨아 나씨오날(정부통신) **신문** 오 에스따도 데 싼 빠울로(무소속), 조르

날 도 브라질, 오 글로보, 디아리오 데 브라질리아, 디아리오 데 노며씨아스, 죠르날 데 브라질리아

방송 브라질문화방송, 브라질전국텔레비죤방송

꼴롬비아

(꼴롬비아공화국)

넓이 113만 8,914km²
인구 2,589만명(1977년 2월)
수도 보고따(주민 300만명, 1974년 10월)

자연 및 주민

꼴롬비아는 남아메리카의 북서부에 자리잡고 베네수엘라, 브라질, 에꽈도르, 뻬루, 빠나마와 국경을 같이하고있으며 서쪽은 태평양, 북쪽은 까리브해를 끼고있다.

북부는 산악지대이고 동부 및 남부는 낮은지대로 되여있으며 산악지대에는 5,000m를 넘는 불산과 사화산들이 있다.

이 나라에서는 대체로 철의 구별이 없고 다만 3개월을 주기로 장마철과 가물철이 반복된다.

한해 평균기온은 열대, 아열대지역에서 22~23°C, 온대지역에서 16~22°C이다.

한해평균강수량은 태평양기슭과 아마존강류역에서 3,000mm, 산지대에서 10,000mm, 북동부에서 150~200mm이다.

주민은 인디안과 에스빠냐혈통의 혼혈인 68%, 백인 20%, 인디안 7%, 흑인 5% 정도이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정 치

16세기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통치를 받아온 꼴롬비아는 1819년 7월 20일 독립하였다.

독립후 꼴롬비아는 정치적불안정으로 하여 70년동안에 27차례의 내란을 겪었으며 경제는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예속되고 인민들은 기아와 빈궁속에서 시달렸다.

제2차세계대전후 꼴롬비아인민은 미제와 친미독재정권을 반대하여 1948년부터 무장유격투쟁을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나라의 넓은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한편 두 부르죠아정당인 보수당과 자유당은 정치적동맹을 맺고 국가권력기관을 독점하여왔다.

1974년에 진행된 대통령 및 국회 선거에서 자유당 출신인 알폰쏘 로뻬스 미첼쎈이 대통령으로 되였으며 자유당, 보수당 련립정부가 수립되였다.

그러나 생활처지의 개선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투쟁이 날로 높아감에 따라 그에 대한 반영으로 정부위기도 잦아졌다. 1976년 10월에 내각이 개조된이래 1977년에는 9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정부가 다시 조직되였다.

이에 앞서 9월 14일과 15일 이틀동안에 걸쳐 근로자들의 총파업이 일어났다.

1977년 8월 꼴롬비아의 수도에서 1978년에 있을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야당들의 대회가 진행되였다. 공산당을 포함한 여러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을 망라한 대회에서는 행동강령이 채택되고 야당유일대통령립후보자가 선출되였다.

꼴롬비아는 대외적으로 빠나마운하에 대한 빠나마인민의 자주권을 지지하며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비핵지대의 창설,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수립을 주장하고있다.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은 112석이며 임기는 4년, 하원은 199석이며 임기는 2년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4년, 대통령 알폰쏘 로뻬스 미첼쎈(1974년 8월 7일 —)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0년 7월 17일 창건되여 1948년부터 비법화되였다가 1958년부터 합법화, 총비서 힐베르또 비에이라, **자유당**(집권당), **보수당**(집권당), **인민자유혁명운동**, **전국인민동맹**, **기독교민주당**, **근로자로조련맹**, **근로자동맹**, **전국농업로동자련맹**, **공산주의청년련맹**, **민주녀성동맹**, **자유청년련맹**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70%가 농업부문에서 일하며 농업과 채굴업이 경제에서 기본을 이루고있다. 주민의 3%밖에 안되는 지주들이 전체 부침땅의 약 65%를 차지하고있는가하면 거의 85%에 달하는 농민들은 부침땅의 15%밖에 가지지 못하고있다.

농업이 국민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몫은 30%에 불과하지만 외화벌이에서는 큰 몫을 담당한다.

주요농작물은 커피, 바나나, 사탕수수, 목화, 강냉이, 벼, 밀, 감자, 코코아, 콩류, 담배 등이다.

꼴롬비아는 세계적으로 브라질다음가는 커피생산국이며 그 품질에 있어서는 첫자리를 차지한다. 그 생산량은 1975년에 812만포대(1포대는 60키로그람)였다. 그밖에 같은해에 72만 3천톤의 강냉이, 161만 4천톤의 벼가 생산되였다.

젖소, 양, 염소를 위주로 하는 집짐승은 동북부의 산간지대에서 많이 기른다. 1975년에 양과 염소의 마리수는 254만 7천마리였다.

커피를 포함한 이 나라의 농산물과 축산물은 수출총액의 85%를 차지하였으나 1976년 7월부터 1977년 5월까지 계속된 가물로 그 생산량이 줄었다. 그리하여 꼴롬비아는 알곡을 포함한 농산물과

축산물을 수입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공업은 국민총생산액의 20%정도를 차지한다. 주요공업부문은 커피가공, 식료, 방직, 화학, 원유 채취 및 그 가공, 제약, 피복, 청량음료, 세멘트, 가죽이김, 도자기, 유리 등이다. 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채취공업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원유, 보크사이트, 린산염, 금, 은, 백금, 철, 취옥(보석의 일종), 석탄, 돌소금 등이다.

1976년에 꼴롬비아에서 매판자본가들의 리윤은 30% 늘어났으나 중소기업체들은 경영난으로 많이 파산당하였다.

꼴롬비아정부는 자기 나라에서 활동하고있는 외래독점회사들과 은행들에 대한 통제를 점차 강화하면서 1977년 1월 주권의 51%를 꼴롬비아사람들이 차지하도록 하였다.

국내수송에서 철도, 하천 운수가 큰 역할을 한다.

주요수출품은 커피(수출총액의 50%이상 차지), 바나나, 원유와 그 가공품, 목화, 사탕, 축산물이며 주요수입품은 자동차를 포함한 기계류, 공업원자재 등이 큰 몫을 차지한다. 그밖에 비료, 식량 등도 수입한다.

화폐단위는 꼴롬비아뻬소이다.

인구의 40%이상이 아직 글을 모르며 농촌소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비난으로 100명당 7명이 졸업한다.

1977년 꼴롬비아의 북부에 살고있는 4만명의 인디안들은 정부당국에 자기들에 대한 교육의 실시, 독특한 문화의 보존과 보호를 요구하였다.

1977년에 통화팽창률은 26%에 달하였다.

출판보도; **신문** 보스 쁘로레따리아(공산당기관지), 엘 엑스뻭따도르(자유당계), 디아리오 오피씨알(정부기관지), 엘 씨글로(보수당계), 엘 띠엠뽀(자유당계), 라 레뿌블리까(보수당계), 엘 쑬, 엘 보고따노

방송 꼴롬비아국립방송, 꼴롬비아국립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10월 꼴롬비아조선친선문화협회가 결성되였으며 1976년 5월 13일 조선통일지지꼴롬비아위원회가 조직되였다.

1977년 4월에 수도 보고따에서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공예품 전람회가 진행되였다.

에 꽈 도 르

(에꽈도르공화국)

넓이 28만 3,561km²
인구 650만명(1974년 6월 현재)
수도 끼또(주민 65만명, 1970년)

자연 및 주민

에꽈도르는 남아메리카대륙의 서북부에 자리잡고있으며 북부지방에 적도(에꽈도르는 에스빠냐어로 적도라는 뜻)선이 지나가고있다. 태평양을 끼고 꼴롬비아, 뻬루와 잇닿아있다.

기후는 동부지방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선선하며 령토의 약 25%를 차지하는 안데스산지대의 높은 산에는 사철 흰눈이 덮여있다. 한해평균기온은 25°C(높은벌지대 13°C)이며 한해에 250mm(높은벌지대 1,500mm)의 비가 내린다.

주민구성에서 혼혈인과 인디안이 80%, 백인이 10%, 흑인이 5%, 기타가 5%이다. 주민의 41%가 도시에서 살고있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정　치

에꽈도르는 1532년부터 거의 300년동안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2년 5월 24일 독립하였다. 1830년에 공화국이 선포된후 1965년까지 정변과 폭동이 자주 일어나 헌법이 10번이상 고쳐졌고 50여차례나 대통령이 바뀌였다.

1972년 2월 15일 륙군사령관 길예르모 로드리게스 라라가 친미독재정권을 뒤집어엎고 집권하였으며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일련의 긍정적조치를 취하였다.

1976년 1월 11일 라라가 사임한후 3군사령관들로 최고지도리사회가 새로 조직되였으며 그의 수반으로 알프레도 뽀베다 부르바노가 임명되였다.

1월 13일 새 정부를 조직한 부르바노는 새 정부가 최대한 2년간 집권하려한다고 하였다. 그는 새 정부가 군부에서 작성한 개조강령을 실현해나가며 인민대중의 처지를 개선하려는 결의로 가득차있다고 말하였다.

정부는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고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일련의 진보적개혁들을 계속 실시하고있다.

1977년 1월에 정부는 제국주의석유독점회사들인 《갈프》와 《텍사코》가 공동으로 경영하는 《텍사코 갈프》석유회사산하의 《갈프》회사주권을 장악하

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정부는 이 회사주권의 37.5%를 차지하였다. 또한 1월에 최고지도리사회는 미국석유독점회사 《갈프 오일》과 맺은 계약을 끊고 이 회사를 국유화할데 대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1973년 10월에 채택된 토지개혁법령에 따라 많은 땅이 농민들에게 넘어갔다.

에꽈도르는 1952년 8월부터 200마일의 령해권을 선언하고 계속 지켜내고있다.

민족회의(국회) 상하량원제, 1970년 6월이후 해산

최고지도리사회 1976년 1월 11일에 3군사령관들로 새로 조직된 나라의 최고기관, 수반 알프레도 뽀베다 부르바노(1976년 1월 11일—)

정부 1976년 1월 13일 군인 8명과 민간인 3명으로 새 정부 구성, 최고지도리사회 수반이 정부수반을 겸한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전신은 1926년 5월에 창건된 사회당, 1930년에 공산당으로 고침, 총비서 뻬드로 안또니오 싸아드, **벨라스꼬주의자민족련맹, 보수당, 자유급진당, 기독교사회운동, 에꽈도르민족혁명행동, 사회혁명당, 사회통일당, 에꽈도르사회당, 인민력량통일, 립헌민주련합, 인민민주동맹, 근로자총련맹**(세계직련에 가입), **공산주의청년**

경제, 사회문화

뒤떨어진 농업국가이다.

주요농작물은 바나나, 코코아, 커피, 사탕수수, 야자 등 수출작물과 강냉이, 밀, 벼, 콩, 나무감자이다.

세계에서 바나나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데 1975년에 그 생산량은 339만 700여톤이였다.

1972년까지 700만헥타르의 부침땅가운데서 약 80%를 대토지소유자들이 차지하였다.

1973년 10월 토지개혁법령이 채택된후 정부는 1975년에 34만 6천헥타르, 1976년에 28만 8천헥타르의 땅을 대토지소유자들에게서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땅을 받은 많은 농민들이 협동조합을 뭇고 국가의 대부를 받았다.

정부는 1975년부터 여러주들에 현대적목장을 세우고 좋은 소들을 길러내고있다.

공업부문에는 석유채취 및 그 가공공업과 세멘트, 비료, 금속 등 중공업기업소들 그리고 식료가공품, 농산물가공품, 옷, 가죽, 의약품, 합성수지제품 등을 생산하는 경공업공장들이 있다.

에꽈도르국영회사는 매일 5만 2천 500바렐의 석유를 생산하여 수출하고있다. 석유수출량에서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베네수엘라 다음인 두번째자리를 차지한다.

1976년에 정부는 중소규모공업부문에 6억 5천만 수끄레를 지출하였다.

산림자원과 수산자원이 풍부하다.

주요수출품은 바나나, 코코아, 커피, 목화 및 석유이며 주요수입품은 여러가지 기계류와 차량, 화학제품, 식량, 공업용원자재, 소비품들이다. 외화를 농산물보다 석유에서 더 많이 얻는다.

문화수준은 낮은 형편이다. 1972년까지 주민의 44%가 글을 몰랐으며 주민 1만 5천명당 간호원이 한 사람씩 차례졌다.

정부는 공업, 농업과 함께 보건, 교육 부문에도 투자를 늘이였다. 1975년에 국가예산총액의 22% 이상이 교육분야에 돌려졌다. 결과 초등 및 중등 교육망이 훨씬 늘어나고 새로 교원양성소, 로동자기능양성소들이 창설되였다.

출판보도; 신문 엘 뿌에블로(공산당기관지), 엘 메리꾸리오(보수당기관지), 엘 꼬메르씨오, 울띠마스 노띠씨아스, 엑스쁘레쏘

방송 에꽈도르방송, 끼또방송, 에꽈도르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5년 2월 7일 에꽈도르조선친선협회가, 1976년 5월 17일에 조선통일지지에꽈도르위원회가 각각 결성되였다.

1976년 9월 말가슈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과학토론회》에 에꽈도르사회혁명당대표단이 참가하였다.

1977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도 이 당대표단이 참가하였으며 단장이 토론하였다.

뻬 루

(뻬루공화국)

넓이 128만 5,216km²
인구 1,538만 3,000명(1974년)
수도 리마(주민 351만 5,800명, 1971년)

자연 및 주민

남아메리카대륙의 서쪽에 태평양을 끼고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다.

아마존강웃쪽의 밀림지대를 내놓고 대부분이 높은 벌로 되여있다.

바다가지방의 평균기온은 22°C, 산간지대의 평균기온은 13°C이다. 북쪽의 일부지역을 내놓고는 비가 적게 내려 물이 매우 귀하다. 아마존강기슭

은 몹시 무덥고 비가 많이 온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곳에 놓여있는 철길과 호수가 이 나라에 있다.

주민구성은 인디안(46%), 혼혈인(40%), 백인(13%), 기타(1%)로 이루어졌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나 1975년 5월 께추아어도 공용어로 선포되였다.

정 치

1531년부터 에스빠냐의 식민지로 있다가 1821년 7월 28일에 독립하였다. 1968년 10월 3일 애국적 군인들의 군사정변에 의하여 친미독재정권이 뒤집혀지고 군사정부가 수립되였다.

뻬루정부는 제국주의자들과 국내자본가놈들의 많은 공장, 광산, 철도, 은행, 선박 등을 국유화하였으며 1969년 6월 24일 토지개혁법령을 발포하고 미제와 지주놈들의 땅을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1976년까지 토지개혁의 첫단계를 성과적으로 끝냈다.

1977년 2월 5일 뻬루정부는 가까운 4년동안 나라의 정치 및 사회경제발전에 관한 정부의 계획(뚜빠끄 아마르계획이라고도 함) 초안을 내놓았다.

11월에 정부는 1978년 6월 4일에 새 헌법을 채택할 제헌회의 선거에 관한 법을 채택하였다.

이에 앞서 뻬루대통령은 1976년 7월에 반동들이 나라에 무질서를 조성하며 반정부적책동에 매달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전국에 선포하였던 비상사태를 8월 28일에 해제하였다.

대외관계분야에서 뻬루정부는 《자주적이며 반제적인》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고있다.

국회 1968년 10월 군사정변후 반동적국회를 해산

혁명리사회 나라의 최고지도기관이며 대통령과 륙해공군 사령관들로 구성

대통령 국가수반, 대통령 프란씨스꼬 모랄레스 베르무데스 쎄루띠(1975년 8월 30일—)

정부 혁명리사회의 자문기관의 역할을 수행, 총리 길예르모 아르불루 갈리아니(1976년 7월 17일—, 국방부장과 군총사령관 겸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8년 10월 17일에 창건된 이래 38년동안 지하에서 활동, 1968년 10월 군사정변후 합법화, 총비서 호르헤 델 쁘라도, **《좌익혁명운동》, 사회주의인민행동당** 1976년 4월 제8차전국대회 진행, 총비서 까를로스 로드리게스, **사회진보당, 기독교민주당, 기독교인민당, 미주혁명인민동맹**(아쁘라당), **근로자총련맹**(약 50만명의 맹원을 가진 진보적로조) 1976년 3월 제4차대회 진행, **로동자련맹, 공산주의청년동맹, 뻬루혁명운동, 인민녀성동맹, 전국농업련맹**(맹원 400만명, 진보적농민조직)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채취공업, 수산업, 농업이다. 이 나라는 철, 석유, 비스무트, 동, 은, 연, 아연, 주석 등 여러가지 지하자원을 가지고있다. 자본주의세계에서 비스무트생산량은 제1위, 은생산량은 2~3위를 차지한다.

1968년에 새 정부가 수립된후 미제가 해마다 1천만톤의 철광석을 략탈하여 가던 《마르꼬나》광업회사, 《인터내슈널》 석유회사를 비롯하여 외래독점자본가들과 국내자본가들의 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국유화되였다. 결과 공업구조에서는 국영 및 협동형태의 공장, 기업소들이 경제에서 주도적지위를 차지하게 되였다.

주요광업지역은 안데스산줄기의 높은벌지방인데 광산들이 해발 4천메터 넘는 지대들에 자리잡고있다.

가공공업으로서는 식료가공, 축산물가공, 목재, 금속, 화학, 물고기가공, 원유 공업과 자동차조립공장, 뜨락또르공장 등이 있다. 가공공업 총생산액의 60%이상을 차지하는 부문은 물고기가공공업, 식료가공공업, 방직공업이다. 주요가공공업의 중심지는 리마(가공공업의 80%)이다. 특히 물고기가공제품(물고기가루와 기름)은 이 나라 외화소득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1976년 상반년기간에 290만톤의 안초비(멸치의 일종)를 잡았다. 세계적인 어장의 하나를 가지고 있으나 최근년간 태평양의 따뜻한 《니노》해류의 영향으로 안초비가 많이 줄었다.

농업부문에서는 로력자의 45%가 일한다. 씨뿌림땅은 220만~300만헥타르이다. 1968년 이전까지 불과 1.4%밖에 안되는 대지주들이 부침땅의 84%이상을 차지하고있었다. 토지개혁법령에 의하여 1975년말현재 700만헥타르이상의 땅과 200만마리의 집짐승이 몰수되였다.

1976년에 토지개혁의 첫단계가 끝났다. 땅과 집짐승은 국영농장, 농업협동조합 및 땅없는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다. 1975년초현재 363개의 농업협동조합이 무어졌으며 여기에 8만 7천 926세대가 들어있었다.

주요농작물은 강냉이, 밀, 벼, 감자이다. 사탕수수, 목화, 커피는 전통적인 수출작물이다.

축산업부문에서는 농촌주민의 약 20%가 일한다. 소, 양, 돼지, 라마 등을 기른다.

주요수출품은 동을 비롯한 광물류, 물고기류와 그 제품(가루와 기름), 석유와 석유제품, 농축산물(사탕, 커피, 목화, 털) 등이다. 주요수입품은 원료와 반제품, 기계설비, 건재 및 화학제품, 식량, 고기 등이다. 1975년에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이 25%를 차지하였다. 1977년 5월 현재 환률은 1딸라 대 76솔(이 나라 화폐)이였다.

정부는 1973년부터 1980년까지 글모르는 사람을

없앨 목표를 세우고 투쟁하고있다. 1974년에 각급 학교 학생수는 400여만명이였다.

1974년에 애기어머니들에게 의료상 방조를 줄 법령이 발포되였다. 해마다 수천명의 목숨을 앗아가던 천연두가 없어졌다.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안데스통신(대외보도), 뻬루통신(국내보도)

신문 우니다드(공산당기관지), 엑스쁘레쏘, 라 쁘렌싸, 라 끄로니까, 울띠마 오라, 엘 꼬메르씨오, 꼬르레오, 라 인두스뜨리아

방송 뻬루국립방송, 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7월 12일 우리 나라와 뻬루는 정부급 무역대표부를 호상 설치하기로 하였다.

1975년에 《김일성동지로작연구쎈터》가 결성되였다.

1970년 8월 13일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가, 1976년 4월 13일 조선통일지지뻬루위원회가 각각 결성되였다.

1976년 10월 20일 뻬루수도 리마의 꼬마스구역에 있는 소학교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존함을 모신 《김일성원수님학급》이 조직되였다. 12월 29일 뻬루수도 리마에서 김일성종합대학과 뻬루의 싼 마르꼬스종합대학 사이의 련계설정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8월 2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뻬루의 리마시 꼬마스구역 2059호 소학교 《김일성원수님학급》에 보내주신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이 학교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을 축하하여 뻬루조선친선문화협회 주최로 기념행사가 진행되였다.

볼 리 비 아

(볼리비아공화국)

넓이 109만 8,581km²

인구 547만명(1974년)

수도 라 빠스(정부소재지, 주민 56만 3,000명), 수끄레(법적수도, 주민 8만명)

자연 및 주민

볼리비아는 남아메리카대륙의 중부에 자리잡고 있는 내륙나라이며 브라질, 칠레, 아르헨띠나, 빠라과이와 잇닿아있다.

높은벌지방은 메마른 기후로서 기온의 차이는 적으나 산간지방은 몹시 춥다. 동부벌방지대는 덥고 비가 많이 오는 열대성기후이고 중부의 낮은 지대는 아열대성기후이다.

볼리비아는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나라이다.

주민은 인디안 60%, 혼혈인 28%, 백인 12%로 구성되여있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정 치

볼리비아는 1532년부터 거의 300년동안 에스빠냐식민지로 있다가 1825년 8월 6일에 독립하였다.

독립후 볼리비아는 2차에 걸쳐 진행된 전쟁(1879~1883년, 1932~1935년)의 결과로 넓은 지역을 빼앗기고 바다가 없는 나라로 되였다. 1975년까지 150년동안 이 나라는 미제의 간섭, 반동지배층안의 정권쟁탈전으로 하여 대통령이 60번이나 바뀌고 정부가 190번 바뀌였다.

1971년 8월에 군사정변으로 좌익적인 또레스정부가 전복되고 유고 반세르가 집권하였다.

그후 생활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는 로동자들의 파업,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를 위한 학생들의 투쟁, 땅을 되찾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졌다.

이 나라에서는 정치적불안정이 계속되고있다. 1977년 12월 볼리비아사회주의팔랑헤당 지도자들과 이 나라의 가장 강유력한 땅크련대사령관에 의한 정변시도가 있었다.

국회 1971년 8월 군사정변후 해산

군사위원회 3군대표들로 구성되여있는 나라의 최고통치기관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4년, 대통령 유고 반세르 쑤아레스(1971년 8월—)

정당, 사회단체; 1974년부터 모든 정당들의 활동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여있다. 공산당 1920년에 창건되였다가 1950년 1월에 다시 조직, 제1비서 호르떼 꼴레 꾸에또, **민족혁명운동당, 사회주의팔랑헤당, 진정혁명당, 좌익혁명당, 인민기독교운동, 사회민주당, 기독교민주당, 좌익민족혁명당, 로동자중앙**

경제, 사회문화

뒤떨어진 농업국가이다. 농촌인구의 10%도 안되는 지주놈들이 부침땅의 80%이상을 차지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강냉이, 밀, 보리, 감자, 벼 등의 알곡작물과 사탕수수, 목화, 담배, 귤, 바나나, 파이내플이다. 식량수요의 70%를 수입에 의존한다.

집짐승은 소, 돼지, 양, 라마, 알빠까이다.

공업의 기본은 채취공업이다. 채취공업은 국민총생산액의 13%, 국가예산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볼리비아에서 주석광업은 450년동안 최대의 공업부문으로 되여왔다. 주석과 안티몬 생산량은 자본주의세계에서 두번째, 중석생산량은 세번째자리를 차지한다. 주석생산량은 1973년에 3만 8천 500톤으로부터 1975년에 3만 900톤으로 떨어졌다. 주석이외의 지하자원은 안티몬, 창연, 중석, 연, 아연, 동, 수은, 은, 천연가스, 석유이다. 1976년에 남부 싼따 꾸르스에서 큰 석유밭이 발견되였다.

싼따 꾸르스로부터 칠레의 아리까항구까지 송유관이 놓여있다.

가공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농축산물을 가공하는 식료가공공업과 섬유공업이다. 그밖에 사탕, 제분, 신발, 세멘트, 석유가공공장이 있다.

이 나라에는 대서양기슭에서 태평양기슭을 련결하는 철길이 하나 있을뿐이다.

수출품은 주석광을 비롯한 광물류(수출총액의 약 90%), 석유, 열대과일이다. 특히 주석은 한해평균 3만여톤, 석유는 하루에 약 3만 2천바렐이 수출된다.

이 나라는 1977년 3월에 《아세안》의 주석생산국들(타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과의 접촉을 위해 말레이시아수도 꾸알라 룸뿌르에 대사관을 개설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요수입품은 채굴설비를 비롯한 각종기계, 수송수단, 식량, 먹는기름, 흑색금속제품, 화학제품, 천, 기타 소비품이다.

수출의 35%, 수입의 40%를 미국이 독점하고있다.

1976년 12월말현재 화폐환산률은 1딸라에 20뻬소였다.

주민들의 생활은 대단히 어렵다. 특히 광부들은 보잘것없는 임금을 받으면서 가혹하게 착취당하고있다. 항시적인 식량난으로 70%의 주민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있다.

어른들은 약 200만명이 글을 모르며 농촌지역에서 그 비률은 65%에 달한다.

출판보도: **신문** 우니다드(공산당기관지), 쁘레쎈시아, 엘 디아리오(무소속), 울띠마 오라(무소속)

방송 볼리비아방송, 볼리비아텔레비죤방송

빠 라 과 이

(빠라과이공화국)

넓이 40만 6,752km²

인구 267만 4,000명(1973년)

수도 아순씨온(주민 43만 7,136명, 1970년)

자연 및 주민

빠라과이는 남아메리카대륙의 한가운데 자리잡고있으며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띠나에 둘러싸여있다. 땅생김새에서 해안과 산악지대가 없는것이 특징이다.

인구가 제일 많은 동부지역의 중부에서 가장 더울 때의 기온은 27~28°C이며 가장 추울때의 기온은 15~16°C이다. 한해평균강수량은 동부지역(브라질과의 국경)에서 2,000mm, 서부지역(빠라과이강지역)에서 800mm이다.

주민구성에서 원주민(주로 뚜삐—과라니족)의 비률이 높으며 에스빠냐계의 혈통은 비교적 적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며 일반주민들은 뚜삐—과라니어도 널리 쓴다.

정 치

빠라과이는 1535년부터 에스빠냐식민지로 있다가 1811년 5월 14일 독립하였으며 1844년에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미제는 제2차세계대전을 전후하여 친미독재정권을 유지하면서 빠라과이에 대한 경제적침투를 강화하였다.

1954년에 반동적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쥔 미제의 앞잡이 알프레도 스뜨로에스네르놈은 계속 대통령자리를 차지하고 민주력량에 대한 테로와 폭압통치를 실시하고있다.

친미독재도당은 20여년동안 《계엄령》을 실시하면서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잡아가두고 고문하였다.

1977년 2월 9일 집권당인 꼴로라도당은 1978년 《대통령》선거에서 친미독재자 스뜨로에스네르를 다시 대통령자리에 들여앉히기 위한 헌법개정회의 대표선거놀음을 벌려놓고 저들의 《승리》를 날조하였다. 야당들은 이 친미독재자의 계속 집권을 반대하여 선거에 참가하지 않았다.

친미반동집단은 4월초에 헌법개정회의에서 스뜨로에스네르놈이 《대통령선거》에 다시 나설수 있게 헌법을 고쳐놓았다.

한편 반동당국은 국내외의 강력한 사회여론에 못이겨 1월 29일 빠라과이공산당 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공산당지도자들을 19년만에 감옥에서 석방하지 않을수 없었다. 아직도 감옥과 수용소들에는 수천명의 정치범들이 갇혀있다. 《엠보스까다》수용소 하나에만도 350명의 정치범들이 갇혀있다.

빠라과이반동정부는 박정희괴뢰도당과 홍정관을 벌려 많은 남조선인민들을 끌어다 노예로 부려먹고있는데 1977년에 그 수는 7,500명이나 되였다.

친미독재정권은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법화》하려는 미제의 《결의안》의 《공동발기국》으로서 우리 인민의 정당한 조국통일위업을 한사코 방해하였다.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은 30명이고 하원의원은 60명이며 임기는 각각 5년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5년, 대통령 알프레도 스뜨로에스네르(1954년—)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33년에 창건된 이래 1947년부터 비법화되여 지하활동, 위원장 안또니오 마이다나, 총비서 오스깔 끄레떼, **민족공화련맹**(꼴로라도당) 친미매판자본가, 대농장주, 반동적군부상층을 대변하며 집권당, **자유당**, **급진자유당**, **2월혁명당**, **기독교민주당**, **민족해방통일전선**, **근로자총련맹**, **기독교근로자총련맹**, **공산주의청년운동**

경제, 사회문화

빠라과이는 뒤떨어진 반식민지농업국가이다. 미제와 외래독점자본은 이 나라에서 크다고 하는 15개의 공업기업소들 가운데서 12개를 틀어쥐고있으며 은행자본의 90%와 수출의 80%를 장악하고 있다.

경제에서 기본은 농목축업과 림업이다. 이것은 국민총생산액에서 35%이상을 차지한다. 주민의 75%가 농업부문에서 일한다. 부침땅 50만헥타르중에서 4분의 3과 집짐승의 대부분을 국내지주들과 목장주들, 외래독점체들이 독차지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나무감자, 당콩, 강냉이, 벼, 밀, 고구마 등 알곡작물과 사탕수수, 목화, 담배, 커피, 마떼차, 당오동나무열매와 같은 수출작물이다.

축산업에서는 소, 양, 말 등의 집짐승을 기른다.

산림면적의 약 20%를 개발하여 가구 및 건축용재를 생산하고있는데 국민총생산액에서 18%정도 차지한다.

이 나라의 공업은 뒤떨어져있다. 전체 공장수의 80%가 종업원 10명미만이다.

주요공업부문은 식료가공공업과 방직공업이다. 고기가공을 위주로 하는 식료가공공업이 공업총생산액의 약 50%를 차지한다. 이외에 외래독점자본이 틀어쥐고있는 석유정제, 세멘트, 야금 등 약간의 중공업이 있다.

철길의 길이는 1천 300키로메터이며 빠라과이강이 주요배길로 리용된다.

주요수출품은 고기와 그 가공제품, 양털, 목화, 통나무, 탄닌엑스(염료), 식물성기름, 담배 등으로서 이것은 수출총액의 약 75%를 차지한다.

주요수입품은 기계 및 설비, 운수수단, 식량, 흑색금속류, 연료, 천, 화학제품 등이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미국, 영국, 서독, 아르헨띠나이다.

국민총생산액의 50%를 주민의 5%에 불과한 부자놈들이 차지하고있다. 1974년도에 인구한사람당 국민소득은 350딸라로서 라틴아메리카에서 제일 낮은 나라의 하나였다.

1954년부터 1977년까지 근로자들의 임금은 한번도 오르지 않았다.

살길을 찾아 다른 나라에서 떠돌아다니는 빠라과이주민은 100여만명에 달한다.

빠라과이에서 특히 원주민은 반동당국의 탄압밑에 노예살이, 강제로동, 전염병 등으로 심한 고통을 겪고있다.

출판보도; 신문 아벨란떼(공산당기관지), 빠뜨리아(꼴로라도당기관지), 라 리베르따드(자유당계), 라 뜨리부나(중립계), 엘 뿌에블로(2월혁명당기관지)

방송 빠라과이국립방송, 빠라과이텔레비죤방송

우루과이

(우루과이동방공화국)

넓이 17만 7,508km²
인구 302만 8,000명(1974년)
수도 몬떼비데오(주민 135만명, 1970년)

자연 및 주민

남아메리카대륙의 동남부 대서양기슭에 자리잡고 브라질, 아르헨띠나와 잇닿아있다.

새가 많다하여 우루과이(새가 찾아드는 물)라고 불리우는 이 나라는 전 령토의 3분의 2가 풀벌로 되여있어 집짐승기르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있다.

기후는 따뜻한 편이다. 한해평균기온은 17°C(6월 10°C, 1월 23°C)이며 한해동안에 1,000~1,500mm의 비가 내린다.

주민구성에서 백인이 90%이상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인디안과 혼혈인이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정 치

우루과이는 1516년부터 에스빠냐식민주의자들을 비롯한 외래침략자들의 통치를 번갈아 받아오다가 1825년 4월에 식민지명에에서 벗어나 1830년 11월 6일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70년대에 이르러 우루과이에서 진보적력량이 빨리 자라남에 따라 이에 당황한 미제는 이 나라

의 반동적군부세력과 대통령 보르다베리를 부추겨 1973년 6월 27일 국가정변을 꾸며내였다. 독재정권은 반동적군부세력의 지지밑에 국회를 해산하고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금지하였다.

1976년에 들어서면서 군부와 정부 사이에는 개싸움질이 계속되였으며 군부세력은 6월 12일에 대통령 보르다베리마저 그 자리에서 내쫓고 정부를 완전히 군부의 통제밑에 넣었다.

반동적군부는 7월 14일 아빠리씨오 멘데스를 새 대통령으로 들여앉혔다. 멘데스는 9월 1일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이전 반동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실시하겠다고 줴치면서 진보적력량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독재정권은 1977년에 파쑈적폭압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에서 많은 몫을 군대와 경찰의 유지비로 지출하였다. 반동정부는 5월 한달만해도 400명이상의 애국자들을 잡아가두었다. 감옥과 수용소들에는 6천명의 정치범들이 갇혀있다. 반동정부는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여전히 금지하고있으며 인민들의 초보적인 민주주의적권리와 정치적자유마저 깡그리 빼앗았다.

우루과이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반제반파쑈, 민족해방의 구호밑에 광범한 통일전선에 의한 민주주의적인민정권의 수립을 자기들의 강령으로 내세우고 지하에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국회 1973년 6월 27일 국가정변에 의하여 해산

민족리사회 1976년 6월 12일 군사정변후 조직, 25명의 민간인들과 22명의 군인들로 구성된 최고기관, 대통령을 선출하고 《정치법》들을 다룬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겸임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임기는 5년, 1976년 9월 새 정부 구성, 대통령 아빠리씨오 멘데스(1976년 9월 1일—)

정당, 사회단체; 1973년 6월 27일 국가정변후 두 부르죠아정당(꼴로라도당과 블란꼬당)을 제외한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금지, **공산당** 1920년 9월 21일 창건, 1973년 6월 국가정변후 12월 1일 비법화되여 지하에서 활동, 제1비서 로드네이 아리스멘디, **사회당** 진보적정당, 1973년 12월 비법화되여 지하에서 활동, 총비서 라몬 마르떠네스, **꼴로라도당**, **블란꼬당**(민족당), **《인민정부를 위한》운동**, **블란꼬인민진보운동**, **기독교민주당**, **혁명로동당**, **좌익해방전선**, **광범한전선**, **근로자전국회의**, **공산주의청년동맹**, **녀성동맹**

경제, 사회문화

축산물의 생산과 수출에 주로 의거하는 농업—공업국가이다. 부침땅의 대부분이 풀밭 혹은 먹이작물재배지이다. 고기와 양털 수출량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아르헨띠나 다음가는 두번째자리를 차지한다. 부침땅의 절반이상과 집짐승의 80%를 대농목장주놈들이 차지하고있다.

주요집짐승은 소와 양이다. 양털(가공한것)생산량은 1974년에 그 전해에 비하여 2천톤이나 떨어졌다.

주요농작물은 밀, 귀밀, 강냉이, 보리, 벼, 감자, 해바라기, 아마, 사탕수수, 포도 등이다. 1975년에 45만 6천톤의 밀, 15만 7천톤의 강냉이, 5만 1천톤의 해바라기가 생산되였다. 밀을 비롯한 알곡작물은 수입에 의존한다.

공업은 뒤떨어져있다. 사회총생산액에서 공업생산은 20%에 불과하다. 고기, 양털, 빠터, 치즈, 사탕, 제분 등 축산물과 농산물 가공공장들이 기본을 이루고있다. 그밖에 금속가공, 고무, 종이, 방직, 화학, 세멘트, 도자기 등 일련의 공업기업소들이 있다. 이전의 국영기업소들과 신용대부은행은 미제를 비롯한 외래독점회사들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다른 나라에 진 빚은 해마다 늘어나 1976년 8월에는 16억딸라를 넘었다. 민족화페 뻬소의 가치는 1972년부터 1976년 7월까지 54번 평가인하되였다.

주요수출품은 양털, 소고기, 원료가죽인데 이것은 수출총액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자본주의세계의 전반적경제위기로 말미암아 시장길이 막혀 1975년에는 전해에 비해 수출총액이 12%나 줄었다.

특히 축산물수출액이 줄었다.

주요수입품은 원유, 목화, 강재, 비료, 기계설비, 건재, 알곡, 생활필수품이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미국, 영국, 서독, 이딸리아이다.

반동정부의 반인민적정책으로 하여 인민생활은 대단히 어렵다. 1977년에 들어와 첫 5개월동안에 생계비가 거의 24% 오르고 통화팽창은 무려 66%에 달했다. 일할 능력을 가진 사람의 25% 이상이 일자리를 가지지 못했다. 반동당국이 발표한 《소작료법》에 의하여 소작료가 부쩍 늘어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비참하다. 1만명의 인민들이 정치적권리를 빼앗겼다.

반동정부의 탄압책동과 모진 생활고통으로 주민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100만여명이 다른 나라로 떠났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엔아이(우루과이통신)

신문 엘 뽀뿔라르(공산당기관지), 클라린, 악씨온(꼴로라도당계), 엘 데바떼(블란꼬당계), 엘 디아(꼴로라도당계)

방송 우루과이방송, 우루과이텔레비죤방송, 몬떼 까를로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3년 5월 17일 무역대표부를 호상 설치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으며 1967년 10월에 우루과이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아르헨띠나

(아르헨띠나공화국)

넓이 277만 6,889km²
인구 2,505만명(1974년)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주민 350만명, 교외인구까지는 약 850만명, 1973년)

자연 및 주민

아르헨띠나는 남아메리카대륙의 남쪽에 자리잡고 칠레, 볼리비아, 빠라과이, 브라질, 우루과이와 잇닿아있다. 동쪽에는 대서양이 펼쳐져있다.

서쪽의 안데스산줄기를 제외한 지역은 높은 벌판으로 되여있다.

이 나라는 남북으로 길게 놓여있으므로 지방에 따라 기후차이가 심하다. 1월의 평균기온은 북부에서 28°C, 남부에서 10°C이며 7월의 평균기온은 북부에서 20°C, 남부에서 2°C이다.

한해평균 강수량은 북동부 바다가지역에서 1,600mm, 서부와 남부에서 100~300mm이다.

1977년 6월 24일에 추위가 들이닥쳐 남부지역에서 기온이 —13°C로 내려갔다.

주민은 97%가 구라파이주민들의 후손인 크레올(백인)이다. 원주민인 인디안은 1970년현재 36만명이였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정 치

아르헨띠나는 1516년에 에스빠냐침략자들에게 강점당하여 거의 300년동안 식민지로 있다가 1816년 7월 9일 독립하고 1826년에 공화국을 수립하였다.(국경절은 1810년 5월 25일)

1973년 10월에 대통령이 된 뻬론이 1974년 7월에 사망함으로써 부대통령이였던 그의 부인 마리아 이싸벨 마르띠네스 데 뻬론이 대통령으로 되였다.

1976년 3월 24일 국가정변후 3군사령관들로 구성된 나라의 최고권력기관인 군사위원회가 조직되였다. 같은날 륙군사령관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가 그의 위원장으로 되였으며 8명의 군인들로 된 림시정부가 조직되였다.

3월 24일 군사위원회가 발표한 《국가재조직령》은 국회를 해산하며 정당 및 로조들의 활동을 정지한다는것, 국내대중보도수단들에 대한 검열제를 실시한다는것, 군사재판소를 설치한다는것 등을 밝혔다.

군사위원회는 3월 26일 륙군사령관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를 대통령으로 임명하였다. 3월 28일 군사위원회는 새 군사정부를 조직하였다.

새 정부의 경제부장은 4월 2일 경제강령에서 정부가 개인부문에 모를 박을것이라는것, 국가의 통제밑에 있던 일부 기업소들을 개인기업가들의 손에 넘길것이라는것, 가격통제가 철폐될것이라는것, 외자도입이 장려될것이라는것 등을 지적하면서 이전정부에 의하여 채택된 외자를 제한하며 외국회사들의 활동을 통제할데 대한 법들이 폐지될것이라고 말하였다.

1977년 4월 1일 대통령 비델라는 자기의 집권 1돐에 즈음한 연설에서 《선거되는 정부에로 복귀할 시간표를 미리 정할수 없다》고 하면서 오래동안 군부세력이 정권을 틀어쥐고있을 속마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반동적군사정부는 인민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반정부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있다. 놈들은 정권을 타고앉아 단 한해동안에 5천여명의 죄없는 인민들을 죽였으며 3만명의 사람들이 행방불명되였다. 그밖에 감옥에 갇힌 정치범수는 5천명에 달하고있다.

아르헨띠나인민은 군사독재정권을 반대하여 나라의 모든곳에서 합법적 및 비합법적인 로조활동과 정치투쟁, 무장투쟁 등 모든 방법들을 다하여 싸우고있다.

국회 상하량원제, 1976년 3월 24일 국가정변후 해산

군사위원회 1976년 3월 국가정변후 3군사령관들로 구성된 나라의 최고권력기관, 위원회는 대통령을 임명 혹은 해임하며 군대의 고위지휘성원, 최고재판소, 중요국가기관 성원들을 임명, 위원장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1976년 3월 24일—, 총사령관 겸임)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 3월 29일 군사위원회가 8명(군인 6명, 민간인 2명)으로 된 새 정부 구성, 대통령 호르헤 라파엘 비델라(1976년 3월 29일—)

정당, 사회단체; 1976년 3월 국가정변후 발표된 《국가재조직령》에 의하여 정당, 사회단체들의 활동정지, **공산당** 1918년에 사회당좌파가 조직한 국제사회주의당을 1920년에 공산당으로 고침, 총비서 헤르니모 아르네도 알바레스, **정의운동(뻬론당)**, **비타협급진공민동맹**, **인민급진공민동맹**, **사회당**, **로동자혁명당**, **진보민주당**, **기독교민주당**, **로동총련맹**, **로조행동통일및조절운동**, **공산주의청년동맹**

경제, 사회문화

아르헨띠나는 농목축업을 위주로 하는 농업국가

이다.

농업은 소, 양, 돼지, 말을 놓아기르는 목축업과 밀, 강냉이, 보리, 호밀, 귀밀, 감자, 아마, 해바라기, 땅콩, 목화, 사탕수수, 담배 등을 생산하는 농산업으로 나누어 볼수 있다. 5%에 불과한 대토지소유자들이 전체 부침땅의 74%를 거머쥐고 있다. 외국독점체들도 땅을 많이 가지고있다. 좋은 부침땅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알곡생산은 낮은 수준에 있다.

1975년에 농산물수출은 1974년에 비하여 18% 떨어졌다. 시장길이 막혀 전통적인 고기수출이 해마다 줄어드는데 1973년에 비하여 1975년에는 21만 2천톤이나 떨어졌다.

공업은 라틴아메리카에서 비교적 발전한 나라에 속한다. 농축산물가공제품과 그밖에 강철, 금속제품, 자동차, 석유제품과 소비품 등의 생산이 큰 몫을 차지한다. 그러나 자동차생산의 94%, 식료품생산의 88%, 합성섬유생산의 77%를 외국독점자본이 틀어쥐고있다. 미제독점체들은 공업생산의 약 40%, 재정,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통제하고있다. 미제독점자본은 자동차, 전자, 야금, 석유 등 기간공업에 침투하였다.

주요수출품은 농산물(밀과 밀가루, 강냉이)과 축산물(고기, 양털, 가죽, 기타)이며 이것들이 수출총액의 90%를 차지한다.

주요수입품은 기계설비, 수송수단, 강재, 연료, 화학제품, 광물류이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미국, 이딸리아, 서독, 영국이다.

1976년 9월현재 일자리없는 사람은 로력자의 9.8%를 차지했다. 예산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돈을 마구 찍어냄으로써 1976년에 통화팽창률은 347.5%에 달하였다. 1977년에 생계비는 150%로 오르고 로동자들의 실질임금은 33% 떨어졌다. 같은해 3월현재 외국에 진 빚은 120억딸라였다.

출판보도; **통신** 뗄람

신문 누에스뜨라 빨라브라(공산당기관지), 노띠시아스, 끄로니까, 오삐니온, 라 쁘렌싸, 라쏜, 끌라린

방송 아르헨띠나국립방송, 아르헨띠나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6월 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3년 12월에 두 나라사이에 통상협정이 체결되였다.

1975년 11월 11일 아르헨띠나조선친선문화협회가 결성되였다.

1976년 3월 국가정변후 군사독재정권은 갖은 악랄한 방법과 비렬한 행위를 감행하여오다가 1977년 6월 14일에는 일방적으로 우리 나라와 외교관계를 끊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조선중앙통신사는 1977년 6월 18일 보도를 발표하여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놈들의 죄행을 폭로하였다.

1977년 9월에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아르헨띠나로동자혁명당대표단이 참가하였으며 단장인 아르헨띠나로동자혁명당 총비서 루이스 마띠니가 토론하였다.

칠 레

(칠레공화국)

넓이 75만 6,945km²
인구 1,000만명(1974년 2월)
수도 싼띠아고(주민 258만 6,000명, 1970년)

자연 및 주민

칠레는 남아메리카대륙의 서남쪽 태평양기슭에 동서로 좁고 남북으로 길게 뻗어있으며 뻬루, 아르헨띠나, 볼리비아와 잇닿아있다.

이 나라는 벌이 적고 산이 많으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안데스산줄기, 중앙골짜기, 바다가산줄기 등 세개 지역으로 나뉘여진다.

한해평균기온은 북부지역에서 19°C, 중부지역에서 6°C이며 남부지역에서는 1월평균기온이 15°C, 7월평균기온은 1~4°C이다.

한해 평균강수량은 중부지역의 싼띠아고부근에서 340mm정도이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2,000~3,000mm로 많아진다. 남부지역에서는 비가 최고 6,000mm 올때도 있다. 반면에 북부지역은 한해동안 거의 비가 오지 않으며 땅이 메마르다.

1977년 7월에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큰물이 났으며 싼띠아고 동쪽 안데스산줄기에는 눈이 3m 내렸다.

주민구성은 혼혈인 66%, 백인 25%, 인디안 3.5%, 기타로 되여있다.

공용어는 에스빠냐어이다.

정 치

칠레는 1541년부터 거의 300년동안 에스빠냐식민지로 있다가 1810년 9월 18일 독립하였고 1818년에는 공화국으로 되였다.

1973년 9월 11일 미제의 부추김밑에 친미극우익군부와 경찰놈들이 반동적군사정변을 일으켰다. 놈들은 인민통일정부를 뒤집어엎고 알옌데대통령을 살해하였다.

정권을 가로챈 군사파쑈도당은 인민통일정부가 이룩하여놓은 전취물을 무참히 짓밟고 온 칠레땅을 하나의 감옥으로 만들었다. 놈들은 정변당시

실시했던 《비상사태》를 6개월에 한번씩 계속 연장하고있으며 각종 악법들과 탄압기구들을 만들어 수많은 인민들을 감옥과 수용소들에 잡아가두고 고문학살하고있다. 1977년 8월까지 4년간 약 4만명이상의 인민들이 군사파쑈도당에 의하여 목숨을 잃었으며 2천 500명이상이 행방불명되였다.

감옥과 수용소들에는 1천 500명이상의 애국자들이 갇혀있는데 그의 5분의 1은 녀성들이다. 칠레사람 매 다섯명당 한 사람은 감옥살이를 했거나 고문을 당했다.

1977년에 군사파쑈도당은 미제를 등에 업고 무너져가는 제놈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치적탄압에 더욱 미쳐 날뛰였다. 놈들은 이해 3월에 형식상 금지되지 않았던 정당들마저 활동을 금지하였다.

군사파쑈도당은 인민탄압을 강화하기 위하여 1977년 3월 11일 내각을 다시 조직하였으며 8월 12일에는 군사정변에 뒤이어 만들었던 《국가정보부》를 해체하고 새로운 비밀경찰기구인 《국가공보본부》를 꾸며내여 파쑈탄압을 일층 강화하였다.

군사파쑈도당의 반인민적정책을 반대하는 국내인민들의 반파쑈투쟁이 앙양되였다.

대렬을 결속한 인민통일련합의 정당들은 파쑈군사도당을 타도하고 새로운 민주주의정권을 세우기 위하여 지하에서 굴함없이 싸워나가고있다.

반면에 칠레군사파쑈도당의 국제적고립은 더욱 심화되였다. 1977년에 세계 각국에서 칠레인민의 반파쑈투쟁을 지지하여 시위와 집회들이 벌어졌다.

1977년 1월 19일 가이아나가 칠레파쑈정권과 외교관계를 끊었다. 1976년 10월에 안데스조약기구에서 쫓겨난 칠레파쑈도당은 할수없이 1977년 1월 10일에 칠레가 이 조약기구에서 《탈퇴》한다는것을 발표하지 않을수 없었다.

민족회의(국회) 1973년 9월 반동적군사정변후 해산

군사위원회 1973년 9월 군사파쑈도당이 륙해공군, 경찰 사령관들로 구성, 《립법권》행사, 위원장 삐노체뜨

정부 인민통일정부는 1970년 11월부터 1973년 9월 11일까지 집권, 군사정변후 삐노체뜨도당이 정권을 장악하였으며 그후 1977년 3월까지 5차례의 내각개조 진행, 1974년 6월 25일 《군사위원회》는 삐노체뜨를 이른바 《국가원수》로, 12월 17일에는 《대통령》으로 임명

정당, 사회단체; 군사정변후 군사파쑈도당은 모든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의 활동을 금지, **공산당** 1922년 1월 22일 창건, 지하에서 활동, 총비서 루이스 꼬르발란, **사회당** 총비서 까를로스 알따미라노 오레고, **사회민주당**, **급진당**, **인민통일련합**, **좌익혁명운동**, **기독교민주당**, **인민통일행동운동**, **민족당**, **인민사회동맹**, **근로자통일로조중앙**, **공산주의청년동맹**, **사회주의청년동맹**, **녀성련맹**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광업이 큰 몫을 차지한다. 특히 동문힌량은 세계 1위, 그 생산은 2~3위로서 국민소득의 4분의 1, 수출액의 80%를 차지한다.

이 나라의 특산물인 초석은 세계 생산량의 95%, 요드는 90%를 차지하며 그밖에 철광석, 석탄, 석유, 기타 희유금속들이 난다. 채취공업 이외에 야금, 세멘트, 화학, 자동차조립, 방직, 종이 및 팔프, 식료가공, 수산물가공 공업을 비롯한 일련의 공업기업소들이 있다.

인구의 3분의 1이 농업부문에서 일한다. 국민총생산액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몫은 20%에 불과하다. 1천 100만헥타르의 부침땅중에서 260만~270만헥타르에만 씨붙임한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강냉이, 감자, 사탕무우, 당콩, 포도, 담배, 둥글파이며 알곡은 수입에 의존한다.

군사파쑈도당에 의하여 칠레의 국영부문은 거의 말살되였다. 국영공업개발회사가 운영하던 85개의 공장, 기업소의 주권이 1977년초부터 자본가놈들에게 팔려 3월에는 23개밖에 남지 않았다. 인민통일정부시기에 국가의 통제밑에 있던 550개의 공업기업소들중 거의 모두를 이전 자본가놈들에게 돌려주었거나 헐값으로 팔았다.

미제는 《원조》의 이름밑에 1975년에 무려 11억 6천 500만딸라의 재정《원조》를, 그리고 1976년에는 1억 2천 930만딸라의 경제《원조》를 주면서 칠레를 경제적으로 더욱 예속시켰다.

주요수출품은 동, 철광석, 초석, 물고기가루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 설비 및 운수기재, 공업원료, 알곡, 연료이다.

칠레군사파쑈도당의 이른바 《자유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1975년 한해동안에 국민총생산액은 15%, 공업생산은 24.1% 줄었으며 1974년에 비해 건설부문에 대한 자본투자는 40%, 동생산은 8%, 소비품생산은 18.9% 각각 떨어졌다. 같은해 농산물생산에서는 전해에 비하여 강냉이는 10.7%, 보리는 24%, 감자는 27% 각각 줄었다. 1977년 3월현재 일자리 없는 사람은 일할 능력을 가진 사람의 20%에 달했다. 1975년 9월부터 1976년 1월사이에 뻬소의 가치는 10번 평가인하되였으며 1977년현재 외국에 진 빚은 52억딸라를 넘었다.

군사파쑈독재정권이 정권을 거머쥔 이후 온 나라에 무서운 기근이 휩쓸어 《굶주림은 정치적탄압만큼 고통스러운것》으로 되였다. 200여만을 헤아리는 주민들이 기아와 굶주림에 시달리고있으며 20여만명의 칠레사람들이 다른 나라들에서 살길을 찾아 헤매고있다.

학생들은 수업료때문에 배움의 길을 잃고있으며

대학들에서는 《숙청》의 결과 교원들의 3.5%, 대학생들의 20%가 쫓겨났다.

출판보도; 정변후 일체 진보적출판물의 발행이 금지되였다.

신문 엘 씨글로(공산당기관지), 우니다드 안떠파씨스따(지하에서 발간), 라 리베라씨온(민주주의항쟁운동기관지—지하에서 발간), 울띠마 오라(사회당기관지), 라 나씨온(정부기관지)

방송 칠레방송, 칠레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2년 6월 1일 우리 나라 정부와 칠레인민통일정부사이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3년 9월 11일 군사정변후 우리 나라 외교부는 칠레에서 파쑈적인 반동세력이 권력을 행사하는 동안 우리 나라 정부가 9월 18일부터 칠레와의 국가적관계를 중단한다는것을 선언하였다.

1975년 8월 25일 알제리에 있는 칠레사람들이 《김일성동지 주체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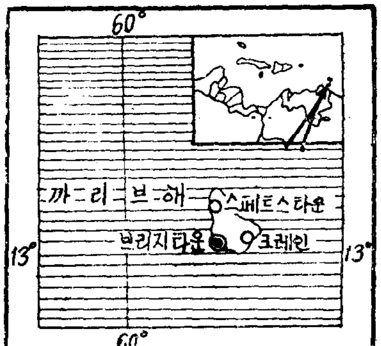
1976년 10월 17일 북구라파에 있는 칠레사람들이 스웨리예 수도 스톡홀름에서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연구소조》를 결성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결성모임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1977년 9월 평양에서 열린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칠레좌익혁명운동대표인 칠레좌익혁명운동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칠레좌익혁명운동 해외위원회 부책임자 베나또 아라네다가 참가하여 토론하였다.

바베이도즈

넓이 423km²
인구 24만 4,000명(1974년)
수도 브리지타운(주민 10만 5,000명)



바베이도즈는 소안띨제도 동쪽끝에 있는 섬나라이다.

주민구성은 흑인 77%, 혼혈인 18%, 백인 5%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정 치

바베이도즈는 1627년부터 339년간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있다가 1966년 11월 28일 영련방성원국으로 독립하였다.

1976년 9월 3일에 실시된 총선거에서 레이버당이 승리함으로써 독립이후 계속 정권을 잡고있던 민주로동당은 정권에서 물러났다. 9월 3일 죤 마이클 죠프리 애덤즈를 총리로 하는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바베이도즈는 까리브공동체와 까리브공동시장(1973년 8월 1일), 라틴아메리카사탕생산기구(1974년 11월 27일), 라틴아메리카경제체계(1975년 10월) 등 지역적경제협조기구들에 가입하였다. 1975년 7월 7일에 창설된 까리브지역나라들의 련합통신사인 《까리브통신사》가 바베이도즈 수도 브리지타운에 자리잡고있다.

이 나라는 1977년 1월 11일에 대만의 장경국도당과 외교관계를 끊었으며 11월 15일에는 유고슬라비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국회 상하량원제, 립법의원(상원) 21명과 하원의원 24명으로 구성, 하원의원 임기는 5년, 1976년 9월 3일 총선거 결과 하원에서 레이버당이 17석(이전의석 8석), 민주로동당이 7석(15석)을 각각 차지

총독 국가수반, 총독 디론 워드

정부 1976년 9월 3일 새 정부 수립, 총리 죤 마이클 죠프리 애덤즈(1976년 9월 3일—)

정당, 사회단체; 레이버당(집권당), 민주로동당, 국민당, 로동자동맹, 공무원동맹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사탕수수재배를 위주로 하는 농업이다. 2만 1천헥타르의 부침땅에서 한해에 120만톤정도의 사탕수수를 거어들여 약 14만톤의 사탕을 생산한다. 사탕을 비롯하여 그것을 원료로 하는 당밀, 람술 등은 외화수입의 90%를 차지한다.

주민들은 집짐승기르기(소, 양, 돼지, 염소)와 물고기잡이도 한다. 관광업도 적지않은 수입원천이다.

바베이도즈는 사탕, 당밀, 람술을 수출하고 기계류, 화학제품 등을 수입한다. 주요무역대상나라들은 까리브공동시장나라들과 영국, 미국, 카나다이다. 1973년 12월부터 써오던 까리브해안딸라를 바베이도즈딸라로 바꾸었다.(1딸라=

2.01 바베이도즈딸라)

여러개의 보통교육학교들과 서인도대학 물리학부와 자치대학이 있다.

출판보도; **신문** 비컨(레이버당 및 로조 기관지), 바베이도즈 뉴스, 바베이도즈 옵써버, 트루즈

방송 바베이도즈방송, 까리브해안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7년 12월 5일 우리 나라와 바베이도즈사이에 대사급 외교관계가 맺어졌다.

앙 길 라

(영국식민지)

넓이 90km²
인구 6,000명(1969년)

까리브해에 있는 뿌에르또 리꼬에서 동쪽으로 240키로메터 떨어진 바다가운데 자리잡은 섬나라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흑인이며 영어를 쓴다.

앙길라는 서구라파 여러 나라 식민주의자들의 침입을 받아오다가 18세기부터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되였다. 1967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은 쎈트키츠섬에 《준국가》(내부자치제)의 자격을 주고 쎈트키츠의 이웃에 있는 두 섬인 네비스 및 앙길라를 여기에 끌어들여 이른바 《련방》을 만들어놓았다. 앙길라는 이 통합을 반대하여 1969년이래 이 《련방》에 참가하지 않았다.

1975년 11월 13일 앙길라는 《자치권》을 쟁취하였으나 국방, 대외, 사법 및 재정 등 실권은 영제국주의자들이 여전히 틀어쥐고있다.

주민들은 사탕수수와 약간의 열대작물을 재배하며 물고기도 잡는다.

앙길라는 사탕과 과즙 및 소금을 수출하고 식량과 공업제품을 수입한다.

그 린 랜 드

(단마르크식민지)

넓이 217만 5,600km²
인구 5만명(1971년)
행정중심지 고트하브(주민 7,000명)

북빙양과 대서양사이에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섬이다.

주민들은 에스키모의 후손들이다.

1841년에 단마르크의 식민지로 된 그린랜드는 1953년의 헌법에 따라 단마르크의 한개 주로 되였다.

1951년 4월에 미제는 단마르크와 《그린랜드공동방위조약》을 맺고 이 섬에 해군 및 공군 기지를 설치하였다. 미제는 이 섬의 서북쪽에 있는 뚜레에 요격전투기기지와 전파탐지기지, 탄도탄조기경보장치 등을 설치하였으며 노르드와 기타 다른 지역에는 전략폭격기기지를, 피요르드에는 핵잠수함기지를 설치하였다. 뚜레에만 하여도 1만여명의 미제침략군이 도사리고있다.

경제에서 기본은 물고기잡이와 그 가공업이며 가공품은 수출한다. 미제의 경제적예속밑에 있다.

버 진

(미국식민지)

넓이 344km²
인구 6만 3,200명(1970년)
행정중심지 샬로트 아말리(주민 1만 5,000명)

미령 버진은 까리브해의 뿌에르또 리꼬와 소안띨제도사이에 있는 46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주민의 대부분이 흑인이고 혼혈인과 백인도 있다.

미제는 단마르크의 식민지로 있던 전략상 중요한 이 섬을 1917년 3월에 2천 500만딸라를 주고 빼앗았다.

경제에서 기본은 사탕수수 및 남새재배, 목축업이며 물고기도 잡는다. 식량과 일용필수품까지 미국에 의존하고있다.

버 진

(영국식민지)

넓이 152km²
인구 1만 1,000명(1969년)
행정중심지 로드타운(주민 2,000명)

미령 버진군도의 동북쪽에 있는 영령버진은 36개의 섬들로 이루어졌다. 그중 사람이 살고있는 섬은 12개뿐이다.

영국총독놈의 직접적통치밑에 있는 식민지이다.

주민들은 주로 소와 양 기르기, 물고기잡이, 과수 및 남새 재배 그리고 숯구이를 한다.

유일한 항구인 로드타운을 통해 축산물, 물고기, 파일이 수출된다.

버 무 다

(영국식민지)

넓이 53km²
인구 5만 5,000명(1977년)
행정중심지 하밀톤(주민 3,000명)

버무다는 미국의 뉴욕 동남쪽 1천 80키로메터의 대서양에 있는 360개의 섬들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이 산호초로 이루어진 섬들이고 사람이 사는 섬은 20여개이다.

주민의 5분의 3이 흑인이고 나머지는 백인이다.
주민들은 영어를 많이 쓴다.

정 치

버무다는 1684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1809년에 이 군도의 아일랜드섬에 해군기지를 건설하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1940년에 99년간의 《조차지》라는 이름밑에 이 군도의 3개의 섬에 해군 및 공군 기지를 설치했다.

영국총독놈이 형식상 행정평의회와 립법회의(상원 및 하원)을 두고 통치한다.

1977년 12월 2일 식민지반동당국이 1973년에 영국총독놈을 죽여버린 1명의 흑인애국자와 다른 한명을 교수형에 처한데 항의하여 3만 3천명의 흑인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났다. 그러나 영제국주의자들은 침략무력을 파견하여 식민지인민들의 정의로운 투쟁을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정당, 사회단체들로서 **버무다통일당**(지도자 기본즈), **진보레이버당**, **버무다민주당**, **버무다산업동맹**, **공무원로조**가 있다.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감자, 남새, 바나나, 귤을 많이 가군다. 수출을 위한 꽃도 가군다.

부침땅은 약 220헥타르에 불과하다.

집짐승으로는 소, 돼지, 염소, 말 등을 기른다.

관세, 우편세, 교통세, 인지수입세, 관광수입 등이 주요수입원천이다.

이 섬은 또한 선박들의 연료 및 먹는물 공급기지의 하나이며 수산기지로서도 리용된다. 철길은 없으며 주요섬들사이는 다리로 련결되여있다.

출판보도; 신문 미드 오우션 뉴스, 로이열 가제트

방송 버무다방송, 버무다텔레비죤방송

바 하 마

(바하마련방)

넓이 1만 1,405km²
인구 19만 3,000명(1973년)
수도 나쏘(주민 10만명)

바하마련방은 꾸바와 아이띠섬 북쪽의 대서양에 있는 약 700여개의 섬들과 2천 400여개의 작은섬 및 암초들로 이루어졌다. 사람이 사는 섬은 30여개이다.

주민의 86%가 흑인이며 나머지는 백인이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정 치

바하마는 1783년의 《베르사이유조약》에 의하여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를 강요당하였으며 1964년 1월 7일에 《내부자치권》을 쟁취하였다.

1968년 4월과 1972년 9월에 진행된 의회선거에서 식민지제도의 끝장을 주장한 진보자유당이 승리하였다. 1973년 7월 10일에 독립을 선포한 이 나라는 나라이름을 바하마련방으로 선포하였다.

바하마는 1973년 10월에 유엔성원국으로 되였으며 까리브 공동체 및 공동시장 성원국으로 되였다.

1977년 1월에 정부는 12마일의 경제수역을 200마일로 넓힐것을 계획하고 3월에 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해안 《방위군》을 창설하였다.

의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은 16명, 하원의원은 38명, 임기는 각각 5년, 1972년에 총선거결과 하원에서 진보자유당이 29석을 차지

총독 국가수반, 총독 미로 바트러

정부 총리 린든 오. 핀들링(1967년—)

정당, 사회단체; 진보자유당(집권당) 하원에서 29석 차지, **바하마통일당**, **민족민주당**, **레이버당**, **바하마로조련맹**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관광봉사업과 과일을 재배하는 농업이다.

주요농작물은 도마도, 바나나, 파이내플, 귤 등이다.

주요수출품은 과일, 물고기, 통나무이며 주요수입품은 식량과 공업제품이다.

출판보도; 신문 오피셜 가제트, 바하미언 타임스, 바하머스 픽토리얼, 가디언, 바하미언 레뷰 매거진

방송 바하마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마르띠니끄

(프랑스식민지)

넓이 1,102km²
인구 35만 8,000명(1974년)
행정중심지 포르 드 프랑스(주민 약 10만명)

마르띠니끄는 까리브해의 소안띨제도가운데 있으며 영령 도미니카섬의 남쪽에 있는 섬나라이다.
주민구성에서 흑인과 혼혈인이 98%, 백인이 2%이다. 원주민인 인디안은 전멸되였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정 치

마르띠니끄는 1635년부터 프랑스의 식민지로, 1946년 3월에는 프랑스의 《해외현》으로 되였다.
프랑스정부가 임명하는 지사가 형식상 《해외령의회》를 두고 통치한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57년에 창건, 1976년 11월 6차당대회 진행, 총비서 니꼴라 아르만, **《공화국을 위한 민주주의자동맹》**(집권당), **진보당, 통일사회당, 자치를 위한 투쟁전선, 공산청년동맹, 녀성동맹**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은 농업이다.
부침땅의 절반은 사탕수수를 재배하며 그밖에 바나나, 커피, 코코아, 파이내플도 가꾼다.
프랑스식민주의자들의 후손인 열세대가정이 부침땅의 80%, 은행의 50%, 10여개의 사탕공장을 틀어쥐고있다.
공업부문에서는 사탕수수가공과 람술제조업이 기본이다.
마르띠니끄는 사탕, 바나나, 람술을 수출하고 식량과 공업제품을 사들인다.
출판보도; 신문 르 꽁바, 르 꾸리에, 라 뻬띠뜨 빠뜨리

서인도제도

(화란식민지)

넓이 961km²
인구 23만 8,000명(1974년)
행정중심지 윌렘스타드(주민 4만명)

서인도제도는 베네수엘라의 북부 까리브해에 있는 쿠라싸오, 아루바, 보나이레, 사바, 산 에스타시오 등 6개의 섬들로 이루어졌다.
이 제도는 1634년에 화란식민지로 되였으며 1954년부터 《내부자치제》를 실시하고있다.
이 제도의 제일 큰 섬인 쿠라싸오섬(넓이 430km²)에는 미제의 《스탠다드 오일》회사가, 아루바섬에는 영국의 《로이얼 쉘》회사의 큰 정유공장들이 있다. 미영제국주의자들은 베네수엘라로부터 보내오는 원유를 여기에서 가공하여 다른 나라들에 비싸게 팔아먹는다.
귤은 서인도제도의 주요농작물이다.

쎈트루시아

(영국식민지)

넓이 616km²
인구 약 9만 6,800명
행정중심지 카스트리(주민 2만 5,000명)

까리브해의 동쪽 소안띨제도에 있는 섬나라이다.
쎈트루시아는 1763년 《빠리조약》에 의하여 영제국주의자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1967년 3월 1일부터 《내부자치제》를 실시하고있으나 대외 및 국방관계는 영제국주의자들이 틀어쥐고있다.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요농작물은 바나나, 사탕수수, 코코아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흑인이며 5%정도의 백인이 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안 티 구 아

(영국식민지)

넓이 172km²
인구 7만명(1974년)
행정중심지 쎈트 죤스

안티구아는 까리브해의 동쪽 소안띨제도의 동부에 있는 섬나라이다.
1632년에 영국의 식민지로 된 안티구아는 1967년 2월 27일부터 《내부자치제》를 실시하고있다.
1940년에 미제는 영제국주의자들과 결탁하여 이 나라에 해군 및 공군 기지를 설치하였다.
1976년 2월에 진행된 총선거 결과 비어 버드를 총리로 하는 새 자치정부가 섰다.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요농작물은 사탕수수, 목화, 과일, 담배 등이다.

말빈제도(포클랜드)

(영국식민지)

넓이 1만 2,000km²
인구 2,130명(1969년)
행정중심지 스탠리(주민 약 1,000명)

말빈제도는 남미대륙의 남쪽끝 마젤란해협 동쪽 480키로메터지점의 바다가운데 있는 200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졌다. 이 섬들에는 펭긴새들이 많다.

주민의 대부분은 이슬란드사람들이다.

영제국주의자들은 1835년에 아르헨띠나의 소유로 인정되고있던 이 제도에 침입하여 140여년간이나 지배하면서 포클랜드라고 불러왔다. 한편 아르헨띠나는 이 제도에 대한 영제국주의자들의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말빈제도라고 부르고 여기에 자기의 군대 200여명(1976년 현재)을 두고있다.

1976년 9월 유엔비식민지화위원회는 말빈제도를 아르헨띠나에 속하게 하기 위한 협상을 다그칠것을 아르헨띠나와 영국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1977년 2월부터 영국과 아르헨띠나사이에 대화가 시작되였으나 합의를 이룩하지 못하였다.

경제의 기본은 집짐승기르기이다. 이 제도에는 약 62만마리의 양과 약 1만마리의 소가 있다. 주민의 대부분이 양기르기와 양털처리부문에서 일한다. 영제국주의자들의 《포클랜드제도회사》가 경제의 80%를 장악하고있다.

1974년 9월부터 아르헨띠나는 영국과 맺은 협정에 따라 이 섬과 무역을 하고있다.

과들루쁘

(프랑스식민지)

넓이 1,779km²
인구 34만 9,000명(1974년)
행정중심지 바스떼르(주민 1만 4,000명)

과들루쁘는 까리브해의 소안띨제도에 있는 섬나라이다.

주민구성에서 흑인과 혼혈인이 98%, 프랑스계백인이 2%를 차지한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정 치

과들루쁘는 1816년에 프랑스식민지로, 1946년에는 프랑스의 한개 《해외현》으로 되였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58년에 창건, 1976년 12월에 6차당대회 진행, **사회당, 자치를 위한 투쟁전선**(공산당과 기타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이 망라), **로동총련맹**(이 련맹 서기장이 1972년 7월에 우리 나라 방문)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사탕수수재배를 많이 하는 농업이 기본이다. 부침땅의 절반이상이 사탕수수밭이다. 사탕수수농장의 70%이상을 프랑스자본가놈들이 거머쥐고있다.

그밖에 바나나, 커피, 와니르(향료)가 난다.

출판보도; 신문 에뗑셀(공산당기관지)

도미니카

(영국식민지)

넓이 789km²
인구 약 8만명
행정중심지 로조(주민 1만 5,000명)

도미니카는 까리브해의 동쪽 소안띨제도에 있는 작은 섬나라이다.

열대성기후를 가진 나라이며 한해동안에 섬의 내륙지방에서는 8,380mm의 비가 내린다.

주민의 대부분은 흑인이고 백인은 5%에 불과하며 원주민인 인디안은 100명정도 남아있다.

공용어는 영어이며 프랑스어도 쓴다.

정 치

도미니카는 1763년 《빠리조약》에 의하여 영국식민주의자들에게 강점당하였으며 1783년에는 놈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1967년 3월 1일 이 나라에 《련합국》(내부자치)의 지위를 허용하였다.

국회와 자치정부가 있으나 대외관계와 방위문제는 여전히 영제국주의자들이 틀어쥐고있다.

섬주민들은 도미니카의 완전한 민족적독립을 위하여 완강하게 투쟁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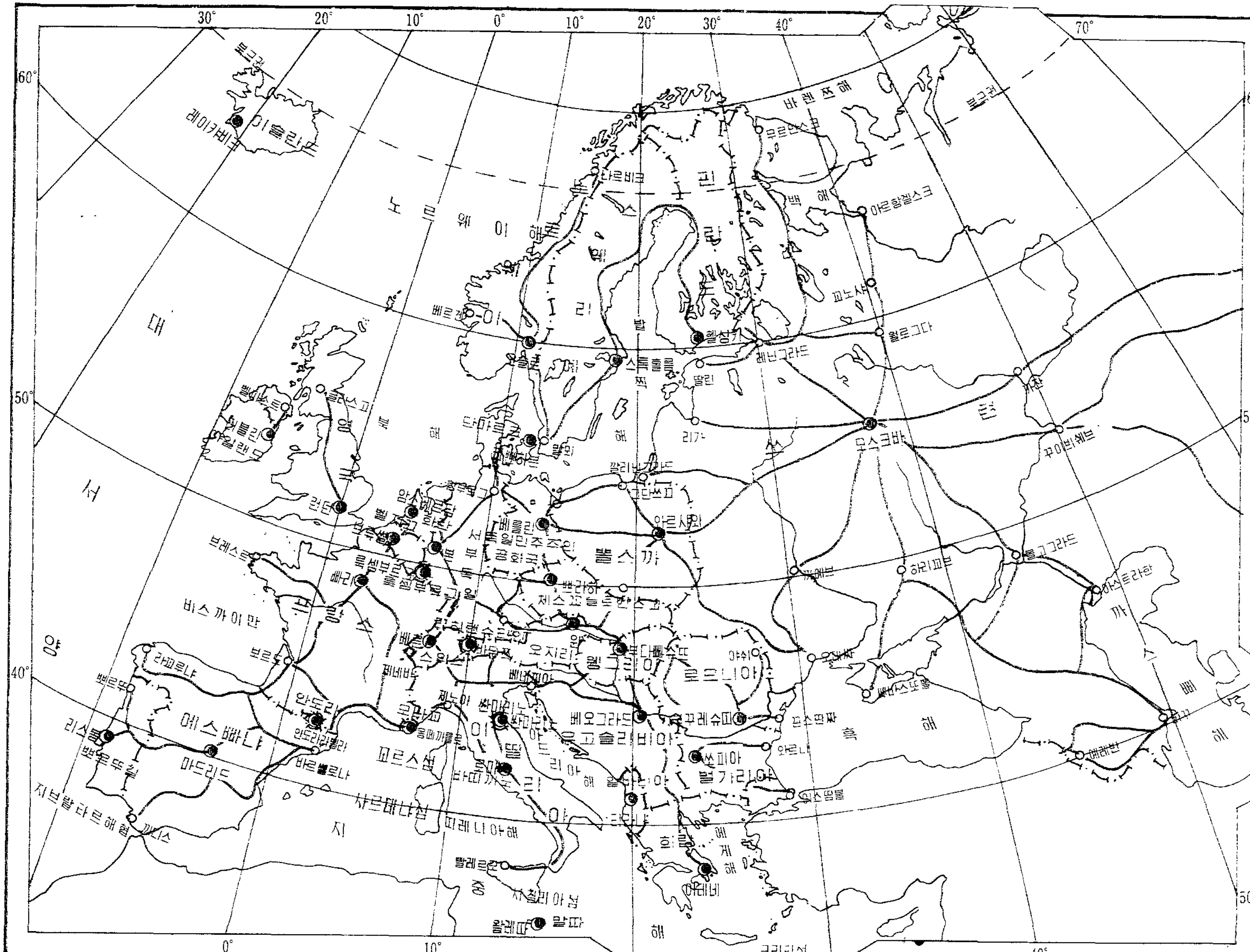
경제에서 기본은 수출용 열대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이다.

주요농작물은 바나나와 오렌지, 코코아, 감귤류, 사탕수수, 야자, 포도 등이다. 일하는 사람의 절반이상이 바나나재배에 종사하는데 그 생산량은 한해에 약 6만톤이다.

주민들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도미니카 크로니클, 도미니카 헤랄드, 스타

구 라 파



이슬란드
레이캬비크
바렌쯔해
무르만스크
나르비크
핀란드
백해
아르항겔스크
노르웨이해
대서양
베르겐
오슬로
스톡홀름
헬싱키
레닌그라드
볼로그다
딸린
리가
모스크바
꾸이비쉐브
아일랜드
더블린
글라스고
런던
단마르크
깔리닌그라드
그단스크
바르샤바
베를린
뽈스까
브레스트
빠리
비스까이만
프랑스
쁘라하
체스꼬슬로벤스꼬
오지리
웽그리아
로므니아
부다뻬스트
야씨
오데싸
하리꼬브
볼고그라드
아스뜨라한
까스삐해
바꾸
에레반
세바스또뽈
꼰스딴짜
흑해
와르나
이스딴불
리스본
뽀르또
라꼬루냐
에스빠냐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안도라
까디스
지브랄따르해협
보르도
마르세유
꼬르스섬
사르데냐섬
띠레니아해
로마
이딸리아
베오그라드
유고슬라비아
부꾸레슈띠
쏘피아
벌가리아
아드리아해
띠라나
에게해
아테네
크리타섬
빨레르모
시칠리아섬
말따
중해

구 라 파

쏘 련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넓이 2,240만 2,200Km²
인구 2억 5,790만명(1977년 1월 1일)
수도 모스크바(주민 763만 2,000명, 1976년 1월)

자연 및 주민

쏘련은 구라파의 동북부와 아세아의 중부 및 북부를 차지하고있으며 12개나라와 국경을 같이 하고있다. 령토의 60%가 벌이며 20%는 높은벌과 산지, 나머지는 사막, 반사막, 진펄로 되여있다.

기후는 지역적차이가 심하며 북부(전령토의 16%)는 한대, 중부(80%)는 온대, 남부(4%)는 아열대에 속한다. 한해강수량은 서부에서 500~600mm,중앙아세아에서 80mm이다.

다민족국가로서 로씨야족(53%), 우크라이나족(20%), 백로씨야족, 우즈베크족, 따따르족 등 100여개의 민족과 소수민족이 살고있다.

공용어는 로어이다.

정 치

1917년 11월 7일 로씨야로동계급은 레닌의 지도밑에 사회주의혁명의 승리를 이룩하고 인류력사에서 처음으로 새형의 쏘베트국가를 창건하였으며 1922년 12월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을 결성하였다. 쏘련은 1924년 1월 31일 제2차 전련맹쏘베트대회에서 첫 헌법을 채택하였다.

1925년 12월 쏘련공산당 제14차대회에서 사회주의공업화를 실현할데 대한 로선, 1927년 12월 제15차당대회에서 농업집단화를 실현할데 대한 방침이 제시되였다. 쏘련은 제1차, 제2차 5개년계획(1928년—1932년, 1933년—1937년)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되였으며 농업집단화를 완성하였다. 쏘련은 1936년 12월 전련맹쏘베트 제8차비상대회에서 새 헌법을 채택하였다.

1975년까지 쏘련인민은 9차례의 5개년계획을 수행하고 1976년부터 제10차 5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7년 5월, 10월, 12월에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각각 진행되였다. 5월전원회의에서는 쏘련의 새 헌법초안을 토의찬동하였으며 쏘련국가의 가사와 곡을 찬동하였다. 10월전원회의에서는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헌법(기본법)초안과 헌법초안에 대한 전인민적토의결과에관하여》를 토의하고 이와 관련한 결정서를 채택하였으며 12월전원회의에서는 1978년도 경제사회발전국가계획에 대한 보고와 1978년도 국가예산 및 1976년도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보고를 토의하고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최고쏘베트 제9기 제6차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문제, 산림보호사업을 더욱 개선하고 산림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대책들에 관한 문제, 쏘련 및 가맹공화국들의 산림법기본초안,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정령 비준에 관한 문제 등이 토의되였다.

16일회의에서는 사회보장으로 넘어가는것과 관련하여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에서 해임해줄데 대한 니꼴라이 뽀드고르느이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및 량원년장자리사회의 제의에 따라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레오니드 브레쥬네브를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새로 선거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쏘련 및 가맹공화국들의 산림법기본을 승인함에 관한 법령과 산림보호사업을 더욱 개선하고 산림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할것을 예견하는 결정서가 채택되였다.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최고쏘베트 제9기 제7차 특별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헌법(기본법)초안과 헌법초안에 대한 전인민적토의결과에 관하여》라는 보고를 토의하고 새 헌법을 채택하였으며 10월 7일을 쏘련헌법절로 제정하였다.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최고쏘베트 제9기 제8차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1978년도 경제사회발전국가계획에 대한 보고, 1978년도 국가예산 및 1976년도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보고를 토의하고 1978년도 경제사회발전국가계획에 관한 법령, 1978년도 국가예산에 관한 법령 및 1976년도 국가예산집행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1월 31일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 60돐에 관한 결정을 발표하였다.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내각은 현 5개년계획기간에 철도운수를 발전시킬데 대한 결정(2월), 공업기업소와 건설기관생산직장장들의 역할을 더욱 높일데 대한 결정(5월), 가금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특별결정(5월), 상업을 발전시킬데 대한 결정(7월), 전문기술교육체계를 개선할데 대한 결정(9월), 인

민보건사업을 더한층 개선할데 관한 결정(10월), 《보통교육부문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과 그들의 로동숙련사업을 더한층 개선할데 관하여》라는 결정(12월)을 각각 채택하였다.

6월 19일 쏘련의 모든 가맹공화국들과 자치공화국들에서 지방근로자대의원쏘베트선거가 진행되였다.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 60돐을 기념하는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쏘련최고쏘베트, 로련최고쏘베트의 공동경축회의가 진행되였다. 경축회의에서는 쏘련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과 세계 여러 나라 인민과 국회 및 정부들에 보내는 호소문이 채택되였다.

11월 7일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서 위대한 사회주의10월혁명 60돐을 경축하는 열병식과 근로자들의 시위가 진행되였다.

1977년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쏘련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레오니드 브레쥬네브가 프랑스를 공식방문하였다. 브레쥬네브는 프랑스대통령 데스땡과 랑부이에에서 여러차례 회담하였다. 22일 랑부이에에서 쏘련 프랑스선언과 쏘련 프랑스 공동성명이 조인되였다.

또한 이해에 아프가니스탄대통령(4월), 수리아대통령(4월), 에티오피아림시군사행정리사회 위원장(5월), 핀란드대통령(5월),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인 국가쏘베트위원장(5～6월), 로므니아대통령(8월), 유고슬라비아대통령(8월), 앙골라대통령(9월) 등이 쏘련을 각각 방문하였다.

최고쏘베트 최고주권기관으로서 동등한 권한을 가지는 량원—련맹쏘베트와 민족쏘베트로 구성, 임기는 각각 5년, 련맹쏘베트는 전련맹적으로 쏘련인민의 공동의 리익을 대표하며 민족쏘베트는 각 민족의 리익을 대표한다. 지금의 최고쏘베트는 제9기로서 1974년 6월에 선거되였다.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 레오니드 일리이치 브레쥬네브(1977년 6월 16일—)

정부 1974년 7월에 구성, 총리 알렉쎄이 니꼴라예비치 꼬씌긴, 외교부장 안드레이 안드레예비치 그로믜꼬, 국방부장 드미뜨리 표도로비치 우쓰찌노브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03년 7월 30일 창건, 1976년 2월 25일부터 3월 5일까지 제25차당대회 진행, 총비서 레오니드 일리이치 브레쥬네브, **직업동맹**, **레닌공산청년동맹**, **쏘련청년단체위원회**, **녀성위원회**, **쏘련로병위원회**

경제, 사회문화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가이다. 세계공업생산의 20%를 차지한다.

주요지하자원은 철, 망간, 석탄, 원유, 가스, 연, 동, 아연 등이며 수력자원도 많다.

주요공업부문은 연료동력공업, 금속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등 중공업이며 중공업은 이나라 공업의 70%이상을 차지한다.

1977년에 공업제품생산은 1976년에 비하여 5.7% 늘어났다. 또한 이 기간에 공업부문에서 로동생산능률은 4.1% 높아졌다.

1977년에 250개의 새로운 기업소들이 건설되였으며 화학및석유화학공업, 기계공업, 금속가공공업이 빨리 발전하였다. 1977년 한해동안에 석유는 5억 4천 600만톤(액화가스포함), 가스는 3천 460억립방메터, 강철은 1억 4천 700만톤 생산되였다.

농업에서는 알곡생산이 기본이며 공예작물, 축산, 과수업을 하고있다. 전령토의 3분의 1이 부침땅이다. 그 가운데서 36%는 씨붙임땅이고 나머지는 먹이풀재배지, 방목지이다.

주요알곡작물은 밀, 호밀, 보리, 귀밀, 강냉이 등이며 주요공예작물은 목화, 아마, 삼, 사탕무우, 해바라기, 담배, 차 등이다. 1977년에 알곡은 1억 9천 550만톤, 목화는 876만톤 생산되였다.

축산업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 돼지, 양, 염소 등이다.

물고기도 많이 잡는다.

산림자원이 세계에서 가장 많다. 산림의 넓이는 7억 4천 700만헥타르이다.

무역구조에서 공업시설품의 수출이 큰 몫을 차지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기계설비, 연료, 광물, 금속, 식료품 등이다.

1977년에 쏘련은 세계 118개나라와 무역을 진행하였다. 수출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한것은 석유와 석유제품, 전력, 고체연료 등이다. 연료와 전력은 대부분 사회주의나라들에, 석유와 석유제품은 핀란드, 이딸리아, 서독, 프랑스 등에 수출하였다. 1977년에 기계, 설비, 수송수단들의 수출액만도 63억루블리에 달하였다.

1977년에 수입에서는 기계들과 설비, 수송수단 등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1977년에 수입총액의 절반이상은 사회주의나라들이, 32.9%는 자본주의나라들이, 10%는 발전도상나라들이 각각 차지하였다.

화폐단위는 루블리이다.

쏘련에는 880개의 대학이 있으며 그 가운데서 종합대학은 60개이다. 1977년현재 쏘련에서는 9천 300만명이 공부하고 있었다.

1977년에 쏘련은 인공지구위성 《꼬쓰모쓰—890》호로부터 《꼬쓰모쓰—970》호에 이르기까지, 우주비행선 《쏘유즈—24》호로부터 《쏘유즈—26》호 까지, 궤도과학정류소 《쌀류트—6》호 등을 각각 쏘올렸다.

또한 8월 17일 원자쇄빙선《아르끄찌까》호가 북극의 지리학적 극지점에 당도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따쓰, 아뻬엔

신문 쁘라우다(공산당기관지), 이즈베쓰찌야 (최

고쏘베트상임위원회 및 내각 기관지), 꼼쏘몰쓰까야 쁘라우다(레닌공청기관지), 뜨루드 (직맹기관지), 크라쓰나야 즈베즈다(국방부기관지)

잡지 꼼무니쓰뜨(공산당정치리론잡지)

방송 모스크바방송, 모스크바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0월 12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49년 3월에는 경제및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55년 2월에는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1960년에는 상업및항해조약, 1961년 7월에는 우호협조및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1967년 10월에는 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 1970년 9월에는 경제및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1977년에는 두 나라 사이의 1977년도 영화부문협조교류계획서(3월 22일)와 어업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의정서(7월 28일)가 각각 조인되였다.

1958년 7월 6일에는 쏘조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두브나련합원자핵연구소에서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와 영화상영주간 및 감상회를 진행하였다.

1977년 1월 우리 나라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채택된 남조선 제정당,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지지하여 직업동맹 중앙평의회와 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가 각각 성명을 발표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쏘련의 여러 도시들과 농촌들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회의들과 집회, 친선야회 등이 진행되였다.

6월 24일 모스크바에서는 직업동맹 중앙평의회, 레닌공산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쏘련대외친선문화련락협회련맹, 쏘조친선협회, 쏘련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 쏘련평화옹호위원회, 녀성위원회 주최로 수도사회계대표들의 집회가 진행되였다.
또한 모스크바 다이야공장(6월 30일), 쁘레쓰넨스크기계공장(7월 15일) 등에서 련대성집회가 진행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 까자흐쓰딴, 뚜르크메니야, 울라지보쓰또크, 하바롭스크, 이르꾸쯔크를 비롯하여 여러곳에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행사들이 진행되였다.

1977년에 쏘련공산당당일군대표단(10월), 정부대표단(9월), 정부무역대표단(2월), 최고쏘베트대표단(6월), 공산당중앙위원회 정치리론잡지 《꼼무니쓰뜨》대표단(6월), 쏘조친선협회대표단(11월), 작가대표단(5월), 보건대표단(10월), 영화대표단(11월), 해운부대표단(12월) 등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또한 이해에 조선로동당당일군대표단(7월), 조쏘친선협회대표단(2월), 직맹대표단(3월), 녀맹대표단(7월), 조선기자동맹대표단(2월), 영화대표단(3월, 7월), 수산대표단(7월), 건재공업부대표단(1월) 등이 쏘련을 방문하였다.

뽈 스 까

(뽈스까인민공화국)

넓이 31만 2,677km²
인구 3,480만명(1977년말)
수도 와르샤와(주민 143만 6,100명,1976년 3월)

자연 및 주민

뽈스까는 구라파의 동북쪽에 자리잡고있다. 령토의 80%이상이 벌이다.

기후는 동구라파대륙성기후와 서구라파해양성기후의 영향을 받아 변화가 심하나 대체로 따뜻하다. 한해평균기온은 7~9°C이며 한해평균강수량은 700mm이다.

주민의 약 98%가 뽈스까사람이며 그밖에 백로씨야사람, 우크라이나사람, 체스꼬사람, 슬로벤스꼬사람, 독일사람 등이 있다.

공용어는 뽈스까어이다.

정 치

1944년 7월 22일 뽈스까는 제2차세계대전시기 일시적으로 강점되였던 히틀러독일의 파쑈통치밑에서 해방되여 민족재생의 길에 들어섰다.

재생후 뽈스까인민은 1945~1947년까지 부르죠아정권을 되살리려던 반동세력을 진압하고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하였다.

1947년 1월 19일 총선거를 통하여 공산당과 사회당(좌익)을 중심으로 하는 인민정권이 수립되였으며 1952년 7월 헌법이 채택되였다.

뽈스까인민은 통일로동당의 령도밑에 6개년계획(1950—1955년)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나라를 사회주의적공업—농업국가로 전변시켰다.

뽈스까인민은 1975년까지 5차례의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1976년부터 통일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제6차 5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7년에 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1월, 4월, 6월, 10월에 각각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들에서는 농업문제, 《인민들의 사회주의적의식과 애국주의적통일을 더한층 강화하기 위하여》라는 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테제, 살림집건설문제,《근로자들의 수요의 더욱 원만한 충족을 위하여》라는 정치국의 보고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다.

8월과 12월에 진행된 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는 1977년의 가을걷이정형과 큰물피해지역의 실태, 경제발전문제 등이 토의되였으며 1978년 1월에 통일로동당 제2차전국대표자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다.

3월, 6월, 10월, 12월에 진행된 쎄임회의에서는 통일로동당 제7차대회의 결정에 근거한 사회발전계획을 수행할데 대한 문제, 1976년도 사회경제발전계획수행과 국가예산집행에 관한 문제, 대중소비품의 생산을 늘이며 농업을 집약화하며 살림집을 계속 건설하며 상업과 편의봉사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시책에 관한 문제, 1978년도 사회경제발전계획과 예산을 토의하였으며 일련의 법령과 결정들이 채택되였다.

1977년에 뽈스까는 알바니아와 1976—1980년도 상품교류 및 지불에 관한 협정 (2월),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친선, 협조및호상원조에 관한 조약(5월), 알제리와 우편및원거리통신협조협정(7월), 이란과 경제협조발전에 관한 협정(9월) 등을 각각 맺었다.

1977년에 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에드와르드 게레크가 인도(1월), 독일민주주의공화국(5월), 체스꼬슬로벤스꼬(7월), 프랑스(9월), 웽그리아(10월), 이딸리아(11~12월) 등을 방문하였다.

또한 이해에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대통령(3월), 로므니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대통령(5월), 이란황제(9월)등이 뽈스까를 방문하였다.

쎄임 최고주권기관이며 립법기관, 대의원 460명, 임기 4년, 쎄임은 국가주권의 최고협의기관으로서 국가수반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쏘베트를 선거한다. 현 쎄임은 7기로서 1976년 3월 21일에 선거되였다. 쎄임의 휴회기간에는 국가쏘베트가 최고주권기관이다.

국가쏘베트위원장 헨리끄 야브원스끼(1972년 3월—)

정부 1976년 3월에 구성, 내각총리 뾔뜨르 야로쉐비치(1970년 12월—), 외교부장 에밀 보이따쉐크, 민족보위부장 보이체흐 야루젤쓰끼

정당, 사회단체; 통일로동당 전신은 1918년 12월 16일에 창건된 공산당, 1948년 12월 15일 로동당(1942년 1월 4일에 창건)과 사회당이 합당하여 통일로동당으로 됨, 1975년 12월 제7차당대회 진행, 제1비서 에드와르드 게레크, **통일농민당, 민주당, 인민통일전선, 직업동맹, 사회주의청년련맹, 녀성리사회**

경제, 사회문화

뽈스까는 사회주의적공업—농업국가이다. 1975년현재 국민소득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58%였다.

주요지하자원은 석탄(력청탄), 갈탄, 니탄, 천연가스, 동, 류황, 돌소금, 아연 등이다.

주요공업부문은 연료동력공업, 화학공업, 기계공업, 금속공업, 건재공업, 선박공업 등이다.

연료동력공업에서 중요한것은 석탄채굴이다. 석탄은 이 부문에서 요구되는 연료의 79%를 차지하며 나머지 21%는 원유와 천연가스가 차지한다. 주요산지는 상부실레지아탄전이며 여기에서 이 나라 석탄 총생산량의 90%가 생산된다.

전력생산의 대부분은 화력발전에 의거하고있다. 화학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석탄을 원료로 하는 합성암모니아, 질소비료, 합성섬유 등의 생산이다. 또한 석유화학공업, 제약공업도 발전하고있다. 1977년말현재 이 나라 공업총생산액에서 화학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8.9%이다.

기계공업에서는 선박, 차량, 광산기계 생산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자동차, 뜨락또르, 각종 공작기계, 야금설비, 정밀공학기구 등도 생산한다. 1977년에 쉐찐조선소에서는 액체성화학물질을 실어나를수 있는 유조선을 새로 무었으며 그단스크조선소에서는 배에서 물고기가공도 할수 있는 《스뻐루트》호 뜨랄선을 새로 무었다.

경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방직공업, 식료공업 등이다. 방직공업에서는 면천, 모직천, 아마천 등의 생산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식료공업에서는 사탕, 고기 및 우유 가공과 제분업이 비교적 발전하였다. 경공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현5개년계획기간에 생산토대를 더욱 강화하며 제품의 질을 높이는것을 주되는 과업으로 내놓았다.

1977년에 뽈스까에서는 1976년에 비하여 공업제품생산은 8.6%, 국민소득은 5.6% 늘어났다. 특히 채취공업, 자동차공업, 전자공업, 세멘트공업, 농기계제작공업 등이 발전하였다.

농업에서 기본은 알곡생산이며 씨뿌림땅의 60%가 알곡재배지이다. 부침땅은 약 1천 500만헥타르 이상이다.

주요농작물은 밀, 쌀보리, 귀밀, 감자, 사탕무우, 아마 등이다.

축산업에서 중요한것은 젖소, 돼지이며 그밖에 양, 말도 기른다.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1977년에 약 140억즐로띄를 축산업대상건설에 돌렸다.

이 나라에서는 농촌경리의 협동화를 완성하지 못하였다.

교통운수에서는 철도운수, 해상운수, 하천운수가 중요하다. 철길은 남부지역에 조밀하게 뻗어있다. 뽈스까에서는 1976~1977년 두해동안에 240키로메터의 철길을 새로 건설하였으며 1977년 한해동안에 약 20키로메터의 철길을 새로 전기화하였다.

대외무역에서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이 62%를 차지한다. 1977년에 대외무역에서 수출은 11.5%, 수입은 5.5% 각각 늘어났다.

주요수출품은 석탄, 아연, 콕스탄, 섬유제품,

기계, 선박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설비, 공업원료, 밀 등이다.

화폐단위는 술로띄이다.

1976년 9월에 중등학교학생수는 200만명이상에 달하였다.

출판보도; 통신 빠쁘

신문 뜨리부나 류드(통일로동당기관지), 그워스 쁘라찌(직맹기관지), 쉬만다르 므워디흐(사회주의청년련맹기관지), 조우네즈 볼노스찌(인민군기관지), 쥐찌 와르샤븨, 젠니크 류도븨

잡지 노웨드로기 (통일로동당리론잡지), 쥐찌 빠르띠(통일로동당생활잡지)

방송 뽈스까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0월 16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2년 6월에는 무역협정, 1956년 5월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57년 4월에는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1972년 10월에는 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1977년 3월 4일에는 상품호상공급 및 지불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1977년 1월 우리 나라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구국방안을 지지하여 와르샤와와 오뜨보쯔크시에서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가 진행되였다. 2월 17일 직업동맹 중앙평의회는 구국방안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4월 15일부터 25일까지 뽈스까에서 우리 나라 영화가 상영되였다.

4월에 노븨 솧츠도 자꼬빠네시에서는 《사회주의조선에서 이룩한 성과》라는 제목의 우리 나라 사진전람회, 노븨 솧츠도 뽀뜨니네면에서는 《천리마나라 조선》이라는 제목의 림체사진전람회가 각각 진행되였다.

5월 20일에는 제슈브시에서 보천보전투승리40돐에 즈음하여 《사회주의조선의 성과》라는 제목의 사진전람회가 열렸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뽈스까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위원회는 6월 24일 회의를 열고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7월 11일 직업동맹중앙평의회도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뽈스까조선친선오뜨보쯔크시, 뽈스까조선친선모델농업협동조합, 따르노브줴그 류황광산 및 가공공장, 쁘와브질소비료공장, 뱌우까청년야영소 등지에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련대성집회들이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29돐에 즈음하여 스케르네위쩨시주둔 인민군부대와 류블린시주둔 인민군부대에서 군인들의 집회가 진행되였으며 9월 13일에는 오스뜨로웨까고기가공공장에서 기념집회가 진행되였다.

1977년에 뽈스까 외교부장(6~7월), 군사대표단(9월), 직맹대표단(10월), 인민군중앙예술단 등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또한 이해에 조선로동당당일군대표단(7월), 정부대표단(11월), 정부무역대표단(3월), 《로동신문》 기자대표단(8월), 륙해운부대표단(2월), 과학원대표단(7월) 등이 뽈스까를 방문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넓이 12만 7,870km²

인구 1,500만명(1977년 3월)

수도 쁘라하(주민 116만 9,560명, 1976년 1월)

자연 및 주민

체스꼬슬로벤스꼬는 구라파의 중심부에 있는 내륙국가이다. 전령토의 약 60%가 300~700m의 낮은 산지이다.

기후는 대륙성기후이나 대서양의 영향을 받아 비교적 따뜻하다. 한해평균기온은 9°C이며 한해강수량은 800mm이다.

주민의 기본은 체스꼬사람(65%)과 슬로벤스꼬사람(29%)이며 그밖에 웽그리아사람, 우크라이나사람, 뽈스까사람 등이 있다.

국어는 체스꼬어와 슬로벤스꼬어이다.

정 치

체스꼬슬로벤스꼬는 1945년 5월 9일 히틀러독일의 파쑈통치기반에서 해방되였다.

1948년 2월 25일 공산당의 령도밑에 로동계급은 인민민주주의제도를 뒤집어엎으려던 제국주의자들과 국내반동들의 반혁명적음모를 짓부셔버리고 혁명의 전취물을 지켜냈다. 2월사변후 정부는 산업, 은행, 상업 부문의 국유화를 실시하였으며 토지개혁을 완수하고 사회주의건설의 길에 들어섰다.

1960년 7월 11일 새 헌법을 채택하고 나라 이름을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으로 고쳤다.

체스꼬슬로벤스꼬인민은 1975년까지 5차례의 5개년계획을 수행하고 1976년부터 당15차대회가 내놓은 제6차 5개년계획(1976—1980년)을 수행하는 길에 들어섰다.

1977년에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3월, 5월, 12월에 각각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들에서는 건설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근로자들의 물질적수요를 충족시킬데 대한 공산당 제15차대회결정 실행에 관한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보고, 1978년도 인민경제계획에 대하여 토의하였다.

6월에 진행된 련방회의 량원합동회의에서는

1976년도 국가예산집행에 관한 보고와 과학일군양성 및 그들의 기능수준제고에 관한 법안 등이 토의되였다.

10월과 12월에 진행된 련방회의 회의에서는 나라의 대외정책에 관한 보고를 토의하고 결정서를 채택하였으며 1978년도 국가예산안을 토의하고 승인하였다.

1977년에 혁명직맹운동 제9차대회(5월)와 사회주의청년동맹 제2차대회(10월)가 각각 진행되였다.

1977년 6월에 체스꼬슬로벤스꼬는 꼬모르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새로 맺었다.

1977년에 체스꼬슬로벤스꼬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대통령인 구스따브 후싸끄가 뽈스까(3월), 이라크(6월), 로므니아(6월), 웽그리아(9월), 독일민주주의공화국(10월)을 각각 방문하였다.

또한 이해에 뽈스까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7월)와 이란황제(9월)가 체스꼬슬로벤스꼬를 방문하였다.

련방회의 인민의원과 민족의원의 량원제, 임기 5년, 인민의원 대의원은 전련방적인 인구비례에 의하여 선출되며 그 수는 200명이다. 민족의원은 체스꼬와 슬로벤스꼬에서 각각 75명씩 선거하여 150명으로 구성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량원합동회의에서 선거, 임기 5년, 대통령 구스따브 후싸끄(1975년 5월—)

련방정부 총리 루보미르 슈뜨로우갈, 외교부장 보후슬라브 호뇨우삐끄, 민족보위부장 마르띤 드주르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5월 14일 창건, 1948년 6월 28일 사회민주당과 합당, 1976년 4월 제15차당대회 진행, 총비서 구스따브 후싸끄, 사회당, 인민당, 슬로벤스꼬부흥당, 민족전선, 혁명직맹운동, 사회주의청년동맹, 녀성리사회

경제, 사회문화

체스꼬슬로벤스꼬는 사회주의공업국가이다.
공업및농업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거의 90%에 달한다.

주요지하자원은 갈탄, 력청탄이며 그밖에 철, 망간, 동, 돌소금, 안티몬 등이 있다.

주요공업부문은 기계제작공업이며 그밖에 흑색금속공업, 연료동력공업, 합성화학공업, 천 및 구두생산 등이다. 공업에서 기계제작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28.3%(1975년)이다.

기계공업에서는 금속절삭기계, 전기 및 내연기관차, 자동차, 뜨락또르, 발동기, 경공업 및 건설기계 생산부문이 발전되여있으며 이밖에 압연설비, 화학설비 등도 생산한다.

연료동력공업에서 중요한것은 석탄(갈탄, 력청탄)이며 이것은 동력자원의 85~90%를 차지한다. 전력생산은 대부분 화력발전에 의거하고있다.

흑색금속공업도 발전되여있으나 원료의 60%를 수입하고있다.

화학공업에서는 합성섬유, 가소물, 소다, 류산, 화학비료, 인조고무 생산 등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1976년에 이 나라에서 소비된 방직공업원료의 총량에서 합성섬유가 차지하는 몫은 거의 25%에 달하였다.

경공업에서 중요한것은 섬유공업과 구두생산이며 그밖에 유리, 도자기, 종이 생산과 목재가공업이다. 식료공업에서는 제탕공업과 맥주생산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1977년에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는 국민소득이 45% 늘어났다. 특히 기계제작공업과 화학공업이 다른 공업부문보다 빨리 발전하였다.

부침땅은 령토의 약 42%(530만헥타르)이며 주로 체스꼬지역에 있다. 슬로벤스꼬에는 풀밭이 많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감자, 사탕무우, 강냉이, 호쁘, 아마 등이다.

축산업은 농업총생산액에서 약 40%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주로 젖소), 말, 돼지, 양, 가금류이다.

대외무역에서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이 총액에서 약 70%이상을 차지한다.

주요수출품은 기계 및 설비, 유리제품, 사탕, 호쁘, 경공업제품이며 주요수입품은 철광석, 유색금속광물, 화학공업원료, 원유제품, 목화 등이다. 수출총액에서는 기계 및 설비가 48.8%를 차지하며 수입총액에서는 원료수입이 약 50%를 차지한다.

화폐단위는 크로나이다.

1975—1976학년도에 9천 285개의 초등학교에서 188만 1천 414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있었다.

1978년초현재 이 나라에는 300개의 병원과 412개의 종합진료소 그리고 29개의 의학연구기관이 있다.

출판보도; 통신 체떼까, 《오르비스》통신(1977년 7월 1일에 새로 창설)

신문 루데 쁘라보(공산당기관지), 쁘라체 (혁명직맹운동기관지), 믈라다 프론따 (사회주의청년동맹기관지), 스워보드네 슬로보, 리도바 데모크라씨에

잡지 노바 미쓸(공산당리론잡지)

방송 체스꼬슬로벤스꼬방송, 체스꼬슬로벤스꼬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0월 2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4년 12월 21일에는 경제및기술협조를 위한 협정, 1956년 6월 23일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을 각각 맺었다.

1977년 1월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구국방안을 지지하여 체스꼬슬로벤스꼬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위원회와 체스꼬슬로벤스꼬반파쑈투사동맹이 2월 3일과 2월 14일 각각 성명을 발표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체스꼬슬로벤스꼬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위원회는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클라드노전선공장에서는 련대성군중집회가 진행되였다.

1977년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당일군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또한 이해에 조선로동당 당일군대표단(7월), 직맹대표단(5월, 12월), 사로청대표단(10월), 녀맹대표단(10월) 등이 체스꼬슬로벤스꼬를 각각 방문하였다.

웽 그 리 아

(웽그리아인민공화국)

넓이 9만 3,030km²

인구 1,062만 5,000명(1976년 12월 31일)

수도 부다뻬슈뜨(주민 207만 960명, 1976년 1월)

자연 및 주민

웽그리아는 구라파의 동쪽에 있는 내륙국가이다. 령토의 80%가 넓은 벌과 낮은 언덕으로 되여 있다.

기후는 비교적 따뜻하고 메마른 온대대륙성을 띠며 여름은 길고 무덥고 겨울은 춥다. 한해평균기온은 10~11°C이며 한해평균강수량은 서쪽지방에서 800mm, 동쪽지방에서 500mm이다.

주민의 96%이상이 웽그리아사람(마쟈르족)이며 그밖에 슬로벤스꼬사람, 로므니아사람, 독일사람, 유고슬라비아사람 등이 있다.

공용어는 웽그리아어이다.

정 치

웽그리아는 1945년 4월 4일 파쑈독일의 기반에서 해방되였으며 1949년 8월 18일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웽그리아인민은 1946년 3월에 토지개혁을, 1946—1949년간에는 산업국유화를 실시하였다.

1956년 10월 웽그리아인민은 전복된 착취계급잔여분자들이 미제의 부추김을 받아 일으킨 반혁명 도발책동을 분쇄하고 이해 11월에 로농혁명정부를 수립하였다.

웽그리아인민은 1975년까지 4차례의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1976년부터 사회로동당 제11차대회가 제시한 제5차 5개년계획(1976—1980년)을 수행하고있다.

1977년 4월과 6월, 12월에 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4월전원회의에서는 당면한 국제정세문제들, 1977년 1.4분기 인민경제계획수행결과, 살림집건설15개년계획수행정형을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하였으며 6월전원회의에서는 절박한 국제문제들에 대한 보고와 당원 중교부사업에 관한 보고 및 당의 문화정책에 대한 보고를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12월전원회의에서는 1977년도 인민경제계획수행과 1978년도 인민경제계획및국가예산에 관한 보고를 토의하고 찬동하였다.

10월에 있은 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절박한 국제문제들에 대한 보고와 장기적인 경제정책 및 생산구조의 개선을 위한 지시에 관한 보고를 토의하였다.

3월과 6월, 10월에 진행된 국가회의 회의에서는 사회의 리익과 관련한 공민들의 의견, 제의, 신소의 심의질서에 관한 법안, 1976년도 국가예산집행총화에 관한 법안, 민법법전수정에 관한 법안을 토의채택하였다.

12월에 진행된 국가회의 회의는 1978년도 국가예산을 토의하고 승인하였으며 국영기업소들에 관한 법을 새로 채택하였다.

4월 16일부터 17일까지 전국사회주의로동작업반장대회가 진행되였다.

1977년에 웽그리아는 파푸아 뉴기니아(1월), 수리남(7월)과 각각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7년에 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까다르 야노쉬가 독일민주주의공화국(3월), 유고슬라비아(9월)를 방문하였다.

또한 이해에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대통령(9월), 뿔스까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10월), 예멘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전선통일정치조직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최고인민회의상임위원회 위원장(4월) 등이 웽그리아를 각각 방문하였다.

국가회의 최고주권기관, 임기 5년, 대의원수 352명, 국가회의 휴회기간에는 상임위원회가 최고주권기관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금의 국가회의는 1975년 7월에 선거되였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로숀찌 빨(1967년 3월—)

정부 총리 라자르 죄르지(1975년 5월—),

외교부장 뿌여 프리제쉬, 국방부장 찌네게 라요쉬

정당, 사회단체;사회로동당 전신은 1948년 6월

공산당(1918년 11월 20일 창건)과 사회민주당이 합당하여 창건된 근로자당이다. 1956년 11월에 당의 이름을 사회로동당으로 고쳤다. 1975년 3월 제11차 당대회 진행, 제1비서 까다르 야노쉬, **애국인민전선, 직업동맹, 공산주의청년동맹, 전국녀성리사회**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공업이 주도적부문을 차지한다.

공업에서 기본은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채굴공업, 금속공업이다.

주요지하자원은 보크사이트, 석탄, 망간, 철, 천연가스, 원유, 갈탄, 우라니움 등이다.

기계제작공업은 이 나라 공업총생산액의 3분의1을 차지한다. 기계제작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공작기계, 광산용기계, 건설및도로용기계, 운수기계 생산이다.

화학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화학비료와 카바이드 생산, 원유가공 및 합성섬유생산이다. 1977년에 80만 5천 200톤의 화학비료가 생산되였다.

채굴공업에서는 석탄과 보크사이트, 원유, 천연가스 등을 채취하고있다. 보크사이트는 1977년에 290만톤, 원유는 1976년에 210만톤, 천연가스는 1976년에 61억립방메터 생산되였다.

전력생산의 대부분은 갈탄에 의한 화력발전에 의거하고있다.

경공업에서는 피복공업, 식료공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피복공업은 1977년발현재 경공업총생산액에서 65%를 차지하고있다. 1977년에 경공업총생산액은 1976년에 비하여 6.6% 늘어났는데 그 가운데서 피복공업제품생산은 5% 늘어났다.

1977년에 웽그리아에서는 1976년에 비하여 국민소득은 7.5~8%, 공업총생산액은 6.8~7% 늘어났다. 특히 전력공업,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이 발전하였다.

농업생산은 국민소득의 약 20%를 차지하고있다. 부침땅은 전령토의 약 60%를 차지하며 그 가운데서 3분의 2는 알곡작물재배지이다.

주요농작물은 강냉이와 밀이며 그밖에 보리, 사탕무우, 감자, 해바라기, 담배, 목화, 포도를 비롯한 과일과 남새 등이다.

농업생산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웽그리아에서는 농촌에 대한 비료공급량을 늘이고있다. 1976년에 논밭헥타르당광물질비료를 평균 224키로그람씩 냈다.

교통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자동차운수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철도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1977년에 이 부문에 71억포린트의 자금을 돌렸다.

주요수출품은 보크사이트, 알루미니움을 비롯한 압연강재, 공작기계, 뻐스, 화물자동차, 전기기구, 피복제품, 의약품, 식료품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원유, 가스, 콕스, 철광석, 목화, 목재, 고무, 가축, 정밀기계 등이다.

무역총액에서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액이 3분의 2를 차지한다.

화폐단위는 포린트이다.

1975—1976학년도에 4천 468개의 초등학교에서 105만 1천 95명의 학생들이 공부하였다.

보건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1977년에 130억포린트의 자금을 돌린 결과 병원침대수는 1천 100대, 의사수는 600명이나 늘어났다.

출판보도; 통신 엠떼이(웽그리아통신)

신문 네프싸바드샤그(사회로동당기관지), 네프싸바(직맹기관지), 마쟈르 이휴샤그(공산주의청년동맹기관지), 마쟈르 넴제뜨(애국인민전선기관지)

방송 부다뻬슈뜨 제1방송, 부다뻬슈뜨 제2방송, 웽그리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1월 1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6년 6월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71년 9월에는 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1977년 2월 3일에는 1977년도 상품류통및지불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웽그리아조선친선녀지까다농업협동조합과 애국인민전선 똘리나주리사회의 주최로 보니하드군 베와르어이리에서 1977년 6월 25일과 7월 11일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를 각각 가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29돐에 즈음하여 9월 12일 애국인민전선 전국리사회의 주최로 보르쇼드주 오즈드군에서 기념집회가 진행되였다.

1977년에 웽그리아 사회로동당 당일군대표단 (5월), 정부무역대표단(3월), 외교부장(8월), 외교부 보도국대표단(5월), 텔레비죤촬영단 (10월), 통신사대표단(11월), 내무부 두나협주단 (3~4월) 등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또한 이해에 우리 나라 정부무역대표단(11월), 군사대표단(10월), 조선기자동맹대표단(4월) 등이 웽그리아를 방문하였다.

로 므 니 아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넓이 23만 7,500km²
인구 2,135만 2,000명(1975년말)
수도 부꾸레슈며(주민 164만 3,600명, 교외인구 포함, 1973년 7월)

자연 및 주민

로므니아는 발칸반도의 동북쪽 흑해기슭에 자리잡고있다.

기후는 대륙성기후이다. 한해평균기온은 10°C이며 한해강수량은 600~700mm이다. 1977년 3월 4일 부꾸레슈며를 포함한 동남부지역에서 큰 지진(리히터척도로 7.2)이 일어났다.

주민의 대부분이 로므니아사람(88%)이며 웽그리아사람, 독일사람, 기타 소수민족이 있다.

공용어는 로므니아어이다.

정 치

1944년 8월 23일 로므니아인민은 공산당의 령도밑에 반파쑈무장폭동을 일으켜 군사독재정권을 때려부시고 파쑈독일의 멍에에서 벗어났으며 1947년 12월 30일 인민공화국을 세웠다.

로므니아인민은 토지개혁(1945년 3월 20일), 산업국유화(1948년 6월 11일)를 비롯한 제반민주개혁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1948년부터 사회주의에로의 과도기에 들어섰다.

로므니아는 사회주의기초건설을 위한 제1차 5개년계획(1951—1955년)과 사회주의적개조를 기본과업으로 하는 제2차 5개년계획(1956—1960년)을 성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로 되였다.

로므니아는 1965년 8월 21일 새 헌법을 채택하고 사회주의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76년부터 로므니아인민은 당 제11차대회가 내놓은 새 5개년계획(1976—1980년)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7년 12월 7일부터 9일까지 공산당 전국대표자회가 진행되였다.

대표자회에서는 공산당 제11차대회결정과 당강령의 실행 및 앞으로의 과업에 관한 보고, 1976—1980년 5개년계획과 1980년까지의 경제및사회발전을 위한 추가적조치들, 1981—1985년기간의 경제및사회발전계획 작성을 위한 총적방향 그리고 기타 일련의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3월 6일과 7일에 진행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집행위원회 비상회의에서는 지진의 후과를 가시며 경제사회생활을 정상화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였으며 3월 9일과 10일에 또다시 진행된 공산당중앙위원회 정치집행위원회 회의는 지진의 후과를 가시기 위하여 전국에서 진행한 사업들을 총화하고 경제및사회활동과 인민생활을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5월과 10월에 진행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집행위원회 회의에서는 1978년도 경제사회발전국가계획초안과 1978년도 국가예산안, 1976—1980년 경제발전추가계획과 1981—1985년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총적방향을 토의하였다.

9월에 진행된 공산당 중앙위원회 실무회의에서는 공산당 제11차대회 결정 관철 정형, 각급 당위원회들의 조직지도사업과 사업작풍에 관한 문제, 시 및 리 인민위원회 선거준비문제 등이 토의되였다.

7월에 진행된 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경제사회발전 최고리사회 전원회의는 1978년도 경제사회발전통일계획초안과 국가예산안을 승인하였다.

전원회의는 또한 중등교육,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을 승인하였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교양사업에서 당 및 국가기관들과 사회및군중조직들과 예술, 선전및출판기관들의 집체적인 령도적역할과 책임성을 높일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또한 1977년에 공산당 전국대표자회를 소집할데 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7월과 10월에 진행된 대민족회의 회의는 근로자들의 복리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일련의 법안들을 토의하고 채택하였으며 공업, 건설 및 운수 부문 근로자위원회에 관한 법령과 기타 법령들을 승인하였다. 또한 회의는 새로운 국가를 승인하였다.

11월에 진행된 대민족회의 제7기 제6차회의는 1978년도 경제사회발전단일국가계획과 1978년도 국가예산을 토의하고 채택하였다.

1977년에 로므니아에서는 제1차농업일군대회(4월), 공업, 건설및운수기업소 근로자위원회들의 제1차대회(7월)가 진행되였다.

1977년에 로므니아는 에티오피아와 과학문화협조협정(1월), 꾸바와 보건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협정(3월), 애급과 발전소건설에 관한 협조협정(7월)을 각각 맺었다.

1977년에 로므니아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대통령인 니꼴라에 챠우쉐쓰꾸가 모리따니(2월), 세네갈(2월), 가나(2월), 상아해안(3월), 나이제리아(3월), 애급(5월), 뽈스까(5월), 독일민주주의공화국(6월), 쏘련(8월), 벌가리아(9월)등을 각각 방문하였다.

또한 이해에 이딸리아공산당 총비서(1월),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국가쏘베트위원장(2월), 수리아대통령(2월),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대통령(6월), 애급

대통령(10월), 유고슬라비아대통령(12월)등이 로므니아를 방문하였다.

대민족회의 최고주권기관, 임기 5년, 대의원수 349명, 지금의 대민족회의는 제7기로서 1975년 3월 9일에 선거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무력의 최고사령관, 대통령은 대민족회의 회의에서 선거한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쏘베트 위원장을 겸한다. 대통령 니꼴라에 챠우쉐쓰꾸(1974년 3월—)

정부 총리 마냐 머네쓰꾸(1974년 3월—), 외교부장 제오르제 마꼬베쓰꾸, 민족보위부장 이온 꼬만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1921년 5월 8일에 창건, 1948년 2월 사회민주당과 합당하여 로동당으로 됨, 1965년 7월 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이름을 다시 공산당으로 고침, 1974년 11월 제11차당대회 진행, 총비서 니꼴라에 챠우쉐쓰꾸, 사회주의통일전선, 직업총동맹, 공산주의청년동맹, 전국녀성리사회

경제, 사회문화

로므니아는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이다. 국민소득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65%이다.

주요지하자원은 원유, 천연가스, 금, 은, 석탄, 돌소금, 망간, 동, 몰리브덴, 보크사이트, 철광석 등이다.

공업에서 중요한것은 원유공업과 천연가스채취공업이며 그밖에 흑색금속, 기계제작, 화학, 전력, 목재가공 공업 등이 있다.

원유공업에서는 원유채취및정제가 기본이다. 원유생산량은 구라파에서 두번째자리를 차지한다. 1977년에 원유생산량은 1천 470만톤정도였다. 로므니아는 채취한 원유의 전량을 국내에서 가공하여 여러가지 원유제품을 생산하고있으며 수출도 하고있다.

천연가스공업이 빨리 발전하고있다. 1975년에 화학공업원료에서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몫은 1970년의 8.3%로부터 16%로 늘어났다.

화학공업에서는 이 나라에 풍부한 원유, 천연가스, 석탄, 돌소금 등을 원료로 하여 화학비료, 합성수지, 염료, 도료, 농약을 비롯한 각종 약품, 합성섬유, 합성고무, 탄산소다, 가성소다 등을 생산하고있다. 특히 화학공업에서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생산부문이 빨리 발전하고있는데 화학공업총생산액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몫은 1970년에 43.1%로부터 1975년에 48.7%로 늘어났다. 1977년에 화학공업생산액은 1975년에 비하여 32.2% 늘어났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광산및원유공업설비, 제강설비, 발전기, 공작기계, 전기기계, 철도차량, 농기계, 화물자동차, 배 등을 생산하고있다. 1976년에 측정기구, 자동화수단, 약전기구, 정밀기계, 광학기구 생산이 1975년에 비하여 훨씬 늘어났다.

전력공업에서는 발전량의 95%를 화력에 의거하고있다. 인민경제에서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전능력을 높이기 위해 투쟁한 결과 1960년부터 1975년까지의 사이에 1만메가와트이상의 발전능력이 새로 조성되였다. 특히 그의 절반이상은 1971년부터 1975년사이에 조성되였다. 1976년에 전력생산은 1975년에 비하여 8.4% 늘어났다.

흑색금속공업부문에서는 철광석과 석탄의 많은 량을 수입에 의존한다. 1976년에 강철생산량은 1950년에 비하여 약 20배로 늘어났다.

경공업부문에서는 방직공업, 가죽및목재가공공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식료공업도 비교적 발전하였다.

1977년에 로므니아에서 공업총생산액은 1976년에 비하여 12.5%, 국민소득은 8.6% 늘어났다. 특히 화학공업, 야금공업, 기계제작공업, 건재공업이 빨리 발전하였다. 공업부문에서 로동생산능률은 9.8% 올라갔다.

농업에서 기본은 알곡작물재배를 위주로 한 농산업이다. 부침땅은 국토의 63%이며 그 가운데서 70%가 알곡작물재배지이다.

주요농작물은 강냉이와 밀이며 그밖에 보리, 감자, 해바라기, 사탕무우, 포도, 남새 등이다. 씨뿌림땅의 34%에는 강냉이, 30%에는 밀을 심는다.

농업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몫은 크지 못하다. 주요집짐승은 양, 소, 돼지, 닭 등이다.

교통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강하천운수가 중요하다. 해상운수도 발전하고있다. 1977년현재 이 나라의 해상선박대는 대외무역화물의 절반이상을 실어날랐다.

주요수출품은 원유제품, 원유가공설비, 뜨락또르, 차량, 화학제품, 선박, 농기계, 전기기계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설비, 각종 공업원료, 반제품, 연료, 식료품, 생활필수품 등이다.

화폐단위는 레이이다.

8~9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으며 인구의 5분의 1에 달하는 450만명의 학생들이 각급 학교에서 공부하고있다.

보건부문에서는 무상치료제가 실시되고있다.

출판보도;통신 아제르 쁘레쓰

신문 쓰근떼아(공산당기관지), 로므니아 리베러(국가쏘베트 및 내각기관지), 문까(직맹기관지), 쓰근떼아 떠네레뚤루이(공청기관지), 아뻐라레아 빠뜨리에이(인민군기관지)

잡지 룹따 데 클라써(공산당리론잡지)

방송 부꾸레슈띠방송, 부꾸레슈띠중앙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1월 3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3년 10월에는 경제및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1956년 5월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70년 8월에는 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창설에 관한 협정, 1971년 11월에는 민사, 가족및형사사건들에서 법률상방조를 서로 줄데 대한 조약과 령사협약, 1972년 7월에는 보건및의학과학 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협정, 1975년 5월 26일에는 두 나라사이의 친선및협조에 관한 조약을 각각 맺었다.

1977년 5월 16일에는 우편및전기통신분야에서 협조할데 관한 협정을 맺었으며 3월 8일에는 1977년도 상품류통및지불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1973년 4월 3일에는 로므니아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1975년 5월 22일부터 26일까지 로므니아를 방문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이며 대통령인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동지가 1971년 6월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발표 13돐에 즈음하여 뗄레오르만도 뿌라니농업생산협동조합에서 1977년 2월 25일 기념집회를 가졌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로므니아공산당 부꾸레슈띠시위원회와 로므니아조선친선협회의 주최로 1977년 6월 27일 부꾸레슈띠에 있는 라지에타및철제의료기구공장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가 진행되였으며 인민군 한부대에서는 7월 25일에 군인집회가 진행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29돐에 즈음하여 로므니아조선친선퍼꺼예니농업생산협동조합과 씨비우시의 《프라무라 로씨에》공장에서 9월 11일과 12일 각각 기념집회가 진행되였다. 또한 부꾸레슈띠의 중앙미술박물관에서는 우리 나라 공예미술전람회가 진행되였다.

1977년에 로므니아공산당 당일군대표단(9～10월), 정부무역대표단(11월), 정부경제기술대표단(10월), 공산주의청년동맹대표단(11월), 군대당일군대표단(9월), 군사대표단(10월), 무레쉬가무단(5월), 텔레비죤촬영단(8월), 갈라찌시대표단(9월), 축구선수단(7월)등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또한 이해에 조선로동당당일군대표단(11월), 정부대표단(6월), 정부무역대표단(2월), 군사대표단(10월), 사로청대표단(12월), 농근맹대표단(4월), 기자동맹대표단(8월) 등이 로므니아를 방문하였다.

벌 가 리 아

(벌가리아인민공화국)

넓이 11만 912km²
인구 872만 9,720명(1975년 12월)
수도 쏘피아(주민 약 96만 5,720명, 1975년)

자연 및 주민

벌가리아는 발칸반도의 동남쪽 흑해기슭에 자리잡고있다.

대부분지역은 대륙성기후이며 남부는 아열대성기후이다. 한해평균기온은 12～13°C이며 한해평균강수량은 650mm이다. 1977년 3월 4일 동북부의 루쎄와 스비슈또브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지진이 있었다.

주민의 대부분은 남슬라브족에 속하는 벌가리아사람이며 그밖에 토이기사람, 마께도니아사람이 있다.

공용어는 벌가리아어이다.

정 치

1944년 9월 9일 벌가리아인민은 공산당의 령도밑에 파쑈군주제도를 뒤집어 엎고 인민민주주의정권을 세웠으며 1946년 9월 15일 벌가리아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벌가리아인민은 토지개혁(1946년 3월), 산업국유화(1947년 12월)를 비롯한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하였으며 그후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주의적개조를 추진시켰다.

벌가리아인민은 2개년인민경제계획과 여러차례의 5개년계획을 수행함으로써 나라를 락후한 농업국가로부터 현대적공업과 발전된 농촌경리를 가진 사회주의나라로 전변시켰다.

1976년부터 벌가리아인민은 당 제11차대회가 제시한 제7차 5개년계획(1976—1980년)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7년 3월, 5월, 12월에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각각 진행되였다. 3월과 5월 전원회의에서는 나라의 행정지역구조를 더욱 발전시키고 완성시킬데 대한 문제와 일련의 행정 및 조직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12월전원회의에서는 공산당전국대표자회를 1978년 4월에 소집하며 1978～1980년에 당증교환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조직문제도 토의하였다.

4월에 진행된 인민회의 회의에서는 인민주권기관 대의원들의 지위에 관한 법안과 로동법의 수정및보충에 관한 법안을 토의하고 채택하였으며 1976년도 정부의 사업총화보고를 청취하였다. 12월에 진행된 인민회의 회의는 1978년도 사회경제발전계획초안과 1978년도 국가예산안을 토의하고 채택하였다.

1977년에 벌가리아에서는 지미뜨로브공산주의청년동맹 제13차대회(5월), 조국전선 제8차대회(6월), 제3차문화대회(5월)가 각각 진행되였다. 제3차문화대회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를 문화위원회로 고쳐부르기로 결정하였다.

1977년에 벌가리아는 쟈메이카(3월), 가이아나(3월)와 새로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7년에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또도르 쥡꼬브가 5월 30일부터 6월 4일까지 쏘련을 방문하였다.

또한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인 대통령(9월), 독일사회통일 중앙위원회 총비서(9월)가 벌가리아를 방문하였다.

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 임기 5년, 대의원수 400명, 지금의 인민회의는 제7기로서 1976년 5월에 선거되였다. 인민회의 휴회기간의 최고주권기관은 인민회의가 선거하는 국가쏘베트이다.

국가쏘베트 위원장 또도르 쥡꼬브(1971년 7월—)

정부 총리 쓰딴꼬 또도로브(1971년 7월—), 외교부장 뻬따르 믈라데노브, 인민보위부장 도브리 드쥬로브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1919년 5월 25일 창건, 전신은 1903년에 창건된 사회민주로동당, 1976년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제11차 당대회 진행, 제1비서 또도르 쥡꼬브, 조국전선, 직업동맹, 지미뜨로브공산주의청년동맹, 녀성위원회

경제, 사회문화

벌가리아는 사회주의적 공업—농업국가이다. 공업및농업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3분의 2이상에 달한다.

주요지하자원은 석탄, 철, 연, 아연, 동, 망간, 은, 금, 원유, 천연가스, 크롬 등이다.

공업에서는 화학공업, 흑색 및 유색 금속공업, 기계공업, 전력공업 등 중공업부문이 큰 몫을 차지하고있다.

금속공업에서는 유색금속공업이 큰 몫을 차지하며 연, 아연에 대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고있다. 흑색금속공업은 공업제품총생산액의 약 6%를 차지한다.

기계제작공업에서 중요한 부문은 자체의 유색금속공업에 의거한 전기기계, 권양 및 운수 기계, 배무이, 농기계생산 부문이다.

기계공업생산액은 공업총생산액의 20%이상에 달한다.

화학공업에서 기본은 화학비료, 탄산소다, 가성소다, 의약품 등의 생산이며 그밖에 합성섬유, 합성수지, 합성고무 생산도 늘어나고있다. 1977년초현재 방직공업부문에서 쓰고있는 원료의 50%이상이 합성섬유이거나 인조섬유이다.

경공업에서 기본은 방직공업과 식료공업이며 국민소득에서 경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1977년현재 8%이다.

식료공업은 이 나라에서 가장 발전된 부문의 하나로서 공업제품총생산의 23%이상을 차지한다.

방직공업에서는 면천과 모직천의 생산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1977년에 벌가리아에서는 1976년에 비하여 국민소득은 6.3%, 공업총생산액은 6.8% 늘어났다.

농업은 이 나라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부침땅은 전령토의 45%이며 그의 60%에 알곡을 심는다.

주요농작물은 강냉이, 밀, 담배, 목화, 해바라기, 사탕무우, 장미 등이며 그밖에 도마도, 사과, 딸기, 포도 등도 많이 재배한다. 이 나라의 담배는 질좋은것으로 평가되고있다. 또한 이 나라는 장미꽃재배가 유명하다.

축산업은 농업생산에서 약 35%를 차지한다.

농업발전을 위하여 이 나라에서는 농촌경리의 기계화에 관심을 돌리고있는데 지난 20년동안에 뜨락또르대수가 거의 6배로 늘어났다.

운수에서 기본은 철도운수와 수상운수이다. 주요철길은 쏘피아와 흑해기슭을 련결하는 철길이다. 1976년말현재 전국철도의 33%가 전기화되였다. 수상운수에서는 흑해와 두나이강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주요항구는 와르나, 부르가스, 루쎄 등이다.

주요수출품은 담배, 포도, 남새, 식료품과 기계및설비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 원유, 화학제품, 일용품이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사회주의나라들이다.

화폐단위는 레브이다.

1977년현재 24개의 고등교육기관과 거의 250개의 중등전문학교가 있었다.

1977년에 주민한사람당 보건비지출은 70.8레브에 달하였다.

출판보도;통신 베떼아(벌가리아통신), 쏘피아통신

신문 라보뜨니체쓰꼬 젤로(공산당기관지), 오째체쓰뜨벤 프론트(인민회의및조국전선기관지), 뜨루드(직맹기관지), 나로드나 믈라제쥬(공청기관지), 나로드나 아르미야(인민군기관지)

잡지 노보 브레메(공산당리론잡지)

방송 벌가리아라지오 및 텔레비존방송, 쏘피아

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1월 29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5년 7월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56년에는 무역협정, 1969년 12월에는 경제및과학기술협의위원회 조직에 관한 협정, 1970년 12월에는 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분야에서 협조할데 대한 협정, 1971년 7월에는 두 나라 사이의 과학협조에 관한 협정을 각각 맺었다.

1977년 7월 28일 벌가리아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1975년 6월 2일부터 5일까지 벌가리아를 방문하시였다.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또도르 쥡꼬브동지가 1973년 10월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7년 1월에 진행된 우리 나라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구국방안을 지지하여 2월 25일 벌가리아아세아아프리카인민들과의 련대성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또한 벌가리아 조국전선 전국리사회, 직업동맹 중앙평의회, 지미뜨로브공산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녀성위원회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벌가리아 조국전선 전국리사회, 공산당 쏘피아시위원회, 직업동맹 중앙평의회, 지미뜨로브공산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아세아아프리카인민들과의 련대성위원회, 평화옹호전국위원회의 공동주최로 7월 7일 쏘피아에서 조선인민과의 련대성 중앙군중집회가 진행되였다. 또한 벌가리아기자동맹은 6월 28일 기자회견을 마련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29돐에 즈음하여 9월 6일 벌가리아조선친선협회의 명의로 친선모임이 진행되였으며 하쓰꼬보시에서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집회가 진행되였다. 또한 조국전선 전국리사회, 문화위원회, 미술가동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쏘피아중앙사진전람관에서는 우리 나라 사진전시회가 진행되였다.

1977년에 벌가리아 정부대표단(4월), 정부무역대표단(10월), 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라보뜨니체쓰꼬 젤로》기자대표단(11월), 녀성대표단(6월), 직맹대표단(9월), 국가영화문헌고대표단(12월), 예술체조선수단(7월)등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또한 우리 나라로부터는 조선로동당 당일군대표단(11월), 직맹대표단(4월), 사로청대표단(5월), 조국전선대표단(6월),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대표단(2월), 보건일군직맹대표단(4월), 문화대표단(5월), 《로동신문》기자대표단(12월), 평양학생소년예술단(12월)등이 벌가리아를 방문하였다.

알 바 니 아

(알바니아사회주의인민공화국)

넓이 2만 8,748km²
인구 243만 2,000명(1975년 12월)
수도 티라나(주민 24만명)

자연 및 주민

알바니아는 발칸반도의 서쪽 아드리아해를 끼고 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해발 1,000m이상되는 높이에 있다. 기후는 지중해성기후에 속하나 바다가지방과 동부산악지방사이의 차이가 심하다. 평균기온은 7월에 24~28°C, 1월에 4~8°C이며 한해 강수량은 1,000~2,00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알바니아사람이며 그밖에 희랍사람, 토이기사람, 벌가리아사람 등이 있다.

공용어는 알바니아어이다.

정 치

1944년 11월 29일 알바니아인민은 공산당의 령도밑에 무장투쟁을 벌려 파쑈독일의 기반에서 해방되였으며 1946년 1월 11일 알바니아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해방후 알바니아는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하였으며 2개년인민경제계획과 여러차례의 5개년계획을 수행하였다. 1976년 12월 알바니아는 새 헌법을 채택하고 나라이름을 알바니아사회주의인민공화국으로 고쳤다.

1976년부터 알바니아인민은 로동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제6차 5개년계획(1976—1980년)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7년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는 상반년도계획수행정형과 년간계획수행을 위한 조치에 관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보고를 토의하고 그것을 찬동하였다.

6월 14일과 15일에 진행된 인민회의 제8기 6차회의는 형법초안과 군대에서의 군사복무법초안을 토의하고 이 법안들을 채택하였다.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직업동맹 제8차대회가 진행되였다.

1977년에 알바니아는 상부볼따(1월), 또고(6월), 방글라데슈(8월), 모리셔스(10월)와 각각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인민회의 최고주권기관, 임기 4년, 대의원수

264명, 인민회의 휴회기간에는 상임위원회가 인민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금의 인민회의는 제8기로서 1974년 10월에 선거되였다.

상임위원회 위원장 하지 레쉬

정부 1974년 11월 29일 구성, 총리겸인민보위부장 메흐메트 쉐후, 외교부장 네스떠 나쎄

정당, 사회단체; **로동당** 1941년 11월 8일 공산당으로 창건, 1948년 11월 제1차 당대표대회에서 로동당으로 고쳤다. 제1비서 엔베르 호쟈, **민주주의전선, 직업동맹, 로동청년동맹, 녀성동맹**

경제, 사회문화

공업부문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채취공업이며 기계공업, 화학공업, 전력공업, 건재공업, 경공업 등이 발전하고있다.

주요지하자원은 원유, 석탄, 동, 철, 크롬, 니켈 등이다.

채취공업에서 중요한것은 원유채취이며 품위가 높은 크롬광과 동광, 천연피치가 채굴된다. 크롬광과 천연피치는 이 나라의 주요수출품이다.

기계공업은 1977년현재 공업총생산액에서 약 13%를 차지한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공업, 농업, 운수 부문들에 필요한 기계부속품과 여러가지 농기계, 디젤발동기, 각종 기계설비와 정밀기구 등을 생산하고있다.

화학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파린산염, 질소비료, 무수탄산소다와 가성소다 등을 생산하는 중화학공업이며 고무, 합성수지, 의약품, 향료 등을 생산하는 경화학공업도 발전하고있다.

경공업은 1977년현재 이 나라 공업총생산액의 5분의 1을 차지하고있다. 경공업부문에서 중요한것은 방직공업, 신발공업, 식료공업 등이다.

농업은 이 나라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부침땅은 약 65만헥타르이며 그 가운데서 50%가 관개된 땅이다.

주요농작물은 강냉이, 밀, 호밀, 귀밀, 벼, 목화, 담배, 사탕무우, 아마, 삼, 올리브, 포도, 귤 등이다. 씨붙임땅의 60%에 강냉이를 심는다.

축산업은 농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전령토의 25%가 목장과 풀밭이다.

주요집짐승은 양과 염소이며 인구1인당 집짐승마리수에 있어서 구라파에서 앞자리를 차지한다.

운수에서는 자동차운수와 해상운수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제5차 5개년계획기간에 새로운 철길이 닦아진 결과 철도에 의한 화물수송량은 2배로 늘어났다.

주요수출품은 크롬광, 철광석, 동제품, 원유, 피치, 올리브기름, 남새, 잎담배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공업설비, 운수기계, 농기계, 기타 공업제품 등이다.

화폐단위는 레크이다.

교육부문에서는 8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다.

보건부문에서는 1만명의 의료일군들이 일하고 있다.

출판보도; 통신 아따

신문 제리 이 포풀리트(로동당기관지), 바슈키미(민주주의전선 및 내각 기관지), 제리 이 리니스(로동청년동맹기관지)

잡지 루가 에 빠르띠써(로동당리론잡지)

방송 티라나방송, 알바니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9년 5월 17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5년에는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 1956년 7월에는 기술및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1977년 7월 27일에는 두 나라 사이의 1977—1978년도 문화교류계획서가 조인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29돐에 즈음하여 알바니아대외문화및친선련락위원회의 주최로 1977년 9월 8일 티라나에서 우리 나라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다.

1977년에 알바니아 농업과학자대표단(4월), 과학기술협조대표단(6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넓이 10만 8,178km²

인구 1,685만 100명(1975년)

수도 베를린(주민 109만 8,170명, 1975년 12월)

자연 및 주민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은 구라파의 중앙부에 자리잡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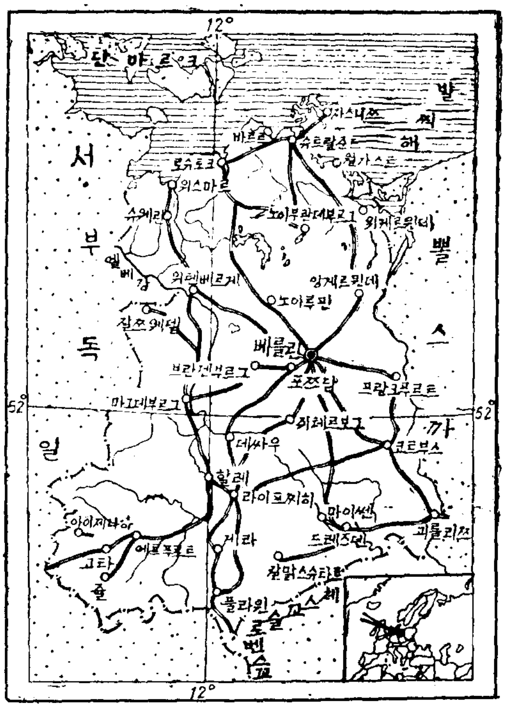
기후는 대륙성기후이나 해양성기후의 영향도 받아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한해평균기온은 1월에 0~3°C, 7월에 16~19°C이며 한해강수량은 600~80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게르만족이다.

공용어는 독일어이다.

정　치

독일 공산주의자들과 인민들은 오래동안 파시즘과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용감히 투쟁하였으며 마침내 1949년 10월 7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창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들은 독일사회통일당의 령도밑에 안팎의 계급적원쑤들의 끊임없는 파괴암해책동을 짓부시면서 사회주의전취물을 튼튼히 수호하였으며 여러차례의 5개년계획을 수행하여 자기 나라를 발전된 공업과 농업을 가진 사회주의국가로 전변시켰습니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은 1946~1949년기간에 토지개혁, 산업국유화를 비롯한 제반민주개혁을 실시하였으며 1960년까지 농촌경리의 사회주의적개조를 완성하였다.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들은 1975년까지 5차례의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1976년부터 독일사회통일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제6차 5개년계획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1977년에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3월, 6월, 11월에 각각 진행되였다. 전원회의들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보고와 건설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보고, 전기기계및전자공학을 발전시킬데 관한 제9차 당대회 결정실행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의하였으며 1978년도 인민경제계획을 토의하고 1978년도 인민경제계획과 국가예산에 관한 법안들을 찬동하였다.

6월과 12월에 진행된 인민의원 회의들에서는 새로동법에 관한 법안과 1978년도 인민경제계획과 1978년도 국가예산을 토의하고 승인하였다.

5월에 직업동맹 제9차대회가 진행되였다.

1977년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은 자메이카(3월), 보쯔와나(5월)와 각각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7년에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에리히 호네케르가 유고슬라비아(1월), 로므니아(2월), 뽈스까(2월), 벌가리아(9월), 윁남(12월), 필리핀(12월) 등을 방문하였다.

또한 이해에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3월), 산또메 프린시페대통령(5월), 몽골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인 대인민후랄상임위원회 위원장, 뽈스까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5월),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인 대통령(6월),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대통령(10월)등이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하였다. 방문기간 독일민주주의공화국과 웽그리아, 뽈스까, 체스꼬슬로벤스꼬사이에 친선, 협조및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 각각 조인되였다.

인민의원 최고주권기관, 임기 4년, 434명의 대의원과 66명의 베를린대표들로 구성된다. 인민의원의 휴회기간에는 국가쏘베트가 최고주권기관이다. 지금의 인민의원은 1976년 10월에 선거되였다.

국가쏘베트 위원장 에리히 호네케르(1976년 10월—)

정부 1976년 11월 1일 구성, 총리 윌리 슈토프, 외교부장 오스카르 피쉐르, 민족보위부장 하인쯔 호프만

정당, 사회단체; 독일사회통일당 1946년 4월 21일 독일공산당과 사회민주당이 합당하여 창건, 1976년 5월 제9차 당대회 진행, 총비서 에리히 호네케르, **민주농민당, 기독교민주동맹, 자유민주당, 민족민주당, 민족전선, 직업동맹, 청년동맹, 민주녀성동맹**

경제, 사회문화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은 사회주의공업국가이다. 사회총생산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1975년현재 62.6%에 달하였다.

주요공업부문은 연료동력공업, 금속공업, 기계공업, 화학공업, 경공업 등이다.

주요지하자원은 갈탄, 카리염, 우라니움, 철, 콕스, 원유 등이다. 갈탄생산량은 세계 제1위이다.

연료동력공업에서는 갈탄이 기본이다. 갈탄은 이 나라 동력자원의 98%를 차지한다.

전력생산의 90%가 갈탄을 리용한 화력발전에 의거하고있다.

금속가공공업은 이 나라 공업총생산액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기계공업에서는 광산및야금설비 등 중기계로부터 정밀기계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기계들을 생산하고있다.

야금공업에서는 새로운 야금공업시설들이 조업하고 이미있던 야금공장들이 현대화됨으로써 1970년부터 1976년까지의 기간에 선철생산량은 26.8%, 강철생산량은 33.4%, 압연강재생산량은 34.8% 늘어났다.

화학공업은 이 나라의 공업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 화학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무기화학제품과 화학비료, 합성고무, 합성섬유, 합성수지, 염료, 사진화학제품, 원유화학제품, 의약품 등의 생산이다.

경공업은 공업총생산액의 약 20%를 차지한다.

경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섬유공업과 식료공업이다. 섬유공업에서는 화학섬유에 의한 천생산이 급속히 늘어나고있으며 식료공업에서 사탕생산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밖에 고기제품, 식물성기름, 빠터, 치즈 등도 많이 생산된다.

1977년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에서 공업총생산액은 5.4%, 국민소득은 5.2% 각각 늘어났다.

농업은 사회총생산액에서 약 10%를 차지하며 농업에서는 축산업이 3분의 2를 차지한다.

주요농작물은 밀, 감자, 해바라기, 사탕무우, 담배 등이며 주요집짐승은 돼지, 소, 가금 등이다.

운수에서는 철도운수와 하천운수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대외무역에서는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이 무역총액의 약 70%를 차지한다.

주요수출품은 기계공업설비와 금속공업제품, 화학제품, 경공업제품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공업원료, 농산물, 식료품 등이다.

화폐단위는 마르크이다.

1975—1976학년도에 보통교육부문에서는 5천 921개의 학교에서 269만 7천 740명의 학생들이 공부하였으며 1977년말현재 대학은 54개이다.

1977년말현재 570개의 병원과 530개의 종합진료소, 약 950개의 시 및 농촌 진료소가 있었다.

출판보도; 통신 아데엔

신문 노이에스 도이췰란트(사회통일당기관지), 쏘씨알리스티쎄 데모크라티(국가쏘베트및내각기관지), 트리뷰네(직업동맹기관지), 베를리네르 짜이퉁

잡지 아인 하인트(사회통일당리론잡지), 노이에르 웨크(사회통일당생활잡지)

방송 독일민주주의공화국방송, 베를린 웰레방송, 도이췌 페른 쎄푼크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9년 11월 7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55년 1월에는 과학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1956년 6월에는 경제및문화협정, 1971년 2월에는 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 1971년 9월에는 서로 법률상 방조를 줄데 대한 조약을 맺었다.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에리히 호네케르동지가 1977년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29돐에 즈음하여 민족인민군의 한 공군부대에서 기념집회가 진행되였다.

1977년에 독일사회통일당대표단(1월), 정부무역대표단(6월), 보건부장(5～6월), 과학원대표단(3월), 문화대표단(11월), 사회과학부문교원대표단(11월), 기자동맹대표단(11월) 등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또한 이해에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6월), 직맹대표단(5월), 녀맹대표단(2월), 조선중앙방송위원회대표단(6월), 기자동맹대표단(6월), 과학원대표단(11월) 등이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하였다.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넓이 25만 5,804km²
인구 2,167만 2,000명 (1977년 1월 1일)
수도 베오그라드 (주민 99만 2,000명)

자연 및 주민

유고슬라비아는 발칸반도의 서북부에서 동남쪽으로 길게 뻗어있으며 서쪽으로는 아드리아해를 끼고있다.

기후는 지역적차이가 심하다. 아드리아해기슭과 디나르알프스산줄기의 서쪽기슭은 지중해성기후이며 내륙지방은 대륙성기후이다. 한해평균기온은 바다가에서 1월에 5～9°C, 7월에 22～25°C이며 내륙지방에서 1월에 1～2°C, 7월에 22～25°C이다. 한해강수량은 바다가에서 2,000mm, 내륙지방에서 500～700mm이다.

주민은 쎄르비아사람, 호르바찌아사람, 슬로베니아사람 등 남슬라브족들이며 이밖에 10여족의 소수민족들이 있다.

언어는 쎄르비아어, 호르바찌아어가 대표적이며 슬로베니아어, 마께도니아어도 공용어로 쓴다.

정　치

1945년 5월 15일 유고슬라비아인민은 공산당의

령도밑에 파시스트강점자들을 쳐부시고 민족해방의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1945년 11월 29일 유고슬라비아련방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63년 4월 7일에는 새 헌법을 채택하고 나라이름을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으로 고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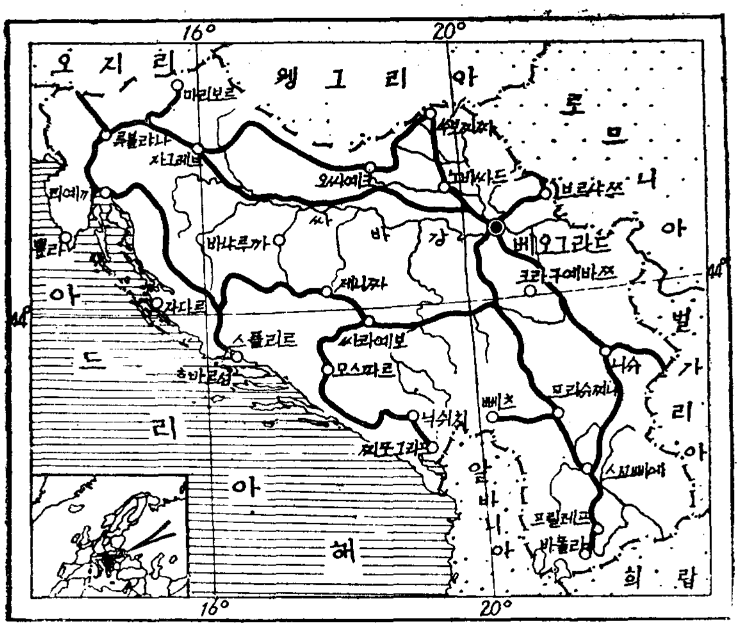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유고슬라비아인민은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 대통령동지의 령도밑에 나라의 자주권을 튼튼히 지키고 인민들과 민족들의 평등과 통일을 보장하면서 사회주의건설에서 많은 성과를 이룩하고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문헌집》, 150페지)

해방후 유고슬라비아인민은 1956년까지의 사이에 공업화의 기초를 닦았으며 여러차례의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여 공업화를 촉진시켰다.

1970년 10월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제1차대표자회의는 국가상무위원회(집체적대통령제)를 내올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1971년 6월 30일 련방의회 민족의원회의에서는 헌법을 수정하며 련방공화국과 가맹공화국들사이의 새로운 관계문제, 국가상무위원회 설치, 이에 망라된 각 가맹공화국과 자치주대표들의 인원수 문제를 헌법상으로 규정하였다. 새 헌법은 련방공화국의 권한을 가맹공화국(자치주포함)들에 대폭 《분권화》하였다. 그러나 대외정책과 무력은 의연히 련방의 수중에 남아있으며 중요한 모든 문제는 전체 가맹공화국들의 일치가결의 원칙에 의하여 채택된다.

1977년 12월 23일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는 사회경제적추세와 관련되는 현정치사상적문제들과 그리고 자치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며 1978년도 경제정책의 목표와 과업을 실현하기 위한 공산주의자동맹과 기타 사회적요소들의 과업을 토의하였다.

회의에서는 1978년에 사회경제적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경제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자동맹과 기타 조직적인 주체적력량의 실제적활동계획이 준비되여야 한다는것이 결정되였다. 또한 찌또대통령의 고향인 꾸므로바쯔에 정치학교를 건설할데 대한 결정서와 공산주의자동맹 제11차대회 소집에 대한 결정서초안이 채택되였다.

대외관계분야에서 유고슬라비아는 자주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정책을 실시하고있다.

1977년에 유고슬라비아대통령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가 리비아 (1월), 쏘련(8월), 중국(8~9월), 프랑스 (10월), 뽀르뚜갈(10월), 로므니아(12월) 등을 방문하였다.

또한 이해에 앙골라대통령 (4월), 가이아나대통령(5월),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제1비서(9월), 빠나마정부수반(10월), 자메이카총리(11월) 등이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였다.

1977년 10월 27일부터 30일까지 싸라예보에서 쁠럭불가담나라 방송기관들의 제1차회의가 진행되였으며 11월 7일부터는 베오그라드에서 쁠럭불가담나라 기자들을 위한 강습이 진행되였다.

대통령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 (1945년 11월—, 1974년 5월 종신대통령으로 선거)

국가상무위원회 최고지도기관(집체적대통령제) 임기 5년, 6개의 가맹공화국과 2개의 자치주의 대표 각각 1명씩으로 구성, 국가상무위원회 위원장은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겸한다.

련방의회 최고립법 및 자치기관, 임기 4년, 련방의회와 가맹공화국 및 자치주의회로 구성, 1974년 5월 새 헌법에 기초하여 련방의회 선거

련방집행리사회 (내각) 1977년 3월 15일 새로 구성, 위원장 베쎌린 쥬라노위츠, 외무담당련방비서 밀로쉬 미니츠, 인민보위담당련방비서 니꼴라 류비치츠

정당, 사회단체; 공산주의자동맹 1919년 4월 공산당으로 창건, 1952년 11월 제6차당대회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침, 1974년 5월 제10차당대회 진행, 위원장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 **사회주의근로인민동맹, 직업동맹, 사회주의청년동맹, 인민해방투쟁투사련합동맹**

경제, 사회문화

유고슬라비아는 사회주의공업농업국가이다. 공업과 농업 총생산액에서 공업이 3분의 2를 차지한다.

주요지하자원은 연, 아연, 동, 갈탄, 석유, 천연가스, 철, 보크사이트, 몰리브덴, 크롬, 은, 안티몬, 수은 등이다.

주요공업부문은 기계공업, 전력공업, 금속공업, 원유공업, 화학공업이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공작기계와 농기계는 물론 전자 및 전기기계, 정밀기계를 비롯한 여러가지 기계를 많이 만들어내고있다. 그리하여 필요한 설비의 3분의 2를 국내에서 생산보장하고있다.

전력공업은 국내에 풍부한 수력자원과 석탄, 원유를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에 의거하고있다.

금속공업도 발전하고있다. 1976년에 강철생산량은 1939년에 비하여 약 12배로 늘어났다. 쎄르비아는 나라의 유색금속공업중심지이다.

원유공업은 빨리 발전한 공업부문의 하나다. 지난 8년동안에 약 30개의 원유밭 또는 가스밭이 개발되였다. 1976년에 원유생산량은 1971년의 300만톤으로부터 390만톤으로 늘어났다.

화학공업은 갈탄, 천연가스, 원유, 석회, 린 등 자체의 원료원천에 기초하고있다. 쎄르비아와 호르바찌아에 새로운 화학공업기지가 창설되였다.

경공업에서는 면방직공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신발, 종이 등 인민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대중소비품을 생산하고있다.

1977년현재 이 나라에서는 한달도 못되는 기간에 1939년 한해동안에 생산하던것보다 더 많은 공업제품을 생산하고있다.

농촌경리에서는 개인경리가 많다. 부침땅은 1천 470만 7천헥타르이며 여기에서 인구의 절반이 농사한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강냉이, 감자, 사탕무우, 포도, 오얏, 사과, 담배, 해바라기, 삼 등이다. 농업생산의 중심지는 쎄르비아이며 여기에서는 전국의 밀, 강냉이, 포도 총생산량의 절반이 생산되고있다.

교통운수에서는 철도운수가 전체화물수송량에서 40. 1%, 자동차운수가 40.4%를 차지하며 해상운수도 발전하고있다.

대외무역은 국가의 유일적인 관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개별적기업체들이 진행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일부 기계류, 전기기구, 유색금속, 의복, 신발, 목재, 밀, 코르크, 고기, 우유제품 등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설비, 전기기구, 자동차, 화차, 원유 및 그 제품, 흑색금속, 곡물 등이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이딸리아, 서부독일, 쏘련 등이다.

화폐단위는 디나르이다.

교육부문에서는 8년제의무교육이 실시되고있다. 1977년현재 18개의 대학이 있었다.

보건부문에서는 지난 20년동안에 의사수가 약 3배로 늘어났으며 나라의 여러곳에 병원과 진료소들이 생겨났다.

출판보도; 통신 따뉴그

신문 꼼무니스트 (공산주의자동맹기관지), 보르바(사회주의근로인민동맹기관지) 뽈리찌까, 웨체르니에 노보스띠

잡지 쏘찌알리즘(공산주의자동맹기관지), 국제로동운동 (국제로동운동연구소 기관잡지)

방송 베오그라드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 자그레브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 류블랴나라지오 및 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48년 10월 30일 두 나라사이에 외교관계를 맺을데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1971년 9월에 서로 대사급 외교대표를 파견하기로 하였다.

1975년 4월 9일 자그레브시에 우리 나라 총령사관이 설치되였다.

1975년 5월에는 무역 및 지불에 관한 협정, 1975년 5월에는 조선중앙통신사와 따뉴그통신사사이에 보도교환 및 호상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우리 나라 당및 정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1975년 6월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시였다.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이며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대통령인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가 1977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근로인민동맹과 사회주의청년동맹의 주최로 1977년 7월 20일 베오그라드교외에 있는 청년로동야영지에서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 및 청년들과의 련대성모임이 진행되였다.

1977년 8월 25일 베오그라드에서 우리 나라 공예, 미술전람회가 열렸다.

1977년 유고슬라비아 정부무역대표단 (6월), 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 (7월), 베오그라드아브라쉐비츠예술단 (4월), 영화대표단 (2월), 과학원대표단(3월), 베오그라드텔레비죤촬영단(6월) 등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또한 이해에 조선로동당휴양단(7월), 사로청대표단 (11월), 녀맹대표단(10월), 조선기자대표단 (7월), 조선중앙방송위원회대표단(10월), 과학기술교류전시회대표단 (5월), 도서전람회대표단(10월) 등이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였다.

핀 란 드

(핀란드공화국)

넓이 33만 7, 009km²
인구 470만 7, 000명 (1975년)
수도 헬싱키 (주민 53만 5, 200명, 1970년)

자연 및 주민

핀란드는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동쪽에 자리잡고 쏘련, 노르웨이, 스웨리예 등과 잇닿아있으며 남서쪽은 발찍해를 마주하고있는 북구라파나라이다.

령토의 대부분이 해발 200m아래의 낮은 지대이며 겨울에는 몹시 춥다. 겨울 (2월)의 평균기온은 남부에서 —6°C, 북부에서 —14°C이며 여름 (7월)에는 각각 14°C와 18°C이다. 한해강수량은 북부에서 500mm, 남부에서 750mm이다.

하지무렵에는 남부에서 낮시간이 19시간 계속된다. 북부에서는 낮이 73일동안이나 계속되며 12월말경부터는 51일동안 밤만 또 계속된다.

자연에서 또한 특징적인것은 호수가 많은것이다.

주민은 90%가 핀족이며 그밖에 랍족과 스웨리예사람들이 산다.

공용어는 핀란드어이지만 스웨리예사람들은 자기들의 말을 쓴다.

정 치

핀란드는 1917년 12월 6일 독립하였다. 1948년에 쏘련과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조약을, 1962년 3월에 다른 북구라파나라들과 《북구라파협력조약》을 맺었다.

제2차세계대전후 핀란드에서는 좌익, 우익 및 중간파 세력들사이의 정치투쟁으로 인하여 1964년까지 거의 20년동안 스물한차례에 걸쳐 정부가 교체되였다.

1976년에도 일련의 경제문제에서 의견상이로 하여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정부가 총사직하고 같은해 9월 29일 마르띠 미에뚜넨을 다시 총리로 하는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1977년 5월 11일 마르띠 미에뚜넨을 총리로 하는 정부는 8개월만에 다시 총사직하였다. 5월 15일 사회민주당 위원장 칼레비 소르사를 총리로 하는 련립정부가 수립되였다. 새 정부는 공산당을 포함한 5개 정당을 망라하고있다.

새 정부는 자기의 주요과업이 실업자를 줄이는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대외적으로 핀란드는 북구라파나라들과의 관계를 전통적으로 발전시키고있다.

1977년 4월 26일 핀란드는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을 《팔레스티나인민의 유일한 합법적인 대표》로 승인하기로 결정하였다.

1977년에 핀란드대통령이 5월과 11월에 쏘련을, 9월에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하였다. 미에뚜넨총리는 1월에 체스꼬슬로벤스꼬와 벌가리아를, 소르사총리는 11월에 쏘련을 각각 방문하였다.

또한 이해 5월에 모잠비끄대통령, 윁남 정부총리, 6월에 웽그리아 내각총리, 8월에 로므니아 정부총리가 각각 핀란드를 방문하였다.

국회 일원제이며 임기는 4년, 의원은 200명, 1975년 9월 총선거결과 사회민주당은 54석, 중앙당은 39석, 공산당은 40석, 자유인민당은 9석, 스웨리예인민당은 10석, 민족련합당(보수당)은 35석, 기독교동맹은 2석, 농민당은 2석, 기타가 2석을 각각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 6년으로 국회에서 선출, 대통령 우르호 케코넨(1956년—)

정부 1977년 5월 15일 사회민주당, 중앙당, 공산당, 스웨리예인민당, 자유당의 새 련립정부 구성, 총리 칼레비 소르사(1977년 5월 15일—), 외교부장 빠아보 배위뤼넨, 1975년 9월부터 1977년 5월 11일까지의 총리는 마르띠 미에뚜넨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련립집권당) 1918년 9월 28일 창건, 1975년 제17차당대회 진행, 위원장 아아르네 사아리넨, 총서기 아르보 아알또, **인민민주련맹** 1944년에 조직된 좌익통일전선조직, 공산당은 이 단체의 명의로 국회선거전을 진행, 위원장 엘레 알레뉴스, **사회민주당**(련립집권당) 1899년에 창건, 위원장 칼레비 소르사(현 내각총리), **중앙당**(련립집권당), **자유당**(련립집권당), **스웨리예인민당**(련립집권당), **민족련합당**, **자유인민당**, **사회주의로동당** 1973년에 창건, **기독교동맹**, **로동조합총련맹**, **민주청년동맹**, **사회주의청년동맹**, **사회민주청년중앙련맹**, **평화위원회**

경제, 사회문화

핀란드는 자본주의적 공업—농업국가이다. 목재와 관련된 공업이 경제의 기본을 이룬다. 령토의 71%를 바늘잎나무숲이 덮고있다. 그 가운데서도 소나무류가 80%를 차지하고있다.

그러므로 공업은 풍부한 산림자원에 기초하여 림업 및 목재가공공업 일면에 많이 치우쳐있다. 통나무가공, 종이 및 펄프 공업이 이 나라 공업총생산액의 3분의 1, 국민소득의 70%, 수출총액의 85%를 차지한다. 1975년에 39만 3천립방메터의 합판을 생산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목재가공을 위한 기계공업과 금속가공공업, 선박 및 중기계 공업 등이 일정하게 발전하여 그 제품의 일부가 수출되고있다.

그밖에 석유화학, 식료가공(축산물가공), 화학섬유공업 등이 있다.

석탄, 원유 등 연료자원은 없으나 수력자원이 풍부하다.

농업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몫이 매우 적다. 부침땅은 전령토의 9%(270만헥타르)밖에 안된다. 농촌경리에서 전체 부침땅과 집짐승의 5분의 4를 중소토지소유자들이 차지하고있다.

농업에서 기본은 젖소기르기를 위주로 하는 축산업이다. 소젖, 빠터, 치즈, 고기 등 축산물은 농산물수출액의 90%(국가수출의 10%)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 돼지, 양인데 1976년에 소는 181만 5천마리였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호밀, 귀밀, 감자, 사탕무우 등이며 알곡은 자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교통운수에서 기본은 철도운수이나 국내운수에서 운하도 많이 리용한다.

핀란드에는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이 모두 합하여 21개가 있다. 1973—1974학년도에 6만 6천 900여명이 대학에서 공부하였다.

신교는 이 나라의 국교이며 주민의 95%가 신교를 믿는다.

출판보도;통신 에스티티—에프엔비

신문 칸산 우우티세트(공산당기관지), 쏘시알 데모그라티(사회민주당기관지), 투룬패이레호티 (사회민주당소속), 에텔레—사이마(중앙당기관지), 매드보르가르블라데트(스웨리예인민당기관지), 퓰또피스테(자유인민당기관지), 우우시 수오미(민족련합당기관지), 패이밴 우우티세트(사회주의로동당기관지), 라껜따야, 우우시마

방송 핀란드방송 (대내외), 핀란드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6월 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9년 10월 두 나라 사이의 무역협정에 따라 1970년 9월 15일 헬싱키에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설치되였다.

1967년 3월 23일 핀란드조선협회가, 1976년 4월 8일 조선통일핀란드련대성위원회가 각각 결성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핀란드조선협회가 1977년 4월 12일 영화감상회를 마련하였다.

11월 17일 핀란드조선협회 《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 성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 대한 연구모임을 진행하였다.

조선로동당창건 32돐에 즈음하여 핀란드조선협회 《김일성주석로작연구소조》가 여러가지 행사들을 조직하였다.

핀란드조선협회 오울루지부는 6월에 우리 나라 사진 및 도서 전람회를 조직하였다.

1977년 1월 우리 나라 재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구국방안을 지지하여 핀란드사회민주청년중앙련맹 집행위원회, 핀란드조선협회 등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핀란드인민민주련맹을 비롯한 여러 사회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련대성집회를 가지였다.

1977년 9월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핀란드사회주의로동당대표단이 참가하였다. 또한 핀란드인민민주련맹국회그루빠대표단이 3월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스웨리예

(스웨리예왕국)

넓이 44만 9,750km²
인구 823만 6,000명 (1976년)
수도 스톡홀름 (주민 74만 7,490명, 1970년)

자연 및 주민

스웨리예는 스칸디나비아반도 동쪽에 자리잡고 노르웨이, 핀란드와 잇닿아있는 북구라파나라이다.

스웨리예는 국토의 55%가 산림지대이며 호수가 많은 나라이다.

기후는 대륙성기후이지만 난류의 영향으로 위도에 비해 비교적 온화한 편이다. 북부에서는 겨울이 7개월동안, 남부에서는 겨울이 4개월동안 계속된다.

월평균기온 (스톡홀름)은 1월에 2.5°C, 7월에 17°C이다. 한해평균 강수량은 500~600mm이다.

북쪽에서는 5월말부터 53일동안은 해가 지지 않고 낮이 계속된다.

주민은 99.7%가 스웨리예사람들이며 북부에 핀란드사람들과 랍족이 약간 산다.

언어는 스웨리예어로서 노르웨이어, 단마르크어와 비슷하다. 핀란드사람들은 핀란드어도 쓴다.

정　치

스웨리예는 중립정책을 실시하면서 그 어떤 군사블럭에도 참가하지 않고있으며 《북구라파리사회》 성원국으로서 이 지역나라들과의 관계를 밀접히 하고있다.

이 나라는 남아프리카 보스터인종주의도당의 인종격리정책을 규탄하고있으며 아자니아, 나미비아 인민들의 해방투쟁을 지지하고있다.

1976년 9월 19일 스웨리예에서 총선거결과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이 44년만에 정권에서 물러났으나 제1당의 지위는 의연히 차지하였다. 10월 7일 의회에서 중앙당의 당수 토르본 팰딘이 총리로 선출되였다.

10월 8일 중앙당, 인민당, 온건련립당의 새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1977년 6월 16일 스웨리예정부는 남부아프리카해방운동단체들에 원조를 주기로 결정하였으며 이 나라 외교부장은 10월 21일 남아프리카 소수 백인인종주의도당에 대한 제재를 가할것을 호소하였다.

의회 일원제이며 임기는 3년, 의원은 349명, 1976년 총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이 152석, 공산주의자좌익당이 17석, 중앙당이 86석, 인민당(자유당)이 39석, 온건련립당(보수당)이 55석을 각각 차지

국왕 국가수반이나 1974년 2월 의회에서 채택된 법령에 의하여 정치적실권이 제한됨, 국왕 까를 구스타프(1973년 9월—)

정부 1976년 10월 8일 중앙당, 인민당, 온건련립당의 련립정부 수립, 총리 토르본 팰딘(1976년 10월 7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주의자좌익당 1917년 5월에 창건, 위원장 라르스 웨르네르, **사회민주당, 중앙당, 인민당**(자유당), **온건련립당** (보수당), **로조중앙련맹, 사무원로조중앙조직, 공산주의청년동맹, 사회민주청년동맹, 좌익녀성동맹, 평화위원회**

경제, 사회문화

스웨리예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의 하나이다. 이 나라는 북부지방의 풍부한 철광석과 산림자원 및 수력자원에 기초하여 금속가공, 기계, 목재가공, 팔프, 종이 및 선박 공업이 일정하게 발전하였다.

원유와 석탄 자원은 거의 없으나 수력자원에 의한 전력(전력총생산의 90% 차지)으로 동력을 보장한다.

림산업과 철광석채굴에 기초한 공업생산은 공업총생산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수출총액의 80%에 해당한다.

스웨리예는 북구라파나라가운데서 철광석문힌량이 제일 많으며 철광석을 캐내기 시작한 력사도 오래다. 구라파의 많은 나라들이 이 나라에서 철광석을 수입한다. 그밖에 스웨리예에서는 연, 아연, 동 등의 유색금속광물도 캐낸다.

철광석자원에 기초한 야금 및 기계 공업에서는 합금강, 볼베아링, 자동가스등대, 광산기계, 원심분리기, 전기기계, 자동차 등의 생산과 배무이가 큰 자리를 차지한다. 농촌경리에서는 축산업을 위주로하고있다. 축산업은 농업총생산액의 약4분의 3을 차지한다. 그중에서도 소젖제품생산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돼지이다.

부침땅은 령토의 10분의 1에 해당한다. 그중 약 70%는 자본가들과 농장주들이 가지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귀밀,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부침땅의 70%는 집짐승먹이작물을 심는다.

국내운수에서 기본은 철도운수이며 운하망도 짐나르기에서 큰 역할을 한다.

주요수출품은 철광석, 기계, 자동차, 선박, 전기기계, 베아링, 종이 및 팔프 등이다. 주요수입품은 식료품, 원료 및 연료, 직물, 기계제품 등이다. 무역총액의 75%가 구라파지역에 치우쳐있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서부독일, 영국, 단마르크와 그밖의 북구라파나라들이다.

화폐단위는 스웨리예크로나이다.

이 나라에는 종합대학을 포함하여 모두 40개의 대학이 있다.

신교는 이 나라의 국교이며 주민의 95%가 신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스웨리예신문합동통신

신문 니 다그(공산주의자좌익당기관지), 아프톤블라데트(사회민주당기관지), 다겐스 뉴헤테르(인민당기관지), 익스트 웨쎈, 《조선통보》(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기관지), 엑스프레쎈, 스벤스 다그 블라데트, 쏘찌알 데모크라티, 알제메트

방송 스웨리예방송, 스웨리예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4월 7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9년 11월에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가, 1975년 11월 18일에 조선통일지지스웨리예위원회가 각각 결성되였다.

1976년에 조선중앙통신사와 스웨리예신문합동통신사사이에 통신보도교환 및 호상협조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였다.

1977년 1월 우리 나라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구국방안을 지지하여 조선통일지지스웨리예위원회,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 스웨리예에 있는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위원회의 공동주최로 스톡홀름에서 집회가 진행되였다.

또한 이해에 스웨리예조선친선협회는 4월 18일 베스테르 호닝외에서, 5월 6일 헬싱보르그에서 조선인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모임을 각각 진행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여러 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군중집회를 가지였다. 여기에는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조선위원회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이 월간에 스웨리예공산주의청년동맹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77년 9월에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스웨리예공산주의자좌익당대표

단이 참가하였다.

노르웨이

(노르웨이왕국)

넓이 32만 4,219km²
인구 400만 9,000명 (1975년 6월)
수도 오슬로 (주민 48만 7,000명)

자연 및 주민

노르웨이는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서쪽에 자리잡고 쏘련, 핀란드, 스웨리예와 잇닿은 북구라파나라이다. 령토의 70%는 스칸디나비아산줄기의 산지들과 호수, 만, 섬들이 차지하고있다. 좁고 긴 이 나라는 길이가 직선거리로 1,750km에 달하는 반면에 너비는 좁은 곳에서 6km에 지나지 않는다.

기후는 해류의 영향으로 같은 위도상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따뜻하다. 월평균기온(1월)은 바다가지역이 0°C, 내륙지방이 —10~—15°C이다. 한해평균강수량은 바다가지역에서 2,000~3,000mm, 내륙지방에서는 35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노르웨이사람들이며 그밖에 스웨리예사람, 핀란드사람들이 약간 산다.

공용어는 노르웨이어이다.

정 치

1814년 5월 17일 노르웨이는 독립을 선포하였으며 이날을 국경절로 정하였다.

이 나라는 1940년 4월 파쑈독일에 강점당하였다가 1945년 5월에 벗어났다.

노르웨이에서는 1935년부터 거의나 레이버당이 집권하고있다. 1972년에 레이버당은 정권에서 일시적으로 물러났으나 1973년 총선거후 다시 집권당으로 되였다.

1977년 9월 11일과 12일에 걸쳐 총선거가 실시된 결과 다시 레이버당정부가 구성되였다.

레이버당은 1973년이래 좌익련합 (공산당, 사회인민당, 사회주의좌익당)의 지지밑에 단독소수파정권을 유지하고있다.

노르웨이는 1976년 10월 5일 어로전관수역을 200마일로 선포한데 이어 1977년 1월 주변나라들과 북해 어로전관수역에서의 관할권의 조정 및 호상간의 어업권, 어획할당량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진행하였다.

1977년 5월에 뽈스까내각총리와 웰남정부총리가 이 나라를 방문하였으며 노르웨이총리가 6월에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였다.

국회 상하량원제이며 4년 임기인 155명의 의원들로 구성, 의원들중 38명을 선출하여 상원을 구성하고 그밖의 의원들로 하원을 구성, 1977년 9월 총선거결과 레이버당이 76석 (이전 의석 62석), 좌익련합이 2석 (16석), 효이레당이 41석(29석), 중앙당이 12석 (21석), 기독교인민당이 22석(20석), 벤스트레당이 2석(2석)을 각각 차지

국왕 립헌군주국으로서 국가수반, 국왕 올라브 5세 (1957년—)

정부 1977년 새 정부 구성, 총리 오드바르 노르들리 (1976년 1월—)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1923년 11월 4일 창건, 위원장 구나르 크누트센, **레이버당** (집권당), **사회인민당**, **사회주의좌익당**, **효이레당**(보수당), **기독교인민당**, **중앙당**, **벤스트레당**(자유당), **로조중앙련맹**, **공산주의청년동맹**, **사회주의청년동맹**, **레이버청년동맹**, **녀성동맹**

경제, 사회문화

노르웨이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의 하나이다. 경제에서 해운업, 수산업 및 목재가공공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밖에 금속공업, 선박공업도 큰 몫을 차지한다.

전력생산의 90%는 풍부한 수력자원에 의거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1974년에 20억바렐의 원유밭과 500억립방메터의 천연가스매장지를 찾아냄으로써 새로운 동력 및 원료 자원을 가지게 되였다.

1977년에 슈피쯔베르겐제도에서는 우라니움광상이발견되였다.

광석을 수입하여 쓰는 야금공업에서는 알루미니움, 아연, 크롬, 망간 등 유색금속이 주로 생산된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선박기계, 발전기, 가정용 전기기구 생산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경제에서 수산업이 노는 역할이 크다. 북해에서 대구, 청어를 비롯한 여러가지 물고기를 잡고있는데 1975년에 그 생산량은 약 230만 7천톤이였다. 잡은 물고기의 85~90%는 수출한다. 고래잡이도 많이한다.

림산자원이 풍부한 이 나라는 그의 80%가 바늘잎나무들이다. 1975년에 통나무생산량은 97만 7천립방메터였다. 채벌된 통나무의 약 절반은 펄프생산에 쓰인다.

경공업부문에서는 물고기가공과 농축산물가공공업이 기본이다.

경제에서 농업은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 농촌경리에서는 소젖과 고기 생산을 위한 축산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농업생산액의 4분의 3은 축산업의 몫이다. 1975년에 집짐승마리수에서 소는 91 만5천마리, 양은 63만 9천마리였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귀밀, 호밀, 감자 등인데 그 생산량은 매우 적다. 알곡과 남새, 과일 등 국내수요의 90%가 수입된다. 1975년에 밀생산량은 4만 8천톤이였다.

해운업이 발전한 나라로서 무역적자를 여기에서 번 돈으로 적지 않게 메꾸고있다.

노르웨이는 유색금속, 목재 및 그 제품, 물고기 및 그 제품, 선박, 차량, 비료 등을 수출하고 자동차, 원유와 그 제품, 강재, 기계, 섬유제품, 식량, 집짐승먹이, 과일, 남새 등을 수입한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이다.

화폐단위는 노르웨이크로네이다. 1976년 10월현재 화폐교환비률을 보면 1영국파운드는 8.425크로네, 1미국딸라는 5.282크로네였다.

13개의 대학이 있으며 신교는 이 나라의 국교이다.

출판보도;통신 엔티비 (노르웨이통신)

신문 프리헤텐(공산당기관지), 아르바이데트(공산당기관지), 다그 블라데트(자유당기관지), 아르바이데트 블라데트(레이버당기관지), 쏘시알리스티스크 폴케파르티(사회인민당기관지), 오리엔테링, 폴케쯔 프람티드, 아프텐 포스텐, 나티오넨

방송 노르웨이방송, 노르웨이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6월 22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68년 2월 8일 노르웨이조선친선협회가, 1972년 2월 28일 노르웨이조선련대성위원회가, 1976년 3월 17일 조선통일지지노르웨이위원회가 각각 결성되였다.

1977년 11월 16일 오슬로에서 노르웨이청년조선통일지지위원회가 결성되였다.

이해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노르웨이조선친선협회가 소책자를 출판하였다.

1977년 1월에 진행된 우리 나라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구국방안을 지지하여 노르웨이제3세계와의 련대성을 위한 반제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노르웨이제정당, 사회단체들이 련합모임을 가지고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위한 투쟁을 지지하는 성명을 채택하였으며 노르웨이조선친선협회는 성명을 냈다.

7월 7일 노르웨이대학생동맹과 제3세계와의 련대성을 위한 반제위원회는 공동주최로 오슬로에 있는 미국대사관앞에서 시위와 집회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앞서 6월 23일 노르웨이공산당 오슬로시위원회의 주최로 수도에서 군중집회가 진행되였다.

3월 28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노르웨이조선련대성위원회 아렌달지부는 군중집회를 가졌다.

1977년 9월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노르웨이사회주의좌익당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이슬란드

(이슬란드공화국)

넓이 10만 2,846km²
인구 21만 9,033명(1975년 12월 1일)
수도 레이캬비크(주민 8만 4,856명, 1975년)

자연 및 주민

이슬란드는 노르웨이의 서쪽 북대서양에 있는 섬나라이다.

이 나라는 얼음강, 불산, 온천이 많은것이 특징이다. 이슬란드는 《얼음의 땅》이라는뜻이지만 난류의 영향으로 기온은 그리 낮지 않다.

북부에서 한해평균기온은 3°C이며 7월에는 10.9°C, 겨울인 1월에는 −2.4°C이다. 한해강수량은 남부에서 2,000mm 이상, 북부에서 400∼500mm이다. 여름에는 백야가 계속되여 밤에도 낮과 같이 일을 할수 있다.

주민은 노르웨이와 단마르크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들의 후손들이다.

국어는 이슬란드어이지만 단마르크어도 쓴다.

정 치

이슬란드는 1944년 6월 17일 공화국으로 선포되였으며 1949년에 나토성원국으로 되였다.

미제는 1951년 5월 이 나라와 맺은 《방위협정》(군사기지대여협정)에 따라 해군 및 공군 기지를 이슬란드에 설치하였다.

1974년 8월에 독립당, 진보당, 자유좌익당의 련립정부가 수립되였다.

이슬란드는 나라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다. 그를 위하여 정부는 1970년에 어로수역권을 12마일로부터 50마일로, 1975년에는 그것을 다시금 200마일로 넓히였다.

이슬란드의 이러한 조치를 반대하여 영제국주의자들은 이 나라의 200마일 어로수역안에서 대구를 마구 잡아감으로써 두 나라사이에는 1975년 11월부터 제3차 《대구전쟁》이 벌어졌다. 7개월동안의 《대구전쟁》은 1976년 5월 31일 잠정어업협정체결로 겨우 수습되였다.

한편 이슬란드인민들은 자기 나라에 둥지를 틀

고있는 미제침략군의 주둔과 제국주의자들의 다국적회사들의 략탈행위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고 있다.

1977년 5월 21일에도 5천여명의 이슬란드근로자들이 강력한 반미시위를 벌리였다.

국회 상하량원제로서 임기는 각각 4년, 국회의원은 60명, 그중 49명은 선거하며 11명은 비례제에 의하여 매개 정당들에 의석수를 배분, 60명의 의원가운데서 20명을 선출하여 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40명으로 하원을 구성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4년, 국회와 함께 립법권을 행사, 대통령 크리스챤 엘자른 (1968년 7월—, 1976년 8월 재선)

정부 1974년 8월 28일 독립당, 진보당, 자유좌익당의 련립정부 구성, 총리 할그림 쏜(1974년 8월 26일—)

정당, 사회단체;인민동맹 1938년에 창건된 공산당과 사회민주당좌파가 련합하여 조직한 통일사회당을 1968년에 해산하고 이 당을 모체로 인민동맹을 창건, 위원장 아르날드 쏜, **자유좌익당, 진보당**(농민당), **독립당**(보수당), **사회민주당, 로조련맹, 전투적사회주의조직**

경제, 사회문화

수산업과 물고기가공공업이 경제의 기본을 이루고있다. 난류와 한류가 바뀌여지는 대서양북부의 거의 중심부에 있는 이 나라는 세계어장의 하나인 북해어장에서 많은 대구와 청어를 잡는다.

지하자원이 거의 없는 이슬란드는 수산자원에 크게 의존하고있다. 1975년에 98만 7천여톤의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 대부분이 대구였다.

이 나라에는 크고작은 95개의 물고기가공공장들이 있다. 그중 50개의 공장은 물고기 가루와 기름을, 20여개 공장은 물고기통졸임을 생산한다. 이밖에 수산업과 관련된 배수리공장들과 조선소들이 있다.

다른 공업부문들은 뒤떨어졌으며 국내수요를 위한 일부 제품들을 생산할뿐 많은 공업제품들은 수입에 의존하고있다.

화학비료, 세멘트, 주물 공장들과 가죽제품, 뜨개제품, 가구와 축산물가공제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있다.

풍부한 수력자원을 가지고있으나 국내전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농업에서는 축산업이 큰 몫을 차지하며 씨붙임을 할수 있는 땅은 10여만헥타르에 지나지 않는다. 1975년에 소는 6만 1천 785마리, 양은 86만 700여마리가 있었다.

경제에서 또한 대외무역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은 국민총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한다.

철길은 없고 자동차길이 발전하였다.

주요수출품은 물고기와 그 가공제품(수출액의 80~90%), 축산제품(양털, 고기 및 가죽)이며 주요수입품은 알곡, 연료, 여러가지 공업제품이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쏘련, 노르웨이, 미국, 영국이다.

화폐단위는 크로누르이다.

이 나라의 교육부문에는 1974—1975학년도에 초등 및 중등 학교가 220개였으며 1개의 종합대학에서 2천 581명이 공부하였다.

출판보도;신문 우트신(인민동맹주간지), 알리두블라디드(사회민주당기관지), 모르군블라디드(독립당기관지), 티민(진보당기관지)

방송 레이캬비크방송, 이슬란드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7월 27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7년 3월에 이슬란드공화국 외교부 대사부부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단 마 르 크

(단마르크왕국)

넓이 4만 3,069km²
인구 507만 9,000명(1977년 1월말)
수도 꼬뻰하븐(주민 54만 5,350명, 1975년 12월)

자연 및 주민

단마르크는 북구라파의 유틀란드반도와 그 부근의 500여개 섬들로 이루어졌고 서부독일과 잇닿아있다.

쓸모없는 땅이 거의 없는 단마르크는 유틀란드반도에서 90%, 섬들에서는 99%의 땅이 생산에 리용되고있다. 높은 산과 긴 강은 거의 없다.

한해평균기온은 6~8°C이며 한해평균 강수량은 60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게르만족혈통의 단마르크사람들이다. 국어는 단마르크어이다.

정　치

립헌군주국인 단마르크는 1940년 4월 파쑈독일에 강점당하였다가 1945년 5월 5일 벗어났다.

1951년에 단마르크는 미국과 《그린랜드공동방위조약》을 맺고 미제침략군의 그린랜드주둔을 허용하였다.

이 나라는 1949년에 나토에, 1973년에 《구라파

공동시장》에 들어갔다.

단마르크는 또한 1962년에 《북구라파협력조약》을 맺고 이 지역나라들과의 관계를 밀접히 하고있다.

1976년 2월 27일 이 나라 국방부는 특별한 승인이 없이 외국군함들이 단마르크령해에 들어오는것을 금지하였다. 같은해 9월 8일 단마르크정부는 남부아프리카해방운동단체들에 원조를 주기로 결정하였으며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에 대한 국제적제재조치를 취할것을 호소하였다.

1977년에 단마르크에서 진행된 총선거결과 집권당인 사회민주당이 또다시 승리하였다. 그해 2월 25일에는 지금까지 집권하고있던 안케르 에르겐센을 다시 총리로 하는 새 정부가 구성되였다.

단마르크외교부장은 6월에 한 기자회견에서 중근동문제에서 이스라엘이 1967년 6월 이전의 국경으로 물러갈것을 호소하면서 《점령의 지속은 평화에 대한 엄중한 장애로 된다》고 말하였다.

1977년 5월에 윁남정부총리가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의회 일원제로서 임기는 4년, 179명의 의원들로 구성, 1977년 2월 15일 총선거결과 사회민주당이 65석, 진보당이 26석, 자유당이 21석, 보수인민당이 15석, 《민주중앙》당이 11석, 공산당이 7석, 사회인민당이 7석, 기독교인민당이 6석, 기타가 21석을 각각 차지

국왕 립헌군주국으로서 국왕이 국가수반, 국왕 마르그레테 2세녀왕(1972년 1월—)

정부 1977년 2월 25일 사회민주당정부 수립, 총리 안케르 에르겐센(1975년 2월—, 1977년 2월 5일 재선)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1919년 11월 19일 창건, 1976년 9월 제25차당대회 진행, 위원장 크누드 에스페르센이 사망하고 1977년 12월 새 위원장으로 폴리틴가 엔센이 됨, **사회민주당**(집권당), **벤스트레당**(자유당), **보수인민당**, **사회인민당** 위원장 게르트 피터슨, **좌익사회주의당**, **《민주중앙》당**, **진보당**, **급진자유당**, **독립당**, **공산주의청년동맹** 1977년 4월 제32차대회 진행, **사회민주청년동맹**

경제, 사회문화

단마르크는 자본주의적농업—공업국가이다. 수력자원과 지하자원은 거의 없으며 공업원료는 대외시장에 많이 의거한다.

주요공업부문은 국내원료와 수입원료를 가공하는 식료가공공업과 기계, 선박, 화학 공업 등이다. 식료가공공업부문에서는 농축산물가공과 수산물가공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그 제품으로서 여러가지 통졸임(고기, 물고기, 과일), 빠터, 치즈 등이 생산된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내연기관(특히 선박내연기관), 세멘트생산설비, 랭동기, 농축산물가공설비, 자전거, 뜨락또르와 기타 농기계들의 생산이 기본이다. 화학공업에서는 질소비료, 린비료, 의약품생산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그밖에 전기기계, 야금, 목재, 팔프 및 종이 공업 등이 있다.

그러나 중공업을 비롯한 경제전반에 걸쳐 미영제국주의자들의 영향력이 강하다. 자동차, 뜨락또르, 농기계 조립부문은 미제독점체들이, 축산물가공공업은 영국을 비롯한 서방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다. 최근 이 나라에 대한 서독독점자본의 침투가 강화되였다.

최근년간 자본주의세계를 휩쓴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1976년에 공업생산은 15~20% 줄었다. 기간공업부문들의 기업체들이 많이 파산당하였다.

1977년 2월 실업률은 8.1%였다.

농업은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몫이 6분의 1에 지나지 않지만 수출에서는 큰 자리를 차지한다. 소농경리가 전체 농사집의 60%이상 차지하지만 그들에게 차례진 땅은 전체 부침땅의 15%밖에 안된다.

축산물생산이 농업총생산액의 약 80%를 차지한다. 소젖과 소젖가공제품, 고기, 닭알 생산을 위한 축산업과 가금업이 전문화되였다. 1975년에 집짐승마리수에 있어서 소는 306만마리, 돼지는 768만 2천마리였다. 축산제품의 대부분은 수출된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귀밀, 호밀, 감자, 사탕무우 등이다. 1975년에 알곡작물가운데서 밀씨붙임땅은 10만 2천헥타르였다. 씨붙임땅에 있어서 보리는 144만 2천헥타르, 귀밀은 5만헥타르, 호밀은 11만 1천헥타르를 차지하였다.

이 나라 바다에서는 대구, 청어, 송어 등이 많이 잡히며 담수양어(주로 칠색송어)도 한다.

생선과 물고기통졸임들은 이웃 나라들에 수출된다.

해상운수와 해상무역이 발전하였다. 수도 꾀뻰하븐과 스웨리예의 말뫼사이는 철다리로 련결되여있다.

단마르크는 수출총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농축산물을 비롯하여 의약품, 섬유제품, 농기계, 세멘트생산설비, 선박, 선박용 디젤기관 및 설비, 식료가공설비, 물고기 및 그 가공제품을 수출하고 공업원료 및 반제품, 집짐승먹이, 수송설비, 전기기계 및 기구, 정밀기계 등을 수입한다. 수입총액의 약 50%를 공업원료와 반제품이 차지한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영국, 스웨리예, 서부독일, 이딸리아, 미국 등이다.

화폐단위는 단마르크크로네이다. 1976년에 무역적자는 33억딸라였다.

5개의 대학이 있다. 주민의 97%가 신교(국교)를 믿는다.

출판보도;통신 아르비

신문 란드 오그 폴크(공산당기관지), 아크 투엘트(사회민주당기관지), 베를링스케 티덴데, 미나비센, 질랜드 포스텐, 모겐스 포스텐, 인포메이숀,

폴리티겐(급진자유당기관지)

방송 단마르크방송, 단마르크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7월 17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1968년 10월 10일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가, 1976년 5월 11일 조선통일지지단마르크위원회가 각각 결성되였다.

1977년 1월에 진행된 우리 나라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가 내놓은 새로운 구국방안을 지지하여 2월 9일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4월에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와 란더스시문화위원회가 공동명의로 우리 나라 사진및도서전람회를 진행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단마르크 수도에서는 우리 나라 도서및사진전람회가 진행되였으며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는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1977년 9월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단마르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협회대표단이 참가하였다.

7월에 단마르크에서 열린 세계모형항공선수권대회에 우리 나라 모형항공선수단이 참가하였다.

서부독일

(독일련방공화국)

넓이 24만 8,107km²

인구 5,790만명(1975년 12월)

수도 본(주민 28만 4,188명, 1974년)

자연 및 주민

서부독일은 중앙구라파에 자리잡고있다.

북부지역은 벌방지대이며 남쪽으로 가면서 점차 산간지대이다. 남부지역은 알프스산줄기와 잇닿은 높은벌로 이루어져있다.

기후는 전반적지역에서 대륙성기후에 속하나 북해기슭에서는 난류의 영향을 받아 해양성기후를 나타낸다.

한해평균강수량은 낮은 지대에서 600~800mm, 중부의 산간지대에서 1,000mm, 남부와 알프스산지대에서는 2,000mm를 넘는다.

주민의 대부분이 독일사람이다. 서부독일주민은 계속 줄고있다. 1975년에 죽은 사람이 새로 태여난 사람보다 약 24만명이 더 많았다. 1977년에 출생률은 주민 1천명당 9.8명이였다.

정 치

제2차세계대전후 1949년 9월 미, 영,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서부독일땅에 독일련방공화국이 생겨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후 서방렬강은 독일을 비군국화, 비나치스화할데 대한 국제협약을 저버리고 서부독일에 군국주의를 재생시켜 독점자본의 국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전후 미제의 적극적인 비호밑에 서부독일에서는 군국주의가 재생되여 구라파에서 또다시 위험한 침략세력으로 자라났다.

미제의 침략도구인 나토의 기본돌격대로서의 서독 《련방군》은 1973년에 41만 8천명으로부터 1974년에는 49만 5천명으로 늘어났다.

방대한 침략무력을 유지하면서 군비경쟁에 미쳐날뛰고있는 서독군국주의자들은 군사비로 1976년에 314억마르크를 지출하였다면 1977년에는 328억마르크로 늘이였다. 그러나 사실상 군사적목적을 위한 총지출은 약 500억마르크에 달하였다. 이리하여 서부독일은 1970년부터 1976년사이에만도 군사비가 84.5%나 늘어났으며 서구라파나토성원국들 가운데서 군사비지출에서 첫자리를 차지하고있다.

그밖에도 서독군국주의자들은 1천억마르크를 들여 《련방군》을 최신형 비행기, 땅크, 군함들로 재무장하기 위한 《현대화》계획을 짜놓고 군수공업에 박차를 가하였다. 서독잡지 《비르트샤프트스보헤》는 자기 나라의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서부독일군수공업이 《지금처럼 주문을 많이 받은적은 일찌기 없었다》라고 썼다.

뿐아니라 서독군수독점체들은 더 많은 주문을 받기 위하여 1977년 9월 20일부터 10월 1일까지 쾰른에서 요란한 살인무기전람회를 펼쳐놓고 앞을 다투어 전쟁분위기를 고취하였다.

침략적인 나토의 상층부의 자리를 항상 탐내오던 서독군국주의자들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공모하여 이때까지 없던 나토 부총사령관자리 하나를 더 만들고 10월 24일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1977년에 놈들은 《중구라파의 힘의 균형》이니 뭐니 하면서 《련방군》의 《현대화》와 동시에 《핵무장화》에 열을 올렸다. 이로부터 3월에 서독 외교부장, 국방부장놈이 연방 미국에 기여들어 저들의 《련방군》을 포함한 나토침략군의 《핵무장화》와 일련의 중무기들에 대한 《규격화》 문제를 가지고 미제와 숙덕공론을 벌렸다. 핵무기개발을 위하여 서독반동지배층놈들은 지난 20년동안에 핵시설을 위해 82억마르크, 핵연구를 위해 85억마르크라는 막대한 자금을 퍼부었다. 1977년 4월 20일 서독반동지배층은 핵무기를 개발할수 있는 고속증식로의

개발계획(1977—1980년)을 추진할것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하였다.

한편 서독군국주의자들은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과 비밀협정을 맺고 핵무기를 포함한 살인무기생산분야에서 협조하고있으며 15개의 서독연구기관과 10개의 독점회사들이 달라붙어 무기개발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시키고있다. 그밖에 2월 2일 놈들은 토이기에 12억마르크어치의 신형땅크를 비롯한 군사장비들을 주기로 한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나라들에 살인무기들을 팔아 돈벌이를 하였다.

서부독일 땅을 군사기지로, 군사련병장으로 전변시킨 서독군국주의자들은 저들의 《련방군》을 내놓고도 22만 4천 300명에 달하는 미제침략군과 5만 5천명의 영국침략군, 또한 프랑스군대를 주둔시키고있으며 인민들로부터 막대한 세금을 짜내여 제국주의침략군의 《유지비》에 충당하고있다. 서독총리 슈미트는 10월 18일 영국총리 캘라한과의 회담에서 서부독일이 자기 나라에 주둔하고있는 영국침략군유지비로 앞으로 3년동안에 4억 7천 500만마르크를 영국에 지출하겠다고 떠벌였다.

9월에 서독군국주의자들은 《련방군》의 구조개편을 검열한다는 구실밑에 대규모의 군사연습을 벌렸으며 9월 13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나토군사연습에 참가하여 전쟁분위기를 고취하면서 미쳐날뛰였다.

이해 3월에 서부독일반동들은 1937년의 국경을 《회복》할것을 꿈꾸면서 제놈들의 복수주의적야망을 드러내놓고 반쏘스까소동을 벌리였으며 6월에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경을 계속 침범하는 도발적인 행위를 감행하였다.

국회 련방의회(하원)와 련방참의원(상원) 으로 구성, 련방의회 의원은 496명이며 임기는 4년, 련방참의원의원은 41명(결의권 없는 서부베를린대표 4명 포함)이며 각 주정부대표들로 구성, 실권은 련방의회에 있고 련방참의원은 협의기관에 불과, 1976년 10월 3일 총선거에서 사회민주당은 213석(선거전 의석 230석), 자유민주당은 39석(41석), 기독교민주동맹과 기독교사회동맹은 모두 244석(225석)을 각각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으로서 련방대회의 (상하원합동회의)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5년, 대통령 발테르 쉘(1974년 5월 15일—)

정부 1976년 12월 15일 제2차 슈미트의 사회민주당, 자유민주당련립정부 구성, 총리 헬무트 슈미트(1974년 5월 7일—, 1976년 12월 15일 재선)

정당, 사회단체;독일의공산당 1968년 9월에 창건, 위원장 헤르베르트 미스, **사회민주당** (집권당) **자유민주당**(집권당), **기독교민주동맹, 기독교사회동맹, 전독일당, 국가민주당, 독일로조총련맹, 사회주의청년동맹**

경제, 사회문화

서부독일에서는 전후 자본의 집적과 집중화과정이 급속히 촉진되였다. 115개의 대독점체들이 《억만장자구락부》를 형성하고 서부독일경제를 좌지우지하고있다. 이 대독점체들의 총류통액은 거의 5천억마르크에 달하는데 이것은 이 나라 공업기업소들의 총류통액의 68%에 해당한다. 《훼바》(전기화학독점체), 《티쎈》(제강독점체), 헤호스트(화학독점체), 《씨멘스》(전기독점체) 등 8개의 대독점체들은 자본주의세계의 30개 대독점체들의 명단에 오른것들이다.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는 경제위기속에 휘말려들어 몇몇 대독점체들을 제외한 중소기업체들이 수많이 파산당하고있으며 서독경제는 침체와 답보속에 모대기고있다.

1977년에 예산적자는 예견했던것보다 7억마르크나 더많은 221억마르크에 달하였으며 같은해에 경제장성률은 예산한것에 비하여 2.6%나 떨어졌다.

1977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사이에 강철생산은 9.6%, 선철생산은 10.3%, 압연제품생산은 5.6% 줄었다. 같은해 2.4분기동안에 가공공업생산액은 1.4분기에 비하여 1.5%나 떨어졌으며 이 공업부문의 1977년 상반년기간 조업률은 88%에 지나지 않았다.

선박건조공업은 《1930년대초와 같은 불경기》에 직면하여 1976년까지 주문은 7.9%나 떨어진 후에도 추서지 못하였으며 1977년에 그 능력을 줄이지 않으면 안되였다. 1973년이래 건설공업이 위기에 처하여 거의 4천개의 건설회사들이 파산당하였으며 석탄공업도 처지는 마찬가지였다. 가장 큰 석탄독점체의 하나인 《루르 콜레》회사산하 탄광들은 1977년 상반년동안에 석탄생산량이 1976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19.4%나 줄어들었다.

1977년에 9천 562개의 중소기업체들이 경영난에 부딪쳐 파산당하였는데 이것은 그 전해에 비하여 2.1% 늘어난것이다.

한편 서부독일의 독점자본은 자기 나라 근로자들을 가혹하게 착취하는 한편 해외경제팽창을 강화하고있다.

서부독일은 1976년에 총 50억마르크이상을 해외에 투자하였다. 그리하여 1976년까지 이 나라의 해외투자총액은 470억 4천 800만마르크에 달하였다. 1977년에는 해외민간투자액만 하여도 그것은 9천만마르크나 되였다.

특히 서부독일은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과 경제적련계를 강화하고있다. 1976년말현재 남아프리카에 대한 투자총액은 35억마르크였으며 1977년 첫 3달동안에만도 그것은 2천 680만마르크에 달하였다. 약 6천개의 서독회사들이 남아프리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련계를 가지고있다. 서독독점자

본가놈들은 해외투자총액의 30%를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에 밀어넣고 이 나라들의 경제적자립성을 마비시키고있으며 값싼 로동력을 리용하여 막대한 초과리윤을 짜내고있다.

농촌경리는 1976년에 계속되는 왕가물에 의하여 심대한 타격을 받았으며 1976—1977농업년도에 1만 6천개의 중소농장경리가 파산당하였다. 이 기간에 농사하는 주민은 2만명이나 줄었다. 1977년 1.4분기에만도 파산된 농장수는 그 전해 같은기간에 비하여 거의 40% 늘었다.

서부독일에서는 한줌도 못되는 자본가놈들과 특권계층놈들이 근로자들의 피땀을 짜내여 방탕한 생활을 하고있으며 광범한 근로자들은 기아와 빈궁속에 시달리고있다.

공식발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720만명의 근로자들이 가난에 쪼들리고있다. 1977년 4월말현재 전혀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수는 103만 9천 400명에 달하였다.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조차 해마다 로동사고와 직업병으로 4천명이 죽고 30만명이 로동능력을 잃고있다. 특히 녀성들은 남성로동자들과 같은 일을 하고도 평균 25% 낮은 임금을 받고있으며 심한 경우 그것은 절반의 임금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한 임금차별로 자본가놈들은 해마다 100만마르크를 짜내고있다.

서독군국주의자들의 부추김밑에 군국주의, 복수주의를 찬미하는 풍조들이 되살아나고있다. 1977년만하여도 파쑈전쟁광신자 히틀러놈을 찬미하는 영화, 쟈즈가극 등이 사회에 공공연히 나돌았다. 지어 서독군국주의자들은 제2차세계대전시기 이딸리아 로마에서 수많은 반파쑈투사들을 학살한 비밀경찰책임자놈을 이딸리아에서 빼돌려 감싸주었다. 반동군대안의 장교놈들속에서는 나치스의 노래를 부르고 히틀러놈을 찬미하며 광증을 부리는 자들도 나타났다.

서독반동지배층놈들은 해외문화침투를 강화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이른바 《괴테연구소》라는것을 설치하고 썩어빠진 문화를 퍼뜨리고있다. 또한 놈들은 다른 나라들에 11만명을 수용할수 있는 350개의 학교를 세워놓고 서독반동문화와 군국주의사상을 침투시키고있다. 이러한 해외문화침투비로 놈들은 1978년도 예산을 4천 310만마르크나 배당하였다.

썩어빠진 사회를 반영하여 젊은 청년들속에서 알콜중독자, 마약중독자들이 늘어나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심한 알콜중독자만해도 15만명을 헤아리며 《알콜상습으로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150만명에 이르고있다. 1976년에 마약중독으로 325명이 죽었으며 마약관계범죄수는 전해에 비하여 약 9.8%나 늘어났다. 가난과 어지러운 사회를 등지고 1976년에만 하여도 약 5만명의 사람들이 서부독일을 떠나버렸다.

1977년 1월 1일부터 여러가지 물건값이 거의 20% 올랐다.

주민의 51%가 신교를, 45%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통신 데페아

신문 프라이에스 폴크(독일의공산당기관지), 디 벨트(정부계), 프랑크푸르테르 알게마이네 짜이퉁, 케르니쉐르 룬트샤우(기독교민주동맹계), 함부르게르 아벤트 블라트(기독교민주동맹계), 프랑크푸르테르 룬트샤우(사회민주당계)

방송 8개의 방송망이 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6년 3월에 조선로동당대표단이 독일의공산당 제4차대회에 참가하였다. 서부독일에 머무르는 기간 대표단은 사회민주당일군들, 사회민주당출신국회의원들을 만났다.

1977년 9월에 서부독일텔레비죤 촬영가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오 지 리

넓이 8만 3,849km²

인구 751만 9,500명(1975년)

수도 윈(주민 164만 4,900명, 1969년)

자연 및 주민

오지리는 중구라파에 동서로 길게 가로놓인 내륙나라로서 웽그리아, 체스꼬슬로벤스꼬, 서부독일, 스위스, 이딸리아, 유고슬라비아와 잇닿아있다.

오지리는 구라파나라들중에서도 스위스와 함께 가장 험한 산악의 나라이다. 령토의 75%가 동부알프스산줄기로 되여있다. 이 나라에는 호수가 많다.

기후는 따뜻한 온대성기후이나 겨울에는 몹시 춥다. 최고기온은 여름에는 18~20°C, 겨울에는 —1~4°C이다. 한해평균강수량(벌방지대)은 500~800mm이다. 1977년 8월초에 18년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

주민은 게르만족혈통의 사람들이며 그밖에 슬라브족, 마쟈르족, 이딸리아사람들이 산다.

국어는 독일어이다.

정 치

오지리는 1918년에 공화국으로 되였으며 윈조약(1919년)에 의하여 국경선이 확정되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 오지리는 파쑈독일에 강점당하였으며 1944년에 그로부터 벗어난 후 쏘, 미,

영, 프랑스 4개국의 공동관리밑에 있었다.

1955년 5월 15일 대오국가조약에 따라 대오관리리사회사업은 폐지되였으며 같은해 10월 26일 오지리국회는 자기 나라를 《영구중립》으로 선포하였다.

전후 오지리는 미국과 《우호통상및항해조약》(1956년)을 맺었으며 나토와 련결된 《구라파리사회》에 들어갔다.

1949년부터 인민당과 사회당의 련립정부가 집권하였으나 실권은 대부르죠아지의 리익을 대변하는 인민당이 틀어쥐고있었다.

1971년 10월 선거에 이어 1975년 10월 선거에서 다시 승리한 사회당은 단독정부를 구성하고있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중립》을 견지할것을 약속하면서 세계의 각이한 나라들과 모두 관계를 좋게 가지려하고있다.

이런 의미에서 오지리총리는 1976년 3월 6일 자기 나라가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인정》하고있으며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을 팔레스티나인민의 유일한 대표로서 승인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였다.

1977년 1월 오지리는 세이쉘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국회 상하량원제, 국민의회(하원) 의원은 183명이며 임기는 4년, 련방의회(상원) 의원은 58명, 1975년 10월 5일 국민의회선거결과 사회당이 94석, 인민당이 78석, 자유당이 11석을 각각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6년, 대통령 루돌프 키르슈슐래게르(1974년 7월 8일—)

정부 1970년 3월부터 사회당정부가 집권하고있다. 총리 부르노 크라이스키(1970년 4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8년 11월에 창건, 1977년 12월에 제23차당대회 진행, 위원장 프란츠 뮤리, **사회당**(집권당), **인민당**, **자유당**, **국가민주당**, **민주진보당**, **로조련맹**, **공산주의청년**, **공산주의대학생동맹**, **민주녀성동맹**

경제, 사회문화

오지리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의 하나이다.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공업이며 농업과 림업도 일정한 수준에 있으나 사회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몫은 적다.

주요공업부문은 채광공업(철, 흑연, 갈탄, 원유 및 천연가스, 마그네사이트, 연, 동)을 비롯하여 기계, 방직, 목재가공, 흑색금속, 팔프 및 종이공업 등이다. 채광공업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마그네사이트는 1970년에 160만 9천톤, 1972년에 142만 8천톤, 1975년에 126만 5천톤 생산하였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야금설비와 전기기계, 제지 및 목재가공 기계생산이 기본이며 화학공업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류산, 석탄산, 가성소다, 염화비닐, 염료, 화학비료(질소), 화학섬유 등이다.

경공업부문에서는 특히 섬유공업이 기본이며 두나이 강변에는 목재가공공업이 집중되여있다. 동력의 4분의 3은 수력발전소에 의존하고있다.

농업부문에서는 인구의 약 20%가 일한다. 전체 농사집의 1%에 지나지 않는 농장주들이 전체부침땅의 절반을 차지하고있다.

축산업이 농업생산액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부침땅의 많은 부분이 집짐승먹이작물재배에 돌려진다. 주요집짐승은 소, 말, 염소, 양, 돼지 등인데 1975년에 소마리수는 250만마리였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귀밀, 호밀, 강냉이, 사탕무우, 남새 등이다. 그가운데서 1975년에 밀씨붙임땅은 39만 2천헥타르, 강냉이씨붙임땅은 14만 4천헥타르였다. 같은해에 130만톤의 밀, 98만 1천톤의 강냉이가 생산되였다. 오지리는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지 못한다.

운수에서 기본은 철도 및 하천 운수이다.

오지리는 선철, 강철, 기계설비, 팔프 및 종이, 화학제품, 전기일용품 등을 수출하고 식료품, 원료 및 연료 등을 수입한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서부독일, 이딸리아를 비롯한 서구라파나라들이며 최근년간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무역거래도 늘이고있다. 오지리는 관세에서 원료 및 연료 수입에 대해서는 무세 또는 낮은 세률을 적용하고 반제품에 대해서는 20%까지 관세를 적용한다.

화폐단위는 쉴링이다. 1딸라는 17.07쉴링, 1파운드는 27.30쉴링이다(1976년 10월현재)

1974—1975학년도에 18개의 대학이 있었다. 주민의 90%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통신 에이피에이

신문 폴크스 슈팀메(공산당기관지), 윈 짜이퉁(정부기관지), 디 프레쎄, 포르베르츠, 아이바르테르 짜이퉁(사회당기관지), 폴크스 블라트 (인민당기관지), 데에프페—텔레그람(민주진보당기관지), 노이에 프론트(자유당기관지)

방송 오지리방송, 오지리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0년 11월 23일 우리 나라와 무역협정을 맺었으며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이 나라에 설치되였다.

1974년 12월 12일 우리 나라와 오지리 두 나라사이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3년 5월 10일 오지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촉진협회가, 1976년 4월 22일 조선통일지지오지리위원회(수도 윈에서)가 각각 결성되였다.

1977년 8월에 오지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촉진협회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희 랍

(희랍공화국)

넓이 13만 1,944km²
인구 904만 6,000명(1975년)
수도 아테네(주민 86만 2,133명, 1971년)

자연 및 주민

구라파대륙의 동남부 발칸반도의 끝에 놓여있는 희랍반도와 에게해에 널려있는 100여개의 섬들로 이루어졌다. 국토의 20%가 벌이고 80%는 산지대이다. 굴곡이 심한 해안선에는 만과 항구들이 많다.

기후는 남과 북, 산지와 바다가, 섬들사이에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따뜻하다. 수도 아테네의 한해평균기온은 17.6°C이며 서부지역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비가 적게 내린다. 한해평균강수량은 400mm에 지나지 않는다. 1977년 7월에 토이기로부터 에게해를 거쳐 희랍에 들이닥친 《50년래의 최악의 열파》로 하여 희랍의 모든 지역이 큰 고통을 겪었다. 모든 읍들의 기온은 화씨 100°C이상에 달하였으며 10일 낮에 엘레시스에서 기온은 섭씨 48°C를 기록하였다. 8월에도 이 나라에서 열파는 계속되였으며 11월에는 수도 아테네지역과 항구도시 피레우스지역이 큰물의 피해를 받았다.

주민의 90%이상이 희랍사람들이며 그밖에 토이기사람, 유태사람들이 산다.

공용어는 희랍어이다.

정 치

제2차세계대전후 희랍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무장간섭과 국내반동세력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1946년3월부터 립헌군주제가 다시 수립되고 파쑈통치가 시작되였다.

희랍반동지배층은 1950년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고용군을 대주었으며 1952년에 침략적인 나토에 들어갔다.

1953년에 희랍반동당국은 미제와 《군사기지협정》을 맺고 자기 나라에 미제가 군사기지들을 설치하는것을 허용하였다.

1967년 4월부터 1974년 7월 23일 군사정변에 의하여 파쑈군사독재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파쑈독재자 파파도풀로스가 통치하였다.

같은해 11월 17일 국회선거 결과 카라만리스를 총리로 하는 신민주당정부가 수립되였다.

희랍정부는 1976년 4월 15일 미국으로부터 7억딸라의 《군사원조》를 받는 대가로 4년을 기한으로 하는 새로운 《군사기지협정》을 맺는데 동의하였으며 1977년 7월 26일 이 《협정》에 정식으로 조인하였다.

7월 30일 희랍의 여러 도시들에서 모여온 근로자대표들은 아테네에서 《미국인들은 희랍에서 물러가라!》, 《죽음의 기지들을 철페하라!》라는 구호밑에 미군기지를 포함한 모든 외국군사기지들을 없애버리며 희랍이 침략적인 나토에서 떨어져 나올것을 요구하였다.

《군사기지협정》이 조인된것과 관련하여 전희랍사회주의운동(사회당) 위원장은 희랍에 있는 모든 미군기지들의 철페와 나토로부터 자기 나라가 벗어나게 하기 위해 완강하게 투쟁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희랍국방부장놈은 4월 3일 집권당인 신민주당 제1차대회에서 《미국은 의연 우리의 가장 좋은 벗》이라고 극구 찬양하였으며 1974년 8월 희랍이 나토의 군사분야에서 떨어져나왔지만 희랍은 《나토의 편에 설것이다》라고 떠벌였다.

1977년 11월 20일 희랍에서 총선거가 진행되였다. 그리하여 11월 28일 카라만리스를 총리로 하는 새 정부가 다시 수립되였다.

희랍은 대외적으로 발칸지역나라들과 동시에 아랍나라들과의 관계개선에 몰두하고있다.

희랍과 토이기사이에는 끼쁘로스문제와 에게해의 대륙붕(1973년 희랍의 타소스섬부근에서 원유발견)문제를 둘러싼 분쟁이 계속되고있다.

국회 일원제이며 의원은 300명, 1977년 11월 20일 총선거결과 신민주당이 174석, 전희랍사회주의운동이 91석, 민주주의중앙동맹이 15석, 공산당이 11석, 전국민주동맹이 5석, 신세력중앙동맹(신자유당)이 2석, 《좌익통일세력》이 2석을 각각 차지

대통령 콘스탄틴 차초스

정부 1977년 11월 28일 신민주당정부 수립, 총리 콘스탄틴 카라만리스(1974년 11월 21일—, 1977년 11월 28일 재선)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국내) 1968년에 창건, 1976년 6월 제1차당대회 진행, 제1비서 하랄람보스 드라꼬뿔로스, **공산당** 1918년에 창건, **통일민주좌익당**, **《좌익통일세력》**, **신민주당**(《신민주주의》당, 집권당), **전희랍사회주의운동**(사회당), **민주주의중앙동맹**, **로동총련맹**, **민주녀성동맹**, **평화옹호위원회**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공업과 농업이 국민총생산액에서 각각 28%정도씩 차지하며 나머지는 운수, 상업 및 봉

사 부문의 몫이다.

경제의 주요부문은 외래독점자본의 통치밑에 있으며 해안지대는 경제가 비교적 발전하였으나 북부산간지대는 매우 뒤떨어졌다.

주민의 절반이 농사를 하며 부침땅은 전령토의 25%를 차지한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강냉이, 벼, 목화, 담배, 포도, 올리브, 감자, 사탕무우, 감귤류 등이다. 강냉이생산은 1973년에 65만 6천톤으로부터 1975년에 46만 8천톤으로, 목화는 1976년에 그 전해에 비하여 21%가 줄었다. 알곡은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주요집짐승은 양, 소, 염소이다.

공업이 다른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에 비하여 뒤떨어졌다. 주요공업부문은 미제를 비롯한 외래독점체들에 예속되여있다. 식료가공, 방직, 담배가공, 목재가공 등 경공업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철, 보크사이트, 마그네사이트, 크롬, 망간, 연, 주석, 동, 중정석, 돌솜, 대리석이 채취된다. 이 나라에는 《오지리—미국마그네사이트회사》와 희랍계회사 등 4개의 마그네샤크링카회사가 있다.

가공공업부문에서는 섬유, 식료 공업과 함께 전기기계, 금속, 화학 및 석유화학 공업 등이 점차 커지고있다.

경제에서 해운업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여기에서 얻어지는 외화수입액은 해마다 약 2억딸라에 달한다.

주요수출품은 마른포도, 올리브기름, 감귤류, 담배, 가죽 등 농축산물이다. 이것은 수출총액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그밖에 광물류, 유색금속, 강재가 수출된다. 주요수입품은 원료와 연료, 기계설비, 여러가지 소비품과 알곡이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구라파공동시장》 성원국들과 미국, 구라파사회주의나라들이다. 화폐단위는 드라크마이다.

교육분야에는 28개의 대학이 있다. 이 나라의 국교는 정교이다.

출판보도;통신 아테네통신

신문 아클로폴리스, 엘레프토로스 코즈모스, 네아폴리티아, 아브기, 에쏘르 미써

방송 아테네방송, 피르고스방송, 국립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6년 12월에 희랍조선친선협조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7년 7월 16일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희랍의 저명한 사회정치활동가들, 과학문화계 인사들, 국회의원들이 조선인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이해 9월에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희랍공산당(국내)대표단, 전희랍사회주의운동(파쏘크)대표가 참가하였다.

스위스

(스위스련방)

넓이 4만 1,288km²

인구 629만 8,000명(1977년 1월초)

수도 베른(주민 16만 8,000명, 1970년)

자연 및 주민

스위스는 구라파의 중앙부에 자리잡고있는 내륙나라로서 서부독일, 오지리, 이딸리아, 프랑스와 잇닿아있다. 스위스령토안의 알프스산줄기는 일년내내 녹지않는 눈, 얼음강, 뾰족뾰족한 산봉선과 바위, 깊은 골짜기, 호수 등이 어울려 구라파에서는 독특한 경치를 나타내고있다.

기후는 높은 산과 복잡한 땅생김으로 하여 다양하다. 한해평균기온(제네바)은 1월에 1°C이며 7월에는 19°C이다. 한해평균강수량은 평지대가 800～1,000mm이며 산지대가 2,100mm이다.

다민족국가인 스위스는 스위스사람이 따로 없고 독일, 프랑스, 이딸리아, 로망슈 혈통의 후손들로 이루어졌다.

언어 역시 독일어, 프랑스어, 이딸리아어 등이 동등하게 쓰인다.

정 치

스위스는 1815년 윈회의에서 국경이 확정되고 《영구중립》국가로 선포되였다. 이런 의미에서 스위스는 유엔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조선정전 중립국 감독위원회 성원국으로 활동하고있다.

스위스에서는 1971년에 진행된 국민투표의 결과 처음으로 녀성들의 참정권이 인정되였다.

스위스는 최근년간 대외적으로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과의 관계발전에 관심을 돌리고있다. 그리하여 정부는 《경제적리해관계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다.

국회 상하량원제, 국민의회(하원)와 전주의회(상원)로 구성, 국민의회 의원은 200명이며 임기는 4년, 전주의회 의원은 44명으로서 매개 주에서 2명씩 선출되며 임기는 각 주에서 정한다.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1년, 대통령과 부대통령은 7명의 각료중에서 나이가 많은 순서에

따라 륜번제로 선출된다. 대통령 쿠루트 푸르글레르(1977년—)

련방회의(정부) 국회량원합동회의에서 선출되는 7명의 각료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

정당, 사회단체;로동당 1921년에 창건된 공산당과 좌익사회주의그루빠가 합당하여 1944년 10월에 창건, 위원장 쟝 뱅쌍, **스위스진보조직** 총비서 에두아르드 하프네르, **자주사회주의당** 총비서 웨르네르 까로비오, **사회민주당**(사회당) 1870년 창건, 련립집권 제1당, **기독교민주당**(기독교민주인민당) 1912년 창건, 련립집권당, **급진민주당** 련립집권당, **인민당** 련립집권당, **자유민주당**, **〈독립〉당**, **로조련맹**, **기독교로조**, **자치로조**, **자유청년**

경제, 사회문화

스위스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의 하나이다. 그러나 지하자원이 극히 부족하여 공업원료와 반제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그것을 가공하는 가공공업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제품생산의 70～80%를 대외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가공공업에서는 주로 원료가 적게 들고 숙련된 로동을 요하는 시계를 비롯하여 정밀기계, 전기기계 등 값비싼제품이 생산된다. 시계공업은 발전력사가 제일오랜 공업으로서 그 생산량(1975년에 4천 719만 1천개 생산)은 자본주의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하며 그의 대부분이 수출된다. 최근년간 시계수출이 줄어들어 1975년에 그 전해에 비하여 량적으로는 22.1%, 금액상으로는 15.2% 각각 떨어졌다.

그밖에 기계공업, 방직공업, 새로 발전하기 시작한 화학공업이 경제에서 큰 자리를 차지한다. 기계공업에서는 선반을 비롯한 각종 공작기계, 방직기계, 전동기, 발전기, 전기기관차, 기타 측정계기, 인쇄설비, 사무용 기계 등이 생산된다. 방직공업에서는 나일론실을 비롯한 화학섬유실, 합성섬유직물이 주로 생산된다. 화학공업에서는 특히 의약품과 유기합성염료, 광물질비료 생산이 기본이며 식료가공공업에서는 여러가지 통졸임과 담배가공품, 치즈 생산이 큰 몫을 차지한다.

또한 수입원료를 쓰는 야금공업이 있다. 알루미니움생산량은 1974년에 8만 7천톤으로부터 1975년에 7만 9천톤으로 줄었다.

스위스경제에서는 관광업(년평균관광수입액은 약 6억딸라)이 큰 몫을 차지하며 림업도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농업은 경제에서 차지하는 몫이 얼마되지 않는다. 농업총생산액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몫은 70%이상에 달한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강냉이, 감자, 사탕무우 등인데 알곡생산량은 국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교통운수에서 기본은 철도운수이며 스위스와 이딸리아사이는 알프스산줄기를 가로지른 지하도로로 이어져있다.

스위스는 시계, 기계설비, 정밀기계, 화학제품, 의약품, 섬유제품 등을 수출하고 석탄, 원유, 강재, 금속가공기계, 자동차, 알곡, 과일, 남새 등을 수입한다. 수출총액에서 공업제품이 90%를 차지하며 수입총액에서는 원료 및 반제품이 약 절반을 차지한다. 1977년 첫 10개월동안에 무역적자는 6억 5천 900만딸라였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서부독일, 미국, 프랑스, 이딸리아 등이다. 화폐단위는 스위스프랑이다.

실업률은 1974년에 0.2%, 1975년에 10.5%, 1976년 6월현재 19.7%였다.

교육분야에는 11개의 대학이 있다. 주민의 52%는 신교도이며 46%는 천주교도이다.

출판보도;통신 에이지

신문 라 부아 우브리에르(로동당기관지), 포르베르츠(로동당기관지), 리베라 스탐파(사회민주당기관지), 아펜젤레르 짜이퉁, 트리뷴 드 제네브, 뗑까뜨레르, 나찌오날 짜이퉁

방송 스위스방송(프랑스어), 로잔느방송(프랑스어), 쮜리히방송(독일어), 스위스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7월 14일 우리 나라와 정부급 무역대표부를 교환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으며 1974년 12월 20일에는 두 나라사이의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6년 4월 10일 조선통일지지스위스위원회(베른에서)가, 4월 13일 조선통일지지제네바위원회가 각각 결성되였다. 또한 1976년에 남조선에서의 민주수호스위스법률가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7년 1월 우리 나라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구국방안을 지지하여 2월 17일 조선통일지지스위스위원회와 스위스아세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단결위원회가 성명을 냈다.

조선통일지지제네바위원회는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6월 29일 선언문을,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만행을 규탄하여 10월 31일 성명을 각각 발표하였다.

이해에 또한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결의가 채택된 때로부터 두돐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10명의 스위스국회의원들이 유엔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였다.

1977년 9월에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스위스자주사회주의당대표와 스위스진보조직대표단이 참가하였다.

3월에 이 나라 정부민항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리히텐슈타인

(리히텐슈타인공국)

넓이 157km²
인구 2만 2,000명
수도 바두쯔(주민 4,000명)

자연 및 주민

리히텐슈타인은 오지리와 스위스사이에 있는 작은 나라이다. 이 나라는 남북의 길이가 24km, 동서의 너비는 9km에 지나지 않는다.

6월, 7월 평균기온은 골짜기에서 18°C, 산지에서 12°C이다. 한해평균강수량은 700~1,200mm이다.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주민은 게르만족(독일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들은 독일어를 쓴다.

정　치

리히텐슈타인은 1719년에 공국으로 된 이후 여러 나라들에 예속되여있었으며 제1차세계대전후에는 스위스의 《보호》밑에 있다.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이 나라는 파쑈독일의 강점밑에 있었다.

1921년에 제정된 헌법에 의하여 리히텐슈타인에서는 립헌세습군주제가 실시되고있으며 이 나라의 군사, 외교, 재정권은 스위스가 대행하고있다.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와 같이 《중립》을 표방하고있다.

1974년 2월 국회선거결과 시민진보당이 8석, 조국동맹이 7석을 각각 차지하였다.

국회 15명으로 구성된 일원제 국회이며 임기는 4년

국왕 국가수반이며 모든 실권을 행사, 국왕 프란쯔 요제프 2세(1938년 7월—)

정부 총리와 부총리, 2명의 보좌관(부장)으로 구성

정당, 사회단체; 시민진보당, 조국동맹, 기독교사회당, 로동자동맹(로조)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60%가 농산업과 목축업에 종사하는 농업국가이다. 부침땅은 921헥타르에 불과하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귀밀, 호밀, 강냉이, 감자, 포도를 비롯한 과일, 남새류이다. 1975년에 밀, 호밀, 귀밀은 합하여 70톤, 보리와 강냉이는 520톤, 감자는 3천 200톤이 생산되였다.

주요집짐승은 소, 돼지, 말, 양, 염소 등이다. 1975년에 약 5천 900마리의 소, 약 3천 900마리의 돼지가 있었다.

공업부문에는 석탄생산 이외에 금속가공, 방직, 축산물가공, 소형정밀기계 공장 등이 있다.

이 나라는 전통적으로 의치(이발)를 잘 만드는 나라로 알려졌고 우표판매(재정수입의 3분의 1차지)와 관광업이 주요재정수입원천으로 되고있다. 1975년에 관광객수는 약 7만 8천명이였다. 스위스의 화페가 쓰인다.

18.5키로메터의 철길이 있는데 프랑스, 오지리, 스위스와 련결되여있다. 철길운행은 오지리가 장악하고있다. 지하도로와 운하도 있다.

1976년현재 14개의 초등학교, 4개의 중학교, 2개의 전문학교가 있었으며 대학은 없다.

사회적으로 녀성들에게 참정권이 없는 구라파의 유일한 나라이며 년령적인 계층제가 심하다. 비상시에만 60살아래의 남자들이 의무병역에 참가하고 평상시에는 37명의 경찰이 있을따름이다. 주민의 대다수는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리히텐슈타인통신

신문 리히텐슈타이네르 파테르란트(조국동맹기관지), 리히텐슈타이네르 폴크스블란트(시민진보당기관지), 데르 리히텐슈타이네르(기독교사회당주간지)

이 딸 리 아

(이딸리아공화국)

넓이 30만 1,250km²
인구 5,659만 4,000명(1977년 12월말)
수도 로마(주민 340만명, 교외인구 포함)

자연 및 주민

이딸리아는 구라파의 남쪽 지중해의 한가운데로 길게 뻗은 반도나라로서 프랑스, 스위스, 오지리 및 유고슬라비아와 잇닿아있다. 또한 이 나라는 씨칠리아섬, 사르데냐섬을 비롯한 크고작은 섬들을 가지고있다.

반도의 등뼈를 이루는 아뻬닌산줄기 일대에는 불산이 많고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기후는 아열대지중해성기후로서 여름은 덥고 비가 적게 내리며 겨울은 따뜻하고 비가 많이 내린다. 한해평균기온은 10°C(씨칠리아섬은 최고45°C)이다. 한해강수량은 북부에서 2,000mm, 남부에서

850mm이다. 1977년 8월 29일 심한 비와 우박, 폭풍과 회오리바람이 북부와 중부 이딸리아를 휩쓸어 강물이 넘어났다. 10월에 북부이딸리아에서는 20년래의 나쁜 날씨가 계속되였으며 제노아에서는 10월 6일 12시간동안에 24cm의 비가 내렸다.

주민의 대부분(98%)은 이딸리아족이며 그밖에 독일사람, 슬로베니아사람, 프랑스사람 등이 있다.

국어는 이딸리아어이다.

정　치

이딸리아반동정부는 제2차세계대전후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적극 추종하면서 나토, 《서구동맹》, 《구라파공동시장》 등 침략적인 군사 및 배타적인 경제 기구들에 가담하였으며 나라의 주요군사적요충지들을 미제에게 침략적군사기지로 내맡기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이딸리아의 력대반동정부들은 근로자들에 대한 자본가놈들의 가혹한 착취를 보장하고 근로자들의 초보적인 생활상 요구마저 무자비하게 탄압하여왔다. 놈들의 반인민적통치와 독점자본의 끊임없는 억압과 착취로 하여 사회경제위기는 수습할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인민들은 실업과 빈궁속에서 헤매게 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형편은 이딸리아로동계급으로 하여금 강력한 투쟁에 나서게 하였으며 반동적인 정치세력들간의 알륵을 더욱더 심화시켰다.

1969년까지 29번째의 정부위기를 겪은 반동지배층은 그후에도 정치위기를 거듭하면서 점차 약화된 반면에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정당들의 공동진출과 공동행동은 더욱 강화되였다.

1976년 6월 임기도 채 되기전에 진행된 총선거에서 공산당은 국회하원에서만도 1972년 선거 때보다 더많은 227석을 차지하였다.

한편 기독교민주당을 비롯한 이 나라의 반동세력들은 공산당의 승리를 가로막기 위하여 미중앙정보국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가면서 테로와 악랄한 반공선전깜빠니야를 벌렸으나 놈들의 이 모든 책동은 참패를 당하였다.

총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지방의회선거에서도 반동세력은 궁지에 빠졌으며 공산당은 로마시를 비롯한 몇개의 중요도시들과 이 나라의 20개주 가운데서 7개주를 자기의 영향밑에 두게 되였다.

그리고 공산당은 내외반동세력들의 방해모략책동을 물리치고 새 국회에서 처음으로 하원 의장직과 국회안의 26개 위원회 가운데서 7개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형편에서 공산당이 요구하는 일부 사회경제적요구를 약속받고 정권에 겨우 들어앉은 기독교민주당정부는 심화되는 사회경제적위기를 막아내지 못하였다.

1977년 하반년부터 이딸리아의 사회경제적위기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하여 많은 공장들이 계속 파산되였으며 실업자는 180만명을 헤아리게 되였다.

사회적불안과 혼란도 날이 갈수록 커져 1977년 한해동안에만도 200건의 정치적테로와 73건의 랍치사건이 일어났다.

이러한 정세를 반영하여 1977년에 생활처지의 개선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파업투쟁이 힘있게 벌어져 반동당국의 통치지반은 걷잡을수 없이 뒤흔들렸다.

7월 8일 400여만명 근로자들의 전국적인 총파업, 7월 14일 에밀리아—로마니아주의 100만명 근로자들의 총파업, 7월 27일 약 150만명 건설로동자들의 총파업, 9월 9일 밀라노현안의 공업기업소 근로자들의 파업, 9월 28일 100만명이상 로동자들의 전국적인 파업, 10월 7일 약 20만명 근로자들의 파업, 10월 21일 약 40만명 식료공업부문 근로자들의 총파업, 10월 22일과 23일 약 22만명의 철도부문 로동자들의 전국적인 파업, 11월 3일 120여만명의 방직공업부문 로동자들과 공무원들의 파업, 11월 15일 800만명의 공업부문 로동자들의 파업 등은 큰 파업들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로동자들의 강력한 파업투쟁으로 하여 1977년 첫 5달동안에만도 독점자본가놈들은 4천 24만 로동시간을 잃었는데 근로자들의 대중적인 파업으로 하여 하반년에 놈들은 더 큰 타격을 받았다.

1977년 4월 3일 이딸리아와 유고슬라비아는 뜨리에스떼지역의 공동국경에 관한 조약문건을 교환하였다.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석 315석, 하원의석 629석, 임기는 각각 5년, 1976년 6월 총선거결과 하원에서 기독교민주당은 263석, 공산당은 227석, 사회당은 57석, 《이딸리아사회운동》은 35석, 사회민주당은 15석, 공화당은 14석, 자유당은 5석, 프로레타리아민주통일당은 6석, 급진당은 4석, 기타가 3석을 각각 차지, 상원에서는 기독교민주당이 135석, 공산당이 116석, 사회당이 29석, 《이딸리아사회운동》이 15석, 사회민주당이 6석, 공화당이 6석, 자유당이 6석을 각각 차지

대통령 상하량원합동회의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7년, 대통령 죠반니 레오네(기독교민주당출신, 1972년 6월—)

정부 1976년 7월 30일 기독교민주당소수파정부수립(전후 39대), 총리 쥴리오 안드레오띠(1976년 7월 30일—)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1921년 1월 21일 창건, 위원장 루이지 롱고, 총비서 엔리꼬 베를링게르, **기독교민주당(집권당), 사회당, 사회민주당, 공화당, 자유당, 프로레타리아민주통일당, 《이딸리아사회운동》, 급진당, 로조련맹, 근로자로조련맹, 로**

동련맹, 근로자기독교련맹, 공산주의청년련맹, 사회주의청년련맹, 녀성련맹

경제, 사회문화

이딸리아경제의 특징은 자본주의경리와 함께 심한 봉건적경리의 잔재가 남아있는것이다. 북부지역에는 대규모공업과 자본주의적농촌경리가 기본을 이루고있으나 남부지역과 섬들에서는 뒤떨어진 소농경리가 지배적이다.

다른 하나의 특징은 경제가 완전히 독점자본의 손아귀에 장악되여있는것이다. 《피아트》(자동차공업), 《떼르니》(흑색금속), 《스니아—비스꼬자》와 《몬떼까띠니》(화학), 《안쌀도》(군수공업) 등과 같은 대독점체들이 이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한다.

이와 함께 전후 국가독점의 지위가 강화되여 기간공업뿐아니라 금융, 체신, 항공, 방송 분야에까지 손을 뻗치고있다.

또한 제2차세계대전후 미제를 비롯한 외래독점자본의 침투가 강화되였다.

공업은 경제에서 제일 큰 자리를 차지하고있으나 공업의 군사화와 관련하여 중공업과 경공업, 개별적공업부문들사이의 불균형이 심하다.

1976년 10월현재 로동인구의 42.9%(830만명)가 공업부문에서 일하였다.

제노아, 뚜린, 밀라노를 련결하는 북부이딸리아 삼각지대가 이 나라 공업의 심장부를 이루고있으며 여기에 공업기업소와 로동자수의 80%이상이 집중되여있다. 주요공업부문은 기계제작공업, 화학공업, 흑색금속공업, 방직공업 등이다. 기계제작공업은 공업총생산액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화학공업은 기계제작공업의 다음자리를 차지하는 부문으로서 생산과 자본의 집중도가 높다. 흑색금속공업은 수입원료에 의거하고있다. 방직공업은 오랜 공업부문의 하나이나 목화와 털의 대부분을 수입하여 쓰고있다.

원료와 동력자원이 적고 세계경제위기의 영향을 심하게 받고있는 이딸리아는 공업생산에서 침체와 위기를 거듭하였다.

동력을 원유에 거의나 의존하고있는 이딸리아는 1976년 첫11개월동안에만도 68억 1천 300만딸라어치의 원유를 수입하여 썼다. 1977년에 야금, 방직, 화학 공업은 침체상태에 빠져 많은 기업체들이 파산당하였으며 자동차생산은 1974년이래 계속 줄어들었다. 이리하여 1977년 2.4분기에만도 공업생산은 5.6% 줄었다.

공업생산의 침체와 위기로 하여 1977년 7월현재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수는 180만명에 달하였다.

농업에서는 밭농사가 기본인데 알곡작물과 함께 포도, 과일 및 남새 농사가 큰 의의를 가진다. 주요알곡작물은 밀과 강냉이이며 그밖에 귀밀, 보리, 호밀, 벼, 감자, 사탕무우, 목화를 가꾼다.

축산업은 농업총생산액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딸리아에서 농업위기도 계속되고있다. 1970년부터 1975년까지 농장수는 6.5%, 씨붙임면적은 5.3% 줄어들었다. 1977년 상반년동안에만도 1천여개 중소농장들과 개인농민경리가 파산당하여 약 500만헥타르의 부침땅이 황무지로 변하였다.

1977년 7월에 통화팽창률은 18%에 달하였고 1977년까지 6년동안에 소매가격은 134.5%나 올랐다. 1977년 1월부터 1978년 1월까지 물건값은 13.3% 올랐다. 1977년까지 25년동안에 집세는 10배나 뛰여올랐다.

몹서리치는 여러가지 범죄사건이 해마다 늘고있는데 1976년 7월초부터 1977년 6월말까지만해도 범죄건수는 209만건에 달하였다. 400만명의 어린이들이 배움의 길을 잃고있으며 어른들의 거의 200만명이 글을 모르고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3분의 1은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다.

출판보도; 통신 안사, 아기트, 아스뜨라

신문 우니따(공산당기관지), 아반띠(사회당계), 뽀뽈로(기독교민주당기관지), 꼬리에레 델라 쎄라, 메싸제로, 일 쥬르노, 보쎄 레뿌블리까나(공화당기관지), 라 스땀빠(중립계)

방송 이딸리아방송회사가 라지오방송과 텔레비존방송을 독점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8년 1월 18일 이딸리아조선문화협회가, 1971년 10월 8일에는 남조선인민과의 련대성위원회가 각각 결성되였다.

1977년 7월 2일 우리 나라 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이딸리아대외무역연구소 사이에 무역대표부를 호상설치할데 대한 협정을 맺었다.

이해 3월 20일 이딸리아의 마젠따시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명예시민칭호를 드리는 의식이 성대히 진행되였다.

같은날 마젠따시에서 주체철학연구소가 결성되였다.

또한 4월 21일 조선의 평화적통일문제에 관한 이딸리아민주세력들의 회의가 진행되였다.

1977년에 이딸리아국제관계연구소 총서기인 새로운국제경제질서문제연구소 총서기(1월, 5월과 8월), 이딸리아 밀라노검찰소 부소장(9월)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그들은 9월에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참가하였다. 8월에 이딸리아조선문화협회 서기장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우리 나라 경제문화대표단(3월), 칠레인민과 청년들과의 국제적련대성회의에 참가하는 조선사회

주의로동청년동맹대표단(5월)이 이딸리아를 방문하였다.

바 띠 까 노

넓이 0.44km²
인구 1,000명(1975년)

자연 및 주민

바띠까노는 이딸리아의 수도 로마시의 서북쪽 언덕에 자리잡은 세계 기독교의 소굴이다. 이곳의 대부분은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있다.

주민구성은 이딸리아사람이 85%, 에스빠냐사람 12%, 기타가 3%로 이루어졌다.

정 치

바띠까노는 1929년 2월 이딸리아정부와 법왕청사이에 맺은 이른바 《라떼라노》조약에 따라 이딸리아 파쑈독재자 무쏠리니란놈이 법왕청구역에 토대하여 만들어낸 법왕주권의 종교도시이다.

모든 권력은 법왕에게 집중되여있으며 바띠까노는 자체의 군대와 대학, 화폐를 가지고있다.

바띠까노는 세계 이르는곳마다에 수많은 교회들을 두고있으며 30만명을 넘는 목사와 100만명을 넘는 수도승을 가지고있다. 바띠까노의 세력밑에는 자본주의나라들에 널려있는 승려당들 즉 기독교민주당, 기독교사회당 따위의 당들이 있는데 이 당들은 독점자본의 의사를 집행하면서 그 나라 정치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있다. 그밖에 바띠까노는 자본주의나라들에 있는 기독교로조를 비롯한 여러가지 이름의 기독교단체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나라 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고 근로자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있으며 종교의 이름밑에 반동적인 부르죠아사상을 퍼뜨리기에 미쳐날뛰고있다.

또한 바띠까노는 출판물, 방송, 통신 등을 통하여 반동적종교사상을 악랄하게 퍼뜨리고있다. 특히 신문《오쎄르바또레 로마노》는 세계에서 가장 반동적인 신문의 하나로 알려져있다.

바띠까노가 걸어온 길은 침략의 앞잡이로서, 그의 직접적인 가담자로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 및 민족해방운동에 대한 비방중상자로서의 력사로 엮어졌다. 바띠까노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정책을 적극 옹호하면서 1950년에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을 지지함으로써 조선인민앞에 씻을수 없는 죄악의 자취를 남기였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에 《성사》(대사), 《대리성사》(공사)들을 두고있는 바띠까노는 종교의 탈을 쓰고 그 나라 반동세력들을 규합하여 민족적자주권과 독립을 말살하기 위한 파괴, 암해, 정탐 행위에 미쳐날뛰고있다.

바띠까노에는 공업도, 농업도 없으며 또한 로동자나 농민도 없다. 그러나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나라 독점체들과 밀접히 련결되여있으며 이딸리아에서 46만 5천헥타르의 토지를 거머쥐고 이 나라 농민들의 피땀을 짜내고있다.

싼 마 리 노

(싼 마리노공화국)

넓이 60.57km²
인구 2만 339명(1977년 1월초)
수도 싼 마리노(주민 4,500명)

자연 및 주민

싼 마리노는 이딸리아의 중심부에서 동쪽 아뻬닌산줄기의 몬떼 띠따노산우에 자리잡고있는 작은 나라이다.

이 나라는 세면이 다 깍아지른듯한 절벽이고 동쪽만이 비탈을 이룬 언덕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이딸리아사람들이며 이딸리아어를 쓴다.

정 치

싼 마리노는 중세기부터 외래침략자들의 부단한 침입을 받았으며 제2차세계대전시기에 파쑈이딸리아에 강점당하였다. 싼 마리노는 1944년 이딸리아 파쑈정권이 무너진후 그로부터 벗어났다.

제2차세계대전후 1945년에 집권한 공산당과 사회당의 좌익련립정부는 이딸리아반동정부의 지원밑에 이 나라 반동집단이 일으킨 정변에 의하여 1957년에 정권에서 물러났다.

그후 이 나라에서는 정권이 여러번 바뀌였다.

1975년 11월 9일 기독교민주당, 사회당의 련립정부는 경제문제에서의 의견상이로 사회당이 정부에서 물러남으로써 해산되였다. 3개월동안의 정부위기끝에 1976년 2월 21일 기독교민주당, 사회당의 련립정부가 다시 겨우 구성되였다.

1977년 11월 19일 이 나라의 기본수입원천의 하나인 관광업의 침체를 비롯하여 사회경제적위기의 심화로 하여 기독교민주당, 사회당의 련립정부는 다시 물러나게 되였다. 공산당이 12월 20일 정부구성을 위임받았으나 우익정당들의 방해책동에 의

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978년 1월 3일 사회당이 새 정부 구성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

1977년에 외교담당국무부장이 4월에 벌가리아, 6월에 로므니아를 방문하였다.

국회(대평의회) 5년 임기인 60명의 의원들로 구성, 1974년 9월 8일 선거에서 기독교민주당이 26석, 사회당이 8석, 공산당이 15석, 사회민주당이 9석, 민주인민당과 조국방위위원회가 1석을 각각 차지

정부 대평의회가 임명하는 2명의 국가수반인 국무부장(임기 6개월)들과 행정회의(정부)가 행정권을 행사, 외교담당국무부장이 실권자이다.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1921년에 창건, 1976년 12월에 제9차당대회 진행, 위원장 에르메니질도 가스뻬로니, 총비서 움베르또 바롤리, **기독교민주당, 사회당, 사회민주당, 민주인민당, 조국방위위원회, 공산주의청년동맹, 민주로동총련맹, 로동총련맹**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요농작물은 밀, 강냉이, 포도, 올리브 등이다. 주민들은 소, 양을 위주로 하는 집짐승들도 기른다.

모직천, 가구, 도자기, 세멘트, 석재, 가죽가공, 종이, 포도술, 선물용기념품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있으나 그 규모는 작다.

우표발행과 관광업이 주요재정수입원천의 하나이다. 약 27개의 려관, 50개의 식당, 체육 및 유희 시설, 낚시터를 차려놓고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인다. 해마다 200만명이상의 관광객이 찾아든다. 그러므로 적지 않은 주민들은 관광객봉사부문에서 일한다. 최근년간 관광업은 위기를 겪고있다. 또한 년간재정수입의 3분의 1은 우표판매에서 얻어진다.

주요수출품은 포도술, 양털, 가죽 및 도자기 등이다. 대외무역은 이딸리아의 리미니항을 통하여 진행한다. 화폐는 이딸리아리라를 쓴다.

이딸리아경제와 밀접히 련결되여있는 이 나라는 이딸리아경제와 함께 경제위기를 거듭하고있다.

주민들은 천주교를 믿으며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외국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선거때는 돌아오군 한다.

말 따

(말따공화국)

넓이 316km²

인구 30만명(1975년)

수도 왈레따(주민 1만 8,300명)

자연 및 주민

말따는 구라파 남부에 있는 섬나라로서 지중해 한복판에 자리잡고있으며 5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 그중에서 말따섬은 246km², 고쪼섬은 67km², 꼬미노섬은 3km²이다.

사철 따뜻한 날씨(한해평균기온은 18.9°C)가 계속되는 이 나라는 한해동안에 430mm정도의 비가 내린다.

원주민은 셈족이였으나 점차 주민구성이 복잡하여져 지금은 이딸리아혈통의 혼혈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언어는 말따어와 영어를 쓴다.

정 치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로 200여년동안 있은 말따는 1964년 9월 21일 영련방안에서 독립하였다.

레이버당정부는 대내적으로 제국주의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를 가시고 새 말따를 건설하기 위한 일련의 진보적조치를 취하였다.

말따정부는 1971년 11월 26일 말따내정에 횡포하게 간섭하여 온 《나토지중해사령부》를 내쫓았으며 나토성원국들에 부여해주던 《세금면제법》을 폐지하고 놈들에게 그 어떤 《특혜와 특전》도 주지 않는다고 선포하였다. 또한 정부는 미제침략군 제6함대군함들이 왈레따항구에 드나드는것과 배수리시설을 리용하는것을 금지시켰다.

말따 정부와 인민은 1973년 3월 영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말따에 있는 제놈들의 군사기지사용료를 해마다 500만파운드로부터 1천 500만파운드로 물지 않을수 없게 하였으며 1979년까지 영국침략군을 철수시키기로 결정하였다.

1974년에 말따는 영국이 자기 나라에 강요하였던 낡은 헌법을 폐지하고 12월 13일 새 헌법을 채택하였으며 총독제를 없애고 공화제를 선포하였다.

1976년 9월 17일과 18일 이틀동안에 진행된 총선거에서 진보적인 레이버당이 승리하였으며 도미니크 민또프를 총리로 하는 새 정부가 다시 수립되였다.

말따정부는 대외적으로 중립과 쁠럭불가담정책을 실시하면서 각이한 사회제도를 가진 모든 나라들과의 관계를 좋게 가지고있으며 특히 지중해연안 나라들과의 관계발전에 힘쓰고있다.

그러면서 말따정부는 지중해를 평화지대로 만들며 말따를 《구라파와 북아프리카사이의 다리의 역할》을 놀게 하며 자기 나라를 지중해연안나라들사이에 협조를 적극 증진시키는 《평화의 성새》로 전

변시킬것을 주장하고있다.

말따는 1973년 9월에 쁠럭불가담운동 성원국으로 되였으며 제4차, 제5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 참가하였다. 또한 말따는 1976년 2월 5일 《77개국집단》에 가입하였다.

1977년 4월에 꾸바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같은해에 말따 총리가 리비아(2월), 이딸리아(7월), 에스빠냐(8월), 중국과 말레이시아(11월), 알제리(12월)를 방문하였다. 중국방문기간에 중국과 말따사이의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의정서가 조인되였다.

국회 일원제이고 의원수는 65명이며 임기는 5년, 1976년 9월 선거결과 레이버당이 34석, 국민당이 31석을 각각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국회에서 선거, 대통령 안톤 부티지에그(1976년 12월—)

정부 1976년 9월 선거후 레이버당정부 구성, 총리 도미니크 민토프(1971년 6월 16일—, 1976년 9월 재선)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70년에 창건, **레이버당**(집권당) 1920년에 창건, 총비서 도미니크 민토프, **국민당**, **기독교로동당**, **진보립헌당**, **민주민족당**, **반제전선**, **로조련맹**, **사회주의청년동맹**(레이버당소속)

경제, 사회문화

영제국주의자들의 오랜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뒤떨어진 경제를 물려받은 말따는 영국경제에 아직도 많이 의존하고있다.

농업부문에서는 로력인구의 7%정도가 일하는데 온 섬이 석회질땅이므로 흙이 매우 귀하며 돌을 추어내여 만든 다락밭이 많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올리브, 감자, 완두, 당콩, 포도, 도마도 및 남새류이다. 약 1만 5천 400정보에는 알곡류를, 약 1만 4천 300정보에는 남새류를, 약 1천 500정보에는 과일류를, 약 18정보에는 화초류를 심는다. 1974년에 밀은 약 15만 9천톤, 보리는 9만 8천톤 생산하였다.

주요집짐승은 소, 말, 노새, 당나귀, 양, 돼지, 닭 등이다. 1973년에 소는 9천 400여마리, 양은 7천여마리, 말은 1천 200여마리를 기르고있었다.

섬나라이지만 수산업은 그다지 발전하지 못하였다.

공업부문에서는 로력인구의 60%이상이 일하며 국민총생산액에서 공업이 차지하는 몫은 약 45%이다. 지하자원은 석재(썩은돌)밖에 없다. 자원이 풍부하고 여러가지 색갈과 무늬를 가진 이 나라 석재는 건축용으로 광범히 리용되며 외국에도 수출된다.

경제에서 배수리공업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그밖에 방직, 석재, 신발, 합성수지, 기계제작, 고무, 자동차조립, 식료(과일 및 남새 가공, 기름), 포도술 공장들과 수공업적인 기호품가공공장들이 있다. 소금도 생산한다.

외화수입에서 관광업이 큰 몫을 차지한다. 관광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려관, 도로, 휴식장들이 건설되고있다. 1975년에 관광객수는 41만 2천여명이였다.

영국군사기지를 위한 봉사업에 1천여명의 주민들이 일한다.

이 나라는 7개년계획기간(1973—1979년)에 외국자본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자주적경제토대를 쌓을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철길은 없으며 국내운수는 자동차로, 다른 나라와의 거래는 해상 및 항공 운수로 진행된다.

말따는 천, 신발, 포도술 등을 수출하고 여러가지 공업제품, 연료, 원료, 반제품, 식량 등을 사들인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영국, 이딸리아 등이였으나 점차 발전도상에 있는 나라들과의 무역이 활발해지고있다. 화폐단위는 말따파운드이다.

말따에서는 독립후 민족교육이 발전하고있다. 1973—1974학년도에 107개의 초등학교에서 2천 500여명이, 39개의 중등학교에서 2천여명이, 13개의 기술학교에서 3천 300여명이 공부하였다. 그리고 이 나라에는 종합대학, 공업대학, 교원대학이 각각 1개씩 있다.

교육기관들에서는 말따어를 가르치고있으며 민족어로 신문, 잡지도 발행되며 방송도 한다.

민족의상도 고유한 말따식으로 고치기 위한 사회적운동이 벌어지고있으며 이전식민주의자들의 이름으로 따서 부르던 공장들과 려관, 식당, 거리 등이 말따식으로 고쳐지고있다.

천주교는 이 나라의 국교로 되고있으며 종교의 영향력이 크다.

출판보도; **신문** 말따 뉴스, 일헬시엔(레이버당기관지), 보이스 오브 말따(레이버당주간지), 일 뻬뻴루(국민당기관지), 오리존트(로조련맹기관지), 메디티리안 뉴스

방송 말따라지오방송, 말따텔레비죤방송(두 방송은 말따어와 영어로 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12월 20일 우리 나라와 말따사이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6년 4월 15일 말따의 마르샤에서 조선통일지지말따위원회(위원장은 말따레이버당 위원장)가 결성되였다.

1977년 7월 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말따인민에게 보내시는 선물을 전달하는 모임이 수도에서 성대히 진행되였다.

4월 25일 말따 총리는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를 만났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 나라 총리에게 보내시는 인

사를 대사가 만난 자리에서 정중히 전달하였다. 4월 26일에는 말따대통령이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를 만났다.

1977년 1월 25일에 진행된 우리 나라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가 내놓은 새로운 구국방안을 지지하여 말따레이버당 위원장은 련대성전문을, 조선통일지지말따위원회 서기장은 련대성편지를 각각 보내여왔다.

도미니크 민토프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말따공화국 정부대표단이 1975년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7년 9월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말따레이버당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말따레이버당대표단, 《말따뉴스》 주필이 참가하였다.

영 국

(대브리텐및북아일랜드련합왕국)

넓이 24만 4,030km²
인구 5,597만명(1974년)
수도 런던(주민 761만 2,280명, 1970년)

자연 및 주민

영국은 구라파주의 서북쪽에 있는 섬나라로서 브리텐섬과 그 주변의 섬들 그리고 아일랜드섬의 동북부지역으로 이루어졌다. 브리텐섬은 남부의 잉글랜드, 서남부의 웨일즈, 북부의 스코틀랜드로 구분된다.

전형적인 해양성기후에 속하는 영국은 메히꼬난류의 영향을 받아 일반적으로 따뜻하며 습기가 많다. 안개가 심히 끼고 맑은 날이 매우 적으며 비가 많이 내린다. 런던의 한해평균기온은 9.9°C, 최고 17°C이며 제일 낮을 때는 4°C이다.

1976년에 《250년래의 최악의 가물》이 들었으며 6월 25일 런던기상대가 생긴이래 가장 심한 더위를 기록한 후에도 30°C의 더위가 계속되였다.

그런데 1977년 2월에 영국의 중남부지방이 큰물피해를 입었으며 8월 17일 런던에서는 12시간동안에 한해동안의 비내림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무더기비가 내렸다. 이날 런던 서북부의 러크맨스워에서는 기록적인 84.3mm의 비가 내렸다.

주민의 대부분은 앵글로색손족이며 그들은 주로 잉글랜드에서 산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는 켈트족이 많이 산다.

국어는 영어이다.

정 치

2차세계대전후 영제국주의자들은 미제와 함께 나토를 비롯한 침략적인 군사동맹들과 배타적인 경제기구들을 꾸며냈으며 우리 나라와 동남아세아 및 중근동 등 주요국제문제들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추종변호하였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옛식민지종주국의 지위를 보존해보려고 오만하게 날뛰였으나 많은 식민지나라들이 독립을 쟁취함으로써 《대영제국》은 볼품없는 력사의 퇴물로 되였다.

력대적으로 영국의 정치무대에서는 레이버당과 보수당이 번갈아 정권을 가로타고앉아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고 독점자본가놈들에게 더많은 리윤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1970년 6월에 집권한 보수당정부는 엄중한 정치, 경제적 위기로 하여 임기도 채되기전인 1974년 2월 정권에서 쫓겨나고 윌슨이 이끄는 레이버당이 정권을 넘겨받았다.

레이버당정부 역시 《1930년대이래 겪고있는 최악의 경제위기》에서 모대기다가 1976년 3월 16일에는 총리 윌슨이 사임하는 사태를 빚어냈다.

1976년 4월 8일 새로 총리로 된 캘라한정부도 이미 기울어진 정치, 경제적 위기를 구원할수 없었으며 정부에 계속 버티고앉아있으려는 레이버당과 다시 정권을 빼앗아내려는 보수당사이의 서로 물고뜯는 정권쟁탈전이 더욱 드러났다.

1977년에 캘라한반동정부는 경제정책의 파탄으로 통치능력을 잃고 소수파정부로 굴러떨어져 겨우 목숨을 이어갔으며 이 기회를 리용하여 반동야당인 보수당이 정권을 가로채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1976년 하반년이래 경제정책에서의 련속되는 파탄으로 1977년 1월 캘라한정부에 대한 사회계의 지지률은 25%에 불과하였으며 정부가 하원에 제출한 《지방권한이양법》(스코틀랜드, 웨일즈의 권한이양)이 2월 22일 국회심의에서 부결됨으로써 레이버당정부의 국회운영은 위험한 형편에 이르렀다. 2월에 진행된 하원의원보결선거결과 여야당의 비률은 314대 315로 되여 레이버당정부는 국회운영에서 더욱 헤여날수 없게 되였다.

3월 18일 정부의 《공공지출삭감계획》을 둘러싸고 개싸움을 벌려오던 끝에 보수당은 레이버당정부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국회심의에 제출하였다. 캘라한정부는 자유당을 끌어당겨 이 결의안을 겨우 물리치기는 하였으나 《독자성》을 잃고 앞으로 자유당의 요구를 정책결정에서 고려하지 않으면 정부운영이 곤난하게 되였다.

6월 14일 레이버당정부는 하원에서 진행된 《재정법》개정심의에서 보수당은 물론 집권당인 레이버당의 랭대까지 받고 패배함으로써 캘라한정부는 당안에서와 국회운영에서 모두 통치능력을 잃고 보잘것 없는 자유당에 매여달려 목숨을 이어가는 가련한 형편에 이르렀다.

한편 캘라한반동정부는 1월에 《산업민주주의법

안〉이란것을 만들어내여 날로 높아가는 근로자들의 투쟁을 마비시키고 〈로자협조〉를 설교하려고 책동하였다.

또한 반동당국은 정부의 자문기관으로서 총리를 우두머리로 하여 로자쌍방대표들로 구성되는 〈경제개발심의회〉라는것을 날조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렇게 하여 반동당국은 중소기업체들을 희생시키고 특정된 수출산업 39개 업종에 대해서만 정부의 지원을 집중하여 엄청난 국제수지적자를 메워보려고 책동하였다.

이해에 영국근로자들은 독점자본의 착취와 략탈을 반대하고 생활처지의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렸다.

1977년 첫8달동안에 1천 734건의 파업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하여 독점자본가놈들은 약 520만로동일을 잃었다. 이것은 1976년 같은기간보다 거의 2.5배 더 많은것이다.

이해 영제국주의자들은 군비경쟁에 미쳐날뛰면서 1977—1978회계년도에 군사비로 63억 2천 900만파운드를 쏟아붓기로 하였다. 이것은 그전 회계년도에 비해 6억 9천 700만파운드나 더 늘어난것이다.

영국반동정부는 이른바 〈독자적인 핵무력강화방침〉을 내세우고 신형국산핵무기를 개발하는 동시에 그 시험에 미친듯이 날뛰였다.

1977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은 로데시아문제에 대한 〈공동제안〉이란것을 들고다니면서 막다른 궁지에 빠져 헤매는 스미스인종주의도당을 구원해 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였다. 놈들은 미제국주의자들과 공모하여 꾸며낸 이른바 로데시아문제에 대한 새로운 〈공동제안〉을 가지고 년초부터 끈덕지게 남부아프리카나라들을 싸다니면서 제놈들의 〈공동제안〉을 설교하였으나 가는곳마다 배척당하고말았다.

4월에 외교부장 오웬이란놈은 남부아프리카나라들에 대한 방문에 앞서 〈경제적인 제재가 태도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남아프리카보스터인종주의도당에 대한 경제적제재조치를 반대해나섰다.

또한 놈들은 이해에 벨리제를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1천 200여명의 침략군대를 이 식민지 나라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놈들은 버무다인민들의 반영투쟁을 〈질서유지〉라는 이름밑에 침략무력을 들이밀고 가혹하게 탄압하였다.

의회 상원은 국왕이 임명하는 왕족, 귀족, 승려등으로 구성되며 하원은 임기 5년인 635명의 의원들로 구성, 1974년 10월 10일 총선거 결과 레이버당이 319석, 보수당이 276석, 자유당이 13석, 기타가 27석을 각각 차지, 1977년 2월 하원의원보결선거 결과 여야당의 세력비률은 314대 315로 됨.

국왕 립헌군주국으로서 국왕은 본토와 해외령및 일부영련방성원국들의 국가원수이다. 정치적실권은 없다. 국왕 엘리자베스 2세녀왕(1952년—)

추밀원 국무에 관한 국왕고문관들의 집합체, 고문관들의 수는 제한이 없으며 내각의 추천으로 국왕이 임명, 추밀원은 의회의 소집을 권고한다.

정부 내각성원의 임명권은 국왕에게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하원선거에서 제1당으로 된 정당의 지도자가 총리로 되고 부장들은 제1당의 성원들인 하원의원들중에서 총리의 추천에 따라 임명, 내각은 의회에서 신임을 받지 못하면 사직해야 한다. 1976년 4월 8일 레이버당의 제2차내각이 구성됨. 총리 제임스 캘라한(1976년 4월 5일—), 외교부장 데이비드 오웬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7월에 창건, 1977년 11월에 제35차당대회 진행, 위원장 믹크 맥가히, 총비서 고든 맥클난, **레이버당(집권당), 보수당, 자유당, 독립당, 공화레이버당, 통합당, 스코틀랜드국민당, 로동자통일당, 스피거당, 로동조합콩크레스**(레이버당소속), **공산주의청년동맹, 청년행동리사회**

경제, 사회문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자본주의세계는 력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권, 215페지)

전후 6차례의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있는 영국에서는 공업생산이 계속 떨어지고 경영난으로 기업체들이 무리로 파산당하였으며 실업자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물가는 올라갔다.

영국반동당국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해도 1976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주요공업생산은 5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에 비해 평균 2%나 떨어졌다. 주요공업부문의 하나인 선박건조공업은 1976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생산이 그 전해 같은기간에 비하여 30%나 떨어졌다. 1977년 1.4분기에 건설주문이 1976년 4.4분기에 비해 7% 줄었고 1976년 같은기간에 비해서는 15%나 떨어졌다.

생산이 떨어지고 조업률이 낮아짐에 따라 수많은 기업체들이 무리로 파산당하였으며 1977년 8월 현재 실업자수는 전후 최고수준인 163만 5천 950명에 달하였다.

1977년에 대외무역적자는 66억 7천 500만파운드에 이르렀다.

또한 물건값이 뛰여올랐다.

엄중한 경제위기로 하여 1977년 1.4분기에 물건값은 년률로 19.9% 올라갔다. 1974년 2월부터 1977년 2월까지 식료품값은 81.5%, 같은기간에 물가는 일반적으로 69.5% 올라갔다. 1973년 1월부터 1977년 2월까지 기름과 일부 축산물값은 2배, 밀가루와 빵값은 3배나 뛰여올랐다.

농업위기도 계속되였다.

1976년에 영국에서 그 전해에 비해 알곡이 약

200만론, 감자가 225만론, 사탕무우가 250만론이나 줄었다. 그런데 1977년에 이 나라 농업생산은 1976년에 비해 또다시 10% 떨어졌다. 1976년에 2천개의 농장이 파산된 영국에서는 1977년에도 중소농장경리가 많이 파산당하였다.

영국에서는 한줌도 못되는 독점자본가놈들과 특권계층이 인민들에 대한 착취와 략탈을 강화하여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광범한 근로자들은 기아와 빈궁속에서 신음하고있다.

인구의 1%도 못되는 극소수의 독점자본가들과 특권계층놈들이 나라의 모든 재산의 3분의 1을 틀어쥐고있다. 인구의 1%에 불과한 독점자본가놈들이 상공회사주권의 80%이상을 좌지우지하고있다. 국회하원에는 560만에이커의 땅을 가진 백만장자들이 60명이나 들어박혀있다.

반면에 무려 700여만명을 헤아리는 극빈자들이 죽지 못해 살아가며 약 200만세대가 빈민굴에서 살고있다. 1976년 12월부터 1977년 2월까지의 기간에 살림집건설이 1975년 12월부터 1976년 2월까지의 기간에 비해 45%나 줄어 살림집난은 큰 사회적문제로 제기되였다.

반동당국이 1972—1973회계년도에 인민들로부터 짜낸 세금총액이 64억 7천 700만파운드였다면 1977회계년도에 그것은 170억 4천 500만파운드에 달하였다.

이 나라에서 25살아래의 청년실업자수는 총실업자수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출판보도;통신 로이터, 프레스 아소시에이숀, 엑스췌인지 텔레그라프

신문 모닝 스타(공산당기관지), 데일리 미러(레이버당계), 가디언(자유당계), 데일리 엑스프레스, 타임스, 레드 모올, 데일리 메일 앤드 뉴스 크로니클, 썬, 파이낸셜 타임스, 뉴스 오브 더 월드, 엑스프레스, 데일리 텔레그라프(보수당계), 데일리 메일

방송 비비씨방송, 비비씨텔레비죤방송, 아이티에이 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 9월에 영국조선무역회가 런던에서 결성되였다. 같은해 11월 22일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영국조선무역회사이에 무역협정을 맺었다.

1976년에 영국조선위원회가, 같은해 7월 10일에 조선통일지지영국위원회가 각각 결성되였다.

1977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조선통일지지영국위원회 부위원장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예순다섯돐의 력사는 조선인민의 재생의 력사》라는 제목으로 기념론설을 발표하였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조선통일지지영국위원회는 영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앞에서 시위를 조직하고 조선인민의 정당한 조국통일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아 일 랜 드

(아일랜드공화국)

넓이 7만 283km²
인구 312만 7,000명(1975년)
수도 더블린(주민 66만 3,000명)

자연 및 주민

아일랜드는 북해에 있는 아일랜드섬의 중부와 남부 및 서북부를 차지하고있다.

흐린날이 많고 짙은 안개가 자주 낀다. 한해평균기온은 1월에 6~7°C, 7월에 13~16°C이다. 한해강수량은 중부와 동부 지역에서 750~1,000 mm, 서부와 북부 지역에서 1,500~2,000mm이다. 얼음강의 흐름으로 생긴 호수가 많다.

주민의 대부분이 켈트족혈통의 아일랜드족이다.

언어는 켈트어계통의 아일랜드어(제1국어)와 영어(제2국어)를 쓴다.

정 치

12세기부터 영국식민주의자들의 예속밑에 있던 아일랜드는 1921년 12월 6일 《아일랜드자유국》으로 되였다. 이때 32개주가운데서 신교도가 많이 사는 북동지방의 6개주는 여전히 영제국주의자들이 차지하였다.

이리하여 원래 한나라였던 이 나라는 더블린을 수도로 하는 아일랜드와 벨파스트를 행정중심지로 하는 북아일랜드 (영국의 《령지》)로 갈라졌다.

1937년에 아일랜드는 영련방안에서 독립하였으며 1949년 4월 18일 영련방에서 떨어져나와 공화국을 선포하였다.

1977년 6월 16일 아일랜드에서 총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통일당과 레이버당의 여당련합을 누르고 1972년 2월 이래 5년만에 다시 정권을 잡았다.

새 총리 잭 린치는 7월 5일 공화당정부를 수립하였다. 7월 6일 린치는 기자회견에서 아일랜드가 북아일랜드와의 통일을 이룩할 결심을 말하였다. 북아일랜드의 로마카톨릭교다수파주민들은 아일랜드와의 통합을 주장하고있다. 신교도소수파는 영국의 통치를 계속 받는것을 주장하고있다. 이로 인하여 1969년부터 두 교파사이에 싸움이 계속되여오고있다. 1977년현재 1천 760여명이 싸움에서 죽었

다. 영제국주의자들은 북아일랜드에 약 1만 4천명의 침략군대를 두고 이 지역 인민들을 무력으로 탄압하고있다.

아일랜드는 대외적으로 《중립》을 내세우고있지만 서방제국주의편에 서있다.

국회 상하량원제, 하원의원은 148명, 상원의원은 60명, 임기는 5년, 1977년 6월 16일 총선거결과 하원에서 공화당이 84석, 통일당이 43석, 레이버당이 17석, 무소속이 4석을 각각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7년, 대통령 패트릭 힐러리(1976년 11월—)

정부 1977년 7월 5일 공화당정부 구성, 총리 잭 린치(1977년 7월—)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1933년에 창건, 1975년 3월 15일 북아일랜드공산당과 아일랜드로동당이 합당, 총비서 오리 오르단, **공화당**(피안나 파일당), **통일당**(피네 가엘당), **레이버당**, **새아일랜드통일공화당**, **신페인당**, **공화운동**, **로동련맹**

경제, 사회문화

아일랜드는 자본주의적농업—공업국가이다. 경제가 미영제국주의자들에게 심히 예속되여있다. 이 나라의 크고작은 약 500개의 기업소들가운데서 350여개를 외래독점자본이 틀어쥐고있다.

축산제품(빠터, 소젖가공, 고기가공), 가죽제품, 담배가공품, 맥주, 방직 등 경공업제품생산이 경제의 기본을 이룬다.

야금, 기계(자동차, 뜨락또르, 농기구, 배무이), 화학비료, 석유화학, 전력 등 중공업도 있으나 그 규모와 토대는 미약하다.

경제위기를 거듭하고있는 이 나라는 1976년에 강철생산이 1974년에 비하여 51.9% 떨어졌다.

농업부문에서는 로력자의 30%가 일한다. 농촌경리에서 축산업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농작물은 집짐승먹이작물과 사탕무우, 아마 생산에 많이 치우쳐있다. 전령토의 약 60%가 풀밭과 부침땅이다. 알곡은 자체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주요수출품은 집짐승과 축산물가공제품이며 주요수입품은 석탄, 자동차, 비료, 전기기구, 대중소비품, 알곡 등이다. 주요무역대상나라들은 《구라파공동시장》성원국들이다. 화폐는 파운드를 쓴다.

1977년 8월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11만명이상에 달하였다. 1976년 5월부터 1977년 5월까지의 사이에 물건값은 14% 올랐다.

출판보도;**신문** 아일리쉬 프레스, 글레아스(공화당기관지), 유나이티드, 아일리쉬맨(신페인당), 이브닝 헤랄드, 아일리쉬 타임스, 이브닝 프레스

방송 아일랜드방송, 아일랜드텔레비죤방송

화 란

(화란왕국)

넓이 3만 3,162km²

인구 1,365만 3,000명(1975년)

수도 암스테르담(주민 104만명, 1970년)

왕궁과 정부는 헤그(주민 71만 9,000명, 1970년)에 있다.

자연 및 주민

화란은 구라파의 서북부에 자리잡고 서부독일, 벨지끄와 잇닿아있으며 북해에 면해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해발 100m 아래의 낮은 지대이며 4분의 1은 바다의 물면보다도 낮다. 이러한 땅생김으로 하여 화란을 《네데르란트》(낮은 땅이라는 뜻)라고도 한다. 바다물면보다 낮은 지역은 해안선을 따라 너비 40～50m의 방파제로 둘러싸여있다.

날씨는 따뜻한 편이며 암스테르담의 평균기온은 1월에 3°C, 7월에 17°C를 오르내리는 정도이다. 한해평균 강수량은 650～700mm이다.

주민은 출신과 언어로 보아 화란사람, 프라망사람, 프리즈사람들로 나눌수 있으나 그 대부분은 게르만족혈통의 화란사람들이다.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조밀한 나라의 하나이다.

공용어는 화란어이다.

정 치

제2차세계대전후 화란반동지배층은 미제의 침략기구인 나토에 들어갔으며 《구라파공동시장》을 비롯하여 배타적인 경제기구들에 가담하였다.

특히 화란반동지배층은 1950년에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저들의 고용병을 대주었다.

또한 화란반동정부는 나토의 《륙군사령부》를 1966년에 자기 나라 령토에 끌어들였으며 1976년 7월에는 이 침략기구의 《공군사령부》마저 서부독일로부터 이미 《륙군사령부》가 자리잡고있는 화란의 브룬숨으로 이동한다는것이 발표되였다.

1977년에 화란에서 독점자본을 반대하는 근로자들의 파업투쟁이 힘있게 벌어졌다. 2월 7일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들고일어난 로동자들의 파업은 17일에 《2차세계대전이래 가장 큰 파업》으로 확대되였다. 파업으로 말미암아 약 200개의 기업소와 기타 건설대상이 마비상태에 빠져 독점자본가놈들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사회경제적위기문제를 둘러싸고 지배층내부에서 의견대립이 격화되여 더는 수습할수 없게 된 반동정부는 3월 22일 총사직하지 않을수 없었다.

5월 25일 화란에서는 총선거가 진행되였으나 그 어느 정당도 과반수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여 정부위기가 계속되였다. 화란력사상 가장 긴 정부위기가 겨우 수습되여 12월 19일 새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1977년에 화란은 캄보쟈(1월)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국회 량원제, 상원의원은 75명이며 임기는 6년, 그중 절반은 3년만에 개선, 하원의원은 150명이며 임기는 4년

국왕 율리아나녀왕(1948년—)

정부 1977년 12월 19일 새 련립정부 구성, 총리 안드레아스 판 아흐트(1977년 12월 19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19년 4월에 창건, 1977년 1월 전국대표자회 진행, 위원장 행그 후크스트라, 사회민주당, 카톨릭인민당, 반혁명당, 기독교력사련합, 자유와 민주주의인민당, 레이버당, 평화와 사회주의를 위한 당, 국가개혁당, 개량주의정치동맹, 농민당, 《민주주의자—66》, 급진정치당, 로조련맹, 카톨릭로조련맹, 기독교로조련맹

경제, 사회문화

화란은 일찍부터 해외에 진출하여 식민지나라들의 자원을 략탈하여 살찐 오랜 자본주의나라이다.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공업이나 축산물가공을 제외하면 공업원료의 대부분이 외국에 의존되여있다. 또한 미, 영, 서독 독점자본에 얽매여있는 화란은 나토의 주요군수공업기지의 하나이다.

공업은 국민총생산액에서 40%를 차지하는데 가공공업 생산의 대부분은 대외시장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주요공업부문은 채취, 야금, 석유화학, 화학섬유, 기계제작, 선박, 식료가공 공업이다.

채취공업은 최근년간 천연가스와 원유가 개발되면서 일정한 몫을 차지하게 되였다. 화학공업은 제2차세계대전후에 추선 부문으로서 화학비료, 합성수지, 화학섬유, 의약품이 주로 생산된다. 선박공업은 수출과 주문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기계제작공업은 배의 엔진과 그의 부속품, 유전설비, 전기기계 생산에 치우쳐있다.

식료가공공업부문에서는 축산제품(치즈, 빠터, 소젖가루, 통졸임), 맥주, 사탕 등이 생산된다.

최근년간 원료, 연료 위기로 하여 심각한 경제적불경기가 거듭되고있다. 1977년 상반년에만 하여도 1천 600여개의 기업체들이 파산당하였다. 그리하여 1977년 8월현재 실업자는 22만명에 달하였다.

농촌경리에서는 축산업이 기본이다. 농업인구의 4분의 1에 불과한 농장주놈들이 부침땅의 70%를 차지하고있다. 부침땅의 3분의 2가 풀밭과 집짐승먹이 재배지이다. 축산업은 농업총생산의 3분의 2를 담당하며 집짐승가운데서 젖소를 많이 기른다.

알곡작물로서는 밀, 호밀, 보리, 귀밀, 감자 등을 심는다. 그밖에 사탕무우를 많이 심으며 원예업이 발전하였다. 밀은 1973년에 66만 3천톤으로부터 1975년에 52만 8천톤으로, 같은기간에 보리는 37만톤으로부터 33만 6천톤으로 줄었다. 알곡과 집짐승먹이 수입량은 해마다 늘고있다.

북해어장을 끼고있어 수산업도 경제에서 일정한 자리를 차지한다.

국민소득에서 해운업이 큰 몫을 차지하며 국내운수에서 철길과 함께 운하가 많이 리용된다.

대외시장에 많이 의존하고있는 화란은 선박, 강재, 석유제품, 기계류, 화학제품, 섬유제품, 축산물가공제품, 꽃 등을 수출하고 알곡과 집짐승먹이, 광물류, 원유, 흑색금속, 전기기계, 자동차 등을 수입한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구라파공동시장》성원국들이다.

화폐단위는 길다 또는 플로린이다.

1977년 2월에 식료품 값은 그 전해2월보다 8.7% 뛰여올랐다.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와 신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엔피

신문 드 바아르 하이트(공산당기관지), 오피니에 (레이버당기관지), 드 텔레그라프, 드 폴크스크란드, 네델란드세 게다히텐(반혁명당주간지), 크리스텔리크 히스토리쉬웨그 블라트(기독교력사련합기관지)

잡지 폴리티크 엔클루르(공산당월간잡지)

방송 피오비방송, 에이브이아르오방송, 화란세계방송, 화란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6년에 화란조선공보위원회가 암스테르담에서 결성되였다.

1977년에 화란예술인동맹 지도위원회는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만행을 규탄하여 성명을 냈다.

이해 9월에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화란조선공보위원회대표단, 화란기자가 참가하였다.

벨 지 끄

(벨지끄왕국)

넓이 3만 513km²

인구 979만 3,000명(1977년 3월)

수도 브류쎌(주민 110만명, 교외인구포함)

자연 및 주민

벨지끄는 구라파의 서북부에 자리잡고 서부쪽

일, 화란, 룩셈부르그, 프랑스와 잇닿아있으며 북해를 마주하고있다. 벨지끄에는 화란처럼 낮은 지대가 많으며 해발 100m아래되는 땅이 전령토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기후는 온대해양성을 띠고있어 여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1월평균기온은 3°C, 7월에는 17∼18°C이며 한해강수량은 700∼800mm이다. 날씨는 항상 흐려있으며 겨울에는 침침한 날이 더욱 많다.

주민의 대부분은 프라망사람과 왈롱사람들로 구성되여있다. 프라망사람은 화란어계통의 프라망어를, 왈롱사람은 프랑스어계통의 왈롱어를 쓴다. 이러한 주민구성은 정치무대에까지 자주 반영되여 지배층내부에서 두 민족사이의 《우위권》과 《자치권》을 둘러싸고 자주 충돌이 벌어진다. 1977년에 이 문제로 하여 국회가 해산되고 총선거가 실시되였다.

이 나라는 주민이 점차 줄고있는데 벨지끄중앙통계국보도는 1985년까지 20만명이 줄어들것이라고 하였다.

정　치

벨지끄는 1830년에 화란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후 립헌군주국으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 벨지끄는 파쑈독일에 강점당하였다가 1944년 9월에 벗어났다.

벨지끄반동정부는 수도 브류쎌에 《나토리사회》본부와 프랑스에서 쫓겨난 《나토군 구라파합동사령부》 본부를 끌어들였다.

1977년에 벨지끄반동지배층은 심각한 정치적위기를 겪었다.

경제전반이 침체상태에 빠지게 되자 2월에 반동당국은 물가를 올리고 세금을 늘이며 얼마 안되는 사회적지출마저 줄이려는 이른바 《경제계획》을 내놓았다. 대자본을 옹호하고 근로자들에게 무거운 부담을 들씌우려는 반동정부의 책동은 인민들과 광범한 사회계의 항의에 부딪쳤다. 게다가 련립집권당의 하나인 왈롱인련맹이 때를 같이 하여 프랑스어와 화란어를 쓰는 지역의 《자치권》에 기초한 《련방화안》을 들고나옴으로써 반동지배층내부에서는 일대혼란이 빚어졌다. 왈롱인련맹출신 각료들이 련립정권 참가를 거부하게 되자 3월 9일 총리 틴데만스는 국회를 해산하고 4월에 총선거를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4월 17일 벨지끄에서 제2차세계대전후 11번째의 총선거가 실시되였다. 뒤이어 6월 3일 기독교사회당을 중심으로 사회당, 인민동맹, 프랑코폰민주전선의 4당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벨지끄는 5월 미국으로부터 《에프—16》전투기를 끌어들일데 관한 협정에 조인하였다.

국회 상하량원제, 하원의원은 212명, 상원의원은 178명이며 임기는 각각 4년, 1977년 4월 17일 하원선거결과 공산당이 4석, 기독교사회당이 79석, 사회당이 60석, 자유진보당이 33석, 왈롱인련맹이 6석, 인민동맹이 20석, 프랑코폰민주전선이 10석을 각각 차지

국왕 국가수반으로서 국회와 함께 립법권을 행사, 국왕 보도앙 1세(1951년—)

정부 1977년 6월 3일 기독교사회당을 중심으로 사회당, 인민동맹, 프랑코폰민주전선의 4당 련립정부 구성, 총리 레오 틴데만스(1974년 4월 25일—, 1977년 6월 3일 재선)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9월 4일 창건, 1976년 4월 제22차당대회 진행, 위원장 루이 반 게이트, **기독교사회당**(련립집권당), **사회당**(련립집권당), **인민동맹**(련립집권당), **프랑코폰민주전선**(련립집권당), **자유진보당**, **왈롱인련맹**(프랑스어사용지역 정당), **로동총련맹**, **기독교로조련맹**, **공산주의청년동맹**

경제, 사회문화

벨지끄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의 하나이다. 그러나 국내자연부원이 부족하여 경제전반에 걸쳐 대외시장에 크게 의존하고있다.

주요경제부문은 7개의 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다. 그중에서도 《소시에떼 제네랄》은 동제련의 90%, 아연생산의 80%, 석탄 및 야금 공업의 40%, 은행자본의 절반이상을 독차지하고있다. 주요공업부문에서 미제를 비롯한 외래독점체들이 1천여개의 회사를 통제하고있다.

주요공업부문은 야금, 유색금속가공, 화학, 방직 공업 등이며 그밖에 석탄채굴, 기계, 유리 및 식료 공업이 있다. 가장 큰 기간공업은 야금공업이다.

유색금속가공공업은 수입광석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공업으로서 주로 동, 연, 아연, 주석을 가공하여 수출한다. 화학공업은 석탄과 원유를 주원료로 하고있다.

1977년에 벨지끄는 1973년 석유위기후 가장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었다.

1977년 첫4달동안에만 하여도 그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강철은 6%, 석탄은 3.2% 각각 생산이 줄었다. 1977년 첫8달동안에 파산된 기업체수는 1천 500여개에 달하였다. 경제위기로 하여 1977년 10월현재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수는 45만명이상에 이르렀다.

농업부문에서는 주민의 20%정도가 일하지만 그 생산액은 국민소득의 6%에 지나지 않는다. 농업생산은 자본주의적소농경리에 기초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사탕무우, 감자 등이며 아마도 심는다. 농업생산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몫은 60%이상에 달하며 부침땅 170만헥타르중에서 그 절반은 집짐승먹이작물을 심는다.

1976년에 이 나라에서는 100년래의 왕가물과 무더위로 알곡, 과일, 남새 생산 그리고 축산업이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 1976년에 개인농경리 파산건수는 7천건에 달하였다. 부침땅은 1977년에 8천헥타르나 줄어들었다. 이리하여 1977년까지 15년동안에 농민과 농업로동자수는 거의 절반이나 줄어들었으며 이 나라의 알곡수입은 더욱 늘었다.

교통운수에서 철도 및 해상 운수가 기본이며 구라파에서 철길망이 조밀한 나라이다.

벨지끄는 흑색금속제품, 원유제품, 유색금속 및 그 제품, 화학제품, 섬유제품, 유리제품, 기계제품을 수출하고 알곡, 과일, 양털, 석탄, 광석, 원유, 화학제품, 자동차, 각종 기계설비 등을 수입한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구라파공동시장》성원국들이다. 이 나라들과의 무역비중은 수출에서 약 70%, 수입에서 60%를 차지한다.

화폐단위는 벨지끄프랑이다.

1977년 첫8달동안에 대외무역적자는 그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410억벨지끄프랑이나 늘어난 770억벨지끄프랑이였다.

경제위기로 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처지는 더욱 어려워지고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 100명가운데서 녀성들의 비중은 66명에 해당한다. 물건값은 1976년 5월부터 1977년 5월까지의 기간에 7.2%나 올랐다.

초보적인 위생조건도 갖추지 못한 살림집은 44만 5천채, 당장 수리하지 않으면 안될 살림집이 87만 1천채나 있다. 그것마저 근로자들은 집세가 비싸 고통을 겪고있다.

주민의 90%가 천주교를 믿으며 그밖에 주민은 신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벨지끄통신

신문 드라포 루쥬(공산당기관지), 가제트 반 앙트베르빵, 볼크스 가제트, 뻬메스 도쥬르듀이, 피플

방송 벨지끄라지오및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9월 벨지끄조선친선협회가, 1976년 6월 11일 조선통일지지벨지끄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7년 1월 우리 나라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구국방안을 지지하여 2월 10일 벨지끄조선친선협회 서기장으로부터 련대성편지를 보내왔다.

1977년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브류쎌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세계대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대회에는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참가하였다.

이해 5월에 조선통일지지벨지끄위원회 서기장부부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룩셈부르그

(룩셈부르그대공국)

넓이 2,586km²
인구 35만 7,000명(1975년)
수도 룩셈부르그(주민 7만 8,300명, 1973년)

자연 및 주민

룩셈부르그는 서구라파의 서북부에 자리잡고 벨지끄, 서부독일, 프랑스와 잇닿아있는 내륙나라이다.

이 나라는 내륙성이 강한 해양성기후여서 대체로 흐린 날씨가 계속되며 낮에도 어둑컴컴하다.

겨울에는 온도가 내려가고 맵짠 바람이 분다. 1월평균기온은 북부에서 0°C이며 남부에서는 2°C, 7월평균기온은 전국적으로 17.3°C이다. 한해평균강수량은 750~800mm이나 북부산지에서는 1,000mm를 넘는다.

주민의 대부분이 룩셈부르그사람들이며 그밖에 프랑스사람, 독일사람들도 많이 산다. 최근년간에는 이딸리아사람들도 적지 않다. 주민의 60%가 도시에 몰켜산다. 1976년에 출생자보다 죽은 사람이 400명이나 더 많았다.

언어는 헌법에 의하여 독일어와 프랑스어가 공용어로 되고있다.

정　　치

룩셈부르그는 1890년에 대공국으로 되였으며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는 독일침략자들에게 강점당하였다.

전후 룩셈부르그반동지배층은 종래의 《영구중립》을 포기하고 미제의 침략도구인 나토와 배타적인 경제기구인 《구라파공동시장》에 들어갔다.

이 나라 반동지배층은 1950년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제놈들의 고용병을 대주었다.

룩셈부르그는 이웃나라들인 화란, 벨지끄와 《관세동맹》과 《경제동맹》을 맺고있다.

1977년 12월에 룩셈부르그는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을 승인하였다.

국회 일원제로서 임기는 5년, 의원수는 59명, 1974년 5월 26일 총선거결과 공산당이 5석, 기독교사회인민당이 18석, 사회로동당이 17석, 민주당이 14석, 사회민주당이 5석을 각각 차지

대공 국가원수로서 립법권과 행정권(총리와 함께)을 가진다. 대공(국왕) 쟌(1964년—)

정부 1974년 6월 1일 사회로동당과 민주당의 련립정부 수립, 총리 겸 외교부장 가스톤 토른(1974

녀 6월 1일—)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1월 2일 창건, 1976년 12월에 제22차당대회 진행, 위원장 레네 우르바니, 명예위원장 도미니크 우르바니, 민주당(이전 자유당, 련립집권당) 당수 가스톤 토른(현 총리), 사회로동당(련립집권당), 기독교사회인민당, 사회민주당, 로동자로조련맹, 기독교로조련맹

경제, 사회문화

룩셈부르그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에 속한다. 풍부한 철광석매장지에 토대하여 채굴공업과 야금공업이 일면적으로 발전하였다. 채굴공업과 야금공업은 공업총생산액에서 80%를 차지하며 생산된 강철과 압연제품의 95%가 수출된다. 이 두 공업부문에서 공업부문로동자의 절반이상이 일한다.

이 나라의 야금공업은 사실상 나토의 군수공업에 복무하고있다. 심각한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1976년에 1974년에 비하여 강철생산은 28.7%나 줄었다. 1977년 첫 3달동안에 강철생산은 그 전해 같은 기간보다 8.4% 떨어졌다.

경제의 기본을 이루는 야금공업은 《아르베드》(프랑스자본과 련결된 독점체)와 《소시에떼 제네랄》(벨지끄독점자본)이 틀어쥐고있다.

그밖에 기계, 세멘트, 화학 등 중공업과 도자기, 방직, 담배가공, 가죽, 맥주, 식료가공 등 경공업이 있다.

전력생산은 주로 화력발전소들에 의거하고있다.

농업부문에서 부침땅의 5분의 4가 농장주놈들에게 집중되여있다. 농업생산이 국민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몫은 6%에 지나지 않으며 여기에서 종사하는 인구는 주민의 10%밖에 안된다.

농업총생산액에서 축산업이 80%이상 차지한다. 약 7만 5천헥타르에 불과한 부침땅에 밀, 귀밀, 감자를 주로 심는다. 원예업과 포도재배업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관광업이 중요외화수입원천의 하나이다.

룩셈부르그는 금속류(강철, 선철, 압연제품), 철광석, 린비료, 통나무, 포도술 등을 수출하고 석탄, 콕스탄, 기계, 설비, 알곡, 일용품 및 식료품을 수입한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구라파공동시장》 성원국들이다. 화폐는 룩셈부르그프랑이다.

1977년 1월부터 1978년 1월까지사이에 물건값이 3.8% 비싸졌다.

주민의 90%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짜이퉁 품 레쩨부르게르 폴레크(공산당기관지), 레쩨부르게르 쥬르날(민주당계), 룩셈부르게르 보르트, 타게 블라트

방송 룩셈부르그방송, 룩셈부르그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6년 6월 9일 룩셈부르그조선통일지지련대성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7년 반미공동투쟁월간에 룩셈부르그조선통일지지련대성위원회가 조선인민의 자주적조국통일을 위한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1977년 9월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룩셈부르그변호사가 참가하였다.

1976년 3월에 조선로동당대표단이 룩셈부르그를 방문하였으며 대표단은 방문기간 공산당 위원장, 사회로동당 총비서를 각각 만났다.

프 랑 스

(프랑스공화국)

넓이 55만 1,208km²
인구 5,298만 8,000명(1976년말)
수도 빠리(주민 260만 7,600명)

자연 및 주민

프랑스는 구라파주의 서쪽에 자리잡고 벨지끄, 룩셈부르그, 서부독일, 스위스, 이딸리아, 에스빠냐와 잇닿아있으며 서북쪽은 대서양에, 남쪽은 지중해에 면해있다.

땅생김은 주로 낮은 산지와 언덕벌로 되여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대서양과 지중해의 영향을 받으므로 따뜻하고 누기가 많으며 일반적으로 해양성기후가 지배적이다.

한해강수량은 지중해기슭에서 500～600mm, 동부국경지대에서는 500～800mm에 지나지 않는다.

1976년에 왕가물과 더위에 시달리던 프랑스가 1977년 4월에 례년같으면 따뜻한 봄철에 이상한 추위가 전국을 휩쓸었으며 중부프랑스 등 령토의 절반이 눈에 묻히고 찬바람이 휘몰아쳤다. 4월 8일 빠리에서는 눈이 내렸다. 또한 4월에 50년래의 된서리가 내렸으며 5월 21일 세찬 폭풍이 프랑스의 서남부지역을 휩쓸었으며 이 지역에 100년래의 가장 큰 비가 쏟아져내렸다. 7월에 또한 서남부일대에 비가 억수로 내려 80년래의 가장 큰물이 났다.

이 나라 주민의 기본은 켈트족계통의 프랑스사람들이며 공용어는 프랑스어이지만 알사스로렌지방에서는 독일어를 쓴다.

정 치

프랑스에서는 1958년에 제5공화국이 수립되였으

며 대통령 드골이 집권하였다. 그는 대외정책의 기본을 프랑스를 중심으로 하는 《구라파사람에 의한 구라파건설》을 제창하면서 서구라파에서 《령도권》을 틀어쥐기 위한 이른바 《독자적》인 《로선》을 추구하였으며 나토문제, 자본주의세계에서의 국제통화문제 등 일련의 국제문제들에서 미제에 엇서나갔다.

이로부터 프랑스는 1967년에 나토의 군사통합사령부에서 자기의 군대를 철수시키였으며 프랑스에 있던 《나토군최고사령부》, 《나토군중구라파사령부》, 서구라파주둔 《미군사령부》와 기타 나토산하기구들을 내쫓았다.

1969년에 드골의 뒤를 이어 집권하였던 퐁피듀도 드골의 대외정책을 그대로 이어갔다.

퐁피듀가 1974년 4월에 죽은후 이해 5월에 있은 대통령선거에서 독립공화주의자전국련맹출신의 발레히 지스까르 데스뗑이 제5공화국의 3대 대통령으로 되였다.

그는 날로 심화되는 정치,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초긴축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구라파의 세번째의 중환자》로 된 프랑스를 구원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세에서 1976년 3월에 진행된 지방현의회선거에서는 좌익련합이 56대 44(228석대 180석)라는 차이로 데스뗑의 우익련합세력을 누르고 40년만에 처음으로 좌익력량이 《프랑스의 정치에서 관건적》지위를 차지하여 반동정권은 밑뿌리채 뒤흔들렸다.

1977년 3월 13일과 20일 이틀동안에 진행된 지방선거(인구 3만명이상의 221개 도시)에서 공산당과 사회당을 비롯한 좌익련합은 13일 제1차투표에서 27개 도시를, 제2차투표에서 다시 29개 도시를 반동여당으로부터 더 빼앗아냄으로써 총 62개의 도시를 새로 쟁취하였다. 이로써 6년전인 1971년에 여야세력비률이 116대 105였던것을 54대 167로 바꾸어놓았다.

3월 23일 대통령 데스뗑은 지방선거에서의 패배에 이어 여당련합이 《분렬을 끝장내는데 최고의 우선권을 부여》할것이라고 떠벌이면서 3월 28일 정부를 해산하고 3월 30일 제2차바르내각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의 책임을 서로 넘겨씌우면서 여당련합안의 드골파와 데스뗑파사이의 분렬은 더욱 커졌다.

9월 25일 참의원(상원) 총의석의 3분의 1에 대한 선거에서도 좌익련합은 크게 진출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며 생활상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자본주의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혁명투쟁도 더욱 강화되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5권, 325페지)

1977년에 독점자본의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며 생활처지의 개선을 요구하는 프랑스근로자들의 투쟁이 강화되였다.

4월 28일 국가기관, 국영경제부문을 비롯한 여러부문의 근로자들이 전국적인 24시간 총파업을 일으켰다. 《최근 25년래의 가장 큰 규모》의 파업투쟁의 하나인 이 파업에는 근 300만명의 각 부문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파업참가자들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단호히 반대배격하고 임금인상과 로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뒤이어 5월 17일 프랑스로동총련맹의 호소에 따라 금속및금속가공공업부문과 조선공업부문 근로자들이 전국적인 투쟁의 날을 진행하였다. 이 부문의 약 250만 근로자들은 파업, 군중집회, 시위들을 벌리고 로동의 권리를 보장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같은날 10만명의 인쇄공들이 전국적인 총파업을 일으켰다.

5월 24일에는 1천만명의 로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실업을 반대하여 24시간 총파업을 일으켰다. 이 파업은 1968년이래 가장 큰 파업으로서 모든 공업부문들과 항만, 운수, 통신, 동력 및 공공시설부문들을 휩쓸었다.

약 400만명의 근로자들이 빠리와 기타 주요도시들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렸다. 빠리에서 시위자들은 《일자리를 보장하라》, 《임금을 높이라》 등의 구호를 웨치면서 6시간동안이나 거리를 누비면서 시위를 벌렸다.

이해에 프랑스는 《핵우선권 보장원칙》을 떠들면서 군비경쟁에 열을 올렸으며 《핵무장화》에 날뛰였다.

11월 9일 국회심의에 제출된 1978년도 군사예산은 총국가예산의 18.8%에 해당하는 664억프랑에 달하였다. 이날 국방부장은 프랑스의 핵타격력이 1982년전으로 4배로 늘어날것이라고 로골적으로 떠벌이였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1월에 네번째의 핵잠수함, 9월에 다섯번째의 핵잠수함을 취역시키였으며 11월 23일까지 1960년이래 65번에 걸쳐 핵시험을 진행하는 등 핵무력창설에 박차를 가하였다.

프랑스는 1977년 6월 27일 지부티가 독립한 후에도 약 5천명의 군대를 이 나라의 독립을 《보호》한다는 구실밑에 주둔시키고있으며 꼬모르의 령토인 마요뜨섬을 저들의 《떼여낼수 없는 부분》이라고 떠벌이면서 비법적으로 강점하고있다.

10월에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은 당치 않는 구실밑에 서북아프리카지역에 침략군대를 집결시키면서 군사적위협으로써 서부사하라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가로막아보려고 시도하였으며 알제리에 압력을 가하여 저들의 야망을 실현하여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였다.

1977년 3월에 윁남정부총리, 6월에 쏘련공산당총비서인 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 9월에 뿔스까통일로동당 제1비서, 10월에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이 이 나라를 방문하였다.

국회 국민의회(하원)와 참의원(상원)의 량원제, 국민의회 의원은 490명이며 임기는 5년, 참의원 의원은 283명이며 임기는 9년, 3년마다 3분의 1을 개선, 1973년 3월에 선거한 국민의회에서 공산당이 73석, 사회당이 89석, 좌익각파가 19석, 중간파가 28석, 드골파가 273석, 우익각파가 5석, 기타가 3석을 각각 차지, 1977년 9월 25일 참의원 의원의 3분의 1이상인 115명을 새로 선거(국내 28개현과 해외 3개현에서), 그중 공산당은 18석(이전 의석수 15석), 사회당은 23석(13)을 각각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7년, 국회권한보다 대통령의 권한이 훨씬 크다. 대통령 발레히 지스까르 데스땡(1974년 5월 27일—)

정부 1977년 3월 30일 제2차바르내각 구성, 총리 레이몽 바르(1976년 8월 27일—)

정당, 사회단체;공산당 1920년 12월 29일 창건, 1976년 2월 제22차당대회진행, 총비서 죠르즈 마르쉐, 명예위원장 발데크 로쉐, 사회당 1977년 6월 제4차당대회 진행, 통일사회당, 급진사회당, 공화국옹호민주주의자동맹, 독립공화주의자전국련맹, 민주주의중앙, 민주주의및진보중앙, 공화중앙, 자유및진보옹호공화국련맹, 로동총련맹, 프랑스민주주의로동련맹, 《포르스우브리엘》, 전국교육련맹, 간부총련맹, 기독교근로자련맹, 공산주의청년운동, 녀성동맹

경제, 사회문화

프랑스경제는 독점자본 특히 국가독점자본의 통제밑에 있다.

공업에서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중공업인데 그중에서 흑색금속공업, 기계제작공업이 큰 의의를 가진다. 화학공업에서는 유기화학이 무기화학보다 앞서고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방직공업과 식료공업이 기본이다.

공업은 1966년이래 침체를 거듭하고있다. 1975년에 강철생산은 24%, 1977년 첫 9달동안에 1976년 같은기간에 비하여 2.7% 각각 떨어졌다. 1976년에 세멘트생산량은 그 전해보다 23만톤이나 줄었으며 1976년까지 10년동안에 방직기업소들은 경영난으로 3천 500개가 파산당하였다. 1963년부터 1976년까지의 기간에 신발공업기업소수가 47%나 줄었으며 1976년에 살림집건설은 1974년에 비해 12%나 떨어졌다. 기타 공업부문도 침체와 답보를 거듭하고있다.

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재정난, 원료난, 판로난에 빠진 수많은 중소기업체들이 대독점체들과의 경쟁에서 눌리여 1977년 상반년에만도 기업파산건수는 1976년 같은기간에 비해 9.8% 늘었다. 같은기간에 빠리와 빠리지구에서의 기업파산건수가 27% 불어났다. 결과 1977년 10월말현재 164만 5천 680여명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였다.

1976년에 대외무역적자는 약 200억프랑(약 24억파운드)에 달하였다.

프랑스는 서구라파에서 주요농산물생산국의 하나이지만 토지소유의 집중화가 촉진되여 중소농장경리는 계속 파산당하고있다. 좋은 땅을 가진 대농장경리는 어느정도 기계화되였으나 소농경리는 농기계, 비료, 자금 등의 부족으로 농업생산이 부단히 떨어지고있다. 게다가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지 못하여 농촌경리는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1976년에 구라파지역을 휩쓴 《20세기의 대열파》로 하여 100년래의 왕가물을 겪은 프랑스는 첫 8개월동안에만도 8만헥타르의 부침땅과 산림이 못쓰게 되였다. 전령토의 3분의 2지역이 《피해지역》으로 선포되였고 가물로 입은 피해액은 70억~80억프랑에 달하였다. 그리하여 1976년에 그 전해에 비하여 알곡은 30~40%, 감자는 65%나 떨어졌다.

그런데 1977년 4월에는 50년래의 된서리가 내려 농업은 또다시 큰 피해를 입었다. 일부 지역들에서는 포도밭의 80%이상이 피해를 입었으며 복숭아, 양벚, 도마도와 남새가 녹아났다. 5월하순에는 100년래의 가장 큰비로 하여 서남부지역에서는 수백헥타르의 농작물이 못쓰게 되였다. 서남부일대는 7월에도 80년래의 가장 심한 큰물로 또다시 농작물과 집짐승들이 피해를 당하였다.

심한 농업위기로 하여 1977년에 농민들의 구매력은 4~5% 떨어졌으며 1977년까지 15년동안에 200만명이상의 농민들이 농촌을 떠났다. 1977년에 들어와서 농산물값은 전반적으로 14% 비싸졌다.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인 프랑스에서는 한줌도 안되는 자본가놈들과 특권계층이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있는 반면에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사람들이 극히 비참한 처지에 있다. 1천 6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불비한 살림집에서 살고있다. 1976년 한해동안에 빠리에서는 6천 500세대의 가난한 사람들이 집세를 물지 못해 거리로 쫓겨나야 했으며 1만 8천세대가 재산을 차압당하였다.

1977년에 일자리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49%가 25살아래의 청년들이였으며 실업자의 44.4%가 녀성들이였다. 녀성로동자들은 남성로동자와 같이 일하고도 33%이상이나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

물건값이 계속 뛰여올라 1977년 2월에 그 전해 같은달에 비하여 그것은 11.9%나 올랐다.

출판보도;**통신** 에이에프피

신문 유마니떼(공산당기관지), 프랑스누벨(공산당주간지), 쥬르날 오피씨엘 드 라 레퓨블리끄 프랑쌔즈(정부기관지), 아방가르드(공청기관지), 뽀쀨레르(사회당기관지), 오로르, 프랑스 수아르, 피가로, 몽드, 꽁바

잡지 라 누벨 끄리띠크(공산당리론잡지)

방송 구라과 제1방송과 그밖에 2, 3, 4 방송이 있으며 3개의 텔레비죤방송이 있다.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7년 4월 12일 우리 나라와 프랑스사이에 무역협정이 맺어졌으며 1968년 4월 5일 우리 나라 무역대표부가 빠리에 개설되였다.

1969년 12월 8일 프랑스조선친선협회가, 1976년 6월 28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프랑스지지및행동위원회가, 1976년 7월 15일 《김지하석방위원회》가 각각 결성되였다.

1977년 1월 우리 나라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내놓은 새로운 구국방안을 지지하여 4월 20일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프랑스지지및행동위원회가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이에 앞서 2월 15일 《김지하석방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5월 18일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던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프랑스지지및행동위원회대표단이 빠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6월 3일에는 제1텔레비죤방송기자와 회견을 진행하였다.

프랑스신문 《몽드》 6월 19일호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프랑스지지및행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이 위원회 성원들인 56명의 각계각층 민주인사들과 정치조직들, 로조 및 민주단체들이 서명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할데 대한 호소문을 실었다.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정당한 투쟁을 지지하여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프랑스지지및행동위원회와 프랑스민주법률가협회가 성명을 냈다.

프랑스신문 《유마니떼》 대외정책국장이 《유마니떼》지 6월 28일호에 《밝은 아침의 나라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발표하였다.

5월 31일에 프랑스에서 우리 나라 미술및공예품전람회가 열렸다.

1977년 9월 우리 나라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프랑스《김일성주석의 로작연구소조》 책임자인 《알프레드 에이벨》출판사 사장이 참가하였다.

또한 이해 4월에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프랑스지지및행동위원회대표단, 5월에 프랑스공산당기관지 《유마니떼》 대외정책국장부부, 6월에 프랑스신문 《몽드》 주필부부가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7년에 프랑스사회당 제4차대회에 참가할 조선로동당대표단(6월)과 그리고 평양교예단(1977년 11월~1978년 1월)이 프랑스를 방문하였다.

모나꼬

(모나꼬왕국)

넓이 1.4km²
인구 2만 5,000명(1975년)
수도 몽떼 까를로(주민 9,900명)

자연 및 주민

모나꼬는 프랑스의 동남부(이딸리아국경부근), 지중해연안에 자리잡고있다.

3개지구로 나뉘여져있는 모나꼬는 전령토가 건물로 들어차있는것이 특징이다.

이 나라는 경치가 좋으며 사철 날씨가 맑고 따뜻하여 관광객들이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많이 찾아든다. 이곳에는 열대식물들이 많이 자라고있다.

주민은 모나꼬사람, 프랑스사람 및 이딸리아사람들로 이루어졌다. 그중 모나꼬사람은 약 3,000명밖에 안된다.

언어는 프랑스어와 모나꼬어(프랑스어와 이딸리아어가 뒤섞인 언어)를 쓴다.

정 치

모나꼬는 1861년에 프랑스의 《보호국》으로 된 이후 1918년 프랑스와의 조약에 의하여 독립국가로 되였다. 그러나 이 나라는 실제적으로 그의 《보호》밑에 있다.

1961년 12월 17일에 채택된 헌법에 의하여 국왕의 권한이 제한되고 국회권한이 커졌다.

1963년 5월 모나꼬는 프랑스와 《관세 및 재산에 관한 협정》을 맺고 관계를 밀접히 하고있다.

모나꼬는 20여개의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있다.

국회 18명의 의원들로 구성, 임기는 4년, 국왕과 함께 립법권을 행사

국왕 국가수반으로서 립법권과 행정권을 행사, 국왕 레니에 3세(1949년—)

정부 국왕과 함께 행정권을 가지며 총리와 4명의 부장들로 구성

경제, 사회문화

모나꼬의 주요생산물은 향수, 화장품, 전기기계 및 의약품 등이다. 올리브와 귤을 약간 재배할뿐 식량은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한다.

이 나라는 자본주의세계에서 유람지, 도박장으로 이름난곳이다. 이것들이 모나꼬의 주요외화수입원천으로 되고있다. 모나꼬사람이 도박을 하는것은 엄격히 금지되고있다.

공민권은 모나꼬사람에게만 해당한다. 천주교가 국교로 되고있다.

출판보도;통신 에이티

신문 쥬르날 드 모나꼬(정부공식기관지)

방송 몽떼 까를로방송, 몽떼 까를로텔레비존방송

안 도 라

(안도라공화국)

넓이 465km²

인구 2만 7,000명(1975년), 그중 안도라사람은 7,926명

수도 안도라 라 벨라(주민 6,900명)

자연 및 주민

프랑스와 에스빠냐국경사이의 동부삐레네이산줄기에 있는 산악의 나라이다. 이 나라는 해발 3,000m인 험한 산속의 깊은 골짜기에 자리잡은 4개부락으로 이루어졌다.

날씨는 춥고 1년치고 절반은 깊은 눈에 덮여있다.

기본언어는 까딸루냐어이나 프랑스어와 에스빠냐어도 쓴다. 문화면에서는 에스빠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정 치

안도라는 옛날부터 《안도라중립계곡》이라고 불리였다. 프랑스와 에스빠냐는 안도라의 령유권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려오다가 1278년에 이 나라를 《공동관리》밑에 넣었다. 그리하여 안도라는 《두 주인》을 섬기는 나라로 되였다.

최근년간 안도라는 외국의 예속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진출하려 하고있다.

국회(총평의회) 임기 4년인 24명의 의원들로 구성, 2년마다 절반씩 개선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프랑스와 에스빠냐 정부의 공동합의에 따라 임명

정부 행정권은 총평의회가 임명하는 장관(대통령)과 부장관에게 있다.

경제, 사회문화

주민들은 축산업을 위주로 하면서 담배, 보리, 감자, 포도, 남새 등을 재배한다.

주요집짐승은 양, 소, 말이다. 이 나라에는 2만 5천마리의 양, 3천마리의 소, 1천마리의 말이 있다.

철, 연, 알루미니움, 은, 대리석 등을 캐내는 작은 규모의 광산들이 있다. 가공공업부문에는 식료가공, 담배가공, 도자기, 알루미니움제품, 대리석가공 등의 반수공업적인 공장들이 있다.

나라의 재정은 관광업과 《국제선전방송》에 의한 상품광고선전에 크게 의존한다. 프랑스와 에스빠냐화페가 쓰인다.

겨울에는 스키장에, 여름에는 천막야영소에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든다. 또한 많은 외국인들이 이 나라 수도에 거주하면서 무역 및 상업회의소들을 두고 이웃나라들과 거래하고있다.

철길은 없고 프랑스와 에스빠냐를 통하는 자동차길이 있다.

주민의 90%이상이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신문 뽀블레 안도라

방송 안도라방송(프랑스어와 에스빠냐어)

에 스 빠 냐

넓이 50만 4,750km²(발레아르, 까나리아군도 포함)

인구 3,547만 2,000명(1975년)

수도 마드리드(주민 303만 700명)

자연 및 주민

구라파대륙의 서남단 이베리아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있다.

기후는 대체로 지중해성기후에 속하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한해평균기온은 14°C(남부바다가는 최고 40°C)이며 겨울(마드리드)은 6°C이고 여름은 23°C이다. 한해강수량은 바다가지대에서 1,500~2,000mm이며 내륙지대에서 500mm이다.

주민은 대부분이 에스빠냐사람들이지만 오랜 력사적과정에 여러 인종과의 혼혈을 이루고있다.

국어는 라틴어계통의 에스빠냐어이지만 지방에 따라 사투리가 심하여 까스띨랴지방의 말을 표준으로 삼고있다.

정 치

에스빠냐인민은 1931년 4월 군주제도를 뒤집어엎고 1936년 2월 인민전선정부를 수립하였다. 파쑈독재자 프랑꼬놈은 세계제국주의련합세력의 지지밑에 1936년에 반혁명적무장반란을 일으켜 1939년에 정권을 가로챘다.

에스빠냐인민의 증오와 저주의 대상이였던 프랑꼬놈이 1975년 11월 20일에 죽고 저주로운 《총통제》가 끝장났다. 같은해 11월 22일 후안 까를로스

부르봉이 국왕으로 되면서 이 나라에서 《총통제》는 《립헌군주제》로 바뀌였다.

파쑈독재자 프랑꼬놈이 죽은후 탄압을 끝장내며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데 대한 인민들의 요구가 높아갔다.

정부는 1976년 3월 18일 공산당을 제외한 일부 정당들을 합법화하였으며 4월 6일에 일련의 긍정적내용을 담은 새 《로동법》을 발표하였다.

《점진적인 민주화계획》에 따라 정부는 같은해 12월 15일 《정치개혁법안》 (직접적보통선거에 의한 국회설치)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유권자중에서 94.5%의 지지를 받았다.

부당하게 체포되였던 공산당 총비서와 기타 당지도자들이 12월 30일 석방되였다.

1977년 4월 9일 거의 40년동안 비법화되여온 공산당이 합법화되고 4월 28일에는 로동자위원회 등 로조들의 활동이 승인되였다. 이에 앞서 3월 5일 정부는 로동자들의 파업권을 승인하였으며 까딸루냐사회통일당을 합법화하였다. 5월 10일 공산당 위원장 돌로레스 이바루리의 에스빠냐에로의 귀국이 허가되였다.

6월 15일 에스빠냐에서 40여년만에 처음으로 진행된 국회선거결과 좌익력량은 하원의석 350석중 161석을 차지하였다. 공산당은 19석을 차지하여 3대정당의 하나로 되였다. 수도와 그밖의 큰 도시들에서 좌익정당들은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7월 4일 이전총리 아돌포 쑤아레스 곤살레스를 총리로 하는 새 내각이 구성되였다.

정부는 9월 29일 까딸루냐지방에 자치를 주었으며 11월 22일 뽀르뚜갈과 10년기한의 친선및협조조약을 맺었다. 11월 24일 에스빠냐는 《구라파리사회》에 들어갔다.

에스빠냐는 1977년 1월에 유고슬라비아, 벌가리아, 뽈스까, 로므니아, 2월에 웽그리아, 쏘련, 체스꼬슬로벤스꼬, 4월에 독일민주주의공화국, 5월에 캄보쟈, 7월에 몽골, 10월에 앙골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은 248명, 그중 41석은 국왕이 임명, 하원의원은 350명, 1977년 6월 15일 총선거결과 하원에서 민주중심련합이 168석, 사회로동당이 116석, 공산당이 19석, 국민동맹이 17석, 기타가 30석을 각각 차지, 상원에서 민주중심련합이 106석, 사회로동당이 60석, 공산당이 8석, 기타 정당들이 33석을 각각 차지

국왕 후안 까를로스 부르봉(1975년 11월 22일—), 국왕의 자문기관으로서 17명으로 구성된 왕정리사회가 있다.

정부 1977년 7월 4일 새 내각 구성, 총리 아돌포 쑤아레스 곤살레스(1976년 7월 7일—, 1977년 7월 재선)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4월 5일 창건, 1939년부터 비법화되였다가 1977년 4월 9일 합법화, 총비서 싼띠아고 까릴요, 위원장 돌로레스 이바루리, **사회로동당**, **민주중심련합**(집권당), **사회인민당**, **사회민주당**, **자유당**, **기독교민주당**, **국민동맹**(우익정당), **까딸루냐사회통일당**, **로동자위원회**(공산당소속 로조), **로동총동맹**, **씬디깔로동자동맹**

경제, 사회문화

경제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농업, 광석채굴과 그 가공 등이다. 경제에서 주요 부문은 미국, 서독, 영국 등 외래독점자본이 틀어쥐고있다.

로력인구의 약 절반이 농사를 하고있으나 농촌주민의 1%도 안되는 농장주들이 부침땅의 절반을 차지하고있다.

농업총생산액에서 알곡과 과일 생산이 차지하는 몫은 약 3분의 2에 해당한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호밀, 강냉이, 벼, 감자 등의 알곡작물과 목화, 담배, 사탕무우, 올리브, 해바라기와 같은 공예작물, 포도, 사과, 감귤류의 과일이다. 특히 올리브생산은 세계에서 첫자리를 차지한다.

축산업은 농업총생산액에서 30%정도 차지한다. 주요집짐승은 양을 비롯하여 소, 염소, 돼지, 말 등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농산업과 축산업이 피해를 보았다. 1976년에 알곡생산과 집짐승이 줄어들어 입은 손실액은 7억 4천 500만딸라였다. 1977년 3월에 찬날씨가 계속되여 에스뜨레마두라지방에서 30억뻬세따(약 4천 400만딸라)에 해당하는 알곡을 잃었다. 까쎄레스주와 바다호수주에서 과일, 남새, 알곡이 몽땅 피해를 입었다.

공업에서 기본은 광석채굴 및 그 가공(야금, 세멘트), 농산물가공(포도술, 올리브기름), 방직 공업 등이며 그밖에 기계, 화학, 선박, 자동차, 전기, 식료가공, 담배가공 등의 공업이 있다.

미제는 전기, 군수 공업을, 영국은 광업, 선박, 야금 공업을, 서독은 광업, 방직공업과 기관차생산을 틀어쥐고있다.

석유와 다른 연료는 수입액에서 절반이상 차지한다. 이 수입액은 1976년에 175억딸라였는데 같은해 수출액은 88억딸라였다. 1977년 5월에 인플레률은 30%였으며 그 전해에 뻬세따화폐는 13.58% 평가인하되였다. 외화보유액은 1975년에 비하여 1977년 5월에 이르러 14억딸라나 줄었다. 1976년말에 대외빚은 113억딸라였다. 1977년 첫6개월동안에 생계비지수는 13.6% 뛰여올랐으며 같은해 5월현재 약 80만명이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였다.

에스빠냐는 광물류와 유색금속(동, 알루미니움), 선박, 세멘트, 올리브기름, 과일 등을 수출하고 철광석, 석유, 기계설비, 고무, 원료, 알곡, 남새 등을 수입한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영국, 서독, 프랑스, 미국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통신 이에프이

신문 문도 오브레로(공산당기관지), 엘 쏘씨알리스따(사회로동당기관지), 뿌에블로, 마드리드

방송 국립방송, 에스빠냐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69년 10월, 1972년 11월, 1975년 10월에 에스빠냐공산당 총비서 싼띠아고 까릴요를 단장으로 하는 에스빠냐공산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1977년 9월에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에스빠냐공산당대표단이 참가하였다. 12월에 에스빠냐사회로동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같은해 10월에 조선로동당대표단이 에스빠냐를 방문하였다. 대표단은 머무르는 기간 19일에 에스빠냐공산당 총비서를, 이에 앞서 17일에는 에스빠냐사회로동당 제1비서를 각각 방문하였다.

뽀르뚜갈

(뽀르뚜갈공화국)

넓이 9만 2,200km²

인구 876만 2,000명(1975년)

수도 리스봉(주민 83만명, 1970년)

자연 및 주민

뽀르뚜갈은 구라파대륙의 서남부 이베리아반도의 서쪽에 자리잡고있다.

기후는 남부가 지중해성을 띠며 북부는 해양성을 띠고있다. 중부의 리스봉과 그 부근에는 겨울에도 서리가 내리지 않는다. 1월평균기온은 12°C, 여름에는 30°C를 넘지 않는다. 그러나 남쪽끝에서는 40°C를 넘는 경우가 있다. 장마철은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가물철은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한해강수량은 700~1,000mm정도이다.

1976년에 이 나라에서는 《120년래의 최악의 가물》이 들어 7월에 저수지의 물이 마르고 호수의 물은 정상량의 30%밖에 남지 않았었다 한다. 그런데 1977년 6월 12일에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처음보는 심한 여름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주민은 이베리아원주민과 여러 종족의 혼혈인인 지중해종족들이다.

언어는 라틴어계통의 뽀르뚜갈어를 쓴다.

정 치

1974년 4월 25일 뽀르뚜갈에서 파쑈독재정권을 반대하는 4월혁명에 의하여 1926년부터 이 나라를 통치하여온 독재정권이 끝장났다.

1976년 4월 2일 뽀르뚜갈공화국의 새 헌법이 발포되였으며 새 헌법에 따라 4월 25일 처음으로 총선거가 진행되였다. 또한 지방주권선거가 12월 12일에 진행되였다.

1977년 3월 10일 뽀르뚜갈 국회(공화국회의)는 경제수역을 200마일로 할데 관한 법안을 채택하였으며 5월 5일에는 《뽀르뚜갈경제에서 사회적부문과 사적부문을 구분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하는 법령을 채택하였다. 법령에 의하여 이미 국유화된 245개의 국영기업소들을 재평가하게 되여있다.

또한 이 나라 국회는 7월 22일 새로운 《토지개혁기본법》을 채택하였다. 새 법령에 의하면 이미 몰수된 토지도 재평가하게 되여있다.

12월 8일 사회당정부는 국회의 신임투표에서 필요한 표수를 얻지 못하여 쏘아레스총리가 정권을 내놓았다.

1978년 1월 26일 사회당, 사회민주중심당련립정부가 수립되였다.

1977년에 쏘아레스내각총리는 《구라파공동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이딸리아, 단마르크, 아일랜드, 영국, 서독, 프랑스 등을 방문하였다.

11월 22일 뽀르뚜갈과 에스빠냐는 군사, 경제, 기술 및 문화 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친선및협조조약》을 맺었다.

이해에 베르데갑총리(1월), 유고슬라비아대통령(10월)이 뽀르뚜갈을 방문하였다.

국회(공화국회의) 일원제, 의원은 263명이며 임기는 4년, 1976년 4월 25일 총선거결과 사회당이 106석, 공산당이 40석, 사회민주당(이전인민민주당)이 71석, 사회민주중심당이 41석, 인민민주동맹이 1석, 기타가 4석을 각각 차지

대통령 국가수반이며 임기는 5년, 대통령 안또니오 라말료 에아네스(1976년 7월 14일—)

정부 1978년 1월 26일 16명으로 구성된 사회당, 사회민주중심당의 련립정부수립, 총리 마리오 쏘아레스(1976년 7월 23일—, 1978년 1월 26일재선)

혁명리사회 4명의 군사령관들과 14명의 관리들로 꾸려진 자문기관으로서 헌법리행을 감독한다.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 3월 6일 창건, 1926년부터 비법화되였다가 1974년 4월 25일 혁명후 합법화, 1976년 11월 제8차당대회 진행, 총비서 알바로 꾼할, **사회당**(련립집권당), **사회민주중심당**(련립집권당), **사회민주당**(이전인민민주당), **뽀르뚜갈민주운동**, **인민민주동맹**, **뽀르뚜갈민주주의사회운동** 1977년 3월 29일 결성, **《인떼르신띠깔》중앙로조**(근로자총련맹), **뽀르뚜갈평화및국제협조리사회**

경제, 사회문화

뽀르뚜갈은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가운데서 경제가 가장 뒤떨어진 농업국가이다.

농촌경리는 낡은 기술에 기초한 대농장경리가 우세를 차지한다. 농업부문에서는 로동인구의 30%가 일한다. 령토의 거의 40%가 부침땅이지만 그 대부분이 알곡작물보다 올리브, 포도, 과일 등의 수출용작물재배에 많이 치우쳐있다. 주요알곡작물은 밀, 보리, 호밀, 귀밀, 강냉이, 벼, 감자이다. 1975년에 밀 68만 6천톤, 벼 12만 1천톤, 강냉이 46만 2천톤이 생산되였다. 해마다 알곡은 수입에 의존한다.

주요집짐승은 소, 양, 돼지, 염소, 말 등인데 1975년 소마리수는 116만마리였다.

공업에서 채광업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 석탄, 갈탄, 철, 동, 망간, 중석, 대리석 등이 채취된다. 그밖에 기계, 선박, 원유가공, 세멘트, 화학공업과 경공업이 있다. 정어리통졸임, 포도술, 과일통졸임, 올리브기름, 사탕 등을 생산하는 식료가공공업이 큰몫을 차지한다. 1974년에 올리브기름은 525헥터리터(1헥터리터=100리터)를 생산하였다.

코르크생산이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데 그것은 세계 총생산량(1974년에 17만 7천톤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며 수출에서 세계 첫자리를 차지한다.

수산부문에서는 정어리, 대구, 정갱이 등을 많이 잡는다. 1975년에 9만 4천톤의 정어리를 잡았다.

교통운수에서 철도 및 해상 운수가 기본이다.

뽀르뚜갈은 코르크, 포도술, 목재제품, 올리브기름, 과일 등을 수출하고 기계설비, 강재, 금속제품, 직물, 알곡 및 식료품을 수입한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이다. 화폐단위는 에스꾸도이다.

1977년 첫10달동안의 무역적자는 1976년 같은기간에 비하여 33% 늘어난 22억딸라였다. 1977년 6월초현재 대외빚은 약 1천 600억내지 1천 700억 에스꾸도에 달하였으며 1976년에 국제수지적자는 약 11억딸라였다.

이 나라에는 1974—1975학년도에 706개의 중학교와 63개의 고등학교가 있었다.

주민의 97%가 천주교를 믿는다.

출판보도;통신 《아노쁘》(뽀르뚜갈통신)

신문 아반떼(공산당기관지), 쟈리오 도 고베르노(정부기관지), 뽀르뚜갈쏘씨알리스따(사회당기관지), 우니따디(민주운동기관지), 배틀(로조기관지), 디아리오

방송 뽀르뚜갈방송, 뽀르뚜갈라지오및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5년 4월 15일 우리 나라와 뽀르뚜갈사이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1976년 1월 19일에 조선의 민주주의적평화통일지지뽀르뚜갈위원회가 결성되였다.

1977년 1월에 우리 나라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구국방안을 지지하여 조선의 민주주의적평화통일지지뽀르뚜갈위원회가 호소문을 발표하였다.

6월 30일 뽀르뚜갈 수도에서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군중집회가 진행되였다. 여기에는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대표단이 초대되였다.

1977년 10월에 뽀르뚜갈사회당대표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지브랄타르

(영국직할식민지)

넓이 6.5km²

인구 2만 9,000명(1970년)

지브랄타르는 구라파의 서남쪽 이베리아반도의 맨남쪽 바다기슭에 자리잡고있다.

정　치

지브랄타르는 원래 에스빠냐의 항구였으나 1701년부터 3년간 진행된 《왕위계승전쟁》후 《유트레히트조약》에 의하여 영국식민지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에스빠냐는 지브랄타르를 돌려줄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1968년에 진행된 유엔총회는 지브랄타르문제해결을 위한 영국—에스빠냐회담을 호소하는 결의를 채택하였으나 그 어느 결의도 리행되지 못하였다. 지브랄타르를 돌려줄것을 계속 요구하던 에스빠냐는 영국에 대한 《보복조치》로써 1969년 10월부터 자기 나라를 거쳐 지브랄타르에 이르는 전화선을 끊어버렸다.

영제국주의자들은 여기에서 식민지통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침략적군사기지들을 설치하고 륙해공군무력을 상시적으로 두고있다. 자유무역항인 이 항구에는 해마다 약 4천척의 배들과 50여만명의 관광객들이 드나드는데 영제국주의자들은 연료 및 봉사 시설을 차려놓고 큰 돈벌이를 하고있다.

지브랄타르에서 자체로 생산하는 물건은 거의 없고 소비품, 식량 등은 수입하며 일부 제품들은 수출 또는 재수출한다.

주민의 대부분은 에스빠냐, 뽀르뚜갈, 이딸리아 사람들이며 공용어는 영어이지만 에스빠냐어도 쓴다. 주민의 99%가 기독교를 믿는다.

북 미

카 나 다

넓이 997만 6,139km²
인구 2,299만 2,604명(1976년 6월)
수도 오타와 (주민 70만명)

자연 및 주민

카나다는 북미대륙의 북쪽에 있다. 북쪽령토의 절반이상은 북극권에 들어가므로 기후는 같은 위도우에 있는 구라파나라들보다 춥다. 특히 추운곳은 북빙양기슭과 북쪽의 섬들인데 북빙양기슭의 평균기온은 겨울에 —40°C, 7월에 0°C이다. 그러나 대서양과 태평양 남쪽기슭은 따뜻하며 비가 많이 내린다. 이곳의 평균기온은 1월에 —15°C, 7월에 20°C이다.

주민의 44.6%는 영국계사람, 28.7%는 프랑스계사람이며 그밖에 독일계, 우크라이나계, 이딸리아계 사람들이 산다. 원주민인 인디안은 29만명, 에스키모는 1만 8천명이 있다.

민족구성이 복잡하기때문에 언어문제가 정치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되고있다. 1969년 9월 련방정부는 영어와 프랑스어를 전국공용어로 규정하였다.

정 치

카나다는 1931년에 영련방안에서 독립하였다.

제2차세계대전후 카나다반동정부는 미제의 침략과 전쟁 정책에 추종하여 1949년에 침략적인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들어갔으며 1950년에는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에 고용병을 보냈다.

또한 카나다는 미제의 웰남침략전쟁을 도와 전쟁무기를 생산공급하였다. 카나다는 뉴파운들랜드섬과 라브라도르반도에 핵탄두를 장비한 미제침략군공군무력의 주둔을 허용하였으며 《북미공중방위사령부》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카나다는 저들의 리해관계로부터 출발하여 점차 미제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련의 움직임들을 보이고있다.

트루도정부는 1969년 4월 미제의 침략도구인 나토군에 배속되여있는 구라파주둔 카나다군을 《계획적으로, 단계적으로 줄여 철수》하기로 결정하고 1970년에는 미제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를 철수시켰다.

1976년 12월 나토리사회회의에서 카나다대표는 서구라파와 북미대륙북쪽에 나토의 새로운 전투체계를 창설할데 대한 미제의 계획에 대하여 일정하게 보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1974년 카나다국회는 카나다에서의 미국독점체들의 팽창을 막기 위한 통제법을 채택하였으며 미국에 대한 석유수출을 계단별로 줄이고 1982년에는 전면적으로 중지하기로 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미국시장에 대한 일변도정책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1976년에 총리 트루도가 메히꼬, 베네수엘라 등을 방문하고 이 나라들과 경제관계를 발전시킬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1977년 1월에는 외교부장이 무역 및 경제적련계를 확대하기 위하여 페루, 꼴롬비아 등을 방문하였다.

카나다정부는 1977년 12월 19일 남아프리카 보스터도당의 인종격리정책을 반대하여 남아프리카의 요한네스부르그와 케이프타운에 있는 상업령사들을 철수하며 남아프리카에 대한 무역제재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1977년에 카나다인민들속에서는 실업을 반대하며 생활처지의 개선을 요구하는 투쟁이 벌어졌다.

카나다공산당 집행위원회는 11월 성명을 발표하여 일자리의 보장, 임금에 대한 통제의 철회, 그리고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과 카나다경제에 대한 미국독점체들의 지배를 끝장낼것을 요구하였다.

1977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자유당정부에 대한 사회계의 지지률은 7월에 51%, 12월에는 42%였다.

1977년에 케베크주(카나다인구의 29%차지, 그중 4분의 3이 프랑스계주민)에서는 케베크주의 독립을 위한 움직임이 더욱 강화되였다.

1976년 11월 케베크주의 독립을 주장하던 케베크당이 선거에서 승리하여 주정부를 구성한후 총리 트루도는 케베크주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것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1977년 3월 8일 케베크주 총리는 케베크의 독립에 관한 국민투표를 1981년까지의 사이에 진행할것이라고 말하였다.

8월 26일 케베크주의회는 케베크주에서 프랑스어를 유일한 공용어로 하는 법안을 통과하였다. 법안은 재판소, 학교, 정부에서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하며 실업계에서 영어를 쓰는것을 제한할 것을 규정하였다.

련방정부는 케베크주의 독립을 반대하며 나라의 분렬을 막기 위하여 7월 5일 《국가단합위원회》를 내왔다.

국회 상하량원으로 구성, 상원의원은 102명이며 총독이 임명한다. 1965년 6월전에 임명된 의원의 임기는 종신, 그후 임명된 의원의 임기는 75살까지이다. 법안은 상하량원과 영국녀왕의 동의를 얻어야 성립된다.

하원의원은 264명이며 임기는 5년, 1974년 8월 8일 총선거결과 자유당 141석, 진보보수당 95석, 신민주당 16석, 사회신용당 11석, 무소속 1석 차지

총독 카나다 총리의 권고에 따라 영국녀왕이 총독을 임명한다. 정치적실권은 없다. 총독 쥴스 레제

정부 하원의원만이 내각성원으로 될수 있다. 1974년 8월 총선거에서 자유당이 승리한 결과 자유당단독정부가 수립되였다. 1977년 9월 16일 내각개조, 총리 피에르 엘리오트 트루도, 외교부장 도널드 재미슨, 국방부장 단슨

정당, 사회단체 ; **공산당** 1922년 2월에 창건, 1976년 10월에 제23차당대회 진행, 총비서 윌리암 카슈탄, **자유당**(집권당), **진보보수당**, **사회신용당**, **신민주당**, **케베크당**(케베크주집권당), **공산주의청년동맹**, **로동대회**

경제, 사회문화

카나다는 자본주의공업농업국가이다.

카나다공업에서는 지하자원과 산림자원을 초보적으로 가공하여 수출하기 위한 유색금속공업과 팔프, 종이 공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에 완제품생산과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부문들은 미약하다. 공업총생산액의 약 80%는 케베크주와 온타리오주에 집중되여있다.

지하자원으로는 우라니움, 주석, 니켈, 금, 은, 아연, 류황, 원유, 석탄, 동, 알루미니움 등이 있다.

카나다공업에는 미, 영독점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특히 미국독점자본은 자동차공업, 고무공업, 원유공업, 유색금속공업 등을 틀어쥐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밀, 보리, 귀밀, 담배, 남새, 과일 등이며 그 가운데서 밀이 첫자리를 차지한다.

카나다어장은 세계3대어장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태평양연안의 어장에서는 가재미, 대구, 청어, 새우, 연어 등이 잡힌다.

주요수출품은 신문용지, 밀, 팔프, 통나무, 동, 연, 니켈, 알루미니움 등이며 수출총액의 70%는 미국이 차지한다. 최근년간 카나다는 무역에서 미국에 대한 일변도정책을 약화시키기 위하여 라틴아메리카나라들과의 무역을 확대하고있다.

최근년간 카나다경제형편은 악화되여 1977년 1월부터 8월까지만도 1만 635개의 회사가 파산되였다.

특히 건설공업이 극심한 침체상태에 빠지고있는데 이 부문에서는 1월부터 7월까지 사이에 파산된 회사수가 전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52%나 늘어났다.

실업자수도 계속 늘어나 1976년말에 77만 8천명이였던것이 1977년 7월에는 95만명에 이르렀다.

1977년에 식료품값은 17.7%, 생계비는 9.5%나 올랐다.

1977년 11월 8일 카나다의 련방경제자문리사회보고에서는 카나다의 경제가《엄중한 문제에 직면》하고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5년동안 높은 실업률, 계속되는 통화팽창에 직면》하게 될것이며 계속 큰 국제수지적자를 내게 될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1977년에 카나다에서는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인한 가물, 열풍, 무더기비, 랭해, 눈보라 등으로 농업생산이 줄고 교통사고와 산불이 일어나는 등 사회경제적혼란이 있었다.

곡창지대인 알버타, 매니토바, 서스캐치원주들에서는 밀파종면적이 훨씬 줄어들었으며 5월에는 서스캐치원주의 65개소에서 산불이 일어나 군대까지 동원되였다.

출판보도 ; **통신** 카나디언 프레스

신문 카나디언 트리븐(공산당기관지), 토론토 스타, 썬데이 썬, 글로브 앤드 메일

방송 씨비에스방송, 씨비에스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1년에 카나다조선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이 협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예순돐을 축하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 지성어린 선물을 보내여왔다.

1976년에 카나다메길종합대학 동방연구소 부소장이며 사회과학 박사인 싸무엘 제이 누모프가 《조선의 통일을 위하여》라는 표제밑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19편이 수록되여있는 문헌집을 출판하였다.

미 국

(아메리카합중국)

넓이 936만 3,353km² (알라스카와 하와이제도 포함)

인구 2억 1,740만명 (1977년 8월 1일)

수도 워싱톤 (주민 75만 6,500명)

자연 및 주민

미국은 북미대륙의 중부에 있는 본토와 서북부에 있는 알라스카, 태평양우에 있는 하와이제도로 이루어져있다.

미국은 아열대로부터 아한대권안에 들어있어 남쪽과 북쪽사이의 기후의 차이는 그리 심하지 않지만 동서간의 차이는 매우 심하다. 기온은 같은 위도상에 놓여있는 다른 대륙의 나라들보다 낮은편이다. 서쪽바다가의 한해 평균강수량은 약2,000mm이다.

주민은 백인 (약 1억 8천만명), 흑인(2천 524만명), 인디안(약 80만명), 일본인, 중국인, 필리핀인 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600만명의 유태인이 살고있다.

정　치

사회계급적모순의 심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미제는 국내외적으로 더욱 엄중한 위기에 부닥치고있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973년판, 22～23페지)

1977년은 미국에서 공화당으로부터 민주당에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고 카터민주당정권이 등장하여 집권하기 시작한 해였다.

카터정부는 집권하자 특히 국내적으로는 인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일련의 교활한 정책과 수법들을 써가면서 기울어진 미제의 운명을 바로 잡아보려고 음흉하게 책동하였다.

그러나 미국지배층이 표방해나선 그 모든 정책들은 선행정부의 그것과 아무런 본질적차이도 없는것으로서 미국인민들을 독점자본의 착취와 억압의 쇠사슬에 더욱 든든히 얽어매놓기 위한 흉악한 목적을 추구하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미국에서는 현정부를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졌으며 이로 말미암아 사회계급적모순은 더 한층 심화되고 지배층안의 알륵과 모순은 새로운 형태를 띠고 발전하였다.

이해 미국에서는 로동운동이 줄기차게 벌어졌다.

미국근로자들은 임금인상, 로동조건의 개선,일자리의 보장 등 요구조건을 내걸고 투쟁하였다.

미정부당국의 공식보도에 의하더라도 1977년에 미국에서는 230만명이 참가한 5천 600건의 파업이 벌어졌으며 이러한 파업으로 독점자본가놈들은 3천 600만로동일을 손해보았다.

10월초《록키드》항공회사 산하 기업체들에 고용되여있는 2만명로동자들의 전국적인 파업과 8월부터 거의 4개월동안이나 계속된 미네소타주와 미시간주의 16개광업부문 로동자들의 파업, 그리고 10월 1일부터 미국의 동부 및 남부 해안연선에 있는 30개의 항구에서 배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모든 업무를 마비상태에 빠뜨린 대서양연안과 메히꼬만연안의 5만명 부두로동자들의 파업과 10월초부터 2달동안이나 파업을 벌린 보잉항공회사와《록키드》항공회사의 4만 5천명 로동자들의 투쟁은 그 대표적실례로 된다.

자본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며 생활상권리를 위한 미국근로자들의 이러한 투쟁은 반동지배층과 독점자본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이해 미제는 이른바 《국론통일》을 크게 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한 미국인민들의 불신이 커가고 그의 반영으로서 지배층내부의 알륵과 모순이 심화되였다.

《해리스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카터에 대한 지지률은 1월에 71%로부터 3월에는 66%, 10월에는 48%로 크게 떨어졌다.

이해 미행정부가 주요정책으로 내놓은 《에네르기법안》은 상하량원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쳐 결말을 보지못하였으며 결국 국회와의 대립을 격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밖에 일련의 대외관계문제를 둘러싸고도 국회의원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모든 사실은 미제의 대내적위기가 심각하며 이러한 속에서 정부가 이른바 그 어떤 《묘책》을 내놓는다해도 위기를 수습하기 어렵게 되였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침략과 전쟁 책동의 강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은 궁지에 빠질수록 한손에는 감람나무가지를 들고 다른 한손에는 총칼을 쥐고 휘두르는 량면전술에 매달리며 〈평화〉의 간판밑에 침략과 전쟁 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는 법입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문헌집》, 10페지)

미제는 1977년에도 세계제패의 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긴장완화》, 《인권외교》,《흑인다수파통치지지》, 《동맹국들과의 협조》 등은 미제가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여 들고나온 교활한 책동이였다.

미제는 《평화》와 《긴장완화》의 허울좋은 간판밑에 미국력사상 일찌기 볼수없는 대대적인 군비증강책동을 벌렸다.

1977회계년도에 군사예산으로 1천 60억딸라를 설정한 미제는 9월에 또다시 1978회계년도 군사예산으로 《미국력사상 최대수준》인 1천 180억딸라를 지출할데 대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전쟁준비에 미쳐날뛰는 미제는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돈을 퍼부어 순항미싸일, 중성자폭탄, 《트라이든트》잠수함, 《엠 엑스》대륙간탄도미싸일 등 최신식 대량살륙무기들의 개발을 다그쳤다.

미제는 이와 같은 대대적인 군비경쟁과 무기개발로 저들의 침략야망을 기어이 이루어보려고 발악하였다.

놈들은 무엇보다도 조선에 대한 침략책동을 강화하였다.

미제는 남조선으로부터 침략군을 철수시키겠다던 《공약》에서 더욱더 물러서면서 《두개 조선》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집요하게 책동하는 한편 남조선괴뢰도당을 민족분렬과 전쟁의 길로 적극 부추겼다.

7월에 있은 《한미년례안보협의회》에서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미제는 남조선에서 군대를 철수하는 경우에도 지상군에 국한시키고 그것도 4～5년동안에 《조심스럽게 서서히 정세를 살피면서》단계적으로 철수시키되 그것마저 주력부대는 마지막까지 남겨둘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공군, 해군, 정보, 통신 및 기타 지원부대는 계속 남조선에 그대로 남겨두며 특히 공군부대는 대폭적으로 《증강》할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유엔군사령부》도 그대로 두며 《한미련합사령부》라는것도 새로 설치할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9월에 미행정부는 지상군에 대해서도 《철수》가 아니라 《감축》이라고 하는것이 적당하다고 줴치면서 심지어는 지상군을 철수시킨다고 하여도 그것을 《즉시대응무력》으로서 언제나 남조선에 《재투입》할수 있도록 편리한 지점에 대기시켜놓을것이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미제는 시초의 《공약》은 더 말할것도 없고 그후의 《철군계획》마저도 줴버리고 남조선에서 침략군을 철수시키지 않으려는 진의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미제는 이해 《철군》이라는 구실로 남조선괴뢰도당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1977회계년도에 남조선괴뢰들에게 2억 8천 70만딸라의 군사《원조》를 주기로 한 미제는 8월 4일 또다시 1978회계년도에 2억 8천 300만딸라의 군사《원조》를 주기로 하였다.

10월 21일 미국정부는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철수》에 따르는 이른바 《보완조치》의 한 고리로서 땅크, 직승기, 미싸일, 포, 탄약 등을 포함하여 8억딸라어치의 무기와 군사장비들을 괴뢰들에게 넘겨줄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10월 미국회가 발표한 해외에 대한 미행정부의 《무기판매》정책을 분석한 《보고》에서는 해외에 미국무기를 제공함에 있어서 남조선괴뢰들을 《특별대우》의 첫째대상으로 삼는다는것을 밝혔다.

이해 10월까지 미국회는 국방부가 제출한 6건이나 되는 남조선괴뢰들에 대한 무기판매계획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라 미제는 《팬톰》전투폭격기를 비롯한 수십대의 각종 전투폭격기들과 수송기들, 거의 50대의 직승기와 기타 살인무기들을 대량적으로 괴뢰들에게 넘겨주었다.

미국방부는 11월중순 또다시 12억딸라에 달하는 최신식 《에프—16》전투기 60대를 남조선괴뢰들에게 넘겨줄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것은 미제가 남조선을 《전선방위지역》으로 선포하고 무기판매를 강화한 때인 1976회계년도 무기판매액 6억 2천만딸라에 비하여 볼때 미제가 남조선괴뢰군을 강화하기 위하여 얼마나 미쳐날뛰고 있는가 하는것을 알수 있다.

미제는 남조선괴뢰들의 전쟁잠재력을 늘이는데 미쳐날뛰였을뿐아니라 미공군과 기타 제놈들의 무력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 일본과 오끼나와, 괌도와 필리핀 등 기지들에 있는 미륙해공군의 대부대들을 조선반도에서의 《유사시》에 출동시킬수 있도록 대기상태에 두고 괴뢰들과의 합동훈련 등 화약내풍기는 군사연습을 벌려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켰다.

미제는 이해 남조선으로부터의 《철군》을 떠들어대면서 일본 《자위대》무력을 더욱 강화하여 새로운 전쟁도발에로 끌어들임으로써 제놈들의 아세아침략야망을 이루어보려는 범죄적인 흉계를 꾸몄다. 1월과 3월 일본총리 후꾸다와 벌린 회담들에서 미제는 일본에 대한 미제의 《방위공약》을 다시금 담보받는 동시에 일미공동작전수행에 맞게 일본의 침략무력을 증강할데 대하여 요구하는 등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일본 《자위대》무력을 조선전선에 투입하려고 책동하였다.

특히 3월에 벌린 《미일수뇌자회담》에서 미제는 《일본이 아세아에서 정치적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웰남침략전쟁에서 참패를 당하고 웰남, 캄보쟈, 라오스에서 쫓겨난 제놈들의 동남아세아 《반공》정책의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일본의 침략세력을 이 지역에 끌어들이려는 제놈들의 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았다.

미제는 이른바 중근동문제의 《평화적해결》에 대하여 요란하게 떠들어대면서 아랍나라들을 리간분렬시키고 팔레스티나인민의 합법적권리를 말살하며 중근동지역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해보려고 음흉하게 책동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추구하여 미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약을 포기할수 없다》고 떠벌여대면서 놈들에 대한 군사적지원을 강화하였다.

이른바 《중근동에서의 힘의 균형》이라는 간판밑에 1973년 제4차 중근동전쟁이후에만도 이스라엘반동들에게 70억딸라에 달하는 군사, 경제 《원조》를 먼저준 미제는 1977년 7월에 또다시 2억 5천만딸라어치의 군사《원조》를 더 줄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10월 2일 미제는 《이스라엘이 위협에 처한다면 미국이 원조를 줄것》이라고 하면서 아랍나라들에 대한 이스라엘반동들의 침략책동을 적극 부추겼다.

미제는 또한 아프리카나라들과 발전도상 나라들을 돌아치면서 이웃나라들간의 리간과 불화를 조

성하고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면서 신식민주의정책을 부지하려고 책동하였다.

1977년 7월 미제는 이른바 로데시아문제 《해결》을 위한 《미영공동제안》이라는것을 꾸며 이른바 《흑인다수파에로의 정권이양》이라는 이름밑에 무너져가는 인종주의정권을 새로운 형태로 유지함으로써 제국주의식민지지배권을 유지해보려고 집요하게 달라붙었다.

놈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로데시아에서 흑인다수파정부를 수립할데 대한 아프리카나라들과 세계여론을 무마하며 민족적독립을 위한 짐바브웨인민들의 투쟁을 말살하려고 날뛰였다.

한편 미제는 나토성원국들, 이스라엘반동들과 공모하여 남아프리카와 로데시아인종주의자들에게 수많은 무기와 고용병들을 넘겨주어 이 지역나라들의 민족적독립을 위협하고 식민지인민들의 민족해방투쟁을 탄압케 하였다.

지어 놈들은 아프리카인민들에게 핵위협을 주기위하여 남아프리카인종주의자들에게 핵무기까지 쥐여주려고 책동하면서 아프리카대륙에서 무너져가는 저들의 마지막지탱점을 어떻게하나 유지하려고 발악하였다.

이해 미제는 인도양에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섬에 대규모적인 해군 및 공군 기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8월에 추가적으로 700만딸라를 지출하기로 함으로써 인도양을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이 지역인민들의 요구에 도전하여 나섰다.

이해에 미제는 이른바 《인권옹호》, 《인권외교》의 간판밑에 한편으로는 세계인민들속에서 반미감정과 반미투쟁을 무마시키며 다른 편으로는 사회주의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하고 사회주의의 영향력을 막아보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1977년에 미제가 감행한 이 모든 책동은 놈들의 침략적본성이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국회 상하량원으로 구성, 상원의원은 매개주에서 2명씩 6년임기로 선거된 100명으로 구성, 2년마다 의원수의 3분의 1을 선거하여 개선한다.

하원의원수는 435명이며 임기는 2년이다. 하원의원은 각주마다 인구비례에 의하여 선거된다.

1976년 11월 2일 상하량원선거결과 상원에서 민주당 62석, 공화당 37석, 기타 1석, 하원에서는 민주당 293석, 공화당 142석 차지

정부 대통령이 국가 및 정부 수반이며 그가 임명하는 장관들로 정부가 구성된다.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한사람이 계속 8년이상 할수 없다. 1976년 11월 2일 대통령선거 진행.

대통령 지미 카터 (1977년 1월 20일—), 국무장관 싸이러스 밴스, 국방장관 해롤드 브라운

정당, 사회단체 ; 공산당 1919년 9월에 창건, 위원장 헨리 윈스톤, 총비서 거스홀, **세계로동자당, 미합중국공산주의로동당, 민주당(집권당), 공화당, 진보로동당, 인민당, 사회민주당, 전국유색인진보촉진협회**(제일 큰 흑인단체), **전쟁과 파시즘을 반대하는청년동맹, 미합동로조**

경 제

1977년에 미제는 국내경제위기를 수습해보려고 여러가지로 모대겼다.

카터정부는 집권후 국내경제문제의 우선적해결을 위하여 이른바 《회복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경제그루빠》를 만들고 《새로운 에네르기정책》, 《경제일괄계획》, 《공공고용법》, 《감세법》 등 수많은 《법안》을 만들어 발표하였다.

그러나 1977년에 미국경제는 의연히 심각한 위기에 빠져 허덕이면서 답보와 침체를 거듭하였다.

미국경제의 심각한 위기는 무엇보다도 공업생산이 침체상태에 빠지고있는데서 뚜렷이 표현되고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77년에 미국의 공업생산은 1976년에 비하여 1.3% 떨어졌다.

특히 미국경제의 《3대기둥》이라고 하는 강철, 자동차, 건설 부문에서 생산의 침체현상은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생산의 침체와 함께 공업부문에서 조업률이 계통적으로 낮아지고 이에 따라 경영난에 직면한 수많은 기업체들이 꼬리를 물고 파산됨으로써 실업문제는 의연 《엄중한 사회적문제》로 계속 제기되였다.

미국당국이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77년말 미국의 실업자수는 700만명을 헤아리게 되였다.

미국은 재정금융부문에서도 첨예한 위기를 겪고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공황시기에 생산이 줄어들면서 물건값이 떨어지는것이 보통현상으로 되여왔으나 오늘에 와서 미국에서는 공업생산이 침체와 답보를 거듭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팽창은 더욱 심해지고있는바 이것은 미국경제위기의 심각성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1977년에 미국에서는 소비자물가가 6.8% 올랐는데 이것은 1976년에 비하여 2% 더 오른것으로 된다. 특히 식료품값은 1977년 한해동안에 8%나 뛰여올랐다.

미국에서 격화된 통화팽창은 국제시장에서 미국상품들의 경쟁능력을 심히 약화시켰으며 이를 기회로 일본, 서독을 비롯한 자본주의렬강들이 상대적으로 눅은 값으로 미국의 상품판매시장에 뚫고들어가기 위한 경쟁을 치렬하게 벌림으로써 미국의 수출은 약화되고 무역수지는 적자를 계속 기록하게 되였다.

1977년에 미국의 무역적자는 314억 100만딸라로서 《력사상 최고기록》을 세우게 되였다. 이것은 제2차세계대전이후 《최고기록》이라고 하던 1967년의 93억 2천만 딸라에 비하여 무려 3배이상이나 더많은것이다.

한편 1977년에 미국의 국제수지적자는 267억딸라에 달하였다.

국제수지적자의 증대와 방대한 규모의 군사비지출은 미국의 금보유량을 더욱 감소시키고 딸라가치가 여지없이 떨어지게 하고있는바 이것은 결국 미국의 전반적인 재정금융형편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빚어내고있다.

미국은 1977년에 심각한 연료위기, 석유위기를 겪었다.

미국석유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977년에 미국의 하루 평균 석유수입량은 그 전해에 비하여 23.3% 늘어났다.

미국은 해마다 늘어나는 방대한 량의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서만도 수백억딸라를 지출해야 하는바 이것은 국제수지형편을 더욱 긴장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광업국은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석유수입량이 계속 늘어날것이 예견된다고 하면서 《석유수입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는 실망할 정도로 크게 늘어나고있다. 미국은 엄혹한 연료위기에 직면하고있다》고 비명을 올렸다.

미국은 1977년에 농업부문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특히 《수백년래에 처음보는》혹심한 왕가물로 말미암아 농사를 크게 망치게 되였다. 미국의 기상학자들은 이해 미국에 조성된 형편이 《1930년대에 있었던 가장 심한 가물과 기아의 전야를 방불케 한다》고 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알곡생산지인 캘리포니아주에서만도 알곡생산 및 축산업에서 무려 30억딸라의 손실을 보았다한다.

그리고 오레곤주에서는 가물에 의한 농업손실액이 20억딸라에 달하였다.

가물로 1977년에 미국에서는 벼재배면적이 그 전해에 비하여 8%나 줄어들었다.

축산업, 공예, 과수 등 다른 부문의 생산도 급격히 줄었다.

사회문화

미국은 세계에서 사회적불평등과 빈부의 차가 제일 심한 나라이다.

1%도 못되는 독점자본가들이 근로대중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국민소득의 60~70%를 독차지하고 부화방탕한 생활을 하고있는 반면에 700만의 실업자와 2천 700만명의 극빈자가 비참한 생활을 하고있으며 700만세대가 쓰지못할 집아닌 《집》에서 살고 있다. 뉴욕 한개 도시에서만도 무려 50만세대가 집아닌 《집》에서 살고있다.

미국인민들에게는 련방세, 주세, 지방세 등 무려 100여종의 세금이 들씌워지고있는데 그들의 세금부담액은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1976년에 인민들로부터 빼앗아낸 세금의 총액은 무려 4천 825억딸라에 달하였는데 그것은 전해에 비하여 14% 늘어난것이였다.

독점자본의 가혹한 착취로 미국에서는 해마다 10만명의 근로자들이 직업병으로 죽고있다.

미국에서 인종차별은 일반적현상으로 되고있다.

흑인들은 피부색이 다르다는것으로 거주, 교육을 비롯한 여러가지 면에서 차별과 제한을 받고있으며 같은일을 하고도 백인들의 절반밖에 안되는 임금을 받고있다.

농촌에서 흑인들은 농노와 같은 처지에서 농장주들의 가혹한 착취를 받고있다.

원주민인 인디안들은 수용소나 다름없는 원주민거주지역에 갇혀살고있으며 교육과 의료상 방조를 받을 권리를 못가진다.

미제의 인종멸살정책으로 원주민들의 평균수명은 43~44살, 알라스카, 아리조나주를 포함한 몇개주에서는 그것이 33살도 못된다.

미제의 반인민적인 교육정책으로 명목상의 교육비지출마저 체계적으로 줄고있어 수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고있으며 100만명이상의 교원들이 실업당하고있다. 학비는 1977년까지 거의 10년동안에 10배로 올랐다.

미국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16살이상의 미국주민들중 2천 300만명은 완전한 문맹자이다.

미국에서는 인신매매행위가 공공연히 진행되고있다. 미국사회의 부패상을 반영하여 최근년간 미국의 도시들에서는 갓난아이를 최고 2만 5천딸라까지 받고 파는 암시장과 자기의 갓난아이를 현금받고 넘겨줄 용의를 가진 임신부들을 위한 《회색시장》까지 나오고있다.

썩어빠진 미국사회에서는 범죄행위가 해마다 늘어나고있다.

미국정부의 공식발표에 의하더라도 1975년까지의 10년동안에 미국에서 방화와 관련한 범죄건수는 325% 늘어났다.

미국사회의 혼란상은 1976년에 자동차사고로 4만 4천 800명이 죽은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피, 유피아이, 유에스아이에스, 해방통신

신문 워커스 월드 (공산당기관지), 데일리 월드, 피플즈 트리뷴 (미합중국공산주의로동당기관지), 뉴욕타임스, 워싱톤 포스트, 뉴욕 헤랄드 트리뷴, 크리스챤 싸이언스 모니터, 가디언(북미주에서 가장 부수가 많은 무소속 좌익주간지)

방송 에이비씨방송, 씨비에스방송, 《미국의 소

터>방송, 엔비씨텔레비죤방송, 씨비에스 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0년 8월에 미국조선친선공보쎈터가 결성되였다. 1975년 1월 24일 뉴욕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는 《주체사상연구소조》가 결성되였으며 이 연구소조는 월간잡지《주체》를 발행하고있다.

1976년 5월 20일에 조선통일지지가디언위원회, 6월 6일에 전쟁과 파시즘을 반대하는 청년동맹《미국은 조선에서 물러가라위원회》, 6월 24일에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위원회 등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련대성조직들이 뉴욕에서 무어졌다.

1977년에 미국인민들속에서는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책동을 반대하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운동이 광범히 벌어졌다.

3월 19일 뉴욕에서는 전쟁과 파시즘을 반대하는 청년동맹 《미국은 조선에서 물러가라위원회》, 조선인민과의 련대성위원회, 조선통일지지가디언위원회, 재미전아프리카학생기구를 포함한 12개의 련대성조직들과 반전단체들, 수많은 이름있는 평화인사들과 사회활동가들의 공동발기로 《조선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종식시키기 위한 대회》가 진행되였다.

4월 1일부터 3일까지에는 《미국의 대조선정책 새 방향위원회》의 발기에 의하여 뉴욕의 유엔교회쎈터에서 《미국의 대한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요구하는 국제회의》가 진행되였다.

5월에 진행된 미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전국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군사주둔을 당장 끝장낼것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미제가 조선에서 전쟁을 일으킨지 27돐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전쟁과 파시즘을 반대하는 청년동맹《미국은 조선에서 물러가라위원회》는 6월 25일 미군의 남조선강점에 반대항의하는 군중집회를 진행하였다. 이 조직성원들과 미국의 반전평화인사들은 조선전쟁때 살인장군으로 악명을 떨친 패전장군 맥아더를 찬미한 반동영화 《맥아더》를 미국에서 상영하는것을 반대하여 6월 29일 뉴욕에서 항의시위를 벌렸다.

미국 서부해안지구에서 조선연구 및 행동위원회는 남조선으로부터의 미군의 철거와 조선의 평화적통일을 위한 새 반월간잡지를 발간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위원회의 주최로 6월 11일 쌘프랜씨스코에서 《미국은 조선에서 나가라》는 구호밑에 시위투쟁이 벌어졌다.

이 위원회는 조선에 대한 미제의 강점에 대한 환등강의도 수십곳에서 진행하였으며 또한 버클리에 있는 캘리포니아종합대학을 비롯한 몇개의 큰 종합대학들에서 조선에서의 미국의 범죄적책동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이해 남조선으로부터의 미제침략군철수를 요구하여 미국의 39개의 주, 콜럼비아특별구와 기타 5개의 지방에서 6천여명의 인사들이 국회에 제출하는 청원서에 서명하였다.

남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침략군과 핵무기를 철수하며 박정희괴뢰도당에 대한 원조를 중지할데 대한 이러한 요구들은 8월 씨애틀에서 진행된 미국의 전국법률가조합회의에서 채택된 조선정세에 대한 결의와 일본에 머물러있는 미국인 30명이 련명으로 미국회의원들과 카터정권에 보낸 서한에도 반영되였다.

1977년 9월 미국에 있는 《주체사상연구소조》위원장이며 《가디언》지 행정부주필인 프랜씨스 빌이 평양에서 진행된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였다.

대 양 주

오스트랄리아

(오스트랄리아련방)

넓이 768만 6,810km²
인구 1,391만 5,500명(1976년)
수도 캔베라(18만 950명)

자연 및 주민

이 나라는 오스트랄리아대륙과 타스마니아섬 및 기타 섬들로 이루어져있다. 바다로 둘러싸인 세계에서 가장 작은 대륙이다.

기후는 령토의 40%가 열대(북부)이고 나머지는 아열대에 속한다.

계절은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가 여름이고 6월부터 8월까지가 겨울이다.

평균기온(멜보른)은 1월에 20°C, 7월에 9°C이며 한해 비내리는량은 중부와 서부지역이 250mm, 동부바다가와 산비탈지역이 1,000~2,000mm이다.

최근년간 이 나라에서는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이상기후현상이 자주 나타났다.

1977년 1~2월에는 16년이래 처음 보는 무더위가 계속되였는데 시드니에서는 최고 섭씨 46도, 캔베라에서는 35도를 기록하였다.

5월에는 뉴 사우스 웨일스주에서 무더기비와 함께 직경 2.5센치메터의 우박이 쏟아져내렸다.

대륙내부에는 마리강이외에 사철 흐르는 강이 없으며 중부지역에서는 분수우물에서 솟는 지하수를 관개에 리용하고있다.

주민의 95%이상이 영국이주민 후손들이며 원주민은 약 5만명이 산다.

공용어는 영어이다.

정 치

제2차세계대전후 오스트랄리아는 미제의 침략적 군사동맹인 안쥬스, 세아토 및 아스파크에 가담하였으며 1950년에는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저들의 침략군대를 보냈다.

1971년 11월에 영국과 《영련방5개국방위조약》을 맺었으며 이외 미국과 공군및해군기지제공에 관한 군사협정을 맺었다.

1977년 2월에 오스트랄리아반동정부는 안쥬스를 더욱 강화할 목적밑에 핵무기들을 실은 미제의 군함들이 자기 수역에 항시적으로 주둔하며 이 배들이 오스트랄리아에 기항하는데 동의하였다.

또한 있지도 않는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라는 구실밑에 군사비지출을 늘이고있으며 1977년에는 미제의 지휘밑에 2월과 8월 그리고 10월과 11월에 대규모의 군사연습을 벌리면서 이 지역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켰다.

1977년 12월 시드니와 멜보른 인민들은 이 도시들에서 선거운동을 벌리는 프레이저놈을 반대하여 닭알과 얼음덩이 그리고 돌멩이를 던지면서 시위를 벌렸다.

12월 10일 상하량원선거가 진행되였으며 반동적인 자유당—지방당련합이 또다시 정권을 잡았다.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은 64명, 임기 6년, 3년에 한번씩 의원의 절반을 개선, 하원의원은 124명, 임기는 3년, 1977년 12월 10일 총선거결과 자유당과 지방당련합이 86석, 레이버당이 38석을 차지

총독 국가수반인 영국녀왕을 대신한다. 총독 젤만 코웬(1977년 12월—)

정부 1977년 12월 19일 자유당과 지방당의 련립정부 구성, 총리 존 말콤 프레이저(자유당 당수, 1975년 12월—), 외교부장 앤드루 피코크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0년 10월 30일에 창건, 1964년 3월 15일 두 파로 분렬, **자유당**(집권당) 금융 및 공업 독점체들의 리익을 대변, **지방당**(집권당) 대농장주및 목장주들의 리익을 대변, **레이버당**, **사회당**, **민주당** **로동조합리사회**, **공산주의청년운동**, **부녀련맹**, **평화리사회**

경제, 사회문화

오스트랄리아는 자본주의적 공업—농업국가이다.

이 나라 경제는 편파성이 심하다.

제2차세계대전기간에 군수공업이 급격히 늘어남으로써 공업생산의 몫이 높아졌으나 아직 농업이 큰 몫을 차지하고있다. 농목축업과 수산업이 국민총생산액에서 30%를 차지한다. 전령토의 1% 남

짓한 부분이 부침땅으로 리용되고있으나 그 대부분은 대토지소유자들이 가지고있다. 농업인구의 40%가 농업로동자이다.

농업에서는 밀생산과 축산업이 기본이다. 밀은 농업생산액의 약 20%를 차지하며 대부분이 수출된다. 이밖에 보리, 귀밀, 벼, 사탕수수, 목화, 담배, 사과, 포도 등을 재배한다.

1977년에 이 나라에서는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농축산업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폭우와 우박으로 뉴 사우스 웨일스주의 목화밭들이 황폐화되였으며 2천 500만딸라의 손실을 보았다.

또한 3개월간의 심한 가물로 하여 밀생산량이 대폭 줄어들었다.

주요집짐승은 양과 소이다. 양마리수와 양털생산량은 자본주의나라들가운데서 첫자리를 차지하며 양털생산의 80%이상을 수출한다.

이해 빅토리아주 서남쪽에서는 심한 더위로 인한 큰 산불로 약 300만마리의 양과 8만마리의 소가 불에 타죽는 혼란이 일어났다.

국민총생산액에서 공업은 약 70%를 차지한다.

주요공업부문은 기계, 금속, 채취 공업이며 이밖에 선박, 화학, 전기기계, 원유가공, 자동차조립 등 최근년간에 창설된 가공공업과 식료, 제분, 고기 및 과일 가공, 사탕, 섬유 공업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나 미국, 영국, 카나다, 일본 등 외래독점자본이 틀어쥐고있다.

주요수출품은 밀, 양털, 빠터, 고기, 가죽, 사탕, 과일 등이며 농축산물이 수출총액의 60%를 차지한다. 주요수입품은 기계설비들과 천, 석유와 그 가공제품, 금속 및 화학 제품이다.

철길이 국내운수에서 기본으로 된다.

1977년에 오스트랄리아 경제형편은 악화되여 통화팽창률이 15~20%에 달하였다. 실업자수는 2만 7천여명이나 급격히 늘어나 1930년이래 최고기록인 50만명을 헤아리게 되였다.

주민의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에이에이피, 에이유피

신문 뱅가드(공산당기관지), 시드니 모닝 해랄드, 오스트랄리안, 데일리 텔레그라프, 웨스트 오스트랄리언, 트리뷴, 스코자프, 엘렐리 그리프

방송 오스트랄리아방송, 오스트랄리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3년 8월 오스트랄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문화교류위원회가 창설되였다.

1977년 5월 오스트랄리아 작가이며 기자인 윌프레드 버체드가 일본의 도꾜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강연을 진행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광범한 일본사람들과 사회계는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1977년 4월 11~16일까지 오스트랄리아 수도 캔베라에서 진행된 국제의회동맹 리사회 120차회의에 참가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회그루빠대표단이 오스트랄리아에 갔다.

뉴질랜드

넓이 26만 8,675km²
인구 304만 8,600명(1974년 9월)
수도 웰링톤(주민 30만 1,000명, 1970년)

자연 및 주민

뉴질랜드는 오스트랄리아대륙에서 남동쪽으로 2천키로메터 떨어져있는 두개의 큰 섬과 그 가까이의 여러개섬으로 이루어져있다.

령토의 대부분이 산지로 되여있으며 남쪽섬에는 불산이 많다.

해양성기후로서 추위와 더위의 차가 적다.

한해평균기온은 7월에 북쪽섬에서 12°C, 남쪽섬에서 5°C이며 1월에 북쪽섬에서 19°C, 남쪽섬에서 14°C이다.

한해평균 비내리는 량은 1,200mm이다. 그러나 서부해안에서는 2,000~3,000mm, 때로는 5,000mm에 이른다.

주민구성에서 영국인의 후손들이 기본을 이루며 원주민인 마오리족은 약 20만명 남아있다.

정 치

뉴질랜드는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1907년에 《영련방》안의 《자치령》으로 독립하였다.

뉴질랜드는 제2차대전후 미제에 추종하면서 침략적군사동맹인 안쥬스, 세아토, 아스파크에 가담하였으며 1950년에는 미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에 고용병을 대주었다. 또한 미제의 윁남침략전쟁에도 고용병을 대주었다.

이러한 대미추종정책으로 하여 1972년 11월 총선거에서 반동적인 국민당이 패배당하고 레이버당이 정권을 잡았다.

그러나 미영제국주의자들의 부추김밑에 1975년 11월 반동적인 국민당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였다.

국민당반동정부는 레이버당정부의 긍정적측면마저 깡그리 없애버리고 미제와 정치, 군사적 결탁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갔다.

1977년 2월 이 나라 총리는 뉴질랜드가 군사블럭의 테두리안에서 미국 및 오스트랄리아와의 긴밀한 련계를 계속 유지할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뉴질랜드 반동정부는 핵무기들을 실은 미국배들이

자기수역에 항시적으로 주둔하며 이 배들이 뉴질랜드와 오스트랄리아에 기항하는데 동의하였다.

1977년 9월 23일 뉴질랜드국회가 200마일경제수역설정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일원제, 임기 3년, 1975년 11월 29일 총선거결과 87석가운데서 국민당이 53석, 레이버당이 34석 차지

총독 국가수반인 영국녀왕을 대신한다.

총독 에드와드 데니스 블란델

정부 1975년 12월 국민당정부 수립, 총리 로버트 다비드 멀둔

정당, 사회단체; 공산당 1921년에 창건, 총비서 윌콕스, **국민당**(집권당) 매판자본가, 목장주 및 농장주들의 리익을 대변, **레이버당, 사회통일당, 사회신용정치동맹, 자유당, 로동련맹, 진보청년동맹, 녀성동맹**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농업과 목축업은 국민총생산액의 60%를, 축산물(고기, 양털, 빠터, 치즈)은 수출총액의 80%이상을 차지한다. 농업에 리용되는 땅중에서 90%가 방목지이며 5%가 부침땅이고 나머지는 나무심는 농장들이다. 50명 남짓한 대토지소유자들이 부침땅과 집짐승의 대부분을 독차지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밀이며 그밖에 보리, 귀밀, 강냉이, 감자 등을 심는다.

공업에서 기본은 젖가공품, 기름제품, 가죽제품 등 수출을 위한 축산물가공공업이다.

수출에서 기본은 양털, 고기, 빠터, 치즈 등 축산물이며 그외에 신문지, 목재, 팔프, 사과, 목초 및 그 종자, 물고기 및 그 가공품이다.

1977년에 뉴질랜드는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이였다.

1976년에 이 나라의 대외무역적자는 급격히 늘어나 10억딸라이상에 달하였다.

주민의 70%가 도시와 도시주변에서 살고있다.

주민의 대부분은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통신 남부태평양통신

신문 도미니온, 썬데이 타임스, 뱅가드, 피플즈 보이스, 뉴질랜드 헤랄드

방송 뉴질랜드방송, 뉴질랜드텔레비존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4년 5월에 뉴질랜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협회가 조직되였으며 1976년 5월 31일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뉴질랜드친선협회가 결성되였다.

피 지

넓이 1만 8,272km²
인구 58만 5,000명(1976년)
수도 수바(주민 약 8만명)

자연 및 주민

피지는 태평양서남부의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멜라네시아동쪽끝에 있는 섬나라이다. 비티 레부, 바누아 레부, 타웨이니 등 844개의 크고작은 섬들로 이루어졌는데 사람이 사는 섬은 160개뿐이다.

장마철은 12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이며 동부지역에서는 년간 약 3,000mm의 비가 내리지만 서부지역에서는 그 절반밖에 내리지 않는다.

한해평균기온은 여름에 28°C이며 겨울에도 20°C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주민은 피지사람(43%)과 인도계사람(51%)이며 그밖에 구라파사람, 중국사람, 혼혈인들이 산다.

공용어는 영어이며 멜라네시아어, 인도어도 쓴다.

정 치

피지는 1874년부터 영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통치를 받아오다가 1970년 10월 10일 영련방안에서 독립하였다.

독립후 동맹당정권이 수립되였으나 1977년 3월 선거에서 동맹당은 2석차이로 야당인 민족련맹당에 패배당하였다. 그러나 선거에서 승리한 민족련맹당이 내부의견상이로 총리직유일립후보를 내놓지 못하게 되였다. 총독은 동맹당 지도자 라투 세루 카미세세 마라를 또다시 총리로 지명하고 그에게 정부구성을 위임하였다. 그리하여 동맹당 지도자가 이끄는 과도정부가 구성되였다.

6월 1일 국회에서 이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이 제출되여 피지에서는 9월 25일 다시 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결과 동맹당이 승리함으로써 다시 정권을 잡았다.

피지정부는 태평양에서의 프랑스의 핵시험을 반대하여 1973년 5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다.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피지는 1977년 11월에 수역의 넓이를 12만 5천평방키로메터로부터 14만 7천 700평방키로메터까지 늘이며 나라의 30개섬들의 경제수역을 320키로메터로 설정할데 대한 법안을 발표하였다.

국회 상하량원제, 상원의원은 22명, 임기는 6년, 하원의원은 52명이며 임기는 5년, 1977년

9월 25일 선거결과 하원에서 동맹당이 36석 차지

총독 1970년 헌법에 의하여 영국녀왕을 대신하는 국가수반, 총독 죠지 카코바우

정부 총리 라투 세루 카미세세 마라(외교부장 겸임, 1977년 9월 25일 다시 선거됨)

정당, 사회단체; **동맹당**(집권당) 여러 인종대표들로 구성, **민족련맹당**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요농작물은 사탕수수, 야자, 바나나, 감자, 고구마, 나무감자, 땅콩, 생강과 벼 등이다. 농업생산이 국민총생산액의 약 30%를 차지한다.

한해 평균 사탕은 약 34만톤, 야자기름은 1만 7천톤 정도 생산된다. 사탕수출에서 해마다 3천만 피지딸라의 수입을 얻는다.

공업부문에는 사탕, 세멘트, 목재가공, 농산물가공 공장들과 기타 작은 규모의 수리소들이 있다.

금, 은, 망간 등의 지하자원이 채취된다.

주요수출품은 사탕, 야자기름, 금, 망간, 목재 등이며 식량, 천, 기계설비들을 수입한다.

관광업이 외화수입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피지사람들은 기독교, 인도사람들은 힌두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피지 타임스, 샤이 피지, 얼라이언스 뉴스 매거진, 피지 로이열 거제트

방송 피지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5년 4월 14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서부사모아

넓이 2,842km²(그중 우폴루섬 1,075km², 사바이이섬 1,650km²)

인구 15만 1,275명(1976년)

수도 아피아(주민 3만 2,201명, 1976년)

자연 및 주민

서부사모아는 태평양에 있는 뽈리네시아의 사모아제도 서쪽절반을 차지하고있다. 지리적으로 대양주로부터 미주로 통하는 중요한 배길에 놓여있다.

열대성기후로서 3월평균기온은 26.4°C, 7월평균 기온은 25.1°C이며 한해평균비내림량은 4,500～5,00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사모아사람(뽈리네시아족)이며 그밖에 혼혈인, 구라파사람 등이 있다.

공용어는 사모아어와 영어이다.

정 치

1962년 1월 1일 서부사모아는 뉴질랜드의 《위임통치령》에서 벗어나 독립하였으며 1970년 8월 28일 영련방성원국으로 되였다.

독립후 서부사모아는 두차례의 5개년계획을 수행하고 1975년부터 농업발전에 중심을 두며 공업을 다양화할것을 예견한 제3차5개년계획(1975—1979년)을 수행하고있다.

1977년 8월에 서부사모아 립법회의는 200마일경제수역을 선포하였다.

1976년에 서부사모아는 147번째성원국으로 유엔에 들어갔다.

1977년 10월 총리가 카나다를 방문하였다.

립법회의 일원제, 의원수 47명, 임기 3년

국가수반 마리에토아 타누마필리 2세

정부 총리 타이시 투푸올라 투푸기 에피(외교부장 겸임)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며 주민의 70%가 농사한다.

주요농작물은 코코아, 코프라, 바나나이다. 코코아는 질좋은것으로 이름이 있다. 1975년에 173만 4천톤의 코코아가 생산되였다.

수산업도 경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많은 주민들이 물고기잡이를 한다.

지하자원은 발견된것이 없으며 공업은 거의 발전되지 못하였다.

독립후 목재가공, 가구, 과일통졸임, 비누, 옷, 식료품 등 소규모가공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하였으며 초물제품 등 수공업생산도 활발하다.

주요수출품은 코코아, 바나나, 코프라, 수산물, 목재이며 수입품은 사탕, 천, 고기, 기계류이다.

주요무역대상나라는 영국, 뉴질랜드, 오스트랄리아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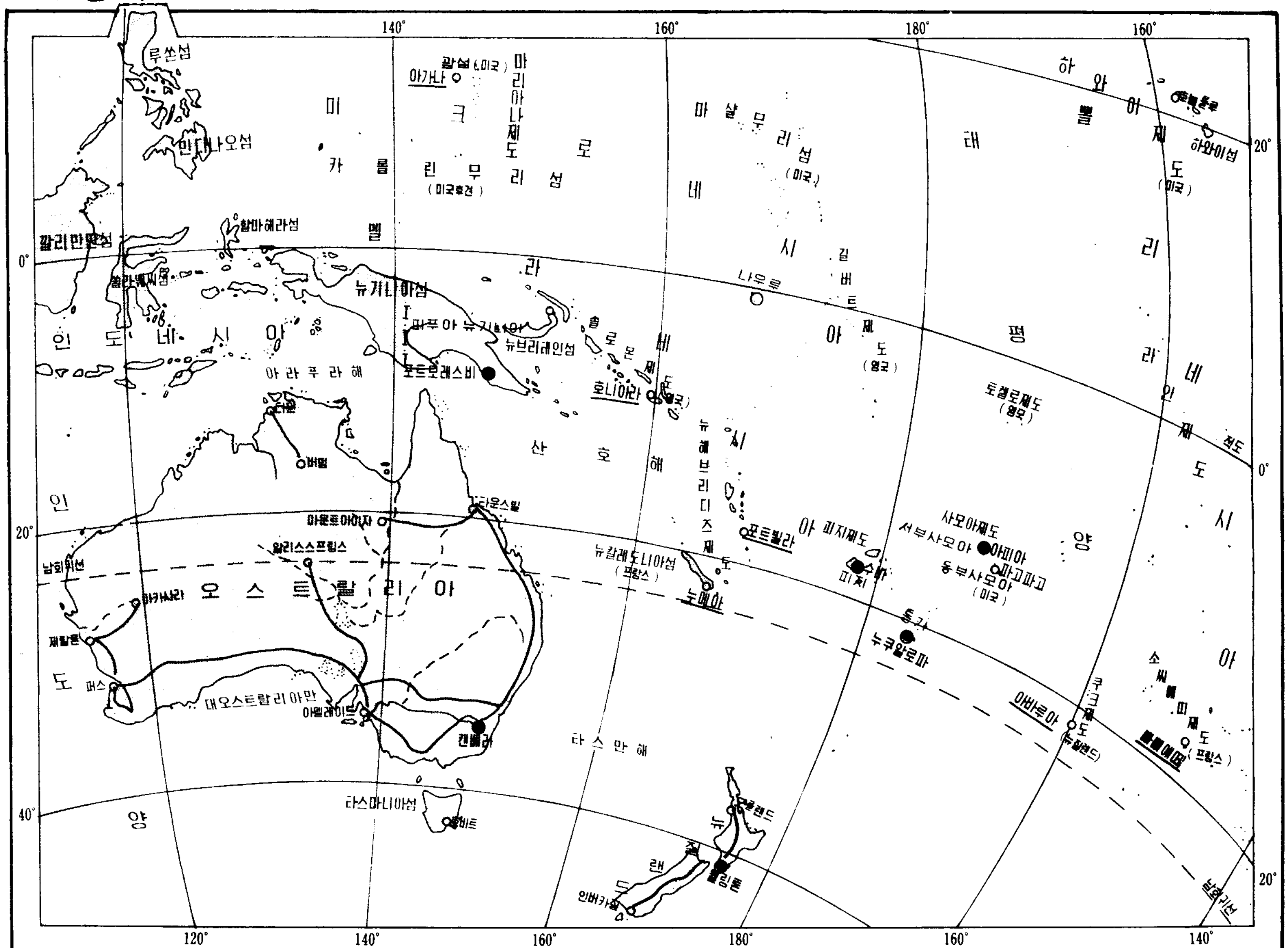
1976년에 195개의 초등학교와 15개의 중등학교가 있었다.

주민의 대부분이 기독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신문** 아피아 애드버타이저, 사모아 타임스, 사발리

방송 서부사모아방송

대 양 주



루쏜섬
민다나오섬
깔리만딴섬
할마헤라섬
뉴기니아섬
파푸아 뉴기니아
포트모레스비
뉴브리테인섬
아라푸라 해
인 도 네 시 아
괌섬 (미국)
아가나
마리아나제도
미 크 로 네 시 아
카 롤 린 무 리 섬
(미국후견)
멜 라 네 시 아
마 샬 무 리 섬
(미국)
나우루
길 버 트 제 도
(영국)
솔 로 몬 제 도
호니아라
산 호 해
뉴헤브리디즈제도
뉴칼레도니아섬
(프랑스)
누메아
포트빌라
피지제도
수바
피지
토켈로제도
(영국)
사모아제도
서부사모아
아피아
동부사모아
파고파고
(미국)
통가
누쿠알로파
쿠크제도
(뉴질랜드)
아바루아
소씨에떼제도
(프랑스)
하 와 이 제 도
(미국)
하와이섬
태 평 양
적도
남회귀선
다윈
버컴
타운스빌
마운트아이자
알리스스프링스
오 스 트 랄 리 아
카가살리
제랄톤
퍼스
대오스트랄리아만
아델레이드
캔베라
타스만 해
타스마니아섬
호바트
뉴 질 랜 드
오클랜드
웰링톤
인버카길
인 도 양
140°
160°
180°
0°
20°
40°
120°

동부사모아

(미국식민지)

넓이 197km²
인구 3만 1,000명(1974년)
행정중심지 파고파고

동부사모아는 태평양에 있는 뽈리네시아의 사모아제도 동쪽을 차지하고있다. 주요섬들은 루투일라, 마누아, 르스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뽈리네시아사람들이며 3천명정도의 혼혈인과 백인들이 산다.

원래 동부사모아는 서부사모아와 한나라였다. 오래전부터 군사적의의가 있는 동부사모아에 눈독을 들여온 미제는 1899년에 독일이 서부사모아를 강점하자 나머지 동부사모아를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다. 파고파고에는 미제의 해군기지가 있다.

미제가 임명하는 총독놈이 립법권과 행정권을 쥐고있다.

주요농작물은 코프라, 코코아, 바나나, 사탕수수이다.

주민들은 물고기잡이도 한다.

파푸아 뉴기니아

(파푸아 뉴기니아자주국가)

넓이 46만 1,696km²
인구 282만 9,000명(1976년)
수도 포트 모레스비(주민 7만 6,507명, 1971년 7월)

자연 및 주민

파푸아 뉴기니아는 태평양서남부의 멜라네시아지역에 속하며 인도네시아의 동쪽, 오스트랄리아대륙의 북쪽에 자리잡고있는 뉴기니아섬의 동쪽절반을 차지하고있는 섬나라이다. 주변에 있는 약 600개의 섬들이 포함되여있다.

기후는 열대권에 속하므로 해발 1,000m까지의 지역에서는 찌는듯 무덥다. 한달 평균기온은 25～28°C이며 비가 많이 내린다.

주민은 약 1천개의 종족들로 이루어졌다.

700가지의 언어와 사투리를 쓴다.

정 치

1973년 12월 1일 파푸아 뉴기니아인민은 오스트랄리아의 식민지통치를 반대하는 투쟁을 통하여 《자치권》을 쟁취하였으며 1975년 9월 16일 독립을 선포하였다.

독립후 파푸아 뉴기니아정부는 외국독점회사들의 광산 및 석유채취값을 높이며 주권의 일부를 가지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정부는 외래독점체들의 리윤을 제한하고 백인관리놈들의 각종 특권을 점차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1977년 2월에 령해를 12마일로, 어로전관수역을 200마일로 선포하였다.

1977년 7월 파푸아 뉴기니아에서는 독립후 처음으로 국회선거가 진행되였다. 선거결과 《광구 파티》당 및 인민진보당의 련립정당이 109개의석중 60석을 차지하였으며 8월 10일 이 두당의 련립정부가 구성되였다.

1977년 1월에 파푸아 뉴기니아는 웽그리아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이해에 파푸아 뉴기니아총리가 인도네시아(1월), 일본(12월) 등을 방문하였다.

국회 일원제, 의석수 109석, 1977년 7월 총선거 진행

총독 1975년 8월 15일에 채택된 첫헌법에 의하여 국가수반은 영국녀왕, 총독 토레로 코로코

정부 1977년 8월 10일 《광구 파티》당 및 인민진보당의 련립정부 구성, 총리 미차엘 토마스쏘마레, 외교부장 니위아 에비아 올레왈레

정당; **《광구 파티》당** (집권당), **인민진보당**(집권당), **민족당**, **통일당**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농업이다. 주민의 90% 이상이 농사한다. 아직도 농업생산의 절반은 외국인농장주놈들이 틀어쥐고있으며 여기에서 원주민들이 힘겹게 일하고있다.

주요농작물은 코코아, 커피, 차, 코프라, 바나나이며 알곡작물로서 벼, 강냉이, 고구마, 감자를 심는다.

농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조치에 의하여 묵은 땅을 일구는 사업이 진행되고있으며 국영농장들이 조직되고있다.

주민들은 소, 양, 돼지, 닭 등 집짐승들을 기르며 물고기잡이도 한다.

채취공업을 내놓고는 아직 공업기업소들은 큰것이 없다.

주요지하자원으로는 동, 금, 은, 망간, 주석, 연, 아연, 보크사이트, 니켈, 석탄, 원유 등이 있다. 부게인빌섬에는 남반구에서 제일 큰 동광산이 있다. 이 나라 외화수입의 3분의 2가 동수출에서

얻어진다.

독립후 작은 규모의 가공공장들이 세워져 일부 식료품과 일용품을 자체로 생산공급하고있으며 지방의 원료와 재료를 리용한 수공업제품들이 나오고있다.

공업과 무역의 기본 명맥은 미국, 일본, 오스트랄리아 등의 외래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다. 일본독점체들은 《장기개발》이란 명목밑에 수력발전소건설, 동광, 림산 및 수산업 부문에 침투하고있다.

주요수출품은 동과 기타 광물, 코코아, 커피, 차, 코프라, 고무, 목재 등이다.

1975년 4월부터 자기 나라 돈 《키나》를 쓴다.

수백년동안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인민들의 생활수준은 아직 낮다.

학령아동의 50%가 초등학교에 다닌다.

파푸아 뉴기니아대학이 있다.

출판보도; **신문** 라에 뉴스, 파푸아 뉴기니아 포스트—코리어, 아우오 뉴스, 원토크

방송 파푸아 뉴기니아전국방송, 뉴기니아텔레비죤방송

우리 나라와의 관계

1976년 6월 1일 우리 나라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다.

누벨 깔레도니아

(프랑스해외령)

넓이 1만 9,103km²
인구 13만명(1976년)
행정중심지 누메아

자연 및 주민

누벨 깔레도니아는 멜라네시아의 동남부, 오스트랄리아동북쪽에 있는 긴 섬들로 되여있다.

기후는 아열대성기후이다. 한해평균기온은 20°C 안팎이며 비가 많이 내린다.

주민의 기본은 프랑스의 백인후손들이며 기타 소수민족이 산다.

공용어는 프랑스어이다.

정 치

1860년에 누벨 깔레도니아는 프랑스의 식민지로 되였으며 1958년에는 프랑스의 《해외령》으로 되였다.

식민지통치기구 프랑스고등판무관이 형식상의 협의기관인 《해외령의회》를 두고 통치한다.

정당, 사회단체; **깔레도니아동맹당, 누벨 깔레도니아당, 누벨 깔레도니아다인종운동당, 누벨 깔레도니아자치로동조합동맹**(1971년 6월 이 동맹대표가 우리 나라 사로청 제6차대회에 참가)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광업이다. 니켈, 크롬, 철광석, 코발트, 망간, 동, 금 등을 캐낸다. 품위가 높은 니켈과 크롬은 세계적으로 이름 있다.

커피, 코프라, 남새 생산을 위주로 하는 농업과 소를 기본으로 하는 목축업 그리고 림업 및 수산업이 있다.

경제의 주요명맥은 프랑스제국주의자들이 틀어쥐고있다.

니켈, 크롬, 철광석을 비롯한 광물, 목재, 가죽, 코프라, 커피를 수출하고 공업품, 식료품을 수입한다.

주민의 40%이상이 신교를 믿는다.

출판물로서는 불레졘을 발간한다.

나 우 루

(나우루공화국)

넓이 21km²
인구 7,000명(1974년)
수도 따로 없고 정부기관은 몇개의 주민지역들에 널려있다.

자연 및 주민

나우루는 미크로네시아의 마샬군도에 속하여있는 적도 바로 남쪽의 외딴 섬나라이다.

이 나라에는 비도 비교적 적게 오며 열대 태풍도 없다.

주민은 미크로네시아계통의 원주민이 기본이며 2천여명의 다른 섬의 이주민, 중국사람, 구라파사람 등이 있다.

공용어는 나우루어와 영어이다.

정 치

나우루는 1888년에 독일침략자들의 식민지로 된 이후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번갈아 외래침략자들에게 식민지통치를 강요당하였다.

1947년에 《유엔후견령》으로 되였으며 1966년에는 《자치권》을 부여받았다.

1968년 1월 31일 나우루는 영련방 준성원국으

로 독립하였다.

립법회의 일원제, 총의석 18석, 1977년 11월 총선거결과 나우루당이 10석 차지

대통령 국가및정부(국가리사회) 수반, 임기 3년, 립법회의 의원들속에서 선출, 대통령 베르나르드 도위요고(1976년 12월—, 1977년 11월 15일 다시 선거)

국가리사회 집행기관이며 총리기능은 대통령이 겸한다.

정당; **나우루당**(집권당)

경제, 사회문화

경제의 기본은 린광석채굴이다. 전령토의 5분의 4에 린광석이 깔려있다.

1970년 6월부터 외래독점체들이 틀어쥐고있던 린광석채굴을 국영린광석회사가 통제하고있다. 채취되는 린광석의 80%는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에 수출된다.

주요수출품은 린광석이며 주요수입품은 기계류, 자동차, 일용품, 식량 등이다.

주로 영련방성원국들과 무역한다.

화폐는 오스트랄리아딸라를 쓴다.

주민들은 신교를 믿는다.

출판보도; 불레찐

방송 나우루방송

통 가

(통가왕국)

넓이 697km²

인구 10만 105명(1975년)

수도 누쿠알로파(주민 2만 5,000명, 1973년)

자연 및 주민

통가는 태평양의 뽈리네시아지역 서남부, 사모아제도의 동남쪽에 있는 150개의 불산섬과 작은 섬들로 이루어졌다.

기후는 열대성기후이며 바람이 세게 분다. 한해평균기온은 22°C이며 한해비내리는량은 1,250mm 이다.

주민의 대부분이 통가사람(뽈리네시아족)들이다.

공용어는 통가어(뽈리네시아어)와 영어이다.

정 치

통가는 태평양의 여러 섬나라가운데서 유일한 왕국이다.

1900년에 영제국주의자들이 통가에 이른바 《우호조약》을 강요하여 제놈들의 《보호령》으로 만들었다.

1970년 6월 4일 통가는 영련방안에서 독립하였다.

통가는 인도양을 평화지대로 만들데 대한 문제에 지지를 표시하고있다.

립법회의 22명의 의원들로 구성, 임기 3년, 추밀원의원, 귀족의원, 평민의원들로 구성, 평민의원 7명만 선거, 1975년 5월에 선거 진행

국왕 국가수반이다. 국왕직속으로 비밀리사회가 있다. 국왕 타우파아하우 투포우 4세(1965년—)

정부 총리 파타페히 투이펠레하케(왕자)

경제, 사회문화

주민의 대부분이 농사한다. 로동인구의 74%가 농사한다.

주요농작물은 코프라, 바나나, 파이내플, 고구마, 감자, 나무감자 등이다.

축산업과 수산업도 한다.

목재가공공장과 작은 농산물가공공장들이 있다. 1968년에 원유밭이 발견되였다.

수출품은 코프라, 바나나이며 식량, 생활필수품을 수입한다. 무역은 영국,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 일본과 주로 한다.

통가, 피지, 서부사모아를 련결하는 배길이 있다.

여러개의 중학교와 교원대학이 있다.

3개의 국영병원과 많은 진료소가 있다.

기독교가 우세하다.

출판보도; **신문** 통가크로니클(정부계)

방송 통가방송

괌 섬

(미국식민지)

넓이 549km²

인구 10만명 (1976년)

행정중심지 아가냐

자연 및 주민

괌섬은 태평양서부 미크로네시아의 마리아나제도 가운데서 제일 큰 섬이다.

기후는 열대철바람기후로서 몹시 더우며 비가 많이 내린다. 한해평균기온은 26~27°C이며 한해

평균비내리는량은 3,000mm이다.

주민의 대부분은 미크로네시아족 원주민이며 그밖에 필리핀사람, 일본사람, 혼혈인 등이 있다.

정　치

1898년 미국—에스빠냐전쟁에서 에스빠냐가 진결과 그해 12월 10일 《빠리강화조약》에 의하여 괌섬은 미국의 식민지로 되였다.

제2차세계대전시기 일제가 일시적으로 강점하였다가 1944년에 미제가 다시 강점하였다.

1950년에 미제는 이 섬에서 《민정이양》놀음을 벌리고 주구들을 내세워 통치하고있다. 형식상 립법기관(상하량원제) 이 있으나 친미정당인 민주당이 의석을 독차지하고있다.

미제는 이 섬에 공군 및 해군기지들과 공급기지들을 설치하고 아세아침략과 태평양에서 지배권을 쥐기 위한 전초기지로 리용하고있다.

경제, 사회문화

부침땅은 약 3천 700에이커에 달한다.

주요농작물은 강냉이, 고구마, 감자, 코프라, 코코아, 파이내플, 바나나, 사탕수수 등이다.

공업은 없고 많은 주민들이 미제의 군사기지들에 봉사한다.

소학교가 몇개 있으며 주민은 대부분이 천주교를 믿는다.

미크로네시아

(미국후견령)

넓이 1,813km²
인구 10만 7,000명 (1971년)
행정중심지 하라판 (주민 1만명)

미크로네시아는 적도의 북쪽 서태평양에 있는 2천여개의 산호섬들로 이루어져있다.

미크로네시아는 유엔안보리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미국《후견령》의 통치를 받고있다.

미제는 미크로네시아 섬주민들의 자주권을 말살하고 제놈들의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려고 책동하고있다.

1975년 2월 15일 미제는 북마리아나제도(괌섬을 제외한 지역) 주민들의 자주권과 의사를 무시하고 《자치령협정》을 강요하여 조인케 하였다.

카롤린군도와 마샬군도에 대해서도 이러한 음흉한 계획을 꾸미고있던 미제는 1976년에 미크로네시아당국자들에게 이른바 《협정초안》을 강요하였다. 뒤이어 미국방부의 전쟁사환군놈들이 기여들어 이 지역을 《장기임차》의 구실밑에 핵무기를 포함한 새 무기시험장으로, 군사기지로, 군함정박장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수많은 《조약》들을 꾸며냈다.

마샬군도의 주민들은 완전한 독립을 주장하고있다.

미크로네시아에서 실권은 미국고등판무관놈이 쥐고 있다.

주민들은 코프라, 바나나, 코코아를 비롯한 열대농작물을 가꾼다. 카롤린군도에서는 린광석이 채취된다.

비키니섬은 미제의 핵시험의 후과로 30여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있다.

약 1천명의 원주민들이 섬에서 쫓겨나 다른 섬에서 헤매고있다. 우물들은 아직도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여 있고 판다나스나무와 빵나무에도 방사성물질이 검출되여 열매를 식량으로 리용하지 못하고있다.

솔로몬제도

(영국보호령)

넓이 9,785km²
인구 19만명 (1975년)
행정중심지 호니아라

솔로몬제도는 뉴기니아섬의 동쪽 비스마르크제도의 남쪽에 있는 여러개의 섬들로 이루어졌다.

주민의 기본은 원주민인 멜라네시아사람(약 15만명)이며 그밖에 뽈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계통의 사람들과 약간의 구라파사람들이 있다.

언어수가 70개를 넘는 부족사회이다.

1893년 영제국주의자들이 남부지역의 섬들을 강점하고 제놈들의 《보호령》으로 만들었다.

1952년까지 피지의 영국고등판무관놈이 이 제도를 통치하여 오다가 1953년부터는 호니아라에 직접 틀고앉았다.

영제국주의자들은 립법회의(1960년)와 정부리사회(1970년) 등 식민지통치기구를 두고 통치하고있다.

1976년 1월 4일 이 제도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마말로니를 총리로 하는 자치정부가 수립되였다. 그러나 실권은 영국고등판무관놈이 틀어쥐고있다.

주산물은 코프라, 코코아, 담배, 목재이다.

량 극 지 방

북 극 권

개관 아세아, 구라파, 아메리카 3대륙 북쪽의 일부, 그린랜드의 대부분과 북빙양이 속하는 북위66도 30분이북지역을 말한다.

넓이는 약 2천 500만평방키로메터인데 그중 바다넓이는 약 1천 435만평방키로메터이다. 북빙양의 가장 깊은곳은 5천 219메터이다.

15세기말 《지리적발견》이후 북극권에 대한 탐험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였다. 북서항로에서는 1497년에 뉴파운들랜드가 처음으로 발견되고 동북항로에서는 바렌츠해와 씨비리북부연안, 노바야제믈랴 등에 대한 탐험이 진행되였다. 1596~1597년에 스피츠베르겐군도가 발견된후 17세기에는 카나다의 북부와 주변 섬들, 18세기 전반기에는 베링해협이 발견되였다.

19세기후반기부터 북극권안의 륙지에 대한 탐험이 시작되였으며 1909년 4월 6일 처음으로 북극점에 도달하였다.

1969년 5월에 처음으로 북극권대륙횡단(걸어서 5천 800키로메터)에 성공하였으며 같은해 9월에 북서항공로가 개설되였다.

북극권안에 령토를 가지고있는 쏘련, 노르웨이, 스웨리예, 핀란드는 과학관측소를 설치하고 기상, 해양, 지구물리, 생물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있다. 1977년 8월 17일 쏘련원자쇄빙선 《아르끄찌까》호가 북극의 지리학적극지점에 당도하였다. 쇄빙선은 중앙북극지대의 강력한 얼음층을 극복하면서 계속 항행하여 항행사상 처음으로 지구의 최북단에 가닿았다. 쇄빙선의 북극 극지점도달은 극지점을 통과하여 해상항로를 낼수 있는 가능성을 주었다.

기후 기류와 해류의 영향을 받아 남극권보다 따뜻하다. 가장 추운철(1~3월)의 평균기온은 극중심지대에서 령하 40도, 대륙연안에서 령하 30도이다. 가장 더운철(7~8월)의 평균기온은 극중심지대에서 0도, 대륙연안에서 5~9도이다.

1년중 159일은 밤이 계속된다.

년평균강수량은 200~400미리메터인데 기온이 낮으므로 습도가 높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료에 의하면 북극지방의 얼음산면적이 그전보다 12%나 넓어졌다고 합니다. 얼음산이 커졌기때문에 한랭전선이 우리 나라의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고있습니다.》(《모든 힘을 알곡 800만톤고지 점령을 위하여》, 단행본, 17페지)

북극지방은 바다나 륙지나 할것없이 대부분이 두꺼운 얼음산으로 뒤덮여있다. 북빙양만보아도 얼음산면적이 1천 100만평방키로메터로서 구라파대륙보다 더 넓다. 북극권에 속하는 륙지의 대부분이 얼음으로 덮여있는데 그린랜드섬에서는 얼음층의 두께가 평균 1천 515메터에 달한다.

원래 찬기후를 가지고있는 북극지방이 최근년간 점점 더 차지고있다. 북극지방이 더 차지는 과정은 1940년경부터 시작하여 1958년경부터는 얼음산면적이 빨리 늘어났고 온도가 낮아졌다.

1968년부터 1974년까지 6년동안에 북극지방의 얼음산면적은 총체적으로 12% 더 넓어지면서 온도도 더 낮아지게 되였다.

한 실례로 쏘련의 북부까라해의 년평균기온은 3도나 낮아졌다.

이처럼 북극지방의 얼음산이 넓어지게 됨으로써 대서양북부로 흘러드는 얼음떼들이 늘어났으며 북태평양에서 가장 찬 흐름인 꾸릴해류가 이전보다 남쪽으로 더 내리뻗였고 오호쯔크해 남동부에서는 얼음이 열흘씩이나 앞당겨 얼게 되였으며 얼음떼들이 400키로메터나 더 남쪽으로 옮겨졌다.

이것은 북극지방의 얼음산면적이 커져서 태양광선 반사량이 많아지기때문에 해빛복사를 흡수하는 량이 적어지게 됨으로써 북극지방의 공기가 더 차지고 기온이 훨씬 떨어졌다는것을 말해준다.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있는 한랭전선이 더욱 강화되고있는것은 바로 여기에 원인이 있는것이다.

주민 약 12만명이다. 동부씨비리와 알라스카로부터 카나다의 빵그바지방 및 그린랜드지방에는 에스키모족(약 4만명), 서부씨비리와 노바야제믈랴에는 싸모예드족(약 2만명), 동부씨비리에는 뚜크치족, 알라스카와 카나다 북쪽에는 아메리카인 디안족, 북구라파의 북쪽에는 랍족이 산다.

자원 석탄, 석유를 비롯한 철, 동, 금, 은, 백금, 니켈, 흑연, 베릴리움, 빙정석, 돌소금, 돌솜등이 있다. 1977년 1월에 노르웨이북부해안과 북극사이에 있는 슈피츠베르겐제도에서 새로운 우라니움광상이 발견되였다. 북극지방의 대표적인 동물은 백곰(북극곰)이다.

북극지방에 령토를 가지고있는 쏘련, 노르웨이 등 5개 나라들중 3개 나라들이 1973년 11월 15일에 약 2만마리로 추산되는 북극곰의 보호를 위한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은 1976년 5월 26일부터 효력을 가지였다.

1977년 6월에 북극지역 에스키모인대표들의 첫 국제회의가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북극지역에서의 연해석유 및 가스 채취에 관한 유일규정에 합의하도록 모든 정부들에 호소하였다. 회의는 또한 북극지역에서 온갖 종류의 군사행동을 그만둘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북극인구정책의 수립, 국제북극연안지역관리 및 지방적으로 실시되는 야생동물을 관리할데 대하여 권고하였다.

남 극 권

개관 지구의 제일 남쪽끝에 있는 대륙과 태평양, 인도양 및 대서양의 일부로 이루어진 남위 60도이남지역을 말한다. (1958년 7월 남극관계 12개 나라 대표회의에서 결정)

넓이는 1천 320만평방키로메터이며 대륙해안선의 길이는 2만 4천 700키로메터이다.

1820년 1～2월에 로씨야의 탐험대가 대륙을 처음 발견하였으며 1894년에 노르웨이탐험대가 남극대륙에 처음 들어갔다.

1911년 12월 14일에는 노르웨이의 탐험대가 남극점에 처음 도달하였다.

남극대륙은 해발 2천～3천메터의 높이를 가진 고원지대로 되여있으며 도처에 4천 500～6천메터의 높이를 가진 산들이 있다.

남극권은 83%가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는데 이는 세계의 눈과 얼음 총량의 10분의 9를 차지한다. 얼음의 평균두께는 1천 800메터, 최고 4천 480메터나 된다.

1958년 1월에 관측된바에 의하면 남극점은 해면상 275메터의 암반우에 두께 2천 450메터의 대륙빙이 있고 그 우에 약 30메터의 눈과 얼음이 쌓여있는 해발 2천 755메터 지점이다.

기후 영구성동결기후로서 평균기온은 령하 30도이다. 가장 따뜻한 철(11～1월)에는 령하 5도이며 가장 추운철(6～7월)에는 령하 50도까지 내려간다. 1960년 8월 24일 대륙동부의 쏘련 워스또크관측기지부근에서 기온이 령하 88.3도까지 내려갔는데 이것은 지구상에서 관측된 제일 낮은 기온이다.

1년에 한번의 낮과 밤의 변화가 있다.

1976년에 남극에서의 하루 평균기온이 화씨 령하 58도(섭씨 령하 50도)로서 한 과학관측소가 20년전에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 남극에서 가장 추운해였다. 1976년에 남극에서 제일 추운 날은 8월 8일이였는데 이날 기온이 화씨 령하 104.8도였다. 또한 1976년 8월은 기록이 시작된 이래 가장 추운 달로서 하루 평균기온이 화씨 85.29도였다. 1월 17일의 기온은 화씨 령하 3.1도로서 제일 더운 날이였다. 1977년 8월 2일 남극에서 기온이 력사상 처음으로 빙점을 넘어 섭씨 6.7도였다.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낮이며 4월부터 8월까지는 밤이다.

남위 50도이남의 모든지역은 년중 폭풍이 일며 이데리해안에서는 풍속이 초당 30메터이상되는 날이 한해에 300일이나 된다.

그러나 퀸메리해안의 반카힐에는 얼지 않는 지대(500평방키로메터)가 있으며 최고기온은 8.3도, 최저기온은 령하 5.5도되는 고원지대도 있다.

자원 금, 은, 주석, 동, 몰리브덴, 찌따니움, 우라니움, 망간, 석탄 등이 있다. 펭긴새가 많으며 세계고래잡이량의 4분의 3이 남극권에서 난다. 식물은 300여종이 발견되였다.

남극대륙에 대해서는 1961년에 발효한 남극조약(12개나라가 참가)에 의하여 《령토권의 동결》, 《군사적리용의 금지》, 《과학조사의 자유와 국제협력》 등 평화적리용을 위한 3가지 원칙이 세워졌다.

최근년간 대륙탐사에 참가한 여러 나라들의 조사에 의해 서남극대륙주변의 대륙붕에 방대한 량의 석유, 천연가스가 매장되여있다는것이 확인되였으며 대륙의 여러 지역에서 석탄, 철광석, 우라니움, 망간 등의 광물자원과 오끼아미, 대구 등 생물자원이 두터운 얼음밑에 깔려있다는것이 판명되였다. 이로부터 조약참가국들사이에는 령토권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고있다.

1977년 9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진행된 제9차 남극조약협의회에서는 자원의 개발인가 보존인가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론쟁이 있었으나 결국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그속에서 될수록 효과적으로 리용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특히 오끼아미를 기본으로 하는 생물자원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 나라들이 조업하고있는 조건에서 협의회에서는 시급히 조업규정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1) 1978년에 남극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약을 만들것 2) 이를 위한 준비회의를 1978년봄에 오스트랄리아의 캔베라에서 열것을 결정하였다.

협의회는 또한 광물자원에 대해 토의하면서 석유가 있다는것은 확인되였으나 그것을 개발하기까지에는 아직도 5～10년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당면해서는 개발하기전에 과학적인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기로 하고 1978년에 1, 2차의 전문가회의를 열것을 결정하였다.



자 료

공동콤뮤니케, 성명, 보도일람 (1977년)

공동콤뮤니케

5월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가봉공화국사이의 공동콤뮤니케 평양에서 발표

6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사이의 공동콤뮤니케 평양에서 발표

8월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사이의 공동콤뮤니케 평양에서 발표

9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적도기네공화국사이의 공동콤뮤니케 평양에서 발표

9월 19일 말가슈민주주의공화국 외교부장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식방문에 관한 공동콤뮤니케 평양에서 발표

9월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버마련방사회주의공화국사이의 공동콤뮤니케 평양에서 발표

10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민주주의캄보쟈사이의 공동콤뮤니케 평양에서 발표

12월 1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독일민주주의공화국사이의 공동콤뮤니케 평양에서 발표

외교부 (대변인) 성명

4월 28일 일본정부가 4월 27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이른바 《일한대륙붕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을 강다짐으로 통과시켰으며 국회본회의에서 어떻게하나 이 《협정》을 비준케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대변인 성명

6월 7일 조일 두 나라인민들과 국제여론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남조선괴뢰도당과 비법적으로 체결한 《일한대륙붕협정》을 갖은 교활한 술책으로 국회회기를 연장시켜 《자연승인》하게 한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며 그의 무효를 선언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교부성명

9월 8일 이스라엘유태복고주의자들이 비법적으로 강점한 아랍땅에 유태인 《정착촌》을 조작하여 아랍땅을 영구히 강점하려는 야망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외교부대변인 성명

12월 13일 일본 아이찌현 경찰당국이 12월 6일 무장경찰을 동원하여 총련 아이찌현본부와 도순지부사무소를 비롯한 여러개소를 습격하고 총련일군들의 집을 수색하는 만행을 감행한것을 규탄하는 외교부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사 성명

7월 30일 조선중앙통신사는 7월 25일과 26일 서울에서 미국방장관일행과 남조선괴뢰도당사이에 이른바 《제10차 한미년례안보협의회》를 벌려놓았으며 회의끝에 《공동성명》이라는것을 발표한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여 성명

사회단체 성명

1월 2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유신》파쑈독재를 반대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남조선의 애국적인민들과 민주인사들의 투쟁에 련대성을 표시하여 성명

2월 1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남조선의 제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1월 25일 평양에서 진행된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내놓은 새로운 구국방안에 지체없이 호응해 나설것을 호소하여 성명

2월 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월 25일 평양에서 진행된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내놓은 새로운 구국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남조선의 제정당, 사회단체들, 각계각층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이 힘있게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여 성명

2월 3일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1월 25일 평양에서 진행된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내놓은 4개항목의 새로운 구국방안을 반대하는 박정희괴뢰도당을 규탄하면서 남조선의 로동계급과 각계각층 인민들이 이 새로운 구국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여 성명

2월 3일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는 평양에서 진행되였던 제정당,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내놓은 새로운 구국방안을 실현하는 투쟁에 남조선의 애국적청년학생들이 힘있게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여 성명

2월 4일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는 남조선의 농민들이 1월 25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던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내놓은 새로운 구국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여 성명

2월 4일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는 남조선의 각계각층 녀성들이 용감히 일떠나서 평양에서 진행된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내놓은 새로운 구국방안을 실현하는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여 성명

2월 5일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는 남조선의 작가, 예술인들에게 1월 25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던 제정당,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내놓은 구국방안을 실현하는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여 성명

2월 5일 조선기독교도련맹 중앙위원회는 남조선의 기독교인들에게 1월 25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던 제정당,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내놓은 새로운 구국방안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여 성명

2월 6일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1월 25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던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채택된 구국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투쟁에 남조선법률가들이 적극 합류하여 나설것을 호소하여 성명

2월 6일 조선불교도련맹 중앙위원회는 평양에서 진행되였던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채택된 구국방안에

호응하여 남조선의 불교도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여 성명

2월 8일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는 남조선언론인들에게 1월 25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던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내놓은 새로운 구국방안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과감히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여 성명

2월 9일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는 평양에서 진행되였던 제정당,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구국방안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투쟁에 남조선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 재야정치인사들이 적극 합류하여 나설것을 호소하여 성명

2월 9일 조선학생위원회는 남조선과 해외에 있는 모든 조선 학생단체들과 청년학생들에게 새로운 구국방안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 과감히 떨쳐나설것을 호소하여 성명

2월 10일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는 1월 25일 평양에서 진행된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내놓은 구국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애국투쟁에 아세아, 아프리카 인민들과 세계 모든 진보적인민들이 적극적인 지지와 련대성을 표시하여줄것을 호소하여 성명

2월 10일 세계인민들과의 조선련대성위원회는 전세계 평화애호인민들이 우리 나라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내놓은 4개항목의 새로운 구국방안을 지지하며 그 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련대성을 보내줄것을 호소하여 성명

2월 12일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1월 25일 평양에서 진행되였던 제정당,사회단체련석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구국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위업에 더욱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줄것을 세계 각국의 평화옹호단체들과 인민들에게 호소하여 성명

3월 13일 조선학생위원회는 남조선의 애국적청년학생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탄압만행을 폭로규탄하여 성명

3월 31일 조선학생위원회는 박정희괴뢰도당이 3월 28일 파쑈독재를 반대하고 학원의 자유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일떠선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한것을 규탄하여 성명

4월 2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민주인사들과 애국적인민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탄압만행을 폭로규탄하여 성명

4월 25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주장하여나선 수많은 애국적인민들과 민주인사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을 폭로규탄하여 성명

4월 26일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는 파쑈적탄압의 예봉을 학원에 돌리고 애국적청년학생들에 대한 폭압소동을 벌리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을 폭로규탄하여 성명

4월 28일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는 진보적인 언론활동을 봉쇄하고 량심적인 기자언론인들을 부당하게 체포구금하는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만행을 폭로규탄하여 성명

4월 29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이른바 《한일대륙붕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을 《법》적으로 매듭지으려고 책동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범죄행위를 규탄하여 성명

4월 30일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한일대륙붕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을 끝내 강행《채택》하고 그것을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받으려고 책동하고있는 일본반동정부의 범죄적인 행위를 규탄하여 성명

5월 1일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이른바 《한일대륙붕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을 어떻게 하나 성사시키려고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는 일본정부당국의 처사를 폭로규탄하여 성명

5월 1일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주장하여나선 《민주구국헌장》관련자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폭압책동을 폭로규탄하여 성명

5월 4일 조선기독교도련맹 중앙위원회는 애국적인민들과 종교인들에 대한 파쑈적폭압을 계속 감행하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을 규탄하여 성명

5월 12일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일한대륙붕공동개발에 관한 협정》비준을 성사시키려고 계속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는 일본반동들을 규탄하여 성명

5월 13일 조선아세아아프리카단결위원회는 《일한대륙붕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을 강다짐으로 성사시켜보려고 계속 집요하게 발악하고있는 일본반동들을 규탄하여 성명

5월 14일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조선위원회는 《일한대륙붕협정》을 기어이 성사시키기 위하여 발악하고있는 일본반동들의 범죄적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6 3월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우리 공화국과 일본에 있는 교포들을 반대하기 위하여 극히 위험한 모략행위를 감행하고있는 남조선괴뢰들을 폭로규탄하여 성명

6월 2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6.25를 계기로 극히 모험적인 전쟁연습소동을 련이어 벌리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을 규탄하여 성명

6월 26일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는 우리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소동을 련일 미친듯이 벌리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을 규탄하여 성명

6월 26일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전쟁연습소동을 그칠새없이 벌리면서 남조선전역에 전쟁분위기를 조성하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을 규탄하여 성명

6월 27일 조선민주법률가협회는 김대중랍치사건을 조작한 박정희괴뢰도당의 죄행을 규탄하여 성명

6월 27일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는 미제의 지시와 조종밑에 조선인민을 또다시 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기 위한 새 전쟁도발책동에 더욱 미쳐날뛰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을 규탄하여 성명

6월 28일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는 미제의 부추김밑에 도발적인 전쟁소동을 감행하고있는 남조선호전분자들의 책동을 규탄하여 성명

6월 28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김대중랍치사건을 직접 지휘한 박정희역적의 죄행을 규탄하여 성명

6월 2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김대중랍치사건을 직접 지휘한 박정희역적의 죄행을 규탄하여 성명

7월 1일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김대중랍치사건과 대미뢰물비행을 총지휘한 박정희역적의 죄행을 규탄하여 성명

7월 4일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는 김대중랍치사건을 직접 조직하고 지휘한 박정희역도의 죄행을 규탄하여 성명

7월 8일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는 만고역적 박정희괴뢰도당의 극악무도한 테로와 랍치, 인간도살행위를 규탄하여 성명

7월 9일 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는 인간쓰레기 박정희역적놈의 간악무도한 깡패행위와 사대매국행위를 규탄하여 성명

7월 26일 조선꾸바단결위원회, 조선직업총동맹,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조선민주녀성동맹, 조선학생위원회들은 《꾸바인민과의 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공동성명

8월 31일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중앙위원회와 조선학생위원회는 남조선의 애국적청년학생들에 대한 살인재판을 벌리고 가혹한 형벌을 들씌운 박정희괴뢰도당을 규탄하여 성명

9월 25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일본당국이 총련제11차전체대회에 참가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축하단의 일본입국을 거부한것을 규탄하여 성명

10월 4일 조선체육지도위원회는 9월 29일 일본당국이 일조체육교류협회의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되여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육대표단이 총련을 방문하는것은 인정할수 없다고 한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여 성명

12월 9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는 일본당국이 남조선괴뢰도당과의 결탁밑에 총련조직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있는것을 규탄하여 성명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6월 18일 조선중앙통신사는 아르헨띠나당국이 6월 14일 우리 나라와 일방적으로 국가관계를 단절하는 행위를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발표

7월 15일 조선중앙통신사는 우리측 령공에 대한 미군용직승기의 침입사건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발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2월 2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파쑈분자들이 서울과 지방의 대학들에서 대학생들을 무더기로 내쫓거나 처벌하는 파쑈적폭압소동을 벌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1호를 발표

2월 2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파쑈분자들이 민주인사들과 언론인, 종교인들에 대한 탄압소동을 그 어느때보다 강화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2호를 발표

3월 1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당국자들이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싸우는 애국적청년학생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더욱 강화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3호를 발표

3월 1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에서 애국적청년학생들에 대한 파쑈분자들의 탄압만행이 련이어 감행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4호를 발표

3월 2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괴뢰군이 남조선강점 미군과 함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전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군사연습소동을 벌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5호를 발표

3월 2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괴뢰도당이 3월 22일 《민주구국선언사건》관련자들에 대한 형벌을 최종적으로 확정한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6호를 발표

3월 3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괴뢰도당이 파쑈독재를 반대하고 학원의 자유와 사회의 민주화를 위하여 싸우는 남조선청년학생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7호를 발표

4월 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박정희괴뢰도당이 이른바 《긴급조치9호위반사건항소심선고공판》놀음을 벌리고 4명의 기독교목사들에게 실형을 선고한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8호를 발표

4월 7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박정희괴뢰도당이 동족을 무서운 병균으로 독살하고 신장을 뽑아 미국세균전범자들에게 팔아넘기는 범죄행위를 감행하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9호를 발표

4월 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이 나라의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전쟁연습소동을 벌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10호를 발표

4월 1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애국적청년학생들과 인민들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인 탄압만행이 더욱 우심해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11호를 발표

4월 1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박정희파쑈도당이 남조선 청년학생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매일과 같이 벌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12호를 발표

4월 1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파쑈무리들이 종교인들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의로운 투쟁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13호를 발표

4월 2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이 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을 반대하고 긴장상태를 격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군사훈련소동을 련일 벌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14호를 발표

4월 2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괴뢰들이 민족적대단결과 나라의 평화통일을 반대하고 민족내부에 불화와 반목, 분렬을 고취하는 범죄적인 《반공》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15호를 발표

5월 1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괴뢰도당이 북과 남의 대결을 고취하고 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키는 전쟁준비책동을 날로 더욱 격화시키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16호를 발표

5월 2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박정희괴뢰도당이 남북대결을 고취하며 민족의 영구분렬을 꾀하는 범죄행위를 강화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17호를 발표

5월 3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괴뢰도당이 청년학생들속에서 《반공》과 대결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책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18호를 발표

6월 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괴뢰도당이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고 총련과 재일교포들을 모해하며 남조선민주인사들을 탄압하는 범죄행위를 련이어 감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19호를 발표

6월 12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박정희역적의 대미뢰물행위의 진상이 새롭게 드러난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20호를 발표

6월 1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박정희역적이 남조선에서 6.25를 앞두고 전쟁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21호를 발표

7월 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박정희괴뢰도당이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도발소동을 더욱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22호를 발표

8월 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박정희괴뢰도당이 남조선에서 8.15를 앞두고 광란적인 전쟁연습소동을 더욱 빈번히 벌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23호를 발표

8월 1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괴뢰들이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전쟁준비에 해외교포학생들까지 끌어들이는 매족행위를 감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24호를 발표

8월 13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괴뢰들이 미국에 있는 교포학자들까지 끌어들여 서울에서 이른바 《내외정치학자들의 합동학술대회》라는것을 벌려놓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비렬한 책동을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 25호를 발표

8월 2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괴뢰들이 일본 도꾜 한복판에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해외의 각계 인사들에 대하여 야만적인 파쑈테로행위를 감행한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26호를 발표

9월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박정희괴뢰도당이 북과 남사이의 반목과 대결을 고취하는 위험한 불장난을 거듭 벌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27호를 발표

9월 10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파쑈와 대결, 분렬을 추구하는 검은 속심을 로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을 규탄하여 보도 제28호를 발표

9월 2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박정희괴뢰도당이 미지상군의 《계단식철수》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무력증강과 전쟁준비책동에 미쳐날뛰고있는것을 규탄하여 보도 제29호를 발표

10월 9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남조선에서 《유신체제》조작 5년이 되는 날을 앞두고 일며선 청년학생들에 대한 일대탄압선풍이 휘몰아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30호를 발표

10월 1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박정희괴뢰도당이 《유신》파쑈독재에 항거하여 일며선 청년학생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 31호를 발표

10월 1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박정희괴뢰도당이 미일반동들과 군사적결탁을 강화하면서 전쟁연습과 군사훈련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32호를 발표

11월 1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박정희괴뢰도당이 《유신》체제에 항거해나선 남조선의 애국적청년학생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는것을 규탄하여 보도 제33호를 발표

11월 1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11월 11일밤 전라북도 리리에서 역구내에 머물러있던 화차에서 막대한 량의 화약이 폭발하여 무고한 1천 100여명의 시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고 근 1만채의 주택이 파괴당하는 일대 참사가 빚어진것과 관련하여 보도 제34호를 발표

12월 5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박정희괴뢰도당이 살인재판을 벌려놓고 공화국북반부의 우표를 수집한 남조선 주민들에게 징역형을 들씌운것과 관련하여 이를 규탄하는 보도 제35호를 발표

공동보도 및 공동성명

6월 29일 뽈스까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식친선방문에 관한 공동보도 평양에서 발표

7월 16일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청년동맹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에 관한 공동보도 평양에서 발표

8월 21일 웽그리아인민공화국 외교부장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에 관한 보도 평양에서 발표

9월 5일 조선대외문화련락협회대표단과 일조우호촉진의원련맹대표단사이의 공동성명 평양에서 발표

9월 15일 희랍공산당(국내)대표단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방문과 관련한 공동보도 평양에서 발표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비서장회의, 경무관회의)일람
(1977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

제383차회의: 5월 9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적들이 있지도 않은 이른바 《사건》을 날조해가지고 떠드는데 대하여 강력히 론박하고 정전협정을 계속 위반하며 비무장지대와 공동경비구역안에서 우리측을 반대하는 여러가지 범죄행위를 감행하고있는데 대하여 적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하였다.

우리 측은 적들이 떠들어댄 5월 3일에 있었다는 이른바 《사건》이란 남조선괴뢰도당이 꾸며낸 전혀 있지도 않은 완전한 허위날조라고 규탄하면서 우리측에서는 단 한명의 군사인원도 군사분계선을 넘어 적측 지역에 간 일이 없으며 더우기 남조선괴뢰군에 대하여 총사격을 한 일도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우리측은 남조선괴뢰도당이 있지 않은 허위사건을 날조하여 우리측을 반대하는 광란적인 전쟁소동을 벌리고있는것은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위반하고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는 제놈들의 죄행을 가리우는 동시에 정세를 격화시킴으로써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고 어떻게 해서나 미군을 남조선에 계속 붙잡아두기 위한 구실을 만들며 남조선에서 감행하고있는 제놈들의 파쑈적폭압과 탄폭한 인권유린행위를 규탄하는 세계여론을 무마하고 세계인민들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보려는데 그 흉악한 기도가 있다고 폭로규탄하였다.

우리측은 우리 나라에서 긴장상태를 제거하고 평화를 유지공고화하며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적들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행위와 전쟁책동이 지체없이 중지되여야 한다고 강조한 다음 적들은 현실을 똑똑히 보고 분별있게 처신하며 정전협정위반행위를 근절하고 긴장성을 제거하기 위한 실제적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적측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제384차회의 : 우리측 제의에 의하여 7월 1일 판문점에서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적들이 6월 25일 전선동부에서 우리측을 반대하여 감행한 엄중한 총포사격행위와 비무장지대와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구역 및 공동경비구역에서 우리측을 반대하는 여러가지 적대적도발행위를 감행한데 대하여 적측에 강력히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하였다.

그리고 우리측은 적들이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남조선에 버티고앉아 우리 인민을 반대하는 전쟁책동에 매여달린다면 구경은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적들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제385차회의: 7월 16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적들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7월 14일 우리측의 령공에 군용직승기를 침입시킨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것을 적측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회의에서 적측은 적들의 군용직승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측 지역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살아남은 승무원과 시체들을 관대히 돌려줄것을 제기하였다.

적측은 이를 위하여 우리측이 내놓는 어떠한 제안도 다 접수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앞으로 다시는 적들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한 조치를 취하리라고 보고 살아남은 승무원과 시체들을 인도주의적립장에서 적측에 넘겨줄것이라고 말하였다.

적측이 격추된 직승기를 돌려달라고 한데 대하여서는 적측의 직승기는 격추될때 파괴되였다, 적측 군사인원들이 우리측 령공을 침범하는데 리용한 직승기잔해를 적측에 돌려줄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고 우리측은 단호히 언명하였다.

회의에서는 살아남은 승무원과 시체 인도인수와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는 쌍방 비서장들이 처리하게 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비서장회의

제448차비서장회의: 7월 16일판문점에서 진행된 이 회의에서는 우리측 령공에 침입하였다가 격추된 미군용직승기에 타고있던 살아남은 승무원과 시체들을 넘겨주는것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회의에서 우리측은 적측으로부터 인수증을 받고 살아남은 승무원과 3구의 시체들을 적측에 넘겨주었다.

제449차비서장회의: 10월 26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이 회의에서 우리측은 적들이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하늘과 땅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여 감행한 군사적도발행위와 위반행위들을 항의규탄하고 적측에 책임을 추궁하였다.

회의에서 우리측 비서장은 적들이 론의대상으로 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시비질할것이 아니라 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있는 제놈들의 범죄적책동을 중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 응당한 주목을 돌려야할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측비서장은 조선에서 현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이 아니라 실지 행동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우리측은 적들이 금후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주시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군사정전위원회 경무관회의

8월 5일회의: 판문점에서 진행된 이 회의에서 우리측 경무관은 적측 경비성원들이 감행한 도발행위와 위반행위에 대하여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하였다.

8월 13일회의: 판문점에서 진행된 이 회의에서 우리측 경무관은 8월 5일 경무관회의가 진행된후 적측 경비인원들이 공동경비구역에서 우리측을 반대하는 여러가지 도발행위와 위반행위를 감행한데 대하여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하였다.

우리측 경무관은 적측 경비인원들의 련속적인 도발행위들은 전적으로 정전협정과 쌍방간의 합의리행에서의 적측의 무책임성과 불성실성에 기인되는것이라고 하면서 적측이 저들의 경비인원들을 분별없는 도발행위에로 계속 내모는 경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책임지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9월 29일회의: 판문점에서 진행된 이 회의에서 우리측 경무관은 공동경비구역에서 적측 경비인원들이 감행한 도발행위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강경히 항의하고 책임을 추궁하였다.

그러면서 우리측 경무관은 적들의 도발과 위반행위가 계속된다면 공동경비구역안에서 엄중한 사태가 벌어질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한다고 하면서 이 구역에서 긴장성을 조성하는 도발과 위반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치를 취할것을 적측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우리 나라 경제수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는 1977년 6월 21일 우리 나라의 바다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적극 개발리용하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 설정에 관한 정령을 채택하였다.

이 정령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수역은 령해의 기산선으로부터 200마일이며 200마일경제수역을 그을수 없는 수역에서는 바다반분선까지로 설정되였다.

정령에는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 수역(수중, 해저, 지하)안에서 생물 및 비생물 자원에 대한 자주권을 행사한다고 규제하고있다.

그리고 정령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당기관의 사전승인없이 외국인들과 외국선박 및외국항공기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안에서 고기잡이, 시설물설치, 탐사, 개발 등 공화국의 경제활동에 장애로 되는 행위들과 바다물이나 대기의 오염을 비롯하여 인명과 자원에 해를 주는 모든 행위들을 하는것을 금지한다고 규제하고있다.

이 정령은 1977년 8월 1일부터 실시하였다.

우리 나라 군사경계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우리 나라에 조성된 정세의 요구로부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수역을 믿음직하게 보호하며 민족적리익과 나라의 자주권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 군사경계선을 설정하였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경계선은 동해에서 령해기산선으로부터 50마일, 서해에서는 경제수역경계선으로 설정하였다.

군사경계선구역안 (수상, 수중, 공중)에서 외국인, 외국군용함선, 외국군용비행기들의 행동을 금지하며 민용선박, 민용비행기 (어로선박 제외)들은 해당한 사전 합의혹은 승인 밑에서만 군사경계선구역을 항행 및 비행할수 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의 보도에서는 군사경계선구역안 (수상, 수중, 공중)에서 민용선박, 민용비행기들이 군사

적목적을 가진 행동과 경제적리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는것을 지적하였다.

1977년도 우리 나라 기상개관

1977년에 우리 나라에도 한랭전선의 영향이 크게 미쳐 심한 가물이 계속되였으며 날씨가 몹시 변덕스러웠다.

겨울철 우리 나라 기후의 중요한 특징인 삼한사온현상이 없어지고 심한 강추위가 오래 계속되였는가 하면 여름철 7월에는 례년에 보기드문 더위가 있었다.

1977년 1월에는 강추위로 기온이 몹시 낮았으나 2월하순부터 기온이 갑자기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동해안지역을 제외한 우리 나라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8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다.

그리하여 한해평균기온은 평년보다 0.2~1°C 정도 높았는데 지역별로 보면 북부내륙지방이 1°C정도 높았고 서해안남쪽지역과 동해안지방은 0.2~0.3°C, 서해안북부지역은 0.6°C정도 높았다.

1977년은 가물이 심하였던 관계로 강수량이 매우 적었다.

이해 강수량은 300~1,100mm범위로서 동해안지방과 멸악산줄기이남지역 그리고 압록강하류지역을 제외한 서해안지방은 불과 평년의 55~60%에 해당하는 적은 량이였으며 강수량이 비교적 많았다고 하는 멸악산줄기이남지역과 압록강하류지역에서도 평년의 80%정도, 북부내륙지방은 75%정도였다.

1977년 평균기온과 강수량

구분 / 지점	기온(°C)		강수량(mm)	
	기온	평년과의 차	강수량	평년과의 비(%)
평 양	10.1	0.5	601.0	61
신의주	9.4	0.6	879.4	83
사리원	10.6	0.4	506.3	55
해 주	11.0	0.4	918.7	82
강 계	7.2	1.0	766.4	80
혜 산	3.8	0.9	459.1	74
청 진	7.5	0.1	370.5	55
함 흥	9.8	0.3	541.6	56
원 산	10.7	0.3	789.8	55

1977년 기상조건을 철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겨울철에는 강추위가 계속된 관계로 기온이 몹시 낮았으며 강수량이 적었다.

1월 평균기온은 −5~−23°C로서 평년에 비하여 2~4°C, 전해에 비하여 4~5°C정도 낮았다. 2월 평균기온은 −2~−15°C로서 평년보다 약간 낮았다.

1977년 1월, 2월에는 강추위에 눈이 거의 내리지 않아 강수량이 매우 적었다.

서해안지방의 1월, 2월 총강수량은 3~15mm로서 평년의 10~15%에 해당하는 극히 적은 량이였으며 북부내륙지방은 평년의 40~70%, 동해안지방은 25~40%에 해당하는 적은 량이였다.

봄철(3~5월)기상조건의 특징은 3월, 4월 기온이 높아서 봄철이 일찍 시작되였고 3월과 5월에는 대부분지방에서 가물이 심하였다.

봄철기온은 3~10°C범위로서 평년보다 높았다. 특히 북부내륙지방은 평년보다 1.5~2°C나 높았으며 서해안지방은 0.6~0.8°C, 동해안지방은 0.2~0.6°C정도 높았다.

봄철기온을 월별로 보면 3월, 4월에는 함경북도 바다가지방을 제외한 전반적지역에서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는데 특히 북부내륙지방이 더 높았다.

3월에는 평년보다 2.5~3.5°C나 높았으며 4월에는 1~2°C정도 높았다. 서해안지방은 3월에 1~2°C, 4월에는 0.5~1°C정도 높았다.

5월에는 서해안북쪽지역과 동해안지방이 평년보다 약간 낮았으며 기타 지역은 평년보다 0.5~1.5°C 정도 높았다.

봄철강수량은 60~200mm범위로서 서해안 남쪽지역에서 평년보다 약간 많았으며 서해안북쪽지역은 평년의 90~95%, 동해안지방은 70~90%였다.

여름철(6~8월)에는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우리 나라 기후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인 장마현상이 없어지고 몹시 가물었다.

여름철강수량은 200~650mm였다. 가물이 심한 지역은 평북도의 북쪽지역을 제외한 멸악산줄기이북의 서해안지역과 동해안지방이였다. 이 지역에서는 6월초와 7월 및 8월초순에 비가 좀 내리고 나머지 기간에는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여름철비내림량은 평년의 25~40%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것은 동해안지방에서 70년래, 서해안지방에서는 30년이래 처음보는 왕가물이다.

비가 비교적 많이 내렸다고하는 압록강아래쪽지역과 멸악산줄기이남지역도 평년의 70~90%정도였으며 북부내륙지방은 60~75%정도였다.

1977년 여름철 강수량

구분 / 지점	비 량		
	1977년	평년	평년대비(%)
평 양	259.0	603.7	43
신의주	621.0	678.8	91
사리원	182.5	586.6	31
해 주	513.8	693.1	74
강 계	452.1	573.3	79
혜 산	249.3	391.3	64
청 진	185.1	360.4	51
함 흥	222.4	598.4	37
원 산	297.2	773.3	38

1977년 여름철에는 가물이 심하였을뿐아니라 기온의 변화도 심하였다.

여름철기온은 17~23°C범위로서 평년과 큰 차이가 없었다.

여름철기온을 월별로 보면 6월에는 12~20°C로서 동해안남쪽지역을 제외하고는 평년보다 0.5~1.5°C정도 높았다.

7월에는 전반적지역에서 평년보다 기온이 훨씬 높았다. 특히 동해안지방이 높았는데 평년보다 2~2.5°C나 더 높았으며 북부내륙지방은 1.5~2°C정도, 서해안지방은 1~

1.5°C정도 높았다.그런데 8월에 들어서면서 대륙고기압이 강화됨에 따라 그 영향으로 우리 나라 전반적지역에서 기온은 평년보다 0.5~1.5°C정도 낮아졌다.

가을철(9~11월)에는 전반적지역에서 기온이 높았다.

가을철기온은 4~14°C였는데 이것은 평년보다 1°C나 높은 온도이다.

가을철 특히 10월기온이 몹시 높았다. 10월북부내륙지방은 평년보다 2.5~3°C, 서해안 지방과 동해안남쪽지역은 평년보다 2~2.5°C정도 높았다.

가을철강수량은 100~300mm범위로서 서해안북쪽지역과 함경북도해안지방은 평년의 50~60%정도에 해당하는 적은 량의 비가 내렸고 북부내륙지방은 평년의 70~80%, 서해안남쪽지역은 80~90%정도였다.

12월에는 전반적지역에서 기온이 평년보다 3~4°C나 높았다.

적산온도

1977년에는 기온의 변화가 변덕스러웠으나 봄철이 일찍 시작되고 가을철에 기온이 높았으므로 적산온도가 많았다.

하루평균기온 10°C이상적산온도는 서해안지방은 3,400~3,950°C, 함흥이남동해안지역은 3,600~3,800°C, 함경북도해안지방과 량강도지방은 2,400~2,900°C로서 함흥이남동해안지역은 평년보다 250~300°C,서해안지방은 150~250°C, 함경북도해안지방과 북부내륙지방은 150~200°C나 많았다.

하루평균기온 15°C이상적산온도는 동해안지방이 평년보다 50~150°C정도 적었고 기타지역에서는 50~150°C정도 많았다.

불리한 기후현상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근년간 한랭전선은 기상관측으로써도 예측할수 없는 급격한 기후변동과 이상기후현상을 가져오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7권, 352페지)

최근시기 한랭전선의 영향이 강화됨으로써 세계적범위에서 혹심한 왕가물과 무더기비, 강추위와 무더위 등 이상기후현상이 자주 나타나고있다.

1977년에도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왕가물과 강추위 등 이상기후현상에 의한 피해가 심하였다.

세계적범위에서 일어나고있는 기후변동은 우리 나라 기후에도 영향을 주어 가물을 비롯한 이상기후현상들이 많이 나타났다.

1977년에 일어난 특이한 기상현상들은 다음과 같다.

1. 가물

1977년에는 지난해에 뒤이어 년초부터 가을철에 이르기까지 가물이 심하였다.

겨울철에는 북쪽에서 찬공기가 계속 내려오면서 강추위가 계속되였으며 눈이 내리지 않았는데 4월초순까지 가물이 계속되였다.

이 기간의 강수량은 서해안지방과 동해안의 함흥이남지방에서 평년의 25~45%, 그밖의 지방에서는 평년의 50~

1977년 1~4월 상순까지 강수량(mm)

구분 / 지점	강수량		
	1977년	평년	평년대비(%)
평 양	14.5	69.0	21
신의주	17.2	53.6	32
사리원	25.5	57.5	44
해 주	27.0	82.3	33
강 계	31.1	59.7	52
혜 산	21.4	34.3	63
청 진	24.4	48.7	50
함 흥	18.3	69.6	26
원 산	50.4	141.3	36

60%정도였다.

가물은 봄철말에서부터 가을철 10월까지 계속되였는데 특히 여름철가물이 심하였다.

5월부터 10월까지의 총강수량은 평안남도와 황해북도 멸악산줄기이북 황해남도지역과 동해안지방은 평년의 35~50%정도에 불과하였으며 비가 많이 왔다고 하는 황해남도남쪽지역과 평안북도북쪽지역, 북부내륙지방에서도 평년의 70~85%에 지나지 않는 적은 량이였다.

1977년 5월~10월 강수량(mm)

구분 / 지점	강수량		
	1977년	평년	평년대비(%)
평 양	403.1	822.8	49
신의주	779.0	918.9	85
사리원	316.3	776.2	41
해 주	710.1	934.9	76
강 계	641.4	800.6	80
혜 산	367.3	536.7	68
청 진	249.2	558.8	45
함 흥	391.0	822.9	48
원 산	485.3	1144.2	42

2. 강추위와 무더위

1977년 겨울철에 북극의 찬저기압중심들이 카나다북동부와 씨비리북동쪽에 놓이면서 강화되였다.이로 인하여 아메리카북동지역에서는 심한 강추위와 눈보라에 의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아세아지역에서도 중국 창강이남지역까지 북쪽의 찬공기가 밀려왔다. 이때 우리 나라에서도 강추위가 있었는

데 특히 1월 26일부터 2월 7일에 있은 강추위는 최근년간 보기드문 이상기후현상이였다. 그리하여 1월평균기온은 평년보다 2~4°C나 낮았다.

겨울철에 강추위가 있었는가 하면 여름철 7월에는 가물에 혹심한 더위가 겹쳤다.

이때 태평양고기압이 북위 35°C이북지역까지 올려 뻗치면서 7월하순에 혹심한 더위가 나타났는데 7월 29일과 30일기온은 거의 모든 지역에서 33°C이상이나 되였으며 함경북도 회령에서는 40.5°C까지 올라갔다.

한편 동해안에서는 랭한 현상이 나타났다.

6월초에 오호쯔크해고기압이 강화되면서 우리 나라 동해안지방에서는 기온이 몹시 낮아졌는데 특히 6월중순에는 평년보다 3.5°C나 낮았다.

1977년 1월 평균기온(°C)

구분 / 지점	1월		
	1977년	평년	차
평 양	−10.2	−8.0	−2.2
신의주	−10.5	−8.7	−1.8
사리원	−9.3	−6.8	−2.5
해 주	−9.1	−4.8	−4.3
개 성	−8.1	−5.5	−2.6
강 계	−16.9	−14.9	−2.0
혜 산	−22.1	−18.7	−3.4
청 진	−9.2	−6.8	−2.4
함 흥	−7.7	−5.1	−2.6
원 산	−5.6	−3.7	−1.9

7월에 들어서면서 태평양고기압이 북쪽으로 올려 밀개됨에 따라 기온이 급속히 높아졌으나 8월에는 대륙고기압이 강화되면서 다시 기온이 낮아져서 8월중순에는 평년보다 2°C나 낮았다.

3. 무더기비

1977년에는 여름철바람의 영향이 적었기때문에 무더기비 회수가 적었다.

7월 6~7일사이에 황해남도 남부와 개성지구에 200~300mm의무더기비가 내리였으며 7월 23~26일과 8월 3~4일에 자강도 초산, 우시, 위원지방과 평북도 압록강류역들에 150~300mm의 무더기비가 내렸다.

1977년에도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왕가물을 비롯한 이상기후현상들이 전세계를 휩쓸었다.

수백년래 처음보는 혹심한 왕가물과 무더위로 혹심한 피해를 받은 서구라파 나라들은 때아닌 겨울철 1월에 큰물피해를 입었고 여름철에는 랭습한 날씨가 계속되여 농작물이 막대한 피해를 받았다.

1월에 있은 강추위는 미국, 구라파, 아세아 지역을 휩쓸었으며 미국의 서부주와 알라스카 그리고 아세아지역에는 왕가물이 수개월 계속됨으로써 농작물들이 말라죽고 저수지들과 강물들이 말랐다.

한편 인도와 방글라데슈에서는 무더기비에 의한 큰물로 막대한 피해를 받았다. 이리하여 세계적범위에서 혹심한 식량난과 물기근을 겪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1977년에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기후조건이 매우 불리하였으나 한랭전선의 영향을 미리 막기 위한 명확한 방향과 그를 철저히 막을데 대한 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한랭전선의 영향을 성과적으로 극복하고 우리 나라 력사에서 처음보는 대풍작을 이룩함으로써 850만톤이상의 알곡고지를 점령하였다.

강 수 량(mm)

지점 /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년
평 양	4.0	0.2	9.1	87.2	35.8	51.0	123.8	84.2	80.0	28.3	64.9	32.5	601.0
신의주	3.2	0.0	4.1	31.2	79.5	78.5	399.6	143.1	40.4	38.1	37.5	24.4	879.4
사리원	2.2	0.0	19.4	98.4	21.9	48.8	73.6	60.1	51.4	60.5	37.9	32.1	506.3
해 주	4.1	0.3	12.8	123.6	66.3	37.3	344.0	132.5	107.4	22.6	34.2	33.6	918.7
강 계	3.6	5.2	4.2	65.4	71.2	162.6	133.1	156.4	70.5	47.6	26.3	20.3	766.4
혜 산	2.3	7.6	1.3	44.9	60.5	65.1	45.8	138.4	54.7	2.8	25.5	10.2	459.1
청 진	1.1	5.0	7.6	47.8	11.0	73.5	27.6	84.0	37.3	15.8	51.8	8.0	370.5
함 흥	3.5	10.9	1.1	76.4	20.2	86.0	80.9	55.5	98.0	50.4	45.5	13.2	541.6
원 산	6.0	13.4	8.5	144.5	31.4	87.2	43.3	166.7	116.3	40.4	114.0	18.1	789.8

평 균 기 온(°C)

월 / 지점	1	2	3	4	5	6	7	8	9	10	11	12	년
평 양	−10.2	−4.7	3.5	10.7	15.8	21.1	25.5	23.1	18.9	14.2	4.4	−1.3	10.1
신의주	−10.5	−5.5	2.5	10.0	14.6	19.9	24.7	23.3	19.0	14.0	3.2	−1.9	9.4
사리원	−9.3	−4.1	3.7	11.0	16.5	21.2	25.6	23.3	19.3	14.7	5.2	−0.2	10.6
해 주	−7.7	−3.7	3.9	10.6	16.1	20.9	24.5	23.6	20.0	15.3	6.7	1.6	11.0
강 계	−16.9	−9.6	1.4	9.2	15.4	19.9	24.7	21.4	16.0	11.1	−0.1	−5.8	7.2
혜 산	−22.1	−14.2	−1.9	6.3	13.5	17.0	22.6	18.4	13.3	8.1	−3.7	−11.8	3.8
청 진	−9.2	−6.2	−0.4	5.7	11.1	13.8	21.4	20.7	17.4	12.2	4.3	−0.5	7.5
함 흥	−7.7	−4.0	2.8	9.8	15.3	17.4	23.9	21.6	18.5	14.2	5.4	0.7	9.8
원 산	−5.6	−1.8	3.1	10.0	15.6	17.5	24.7	21.9	19.0	15.4	6.1	2.5	10.7

한랭전선과 1977년 세계기상상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근년간 한랭전선은 기상관측으로써도 예측할수 없는 급격한 기후변동과 이상기후현상을 가져오고있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7권, 852페지)

1977년에도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세계 여러지역에서 보기드문 왕가물과 무더위, 혹심한 추위와 눈보라, 무더기비와 큰물 등 이상기상현상이 련이어 나타났다.

아메리카주와 대양주에서

아메리카주에서는 년초부터 력사적으로 보기드문 강추위와 눈보라, 왕가물 현상이 나타났다.

1월초에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아메리카주의 중부와 동부의 거의 전반적지역들에서는 북극의 찬공기가 직접 흘러들어 온 결과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미국의 5대호와 미씨시피강이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인명피해와 수백만명의 실업자가 나고 공장이 문을 닫는 등 헤아릴수 없는 경제적손실과 사회적혼란이 일어났다.

1월 평균기온이 16~20°C로서 사시장철 해수욕을 할수 있는 미국의 남부 플로리다주에서까지 1900년부터 관측을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눈이 내렸으며 심지어 아열대기후에 속하고 있는 미국의 플로리다반도의 동남쪽과 꾸바와 아이띠섬 북쪽의 대서양우에 있는 섬나라 바하마제도에서도 력사상 처음으로 눈이 내렸다.

또한 1월하순에 미국동부지역 도시인 비팔로에서는 눈이 8m까지 내려 도시가 눈속에 파묻혀 군대의 《주방위군》과 륙군공병들까지 내몰아 도로의 눈을 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한편 미국동부지역에서는 추위속에서 떨고있을 때 서부지역의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하여 본토의 3분의 1이상에 달하는 태평양연안지역들에서는 월비내림량이 평년의 40%로 줄어들었으므로 혹심한 왕가물속에서 농작물의 피해는 물론 사람들까지 물을 사먹는 소동이 일어났다.

오스트랄리아에서도 최근 16년이래 처음보는 무더위가 나타났는데 시드니의 기온은 46°C까지 올라갔으며 지어 북부 빅토리아지방들에서는 넓은 지역에 불까지 일어났다.

그런가하면 사시장철 얼음산으로 덮혀있는 그린랜드의 남부에서는 1월기온이 0도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새싹이 움텄다.

2월에 들어서면서도 미국에서는 강추위가 계속되였다. 예년에는 온도차이가 거의 없었던 미국의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도 월평균기온이 평년보다 10.8°C나 낮았는데 이러한 추위는 수천년래에 처음보는 현상이였다.또한 미국의 중부와 동부의 여러지역에서는 1888년이래 가장 추운 날씨로 동쪽절반지역의 경제가 마비되였다.

한편 미국의 서부지역에서는 계속되는 왕가물에 겁을 먹고 《기우제》놀음이 벌어졌으며 쌘프랜씨스코의 상점들에서는 물을 팔고 사는 사람들로 란장판이 벌어졌다.

오스트랄리아에서도 최악의 왕가물로 하여 수천마리의 집짐승들이 죽었으며 밀생산에서 커다란 피해가 났다.

미국 중부지역에서는 3월 27일에 무더기비와 세찬바람이 휩쓸어 넓은 지대가 물에 잠기고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

또한 미국동부에서는 5월 7일 미국서쪽바다에서 생긴 강한 저기압이 북동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그 뒤로 북극의 찬공기가 흘러들어온 결과 5월 9일에는 마사추세쯔주, 뉴욕을 비롯하여 여러지역에 40cm나 되는 많은 눈이 내렸는데 이러한 현상은 뉴욕시가 생겨서 1946년 이후 처음으로 되며 5월로서는 가장 늦게 내린것으로 된다.

북아메리카의 북쪽에 위치하고있는 카나다에서는 1975년과 1976년 두해동안은 습한 날씨가 계속된 관계로 곤충과 파충류들의 생육번식에 적응하였으므로 급격히 불어난 파충류들이 1977년 5월의 더위에 못이겨 뱀들이 더위를 피하여 서늘한 집안에 몰려듦으로써 일대소동을 일으켰다.

계속 가물에 시달려오던 오스트랄리아에서는 5월 16일 무더기비와 함께 2.5Cm의 우박까지 쏟아져 농작물이 거의다 피해를 보았다.

6월말 7월초에 들어서면서 왕가물이 더욱더 심하여 미국의 서부 캘리포니아주는 물론 동부지역 플로리다주의 30개구역이 《비상재해》 지역으로 선포되였다.

미국에서는 7월중순에 《대열파》가 휩쓸어 기온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47°C, 뉴욕에서는 38°C를 기록하였다.

혹심한 열파로 하여 철길이 휘여들고 사람들은 더위에 졸도하였으며 산불이 그칠새없이 일어났다.

또한 특이한것은 평상시기온이 령하 25～30°C인 남극권에 위치한 모우슨에서까지 력사상 처음으로 빙점을 넘어 6.7°C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아르헨띠나의 남부지역에서는 기온이 령하 13°C로 내려갔고 눈보라까지 휘몰아쳤다.

8월에 들어서면서 미국에서는 대열파와 벼락, 우박을 비롯한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났다.

미국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열파로 산불이 련이어 일어났고 중부에서는 우박이 내리고 벼락이 치는 바람에 시카고의 대승강기에서 폭발이 일어났으며 전선줄이 끊어짐으로써 약 7시간동안 전기가 멎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와 산디에고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12월 하순에 태풍에 의하여 자동차가 뒤집혔는가 하면 산불까지 일어나 커다란 사회경제적 혼란이 일어났다.

이와 같이 아메리카주에서는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강추위와 눈보라, 력사에 보기드문 더위와 왕가물이 겹치여 이해농사를 망쳐버렸다.

구라파주에서

영국에서 1월 12일부터 16일사이에 100년래에 처음보는 혹심한 추위와 눈보라로 하여 항공, 철도를 비롯한 교통이 마비되였다.

낮은 기온은 남부오지리로부터 대서양해안쪽인 서부에 이르는 나라들에도 미치였는데 오지리의 인스부르크근처의 도로에서는 자동차 200여대가 눈에 파묻혔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1월 20일부터 대서양에서 더운 공기가 흘러들면서 25일에는 낮기온이 12도까지 올라가 알프스산줄기를 비롯한 높은 산지대의 눈까지 녹아내려 강물이 넘쳐났다.

2월에 들어서면서 프랑스에서는 겨울인데도 초여름날씨처럼 따뜻하면서 비가 계속 내리여 큰물이 났다. 프랑스 빠리에서는 3월 3일에 100년만에 처음으로 기온이 19.8°C로 올라갔는데 이로 말미암아 알프스산줄기의 높은 산지대의 눈까지 녹아내려 프랑스중부를 흐르고있는 강들이 넘쳐났을뿐아니라 그것은 서부독일국경지대까지 영향을 미치였다.

5월 20일 지중해 북부에 중심을 두고있던 강한 저기압은 회오리바람을 동반하면서 북서방향으로 이동한 결과 이딸리아에서는 벽돌색갈의 미세한 먼지가 섞인 비가 내려 도시 건물들을 지울수 없게 붉은 색갈로 물들였다.

6월에 구라파지역의 날씨에서 특징적인것은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20세기에 들어와서 처음보는 추위가 나타난것이다.

5월 30일에 흑해북부 드네쁘르강 하류류역에서 생긴 저기압이 북동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그뒤로 북극의 찬공기가 구라파지역에 자주 흘러들었다.

겨울철에도 서리가 내리지 않으며 6월이면 대체로 30°C 이상의 높은 기온이 계속되는 대서양과 지중해 기슭에 자리잡고있는 뽀르뚜갈에서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처음보는 현상으로서 눈보라까지 휘몰아쳤다.

프랑스 빠리에서도 6월 20일 기온이 15°C로서 6월치고는 14년래에 기온이 가장 낮았고 화란에서도 춥고 습기찬 날씨가 계속되였다.

프랑스 빠리는 7월 25일에 최고기온이 16.9°C로 내려감으로써 104년래에 처음보는 추운 날씨였다.

8월에도 비교적 더운 지역인 이딸리아에서까지 예상보다 3달앞서 추위가 닥쳐왔고 프랑스 빠리에서는 7월하순부터 8월중순까지 흐린날씨에 추위가 계속되였다.

그러나 영국남부끝단에서는 8월 16일 12시간 동안에 한해비내림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많은 비가 내렸고 오지리에서도 18년만에 처음보는 많은 비가 내렸다.

10월 2일 영국서쪽바다에서 생긴 강한 저기압이 동남쪽으로 이동하면서 10월 6일 이딸리아의 제노아에서는 7년래의 최악의 무더기비가 쏟아져 거리와 상점 및 지하실들에 물이 차넘치고 전력공급이 중단되였다.

프랑스에서는 12월하순에 10m앞도 내다볼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끼였으며 지어 리옹교외에서는 1m앞도 내다볼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끼여 200여대의 자동차가 충돌하고 많은 부상자가 났다.

이처럼 한랭전선의 영향은 구라파주에도 휩쓸었다.

아세아주에서

한랭전선의 영향은 아세아지역에도 미치여 이상기후현상이 자주 나타났다.

1월에 대륙고기압이 강화되면서 북극의 찬공기가 동부아세아지역에 흘러들어온 결과 일본의 북부와 서부지역에서는 최저기온이 령하 40°C까지 내려갔다.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일본에서도 혹심한 눈사태가 있었다.

또한 몽골의 우브쌍우르도의 10개군에서는 기온이 령하 56.6°C까지 내려감으로써 력사상 보기드문 강추위가 나타났다.

추위는 심지어 인도와 이란, 아프가니스탄 지역에까지 밀려와 눈보라가 휘몰아침으로써 철도운행까지 중단되였다.

그런가하면 1월 19일 인도네시아의 쟈까르따에서도 1892년래 처음보는 큰물이 났다.

2월중순에 남조선 제주도지방에서는 50년만에 처음보는 강추위로 농작물이 막대한 피해를 보았으며 필리핀 북부산악지대에서도 추위로 수십명의 어린이들이 얼어죽었다.

4월은 월비내림량이 가장 적었는데 동부씨비리바다가에서는 평년의 40%, 몽골에서는 33%, 중국 빠미르높은벌 북쪽에서는 40%정도밖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며 특히 까스삐해동쪽 까라꿈사막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월중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다.

대만에서는 4월말 5월중순까지 력사적으로 보기드문 왕가물로 논은 거북등처럼 갈라졌고 5월 4일부터 물배급제

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나라로 알려진 필리핀, 그리고 홍콩에서도 왕가물로 농작물손실은 말할수 없을뿐아니라 물공급이 제한되였다.

5월 29일 중국 창강 중류에서 생긴 저기압이 북동방향으로 이동하면서 6월 1일 남조선 제주도지방에서는 무더기비가 내려 수백채의 살림집이 물에 잠기였다.

남조선강원도 평동지방에서는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5월 7일 오후에 직경이 1Cm남짓한 우박이 쏟아져 감자, 담배, 도마도 잎이 구멍이 뚫어지고 과일나무잎이 떨어지는 등 농작물이 커다란 피해를 입었다.

인도의 동부 비하르주에서는 2주일동안 계속되는 《대열파》로 6월 3일 뉴델리 기온은 43.8도였다.

인도네시아 남부 쑬라웨씨의 소펭지구에서는 큰물로 집짐승과 논들이 피해를 입었다.

남조선 경기도 안양지방에서도 7월 11일 기상관측소가 생긴이래 처음으로 440mm의 무더기비가 내렸으며 8일과 9일에 내린 무더기비로 서울과 경기도 지방에서는 767명의 인명피해와 2만 2천 499채의 살림집이 큰물에 잠기였거나 파괴되였으며 113군데의 다리가 파괴되였다.

일본 혼슈북쪽끝에 자리잡고있는 아오모리시에서는 8월 1일에 기온이 91년래에 처음으로 34°C이상을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76만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더위를 참지 못하여 바다가지방으로 밀려갔고 1만 2천명이 해발고가 높은 후지산으로 올라가는 소동이 일어났다.

토이기에서도 《35년만에 처음보는 열파》로 기온이 38°C를 기록하였고 8월 22일에 이란의 서남부에서는 45°C를 기록하였다.

9월 3일에 동남아세아의 동쪽바다우에서 생긴 강한 저기압이 북동방향으로 이동하면서 9월초순 중부버마에 100년래의 가장 심한 비가 내리게 하였다.

남조선에서는 10월초순에 《60년래의 왕가물》로 가을남새는 《10년래의 대흉작》이 들었으며 전라남도 신안군의 경우에는 물한초롱에 700원씩을 주고 사먹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와 같이 지구상에서는 1977년도에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이상기상현상이 련이어 나타나 사람들의 생활과 농업생산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다.

한랭전선과 세계《물기근》상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식량난에 물기근까지 겹쳐 심한 고통을 겪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7권, 349폐지)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벌써 여러해째 세계를 휩쓸고있는 혹심한 왕가물은 1977년에도 계속되여 심한 《물기근》사태를 빚어냈다.

미국령토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서부지역은 1976년부터 1년이상이나 혹심한 왕가물에 시달려 강물의 수위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저수지들과 수원지들의 바닥이 드러나 물부족은 《제2차세계대전이래 가장 절망적인 사태》에 직면하였다.

미국서부지역을 휩쓴 왕가물이 동부지역에까지 퍼져 5월에 령토의 60%지역에서 강물이 정상수위보다 퍽 낮아졌다. 특히 미국의 5대강의 수위는 4월에 비하여 25%나 낮아졌다.

가물은 미국의 더욱더 넓은 지역을 휩쓸면서 7월에는 41개주가 가물에 시달리고있었다. 이리하여 미국의 29개주의 수많은 농촌지역이 《재해지역》으로 선포되였다. 7월 19일 뉴욕시는 물《비상사태》를 내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물이 부족한 나머지 샌프랜씨스코의 백화점들에서는 갈론당 20쎈트(1갈론은 3.8리터)의 값으로 물을 팔았으며 병에 넣은 물값은 갈론당 89쎈트까지 올라갔다.

6달동안 계속된 가물은 2천 700만명이 살고있는 까리브해지역 섬사람들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였다. 미국의 플로리다주로부터 남미주의 북쪽해안에 이르기까지의 대부분의 섬들에서 물배급제가 실시되였다.

아이띠는 제일 심하게 가물피해를 받은 나라로서 많은 지역들에서 농작물이 말라죽고 물이 없어 수력발전소가 돌아가지 못했다. 식량기근으로 약 30만명이 굶주리고 있었으며 물조차 변변히 얻어먹을수 없는 상태가 조성되였다.

미국식민지들인 뿌에르또 리꼬와 버진군도에서는 가물로 《비상사태》가 선포되였으며 특히 뿌에르또 리꼬의 20여개시가 물배급제를 실시하였다.

《20세기의 최악의 가물》을 겪은 홍콩은 7월 5일부터 하루 10시간동안의 물공급제로 넘어갔다. 물공급당국자는 새로운 제한조치를 실시하지 않으려면 17개 저수지들에 50억갈론이 더 있어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주요항구도시인 지다에서는 마실물이 부족하여 비상조치가 취해졌으며 이런틈을 타서 물장사군들이 나타났다.

말레이시아에서도 심한 가물이 계속되여 수도 꾸알라룸뿌르와 일부 지역에서 물배급제가 실시되였다. 《30년래의 최악의 가물》에 시달린 대만에서 8개 주요저수지의 수위는 총저수능력의 10분의 1밖에 안되였으며 대북에서는 물배급제가 실시되였다.

세계가 직면하고있는 혹심한 《물기근》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여 지구상의 6억의 인구가 물이 거의 없는 위험한 지역에서 살고있으며 12억의 인구가 마실물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있으며 물을 마시지 못하여 매일 2만 5천명이 죽고있다고 한다.

1977년 3월 14일 아르헨띠나의 마르 델 쁠라따에서 세계 100여개 나라와 국제기구들의 대표단과 대표들의 참가밑에 유엔물대회가 처음으로 열리게 된것은 물문제의 해결이 얼마나 절박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세계를 휩쓸고있는 한랭전선의 파국적인 영향으로 《물기근》이 조성됨에 따라 지구상의 도처에서 수많은 부침땅이 계속 황폐화되여 버림받는 땅으로 전변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볼때 해마다 5천만내지 7천만헥타르의 땅이 물이 없어 황폐화되고 있으며 이미 지구겉면의 3분의 1이상이 버림받는 땅으로 전변되였다고 한다.

1977년에 혹심한 왕가물과 《물기근》으로 하여 미국의 강냉이 및 밀 생산지의 대부분지역에서 흙층의 수분이 《10년래의 최저수준》으로 내려가 넓은 경지면적이 황폐화되여갔다. 또한 가물로 말미암아 벼재배면적도 1976년에 비하여 8% 줄었다.

카나다는 약 300만에이커의 땅에서 밀씨뿌림을 못하게 될것이라고 발표하였다.

1976년에 100만헥타르에 달하는 땅에 밀씨뿌림을 못한 오스트랄리아에서는 1977년에 또다시 몇달째 계속된 가물로 수많은 땅이 못쓰게 되였다.

1976년에만 하여도 구라파지역을 휩쓴 《20세기의 대열파》로 하여 프랑스에서는 첫8달동안에 8만헥타르의 부침땅과 산림이 못쓰게 되였다. 이딸리아에서는 1960년부터 1976년까지의 기간에 250만헥타르에 달하는 부침땅이 줄어들었다.

아프리카대륙에서는 《물기근》으로 《사하라사막의 남하현상》이 날을 따라 심해지고있는데 지난 50년동안에 사하라사막남부지역에서는 영국면적의 거의 3배에 해당한 65만평방키로메터에 달하는 땅이 사막화되였다.그리고 북아프리카지역에서는 해마다 약 10만헥타르에 달하는 방목지와 부침땅이 사막화되고있다고 한다.

현재의 비률로 땅이 계속 못쓰게 된다면 《지구상 부침땅의 3분의 1이 20세기말에 가서는 버림받는 땅으로 전변될것》이라고 한다.

유엔사무총장은 한 서한에서 세계인구의 15%에 해당한 거의 6억 8천만명이 황무지와 같은 지역에서 살고있다고 밝혔다. 한 통신은 세계적으로 버림받는 땅으로 전변되는 정형을 종합한 문건에서 《6억~7억의 사람들이 메마른 땅에서 살고있으며 그들중 5천만명은 당장 위험한 처지에 놓여있다》고 전하였다.

이와 같이 세계적범위에서 땅이 못쓰게 되는 엄중한 형편과 관련하여 1977년 8월에 케니아 수도 나이로비에서는 100개 나라 대표들의 참가밑에 불모의 땅의 확대방지에 관한 제1차유엔회의가 열렸다.

이처럼 물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여 물문제전문가들은 세계인구의 5분의 4에 해당한 인민들이 《물을 얻는것을 생존을 위한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내세우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시급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인류는 2천년에 가서 파멸적인 물위기》를 겪게 될것이라는 우려를 표시하였다.

1977년도 세계지진 일람

날자 (월, 일)	지 진 지 역	세계시간	지진의 크기 (M)
1월 6일	뉴기니아섬 북동부	6시 11분	6.5
〃 17일	칠레북부 안또파가스따	21시 21분	5.8
〃 19일	인도네시아 쟈까르따북동쪽 약 2, 600km지점		5.8
2월 19일	쏘련 깜챠트까반도 베링그해근방	22시 42분	6.8
〃 19일	일본 도쿄 남쪽 약 200마일지점	20시 51분	6
〃 20일	일본 도쿄 북쪽	22시 38분	6.8
3월 3일	로므니아 부꾸레슈띠 동쪽 90km지점 (까르빠띠산)		7.2
〃 16일	필리핀 마닐라북쪽 320km지점	21시 43분	6.9
〃 21일	이란 남쪽	20시 37분	7
〃 23일	콜롬비아 보고따 동쪽 300km지점		5
〃 25일	토이기 (3,290명사망)		7.9
4월 1일	이　　란	14시 30분	7
〃 2일	사 모 아 제 도	7시 26분	7.5
〃 6일	이란 테헤란 600km 떨어진 산간지대 (600명 사망)	22시	6.5
5월 7일	토이기 동쪽		
6월 1일	뉴질랜드	15시 38분	5.5
〃 3일	이란과 쏘련국경지점		5~6
〃 3일	쏘련 중앙아세아 끼르기즈		5.6~6
〃 5일	이라크와 이란국경지점		6
〃 5일	이란 테헤란남서쪽 450km지점	4시 45분	6.5 5.6
〃 8일	일본 도쿄북동쪽 약 200마일지점	22시, 14시 26분	6.5, 6
〃 20일	통가와 커마데크제도사이	12시 9 분	7.2
〃 28일	일본의 남쪽	2시46분	6
〃 〃	이딸리아 시칠리아섬북쪽바다가	7시 14분	5.4
〃 〃	미국 알라스카	8시 47분	5

날자 (월, 일)	지 진 지 역	세계시간	지진의 크기 (M)
7월 21일	필리핀 마닐라북쪽 150마일지점	13시 45분	6.6
〃 〃	뉴질랜드 남서쪽 약 1,000km지점	13시 53분	6.8
8월 16일	이 란	4시 27분	5.5
〃 19일	인도네시아 쟈바동쪽	6시 15분	7.7
〃 26일	인도네시아 쟈까르따 남동쪽 320km지점	17시 4 분	6.4
〃 28일	이딸리아 사르디니아섬	9시 46분	5.2
〃 29일	필 리 핀	14시 20분	6
〃 30일	콜롬비아 메델린시에서 가까운 지점		6.6
9월 3일	인도네시아 순다섬남쪽 약 300km지점	3시 36분	6
〃 12일	희랍 크리트섬서쪽	23시 20분	6.2
〃 17일	이딸리아북쪽 (1976년 이후 400회)		5.1
10월 2일	쏘련, 토이기, 이란 국경		5.5
〃 4 일	일본 도꾜지점	15시 39분	5.5
〃 5 일	토이기중부	5시 35분	5.4
〃 7 일	인도네시아 발리섬	12시 10분	5.9
〃 10일	통가섬과 가까운 남태평양	12시 5분	7.3
〃 11일	뉴질랜드 웰링톤 북서쪽 약 1,000마일지점인 통가와 커마데크제도 사이		7.3
〃 27일	알류산렬도		6.5
11월 2일	인도네시아 쟈까르따에서 125km지점	2시 18분	5
〃 3일	벌가리아 쏘피아남동쪽 100km지점	4시 22분	5.3
〃 13일	미국캘리포니아만 남쪽 200마일지점		6
〃 23일	아르헨띠나 싼 후안		7.5
12월 6일	인도네시아 쟈까르따 북쪽 100km지점	4시 31분	5.4
〃 13일	베네수엘라 북동쪽 760km지점	1시 37분	6.6
〃 17일	일본 이바라기현에서 가까운 바다	12시 10분	5.5
〃 20일	일본 도꾜와 관섭중간지대	23시	6.9
〃 21일	이 란		6.2

세 계 인 구 수

(단위—억명)

년 도	1950	1960	1970	1975	1977
인 구	25.0	30.0	36.3	39.7	41.2

주 별 인 구

(1975년)

주 별	인 구 수	비 률 (%)
아 세 아	22억 5, 600만명	56.9
아 프 리 카	4억 100만명	10.1
미 주	5억 6, 100만명	14.2
구 라 파	7억 2, 800만명	18.3
대 양 주	2, 130만명	0.5
계	39억 6, 730만명	100

각 국 의 회 계 년 도

나 라 별	월	비 고
사회주의나라들	1월～12월	당해 년도로 표시
프랑스, 이딸리아, 스위스, 카나다, 메히꼬, 벨지끄, 화란, 에스빠냐, 서부독일 등 기타 나라들	〃	〃
파키스탄, 단마르크, 인도, 일본, 영국, 뉴질랜드, 기타 나라들	4월～다음해 3월	시작되는 달이 속하는 해로 표시
애급, 스웨리예, 필리핀, 오스트랄리아, 기타 나라들	7월～다음해 6월	시작되는 달이 속하는 해와 다음해 달이 속하는 년도를 동시에 부르거나 혹은 마지막달이 속하는 년도만 부름
미 국	10월～다음해 9월	끝나는 달이 속하는 해로 부름

세계 농산물 및 물자 년도

품 종	기 간	년 도 를 부 르 는 법
쌀	11월—다음해 10월	끝나는 달이 속하는 해로 표시 례: 1977쌀년도는 1976년 11월—1977년 10월
밀, 보리	7월—다음해 6월	시작되는 달이 속하는 해로 표시
밀, 보리	12월—다음해 11월	시작되는 달이 속하는 해로 표시 오스트랄리아, 아르헨띠나에서 적용
콩	10월—다음해 9월	끝나는 달이 속하는 해로 표시
사탕	10월—다음해 9월	끝나는 달이 속하는 해로 표시
생사	6월—다음해 5월	시작되는 달이 속하는 해로 표시
목화	9월—다음해 8월	끝나는 달이 속하는 해로 표시 인도, 파키스탄, 애급에서는 두해에 걸치거나 끝나는 달이 속하는 해로 표시

품 종	기 간	년도를 부르는 법
목 화	8월—다음해 7월	시작되는 달이 속하는 해로 표시 미국 등에서 적용
〃	3월—다음해 2월	시작되는 달이 속하는 해로 표시 브라질에서 적용
양 털	9월—다음해 8월	끝나는 달이 속하는 해로 표시 오스트랄리아, 남아프리카 같은데서는 두해에 걸치거나 끝나는 달이 속하는 해로 표시
〃	10월—다음해 9월	아르헨띠나, 우루과이같은데서는 두해에 걸치거나 끝나는 달이 속하는 해로 표시
비 료	7월—다음해 6월	시작되는 달이 속하는 해로 표시
농 약	10월—다음해 9월	마지막달이 속하는 해로 표시

세계 여러 나라 알곡 파종 및 수확기

알곡별	나 라	수확 회수	제1기 수확 파종기 (월)	제1기 수확 수확기 (월)	제2기 수확 파종기 (월)	제2기 수확 수확기 (월)	제3기 수확 파종기 (월)	제3기 수확 수확기 (월)
벼	중 국	2	3~6	8~9	4~7	11~12	—	—
	버 마	3	6~10	11~12	12	3~4	5	8~9
	스리랑카	2	8~10	2~4	2~4	6~8	—	—
	인 도	3	6~8	11~1	1~4	5~6	5~6	9~10
	인도네시아	1	1~5	5~9	—	—	—	—
	파키스탄	3	6~8	11~1	1~2	5~6	5~6	9~10
	필리핀	1	6~9	11~3	—	—	—	—
	타 이	1	5~6	12~1	—	—	—	—
	미 국	1	3~6	8~10	—	—	—	—
	이딸리아	1	3~5	9	—	—	—	—
	애 급	1	3~4	10	—	—	—	—
	브라질	1	9~10	1	—	—	—	—
밀			(겨울밀)	(겨울밀)	(봄밀)	(봄밀)		
	아르헨띠나	1	4~8	11~1	—	—	—	—
	오스트랄리아	1	4~6	10~1	—	—	—	—
	카나다	2	8~9	7~8	4~5	8~9	—	—
	프랑스	2	10~12	6~7	3~4	6~7	—	—
	쏘 련	2	8~11	7~9	3~5	8~9	—	—
	미 국	2	9~10	5~7	4~5	8~9	—	—
보리	아르헨띠나	1	6~8	11	—	—	—	—
	카나다	1	4~5	7~8	—	—	—	—
	쏘 련	1	2~5	7~8	—	—	—	—
	미 국	1	5	8~9	—	—	—	—

나토일부성원국들의 군사비

나라이름	단 위 (백 만)	1972	1973	1974	1975
벨 지 끄	벨지끄프랑	44,140	48,941	57,395	69,791
카 나 다	카나다딸라	2,238	2,405	2,862	3,113
프 랑 스	프 랑	37,992	42,284	48,153	56,495
서 부 독 일	마 르 크	28,720	31,908	35,644	38,095
희 랍	드라크마	17,211	19,866	24,126	43,917
이 딸 리 아	리 라	2,162	2,392	2,852	2,961
룩셈부르그	룩셈부르그프랑	517	601	710	786
화 란	굴 덴	4,947	5,612	6,423	7,266
토 이 기	리 라	9,961	12,192	15,831	
영 국	파 운 드	3,258	3,512	4,207	5,070
미 국	딸 라	77,639	78,472	85,906	88,983

자본주의나라들에서의 소비물가 등귀

(1976년 10월—1977년 10월)

나 라 명	물 가(%)	나 라 명	물 가(%)
에스빠냐	29.5	카 나 다	8.4
이 딸 리 아	18.6	일 본	7.6
영 국	16.5	미 국	6.6
오스트랄리아	13.1	벨 지 끄	6.5
프 랑 스	9.7	화 란	6.3
		서 부 독 일	3.7

우리 나라 돈과 다른 나라 돈들과의 환산률

(1978년 3월 현재)

나라이름	돈 이름	공식 돈 환산비률		특별할가금을 붙인 환산비률(원)
		해당나라 돈	우리나라 돈(원)	
쏘 련	루블리	100	133.00	
영 국	파운드	1	1.67	3.60
미 국	딸 라	1	0.86	1.86
프 랑 스	프 랑	1	0.18	0.39
스 위 스	프 랑	1	0.46	0.99
서 부 독 일	마르크	1	0.42	0.91
일 본	엔	100	0.36	0.78
홍 콩	딸 라	1	0.19	0.41
노 르 웨 이	크로네	1	0.16	0.35
단 마 르 크	크로네	1	0.15	0.33

나 라 이 름	돈 이 름	공식돈환산비률		특별첨가금을 붙인 환산비률 (원)
		해당나라 돈	우리나라 돈(원)	
벨 지 끄	프 랑	100	2.71	5.82
스 웨 리 예	크로나	1	0.19	0.40
이 딸 리 아	리 라	100	0.10	0.22
오 지 리	쉴 링	100	5.84	12.56
카 나 다	딸 라	1	0.78	1.67
화 란	길 다	1	0.39	0.85
오스트랄리아	딸 라	1	0.99	2.12
싱 가 포 르	딸 라	1	0.34	0.73

해외주둔 미제침략군수

미제는 온 세계를 자기의 예속밑에 넣으려는 변함없는 야망을 추구하면서 《평화》와 《긴장완화》의 허울좋은 간판밑에 대대적인 군비증강책동을 벌리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미제는 세계의 40여개 나라에 수천개의 군사기지와 약 49만명의 침략군을 두고 침략과 전쟁 책동을 일삼고있다.

그러나 미제의 침략과 전쟁 책동은 세계 이르는곳마다에서 인민들의 강력한 투쟁과 항거에 부딪쳐 산산이 파탄되고있다.

태평양 및 극동지역

나라명	미제침략군수	나라명	미제침략군수
남 조 선	40,500	미드웨이섬	800
일본, 오끼나와	48,000	오스트랄리아	700
필 리 핀	16,000	기타 나라들	300
괌 섬	8,700	7함대	27,500
대 만	1,000	계	143,500

구 라 파 지 역

나라명	미제침략군수	나라명	미제침략군수
서 부 독 일	224,300	이슬란드	2,900
영 국	20,100	벨지끄	2,000
이 딸 리 아	11,400	화 란	2,200
에 스 빠 냐	9,200	뽀르뚜갈	1,400
토 이 기	4,700	기타나라들	1,000
희 랍	3,600	6함대	30,900
		계	313,700

라틴아메리카지역

빠나마운하지대	9,300	관 따 나 모	2,800
뿌에르또 리꼬	3,800	계	15,900

기 타 지 역 들

버무다군도	1,300	카 나 다	700
디에고 가르시아	1,100	기타나라들	2,500
이 란	1,000	해 군	9,500
마 로 끄	800	계	16,900

국내주요일지

(1977년 1월—12월)

1 월

2일 《로동신문》이 사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새해의 전투적강령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진군하자》를 발표

9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당면한 정치, 경제 정책들과 몇가지 국제문제에 대하여》 발표 다섯돐기념 평양시보고회 2.8문화회관에서 진행

14일 군사정전위원회 우리측 수석위원이 미국측이 《에쓰아르—71》 고속도고공정찰기로 우리측에 대한 정탐행위를 감행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군사정전위원회 련합국군측 수석위원에게 항의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냄 ▶ 평양시안의 천리마기수들과 직맹원들이 김일성광장에서 충성의 결기모임을 가지고 100여만톤의 분토와 각종 영농기자재들과 중소농기구들을 생산하여 농촌에 보내줄것을 결의

17일 《로동신문》이 사설 《지도일군들은 경제조직사업을 더욱 짜고들자》를 발표

1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하여 주신 강령적인 교시 25돐기념 중앙보고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22일 《로동신문》이 사설 《모든 청소년들은 주체위업의 참다운 계승자로 튼튼히 준비하자》를 실음 ▶ 청진—무산 사이 전기철도 개통,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정무원에서 이 공사에 참가한 속도전청년돌격대원들과 철도건설자들에게 축하편지를 보냄

25일 우리 나라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민족의 영구분렬과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길데 대하여》를 토의, 남조선 제정당, 사회단체들과 각계각층 인민들과 해외동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 ▶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가 우리 나라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의 진행정형과 이 회의에서 취한 중대한 조치들을 통보하기 위한 기자회견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2 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3월 4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실시함에 대한 결정을 채택

3일 《로동신문》이 《3대혁명소조운동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자》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

5일 《로동신문》이 사설 《혁명임무에 대한 주인다운 자각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를 발표

7일 《로동신문》이 사설 《모든 일군들은 당정책을 무조건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자》를 발표

8일 조선민주법률가협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조선의학협회 중앙위원회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이 수많은 동포형제들을 무서운 병균으로 독살하고 그들의 장기를 뽑아 해외에 수출하는 극악한 범죄행위를 감행하고있는것을 단죄하여 성토문 발표

10일 《로동신문》이 사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상교양사업을 실속있고 깊이있게 하자》를 발표

13일 리과대학창립 열돐 기념보고회 평성시에서 진행

16일 《로동신문》이 은률광산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이 위력을 발휘하여 금산포에서 바다로 뻗어나간 둑이 능금섬에 닿은 소식을 보도

21일 《로동신문》이 사설 《위대한 청산리방법대로 일하자》를 발표

2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47년 2월 28일 각도 재정부장, 군재정과장및세관장 련석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연설 30돐기념 중앙보고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 3.1인민봉기 58돐 평양시기념보고회 모란봉극장에서 진행

3 월

2일 조선예술영화촬영소창립 30돐 기념보고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4일 도, 시, 군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선거자의 100%가 참가하여 대의원후보자들에게 100%가 찬성투표

8일 사로청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평성시에서 진행(10일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7년 2월 25일 사로청중앙위원회 일군들앞에서 하신 연설 《사로청조직들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를 철저히 관철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 ▶ 각 도들에서 8일부터 14일까지의 사이에 뜨락또르운전수열성자회의 진행

10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온성지구에로의 진출과 력사적인 왕재산회의 44돐기념 함경북도 보고회 왕재산혁명사적지에서 진행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탁아소, 유치원 사업을 개선강화하여 모든 어린이들을 혁명의 후비대로 튼튼히 키우며 사회적으로 좋은일하기운동을 널리 벌려 인민생활을 급속히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녀맹조직들과 녀맹원들의 과업을 토의하는 녀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11일까지 평양에서 진행

1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닭, 오리, 돼지 기르기를 잘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문제를 토의하는 농근맹중앙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 1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

20일 김형직선생님께서 몸소 세우신 명신학교 창립 예순한돐 기념보고회 현지에서 진행

21일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직지도하신 조선국민회결성 60돐기념 과학토론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22일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직지도하신 조선국민회결성 60돐기념 중앙보고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23일 각도 인민회의 제1차회의 29일까지 진행, 그후 각 시, 군 인민회의 제1차회의도 함

28일 직총중앙위원회 제12차전원회의 사리원에서 진행

4 월

4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깊이 학습하기 위한 사회과학부문 일

군들의 연구토론회 12일까지 여러 분파로 나누어 진행 ▶《로동신문》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고사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민족적긍지와 혁명적자부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 ▶평양시안의 직맹원들과 천리마기수들이 릉라도에서 충성의 결의모임을 가지고 나무를 정성담아 심음 ▶제178차로 조국에 돌아온 재일조선공민들을 위한 청진시환영모임 현지에서 진행

5일 우리 나라 탁구선수단의 박영순선수 영국에서 3월 26일부터 4월 5일까지 진행된 제34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 녀자단식경기에 출전하여 1등, 박영옥선수 중국선수와 함께 녀자복식경기에서 1등의 영예 각각 쟁취(12일 귀국)

6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몸소 문수봉에 오르시여 나무를 심으신날 30돐을 뜻깊게 기념하여 문수봉에서 각지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충성의 결의모임들을 가지고 갖가지 나무를 심음

8일 《로동신문》이 각지 근로자들이 다섯달 남짓한 사이에 10만정보의 밭관개건설을 완공한 자랑찬 승리를 보도 ▶전국체육축전 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 평양에서 열림

11일 《로동신문》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의 부강하고 번영하는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시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이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

1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자연개조 5대방침을 관철하는 조국인민들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일조선청년들이 마련한 충성의 선물을 인수하는 모임 2.8문화회관앞광장에서 진행 ▶제13차 국가미술전람회 평양에서 열림

15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에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축하문을 올리였다 ▶《로동신문》이 사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은 영원히 승리와 영광으로 빛날것이다》를 발표

16일 조선소년단 전국련합단체대회가 붉은기만경대혁명학원에서 성대히 진행 ▶평양시 청소년학생들의 충성의 노래모임 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진행 ▶모란봉경기장에서 평양시청소년학생들이 출연하는 집단체조 《조선의 노래》 성대히 진행 ▶김일성광장에서 평양시 근로자들의 야회 성대히 진행 ▶평양시근로자들의 야회와 청소년학생들의 꽃배놀이 진행

18일 남조선인민들의 4월봉기 17돐 평양시기념보고회 모란봉극장에서 진행

19일 총련금강산가극단을 환영하는 예술인들과 평양시민들의 모임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20일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 강반석어머님탄생 여든다섯돐기념 강연보고회 녀성회관에서 진행

21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에 대한 사회과학부문일군들의 연구토론회 천리마문화회관에서 진행

24일 조선인민혁명군창건 45돐기념 중앙보고대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로동신문》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불멸의 혁명전통을 마련하신 전설적영웅이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

25일 《로동신문》이 사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의 불길속에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전통을 영원히 빛내여나가자》를 발표 ▶은파호 제1계단공사를 끝내고 첫물을 보냄 ▶북과 남사이의 제22차적십자실무회의 판문점에서 진행

2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토지법을 채택함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발표

5 월

1일 《로동신문》이 20여일동안 4만 2천개의 우물과 굴포를 파고 줄쨩을 박아 새로 10만정보의 밭관개를 또 완성한 소식을 보도

2일 조선인민혁명군기관지 《서광》 창간 40돐기념 중앙보고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7일 철도부산하 각지 수송전사들 《수송혁명 200일전투》를 벌릴데 대한 혁명적조치를 받들고 일제히 모임을 가지고 궐기

9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83차회의 판문점에서 진행

12일 위대한 수령님께 안윤조동무가 일하는 공장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적운동으로 계획외에 200대분의 뜨락또르, 자동차의 전기부속품 일식을 생산하여 올림

22일 무산지구전투승리 38돐기념 량강도보고회 혁명전적지 삼지연에서 진행

25일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고 전국적으로 강냉이심기 기본적으로 끝냄

29일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재일동포들과 동포상공인들의 충성심의 표시인 평양애국국수공장이 조업

31일 70년래의 왕가물을 이겨내고 전국적인 모내기를 승리적으로 끝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실시 한돐과 6.1국제아동절 스물일곱돐기념 전국유치원어린이들의 노래와 춤 공연 진행

6 월

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마련하여주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실시 한돐과 6.1국제아동절 스물일곱돐기념 평양시 유치원어린이들의 체육경기 진행

2일 보천보전투승리 40돐기념 과학토론회 혜산시에서 진행 ▶보천보혁명박물관창립 25돐기념보고회 현지에서 진행 ▶남조선청년학생들의 6.3봉기 13돐기념 평양시 청년학생보고회 평양학생소년궁전극장에서 진행

3일 《로동신문》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항일혁명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전설적영웅이시다》라는 글을 발표

4일 보천보전투승리 40돐에 즈음하여 량강도안의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에 정중히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량강도안의 인민들의 이름으로 된 꽃바구니와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 학교의 이름으로 된 꽃바구니들을 드림 ▶보천보전투승리 40돐 기념보고대회 현지에서 진행 ▶《로동신문》이 사설 《영광스러운 항일혁명성전의 길우에 타오른 보천보의 홰불은 조국청사와 더불어 불멸할것이다》를 발표

6일 《로동신문》이 사설 《모든 소년단원들은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튼튼히 준비하자》를 발표

7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1947년 6월 7일 미림벌에 나오시여 몸소 첫모를 내신 30돐 평양시기념집회 현지에서 진행

8일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사랑속에 명문고개에 첫 통학렬차 달림

9일 반일 6.10만세시위투쟁 51돐 평양시기념회 모란봉극장에서 진행

12일 2중천리마대안전기공장 로동자들이 평양시 천리마강안인민학교 학생들이 모아보낸 유색금속으로 농촌경

리용 변압기 100대를 생산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에서 우리 나라의 바다자원을 보호관리하고 적극 개발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 경제수역을 설정할데 관한 정령 채택 ▶평양교예단창립 스물다섯돐기념보고회 평양교예극장에서 진행

22일 외교부에서 반미공동투쟁월간을 맞으면서 1950년 6월 25일 미제국주의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에 의하여 조선전쟁이 도발된데 대한 력사적죄행을 폭로하는 비망록 발표

24일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을 맞으며 평성시, 함흥시, 해주시에서 군중대회와 시위 진행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신천에서 전국학생소년들의 복수모임 진행 ▶사회단체들에서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세계평화애호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발표

25일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군중대회 진행, 남조선인민들에게 보내는 호소문 채택, 신의주시, 개성시, 사리원시, 강계시에서도 군중대회와 시위 진행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을 맞으며 각지 협동농장작업반부문농근맹위원회들에서 복수결의모임을 포전현장에서 일제히 진행

27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체신사업을 강화할데 대하여 주신 교시 30돐과 체신절 5돐 기념보고회 모란봉극장에서 진행

29일 우리 나라 녀자배구선수단이 뽈스까에서 진행된 국제녀자배구경기대회에서 제1위 쟁취

7 월

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조국통일 3대원칙에 기초한 7.4남북공동성명발표 다섯돐기념 평양시보고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8일 북창의 동력기지건설자들 영구재처리장 관계통공사를 완공하고 재를 보내기 시작하였다는것을 《로동신문》이 보도

10일 강동군안의 농업근로자들 궐기모임을 가지고 집집마다, 농장마다, 군마다 닭을 많이 치기 위한 투쟁에서 전국의 모범이 될것을 결의하면서 각 시, 군 농업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경쟁을 호소

15일 북과 남사이의 제23차적십자실무회의 판문점에서 진행

16일 군사정전위원회 제385차회의와 제448차 비서장회의 진행, 우리측 령공에 침입하였다가 격추된 미군용직승기에 타고있던 살아남은 승무원과 시체들을 넘겨줌 ▶우리측지역에 침입하였다가 포로된 미군용직승기 《씨.에이취—47》부조종사가 기자회견 진행

21일 단마르크에서 열렸던 제32차 세계모형항공선수권대회에 참가하여 고무동력기경기 개인 및 단체와 모형활공기경기 단체성적에서 1등을 한 우리 나라 모형항공선수단이 돌아옴

26일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24돐에 즈음하여 평양시 청년학생들의 웅변모임 모란봉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진행 ▶우리 나라 사회단체들에서 《꾸바인민파의 련대성월간》에 즈음하여 공동성명 발표

30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마련하여주신 토지법을 연구학습하기 위한 중앙과학토론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31일 열렬한 공산주의자이시며 탁월한 정치활동가이신 강반석어머님서거 마흔다섯돐 중앙추모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8 월

1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우리 나라 경제수역을 믿음직하게 보호하며 민족적리익과 나라의 자주권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 군사경계선을 설정한데 대한 보도를 발표

7일 력사적인 지방당 및 경제일군창성련석회의 15돐기념 평안북도보고회 창성에서 진행

13일 군사정전위원회 경무관회의 진행

19일 중앙방송예술단창립 스물다섯돐기념보고회 2.8문화회관에서 진행

2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결성 선돐기념 중앙과학토론회 평양학생소년궁전극장에서 진행

25일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선국민회를 무으시였던 평양 옛 학당골에 조선국민회창건 사적비를 세움

2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결성 50돐기념 중앙보고대회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

2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직지도하신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결성 50돐을 맞이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 드리는 평양시청년학생들의 충성의 노래모임 모란봉청년공원야외극장에서 진행

31일 김동석동무가 일하는 조선소에서 2만톤짜리 짐배 《청천강》호를 무어 바다에 띄움

9 월

4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도시경영사업을 개선강화할데 대하여》 발표 열다섯돐 중앙기념강연회 2.8문화회관에서 진행 ▶서호수산사업소의 어로전사들이 《300일 출어만선투쟁》을 발기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29돐기념 영화상영주간 12일까지 진행

8일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29돐기념 중앙보고대회 2.8문화회관에서 성대히 진행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29돐경축 연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9돐경축 평양시 근로자들의 야회와 청소년학생들의 대동강꽃배놀이 진행

1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표하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지지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김일성광장에서 성대히 진행, 그 다음날 각 도들에서도 진행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실시함에 대한 결정을 채택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중앙선거위원회 제1차회의 진행 ▶남조선 애국적문학인들에 대한 박정희파쇼도당의 파쑈적탄압만행을 규탄하는 평양시문학예술인성토모임 평양예술극장에서 진행

13일 검덕광산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수송선 제1단계공사 완공 ▶《로동신문》이 《자주, 자립, 자위는 부강한 자주독립국가건설의 근본요구》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

14일 《로동신문》이 사설 《주체사상에 관한 국제토론회를 열렬히 축하한다》를 실음

24일 《로동신문》이 《위대한 주체사상을 신념으로 하여 살며 일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확고한 혁명적의지》라는 제목의 글을 실음

26일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관철을 위한 녀성들의 집회 녀성회관에서 진행

29일 공동경비구역에서 감행하고있는 적들의 도발행위와 위반행위에 강경한 항의와 책임을 추궁하여 군사정전위원회 경무관회의 판문점에서 진행

10 월

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학습을 위한 중앙연구토론회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

3일 《로동신문》이 《우리 근로자들속에서 높이 발양되고있는 숭고한 공산주의적미풍》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

9일 평양시안의 직맹원들과 천리마기수들의 충성의 결의모임 만경대갈림길헌시비앞에서 진행 ▶제179차로 사회주의조국에 돌아오는 재일조선공민들을 태운 귀국선 《만경봉》호 청진에 도착

10일 《로동신문》이 사설 《영광스러운 당의 기치따라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자》를 실음 ▶평원저수지 준공

11일 만경대혁명학원창립 30돐 기념보고회 현지에서 진행

12일 남조선괴뢰군 군속 2명이 비행기를 타고 공화국북반부에 의거

13일 《로동신문》이 사설 《전당, 전민, 전군이 위대한 교육테제로 튼튼히 무장하자》를 실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학습을 위한 과학교육부문연구토론회 2.8문화회관에서 진행 ▶공화국북반부에 의거하여 온 전 남조선괴뢰군 군속들이 기자들과 만남

14일 북과 남 사이의 적십자단체들의 제24차 실무회의 판문점에서 진행

15일 평양시안의 공장, 기업소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3대혁명소조원들이 전국적으로 맨먼저 계획한 고기배를 다 무어 물에 띄움

16일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하는 제120호 안주선거구 선거자대회 안주극장앞 광장에서 진행, 대회에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7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지지환영하는 룡연광산 종업원회의와 청송협동농장 농장원회의 진행

18일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제64차회의 평양에서 진행, 전체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호소문을 채택

20일 남조선괴뢰군 대대장과 대대무전수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공화국북반부로 의거, 인민문화궁전에서 기자들과 만남

23일 인민무력부에서 공화국북반부로 의거한 전 남조선괴뢰군 군속들에게 상금을 수여함에 대한 명령을 발표

2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추천사업 전국의 모든 선거구들에서 끝남

26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이 《유신헌법》을 조작공포하고 감행하여온 천추에 용납못할 죄상을 온 세상에 고발하는 성토문 발표 ▶군사적도발행위와 새 전쟁 도발책동에 미쳐날뛰는 적들의 범죄행위를 항의규탄하여 군사정전위원회 제449차비서장회의 판문점에서 진행

2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제120호 안주선거구 선거위원회에 등록한것과 관련하여 중앙선거위원회에서 보도를 발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각 도(직할시) 당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들 진행 ▶공화국북반부로 의거한 전 남조선괴뢰군 군속들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집회 모란봉극장에서 진행 ▶평양예술단이 모잠비크, 탄자니아, 말가슈, 리비아, 튜니지 등 아프리카나라들을 방문하고 조국에 돌아옴

30일 인민무력부에서 공화국북반부로 의거입북한 전 남조선괴뢰군 대대장과 무전수에게 상금과 군사칭호를 수여할데 대한 명령 발표

31일 《로동신문》이 사설 《위대한 교육테제가 밝혀준 길을 따라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를 더욱 강화하자》를 실음

11 월

2일 광주학생사건 48돐기념 평양시청년학생보고회 모란봉극장에서 진행

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학습을 위한 연구토론회가 각 도, 시, 군들에서 부문별 또는 기관별로 진행 ▶새로 건설된 관개용 저수지 은파호 준공

7일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결성 30돐에 즈음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감사드리기 위하여 조국을 방문한 재일조선녀성대표단을 환영하는 중앙녀성군중대회 2.8문화회관에서 진행

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대안의 사업체계를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발표 15돐기념 과학토론회 평양에서 진행

9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 발표 40돐 기념보고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그 다음날 기념연구토론회도 진행

1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뜨거운 충성심의 표시, 제120호 안주선거구에서 전체 선거자들의 100%가 투표에 참가하여 전체 선거자들의 100%가 찬성투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전체 선거자들의 100%가 참가하여 100%가 찬성투표

14일 사로청중앙위원회 제16차전원회의 15일까지 평양에서 진행,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로청조직들의 과업에 대하여 토의

15일 제염공업부문열성자회의 16일까지 진행

20일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받들고 각지 수송전사들 5월 1일부터 시작한 《수송혁명 200일전투》에서 자랑찬 성과를 거두고 경애하는 수령님께 충성의 보고를 올림

21일 청천강화력발전소 건설자들과 동력전사들, 3대혁명소조원들이 또 한 계통의 발전기조립을 끝내고 전력생산을 시작 ▶겨울철 물고기잡이와 가공전투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동해수산부문종업원련합모임 신포시에서 진행

22일 《로동신문》이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혁명의 앞길을 밝히시고 우리 인민을 승리와 영광에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이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

25일 단천—검덕사이 철도전기화공사가 완공되여 전기철도가 개통

12 월

1일 조선인민군협주단 창립 30돐 기념보고회 2.8문화회관에서 진행

3일 《로동신문》이 사설 《항일유격대원들처럼 혁명임무를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수행하는 기풍을 튼튼히 세우자》를 실음 ▶전국공예및산업미술전람회 조선미술박물관에서 진행

5일 《로동신문》이 사설 《위대한 교육테제를 높이 받들고 전당, 전민, 전군이 혁명적학풍을 튼튼히 세우자》를 실음

9일 북과 남의 적십자단체들사이의 제25차 실무회의 판문점에서 진행

15일 《로동신문》이 사설 《우리 혁명발전에서 획기적전환의 리정표로 될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를 발표

1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높이 모시고 나아가는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은 필승불패이다》라는 사설을 《로동신문》이 발표

17일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제2차 7개년(1978—1984) 계획에 대하여》를 채택

18일 위대한 수령님을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신 민족적경사와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1차회의의 성과를 축하하는 평양시군중대회 2.8문화회관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높이 모신 민족적 대경사를 경축하는 조선소년단 평양시련합단체대회 모란봉경기장에서 진행

20일 《로동신문》이 사설 《모두다 제2차7개년계획의 높은 령마루에로 총진군하자》를 발표

22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전적로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발표 5돐 기념연구토론회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

26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에 즈음하여 인민문화궁전에서 중앙강연회 진행

27일 《로동신문》이 사설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자》를 발표

31일 《로동신문》이 글 《혁명적의리》를 발표

박정희괴뢰도당의 반인민적정책에 의하여 남조선에서 농업이 전면적으로 파탄되고 식량위기가 더욱 심화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한국식량문제백서》를 발표 ▶박정희괴뢰도당 《민주통일당》기관지 편집장이며 이 당의 선전국장이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언론출판활동을 하였다하여 갑자기 잡아감

22일 박정희괴뢰도당 전직언론인과 종교인을 비롯한 10명의 각계층 인민들을 그 무슨 《음모선동에 편승》하였다는 구실밑에 잡아가둠

24일 통일혁명당 대변인 남북의 일체 애국력량이 단합하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의 문을 열자는 내용의 담화 발표

27일 충청북도 충주시 로동자, 회사원, 학생 등 청년들이 모여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에 대한 흘어넘치는 경모의 정을 안고 투쟁조직인 《4.15동지회》를 결성

남조선주요일지

(1977년 1월—12월)

1 월

1일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에서 새해 축하문을 올림

9일 인천시내 11개의 집부리는 업체에 망라된 로동자들 기업주놈의 착취행위를 규탄하면서 임금을 약속한대로 줄것을 요구하여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림(11일까지) ▶경상북도 포항에서 군사훈련에 끌려가 보초를 서던 한 청년이 무기고를 부시고 총과 수류탄을 가지고 자취를 감춤

13일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에 사는 주민 100여명이 괴뢰관계당국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수도물이 나오게 하라고 들이댐 ▶남조선기독교장로교회산하 전라남도청년련합회의 주최로 종교인들 250여명이 광주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을 규탄하는 모임을 가지고 파쑈악법을 철폐하며 잡아가둔 사람들을 내놓을것을 요구

14일 민주통일당 당수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정희괴뢰도당의 사대매국적, 반인민적 정책을 반대하는 성명 발표

16일 경기도 고양의 태평련합섬유회사 로동자 500여명이 《밀린 로임을 조속히 지급하라》, 《관계기관인 로동청과 대출은행인 외환은행은 책임을 지라》 등의 프랑카드를 추켜들고 회사건물앞에 밀려가 구호를 웨치면서 투쟁을 벌림 ▶남조선괴뢰도당이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20% 더 올리기로 결정

18일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의 투쟁조직인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의 결성을 알리며 이 조직의 《투쟁선언문》과 강령, 결의, 투쟁구호 등을 담은 1만장의 반《정부》삐라가 서울시내에 뿌려짐

27일 남조선 《섬유로조》가 섬유부문 근로자들의 로임을 평균 68.9% 올릴것을 괴뢰정부에 요구

28일 남조선 《화학로조》와 《섬유로조》가 여의도에서 임금인상요구전지역대표자대회를 열고 근로자들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할수 있는 임금인상조치를 취할것을 주장

2 월

3일 남조선 각곳의 해운로동자들 임금을 44% 올리라고 각 선박회사들에 요구

4일 괴뢰문교부 사립국민학교와 전수학교의 새학기 수업료를 25% 더 올리기로 하였다고 발표

15일 남조선괴뢰도당 남조선전역에 《비상경계》(19일까지)를 펴고 인민탄압에 미쳐날뜀

21일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에서

3 월

1일 《민주구국선언사건》 관련자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 1천 600여명이 서울시 명동에 있는 교회당에 모여 대중적인 반《정부》집회를 가지고 부당하게 체포된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 앞으로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계속 투쟁할것을 호소 ▶《대한예수교장로회》와 《청년회전국련합회》가 부산에서 모임을 가지고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의 정의를 위한 공동선언서를 채택

3일 신민당이 일본의 공해산업을 끌어들이는 박정희괴뢰도당의 책동을 규탄하고 일본공해산업의 추방대책을 빨리 세울것을 요구하는 성명 발표

4일 남조선의 한 인권옹호단체가 일본의 공해산업폐유를 수입한 악질기업주와 이를 허가해준 괴뢰당국에 항의문을 넘

5일 《민주구국선언》관련자들의 가족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의 인권탄압책동을 반대하여 성명 발표 ▶민주통일당이 중앙상임위원회를 열고 《긴급조치》해제, 체포구금된 민주인사들의 석방, 언론,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국민에게 보내는 편지》를 발표. 《박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시위투쟁을 벌림

7일 남조선 각계인사들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3.1절에 퇴진을 요구하여 박정희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발표 ▶신민당 박정희괴뢰도당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인권침해대책위원회》를 조직

8일 남조선파쑈도당 고려대학교 대학원생인 재일교포 류학생 리철을 이른바 《학원침투간첩단사건》에 관련시켜 살인재판을 거듭해오다가 그의 정당한 상고를 기각하고 《사형》을 마지막으로 확정하는 만행을 감행

9일 충청남도 례산군 대술면 주민들이 괴뢰당국에 몰려가 놈들이 벌려놓은 공사로 인하여 물속에 잠긴 농토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

10일 서울시 명동교회당에서 로동자들을 비롯한 종교인들과 각계인사들 1천 500여명이 반《정부》 집회를 열고 《민주개혁을 요구하는 로동자인권선언》을 발표. 집회참가자들 파쑈를 반대하며 민주주의적권리를 요구하는 노래를 부르며 《정치범을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웨침

15일 파쑈교형리들 재일교포류학생 강종헌을 이른바 《학원침투간첩단사건》에 관련시켜 살인재판을 거듭해오다가 그의 정당한 상고를 기각시키고 마지막으로 《사형》판결을 내리는 만행을 감행

16일 남조선괴뢰군과 미제침략군이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침략을 가상하여 중서부의 기지에서 《공격훈련》을 벌림. 남해일대에서는 《해상사격훈련》을 시작(31일까지)

20일 남조선 간호원대표 500여명이 서울에서 모임을 가지고 임금을 올려라고 괴뢰당국에 들이댐

22일 괴뢰대법원에서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구국선언사건》 관련자 18명에 대한 이른바 《긴급조치위반사건상고심선고공판》놀음을 벌리고 그들에 대한 형벌을 마지막으로 확정 ▶《민주구국선언》 관련자들을 비롯하여 정계, 사회계, 종교계, 언론계 등 각 계층을 망라한 남조선민주인사들이 서울에서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의 철폐, 민중의 생존권의 보장 등을 주장하는 《민주구국헌장》을 발표 ▶경상북도 월성군안의 농민 2만 3천여명이 《산림조합비》를 15%나 올려 빼앗아내고있는 괴뢰도당의 수탈행위에 맞서 투쟁 ▶괴뢰대법원에서 《민주구국선언》관련 《피고》 18명에게 《유죄판결》을 마지막으로 확정하는 만행을 감행

24일 서울 한상전자주식회사 종업원 100여명이 두달분의 밀린 임금을 별것을 요구하여 회사사무소를 차지하고 버티기투쟁을 벌림

25일 종교계인사들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기독교회관에서 《민주구국선언》관련자들에 대한 괴뢰대법원의 《유죄판결》에 항의하는 성명문 발표

26일 일본항공회사 서울지점에 고용된 남조선종업원들 90여명이 임금을 36.8% 더 올릴것을 요구하여 투쟁

28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학생들 반《정부》집회를 가지고 《출판의 자유》와 《학생회의 복구》 및 박정희괴뢰도당의 《긴급조치의 철회》등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 약 1천 500명이 반《정부》모임에서 8개항목의 《민주구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삐라를 뿌림 ▶서울의 종교인 1천 500명이 모임을 가지고 《민주구국선언》관련자들에 대한 괴뢰도당의 부당한 판결을 규탄하며 그들의 석방을 요구▶서울대학교 학생들 600여명 《긴급조치 9호의 즉시 철폐》와 《학도호국단의 해산》,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권과 생존권의 보장》 등을 주장하여 투쟁의 불길을 지펴올리고 《민주구국선언문》을 발표. 교내에서 반《정부》 시위투쟁을 벌림

29일 통일혁명당 대변인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테로통치를 반대하며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여 성명 발표

4 월

1일 서울대학교 공파대학에 《하우들에 대한 호소》라는 제목의 반《정부》삐라가 뿌려짐 ▶《민주구국선언》관련자들의 가족들 모임을 가지고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폭압에 항거하는 선언을 발표. 선언에서는 7개항목으로 된 《행동강령》과 정치범의 무조건석방, 고문과 박해를 하지 말것 등 《당면목표》를 밝힘

2일 파쑈교형리들 광주에서 《제2의 민주구국선언》관련자들에 대한 2심공판놀음을 벌리고 4명의 종교인들에게 각각 4년에 이르기까지의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선고하는 만행을 감행

4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청년종교인 100여명이 모임을 가지고 인권억압을 규탄하며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 구속자의 석방 등을 요구하는 결의문 발표. 이들의 투쟁기세에 질겁한 괴뢰도당이 경찰들을 내몰아 청년들을 체포

6일 광주에서 청년종교인 200명이 괴뢰광주경찰서에 몰려가 체포된 종교인들의 석방을 요구하여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린후 광주시내를 누비며 시위투쟁을 벌림

7일 서울에 있는 《한국신학대학》학생들과 교수들 150여명이 반《정부》집회를 열고 《현정권의 총퇴진》, 《민주헌정의 확립》, 《매판세력의 배제》 등을 주장한 《고난의 선언》을 발표. 이 선언문을 읽은 학생이 체포되자 학생들 동맹휴학을 선포

8일 감리교신학대학의 200여명 학생들 남조선민주인사들이 3월 22일에 발표한 《민주구국헌장》을 읽은 다음 거리에 나가 시위투쟁을 벌림 ▶일본의 싸우디 유드해운회사소속의 짐배 《알다란》호에 고용된 남조선선원들이 가혹한 노예적고역을 강요하면서도 임금을 주지 않는데 격분하여 선장과 항해사를 잡아가두고 자기들의 요구조건의 관철을 위하여 투쟁

11일 서울대학교 공파대학구내에 《유신헌법》과 《긴급조치》의 즉시 철폐를 요구하며 《민주구국선언사건》판결의 불법성을 강력히 규탄하는 《비상구국학생총회》의 이름으로 된 삐라가 뿌려짐 ▶박정희파쑈도당 수많은 괴뢰기동경찰대를 내몰아 《유신》독재를 배격하며 민주회복을 요구하는 모임을 가지고 시위를 벌리려던 리화녀자대학교 학생들을 마구 탄압하고 그들을 닥치는대로 붙들어감 ▶서울의 전진운수주식회사 운전수들 퇴직금과 상여금 등을 제대로 주지않고 예비군훈련기간에 기본로임을 주지 않는것 등 회사측의 부당한 처사를 반대하여 버티기투쟁을 벌림

12일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학생들 운동장에 모여 《4월선언》이라는 반《정부》삐라를 뿌림

14일 박정희괴뢰도당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옹호위원회 사무실을 습격하고 《민주구국헌장》관련자 8명을 불잡아가고 서명명단을 압수해가는 파쑈적 만행을 감행

15일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위대한 수령이신 **김일성동지** 탄생 65돐에 즈음하여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에서 경애하는 수령님께 축하문과 축기를 올림 ▶서울에서 민주인사들이 《민주구국헌장》을 전면적으로 지지하여 남조선전역에서 서명운동을 벌릴것을 목적으로한 《민주구국헌장서명운동추진본부》를 새로 무음 ▶서울에서 종교인들이 모임을 가지고 《민주구국헌장서명확대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어떠한 파쑈적탄압에도 굴함없이 이 헌장에 대한 서명활동을 남조선전역에서 계속 확대해나갈것을 호소하는 선언문 발표

18일 서울시안의 각계각층 인민들 1천여명이 4.19인민봉기에서 희생된 학생들을 추모하여 모임을 가지고 《민주회복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

19일 통일혁명당 대변인 《민주구국헌장》서명자들에 대한 괴뢰도당의 탄압만행을 규탄하여 담화 발표 ▶박정희파쑈도당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전역에

삼엄한 비상경계태세를 펴고 모든 폭압력량을 내몰아 인민들에 대한 야만적인 폭압선풍을 일으킴

20일 《민주구국헌장서명운동추진본부》가 성명을 발표하여 반파쑈민주화운동을 끝까지 밀고나갈것을 다짐 ▶전라남도 광주시 하운동 운림부락의 주민들 살림집강제철거에 날뛰던 악질주구들을 엽총으로 쏘아눕히는 등 강력한 폭력투쟁을 벌림

23일 서울에서 백화점 녀성종업원 250여명 모임을 가지고 임금지불에서 부당한 차별을 없애며 임금을 높일것을 요구하여 투쟁

24일 서울시 중구 명동거리에서 100여명의 청년종교인들이 《민주주의만세》 등의 글발이 씌여진 프랑카드를 추켜들고 시위를 벌림

25일 통일혁명당 대변인 일본당국자들과 박정희괴뢰도당이 범죄적인 《한일대륙붕협정》비준을 성사시키려는 책동을 로골화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29일 경상남도 울주군 온산면 남정리 주민 400명이 철도가설공사를 구실로 아무런 보상도 없이 마구 집을 헐어버리려는 괴뢰당국의 책동에 반발하여 이주대책비를 낼것을 요구하여 투쟁

5 월

4일 박정희괴뢰도당 《요미우리신붕》 편집국장이 평양방문기간 공화국북반부를 찬양했다는 리유로 이 신문 서울지국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고 서울특파원에게 빠른시일안에 서울을 떠나도록 강요, 이 신문 판매도 중지시킴

7일 서울의 남양나이론공장 로동자 200여명이 임금을 한사람당 하루 250원씩 올려줄것을 요구하여 집단적으로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림

10일 박정희괴뢰도당 우리측 무장선박이 경상남도 삼천포 앞바다에 침투하여 저들의 《어로저지선》에 총포사격을 가한후 선원을 《랍치》했다는 터무니없는 《삼천포해상사건》을 날조

11일 서울의 신일산업회사의 700여명 로동자들 로조를 뭇고 그 활동의 자유를 위해 작업을 거부하고 대중적인 투쟁을 벌림

18일 서울에 있는 시립서대문병원의 입원환자 100여명이 돈없는 사람들을 학대하는 병원측의 비인간적행위에 항의하여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림

19일 이전 남조선 《대통령》 윤보선이 미국대통령 카터에게 박정희파쑈독재정권을 비호하는 미국의 대남조선정책을 비난하는 편지를 보냄 ▶박정희괴뢰도당 경상남북도 동쪽해상의 넓은 해역에서 광란적인 해상사격연습을 벌림

20일 감옥에 갇힌 민주인사들의 가족들 《세계의 어머니와 안해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된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인사들의 석방을 위한 투쟁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줄것을 호소

26일 민주통일당의 인사들 약 600명 거리에 달려나와 《유신체제철폐》 등을 웨치면서 시위

27일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에서 박정희괴뢰도당의 야만적인 인권말살정책을 폭로단죄하고 남조선에서의 인권사태의 진상을 세상에 고발하기 위하여 《한국인권문제백서》를 발표

6 월

7일 박정희괴뢰도당 전시체제에 따르는 강제동원규정인 이른바 《국가비상사태》아래에서의 《자원운용 등에 관한 시행규칙》이라는것을 만들어 공포

9일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일본국회에서 《한일대륙붕협정》이 《자연승인》이라는 모략적수법에 의해 강압비준된것을 규탄하여 성명

16일 박정희역도 괴뢰우두머리들을 이끌고 서울교외에 있는 《종합사격장》에 나타나 앞장서서 총소리를 내면서 전쟁소동을 피움

18일 대구보건전문학교 학생 500여명이 수업조건의 보장을 요구하여 동맹휴학에 들어감

23일 박정희괴뢰도당 전선중부의 최전방기지에서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최대규모》의 《공격훈련》과 《사격훈련》을 벌림

24일 박정희괴뢰도당 남조선전역의 괴뢰경찰에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폭압에 날뜀

25일 박정희괴뢰도당 전선동부 매봉남쪽 비무장지대의 우리측 지역을 향해 기관총사격과 박격포사격을 가함 ▶박정희괴뢰도당 이른바 《열병행진》과 《무장행군대회》라는것을 벌려놓고 나어린 학생들과 주민들에게 총을 메워 강제로 전쟁소동에 내몸

7 월

1일 대전에서 빠스차장들이 새벽 4시에 모임을 갖고 《월급을 제날자에 지급하라》, 《외출을 금지하는 부당한 조치를 철회하라》는 요구조건을 내걸고 기숙사에서 일제히 떨쳐나와 투쟁 ▶박정희괴뢰도당 《부가가치세제》라는 새로운 《세법》을 조작하여 강제로 실시

3일 서울의 한 대학교 학생들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우러러모시고 그분께 충성다하려는 한마음을 담아 《해바라기회》를 결성

4일 이전 《대통령》 윤보선이 일본총리 후꾸다에게 편지를 보내여 일본의 자민당정권이 박정희괴뢰도당에 대하여 《무비판적이고 무조건적인 지지태도를 보이고있다》고 지적하고 《한》일유착관계를 규탄

10일 통일혁명당 중앙위원회 남조선인민들과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모든 당파 인사들에게 박정희파쑈독재를 짓부셔버리고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반독재민주구국성전에 일떠설것을 호소하는 호소문 발표

12일 부산의 진양화학주식회사 로동자 700여명 임금인상을 요구하여 대중적인 파업을 일으킴

15일 부산시 서구에 있는 대진주식회사 로동자 500여명 밀린 임금 지불을 요구하여 버티기투쟁을 벌림

16일 《민주구국헌장》발기인 10명이 괴뢰들의 《제헌절》에 즈음하여 성명을 발표하고 반《정부》투쟁을 계속 벌려나갈 결의를 표명

30일 전라북도 리리시에 있는 동양석재가공공장 로동자들 민족적 멸시와 학대를 일삼는 일본인기업주의 포악한 행위를 반대하여 파업 ▶통일혁명당 대변인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 제10차 《한미안보협의회》를 열고 범죄적인 《공동성명》을 발표한것을 규탄하여 성명 발표

8 월

8일 박정희파쑈도당 남조선의 각 대학들에서 학생들을 괴뢰군부대에 강제로 끌어다 《공수특전훈련》이라는것을 강요하면서 《락하훈련》과 《유격훈련》, 《사격훈련》을 시키는 소동을 벌림, 이른바 《모국방문》의 미명하에 남조선에 끌어들인 80여명의 재일교포녀학생들을 괴뢰《녀군훈련소》에 밀어넣고 《제식훈련》과 《사격훈련》을 강요

9일 박정희괴뢰도당 미국에 있는 교포학자들을 서울에 끌어들여 서울에서 이른바 《내외정치학자들의 합동학술대회》라는 관제행사를 벌려놓고 남북대결과 분렬을 고취

13일 남조선괴뢰들 일본 도꾜에서 열린 《해외한국인민주운동대표자회의》를 파탄시키기 위하여 600여명의 《민단》계 불한당들을 내몰아 회의장안

에까지 침입하여 회의관계자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부상을 입히는 천인공노할 만행 감행

19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미국인이 경영하는 한 주식회사의 3천여명 로동자들 임금을 46.8% 더 올릴것을 요구하여 단식룡성투쟁을 벌림

23일 박정희괴뢰도당 전쟁연습을 벌리기 위하여 남해해상의 넓은 해역에 경계령을 내림

24일 괴뢰서울지방법원에서 《긴급조치》체제를 통렬히 규탄한 시 《노예수첩》을 쓴 작가에 대한 첫공판 시작(12월 26일 그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의 형벌을 가함)

26일 남조선파쑈악당들 4월 《박정권의 퇴진》을 요구하여 《고난의 선언》을 발표한 신학대학 학생 5명에 대한 살인재판놀음을 벌려놓고 《반공법》과 《긴급조치》를 적용하여 5~7년의 징역형을 들씌우는 만행을 감행

9 월

1일 박정희괴뢰도당 거제도 동남방 해상에서 한달동안 매일 19시간씩 《해상사격훈련》을 벌린다고 공포하고 이 일대에 《해상경계령》을 내림

3일 박정희파쑈교형리들이 저들의 폭압체제와 매국배족행위를 폭로한 시 《민중의 소리》의 필자에게 《학생들과 로동자들을 선동한 반국가행위》라는 부당한 죄명을 씌워 징역 5년의 중형을 가함

8일 서울시 평화시장의 피복공장에서 일하는 로동자 200여명이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의로운 투쟁에 떨쳐나서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파업권 등 《로동 3권》의 보장과 로동운동에 대한 탄압의 중지를 요구하여 치렬한 투쟁을 벌림

10일 박정희괴뢰도당 《비상경계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에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할것을 남조선전역의 괴뢰경찰기구들에 지시하는 책동 감행

11일 서울시 성동구일대에 《교육부재의 유신풍토를 갈아엎자》라는 제목의 삐라가 뿌려짐

16일 뉴욕주재 남조선괴뢰총령사관 령사 한사람이 미국에 망명

18일 남조선괴뢰군 군용비행기 비무장지대상공에 침입하여 우리측에 대한 정탐과 적대행위 감행

20일 전북려객자동차주식회사의 로동자 180여명이 임금을 배로 올릴것과 시간외로동에 대한 임금을 줄것을 요구하여 대중적인 항의투쟁을 벌림

22일 경상북도안의 뻐스로동자 3천 300여명이 임금을 올릴것을 요구하여 파업, 로동자들의 대표들 괴뢰도청에 밀려가 항의를 들이댐 ▶경기도 인천시에 있는 한독교통주식회사의 로동자들 밀린 임금 800만원을 낼것을 괴뢰관계당국에 요구

23일 남조선의 이전 《대통령》 윤보선을 비롯한 15명의 반《정부》인사들 련명으로 된 성명을 발표하고 로동운동에 대한 박정희파쑈악당의 탄압만행을 견결히 규탄

10 월

7일 서울대학교에서 1천명의 학생들 학원에 대한 박정희괴뢰도당의 간섭행위를 반대하며 박정희역적의 사임, 《유신헌법》의 개정, 《긴급조치》의 철폐, 부당하게 체포투옥된 학생들과 인사들의 즉시 석방 등을 요구하여 시위투쟁을 벌림, 파쑈악당들 대학구내에 300여명의 무장경찰들을 출동시켜 250명의 학생들을 체포, 60여명의 학생들을 퇴학 및 정학 처분, 10개의 단과대학과 대학원에 《무기한휴교령》을 내리고 도서관을 비롯한 구내시설을 막아버리는 만행 감행

8일 통일혁명당 대변인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반파쑈투쟁을 지지하여 담화발표 ▶남조선괴뢰육군 충청남북도와 경기도 일대에서 《쌍룡작전》이라고 불리우는 《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의 범죄적인 전쟁연습을 감행한다고 발표

12일 남조선괴뢰군 군속 2명이 새생활의 길을 찾아 비행기를 타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공화국북반부로 의거 ▶연세대학교의 공학, 신학, 경영, 음악 등 각 단과대학 학생 약 2천명이 종교행사에 모인 기회를 리용하여 대학구내에서 반《정부》반파쑈민주화투쟁에 일떠섬, 군사깡패무리들 500여명의 괴뢰경찰을 내몰아 학생들의 반《정부》집회를 강제로 해산시키고 수많은 학생들을 체포 ▶남조선괴뢰군 일본《자위대》와 함께 동해남부에서 제2차세계대전후 《가장 큰 규모》의 군사연습 감행

19일 남조선괴뢰군함정들 필리핀 서북쪽 중국남해 해상에서 미제7함대 소속 함정들과 함께 합동작전훈련을 벌림

20일 남조선괴뢰군 제20사단 60련대 1대대 대대장과 대대무전수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공화국북반부로 의거 ▶경기도 성남시 《공업단지》안의 대건섬유회사 로동자들 괴뢰로동청 성남지방사무소에 항의문을 들이대고 밀린 임금의 지불을 요구하여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림

24일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탄압을 반대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하여 싸우다가 강제해고된 이전 《동아일보》기자들과 정치범가족들 100여명이 《자유언론실천선언》발표 3돐을 기념하는 모임에서 《언론의 자유를 압살하는 제도와 법의 철폐》 등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서울중심부에 떨쳐나와 괴뢰경찰들과 치렬한 싸움을 벌리면서 야간시위를 벌림

25일 연세대학교 학생 4천여명이 학생모임을 반《정부》집회로 전변시켜 《유신헌법의 철폐》를 요구하는 등 5개항목의 결의문을 채택, 괴뢰경찰들과 맞서 싸우면서 반《정부》시위를 벌림, 투쟁마당에서 《1977년연세민주수호결사투쟁선언》을 발표

28일 괴뢰정부의 직할기업체인 석탄공사 산하의 여러 탄광의 탄부들 임금을 33% 이상 올리며 로동조건을 개선할것을 기업체측에 요구하여 투쟁

29일 박정희괴뢰도당 남조선인민들속에 《반공》과 《대결》의식을 불어넣기 위하여 남조선전역에서 시, 도별 《안보정세보고회》라는 광대놀음을 벌림

30일 전라남도 광주시 광일려객회사 로동자들 밀린 임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집단적으로 회사사무실에 몰려가 투쟁

31일 리화녀자대학교 학생 2천여명 학생극의 상연을 박정희괴뢰도당이 탄압금지한데 항의하여 앉아버티기투쟁을 벌림

11 월

1일 박정희파쑈도당을 반대하는 남조선지식인들 《로동자인권대책협의회》를 무음, 모임에 앞서 100여명의 지식인들 련명으로 로동자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사회적관심을 돌릴것을 호소하는 성명 발표

2일 남조선괴뢰군 필리핀 서북쪽 해상에서 미해군과의 《합동작전훈련》을 벌림

3일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녀자중학교 학생 1천 500여명이 교통사고방지대책을 세울것을 괴뢰당국에 요구하여 프랑카드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 시위를 벌림

4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구내에서 《학도호국단》훈련에 내몰린 300명의 학생들 《구국을 호소하는 반정부삐라》를 뿌리면서 투쟁 ▶고려대학교의 구내에 박정희괴뢰도당을 비판하는 삐라가 수많이 뿌려짐

10일 서울의 동성고등학교 학생들 박정희파쑈도당을 반대하는 삐라투쟁을 벌림 ▶남조선각계의 반《정부》인사들 련명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정치범의 전원석방과 언론, 보도활동의 자유보장, 로동쟁의에 대한 탄압을 뿌리뽑을것을 요구

11일 서울대학교의 3천여명 학생들 《유신체제를 철폐하라》, 《독재정권은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부르고 괴뢰기동경찰대에 돌벼락을 안기면서 격렬한 반《정부》 시위를 벌림, 자기들의 민주주의적지향을 담은 《민주구국투쟁선언문》을 뿌림, 1천여명의 괴뢰기동경찰들 학생들에게 최루탄을 쏘아대고 곤봉을 휘두르면서 80명을 잡아가는 폭압소동을 벌림 ▶전라북도 리리역구내에 머물러있던 화차에서 30톤이나 되는 화약이 폭발하여 무고한 인민들이 생죽음을 당하는 일대 참사가 빚어짐 ▶남조선괴뢰해군의 군함들 인도양북쪽해역에서 미군과 합동군사연습을 벌림

12일 서강대학교 학생들 400여명 운동장에서 《학도호국단》 군사훈련에 내몰린 기회를 리용하여 파쑈적《유신헌법》의 철폐와 언론, 출판의 자유, 인권의 보장 등을 요구하여 시위투쟁을 벌림, 괴뢰폭동진압경찰대들 학생대렬을 해산시키려고 날뛰면서 10여명의 학생들을 잡아가는 만행을 감행

13일 통일혁명당 대변인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정의의 투쟁에 일떠선 남조선의 애국적청년학생들에게 야수적탄압을 감행하고있는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적폭압만행을 규탄하여 담화 발표

14일 통일혁명당 대변인 전라북도 리리역구내에서 화약을 실은 렬차가 폭발하여 시민들이 막심한 피해를 입은 류례없는 대참사가 빚어진것과 관련하여 성명 발표 ▶리화녀자대학교에 괴뢰정부를 비난하는 삐라가 뿌려짐

16일 남조선 강원도 삼척군 장성읍에 있는 장성광업소의 수직갱에 설치된 변압기에서 불이 일어나 수백명의 탄부들이 갱안에서 무리죽음을 당하는 참사가 빚어짐

18일 이전 남조선괴뢰외무부장관인 괴뢰륙군 퇴역중장 최덕신이 일본 도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정희역도를 《민족통일의 가장 큰 방해자》라고 하면서 《유신》테로독재를 타도할것을 호소하는 선언을 발표, 박정희괴뢰도당을 반대하여 자신이 미국에 망명한다는것을 선포 ▶서울에서 로동자들과 각계인사 700여명이 모임을 가지고 로동자들에 대한 괴뢰도당의 가혹한 억압착취와 로동운동에 대한 유린행위를 규탄하면서 로동조건의 개선과 로동운동의 자유를 강력히 요구 ▶남조선의 량심적인 작가들로 구성된 《자유실천문화협회》성원들 이 협회창립 3돐을 기념하여 모임을 열고 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견결히 싸워나갈 결의를 표명한 《제3선언》을 발표

21일 박정희괴뢰도당 서해의 우리측 해안 가까운 해상에서 괴뢰해군함정들을 동원하여 《해상특별훈련》이라는 도발적군사연습 감행

24일 박정희괴뢰도당 전쟁잠재력을 늘이기 위한 제2차《확대진흥회의》라는 범죄적모의판을 벌려놓고 군수산업의 확장을 다그칠데 대한 음모를 꾸밈

12 월

2일 남조선의 기독교감리교회관계자들이 서울에서 특별총회를 열고 감옥에 갇혀있는 인사들을 즉시 석방할것을 괴뢰정부에 요구 ▶박정희괴뢰도당에 의하여 학원에서 추방당한 대학교수들이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학문의 자유, 학원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민주교육선언》을 발표 ▶경상남도 울산시 매암동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2천여명의 주민들 괴뢰시청에 항의를 들이대고 하루빨리 공해방지대책을 세울것을 요구

5일 남조선의 여러 탄광들에 고용된 5만여명의 탄부들 로동조건의 개선과 임금을 올릴것을 요구하여 투쟁을 벌림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풍한산업주식회사 종업원들 밀린임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회사사무실에 몰려가 집단적으로 버티기투쟁을 벌림

8일 남조선의 반《정부》적 각계인사들 학생운동에 대한 괴뢰도당의 파쑈적탄압행위를 규탄하여 《최근의 학원사태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성명문을 련명으로 발표

9일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싸우다가 체포투옥된 인사들의 가족들과 로동자, 학생, 문화인 700명이 반《정부》집회를 가지고 모든 정치범들의 무조건석방과 언론의 자유보장, 정학 또는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들에 대한 처벌조치의 철회 등을 요구하는 성명 발표, 이어 홰불시위 전개

12일 군사분계선에 가까운 전연지대의 괴뢰군부대에서 도발적인 《대공사격훈련》을 감행

18일 남조선괴뢰도당 련탄과 석탄값을 평균 33%씩 올림

20일 남조선파쑈도당 《년말년시특별경계기간》을 정하고 괴뢰경찰들을 모조리 동원하여 인민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강화하기로 함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주요활동일지

(1977년 1월—12월)

1월

1일 민족의 태양이시며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1977년을 맞이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이 삼가 축하문을 드림

2일 1977년을 맞이하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충성의 새해모임이 재일본조선중앙회관에서 있었음

6일 위대한 수령님의 새해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총련과 그 산하단체일군들의 년초학습모임들이 진행

10일 총련의 1977년도 할일을 더 잘하기 위한 중앙열성자대회 도꾜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18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을 민족최대의 경사로 맞이하기 위하여 《재일조선청년학생들의 100일간 애국운동》을 적극 벌리기 위한 중앙단체, 사업체, 조청원들의 모임 조선출판회관에서 있었음

26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방침을 구현한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의 애국애족의 구국대책을 열렬히 지지환영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성명

29일 평양에서 진행된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의 제의를 지지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 총련과 그 산하 단일단체들이 《민단》기관과 그 산하 인사들과 동포들에게 제정당, 사회단체련석회의가 제의한 구국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대회를 열데 대한 호소문을 보냄

2월

6일 재일본조선체육일군조국방문단의 보고모임이 조선출판회관에서 있었음

8일 총련 각지 강연구들에서 《모두다 민족의 영구분렬과 전쟁의 위험을 막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운동에 힘차게 떨쳐나서자》라는 제목으로 대중강연회 일제히 진행

10일 박정희괴뢰도당의 《내장수출》만행을 규탄하여 재일본조선민주법률가협회와 재일본조선인과학자협회가 성토문 발표

13일 조선교육문화일군직업동맹대표단을 환영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오사까에서 진행

18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제6차한일의원련맹총회》놀음을 벌려 《공동성명》이란것을 발표한 박정희괴뢰도당과 일본반동들의 추악한 공모결탁을 규탄하여 성명

2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한덕수의장의 생일 70돐에 즈음하여 친히 보내주신 선물과 훈장을 전달하는 모임이 도쿄조선문화회관에서 있었음

3 월

1일 3.1인민봉기 58돐기념,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의 즉시 철거를 요구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 지방대회도 각지에서 진행

2일 총련중앙대표들이 오무라수용소에 장기 수용되고있는 동포들의 즉시 석방을 요구하여 일본법무청을 찾아가 관계당국자들에게 요청하고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요망서를 넘김

1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65돐을 축하하기 위하여 조국을 방문하는 금강산가극단이 요꼬하마항을 떠남 ▶스리랑카에 갔던 재일조선축구단이 도꾜에 돌아옴

13일 1976학년도 재일조선중고급학교 졸업식들이 17일까지 진행

20일 《김일성청년영예상》을 전달하는 모임이 조선대학교에서 있었음 ▶조선대학교 제19회졸업식이 있었음 ▶나가사끼조선신용조합이 창립

22일 박정희괴뢰도당이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구국선언》관련 민주인사들에게 징역 5년에 이르는 중형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만행을 감행한것을 규탄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성명 발표 ▶시가조선신용조합본점 새건물이 준공

23일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조직지도하신 조선국민회결성 60돐기념 총련간부강연회가 재일본조선중앙회관에서 진행

29일 제178차귀국선 《만경봉》호가 니이가다항에 도착

4 월

1일 제178차 귀국선 《만경봉》호가 조국을 향하여 니이가다항을 떠남

5일 위대한 수령님탄생 65돐에 즈음하여 충성의 선물로 마련한 총련 이즈미오쯔조선초급학교새교사 준공모임 진행, 이즈미오쯔조선초급학교, 센보꾸조선초급학교, 미나미오사까조선초급학교 초급부가 통합하여 센슈조선초급학교로 됨

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탄생 예순다섯돐 재일조선인 축하단이 조국을 향하여 하네다비행장을 떠남

9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65번째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것과 관련하여 수령님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감사전문을 드림

10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대학교에 보내주신 꽃나무를 기념하는 비석 제막식 진행 ▶ 총련 아이찌조선제8초급학교 새교사 준공모임이 진행

11일 조선미술연구소 준공모임 도꾜에서 진행

13일 위대한 수령님 탄생 65돐을 기념하여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가장 숭고한 인민적풍모를 지니신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라는 제목으로 총련 간부강연회 진행

14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65돐기념 재일조선청년학생들의 충성의 선서모임 각지에서 진행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65번째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는 재일본조선교육일군, 과학자, 류학생들의 모임 진행

15일 민족의 태양이시며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다섯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삼가 축하문을 드림 ▶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65돐을 경축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 지방대회들도 각지에서 진행 ▶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예순다섯돐에 즈음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축하연을 차림

19일 남조선인민들의 4월봉기 17돐을 기념하는 재일조선청년학생들의 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23일 위대한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탄생 85돐기념 재일조선녀성들의 중앙강연모임 진행 ▶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한일대륙붕협정》의 비준심의를 그만둘것을 요구하여 성명

25일 위대한 수령님께 조선인민혁명군창건 45돐을 맞이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축하전문을 보내여옴 ▶총련중앙위원회 제10기 제6차회의 진행(26일에 끝남)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29일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5돐기념 재일본조선인축구선수권대회 도꾜에서 진행

5 월

4일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제10기 제6차회의 도꾜에서 진행

5일 어버이수령님께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신 20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

경애하는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6일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중앙위원회 제10기 제4차회의 진행

8일 조국통일촉진 오사까조선동포대야유회 5만 5천여명의 각계층 동포들의 참가밑에 진행

11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일본정부당국이 범죄적인 《한일대륙붕협정》을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통과시킨것을 항의하여 성명

14일 일본방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의원그루빠대표단을 환영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

16일 제3차 도꾜조선동포야유회 진행

19일 《총련제11차전체대회를 맞이하는 5개월운동》에서 앞장서기 위한 조청중앙일군들의 모임 진행, 녀맹중앙일군들의 모임도 있었음

23일 총련결성 22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효고현 고베시에서 진행,

경애하는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28일 60만 재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귀환보고모임 도꾜에서 진행

6 월

3일 보천보전투승리 40돐기념 총련간부강연회 도꾜에서 진행

8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일본정부가 범죄적인 《한일대륙붕협정》을 《자연성립》시킨것을 규탄하여 성명 ▶조국을 방문하였던 재일조선인축구선수단의 귀환보고모임 진행

10일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60만재일동포들의 충성의 편지전달계주단 성원들에게 주신 1977년 5월 20일 교시를 관철하기 위한 재일본조선청년학생중앙대회가 교토에서 진행

15일 총련과 그 산하단체들이 반미공동투쟁월간에 즈음하여 국제민주단체들과 여러 나라 사회단체들 및 각계 인사들에게 공동명의로 미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지지하여 줄데 대한 호소문을 보냄

24일 《6.25미제반대투쟁의 날》에 즈음하여 남조선으로부터 미군의 즉시철거를 요구하며 박정희괴뢰도당의 파쑈폭압을 규탄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

7월

3일 조국을 방문하였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탄생 예순다섯돐 재일조선인축하단의 보고모임이 도꾜에서 진행

4일 7.4남북공동성명발표 다섯돐을 기념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26일 조국해방전쟁승리 24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8 월

4일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 강반석녀사서거 마흔다섯돐 재일동포녀성중앙강연회가 진행

15일 8.15조국해방 32돐기념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가 도꾜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

1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1972년 8월 18일 교시 5돐기념 총련교육일군들의 모임 도꾜에서 있었음

21일 재일본조선인의학협회가 결성됨, 결성모임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 채택

27일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결성 50돐에 즈음하여 총련에서 기념강연회 진행

9 월

1일 남조선의 민주주의적인 시인, 언론인들에 대한 파쑈적탄압을 규탄하는 재일조선문학예술인들의 모임 진행

6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가 범죄적인 《제9차한일정기각료회의》를 규탄하여 성명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9돐을 경축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1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것과 관련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삼가 편지를 드림

16일 《조국통일과 총련애국사업》을 주제로 하는 재일조선사회과학자연구토론회가 도꾜에서 있었음

17일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결성 30돐기념 모임 도꾜에서 진행

1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강령적 1974년 9월 24일교시 3돐기념 조청반열성자들의 중앙대회가 나고야에서 진행 ▶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표하신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열렬히 지지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

25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66번째로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의 배려에 감사드리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

26일 총련 제11차전체대회가 도꾜에서 성대히 진행(28일에 끝남), 경애하는 수령님께 드리는 편지를 채택 ◀재일본조선학생미술전람회와 벽보전시회 도꾜에서 진행(30일까지)

30일 총련대표단이 총련 제11차전체대회에서 채택된 요청문을 일본내각관방부장관에게 전달

10 월

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일본사회당위원장의 탄생 65돐을 축하하여 보내주신 선물을 한덕수의장이 전달

5일 제179차귀국선 《만경봉》호가 니이가다항에 도착

▶ 총련제11차전체대회결정 집행을 위한 총련 각현본부대회들이 진행(23일에 끝남)

7일 제179차귀국선 《만경봉》호가 조국을 향하여 니이가다항을 떠남

10일 조선로동당창건 32돐에 즈음하여 총련에서 간부강연회 진행

12일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결성 30돐기념 모임 도꾜에서 진행

17일 남조선청년학생들의 정의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지지성원하여 재일조선청년학생단체들이 공동성명

19일 우리 나라 녀맹대표단을 환영하는 재일본조선인 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29돐기념 조선학교학생예술경연대회가 열림 ▶총련중앙대표가 일본폭력단깡패들이 남조선에 갈수 있도록 려권을 발행한 일본정부에 강력히 항의

25일 총련의 조선문제연구소창립 25돐기념모임 도꾜에서 진행

30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지지환영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진행, 각 지방대회들도 11월 3일까지 진행됨, 경애하는 수령님께 삼가 편지를 드림

11 월

3일 광주학생사건 48돐기념 재일조선청년학생중앙보고모임 도꾜에서 진행

6일 총련교토부 세이낭지부가 결성, 조청, 녀맹지부도 결성됨

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일군들에게 공화국 로력영웅칭호와 훈장을 수여하여 주신것과 관련하여 경애하는 수령님께 총련상임위원회에서 삼가 감사 전문을 드림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성과를 축하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25일 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된 재일동포 각계대표들의 재입국을 일본당국이 인정하지 않은것을 규탄하여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성명

12 월

6일 총련중앙상임위원회에서 아이찌현본부와 도순지부사무소에 대한 일본 아이찌현 경찰들의 정탐 및 탄압행위에 강력히 항의하여 성명

1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주석으로 추대되신 민족적경사를 축하하는 재일본조선인중앙대회 도꾜에서 진행

24일 조국을 방문하였던 재일조선녀성대표단의 보고모임 도꾜에서 진행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에 즈음하여 총련간부강연회 도꾜에서 진행

2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8년 새해에 즈음하여 총련일군들과 애국적상공인들 및 모든 분회들에 보내주신 선물전달모임이 도꾜에서 진행

국제주요일지

(1977년 1월—12월)

1 월

3일 자메이카에서 마이클 맨리를 총리(국방부장 겸임)로 하는 새 내각을 구성

6일 라오스와 베닌이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기로 결정

8일 필리핀대통령이 자국내의 미군사기지들에 대한 필리핀의 통제권을 주장 ▶앙골라에서 식민지시대의 화폐를 크완자로 교환

10일 쁠럭불가담나라통신사련합 조정위원회 회의 까히라에서 진행 (12일까지)

11일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인민회의 제6기 제2차회의 진행(15일까지), 1977년 국가계획을 채택

15일 나이제리아 수도 라고스에서 제2차세계흑인및아프리카인문화예술축전 진행(2월 12일까지) ▶아랍나라 외교부장회의 진행(16일까지), 아랍나라들과 아프리카나라들 사이의 협조원칙을 승인

16일 베닌 인민군과 인민들이 제국주의고용병들의 꼬또누 여러 지점에 대한 무장공격을 격퇴하고 자주권을 수호

17일 제5차아랍의회련맹회의 진행(20일까지), 중동정세와 아랍 여러 국회들의 협조강화문제를 토의

18일 독일의공산당 명예위원장 막스 라이만 서거

19일 가이아나가 칠레군사파쑈정권과의 관계를 단절

20일 카터가 제39대 미국대통령으로 취임

21일 로므니아와 에스빠냐가 대사급 외교관계를 다시 설정하기로 결정

25일 수단사회주의동맹 제2차대회 진행(2월 5일까지), 수단대통령 니메리가 위원장으로 재선

27일 유고슬라비아와 에스빠냐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기로 결정

28일 꾸바와 말디브제도사이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설정

31일 위대한 사회주의 10월혁명 60돐에 관한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 발표 ▶웰남의 통일전선대회 진행(2월 4일까지), 웰남조국전선을 내오기로 결정, 새 규약과 정치강령도 채택 ▶뽈스까와 에스빠냐가 대사급 외교관계를 설정 ▶앙골라와 프랑스가 대사급 외교관계를 설정

2 월

3일 모잠비끄해방전선 제3차대회 마뿌또에서 진행(7일까지), 대회에서 당 강령과 규약을 채택하고 대통령 마쉘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 지도기관선거 ▶아프리카통일기구 해방위원회 제28차회의에서 짐바브웨애국전선을 짐바브웨인민의 유일한 합법적대표로 인정

8일 일본사회당 제40차대회 진행(10일까지), 나리다 도모미가 위원장으로 재선

11일 사회주의에티오피아에서 멩기스트 하일레 마리암중좌를 림시군사행정리사회 위원장으로 임명(국가수반 겸 무력총사령관)

13일 탄자니아에서 소코이네를 총리로 하는 새 정부 구성

14일 에스빠냐공산당 총비서가 완전한 공민의 자격을 회득 ▶일본총평 제54차림시대회 진행(15일까지)

15일 단마르크에서 총선거 진행

16일 민주예멘과 예멘아랍공화국 지도자들사이에 공동리사회 창설과 6개월에 한번씩 두 나라 수도에서 번갈아 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협정 체결 ▶일본공산당 중앙위원회 간부회가 새 서기국 성원들을 선출

17일 중국과 리베리아사이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기로 결정

19일 아랍만및아라비아반도 나라 농업부장들의 회의 진행(21일까지), 농업을 공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결의들을 채택

21일 버마사회주의로선당 제3차대회 진행, 위원장으로 우 네 윈대통령이, 총서기로 산유가 재선

22일 모잠비끄수도에서 아프리카영화협조협회를 창설

23일 로므니아대통령 니꼴라에 챠우쉐쓰꾸가 세네갈을 방문(25일까지)

25일 로므니아대통령 니꼴라에 챠우쉐쓰꾸가 가나를 방문(27일까지) ▶알제리에서 첫 민족인민회의선거를 전국적으로 진행

26일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에리히 호네케르가 뽈스까를 방문(27일까지)

27일 로므니아대통령 니꼴라에 챠우쉐쓰꾸가 상아해안을 방문(3월 2일까지) ▶애급, 수단, 수리아 수뇌자회의 진행(28일까지), 련합정치지도부를 조직하는데 합의하고 정치성명을 발표 ▶아세아 및 태평양 지역 녀성및개발쎈터 이란의 수도에서 창설

28일 리비아에서 최고주권기관인 총인민대회 회의 진행(3월 2일까지), <인민정권제도> 수립에 관한 법령을 채택, 리비아아랍사회주의인민공동체로 나라이름을 고침, 전국인민위원회를 선거, 모아메르 엘 가다피를 총인민대회 총비서로 선거

3 월

1일 피델 까스뜨로가 인솔하는 꾸바당및정부대표단이 리비아를 공식친선방문(10일까지) ▶소말리아사회주의혁명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결정에 따라 소말리아민족군을 민족무력으로 고침

2일 로므니아대통령 니꼴라에 챠우쉐쓰꾸가 나이제리아를 방문(5일까지)

3일 쁠럭불가담나라 정부간 보도조정위원회 제1차회의 진행, 쁠럭불가담나라들이 보도, 방송, 텔레비죤분야에서 협조를 진행할데 대한 결의들을 채택 ▶아랍, 아프리카 외교부장회의 애급의 수도에서 진행(6일까지)

4일 로므니아의 수도 부꾸레슈띠를 포함한 이 나라의 동남부지역에서 큰 지진 발생 ▶제1차소말리아녀성대회 진행(6일까지), 소말리아민주녀성조직을 결성하기로 결정 ▶에스빠냐정부가 로동자들의 파업권을 승인, 15개 정당도 합법화

5일 알제리민족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의장선거와 분과위원회조직문제 토의 ▶라틴아메리카및까리브해지역사탕수출국가들의 회의 진행(6일까지), 국제시장에서의 사탕가격에 대한 유일정책작성문제 등을 토의

7일 제1차아랍아프리카수뇌자회의 애급의 수도에서 진행(9일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신 축전을 대회에서 전달, 정치선언 채택

9일 에스빠냐가 마드리드에 있는

팔레스티나해방조직 대표부를 정식으로 승인

11일 피델 까스뜨로가 인솔하는 꾸바당및정부대표단이 민주예멘을 공식방문(12일까지)

12일 민주예멘과 요르단이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기로 결정 ▶일조협회 제20차정기전국대회 진행(13일까지), 새로운 운동방침을 채택 ▶피델 까스뜨로가 인솔하는 꾸바당및정부대표단이 소말리아를 방문(14일까지) ▶사회주의에티오피아에서 <혁명적에티오피아의소리>방송을 개시 ▶팔레스티나 제13차민족회의 까히라에서 진행(20일까지), 야씨르 아라파트를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시 선거 ▶칠레군사파쑈도당이 모든 정당들을 해체하는 명령 발표

13일 기네—비싸우전국인민회의 제2차회의 비상회의에서 루이스 까브랄이 국가리사회 위원장으로 재선

14일 피델 까스뜨로가 인솔하는 꾸바정부대표단이 사회주의에티오피아를 방문(16일까지) ▶5개 아프리카나라 수뇌자회의(모잠비크, 앙골라, 탄자니아, 잠비아, 보쯔와나)를 모잠비크의 베이라시에서 진행(16일까지), 로데시아와 남아프리카에서의 사태발전문제를 토의 ▶유엔물대회가 아르헨띠나에서 진행(25일까지), 우리 나라 정부대표단이 참가

15일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의회에서 베셀린 쥬라노위츠를 련방집행리사회 위원장으로 새로 선거

16일 인도에서 총선거 진행(20일까지), 야당련합인 쟈나타당이 승리 ▶레바논사회진보당 위원장 카말 줌블라트가 피살됨 ▶나이제리아에서 내각을 일부 개조

17일 제10차까히라국제상품전람회 개막, 우리 나라를 비롯한 40개 나라가 참가 ▶피델 까스뜨로가 인솔하는 꾸바정부대표단이 탄자니아를 방문

18일 꽁고대통령 마리엔 느구아비가 제국주의앞잡이들에 의하여 치명상을 입고 서거

20일 말가슈에서 지방주권기관선거 진행, 대통령이 이끄는 말가슈혁명전위가 승리 ▶프랑스지방선거 제2차(결선)투표에서 제1차투표에 이어 좌익련합이 승리 ▶사하라지역 5개 아프리카나라(알제리, 리비아, 말리, 니제르, 챠드) 국가및정부수반들의 회의 진행(21일까지)

21일 피델 까스뜨로가 인솔하는 꾸바당및정부대표단이 모잠비크를 방문(22일까지)

22일 쏘련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탄자니아를 방문(26일까지)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웽그리아당및정부대표단이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25일까지) ▶벌가리아와 져메이카사이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설정

23일 피델 까스뜨로가 인솔하는 꾸바당및정부대표단이 앙골라를 공식친선방문(31일까지)

24일 인도에서 쟈나타당 위원장을 총리로 하는 새 정부 구성

25일 벌가리아와 가이아나가 대사급 외교관계를 설정

26일 아랍, 아프리카나라 통신사책임일군들의 제2차회의 리비아수도에서 진행(31일까지) ▶아랍련맹리사회 제67차부장회의 애급수도에서 진행 ▶아세아아프리카인민단결기구 상무위원회 제5차회의 베닌수도 꼬또누에서 진행(28일까지), 조선에 관한 결의 채택

27일 남아프리카의 소웨토와 요한네스부르그의 기타 지역들에서 흑인학생들이 보스터인종주의도당을 반대하여 시위와 집회 진행

28일 국제탁구련맹총회가 영국의 버밍감에서 진행됨(4월 3일까지), 제35차세계탁구선수권대회를 1979년에 평양에서 진행하기로 결정

29일 쏘련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모잠비크를 방문(4월 1일까지), 쏘련과 모잠비크사이의 친선및협조에 관한 조약과 령사협정 체결

30일 서아프리카협상위원회 성원국들의 수뇌자회의 상부볼따 수도 와가두구에서 진행(31일까지), 또고, 상부볼따, 니제르, 상아해안의 국가수반들이 참가

31일 꾸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국가리사회 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피델 까스뜨로가 알제리를 방문(4월 2일까지) ▶보쯔와나민족회의에서 민족보위군창설에 관한 법안 통과

4 월

2일 꽁고인민공화국 대통령이며 꽁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인 마리엔 느구아비의 장례식 브라자빌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신 화환이 묘의 중심에 진정되였다. ▶에스빠냐내각이 프랑꼬가 창건했던 <국민운동>을 해산한데 대한 법령에 찬동 ▶피델 까스뜨로를 단장으로 하는 꾸바당및정부대표단이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4일까지)

3일 에스빠냐와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이 대사급 외교관계를 다시 맺음

4일 피델 까스뜨로를 단장으로 하는 꾸바당및정부대표단이 쏘련을 방문(8일까지)

6일 버마대통령이 네팔을 방문(8일까지)

7일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쁠럭불가담국가 조정위원회 회의 진행, 우리나라 대표단 옵써버로 참가, 자립적민족공업및농업발전에서의 경험교환을 위한 토론회를 1978년 평양에서 가지기로 결정

9일 근 40년동안 비법화되여온 에스빠냐공산당이 합법화됨

10일 버마정부가 200마일경제수역 설정을 발표 ▶가이아나사회주의청년운동 제1차대회 진행(16일까지), 조선에 관한 결의 채택

11일 국제의회동맹리사회 120차회의 오스트랄리아의 캔베라에서 진행 ▶파키스탄—방글라데슈사이의 전화설비및전선판매와 원거리통신및우편망 개선에 관한 협정 조인

12일 아프가니스탄대통령 쏘련 방문(15일까지), 경제협조발전조약 조인

14일 중국과 요르단이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음

18일 아랍추장국련방 수도 아부다비에서 아랍나라 재정부장들의 회의 진행, 아랍통화기금을 창설하기로 결정 ▶수리아대통령 쏘련 방문(22일까지)

23일 탄자니아와 말가슈가 향료시장협정을 맺음

24일 유엔서아세아경제위원회가 팔레스티나해방조직을 정식성원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

25일 윁남총리 프랑스 방문(30일까지)

27일 일본반동들이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한일대륙붕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을 날치기방법으로 강제통과시킴

29일 꼬모르국가 전국인민회의가 나라 이름을 <꼬모르비종교사회민주주의공화국>으로 고칠데 대한 헌법수정안을 비준

30일 레바논사회진보당 위원장으로 카말 줌블라트의 아들 왈리드 줌블라트가 선거됨

5 월

2일 모잠비크대통령 핀란드 방문(4일까지)

3일 캄보쟈와 에스빠냐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음

4일 사회주의에티오피아림시군사행정리사회 위원장 쏘련 방문(8일까지)

5일 또고의 수도 로메에서 아프리

카문화부장회의 제2차정기회의 진행, 아프리카문화발전과 관련한 권고안들과 결의들을 채택

6일 뽈스까의 수도 와르샤와에서 세계평화건설자대회 진행(11일까지)

9일 말가슈에서 국영통신사 따라뜨라를 창립

12일 웰남사회주의공화국 인민회의 상무위원회에서 12해리의 령해와 린접수역, 200해리의 경제전관수역과 대륙붕에 관한 결정 채택

13일 에스빠냐공산당 위원장 돌로레스 이바루리가 38년간의 망명생활을 끝내고 귀국

16일 유고슬라비아의회가 유고슬라비아공산주의자동맹 위원장이며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대통령 이오씨프 브로즈 찌또동지에게 세번째로 인민영웅훈장을 수여 ▶리비아의 수도 타라불스에서 제8차회교국가 외교부장회의 진행(22일까지), 회교국가들사이의 협조를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들과 일련의 국제정세문제들을 토의

17일 핀란드대통령 쏘련 방문(24일까지)

19일 중국과 인도가 근 15년동안 단절되였던 호상무역을 재개하기로 결정

25일 화란에서 총선거 진행

27일 유엔안보리사회가 해외에 있는 로데시아인종주의도당의 공보사무소들을 페쇄시킬데 대한 결의안을 채택 ▶잠비아의 수도 루사카에서 아프리카의 <전선>국 국방및내무부장들의 회의 진행(28일까지)

28일 뽈스까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에드와르드 게레크를 단장으로 하는 당및국가대표단이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29일까지), 두 나라 사이의 친선, 협조및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조인

30일 방글라데슈에서 정부의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 진행, 국민투표참가자들의 압도적다수가 지아우르 라흐만대통령의 정책을 지지 ▶벌가리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이며 벌가리아인민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인 또도르 쥡꼬브를 단장으로 하는 당및정부대표단이 쏘련을 방문(6월 4일까지) ▶까메룬의 수도 야운데에서 아랍아프리카협조상설위원회 제1차회의 진행(6월 1일까지), 제1차아랍아프리카수뇌자회의에서 채택된 아랍아프리카경제및재정협조에 관한 선언을 리행하기 위한 대책적문제들을 토의

31일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이란, 토이기, 파키스탄이 경제, 기술, 문화 등 분야들에서 협조를 확대하기 위한 협정을 맺음

6 월

3일 가이아나에서 12마일 령해를 포함한 200마일경제수역설정을 규정한 새로운 해상경계법을 채택

4일 쏘련에서 새 헌법초안 발표

5일 토이기에서 총선거 진행, 인민공화당이 승리

6일 수단대통령 중국 방문(16일까지), 두 나라 사이의 경제및기술협조협정 맺음

7일 체스꼬슬로벤스꼬와 꼬모르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음 ▶웽그리아사회로동당 제1비서 까다르 야노쉬 이딸리아 방문(9일까지)

8일 영국에서 영련방수뇌자회의 진행(15일까지), 로데시아와 남아프리카인종주의정권들을 규탄 ▶로므니아공산당 총비서이며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인 니꼴라에 챠우쉐쓰꾸를 단장으로 하는 당및국가대표단이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10일까지)

13일 탄자니아 수도 다르 에스 살람에서 루테르파기독교회세계련맹 제6차총회 진행(26일까지), 남아프리카에서의 백인소수파통치및인종차별정책을 규탄

14일 알바니아인민회의 제8기 6차회의 진행(15일까지), ▶애급의 수도 까히라에서 아랍경제공동체리사회 제29차회의 진행(16일까지)

15일 에스빠냐에서 41년만에 총선거 진행

16일 쏘련최고쏘베트 제9기 제6차회의 진행, 브레쥬네브를 최고쏘베트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거 ▶아일랜드에서 총선거 진행, 공화당이 승리, ▶독일민주주의공화국 인민의원회의 진행, 새 로동법에 관한 법안을 찬동 ▶꽁고총리 중국 방문(21일까지), 두나라 정부사이의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 ▶뽀르뚜갈의 리스봉에서 남부아프리카에서의 인종격리, 인종주의,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세계대회 진행(19일까지)

17일 국제원자력기구 리사회에서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을 내쫓기로 결정 ▶프랑스의 낭뜨시에서 프랑스사회당 제4차대회 진행(19일까지)

19일 쏘련에서 지방근로자대의원쏘베트선거 진행

20일 쏘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쏘련최고쏘베트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레오니드 브레쥬네브가 프랑스를 방문(22일까지), 량부이에서 쏘련프랑스 선언과 쏘련프랑스공동성명 조인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서 세계식량회의 제3차각료회의 진행(24일까지) ▶말따의 수도 왈레따에서 지중해지역사회주의조직및사회당 제2차회의 진행(25일까지)

22일 타이의 수도 방코크에서 미제의 침략도구 세아토의 마지막모임 진행

23일 가봉의 수도 리브르빌에서 아프리카통일기구부장리사회 제29차회의 진행(26일까지), 로데시아의 침공에 대비하여 모잠비끄, 보쯔와나, 잠비아를 원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

25일 알바니아와 또고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음

27일 몽골인민공화국 대인민후랄 제9기 제1차회의 진행, 유. 쩨덴발을 대인민후랄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다시 선거 ▶아프리카대륙에 있던 프랑스의 마지막식민지 아파르 이싸가 <지부티공화국>으로 독립

30일 바레인이 미국과 체결한 미제7함대의 쥬페어해군기지사용에 관한 협정을 페기

7 월

1일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 <오르비스>통신사를 새로 창설

2일 가봉의 수도 리브르빌에서 제14차아프리카통일기구 국가및정부수뇌자회의 진행(5일까지)

5일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 제18차사회주의나라 보건부장회의 진행, 우리 나라 대표단 참가 ▶파키스탄군대가 나라의 정권을 장악, 합동참모본부의장과 륙해공군참모장들로 군사위원회를 구성, 륙군참모장이 수석계엄사령관으로 됨

9일 뽀르투갈국회가 40년만에 처음으로 파업법을 통과

11일 로므니아에서 공업, 건설및운수 기업소 로동자위원회들의 제1차대회 진행(13일까지) ▶꽁고의 수도 브라자빌에서 아프리카우편및원거리통신동맹 부장리사회 특별회의 진행(12일까지)

12일 꾸바에서 제1기 인민주권민족회의 제1차회의 진행(14일까지), 인민주권민족회의 및 지방기관들에 관한 규정을 승인하고 20개의 상설실무위원회를 선거

13일 앙골라와 에티오피아가 대사급 외교관계를 설정

15일 지부티에서 아흐메드 디니를 총리로 하는 첫 정부를 구성

16일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제5차 아랍청년및체육사업부장회의 진행(18일까지), 체육활동에서 이스라엘

을 배척할것 등을 호소

17일 중국에서 베이징국제축구친선초청경기대회 진행(30일까지) ▶나이제리아국가수반이 니제르를 방문(18일까지)

19일 쏘련과 라오스가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을 맺음 ▶방글라데슈대통령이 버마를 방문(22일까지)

20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웰남사회주의공화국을 유엔성원국으로 받아들일것을 유엔총회에 권고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

21일 웽그리아와 수리남이 대사급외교관계를 설정 ▶스리랑카에서 총선거 진행, 통일국민당이 승리

24일 가이아나와 앙골라가 대사급외교관계를 설정 ▶쿠웨이트가 1973년 3월 무장충돌후 폐쇄하였던 이라크와의 국경을 개통하기로 결정

25일 인도국회하원 의장이였던 넬람 산지바 레디가 새 대통령으로 취임 ▶베닌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진행(8월 1일까지), 헌법초안수정안과 제1차국가발전계획을 심의 ▶수리아의 디마스끄국제시장이 열림(8월 20일까지), 수리아 내각총리가 우리 나라 전람관을 참관

26일 기네—비싸우국가리사회 위원장이 까타르를 방문(27일까지)

27일 까메룬대통령이 알제리를 방문(30일까지)

28일 말가슈에서 민족회의 제1차회의 진행, 민족회의 의장을 선거 ▶스리랑카에서 제이. 아르. 자예와르데네를 총리로 하는 새 정부 구성

30일 일본 도꾜에서 핵무기를 반대하는 국제회의 진행

31일 중국인민해방군창건 50돐 경축대회 베이징에서 진행 ▶말가슈대통령이 새 총리를 임명 ▶일본 히로시마에서 <피폭자문제국제토론회> 진행(8월 2일까지)

8 월

1일 부룬디대통령이 르완다를 방문(3일까지)

2일 또고정부가 200마일령해를 설정하기로 결정

3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1977년원수폭금지세계대회 진행(6일까지) ▶끼쁘로스공화국대통령 마카리오스가 서거

5일 필리핀과 말레이시아가 국경협정을 체결

12일 중국공산당 제11차전국대회 진행(18일까지), 정치보고, 당규약 개정에 관한 보고, 중국공산당의 새 규약을 찬동

13일 산토메 프린시페 정부총리가 중국을 방문(14일까지)

17일 쏘련원자쇄빙선 <아르끄찌까>호가 북극의 지리학적극지점에 도달 ▶일본로동조합 총평의회 제55차정기대회 진행(20일까지)

19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1기 제1차전원회의 진행, 화국봉동지를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석으로 선거

22일 서부사모아가 200마일 경제수역을 선포 ▶인종격리반대세계행동대회 나이제리아수도 라고스에서 진행(26일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내신 축전전달, 라고스선언을 채택

23일 웰남인민회의 상무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웰남인민회의 대표단이 몽골을 방문(29일까지)

25일 뽈스까에서 사회주의나라 청소년국제력기경기대회 진행(28일까지), 우리 나라 청소년력기선수단이 금메달 7개 등을 쟁취

29일 소말리아대통령이 쏘련을 방문(31일까지)

30일 유고슬라비아대통령이 중국을 친선방문(9월 8일까지)

31일 모잠비끄인민회의 진행(9월 1일까지), 총선거법 등을 채택

9 월

3일 벌가리아에서 쁠로브디브국제시장이 열림(10일까지), 또도르 쥡꼬브가 우리 나라 전람관을 참관 ▶애급의 수도 까히라에서 아랍련맹외교부장회의 진행(6일까지) ▶끼쁘로스에서 스삐로스 키쁘리아누가 새 대통령으로 취임

4일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라이프찌히에서 가을철국제시장이 열림(11일까지), 우리 나라를 비롯한 48개 나라들이 참가

5일 로므니아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이 벌가리아를 방문(8일까지)

6일 제1차모스크바국제도서전람회 쏘련에서 진행(14일까지), <김일성저작선집>과 <우리 혁명에서의 주체에 대하여>가 특별상과 메달을 받음 ▶미국사법부가 대미뢰물비행의 하수인 박동선에 대한 기소장을 공개

7일 빠나마와 미국사이에 새로운 빠나마운하조약 조인

9일 중국인민의 위대한 수령 모택동주석 서거 1돐을 기념하여 모택동기념당을 개관하는 대회 베이징에서 진행 ▶네팔에서 내각을 개조, 새 총리가 쁠럭불가담 및 모든 나라들과의 친선정책을 천명

11일 노르웨이에서 총선거 실시(12일까지), 레이버당이 승리

12일 뽈스까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가 프랑스를 방문(14일까지)

13일 에리히 호네케르가 인솔하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 당및국가대표단이 벌가리아를 방문(14일까지)

14일 체스꼬슬로벤스꼬대통령이 웽그리아를 방문(16일까지)

16일 버마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17일 중국에서 핵시험을 진행

18일 적도기네대통령이 웰남을 방문(20일까지) ▶니제르국가수반이 중국을 방문(23일까지)

20일 유고슬라비아사회주의련방공화국 상무위원회회의에서 찌또대통령의 조선, 중국, 쏘련에 대한 방문결과를 찬동 ▶적도기네공화국 대통령을 단장으로 하는 적도기네공화국대표단이 중국을 방문(27일까지), 두 나라 정부사이의 경제및기술협조에 관한 협정 조인 ▶유엔총회 제32차회의 개막, 웰남, 지부티를 유엔성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

21일 국제의회동맹 제64차회의 벌가리아에서 진행 ▶제14차 알제국제시장이 열림, 우리 나라가 시장에 참가

24일 방글라데슈대통령이 애급을 방문(26일까지)

25일 피지에서 국회선거 진행, 선거에서 동맹당이 다시 승리

26일 쏘련의 모스크바에서 국제운수로동자직맹 제7차대회 진행(30일까지)

27일 앙골라대통령이 쏘련을 방문(29일까지)

28일 민주주의캄보쟈 정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주의캄보쟈 당및정부대표단이 중국을 방문(10월 4일까지)

30일 미국의 뉴욕에서 쁠럭불가담국가외교부장비상회의 진행 ▶빠나마정부수반이 유고슬라비아를 방문(10월 1일까지)

10 월

1일 유엔협회세계련맹 제6차총회에서 남아프리카인종주의도당을 이 기구에서 내쫓기로 결정

3일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체스꼬슬로벤스꼬사회주의공화국 대통령인 구스따브 후싸끄를 단장으로 하는 체스꼬슬로벤스꼬 당및국가대표단이 독일민주주의공화국을 방문(5일까지), 친선, 협조및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에 서명

4일 까메룬련합공화국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10일까지), 두 나라 정부사

이의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에 조인

5일 뽈스까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와 내각총리가 웽그리아를 방문(6일까지) ▶모잠비끄대통령이 가이아나를 방문(7일까지)

6일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서 제13차서아프리카보건부장리사회회의 진행(10일까지), 서아프리카보건공동체로 고쳐 부르기로 결정

7일 모잠비끄대통령이 자메이카를 방문(9일까지) ▶알제에서 제1차아랍, 아프리카로조대회 진행(22일까지), 대회선언, 행동강령과 기타 일련의 결의들을 채택

9일 모잠비끄대통령이 꾸바를 방문(13일까지), 두 나라 사이의 친선, 협조및호상원조에 관한 협정에 조인 ▶꽁고대통령이 알제리를 방문(11일까지)

11일 예멘아랍공화국 지도리사회가 성원들을 새로 임명, 무력 부총사령관겸 총참모장인 아흐메드 알가쉬미가 지도리사회 위원장, 무력총사령관으로 임명됨

12일 유고슬라비아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14일까지)

17일 뽈스까인민공화국 내각총리가 벌가리아를 방문(18일까지) ▶꾸바공화국 국가리사회 위원장이 자메이카를 방문(21일까지) ▶ 유고슬라비아대통령이 뽀르뚜갈을 방문(19일까지) ▶일본공산당 제14차대회 진행(22일까지)

18일 탄자니아혁명당 제1차전국대회 진행(20일까지), 전국집행위원회를 선거

25일 국제학생동맹 제12차대회 벌가리아의 수도 쏘피아에서 진행(11월 1일까지), 조선에 관한 결의, 총결의, 아세아결의를 채택

27일 쁠럭불가담나라 방송기관들의 제1차회의 유고슬라비아의 싸라예보에서 진행(30일까지), 회의에서 선언, 행동강령 등을 채택, 우리 나라를 포함한 19개 나라 대표들로 구성되는 쁠럭불가담나라 방송기관들의 협조위원회를 창설하기로 결정

28일 유엔비식민지화특별위원회가 남아프리카의 보스터인종주의도당을 뒤받침해주고있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의 범죄행위를 폭로규탄하는 결의안 채택 ▶알바니아와 모리셔스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음 ▶유엔총회 제32차회의에서 강점된 아랍령토에서의 이스라엘의 <정착촌>건설을 규탄하는 결의안 채택

29일 애급대통령 로므니아방문(31일까지)

31일 애급대통령 이란방문(11월 1일까지) ▶니제르국가수반인 최고군사리사회 의장 알제리방문(11월 2일까지)

11월

2일 꽁고가 200마일령해를 선포 ▶앙골라와 민주예멘이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음

3일 말따총리가 중국을 방문(7일까지)

4일 유엔안보리사회가 남아프리카의 보스터인종주의도당에 대한 무기수출을 금지할데 대한 결의 채택

7일 아프리카통일기구성원국 공보부장 제1차회의 우간다의 수도 캄팔라에서 진행(11일까지), 전아프리카통신사를 창설하기로 결정 ▶자메이카총리가 유고슬라비아를 방문(9일까지) ▶서북아프리카지역에서의 비정상적인 사태와 관련하여 알제리정부 성명 발표

14일 버마사회주의로선당 비상대회 진행(17일까지), 국내정치정세와 당안의 형편에 관한 보고를 토의, 당지도기관을 선거, 위원장으로 우네윈이, 총서기로 산유가 각각 다시 선거됨

15일 국제금속로동자직업동맹 제28차집행위원회 오지리의 윈에서 진행(17일까지), 조선에 관한 결의 채택

16일 기네—비싸우 및 베르데갑제도아프리카독립당 제3차대회 비싸우에서 진행(20일까지), 당규약을 채택, 총비서로 아리스띠데스 뻬레이라가 다시 선거됨

19일 애급대통령 무함마드 안워르 앗 사다트 이스라엘방문(21일까지), 방문기간 애급대통령은 이스라엘지도자들과 일련의 회담 진행, 이스라엘국회에서 연설

20일 웰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당및정부대표단 중국 방문(25일까지)

26일 버마대통령 캄보쟈 방문(29일까지)

28일 아랍아프리카협조상설위원회 제2차회의 애급의 까히라에서 진행(29일까지) ▶뽈스까통일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 이딸리아방문(12월 1일까지)

29일 베네수엘라가 200마일경제수역을 설정할데 대한 법안을 채택

30일 피지가 나라의 수역을 늘일데 대한 법안 채택

12 월

1일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당및국가대표단 웰남방문(6일까지), 두 나라 사이의 친선및협조에 관한 조약과 일련의 협정조인

2일 자이르에서 대통령선거 진행, 모부투 쎄쎄 쎄꼬 꾸꾸 느그벤두 와 자 방가가 대통령으로 다시 선거됨

3일 아랍수뇌자회의 리비아의 따라블스에서 진행(5일까지), 알제리, 수리아, 이라크, 민주예멘, 리비아, 팔레스티나해방조직대표 참가 ▶유고슬라비아대통령 로므니아방문(4일까지)

4일 앙골라인민해방운동 제1차대회 루안다에서 진행(10일까지), 대회는 앙골라인민해방운동을 앙골라인민해방운동—로동당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당의 강령과 규약을 채택, 아고스띠노 네또가 위원장으로 선거됨 ▶중앙아프리카제국황제 보카싸1세의 대관식 진행

5일 라틴아메리카기자들의 토론회 꾸바의 아바나에서 진행(13일까지) ▶모잠비끄대통령 나이제리아방문(10일까지) ▶동수출국정부간 협의회 제12차회의 인도네시아의 쟈까르따에서 진행(7일까지)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아세아지역통신사들의 발전에 관한 전문가회의 스리랑카수도 콜롬보에서 진행(9일까지), 조선중앙통신사대표단 참가

6일 독일사회통일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독일민주주의공화국 국가쏘베트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독일민주주의공화국대표단 필리핀방문(8일까지)

7일 유엔총회 제32차회의에서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결의들을 채택, 또한 로데시아와 나미비아에서의 흑인다수파통치를 지지하는 마뿌또회의 결정들을 승인하는 결정들도 채택 ▶로므니아공산당 전국대표자회 부꾸레슈띠에서 진행(9일까지)

8일 유엔총회 제32차회의에서 남아프리카 보스터인종주의도당의 야수적인 살륙만행을 폭로규탄하는 결의채택 ▶오지리공산당 제23차대회 윈에서 진행, 위원장으로 프란쯔 뮤리가 다시 선거됨

9일 일본사회당 제41차대회 도꾜에서 열림,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아스까다 이찌오가 선거됨 ▶꾸바와 보쯔와나가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음 ▶인도총리 네팔 방문(11일까지) ▶말따총리 알제리 방문(10일까지)

10일 오스트랄리아에서 총선거 진행, 자유당—지방당련합이 다시 승리

12일 유엔총회 제32차회의에서 남

아프리카에 대한 의무적석유수출금지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는 결의 채택

13일 유엔의 전문기구로서 국제농업개발기금 창설, 91개 성원국으로 구성

15일 원유공업부문로조일군들의 국제회의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진행(18일까지)

17일 국제사회당 당수들의 회의 일본 도꾜에서 진행(19일까지), 회의에서 많은 대표들이 박정희괴뢰도당의 인권유린행위를 규탄하고 조선인민의 자주적조국통일위업에 지지를 표시

18일 방글라데슈대통령 네팔 방문(19일까지)

19일 방글라데슈대통령 인도방문(20일까지)

20일 아프리카 사헬지역나라 가물과의 투쟁위원회 성원국수뇌자회의 진행(21일까지), 수뇌자회의에서 부장리사회회의가 제기한 권고안들을 심의하고 해당한 결정들을 채택

31일 웰남사회주의공화국정부 웰남—캄보쟈국경문제에 관한 성명 발표 ▶민주주의캄보쟈정부 세계 5대륙의 민주주의캄보쟈의 멀고 가까운 벗들과 세계여론에 보내는 성명 발표

조선중앙년감 (1978년)

내는곳	조선중앙통신사	평양시 외성구역 오탄동
찍는곳	평양종합인쇄공장	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찍은날	1978년 10월 25일	
낸 날	1978년 12월 5일	

ㄱ—제85216 값 5원 50전